

울주연구 제18호

울주 설화 上

전설편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울주 설화 上

전설편





蔚州 說話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이른다.

전승된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된다는 말이다.

현재 학계에서 설화는 구전되던 이야기가 비석에 쓰인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구비口碑란 용어를 사용하여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으로 통용되고 있다.

발 간 사

적층문화의 진수로 설화를 꼽습니다. 우리는 울주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19로 대면조사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연해 줄 사람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어른들은 이제 세상을 뜨셨거나, 아니면 기억의 언저리만 맴돌 뿐이었는데, 그렇다고 뜻밖의 소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책으로 남겨진 많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실려 있는 문헌설화는 쉽게 구하지만, 일제강점기 울주 출신 영문학자 정인섭이 언양과 상북 등지에서 채록한 30여 편의 귀중한 자료, 1970년대 울산의 대표 향토사학가 이유수, 김석보 등이 저술한 『내 고장의 정기』, 『울산유사』 등은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책들이 울산의 도서관에서 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울주 채집 270여 편의 설화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현장에서 채록한 내용을 가감 없이 수록하다보니 심한 방언이 많아 현대인에게 가독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창작보다 어려운’ 윤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많은 자료 가운데 울주와 관련된 600여 편을 분류하고 다듬어 『울주설화』라는 제호를 달고 상·하 두 권으로 발간하게 되니 뿌듯함이 앞섭니다.

이 자료가 울주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의 도서관과 헌책방을 뒤져 알뜰히 찾아내고, 분류와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도 울주향토사연구소장과 윤문 작업에 정성을 기울여주신 이동환 국어선생님, 해제와 감수를 해주신 문쌍영 문학평론가 그리고 응원해 주신 울주군 관계자와 울주문화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교훈이 가득 담긴 울주연구 제18집 『울주설화』가 널리 읽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울주문화원 원장 노명숙

일 러 두 기

1. 지금까지 조사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를 최대한 모았다.
2. 유형이 같은 내용임에도 구술자의 표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것은 묶어 재해석하거나, 그 출전을 모두 밝히되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3.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어휘를 그대로 옮겨 적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투리는 편자의 기준에 따라 표준말을 ()에 넣거나, 필요에 따라 각주로 설명했다.
4. 글말(문어체)과 입말(구어체)을 같이 쓰고, 높임말을 버리고 예사말을 쓴 것은 옛이야기 특유의 입맛을 살려 읽기 편하도록 다듬었다.
5. 현재 행정구역이 울주군에서 벗어나나, 대부분의 정서가 울주군에 포함 되어 있으면 찾아 수록하였다.
6.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울주군일 경우 수록하였다.
7. 행정구역 조정으로 과거 울주군이었지만, 현재의 복구는 제외하였다.
8. [출전, 구술자, 채록지역, 채록연도] 순으로 매 편마다 표시하였다.
9. 원문에 한자로 표기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었다.
10. 원문의 표기가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집필 무렵의 표현 연구를 위하여 최대한 수용하였다.
11. 전설은 현장이 있으므로 읍·면 별로 분류하였다. 다만, 복수의 읍·면에 걸쳐있을 경우 유사 사례가 많은 쪽에 모아 정리하였다.
12. 전설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그 무렵의 상황을 적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사례가 많다.

책임연구원 Ⅱ 이상도(집필, 운문 및 편집)

보조연구원 Ⅱ 이동환(공동운문)

해제·감수 Ⅱ 문쌍영

울주연구 제18호

울주 설화 上

전설편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목차



해제

016

- 설화에 대하여
- 울주의 설화에 대하여
 - 〈울주 문헌설화〉
 -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에 실린 울주 설화〉
 -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울주 설화〉
- 남는말



전설傳說

046

• 범서읍편

48

선바위와 백룡담
선바위(1)
선바위(2)
선바위(2)
배리골의 애화(1)
배리골의 애화(2)
배리골의 애화(3)
배리골의 애화(4)
배리골의 애화(5)
망성 허(헛)고개
헛고개와 망성
나가소
윤부사의 명판결

• 온산읍편

75

처용랑
처용과 망해사지
처용암과 망해사
처용랑 망해사
처용설화
처용전설
다리가 네 개여라
처용랑의 가무
처용암과 임진왜란
이어덤(1)
이어덤(2)
동백도
춘도와 어부
춘도가 생긴 유래
동백섬
동백섬 기생 익사사건
연자도
조암도
덤돌
절두골(점터골)
이물샘
용방소
의논암
의논암 · 마주돌
흥성 구만

• 언양읍편

139

반구대
반구대 아기 장수
정몽주와 요도의 적소
정포은이 귀양 온 요도
어음리의 지명 유래
행주혈인 어음리
갯비알산에 골이 생긴 사연
살대배기의 지명 유래
화장산 도화
화장산의 도화승
화장산의 유래
화장굴과 신라궁
화장산
화장굴
화장산 전설
화장산 염천
세이제와 소부당
언양 동부리 벽수
송대리의 능골
능골들에 돌이 쌓인 사연
지내리 명칭 유래
돌빼기
한실마을이 못으로 될 것을 예언한 사람
사학골
까꾸당
고하 보를 하루아침에 쌓은 김장군

고하 앞 소나무 숲이 생긴 사연

구수연과 이무기

구수연의 이무기

구수연

구수늪 이무기 퇴치

구수의 이시미 (이무기)

• 온양읍편

189

성인정(1)

성인정(2)

성인정과 고일선사

성인정(3)

옥련정(1)

옥련정(2)

고승 일선

발리의 유래

발리와 탐골의 명칭 유래

도통골

원효대사와 도통골 지명 유래

성지가 잡아 준 명당

성지가 잡아 준 팔도병사 날 묘터

대운산 굴바위

쏟나오던 대운산 양금할머니 샘

대원사의 빈대

홍생원네 대밭의 범

아기장수 바위와 용방소

용방소

혈이 끓긴 산

선돌석

고령 김씨 장군터와 물난리

대문다리

손님 오지 않게 치방하다가 망한 부자

처녀바위와 총각바위

두꺼비 바위

화장산(교장산)

회기꽃과 보드막골

부엉이 바위

검은돌(흑장군)

와천룡

구룡소

떠내려온 산

옥녀봉

남창장에 얹힌 전설

투구봉

선령파묘의 전

시묘등에 관한 전설

이대목 딸 호식당한 전설

원효대사와 탐곡 척판암

● 청량읍편 233

낭지대사와 보현수

낭지승운 보현수에 얹힌 설

영축산신, 변재천녀, 보현수, 문수고개

문수산과 불교

연회대사와 문수고개(1)

연회대사와 문수고개(2)

문수산과 문수보살

문수보살과 지명 유래

빌어 낳은 아들

남암산 신선바위

문수산과 남암산의 지명 유래

산 이름의 유래

원래가 바다였던 마을 주변

영축사

지맥을 잘라 망한 영축사

영축 소혀바위(1)

영축 소혀바위(2)

무거와 김신암

무거동과 혈수정

무거와 김신암

무거동과 문수사의 유래

문수암의 찻간

대마도주등

대천못 전설

아이를 넣어 막은 대천못

수구못

● 삼남읍편 281

작천정

평리 옥바위(옥바위)

문동수네

동네 할아버지

신불산 단조성

신불산의 애환

신불산 바람이야기

● 서생면편 291

꿀다리

양금할망구 반지터

군수대좌형국

장사백

도독동굴

효열리

신선암바위

이덕도

벼락바위 떠덕바위
날지 못한 어린장수

• 웅촌면편

303

운암산 웅 고명
기러기 물먹는 형
곰내 고개와 동네굿
새 모이 먹는 곳
네모산 절(구 불당터터)
광철이
감사남골
양수바닥
두꺼비 바위
외말산
멸양사 터
사또만디
깨골래 미등
산티고개의 바위들
검단분지는 큰 호수였다
멸암바위
뒷고을 원터
수빈당 활빈당 이야기
운흥사 선자암
원효대사와 원적산
원효대사와 운흥사지
원적산
운흥사지
금비둘기
할미당
불탄바위
물 갈래 돌
사타골
삼제
목짚래기

발마당(말마당)
방아다리
행지골
주개등과 진풀갓
담 안에, 담 밖에
당고개
야당만디
소똥엿
배음봉 발치
삼각점산
도장골과 영장골
삼학골(삼마골)
솔베기지골
원고개, 대문 밖, 외살피
송지 말리
밀발재
파구미
부채골
굿바위
온양고개
누부 밥아(누나 밥아)
가마바우
옥수골
잠두형
능골 도랑
백사선생님과 두산 아재
우불선생
호식 안샘
탱자나무
중대 김씨 산소 이야기
당고개
벌바우 주막
애기씨골
대복동외
차장군

아랑 영감 물기 돌
장자못
황어수 보와 황포수
돌 들것 낚시루와 병영
대창과 돌망태
미타굴
금수
돌무더기 무덤
석천 제당
칠성바위
우불산신사에 얹힌 설화
왜시등과 우불신사
이씨와 국풍 이야기
붕어형의 집터
김씨 술 이야기
통천제당 이야기
어사 박문수 이야기
깊은 다리와 서장군

● 두동면편 376

내물왕(나밀왕)과 김(박)제상
치술령 망부석
박제상과 망부석
치술신모 설화
치술신모와 망부석
치술령의 유래와 망부석 전설
치술령 전설
은을암
은을암 쌀바위
국수봉의 지명 유래
이여송이 혈을 끊은 종글방구
호랑이로 둔갑하는 왕선달
허고개
웅치사

왕선달과 축지법
여나산곡(1)
여나산곡(2)
통일 소나무
장천사의 폐망
보덕굴 절터
불선바위
병사등
바골못을 막고 망한 박씨네들

● 두서면편 431

열박산과 김유신
활천 박효자
활천박씨 충효비
활천의 충효비(1)
활천의 충효비(2)
천마산 백병바위
복안 옥로승 전설
동오배(동오벼)
훈귀석 흥두께바위
호식과 명당
호랑이(범)를 잡은 설화

● 상북면편 455

세이지와 시웃골(세이곡)
가솔갑사
가지산 쌀바위(1)
가지산 쌀바위(2)
가지산 쌀바위(3)
쌀바위
쌀바위와 욕심
고함산
혈을 끊은 말등재

소아풍년

열녀 정씨와 호묘(1)

열녀 정씨와 호묘(2)

열녀 정씨와 호묘(3)

열녀 동래 정씨와 호묘

열녀 광주 노씨

거리 걸어온 독뢰산

거리 동뢰

동뢰산은 밀양의 땅

동뢰산(일명 밀양산)

여근곡

부자암(1)

부자암(2)

과부성

홍류폭포

천전석불(1)

천전석불(2)

천전석불과 군포

심종태 바위(1)

심종태 바위(2)

배내 심종태바위

심종태 바위와 의적

신불산의 산신령

길천리 소목골

소목골

소목골의 정절

소못골 전설(1)

소못골 전설(2)

살구정 돛대

못안못의 잉어

고현산 우레들

태화사지와 자장율사

갈미봉 유래

• 삼동면편

520

축선사

물막곡과 구늬소

수원 백씨 문중

암리 마을의 수구지

어사 솔배기

암리 마을의 말 바위

우룡소와 이심이

향림사

말랑 마을 형성의 전설

정족산의 붓골재

당수나무와 구렁이

김동지 이야기

사등

중리 마을의 말바위

줄 서나무에 얹힌 이야기

청룡등의 수리고개

까치와 까치샘

애기장수와 용마

작동리 애기 장수

청룡등과 용마

작동의 아기장수와 청룡등

문수산 명포수

박포수에 관한 설화

호사한 열부

당고개의 처녀귀신

하작 마을의 범골

대소의 길 싸움

문수산과 박포수

산성택의 화적떼 칼자국

해 제

—



『울주설화』 발간에 부쳐

문 영(시인, 문학평론가)

● 설화에 대하여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이른다. 전승된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된다는 말이다. 현재 학계에서 설화는 구전되던 이야기가 비석에 쓰인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구비^{口碑}란 용어를 사용하여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으로 통용되고 있다.

설화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구전된다는 데 있다.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唱曲}이 아닌 말로써 이루어지며 일정한 줄거리인 이야기 구조로 전승된다. 설화를 말하는 화자^{話者}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기억하여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이야기 구조를 기억하고 거기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서 전승하게 된다. 따라서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이 점이 구조와 표현에 있어서 복잡성과 특수성을 갖는 소설과는 다른 점이다.

설화의 또 다른 특징은 율격(리듬)을 가지지 않고 보통의 말로써 구연되기 때문에 산문적 속성을 지닌다. 규칙적인 율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 줄거리를 노래로 부르는 서사민요, 서사무가(무속), 판소리와 구별된다.

설화는 노동요나 무가, 가면극과 판소리처럼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구연^{口演}할 수 있는 것이 설화이다. 또한 설화를 말하는 이(화자)는 자격 제한이 없다. 누구나 들은 이야기를 옮길 수 있다. 누구나 설화의 이야기꾼(화자)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설화는 수수께끼와 속담 등과 함께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는 구비문학이 되었다.

민간에서는 설화라는 용어 대신에 ‘옛(날) 이야기’ 혹은 ‘고담古談’, ‘야담野談’ 또는 ‘전설傳說’, ‘민담民譚’ 등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 ‘고담古談’, ‘야담野談’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설傳說’, ‘민담民譚’은 설화의 하위 분류 가운데 하나인 전설과 민담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화의 대치어로는 부적당하다.

설화의 분류는 시대와 장소,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신화神話(myth), 전설傳說(legend), 민담民譚(folktale)의 3분법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 셋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神話 : 전승자의 태도에서 신화의 전승자는 신화를 진실되고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아 꾸며낸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있어도, 신화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 이전에 또는 일상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존재한다고 믿고 그 진실성과 신성성을 의심하지 않을 때 신화는 신화로서의 생명력을 갖는다. 진실성이 있다고 해도 신성성을 상실하면 신화가 아니다. 신화에서 시간은 아득한 옛날이나 태초太初이며, 장소는 신성한 곳이다. 그리고 신화에서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다. 천지창조 신화에서 증거물은 천지이고, 국가창건 신화에서 증거물은 국가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나 영웅이다. 그러나 보통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자란 의미이지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신화는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고 전승될 때 생명력을 가진다. 신화의 대표적인 예로 단군신화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나 박혁거세 신화를 들 수 있다.

전설傳說 : 전설은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진실되었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전설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설의 진실성은 끊임없이 의심된다. ‘사실이 아니고 전설일 따름이다.’라는 말이 가능하나, 전설은 사실로서의 근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물이 이를 입증한다. 전설에서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다. 전설의 증거

물은 자연물인 경우도 있고 인공적인 경우도 있고 인물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나 전설을 떠나서도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전설은 이러한 증거물을 가짐으로써, 이미 알려진 근거에 호소해 진실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유래나 특징을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며, 증거물이 실재하니 이야기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꾸며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전설은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가진다.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는 없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이 증거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기 장수 바위 전설’에 나오는 바위는 일반적인 바위가 아닌, 아기 장수가 탄 말이 발굽을 남긴 특정의 개별적인 바위라는 증거물이다. 알바위라든지 거북바위 등도 이러한 예가 된다. 전설이 민담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증거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증거물을 상실한 전설은 전승이 중지되거나 민담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전설이 갖는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전설의 주인공은 구체적이며 역사적 인물로서, 그의 행위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던 관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설의 주인공은 신화나 민담의 주인공보다 왜소하며, 예기치 못했던 관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인간보다 사물이 중심이 된 전설도 있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는다. 한 지역의 전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알려져 있고 지역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구실을 한다.

민담民譚 : 민담의 전승자는 민담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민담은 신성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의 전달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흥미를 주기 위해서 구연된다. 그리고 민담에는 뚜렷한 장소와 시간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냥 ‘옛날 옛적에~’라고 함으로써 막연하게 제시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민담은 이야기 그 자체로 완결되며 증거물이 필요치 않다. 증거물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전설처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거물이 아니다. 그냥 이야기의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등장하는 증거물이다. 그 증거물 또한 현재 남아 있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피우던 담뱃대’가 나오는 민담에서 ‘담뱃대’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물이다. 민담의 주인공이 비록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심리상태는 일상적인 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체적으로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 인물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 구연된다. 그리고 민담의 전승 범위는 어느 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깨비에 관한 민담은 어느 나라에도 있다. 도깨비 이야기는 누구나 흥미를 가지는 민담이다. 그러므로 민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흥미성이다.

※ 참고 : 이 부분은 일반인들의 설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대학 때 강의 교재로 사용했던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공저 『구비문학개설』에서 부분 발췌, 인용하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40년여 전 당시 강의는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인 조동일 교수였다.

● 울주의 설화에 대하여

울주의 설화를 정의한다면 지역적으로 울주에서 파생되었거나, 울주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전승자가 울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비전승되는 설화이다. 시간적으로는 고대부터 구비 전승되는 울주 설화를 이른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다른 지역의 설화라도 울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모든 설화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울주의 설화가 많이 실려 있는 대표적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의 문헌 설화, 정인섭이 채록하여 실은 『한국의 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울주 설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울주

문헌설화

설화는 글로 적어도 변질될 가능성이 적은 탓에 문자로 기

록되는 경우가 흔하다. 문자로 기록된 설화를 사화史話 또는 문헌설화라 한다. 현재는 사화라는 말보다는 문헌설화란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문헌설화는 구비전승되는 기능을 잃어버린 탓에 이미 설화가 아니다. 하지만 문자로 정착되기 전에 구전되었고 설화로서의 구조와 표현이 의식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설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울주의 문헌설화로 대표적인 것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이다. 이 책에는 많은 양의 울주군 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널리 알려진 박제상과 치술령 설화, 처용과 망해사 설화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제상 朴堤上과

치술령 鷄述嶺 설화

1) 박제상 설화

『삼국사기』열전列傳 박제상조朴堤上條의 기록에 의하면, 박제상은 신라시조 혁거세赫居世의 후손으로 제 5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의 5대손이며 할아버지는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 아버지는 파진찬波珍湊 물품勿品으로 그 당시 박제상의 벼슬은 삼량주(叡良州: 양산) 태수로 있었다. 앞서 18대 실성왕實聖王은 왕이 되기 전에 17대 내물왕에 의해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어 졌다. 이런 원한 때문에 실성왕 1년 임인년(402)에 내물왕의 셋째 아들인 미사흔未斯欣을 왜국으로, 내물왕의 둘째 아들인 복호卜好를 실성왕 11년 임자년(412)에 고구려로 인질로 보내었다. 19대 눌지왕(訥祗王: 내물왕의 첫째 아들이자 미사흔·복호의 형)이 즉위하자 두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 군신들과 협의한 결과 박제상이 천거되었다.

이에 박제상은 눌지왕 2년 무오년(418)에 고구려에 들어가 왕을 언변으로 설득하여 복호를 구출하여 무사히 신라로 돌아 왔다. 귀국하자마자 왕의 간청으로 부인의 만류도 뿌리치고 울포粟浦에서 배를 타고 왜로 떠나갔다. 왜국으로 들어간 박제상은 참언과 책략으로 왜왕을 속이고 미사흔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그는 붙잡혀 목도木島에서 불에 태워

지는 참형을 받아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눌지왕은 크게 애통하며 그를 대아찬大阿湊으로 추증追贈하고, 그의 둘째 딸을 미사흔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삼국유사』기이紀異 내물왕奈勿王 김제상조金提上條의 기록을 보면, 17대 내물왕 36년 경인년(390)에 왜왕 사신이 백제의 죄를 고하면서 왕자 한 명을 파견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왕이 셋째 아들 미해美海를 보냈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박사람朴娑覽을 부사로 함께 보내었다. 30년 동안을 돌려 보내지 않고 있었다. 또 19대 눌지왕 3년 기미년(419)에 고구려 장수왕이 화친을 구실로 내물왕의 둘째 아들이자 눌지왕의 아우인 보해寶海의 파견을 간청함으로 이에 내신 김무알金武謁을 함께 파견하였으나, 장수왕이 또한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10년 을축년(425)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백관들과 의논한 결과 김제상이 파견되었다. 이에 제상은 고구려에 변복을 하고 들어가 보해를 데리고 고성해변으로 해서 무사히 탈출하여 귀국했다. 왕이 또한 왜에 있는 미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림으로 이에 제상은 집에 들리지도 않고 울포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달려 왔으나, 제상은 손만 흔들고 배를 저어 왜국으로 갔다. 왜국에 도착하여 “계림왕이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부형을 죽였기에 도망해서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행동으로 왜왕의 믿음을 산 후에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 미해와 계림 사람 강구려康仇麗를 탈출시킨다. 제상은 남아 있다가 왜왕의 회유와 협박,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가 되고 싶지 않다고 버티었다. 이에 왜왕은 그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고 목도에서 불태워 죽였다. 미해가 돌아와 강구려를 시켜 그 소식을 아뢰니 왕은 놀라고 기뻐하며 역관을 굴허역屈歟驛에 가서 맞게 하였다. 그리고 왕은 아우 보해와 함께 남교南郊에 가서 그를 맞아 대궐로 들어와 잔치를 베풀고 나라 안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리고 제상의 아내로 국대부인國大夫人을 삼고 그 딸은 미해의 부인으로 삼았다.

처음에 제상이 신라를 떠나갈 때 그 부인이 듣고 따라가다가 따르지 못하고 망덕사 남쪽에 주저앉아 길게 부르짖었다 하여 그 모래를 장사長沙라고 하고, 그 친척이 부축하여 돌아오려 하자 부인이 다리를 뺀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여 그곳을 벌지지伐知旨라고 했다. 오랜 뒤에도 부인은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세 딸을 데리고 치솔령에

올라가 왜국을 보고 통곡하다가 죽어서 치술신모鵄述神母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사당이 있다.

이 두 문헌을 비교해 보면 전체 중심 내용이 제상의 활약상과 애국 충절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인물의 이름부터 달라서 『삼국사기』에는 박제상朴堤上·미사흔未斯欣·복호卜好인데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김제상金堤上·미해美海·보해寶海로 되어있는 것과 『삼국사기』에는 인질로 『삼국유사』에서는 예방禮訪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제상의 성과 명칭에 대해서는 『경남도지(하)』제11편 제2장 인물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제상은 지금의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출생으로, 그의 출생지에는 지금도 그의 후손이라고 전하는 박씨가 살고 있으니, 박씨로 봄이 타당하겠다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제상堤上’도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아니라 출신신분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증거로 진평왕眞平王대 축조된 경주 남산의 신성비문新城碑文 중에 제상, 면제상面堤上 등의 이름¹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의 출신 신분에 수반된 이름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벼슬 이름도 『삼국사기』에서는 삼량주간歙良州干으로, 『삼국유사』에서는 삼라군태수歙羅郡太守로 되어 있다. 주간州干이나 태수太守는 모두 현재의 군수 정도의 직명이다. 하여튼 박제상은 당시 양산지방 소부락의 우두머리였음에 틀림없다. 또한 제상이 왕자를 구출하고 돌아오는 과정과 연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²

사실 자체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삼국사기』가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르나, 내용의 구체성이나 설화적 측면에서 볼 때 『삼국유사』가 훨씬 풍부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삼국유사』내물왕 김제상조의 결미에 기록되어 있는 제상 부인의 죽음으로 인한 치술신모 전승설화가 설화적인 증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2) 치술령鵄述嶺 설화

박제상 부인의 죽음은 치술령을 중심으로 망부석과 은을암, 신모사 등의 설화적 증거

1. 『경남도지(하)』, 1963, 제11편 제2장 인물, 737쪽-738

2. 소재영, 1971, 『제상설화논고』, 국어국문학 통권 53호, 397쪽-398쪽

물을 남겨 놓았다. 구체적으로 『울산 읍지』고적조古蹟條를 보면,

망부석望夫石은 치술령 산정에 있으니 눌지왕 2년에 박제상이 왜국에서 죽음에 제상 부인 김씨가 슬픔과 원한을 이기지 못해 두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서 왜국을 바라보고 죽으니 몸은 바위가 되고 혼은 새가 되었다 한다. 혹은 말하기를 장녀 아기阿寄와 셋째 딸 아경阿慶은 모두가 통곡하다가 죽고, 둘째 딸 아영阿榮은 혼자 살아서 말하길 내마저도 만약 따라 죽으면 누가 내 어머니와 자매들을 물어줄 것이며, 또 누가 내 동생 문량文良을 양육할 것인가 하고 돌아와 말한 바를 쫓았다. 지금도 망부석 좌·우에 두 개의 바위가 있으니 이것은 두 딸의 몸이 돌이 된 것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부인의 지기석支機石이라고도 한다.

은을암隱乙巖은 망부석 동쪽 십리에 있으니 속전俗傳에는 박제상 부인의 혼인 새가 바위틈으로 날아가 숨었다 하니 지금도 바위굴에는 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신모사神母祠는 일명 충렬사니 은을암 위에 있다. 박제상과 제상 부인을 제사 지내며 신라시대 세운 것이라 한다.

치술령은 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과 경주시 외동면과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765m이다. 여기에 있는 망부석은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 90호(1988.12.23)로 지정되었으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에 소재하고 있다. 은을암은 국수봉菊秀峰에 있는 바위 이름이며 그 앞에 은을암을 세웠다.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90호(1988년)로 지정되었고, 소재지는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이다.

특히 치술령 신모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 경주부慶州府 사묘조祠廟條에도 보인데(여기에서는 사당이 치술령 산정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박제상의 죽음에 못지 않게 부인을 산신으로 신화화하여 추앙되고, 오래도록 사당에서 봉사奉祀되고 있다는 이 같은 기록은 주민들이 박제상 부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신앙심이 강조된 현상을 뜻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치술령 설화는 역사적 사실인 박제상의 행적과 죽음에다 부인의 죽음이 덧붙여 된 박제상 설화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설화의 화소話素는 부인의 죽음인데, 이를 통해 각각 개별적인 치술신모 설화와 망부석 설화와, 은을암의 지명 설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복합적인 내용을 가진 치술령 설화가 된 것이다.

치술령 설화의 한 연구자에 의하면 제상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망부석이 된 것은 주민들이 부인의 정절을 찬양한 것이고, 치술신모가 되었다는 것은 정절의 찬양과 아울러 주민들의 신앙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부인과 딸이 새가 되었다는 것은 새가 되면 남편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 하고, 그 증거로 은을암을 제시하고 있다.³ 그러나 망부석의 ‘돌’과 치술신모의 ‘산신’, 은을암의 ‘새’의 상징적 속성을 들어 설명한 이 같은 해석도 역사적 사실인 박제상과 부인의 행적에 바탕을 두고, 치술령이라는 구체적 공간에서 일어나 설화화 되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치술령 설화는 역사적 사실史實인 박제상의 호국 충절과 부인의 정절, 딸의 효성, 만남과 이별에 의한 남·여 간의 애정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설화로 형성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대 사회의 윤리관과 애정관을 비롯한 가치관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또한 이러한 설화를 현재까지도 민중들이 수용하고 전승함⁴으로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용處容과

망해사望海寺 설화

처용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연구는 《처용학》을 이룰 만큼 방대하다. 처용이라는 인물부터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처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만큼이나 여러 가지 연구 방법과 해석이 행하여 졌다. 즉, 어학적 해석을 비롯해 문학적, 민속학적, 설화 문학적, 역사적, 연극학적 심지어는 정신분석학적 방법까지도 동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용과 처용에 관련된 처용가나 설화들은 온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처용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3. 최래옥, 1981,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19쪽-121쪽

4. 정상박·유정목, 1986,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경남 울주군 두동면 설화 no4

조동일·임재해, 1986,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경북 월성군 외동면 설화 no46, 84, 88, 97

잡고 있는 원형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처용에 대한 연구와 현황은 울산 문화원에서 나온 『처용연구논총』⁵에 잘 소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설화적 측면에서 개운포 지명설화와 울주군에 위치한 망해사 연기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處容郎 望海寺條에 의하면,

제49대 현강대왕 때에는 서울(경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연하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으며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고, 바람과 비가 사시사철 순조로웠다. 어느 날 대왕이 개운포開雲浦에 가서 놀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물가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이 가상히 여겨 좌우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이오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했다.

이에 왕은 일을 맡은 관리에게 명하여 용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절을 지으라 했다. 이 명령이 내려지자 이내 구름이 개고 안개가 흩어졌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 했다. 동해의 용은 기뻐 하며 이에 일곱 아들을 데리고 임금의 앞에 나타나서 덕을 찬양하여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아들 중 한 명은 임금을 따라 서울(경주)에 들어와 정사를 도우니 왕은 그의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아내를 삼게 하여 머무르게 하고 또 급간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처용의 아내는 몹시 아름다워서 역신疫神이 그녀를 사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남몰래 함께 잤다. 처용은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자는 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 셋일러라
둘은 내 해인데 둘은 뉘 해인고
본디 내 해이건만 빼앗겼으니 어찌할꼬

5 김동욱 · 황패강 · 김경수 편, 1989, 『처용연구논총』, 울산문화원 참조.

이때 역신이 본모습으로 변하여 처용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제 범했으니 그대는 노여워하지 않으시니 나는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서하건대 이제부터는 그대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했다. 이 일로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 드릴 수 있었다.

왕이 서울로 돌아오자 곧 영취산 동쪽 기슭 경치 좋은 곳에 절을 세우고 망해사望海寺라고 했는데, 또한 신방사新房寺라고도 했으니 이것은 용을 위해서 세운 것이었다.

------(후략)-----

처용설화는 내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용의 조화에 의한 구름과 안개가 왕이 절을 지으라 명하니 구름과 안개가 흩어졌고,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라 했다는 부분으로 불사佛舍 연기설화와 개운포 지명설화가 들어 있다. 둘째 부분은 동해 용왕의 출현과 가무했다는 내용으로 용신 신앙과 더불어 처용이라는 인물을 신성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용과 관련하여 불교의 호국신앙으로 보는 견해⁶와 용의 아들인 처용의 무속적 연기설화가 도교 계통의 용신과 결합한 복합설화⁷라고 하는 견해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셋째는 처용의 행적과 처용가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받아 드린다.’는 벽사진경辟邪進慶, 역신구축疫神驅逐의 내용으로 주술성과 무속성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이 처용가의 문학적 해석과 더불어 민속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넷째가 망해사 연기설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처용설화는 망해사 연기설화⁸와 개운포 지명설화를 비롯하여 용신신앙, 벽사진경의 역신구축, 무속적 신앙과 주술성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복합설화이다.

물론 처용설화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현강왕 행차시 안개와 구름을 거둔 동해 용왕의

6. 황패강, 1963, 「처용가고」, 국어국문학 통권 26호, 368쪽-369쪽

7. 김동욱, 1981,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54쪽-155쪽

8. 서대석, 「처용연구논총」, 앞의 책 198쪽 재인용

출현과 조화, 가무와 처용의 행적, 처용가, 벽사진경의 주술성과 무속성 등이다. 그리고 여기에 삽입 부가된 부분이 개운포 지명설화와 망해사 연기설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역사적 사실인 대왕암-감은사-석굴암과 같은 유형을 띤 처용암-망해사-영취산이라고 하는 구체적 공간적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처용설화에 대한 신뢰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이 지역 출신 민속학자 송석하는 『진단학보震檀學報』 제2권에 서 처용설화는 망해사 연기설화와 벽사진경 관념 및 신라 화랑도 찬양관념을 포함한 복합설화⁹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후의 연구에서도 망해사 연기설화와 개운포 지명설화가 처용설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 같은 사실이 앞에서 언급한 황패강, 현용준 등 앞의 글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부분의 삽화가 내용의 구조상 삽입 부가된 것으로 줄거리와는 유기적 관련성이 없다고 본 서대석도 앞의 같은 글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에서도 처용설화는 개운포라는 지명과 망해사라는 사원의 공간적 증거물을 차용하고, 현강왕대라는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설화¹⁰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열규 교수 또한 「처용설화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토론에서 처용전승(설화)은 용신의 아들로써 표상되는 처용이 역신을 퇴치하는 의무巫 주술사 및 무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에 행한 얘기(1)가 불찰연기설화(2)와 교차되어 있음에 복합성의 정체가 되어 있는 것¹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처용설화를 제의상祭儀上 가무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장주근 교수도 「처용설화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처용설화는 장르상으로 볼 때 연기담緣起譚 부류의 전설로 윤색되어 신화와 전설의 혼합물이라고 본다. 즉 망해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망해사 연기설화는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개운포라는 지명도 발생한 다음에야 그 지명이 연기설화로 형성된다. 그래서 실제 사실인 망해사, 개운포, 현강왕 등 전설 본질의 일면인 반사실성을 발판으로 해서, 동해용왕 그리고 민간전승의 처용설화 등 전설 본

9. 송석하, 1979, 「처용무, 나레, 산대극의 관계를 논함」, 『한국민속자료(1)』, 139쪽-140쪽

10. 서대석, 「처용연구논총」, 앞의 책 152쪽 재인용

질의 한 면인 반비사실성들이 동원되어 서로 연결되면서 형성된 것이 『삼국유사』소재의 처용설화이자 망해사 연기설화이다¹²가 그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처용설화는 험강왕, 망해사, 개운포, 처용 등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이 전설화되고 용신 숭배사상과 역신구축의 주술성을 가진 노래와 가무 등과 합쳐지면서 복합적 설화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그것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개운포 지명설화와 망해사 연기설화 등의 구체적 증거물을 가지고 노래와 춤 등을 통하여 구비 전승되고 기록됨으로서 한국인의 생활 풍속과 심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에 실린

울주 설화

울주군 언양 출신 정인섭鄭寅燮(1905~1983)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의 설화 43편을 채록하고 수집하여 『온돌야화』(일본어판, 1927년)를 펴냈다. 이 책은 한국인에 의해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설화집이다. 『온돌야화』는 우리 민족이 주로 온돌방에서 옛날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붙여진 책명이다. 이후 정인섭은 『온돌야화』를 근간으로 하여, 화자를 보완하고 내용을 신화, 전설, 민담, 우화, 고전소설로 분류하며 56편의 설화를 보충하여 총 99편을 수록한 영문판 『Folk Tales from Korea』를 1952년 영국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설화를 국제적으로 소개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자료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문판 『Folk Tales from Korea』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 『한국의 설화』(역자: 최인학/강재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년)이다.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에는 1910년대부터 1940년에 걸쳐 그가 직접 채록한 울주 설

11. 김열규, 「처용연구논총」, 앞의 책 364쪽 재인용

12. 장주근, 1963, 「처용설화의 연구」, 국어교육 제6호, 25쪽

화가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99편의 설화 중 고전소설 3편을 빼고 나면 실제 채록한 96편 가운데 30편으로 약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 양이다.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는 설화 연구에 귀중한 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우리말로 채록한 원래 자료가 없고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우리말로 번역되었기에 전승자 고유의 말인 방언을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구비문학에서는 전승자(제보자)의 언어가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두 번째는 지역민으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 설화를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여 전한다. 전승자는 식자층보다는 지역 토박이의 이야기를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식자층은 설화의 내용을 개작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의 설화』 중 울주에서 채록된 설화 중 신화로 분류된 〈불개〉, 〈과〉 2편을 소개한다. 여기서 〈과〉는 신화라기보다는 민담에 가깝다.

불개

하늘 아래 세상에 나라가 많은 것처럼 하늘에도 나라가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암흑의 나라 즉, 가막나라(까망나라)라 불리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백성들은 사나운 개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 그 개들은 불개로 알려져 있었다. 그 나라의 임금의 무엇보다도 나라가 너무 어두운 것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그의 개들을 인간세상의 해와 달을 훔쳐오라고 보냈다.

아주 옛날에 임금은 그의 개들 중에서 가장 사나운 불개를 불러 해를 훔쳐 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불개는 떠나서 해를 입으로 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뜨거웠다. 계속해서 달려들어 해를 물고 또 물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고,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임금은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고 개를 마구 꾸짖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나운 개에게 시켜 달을 훔쳐 오라고 했다. 임금은 달이 해만큼 뜨겁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달은 해만큼 많이 빛나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가 달을 물려고 할 때, 그것은 너무 차가워 입이 얼어버렸다. 개는 반복해서 이빨로 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리고 두 번째 불개도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암흑 나라의 왕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종종 그의 불개들이 해와 달을 무는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

우리는 일식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눈부시게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야의 물에 해가 반사되어 검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월식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물의 검은 표면에서 불개가 해를 물고 또다시 그것을 내뱉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정택하鄭宅夏, 언양, 1912]

파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 사람이 사람을 먹곤 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인간이 종종 소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잡아먹기 위해 죽었던 것이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가 떠돌다가 만난 문둥병자가 그에게 방랑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 끔찍한 곳이 싫소. 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찾아 가는 길ियो.” 문둥병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찾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나 똑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충고하오.” 그때 나그네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돌아 갈 수 없고, 만약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문둥병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은 당신은 파를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파를 먹는다면 이전에 황소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집에 다다르자마자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명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들 하시오. 참으로 오랜만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이 황소의 울음소리는 매우 희한한데.” 그리고 바로 그를 붙들었다. 그는 매우 놀라서 말했다. “안돼! 난 황소가 아니야. 난 당신들의 친구고 내 이름은.....” 하지만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에게 말했다. “이 황소는 너무 운단 말야. 시끄럽지 않아? 당장 죽이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뚝에 뚫었다.

마침 그때 머리 위에 광주리 가득 파를 인 어린 여자 아이가 지나갔다. 그는 애써 용케 파 하나를 가로채어 삼켰다. 그는 파를 먹는 즉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당신이로군. 우리의 친구 참으로 미안하구료. 우리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파의 힘에 대해 말했고 그것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 날로부터 사람들은 파를 먹기 시작했고 그 후로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로 잡아먹지 않도록 파 재배가 정려되었다고 한다.

[정택하. 언양. 1915]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울주 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5책(자료집 82책, 부록 3책)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여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 조사 작업이, 간행은 1980년~1992년에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동안에 실제로 채록이 행해져 보고서가 간행된 시군 지역과 대상지역 숫자(괄호 속 숫자)를 대비해보면, 서울 도봉구 1(1), 경기 11(25), 강원 9(23), 충북 6(12), 충남 6(17), 전북 8(17), 전남 9(26), 경북 14(30), 경남 10(27), 제주 4(4), 총 78(182)개 곳으로, 총 대상지역의 대략 40%가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서에 수록된 자료의 총량은 설화 1만 4,941편, 민요 5,922편, 무가 375편에 달한다.

필자도 1978년에 조사팀(조동일 교수팀)에 참여하여 당시 경주 월성군 내남면(현 경주시 내남면) 지역의 자료를 채록하였다. 당시 우리 팀이 채록한 ‘아기 장수’ 설화는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받아 이 책에 실렸다. 그런데 조사 나가기 전에 ‘구비문학 조사방법’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았고 ‘채록 조사카드’를 여러 장 준비하여 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처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자료의 조사 자체가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사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안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는 자료집이다. 또한 채록이 지침서에 의거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행해

졌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각 권은 우선 시군별 지역 개관에 이어 동면별 조사마을 개관, 제보자 설명이 있고, 본문은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각 자료는 순번과 녹음테이프 번호에 이어 조사장소, 연월일, 조사자 이름, 제보자 사항(이름, 성별, 연령)이 우선 제시되고, 자료의 제목 다음에 조사상황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본문이 나온다. 매권 말에는 자료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필자가 속한 우리 팀도 채록한 자료를 순번에 따라 내용을 정리, 기록하고 채록한 녹음테이프와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자료의 본문은 될 수 있는 한 발언 그대로 적되, 방언이나 제보자의 부연설명·반복구연 등도 그대로 채록하고 있다. 나아가 화자나 청중의 태도나 개입까지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구절 등에는 주를 붙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경남편에 실려 있는 울주군 자료는 총 498건이다. 이 중 설화가 34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민요가 152건이고, 무가는 2건이다. 여기서는 지역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울주군 지명설화 몇 편을 소개한다.

두동면

전설

치술령 전설

[최해규]: 참 한국서, 요새 말로 조선서는 마 뭘 두서가 없어가 난리로 지기고 할 때, 임금이 쫓기 드가가 쫓기 나오고 할 그 시대에, 참 저게[청중들에게]그 무슨 대사라 켜노? 그 대사가 여어 몬 견더가 내외를(부인을) 놔 두고 저 일본 대마도로 갔다 카데. [조사자에게]대마도가 우리 조선땅 아입니까? [조사자: 지금 일본땅이지요.]지금 일본 땅 됐읍니까? [조사자: 예.]대마도로 건너 가면서, 이런 전설이 있대, 대마도로 건너 가면서는,

“도저히 나는 여어서 견딜 수가 없으이.”

처를 보고, 처를 보고,

“나는 가서 성공을 하며 돌아올 끼고, 성공을 몬 하면 내가 영원히 다시는 올 수가 없으
이, 내가 가서, 내가 가는 데가 어텐고 하이, 대마도로 건너 가이 대마도로 가가지고, 구
름이 떠가지고 누런 구름이 떠올라 오거등 날 산 줄 알고, 그라이며 죽은 줄 아라꼬.”

그래 보내 놓고, 하, 이 부인네가 기다리이 뭐 소식도 없지 인자. 매일 저 저 그 셋째 방
구, 방구 만댕이에 올라가가 천날 만날 내리다보고 있다. 낸중에는 마 노란 구름이 동동
동동 뒸다. ‘아하, 죽었구나.’ 그래가 마 비조飛鳥, 새 조鳥썸, 그 무신 자고? [청중 : 그기
내나 박제상 이야기 아인교?] 그래 박제상 이야기다. 은을암隱乙庵 카는 그거…. [바람
이 몹시 불어서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려웠다.] 영혼이 되가지고 그기 새가 되가 날아 와
가서는 은을암 절에 드갔다 카데. [청중 : 그 은을암 절로 드갔다 카데.] 은을암 절 그 방
구 틈에 드갔다 카데. [청중 : 예, 방구 새(사이)에][조사자 : 무슨 암예? 월연암?] 예,
은을암. [청중 : 은을암 절이라꼬 있어.]

그래 원혼이 되가 마…. 인자 기히(이미) 남편이 죽었으이 그 인자 말하자며 생가 되가
날아 간 뒤에, [청중들에게] 거어 짓기로 이전에 박제상 그 그 어른 때 지었다 카제?
[청중 : 으어(아니), 저 저 전설이 그거 아이고 일본 사신 드갈 때.] 일본 사신, 그래 일본
사신 드갈 때. [청중 : 대마도로 가는기 아이고 일본 바로 사신을 가는데.] 대마도로 드
갔다 카더라.

[최돌이] : 그 가먼, 사신이라 카며 바로 마 참 죽을 사(死)썸을 이마뻘에 붙이고 가는
긴데, ‘그 내가 죽어가 오나, 다시 고국을 돌아오나?’ 카는 그거 인자 그 양단, 양단간兩
端間이까네, 그 부부가 인자 참 영원히 인자 마 이별이 되나, 다시 만나 지나, 그래서 그
그 저 저 갈 때, 그 부인이, 박제상씨가 갈 때,

‘내가 누런 구름이 떠가 있거들랑, 동쪽을 향해가지고서는 노런 구름이 떠가 있으면 죽
지 안 했고, 검은 구름이 올라오며 내가 죽은 줄 알아라.’

그래가 인자, [조사자 : 자기 부인한테다가?] 부인잘에. 저 치술령 산만당아山頂에 가
며 망주석이라꼬 있어요, 바우가 이름이 바렐 망똥자, 돌 석石자, 망두석이라 카는 방구
가. 그 방구에, 만날 그 방구 우에 가가 딱 기다린다. 참 그 동쪽에 아직 일찍 가가 보이,

하리는 마 검은 구름이 썩 올라오거등, 내에 누른 구름이 있다가. ‘아 인자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인정이 아주 놀랐었던 모양이지. 그 망두석 바우에서 떨어져서 참 사망을 당했다. 죽고, 뒤에 이양(이내) 원혼이 인자 새가 되가지고 날아 나갔다. 이런 전설이 있지요.

있는데, 그거 인자 새가 어더로 갔노 하며, 인자 옷발 비조飛鳥라키는 데가, 이 마실, 동네 이름이 요오 넘어 가며 옷발 비조 카는 데가 있어요. 인자 비조라꼬, 와 옛날에 그 마실 이름을 비조라꼬 지았노 하며, 그 인자 날 비飛짜에 뭐라 카더라? 뭐 우리야 뭐 들어도 [웃음][조사자 : 새 조鳥짜겠지요.] 조짜, 그래 날 비짜 새 조짜 그래 비조다. 그래가 비조로 날라가가지고 그 은을암 절 방우 틈으로 드가 드갔다. 그래 그 그 뒤로 그 인자 은을암이라는 그 절을 지았는 모양이라. 그런 전설이 있지요. 우리가 듣기로 뭐 [웃음] 그래 들었어요.

[조사자 : 거기 저 유지터 거어서(거기서) 박제상이 옛날에 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분이 거어 났단 말은 몬 들었지. 옛날에는 여계가 경남이 아이고 경북이라요. 요계는 내남內南, 외남外南, 저쪽에는 인자 외동外東, 내동內東 고래 돼, 여계도 옛날에는 경주땅이 되가 있었어요.[계속해서 이곳의 옛 행정 구역을 설명했으나 바람 때문에 확실히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국수봉의 지명 유래

이 산이, 요오 산이 전부 경북을 보고 이래 다 있는데, 향해가 이래 있는데, 향해가 있는데, 국수봉 저것만은 저 울산쪽으로 보고 돌아 앉아 있어요. 그래 놓이 저 나라의 원수의 산이라꼬 신라때 저거로 국수봉이라꼬 이름을 지었답디다. [조사자: 국수봉이란 이름이 신라때부터 있었겠지요?] 예, 신라때 저어 지았다 카데요. 국수봉이다. 이거 나라의 원수의 산이다. 나라를 마다꼬 저래 돌아 앉아 있으니까 국수봉이다. 그래서 국수봉이라꼬 이름을 지었다 이 카데요.

청량면

전설

* 청량면은 현 청량읍

율리 청송, 1984.7.21., 정상박, 김현수, 정원호, 김동환 조사.

구술자: 손천석, 남.79.

문수산文殊山과 남암산南巖山の 지명 유래

우에가(어찌 해가지고) 참 비가 많이 와가 그랬는지, 가뭄이 들어. 해수가 저 그랬는지 그 사연은 모리고. 그저 말이 여기서도 문수산文殊山이 어째서 문수산이라 했노, 남암산南巖山은 우에 남암산이라 했노, 이런 결론이 그 전에 우리 서당에 땡길 적에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한 기이 아니라, 어린분네가 앉아가 서로 이야기를, 오늘 자네들맨추로(처럼) 묻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그래 그 어른분네가 말씀하시기로 그때도 옛날에는 인제 물이 여계에 채어가지고(차이어서), 그래 남기로 문수산, 남암산밖에 안 남았는데, 문수산은 무시 한 뿌리만치[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사이로 뵈이고 남암산은 낮 한 가락 갖다 놓은 것 그것만치 그래 뵈인다고, 그래가 산 이름을 그리 지었단다. 그래 이바구(이야기)가 그렇더라. 우리가 그건 모르고 그래 마 이바구도 들은 이바구지.

사와들과 마채강의 지명 유래

율리 청송, 1984.7.21., 정상박, 김현수, 정원호, 김동환 조사.

구술자: 손태현, 남.65.

그래 마 인자 이거 그 전에 토지가 전부 절 논이다. 절 논인데, 조 밑에 가몬 사윗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절 사짜寺字 밖 외짜外字. 그거로 인자 절 논이라 이리된 모양인 기라. 그 사윗들이 고래가 사윗들이라. 사윗들이라고 크거만. [청중 : 올라 오시니까 이 길따라 쪽 올라오니깐 왼편에 길 밑에 집이 하나 있죠? 고 밑에 고 들이 사윗들이라고 합니다.]

고래 살아가 그 할 때는 여어 밥하는 뜨물이 저어 마채강꺼정 잇었다카는 그 말이 잇업

니다. [조사자 : 마채예?] 마채강이 있어. 여어 바다 바다꺼정 뜨물물이 내려 갔다고 그 말이 여어 있습니다.

원호대사와 도통골 지명 유래

발리 하발, 1984.7.26., 정상박, 김현수, 정원호, 김동환 조사.

구술자: 김원연, 여.65.

원호대사님이 그래 방방곡곡으로 땡기며 여 기장機張 장안사長安寺 척판암擲板庵에도 공부로 하고, 공부 안 한데가 있나? 저어 어데고 거어도 공부로 하고, 이래도 도통道通이 안 돼. 통영通靈이 안 돼 죽을라고 저저 대운산大雲山 만댕이山頂 도통골道通谷 거어 올라 가는데, 만학천봉이 거어 서가지고 그냥 떨어졌어, 죽을라꼬. 도통 못 하이 사니 뭐 하노 그리 쿠민서나. 지금 올라가 보곤 통영한자리가 만학천봉이거든. 거어 마(큰 목소리로) 콧 떨어진까네, 세상에, 관음보살님이 처매로 딱 벌 리가 떡 받아가,

“아이고 그만 일에 널찌노?”

그만 거어 탁 그래 도를 통했어. 그래 저어가 도통골, 도통골. 그래 여서 그 골짜기 이름을 도통골이라케. [조사자: 어덯니까?] 그 대운산에. 우리 대운산에. 우리 대운산에. [조사자: 발리 대운산입니까?] 바리 대운산 [청중: 아이제.] 우리 온양면 대운산. [조사자: 도통해 갖고요?] 도통해갖고 거어 도통해갖고 관세음보살님이, 만학천봉을 널찌는 거로 받았거든. 죽을 낌데, 딱 받아가,

“아이구, 그만 일에 그리그리 널찌나?”

쿠미 떡 받으이 마 확 터졌어. 도가 터져가 그래 여 바리鉢里에 여어 지내가섰다고 바릿 대 발자鉢字로 써. 그런데, 이 세미로 지내가면서로 풀로 숨가 놓고 가미,

“언제라도 이 풀이 나거든 산 줄 알고, 내 이 풀이 안 나거든 죽은 지 알아라.”

쿠미 가더이, 그래 인자 험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타는데,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 그래 원호대사가 여어서 솔잎에 물로 이 물 새미로 가지고 물로 적시가 확 그리 뿌리 뿌인까네(뿌려 버리니까), 그만 거어 불이 팔만대장경에 불이 꺼지더란다.

온양면

전설

* 온양면은 현 온양읍

용방소 * 현 온양읍 동상리東上里 하서 마을에 있는 용방소에 관한 전설.

발리 하발, 1984.7.25., 정상박, 김현수, 정원호, 김동환 조사.

구술자; 이상걸, 남.65.

소沼지. 소. 소라는 용방소인데, 거계는 우리가 듣기에는 수심이 옛날 꾸리로 하몬 뎡주 꾸리로 세 나로 꾸거든 그만치 깊었다고 용이... 물이 가물몬 무제로(기우제를) 거어 가가 지내지마는. [청중: 요세는 그리 안 깊을 까다.] 우리도 쫓았을 대 면서긴가 한다고 왜 뉘시대때 우리도 그런 거로 했는데. 그래 가 용이 거어 있다 꾸는 이런 전설도 있어. 그 가물몬, 온양면인데, 하서 부락인데, 기우제로 거어서 주로 지내제. [조사자; 기우제를 거어서 지내면 영험이 있습니까?] 하모(예), 그래가 장도 내 뵈고, 날이 가물몬 남창시장南倉市場에도 내 뵈고, 기우제로 지내고 나몬 비가 오는 수도 있어. 우리도 기우제 지내도 몇 번 갔는데.

발리鉢里와 탑골의 명칭 유래

발리 하발, 1984.7.25., 정상박, 김현수, 정원호, 김동환 조사.

구술자: 엄진복, 남.74.

[조사자 : 왜 이 마을 이름을 발리라고 했는데요?]이 저저 쇠 금 변에, 쇠 금金 변에 이 저저 밑 본本한 자, 이 자가, 이 자가 저 와 이 자로 이 바리鉢里라고 꾸는고 하이 바릿대 발찌鉢字라고. 이 자는 대개 절에 씌는 자거든. [조사자 : 그렇지요.]이 자로. 그런데, 그 인자 바리라고 씌는기 인자 원호대사가 여어 있었는 때문에 그래 바리라고 이래 했다 쿠데. [조사자 : 원호대사가 어디 계셨습니까?]원호대사가 이 여 여 있었다 쿠데. 이 마실에 마실 여 가운데 가몬 저 요서 보면 탑골 꾸는 골이 있거만. 탑골.[조사자 : 예? 탑골.]탑골 꾸는 그 지명이. 그 가몬 저 미륵이 앉혔다는(앉혔다는)밑자리가 돌이 있었다. 남창

국민학교서 가져 갔고, 그거로 미루어는 그 미루볼인데, 어디 가 처박혔는지 그마 없었고, 우리 알기에 나는 밑자리 그것만 있었지. 학교, 국민학교 가져 갔거만. 그 지명을 탑골이라고, 탑골 탑골이라 쿠고.

이 마실 이름도 원효대사가 있었는데 바리때 발자鉢字, 쇠 금 변에 밑 본 한자, 그 자라. 그 자를 썼다 이러 쿠더만. 어른들이 그래 쌓았입니다.

언양면

전설

* 언양면은 현 언양읍

어음리 상리, 1984. 7. 24. , 류종목, 신창환 조사.

서관출, 남. 80

정포은鄭圃隱이 귀양 온 요도蓼島

그 어릴 적에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약을 더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그 포은圃隱 선생이 언양을 귀양 온 것도 요도蓼島섬이 있기 때민에 귀양을 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시가지고 여게 오시가지고, 그래 저게 인자와 보니까 허 허 별관에 소나무가 우거져가 있고 여게라. 언양彦陽 바로 여게가 요도蓼島라. 그래서 여게 계시면서 언양 반구대盤龜臺로 나들었고, 또 작천정酌川亭을 나들었고, 이래가지고 그 유적이 반구대에 있거든요.

있는데, 오기 된 시초간으로는 여게 언양에 요도가 있다고... 언양에 요도가 있는 기아이라, 말을 들으니까 동해東海에 일요도一蓼島라, 동해바다가 한 요도가 있다. 거게 귀양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리 왔다 카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한 열 살, 열 한 살, 열 두 살까지도 이런 소년이 이래 있었습니더. 큰 소년이 꼭 이래 운집해가 있었습니더. 그래 인자 사람이 차츰차츰 이렇게 살고 보니까네 그 소나무도 다 비뿌리고 다 해가지고 지지리한(질편한) 진판이 되가 있었습니더. 진판이 되가 있었습니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사堂舍를, 동네 어른을 그

리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사蓼島舍라고 합니더, 거게를.

어음리於音里의 지명 유래

어음리 상리, 1984. 7. 24., 류종목, 신창환 조사.

서관출, 남. 80

우리 마을은 어음린데(於音里인데), 인자 어음리라 카는 것은 늘 어於짜 섬 도島 째 데, 아 저 저 소리 음音째, 쉽게 말하자면 늘음입니다, 늘음이. [조사자 : 늘음이?]예, 그 어음을 늘음이라고 된 말입니다. 된 긴데, 그 인자 늘음인데, 우리 요 마을과 조 아랫 마을이 요래 깎아 지금 복판에 그 요도를 놔 두고서 서로 분리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는 본래 그 현산 김씨가 여어 살았어. 현산 김씨가 살았고, 저 아랫마을에는 그 요도 섬을 중앙을 놔 두고 저 아랫마을에는 그 최고운崔孤雲선생의 후예 되는 그 동짜 연짜 되는 최씨가 거게 거점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게는 현산 김씨, 즉 말하자면 경순와으 후손 되는 분이 여기 살았어. 살아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개간이라 커까 터를 잡았지요.

[조사자 : 그게 몇 년 쯤 전의 얘깁니까?]아, 거기 벌써 임란때 될 겁니다. [조사자 : 그 래 인제 이 동네가 생긴 지가 한 임란때니까 한 사백 년. 삼백 년. 사백 년 그 전에 인 제...]예, 그렇죠. 그래 그땐데,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여게 집이 한 열댓 채 될동말동 했 습니다.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래 전부 여게는 밭이고 묵전이고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 더. 돼가 있는 거로 차츰 차츰 사람이 많이 살고 보니까네 질도 새로 널 데로 내고 막 이 래 돼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게 그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불과 해봐야 한 열 댓 채밖에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이 동네는 어음 상리에는 김씨가 주장을 하 고 있었고, 어음 하리에는 고운, 아, 그 최고운 선생의 후예 되는 최씨가 문중을 벌리고 살았지요. 거게도 불과 몇 집 안 됐습니다. 차츰차츰 사니까네 다른 각성받이가 많이 모 여가지고 사지요. 본래 터는 그렇게 잡은 텃니다.

[마을의 북쪽을 가리키며]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째서 여게 마알이라고 했느냐 하면 은, 이 저 본래 여게 경주 신라때에 대관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인자 이 부府라.

부산부釜山府면 부산부, 옛날 그 저 왜정때, 이게 마알(마을) 부府짜거든요. 여게 경주때
에 여게 한 부라고 커는 그기 여거 살았는데. 우리 집 지아 놓은 여게가 산 기 아니겠고
주장(주로) 저 안을 많이 살았습니더. 뒷전을 많이 살았습니더.

뒷전을 많이 산, 참 그 실적이라 커까, 자취를 본다고 할 거 같으면은, 거게 그 이 지금
경지정리耕地整理로 해 놓으니까네 돌담부래기 돌이 하나도 없습니더. 전부 땅을 파고
다 묻어가 그렇지, 옛날에는 여어 뒷전에 여게 보며 돌담부래기(돌더미)가 많이 있습니
더. 논 새(사이) 논 새마중(새마다) 돌담부래기가 [한 아를을 안아 보이며]마치 이런 돌
담부래기가 누비(누에)같이 눕우가지고 있는데, 돌담부래기가 전부 없어졌고.

경지정리로 하면서 이 지둔을 하며 보니까 새미가 군데 군데 있었습니더. 그 경주 신라
때에는 저어서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대관들이 여게 살아가지고 경주로 드나들고 했다
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 마알 이름을 갖다가 ‘마알’이라 했습
니더. 저 쉽게 말하자면 시내에서러 ‘어데 가노?’ 커면 ‘저 마알에 볼 일이 있어 간다.’ 이
리 되거든요, 마알에. 그러이 이 마알 부짜를 두고서러 이 우리 동네가 이거 마알이 됐어
요. 왜가지고 이 뒤에 경지 정리로 할 적에 보면은 옛날에 사던 새미 터가 많이 있었습니
더. 그런 얘깁니더.

상북면

전설 명촌리 명촌, 1984. 8. 1., 정상박, 성재옥, 박정훈 조사.

김지환, 남. 67

길천리吉川里소목골

길천吉川이라는 골이 옛날 거지화촌居知火村의 만호가 살던 곳이라고 해서 거기 아직
동명이 지화라는 동명이 남아 있고 지금은 공업단지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골입니다. 거
기에 한 가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우곡牛谷이라는 골이 있어요. 산골이 있어요. 거기 만
당이라는 골에서 불과 한 1킬로 남짓한 골에 우곡이라는 골이 있는데, 소 우짜牛字 골 골

짜谷字가 되겠습니다.

왜 우곡이라고 하는가 하며는 그 당시에 제가諸哥라는 성을 가진 고관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칙한 생각한으로서 홀로 사는 며느리에게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할 때,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엎드려가 기면서 소 울음을 세 번하고 돌아오며는 그 청을 들어 주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거기에서 개준의 그런 생각은 없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거계 세 번 소 울음을 하고서 돌아오니, 며느리가 아 그 잘결로 하고 죽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그러한 고관들이 살았느냐고 하며는 아무런 문헌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논 r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전해내려 오는 이름이 제정새미다. 제정새미다. 제정우물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그가지산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산加智山 쌀바위

명촌리 명촌, 1984. 8. 2. , 정상박, 성재옥, 박정훈 조사.

김도경, 남. 69.

쪼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고(거기) 고, 그 인자 보살, 중은 인자 그 보살이라고 하고 중은 저 중이라고 안 한다. [청중 : 스님이라고 하지.]스님이라고 대사라고 하고, 대사라고 하모 대단히 좋아라 칸다. 그래 대사님이, 인자 손이(손님이) 하나 오йка 네 또옥 하나 무을 만침 나오고, 쌀이 또닥또닥 나오는데, 다시 그 이상 안 나와. 그러이 이니자 그 대사가 욕심이 많은 택이지. 그 좀 많이 나오모 좋겠는데, 많이 안 나와. 손님 하나 오모 하나 무을 만치 더 나오고, 일이 그렇더라 카네. 우리가 이 얘기 들은 바라(바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마 꼬쟁이로 가지고 폭 쭈시 뿌이(쭈셔 버리니), 좀 많이 나오라고 폭 쭈시 뿌이 마 하나도 안 나와. 그래 가 그 절이 망해 뵈단다. 그래 가 그기 인자 예전에 쌀바위

라 키는데, 그래 인자 쌀이 나왔다. 사람 묵는 기 마 참 쌀이 그래 예전에 그래 댜던둥 애기가 그래 댜어요.

손님 하나 오몬 하나 더 나오고, 둘이 오모 둘이 나오고 고 이상 더 안와. 와 나와가지고 그래 가 ‘그거 좀 많이 나오모 좋겠다.’ 싶어가지고마 그래 많이 나오라고 쿡 쭈시 뿌이까네 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 그기 쌀바오라고 말이 있지.

● 남는말

설화는 역사 시대 이전부터 구전되어왔다. 문자를 비롯한 기록 수단을 갖지 못한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개인 혹은 집단의 다수 구성원에게 흥미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구연하였다. 처음에는 개인에게서 시작되었을 특정한 이야기가 차츰 윤색의 과정을 거쳐 멀리 퍼져 나갔다. 이처럼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전파됨에 따라 세계 도처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기도 했다. 이것은 설화가 가진 보편성이다. 한편으로 설화는 지역성과 국가와 민족성을 담은 이야기도 구비 전승되었다. 이것은 설화가 가진 개별성인데 지명설화와 단군이나 주몽의 건국 신화 등이 이런 예이다. 이런 설화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구연되어 내려오는 것은 설화가 가진 특징 때문이다.

설화의 특징은 일상적인 신변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적 사실 등과는 달리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된다는 데 있다. 즉, 화자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고스란히 그것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것에 화자 나름으로 덧붙여서 전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설화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인류의 원형적 삶을 담고 있는 무형의 유산이다. 그것은 국가의 유산이면서 지역의 유산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설화는 지역의 유산이면서 국가의 유산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진 설화가 산업화와 현대문명에 밀

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는 인터넷 시대에 설화는 구연될 자리조차 잃어버렸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류의 삶과 자산을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과 대책, 즉 인류의 유산인 설화를 보존하고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설화자료의 채록이고 설화연구이다. 설화자료는 특히 현지 조사에서 직접 얻은 원문 그대로의 것으로 현장성이 있는 자료가 중요하고, 설화연구를 위한 구전설화의 자료 및 채록은 그중 기본적인 것이다.

『울주 설화집』에는 울주의 문헌설화와 한국 설화를 최초로 세계에 알린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 중 울주군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울주군 설화, 기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울주 설화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울주 설화집』은 지역 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귀중한 자료집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과 지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설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랜 시간 설화자료의 수집과 채록, 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은 사람이 울산 지역 향토사학자인 이상도님이다. 이번에 그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발간한 『울주 설화집』은 설화 자료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직접 발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확인한, 그의 초인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물이다. 울주 설화를 보존하고 집대성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헌신에 상찬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전설 傳說

—





범 서 읍 편

선바위立岩와 백룡담白龍潭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에는 선바위立岩라는 이름을 가진 절묘한 바위가 있다. 마치 금강산 해금강의 한 봉우리를 여기에 옮겨 놓은 듯 이 부근의 지질이나 암층과는 아주 다른 암질을 가진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이 바위가 서있는 자리가 태화강 중류인 백룡담白龍潭 여울이다. 꽤나 수심도 깊고 초록색 물빛이 감도는데 선바위의 그림자가 투명하고 확연하게 비쳐 있다. 바위가 선 동북쪽은 우람한 산기슭이고 동남쪽으로는 태화강이 흘러서 범서 백천白川으로 빠지며, 서쪽으로는 멀리 경북 운문산과 언양 간월산을 유원으로 하는 두 줄기의 강물이 언양에서 합류하여 이곳에 다다른다. 그 남쪽은 전원田園이 펼쳐져 있고 그 전원과 강 사이에 사장

이 있어서 여기에는 깨끗한 자갈들이 널따랗게 깔려 있다.

선바위의 크기는 그 높이가 약 30미터요 둘레가 약 40미터며 꼭대기에는 삼봉을 이루었고 정상에는 잡목 몇 그루와 잡초들이 생성함이 불가사이 하다. 이 바위에 오르고 싶어도 잡을 것이 없어 오를 수 없고 쳐다보면 아득하기만 하다.

일찍이 이 절묘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수소문한 경향각처의 시인 묵객들은 이곳을 찾아 시상을 떠 올렸고, 맑은 옥수에 발을 담그고는 주옥같은 시와 부를 술하게도 남긴 명승 절경이다.

이 가운데는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한강 정구寒岡 鄭述, 점필제 김종직佔畢齊 金宗直, 사가 서거정四佳 徐巨正 등이 이곳을 찾아 즐기고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조렸다.

부사 이정인府使 李定仁은 「입암정기立岩亭記」를 지으면서 표현하기를 “축석矗石과 수미須彌는 모두 산과 연결이 되어 있으나, 이 바위만은 백룡담 맑은 물 가운데 홀로 솟아서 있으니 어찌 그와 비할 수 있으리오. 유구히 흐르는 태화강물에 시달렸건만 그 형태가 이즈러짐이 없고, 만고의 풍상에 시달렸건만 변할 줄을 모르고 있는 웅자는 마치 파도 속의 굳센 지주와도 같으니 어찌 이곳에 정亭을 이루지 않겠는가. 바라보면 으리으리 할 뿐이니 높다하지 않을 수 없고, 높이 솟아 생긴 모습이 마치 층을 이룬 탑과도 같고 그 앞으로는 광야에 다다라 봉만이 수명秀明 하니 어찌 기이奇異하다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같은 선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숨어 있다. 옛날에 이 마을에는 아주 예쁜 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마을 총각들은 그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저마다 짝사랑의 연정을 품고 있었다. 총각들은 그 처녀와의 사랑을 이루어 보려고 저마다 애를 태우면서 처녀를 한번이라도 더 보려고 처녀의 집 부근을 맴돌았다. 그러나 처녀는 수줍고 정숙하기만 해서 좀체로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절간의 스님이 이 마을에 동냥을 왔다. 이 스님이 골목을 지나치는데 마을총각들이 그 처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주고받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총각들의 대화를 들은 스님은 그만 고약한 번뇌가 떠오르고 말았다.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으로 서는 도저히 생

각해서는 안 되는 번뇌가 스님의 머리속을 점령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과제승으로 전락하려는 징조였다. 스님은 머리를 저었다. 스님은 생각했다.

‘안되지, 안 되. 안 되고말고, 나는 이미 번뇌를 씻고 불가에 귀의한 몸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냐, 부처님의 제자인 내가 감히 어찌 처녀 하나가 아름답다 하여 그 미모의 자색에 현혹을 당하고 불도를 저버린단 말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스님은 목에 백팔염주를 걸고, 손엔 보리수 염주를 수없이 세며 다짐을 했건만 웬일인지 자꾸만 음습해오는 미모의 처녀상이 스님의 다짐을 흐리게 하고 말았다.

‘에라 모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한번 보고 눈요기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그 처녀의 집을 찾아갔다. 스님은 대문간에 서서 바람을 전체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외었다.

한참 후에 처녀가 공양미 한 뒷박을 퍼들고 대문간으로 나온다. 스님은 그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나 절세미인이었던지 그만 환각에 빠지고 말았다. ‘아, 아니, 저, 저 아가씨가 사람일까? 옥황선녀일까?’ 스님은 그렇게도 다짐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한사람의 순수한 속인으로 변해서 인간 본능적인 욕구가 발로 되고 말았다.

처녀는 그것도 모르고 근엄하신 스님인지라 안심하고 시주하는 마음으로 공양미를 스님이 들고 있는 자루에 부으려는 순간, 스님의 두 손이 그만 아가씨의 두 손목을 덥씩 잡고 말았다.

“애구머니나 망칙해” 하며 처녀가 놀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말았다.

스님은 겹연쩍게 무안을 당하고 그 집을 물러 나왔건만 스님의 환상에서 처녀의 모습이 사라지질 않는다. 스님은 또 그래서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을 해 보았건만 허사였다.

아무래도 그대로는 발자욱이 떨어지질 않는다. 딱 한번 만이라도 더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스님은 그 부근의 산기슭으로 숨었다. 우거진 숲에 몸을 숨기고 혹시나 그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룻밤을 여기서 지새웠다.

그 다음날이었다. 오후가 짐짓해 지자 마침 처녀가 빨래를 이고 강가로 나왔다. ‘옹지 나오는구나’하고 기다렸다. 처녀가 빨래를 시작했다. 스님은 숲속에 몸을 감춘 채 빨래

하는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없이 바라다보면서 당장 뛰어가서 덩석 덮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있었다.

이때였다. 태화강의 상류에서 번쩍 선 큰 바위 하나가 유유히 떠내려 오고 있었다. 빨래하던 처녀가 떠내려 오는 바위를 보더니 ‘어머나 이상도 해라 바위도 장가가나 봐’ 하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처녀의 말이 떨어지자 바위는 우두둑 하는 폭음과 함께 빨래하는 처녀를 깔고 앉는다.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스님은 사태가 위급한지라 숲속에서 뛰쳐나와 강물로 뛰어내려 처녀를 구하려는 순간, 아뿔사 그만 스님도 함께 바위 밑에 깔리고 말았다.

이래서 미모의 처녀와 파계승은 나란히 바위 밑에 깔려 수중고혼이 되고 말았다. 처녀와 파계승을 깔고 앉은 바위는 여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착하고 말았다. 그 바위가 다름 아닌 선바위다. 이런 일이 있고 부터 이변이 일어났다.

선바위가 있는 백룡담에는 처녀의 영혼이 살고 있고, 그 아래 백천에는 파계승의 영혼이 살았다고 한다. 날씨가 찜푸둥해지고 비라도 오려는 밤이면 파계승의 영혼이 현형現形된 큰 구렁이가 오색찬란한 서광을 발산하면서 물살을 가르고 치솟아 백룡담에 처녀의 영혼과 상봉하러 올라갔다.

이런 날 밤이면 백룡담에서 한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파계승의 영혼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상봉이 이루어지면 백룡담에는 온통 물굽이를 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찬란한 서광이 가득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연은 파계승과 처녀가 하늘의 노여움을 받고 저승에서라도 맺지를 못하고 비라도 내리려는 밤에만 간혹 상봉케 했다고 한다.

이곳에 입암정立巖亭이라는 정자亭子가 세워졌으나 언젠가 퇴락하고 파괴된 후 다시는 중창되지를 않았다. 지금도 이곳 선바위는 우리 고장에서 드문 명승지로 연 간 수만 명의 유람객들이 이곳을 찾아 경관을 즐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선바위(1)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의 태화강 중류에는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줄기가 굽이치면서 여울진 백룡담이 있고, 이 백룡담 푸른 물 가운데는 깎아 세운 듯 우뚝 솟은 선바위가 그 당당한 위풍을 자랑하고 있다. 높이가 무려 수십 척이요, 둘레 또한 수십 척이며 그 모양 또한 기암절벽인데 수정처럼 질푸른 강물이 선바위 아래에서 여울져 맴도니 그 수려함은 비길데없는 아담한 절경이다.

그러기에 경향각지의 시인묵객들이 끊임 날 없이 찾아들어 절경의 경관을 노래한 주옥같은 시들이 향토사를 통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점필재 佔畢齋 김종직 金宗直이 읊조려 남긴 입암시 立岩詩가 다음과 같다.

奇巖削鐵十尋餘 倒插潭心畫不如
日暮烟橫層半露 駕鵝飛上落啣魚
洄洄巖底是龍湫 應訝騷人隔歲遊
却恐風雷起平地 須催歌吹下芳洲
元戎談笑翫游儻 乘興歸來露滿洲
醉看馬頭端正月 忽驚佳節已中秋

해설 :

기이한 바위는 마치 쇠를 깎아 세운 듯 열 길도 넘을 세라
단심에 거꾸로 꽃혀 있는 모습은 그림으로 그려도 미치지 못하리라
날이 저물면 안개 속에 서리어 층반이 드러나고
물새들은 떨어질 듯 고기를 잡아 물고 날아 오른다
물소리 골골하는 바위 밑은 바로 용의 서혈이라

소인들이 해를 갈아 놀러 오기를 맞이하는 듯
평지에 풍뢰가 일어날까 두려워
풍법을 재촉하여 물가로 내려오도다
주인은 담소하며 고기떼를 구경하고
흥겨워 돌아오는 물가에는 이슬이 자욱하다
마두에 떠오르는 단정한 달을 보고
그제야 놀랐어라 때는 이미 가절중추였도다.

이 같은 선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곳 입암마을에는 마치 달덩어리같이 아름다운 미모의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처녀의 아름다움이 천하의 절색이라 마을에 사는 젊은 총각들의 간장을 태우게 했다. 이 마을의 총각들은 모이기만 하면 미인처녀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왕설래 했다고 한다.

하루는 스님이 바랑지고 염주 걸고 목탁 치며 염불하며 이 마을로 찾아들어 공양미 동냥을 하고 있는데, 마을 총각들이 골목에 모여 미인처녀의 얘기로 열을 올리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탁발하든 스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니 그 집 처녀가 천하의 절색이라는 것이다. 아뿔사 이 스님! 들은 척만 척해야 할 일이거늘 그만 그 아름답다는 처녀의 미모에 관심이 쏠리고 말았다. 스님도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체념하려 했으나 더더욱 가슴이 설레이고 보고 싶으니 웬일일까? 이 큰일 날 스님은 앞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다만 그 천하절색이라는 처녀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으로 짝 차 있었다.

스님은 마을을 맴돌았다. 미모의 처녀가 혹시나 바깥으로 나오나 하고 가슴 태웠다. 때마침 처녀는 빨래감을 이고 냇가로 나오는 것이다. 스님은 재빨리 몸을 날려 냇가의 빨래터 건너편 숲속에 몸을 숨기고 처녀를 기다렸다. 미모의 처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빨래감을 이고 냇가의 빨래터로 나와 자리를 잡고 빨래를 한다.

맞은편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가슴 설레이며 바라보고 있던 스님은 듣던 그대로 과연

아름다운 경국지색의 절세미인에게 도취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삼보귀의한 불승으로 여염집 처녀를 어찌잔 말인가. 그런데 스님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입암 마을을 맴돌게 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그 처녀의 집으로 가서 목탁치고 염불하며 동냥을 했다. 마침 처녀가 쌀 한바가지를 떠 들고 나와 스님의 자루에 쏟아 넣는데 아뿔사 그만 절세미인의 아름다움에 황홀해진 스님이 자신의 신분도 망각한 채 처녀의 손목을 덥썩 잡고 말았다.

“에그머니나!”하고 놀란 처녀는 충충걸음으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말았다.

처녀의 손목까지 잡아본 스님은 더더욱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서 마을을 떠날 줄 모르고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또 처녀가 빨래터로 나왔다. 그날도 역시 스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래터 건너편 산기슭 숲속에 숨어서 숨을 죽였다. 그러나 처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때 저 위쪽 태화강의 상류쪽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밀고 내려왔다. 마치 쏜돌 같은 물굽이가 굴러 내려오는데 불가사이 하게도 바위 하나가 선체로 뚱뚱 떠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미모의 처녀가 보니 하도 신기하여 한다는 말이

“어머! 정말 이상도 해라! 바위도 장가 가는바봐!” 하였다.

처녀의 말이 끝나자 우람한 바위는 그만 빨래하는 처녀를 깔아뭉개려 덤빈다. 처녀가 비명을 지른다. 절박하다! 이때 지켜보든 숲속의 스님이 황급히 뛰어내려 처녀를 구하려고 부둥켜안았으나 소용없이 처녀와 스님이 함께 바위 밑에 깔리고 말았다.

이 무슨 고약하고 알곳은 운명이고 인연인진 몰라도 처녀와 스님은 이렇게 해서 한 날 한 시에 입암(선바위)에 깔려 한 많은 수증고혼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스님의 시체가 백천까지 떠내려 왔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웅달샘이라고도 불렀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선바위가 서있는 백용담에는 날씨가 찌푸리고 비가 오려고 하는 날 밤이면 애닦은 여인의 애간장을 끓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백천에서는 큰 뱀(대사)이 금빛 찬란한 서광을 발하며 물살을 가르면서 백용담으로 올라가 처녀혼과 상봉하고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기만 하면 큰 비가 내려 이 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

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마도 이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이 후생에 가서 이루기는 했으나 신의 노여움을 산
알곳은 인연이라 이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나싶다.

이 같은 전설담긴 백용담 선바위는 지금도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끊임없이
없어 연간 무려 수만을 헤아리는 우리고장 근교의 명승절경의 유원지라 하겠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선바위(2)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선바위立岩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곳 입암立岩마을에는 달덩이처럼 아름다운 미모의 처녀가 살고 있었다 한다. 이
처녀의 미모가 천하일색이니 마을 총각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했다. 따라서 이 마을 총각
들은 모였다하면 화제 거리는 당연히 미모의 처녀 이야기였다.

어느 날 승복을 한 스님 한 분이 나타나 공양미 동냥을 하며 마을을 돌고 있는데 어느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마침 동네 청년들이 모여 앉아 이 미모의 처녀이야기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이곳을 스쳐지나가던 스님이 이야기를 듣게된다.

스님의 신분으로 그냥 지나쳤어야 했거늘, 천하절색이라는 이 집 처녀의 미모에 관심
이 쏠리고 말았다. 스님은 신분이 신분인지라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체념을 다짐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더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뿐이니 이 일을 어떻
게 하랴!

마침내 이 스님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이 미모의 처녀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이 온 뇌리를 사로잡게 되었다. 그래서 처녀가 언제 한번 바깥에 나오기를 빌고 고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 미모의 이 처녀가 빨랫감을 이고 냇가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다리던 때를 만난 이 스님은 재빨리 빨래터 건너편 숲 속에 몸을 숨기고 빨래오는 처녀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이 처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빨래터에 나와 토닥토닥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맞은편 숲 속에 숨어서 빨래하는 모습을 정신 없이 바라보고 있던 이 스님은 듣던 대로 천하절색의 미인을 보고 났을 잃을 정도로 도취되고 말았다.

그러나 삼보 귀의한 불승의 신분으로 여염집 처녀를 어찌란 말인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님은 중심을 못 잡은 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날마다 입암 마을을 맴돌고 있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이 스님이 처녀의 집에 들러 목탁 치고 염불하며 동냥을 하기에 이른다. 처녀는 쌀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와 스님의 동냥바람에 쏟아 붓는 순간, 스님이 처녀의 미모에 도취해 스님신분을 망각한 채 처녀의 손목을 덥석 잡고 말았다.

"에그머니나!"하고 놀란 처녀는 충충걸음으로 집안으로 단숨에 뛰어 들어 갔다. 처녀의 손목을 잡은 스님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마을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처녀는 다시 빨래터에 빨래하러 나왔다. 스님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빨래터 건너편에 숨을 죽이고 숨어있었다. 처녀는 아무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빨래만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 변고냐!

이때 태화강 상류 쪽에서 큰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밀고 내려왔다. 마치 집채 같은 성난 물굽이가 사정없이 몰려오는데 불가사의하게도 큰바위 하나가 우뚝 선 채로 동동 떠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빨래하던 처녀가 하도 신기하여

"어머! 정말 이상도 해라. 바위도 장가가는가봐?"라고 하였다.

처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람한 바위는 빨래하던 처녀를 깔아뭉개려고 덤볐다. 처녀가 비명을 질렀다. 절박한 순간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숲 속의 스님이 황급히 뛰어내려 처

녀를 구하려고 부둥켜안았다.

그러나 그 애절함도 소용없이 처녀와 스님 모두를 바위는 깔고 앉아 버렸다. 이 무슨 알 곳은 운명의 인연인지 몰라도 이 미모의 처녀와 스님은 우연한 한날 한시에 선바위立岩에 깔려 한 많은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시신이 백천栢川까지 떠내려 왔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웅달샘이라고도 불렀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는 선바위가 서 있는 백룡담에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는 날 밤에는 애달픈 여인의 애간장을 꿰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백천栢川에는 큰뱀大蛇이 금빛 찬란한 서광을 발하여 물살을 가르면서 백룡담으로 올라가 처녀혼處女魂과 상봉하고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변이 일어나기만 하면 큰비가 내려 이 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마도 이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이 후생에 가서 이루기는 했으나 신의 노여움을 산 알곳은 인연이라 이 같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蔚州지명지리지』, 울주군.울주문화원, 2020]

베리끝의 애화哀話 (1)

옛날에 울산에서 언양까지의 지방도가 나기 전에는 ‘구름이마을雲谷’이나 다전茶田에서 구영동九英洞으로 오고 가는 데는 낙안산落雁山 끝에서 벼랑을 따라 베리끝을 지나가고 오곤 하였다. 이 길은 태화강太和江에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어 떨어지므로 높은 벼랑을 이루어져 있는 험한 곳이다.

어느 해 여름의 일이었다. 며칠 동안을 두고 큰 비가 쏟아져서 태화강은 홍수로 뒤덮혀 있었다. 며칠 동안을 내리던 비도 멎고 날은 좋아졌으나 강물은 아직 여전하게 위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에 한 젊은 신랑 신부가 시집가지 않은 누이동생과 함께 베리끝을 지나고 있었다.

강물은 길에까지 넘쳐 남창 남창하고 홍수는 사납게 구비치며 흐르니 길손들은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사나이의 뒤를 따라오던 두 시누이와 올캐가 아차 하는 순간 그만 발을 잘못 디더 강 속으로 떨어졌다.

큰 비명에 놀란 신랑은 뒤를 돌아보았으나 처와 누이동생이 한꺼번에 성난 탁류에 휘말리고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응급결에 자기 앞에 떠내려가는 옷자락을 잡아 겨우 건져보니 자기 아내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숨을 돌려 보았으나 자기 누이동생은 강 가운데로 떠내려가면서 한번 얼굴을 솟구치더니 그만 탁류 속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중고혼¹³이 되고 말았다.

이 애처로운 일이 있는 뒤의 일이었다. 누군가가 지어 불렀는지 모르는 일이나 한 슬픈 노래가 불리어 졌다.

13.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다.

남창 남창 베리끝에
무정하다 우로라바¹⁴
나도 죽어 후생가면
낭군님부터 정할래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베리끝의 애화哀話 (2)

태화강 중류, 즉 우리 고장 구영리와 중구 다운동으로 통하는 비탈 산길이 있다. 굴화에 서 보면 강 건너 북쪽 벼랑을 말한다. 일명 벼락끝, 벼락소라고도 하는 곳이다. 앞에 흐르는 태화강을 사군탄使君灘이라고 한다. 사군使君의 뜻은 ‘낭군님부터 정할라네.’이고 탄灘은 물 가운데 돌이 많은 곳의 흐름을 말하는 여울이다.

옛날 이곳에는 한 농가에 농부가 살았다 한다. 어느 여름날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벼락 맞은 뒷산의 산사태로 인해 농가는 강물로 떠내려가고, 그 집 자리는 깊은 여울

14. 우리 오라비아

이 파여 깊은 소沼가 생겼다 한다. 이 배리끝에는 농부 내외와 과년한 누이동생이 살았는데 또 하루는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농부는 우장삿갓하여 농토를 살피러 들로 나가고 집에는 시누이와 올케 두 사람만이 남아 서로 부둥켜안고 뇌성벽력의 공포에 떨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기는커녕 비는 점점 더 억수같이 퍼부어 그칠 줄을 몰랐다.

이윽고 굉! 하면서 천지개벽하는 소리가 나더니 집 뒷산에 벼락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어 산사태는 농부의 집을 덮쳐 삼켰고 방안에 있던 시누이와 올케는 불행 중 다행으로 튕겨 나와 흙탕 강물에 휘말렸다.

들판에서 논둑을 손질하던 농부는 벼락 친 곳이 자기 집 위치란 걸 알고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뒷산의 산사태로 집은 사라지고 아내와 누이는 불어난 태화강물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며

“여보 사람 살려요”,

“오빠 사람 살려요”라고 아우성이었다

농부는 급히 강물에 몸을 던져 단숨에 아내를 구해냈다. 곧이어 누이를 구하려는데 험악한 물굽이로 인해 누이의 손은 잡을 수 없었다. 누이는 통나무 토막을 의지해 마구 떠내려가며

“오빠 사람 살려요” 라며 발악을 했다. 하지만 사투를 벌인 보람도 헛되이 누이는 오빠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

멀쩡한 사람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오빠의 허무한 심정과, 통나무에 의지해 죽음의 길로 떠내려가면서 오빠에게 살려 달라고 소리쳤건만 구원받지 못하는 누이의 처절한 심정을 어디에 비길 것인가. 가련한 누이는 이렇게 영영 되돌아올 수 없는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농부는 하나뿐인 누이를 잃은 슬픔에 부인을 업고 산언덕 바위굴에서 비를 피하면서 실신 상태의 부인을 되살렸다.

한편 가련한 처녀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애달픈 심정을 남겼는데 이 노래가 훗날 이 고장에 모심기 소리 등에 유명한 민요 한 구절로 등장하게 된다.

남창남창 배리 끝에 무정하다 울 오라배

나는 죽어 환생하면 낭군부터 정해야지

‘남창남창’이란 불어난 태화강 물이 남창남창(남실남실) 넘칠 듯 하다는 뜻이고, ‘배리 끝’은 자기 집이 있던 자리이고, ‘무정하다 울 오라배’는 아내를 먼저 구한 오빠를 원망하는 누이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하겠다. 즉 낭군이 없음을 탄식하며 죽어서 환생하면 낭군님부터 정해야겠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있는 뒤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는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의 깊은 여울이 파였다고 하는데, 이 여울에는 비가 오려고 몹시 흐린 날에는 한밤중에 애간장을 끓는 애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하였다고 전한다.

이 소리가 들리면 인근 마을 총각 중 한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스스로 걸어가 그 여울에 빠져 자살을 하곤 했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그 처녀의 원한 맺힌 영혼의 번고일 것이라 믿고 원귀冤鬼를 달래기 위한 백일 위령굿을 했다고 한다.

지금 이곳은 폭주하는 24호 국도의 교통난으로 인해 구영九英과 다운동茶雲洞간, 즉 ‘배리끝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울산시에서 계획 중에 있다.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배리끝의 애화哀話 (3)

옛날 언양에서 범서로 가는 산모퉁이의 험한 충암절벽 길을 「배리끝」 또는 「벼락띠미」라고 하였다. 반천리 살수米淵마을 동쪽 산 벼랑길이 곧 이곳인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와 신설 국도로 인해 1970년대에 이르러 폐도廢道가 되었다. 이 길은 태화강에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어 떨어지므로 높은 벼랑을 이루어져 있는 험한 곳이다.

옛날 어느 해 여름의 일이었다. 며칠 동안을 두고 큰 비가 쏟아져서 태화강은 홍수로 뒤덮혀 있었다.

이때에 한 젊은 부부가 시집가지 않은 누이동생과 함께 배리끝을 지나고 있었다. 강물은 길에까지 넘쳐 남창남창(넘실넘실)하고 홍수는 사납게 굽이치며 흐르니 길손들은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사나이의 뒤를 따라오던 시누이와 올케가 아차 하는 순간 그만 발을 잘못 디더 강 속(벼락소)으로 떨어졌다. 큰 비명에 놀란 신랑은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내와 누이동생이 한꺼번에 성난 탁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응급결에 자기 앞에 떠내려가는 옷자락을 잡아 겨우 건져보니 자기 아내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숨을 돌려 보았으나 누이동생은 강 가운데로 떠내려가면서 두어 번 얼굴을 솟구치더니 그만 탁류 속에 휘말려 돌아오지 못하는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이 애처로운 일이 있는 뒤의 일이었다. 누군가가 지어 불렀는지 모르는 일이나 한 슬픈 노래가 불리어 졌다

남창 남창 배리 끝에 무정하다 울오랴

나도 죽어 환생하면 남군님부터 정할래라

이 노래는 지금까지 <모심기노래>로 개사改詞되어 널리 불리어 진다. 모내기철 해질녘에 구성지게 불려오던 이 노래의 출처인 벼락띠미(배리끝)가 이곳 벼랑 (배리끝)이라고 한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배리끝의 애화(4)

울주군 범서면 사연리 넘내부락 태화강 상류에 배리끝이라고 불리우는 낭떨어지 벼랑이 있다. 이곳을 일명 벼락소라고 하는데 본래는 벼락끝이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는 농부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족으로는 농부의 부부와 과년한 누이동생 이렇게 세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뇌성벽력과 함께 억수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농부는 논둑이라도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다. 그런데 빗줄기는 점점 힘차게 쏟아지고 천치가 진동하는 뇌성벽력으로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농부는 논을 돌아보고 물고를 손보아 놓고 나니 집안의 걱정이 되어 장대 같은 빗발 속을 뚫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농부가 논으로 나가고 없을 때 농부의 집 뒷산에 벼락을 쳐서 산이 무너졌다. 이때 산이 무너지면서 농부의 집을 밀어서 불어나는 태화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때 집안에 갇혀서 뇌성벼락 소리에 놀라서 공포에 떨고 있던 농부의 부인과 누이동생도 떠밀리는 집과 함께 강물 속으로 휘말려 들고 말았다. 허겁지겁 달려온 농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인과 누이가 저만큼 물굽이에 휘말려서 ‘사람살리라’는 아우성을 치르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놀라고 당황한 농부는 강가로 뛰어 내려가다가 먼저 아내를 건졌다. 농부가 아내를 건져놓고 누이를 건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누이동생은 통나무를 걸타고 급류에 휘말리면서 달려오는 오라버님더러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라버님은 올케를 구하느라고 누이동생인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는 오라버님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하였다. 속절없이 수살귀신의 신세가 되어 떠내려가는 애달픈 처녀는 오라버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다.

남창 배리끝에 무정하다 오라버님

나도 죽어 환생하면 남군부터 정할라네

남실거리는 태화강의 배리끝에서 떠내려가는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자기 부인인 올케만 구하는 무정한 오라버님 야속하구나. 나도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면 낭군부터 정해야 하겠네. 라는 뜻으로 노래했다고 한다.

이때 이렇게 애닦은 죽음을 당하면서 처녀가 부른 노래는 오늘날까지 우리고장의 모심기 노래의 가사가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이곳 배리끝에서 명주실 한 꾸리를 풀어도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여울이라고 믿어왔다. 지금은 고속도로며, 울산, 언양 간의 지방도로도 지나고 있어 다만 그날의 전설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배리끝의 애화(5)

울주군 범서면 태화강 중류에는 배리끝이라는 벼랑이 있다. 이 배리끝을 일명 벼락끝, 또 벼락소라고도 한다. 옛날 이 자리에는 농부가 사는 농가 한집이 있었는데 집 뒤에 벼락이 때려 산이 무너지면서 집은 강물에 떠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여울이 파여 이 여울에는 명주실 한 꾸리를 풀어 놓어도 닿지 않을 만큼 깊은 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 배리끝에는 농부의 부부와 과연한 누이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꺼먼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번개가 치면서 장대같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농부는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논둑이라도 무너질까봐 우장 샷갓을 쓰고 논으로 나갔다.

집에는 올케와 시누이만 뇌성벽력의 공포에 떨면서 비가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걷히기는커녕 점점 더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한다. 때때로 천지가 진동하는 뇌성벽력이

내리치니 온통 천지가 캄캄했다가는 대낮같이 밝아졌다가 정신이 혼돈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한번은 '따닥따닥 왕', 하는 소리와 함께 집 뒤 산언덕에 벼락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만 산언덕이 쑥 무너져서 짹 미끄러지면서 농부의 집도 함께 강으로 내려앉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방안에 들어앉았던 시누이 올케는 강물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편 논으로 나갔던 농부는 논둑을 다독거리놓고 나니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방향이 자기 집의 위치인 듯 하여 허겁지겁 뛰어 왔다. 아 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고 보니 산은 무너지고 집은 붙었던 자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농 부는 놀라 두리번거리고 살펴보니 쏟아진 비로 불어난 태화강 물위로 아내와 누이동생 이 물결에 휘말려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을 친다.

농부는 단숨에 뛰어가서 먼저 자기 아내부터 건져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누이를 구하려 고 뒤돌아보니 이미 누이는 가물가물 떨어져서 구할 도리가 없었다. 농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누이는 통나무 토막을 걸터 잡고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두 손을 내 저었다. 이렇게 되어 오빠와 누이는 서로 단장의 고별을 하고 말았다.

멀쩡한 생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오빠의 심정이나, 통나 무를 잡고 굽이치는 강물줄기를 따라 죽음의 길로 떠내려가면서 강 언덕에 선 오빠를 보 고 외쳐도 외쳐도 구원받지 못하는 누이의 심정은 서로가 오죽이나 했을까?

가련한 이 처녀는 이래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수중고혼이 되고 만 것이다. 농부는 세상에 돌도 없는 누이를 잃고 애통 비통 서러워하면서 부인을 업고 산언덕 바위굴에 비를 피하면서 실신상태에 있는 부인을 되살렸다. 이 가련한 처녀가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애 님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하다.

남창남창 배리끝에 무정하다 우리 오빠

나도 죽어 환생하면 남군부터 정해야지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노래인가. 남창남창이란 퍼부은 빗물로 급작스럽게 불어 난 태 화강물이 남창남창 넘칠 듯하다는 뜻이고, 배리끝은 자기의 집이 있던 자리며, 무정하다

우리 오라버님 어찌면 아내가 그렇게도 지중해서 나는 구해 주지 못하고 아내만 구한단 말이오. 이려고 보니 여자는 역시 낭군이 있어야 하나 봐요. 그렇다면 나도 죽어서 낭군님 부터 정해야 하겠네요. 라는 뜻이 된다.

이 노래는 우리 고장의 애절한 모심기 노래 곡조를 붙여서 모심기 때만 되면 이 고장 들 판에는 여기저기에 수 십 명씩의 아낙네들이 집단이 되어 모를 심으면서 이 노래를 합창하고 그날에 죽어간 가련한 처녀 혼을 달래 주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부터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는 명주실 한 꾸리를 다 풀어도 닿지를 앓을 만큼 깊은 여울이 파였는데 이 여울에는 비라도 오려고 날씨가 찌푸리기만 하면 밤중에 간장을 끓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하였다. 이런 때는 꼭 어느 마을 젊은 총각이든 간에 한사람의 총각이 자다가 무단히 일어나 제 발로 걸어가서 이 여울에 빠져 자살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그 처녀의 원한 맺힌 영혼이 원귀가 되어 일어나는 변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귀를 달래기 위한 위령굿을 백일간이나 했다. 그리고 부터는 그 같은 변고가 없어진 것이다. 실로 애닦은 사연이라고나 할까.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망성望星 허(헛)고개

망성이란 지명은 원래 망성望聖 또는 망승望僧이라 하던 것이 1911년에는 망성望城이라고 쓰다가 1914년 행정 개편 때 지금의 망성望星이라 고정되어 부르고 있다.

글자의 뜻을 음미해보면 이곳의 지대가 높고 숲이 우거져 별로만 보인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러한 자연 조건 외에도 마을 이름에 얽힌 전설이 유래되고 있다.

옛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이 후백제로 하여금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문수보살에 빌어 불력佛力으로 국운을 회복코자 제사祭祀를 친히 공양하였다.

이때 남루한 옷차림에 한 스님이 나타났다. 이 스님은

“소승도 제사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나이다.”하고 간청하였고, 임금이 쾌히 허락하니 말석末席에 참석할 수 있었다.

제사를 마친 왕이 스님을 보고 조소하며 희롱조로

“이제 돌아가거든 남에게 국왕이 친히 공양하는 제사에 참여하였다고 하지 말아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도 답하기를

“폐하께서도 남에게 문수文殊를 공양하셨다는 말은 하시지 마소서.” 하며 몸을 날려 남쪽으로 향하였다.

임금은 아차 놀라며 스님을 따라 나섰으나 도저히 스님에 미치지 못하고 헛 고개에 이르니 스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더 멀어져 갔다. 왕은 뒤늦게 크게 탄식하며 “이제 다 헛일이로구나.”를 부르짖으며 망성까지 달려왔으나 스님文殊菩薩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영축山靈鷲山으로 사라지고, 왕은 정신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고 전한다.

이 전설 뒤로 망성望星을 망성望聖 혹은 망승望僧 즉, '성현을 볼뿐이다.' '스님을 볼뿐이다'라는 뜻으로 불렀다 전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경순왕이 문수보살을 몰라봄을 탄식하며 “이제 헛일이로구나.”하였다 하여 헛고개, 혹은 헛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지인知人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버렸구나 하여 지지知止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며, '지잔'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이 가파르고 험준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같다.

두동면斗東面의 은편銀片과 범서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며 이곳에는 신경통, 요통에 탁월한 효험을 본다는 소문난 '지잔물탕'이 있다.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헛고개와 망성望聖

신라新羅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키고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었으나, 말엽에 들어서는 권력의 쟁탈전이 벌어져 같은 귀족貴族간에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지방地方에서는 세력 있는 호족豪族들이 웅거하여 중앙中央의 정령政令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어지러운 국면에 빠져오더니, 마침내 후백제後百濟의 건환이 일어나고 고구려高句麗의 계승을 선언하는 궁예가 일어나서 나라의 판도는 신라의 옛 땅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판국에서도 경애왕景哀王은 신하와 궁녀를 거느리고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환락에 빠졌다가 후백제後百濟의 급습을 받아 경애왕景哀王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의 도성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때에 후백제後百濟의 건환의 손으로 세워진 신라의 임금인 경순왕敬順王이었다. 큰 집이 기우는데 한 기둥이 이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 등극한 경순왕敬順王인들 이미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을 건잡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경순왕敬順王은 이러한 어지러운 국운國運을 부처님에 빌어 다시 일어나려고 마지막 기도企圖를 하여 보았다.

어느 날 왕은 국사國師에 영을 내리고 호국護國의 불사佛事를 일으켜 왕王이 친히 가서 부처님에 공양供養할 때였다. 얼굴은 엷엷엷음하여 험상궂고 허리는 꼬부라지고 입은 가사 또한 남루하기 그지없는 한 중이 뜰에 서서 청하기를

“추하고 보잘 것 없는 노승老僧이오나 소승小僧도 같이 제齋하기를 바라나이다.”하며 몇 번 허리를 굽혀 절하니 임금께서는 말없이 허락하여 말식에 참여토록 하였다.

그러나 제齋가 끝났을 때였다. 그 노승老僧을 다시 보니 너무 모습이 초라하므로 희농戲弄 삼아 비웃으며

“어느 절에 있는가?”하니

그 중은

“하곡현河曲縣(신라 말 울산蔚山의 지명地名)의 영축산靈鷲山에 있나이다.”고 공손히 답하였다.

왕王이 또 말하여

“이제 그대가 돌아가거던 남에게 국왕國王이 친공親供하는 제齋에 가보았다고 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하자 중도 빙그레 웃으며 말하되

“폐하陛下께서도 남에게 진신眞身 문수보살文殊菩薩을 공양供養하였다고 말하지 마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하늘 높이 날려 남쪽으로 향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다하여 국운國運을 건 행사行事였으니 왕王이 놀라고 한편 부끄러운지라 빨리 어가를 준비케하여 문수보살이 가는 길을 뒤따라 나섰다.

왕王은 서울로부터 지금의 두동면 봉계斗東面 鳳溪에서 남南으로 빠져나와 구미리九味里 방면을 지나 은편과銀片과 범서凡西 지관 사이에 있는 고개길까지 왔으나 아무리 하여도 문수보살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왕王은 크게 탄식하면서

“헛일이로구나 헛일이로구나.”하며 외쳤다.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어가를 재촉하여 길을 달렸으나 망성望星에 당도하여 남南쪽을 보니 문수보살은 벌써 몸을 날려 영축산靈鷲山까지 가더니 거기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임금은 낮을 잃고 멍하니 영축산靈鷲山을 바라볼 뿐이더니 이윽고 정신을 돌려 울부짖으면서 ‘하늘과 부처님은 나를 버렸구나’하고 수레를 돌려 환궁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경순왕敬順王은 나라를 들어 고려高麗에 항부降府하였고 이를 반대反對하던 마의태자麻衣太子는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초식草食을 하면서 일생一生을 마쳤고, 둘째 아들 범공梵空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한다.

신라新羅의 천년千年사직이 끝을 고고하는 애처로운 이 전설과 관련지어 내려오기를 두 동면 은편리斗東面 銀片里와 범서면凡西面 지잔마을과의 사이에 있는 고갯길에서 경순왕敬順王이 ‘헛일이로구나’고 탄식하였다 하여 이 고개를 지금까지도 ‘헛고개’라 하며 어가를 멈추고 쉰 자리를 ‘지잔’이라 불러오고 있다.

또 망성에서 사라져가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을 바라다 보았다하여 ‘망성望聖’이라 하다가 지금은 변해서 ‘망성望星’이라 하여 별 성자를 쓰게 되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윅수, 남구, 1984]

[이윅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나가소 羅哥沼

연대는 알려지지 않으나 예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다. 중구 다운동의 다전마을의 낙안산落雁山 자락 아래 나씨羅氏 일족이 큰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한다. 당시 태화강은 현재와는 달리 범서읍 백천에서 굴화 앞을 지나 삼호마을의 남향으로 흘렀다 한다.

나씨들이 살던 이곳은 강변마을이고 보니 넓고 기름진 땅이어서 대대로 윤택하게 사는 복된 고장이었다. 이렇게 풍요로운 마을이면서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관문성을 통해 동래東萊로 가는 길목이니 과객들의 출입이 잦았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석양을 받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던 한 노인이 이 마을을 찾아 들었다. 샅갓을 눌러쓰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이 노인은 옷조차 매우 남루하여 겉으로 보아 결인의 행색이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큰집인 부잣집을 골라 대문간에서 주인장을 찾았다.

“주인장 계시요? 주인장 계시요?”하고 주인을 찾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목을 가다듬어 다시 주인을 찾아 불렀더니 이윽고 하인이 나타나 누구를 찾으시느냐고 물으니 노인은

“길가는 나그네인데 주인장을 좀 뵙고자 한다.”고 전하니 조금 기다려라 하고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바깥주인이 나타났다.

“누구시길래 이 석양에 사람을 찾으소?”

“예, 이 사람 월성月城에서 동래東萊로 가는 길손인데 그만 해가 저물기에...”하며 말끝을 힘없이 흐렸다. 그러자 주인은

“해가 저물었는데 어찌하자는 거요?” 하며 되묻는 말이 아주 언짢은 눈치였다.

노인은 다시 사정 조로 말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헛간이라도 하룻 밤 머물 수 없겠소?” 하니 주인은 다시 짜증스럽게 답하였다.

“우리 마을을 찾는 사람이 당신 하나 뿐인 줄 아시오. 손님들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제

는 진절머리가 나서 못살겠소, 제발 손님 좀 없는 곳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소원이요.” 하고는 통명스럽게 안으로 들고 말았다.

사정한 보람도 없이 문전박대를 당한 노인은 하는 수없이 다시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무거無去에 이르러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설 수 있었다.

이튿날 동이 트자 이 노인은 다시 주막을 나서서 영축산(문수산)으로 올라가 북쪽을 이윽고 살피더니 한동안 침묵하였다. 노인에게 강 건너 아담한 나씨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래 등 같은 큼직한 기와집들의 아담한 이 마을은 한눈에 부자촌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마을이었다.

한동안 건너편의 나씨촌羅氏村을 바라보던 이 노인은 아무 말이 없더니 드디어 무슨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구영동舊營洞(현 구영리九英里) 앞에서 배리끝을 거쳐 그 마을 쪽으로 크게 선을 긋고는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때를 같이하여 갑작스럽게 서쪽하늘에서 시커먼 구름덩이가 덮여오더니 진종일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다. 밤새 쏟아 부은 폭우는 그 이튿날 새벽녘에 와서야 겨우 멈추었다.

날이 밝아서 보니 곳곳에 산사태와 변해버린 물줄기로 인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다. 성난 태화강은 배리끝에서부터 나씨 마을을 삼키고 지금과 같은 강줄기로 변했고 그 부자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큰못이 생겨 있었다. 그 뒤 고을사람들은 나씨들이 다 망하고 그 영화 역시 다 끝났는데 이 모든 결과는 그 노인의 소행이라 하였다.

그 뒤로 사람들은 못池으로 변해버린 이 나씨촌을 나가소羅哥沼라 하여 지금도 전해오는데 범서와 다운쪽 사람들은 '난간소'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시사蔚山市史』, 울산시, 1987]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윤부사尹府使의 명판결名判決

조선 영조英祖 때에 윤지태尹志泰라 하는 울산도호부사가 있었다. 그는 부임하여 질병을 다스리며 군마전軍馬錢의 제도를 두어 소로써 짐을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보淤나 못을 고치고 막아 농사를 장려하며 객사客舍와 장대將臺도 중수하는 등 자못 그 치적이 볼 만하였다.

어느 때 민정을 살피기 위해 서부지방으로 순시에 나섰다. 사또의 행차가 태화太和 말랑이에 이르렀다. 그런데 길가에 웅기집 하나가 넘어져서 박살이 나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늙은이가 주저앉아 탄식을 하고 있었다.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슬하에 아들이 없이 늙어 의지할 곳은 없고 장을 찾아 웅기를 저다 팔고는 근근이 연명을 할 수가 있었다.

이날도 구영점舊營店(범서면 구영리凡西面 九英里)에서 웅기를 지고 울산장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어깨를 파고드는 무거운 짐을 받쳐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별안간 회오리바람이 불어 웅기집이 넘어져서 그만 그릇들이 박살이 나고 만 것이었다. 사또의 눈에 비친 그 늙은이는 측은하기 짝이 없었다.

이때 윤부사는 부하를 시켜 내일 동헌東軒으로 나오게 하였다. 동헌에 돌아온 윤부사는 또 형방刑房을 불러 동면東面에 사는 어부 가운데 넉넉하게 사는 사람 두 사람도 내일 같은 시간에 불러오도록 하였다.

웅기장수는 집에 돌아왔으나 깨어진 웅기의 아까운 것보다도 겹에 질려 밤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죄라고는 늙어서 자식 없는 죄뿐인데 무슨 큰 벌이 내릴지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날이 밝자 두 어부와 웅기장수는 윤부사 앞에 서게 되었다.

윤부사는 두 어부에게 어제 그 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고 물었다. 그 두 사람의 대답은 한사람은 고기를 잡아 포구에 돌아오는 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기잡이로 나가는 시간이었다. 윤부사는 다시 물어 돛을 달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런데 두

어부의 답은 다 뜻을 달고 바람을 이용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윤부사는 두 어부가 서로 한 어부는 동풍을 빌어 돌아왔으며 다른 한 어부는 서풍을 빌어 바람을 타고 바다로 나아간 것이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죄 없고 불쌍한 옹기장수가 그만 손해를 본 것이라고 논고하였다. 그리하여 두 어부는 옹기값으로 각각 닻량五兩씩을 변상하여 주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그 후 이 말을 들은 고을사람들은 다 명판결이라 감탄하였다.

반탕골에는 윤부사의 선정비가 있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서진욱, 다운동, 울산문화원, 1996]



온 산 읍 편

처용랑 處容郎

신라新羅 제49대 헌강왕憲康王때의 일이었다. 서울로부터 바다안에 이르기까지는 집과 담이 서로 이을 정도로 번창하여 초가草家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풍우風雨는 사철 순조로와 풍년이 드니 풍악소리와 노래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때 대왕께서는 신하를 거느리고 동쪽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피시다가 마침 상개동上開洞 개운開雲마을에 이르렀다가 돌아갈 무렵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갑작스럽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앞을 가려 길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대왕이 이 일을 괴상히 여기시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시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는 동해용東海龍이 신통한 재주를 부리는 것이오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주심이 좋으리라

하였다. 이에 임금께서는 용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세워주도록 왕명을 내리니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해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開雲浦라 부르게 되어 개운동이란 이름을 지금도 남겼다.

이때 동해용이 크게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 춤추며 덕을 찬미하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아들 하나는 임금을 따라 서울에 돌아와서 왕정을 보필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왕이 그를 서울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자 고운 여자로서 아내를 삼게 하며 또 급간級干이란 벼슬도 주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의 미인됨을 탐낸 마마신媽媽神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동침同寢하고 있었다. 밖으로부터 돌아온 처용處容이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음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이때 처용이 부르던 노래는 이렇다.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드러 노니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 네히려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뉘해인고
본대 내해다만은 빼졌으니 어찌하리고

그때에 신이 나타나서 앞에 꿇어앉아 사죄하되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지금 과오를 범하였는데 공이 노하지 않으니 감격하여 아름다히 여기는 바이며, 금후 맹세코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 일이 있는 뒤로부터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대문에 붙여서 요사한 귀신을 쫓고 경사를 맞아 들였다.

이야기는 다시 되돌아가나 서울에 돌아오신 왕이 영축산 동쪽기슭의 승지를 골라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望海寺 또는 신방사新房寺라 하였는데 용을 위해 세운 절이다.

청량면 율리의 망해사가 바로 이절이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처용과 망해사지

울산시 황성동 세죽 앞 바다 가운데는 자그마한 돌섬 하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처용암이다. 처용이 이 바위에서 나타났다고 하여 처용암이다.

때는 신라 제49대 헌강왕 재위시다. 새해년년 풍년이 들고 서라벌(경주) 장안에는 초가집 하나 없고 기와집으로 이어져 있고,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명이 한창 꽃을 피울 때 길가에는 노래와 춤이 끊이지를 않았다.国泰民安하고 태평연월할 때 한번은 왕이 줄줄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주지방東洲地方으로 순행을 나섰다.

왕의 일행이 이곳 학성에 도착하니 학의 무리가 모여 앉아 마치 왕의 순행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울부짖었다고 한다. 이를 본 왕은 일행과 함께 학성에 잠시 머물러 쉬어 갔다고 한다. 이로부터 이 산을 학성이라고 이름 하였다.

학성을 출발한 헌강왕 일행은 처용암 건너편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다다라 울산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는 신라 서울 서라벌로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난데없는 짙은 운무에 휩싸여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필유곡절이라고 생각한 왕은 옆에 시립한 일관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일관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아마도 동해 용왕이 노하여 일으킨 조화인 줄 아뢰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이와 같은 일관의 말을 듣자

"그렇다면 동해 용왕의 식복을 빌기 위한 절간을 지어 주도록 하여라." 하고 분부 하였다.
왕의 이 같은 분부가 내려지자마자 짙은 운무가 그만 삼시간에 말끔히 개이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일대를 개운포開雲浦라고 이름하였다.

운무가 개자 바다가운데 있는 작은 돌섬에서 처용아비가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왕도 신하들도 마냥 흥겹고 즐거워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그중 한 아들을 데리고 서라벌로 갔다고 한다. 이 사람이 바로 처용인 것이다.

처용은 왕을 따라 서라벌로 가서 왕을 보필하고 급간級千의 벼슬을 받았다고 한다. 급간의 벼슬이라면 신라조정의 17관등 벼슬 가운데도 아주 높은 벼슬이다. 처용은 아마도 춤과 노래를 발전시키는 일을 맡아 왕을 보필한 듯하다.

처용은 날마다 궁중에 나가 맡은 일에 열중했다. 왕은 처용이 혹시 뜻을 잃고 서라벌을 떠날까 염려되어 서라벌 장안에서 제일가는 미인을 골라 처용과 결혼하게 하였다. 처용은 아름다운 아내와 살게 되었다.

하루는 처용이 그날도 궁중에서 종일토록 맡은 일에 열중하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처용은 방문을 열고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아내 혼자 누워 있다면 다리가 둘 일 텐데 다리가 넷이 아닌가. 처용은 태연하게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즉흥시로 된 노래를 부르며 춤을 너울너울 추었다.

동경 달 밝은 밤에 밤늦도록 노니다가
돌아와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해였건만 둘은 뉘해 인고
본시는 내해였지만 잃었으니 어찌 할꼬

이때 방문을 열고 한 사나이가 나와서 처용 앞에 넋죽 엎드려 사죄를 한다. 그 사나이가 말하기를

“나는 인간이 아닌 역신疫神인데 당신의 아내가 하도 아름다워 흠모하다가 잠시 인간으로 화하여 침범했더니 당신은 전연 노하지를 아니하고 태연하고도 너그럽게 노래하고 춤을 추니 당신은 위대하고도 비범한 인물이외다. 앞으로는 당신의 형상만 그려 붙여 놓은 곳이라 할지라도 일체 범접하지를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역신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신라 사람들은 역신을 쫓는 방편으로 처용의 초상화를 그려 문간에 붙이는 풍속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한편 왕의 분부를 따라 지어진 절간이 문수산 동쪽 영축산 중턱에 자리잡은 망해사望海寺다. 왕은 그 당시 동해 용왕이 문무대왕의 화신化神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와 김유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미처 다 이루지 못한 통일과업을 김춘추의 아들인 법민法敏이가 후에 문무대왕에 오르면서 통일을 마무리 한 것이다. 문무대왕은 승하할 때 임종 유언으로서 죽거든 땅에 묻어서 능을 쌓지 말고 화장을 하여 그 유골을 동해바다에 수장해 달라고 하였다.

사후에 동해용왕이 되어 신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 후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 앞바다 문무대왕 수증왕릉이 있는 곳에서 일진풍파가 일더니 섬 하나가 움직였다. 왕이 그곳에 나아가서 용을 만나 천사옥대와 주리야합晝離夜合하는 대나무를 얻어 피리를 만드니 이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萬波息笛이었다.

만파식적을 불면 만 가지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름 하여 만파식적이다. 헌강왕은 아마도 이때 동해용왕이 다른 아닌 문무대왕의 화신으로 알고 망해사를 짓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고 부터 신라 사람들은 용왕을 숭배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망해사는 처음 신방사라고도 하였다. 동해용왕의 식복과 신라의 호국을 빌던 신라 고찰이었건만 그 후 역대의 병난으로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법당이 세워졌던 자리에 주초석만 정연하게 심어져 남아있고 법당 뜰 좌우에 세워진 석조부도 두 기만 남아 있다. 이 석조부도는 보물 제 173호로 지정되었다.¹⁵

15. 울주 망해사지 승탑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되고 조국이 해방되자 김수태라는 불신도가 절터 아래에다 지금의 사찰을 중창한 것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처용암處容岩과 망해사望海寺

이 처용암處容岩이라는 것은 너무 참¹⁶, 처용암하고 망해사望海寺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역시 삼국유사에 좀 비취 있습니다.

구체적은 아니지만도 상당히 전설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처용이 실존 인물이나, 아니냐, 동해 용왕의 아들이 맞느냐, 아라사 상인이냐, 이 지방 낭도냐, 여러 가지 엇갈려가지고, 이 유명한 그 향가 연구 혹은 또 그 국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돼 있고, 처용무도 아주 훌륭한 무용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다분히 전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용암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울산시 황성동 세죽마을하고 울주군 온산면 처용리하고 사이에 흐르는 내황강¹⁷이라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자리에, 조수 이렇게 물이 교류하는 자리에, 조그마한 한 30

16.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너무 이설異說이 많다는 것을 말하려다가 그친 것 같다.

17. 외황강外煌江을 잘못 말한 것 같다.

평 가량의 암석으로 된 조그마한 돌섬, 바위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동서로 길쭉하게 늘어져 있고 그 섬에 돌섬에 가 보면, 상록수 몇 그루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처용암입니다.

그리고 이 처용암에서 인자 어떤 일이 있으나 하면 신라 제49대 헌강왕憲康王 때는 통일신라 문화가 한창 꽃을 피우다가 약간 사양화되었을 때지만은 아주 그 참, 풍년가 드 높고 길가에 뭐 노래소리 이어져 있고, 기와집이, 집과 집이 연해져 있고, 마 이렇게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던가 봐요.

헌강왕이 줄줄이 신하를 거느리고 동주지방東州地方, 울산지방이 아마 바다 경치가 좋으니까 구경을 나왔던가 봐요.

나오는데 도중에 학성鶴城, 그 때 학성이라는 산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의 학성에 오니까 학의 무리들이 가득 그 산에 서식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훨훨 날고 지저귀고 있으니까, 그 마치 헌강왕 행차를 반겨 주고 환영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학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왕 일행이 거기 앉아서 잠깐 쉬면서 즐겼다고 그래요. 학래명鶴來鳴이라 하는 그런 설이, 구절이 있습니다. 학이 와서 울었다. 그 뒤로부터 이 산을 ‘학산’ 혹은 ‘학성’이라고 이름 하나 산 이름이 생겨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인자 학성에 쉬어가지고 지금 처용암이 있는 해변에 아마 갔던 가 봐요. 그래서 놀다가 신라로, 신라 서울 경주로 돌아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운무雲霧가, 짙은 운무가 짝 끼어가지고 지척을 분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가지고,

“이 도대체가 무슨 조화냐?”

하고 옆에 호종護從하는 일관에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기 보는 일관日官들이나 혹은 의사들이 늘 왕 옆에 따라다녔던가 봐요. 그 천기 보는 일관이 대답을 하기를,

“이것은 대왕마마, 동해 용왕의 노여움으로 인해가지고 일으켜진 조화인 것 같습니다. 조화로 인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동해 용왕의 노여움 때문에 이런 조화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동해 용왕의 마음을 좋게 해 주고 동해 용왕의 식복을 빌어 주는 절을 하나 지어 주라. 그러면 될 꺼 아니냐?” 그랬

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대화가 끝나자 그렇게 짙은 운무가 삼시간에 싹 개이고 말았다 그런 애깁니다.

그러고부터는 거기 지명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개운포’라 열 개짜開字, 구름 운짜雲字, 구름이 싹 열렸다. 개운포라는 곳에 상개운上開雲, 하개운下開雲이라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개운포라는 포자는 떨어져 나갔지만 상개운, 하개운 해가지고 개운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는 개운포영성開雲浦營城이라 그래서 성이 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개이자 이 바위 밑에서 동해용이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와서 왕을 덕을 칭송을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도 인물 잘 생기고 노래 잘 하고 춤 잘 추는 한 동해용의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경주로 갔다 이거지요.

왕이 가가지고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 업무를 궁중에서 맡겼던가 봐요. 요새 걸으면 예술원 같은 그런 직책, 예술원장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관¹⁸의 벼슬을 줬다 그랬으니까네 장관 아납니까?

급관의 벼슬을 주고 처용이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왕이 걱정을 해가지고서 도망을 안가고 정을, 마음을 붙이고 있으라고 서울 장, 신라 장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를 골라가 결혼을 시켰다 해요.

그래 가지고 아름다운 마누라에게 정을 붙여서 궁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룻밤은 궁정에서 달이 환한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인자 처용이 돌아갔다 이겁니다.

가가지고 문을 열고 마누라 자는 데 손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방안이 어두운데, 다리가 부인 혼자 자면은 두나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네 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용이

18. 급간級干, 신라 때 십칠 관등 가운데 아홉째 등급의 벼슬을 이르던 말

처용가에 보면,

“동경 달밝은 밤에 밤들이 노닐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네해로다. 둘은 내해였거만 둘은 뉘 해인고? 본디는 내해였지만 잃었으니 어쩔꼬?”하는 처용가 가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두 다리가 더 있었던 다리는 바로 역신疫神이었다, 역신이 인간으로 현형現形을 해서 처용의 아름다운 처용의 아내를 침범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역신이라고 그러면 마마병이나 홍역 같은 병을 갖다 주는 하나의 신입니다. 병을 갖다 주는 신인데, 하도 처용의 마누라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흠모하다가 그렇게 침범을 했다이겁니다.

그랬는데 처용이 당장 ‘이 놈이 누구냐?’ 하고 도치를 가지고 머리라도 찍을 일인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태연자약하게 도로 방문을 닫고 물러나가서 달 밝은 그 마당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너울너울 추면서 아까 제가 읊은 처용가 이 가사 즉흥적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신이 들으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야! 범인凡人 같으면 이리지 않을 텐데, 대단한 인물이다, 관용이 아주 너그럽고 관용성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다. 내가 잘못 했다.’ 뉘우치고 마당을 역신이 나와 가지고 처용 앞에 넋죽 절하고 사과하면서,

“공의 너그러운 관용성에 내가 항복을 합니다. 앞으로 공의 형상만 그려진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침범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고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 뒤부터 서라벌 장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신을 쫓는 방패로써 처용의 얼굴을 그려 가지고 정초에 문에 높이 걸었다. 그런 풍속이 생겨났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왕명에 의해서 왕의 분부에 의해서 지어진 절이 지금 그 울산의 그 문수산文殊山, 변재천녀辯才天女가 산주山主라고 하는 문수산,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옛날에 있었던 문수산 동쪽 기슭을 영축산靈鷲山이라고 합니다.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영축산이라고도 하는데, 영축은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에 있는 영축산, 영취산 이름을 따와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영축산에는 신라 불교가 대단히 중흥을 했을 때, 뒤 절 투성이로 뚝이 있던 산입니다. 거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소위 그 영취사

靈鷲寺라든가 혹은 청송사靑松寺라든가 혁목사赫木寺라든가 문수암文殊庵이라든가 이런 절들이 가득히 들어 있던 산이기 때문에 인도印度에 있는 산 이름을 따가지고 산 이름을 짓기로 한 그런 산입니다.

거기다가 동해 용왕의 식복을 빌어주는 원찰願刹을, 처용암이 이렇게 뻗히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다 절을 세웠습니다. 절을 세워가 처음에는 동해 용왕의 부부끼리 소위 방사房事도 가능하게끔 해 준다 하는 뜻으로 신방사新房寺라 하는 절 이름을 지었더랬는데, 신방사, 그런데 이 너무 조금, 아마 절 이름이 너무 참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후에 망해사라, 바다를 바라보는 망해사라는 절로 이렇게 절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가보면 절은 폐찰廢刹이 되고 절터만 남아 있고 부도浮屠가 탑형塔形으로 된 부도 두 기基가, 동서 양 탑형으로 된 부도 두 기가 복원이 돼가지고 보물로서 돼가 있고, 그 밑에, 마, 근래에 새로 중창重創이 된 그 망해사, 절 구실을 하는 절이 하나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만 절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용 설화로 보면, 다분히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 하는 것부터가 전설적인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용암은 어떤 설화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자리가 명산이다, 우리나라가 옛날 지리풍수설 굉장히 신봉을 많이 하던 우리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묘 잘 쓰면 그냥 벼락부자 되는 거, 만날 그런 기적이나…. 소위 그런 기질이 오늘날 흘러 와가지고 한탕주의가 되었는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 묘를 거어 쓰면 부자 되고 인물 난다. 그래 밤에 몰래 갔다가 그 시체를 묻어갔고 쓴데요, 쓰면은 하나의 천재적天災的으로 이변이 일어난다. 큰 난리가 나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치거나, 소낙비가 오거나, 바람이 그냥 불거나 이런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합니다. 이변만 일어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으레히 이 처용암에 누가 갔다가 암장暗葬을 한 게 아니냐?” 가서 사람들이 거부터 파보죠.

파서 그냥 뒤흔들면 아니나 다를까 시체가 나왔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시체를 갖다 묻으면은 이변이 일어나고, 또 시체를 묻은 그 집에는 부자가 되거나 인물이 난다고 믿어가지고 자꾸 암장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가지고 지방 주민들은 그거를 감시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처용랑處容郎 망해사望海寺

제49대 헌강왕憲康王 때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이어지고 초가草家は 한 채도 없었다. 길에는 음악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 왔다.

이 때 왕王이 개운포開雲浦(학성鶴城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蔚州이다)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며 앞을 가렸다. 왕王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용東海龍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풀어야 할 것입니다”라 했다.

이에 왕이 일을 맡은 관원官員에게 용龍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짓게 하라고 했다. 왕王의 명령이 떨어지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다. 그래서 그곳을 개운포開雲浦라고하게 되었다.

동해용東海龍은 기뻐해서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왕의 앞에 나타나 왕의 덕德을 찬양하여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다. 그 중의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가서 왕의 정사政事를 도왔는데, 이름을 처용處容이라고 했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로 처용의 아내를 삼

게 하니, (이는) 그의 뜻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였다. 또한 (왕은 처용에게) 급간(級干)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처용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신(疫神)이 흠모해서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동침했다. 처용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잠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다.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는데, 그 노래는 이러하다.

신불 불기 ㄷ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보곤 가룻리 네히어라
돌흔 내해엇고 돌흔 뉘해언고
본디 내해다마룻 아사논 엇디 ㅎ릿고

이 때 역신(疫神)이 모습을 드러내어 처용의 앞에 꿇어앉아 말하기를,
“제가 공(公)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公)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공(公)의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 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서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왕은 서울로 돌아오자 이내 영취산(靈鷲山) 동쪽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서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望海寺)라 했다. 또는 이 절을 신방사(神房寺)라고도 했다. 이것은 용(龍)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왕이 또 포석정(鮑石亭)에 갔을 때에 남산신(南山神)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좌우의 사람들은 그 신(神)을 보지 못했는데 왕만이 홀로 그것을 보았다. 사람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자, 왕 자신이 춤을 추면서 그 모양을 보여주었다.

신(神)의 이름을 상심(祥審)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御舞祥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 했다.

혹은 말하기를, 신(神)이 이미 나와서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살피어 공인(工人)에게 명령해

서 새기게 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으므로 상심象審이라고 했다 한다. 혹은 상염 무霜髯舞라고도하니 이것은 그 형상에 따라서 이름 지은 것이다.

왕이 또 금강령金剛嶺에 갔을 때에 북악신北岳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옥도령 玉刀鈴이라 했다.

또 동례전同禮殿에서 잔치를 할 때에는 지신地神이 나와서 춤을 추었으므로 지백급간地伯級干이라 했다. 『어법집語法集』에 말하기를, 그때 산신山神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라 했는데, ‘도파都波’라고 한 것은 대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사태를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이라 했다. 즉 지신地神과 산신山神은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춤을 추어 이를 경계한 것이나, 나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상서祥瑞가 나타났다 하여 즐거움에 빠진 것이 더욱 심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삼국유사』권 2, 기이, 처용랑·망해사.]

처용설화

처용설화處容說話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설화이다. 신라新羅의 제49대 헌강왕憲康王 때의 일이었다.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다 자기 생업에 힘을 다하여 신라新羅의 영화가 계속될 때였다.

헌강왕憲康王은 측근을 거느리고 울산의 바닷가에까지 왔다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운무가 덮쳐 지척을 분별 못하는 천변天變을 당하게 되자 같이 있던 일관日官의 조언에 따라 용龍의 조화임을 깨닫고 그를 위해 절을 지어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자 동해용東海龍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기이한 의복과 형상으로 어가 앞에 나와 춤추며 왕의 성덕을 찬미하여 그 가운데 한 아들을 임금에게 바쳐 따르게 하여 서울에 돌아가서는 왕정을 보필토록 하니 이가 바로 처용랑處容郎이다. 왕은 처용處容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미녀로 하여금 아내를 맞이하게 하니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탐낸 역신疫神과의 사이에 사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처용은 밖에서 돌아와 이 꼴을 보고도 노하지 않고 달밤에 춤추며 노래 부르니 이 노래가 이름난 처용가라고 하는 향가鄉歌이다.

동경 밝은 달에 밤드려 노니다가,
돌아와 자리를 보니 가라리 네히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뉘해인고,
본대 내해다만은 뺏겼으니 어찌하리꼬.

역신疫神은 뜻밖의 관용에 감복하여 맹세하기를 금후로는 공公의 형용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는 나라 사람들이 처용處容의 형상을 문에 그려 묘사한 귀신을 쫓았다. 또, 왕은 서울로 돌아와서 동해용과의 약속대로 좋은 터를 영축산靈鷲山에 골라

절을 짓게 하였으니 이 절이 망해사望海寺로 일명 신방사新房寺라고도 하였다.

처용處容에 관한 일은 이러한 『삼국유사三國遺事』 이외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전해온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11 신라본기新羅本紀 헌강왕憲康王조에 「…3월에 왕이 국동 주州 군郡을 순행할 새 어디서 온지 모르는 네 사람이 어가御駕 앞에 나타나 노래 부르고 춤추었는데 그 모양이 해괴하고 의관이 괴이하여 시인詩人이 산해山海의 정령精靈이라 하였다.(고기에는 왕 즉위년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헌강왕憲康王 5년(879)의 일이다.

헌강왕憲康王 시대에 신인神人이나 용이 왕의 어가御駕앞에 나타나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는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처용랑處容郎 조의 처용설화處容說話와 남산신화南山神話, 북악신화北岳神話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남산신화南山神話는 경주慶州 포석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북악신화北岳神話도 경주 북쪽의 금강산金剛山에 갔을 때의 일임으로 이 모두 처용處容에 관한 이전異傳으로 믿어진다.

『동국여지승람』 경주부고적慶州府古蹟 월명항月明巷에도 처용處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즉, “금성金城 남쪽에 있다. 신라新羅 헌강왕憲康王이 학성鶴城(울산蔚山)에 유람하고 개운포開雲浦에 이르니 홀연히 한 사람이 기이한 형상과 괴상한 의복으로 임금의 앞에 나아가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임금의 덕을 찬미하였다. 임금을 따라 서울에 와서 스스로 처용處容이라 이름 짓고 밤마다 시가市街에서 노래하고 춤추었으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신神이라 하였고 그가 가무 하던 곳을 뒷사람들이 월명항月明巷이라 이름 하였다. 인하여 처용가와 처용무를 만들어서 가면假面을 쓰고 연출演出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이유수, 『내 고장의 정기精氣』, 울주군]

처용전설

처용의 출생지는 지금의 외항강 하구의 처용암이다. 이 바위섬에서 처용을 비롯한 동해 용왕의 일곱 아들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처용암은 지번이 처용리 1번지로 온산면 관할이었던 것이 1997년 10월 9일 부로 울산광역시 관할에 속하게 되고 울산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할지인 황성동 668번지의 1호 소재로 되어 울산광역시에 서 해마다 처용문화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또 울산의 상징물로 처용탈과 문화를 상품화 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처용의 실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이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설화 속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처용의 출생지는 온산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처용을 온산지역민들은 어떤 인물로 인식하여 왔는지 온산에서 전해오는 구전들을 모아 보았다.

1. 처용 마을의 전설

처용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이 끝나고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의 해변 가까운 수중에 넓적바위라고 부르는 사방 3~5m 정도 되는 멧방석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이 바위 위에는 사람의 엉덩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신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 무렵에 처용이 매일 나타났다고 한다.

용왕의 아들이로서 인간 세상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이후 다시는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처용이 이곳에 앉아 하염없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바위 위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울어 가는 국운을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한탄하며 또 용궁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곤 하였다. 그러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어디론가 떠나가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2. 당목 마을의 전설

당목 마을은 산암리의 자연부락으로 온산국가공단이 조성되자 제일 먼저 철거되어 1978년 이후에는 인적이 끊어지고 현재 S-oil 공장 연구소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곳은 바닷가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산이 있어 춘도·온산의 초·중학교 소풍지로도 유명하다.

육지에서 산을 넘어 동쪽으로 탁 트인 넓은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닷가에는 굽은 자갈들이 깔려있는 가운데 넓은 바위가 바다 속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많은 사람들이 야유회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있다. 이 바위 위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몇 개 있는데 이 발자국은 처용 장군의 것이라고 한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처용을 힘세고 날랜 장수로 보았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처용이 이곳 바닷가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바위들을 들고 와서 이처럼 넓은 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경치 좋은 이곳에 이와 같은 터를 만들어 두고 춤추며 놀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무거운 바위를 옮기는 동안에 그의 발자국이 여기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3. 달포와 솔개마을의 전설

산암리 달포마을에서 달포 뒷산 너머 솔개마을을 가다보면 바닷가 산기슭에 높이 40~50m정도의 정상부근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병풍 같은 모양과 그 아래로 7~8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가 있었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신선바위라고 불렀는데, 아주 옛날에 이곳에서 신선들이 모여 놀다가 200m정도 거리의 수중바위섬인 거무도(신성한 섬이란 뜻)에 날아가서 놀기도 하였는데, 그 신선들 가운데에는 처용도 있었다고 한다.

4. 대덕산 마을의 전설

화산리 내동마을 뒷산인 이곳에는 신라시대에 아주 큰 사찰이 있었다고 하며, 산 아래로는 역원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산이다.

지금은 산을 절개하여 S-oil공장과 비축단지, 지원단지 등이 들어서 있어 볼 품 없는

모습이지만 산의 정상에 넓은 초지草地가 펼쳐져 있어 소풍이나 화전놀이터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다.

이곳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닷가 돌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넓은 바위가 있고 이 바위에는 사람의 손가락까지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다.

이곳 주변 마을 사람들은 처용이 신선들과 함께 거무도와 신선암 등지에서 놀다 달 밝은 밤이면 이곳 대덕산 정상으로 날아와 달빛에 출렁이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손자국은 처용이 바위 위로 날아와 내릴 때 손을 짚은 자국이라고 한다.

5. 그 외의 구전들

위에서 기술한 내용 이외에도 거남, 용암 등 온산 북쪽마을 여러 곳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다른 마을에서는 처용에 대하여 장군이라 하여 하늘을 날고 몸이 날래고 힘이 무척 세어서 수십 평이 되는 바위를 들어 옮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달포의 경우에는 신선으로, 처용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인간적이고 고뇌하는 선비로 표현하는 내용이 구전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다리가 네 개여라

동경 밝은 달에 밤늦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에 보니 다리가 넷 일러라.
둘은 내 해였고 둘은 누구 해고
본대는 내해였다만 빼앗으니 어이리.

이것은 저 유명한 신라의 향가^{향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처용가^{處容歌}다. 처용이 읊었다는 이 노래가 삼국유사에 실려 천 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까지 전해 온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천팔십 여 년 전, 신라 사십구 대 헌강왕^{憲康王} 오년, 해마다 나라에 풍년이 들고 오곡백과가 두루 풍성하여 만백성이 태평세월을 즐기는 시절이다.

하루는 헌강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울산만으로 바다구경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다. 오른쪽에 출렁이는 동해를 두고 임금님의 행차가 영취산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짙은 안개가 앞을 가려 도무지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헌강왕은 기분이 매우 언짢아져서 급히 일기를 보는 일관^{日官}을 불렀다.

“여봐라! 일관 듣거라! 방금까지도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이리 캄캄해지고 안개가 끼니 이 어인 영문인고?”

“예, 여쭙옵기 황궁하오나 이는 필시 동해용왕의 조화인가 하옵니다.”

“뭣이? 동해용왕의 기분이라도 언짢게 했던 말이나?”

동해용왕의 조화라는 말에 헌강왕은 놀라며 일관에게 다그쳐물었다. 일관은 잠시 안개 속을 살펴보듯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감마마께서 여기까지 어려운 행차를 하였습니다아데 아무 표적도 남기지 않고 가시니, 용왕이 섭섭히 여겨 그러는 줄 아옵니다.”

“허허, 그래? 그럼 과인이 다녀갔다는 표적으로 뭇을 남기는 게 가장 좋을꼬?”

현강왕이 이렇게 묻자, 일관은 서슴치 않고 영취산 동쪽기슭에 부처님을 모신 절寺 하나를 세우도록 임금에게 상주하였다.

“절을 세우라? 그것 참 기특한 생각이로다! 이 영취산 동쪽기슭에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바랄 망望과, 바다 해海자 망해사望海寺라 일러라!”

“예이---”

현강왕이 이렇게 분부를 내리고 신하들은 그 분부를 받자마자, 신통하게도 그 짙은 안개구름이 일시에 걷히고 날씨는 다시 쾌청해졌다. 이에 현강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시 신하들 에게 분부를 내렸다.

“여봐라, 안개구름이 일시에 걷혔으니, 이제 이곳을 열릴 개開 구름 운雲자 개운포開雲浦라 일러라!” 이리하여 이곳은 그 후부터 개운포라는 이름으로 불려 지게 되었다.

얼마 후 영취산 동쪽 기슭에 망해사가 세워지던 날 현강왕이 다시 그 바닷가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임금님의 행차를 환영이라도 하듯 어디선지 그윽한 풍악 소리가 울려오고 있었다.

현강왕은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싶어 일관을 부르고 그 연유를 물은즉, 일관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이 어인 풍악소린지 어서 말해라.”

“예 이 풍악 소리는 바로 저 동해용궁에서 들려오는 줄 아옵니다.”

일관이 이렇게 임금께 여쭙는데 갑자기 천치가 진동하더니 동해가 발끈 뒤집히면서 큰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왔다, 현강왕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섰는데 일관은 여전히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웃고만 서있다.

“상감마만 이것은 길조이오니 너무 상심 마옵소서.”

“아니, 이 괴변이 길조란 말이냐?”

“예 길조가 분명하옵니다. 저기 저 바위를 보십시오.” 일관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시퍼런 물위에 바위 하나가 떠 있는데 사람들이 올라앉아 있었다.

“아니 저 웬 사람들이냐?”

“예 저분이 바로 용왕인줄 아옵니다.”

“뭣이? 용왕이라고?”

현강왕은 다시 깜짝 놀라 어쩔 바를 모르고 섰는데. 어느새 용왕은 일곱 아들을 데리고 임금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동해용왕이 신라왕께 문안드리오.”

용왕이 엎드린 채 정중한 인사를 드리니 현강왕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용왕을 내려다 보았다.

“오호, 그대가 동해용왕인가?”

“예, 제가 동해용왕이옵고 이 일곱 아이들은 제 소생이옵니다.”

“허허, 그래 그런데 어이하여 이렇게 짐 앞에 나섰는고?”

“예, 그동안 저희 용궁에 부처님의 은덕이 미치지 못하여 늘 섭섭히 여기던 중, 신라왕께서 망해사를 지어주셨으니 그 은혜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용왕은 또 한 번 엎드려 절을 크게 했다.

현강왕은 그제야 기분이 매우 흡족하여 한바탕 웃고 나서

“그래, 부처님의 은덕이 그렇게도 좋은가?”

“그야 이를 말이 있겠습니까? 그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한 가지 청이 있사운데 물리치지 않으실지 걱정이옵니다.”

“무엇인지 어서 말하라. 내 기꺼이 들어주리다.”

동해용왕은 감사하다는 듯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다. 그러곤 일곱 아들 중에서 하나를 불러내어 앞에 세우고 입을 열었다.

“이놈 이름은 처용이라 부르옵니다.”

“처용이라?”

“예! 이 처용을 서라벌로 보내어 신라왕의 정사를 돌봐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부디 제 청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처용이라?’ 현강왕은 다시 한 번 아이의 이름을 입속으로 뇌이며 얼굴을 찬찬히 뜯어 보았다. 수려한 이목구비에 화사한 얼굴이며, 어디로 보아도 똑똑하고 아무진 아이였다.

“용왕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친히 서라벌로 데려가 친자식같이 보살피리다.”

현강왕이 이렇게 말하니 용왕은 기뻐하여 처용을 남겨놓고 물속으로 돌아갔다. 바람처럼 용왕과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동해를 바라보며 현강왕은 그 길로 처용을 데리고 서라벌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서라벌왕궁에서 살게 된 처용은 용모가 뛰어나게 훌륭했고 머리 또한 어찌나 영특했던지 현강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낮에는 무예를 익히고 밤에는 학문을 배우니 그 재주가 비범할 뿐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능히 열을 알고 거기다가 마음이 드넓기가 바다 같아서 자랄수록 대장부다운 면모가 엿보였다.

그 후,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동해의 용왕아들 처용이 서라벌에서 으뜸가는 대장부로 장성했다. 현강왕은 처용을 불러놓고 혼사를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말하는 여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미모가 서라벌에서도 제일가는 터이니라. 네 생각은 어떠냐?”

“어떤 분부이시건 다 부왕마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너무 절세가인이라 하시니 저한테는 과분할까하옵니다.”

“허허 그래? 하지만 너는 내사랑하는 아들, 어찌 절세가인인들 과분하다 하겠느냐? 그럼 급히 혼사를 치르도록 마음속으로 준비나 잘해둬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현강왕은 어느새 어른이 다 된 처용을 대하는 게 기쁘기 한량없었다. 바다 구경 나간 것도 우연한 일이었고 영취산에 절을 지어준 것도 우연한 일이었는데, 그 일로 하여 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온 서라벌 장안이 들뜬 가운데 호화롭고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처용은 서라벌에서 제일가는 미녀 강씨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후리후리한 키, 새까만 머리, 환한 얼굴, 거기에 우뚝 솟은 콧날이며 시원스런 눈매며 강씨의 미모는 참으로 필설로는 형언키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품위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 한번 보기만하면 당장에 홀딱 반해 넋을 잃고 바라볼 지경이었고 귀신들까지 욕심

널 지경이라고 수군거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절세가인을 아내로 맞고 보니 처용은 하루하루가 꿈결인양 흐뭇하고 달콤했는데, 워낙 다정다감했던 처용인지라 밤이면 즐겨 통소도 불고 혼자 궁궐 안을 거닐기도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밤이었다. 그날도 처용은 창문을 열어놓고 통소를 불고 있었는데 삼경이 다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처용은 아내를 먼저 자리에 들게 하고 혼자 뜰로 내려섰다.

휘영청 밝은 달밤의 궁궐 뜰 안은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처용은 묵묵히 뜰 안을 거닐면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가 한참만에야 침소로 돌아왔다. 잠든 아내가 행여나 깼세라 처용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처용은 그만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웬 사내와 동침하고 있었다. 사내와 아내는 서로 정답게 나란히 누워 잠이 들어있었다. 이불 끝으로 비어져 나온 다리가 넷이었다. 둘은 분명 아내의 것이었고 또 둘은 분명히 사내의 것이었다.

처용은 그 자리에 한참동안 서서 네 개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막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경 밝은 달에 밤 늦도록 노닐다가
들어와 자리에 보니 다리가 넷일러라.
둘은 내해였고 또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였다만 빼앗으니 어이리

처용의 이 기막힌 노래 소리에 깜짝 놀란 것은 사내와 아내였다. 그의 아내는 얼굴을 감싸고 대성통곡하였다. 사내는 주춤춤 방구석으로 달아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그 사내의 얼굴은 처용의 얼굴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니,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처용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처용의 아내는 처용인줄만 알

고 동침한 것이 분명한 일이었다.

처용은 그만 꺾꺾 웃었다. 그러나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처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용어른님, 그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그대 대체 너는 어찌된 누구 길래 남의 얼굴을 하고 남의 침소에 들었는고?”

“예, 저는 본시 마마를 퍼드리는 역신疫神이온데, 부인의 자태가 어찌나 탐이 났던지 그만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허허허, 역신이라? 허허허!”

“제가 지은 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터이신데 보고도 못 본 척 하시고 노래를 부르셨으니, 그 고귀한 품성과 넓으신 도량에 탄복했나이다.”

“허허허 네가 탄복을 했다구?”

“예, 다음부터는 맹세코 처용어른이 계신 곳에는 물론이요, 처용어른의 화상畫像이 걸린 곳에도 절대로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역신疫神은 말을 마치자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처용은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 그만 꺾꺾 웃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마마를 퍼드리는 역신을 막기 위해서 처용의 얼굴을 그려 집집마다 대문에 붙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처용무處容舞와 처용놀이까지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풍속이 오늘까지 남아 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한 역신 앞에서 처용이 불렀던 그 노래가 삼국유사에 실려 신라 향가로 오늘날까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해용왕이 물위에 나타나 처용을 헝강왕에게 주었다는 바위가 오늘날의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에 있는데, 방도리라는 바닷가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백섬樅島이 있고 이 동백섬에서 북쪽으로 십리를 채 못가면 파도에 씻기는 바위섬이 있으니 이 바위섬이 바로 처용도인 것이다.

[『전설傳說의 고향故鄉』(5), 온산면, 삼성문화사, 1984]

처용랑의 가무

현강왕은 신라 제49대 왕이었다. 그가 재위하고 있을 땐 그 성은이 곳곳에 미쳐, 백성들은 태평한 세월을 즐길 수 있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윤택하고 재난은 자취를 감추어 나라 땅 어느 곳에선 격앙가가 울려 퍼지지 않는 곳이 없을 뿐더러 도둑이 없어 노적이 리를 그냥 들녘에 쌓아놓았으며 결코 대문을 잠그고 자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게 되자 거기 편승하여 신라의 문화는 한층 더 발전을 보게 되었다.

백성들은 근심 걱정이 없으므로 매일 술 마시고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일쑤였다. 현강왕은 자신도 가무를 무척 즐기는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거의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조신들을 거느리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엔 화랑도의 충용성 보다도 풍류성이 전체 국민을 현혹하였고, 산해 정령들까지도 춤을 추며 향락을 즐겼다. 그래서 처용랑 같은 풍류남아도 태어났는지 모른다.

9월 9일 중량절이었다.

왕은 중신과 더불어 월상루에 올라 가을 잔치를 베풀었다.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장안의 즐비한 집들은 한결 같이 금기와로 이어 번쩍번쩍 빛났고, 장안은 온통 풍악소리가 넘쳐 이곳저곳 넓은 마당에서는 남녀들이 흥겹게 가무를 즐기는 광경이 보였다.

태평세월의 한가로운 민정에 만족한 왕은 배종한 시종 민공에게 물었다.

“백성들의 살림이 풍족해서 저렇게 태평세월을 즐기니 참으로 다행하오. 듣자니 민간에서 밥을 짓는데 나무를 때지 않고 솥을 쓴다 하니 그게 사실이요?”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성덕을 베풀은 까닭에 천지의 음행이 조화되고 풍우 또한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고 외적의 침략도 없어서 백성들의 의식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심이 순량해져 국내에 도적이 없어졌으며 밤에도 대문을 닫지 않고 길에 천금이 떨어져 있더라도 남의 물건을 공으로 얻으려는 욕심이 없어서 그 주인이 찾을 때

까지 그대로 있게 되었으니 실로 요순시절이 다시 왔다 하겠습니까. 고미현에서는 삼남생의 여자까지 있어서 성세의 행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왕은 크게 기뻐하여 곧 신하들에게 잔을 권하며 군신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테 어울려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

위에서 다스리지 않아도 백성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며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왕은 까다로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각처로 유람 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풍악을 즐기게 되었다.

어느 날인가의 일이다.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학성의 임해루에 행차하여 하루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위의 경치가 그림과 같이 아름다웠기에 훌쩍 반해 행렬을 멈춘 왕은 그곳에서 다시 술좌석을 벌리었다.

이때 갑자기 검정 구름이 하늘을 덮어 오더니 주위가 캄캄해져서 바로 눈앞의 길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비도 오지 않는 천지가 암흑으로 화했으니 이게 무슨 변천이요?” 이상스럽게 생각한 왕은 곧 일관에게 천기를 물었다.

“아무래도 용이 무슨 심술을 부리는 가 봅니다. 용을 위로하는 무슨 행사라도 하여야 좋을까 하옵니다.”

“그럼 용신을 위해서 절을 세워 위로하도록 하라.”

이에 현강왕은 곧 칙령을 내렸다. 그러자 금새 먹장 같던 검은 구름이 걷히우고 다시 밝고 명랑한 일광이 천지를 비치었다. 그래서 왕은 그곳을 개운포라고 칭하고 새로운 항구를 만들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풍악소리가 울려오고 바다 저편에서 오색구름이 찬란하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꽃구름은 풍악소리와 어울려 미풍을 타고 현강왕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밀려 왔다. 가까이 다가온 이들은 용왕의 일행이었다. 용왕은 그의 아들 칠형제를 거느리고 나타나 현강왕 앞에 이르자 공손히 예를 올리었다.

“대왕의 밝으신 덕에 감복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나왔나이다.”

용왕이 현강왕의 명덕을 높이 칭송하자 현강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용왕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그저 황공할 따름이외다. 자, 어서 오셔서 함께 술을 드시고 가무를 즐겨 주셨으면 하오.” 이렇게 하여 헌강왕과 용왕과의 사이에 주연이 벌어졌다.

용왕은 헌강왕에 대한 칭송의 표시로서 풍악을 잡히고 칠형제 아들과 더불어 춤을 추었다. 사파의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아주 경쾌하고 수려한 춤이었다. 용궁에서만 추어지는 춤이었던 것이다.

가무가 끝나자 용왕은 헌강왕에게 말하기를,

“저의 자식 칠형제 중에서 제일 총명한 놈으로 폐하께 바치오니 서울로 데리고 가셔서 왕정을 보필하게 하옵소서.”

용왕은 처용량이라는 아들을 헌강왕에게 바친 다음 용궁으로 돌아갔다. 처용량은 용왕의 아들 중 가장 뛰어난 자였다.

용왕에게서 처용량을 얻은 헌강왕은 환궁하는 즉시로 영취산의 명당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개운포에서 용왕과의 약속대로 용왕을 위한 절을 세웠다. 그 절 이름이 망해사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처용량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고 정치 좋고 양지바른 언덕에 좋은 집까지도 지어 주었다. 그러나 처용량은 속세의 부귀에는 눈썹 만큼의 뜻이 없는지라 늘 우울해했다. 별로 입궐하는 일도 없이 정원에 나와 앉아 먼 하늘가에 시선을 둔 채 낮을 잃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러는 처용량의 눈에는 오직 항상 높은 하늘과 깊은 바다 속을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련히 깃들여 있는 듯했다. 형제들과 어울려 놀던 산호림이며 또 수궁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와 춤이 처용량은 그리웠다.

비록 아버지인 용왕의 지엄하신 분부를 받들어 헌강왕을 따라 온 처용량이었지만 그는 한시도 용궁을 못잊고 있었다. 특히 처용량은 고향 생각이 심한 날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는 것이었다.

시중을 드는 하인이,

"옥체를 보살피옵소서." 하고 음식 들기를 권할라 치면은,

“나에게 속세의 것이라면 모두 싫다. 부귀도 재물도 맘에 없을 뿐이다.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게 사는 것 보다 더한 행복이 어찌 있을 수 있겠나?”하며 하늘과 바다에 대한 향수를 못내 잊지 못하는 그였던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현강왕은 근심이 대단했다. 용왕의 극진한 호의를 배려하여 데려온 처용랑이 고향 생각에만 젖어 있다니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 날 현강왕은 조신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처용랑에 관한 일을 하문하였다.

“처용랑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정사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자 한 신하가 나서서 말하기를,

“폐하께서 그런 문제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그 처용랑이란 작자를 아주 가고 싶어 하는 용궁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오.”

“그건 안 될 말이오. 경들은 용왕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맡기신 일을 벌써 잊었던 말이오.”

이때 일관이 나서서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에 아뢰오.”하며 방법을 제출했다.

“예쁜 여인을 얻어 여인에게 정을 붙이게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가 하오.”

왕은 그럴듯하게 여겨 그날로 즉시 방방곡곡에 방을 써 붙였다. 나라에서 후히 상을 내릴 터이니 나라 안의 모든 처녀들은 간택에 응하라는 것이다. 이 소문은 심심산천에까지 퍼져 나갔다. 여기저기서 간택에 응한 처녀들이 모여 들었다.

드디어 처용랑의 장가드는 날이 박두에 왔다. 현강왕은 손수 신라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처용랑과 결합시켰다. 일관의 말대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처용랑은 참다운 사랑의 매력을 느꼈던지 그 잘생긴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머금었다.

“당신같이 어여쁜 여자가 있는 줄은 모르고 내 용궁 생각만 하여 왔댔오. 이제야 비로소 사는 보람을 느끼겠소.”

“황송한 말씀이외다. 소녀는 그저 훌륭한 낭군을모시게 되었음을 되려 외람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은 이렇게 속삭였다.

실로 장안 사람들까지도 이들의 미모가 마치 꽃과 나비 같다 해서 늘 부러운 듯 화제에 올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건 조금도 과장됨이 없는 표현이었다. 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귀신들까지도 처용랑의 아내에 매혹되어 그녀를 탐낼 정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악신 가운데 엉큼한 마음을 가진 고약한 신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병마를 주는 역신일 뿐 아니라 호색가여서 예쁜 여자라면 사족을 못쓰는 것이었다.

역신은 처용랑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남몰래 찾아가 보았다. 과연 소문에서 듣던 바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용랑의 아내를 홀려내려 했다.

귀공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군으로 변장하여 그녀를 찾아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용랑의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기는커녕 냉정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꾸짖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일국의 장군이라면 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감히 이러지는 못할 것이요. 빨리 이 방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큰 소릴 지를 테니 어서 나가시오.”

역신은 그만 얼굴을 붉히며 물러서고 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비장한 결심을 한 역신은 처용랑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는 처용랑의 집으로 스며들었다. 미남자로 몸을 바꾼 역신은 요술을 부려 잠든 처용랑의 아내가 몽마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 싶어 제 마음대로 여인을 끼고 누웠다. 오랫동안 소망해 오던 아름다운 여인을 드디어 범하고 만 것이었다.

그런데 역신이 한참 처용랑의 아내를 범하고 있을 무렵, 처용랑은 궁궐에서 왕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 달이 이지러지도록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처용랑은 왕을 위시하여 모든 신하들을 독특한 춤과 노래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의 희멀건 얼굴과 오흘하게 솟은 콧날 등 수려한 미모에 반하여 가슴을 조이는 궁녀들도 많았다. 왕후까지도 처용랑의 잘생긴 용모에 가슴이 설레었는지 처용랑을 자기 가까이 불러 손수 술을 따라주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마시고 흥겹게 춤을 추며 한밤을 거의 지새운 처용랑은 문득 자기의 아내를 생각해 내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궁녀들이 많은 틈에서 그는 불현듯 더 없이 허전해지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처용랑은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내 생각을 하고보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긴 밤도 펍 깊었기에 피곤하기도 했다.

현강왕도 놀이에 지쳤는지 자리를 뜰 기미를 보였다. 처용량은 그런 낌새를 눈치 채기가 무섭게 왕에게 작별인사를 고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용궁을 잊도록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처용량은 늘 처의 일을 생각했다. 처용량은 연신 춤을 춰가면서 집을 향하였다. 집에 도착한 처용량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방문을 열었다.

역신은 한참 처용량의 아내를 끼고 누운 채 잠에 빠져 있었다. 어느 사나이가 자기 아내를 끼고 누워 곤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 처용량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웠다. 자기가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하여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것이 후일에 유명한 처용가가 되었다.

동경 불괴래 새도록 노니다가
드러 내 자리를 보니
다리 내히로새라
아으,
둘은 내 해 어리라 들흔 누 해 어니오.

그러나 처용량은 추하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딴 남자와 동침을 하여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처용량은 오히려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신라 향가로서 국문학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용가는 그때 비로소 불려지기 시작했다. 여기 그 뜻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 밤이 새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와 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아내 것이언만 둘은 누구의 것이냐

“나는 기쁠 때만 노래와 춤을 일삼지 않고 슬프거나 노여울 때도 노래와 춤으로 그 불행한 느낌을 잊는다. 이것이 모두 나의 풍류의 공덕 이니라!”

“공의 그런 풍류가 저에겐 무서운 금부나 칼보다도 무섭습니다. 금후로는 공의 그림자나 화상만 있는 장소에도 얼씬하지 않겠으니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오직 너한테 엄명해 두는 건 다시는 다른 인가에 침입해서 귀한 인명을 병역으로 괴롭히거나 저승으로 잡아가지 말도록 해라. 내가 아닌 다른 남편의 아내를 범하면 그 현장에서 네 목이 달아날 것은 물론이다.”

이런 처용랑의 훈계에 감격한 역신은 백배사죄하고 다시는 인명을 해치지 않게 되었고, 처용랑의 화상만 봐도 도망갔다고 전한다.

『전설의 고향』(3), 태을출판사, 1997

처용암과 임진왜란

울산에 개운포開雲浦에는 처용암處容岩이 있습니다. 처용암을, 옛날 기록에 보면, 좀 달리 대용암大龍岩이라고도 해 왔습니다.

여게 하나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야말로 울산에는 그 좌병영이 있어가지고 좌병사左兵使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부산성釜山城에 왜군이 상륙을 했다 카는 얘기를 듣고 좌병사는 울산군수蔚山郡守가 거느리는 군병까지도 이끌고 동래성東萊城으로 향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동래성은 버려(별써) 포위가 돼 있고 부산성은 함락이 되고 이것을 본 좌병사 이

각李璫이라 쿠는 사람은 거계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서 언양彦陽에 와가지고 머물고 있다가 그 길로 병영성兵營城에 되돌아와서 달아나고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관군은 달아났읍니다. 달아났는데 지방을 지키고 있던 울산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켰읍니다.

그래서 한,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산곡간山谷間에서 의병이 구름같이 몰려 왔는데 그때 한 삼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울산에 있는 김태허金太處라 하는 사람을 가군수假郡守로 뽑아가지고 그 산하에서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울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로는,

“기장機張 쪽에서 왜적들이 배를 타고 구름같이 몰려온다.”

이렇게 전갈이 왔읍니다. 그래서 과연 척후병이 보니까 그렇게 몰려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울산에 김태허 가군수 이하 의병들은 뜻을 모아 목욕제계를 하고 그 대용암에서 제사를 지내고 용신에게 바람을 빌었읍니다.

바람을 빌기를 적벽대전赤壁大戰 때 제갈양諸葛亮이 동짓달 열아흐레날에 남풍을 빌듯이 역시 태풍을 빌었읍니다.

그래 했는데 그때가 팔월 스무사흘날인가 그래 됐는데 마침 왜적이 개운포로 몰리 올 때 일진의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왜선 열 세 척을 깨뜨리고 침몰을 시키고 우리 의병들이 대승을 했다, 이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이 나왔다 쿠는 처용암이 대용암이 되고, 이 대용암은 울산을 지키고 또 영검이 있는 그런 바위가 돼 놔서 그 후 울산 사람들은 풍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거어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윅수, 남구, 1984]

이어덴(1)

옛날 이곳 강가 마을에 이씨李氏 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청상에 혼자가 된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모시면서 그렇저렇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홀어머니 또한 착한 아들자식 하나가 남의 집 열 아들이 부럽지 않아서 대견하고 사랑스러워하며 자식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할 때도 같이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을 대하는 이상으로 목욕시키고 따뜻한 밥상을 만들어 겸상을 하며 장성한 아들이지만 한방에서 같이 베개를 맞대고 잠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세월은 흘러 자식의 혼기가 늦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매파를 놓아 아들의 장가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고, 의식주 걱정 없을 정도의 집안에다 효성 지극하고 심성 착한 청년의 소문은 이웃 마을에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고 보니 여러 곳에서 혼사말이 오고가고 홀어머니는 고르고 골라서 예쁜 처자를 며느리로 맞아 들였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들어 곱게 차려입고 아들과 함께 절을 올릴 때는 그렇게 흐뭇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지만 문제는 혼자서 지새야하는 밤이 점차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집안일 모두를 며느리가 도맡아 하니 일이 없어서 잠이 잘 오지 않나 하고 날이 밝으면 들판에서 억척스레 일도 하여 보았지만 또 다시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여서 베개를 부둥켜안고 잠을 청하여 보기도 하고 죽은 영감이 사용하던 곰방대에 불을 당겨보기도 하였지만 이 세상 모두를 빼앗기고 혼자가 된 것 같은 허전함은 떨칠 수가 없어 일어났다 누웠다 하기를 거듭하다 날을 밝히기도 일수였다.

그런 날이 여러 번 거듭하자 끝내 홀어머니는 원망의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리게 되고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악마 같고 야차 같이 보기 싫게 되고 불붙기 시작한 시기심은 그칠 줄을 모르고 타올랐다. 신희의 아들 방에서 밤중에 사랑의 속삭임이 들

리면 시어머니는 곰방대로 재떨이를 부셔져라 뚜드리며 자신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곤 하여 신방의 사랑을 식혀 잠재우고는 하였다.

어머님의 시샘을 눈치 챈 아들과 며느리가 더욱 정성을 다하여 위하고 모셨지만 어머니에게는 며느리의 고분고분하고 웃는 모습이 여우같았고 말소리조차 '매구(묘귀)'가 야심한 밤에 무덤 속 곱의 뚜껑 여는 소리처럼 싫어하며, 이제는 표시 나게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밤이 짧은 여름, 보리밥을 먹어야하는 철이고 당시에는 정미소가 없는 때이고 보니 거의 모두가 디딜방앗간이나 집에서 절구통을 사용하여 방아를 찧어야 하는 것을 이용하여 구박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쉴 시간을 빼앗기 시작하였다.

짧은 여름밤 내내 절구질을 하여 이튿날 먹을 보리쌀을 준비하게 하고 장정이 하기도 힘이 드는 보리껍질 벗기는 일을 몇 시간씩하고 탈진하여 방에 들어가 쉬려고 하면 '날이 다 밝았는데 보리쌀을 삶지 않느냐'고 호통을 쳐서 잠시도 방에 들어가서 허리조차 펴 수 있는 틈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다가 어머니 몰래 신랑이 거들어주어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부부가 함께 있고자 하면 방이 덥다, 혹은 춥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베개를 들고 와서 같은 방에 들어 누워 잠을 자니 참으로 피를 말리는 시집살이가 아닐 수 없었다.

마음 여린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고부간 갈등에 점차 의기소침해 지더니 삼년이 채 못되어 덜컥 자리에 눕게 되고 이런 이유에서인지 운명이 다해서인지 그만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고 말았다.

그러자 자식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지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며 청상에 홀로 된 며느리의 고통스런 가슴에 말뚝을 박기 시작하였다.

“저년이 저 드런(터러운) 년이 내 자식 잡아먹고 대代마저 끊어 놓았구나, 이년아! 이 서방 잡아먹은 년아 내 자식 살려내라.”하며, 하루 중 잠시도 쉬지 않고 욕하며 두들겨 패며 학대를 하니 며느리는 낮이 빠진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다.

생각다 못해 며느리는 어느 날 매를 들고 따라오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한달음에 강

가에 달려 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년 내 자식 잡아먹고 어디로 도망간다 말이나.”하며 ‘이어서’ 뛰어들어 같이 죽었다고 한다.

그 뒤 사람들은 이곳을 며느리에 ‘이어’ 시어머니가 따라서 뛰어들어 죽었다고 하여 ‘이어덤’이라고 하고 이 강을 ‘이어강’이라 불렀다고 한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이어덤(2)

이곳은 옛사람들의 능력으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명주실타래 두 개를 풀어 놓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할 정도 깊었다 하는데, 명주실 한 타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가늘게 뽑은 타래의 크기가 요즈음 송구(핸드볼) 경기에 사용되는 공의 크기 정도였으니 지레 짐작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전되는 것에는 이렇게 깊은 강에는 항상 이무기(용이 못된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도 이어鯉魚(여기서는 이무기를 말하는 것 같음)가 살고 있었고, 이무기 중에는 가끔 성질이 난폭하여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이무기를 사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곳에 이무기 사냥꾼이 와서 이무기 사냥을 하고자 채비를 하는데 길을 가던 한 스님이 이를 보고 만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무기 사냥꾼은 ‘내가 조상 몇 대째 이 일을 하여온 사람으로 천하에 내가 잡지 못하는 이무기는 없었다’고 하며

“스님! 내가 이무기를 잡아올 테니 이무기의 천도나 빌어 주시오.”하며 물에 들어갔다.

이때 구경하던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전한 말로는 사냥꾼이 물밑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은 소고기 한 덩이와 끝이 우산살처럼 접어진 창 같은 막대기를 들고 들어갔다고 한다.

소고기는 물 속 바위 동굴에 들어 있는 이무기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이고, 창 같은 막대기는 고래를 잡을 때 쓰는 작살 같은 유형의 무기로 이무기가 입을 벌리고 공격할 때 입 속에 집어넣어 우산처럼 퍼지게 만든 것이었다.

한편 사냥꾼이 물속으로 들어간 뒤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모든 것은 시운이 있는 것이니 이무기의 운은 끝난 것이 아니거늘...”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가고 한참 후 잠잠하던 물 위로 검푸른 똥 한 무더기가 둥실 떠오르더니 물속은 조용하고 이무기 사냥꾼은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이곳에는 힘 센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하여 이어덱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동백도冬栢島

온산면 방도리溫山面 方島里 앞바다에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다. 이 섬에는 봄철이면 동백이 피기 때문에 모두 동백섬이라 하여온다.

어느 때의 일이었다. 울릉도의 늦가을에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왔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백나무의 한 가지가 부러져서 바다로 떨어졌다. 그 동백가지는 그만 물결을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 왔다. 남으로 남으로 떠내려 오던 동백가지는 무슨 인연이 닿은 듯 울산앞바다까지 떠내려 오더니 조그만 섬에 밀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백가지에는 봄에 곱게 피었던 꽃이 열매를 맺어 몇 개가 달려 있었다. 이 열매는 겨울이 되어 터지더니 그 씨는 흩에 떨어졌다.

봄철이 왔다. 그 씨에서는 따뜻한 햇빛을 받은 싹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몇 포기 of 동백은 자라서 차차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섬을 동백도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그때 벌써 동백이 섬에 뻗뻗하여 동백도라 한다고 하였다. 그 뒤 사람들은 동백도의 동백을 일러 그 선조와 고향은 멀고먼 울릉도라 하였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춘도椿島와 어부漁夫

아득한 옛날에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 해변에는 젊은 어부 하나가 어장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어부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 창창대해에 그 물을 둘러치고 어부들은 어기영차! 어기영차! 하고 그물을 당겨 올렸다. 그물이 거의 다 올라올 때 쯤 되니까 마치 팔뚝 같은 고기떼가 그물에 갇혀 우굴우굴 신이 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천하절색 아름다운 미인 하나가 그물 속에 갇혀 있질 않겠는가. 몸에 옷이라곤 걸치지 않고 칠흙같이 검은 머리칼은 마치 삼단같이 넘쳐거렸고, 살결은 마치 백설같이 희고 탄력이 있었다.

어부들은 이 미인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모두 눈을 감아 버렸다. 망측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황홀하기도 해서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어부들은 눈을 뜨고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사람이 아닌 인어人魚였다. 어부들은

“인어다! 인어. 우린 이제 팔자 고쳤어! 인어 한 마리만 잡으면 값이 수 백량이라고 들었어, 야. 신난다.”

어부들은 인어를 뱃장위로 안아 올렸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다. 그런데 뱃장에 웅크리고 앉은 인어는 까만 두 눈동자를 굴리며 구슬 같은 눈물만 주루룩 흘리고 있었다.

머슴살이 하는 어부는 인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가엾고 애처러워 그대로 육지로 가서 장사꾼에게 팔아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머슴어부는 인어를 도로 바다에 돌려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봐요! 내말 좀 들어봐요!”

“무슨 말인데 어디 해봐”

“이 인어를 도로 돌려보내줍시다.”

“미쳤어? 인어 한 마리 잡는 것이 어부들의 평생소원이라고 했는데 잡은 인어를 뿔뿔에 돌려 줘?”

“난 돌려줄래요.”

“너 맘대로! 어림도 없어”

“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인어를 육지로 끌고 나가서 장사치들에게 팔아넘긴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될 줄로 아느냐? 아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야 임마. 너 지금 뭐랬어. 자 우리 이 자식을 죽쳐 버리고 말자구나.”하고 뱃장의 어부들이 우루루 머슴어부에게 덤벼들었다. 머슴어부는 들어오는 어부들을 하나씩 차례로 때려 눕혔다. 머슴어부가 이렇게나 힘이 줄은 다른 어부들이 미처 몰랐다. 뱃장에는 한 동안 난투극이 벌어지다가 어부들은 머슴어부의 주먹에 차례로 드러눕고 말았다.

이때 어부들은 재빨리 인어를 안아 내려서 바다에 넣어 주었다. 인어는 바닷물에 들어가서 몹시도 기쁜 듯이 머슴어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헤엄쳐 저만큼 멀어져 갔다. 머슴어부는 헤엄쳐 가는 인어를 바라보고 서서 어서 어서 잘가라는 마음으로 손짓을 했다.

인어는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헤엄쳐 가버렸다. 이때 뱃장위에 쓰러졌던 어부들이 부시시 일어났다. 그러나 이젠 머슴어부에게 덤빌 수가 없었다. 또 덤비다가는 이번엔 아주 목사발이 되고 말 것만 같았다. 그래서 속으로 ‘이 자식 어디 밖에 나가서 보자’ 하고 어부들은 아무소리도 못하고 고기를 잡아 노를 저어 포구로 돌아왔다.

육지로 돌아온 어부는 마을 회의 결과 머슴어부에게 동네의 몰매를 치기로 결정됐다. 머슴어부는 피할 길이 없었다. 여러 장사들이 달려들어 머슴어부의 손발을 공공 뭉었다. 몽둥이 든 장정들이 둘러서고 마을 지사인이 상석에 앉아서 명령을 한다.

“자!, 이놈은 우리 마을 어부들이 잡은 인어를 돌려줘서 막대한 손해를 가져 왔고 또 함께 고기잡이 간 어부들에게 폭행한 죄 또한 크므로 우리 마을 동네매질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 다들 그리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 차례로 한사람이 한대씩을 치시오.”하고 지사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머슴어부는

동네매를 맞는데 제일 먼저 몽둥이 한 대가 ‘딱!’하고 내리친다. “으악!” 두 번째 몽둥이가 또 내리친다. “으악!” 세 번째 몽둥이가 또 내리친다. “으악!” 네 번째 몽둥이가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쨍”하고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치더니 번갯불이 번쩍하고는 마치 장대 같은 빗줄기가 퍼붓기 시작한다. “쨍” “와당탕” “번쩍, 번쩍.”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모조리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머슴어부는 몽둥이를 맞고 반죽음이 된 채 바닷가 백사장에 엎어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머슴어부가 정신을 잃고 비몽사몽간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다.

“들거라! 나는 동해의 용왕이니라. 이렇게 비를 맞고 누어있질 말고 어서 일어 나거라.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라.” 머슴어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었다.

백사장에서 일어났다. ‘바다로 나오라 했지?’ 머슴어부는 선창에 묶어 놓은 배 한척을 집어타고 노를 저었다. 한참 노를 저었다. 육지의 마을이 저만큼 멀어졌다.

이때 어디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노를 멈추고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바로 배 옆에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부르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거북이는

“저는 동해 용왕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당신을 업고 용왕국으로 모시고 오라는 분부입니다. 자 어서 내 등에 올라 타시요.”

머슴어부는 배를 버리고 거북의 등에 올라탔다. 순간 물이 짹 갈라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갔을까?

거북이 멈추고 머슴어부가 내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휘황찬란하고 황홀하다. 흥겨운 풍악소리에 맞춰 마치 선녀와도 같은 궁녀들이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거북이 영겁영겁 안으로 기어들어 가더니 용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가 함께 나왔다. 용왕은 머슴어부를 보더니

“어서 오너라. 잘 왔구나. 여기가 바로 용왕국이니라, 애야 공주야 어서 모셔라.”

머슴어부는 왕의 일행이 나오길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공주가 가까이 와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서방님! 일어 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머슴어부는 어리둥절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드니

“아, 아니. 이게 누구요. 당신이 그때 우리 그물에 걸렸던 바로, 바로 그 아가씨가 아니
오?”

“그렇소이다. 그때 전 서방님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이옵니다.”

“아가씨! 정말 반갑습니다. 아가씨가 용왕국 공주마마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때
용왕은

“여봐라! 오늘은 우리 용왕국에 공주의 부마를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로다. 어서 산
해진미와 천일감로수를 대령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어라.”

용왕의 분부가 내려지니 온통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지고 노래와 춤으로 잔치가 벌어
진다. 용왕과 왕비가 나란히 앉고 머슴어부에게는 부마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공주와
나란히 앉아 산해진미를 안주로 천일감로주를 마시면서 풍악과 노래와 춤에 한동안 도
취가 되어 무아지경에서 도원경의 꿈을 꾸는 듯하였다.

풍악이 멈추고 노래와 춤도 멎었다. 선녀 같은 무희들이 공주 부마(머슴어부) 옆에 와
서 섬섬옥수로 술잔을 권하고 안주를 입에 넣어 주었다.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그만 취해
서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돌아와서 깨고 보니 으리으리한 침실에 비단으로 휘감은 방
안의 장식인데 옆에는 절세미인 공주가 나란히 누워 있지를 않는가? 깜짝 놀라 화다닥
일어나니 공주가 잡는다.

“서방님 우리는 전생의 연분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놀랄 것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한다.

어부는 황공하고 죄송스럽고 두려웠으나 한편으로는 흐뭇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
하기만 했다. ‘옛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하고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누워버렸다.
공주는 옆에 앉아 상냥하게 속삭였다. 이래서 어부는 용왕국 부마가 되어 공주와 부부가
되었다.

다음날 날이 밝으니 용왕께서 공주부부를 부른다. 공주부부가 왕 앞으로 나아가니

“여봐라. 부마와 공주는 듣거라.”

“예, 아바마마.”

“부마는 공주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 부마가 되긴 했으나 속세의 사람이기에 여기

용왕국에서 살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공주와 함께 속세로 나가 살다가 때가 되어 과인이 부르거든 그때 용왕국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여라.”

“하온데, 아바마마 속세에 나가 사는 건 어렵잖으나 우리 부부가 살 땅이 있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오!. 그래 듣고 보니 공주의 말이 옳도다. 그럼 과인이 너희 두 부부가 살만한 땅을 마련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여 공주와 어부는 용왕국을 작별하고 속세로 나왔다. 공주부부가 나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나왔다. 공주부부가 막 속세로 나왔을 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물이 공중 높이 큰 물기둥으로 치솟았다. 솟았던 물기둥이 내려오고 나니 거기엔 난데없는 작은 섬 하나가 솟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춘도樁島였다.

공주는 이미 알고

“여보, 저기 저 섬이 바로 우리 둘을 살게 하려고 아바마마께서 만들어 주신 섬이옵니다.”

“그래요. 정말 아담하고 멋진 섬이외다.”

“우리 어서 저 섬으로 가서 아담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공주와 어부는 이 섬으로 와서 아담하게 집을 짓고 정답게 살았는데 공주부부가 오래 오래 살다가 늙었을 때 동해 용왕의 부름을 받고 용왕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설의 주인공 춘도섬은 본래는 ‘목도目島’라고 했단다. 그 이유는 섬의 생긴 모양이 마치 동물의 눈알처럼 동그스름하다 하여 눈 목目자 섬 도島자로 목도라 불렀다.

그 후 이 고장 어부들이 멀리 남해안 다도해多島海로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다도해의 섬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동백꽃 나무가 하도 아름다워 뽑아다가 여기에 옮겨 심으니 섬 전체가 온통 동백꽃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섬을 동백섬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 섬에는 전죽箭竹이 무성하니 예부터 이 전죽을 잘라서 나라에 화살대로 받치니 이 섬을 죽도竹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 섬의 대를 옮겨 심은 곳이 지금의 세죽細竹마을이다.

그런데 그 후 어부들은 다른 섬에서 동백꽃 나뭇 줄로 알고 뽑아다 심은 것이 동백 아닌

춘백椿栢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섬에 온통 춘백이 우거지고 말았으니 섬의 이름이 춘도椿島로 바뀌고 말았다.

춘도는 항시 상록수가 우거진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섬을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 하여 보존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려 수십만 명의 유람객들이 이 곳을 찾아 아름다운 경관을 즐긴다. 이 섬을 왕래하는 나룻배가 세죽과 방도에서 왕래하고 있다. 이 섬은 길이 보존되어야 겠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춘도椿島가 생긴 유래

춘도는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 모 방짜方字 방도리 앞에 있는, 섬 이름이 나무 목木변에 봄 춘春짜 식물의 춘백의 이름을 따서 춘도라 그립니다.

방도리라는 마을 이름도 모가 난 섬이 있는, 모 방方짜, 섬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방도리라고 동네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게는 지금 울산지방에서 여름의 해상공원으로서 지금 관광객이 일요일이 되면 하루에 수 천 명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연락선이, 통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숲이 지금 천연기념물 65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문화재입니다.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의 제일 처음 이름은 목도目島라 그립니다. 눈 목짜目字 고기의 눈처럼 동그람하게 생겼다. 목도. 그 뒤에 화살을 만드는 전죽이 무성을 해가지고 죽도竹島.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부들이 저 남해 바다에 고기잡이 가가지고 동백나무 묘목을 캐다 심었는데, 그리

고부터는 동백섬이라 그라다가, 그 뒤에 어부들이 동백과 춘백을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춘백이 동백인 줄 알고 갖다 심었더니 춘백이 무성을 해서, 동백은 지금 쇠퇴일로에 있고, 춘백이 아주 무성해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천 년 묵은 찻이, 찻이 거게 가보면 나도 처음 봤읍니다만 그 둘레가 내 허리 몸뚱이만한 그런 뿌리가 아니고 곁에 올라오는 줄거리가 그런 찻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뭇니까? 등나무가 우리 그 허벅지 다리와 같이 굵은 그런 등나무들이 여기 저기 있어가지고, 굉장한 그 참 태고시절부터 있었던 원시림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섬의 전설은 어부하고 전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여게 살았는데, 바다에 고기잡이를 갔다가 인어를 잡았다고 그립니다.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고기, 인어를 한 마리 그물에 걸려 올라왔는데, 그 때만 해도 인어 한 마리 잡으면은 아주 부자가 된다고 했을 텐데, 그 인어가 배에 올라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어부는,

“도로 넣어 주자.”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고 실강이를 하다가 격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어부가 힘이 굉장히 세었던가봐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몇 방씩 그냥 쥐알리고는(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빼들어가서 눕도록 만들어 놓고 인어를 바다에다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인어가 그냥 자꾸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헤엄질쳐서 갔습니다.

그 인어는 다름 아니고 동해 용왕의 공주였다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 이 공주가, 인어가 동해 자기 아버지, 부왕(父王)에게 가서 그 사실을,

“운이 나빠가 그물에 걸려가 그랬더니 마음씨 착한 어부가 있어서 내가 구제를 받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동해 용왕은 참 그 마음씨 착한 어부가 어떻게나 고마운지 거북이, 큰 서구(瑞龜), 큰 거북이를 보내가지고,

“너 가서 어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어부는 그 길로 인어를 보내 주고 인자 욕지로 돌아왔는데, 욕지로 돌아와서 동네에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서 몰매를 치는 겁니다.

“그 인어를 가져와가 팔았으면 이 동네가 모두가 부자 될텐데, 너 때문에 이 자식아, 그 인어를 보내 줬으니 니가(너가) 맞아 죽어서 싸다.”¹⁹고 어떻게나 몰매를 맞아 났든지 얻어 터지고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실신 상태가 되어서 바닷가에 뺏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을 텐데 거북이가 와서 등에 업고 용왕국으로 갔다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 갔는데, 정신없이 용왕국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용왕도 만나고 그래 그 참 인어, 살려 준 인어가 공주로 나타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 가서 한동안 참 편안하게 용왕국에서 잘 지냈는데, 아무래도 이 속세 사람은 용왕국에는 살 수 없는 용왕국 법칙이, 법도가 있어서 총각을 내보내야 되겠다 하니 그 공주가 하는 말이,

“아바마마, 저도 이 연분인데 따라 나가서 속세에 나가서 같이 살겠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는 용왕이지만 너무나 간절하고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고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속세 가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속세 사람들하고 때 묻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속세 사람하고 때 묻지 않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너희 둘이가 살기가 알맞은 땅을 내가 하나 만들어 주마.”

이렇게 용왕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좀 기다려라.”

하루는 용왕이 도술을 부려가지고 바다에 ‘평’ 하는 소리와 동시에 지금의 춘도섬이 그냥 솟아 올랐다 하는 얘깁니다.

19.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고 섬이 딱 지금 현재 가 보면, 반야암般若庵이라 하는 암자가 하나 있고 우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담수淡水가 거기 납니다. 조금 나는데, 그저 몇 사람 먹을 만한 물이 나죠. 그래서 용왕이 담수도 점지를 해 쥐가지고 딸하고 사위하고 둘이가 거처서 속세에 때 묻지 않는 섬에서, 아늑한 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용왕의 그 조화에 의해서 솟아 오른 섬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용왕국 공주하고 마음씨 착한 어부가 거기 나와서 아주 참 고기를 잡는데, 이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고기가 언제든지 잘 잡히고 많이 잡은 고기를 팔아서, 참 용왕의 도술로서 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돼서 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다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동백섬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는 어질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라 힘 또한 장사여서 이곳 어장에서 일꾼으로 생활하면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심성 또한 좋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여러 명이 고깃배를 타고 앞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 그물을 끌어 올려보니 인어 아가씨가 그물에 걸려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워 청년은 인어를 놓아주고자 하였더니 같이 일하던 어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며 이렇게 큰 횡재를 하였는데 다시 놓아준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들 하였다.

끝내는 시비가 붙게 되고 난투극이 벌어져 힘센 청년의 주먹에 어부들 모두가 갑판에 나가떨어지자 청년은 재빨리 인어를 안아다 바다에 놓아주었다. 인어는 한참을 헤엄쳐 가다 뒤돌아보며 난투극으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의 모습을 감사의 눈길로 한참을 바라보다 물속으로 사라져갔다.

빈 배를 몰고 마을로 돌아오자 이 소문은 곧 전체 마을에 퍼지게 되었고, 어장 주인과 동네 사람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어부들이 청년을 죽여 버릴 작정을 하고 매질을 하였다. 힘센 어부들의 혹독한 매질에 청년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청년의 주위로 벼락이 치기 시작하였다. 미신을 많이 믿는 어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혼비백산하여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 한참 뒤 기절했던 청년이 정신이 들었을 때, 망망대해에 혼자 등실 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 누웠던 자리를 살펴보니 방석 같이 커다란 거북이의 등에 타고 있었다. 손가락하나 꼼짝할 수 없이 무기력해진 청년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두고 누워 있었다. 그런 그를 거북이는 용궁으로 인도하였다.

용궁에 들어가게 된 청년은 용왕의 옆에 앉아 있는 인어 아가씨를 보고 놀라고 반가워 하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며칠 동안 생전 보지도 못한 음식으로 호식하고, 영양과 극진한 인어공주의 간병으로 청년은 완쾌되고, 인어공주와 혼례를 치른 청년은 꿈결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런 어느 날 용왕이 이들 부부를 불러 이르기를,

“그대는 속세의 인간으로 용궁에서는 오래 살수가 없는 몸이니 때가 되어 과인이 부를 때까지 물에 나가 살다 오라.”고 말하였다.

인어공주가 용왕에게,

“저희들이 살아갈 땅이 없습니다.”고 하니, 용왕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나가도록 하라!” 하며, 거북에게 명하여 이들 부부를 해변으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육지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물길에 하늘 높이 치솟으며 바다로부터 섬이 솟아올라 왔다. 이렇게 하여 생긴 섬이 지금의 동백섬이었다고 한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차동진, 온산읍,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동백冬栢섬 기생妓生 익사溺死사건

지율주사知蔚州事 이복례李復禮를 선주善州²⁰로 귀양 보냈다.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가 보고하기를,

“지율주사 이복례가 첩정牒呈하기를 ‘좌도左道 염장관鹽場官 강유强楡가 과객過客인 전감무前監務 김양보金陽普를 청하여 기생 5명과 종 5명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 풍파를 만나 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기생 5명이 함께 배를 탔다면 어찌하여 수령守令이 알지 못하고 강유만이 행락行樂하였겠느냐? 수령도 실상 참여하고 거짓 모르는 체한 것이니, 말을 꾸며 대고 속인 그 죄는 더할 나위 없다”하였다.

또 탄식하여 말하기를,

“수령이 음탕한 까닭에 죄 없는 백성이 또 죽었으니, 강유와 김양보는 그들이 자취自取

20. 경상북도 선산善山의 옛이름.

한 것이거니와, 수종隨從한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또 감사監司도 엄한 영수를 내리지 못하였으니,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좌우에서 아뢰기를,

“신토등이 들은 바로는 그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도 수령이 숨기고 보고한 것이라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도 거짓이라 짐작하였다. 이복례를 붙잡아 가쇄枷鎖²¹하여 데려오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라”하였다.

이복례가 이르자, 순금사巡禁司에 내려 국문鞫問하니 이복례가 자백하기를,

“김양보가 강유와 더불어 만호萬戶 정사빈鄭思賓을 섬으로 불러놓고, 기생과 풍악으로 하루 종일 술을 마셨는데, 저는 정사빈과 함께 어선漁船 타고 돌아왔고, 김양보와 강유는 기생과 종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모두 10명 이었습니다.”하였다.

이복례의 죄가 율에 정조正條가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명하기를,

“과오過誤로 인명人命을 살상殺傷한 죄로 속贖하게 하라”하여 귀양 보낸 것이었다.²²

이 일은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태종실록』에까지 기록되었고, 후대의 문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 시를 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22 울산군 제영題詠조에는, ‘일찍이 이씨李氏 성을 가진 울산 지군사知郡事가 손님과 함께 기생을 데리고 동백섬에 놀러 갔다가 배가 파손되어 기생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를 슬퍼하여 이 시를 지었다’²³라는 서序와 함께 안등安騰의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다.

말 등에 몸 싣고 오산鰲山 산길 내려오니

21.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일.

22. 『태종실록』권 21, 태종 11년 6월 무술.

23. 「嘗有知郡姓李者 與客携妓 往遊冬栢島 舟 妓皆溺死 騰詩皆傷之也」.

벽파정 언덕에는 물결 같은 푸른 풀잎
 길 가는 기생들은 모두가 새 얼굴인데
 강 위의 맑은 바람은 예와 같네.
 信馬鰲山山下路 碧波亭畔草離離
 街頭紅粉皆新面 江上清風似舊時

또한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재집佔畢齋集』에는 ‘전에 선산 사람인 김양보가 울산군수와 더불어 이 섬에서 놀다가 술이 거나하여 돌아오다가, 배가 뒤집혀 기생 30여 명과 함께 모두 익사하였다. 이 지방 사람은, 섬 안에는 뱀이 많은데, 김양보가 놀이할 때 뱀 한 마리가 나온 것을 죽였다가 이 변을 당했다고 한다²⁴’라는 서序와 함께 「동백도冬栢島」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가 실려 있다.

봄빛이 작은 섬을 덮으니
 눈 속에 아지랑이 피어나도다.
 저 멀리 밀려오는 파도는
 비단무늬처럼 아름다워라.
 그 누가 함부로 음악을 즐기는가
 노랫소리 피리소리가 바다를 흔드는 것을.
 뱀은 본디 시샘이 많아서
 대낮에도 요기를 내뿜었으니
 사공이 갑자기 노를 놓쳐
 물고기 뱃속에 붉은 치마를 묻었구나.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 오면

24. 「昔 善山人金陽普 與邑宰遊此島 酣醉將返 船覆 與妓三十餘人俱溺 土人云 島中多蛇 陽普之遊也 一蛇出 殺之值此變」.

속절없이 명지冥紙를 살라올려
 학성 고을 천년 한恨을
 기생들²⁵에게 다 실어 보내네.
 春光暮小島 雪裏蒸紅雲
 鰲波四五里 爛若錦繡紋
 伊誰恣耽樂 歌吹蕩海垠
 錢龍故多猜 白日驅妖
 蘭橈忽失手 魚腹埋紅裙
 年年看花節 空將冥紙焚
 鶴城千載恨 漂盡南威群

[『울산광역시사』]

연자도

옛날 이곳 연자도에는 참깨를 만석이나 하는 만석꾼으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섬 안에다 지어두고 부러운 것 없이 잘 살았으나, 육지에 한번씩
 나들이를 하려면 뱃길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야겠다고 생
 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 원산리와 당월사이의 육지를 향해 섬의 동쪽에

25. 바다에 빠져죽은 기생들을 말한다. 원문은 '남위南威'로 되어 있는데, '남위'는 '남지위南之威'라고도 하는 옛 중
 국 미녀의 이름이다. 진평나라 문공文公이 그녀를 얻어 3일 동안 정사를 게을리 하다가 문득 깨달아, "후세에
 반드시 여색으로 인해 나라를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멀리 했다 한다.

있는 바위들을 옮겨 다리를 놓기 시작하였다.

이 다리가 반 이상 완성되어 갈 때 정체불명의 도적들이 나타나 만석꾼의 재물을 모두 약탈하여 여러 척의 배에다 나누어 싣고 사라져 버렸다. 이에 연자도의 부자는 섬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지금도 이 섬에는 기와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여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다리를 놓았던 수중에는 섬에서 한참을 걸어가도 물이 허리 이상이 되지 않는 길이 있다.

또한 파도가 칠 때 보면 이 길을 향해 좌우에서 몰려드는 신기함을 볼 수가 있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조암도

옛날 달포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인간들이 정착하기 전이었다고 한다. 이웃마을에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았는데, 이 청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낚시로 고기를 잡아 부모를 정성스럽게 봉양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청년은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면서 제발 많은 고기가 잡혀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리게 하여 달라고 기원하며 이곳에 이르러 낚싯대를 드리웠다.

그러나 염원하는 마음과는 달리, 이날따라 노래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이튿날 부모님의 끼니는 어찌하나 하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도 더 늦어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낚싯대를 걷으려 하니 낚시

가 바위에 걸렸는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낚싯줄을 끊지 않고 낚시를 끌어올리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애를 써도 낚시는 뽑히지 않고 시간은 자꾸만 지체되어 다급해진 청년은 낚싯줄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힘껏 낚싯대를 끌어 올렸다.

그러자 낚시 끝에 무언가가 매달려 나오는 게 있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 보니 인어가 아닌가.

청년은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하고 보니 당혹하여 할 말을 잃고 황혼 빛에 번쩍거리는 인어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인어는 예쁜 젓가슴을 두 팔로 부둥켜안고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절색의 미모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한참이 지난 뒤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인어에게 말을 건넸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요. 그리고 아가씨는 사람이요, 고기요?”

인어가 말하였다.

“저는 본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용궁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닷가로 놀러 나왔다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다 돌아갔기를 날마다 하였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당신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이 떠나려고 하자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낚시를 건드리다 당신이 힘껏 쳐 올리는 바람에 그만 낚시에 걸려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의 이야기가 한창일 때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새섬에도 밤이 찾아들었다.

그러자 이때 인어의 몸에 변화가 찾아들었다. 밤이 되자 커다란 잉어의 꼬리 같던 인어의 아래 몸통이 사라지고, 사람의 두 다리가 생겨나서 팔등신의 눈부신 미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깜짝 놀라 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 아가씨의 알몸을 덮어 주니, 인어 아가씨는 고맙다고 생긋 웃으며 인어도 밤이면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집으로 같이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은근히 말하면서 밤바람이 몸에 차가울까봐 인어 아가씨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러나 인어 아가씨는,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하며 내일 이 시각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갔다.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기만 기다리다 새벽 일찍

새섬으로 나가 인어 아가씨를 기다리며 낚시를 바다에 담갔는데, 인어의 조화인지 커다란 고기들이 쉴 틈도 주지 않고 낚시에 걸려오기 시작하니 금새 바구니에 가득하였다.

청년은 낚시를 거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인어 아가씨를 기다리다 슬그머니 바위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주위가 썰렁하여 잠에서 깨어나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주위가 어둑어둑 해지고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인어의 흔적을 찾았으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바다 위로는 물결만 잔잔히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청년은 낙심하여 돌아서 가려는데 새섬의 풀밭에서 인어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청년은 너무도 반가워 달려가서 아가씨를 껴안고 풀밭을 뒹굴며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사랑을 속삭였다.

이후 청년과 인어 아가씨는 날마다 밤이면 새섬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니, 이들의 사랑은 새섬이 불타고 바다가 일렁일 정도로 깊고도 열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인어 아가씨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총각에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얼마간 헤어져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총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어서 목석처럼 멍하게 있으니, 인어 아가씨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리 오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니, 낭군께서는 너무 상심 마시고 일 년만 기다려 주세요.” 하며 울먹이는 눈빛을 던지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총각은 엉겁결에 인어 아가씨를 떠나보내고 상심되는 마음이야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일 년의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 새섬 근처에서 낚시를 하며 살았는데, 인어 아가씨를 만난 이후로는 어찌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낚시만 물에 넣으면 바로바로 고기가 낚여 올라오니, 그 많은 고기를 내다 팔아 얼마간의 돈도 장만하고 섬에서 약간 떨어진 산기슭 바닷가에 집도 한 채 마련하여 인어 아가씨를 기다리며 또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였다.

세월이 흘러 일 년이 되는 날, 총각은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 낚시질을 할 생각도 않고 인어 아가씨를 기다리는데,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과 같이 마음은 초조하고 시간의 더듬에 안절부절 하던 중 바닷물이 갈라지며 인어 아가씨가 한 아기를 안고 물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반가움에 얼싸 안으려 하다 낯선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멈칫하는 것을 보고 아가씨는
“낭군님 당신의 아들이옵니다.”한다.

이때 청년의 기쁨은 어떠하였는지는 짐작에 맡기기로 하고, 그 후 청년은 아내가 된 인
어 아가씨와 아기를 데리고 산기슭에 마련 해둔 새 집에도 부모님까지 모셔 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된 사람들이고, 그 후 차츰 사람들이 들
어와 살면서 이 마을을 달포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암도鳥岩島를 ‘새섬’이라고 하는 것은 새처럼 생긴 바위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억
새가 많아서 ‘(억)새섬’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새鳥’는 샛바람(동풍東風) 할
때의 ‘새(동東)’가 바뀐 것으로, ‘새섬’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덤돌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산성마을에 접한 골짜기로 반장골 옆에 위치하여 있고, 지번은
삼평리 임야 6번지 일대이다.

영월 엄씨 울산 입향조 엄립嚴立의 계자季子(세째아들)인 사인士仁은 성곡 입향조入鄕
祖로 사후에 덩돌에 산소를 쓰게 되었는데, 이때 하관을 하기 위하여 지관을 불렀다.

지관은 산세를 두루 살펴본 다음 한 지역을 막대로 표시를 하면서 꼭 이 자리에 구덩이를

파야 한다고 지시한 다음 상주, 백관들과 함께 평소 좋아하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구덩이를 파고 있던 일꾼들은 처음에는 지관의 지시대로 땅을 파다가 깊이 내려가니 삽자루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서 지관의 말을 무시하고 구덩이를 넓히기 위해 옆면을 삽질하며 땅을 넓게 파기 시작하였다.

흙을 두어 번 삽질하여 벽면을 더 파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구멍이 생기면서 커다란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 나오더니 부산 동래 방향으로 날아가고 곧 이어서 또 한 마리의 두루미가 날아 나오더니 웅촌면에 있는 회야강 상류인 지금의 석천리石川里(돌내)로 날아가서 내려앉았다고 한다.

이때 술을 마시고 있던 지관이 황급히 뛰어와서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탄식하는 말이 “이곳은 자손 대대로 3대에 한 번씩 3정승 6판서가 날 명당자리인데, 일꾼들이 구덩이를 넓히는 바람에 그의 자손들은 3대에 한 번씩 신체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이곳의 정기의 절반은 동래 정씨가, 나머지 반은 돌내 이씨에게로 가게 되었다. 만약에 후일 이 산을 통해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 때는 후손들이 발복發福하게 되리라.”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을 ‘덤돌’이라고 하였는데 ‘덤’은 숫자 2를 말하고 ‘돌’은 두루미를 말함이라고 하여 두루미 2마리가 날아오른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곳의 정기를 지닌 학이 날아간 곳의 동래 정씨와 돌내 이씨는 그 후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이곳의 영월 엄씨 자손 중 종가에서는 3대에 걸쳐 꼭 한 명씩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아마도 6판서 중 한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이 지관의 말처럼 신체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현재는 덩돌 옆으로 인위적이기는 하나 물이 항상 흐르는 관이 통과하고 있는데 덕신 지역의 오펜수가 당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향하는 관이다.

이로 인하여 3대에 한 번 생긴다는 육손이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성곡 엄씨들은 말하고 있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절두골(점터골)

마을 뒤편으로 옛날에는 아주 큰절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초석과 기와 등이 이곳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언제 절이 생겼다가 어느 때 사라진 것인지 고증할 자료가 없어 구전口傳되는 이야기로만 남아 있다.

이 절에는 기거하는 승려들이 수백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한창 번창할 때 빈대가 끓어 승려들이 수도를 할 수 없고, 잠도 자지 못할 지경이 되자 모두들 떠나갔다고 한다.

승려들이 선방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 모여 앉으면 구석구석에 빈대가 밤낮없이 피 냄새를 맡고 기어 나와 승려들의 살 속을 파고드니 견딜 수가 없어 승방의 사방구석에 산초(재피)며 오갈피 같은 약재를 뿌려 두기도 하고 물그릇들로 사방을 에워 쌓아 방안에 섬을 만들고 가운데로 몰려 앉아 공부를 하려고 하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천장에 새카맣게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 승려들을 공략하니 수행을 많이 한 고승들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절을 떠나 버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해적들이 나타나 약탈을 일삼으니 결국 절은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이물샘

울별마을 앞 당사나무 가까이에 있는 노천 샘이다. 이 지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뱃머리船頭 즉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마을 앞에 있는 샘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샘에 대해 전해오는 전설로 조선 선조 때에 이 마을에 아주 힘이 세고 몸놀림이 민첩한 장사가 살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살건네 주위에서 의병들과 함께 많은 왜적을 무찌르기도 한 무예가 출중한 무명의 장수로 그냥 '김 장군'이라 불렸다.

어느 날, 김 장군이 마을 앞들에서 논을 매고 있는데, 아래에서 왜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말 위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마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를 본 김 장군이 논갈이 하던 쟁기를 뽑아들고 달려가서 단번에 쟁기의 날로 왜장의 목을 날려 버렸다.

왜장의 목이 너무도 쉽게 장군의 쟁기에 떨어지자 줄게 왜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것을 뒤쫓아 가서 여러 명의 목을 베었다. 김 장군은 왜장과 졸병들의 목을 들고 울산 병영성에 가서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주城主에게 상신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수문장은 김 장군에게 돌아가서 기다리게 하고, 왜병들의 목을 들고 상관에게 가서 자기의 전공이양 보고하고 상을 받고 특진을 하였다. 그래서 김 장군은 사기史記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김 장군이 왜장의 목을 베어 핏자국이 있던 곳에서 샘물이 솟아올라 이 샘물이 되었는데, 이 샘물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얼음처럼 차가워서 땀 흘리며 들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쉴 참에는 찾아와 목을 추겼으며, 땀띠를 없애기도 하던 곳으로 수 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김 장군의 묘소가 울별 동산 어딘가에 있다고 하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음력 정월 보름이면, 이 마을 사람들은 김 장군의 제사를 모셔왔다. 김 장군의 구국충정과 애향심을 흠모하고 공경하여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

는 것이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용방소

용방소龍房沼에는 지금까지도 촌로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는 전설이 있다.

옛날도 아주 먼 옛날, 이곳 신밤의 어떤 농가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앞산 곰뽕와 곰내가 크게 울었는데, 태어난 아기에게는 이빨이 모두 나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었으며, 태어나자마자 방안을 기어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지고 이웃 마을들도 모두 알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한 고을 관청에서 이 아이는 장성하면 역적이 되어 나라를 뒤집을 위인이 되고, 부모 형제와 마을에도 크게 해를 끼칠 것이니 죽여야 된다고 명령하였다.

밤이 되자 아기의 부모는 크게 상심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목을 조르려 하였으나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일이어서 부부는 서로 눈치를 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방 윗목에 있던 커다란 다듬이돌을 들어다 아기를 짓눌러 놓고 이불을 덮어 버렸다. 그리고는 차마 그쪽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누워 버렸다.

이튿날 다듬이돌에 깔려 죽었을 아이의 시체를 치울 생각으로 부부가 이불을 들치니 아기는 몸 위에 올려진 돌을 치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곧 돌을 들어낼 것처럼 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돌이 들썩들썩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으면 관官에서 확인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포졸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기

는 물론 온 집안이 무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보니, 다급해진 부모는 우선 눈가림이라도 할 요량으로 아기를 부엌에 넣고 문을 닫아놓았다.

조금 있으니 관에서 확인하는 사람 여러 명이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이때 부엌문이 삐걱거리면서 문틈 사이로 아기의 머리가 나오고 아기는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자 이를 본 포졸들이 달려가서 문을 힘껏 닫으니 아기는 목이 문틈에 끼어 버둥거리다 끝내는 죽고 말았다.

아기가 죽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백설白雪 같은 용마龍馬 한 마리가 슬피 울면서 날아 내려와 아기의 시체를 물고 가서 곶내의 깊은 물속에 빠져 죽으니 이곳이 곧 용방소이고 그 후 아기의 시체를 물고 간 용마는 이곳에서 용이 되어 가끔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용방소의 깊이는 명주실 몇 꾸러미로는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수십이 깊은 곳이고, 용방소 뒷산의 암벽 속으로 깊은 동굴이 있어 이 수중 동굴은 서생 앞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고들 하고, 또 이곳 깊은 곳에 사는 잉어들은 어른 덩치처럼 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 용방소 주변의 넓은 사장沙場과 초지草地 그리고 기암奇岩으로 이루어진 가파른 산기슭 등은 유원지로 개발 가능성이 무한한 곳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곳이기도 하다.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의논암 議論岩

온산면 강양리 溫山面 江陽里의 우봉항 牛峰港에는 의론암 議論岩이란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두꺼비같이 생긴 두 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마치 정답게 의논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두꺼비 바위라 하는가 하면 의론암 議論岩이라고도 일러온다.

이 두 마리의 두꺼비는 본시 제주도 濟州島에 살고 있었다.

하루는 좁은 섬 생활이 싫어졌다. 그리하여 의논한 두 두꺼비는 육지로 건너가기를 작정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멸구들도 바람을 타고 중국대륙에서 날라오는 것인데 우리들인들 육지 땅으로 가지 못하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하던 중 마침 태풍이 닥쳐왔다.

두 두꺼비는 마침내 몸을 솟구쳐 바람을 탔다. 이윽고 육지가 보였다. 우리가 동경하던 육지가 바로 여기로구나 하며 내려앉았다. 그래서 사방을 보니 다 낯설은 곳이었으므로 마주보고 앉았다. 사람들은 바람에 날라 온 의론암을 신령스럽게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의론암에 가서 소원을 성취시켜 달라고 비는 풍습이 생겨났다.

또 한쌍의 두꺼비가 꿈틀거리면 바람재비가 생겨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 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의논암 議論岩 · 마주돌

우봉 마을은 전체 모양이 소쿠리처럼 생겨 바닷가를 향하고 있는 마을 앞에는 방과제로 되어 파도를 막아주니 어로작업에서 귀향한 배들이 웅기종기 정박해 있다.

소쿠리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되는 위치(강양 7번지)에 편편한 바위가 바다 속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 육지가 가까워 주위에서는 볼 수 없는 화성암과 비슷한 별난석질 石質의 바위가 두꺼비 모양을 하고 좌우에서 마주보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두껍바위’라고 부르는 ‘마주돌’에 대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에 한 쌍의 두꺼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좁은 섬 생활에 실증을 느낀 두꺼비 부부는 사람들이 말하는 육지에 가보기로 하였다. 수컷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묻자 암컷이 말하기를

“중국 내륙에서 멀리도 바람을 타고 오는데 우린들 왜 못 가겠냐.”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육지 쪽으로 부는 날에 두꺼비 부부는 몸을 솟구쳐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이곳 양지바르고 아늑한 우봉 포구에 내려앉게 되었다.

막상 육지가 그리워 떠나면 바다를 건너왔으나 산 설고 물 설은 타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여 두꺼비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의논을 하다 그대로 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마주돌’이 스스로 흔들릴 때는 이 마을 처녀 총각 중 누군가가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 바위의 아래에는 두꺼비의 알이 6개가 있어 지금도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이 바위를 타지역으로 옮기려 하니 너무도 오랜 세월이 풍화되어 이송도중에 손상이 우려되므로 본래의 자리에 그냥 두기로 하였다.²⁶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26.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매립되자, 2012년 5월 의논암을 온산읍 강양마을 바닷가로 옮겼다.

홍성 구만九萬

옛날 온산면 회학溫山面 回鶴에 김씨金氏가 한 분 살고 있었다.

이분에게는 나이 많으신 부모가 살고 있어 늘 걱정이 되는 것은 좋은 명당자리를 구해서 돌아가시는 부모의 유택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주의 몸이 되었는데 웬일인지 집 앞을 성지性智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 때 과객 성지性智는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발길을 상가에 그만 들여놓고 말았다.

마침 상주들은 모여앉아 유택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었으나 좀처럼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모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된 성지性智는 입을 열어

“상제님들 좀 보시오 혹시 이 과객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소마는?”하였다.

이 말을 들은 상제들은 과객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었다. 그중의 한 상제가 과객 앞으로 다가서며 애원하듯

“제발 그리 좋은 데는 아닐지라도 편안하게 모실만한 자리라도 하나 골라 주신다면 그 은혜를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하였다.

이렇게 하여 상제들은 과객을 자기 소유의 산으로 안내하게 되니 곳은 대현면大現面의 구미동九尾洞(지금의 고사동古沙洞)²⁷이었다.

산세를 이리저리 다 돌아보던 과객은 상제에 묻되

“상제께서는 소원함이 무엇이오? 자손이 번성함을 원하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의 흥성하는 것을 바라는가요?”라 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상제들은 사실 자손들은 다 넉넉한 편이었으므로 입을 모아

27.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염치없는 말이 되겠습니까마는 재산이라도 좀 늘어나게 하여 주신다면 좋겠소마는?” 하였다.

그런데 이 산세는 구리²⁸가 굽이치며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바다 건너 개구리를 잡으려는 형국을 이루고 있었다. 바다를 건너 매호동梅湖洞(지금의 매암동 納도梅岩洞 納鳥) 쪽에는 개구리섬納鳥(지금은 동양東洋나이론 공장부지工場敷地로 매립埋立)이 납작하게 옆드려 있었다.

한 곳에 묘터를 골라주면서 성지性智는

“이곳에 묘를 들이게 된다면 3일 만에 천석千石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니 명심하시오” 하고 발길을 돌려 어디론지 가버렸다.

김씨는 만족스럽게 자기 아버지의 묘를 과객이 골라준 자리에 들이게 되었으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문제는 3년도 아닌 3일 만에 천석千石부자가 된다니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도깨비의 장난에 홀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동안 삼우제 날이 되어 산소에 가서 모역을 돌아보며 살피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쪽을 보니 장승개(지금의 장생포長生浦) 앞바다에 일단의 큰 고기떼가 곤두박질을 하며 빙빙 돌더니 그 무리들이 묘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고기떼들이 물으로 치밀려 왔다. 이렇게 이상한 일에 놀란 상제들은 고기를 보니 청어靑魚떼였다. 이 청어를 다 잡은 김씨는 그것을 팔아 백석百石을 할 정도의 돈을 손에 넣게 되었다 한다.

뒷사람들은 이곳을 홍성 구만九萬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정유공장 부지가 되니 과연 9만석을 할 자리였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28. 구령이



연양읍 면역

반구대 盤龜臺

연양읍 대곡리大谷里에는 경승지인 반구대가 있는데 연고산蓮阜山(연화산)의 한 자락이 뺏어 내려와 이곳에 와서 우뚝 솟으면서 기암 괴석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마치 거북이 눕죽 엮드린 형상이므로 반구대盤龜臺라 한다.

두동면 천전계곡川前溪谷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옥류가 이곳에 모여 호반을 형성하니 절승가경絶勝佳景으로 이름이 높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향 각처의 시인묵객들은 이곳을 찾아 시영詩詠으로써 경관을 즐겼다고 한다.

반구대에 대하여 특기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5천여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 유목민의 생활 풍속도인 암면각화巖面刻畵가 1970년대 초에 발견되어 전 세계 인류 고고학

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암면각화와 같은 수법으로 된 것이 소련 바이칼호에서 첫 번째로 발견된 후 이것이 두 번째로 발견된 희귀하고도 소중한 고대각화古代刻畵라고한다.

이 각화는 고대의 북방유목민들이 지금부터 7천여 년 이전에 이미 이곳으로 남하하여 생활했으며, 또 그와 같은 훌륭한 각화를 조각할 수 있으리만큼 훌륭한 예술과 문화를 가진 유목민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신라 때는 화랑들이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다니면서 고귀한 기상을 기르고 심신을 단련하던 때에,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야영생활을 했으며, 또 고려 말의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 조선 초기의 회재 이언적晦齋李彦迪, 한강 정구寒岡鄭述 등 삼현이 이곳에서 명시를 남기고 향민들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반구대 아래의 소구小丘인 포은대圃隱臺에는 이 삼현의 행적을 기록한 반고서원유허비와 포은대영모비가 세워져 있고 또 맞은편(시내 건너편)에는 중창한 반구서원이 있다.

그런데 울산공업단지가 설정된 후인 1960년대 중반 공업용수를 위하여 범서면凡西面사연泗淵에다 반구천盤龜川의 하류를 막아 댐(사연댐)을 축조하자 집수集水로 수위가 높아져서 귀중한 암면각화가 수중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어쨌든 우리 고장에 이 같이 유서 깊고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중 하나는 현재 대곡리 山 234-1번지 수중水中에 있으며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류의 천변(두동면 천전리)에 있는데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반구대盤龜臺 아기 장수

반곡서려²⁹ 사 키로(4km) 내려가면은 사연댐이 있습니다. 이 종류中流에 반구대盤龜臺가 있는데 여어서(여기서) 걸어 가면은 약 한 사십 분 갑니다. 현재는 차도가 나가 있어도, 봉고차, 택시 같은 거는 땡기도 큰 거는 아직 몬 땡깁니다.

이 반구대에는 옛날 이조 때 이씨李氏들이 와서 삽니다. 지금도 이씨하고 사는데, 이씨는 거계³⁰ 문중을 이루고 사는데. 그 좁은 골짜기에 논 열 한 마지기 외도가리³¹가 있고요.

그 반구 어느 촌가村家에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살았는데 어린애를 두었어요.

어린애를 바아(방에) 눕히 놓고, 농사를 짓다가 보이까네, 들에도 가고, 밭도 때로 가고, 방아도 찼으로 가고 그라는데, 한 삼 일까지는 그냥 있디마는 사흘째에는 방아를 찼고 오이 아아가 없다 말입니다. ‘이상스럽다.’ 싫어가지고 그래 방안을 살펴보이 없고, 그래 보이 실근³²에 우에 떡 아아가 얹히가 있거등.

옛날에는 실근 카는 광주리 곁은 기 방에 있었습시다. 아아를 내려가지고(내려서) ‘아, 이거 이상스럽다.’ 싫어가서 이거를 집안 어른들잡에(어른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녀 보통 사람이 아이고 장군인데, 장군이 잘못 나면은 구족九族을 망운다(망하게 한다). 그러이까 아아를 죽이야 된다.” 그 문중에서 중론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그래(그렇게) 죽일 수도 없고,

“그래 비법이 있으니 그 비법을 써 봐라.” 이라저든. 그 비법이 ‘애를 놓고 그 우에다가 서답돌로³³ 누르고 나락 석 섬만 없으면 그 애가 죽을 까다.

29. 반곡리盤谷里에서

30. 거기에

31. 하나로 된 논배미

32. 시렁,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해, 방이나 마루의 벽에 두 개의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들어 놓은 것

33. 빨래돌을. 여기서는 다듬잇돌을 말한다.

그래 그 어른들 시키는 대로 한 섬 놔도 애가 꿈적꿈적하고, 그래 석 섬을 놓으니까네 아아가 죽었는데, 난데없이 벽력같은 고래 고함을 지르고설랑 용마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용마가 지금 압실 골짜기로 들어가설랑 꼬리를 쳐가지고설랑 내가 생겼다고 합디다. 그래서 옛날 ‘반구 곁은 손(좁은)골짜에 장군 나고 용마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소사, 언양면, 1984]

정몽주와 요도蓼島의 적소

요도蓼島는 「현양잡기獻陽雜記」에 「在縣東一里 普通院下 卽田麓間一小丘也 處三水間 故爲名, 定式流配罪人 十二而每人給 朔米三斗 後或倍給貽民弊」라 하였다. 요도는 감천坎川(직동천)과 남천南川이 합류하는 이수지간二水之間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요, 요도가 적소謫所(죄인이 귀양살이하던 곳)로 정해져 있는데, 적소의 건물이 어디였던가는 그 흔적이 없으나, 지금의 어음상리於音上里인 마흘부락馬屹部落이다.

이 적소에 유배된 인물 세 분을 들자면,

첫째, 여말 충신 포은 정몽주가 배명친원排明親元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다 우왕 2년(1376)부터 1년간 요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둘째, 고려말 공민왕의 충신으로 우왕이 즉위하자 탄핵되어 언양으로 유배를 온 김홍경은 「고려사절요」 공민왕 4년(1355) 10월조에 “김홍경金興慶이 유우언양적기가流于彦陽 籍其家”라 한 기록이 있으며,

세 번째로 조선조 숙종 때 청남淸南·탁남濁南의 당쟁에 몰려 갑술옥사甲戌獄事(1694)에

연좌되어 요도로 유배 온 시랑 남곡 권해南谷 權璿가 있다. 1694년 3월에서 1697년까지 4년간 요도에서 기거하였다. 남곡 권시랑南谷 權侍郎은 대사헌, 형·호조참의刑·戶曹參議를 역임한 당대의 거유巨儒로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화장굴花藏窟과는 인연이 깊었다.

남곡은 번뇌가 심할 때마다 화장굴을 찾았으며, 유배 온 익년에는 가노 진家奴 眞을 시켜 비밀리에 모재慕財하여 소암小菴을 지었다. 그러나 곧 대홍수로 인한 재화가 이 암굴岩窟에도 미쳤다. 다시 소암을 일으키고 유생들과 함께 많은 시서詩書를 강론하였으며 언양 지방에 술한 시가詩歌를 남겨, 지금도 전하고 있다(언양 지방에 전하고 있는 문헌에는 호가 남강南岡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그의 문집은 『남곡집南谷集』이다). 읍지에 실린 그의 작괘천, 반구대, 동헌, 석남사 시는 유명하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정포은鄭圃隱³⁴이 귀양 온 요도蓼島

그 어릴 적에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약³⁵을 더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 그 포은圃隱 선생이 언양에 귀양 온 것도 요도蓼島섬이 있기 때문에 귀양을 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여계 오시가지고, 그래 저게 인자 와 보니까 허허 별판에 소나무가 우거져가 있고 여계라. 언양彦陽 바로 여계가 요도蓼島라. 그래서 여계 계시면서 언양 반구대盤龜臺로 나들었고, 또 작천정酌川亭을 나들었고, 이래가지고 그 유적이 반구대에 있거든요.

있는데, 오기 된 시초간으로는³⁶ 여계 언양에 요도가 있다고…. 말을 들으니까 동해東海에 일요도一蓼島라, 동해 바다에 한 요도가 있다. 거게 귀양을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리 왔다 카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한 열 살, 열 한 살, 열 두 살까지도 이런 큰 솔³⁷이 이래 있었습니더. 솔이 짝 이래 운집해가 있었습니더. 그래 인자 사람이 차츰차츰 이렇게 살고 보니까네 그 소나무도 다 비뿌리고 다 해가지고 지지리한³⁸ 진판이 되가 있었습니더. 진판이 되가 있었습니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사堂畬를, 동네 어른을 그리 모셔놓고 있습니다³⁹. 그래서 요도사蓼島畬라고 합니더, 거게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34. 포은 정몽주

35. 이야기

36.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동기動機

37. 소나무

38. 질편한

39. 당집을 그곳에다 지어 골맥이신을 모셔 놓고 있다는 말이다.

어음리於音里의 지명 유래

우리 마을은 어음리인데, 인자 어음리라 카는 것은 늘 어於짜 소리 음音잔데, 쉽게 말하자면 늘음입니다, 늘음이. 그 어음을 늘음이라고 된 말입니다. 그 인자 늘음인데, 우리 요 마을과 조 아랫마을이 요래⁴⁰ 깎아 지금 복판에 그 요도를 놔 두고서 서로 분리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을에는 본래 그 현산 김씨⁴¹가 여어 살았어. 현산 김씨가 살았고, 저 아랫마을에는 그 요도섬을 중앙을 놔 두고 저 아랫마을에는 그 최고운崔孤雲 선생의 후예 되는 그 동짜 연짜 되는 최씨가 거계 거점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계는 현산 김씨, 즉 말하자면 경순왕의 후손 되는 분이 여계 살았어. 살아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개간이라 커까 터를 잡았지요.

아, 거기 벌써 임란때 될 겁니다. 그래 인제 이 동네가 생긴 지가 한 임란때니까 한 사백 년, 삼백 년, 사백 년 그래 그때데,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여계 집이 한 열댓 채 될동말동 했습니다.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래 전부 여계는 밭이고 묵전(묵은 밭).이고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돼가 있는 거로 차츰 차츰 사람이 많이 살고 보니까네 질도 새로 낼 데로 내고 막 이래 돼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여계 그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불과 해 봐야 한 열 댓 채밖에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이 동네는 어음 상리에는 김씨가 주장을 하고 있었고, 어음 하리에는 고운, 그 최고운 선생의 후예 되는 최씨가 문중을 벌리고 살았지요. 거계도 불과 몇 집 안 됐습니다. 차츰차츰 사니까네 다른 각성받이가 많이 모여가지고 사지요. 본래 터는 그렇기 잡은 겁니다.

40. 이렇게

41. 언양김씨, 시조 김선金鎭은 경순왕의 아들이며, 고려 태조의 외손으로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은 본관을 언양으로 하였다.

마을의 북쪽을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째서 여게 마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저 본래 여게 경주 신라 때에 대관들이 많이 살았습니더. 그래서 인자 이 부府라. 부산부釜山府면 부산부, 옛날 그 저 왜정 때, 이게 마알⁴² 부府짜거등요. 여게 경주 때에 여게 한 부라고 커는 그기 여어 살았는데. 우리 집 지아 놓은 여게가 산 기 아니겠고 주장⁴³ 저 안을 많이 살았습니더. 뒷컨을 많이 살았습니더.

뒷컨을 많이 산, 그 실적이라 커까, 자취를 본다고 할 거 같으면은, 거게 그 이 지금 경지정리耕地整理로 해 놓으니까네 돌담부래기⁴⁴ 돌이 하나도 없습니더. 전부 땅을 파고 다 묻어가 그렇지, 옛날에는 여어 뒷컨에 여게 보며 돌담부래기가 많이 있습니더. 논 새마중⁴⁵ 돌담부래기가 마치 이런 돌담부래기가 누비⁴⁶같이 눕우가지고 있는데, 돌담부래기가 많았습니더. 그래서 한 십 년 전에 경지정리할 적에 그 돌담부래기가 전부 없어졌고.

경지정리로 하면서 이 지둔地屯⁴⁷을 하며 보니까 새미가 군데 군데 있었습니더. 그 경주 신라때에는 저어서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대관들이 여게 살아가지고 경주로 드나들고 했다 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알 이름을 갖다가 ‘마알’이라 했습니더. 저 쉽게 말하자면 시내에서러 ‘어테 가노?’ 커면 ‘저 마알에 볼 일이 있어 간다.’ 이리 되거등요, 마알에. 그러이 이 마알 부짜를 두고서러 이 우리 동네가 이거 마알이 됐어요. 왜가지고 이 뒤에 경지정리로 할 적에 보면은 옛날에 사던 새미 터가 많이 있었습니더. 그런 얘깁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42. 마을

43. 주로

44. 돌더미

45. 논 사이마다

46. 누에

47. 땅을 돌운다는 뜻이다.

행주혈行舟穴인 어음리於音里

그래 인자 요오 화장산花藏山 줄기로 그 때민에 이 뒤켠에 여게 사람이 많이 살았고요. 지금 생긴 저 논 돼가 있는 저어가 많이 살았고, 여게가 움푹하이 이래 깊어 깊어졌습니더. 깊어졌는데,

그러나 저러나 이 앞에 거랑이 있고 뒤에 거랑이 있습니더. 뒤에 끼는 간천이라, 이 북방 간랴짜 간천이라는 거랑이 있고, 앞에 남천이라는 거랑이 있어가지고 이거 말하자면 태화강 상류거등요. 이 형국이 배 형국이라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 동네에 새미가 한 서너 너댓 개 잘 안 됐습니더. 한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더.

하류에는 안주까지 새미가, 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시다마는, 옛날에는 새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더. 하나밖에 없었고, 상류에는 새미가 한 서너 개밖에 없었습니더.

그저는 인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이 행주형국行舟形局이기 때문에, 배가 떠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땅을 갓다가 자꾸 파기만 파며 배 밑구녕이 물이 새가지고서는 안 된다. 침수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봤답니더. 못 봤는데, 요 중년까지만 해도 하류에는 새미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더. 그라고 상류에는 인자 새미가 많이 파졌습니더. 그렇기 때민에 상류에는 잘 못 살았고 하류에는 잘 살았다 카는 이런 말도 다... 마 전설이 아니지 마는도 그런 말도 있었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갯비얇산에 골이 생긴 사연

전설인데, 그때 인자 그 노인네들도 다 내려오는 그 전설을 듣고 인자 다 전지전지傳之傳之 내려오는 거겠지. 그렇지. 말은, 여계서 갯비얇산이 이 산이 지금 여어 보면은 산이 이렇기 골이 저가 있습니다.

골이 여러 골이 이렇기 저가 있습니다.

그기 와 골이 졌느냐 하면은, 그래 인자 여어 사람이 안 살고 희소하기 이래 있자 카이 까네 마 산에 낭기⁴⁸ 마치 이런 고목이 마 들어 찻더랍니더, 저 너메. 저 너머꺼정 찻는데, 그 산에 나무를 벌채 해가지고 서러 내를 적에, 요새 곁으면 무슨 뭐 공중을 내루기나 뭐 기계가 발달되가 된다 카지마는, 옛날에는 마 전 힘이고 인력이라 말이지요.

그래 거어서 낭글 처가지고서는 전부 쌀매⁴⁹를 끄았어요. 그래가지고 쌀매가 그 진 쌀매랴요, 진 쌀매. 예, 쌀매터가 지금 그래가지고 연구세심年久歲深 해가지고 비가 오고 달고⁵⁰ 하이까네, 그 쌀매 터가, 쌀매 터에 잔디가 잘 안 나고 해가지고 서러 패가지고 거어 지금 골이 지금 저가 있거등요. 그래 그기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48. 나무가

49. 높은 곳에서 물건을 끌어 내리는 장치.

50. 어찌고

살대배기의 지명 유래

활 사용할 직에, 활 쏘 직에, 살대배기라 카는 산이 있습니다, 조계 뚝 도배기⁵¹ 이렇게 엮어 놓은 것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 산죽대가 많이 났습니다. 산죽대가 났는데, 그 산죽대 그기 화살 맨드는 대가, 대로 썼습니다. 그래 그 살대배깁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화장산花藏山 도화桃花

1.⁵²

울산지방에 화장산이 두 곳에 있다. 여기에 수록하는 이야기는 언양면彦陽面과 상북면上北面에 걸쳐있는 화장산의 이야기다.

신라 때의 일이었다 한다. 화장산 아래에는 어느 사냥꾼 내외가 두 남매를 기르며 살고 있었다. 그 때 화장산 위의 굴속에는 한 마리의 큰 곰이 있어 이 산의 짐승은 물론 가까운 산의 짐승까지도 다 잡아먹고 있었다. 사냥꾼 내외는 이 곰을 잡으려고 활을 메고 창을

51. 되.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52. 이 이야기는 1933년 7월에 언양의 김봉현金鳳鉉으로부터 채집 경상남도지에 수록, 전해오던 것이다.

들고 산으로 꿈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꿈을 만난 그들은 불행하게 꿈의 역습을 당하여 죽고 말았다.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었던 오누이는 밤이 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이튿날 새벽부터 화장산으로 들어가 부모를 찾기 시작하였다. 때는 엄동설한인데 북풍이 몰아치며 눈보라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남매는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이리 찾고 저리 헤매다가 그만 눈 속에서 기진맥진하여 서로 부둥켜안은 채 가엾게도 죽고 말았다.

이렇게 불행하게 아들 딸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사냥군 내외의 혼백이 하도 가여워서 그 두 남매의 죽은 혼을 한 그루씩의 도화桃花가 되어 환생토록하여 양지쪽에 피게 하였다.

이럴 때의 일이었다. 신라新羅 서울에서는 임금님이 병이 들어 좋은 약은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궁궐 안에는 큰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때 어느 의원이 임금님의 병상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어려운 일이오나 복숭아꽃을 따서 잡수신다면 병이 완쾌하겠나이다.”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사자使者를 팔방으로 풀어 도화를 찾게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쪽으로 현양성獻陽城으로 오게 되었다.

성의 남문에 사자使者가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머리를 서쪽으로 돌리는 찰라에 화장산에서는 이상한 서기가 감돌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겨울철에 이러한 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사자使者는 급히 말을 몰아 산으로 올라가보니 큰 바위굴 앞 양지바른 곳에 두 그루의 복숭아꽃이 곱게 피어 있었다.

그를 본 사자使者는 기뻐서 떨 듯 하였다. 그래서 두 도화를 꺾은 사자使者는 말을 달려 궁성으로 들어가서 방에 누운 임금에게

“신토이 현양獻陽 땅에 피어있는 두 도화를 찾아 올리나이다. 드시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사를 돌보소서.” 하였다.

그런데 이 도화를 먹은 임금의 병은 씻은 듯이 완쾌하였다.

사자使者가 복숭아꽃을 꺾을 때 몇 송이의 꽃이 떨어졌다. 그 낙화에서 오빠의 정령精靈은 대竹가 되고 누이의 혼은 솔松이 되어 만고에 푸르고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때의 일이었다 한다. 임금이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복자卜者에게 물었더니 도화桃花를 먹으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때는 겨울이라 도화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한 신하가 말하되 남쪽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은 사람을 시켜 언양彦陽땅 화장산에서 도화를 찾게 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다. 화장산 굴 가운데 한 포기의 도화가 피어 있질 않는가. 이를 바라본 사람은 굴로 달려갔으나 도화는 없었다. 단지 한 비구尼比丘尼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비구尼의 이름을 물어 보았다. 비구尼는 이름을 도화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 비구尼를 데리고 왕에게 갔다. 도화를 바라본 왕은 크게 기뻐하며 어느 듯 병이 나았다고 전하여 온다.

이 도화의 이야기는 화장산의 연기설화緣起說話인 것이며, 도화는 화장산 신일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53. 울산읍지에 수록

화장산花藏山の 도화승 桃花僧

화장산花藏山 이 얘기는 저 연에⁵⁴ 그런 이거 뭐 참 전설이라 커까 이런 소소한 그런 거는 없고, 대략적 말만 있어요. 그 연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삼촌한테서 이약을 들었는데, 그 경주 신라 때 연에 어느 임금인지 마 이약만 대강 들었는데.

그 경주 저 어느 어느 왕인지 이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나서 도저히 지금 병이 잘 안 낫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 국가에서 그 무슨 점하는 사람이라 커까 뭐랄까 그런 사람이 안 있겠는교? 지금 말하자면 뭐 부귀浮鬼가 있다거나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가 말하자면 엄동설한인데 복숭나무꽃틀 약을 써야 낫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관원을 이쪽을⁵⁵, 이쪽에 여게 복숭나무 있는 그 무슨 거기 뭐가 비쳤다고 이런 말로 들었어요. 비치가지고 이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 언양 동문, 남문에서 그 이 이래 양 사방을 관망을 하니까, 그래 그 화장산에서 말하자면 도화꽃으 서기瑞氣가 비쳤다 카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더. 그래서 거게 찾아가니까, 아 그 도화꽃튼 없고, 말은 그래요, 도화꽃튼 없고, 그 중이 하나 앉아 있더랍니더. 그 중이 화장굴 안에 거게 앉아가 있는데,

“그 여게 도화꽃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있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그래 말하면서 웃으면서러,

“내가 즉 도화다. 도화승이다.”이렇기 말을 했더랍니더.

그 일설—說은 인자 그 전설 이약을 듣건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 삼촌한테 이약을 들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 이야기의 마실이 이런 데겠지요. 아주 문 사는, 문 사는 아낙네가 있었어요. 아낙네가 있었는데, 그래 그 하루는 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그

54. 전과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정도의 뜻을 가진 부사이다.

55. 이쪽을

같은 동무 되는 안양반들(부인들) 그래 모두 새 옷을 갈아가 입고 왔다갔다 이래 해 쌓거
등. 그래 물었어요.

“어데 갔더냐?”고. 이래 물으니까네,

“우리는 절에 그 불공을 갔다왔다.”고. 이렇게 말로 하더랍니다.

“그러냐고? 불공을 하며 어떠냐?”그러이,

“그래 뭐가 뭐 소원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뭐 장수하는, 참 오래 살 수도 있고, 재수도 있
고...” 온갖 이런 말을 하거등.

“아, 그러냐고.”

그래 원강(위낙) 가난하자 카이까⁵⁶ 자기는 거어 가가지고서러 부처님한테 올릴 거 고
양미도 장만할 수 없기 됐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옛날에는 디딜방아간을 찼었거등요. 그래서 늘 방앗간에 땀기미 품을 드는
데, 그 품을, 품은 품대로 받지마는도 그 인자 혹시 이래 찼어내는 쌀날이 가새 흘치는 쌀
날이 있거등요. 그거를 찼어 모았답니다. 그거를 찼어 모아가지고, 요렇기 지름주무이⁵⁷
같은 주무이에다가 한 알씩 두 알씩 그걸 찼어 모아가지고 모았더랍니다.

모다가지고 그래 인자 참 자기가 인자 ‘나도 이거로 가지고서 부처님한테 가 불공을 하
러 가야 되겠다. 복을 빌러 가야 되겠다.’고 말이지.

참 보통 정성이 아이다. 예, 그랬더랍니다. 해가지고 그래 인자 그 쌀을 갖다가 인자 천
장이 이렇기 지름 주무이를 달아 놓고서는 그래 인자 쌀을 모았는데, 그래 참 쌀이 그 지
름 주무이 한 주무이가 됐던 모양이지요. 한 주무이 됐던 모양이라.

그래서 인자 그 놈을 가지고서는 인자 절에 그 하러 갔어요. 불공을 하러 갔어요. 가이
까네, 하나 두 날씩 모두 인자 실쩍 실건(짙은) 쌀도 있고 안 실건 쌀도 있고 그라이까네
마 형편이 없거등. 그러이까, 절에 가이까 마 절에 중이,

56. 위낙 가난하다 보니까

57. 지름주머니

“이런 쌀을 부처님한테 공양도 못 해 올린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마 그걸 가지고 왔어요. 다부(도로) 또 가아 내려왔어요. 가져 내려와 가마 생각하이 ‘이런 수가 있나? 다른 사람으는 잘살아가지고 다 뗏을 다 가지고 이렇기 하는데, 나는 내 판에는 신심信心을 가지고 다 했는데, 마 이거 내가 참 퇴박을 맞아서 이거 내려오이 참 안 됐다고.’ 그래가 가지고 와 내(계속) 천장아 달아 났어요.

달아 놓고, 그레 연에 인자 이렇기 가난하기 살아 나왔는데. 그레 하루는 있으니 시커먼 종이 말이지요, 시커먼 종이, 켁켁(박박) 얹은 못 생긴 종이 검은 장삼을 입고 서러 동냥 하러 왔더랍니다. 그레 오면서 그레 그 집에 들왔어요. 들와가지고,

“날 동냥을 좀 달라.”고 이라니까,

“아이구, 여보소, 우리도 가난하게 이렇기 사는데 내가 동냥할 기사(것이야) 있겠는교? 방아⁵⁸ 들오십시오.”

방아 들오고는,

“내가 밥을 좀 해 드리겠습니더.”

“아이구, 예, 그라 그라이소(그리십시오).”

그래서 그걸 띠(떼어) 내가 와가지고서는 씻거가지고서는 밥을 해 드렸답니더. 했디이, 땀을 척척 흘리며 잘 자시더랍니다. 가면서, 그레 그 종이 가면서 복숭씨를, 그 어 복숭씨를 시 개를 갖다가 주더랍니다. 말이.⁵⁹ 시 개를 갖다가 주면서러,

“이거를 갖다가 송가 놓으면은 에 장차 인기人氣가 있을 것인까네, 에 이거를 갖다가 함 송가나 보시오.”

그레 그 여자가 그 복숭, 복숭이라 카는 것을 송가가 인자 꽃이 피가 열매가 열어야 되 겠는데, 뭐 이거 언제 되겠노 싶우거등.

마 쉬운 줄로 이레 하고서러 등판에다가 얹어 놔 두었어요. 등판⁶⁰이라는 것은, 옛날에

58. 방에

59. 전해 오는 말이

60. 등잔을 얹어 놓은 대.

이것이 이기 나무 판때기 겹으며 여어다 쫑대를 시아가지고서러 우예 여어 지름불도 커
고 다 쫑대⁶¹ 아입니꺼? 그러니까 생전에 뭐 어데 소제로 합니꺼? 해 놓으니까네 마 거
어다가 놔 뒀어요.

놔도 놓으니까네 그 미금이(먼지가) 쌓인 미금에서러,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 같더마
는 말이 그렇게 나와져요. 이약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등판에, 놔 둔 등판에 그 미금이
쌓인 거에서 복숭나무가 씨가 터가지고서러 복숭이 나왔다 카는 말이 있어요. 복숭이 올
라 왔다 이카는데, 올라와가지고서러 꽃이 한 서너 송이가 폼터랍니다.

폼는데, 그때 그레가지고 신라 때 어느 임금이 병이 나가지고서러 이 도화꽃이라야 이
병을 갖다가 낫우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레 거어서러 사환이 나와가지고서러 그레 그 동
문에서 내다본 결과에, 웬 오두막집에서 그 도화꽃이 서기가 요새 전기 그 하듯이 빛이
나왔더랍니다.

나와가지고서러 그레가지고 그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결과에 거어 도화꽃이 있더랍
니더. 있어가지고, 그레 그 도화꽃틀 가져가 임금으 병이 낫았다.

이래가지고 그레 임금이 그 마느래를, 그 집 부인을 데려다가 그렇기 살리도록 해 줌
는데, 공을 갚았는데. 그레 즉 말하자면은, 거기 화장산 도화승이 내려 와가지고서러
그렇기 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더. 그런 말이 있고, 그레 그 때문에 인자 아 ‘초불은
무공덕無功德이요.’ 처음 절에 그 불공한 것은 공덕이 마 없었고, ‘후불은 왕의 공덕이
더라.’ 뒤에는 왕의 공덕이더라. 그 신라의 왕이 살도록 해줬다 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61. 쫑대란 위로 세워진 막대란 뜻이다.

화장산花藏山の 유래

신라新羅 시대에 어느 왕후王后가 중병重病이 들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임금님은 가장 신임하는 신하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한 달의 말미를 줄테니 어떻게 하든지 왕후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해 오라고 했다.

신하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약을 구할 수가 없었다.

한 달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꿈에 신선神仙이 나타나 언양彦陽에 있는 어느 산에 가면 바위굴이 있고, 그 안에 도화桃花라는 여승女僧이 있는데, 그 여승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꿈을 깬 신하는 언양으로 와서 여승을 찾아 산 속 바위굴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바위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바깥은 한겨울인데, 이상하게도 그 굴속은 따뜻하고, 복숭아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신하는 꿈속에서 신선이 말한 도화桃花가 바로 그 복숭아꽃이었음을 깨닫고 그 꽃을 따다가 임금님께 바쳤다. 그랬더니 그 꽃을 먹은 왕후는 병이 금방 나았다.

그 후 굴이 있던 그 산을 꽃을 감추고 있었던 산이라고 해서, ‘꽃 花자, 감출 藏자’를 써서 ‘화장산花藏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사』 윤민관, 언양면, 1987]

화장굴花藏窟과 신라궁新羅宮

울주군 언양면 송대리 산기슭에는 화장굴花藏窟이 있고 이 화장굴은 부처님을 모시고 화장암花藏庵이라는 암자로 되어 있다.

이 화장굴은 넓이 약 20평방미터 두께 약 7미터의 거대한 바위가 그 위에서 구르다가 여기서 멎었는데 바위가 멎으면서 바위 아래는 천연적 동굴이 되고 말았다. 굴속의 넓이 약 10미터 평방, 높이 약 2미터로 되어 있고, 그 안쪽 중심부에 부처님을 모셔 놓았다. 이 동굴의 동쪽에는 요사와 법당이 세워져 있다. 이 화장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있다.

신라 때라고 한다. 한번은 신라 왕실에 깊은 근심이 생기고 말았다. 이유 인 즉 공주가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다. 공주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왕은 공주가 앓아눕자, 조정백관들과 어약청에 분부하여 공주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을 구해 오라고 하였다.

백관들과 어약청 약사들은 백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좋다는 약은 모조리 구해다가 바쳤고, 이름난 명의는 모두 불러다가 진맥하고 치료를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렇게 되자 공주궁에는 날마다 푸닥거리가 벌어졌고 왕과 왕비는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다. 공주는 빨리 고쳐 달라고 신음을 한다. 이렇게 딱할 수가 없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더 해만 가고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생 불가능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다.

그런데 하루는 백발 노스님 한분이 신라 서울 서라벌 장안으로 내려와서 바랑을 지고 목탁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했다. 스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대문간에 서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하고 탁발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쌀 한 되박을 들고 나오면서

“에이구 스님! 부처님의 도력으로 우리나라 공주마마의 병을 고칠 수는 없을런지요.”

“공주마마가 병이 나셨다고요?”

“예, 스님은 아직 모르시고 계셨나요?”

“하! 거! 안됐군요! 가만 있자! 공주마마께오서 병이시라” 하고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보리수 염주를 한참 세어 나가더니

“예, 고칠 수가 있지요”

“네? 공주마마의 병환을 고칠 수가 있다구요?”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다면 어서 스님께서 공주궁으로 가서서 좀 고쳐 주십시오 네! 스님.”

“그러리다”하고 스님은 자루에 쌀 한 뒷박을 받아 물러갔다.

스님은 곧 공주궁으로 갔다.

“어떻게 오셨어요?”하고 공주궁의 수문병이 물었다.

“예, 듣자하니 공주마마께오서 환후가 짙으시다기에 진맥이나 해 볼까 하고 소승 이렇게 찾아 왔나이다.”

“스님이요?”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럼 어서 이리 따라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님은 공주의 침상으로 안내 되어 진맥을 짚어 보았다.

“어떻습니까? 스님”

“예 공주마마의 환후가 예사롭지가 않군요?”

“예사롭지가 않다니요? 어떡하면 되지요?”하고 시탕하는 시녀들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스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예. 소승이 뭘 알까마는 공주 마마의 환후에는 아무 약도 없고 다만 복숭아꽃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전신을 쓰다듬어 드리면 곧 차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복숭아꽃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 추운 때에 복숭아꽃을 어디서 구하죠?”

“그렇지 않아도 소승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이런 말을 남긴 뒤에 곧 떠나고 말았다. 시녀들은 곧 왕궁으로 달려가서 임금께 스님이 한 말을 아뢰었다. 임금도 때가 때인지라 난감함을 느꼈다. 그러나 공주의 생명이 경각에 이른지라 가부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곧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조정 백관들을 향해 임금의 분부가 내려졌다.

“듣거라 공주의 생명이 이미 경각에 달렸으나 백약이 무효이니 과인은 심히 괴롭도다. 듣자하니 복숭아꽃이 특효라 하니 엄동설한에 구하기 난감한 줄 모르는바 아니거니와, 조정백관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복숭아꽃을 구해 보도록 하오.” 임금의 분부하는 음성 은 침통하기만 하였다.

조정백관들은 제각기 사람을 시켜 전국 방방곡곡으로 복숭아꽃을 구해 오라고 쫓았다.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백설은 분분하고 삭풍은 휘몰아치는데 어디로 가서 복숭아꽃을 구한단 말이나? 그러나 왕명은 천명이니 거역할 수가 없는 일이요, 구하다가 못 구하는 한이 있어도 나가보기라도 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는 복숭아꽃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깔렸다. 그중에 한 신하가 괴나리 단봇짐을 어깨에다 메고 남쪽으로 더듬어 내려왔다.

그 신하가 언양에 당도했을 때다. 저 멀리 서쪽으로 고현산맥에 우람한 가지산 신불산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온통 백설로 뒤덮여 있었다. 신하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저렇게 백설이 분분한데 과연 복숭아꽃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나 제발 덕분에 어디서 복숭아꽃 활짝 핀 나무 하나만 나타나 준다면 우리나라 공주마마의 환후를 고치려만 부처님 도와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두 손 합창하고 눈을 감은 채 서쪽을 향해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이게 웬일일까. 바로 가까운 야산에 발갛게 만발한 복숭아꽃 나무가 있질 않는가.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자신도 의심스러워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손등을 꼬집었다. 분명히 생시다.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눈을 비비고는 또 보고 비비고는 또 보았으나 분명하다. 뛰었다. 한걸음에 뛰었다. 너무나 기뻐서 뛰었다.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뛰었다. 가까이 갔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분명히 보였던 복숭아꽃나무가 간 곳이 없다. 복숭아꽃나무가 섰

던 자리에는 비구니比丘尼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비구니는 근엄한 모습으로 두 손 합장하고 그 신하를 맞이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아니, 어서 오시나 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엇을 말씀이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만발한 복숭아 꽃나무가 있는걸 보고 왔는데?”

“예. 여기 있질 않습니까?”

“있다니 뭣이 있단 말시오?”

“소승이 복숭아 꽃나무가 아니옵니까?”

“이보시오. 그 무슨 사람을 놀리는 말씀일”

“손님이 오늘 여기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복숭아 꽃나무는 어딜 갔나요?”

“손님의 눈에 보였던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소승이었고, 소승이 바로 복숭아꽃으로 보였던 것이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제서야 그 신하는 부처님의 도술인 줄로 깨닫고 그 비구니를 데리고 서라벌 공주궁으로 들어갔다. 그 신하는 언양에서 있었던 일을 살살이 임금에게 아뢰고 임금으로 하여금 그 비구니가 공주궁에 들어가서 진맥 하도록 윤허가 내렸다.

비구니는 공주의 침실로 들어가서 두 손 모아 기도한 후에 두 손으로 공주의 전신을 쓰다듬으며 안찰을 했다. 비구니가 안찰을 하기 시작하니 곧 공주의 신음소리가 멎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다.

비구니가 안찰을 마치고 나니 공주는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언제 아팠던냐는 듯 여상한 모습으로 털고 일어났다. 안찰을 마치고 공주가 일어나자 비구니는 공주의 침실을 나서며 하직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스님은 간 곳이 없어졌다.

공주궁의 시녀들은 분명히 부처님의 도술인 줄로 여겼고 그 비구니는 관세음보살이었음을 짐작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복숭아 꽃나무가 서 있었던 동굴을 가리켜서 화장굴花藏窟이라고

했는데 꽃 화花자, 감출 장藏자 동굴 굴窟자로 꽃을 감추고 있었던 굴이란 뜻이다.

언양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 화장굴과 천전 불당과 작천정으로 순례를 했는데 이것은 이 세 곳이 언양 지방에서는 영험을 가졌던 자리임으로 여기를 순례하면 그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화장산花藏山

우리 지방 동편으로 조그만한 화장산이 있는데, 신라 때 화장산 기슭에 한 사냥꾼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산꼭대기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고, 그 바위 아래 굴 속에서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곰이 이 산의 짐승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날 사냥꾼 내외간은 곰을 잡아 없애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곰과 싸움을 벌인 끝에 도리어 그 곰에게 사냥꾼 내외가 물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린 채 집에 남아 있던 사냥꾼의 아들과 딸들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 산 저 산으로 헤맸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깊은 겨울이어서 눈이 휘몰아 치고 날은 저물었는데, 부모는 어데 간 곳을 모르겠고 배가 고파 추위에 지쳐서 마침내 남매는 눈보라 속에서 가없게도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사냥꾼 내외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가엾게 여겨서 두 남매의 영을 복숭아 꽃으로 화하게 해가 지고 양지 바른쪽에 피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때 신라의 임금인 병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국내 의원을 모아서 진찰도 하고 해 봤잖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동설한 깊은 겨울이라서 복숭아 꽃을 구할 길이 없었는데, 때마침 점을 쳐 보니까,

“남쪽으로 가면 구할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점술가가 말을 해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남쪽으로 가서 복숭아 꽃을 구해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왕명을 받은 한 신하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복숭아 꽃을 찾아서 헤맸는데, 화장산이라는 산 있는 언양 남부 근처에 당도하여서 그 산기슭에 쳐다보니까 그 골에 두 포기 복숭아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하는 대단히 기뻐하여서 달려가 보니 어째 된 일인지 복숭아 꽃은 간 곳이 없고, 복숭아 꽃이 보이던 자리에 한쪽은 대밭으로, 한쪽은 솔밭으로 변하고, 그 대신에 덩굴 속에서 거룩한 비구니 한 사람이 백팔 염주를 목에 걸고 장삼 위에다가 붉은 가사를 메고 두 손을 합장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그 신하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 어리둥절 해가지고 그 조화를 물으니 비구니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여기 올 줄을 알았는데, 임금님의 병환은 내가 낫게 하오리다. 그 대신 복숭아 꽃으로 보이던 가엾은 두 어린 그 영혼을 왕실에서 달래 주도록 하시오.” 하고, 그 비구니는 신하를 따라가지고 신라 왕실로 가서 임금의 병을 곧 낫게 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 복숭아 꽃이 피었다 하여 지금도 우리 지방에서는 화장산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옛날에 조마한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절은 없어지고 큰 바위 밑에 장정이 들어가도 한 오십 명 정도가 충분히 앉아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굴이 돼가 있는데, 최근에는 점술가들이 시설을 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화장굴 花藏窟

울주군 언양면 송대리 고현산 기슭에는 화장굴이라고 불리는 석굴이 있다. 옛날에 이 화장산 기슭에는 사냥꾼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사냥꾼 부부는 매일같이 이산 저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산짐승을 잡아 생활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산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고 그 바위 아래에는 동굴이 있어 그 동굴 속에는 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곰은 산에 있는 토끼며 노루며 멧돼지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때문에 사냥꾼 가족들로부터는 용서할 수 없는 최대의 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사냥꾼 부부는 이 곰을 잡아 죽이기로 했다. 사냥꾼 부부는 창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곰이 살고 있는 동굴 앞에서 곰과 싸웠다.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나 도리어 사냥꾼 부부가 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냥꾼의 어린 오누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 이산 저산을 헤매며 남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이 터져라고 불러 외치면서 울부짖었다.

그런데 마침 추운 겨울철이라 날이 저물어 모진 눈보라는 사정없이 휘몰아친다. 어린 남매는 아무리 헤매어도 부모를 찾지 못하고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끝내는 가엾게도 숨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사냥꾼 내외의 영혼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미쳐 피어보지도 못한 꽃망울들이 숨겨간 가엾은 영혼을 두 그루의 복숭아꽃으로 화신케 하여 이곳 화장산 기슭의 화장굴 앞에 예쁘게 피어있게 하였다.

때마침 신라의 서울, 서라벌 장안 궁중에서는 어여쁜 공주마마께서 우연한 득병으로 병석에 누운지 오래이건만 백약이 무효라 임금님께서서는 크나큰 근심에 잠겼다.

이때 나라에서는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내걸었으나 고치겠다고 자청하는 의원이 없었다. 이때 마을에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는 탁발스님 한 분이 있었다. 어느 여염집 아낙네가 스님에게 쌀 한 되박을 시주하면서

“스님, 부처님께 발원하셔서 우리 공주마마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임금님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며 백약이 무효라 온 백성들은 공주님의 병이 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하옵니까? 그렇다면 소승이 궁중으로 들어가서 공주마마의 병환을 치료해 보겠소이다.”

스님은 곧 공주궁으로 찾아가서 임금님의 윤허를 득하여 공주마마의 병세를 진찰하였다. 병세를 묻고 진맥을 하더니

“약이 있긴 있는데 때가 때인지라 난감하고 또 난감하구료.”

“난감하다니요 스님! 대체 그 약이 무슨 약이길래 때가 아니면 않된다는 것이옵니까?”

“네, 공주마마의 병세가 완쾌하려면 복숭아꽃이 있어야 하옵니다.” 하고는 갑자기 스님이 간 곳이 없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예사로운 스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임을 짐작하였다.

스님의 말씀을 임금님께 주달하였더니 임금님께서는 문무백관을 조정으로 불러놓고 어떻게 하더라도 복숭아꽃을 구해다가 공주의 병을 고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금님의 간곡하신 당부를 들은 문무백관들은 딱하기만 할 뿐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에 복숭아꽃을 어디에서 구한단말이나 그러나 움직여 보지도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조정대신들은 제각기 사람을 시켜 복숭아꽃을 구하러 보냈다.

복숭아꽃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일진 가운데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언양 고현산 앞으로 지나갈 때다.

홀연히 서쪽을 바라보니 온통 백설이 분분한 고현산 기슭에 분홍색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는 것이 아닌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자기 눈을 의심하여 손으로 몇 번이나 눈을 부비고 닦고 나서 봤지만 사실이다. 꿈인가 싶어 손등을 꼬집어 봤지만 사실이다. 단숨에 뛰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던 꽃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난데없는 여승女僧 한 사람이 가사와 장삼을 입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두 손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맞아 주었다.

“스님, 제가 저 건너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만발한 복숭아 꽃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하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네, 여기 복숭아 꽃나무도 있고 소승도 이렇게 두 손 합장하며 맞이하질 않습니까!” 하였다.

이때 이 사람 비로소 관세음보살의 조화임을 알고

“네! 미처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공주마마께서 병환이 드셔서 백약이 무효라며 왕 마마께서 스님을 모셔 와서 병을 치유케 해 달라고 당부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스님과 신하는 곧 공주궁으로 돌아 와 공주마마의 병을 치료하였다. 스님께서 공주마마의 몸을 쓰다듬어 안찰을 하자 거짓말처럼 공주마마가 병석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난 공주마마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공주마마의 병을 고친 스님은 어데로 가버렸는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다. 신라궁에서는 필유곡 절로 여기고 이 화장산 화장굴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를 일으켰고,, 스님들로 하여금 공양드리게 하였다.

이 같은 일이 있고부터 사람들은 영동설한에 꽃이 피었나가 감추어진 산과 굴이라 하여 화장산, 화장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화장산花藏山 전설

옛날 신라 때 어느 임금이 병이 났는데, 그레 일곤(일관)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니까, 동지 선달 지독하게 추울 텐데,

“도화꽃이 제일 영약인데, 복숭아 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이거라.

그레 임금은 사자들을 시기가지고(시켜서) 말을 태아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보냈단 말이다. 그 겨울에 복숭아꽃을 구하러, 그레 언양 읍내 뒤에까지. 그때는 언양 읍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일 적인데, 지금 언양 읍내 뒤에 오니까, 쳐다보니 꼬장산에 도화가 만발해가 있어, 엄동설한에.

그레 그 사람이 말을 버리고 뒤쫓아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꽃이 아무것도 눈이 보이는 기 없고, 그 화장굴 앞에 오니까, 어떤 비구니가 한 사람이 있더라 말이다. 그레 사자가 산꼭지에 올라가서 비구니를 보고

“여기 복숭아 꽃을 못 봤느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저 이름이 도합니다.”

그레 이 사자가 덮어놓고 그만 그 여자를 말에 태워가지고 임금한테로 갔거든. 가니까, 임금이 그 도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주 반겨하면서 그만 병이 나아뿌렸다는기라.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화장산이 됐다카는기라.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윤동명, 언양면, 제일문화사, 1984]

화장산 염천廉泉

언양읍 화장산의 화장굴 앞에는 염천廉泉이란 샘이 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사철 쉽 없이 뿜뿜 솟아나오는데 이를 일명 옥천玉泉이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부정不淨한 사람이 와서 이 물을 마시면 물이 탁해지고 샘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오며, 또 물을 더럽히면 말라져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진사 수오睡鰲 서석린徐錫麟의 시 ‘염천’이 「읍지」에 전한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세이제洗耳堤와 소부당巢父堂

「언양읍지」에는 언양읍 화장산花藏山 위에 세이제洗耳堤가 있으며 세이제 북쪽에는 소부당巢父堂이 있다고 했다.

중국 고대 요堯임금 시절 은사隱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기산영수箕山潁水의 고사古事는 다음과 같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동남쪽에 있는 기산箕山은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은둔했던 산이다.

허유許由는 본시 중국의 패택沛澤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어진 은자隱者였다. 그는 바르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도 않았고, 당치도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의義를 지키고 살았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요임금은 천하를 그에게 물려주고자 찾아갔다. 이 제의를 받은 허유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훌륭한 천하를 잘 다스리신 요임금을 어찌하여 저 같은 자가 이를 대신하여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같이 불품없는 인간이 어찌 광대한 천하를 맡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없이 기산箕山 밑을 흐르는 영수潁水 근처로 가버렸다.

요임금이 다시 뒤를 따라가서 그렇다면 구주九州(나라의 영토)라도 맡아 달라고 청하자, 허유許由는 노여운 마음마저 들어 이를 거절하고 속으로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더러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귀를 흐르는 영수潁水물에 씻었다.

이럴 때 소부巢父라는 사람이 조그만 망아지 한 마리를 앞세우고 어슬렁어슬렁 걸으며 그 광경을 보고 허유許由에게 물었다.

“왜 갑작스레 강물에 귀를 씻으시오?”

“요임금이 찾아와 나더러 천하나 구주九州라도 맡아 달라고 하기에 행여나 귀가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하고 씻는 중이요.”

이 말을 듣자 소부巢父는 “하, 하, 하!”하며 목소리를 높여 크게 웃는 것이었다.

“여보, 소부巢父님 왜 그리 웃으시오?”하고 허유가 민망스레 묻자 소부는 답하였다.

“평소의 허유許由님은 어진 사람이지만 숨어 산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런 산뜻하지 못한 말을 듣고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요. 숨어 사는 은자隱者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은자라고 하는 이름조차 밖에 알려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이요. 안 그렇소? 한테 그대는 여지껏 은자라는 이름을 은근히 퍼뜨려 명성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서는 소부는 망아지를 몰고 다시 영수潁水를 거슬러 올라가더니 망아지에게 물을 먹이며 말하였다.

“그대의 귀를 씻은 구정물을 내 망아지에게 먹일 수 없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먹이는 것이요.”

뒤에 허유가 죽자 요임금은 기산箕山 위에 묻고 그의 무덤을 기산공신箕山公神이라 하였다. 이 두 고사高士의 절개와 지조를 이른바 기산지절箕山之節 또는 기산지조箕山之操

라 하였다.

이것은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에 관한 중국전설의 줄거리이나 『읍지』가 단지 화장산花藏山에 세이지洗耳池와 소부당巢父堂이 있다 하였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세이지洗耳池는 화장산 정상의 위렬공묘威烈公墓 서쪽(상북면 능산쪽)에 있어 청청한 물이 가득하며, 소부당巢父堂은 못안池內里쪽의 화장산 기슭을 이르고 있다.

또한 못안池內里쪽에서는 이 산을 부르되 화장산으로 보다는 ‘소부당산巢父堂山’ 또는 ‘소부댕이’라 불러온다.

‘谷’의 고훈古訓은 ‘실’인 동시에 ‘둔’이기도 하여 ‘둔’의 차자借字로 ‘당堂·탄呑·돈頓·둔屯·단丹’을 사용하여 왔으며, 직동리直洞里의 가고당加古堂도 실은 ‘가고골’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부당巢父堂은 소부의 전설이 깃든 ‘소부골’이란 말이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언양 동부리 벽수

동부리東部里 제당의 동편에는 돌벽수 한 기가 세워져 있다. 자연석으로 된 이 벽수는 얼굴 부분만 약간 다듬었을 뿐 그리 가공한 흔적을 볼 수 없다.

십여 년 전에는 없었던 것을 어떤 여女점바치(점장이)의 꿈으로 인해 도랑에 묻혀 있던 것을 지금 위치에 세워 모시게 된 것이다.

언양읍 어음상리彦陽邑 於音上里에는 마동택宅이라 부르던 복녀卜女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하룻날 잠결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 나타나서 왜 그대들은 나를 이렇게 시궁

창에 처박아 두느냐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마동택이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깨치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꿈에 선몽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는 사라졌다. 이때 마동택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골매기님의 계시라 생각하여 꿈에 일러주던 곳으로 가서 노을 하여 파보았더니 과연 벽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찾아낸 벽수를 마을 사람들은 제당곶에 모시게 되었다.

동부리東部里의 돌벽수는 옛날부터 동제당에 같이 있었던 것이 어떤 사정으로 곶(개울) 속에 버려졌던 것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지만, 영검이 대단하다고들 하고 또한 숨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흥미롭다.

「1화話」

마을의 임林모 노인老人이 하루는 제당가의 미나리깡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코가 흘러 나왔다. 허리도 펴고 좀 쉬기 위해서 미나리깡에서 나오자마자 손으로 코를 풀고는 무심 중에 그만 벽수에다 손을 닦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그 노인은 시들시들 병을 얻어 눕게 되었다. 약을 쓰나 별 효험을 얻지를 못하였다. 그 노인은 아마 마을을 지켜주시는 벽수에 코를 풀어 손을 닦았으니 필경 추구를 만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목욕재계하고 허물을 용서하여 줄 것을 착실히 빌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병은 씻은듯이 나왔다. 이 일이 있는 뒤로 마을 사람들은 벽수의 영검이라 모두들 말하였다.

「2화話」

언양읍 어음하리彦陽邑 於音下里에 이李모라 하는 분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동부리에 올라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놀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하게 되었다.

그는 술에 취한 나머지 장난삼아 두 손으로 미나리깡의 빨을 집어다가 벽수의 얼굴에 발라버렸다. 그 후 그는 벽수의 노여움을 사서 병이 들어 눕게 되더니 얼마 가지 아니하

여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 죽음을 사람들은 추구(芻拘)를 만나 풀지 못한 것이라고들 하였다.

[이유수, 『울산향토사연구논총蔚山郷土史研究論叢』,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6]

송대리의 능골

거어 산세(山勢)가 뒤에 잘났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에 그 현산 김씨입니다, 언양 김씨(彦陽金氏)라고, 그 자손이 살았는데,

그 참 공신(功臣)이 하나 났던 모양이지? 나가지고 위열공(威烈公)⁶², 낸중에⁶³ 인자(仁陵)이라고 카지. 낸중에 나라에서 아매 능을 봉했는지 지방에서 호칭을 하는지 나도 그런 거 뭐 잘 모르는데, 에 보자 서울서 발간하던 그 전에 공신록(功臣錄)에 얹히기 있데요. 위열공이라 갑니다. 위짜는 시위라고 위짜(威字)하고, 매울 열짜(烈字)지요.

그래가 묘터가 좋았는데, 거기 산세가 등잔혈이라고 해가지고,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그래 인자 언양에 그 직하에 살면 자손이 잘 안 된다고 몇 집 없고, 지금 서울 걸은 데 객지로 가가지고 크기 잘돼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랍디더. 그 묘터가 참 좋구마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학룡,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62. 김취려(金就礪)(1172년 ~ 1234년). 고려 후기의 무신, 장군이다. 본관은 언양이며, 고려 고종 때 몽고군에 쫓겨 서북면을 침략한 거란족을 격퇴한 공으로 문하시랑평장사(開府儀同三司 文下侍郎平章事) 상장군(上將軍) 판이부사(判吏部事)가 되고, 고려 고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위열(威烈)이다.

63. 나중에

능골들에 돌이 쌓인 사연

아까 저 좌랑공 카는 그 능이 있는 마실이 능골이거등. 능골인데, 거어 돌이 쭈뼛한 거, 뭐 몇 아름 되는 기 들판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여. 많이 있는데,

지금 전설로서는 언양성彦陽城 살⁶⁴ 직에 그 전 장군이 많애가지고, 회차리 가 돌로 후쳐 온 기라.⁶⁵ 새끼맨치로 쳐가 오고, 후쳐 오고, 또 부인네들이 마 처매에 싸 왔다 카는 그런 것도 있고. 글개 마 그런 말도 있고,

장군이 하여간 회차리로 가 후쳐가 내려오다가, 언양성 다 쌓았다 커이 마 거어 내빠려뻬다.

내 빠리이 인자 그 논 북판에 떡 있으이 지금 파낸다고 애 묵기도 하고, 파내지도 묻하 고, 지금도 현장에 짝 있습니다, 드문드문. 그기 그 인자 여러 동네에 인접해가 있는 때미로⁶⁶, 마 능골들이라 카머 됩니더. 여장군도 하고 남장군도 하고 그랬다 말이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학룡,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64. 쌓아올릴 때

65. 장군이 많아, 회초리로 돌을 몰아 온 거야

66. 때문에

지내리池內里 명칭 유래

우리 면내에 지내池內란 골이 있습니다. 못 지짜池字 안 내짜內字, 이 동리가 있는데, 아주 큰 동리고 동래 정씨東萊鄭氏가 구축을 해가아 사는 골인데. 이 부락의 동명이 옛날에 명암鳴岩이라는 그러한 동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리 뒤 산기슭에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구멍이⁶⁷ 뚫려졌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항상 소리가 나므로서 명암이다. 바위가 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리 이름을 명암이라고 명명한 다음에는 어떻게 그 부락에 화재가 많이 나는지,

“이기 왜 이렇냐?” 이래서 전 그 주민들이 걱정을 하다가 어데 가서 물으니까,⁶⁸

“그 동명이 명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화재가 나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이 화재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동리 앞에 아주 약한 만 평 이상 되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명을 지내池內라, 못안이다. 그러면 못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 그러면 화재를 면할 수가 있는 기 아니냐? 그래서 지내라고 다시 개칭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67. 구멍이

68.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 보았다는 말이다.

돌빼기

언양읍 송대리 능골마을 앞에서 안송대(내곡)와 직동리 신화(새터)마을로 올라가는 삼거리길 부근의 들판을 ‘돌빼기’라 했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화장산 동쪽기슭(능골)에서 언양읍내 쪽 들녘에는 조그마한 바위돌들이 연이어 늘려 박혀 있었다. 이 돌들이 어지러히 박혀 있다고 ‘돌빼기’라 부른 것이다. 이 돌빼기(돌배기)는 ‘돌박이’에서 나온 말로 <-박이>는 일부 명사 밑에 붙어, 그것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임을 나타내는 접미사接尾辭다. 예컨대 점박이, 자개박이, 조산造山박이. 살대箭竹박이, 장승박이, 솔松박이 등이 그것이다.

또 동부리에서 상북면 못안(지내리)으로 가다 능곡 앞에서 내곡마을로 들어 가는 삼거리길목에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딴 주막 하나가 있었다. 못안 및 새터(신화리) 장꾼들의 석양의 유일한 쉼터가 되었는데, 세칭 ‘돌배기주막’이라고 했다.

이 돌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조선조 연산군 시대(15세기 말엽) 원래 토성土城이었던 언양읍성을 석성石城으로 한창 개축改築하고 있을 때였다.

성에 쓰이는 성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느 한 역발장사力拔壯士가 바위만한 큰 돌들을 회초리로 물고 오던 중 이곳에 당도하자 성내城內에서 성을 다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돌몰이를 멈추었다. 그 때 그 돌들이 남아 사방 흩어져 땅에 박혀 돌배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지금은 그 돌들이 모두 없어졌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한실마을이 못으로 될 것을 예언한 사람

옛날 한실⁶⁹에 사던 어떤 사람이 ‘이 꼴쟁이가 틀림없이 강이 되이까네, 이 꼴쟁이를 갖다가 까딱하면(잘못하면) 밤에 물이 강물이 들오면은 사람이 일절 멸살할(몰살할) 모양이니까네 일체 철수해라.’ 이래 카는데, ‘여거 무슨 강물이 들오노?’ 이래가지고 마 그 사람은 멋대로 떠나뵈다.

강이 최고로 어데가 가작으나⁷⁰ 하며 절골 꼴쟁기 거어가 강이 제일 개작거등(가깝거든). 한실에 박씨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뿌리고 난 뒤에 ‘에라이 이놈우 씨바, 강물이 넘으이까네 황애(황어)가 이리 넘어 올 모양이니까네 발로 막아야 될다.’고 그래 인자 절골 꼴쟁기 거어서 사직이 바라둔덕 밑에 거어 발로 갖다 떡 막아 놓고, 방구를 갖다가 내리 밀어가지고 떠다 붙이가, 돌 하나뿐이지, 박씨라는 노인이 힘이 장사던 모양 이라요, 요새 나락 섬으로써 석 섬 카며(보다) 돌맹이가 좀 굵은 바운데 뒤에 그 공중대로 갖다 놓고 천날만날 기다려 봐야 강물 넘어 오기는 뭐로 넘어 와?

그래가지고 몇 해 그래 있어 보니, 저님 돌이 저 만땅 큰 기 와가 있으니 큰물이 지이요, 토지 양 짝쟁기(쪽)를 자꾸 파 묵는다. 물이 토지를 파 묵으이 토지 작자가(주인이) 자꾸 입을 댄다. 당장 이거 치아라고 고함을 질러 놓이,

그 본테 장정이 뭐 수십 명 달라 들어도 뭐 되도 안 하고, 시부지기(슬쩍) 질깡가세다(길가에다) 갖다가 실 밀어다 붙이 났다. 안주 그 돌이 거어 붙어가 있구마는. 밀어다 붙이 놓이까네 인자 양 들이 파이지 않고 이래가 있는데. 그 뒤에 호수戶數가 얼마나 살았나 하며 백열 다섯 호가 살았다 카더마는.

69.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蔚州郡 彦陽面 大谷里 한실마을)

70. 어디가 가까우냐

그 때 최고 많이 살았어. 백 열 다섯 호가 살 그 시에, 그 강 된다 카는 그 사람이 택이(이를 테면) 한 십 오년간 돼 가지고 이 동네 강이 됐나 어애 됐나고 하문 떡 왔다 말이다.

와보이 뭐 강은 무슨 강? 자기 살 때카며 사람이 훨씬 많이 살고 있거등. ‘하, 이기 일이 어애 되노?’ 이래 보고 인자 거어서 인자 조석朝夕을 얻어 묵고, 그래 뒷산을 사방을 둘러보는데 틀림없이 강은 틀림없는데,

그래 그 사람도 뭐 그래 떠나고 오도 안 하고. 몇 십 년 또 지내가이까네 뭐 밑에 앤때이를⁷¹ 막아가 참 강이라 캐도 과언이 아이거등. 그 사람이 언제새나⁷² 강이 되겠다 카는 그 것까정은 모르고 강이 되는 것만 알았다 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달선, 언양면, 1984]

사학골死鶴谷

언양읍 반곡리에서 대곡리로 흐르는 반곡천盤谷川의 하류로 고하마을 앞에서 동남쪽으로 산간계곡을 따라 약 3km쯤 굽이굽이 휘돌아 반구대에서 한실로 흐르는 대곡천大谷川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계곡을 고하골庫下谷 또는 사학골死鶴谷이라 부른다. 지금은 그 하류가 1960년대 중반 사연댐의 축조로 수몰되었다.

고하마을에서 동남쪽인 반구대로 가는 골짜기 왼쪽(계곡의 북쪽) 산이 풍수지리설로

71. 댐을

72. 언제쯤이나

불 때 흡사 학鶴의 형국이라 하여 사학골死鶴谷이라 하였다.

이 산은 왼쪽 날개가 없는 학의 형상이라, 학이 한 쪽 날개가 없으니 자유롭지 못하여 죽은 학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 곧 사학골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민들이 흔히 부르는 ‘사낙골’ 또는 ‘산악골’ 등으로 와음訛音된 것이다.

이 사학골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옛날 이 부근에 미영(목화)이 잘 자라는 밭이 있었는데 이 밭에서 어느 해 젊은 각시가 목화를 따다 ‘각시골’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마을사람들이 동원되어 찾아보니 ‘묵은등嶺’에서 사람을 잡아 묵(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묵은등에 가면 작은 묵묘陳墓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그 때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사람들의 뼈를 모아 묻어 둔 묘라고 한다. 이처럼 사학골에는 작은 계곡과 작은 산등이 많다.

[『언양읍지彥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까꾸당加古堂

언양읍 직동리 신화(새터)마을 북쪽, 즉 평리 고종마을에서 상북면 지내리 쟁골齋宮谷로 넘어가는 중간에 깊숙이 들어앉은 골짜기를 예로부터 ‘까꾸당加古堂, 加高堂’ 또는 ‘까꾸덩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있는 못 이름도 까꾸당못加古堤이다.

이 까꾸당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남아 있다. 먼 옛날 경상도 대구 부근 어느 고을에 최씨가 살고 있었다. 본래 최씨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뼈대 있는 집안이었으나 윗대

부터 워낙 가난하여 대구지역으로 이사를 해 양반들이 집단으로 사는 부자동네에서 상놈의 행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갔다.

주로 양반집의 농사일, 심부름, 묘지기, 대소사 치다꺼리, 가마꾼 등 힘들고 천한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천성이 부지런한 그는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제법 재산을 모았다.

어느 해 고향에 찾아가니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특히 친척들은 멸시를 더 하였다. 상놈의 행세를 한다고 족보에도 이름을 빼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돌아와 자기 집 근처에 큰 기와집을 다시 짓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상놈이 양반행세를 한다고 주민들이 더욱 싫어하고 괘시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다.

한번은 마을사람(양반)들이 동회洞會를 열어 객지에서 굴러 들어온 상놈, 따끔한 맛을 보인다면 마을사람들에게 끌려 나가 몰매를 얻어맞기도 하였다.

고향에 가면 상놈 행세하여 가문 망신을 시킨다고 친척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객지에서는 뜨내기 상놈이 돈 좀 있다고 겁 없이 양반 행세한다며 갖은 멸시와 고초를 당하니 원한이 맺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곰곰이 생각 끝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객지에 가서 자유롭게 살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갈 곳을 물색한 곳이 지금의 언양읍 직동리와 상북면 지내리 사이에 있는 두리봉이었다.

이 두리봉은 지내리(못안)에서는 청룡등靑龍嶺이라고 한다. 즉 동래정씨 못안 입향조의 묘소가 있는 왼쪽 봉우리이기에 좌청룡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곳에 삶의 터전을 정하고 집을 지었다. 산봉우리에 외딴 집을 지은 것은 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한 양반들의 횡포에 대한 무언의 항거이기도 하였다.

큰 기와집을 짓고 방안에서 내려다보니 속이 시원하였다. 동남으로는 직동들판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남으로는 못안의 두 들판(신리와 대리)이 자기 집을 쳐다보는 듯했다.

집을 짓는 동안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과객過客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매우 부자인 모양이지.” 하면서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 돌아보며 하는 말이

“저 집에 다니는 길은 동쪽으로 있어야 하지 다른 곳으로 내면 안되는데...” 하면서 지

나갔다.

이 말을 들은 최씨는 길을 동쪽으로 내었다. 산길이 너무 가팔라서 말 등에 한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땀이 젖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곡식을 실어다 나르기가 여간 고역苦役이 아니었다.

아랫사람의 말대로 경사가 덜진 집 뒤 골짜길을 새로 내어 그곳으로 다녔다. 이제는 하인도 들이고 제법 양반행세를 하며 이웃과도 사귀어 자기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도 생겼다.

어느 날 친구들을 초대하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흥겹게 놀다가 술이 좀 취하자 근본을 잊지 못하고 그만 말끝마다 상소리가 나왔다.

그후 자주 만나 상종相從을 하다 보니 본색이 드러났다. 이웃 사람들이 최씨를 상것이라고 낮춰보며 데리고가 못매를 때렸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대구지방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높은 산봉우리에 집은 있으되 여기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마을사람들이 이 집을 가리켜 가고당加高堂이라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이 변하여 ‘꾸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때 그 기와집의 주춧돌이 그 자리에 있으며 기왓조각 등이 흩어져 있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정원모, 언양읍,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고하庫下 보淤를 하루아침에 쌓은 김장군

이수里數가 한 삼 키로(km) 되는데. 고하 김씨네, 경주 김씨네, 그 어른이 장군이던 모양이라. 한 식전⁷³에, 그 장군이라 카며(하면) 술도 막걸리는 잘 안 묵었겠나(먹었겠지),

한 잔 자시고, 한 식전에 그 보를, 삼 키로 되는 보를 다 처가⁷⁴ 우리 동네까지 내려오는 데. 두서면⁷⁵에 있는 원류로(원류源流를) 땡겨가지고(당겨서) 그랬는데, 한 식전에 혼자 들어(혼자 들어서) 그 산을 지르고(뚫고) 이래가(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말이 있어가(있어서), 연에 그 공을 길이 찬양하고 있고.

그래 사람들이 보니 뭐 그 전에 수굽푸가(삽이) 있나? 가레(삽), 가레 그것가(그것 가지고) 했겠지. 그런데, 문지(먼지)가 막 뽀하이(뽀얗게) 나더랍니더, 사람은 안 보이고, 그 만땅(그만큼) 장군이더라 이래(이렇게 말해).

그 묘를 저 원류 있는 거게. 하여간 뭐 김장군이라 카는데, 함자는 옛적으로는 내가 알 텍도(알 수도) 없고, 고하에 경주 김씨 살고 있거등. 거게(거기에) 자손이 있으이 거어(거기) 가며 함자는 알겠지요. 저는 모르겠고, 고하 김씨라고, 경주 김씨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학룡, 언양면, 1984]

73. 하루 아침의 식전食前

74. 보를 만들어

75. 울주군 두서면

고하庫下 앞 소나무 숲이 생긴 사연

마실(마을) 이름을 와 고하庫下라 카노? 옛적에 부자 창고가 있었어, 국가의 창고지 부
жат 집 창고지. 중년에 일본 사람강 친하던 송태관⁷⁶이 서울에 안 있었는교. 부자, 그 사람
창고도 있는 걸 우리가 봤고, 그래서 부락명部落名을 고하라 카는데.

그 앞에 부락 앞에 산이 하나 시체매치로 기닿기 이래 늪우가 있구마는. 늪어가 있어가
인자 미신으로, 미신적이겠지. 그래서 부락민이, 그래 그래 놓으니 그 원인으로써 애상
兒喪⁷⁷이 많이 난다. 알라가 자꾸 죽는다.

이래가지고 저거로 안 비도록 할라꼬 하천부지다가 송림松林을 숨가 지금 무성하게 크
고 있어가지고 부락에서 잘 안 비구마는, 가리가지고. 그래서 인자 마실도 좋고 그렇다
이깁니다.

언지, 비도 안 하지. 몬 하지. 보호림으로 하고 있거등, 부락에서. 그 인자 시체곶이 늪
운 산이 안 빈다 말이지. 그래서 그 전에는 옛적에는 아이들이 자꾸 죽었던 모양이라. 뭇
손⁷⁸도 하고, 홍역도 하고 그랬다 카데. 거기 인자 유래라. 응, 소년죽음이 자꾸 났다 카
는 기라. 인자 죽도 안 하지. 나무를 비게 되면 소년 죽음이 났다. 거기 인자 그런 기 전설
이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학룡,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76. 민속학자 송석하의 부친으로 고종의 시종부경侍從副卿의 벼슬을 지냈다.

77. 아이의 죽음.

78. 손님. 즉, 천연두를 말한다.

구수연九藪淵과 이무기

울주군 삼남면 구수리에는 구수연九藪淵이라고 하는 못이 있다. 옛날에 이 구수연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무기라면 용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하고 물 속에 살면서 사람을 잡아 삼켰다는 전설적인 동물로서 큰 구렁이라고도 한다. 이 구수연 연못가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했다고 한다. 이 연못에는 큰 바위굴이 있고 이 바위굴 속에 이무기가 들어앉았다가는 사람만 얼씬 하면 화닥닥 뛰쳐나와 냉큼 삼켜 버렸다고 한다.

또한 이 구수연의 이무기가 한번 씩 올 때는 산천이 들썩거렸다고 한다. 비라도 오려고 날씨가 찌푸러지면 으레히 이무기가 올어댄다. 이무기가 올어대면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 잡혔다. 누군가 또 한사람의 목숨이 이무기의 밥이 되는구나 하고 짐작을 하면서 무서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아예 바깥 출입을 삼가하였다. 그날 밤이 새고 나면 어느 마을 누가 간밤에 이무기의 밥이 되었다는 소문이 전해 온다.

이무기는 배가 고프면 조화를 부렸다. 자기의 밥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홀려내어 가서는 잡아먹었다. 밥이 될 사람이 총각이면 이무기는 아름다운 미인으로 둔갑을 하고 처녀일 때는 총각으로 둔갑해서는 그 밥이 될 사람의 혼을 뽑는다. 혼이 뽑힌 사람은 자다가 우연히 일어나서 제 발로 밖으로 뛰쳐나간다. 밖에는 둔갑한 이무기가 인간으로 화하여 홀려간다. 밥이 될 사람은 정신없이 따라 간다. 그래서 구수연에만 도착하면 순식간에 다시 둔갑신은 이무기로 화하여 사람을 잡아 삼켜 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람들은 더욱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언제 어느 때 자기도 혼이 뽑혀서 이무기의 밥이 되고 말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소문을 듣고 이무기를 잡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이조 속종 을미년에 언양현감彦陽縣監 모일성牟一成이란 사람이 군졸을 이끌고 구수연으로 갔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젠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언양현감도 죽고 군졸들도 죽고 이무기는 잡지 못하고 잘못 건드려서 이 부근 마을은 모조리 폐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언양현감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현감은 듣지 않았다.

그까짓 이무기 한 마리쯤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연못가에 서서 이무기가 들어
앉아 있는 굴속으로 화살을 쏘 붙였다. 화살이 약 십여 대가 굴속에 날아 들어가자 천지
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연못의 물이 온통 뒤집히고 구비를 치면서 이무기가 화닥딱하
고 뛰쳐나왔다. 이때 기겁을 먹은 군졸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모조리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나 현감 모일성은 시퍼런 칼을 뽑아든 채 이무기와 맞섰다. 이무기는 천동같은 고함
을 지르면서 현감에게 달려들었다. 현감은 달려드는 이무기를 향해서 한손으로 벌어진
이무기의 입속으로 창을 날리고 한손으로는 배를 찔렀다. 벽력같은 고함소리를 지르면
서 이무기가 쓰러지고 말았다.

피로 연못물이 벌겋게 되고 말았다. 현감이 이무기를 찔러 쓰러뜨리는 것을 멀리서 지
켜보던 군졸들이 그때서야 우루루 모여 들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이무기를 군졸들은
수없이 난자를 하였다. 이무기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자 연못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 길이가
열 발이 넘고 그 굵기가 기둥 같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무기의 불안이 사라졌다고 한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구수연九藪淵의 이무기

이 구수연이라 하면 아홉 구짜九字, 숲이라 하는 수짜藪字, 숲이 우거진 곳을, 못 연짜淵
字에 구수연이라 그러합니다. 여기에 옛날에 큰 이무기가 살고 있었는가봐요.

저기 이무기가 구수연에 살고 있으면 1년에 꼭 한 번씩 처녀 하나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은 당하는 일이라서 날짜가

닥아오면은 올해는 누 집 딸이 그 이무기의 먹이가 될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무기가 처녀를 잡아먹는 날 밤이면, 밤이면 커다란 이무기가 나와서 울음을 울면은 산천이, 천지가 그냥 진동을 하고 들썩들썩하고 왕왕 울어대고 그러 다가는 나중에 이무기가 아주 그 미남자, 아주 미남자인 청년으로 변한다, 그래요.

변해가지고는 그 잡아먹을 처녀 집을 가가지고 그 처녀를 그 이렇게 자는데, 호러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처녀는 그 이무기의 둔갑하는 조화에 따라서 처녀가 자다가 제 발로 가지고 그 총각을 따라, 인간으로 화한 이무기 총각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그 못으로 들어간테요. 못으로 제 발로 들어가면 그 때 총각은 다시 이무기로 변해서 처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늘 되풀이가 되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밤만 지나면 그 마을의 아름다운 가련한 처녀 하나씩이 죽어갔는데, 이걸 그냥 도저히 그 참,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은, 그 구수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삼남면 구수리입니다. 삼남면 구수리인데, 그 때 언양 현감이 이 고을을 다스렸거던요. 이 고을을 다스리던 성이 모씨牟氏라고 하는 분이, 모현감牟縣監이었다고 그럽니다. 현감이 아주 담력이 크고 또 무기를 잘 쓰는 그런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간이 크니까,

“인자 내가 이무기를 잡겠다.”

그래서 그날 이무기 나오는 날이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온동네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잡아 먹힌다.”고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게 가가지고, 독화살에다가 철궁鐵弓을 가져 가가지고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거기 가서 이무기가 살고 있는 구멍, 물이 마 그 붉은 물이 확 뒤집어지고 이무기가 그 구멍에서 나오더니 그냥 굽이를 막 치는 거여요. 치면서 막 산천이 짹짹 하도록 울어대는데, 그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모현감이 독화살을 철궁에 해가지고 이무기의 목덜미를 보고 그냥 쏘았다고 그럽니다.

쏘았더니 이무기가 그 독화살을 맞고 그냥 죽지를 앓고 인제 모현감 있는 데로 확 그냥 스쳐서 덩벼 오더라는 거여요. 덩벼 오는데 그때 칼을 뽑아가지고 이무기의 목을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큰 모현감 덕분에 이 구수연에 있는 이무기를 잡고, 그 뒤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참 처녀 잡아먹히는 변을 면하게 되었다하는 그런 전설이 전

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구수연九藪淵

구수연은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연못으로서 이 연못에는 본시부터 바위굴이 있으며, 이 바위굴 속에는 큰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이무기는 연못 앞으로 왕래하는 사람을 종종 잡아먹었고 또 이 부근에 살고 있었던 마을 처녀들을 해마다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이무기가 마을 처녀를 잡아 먹을 때는 비가 오려고 날씨가 잔뜩 찌푸려진 날 밤에 잠자는 처녀로 하여금 제 발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연못가로 가서는 총각으로 변한 이무기와 어울려서 연못으로 들어가 엉키어 덩굴다가 처녀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근심에 쌓였다. 올해는 누구 집 딸이 이무기의 밥이 되려나 하고 가슴 조였다.

그러다가 날씨가 찌푸어치고 비가 오려는 깊은 밤이면 구수연의 이무기가 울기 시작한다. 이무기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리면 집집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긴장을 하지만 처녀가 잡혀가는 집은 가족 모두가 이무기의 조화로 혼수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처녀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무기 소동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조 숙종 을미년에 연양현감으로 도입한 모일성牟一成이 이 같은 소문을 듣더니

서둘러 군졸들을 이끌고 구수연으로 달려가서 이부기와 싸움이 붙었다.

모일성 현감은 군졸들을 연못가에 포위하게 하고는 군졸들로 하여금 천지가 진동하게 함성을 지르게 하는 한편 자신은 활에 화살을 매겨서 이무기가 살고 있는 바위굴을 향해 쏘아 붙였다.

모일성 현감이 일곱 발의 화살을 쏘아 붙이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치르면서 마치 집동 같은 흉악한 이부기가 손살같이 튀어나와 모일성 현감 앞으로 육박한다. 이때 연못의 물은 온통 소용돌이를 치며 부글부글 끓었다.

이때 군졸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질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현감 모일성은 다가오는 이무기를 맞아 청룡도靑龍刀를 뽑아 높이 쳐들고 싸우다가 이부기와 뒤엉키고 말았다.

이무기를 틀어 안고 뒹굴며 몇 바퀴를 굴이치다가 모일성 현감의 손에 잡힌 청룡도가 이부기의 잔등을 후려쳤다.

그 순간 이무기의 몸은 두 동강으로 떨어치고 붉은 피가 온 연못물을 물들였다. 이렇게 해서 구수연의 이무기는 잡아 죽였으며 그 후부터는 이 고장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다고 한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구수늪九藪淵 이무기 퇴치退治

연양면 구수리彦陽面 九秀里는 구늪숲九沼藪이라고도 하며, 또 구수九藪라고도 하던 곳이다. 숲과 늪이 많았다는데서 나온 이름들인 것이다.

태화강太和江의 상류가 이곳을 감돌아 흐르면서 홍수 때는 강심이 그 위치를 달리하기도 하여 여기저기 늪을 이루기도 하였던 곳이다.

이조 숙종肅宗 때의 일이라 한다.

구수리 물막고개九秀里 勿幕峴에는 한 석굴이 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굴속에는 한 마리의 큰 이무기鰲가 살고 있었다. 용이 되려다 용이 못되어 하늘을 오를 수가 없었다. 심술이 난 이 이무기는 자기 굴 앞을 지나가는 가축이나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해치게 되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야단들이었다. 이 변란은 급기야 관아에서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양현감이 이무기 퇴치에 나서게 되었다. 때는 숙종肅宗 41년(1715)의 일이다.

언양현 수령에는 모일성牟一成이란 쟁쟁한 현감이 있었다. 그는 한 대隊의 포군을 거느리고 구수늪에 다다랐다. 그래서 군졸로 하여금 사격을 가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겁을 먹은 군졸들은 감히 굴 앞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비겁한 사졸들의 행동에 화가 치밀었다.

현감은 총을 들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일격에 이무기를 죽이고 만 것이었다. 현감 모일성牟一成은 본시 힘이 세고 몸이 장대하며 평소에 담력이 큰 위인이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꾼들이 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죽은 이무기는 밖으로 끌려나왔다. 머리는 구늪숲에 있고 꼬리는 구수연에까지 드리워졌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혀를 휘두르며 놀랐다. 아니 그것보다는 저렇게 크고 무서운 짐승을 잡은 모현감의 담력과 솜씨에 더 놀랐다고 한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읍지』,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구수九藪의 이시미(이무기)

언양에는 그 요 아래 내려가면 반천盤泉 동네가 있지요. 여어 산이 쪽 내려갔다가 평풍매로(병풍처럼) 저렇게 절가에(강가에) 내려간 데가 있습니다.

그 물막재라, 물막재로 넘어가는 고 잘래기⁷⁹가 있습니다. 그 절가에 병풍매로 산이 이렇게 모도 서가지고 있는데, 요 새로 넘어가는 재가 있는데, 그 산에 방우에(바위에) 그 이시미가 굴이 떨어졌더랍니다⁸⁰ 구수. 아홉 군데의 소가 있었다 말이지. 예전에는 그 이시미라 커까 이기 늘 탕기면서러 그거로 했어요.

그런데 이시미가 거기 살기는 그러이(뭘하니까) 그 물막재 넘어가는 굴에 가 있었어요. 굴에 가 있는데, 갓을 송아치(송아지) 겹은 거⁸¹ 매 놓으며 이놈이 마 송아치로 갓다가 물고 드가는 수도 있고 이랬어. 이래 됐는데, 그거를 아무리 해가지고라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 언양 읍지에 있습니다. 여어 모씨牟氏라고 서가모니釋伽牟尼라 카는 이 모짜牟字라. 이 분이 언양 원님으로 왔어요. 그 분이 담대한 사람이라요. 그 분이 이시미를 갓다가 잡아 내뿔어요. 잡아내가지고 화근을 덜었다 카는 말이 있어요. 바라 그거는 다 읍지에 있습니다.

수는 높이지요, 말하자면. 높이 여게 내려가면서 아홉 군데가 있었더랍니다. 그래 이시미가 그저 왔다가 갔다가 그래 살았던 모양이지요. 그 물막재를 넘어 가는 그산 밑 그 방우 밑에 거게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모씨라 카는 분이 현령으로 와가지고 그래 그 잡았다 카는, 그거는 읍지에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79. 산등성이

80. 이무기가 사는 동굴이 뚫려 있더랍니다.

81. 갓을



온양면

성인정聖人井(1)

온양면溫陽面은 옛날 불교가 크게 성하여 4사 9암이 있었다. 남창南倉 뒤의 안태봉安胎峯에 천안사天安寺, 덕신리德新里에 영남사嶺南寺, 고산리高山里에 안봉사安峰寺, 삼광리三光里에 신흥사新興寺와 옥련암玉蓮庵, 대운산大雲山에 불광사佛光寺와 안심사安心寺, 발리鉢里에는 이름을 실전한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아니라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불광산佛光山の 대원사大原寺와 대운산大雲山の 내원암內院庵도 있어 그 이름이 알려져 왔다.

이 가운데 발리鉢里의 탑골산塔谷山에 있었던 이름을 실전한 절에는 구층석탑九層石塔이 있었으며 이 절에는 이조 초기의 명승 일선—禪스님이 수도하고 있었다. 온양면 하발리溫陽面 下鉢里에는 옥련정玉蓮井이란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일선—禪이 관 것이라 한다.

일선—禪의 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경성敬聖, 경성慶聖등이며 성은 장張, 그 본관은 울산蔚山으로 발리鉢里 출생이라고도 전해온다. 그의 아버지는 장봉한張鳳韓이며 어머니는 박씨朴氏로서 이조 성종成宗 19년(1488) 12월 19일에 출생한 분이다.

어느 날 이상하게도 일선—禪스님이 옥련정玉蓮井에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더니 서북을 향하여 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일선—禪은 비범한 사람으로 인근에서는 늘 우러러 보는 터라 누구도 감히 그 까닭을 묻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해인사海印寺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선—禪스님이 정수를 뿌리던 그 시각에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장판각에 불이 일어나서 큰 소동이 일어나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야단들이었다. 이때 동남쪽에서 검은 먹구름이 떠오더니 별안간 한바탕의 소나기를 퍼부어 요행이 불은 꺼지고 이 겨레의 호국의지를 담은 팔만대장경은 안전하게 보전할 수가 있었다.

뒤에 알려진 일이었지마는 이는 다 일선—禪스님이 신통력을 부려 그렇게 하였던 것이라 한다. 그 후로부터 이 옥련정玉蓮井을 성인정聖人井이라고도 불렸으며, 또 성인정聖人井에는 한포기의 풀이 늘 피어 있었다. 일선—禪이 발리鉢里를 떠날 때 이 풀이 죽으면 나의 입적入寂을 알리는 것이며 우물을 짜 올린 돌이 빠지면 나의 이가 빠지는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성인정聖人井(2)

울주군 온양면 발리蔚州郡 溫陽面 鉢里에는 성인정聖人井이라 카는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명 옥련정玉蓮井이라고도 일러 옵니다.

이 우물도 지금은 보잘 것 없는 터만 남아 있어. 왜 그렇냐 하면 요즈음 간이상수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물이 사용이 안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제는 이조 성종成宗 때 울산 출신의 중으로서 일선—禪⁸²이라 쿠는 유명한 중이 있었습니다. 이 분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스님이 하루는 이 옥련정에서 물을 한 그릇 퍼가지고 저어 서쪽 하늘을 보고 정중하게 서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무심하게 지냈는데. 그 후에 들리는 말에, 전해 오기로는 해인사海印寺에 저어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그 장관각인가 거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갑자기 그 동쪽에서 먹구름이 뭉쳐 와가지고 일장의 소나기를 퍼부어서 그 불이 꺼졌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 우물을 성인정이라고 해서 전해 옵니다.

또 일설에는 그 일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남겼다 카는 말인데,

“그 우물에 돌이 빠지면 내 이가 빠진 줄 알고,”

우물에 하나, 한 떨기 풀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풀이 죽으면 내가 입적入寂 하는 줄 알아라.”

그런 얘기가 전해 왔다고 지금도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도 안 떨어지고 풀도 아직… 풀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셨구나!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82. 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경성敬聖, 경성慶聖 등이며, 속성은 장씨張氏며 본관은 울산蔚山이다. 조선조 성종成宗 때의 고승高僧이다. 일설에는 이곳 발리鉢里 출신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성인정聖人井과 고일선사古逸禪師

울주군 온양면 발리에 고일선사가 뢰다는 성인정聖人井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을 성인 성聖자와 사람 인人자 우물 정井자를 붙여서 성인정이라고 하는 연유는 고일선사가 범상한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불렀고, 또 고일선사가 관이 우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니 하루는 고일선사가 이 우물에 와서 술을 뿌리고 있더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고일선사 더러 물었다.

“선사는 왜 우물에다 술을 뿌립니까?”하니 고일선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합천 해인사에서 화재가 일어났소이다. 그래서 내 미쳐 합천 해인사까지 갈 수는 없고 해서 여기서 불을 끄려는 거요.” 하였다.

사람들은 설마하니 이 우물에 술을 뿌린다고 여기서 합천 해인사가 어디라고 불을 끈단 말이나 하고 믿어 주지를 았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맑은 하늘에는 난데없는 시꺼먼 구름장이 덮이기 시작하면서 무지개가 뻗었는데 그 한 뿌리가 성인정에 와서 박고 또한 뿌리는 해인사가 있는 서쪽에 뻗어 내려다. 뇌성벽력이 치고 일진풍파가 일어나드니 갑자기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줄기는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같은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선사는 합천 해인사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으면 거기도 스님들이 있을 터인데 선사께서 그다지 염려를 하십니까?”하니 고일선사가 대답하기를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우물에 불타는 장면이 비쳐서 알게 되었고, 소승이 염려하는 이유는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소장한 장경각藏經閣에 불이 붙었으므로 이 팔만대장경이 불타는 날에는 우리나라 불가에 낭패가 나기 때문이요”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불가사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그날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으며 그날

쏟아진 비의 덕분에 팔만대장경각에 붙은 불이 꺼졌는가를 수소문 하였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날 틀림없이 팔만대장경각에 화재가 일어나서 해인사의 스님들이 총동원이 되어 불을 끄려고 물을 퍼 날랐으나 불길을 잡을 가망이 없어 영락없이 장경각이 소실되고 마는 줄로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맑은 하늘에 동쪽으로 부터 시꺼먼 구름장이 떠오르고 뇌성벽력과 함께 일진 풍파가 일어나면서 무지개가 뻗더니 빗줄기가 쏟아지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퍼 부었든지 삼시간에 골짜마다 집동 같은 물줄기가 굴러 내려오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각에 치솟던 불길도 순식간에 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소문을 듣고 부터 고일선사를 보통스님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고부터 고일선사는 간 곳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후 이 성인정을 보통 우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연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였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성인정聖人井(3)

성인정은 울주군 온양면 발리에 있는 웅달샘으로서 신라시대의 스님 고일선사古逸禪師가 봤다는 샘이다.

고일선사가 이 샘을 관 후에 하루는 서북쪽을 향하여 술酒을 우물에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고일선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서는 왜 우물에다 술을 뿌리고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고일선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해인사海印寺의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소장한 장경각藏經閣에 화재가 일어나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우물에 술을 뿌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믿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관심과 회의를 품고 수소문을 했다.

그 후 소문을 들으니 고일선사가 우물에 술을 뿌리던 그날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을 소장한 장경각에 화재가 일어나 절간은 온통 수라장이 되어 모든 스님들 일어나 진화작업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 애태우고 있는데, 난데없는 일진광풍이 폭우를 동반하고 울산쪽인 동남쪽으로 부터 급습 해 와서 순식간에 불길을 잡고 말았다고 한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후부터는 고일선사를 만나 본 사람이 없으며 사람들은 고일선사를 성인聖人으로 알고 그 우물을 성인정이라 명명하여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우물이 전해지고 있다. 그 당시 이 고장에 불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알지 못할 한 도사로 하여금 그 같은 불승佛僧의 영통력靈通力을 보이고 떠나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옥련정(1)

물이 좋고 저, 원효대사가 그 전에 요 있다가 갈 때, 그 새미에 풀이 났거만. 새미 물 속에. 풀이 이거 무싣 똑 뭐라고 비교하꼬? 무싣 바생이겜이 뿌리 줄갱이도 크기 없이 머 우불우불 하이 이래 가 났고, 그 새미를 한 번씩 칠 때 마중⁸³ 밑에 찌그랭기가 앉은 거 끌어내고 뭐 이라 모 풀로 마 뜯어 뿌거든. 열매 안 있으몬 또 그리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지금 그거 없어진 지가 아매도 한 삼사 년 됐을 겁니다. 인자 영원히 없어져 뿌렸어요. 그 원효대사 말씀이,

“이 풀이 나거든 내가 있는 줄 알고, 이 풀이 마 없어지거든 날 없는 줄 알아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 연년히 새미친다고 이래 뜯어 뿌도 내 올로 오고 올로 오고했는데, 지금은 뭐 마 안 올로오데. 없어진 지 한 삼사 년. 그 전에는 풀이 내 났지. 내 났고 조거로 저 새매 한 번 썩 치몬 밑 찌그랭기가 앉았는 거 끌어낸다고 이 마 흙썩 뜯어 뿌리고 이랬거든. 새미는 안 쟁지. 그저 뭐 안 쟁지. 머 사람이 드가 봐야 물 한거⁸⁴ 채 봐야 우리 머 한 질 꺼정도⁸⁵ 안 됐지. 지금은 그 저 그거로 하고, 그 전에 이 공동새미가 돼가지고 이 마실 전체가 묵다가 지금은 각 집집이 인자 머 우물을 파 놓고 묵고, 그거는 몇 집이 묵다가 없는데, 집에 머 그거 놔 놓고 그 머 머라 쿠노? 빨아 묵는 거 그, 머, 그 전기해 놓고 인자 우에 뚜껑을 덮어 났거만.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엄진복,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83. 때 마다

84. 가득

85. 까지도

옥련정(2)

[박학주] 원효대사가 그 때 어느 땐고 몰라, 인자 고려 땐가 모르지. 여기 있을 때….

[엄진복] 이 지명으로 원효대사가 지았거든. 바릿대 발자^{鉢字}

[김인조] 바리로 덮어 씌고 원효대사가 이 새미서(샘에서) 났다 쿠터마는요. 그래 놓으니까네 이 동네 이름을 바리라 캐.

[엄진복] 이 지명이 탐골에 절이 있어서 탐골이라는 원인이 절 때문에 탐골이라 했어.

[박학주] 원효대사가 탐골에 절로 지아가지고 거게 요새 곁으론 구인사매쿠로 예, 예, 있을 때 이 새미에다가, 여 새미로 파가지고 물로 묵어던동 몰라. 그래 원효대사가 말이.

[엄진복] 역사에 기록되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박학주] 그 전에 서울 사람이 다 왔어. 이거 그 할라고.⁸⁶

[엄진복] 이거 불라고.

[김인조] 한창 제국시대 따다닥거릴 때⁸⁷ 말입니다, 여게 인자 새메 여게 풀이 피인까네, 풀 피 있는데, 여 여 새미가 여 도랑창에⁸⁸ 도랑 풀이 팔짜 아인기교? 새메 풀이 뽑아 보인까네 팔짜인까네.⁸⁹ 요라몬 틀림없이 요라몬 글이 새기저가 새미 인자 그거로 봐 해방이 되겠다.⁹⁰ 그 때 요 꽃 귀경하로 많이 내려왔거마는. 그 래 풀을 요래 다 뽑아 보고 요 인자 그래 가지고서러 예, 고마이대 이파리⁹¹ 팔짜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로 다 뽑아가 와서러 여게 팔짜가 있으이까네, 원효

86. 전에 서울의 학자들이 옥련정을 조사하려고 왔다는 말이다.

87. 일본식민지시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88. 작은 시내에

89. 샘에서 나는 풀잎에 팔자八字 무늬가 있었다는 말이다.

90. 풀잎에 팔자八字가 새겨져 있으니까 팔월八月에 해방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이다.

91. 고구마줄기 잎

대사 새미 여게 아무래도 이기 그건갑다고⁹² 이래 가지고서러. 하도 세월이 그 때 원강 따다닥거리 쌓인께나, 그래 인자 새메 여게 풀이 인자 꽤날 고 때 풀이 많이 안 뻗거마는. 풀이 보몬 똑 복판에 요게 꽃망우리같이 소복히 이리 올라 오고 또 양쪽 갓에 뱅둘러가 요래 올라오는 기라. 싸악 쳐 뿌고, 새미 이거 따까 리가⁹³ 없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우리 요게 열 집 묵었거마는. 이 새미로 열 집 묵었는데, 인자 제죽 파 놓은까네 그렇지마는.⁹⁴ 또 쳐뿌고 나몬 또 풀이 올라와. [박학주] 전설이야, 원효대사, 탑골에 절이 있었는데, 거어서 있다가 자기가 갈 때에, “이 풀이 나거들랑 내 산 줄 알고 안 나거들랑 내 죽은 줄 알라.”고 그런 전설만 있거만.

[엄진복] 새미 이름이 연화정蓮花井이라고 씌거마는.

[김인조] 그전에 우리 어무이가 그래 쌓지러. 원효대사 이 새메서 났단다. 이래 쌓데.

[박학주] 물로, 경주 불국사 불이 났는데,⁹⁵ 물로 북쪽으로 양평이에다 떠나지고 이리 평 기가지고 그 어른이 무신 큰 조화로 했는지, 그래 경주서 불국사 비가 와가지고 불로 쫓다 그런 전설이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학주 엄진복 김인조,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92. 광복을 예언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는 말이다.

93. 뚜껑이

94. 제각기

95. 원래 이 샘의 물을 열 집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근년에는 각 가정에 샘을 따서 이 샘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96. 일설에는 해인사 장판각藏板閣에 불이 났다고도 한다.

고승 일선一禪

일선의 호는 휴옹休翁, 선화자禪和子, 또는 경성敬聖, 경성慶聖이며, 속성 俗姓은 장張씨로 본관은 울산이다. 아버지는 장윤한張胤韓이며, 어머니는 박씨로서 조선 성종 19년(1488) 12월 13일에 출생 하였다.

양친을 일찍 사별하여 무상을 느껴 13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단석산斷石山(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해산海山스님에게 3년간 수학하다가 16세 때인 연산군 9년(1503)에 득도得度하여 중이 되었다.

중종 6년(1511) 평안도 묘향산 문수암에서 고행을 하다가 남하하여 지리산의 벽송지엄碧松智嚴스님에게서 밀지密旨를 받았다.

금강산 십왕洞十王洞에 들어가 좌선을 하고 표훈사表訓寺, 천마산天魔山, 오대산五台山, 백운산白雲山, 능가산楞伽山 등 여러 산을 순례하면서 수도와 가르침에 심력을 경주하여 불교계에 자못 이름이 높았다.

중종 31년(1536)에 일선이 의성군으로서 신천新川을 지키고 있을 때 중종 임금의 능가산으로 가다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 때 감독관이 그의 비범함에 놀라 보름동안 붙들어 두었다. 그러자 서울의 선비들이 그의 덕을 듣고 시주했으며 그 소문이 장안에 더욱 널리 퍼졌다. 이에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금부禁府에 갇혀 신문을 받았으나, 올바른 논리를 펴서 석방되었다 한다.

일선스님은 78세(1564) 때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의 관음전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학식이 깊은 선비와 스님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다. 휴정休靜 서산대사도 일선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영관의 법을 이었다 한다.

또 일선스님은 군부君父와 중생, 삼보三寶 등 사은四恩에 보답할 것을 잊지 않았으며, 늘 남아가 경세更世함에 충효에 쌍전雙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상선암上禪庵을 새로 세우고 경성당慶聖堂을 부설하여 향을 피우며 성수聖壽를 축원하였다.

선조 1년(1568) 2월 30일 묘향산 관음전에서 임종할 때의 귀글이 전해오며 그때 빛이

백 리 밖에 비치고 은빛 사리舍利가 나와 부도를 세웠는데, 이때 나이 81세, 법랍法臘 65세였다. 그의 제자로는 성준性俊, 일정一精, 선등禪燈 등이 있다.

일선이 임종 때 남긴 구절은 다음과 같다.

팔십인간명신여일전광 八十人間命迅如一電光

임행인거목 활로시가향 臨行忍擧目 活路是家鄉

년유팔십사공화 주사유유적안화 年途八十似空花 往事悠悠赤眼花

각과미문환본국 고원도이사개화 腳踏未門還本國 故園桃李已開花

일선스님의 출생지는 온양을 발리이다. 발리에 위치하고 었는 성인정聖人井에는 연蓮과 유사한 수초水草가 자라고 있었다. 스님은 이곳을 떠날 때 이 수초가 죽으면 나의 입적入寂을 알리는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이 수초는 1968년까지 우물 안에 자라고 있었으나 당시 국가시책으로 강조되던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수리하여 콘크리트관管을 짜서 묻고부터 수초는 그만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우물 안의 수위水位가 불어나면 수초가 자라고 수위가 줄면 수초가 작아진다고 하였다.

일선은 묘향산 보현사에서 입적했고 사리舍利가 나와 부도浮屠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평안도 보현사에 보존되고 있다고 전해온다.

또 목판으로 발간된 일선의 『경성당敬聖堂문집』이 웅촌면 고현리 운흥사(지금은 폐사됨)에서 발견됐다. 현재 통도사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서산대사의 간곡한 유훈遺訓이 적혀 있다고 한다.

울산 발리에서 태어난 일선 큰스님을 보고 울산을 ‘불지촌佛地村’이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의 서산대사, 사명대사는 우리 역사에 많이 알려졌으나 불교계의 불자들은 일선 스님을 고결한 큰스님으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성인정이 있는 마을 발리도 일선 스님이 타계한 이후 지명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발리鉢里의 유래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발리鉢里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대사는 하발리下鉢里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지어먹고는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사가 바리때⁹⁷로 물을 퍼서 서쪽을 향해 끼얹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사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묻자, 대사는 지금 통도사通度寺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끄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원효대사가 바리때로 물을 퍼서 통도사의 불을 꺾었다고 해서, 그 후 사람들은 그 동네 이름에 ‘바리때 발鉢자’를 써서 ‘발리鉢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김원호, 윤양면, 1985]

97. 바리때 : 주로 스님들이 식사할 때에 사용하는, 나무로 대접처럼 만들어서 안팎에 옷칠을 한 그릇이다.

발리鉢里와 탐골의 명칭 유래

쇠 금⁹⁸ 변에 이 저저 밑 본⁹⁹ 한 자, 이 자가 저 와 이 자로 이 바리鉢里⁹⁸라고 쿠는고 하
이 바릿대⁹⁹ 발짜 발리鉢里라고. 이 자는 대개 절에 씌는 자거든. 그런데, 그 인자 바리라
고 씌는기 인자 원효대사가 여어 있었던 때문에 그래 바리라고 이래 했다 쿠데.

원효대사가 이 여 있었다 쿠데. 이 마실에. 마실 여 가운데 가몬 저 요서 보면 탐골 쿠는
골이 있거만. 탐골. 탐골 쿠는 그 지명이. 그 가몬 저 미륵이 앉했다는¹⁰⁰ 밑자리가 돌이
있었다. 남창국민학교서 가져갔고, 그거로 미륵이는 그 미륵불인데, 어디 가 처백혔는지
그마 없었고, 우리 알기에는 밑자리 그것만 있었지. 학교, 국민이 마실 이름도 원효대사
가 있었던 때문에 바리때 발짜鉢字, 쇠 금 변에 밑 본. 학교 가져 갔거만. 그 지명을 탐골
이라고, 탐골 탐골이라 쿠고. 그 자를 썼다 이러 쿠더만. 어른들이 그래 쌓았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엄진복,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98. 발리를 이 마을 사람들은 ‘바리’라고 발음했다.

99. 바리때가 표준말이고 줄여서 바리라 한다. 절에서 쓰는 종의 밥그릇을 뜻한다.

100. 앉혔다는

도통골道通谷

온양면 온화리溫陽面 雲化里의 대운산大雲山 밑에는 상대上大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서쪽의 골짜기를 들어가면 도통골道通谷에 이르게 된다. 이 도통골道通谷의 용심지龍深池는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살면서 수도하였던 곳이라 한다.

원효대사元曉大師는 장안면長安面 장안사長安寺의 말사인 척관암擲板庵에 있으면서「해동원효海東元曉」라고 새긴 판자를 날려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법운사法雲寺에서 불공하던 천명의 죄 없는 신도를 구하니 이를 세상에 ‘해동원효 척관구중海東元曉擲板救衆’이라 한다.

때는 이 무렵이었다. 장안면長安面의 척관암擲板庵에서 도통골道通谷은 불과 10리 미만의 거리에 있고 그 계곡의 수려함도 뛰어났으므로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제자를 거느리고 수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사大師가 제자 한 사람을 부르더니 채를 주면서 그것으로 물을 떠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채를 받은 제자는 한동안 머뭇거렸으나 대사大師의 하는 일이라 그대로 가서 용심지龍深池의 물을 떠 보고자 했다. 그러나 채에 물이 담길리 만무하여 물이 주루루 빠지고 말았다. 제자는 다시 채를 물속으로 담구어 들어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이제는 채에 물이 담기었다.

제자는 놀라운 한편 행여나 잘못하여 물이 빠져 흐르면 어찌하랴? 조심조심하여 공손이 대사大師에게 바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큰 한숨을 내어 쉬었다. 채를 받아든 대사大師는 북쪽을 향하여 무슨 주문을 외우며 뿌리니 하늘에는 오색의 구름이 일어나서 북쪽 하늘로 흘러갔다.

그런데 이 때 월성月城의 불국사佛國寺에서는 불이 일어났다. 대웅전大雄殿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을 때였다. 갑자기 남쪽하늘에서 오색의 구름이 날라 오더니 한바탕의 비를 퍼 부어대니 그만 불은 꺼지고 말았다 한다.

그 뒤로 사람들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살던 이 골짜기를 도통골道通谷이라 하였으며 지

금도 그렇게 불러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김영달, 온양면,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원효대사와 도통골道通谷 지명 유래

원효대사님이 그래 방방곡곡으로 땡기며 여 기장機張 장안사長安寺 척관암擲板庵¹⁰¹에
도 공부로 하고, 공부 안 한 데가 있나? 저어 어데고 거어도 공부로 하고, 이래도 도통道
通이 안 돼. 통영通靈이 안 돼 죽을라고 저저 대운산大雲山 만탱이頂上 도통골道通谷 거어
올라가는데, 만학천봉¹⁰²에 거어 서가지고 그냥 떨어졌어, 죽을라고. 도통 못 하이 사니
뭐 하노 그리 쿠민서나. 지금 올라가 보몬 통영한 자리가 만학천봉이거든. 거어 마 콧 떨
어진까네, 세상에, 관세음보살님이 처매로 딱 별리가 떡 받아가,

“아이고 그만 일에 널찌노?”

—

10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절

102. 만학천봉萬壑千峰. 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이란 뜻이다.

그만 거어 탁 그래 도를 통했어. 그래 거어가 도통골, 그래 여서 그 골짜기 이름을 도통골이라 캐. 우리 대운산에. 우리 온양면 대운산. 도통해갓고 거어 관세음보살님이 만학천봉을 날찌는 거로 받았거든.

도가 터져가 그래 여 바리鉢里에 여어 지내가섰다고 바릿대 밭鉢자로 써. 그런데, 이 새미로¹⁰³ 지내 가민서로 풀로 숨가 놓고 가미,

“언제라도 이 풀이 나거든 산 줄 알고, 내 이 풀이 안 나거든 죽은 지 알아라.”쿠미 가더이, 그래 인자 험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타는데,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어. 그래 원호대사가 여어서 솔잎에 물로 이 물 새미로¹⁰⁴ 가지고 물로 적시가 확 그리 뿌리 뿌인까네¹⁰⁵, 그만 거어 불이 팔만대장경에 불이 꺼지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103. 성인정聖人井 혹은 옥련정玉蓮井이라고 부르는, 이 마을 안에 있는 샘. 이 설화의 주인공을 일설에는 신라때의 고일선사古逸禪師라고도 하고, 조선조 성종때의 일산선사一禪禪師라고도 한다.

104. 이 샘의 물을 가지고.

105. 뿌려버리니까

성지가 잡아 준 명당

울산에서 방어진方魚津 내려가는 태백산 줄기 동대산東大山에 울산의 명당지지明堂之地에 드는 한 혈이 있는데, 그 명당지지를 누가 썼노 하면 요새 살아 있는 정해영씨 조부가 거어 묻혔다고요.

그 때의 정해영씨¹⁰⁶의 집은 아주 가난했는데, 지사地師 그 터를 잡아 주면서 여게 앞에 철마가 나가거든, 아주 부자가 될 기다고 해. 그 때는 사람도 나고¹⁰⁷, 부자 나고 이리 말로 했는데, 과연 그 뢰로 써 놓고 해방되고 거어 길이 났단 말이지. 그 앞으로 길이 나가 지고 차가 땡기거든. 차가 철마라. 정해영씨가 국내에 아는 부자 아입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울산 쿠몬 명당지지로 팔명당의 한 혈이다 이래 쌓제.

남창¹⁰⁸ 거게 가면은 용당 박씨네들이 쓴 뢰가 있거마는. 잘 안 되고 이런데, 그 형제가 암만 해도 그 용한 지사를 모실 형편은 안되고, 동생이 형 보고,

“형님요, 우리도 성지가 오몬 뢰로 하나 얻어야 써야 안 되겠는교?”

“아아, 거기사 내 언제부터 마음에 있지만 형세가 이러이까네 우예 성지를 한번 모실 수도 없고 오몬 부잣집에 가뿌고 이러이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성지를 한번 모시도록 할 께이까네 내 말만 들으소.”

그래 형제간에 의논이 돼가지고,

“성지가 오몬 아무 고개를 넘어오는데, 형님이 그 고개 가가지고 일로 하고 계시이소. 밑에서 나무를 하거나 일로 하고 있다가 성지가 오몬 내가 만네가지고 그 놈을 마 영 죽 일 작정을 하고 사람이 못 견도록, 사람이 굶신을¹⁰⁹ 못할 정도로 내가 팻 모양이니께, 때 리거든 성지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 쌓거든 형님은 그 밑에서 광포¹¹⁰를 지

106. 정치인. 7선 국회의원이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07. 훌륭한 인물人物이 나고

108. 울산군 온남면 남창리蔚州郡 溫陽面 南倉里

109. 동작을

110. 고함

르고 올라와 어느 높이 이라노고 이라몬 내가 달라뻔¹¹¹ 모양이니께, 그러저들랑 형님이 업고 집에 가서 구환을 하소.”

이래가지고 형제간에 의논이 딱 된 기라. 그래 아무 날 통도사에서 통했는¹¹² 중인 성지가 온다고 쿤께로 그 고개만당이頂上 가가지고 형제간에 한 분이 길 복판에 딱 눕었어. 성지가 가만 오다가 보이까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옆으로 비껴갈 수도 없고 또 빈터가 없단 말이지.

그래 마 사람을 타 넘고 가는데, 벌떡 일어 나가지고 붙잡고 다짜고짜 죽어라고 뺐다. 패이¹¹³,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지르이, 마침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광포를 지르고 올라 오고 그 사람은 내빼뻔다¹¹⁴ 말이지.

그래 성지를 업고 와가지고 구환을 했어. 예전에는 상주가 돼가지고 묘를 못 모시고 하몬 어디까지나 상주의 포를 내고 이리기 때문에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상주다 쿠는 거로 사람들이 알기 돼 있다고요. 그 중 성지가 공한다고,

“보이 상신喪身인데 부모 봉토封土로 했냐?” 이리 물으이,

“내가 처지가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구산求山을 못 해가 봉토를 못했다.”고 이라니 성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리를 좀 아는데, 내 따라가자.” 이기라.

자기 동생은 얼렁거리도 안 하고, 성지하고 그 형 되는 이 하고 남창 그 뒤 요새 중학교 뒤인데 올라가가지고 터를 두 나로 봤는데,

“당대에 팔도병사할 자리를 쓸라나? 삼대만에 정승 될 자리를 쓸라나?”고 성지가 묻는데, 그 형이 답변을 못했어, 그 자리서.

당대 만에 팔도병사도 좋고 삼대 만에 정승 날 자리도 좋고 이러이 어느 거를 할 확답을

111. 달아날

112. 달통한

113. 두들겨 때리니

114. 도망가버렸다

못하고,

“내가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고 널 아침에 봅시다.”

그래. 저녁에 저거 동생이 찾아왔는데,

“야야, 오늘 산에 가 보이 이렇고 이러한 혈이 두 날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면 좋겠나?”

그래 동생 되는 사람 하는 말이,

“형님, 우리가 이리 가난한 기 언제 삼 대꺼정 지다리가 정승 나도록 기다릴 킁교? 당대 팔도병사를 해야지.”

그래마 팔도병사 자리를 줄라 켜는기라. 예전에 터를 본다 쿠몬, 상주 그런 자격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야 주지 그런 자리를 아무나 주는 기 아니라, 성지가 가만 보이 팔도병사를 못하겠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 하는 말이,

“하관下棺할 때에 말 천 마리를 갖다가 매야 되는데, 상주가 말 천 마리를 매겠나?”이래. 한 마리도 못 맬 형편인데, 말 천 마리로 매라 쿠이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소리라. 그래 밤새도록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고 동생인데 한데 찾아갔다.

“야야, 큰일 났다. 그 터를 얻기는 얻었는데, 하관시에 말 천 마리를 매야 된다 카는데 한 마리도 못 맬 우리 처지에 말 천 마리를 우째 매겠노? 이거 안 된다.”

그래 동생 되는 사람이,

“아이구, 형님 걱정마소. 내 말 천 마리를 맬 모양이니까네.”

“그래 우예 매노?”

“말 천 마리를 기리몬 안 되능교? 형님, 잠이나 자소.”

그래 소나무 말뚝을 천 개 만들어 와가지고 뺨 둘러가며 천 마리를 맷다. 성지가 가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되기는 되겠는데 싫어. 하관을 하고 몰관한 뒤 상주가 하직을 하고 흠을 덮는데, 동생 되는 사람이 숨어 있다가 다말아¹¹⁵ 나와 가지고 뽕뽕 울고있거든.

성지가 뽕뽕 철보다 보이까네 지 췌는¹¹⁶ 사람이라. 팔도병사 하겠거든.

115. 뛰어

116. 자기를 때린

“팔도병사 하겠다.” 그래 가지고 묘를 다 썩고는, 성지가,

“팔도 마자 나갈 때에¹¹⁷ 용묘를 털고 나가라.”

팔도병사로 하고 팔도를 마자 돌 때, 순행을 할 때 용묘, 미 뒤에 지단케¹¹⁸ 나오는 속된 말로 미꼬랑댕이라 하는 용묘를 털고 나가라 이랬는데, 용묘를 안 털고 그냥 나가다가 팔도병사가 어데 나가다가 죽었다 이래 썩데. 그런 거는 아주 명당지지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성지가 잡아 준 팔도병사 날 묘터

웅상면 용당¹¹⁹이라 쿠는 거게 박씨네들 종실이 있고 많이 사는데, 본대 피로 남창¹²⁰ 건 너 거어 썩고, 팔도병사가 났다 쿠고 그 가몬 병사공兵使公 피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남창에서 저 용당으로 용당고개를 넘어댕겼는데, 형제간에 영감의 미터 하나 얻을라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형제간에 의논해가지고 아무 날에 용당고개를 성지가 넘어오거들랑 무단히 짹적거리가지고 그거 했거든.¹²¹ 그 저 동생이 시키기를 형이로,
“좀 패뿌라.”

117. 팔도를 마지막 나갈 때는

118. 길다랗게

119. 양산시 웅상면 용당리熊上面 龍塘里

120. 울주군 온양면 남창리蔚州郡 溫陽面 南倉里

121. 괜히 건드려서 시비를 붙었다

“안 죽을만치 패라. 패모 내가 그 뒤에 숨었다가 업고 가가지고 내 그거를 치료를 할 테 니까네, 패뿌라.”

그래 참 패 주고 달아나 뿔었는데 그 동생이 뒤에 숨었다가,

“어어, 어디 웬 사람이 사람을 하는고?”하고, 업고 가가 참 치료를 해가 낫았다 쿠더만.

그 사람 자기를 살려준 그 공을 할꺼 아이가?

“내가 이거 뭐 산서^{山書}를 하나 가아 있는데, 터나 하나 구해 줄밖에는 없다고.” 그래 용 당에 왔는데, 가만 사람 상을 보이 병사할 사람 상이 아이라.

‘병사할 자격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이래 쑤이, 그 뚜디리 팬¹²² 사람이 저 앞에 숲속에 숨어가 있다가 막,

“나는 안 되겠나?” 쿠거든. 그래 그 터를 얻어가지고 병사를 했다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엄진복, 온양면, 1984]

대운산^{大雲山} 굴바위

대운산^{大雲山}은 수많은 봉우리가 첩중한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742m나 되는 산 이다. 이 주봉의 동으로 650m의 석봉이 솟아 있고 여기에는 이름난 굴바위가 있다. 굴 바위는 방굴^{房窟}과 정지^{正止}(부엌)굴이 아래위로 있어 짝을 이루고 있다.

방굴^{房窟}은 그 넓이가 4, 5명이나 들어가서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졌

122. 두들겨 팬

다. 방굴房窟에서 가파른 석벽을 2m가량 올라가면 정지굴이 있다. 이 정지굴의 천정에서는 맑은 물이 사시 방울이 맺혀 바닥으로 떨어진다.

1938년에 울산지방에는 큰 가뭄이 있었다. 못자리는 다 타버리고 마을에 있는 우물도 물이 말라 갈증이 심하였으며 대운산大雲山の 나무와 풀들이 타 죽어 갔으나 신비하게도 정지굴의 물은 그런 가뭄을 모르는 듯 또닥또닥 떨어져서 바닥에는 맑은 물이 고여 쪽박으로 떠서 목을 축여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으나 아득한 어느 옛날에는 여기 쌀미이 흐르고 있었다 한다. 그 때 이 굴속에는 어느 한 아그래 해미가 살고 있었다. 그 해미는 여기에서 홀로 살면서 뚜덕뚜덕 떨어지는 쌀을 먹고 살아 왔다.

대운산大雲山の 인근에는 웅촌熊村의 원적산圓寂山, 청량靑良의 영축산靈鷲山, 일광日光의 다암산多岩山등이 있어 여기의 산신들이 찾아올 때는 양식의 궁색함을 매양 느끼고 있었다.

하루는 아그래 해미가 가만이 생각하여 보았다. 쌀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좀 더 넓게만 한다면 나오는 쌀의 양도 많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아그래 할망구는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그 쌀이 흐르는 구멍을 쭈셔대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지금까지 나오던 쌀은 그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대신에 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는 정지굴에서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굴바위의 전설은 상북上北 가지산加智山の 쌀바위와 같이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을 깊이 경계한 이야기이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김웅, 온양면,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쌀 나오던 대운산大雲山 앙금할머니 샘

옛날에 그 저저 아들 놓을라고 공디리¹²³로 가인까네, 고오 옛날 거어 앙금할머이새미라 캐. 앙금할머이새미라 이러 쿠는데, 예, 거어 있었거메 그렇지요. 앙금할머이 새미라 그러 쿠는데, 고래 고오 쌀이 또닥 또닥 흐리는데, 고오 좀 많이 나오라고 꼬장거리 가아 요래 쌀 나오는데, 꼬장기로 콧 쭈시 뿐계나 마 쌀이 나오고 마 물이 출출 나와. 지금 거어 물이 나오고 쌀이 안 나와.

거어 마 아주 방구 틈이고, 대운산大雲山 꼭대긴데, 마 방구 틈이 마 [손으로 형용을 하면서] 착착착착 요렇건만. 대운산 앙금할머이새미. 대운산 굴방우재 앙금할머이새미라 안 카나?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인조,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123. 공功들이러

대원사大原寺의 빈대

온양면 온화리溫陽面 雲化里 상대上大마을의 절터골에는 옛날 대원사大原寺라 하는 큰 절이 있었다. 이 절은 동국여지승람에 남목南牧의 열암사裂巖寺, 연암蓮岩의 백연암白蓮庵, 웅촌熊村의 운흥사雲興寺, 울리栗里의 망해사望海寺와 청송사靑松寺, 언양彦陽의 연고사連高寺, 삼남三南의 석수사石水寺와 같이 등재되었던 이름난 절이었으나 정조正祖 10년(1786)에는 이미 폐사된 절이다.

지금은 다만 그 절터에 4기의 부도만 남아 있고 이 가운데의 한 부도에는 현하당縣河堂이라 음각되어 있다. 이 부도에 새겨진 이름을 보아 현하당縣河堂이란 스님이 대원사大原寺에 있었던 것을 알 뿐 아무런 남긴 사적寺蹟이 없다.

그러나 이 절이 망하게 된 원인은 마을에 구전하여 내려온 전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오를 정도로 크고 이름난 절이었으니 신도들이 많이 찾아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절에는 괴이한 주지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것을 몹시 귀찮게 생각하여 왔다.

수도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불국사佛國寺처럼 매양 장군같이 사람들이 관광하는 것은 싫어하였을 것이나 그때는 이런 관광객이 아니었을진데 신도들이 찾아드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도사가 절을 찾아와서 잠시 쉬게 되었다. 이 때 주지의 입에서는 하도 사람이 귀찮으니 하며 사람들이 적게 오게 할 수 없을까 하는 말이 튀어 나왔다. 이 말을 듣게 된 도사는 그런 일이야 어렵지 않는 일이니 그리 근심치 않아도 될 일이올시다 하였다.

마을로 내려가는 산모퉁이에 큰 길을 내게 되면 소원대로 될 것이오. 하고는 그 도사는 길을 떠나 버렸다.

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 주지는 산모퉁이를 헐어 길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업 중에 석불 한구가 솟아 나왔는데 이 부처는 그만 삼과 팽이에 찍혀 목이 떨어져 있

있고 떨어진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러한 일이 있던 뒤의 일이었다. 절에는 갑작스럽게 빈대가 들끓었다. 많은 빈대 속에는 사람들이 견디어 낼 수가 없었으니 절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절터의 바위를 뒤져보면 빈대의 껍질이 나올 정도라고 이곳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에는 부자들이 손을 금기하였을 때 집을 망하게 하여 손들이 찾아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온다. 욕심 많은 부자들을 경계한 설화들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홍생원 洪生員네 대밭의 범

옛날 온양면 동상리에 홍씨 洪氏 성씨를 가진 가난한 효자 孝子가 살고 있었다. 부모가 갑자기 병病이 났는데, 의원에게 보였더니 개를 천千 마리 잡아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효자는 집이 가난해서 도저히 개 천 마리를 사서 부모님께 드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개를 천 마리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그 효험이 있어 외우면 범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주문책呪文冊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효자는 주문을 외워 범으로 변해서 멀리 가서 개 한 마리를 잡아오면 다시 주문을 외워 사람으로 돌아와 그것을 부모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서 효자는 구백아흔아홉 마리의 개를 구해 드리고, 마지막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범으로 변신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남편이 범으로 매일 변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던 아내가, 남편이 범으로 변해 밖으로 나간 줄도 모르고, 그 주문책을 불살라 버렸다. 개 한 마리를 마저 잡아온 효자가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주문책을 찾았으나 책이 없어서 사람으로 변할 수 없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효자는 집 뒤 대밭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홍생원 이렇게 해서 어찌겠느냐’고 위로하면, 범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김원호, 온양면, 1985]

아기장수 바위와 용방소龍坊沼

조선 정조 때 서호西湖 이씨 집안家에 사내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가 비범하여 부모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삼칠(21일)이 지난 후 이웃 방앗간에서 곡식을 찧어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방문을 열어보니 방안에 운무같은 먼지가 자욱하고 아기가 보이지 않았다. 좌우로 살펴보니 아기가 천정天井에 붙었다가 방바닥에 내려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가족들이 그 형상을 보고 경악하였다.

조선시대는 미천한 집에서 큰 장수 같은 자식이 태어나면 사전에 거세하지 않으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게 되니, 가족들이 의논하여 아기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은 산 앞 돌담에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밧줄로 장수바위를 들고 생매장하였다.

그 후 어머니는 아기를 잊지 못해 날로 슬퍼하며 매장소埋場所에 가니 큰 바위가 사흘까지 흔들거렸다고 한다. 아기장수가 죽은 뒤 용마가 나와 집의 앞뒤로 울며 배회하다가 끝내는 아기장수가 나타나지 않아 슬피 울며 뒷산 너머 큰 소沼에 가서 빠져 죽었다 한다.

그 소를 용마소龍馬沼로 불러오다가 지금은 용방소龍坊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용방소

용방소라는 소沼인데, 옛날 거계는 수십이 명주 꾸리로 세 나로 풀었다 쿠거든.¹²⁴ 그만
침 깊었다고.

왜놈시대때 우리도 그런 거로 했는데 가물몬 무제로¹²⁵ 거어 가가 지내지.

그래 가 용이 거어 있다 쿠는 이런 전설도 있어.

온양면溫陽面 하서 부락인데¹²⁶, 가물몬 기우제로 거어서 주로 지내제. 그래가 장도 내 뵈
고¹²⁷, 날이 가물몬 남창시장南倉市場¹²⁸도 내 뵈고, 기우제로 지내고 나몬 비가 오는 수
도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상걸, 온양면, 1984]

혈血이 끓긴 산

임진왜란 때 이여송은 중국의 원군 대장이었으며, 해군은 이순신 장군이 수군통제사로
총지휘하고 육군은 김덕룡 장군이 지휘했다.

124. 가는 명주실을 감은 실꾸리 세 개를 풀어 넣으면 소沼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다

125. 기우제를

126. 온양면 동상리溫陽面 東上里의 한 자연부락

127. 기우제 행사의 하나로 장터가 아닌 곳인 시냇가 같은 곳에서 시장을 여는 것

128. 온양면의 면소재지에 있는 시장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여송이 중국으로 귀국할 때 조선에 명지名地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이름난 명지를 없애기 위해 산의 혈을 끊었다고 한다. 이곳이 운화리 산159—7번지이며, 산성 태두리에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선돌석先突石

온양읍 동상리 중서에 오래 전부터 있었던 돌인데, 옛날 고조선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온다.

선돌석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 돌이다. 이 돌에는 ‘남근男根’이 있는데 치성致誠을 드리면 아기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많은 여인과 무속들이 와서 사전에 금줄을 치고 지극 정성을 올리면 자식을 낳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다. 중서마을 주민들은 ‘절 받는 선돌석이 복석’이라고 생각해 보호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제당祭堂이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 15일 동제를 지낸다.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공을 들이고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고령 김씨 장군터와 물난리

조선 21대 영조 18년 임술년壬戌年(1742) 7월 23일 온양읍 남창리 현 온양초등학교 자리에 고령김씨 공수파公須派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홍수로 몰죽음 당한 날이다.

대운산 기슭(굴바우 뒤) 장군터에 고령김씨 선령 산소가 있었다. 당시 문중 원로 몇 명이 경북에 사는 앓은뱅이 지관을 불러 그 산소를 보이니 지관이

“이 산소를 보니 후손들이 큰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예언했다고 한다.

문중의 어른들은 지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지관(앓은뱅이)을 산에 버리고 하산했다. 일설에는 당시 운화리에 살고 있던 학성이씨가 이 지관을 업고 웅촌면 돌내까지 모셔다 주었다고 한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이 지관은 이곳에 학성이씨의 터전을 잡아주고,

“자손 대대로 벼슬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다.

고령 김씨가 집단으로 사는 지금의 온양초등학교 자리 마을에 어느 날 쥐가 전부 산으로 올라감으로 스님 한 분이 나타나 홍수가 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또 어떤 과객이 지나가면서 남창천에 서있는 저 버드나무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예언했다.

이후 큰 비가 와서 당시 하천가에 생활하고 있었던 고령 김씨들은 물을 피하기 위해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워낙 비가 계속되고 대운산 못의 독이 붕괴되어 버드나무가 뿌리 채로 뽑혀 떠내려갔으므로 버드나무에 올라 물난리를 피하려고 한 고령 김씨의 많은 사람들은 화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령 김씨 종손은 서당에 글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이 난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며, 또 어떤 구전은 외가에 다니러 갔기 때문에 이 물난리를 피했다고 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대문다리

온양읍 발리(상발) 울산온천 앞에 있다. 이곳에 월성 이씨(고래마을 이씨)가 집단으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상의 산소가 발리 황새등에 있다.

월성 이씨 후손들에 따르면 발리에 있는 묘소는 윗대 조상의 산소라고 한다. 이 산소의 묘답은 1,500평 가량 되며 매년 묘제를 지내고 있다.

집단으로 거주한 월성이씨 종가는 대문이 12개나 되었다 하니 과히 어느 정도의 부자였던가를 짐작 할 수 있다. 당시 정부의 관찰사가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곳이 관가로 착각할 정도로 웅장한 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 이곳을 울산고을이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한다.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귀찮아서 고심하고 있던 중 어떤 과객에게 손님이 적게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그 과객의 말이

“저 앞(발리마을 앞 들관)에 조그마한 고동산의(현재 그 산이 길 옆에 있음) 끝을 날려 버리면(산의 모양이 논고동과 같이 생겼으므로 그 고동의 끝을 없애면 안에 고동알이 죽어버리는 이치) 손님이 적게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객의 말에 따라 고동산의 끝을 날려버렸더니 손님은 끊어지고 그 화려하게 살던 대문다리 집들은 망해버렸다고 한다.

이는 옛말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면 그 집안이 왕성하고 집안에 손님이 끊어지면 망한다는 말의 이치와도 비슷하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손님 오지 않게 치방하다가 망한 부자

예전에 저 마실이 고래물이라, 고래 마을인데, 전설에 대문다리 쿠는 논이 있는데, 이
곶에 고래물 이가라고 월성 이가月城李哥 살았어요.

고래 마을 이씨가 여계 살 때에 참 부자로 누리고 살았는데 손도 많이 오고 과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살림은 인자 살살 까라지고 곤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째야 손이 안 오겠노?”고 과객인데 물었다 말이지. 그래 과객이 하는 말이,

“여기서 이 질로 앞을 내 놓은까네 과객이 많이 온다.”

“이 질로 저쪽으로 돌리 내라. 저 뒤로 돌리 내몬 손이 안 올 까다. 과객이 덜 온다.”

전에 고래물 이씨네 집 앞으로 질이 있어 땡겼는데,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질로 돌리 내
었다 말이지.

그래 질로 돌리내고 그 집이 망했어. 그 앞에 지다는 등대 저게 고래물 이씨네 뽕, 근 십
팔대, 이십 대 되는 선산이 예전부터 다 있어요. 시방 현재 망하고 전부 다 떠나뿌고 하나
도 없고, 그 집 자손들이 울산군 웅촌면蔚山郡 熊村面 거어 가 살아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일룡, 온양면, 1984]

처녀바위와 총각바위

진동 무룡골 산118-2중턱 숲 속에는 조그만 바위 하나가 숨어 있다. 높이는 2m가 조금 넘고 꼭대기가 평퍼짐한 아담한 바위다. 이 바위를 사람들은 처녀바위라고 불러오고 있다.

또 이웃마을인 선양골못 동쪽 산 숲속에 촛대처럼 뾰족하게 생긴 남근형男根形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총각 바위라고 부른다.

이 총각바위와 짝을 지어 음양陰陽의 조화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처녀 바위로 이름 지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통하여 풍요豐饒와 자손의 번성繁盛을 기원祈願했다. 우리조상들은 선사시대로부터 기암괴석奇巖怪石이나 잘생긴 바위가 있으면 이를 기도처祈禱處로 삼아 풍요와 다산多産, 장수長壽와 건강健康을 기원해 왔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있어 ‘바위’ 라는 말은 단순한 물질적 의미의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의 돌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애정과 종교적 심성이 배여 있는 것이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두꺼비 바위

진동 마을 뒤편 산(발리 103-3) 정상에 있는 바위로 마치 두꺼비가 고개를 높이 세우고 마을 쪽을 향해 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두꺼비 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두꺼비 바위는 높이가 약 4m, 몸 둘레 6m가 넘는 제법 큰 바위이다.

사람들은 예부터 두꺼비를 상서祥瑞로운 동물로 여겨 왔다. 우리 민담民談에 나오는 두꺼비는 악을 물리쳐 사람을 구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용감하고 의협심義俠心이 강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의義로운 두꺼비가 마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염원念願이 이 바위를 두꺼비로 형상화形象化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화장산(꼬장산)

신라시대 한 선비가 주색에 빠져 몸에 이상이 있어 고민 중 어느 날 꿈에 선인이 나타나 현몽하기를, ‘남쪽 80리에 가서 약을 구하라’는 말을 듣고 화장산에 와서 인진쑥과 산작약을 구하여 먹고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인진쑥은 조금 보이지만 산작약은 약초 채취꾼에 의해 없어졌다. 정상에는 마르지 않는 웅달샘이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회기곶回氣串과 보드막골

조선시대 정조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온양면은 온북면과 온남면으로 분리되어 행정을 집행했다. 그 치소는 온양 남창에 있었다.

온북면 풍헌은 온산사람이기 때문에 퇴근할 때 발리 회기곶을 지날 때도 있고 동상리 보드막골을 지날 때도 있었다.

풍헌이 지나가는 길목에 동민들이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보드막골은 동상리 농경지 정리관계로 없어졌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부영이 바위

내고산에 지장암이 있었다는 절터 조금 후편에 바위절벽이 있다.

한국전쟁까지만 해도 그 바위 위에 돌무더기(돌담)가 있었다. 속가 마을에 ‘부영이’라는 어린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식발한 상좌에 반해 매일 부영이 바위에 숨어서 보곤 하였다.

어느 날 상좌는 도행을 떠났다. 부영이라는 처녀는 바위 위에서 상좌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자 상사병이 들어 죽어서 부영이가 되었다. 이 지장암은 빈대가 끓어 절은 폐사가 되고, 지금은 돌담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검은돌(흑장군)

외고산 입구 길목 쉼터에 검은 타원형 바위가 있었다. 그런데 바위에 구멍이 많아 동상리 나무꾼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작대기로 구멍 난 바위에다 장난을 하였다.

장난을 하고 난 후에는 동상리 처녀들이 바람이 나서 가출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1970년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길을 확장할 때 타원형 바위를 굴삭기로 옮기다가 갈라졌다. 그 후부터 마을에 두 어린이가 병이 나고 마을이 편하지 못하여 동민들이 의논하여 곳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3일간 무당을 불러 곳을 했는데 두 조각난 바위를 처음모양으로 붙이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더니 그 후부터 마을이 편안하고 피해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바위를 ‘흑장군바위’라고도 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와천용臥千龍

울산과 부산 간의 국도 옆에 위치하고 있다. 와천용이란 용龍이 천 마리 누워 있다는 뜻이다.

조선 중기 어떤 과객이 이곳을 다니며 “용두龍頭를 사겠느냐, 호두虎頭를 사겠느냐”라고 외치고 다녔다.

송정 박씨가 ‘내가 사겠다’며, 용두(묘터)는 추어탕 한 솥으로 사고 호두(묘터)는 밥 한 솥으로 사서 그 음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에 그 과객은 이곳에 묘를 쓸 때 하관은 시간에 관계없이 여자가 쇠갓을 쓰고 오면 하라고 일러주었다고 한다.

송정 박씨는 그 과객의 말대로 어떤 여자가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오는 것을 보고 하관을 했다는 구전이 전해오고 있다. 이 산소는 송정박씨 윗대 산소이며 명당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구룡소九龍沼

중광리 마을 앞 하천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에 용이 아홉 마리가 있었다고 하여 구룡소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현재는 마을의 개발로 인하여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없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떠내려온 산

온양면인데, 덕신 옆에 그 오산¹²⁹쿠는 동네가, 오산¹²⁹ 앞에 산이 조만한 산이 하나 들 가운데 있거만. 그 산이 저어 웅촌¹³⁰에서 떠내려왔다 쿠거든. 산이. 큰 물이 저가¹³¹ 산이 떠내려 와가 거어 앉았다. 이런 말을 우리 한번 들었는데. 그 원인은 내가 모르겠고. 그 내 얼푼 내가 한 번 들었지. 자세히는 안 물어 봤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엄진복, 온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옥녀봉玉女峰

대안리 산39번지 일대를 말한다.

옥황상제玉皇上帝의 귀녀貴女인 옥녀玉女가 하늘에서 이 옥녀봉으로 내려와서 세숫대야 형태인 하대곡지^{下大谷池}에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고 참빛등(산71-10번지) 열개빛등(산 68번지 대봉지입구)에서 머리를 빗고 다시 이 옥녀봉으로 득천^{得天}하였다 하여 이봉

129.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에 속하는 한 자연부락. 회야강 강변江邊에 있는 마을.

과거에 온양읍이었으나 지금은 온산읍에 속한다.

130. 울주군 웅촌면.

131. 홍수洪水가 저서.

峰을 옥녀봉이라 한다.

이 옥녀봉 능선에는 증병조참의贈兵曹參議였던 김일개金一介, 김일덕金一德(부산시립충렬사 현충비에 기록되어 있음), 참봉 김일성의 선친인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 김수金洙(수로왕 58세손)의 묘소가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남창장에 얹힌 전설

술이 몹시 취하면 남창장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웅촌면 고연리 근처에 양 사돈이 살았는데 각각 소를 몰고 남창장에 왔다. 우연히 만나 소를 서로 교환하기로 결정한 두 사돈은 만족하여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밤늦게 서로 교환된 소를 타고 집으로 갔다.

소는 주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가는 바람에 밤늦게 두 사람 모두 사돈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것이 ‘술만 취하면 남창장’이라는 유래가 되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투구봉

240여 년 전 외고산 달성서씨 가문에 평산 신씨 부인이 시집을 왔는데, 이때 시아버님께서 병환 중이었다. 신씨 며느리는 시어른께서 돌아가시면 명당에 모셔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정아버지가 별세했다. 친정 가문에서는 화장산 기슭 투구봉에 묘를 쓰기 위해 천곽을 내고 다음날 장례준비를 했다. 이곳이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씨 부인은 저녁에 남모르게 천곽을 낸 곳에 물을 가득 채웠다. 친정에서는 그 곳에 묘를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장례를 마쳤다.

얼마 후 시아버지가 죽자 신씨 부인은 이곳에 모셨다고 한다. 시택이 친정보다 잘되기를 바라는 신씨 부인의 욕심에 의해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선령과묘의 전설

약 200여 년 전 온양읍 삼광리 신기(새말)에 과평윤씨坡平尹氏인 힘이 센 윤장사가 살았다. 선령先靈의 산소가 대운산 중턱 안검망곡속 대大明당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윤장사는

“대운산 선령의 묘 터가 아주 흥터이니 그대로 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정에 큰 화禍가

을 것”이라는 어느 풍수의 거짓 꾀임에 속아 이장을 하게 되었다.

윤장군은 이장하기 위해 묘를 파던 중 천광 땅속으로부터 안개 같은 김이 오르고, 묘 서쪽 아래에는 어느 누군가 그 자리에 묘를 쓸려고 상여가 올라오다가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풍수에게 속았음을 뒤늦게 알아챘다.

이에 풍수를 죽이려고 하자 풍수는 도망을 쳤다. 도망치던 풍수는 외광리(현 삼광교회 옆) 속칭 웅관소沼에 오자 다급한 나머지 물에 빠져 윤장사와 같이 죽었다.

그 후 윤장사의 가정은 망했고 그 웅관소는 지금까지 그 형태로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시묘侍墓등에 관한 전설

대운산 학봉 기슭에 시묘등이라 불리우는 묘 터가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효성이 지극한 상주는 3년간 시묘살이를 했는데 매일 밤 여산대우(범)가 나타나 상주와 같이 밤이 되면 거기에서 자곤 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된 마지막 날 여산대우는 오지 않고 상주가 시묘등에서 혼자 잠을 잤다. 상주는 삼남을 가천 들래빠든(들판)(지금도 작은들래 큰 들래가 있음)에 여산대우가 함틀에 갇혀 있는 꿈을 꾸고 그길로 달려가 함틀에서 여산대우를 구해주었다. 여산대우는 그 상주를 등에 업고 시묘살이하던 대운산 시묘등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이대목 딸

호식虎食당한 전설

대운산에 100년 전에는 범이 살았다. 범을 보았다는 마을 주민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범에 관련된 전설도 있다.

마을의 한 아낙이 나물 캐러 대운산에 올랐다가 범이 새끼를 낳은 것을 보고 귀여워 어루만졌다. 어미범은 아낙이 자기새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으흥’하고 울었다.

아낙은 나물바구니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다음날 어미범은 나물바구니를 그 집 앞까지 갖다 놓았다고 한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온양 귀지 근처 마을 처녀들이 대운산 제일봉(내봉) 밑에 딸기를 따러 갔다. 딸기 따는 한 처녀에게 범이 나타나 앞다리로 처녀를 놀리더니 덮쳐 처녀를 입에 물었다.

일행처녀가 급히 마을로 내려와서 이 사실을 처녀의 어머니에게 알리고 동민들이 횃불을 들고 쇠소리(징)을 치면서 사건장소로 갔다. 그러나 범은 여전히 이대목 딸(필이)을 가슴에 품고 입에 피를 묻히고 있는데, 누구도 달려들지 못하였는데 필이의 아버지가 횃불로 가까이 가면서 범을 도망치게 하고 그 남은 시신은 동민들이 같이 운구하여 마을로 내려와 장례를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이대목 딸 회채 한 곳’이라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 후 범은 여러 날 마을 앞산까지 내려와 울었다고 한다. 또 마을에 연락한 처녀는 마을에 도착하여 정신이 없어 전후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엄마 필이, 엄마 필이”를 되풀이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사실을 처녀어머니께 알려 동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행동을 같이 했다고 한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원효대사와 탐곡 척관암

온양읍 발리 탐곡에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큰 절이 있었다.(고승 일선—禪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 절에 원효대사가 도를 닦고 있었는데, 하루는 대사가 기거하는 방에 여인이 나타나 아기를 순산해야하니 방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는 방이 한 칸뿐이니 방 가운데 칸을 막아 사용하라고 했더니 여인은 대답도 없이 사라졌다.

대사는 불심이 약하여 이와 같이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장안사로 가기로 결심했다.

가는 도중 목이 말라 주위를 살펴보니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함으로 여인에게 물을 청하니 구정물을 대사에게 주었다. 그런데 대사께서 그 물을 받기도 전에 여인은 사라졌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또 목이 말라 주위를 살펴보니 앞에 본 여인이 또 빨래를 하고 있어 물을 청하니 양젓물을 주기에 받지 아니하니 여인은 전과같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사는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를 드리고 길을 재촉하며 걸어가다가 또 목이 말라 주위를 살펴보니 역시 전에 본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에 대사는 물을 청하니 그 여인이 여자 월경이 묻은 생리대를 세척한 뒷물을 주기에 대사가 받지 아니하니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대사는 위의 세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불심이 약하여 이와 같이 생각지도 않는 헛것이 보인다고 느껴 목마름을 참고 걸음을 재촉하여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척관암으로 가는 길목에 뒤는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앞은 절벽인데, 그 사이에 대사 혼자 앉을 만한 자리가 있었다. 이곳은 눕지도 못하고 다리를 펴지도 못하며 기댈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대사는 그 곳에서 자리를 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올리고 도를 닦았다. 이윽고 오

랜 세월이 지나 대사는 도를 터득하였다.

원효대사(617~686)는 신라후기의 스님으로서 대중교화의 선구자이며 이름은 설서당 薛誓幢이며, 임피공 仍皮公의 손자로 나마 奈麻, 담날 談捺의 아들이고, 설충 薛聰의 아버지이다.

617년(진평왕 39) 압량군 押梁郡(경북 경산군 자인면) 불지촌에서 태어났다. 648년 32세에 황룡사로 출가하고 집을 불문에 희사했으며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 사라사 沙羅寺를 세웠다.

[『온양읍지 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청량읍편

낭지대사朗智大師와 보현수普賢樹

울주군 청량면 율리蔚州郡 靑良面 栗里에 영축산靈鷲山이 있다. 불가에서 제10법운지法雲地라고 하는 이 산은 문수산文殊山의 바로 동쪽이 그것이다.

신라 때에 영축산에 한 괴이한 중이 살고 있었다. 이곳 암자에 온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고을 안에서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도 또한 이름을 숨겨 세상에 말하지 않으며 항상 법화경法華經을 강론하고 신통력이 있었다.

신라 문무왕文武王 초년에 의상대사義湘大師의 10대 제자의 한사람이었던 지통智通이란 중이 있었다. 그는 본시 이양공伊亮公의 집 종이었다. 그는 17세 때에 머리를 깎고 출

가하였다.

이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까마귀가 날아와서 울며 말하기를 영축산靈鷲山을 찾아가서 낭지대사朗智大師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다. 지통智通이 이 말을 듣고 산을 찾아가서 마을 어귀에 이르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홀연히 한 괴이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되

“나는 보현대사普賢大師인데 너에게 계품戒品을 주려고 왔다”하고는 계戒를 베푼 후 숨어버렸다.

계戒를 받은 지통智通은 몹시 심신이 활달하여지고 곧 지각이 원만하여졌다.

이러한 일을 겪은 지통智通은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도중에서 한 중을 만나 낭지대사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니 중이 그 묻는 까닭을 물었다.

지통이 까마귀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그 중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여 그가 바로 낭지朗智라는 것이었다.

또 그는 말을 이어 ‘지금 법당앞에 까마귀가 와서 아뢰기를 성아聖兒가 장차 올 것이라 하며 나아가 맞으라하여 여기에 와서 맞는다’고 하였다.

손을 잡고 감탄하며 이르되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서 나에게 오게하고, 또 나에게도 아뢰어 너를 맞게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로운 일인가. 아마 이는 산신의 도움인 듯 하구나. 전해오기를 이 산의 산신은 변재천녀辯才天女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지통智通이 이 말을 듣고 울며 대사에게 귀의歸依하였다. 조금 후에 대사가 지통에게 계戒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말하되 마을 어귀의 나무밑에서 이미 보현대사普賢大師의 계戒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대사는 감탄하며 그는 출생 이래 조석으로 은근히 지성至聖을 만나고자 원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지금 네가 계戒를 이미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함이 많을 것이로구나 하였다. 이로써 마을의 나무를 보현수普賢樹라 이름하였다 하며 울리栗里에는 지통골이란 마을이 있다.

하루는 지통이 대사에게 물었다.

“법사가 이 산에 거주함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낭지대사가 답하되

“법흥왕法興王 14년에 처음으로 온 것이니 지금 얼마나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지통이 대사를 처음 만난 것이 문무왕文武王 즉위년이니 이미 135년이 된 것이었다.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두동면 천전리斗東面 川前里의 반고사磻高寺에 왔을 때 일찌기 낭지대사를 찾아가 만나 보았더니, 원효대사로 하여금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하였다.

원효대사는 책의 찬술을 마친 후에 은사隱士 문선文善을 시키어 책을 만들어 보냈다.

대사가 일찌기 하늘에 뜬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淸涼山에 가서 중도들과 더불어 강론을 듣더니 얼마 있지 아니하여 돌아왔다. 그곳 중이 그를 이웃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기었으나 머문 곳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절의 못사람에게 명하여 일상 이 절에 있는 사람을 빼고는 다른 곳에서 온 중은 각기 있는 곳의 명화와 진기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도장에 바치라 하였다.

낭지대사는 이튿날 영축산의 기이한 나무 한 가지를 꺾어다 바쳤다.

그 중이 보고 말하되

“이 나무의 범명梵名은 달제가但提伽인데 여기서는 혁赫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오직 서축西竺과 동축東竺의 두 영축산에만 있다. 이 두 산은 모두 제십법운지第十法雲地로 보살이 사는 곳이니 이 사람이 반드시 성자聖者이다.” 하였다. 또 그는 낭지대사의 형색을 살피고 드디어 해동의 영축산에 사는 것을 알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로 대사를 다시 보니 그 이름이 중외에 나타났으며 사람들이 대사가 있는 암자를 혁목암赫木庵이라 하였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낭지승운 朗智乘雲 보현수 普賢樹에 얹힌 설화

‘낭지’란 불교의 교리를 통달한 유명한 신라의 중이요, ‘승운’이란 낭지대사가 구름을 타고 공중을 왕래한 사실을 두고 말함이요, ‘보현수’란 보현보살의 법명을 인용한 나무의 명칭이다. 이 설화는 삼국유사 낭지승운보현수조에 전하고 있다.

때는 신라시대! 이곳 울주군 청량면 울리 영취산 靈鷲山 동쪽에 있는 지통곡암자 智通谷庵子에 낭지대사 朗智大師가 살고 있었는데 낭지대사와 지통대사 智通大師 사이에 얹힌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설화를 풀어 보기로 한다.

삼랑주 하곡현 영취산 插梁州 河曲縣 靈鷲山에 이승 異僧이 있어 암자에 거주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향읍 鄉邑에서는 모두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이승 역시 성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법화경 法華經을 강講하였고 매우 신통력 神通力이 있었다. 용삭초년 龍朔初年은 당나라 고종 高宗의 연호로서 신라 문무왕 1년에 해당하며, 서기 661년이다.

사미 沙彌(스님의 별칭)지통이 있었는데, 그는 본시 이량공 伊亮公의 가노 家奴였다. 지통이 출가하던 17세 때 까마귀 한마리가 날아와 울며 말하기를 영취산에 가서 낭지의 제자가 되라 하였다.

지통이 그 까마귀의 말을 듣고 산을 찾아 올라가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 밑에서 쉬었다. 이때 홀연히 이인 異人이 나타나 이르되

“나는 보현대사 普賢大師인데 너에게 계품 戒品을 주고자하여 왔노라.”하며 곧 계 戒를 베풀 후 숨어 버렸다.

계를 받은 지통은 곧 심신이 활달하여지고 지각 知覺이 곧 원만하여 졌다.

다시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지통이 그 스님에게 “낭지대사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낭지를 찾으느냐”고 하였다. 지통이 까마귀가 알려준 사실을 자세히 말하였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낭지로다. 조금 전에 불당 앞에 까치 한 마리가 와서 알리기를 장차 성아聖兒가 대사를 찾아 올 터이니 마땅히 나아가 맞이하도록 하여라.” 하기에 이렇게 미리 나와 맞는 것이다. 하고 손을 잡고 감탄하여 말 하되

“영조靈鳥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오게 하고 또 나에게 알려서 너를 맞게 하니 이 아니 상서祥瑞인가, 이는 아마 산령山靈의 음조陰助인듯 하구나”라고 말했다.

고전에 이르기를 이 산의 산주는 변제천녀辨才天女라고 한다. 지통이 낭지스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면서 낭지스님에게 귀의歸衣하였다.

얼마 후에 낭지스님이 지통에게 계戒를 주려고 하니 지통이 아뢰기를

“내가 오는 길에 동구洞口의 나무 밑에서 보현대사로부터 이미 정계正戒를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다.

낭지대사가 감탄하여 가로되

“좋다! 너가 이미 보현대사의 충분한 계戒를 받았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로다.”하고 낭지대사는 도리어 지통에게 큰절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구의 나무를 보현수라고 명명 한 것은 이 나무 밑에서 지통이 보현대사를 만나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통이 낭지대사에게 묻기를

“낭지법사께서 여기 거주하심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했더니 낭지대사가 대답하기를

“법흥왕 정미년(서기1527년)에 처음으로 여기에 왔으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지통이 영취산으로 온 것이 문무왕 원년 신유라 했으니 계산 하면 이미 135년이 된 것이다.

그 후 지통이 의상조사義相祖師의 처소에 가서 불당에 올라 오묘한 것을 보고 자못 현화玄化의 자세가 되었다. 이것이 추동기推洞記를 저술한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반고사潘高寺(언양면 반구대에 있었던 신라고찰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에 일찍이 낭지법사를 가서 만나 보았더니 낭지법사는 원효대사로 하여금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하였다.

원효대사가 찬술撰述을 끝마친 후에 은사 문선隱士 文善을 시켜 책을 받들어 보냈더니

그 책의 편말篇末에 계偈(범어梵語)를 적어 가로되

‘서곡西谷의 사미沙彌는 머리를 쪼아 예禮 하고 동구東區의 상덕上德은 암전嚴前에 높도다, 세진細塵을 붙어 취구鷲丘를 보태게 하고 미적微滴을 날리어 용연에 던지도다.’라고 하였다. 이상이 범어를 말함이요, 그리고 원효대사를 가리켜서 사미라 하였다.

동구의 상덕이란 반구대의 동쪽 언덕이라 했으니 낭지대사가 있는 영취산을 가리킴이다. 그리고 낭지 대사 자신을 낮추어 상덕이라고 한 것이다.

‘세진을 붙어 취구를 보태게 하고 미적을 날려 용연에 던지도다.’라고 한 것은 적은 먼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서 영취산에 보태게 하고, 작은 물방울을 날려서 황용연(용궁소)에 던진다는 뜻이다.

이 뜻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 낭지대사께서 영취산에 있으면서 반구대의 반고사에 있는 원효대사더러 초장관문과 안신사심론을 짓게 하였더니 원효대사가 부탁 받은 대로 저술한 후에 숨은 선비 ‘문선’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낭지대사에게 보냈더니 그 책의 말미에 가로되

‘서쪽 골짜기에 사는 중은 머리를 조아려 동쪽 언덕(영취산)의 상덕(낭지)에게 예禮를 드리도다. 원효는 작은 먼지(저술한 책)를 영취산의 낭지 상덕에게 보내어 보탬이 되게 하고, 가느다란 물방울(저술한 책)이 황용연(태화사를 말함)에 보탬이 되게 하였으니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대사다운 표현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용연龍淵이란 황룡연黃龍淵을 말함인데 이 황룡연 북쪽 벼랑 위가 신라 10대 사찰중의 하나였던 태화사가 있었으며 자장율사가 세운 것이라고 전한다.

지통과 원효가 모두 대성자大聖者이나 이 두 성자가 구의樞衣(옷을 걷고 공손히 나아가 스승을 섬기는 일)하여 사사하였으니 낭지법사의 도道가 얼마나 고매한지 낭지법사가 일찍이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淸涼山에 가서 중도衆徒를 따라 강講을 듣더니 얼마 아 니하여 돌아왔다.

그곳 스님들이 낭지법사를 그 인근에 사는 법사로만 여겼으나 확실히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루는 설법하는 법승께서 말하기를 이전에 사는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각기 사

는 곳의 이름난 꽃이거나 진기한 식물을 바치라고 하였다.

낭지대사는 즉각 구름을 타고 해동 신라국으로 와서 이상한 나무 한그루를 가지고 가서 범승에 바쳐더니 범승이 보고 말하기를 ‘이 나무는 범명梵名 이 항제가恒提伽인데 여기서는 혁赫(영취산에 혁목사赫木寺가 있었다고 향토사에 전함) 이라고 하니 이 나무는 오직 서축西竺(석가모니가 탄생한 인도의 한 나라)과 해동海東(중국을 기점으로 동쪽이라 했으며 해동 신라국을 말함)의 두 영취산靈鷲山(석가모니 입산수도한 산을 말함)에만 자라는 것이다. 이 두 산은 모두 제 10법운지第十法雲地로 보살이 사는 곳이니 이 사람이 반드시 성자聖者로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행색을 살피더니 해동 신라국 영취산에 사는 범승임을 알아 차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낭지법사를 다시 보니 그 이름이 널리 중외中外에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취산의 낭지대사가 살던 절을 가리켜 혁목사赫木寺라 하였다. 지금도 혁목사의 북쪽 언덕에는 옛날의 절터가 있으니 이것이 그 유적이라고 전한다.

영취사기에 낭지법사가 이르기를 ‘이 암자 자리는 가섭불伽葉佛 때의 절 터라 하고, 땅을 파서 홍등紅燈 두 개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신라 원성왕대에 이르러 대덕연회大德緣會가 이 산중에 내거來居하여 낭지법사의 전기를 수찬修撰하여 세상에 내놓았다고 한다.

화엄경 제10법운지를 살펴 보건데, 지금 낭지법사가 구름을 탄 것은 대개 불타佛陀가 삼지三指를 꼽고 원효가 백신百身을 나눈 유類라 하였다.

삼국유사의 편찬자 일연一然은 말미에 예찬하기를

‘생각하니 고암高岩백년 동안에 높은 명성이 아직 인세人世에 미치지 못하매 산조山鳥가 한가히 지저귀를 금치 못하겠고, 구름을 타고 끝없이 왕래하고 있도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설화로 미루어 볼 때 이고장의 문수산과 영취산은 특히 신라 불교의 중흥시에 크게 융성했던 불성역佛聖域으로 여겨진다.

영축산신靈鷲山神, 변재천녀辯才天女, 보현수, 문수고개

울주군 청량읍 울리栗里에 영축산靈鷲山이 있다. 이 영축산靈鷲山은 문수산文殊山의 바로 동쪽東麓을 일컫는 산으로 이 산은 신라 때로부터 불교의 성지聖地로 그 이름이 높았던 산이다.

영축산靈鷲山에는 신라 때의 영축사靈鷲寺를 비롯하여 혁목사赫木寺, 망해사望海寺등이 자리잡고 있던 산이다. 또, 신라의 문무왕文武王때의 이승異僧, 낭지대사朗智大師와 원성왕元聖王 때의 연회緣會대사도 이 산에서 은거했다. 그뿐 아니라 추동기錐洞記를 지은 지통智通대사도 신오神鳥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산을 찾아가서 낭지朗智대사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제5권 낭지승운朗智乘雲 보현수普賢樹 조條에 울산의 영축산靈鷲山과 인도印度의 영축산靈鷲山은 다 같이 제10법운지法雲地로서 보살이 살던 곳이라 하였다.

본래 이양공伊亮公의 심부름꾼이었던 지통智通이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갈 때 까마귀가 날아와서 울며 계시하여 영축산靈鷲山에 가서 낭지朗智의 제자가 되라 함에 그 산을 찾는 지통에게 보현대사普賢大師가 나타나서 그에게 계戒를 베풀고 숨어버렸다.

보현대사라 함은 보현보살로서 문수사리보살과 함께 석가여래의 협사脇士가 되어 여래의 오른쪽에 모시고 이덕理德, 정덕定德, 행덕行德을 맡았고, 또 중생衆生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가졌음으로 보현연명보살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연회도명緣會逃名 문수점文殊岾의 기록에도 벼슬이 싫어서 이를 피하려는 고승高僧 연회緣會를 야유하여 문수보살이 영축산靈鷲山에 나타난다.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불의 보처로서 왼쪽에 모시고 지덕智德, 체덕體德을 맡았다.

영축산靈鷲山은 본시 인도에 있는 산으로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부근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곳으로 신선神仙들이 살았고, 또 독수리가 많이 날아 왔다

하여 영축산 또는 축두鷲頭, 축봉鷲峰, 축대鷲台라고도 하였다. 또, 많은 축령鷲靈들이 산 위에 있으므로 이름 한 것이라고 하며, 혹은 산의 모양이 수리의 머리와 비슷하므로 이렇게 이름 한 것이라 한다.

도의 영축산靈鷲山을 위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청량의 영축산靈鷲山도 역시 불교의 성지聖地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산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위에서 든 여러 문헌들이 말하여 주고 있다.

영축산靈鷲山の 축鷲은 수리이며, 이 수리는 상上, 고高, 신神등을 뜻하고 있는 고어古語이다.

그런데 이 영축산靈鷲山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울산의 읍지邑誌가 문수산의 동록이라 하였거니와 생각해 보건대 신라에서 고려까지는 문수산 전체를 영축산靈鷲山이라 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청량山淸涼山이라고도 하며, 일명 문수산이라 불리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영축산靈鷲山에는 이 산의 산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주山主가 있었으니 즉 변재천녀辯才天女이다. 이 변재천녀辯才天女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나거니와 낭지승운朗智乘雲 보현수普賢樹 조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삼양주 아곡현阿曲縣(하곡현河曲縣)의 영축산靈鷲山에 이승異僧이 있어 암자에서 거주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향읍에서는 모두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도 또한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법화경法華經을 강의하여神通力神通力이 있었다.”

문무왕文武王 원년에 승려 지통智通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이양공伊亮公 집의 종이었다. 머리를 깎고 불가에 출가하던 7세 때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날아와서 울며 말하기를 “영축산靈鷲山에 가서 낭지대사朗智大師의 제자가 되라” 하였다.

지통智通이 이를 듣고 그 산을 찾아가서 마을의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더니 홀연히 한 이인異人이 나타나 이르되 나는 보현대사普賢大師인데 너에게 계품戒品을 주려고 왔다 하고, 계품을 베풀 후 숨어 버렸다.

그로 인해 지통智通은 심신이 활달하여 지고, 지각 또한 곧 원만하여 졌다.

그는 다시 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한 중을 만나 낭지대사朗智大師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

니 그 중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바로 낭지朗智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법당 앞에 까마귀가 와서 아뢰기를

“성아聖兒가 장차 대사에게 올 터이니 정중히 나아가 맞이하라”하므로 오기를 기다려
정중히 맞이하니 감탄하여 말하기를

“영오靈鳥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오도록 하고 또 나에게도 아뢰어 너를 이 자리에서 맞이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祥瑞로운 일인가. 아마도 산령山靈의 음조陰助인 듯하다.”

이로써 마을의 나무를 보현수普賢樹라 이름 하였다 하며 울리栗理에는 지통골이란 마을이 있다. 전해오기를 산주山主가 변재천녀女임은 다음 기록에도 나온다.

「고승 연회緣會는 일찍이 영축산靈鷲山에 은거하여 대양 법화경法華經을 읽으며 보현관행普賢觀行을 닦으니 뜰에 있는 못에 연蓮 두어 떨기가 있어 사시四時 시들지 아니하였다. 원성왕元聖王이 그 상서롭고 기이함을 듣고 그를 불러 국사國師를 삼고자 하였다. 연회緣會가 듣고 이에 암자를 버리고 도망하여 서령西嶺 바위 사이를 넘어가니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가 묻기를

“어디를 가는가”하였다.

연회緣會가 답하여

“나라에서 함부로 듣고 작爵으로서 나를 얹매어 두려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몸을 피하려 한다.”하였다.

그 노인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여기서 장사할 만하니 왜 수고롭게 멀리 가려고 하는가. 사師야 말고 매명賣名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겠다.”하였다.

연회가 이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하여 듣지 않고 수 리數里를 더 나아갔다.

그는 계곡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묻기를

“사師는 어디로 가느냐?”하기에 답을 처음과 같이 하니 또 노파가 말하기를

“앞서서 사람을 만났는가?”하였다.

연회緣會가 답하되

“한 늙은이가 있어 나를 너무도 없수이 여기므로 불쾌해서 왔다”고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그는 문수대성文殊大聖인데 왜 그 말을 듣지 아니 하였는가”하니 연희緣會가 듣고 놀라서 급히 그 노인에게로 찾아가서 이 말을 하고 뉘우침을 말하며 가로되

“성자의 말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방금 돌아 왔나이다. 그런데 그 시냇가의 노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하니 노인이 답하여 ‘그는 변재천녀辯才天女이라’ 말을 마치자 숨어버렸다.」

대사가 노인에게 감동한 곳을 문수고개라 하고 변재천녀를 만난 곳을 아니고개阿尼訖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영축산靈鷲山の 기록을 통해서 영축산靈鷲山の 산신이 변재천녀辯才天女이며 음조陰助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변재천녀辯才天女는 대변공덕천大辯功德天, 변재천辯才天, 미음천美音天, 묘음천妙音天이라고도 하는 여신으로서 이 여신은 노래, 음악을 맡은 여신으로 걸림 없는 변재를 가져 불법佛法을 유포하며, 사람의 목숨을 길게 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이익을 준다.

변재천녀辯才天女의 형상은 머리에 흰 뱀으로 장식된 보배관을 쓰고 오른손에 칼을 왼손엔 보배 구슬을 들고 있다. 이러한 변재천녀辯才天女는 영축산靈鷲山の 산신으로서 치술령의 치술신모와 계변천신戒邊天神과 더불어 울산을 지키고 울산인을 복되게 한 신이다.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문수산文殊山과 불교佛敎

울주군 청량면 울리의 서쪽에는 웅촌면, 범서면, 삼남면 이렇게 4개 면의 경계를 이루는 문수산 영봉이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영취산靈鷲山の 법운지法雲地가 솟아 있는 것이다.

이 문수산과 영취산에는 우리나라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은 신라불교의 정수지라고 할 수가 있다. 삼국유사 낭지승운 보현수조, 영취사편, 연회도명 문수점편, 처용과 망해사조에도 그러했고 향토사의 태화사지에도 그러했듯이 이 두 산에는 불교가 뿌리를 깊숙이 내린 곳이다.

삼국유사 낭지승운 보현수朗智乘雲普賢樹 조에 보면 삼양주 하곡현插良州阿曲縣의 영취산에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암자에 거주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향읍鄕邑에서는 그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스님도 성명을 말하지 아니하고 법화경法華經을 강론하면서神通력神力을 보였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1년(서기661년)에 사미沙彌라는 별칭을 가진 지통智通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량공伊亮公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지통의 나이 불과 7살이었다.

하루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울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영취산으로 가서 낭지 대사의 제자가 되거라”하였다.

지통은 까마귀의 말을 듣고는 곧 영취산으로 찾아갔다. 산기슭에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입구에는 큰 정자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지통은 그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다. 이때 홀연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는 보현대사普賢大師라고 한다. 너에게 계품戒品을 주고자 하여왔으니 계를 받으라” 하고 말 하였다.

지통은 꿇어 앉아 눈을 감은 채 두 손 합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계를 받았다. 그런데 그분은 계를 베풀고 나서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지통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통은 계를 받고부터 심신이 활달 해지고 지각知覺이 곧 원만하니 과거, 현재, 미래가 온통 머리속에 훤히 나타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말았다.

지통은 까마귀의 지시대로 영취산으로 낭지대사를 찾아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 스님을 만났다. 지통은 그 스님에게 낭지대사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스님은 어찌해서 낭지를 묻느냐고 반문했다.

지통은 아침에 까마귀가 한 지시를 자세히 말했더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바로 낭지라고 대답했다. 지통은 스님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오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방금 법당 밖에서 까마귀가 알리기를 지금 곧 성아聖兒가 낭지대사를 찾아 올 터이니 어서 내려가서 맞이하라 하기에 이렇게 나와 마중하는 거”라고 대답 하였다. 낭지 대사는 지통의 손을 잡고 감탄하면서

“영조靈鳥가 너를 깨우쳐서 나에게 오게 하고 또 나에게 알려서 너를 맞이하게 하니 이것은 필경 상서로운 일이요, 산령山靈의 음조陰助인 듯 하구나.”라고 말하고 지통을 암자로 안내 하였다.

고전古傳에 이르기를 영취산의 산주는 변제천녀辯才天女라 하였으니 영취산의 산주 변제천녀의 지시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리하여 지통은 낭지대사에게 귀의歸依하였는데 낭지 대사가 지통에게 계품을 주려하니 지통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서 보현대사를 만나 정계正戒를 받았나이다” 하고 말하니 이 말을 들은 낭지대사는 감탄하여 말하기를

“그렇더냐 네가 이미 보현대사의 계를 받았단 말이나.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근히 지성至聖을 만나고자 소원 했는데 아직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거늘 너는 이미 지성을 만나 정계를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로다.”하고 낭지대사가 돌이켜 지통에게 큰 절을 하였다.

지통은 낭지 대사에게 물었다.

“대사께서는 여기에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낭지 대사가 대답하기를

“법흥왕 정미년(서기527년)에 이곳으로 왔으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구나”하였다.

이때는 문무왕 1년(서기661년)이 었으니 무려 135년이나 된 것이다.

이리하여 지통은 낭지 대사에게 귀의하여 불제자가 된 후에 열심히 수도하여 대성을 했다.

나중에 한번은 의상조사義湘祖師의 불당에 올라가서 오묘한 것을 느끼고 자못 현화玄化하는 자세가 되었다. 이것이 곧 지통으로 하여금 추동기錐洞記를 저술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한번은 원효대사께서 반고사磻高寺에 있을 때 낭지 대사를 가서 보았는데 이때 낭지 대사는 원효대사더러 초장관문初章觀文과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을 짓게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낭지대사의 지시대로 저술을 끝낸 후에 은사 문선隱士 文善을 시켜 그 책을 받들어 보냈더니 그 책의 말미에 계를 적었는데

“서곡의 사미(지통)는 머리를 쏘아 예禮하고 동구東丘의 상덕上德(원효)은 바위 앞에 높다. 여기 세진細塵을 불어 취구(영취산)에 보태게 하고 미적微滴을 날리어 용연龍淵(태화강 황용연)에 던지노라”라고 적었다.

지통과 원효는 모두 대성자大聖者인데 이 두 성자가 옷자락을 걷고 공손히 나아가서 낭지스승에게 예를 드리고 사사師事하였으니 낭지법사의 도道가 얼마나 고매하였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낭지법사는 일찌기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淸涼山에 가서 중도衆徒들과 함께 강講을 들었는데 그곳 승여僧侶들은 낭지법사를 그곳 사람으로만 알았지 해동신라국의 사람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루는 강을 하는 법사께서 많은 스님들에게 명령하기를 “여러 스님들 가운데 이 절에 기거하는 스님들을 제외하고 다른 절에서 온 스님들은 제각기 자기 절 부근에 자라는 이름난 꽃이나 진귀한 식물을 한 포기씩 갖다 바치도록 하시오”하였다.

이때 낭지법사는 미리 준비해간 이상한 나무 한 가지를 바쳤다. 설법하는 법사께서 받아 보더니

“이 나무의 범명梵名은 항리가恒提伽인데 여기서는 혁赫이라고 하오. 이 나무는 오직 서축西竺(인도)과 해동신라海東新羅의 두 영취산靈鷲山에만 있는데 이 두 산은 모두 제10 법운지第十法雲地로 보살이 사는 곳이니 스님은 반드시 성자聖者입니다”하고 말하고는 낭

지법사가 해동 신라국 영취산에서 온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설법하는 법사가 남지의 행색을 살피고 알아보았더니 그 이름이 널리 떨치는 대성자大聖者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취산의 이 암자를 가리켜서 혁목사赫木寺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그 유적이 있다고 하나, 어느 것이며 어디를 말함인지 알 수가 없다.

그 후 신라 원성왕 때 연회대덕緣會大德이 이 산에 와서 수도하면서 남지법사에 대한 전기傳記를 수찬修撰하여 세상에 내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엄경 제10 법운지를 살펴 보건데 남지법사가 구름을 탄 것은 대개 불타佛陀가 삼지三指를 꼽고, 원효가 백신百身을 나눈 유類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남지대사와 지통법사의 행적이 깊이 연유하고 또 연회대덕이 수도 했을 뿐 아니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여기 머물렀다 하였으니 문수산과 영취산은 불교의 정수지요, 법운지요, 변재천녀가 가호하는 대명영역大名靈域 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라 제49대 헌강왕은 개운포로 순행하다가 동해옹의 노여움으로 짙은 운무가 지척을 가로막았을 때 동해옹왕의 식복을 빌어주는 절간을 지어 주라고 분부하자 운무가 걷히고 처용아비가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가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 가운데 한 아들을 데리고 신라 서울로 가서 급간級干의 벼슬을 주고 왕을 보필케 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처용가, 처용무로 유명한 처용랑이었다. 이 때 왕의 분부에 따라 동해옹왕의 식복을 빌기 위하여 이곳 영취산에다 지은 절이 바로 오늘날의 망해사인 것이다. 망해사에는 지금 보물 제173호로 지정된 석조부도 2기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지은 망해사(일명 신방사新房寺)는 역대의 병란에 파괴되어 버리고 지금은 그 주초석만 정연하게 남아있고, 그 아래쪽에 해방 후 오늘의 망해사를 창건 한 것이다. 이 산에는 문수암이 있고 청송사지가 있고 영해 부락에는 알 수 없는 큰 신라 고찰의 자리가 있어서 웅장한 탑 2기가 도괴된 채로 남아 있다.

연회대사緣會大師와 문수文殊고개(1)

청량면 올리靑良面 栗里의 문수산文殊山 동록을 영축산靈鷲山이라 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문수산文殊山까지를 다 영축산靈鷲山이라 한 듯하다.

영축산에 은거하여 대양 법화경을 읽는 고승 연회대사緣會大師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보현관행普賢觀行을 닦으니 마당의 연못에 연 두어 떨기가 있어 사철 시들지 아니하였다.

신라의 원성왕元聖王이 그 상서롭고도 기이한 일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국사國師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문은 곧 연회대사緣會大師의 귀에도 전해졌다.

대사는 이 말을 듣자 암자를 버리고 달아나 서쪽 재嶺에 있는 바위사이로 넘어갔다.

대사가 가다보니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가 묻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는가?”

대사가 이에 답하여

“나라에서 함부로 듣고 벼슬로써 나를 매어두려 한다는 말이 들리므로 몸을 피하려는 것이오”라 하였다.

이를 듣던 노인이 말하되

“여기서 장사할 만한데 왜 수고롭게도 멀리까지 가려고 하는가. 대사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대사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5리쯤 더갔다.

그런데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그 노파가 묻기를

“대사는 어디로 가느냐?”하였다.

대사는 밭 갈던 노인을 만났을 때와 같이 답하였다.

노파는 다시

“앞서 사람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었다.

연회대사가 다시 답하되

“한 늙은이가 있어 나를 너무나도 업신여기는지라 불쾌하여 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그분은 문수대성文殊大聖인데 왜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가.”하였다.

이 말을 들은 대사는 부끄럽고 놀라 급히 그 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마를 조아리고 뉘우쳐

“성자의 말씀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방금 급히 돌아 왔나이다. 그런데 그 시냇가의 노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였다.

노인이 이 말에 답하되

“변재천녀辨才天女이다” 하며 말을 마치자 몸을 감추어 버렸다.

이러한 일을 당한 연회대사는 걸음을 돌려 절로 돌아왔다. 갑자기 사신이 임금의 소명韶命을 들고 와서 부르는 것이었다. 대사는 진작 받아야 할 것인 줄 알고 부름을 받들어 궁성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국사國師가 된 것이다.

대사가 노인에게 감동한 곳을 문수고개라 하고 변재천녀를 만난 곳을 아니고개阿尼帖라 하였다는 것이다. (三國遺事卷五 緣會逃名文殊帖)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연회대사緣會大師와 문수文殊고개(2)

고승 연회대사高僧 緣會大師는 일찌기 울주군 청량면 영축산에 은거하면서 대양 법화경法華經을 읽고 보현관행普賢觀行을 닦았으며, 마당의 못에 연蓮 두어 포기나 있어 사철 시들지 아니하였다.

신라 원성왕新羅 元聖王은 그 상서롭고 기이함을 듣고 그를 불러 국사國師로 삼고자 하였다. 대사는 이 말을 듣고 벼슬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서령西嶺의 바윗고개를 넘어갔다.

이때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다가 묻기를

“대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였다.

연회대사가 대답하기를

“나라에서 나에게 작爵을 내려 속세에 묶어두려 하기에 피하려 하는 것이오.” 하였다.

노인이 듣고 말하기를

“여기서도 장사할 만한데 왜 수고롭게 멀리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보니 대사야말로 매명賣名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구려!” 하였다.

연회대사는 자기를 없수이 여기는 것이라고 하여 듣지를 아니하고 몇 리를 더 갔다. 연회대사가 지나가는 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드니 노파가 묻기를

“대사는 어디로 가오?” 하고 물었다. 연회대사는 조금 전에 만났던 노인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하였다.

노파가 묻기를

“조금 전에 노인을 만나지 않았는가?” 하자 연회대사는

“한 늙은이가 있어 만났는데 나를 너무 업수히 여기므로 불쾌했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그가 바로 문수대성文殊大聖인데 그 말을 듣지 아니 하였는가?” 라고 하였다.

연회대사는 이 말을 듣고 놀라 급히 그 노인에게로 돌아가서 뉘우침을 말하여 가로되

“성자의 말을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냇가의 노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였으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노파가 바로 변재천녀辨才天女로다” 하였다.

그리고는 노인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연회대사는 다시 암자로 돌아오니 왕실에서 이미 소명召命을 받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여 대궐로 가니 왕은 연회대사를 국사國師로 봉하였다.

그 후부터 연회대사가 노인을 만나 감동한 곳을 문수점文殊帖이라 하고 노파를 만난 곳을 아니점阿尼帖이라 하였다. 이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연회도명문수점緣會逃名文殊帖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변재천녀’란 영취산의 산주山主인 것이다. 변재천녀란 여신은 영가詠歌의 음악을 장악한 산신으로써 무애無礙의 변재로서 불법류포佛法流布, 수명증익壽命增益, 원적퇴산怨敵退散, 재보만족財寶滿足 등의 이리를 베푸는 여신이라고 하였다.

서술신모西述神母, 선도성모仙桃聖母, 치술신모鷄述神母와 같이 고대의 여신으로서 다분히 모계중심 사회의 영향을 받아 예로부터 울산사람들이 문수산을 찾아가서 소원성취를 빌었는데 이 변재천녀의 영험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문수산과 문수보살

인자 문수암文殊菴¹³² 그 암자 자체는 그 지은 동기가 현관에 탄 역사는 없고 기록된 기 없고, 그 신라 그 법흥왕法興王 그 몇 년, 고거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그 신라에서 나무오리 세 바리를 맨들어 가지고 한 마리는 통도사通度寺에 앉고 한 마리는 문수산文殊山에 앉고 한 마리는 저 저 범어사梵魚寺 저 앉아가지고, 그 창건이, 그 세 절, 세 절 창건이 다 자장율사가 세웠거든요.

그래 인자 통도사에는 겨울에 동지선달에 칠기꽃이¹³³ 세 송이가 피었고, 문수암에는 여기에는 칠기꽃이 인자 한 송이가 났고, 범어사는 두 송이 났다. 이래가 절로 지었다. 그 래 인자 겨울에 동지선달에 말이지, 그 인자 칠기꽃이 피니까네 그 명당이다. 지금 꺼정 전설이 그리되고, 인자 앞에 현관에 보면 다만 고거만이는 기록이 원전히 돼 있죠.

그래서 저 보통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왜 문수산이라 그랬을까? 그야 인자 문수보살이, 중국도 문수보살이 있고 한국에도 인자 문수보살이 있었는데, 문수보살이 그 신라에선, 그 저 누가 여게 그 대략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문수보살이 어디 사는고 그건 모르는 데, 어떤 사람이 문수보살로, 보살이 여보살인데, 아주 잘난 미인이고 이런데, 한 번 불라고 무척 애를 많이 썼답니다.

많이 썼는데, 마 울산蔚山 어디서 만내가 같이 이리 동행을 해가 오다가 그 인자 삼호三湖 쿠는 데가 있어요. 울산서 요 오몬 삼호쿠는 데, 거게서 삼호가 세 호수가 인자 세 갈래의 물이 한테 합해지는 데라고. 거게서 이래 인자 이야기하고 오니 아무리 따라가도 문수보살이 한 마 몇 메타(m)라 쿨까 몇 메타 거리를 두고 가는데, 뒤에 사람이 쫓아와도 쫓아도 문수보살은 그 거리를 두고 가고, 설쩍설쩍 가도 그 거리를 두고 가고, 그래 마 여어 혈수정 쿠는 데가 있어요. 혈수정¹³⁴ 쿠는 데 이꺼지 오니까네 마 암만 해도 못 따라

132. 마을 뒤 문수산文殊山에 있는 절 이름.

133. 칠기꽃이

134.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지명. 여기서 “혈 수 없다”고 탄식하였던 곳이라고 ‘혈수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가가지고 마,

“헐 수 없다! 헐 수 없다!”마 이래 하고 오니까네 거기서 인사불견¹³⁵. 인사불견인데, 그래 마 문수암으로 드갔다. 말이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문수암이라 이리 하는데, 산 자체는 그래서 문수산이다 했는데,

그 이전에는 문수산이 청량산淸涼山, 중국에도 청량산이 있는데, 인자 그 인자 한국에도 청량산이 있고.

그래 중간에는 또 미인산美人山이라고 했다고 그 인자 문수보살이 왔다고 미인산이라 했다고. 지금은 현대 분명히 문수산, 문수암. 고 역사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 왔다 이라더만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문수보살과 지명 유래

나라에서 그리 절로 제일 숭상을 많이 해 놓은까네, 이전에는 세력 있고 양반 자랑한다 카몬, 요새는 사람이 지가¹³⁶ 잘 나몬 그 집이 누구 집이다 이러 쿠지만, 이전에는, 신라 때는 사람이 잘 나고 잘 그거하는 사람은 말끔¹³⁷ 절로 갔어. 양반 자랑을 하몬,
“너저 집에 바랑갯이 몇 날고?”이러 했다 카거든.

—

135.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136. 자기가

137. 모두

“중이 몇 이가 있노?”

바랑갓 하는 것을 중이 씌고 땡기제. 바랑갓이 몇 낱고. 바랑갓이 둘씩이나 여럿이나 되
몬 그 집은 좋은 집이다. 이래 해서, 그레 놓으니 여기뿐 아니라 어디라도 절 승상을 많이
했어.

그레 그럴 때 여게 절이 있었단다. 그레 여어 문수산¹³⁸에서 문수절이 있었고, 문
수보살이라고 말이 있거든.

참 그 신라 때 그럴 적에는 텍이¹³⁹ 시대가, 국법이 딸로 낳아가 치울 때¹⁴⁰, 시집을 보낼
라고 치우몬, 중을 하릿밤 데리다가 재가지고 치았어. 그기 똑 거짓말 겠지.

그레 누가 인자 참 딸을 치울라고 중을 하릿밤, 중을 데리다가 하릿밤 재야(재워야)
되는데, 중을 재울라 쿠이 중이 없어. 중이 모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 놓으이 안
마주치.¹⁴¹

그레 어찌 가이까네 울산시장蔚山市場 거기던 모양이라. 중이 하나 있는데 뽁뽁 얹은 중
이, 임자가 못난 중이 하나 있거든. 그 중 하나밖에 못봤고 그래서 어짤 수 없어서 그 중
그저라도 데려다 재야 된다. 그래서 데려다 갈라고.

“내 따라 가자.”쿤께 안 갈라 쿠거든. 안 간다고. 그레 혹 가자 캐 썩다가, 기어히 가자쿤께,
“그러커들랑 내 걸음 걷는 데 따라 오몬 그리 하지, 가지. 그라이몬¹⁴² 못 간다.”이라거
든. 그레 인자,

“대사가 가몬 어디로 가노, 내가 따라 가지.”

그레 인자 중은 앞에 가고, 참 어디로 가는 기 아이라 여어 참 무거골¹⁴³로 이리 온다 말
이다. 무거골꺼정(까지)암만 따라와도 못 따라와. 못 따라가. 그레 무거골 돌아와가 못

138. 이 마을 북쪽에 있는 산. 이 산 이름이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139. ‘텍이’는 표준말의 불완전명사에 주격조사가 결합된 형태인 ‘텍이’에 해당되는 듯한데, 경상도 방언에서는 완
전명사에 주격조사가 붙은 것처럼 ‘모양이’ ‘형국이’ ‘비유컨대’의 뜻으로도 쓰인다. 제보자가 이 말을 자주 쓰
는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문장의 서두에 쓴 것으로 여겨졌다.

140. 출가시킬 때

141. 중들이 바빠서 만날 수 없었다는 말이다.

142. 그렇지 아니하면

143. 현재의蔚山市 無去洞. 이 마을과 가까운 곳이다.

따라가니,

“이이구, 무거내라.”

이랬다. 못 따라가니 무거내라. 못 붙잡으니 어쩔 수가 있나? 그래 가지고 무거無去골이
됐어. 요오(여기)망하 쿠는 데가 있거든 망하¹⁴⁴쿠는 데, 여게 와가지고 그래 인자 망을
보고, 어딜 가는고 보이 그래 문수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돌아보고 그래,

“문수보살 만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라이.” 이러 쿠고….

그래 그기 사람인지 신령인지 모르지. 문수보살인지도 모르고 그래, 문수보살 보고 말
했다 카지 마라이. 그러 쿠고 가고 못 붙잡았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천석, 청량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빌어 낳은 아들

김남암이 어례산에서 기도를 해가 났다 하는 연유를 들어 보몬,

그 어마씨가 한 50이 가까이 되도록 쉼(쓸) 자식이 없어가지고 여례산에 백일기도를 하
는 도중에 산신령이 나와 가지고, 산신령이 범인데 범이 나와 가지고 기도하는 곁에 내
도록 앉아가 있고, 또 데부다 주기도 하고, 덴고 가기도 하고, 백일로 기도를 하는데 범하

144. 제보자는 ‘망하’라고 발음하였는데, 望海라고 하는 이 마을 옆에 있는 자연부락이다.

望海寺址가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고 친했다.

가당췌이 친해가지고 백일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곁에 내도록 눕어 있고, 백일로 하고 내려오는데 범이 엮어다 주고 이랬는데, 그 날 저녁에 내려 와가지고 김남암을 잉태했다 그래요. 김남암의 어마씨가 산신령을 보고,

“이 놈우 짐승아, 내가 똑 니 곁은 자식 하나 놓을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 범의 등을 갖다가 어루만지고 이래 했는데,

과연 그 범 같은 자식을 낳았다. 정성이 지극하니 그랬다. 김남암의 눈이 중동重瞳¹⁴⁵이라. 눈에 동자가 두 날이 있어. 그 분이 정승 지위에 들어 가가지고 벼슬을 하는데, 어전御前에도 평소에 눈을 감고 이래 있으니 임금,

“그 와 경은 평상 눈을 감고 이래 있느냐?” 이러이,

“마 안질이 좀 나빠가 그렇습니다.” 그러 쿠이,

“안질이 나빠도 어전에서 눈을 감을 수 있나? 눈 떠 봐라.”

이러이 눈을 편쩍 뜨이까네 임금이 용상에서 뚜을 구불어져. 안광眼光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래 그 분 평생에 흑안경黑眼鏡을 임금이 맞춰 쥐가지고 평생에 썼다 카는 그런 애기가 있는데,

문수산 여어 공들인 이가 그 김택천씨. 김택천씨가 문수산에 공을 드리가 낳다 카는데, 고부찌리 문수산 문수절에서 그 부처 앞에 절로 마 참 정성껏 절로 하고 백일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저녁에 선연히 큰 대곶이¹⁴⁶ 천장에서 똑 떨어지는 거로 갖다가 고만 토망에 Ying어 갖고 집에 가져 왔는데, 그 곶이 안주꺼정¹⁴⁷ 그 집에 있다 이기라. 그 곶로 가 오 고부터 잉태해가 낳았다 카는데, 요 울산서 초대국회의원도 지내고. 기도도 잘 하든 잘 되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145. 겹으로 된 눈동자.

146. 큰 뱀이

147. 아직까지

남암산南巖山 신선바위

그런데요 요 산이 남음산.인데, 남음산¹⁴⁸ 거기도 역시 예전에 큰 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절 흔적만 있지 언제 절이 있었다쿠는 그거는 가정을 할 수 없고, 그 앞에 신선바우가 있어요. 신선바우가 바우가 산간三間집채 이거보다 오히려 크지. 큰데 그 인자 올라오는 청계도 이리 돼가 있고 이런데, 그 인자 우에 막상 올라가몬 흰하이¹⁴⁹ 사람이 한 50명 앉아도 될 만한 그런 방구(바위)라고.

그 예전에 짐부대왕¹⁵⁰이 그 인자 용마를 타고 고 방구에 내렸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용마의, 지금 가보몬 용마의 발자국이라 쿨가 똑 험사해요.¹⁵¹ 험사하고. 짐부대왕의 발자죽이다. 그 인자 똑 사람의 발자죽 맨쿠로 자죽질 디딛는가 포가 말이지 이렇게 돼 있고만.

그 인자 예전에 짐부대왕이 그 머 신선바위에 내려 가가지고 신선이, 신선하고 같이 장기 바둑하고 놀았다고 그 인자 장기판을 맨든 것 같이 줄이 돼가 있습니다. 방구에.

그래서 인자 우리가 어릴 때 거어꺼정 소먹이로도 많이 가고…. 거어 가몬 그 방구에 올라가 논다고요. 고오 밑에 내려가몬 아주 층암절벽에 물이 참 좋구마는.

물타애라¹⁵²고 이리 있는데, 그 인자 물맞고¹⁵³ 목욕하고. 올라와가지고 거서 그 머 이전에 장기했던, 바둑했던 그 판에다 바둑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 흔적 자체는 방구에 형용이 다 돼 있으니까네.¹⁵⁴ 그 인자 말자죽이라 쿠는 거는 험상 말자죽 겉에요. 말자죽 겉이 아주 곱게 딱 찍혀가 있고. 사람 발자죽이라고 쿠는 거는 험상 겉이 돼 있다고요. 우리 여기는 동네에 그런 전설이 있지요.

짐부대왕, 신라의 짐부대왕. 신라의 짐부대왕이 죽어가지고 용이 되었다 카는 그런 말

148. 남암산南巖山을 말함

149. 넓다는 표현이다.

150. 金傳大王인 듯, 新羅의 마지막 임금 敬順王의 이름이다.

151. 험사相似해요.

152. 물 타는 바위 ‘물이 흘러 내리는 바위(폭포)’의 뜻인 듯

153. 물맞이하고, 목욕하고

154. 바위에 바둑줄 같은 증거가 있다는 말이다.

이 안 있어요. 동해 용이 됐다 카는 말이 있지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문수산文殊山과 남암산南巖山の 지명 유래

우에가¹⁵⁵ 참 비가 많이 와가 그랬는지, 가름이 들어.¹⁵⁶ 해수가¹⁵⁷ 저 그랬는지 그 사연은 모리고, 그저 말이 여기서도 문수산文殊山이 어째서 문수산이라했노, 남암산南巖山은 우에 남암산이라 했노, 이런 결론이다.

‘그 전에 우리 서당에 땡길 적에 이런 결론을 우리가 한 기이 아니라, 어른분네가 앉아가 서로 이 얘기를, 오늘 자네들맨추로¹⁵⁸ 묻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그래 그 어른분네가 말씀하시기로 그때도 옛날에는 인제 물이 여계에 채어가지고, 그래 남기로 문수산, 남암산 밖에 안 남았는데, 문수산은 무시¹⁵⁹ 한 뿌리만치 이 사이로 뵈이고 남암산은 낮 한 가락 갖다 놓은 것 그것만치 그래 뵈인다고, 그래가 산 이름을 그리 지었단다. 그래 이바구가 그렇더라. 우리가 그건 모르고 그래 마 이바구도 들은 이바구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천석, 청량면, 1984]

155. 어찌해가지고

156. ‘홍수가 들어’를 잘못 말하였다.

157. 해일이海湓이

158. 자네들처럼

159. 무우

산 이름의 유래

문수산文殊山은 그 옛날에 천지개벽이 있었을 때 해일海溢이 쳐가지고 다 물에, 물에 잠겼는데, 맨 꼭지에 문 한 짝이 었힐 정도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여계 우리 울산시에 동쪽에 있는 무룡산舞龍山은 감 꼭대기 하나 었을 정도가 남았다고 이라고,

그 일산日山¹⁶⁰에 있는 그 저 대왕바위 앞에 있는 그 술바위山述岩山 여계는 수리 한 마리가 앓을 정도가 남았다 이래 하고, 이런 것이 도처에 있습니다.

매봉산은 그 매가 한 마리 앓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이러 하고, 함박등은 박이 하나 앓힐 정도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전해 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160 울산시 동구 일산동

원래가 바다였던 마을 주변

울산에 가면은 문수산^{文殊山}이 있고, 또 통도사 뒤에 가면은 영취산^{靈鷲山}이 있고, 언양에 고현산^{高獻山}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태고 때겠지요. 내려오는 이 얘기가 이 지역이 전부 바다였답니다. 바다여서,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경계에 미역을 땀던 미역내가 있습니다. 경주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그 사이에 내가 흐릅니다. 이쪽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 두서^{蔚南 蔚州郡 斗東面과 斗西面}가 그 경계고, 저쪽 경상북도는 월성군 내남면^{慶北 月城郡 內南面}일 겁니다.

고현산 옆에 올라가면 있는 작은 재에 배를 땀답니다.

아까 말하던 울산에 문수산은 문만침¹⁶¹ 남았다고 문수산이고, 저 영취산은 단지만침 남았다고 해서 단지성이고, 갈밭으는 같이 거어서 자랐다고 해서 갈밭인데 갈밭으는 언양면 다개리입니다.¹⁶²

여기가 울산의 태화강의 상류에 지명이 그래 남아 있고, 또 이곳을 보면은 전부 하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흑토가 나옵니다. 지금 울산도 안 그렇습니까?

저 음 그 현대 공장 자동차 공장 들어선 데가 그 염포^{鹽浦}거든. 옛날 그 참 삼포^{三浦} 중에 하나던 그 염폰데, 그것이 지금 맥혀가지고 그래 마 도시가 돼 버린 곳이기는 하지만 강이 자꾸 이쪽은 맥히 나가는 셈인데, 그런 것도 그리 허무한 얘기는 아닌 성싶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소사, 언양면, 1984]

161. 문門만침

162. 다개리^{茶開里}입니다

영축사靈鷲寺

영축사靈鷲寺는 청량면 울리靑良面 栗里에 있었던 신라 때의 절이다.

신라 제31대 신문왕神文王때에 충원공忠元公이란 재상宰相이 있었다. 683년에 충원공忠元公이 동래東萊에 가서 온천溫泉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곡현河曲縣의 굴정역屈井驛(굴화역屈火驛) 동지야桐旨野에 이르러 가마를 멈추고 쉬고 있었다.

이때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사냥을 하고 있었다. 매는 꿩을 따라가서 보이지 않으므로 찾았더니 관아官衙 우물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무 아래를 보니 우물 안에는 꿩이 날개밑에 새끼를 숨겼는데 물빛이 핏빛 같았다. 매도 꿩을 보고 잡으려 하지 않고 측은한 표정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것을 보고 감동하게 된 충원공忠元公이 따르던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게 하니 절을 지을 만한 곳이었다. 이에 그는 관아官衙를 옮기고 그 자리에 절을 지으니 그 이름 영축사라 하였다. 이 절 용장전龍藏殿에는 원성왕元聖王때의 고승 연회대사緣會大師가 있었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지맥地脈을 잘라 망한 영축사靈鷲寺

영축사는 본래 매우 크고 번창한 절이었다. 그래서 신도信徒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쌀 씻은 뜨물이 처용강處容江까지 뻗칠 정도였다. 그 절의 스님들이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괴롭게 여겨 손님들이 적게 오게 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대사大師가 찾아왔는데, 스님들이 대사에게 손님이 적게 오게 할 방법을 물었다. 그 대사가 절 앞에 있는 떡고개를 깎아 길을 내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스님들이 떡고개를 깎아 길을 내었더니 영축사에는 신도와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아무도 찾지 않게 되어 절이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박윤만, 청량면, 1986]

영축 소혀바위(1)

질가에 땡기는데¹⁶³, 소썰바우라고 바우¹⁶⁴가 지다란 기 하나 질가에 쑥 나와 있는데. 그 바우로 길에 걸거친다고 석수발이로 대가시로¹⁶⁵ 반튼 깰라고 하니까네, 거기 소가 못 오더라는기라.

그래가 돌로 못 깨고 그냥 둔 배가 있는데, 질가에 쑥 내밀어 논 바우가 택이¹⁶⁶ 그 바우를 못깨고 금을 딱 지아 놓아 똑 소 썰겔이¹⁶⁷ 생겼구만. 그 영축靈丑¹⁶⁸ 하는 동네가 여내¹⁶⁹ 소 축짜丑字로 씌구만.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태현, 청량면, 1984]

163. 다니는데

164. 바위

165. 석수石手를 데려다가

166. 형국이

167. 허겔이

168. 울주군 청량면 율리蔚州郡 靑良面 栗里의 한 자연부락

169. 알다시피

영축 소혀바위(2)

올리, 영해¹⁷⁰ 카는데, 영해 가면 인자 영해라고도 하고 인자 영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자 영축을 요새는 변해가지고 영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전체 지쭈이¹⁷¹ 올현, 청송, 영축 이리 되어 있구만. 예전에는 전체가 한 마을 이 되어가지고 전부 올리라고 했습니다. 영축 거어 가몬 소라고, 그 동네의 전체를 주장한¹⁷² 그 혈맥이, 지리地理를 말할 것 같으몬 산이 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몬 인자 소세바우라고, 그 방구로 갖다가 중간에 깨니까네 중간에서 피가 나오더라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 피가 나온 것은 그거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인자 영축만이는 그 지리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몬 틀림없는 신령한 소메꾸로¹⁷³, 산이 우리가 보는 견지에도 그 소겔이 돼가 있는데, 그 뒤 소등더리라든가 또 그 소가 머리를 쭉 내고 양쪽 발로갖다가 이래 밟고 이래 있는데,

고 안에 인자 가몬 망해사望海寺가 있어요. 망해사가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망해사는 소 요룽달린 데 절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거어서 마 요룽만 흔들면 돈이 많이 생긴다. 망해사 절도 오래된 기라. 신라때 창건된 절인데, 그 뭐 유래의 말은 우리가 잘 들어 보지 못했고 얘기 될 만한 기 뭐 없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170. 영해靈海는 영축靈丑 마을과 망해望海 마을 합친 지명임

171. 제각기

172. 지배한의 뜻

173. 소처럼

무거無去와 김신암金信庵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 때의 일이다.

천년에 가까운 화려와 번영의 극치를 자랑하던 신라도 말세에 들어와서는 귀족지배 계급들의 분열과 또한 사치에 젖은 문약으로 그 국토는 경주 일원으로 줄어들고 후백제의 군대가 신라를 침입하여 영천永川에 이르러도 경애왕景哀王은 고려 태조에 구원을 청할 뿐이더니 고려 태조는 강병 1만으로 구원케 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정세도 잊은 채 고려의 구원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임금은 포석정에서 환락에 잠겼다가 쳐들어온 견훤의 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견훤의 손에 의해 새로이 세워진 임금이 경순왕敬順王이었다. 경순왕도 운수가 다 되어 이미 기울어지는 사직을 바로 잡을 기력이나 능력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였다.

또 조야의 국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왕자 마의태자麻衣太子 같은 사람도 나라의 운명이란 하늘에 달렸거늘 어찌 천년 사직을 헛되이 할 것인가 하였으나 그 주장도 나라를 바로 잡는 데는 이미 힘이 되지 못하였다.

이때 경순왕은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장래를 영축산靈鷲山の 문수대성文殊大聖의 계시를 받아 결정키로 결심하고 태자와 둘째 왕자를 거느리고 하곡현河曲縣의 영축산을 찾아 길을 나섰다.

먼저 태화사大和寺에 이르러 참배하고 또 길을 나섰는데, 중도에서 길가에 한 동자승童子僧이 나타나더니 ‘대왕께서 오실 줄 알고 산으로 인도하여 모시고자 왔다’고 고하였다. 왕은 다행히 생각하고 크게 만족하여 길을 따랐다. 그러나 삼호三湖앞에서 태화강太和江을 건너자 얼마가지 아니하여 동자승童子僧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왕은 직감에 이 동자승이 문수보살임을 느끼고 하늘은 이미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여 크게 탄식하며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는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이래서 왕은 발길을 돌려 월성에 환궁하여 사방의 땅이 다 타인의 소유로 돌아가고 나라의 힘은 약하고 쇠퇴하여 다시 일으키지 못함을 통탄한 나머지 고려태조에 항복하기

를 꺾하였다.

이때 군신들의 의논은 제각기 찬반이 엇갈렸다.

왕자 마의태자는 麻衣太子 말하되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법, 오직 나라 사랑하는 여러 충신들과 함께 민심을 크게 수습하여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연후에야 말할 것이니 어찌 1천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다른 나라에 내 줄 것이라”하였다.

왕이 한숨지며 말하되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이미 능히 온전할 수 없으니 이왕에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성들을 참혹히 죽게 하는 것은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하고 고려에 국서를 보내어 귀부를 청하고 말았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하직하고 곧 개골산 肖骨山(금강산 金剛山)에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마의 麻衣와 초식 草食으로 그 생을 마치었다.

또 막내아들은 머리를 깎고 화엄종 華嚴宗에 들어가 중이 되니 이름을 범공 梵空이라 하고 법수 法水 해인사 海印寺에 머물다가, 문수산 文殊山 남쪽 산에 절을 지어 여기에서 살았으니 그 절 이름을 김신암 金信庵이라 하였다.

이 절은 정조 正祖 10년(1780)판 읍지를 보면 ‘문수암 남쪽 3리에 있는데 신라왕의 소창’이라 하여 그때까지는 절이 실존하였다. 그 절로 말미암아 그 산명을 김신기산 金信基山이라 불러 오다가 지금은 남암산 南巖山이라 한다. 또 이 절에는 김신대 金信臺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앞에 든 전설은 상전하여 전해오기를 왕이 크게 탄식한 자리를 ‘혈수정’이라 하였으며, 동자가 자취를 감춘 곳을 ‘무거 無去’라 하여 무거동 無去洞이라 하는 지명이 이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전설은 한편으로는 삼국유사의 진신수공 眞身受供과도 같이 전해온다. 또 이 전설의 주인공을 가르켜 무거인근의 늙은이들은 ‘짐부대왕’이라 하나, 이는 ‘김부대왕 金傅大王’으로 경순왕 敬順王의 이름인 것이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무거동과 혈수정

울산 그 공대工大가 있는 동 이름을 무거동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無字하고 갈 거자去字.

여게는 경순왕敬順王하고 관계되는 전설이 하나 전해 옵니다. 신라 그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때는 강령이 다 그 참, 귀발 모재라지듯¹⁷⁴이 오그라지부리고¹⁷⁵ 신라 서울에 마 국한된 그때였는데,¹⁷⁶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궁리하던 끝에,

“울산에 문수산文殊山에 있는, 사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지 거취去就를 정하겠다.”

이래서 신하를 거느리고 울산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지금 태화강太和江이 있는 삼호三湖, 삼호에서 결江을 건널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동자승童子僧이, 한 분이 와서,

“대왕께서 오실 줄 알고 미리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면(하면서) 앞에 길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

174. 네 귀가 닳아서 없어지듯이 모자라지고

175. 오그려들고

176. 신라의 지배 영역이 좁아져서 신라 서울 慶州로 국한되었을 때라는 말이다.

고 뒤를 따라갔는데,

이 공대(공과대학 工科大學) 그 정문이 있는 그 근방을 ‘혈수정’이라 합니다. 그 자리에 와서 이 동자가 갑자기 산쪽으로 몸을 날려가 가 뿌렸습니다.

이것을 경순왕이 느끼기를, ‘아! 이 문수보살이 나를 버렸구나!’ 이래서 거처서 크게 한탄을 하면서,

“이제는 혈 수 없구나! 혈 수 없구나!”하고 흐느꼈다,

이래서 그 곳을 ‘혈수정’이라고 하고 있고, 동자승이 몸을 날려가지고 문수산 쪽으로 피해 간 그 자리를 무거無去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무거와 김신암 金信庵

신라新羅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때 이다.

천년千年 가까이 화려한 번영을 자랑하던 신라도 말기에 와서는 귀족들의 분열과 지나친 호화 사치 등으로 인해 광활했던 국토는 경주 일원으로 줄어들고 후백제군이 신라를 침입하여 영천永川에 이르러도 경애왕은 고려 태조에 구원을 청할 뿐이더니, 고려 태조는 강병 1만으로 구원케 하였다.

이러한 절박한 정세 속에서도 구원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임금은 포석정에서 환락에 잠겼다가 입성한 견훤 군에 의해 처형당하고 견훤 손에 의해 새로이 세워진 임금이 바로 경순왕이다.

경순왕 역시 이미 기울어져 가는 사직을 바로 잡을 만한 능력은 없었다. 또한 조야의 국론 역시 이미 분열되어 흔들렸으며 마의태자 같은 왕자도 나라의 운명이란 하늘에 달렸거늘 어찌 천년 사직을 헛되이 할 것인가 하였으나 그 주장 역시 통하질 못하였다.

이때 경순왕은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장래를 영축산靈鷲山の 문수대성文殊大聖의 계시를 받아 결정기로 결심하고 태자와 둘째 왕자와 동행하여 하곡현河曲縣에 있는 영축산을 찾았다. 가는 길에 태화사太和寺에 들러 참배하고 또 길을 나섰는데, 중도에 한 동자승을 만났는데 대왕께서 오실 줄 알고 산으로 인도하여 모시고자 왔다고 고하였다. 왕은 기꺼이 만족하여 동행을 하였다. 그러나 삼호三湖 앞에서 태화강을 건너자 얼마 못 가서 동자승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왕은 직감에 이 동자승이 곧 문수보살임을 느끼고 '하늘은 이미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고 크게 탄식하며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몇 번이나 한탄하며 실의에 빠졌다.

왕은 발길을 돌려 환궁하여 쇠퇴한 나라를 통탄하며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려 했다. 이때 군신들의 의견은 제각각 찬반으로 엇갈렸다. 왕자 마의태자는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법, 오직 나라 사랑하는 여러 충신들과 함께 민심을 크게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연후에야 망할 것이니 어찌 일천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다른 나라에 내줄 것이냐” 하였다.

왕이 한숨지어 말하기를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이미 능히 온전할 수 없으니 이왕에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은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 하고 고려에 국서를 보내어 귀부를 청하고 말았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과 하직하고 곧 개골산皆骨山(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마의麻衣와 초식草食으로 그의 생을 마쳤다.

또 막내아들은 머리 깎고 화엄종華嚴宗에 들어가 중이 되니 이름을 범공梵空이라 하고 법수法水 해인사海印寺에 머물다가 문수산文殊山 남쪽 산에 절을 지어 여기에서 살았으니 그 절 이름을 김신암金信庵이라 하였다.

이 절은 정조正祖 10년(1780)판 울산읍지蔚山邑誌를 보면 문수암文殊庵 남쪽 3리에 있

는데 '신라왕의 소창'이라 하여 그때까지는 절이 있었다 전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그 산은 김신기산金信基山이라 불려오다가 지금은 남암산南巖山이라 부른다.

또 이 절에는 김신대金信台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하며 지금도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편 앞에 든 전설은 전해오기를 왕이 크게 “혈(할) 수 없구나”하고 탄식한 자리를 '혈수정'이라 하였으며, 동자승이 자취를 감춘 곳을 무거無去라 이름 지었다 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또한 인근 삼호三湖는 본시 삼탄三灘이라고도 했는데 경순왕이 동자가 사라지자 세 번 탄식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지금의 삼호三湖라는 이름은 삼호三湖, 굴화屈火, 다운茶雲의 호소湖沼가 세 곳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무거는 1962년 울산시 남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범서땅이었다.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무거동無去洞과 문수사文殊寺의 유래

신라新羅의 김부대왕金傳大王이 나라의 제사를 지내면서 꼭 문수보살文殊菩薩을 청해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신하들을 각지로 보내어 문수보살을 찾아 모셔오게 했다. 신하들이 흩어져 각지의 절을 다 뒤졌으나 절에 스님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울산지역을 뒤지던 신하들이 통도사通度寺를 거쳐 문수산文殊山 자락으로 올라오다 보니 산중에 불빛이 비치는 곳이 있어 찾아갔더니, 암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스님 한 분이 계셨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스님은 문둥병자였다.

신하들이 모두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돌아 나왔다. 신하들은 임금님께로 가서 스님이 계시는 절이 한 곳도 없고, 오직 한 분 찾은 스님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부대왕은 스님 없이 나라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 몸이 성한 스님이 없으면 그 문둥병자인 스님이라도 모셔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다시 찾아보았으나 다른 스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절로 가서 문둥병자인 스님에게 서울로 갈 것을 청했다. 스님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양하다가, 신하들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스님은 제사를 지내면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제물祭物들을 일일이 만지니 임금님과 신하들은 두려움이 앞섰다.

제사를 마친 스님은 임금님과 신하들에게 그 음식을 음복飲福할 것을 권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더럽게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스님에게 모두 싸 가지고 가라고 했다.

스님이 떠나갈 때에 임금님은 스님이 나라의 제사를 맡아 지냈다는 사실을 발설해서, 문둥병자인 스님을 불러다 나라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웠다.

문수암文殊庵의 칫간恥間

지금은 롯데의 시주施主로 절을 다시 지어 없어졌지만, 십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 앞에 칫간(변소의 사투리)이 있었는데 땅이 좁아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곳 칫간은 절 앞 절벽에 나무를 걸쳐서 만들었는데 용변을 보면 그대로 구멍을 통해 수십 길 바위 밑 계곡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루는 통도사와 석남사의 상좌上佐종과 문수암 상좌스님이 우연히 모여서 자기 절 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통도사의 종은 자기 절의 국솔이 어찌나 큰지 국을 끓일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 저어야 할 정도로 크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석남사의 종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우리 절에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데 문돌짜구(돌쩌귀의 사투리인데 문짝에 경첩처럼 다는 쇠붙이)가 닳아 떨어지는 쇠가루가 한 섬이나 된다는 허풍을 떨었다고 한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문수암 종이 자랑할 것을 찾다가 생각이 나서 우리 절에는 굉장히 깊은 칫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용변을 보면 그 떨어지는 소리를 내일 아침이라야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 아무튼 옛날에는 허풍을 떨었던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처럼 그럴 법한 우스운 거짓말에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대마도주등對馬島主嶺¹⁷⁸

대마도주등對馬島主嶺에 관한 전설은 오래 전부터 울산에 퍼져 있는 이야기이다. 과거 청량면 두왕동斗旺洞에 있는 이 산등山嶺은 동해남부선의 철로와 접하여 바로 그 서편에 남으로 면하여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7~8기의 묘지로 되어있다. 이 대마도주등에 관한 내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울산시 두왕동에 감나무진柸木津이란 곳이 있다. 오래 전부터 외황강外隍江에는 9개 나루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의 한 나루가 이 감나무진이며, 이 나루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대나루大津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감나무진의 나루터는 울산에서 남쪽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로였기에 자연히 사람의 왕래도 있어 여기에 주막이 생기고 행인의 쉬어 가는 곳이 되었다.

때는 고려高麗 때였다. 두왕동斗旺洞 당랑끝에 9남아를 둔 김씨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랑끝은 이 김씨가 9남아를 데리고 살았다 하여 일명 구남밭티九男田峙라고도 불리었는데 하루는 불행하게도 친상을 당하여 상재의 몸이 되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였던 그는 묘 터를 구해 보았으나 살림살이가 궁색한 터라 쉽사리 마음에 드는 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집 가에 토롱이라고 하는 가장을 하여 두고 좋은 묘 터가 구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세월이 지나가던 중 하루는 꿈에 백발의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네가 너의 아버지의 좋은 유택幽宅을 얻으려거든 배암골 감나무진에 있는 객주客酒(여관)집을 찾아가서 그 집의 머슴이 되라.”하고는 어디론지 홀연 사라지고 말았다.

이 꿈에서 깨어난 김씨는 한 동안 어리둥절하다가 망설였다. 아버지의 초상도 치르기 전에 또 남의 집의 고용살이를 하라하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꿈에 나타

178. 그것이 뒷날‘호수 호湖자 삼호三湖’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는 울산 남구에 속해 있지만, 과거 청량면이었고, 대마도주등의 정서가 청량읍에 치우침으로 신는다.

난 노인의 말이 이상하였다. ‘좋은 유택幽宅을 얻으려거든 배암골 감나무진으로 찾아가서 머슴이 되라.’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집안을 정리하고는 불과 1km도 안 되는 감나무진 객주 집을 찾아가서 간신히 그 집의 머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어도 효성이 지극한 그는 아버지의 묘 터 구하는 일념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한 상재가 어떤 풍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이 객주 집을 찾아 투숙하면서 수일 동안 근방 산천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동정을 알게 된 김씨도 자연 그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하루는 두 사람이 소곤거리더니 밤중인데 김씨를 불러 계란 두 개를 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때 김씨의 머리에는 어떤 육감이 번개같이 스쳐 가는 것이 있었다.

계란 두 개를 구한 김씨는 이 계란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다시 찬물에 식게 하고는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 그런 뒤에 김씨는 잠이 들어 한 동안 자고 있었는데, 또 전일의 백발 노인이 나타나더니,

“네가 이렇게 잠이 들어 있을 때가 아니니 빨리 일어나라.” 하고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이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김씨는 벌떡 자리에서 깨어나니 밖에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지라 살그머니 살펴보니 상재와 풍수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김씨도 살짝 나서서 그 두 사람의 뒤를 멀리서 뒤따라가니 불과 얼마가지 않은 한 산등山嶺에 이르러 두 사람은 땅을 파고 무엇인가 묻고는 일어서서 다시 객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를 본 김씨도 지름길로 먼저 돌아와서 자리에 들었다.

이윽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두 사람은 다시 그 산등으로 가서 밤중에 와서 무언가 묻었던 자리를 다시 파면서 고개를 저으며 크게 의아한 몸짓을 하면서

“틀림없을 텐데.”라고 몇 번 연발하더니 객주로 돌아와서는 그 길로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손들이 떠나고 난 뒤 김씨는 생계란 두 개를 초저녁에 그 산등을 찾아가서 묻어두었다가 밤이 썰 무렵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계란 한 개가 부화하여 닭이 나래를 치며 목을 쭉 빼더니 꼬곡꼬곡 하고 크게 우니 온 산천이 새벽의 적막을 깨고 메아리쳤다.

이런 일이 있는 뒤 김씨는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드렸는데 그 묘는 평토장平土葬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이 김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려에 벼슬하다가 대마도對馬島로 건너가 아비루阿比留를 멸망시키고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되니 이 사람이 바로 소오씨宗氏라는 것이다.

이 후로부터 김씨의 아버지 묘가 있는 산등을 대마도주등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의 이름도 이와 관련지어 도왕동道王洞이라 하다가 임금왕자를 쓰는 것은 왕을 거역한다 하여 왕성할 왕旺자로 고치고 길 도道자 대신 말 두斗자를 사용하여 오늘의 두왕동斗旺洞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주였던 소오씨가 과연 이러한 전설에 나타나는 대로 김씨의 후손인지는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마도의 향토사 연구가 나가도매히사애永留久惠의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섬 고대사의 열쇠 쓰시마』에 의하면 1246년이 저물 무렵 고래무내시개히사惟宗重尙가 군을 이끌고 대마도로 건너와 이듬해에 아비루阿比留를 멸하고 섬의 실권자가 되니 이 사람이 소오宗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고래무내시개히사의 선대에 관하여도 해이개平家の 일족이라 하였으며, 메이지明治때에 이르러 이들은 스스로 안도구덴노오安徳天皇의 후손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을 미루어 보아 김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의문이 많으나 사실 대마도주등에 관한 전설은 우리 측보다도 일본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왔으니, 토호土豪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수슈우九州나 이기臺岐섬과의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지 더 연구를 요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김씨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울산시 상개동上開洞에 10여 호 살다가 지금은 흩어져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야기의 분묘도 팔괘형八卦形의 석조물이 있었던 것을 해방 후 청량지서靑良支署의 방축벽을 쌓을 때 이 묘석을 가져가서 쌓은 까닭으로 지금은 석축물은 볼 수 없고 평장묘만 남아있다.

또 일설에는 1910년경에 일본 사람이 이 근처에 배미골이 있느냐고 찾아온 일이 있고, 비석도 만들어 가지고 왔으나 묘를 찾지 못하고 물속에 던지고 되돌아갔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리고 이야기의 분묘는 팔괘형八掛形의 석축石築이 무덤을 담처럼 둘러 있었으나 해방후 청량지서 靑良支署의 방벽을 쌓을 때 이 돌을 가져가서 쌓은 까닭에 지금은 석축石築이 없어지고 말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헌, 남구, 1984]

[『내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이유헌, 울산문화원, 1986]

[『울산시사蔚山市史』, 울산시, 1987]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대천못 전설

청량면 상남리 성남부락 대천산 동쪽에 대천못 독이 우뚝이 보인다.

전설에 의하면 못을 막기 위해 독을 모으면 당일 밤에 독이 무너져 흩어지고, 또 모으면 그 날 밤에 독이 무너지고 이렇게 수십 번 실패하였다.

그 당시 못 막는 경비(비용)는 동양(시주)을 모아서 하였다고 한다. 행사 책임자가 이상하여 부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시주 나간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혹 이상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물은 즉 그 중 노인 한 분이 나와 말하기를 시주 도중 어느 외딴집에 들어가 시주를

요청하였는데, 그 집 안주인이 대청에서 아기를 어루는 소리가

“동양을 줄까요, 아님 우리 대천이를 줄까요? 동동 귀염둥이 오대독자 귀염둥이 우리 대천이를 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기만 어루고 시주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은을 주고 살랴요? 금을 주고 살랴요?” 하면서 이 늙은이를 애태우는 것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책임자가 그 집을 찾아가 요구대로 은과 금을 주고 아기를 바꾸어 와서 못 독을 막는 밑자리에 묻고 공사하였더니 그 후에야 못 독은 잘 막아졌다고 하며, 그래서 못 이름이 아기 이름을 따서 대천못과 대천산이 되었다 한다.

한편, 대천산 꼭대기에는 아흔 아홉 골짜기가 있는데, 백 골짜기에 한 골짜기가 부족하여 용이 득천得天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아이를 넣어 막은 대천못

스님들이 못을 만드는데,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해서 도저히 못을 완성할 수 없었다. 한 스님이 못을 만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주施主를 받으러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시주를 청했더니, 그 집 아주머니가, ‘우리 대천이나 주면 주었지 집이 가난해서 달리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스님들이 다시 못을 만들었으나 다시 터졌다. 주지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시주를 받으러 다닐 때에 특별한 말을 들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스님이 문득 자신이 들은 말이 생각나서 아주머니가 하던 말을 전했다. 주지 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해서 뚝 가운데에다 넣고 못을 만들었더니 못독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못을 ‘대천못’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박윤만, 청량면, 1986]

수구못樹溝池

아주 먼 옛날 동내 초군草軍들 여러 명이 풀 뜯으러草刈作業 바지계를 지고 들곡 위로 서서히 올라가니 수구못樹溝池 안에서 목욕하는 인적人跡이 들리기에 이 초군들이 숲 사이로 음신隱身하여 몰래 보니 동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색다른 젊은 선녀仙女같이 보이는 난생 처음 보는 미인 중의 미인들인지라, 그 중 노총각 한 사람이 숲 속을 몰래 기어가 목욕하는 선녀의 옷 한 벌을 몰래 숨겨 놓고 동행한 초군들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해 은신하였다.

그랬더니 돌연突然히 하늘에서 우루루 뇌성雷聲이 치더니 천상天上에서 용마龍馬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목욕하는 선녀들을 말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선녀 중 한 사람이 옷이 없어 같이 가지 못하고 낙오가 되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노총각이 선녀에게 접근하여 숨긴 옷을 내어주고 선녀를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꺾어 동거同居하게 되었는데, 수년數年이 지났으나 임신妊娠이 되지 않아 큰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공恭을 드렸으나 내내 허사虛事가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번쩍거리며 폭우暴雨가 쏟아져 냇물이 범람하는 중에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와 그 선녀를 태우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도 옛날 목욕하던 못이 그 후 큰비로 못 둑이 무너져버린 형태가 있고 노총각과 선녀가 누워 잤다는 골짜기를 누분숙곡臥宿谷이라 하고, 불공佛供을 드린 바위를 불선바위, 하늘 장수가 말을 타고 내려왔던 말발굽 자국과 장수의 발자국이 들반석 바위 위에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다.

그리고 신방을 차릴 때 금비녀를 꽂아준 장소를 비녀농골이라고 불리우며, 하늘 장수가 용마를 타고 내려올 때인지 올라갈 때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비녀농골 산너머 고랑 속골 안마굼치 폭포수 바위 위에도 장수와 말 족적足跡이 뚜렷이 남아있다.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남읍면

작천정酌川亭

작천정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위치하는 우리고장 명승지다. 작천정은 작괘천^{勺掛川}변에 세워져 있는 아담한 정자인 것이다.

작괘천이란 뜻은 술잔 작^勺자와 걸 괘^掛자와 내 천^川자로 술잔을 조롱조롱 걸어놓은 듯한 내라는 말이다. 이곳의 명칭과 같이 여기에는 옥수청청 맑은 물이 타고 때부터 흘러 내려 가면서 내의 바닥에 깔린 넓은 반석들을 마멸시켜서 마치 술잔에 술을 담아 놓은 듯한 움푹 움푹 파인 곳이 수백 군데나 되기에 작괘천 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물 좋고 정자 좋고 반석 좋은 명승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우거져서 벚꽃이 만발하면 벚꽃 터널을 이루며 이곳을 찾는 상춘객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곳은 고려 말 포은 정몽주선생께서 언양 요도에 잠시 귀양살이를 할 때 자주 찾아와 우리고장의 많은 유학자들과 경관을 즐기며 학문을 논했고, 천주교가 박해를 받을 때 신도들은 관가의 눈을 피해 몰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보며 포교활동을 했고, 3·1 운동거사를 은밀히 모의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역대의 시인묵객들이 모여 놀면서 시를 읊조리고 학문을 논하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자신들의 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바위마다 성명과 시구詩句를 새겨 놓기도 하였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평리 옥바우(옥바위)

상평마을 상단부인 큰 붓도랑 위 봉화산 돌출부의 끝머리에 높이 약 7~8m 가량 되는 바위가 서너 개 모여 있었다.

마위들에 관개灌溉하는 큰붓도랑, 갓붓도랑의 역사나 보 정비를 할 때 보간구(보 관리인)가 아침 일찍 이 바위에 올라 보 정비에 따른 연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소리를 육성으로 고함을 질러대며 외치는 곳이었다. 즉

“아침 일찍 먹고 지게, 바지게, 땡이, 꼬땡이, 소시래이, 호미, 삽을 가지고 오이소! 그리고 현 가마니이나 현 성과때기 있으면 가지고 오이소” 라고 육성방송을 하였다.

마위들의 경작자는 주로 언양읍 사람이 많았으므로 서부리, 남부리, 평리를 향해 고함 질러 댔다.

아침의 적막을 가르고 멀리까지 울려 전달되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는 날이면 못 들었을까 봐 물을 건너 언양읍 방천뚝을 따라 방천목, 서부리, 남부리, 소전걸을 따라 내려가며 외쳤다.

수리시설 정비에 따른 인부 동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옥바위에 올라 이번에는 쌍소리 옥을 걸쳐서 고함지르므로 '옥바우'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교동구획정리사업으로 없어졌다. 그 유명했던 보강구는 정거정 마을에 살았던 염작지廉作之라는 노인이었다. 염 노인은 새경으로 가을 추수기에 한 마지기 당 나락단(벼단) 한 단식을 거두어 새경으로 하였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문동수네

“애취! 이놈의 고뿔아 문동수네 만며느리 집으로 가거라.”

“애취! 이놈의 고뿔아 들내加川문동수네 만며느리 집에 가거라.”

전설로 구전되어 오는 말은 다분히 무속적이다. 지금까지도 이 지방에는 간혹 고뿔(감기)이 걸렸을 때 약 대신 물리치는 방법을 써 왔다. 이 방법은

“애취! 이놈의 고뿔아 들내加川 문동수네 만며느리 집에 가거라”하고 물리친다.

그 무당(무꾸리)의 방법은 부엌식칼을 시퍼렇게 갈아 날을 새우고, 한 바가지 물에 잡동사니 음식을 풀고, 환자의 머리를 이 물바가지 앞에 수그리게 하고, 부엌칼로 물바가지를 탁탁 몇 번 두드리며 환자의 꼭지 머리카락을 몇 번 뜯으면서, 사설을 섞어 가며

“애취! 이놈의 구신아 듣거라 보자--- 한바탕 호통을 치며 꾸짖듯이 달래듯이 푸닥거리를 한 뒤, 돌아서서 물바가지 물을 휙 뿌리고 부엌칼을 대문(삼짝) 쪽으로 내던지며,

“고뿔아 들내 문동수 만며느리 집으로 가거라.”하며, 그 자리에 칼로서 열 십 자를 쓱쓱 끄어 놓고 그 위에 빈 바가지를 얹어 놓는다. 그러나 문씨 집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고장산 발치 대가천마을 보림이 근처인 듯하다. 현 가천리 396번지 주변에는 연대를 알 수 없는 기와장(재깨미)이 간혹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문동수네 집터가 아닐까 하는 추리만 무성하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동네 할아버지

조선조 25대 철종 때(1860년 경신)에 ‘등검장수’ 변씨邊氏라는 한 노인이 이 집 저 집 문전걸식하면서 짚신을 삼아 팔아서 한평생 모은 돈을 후사後嗣가 없어 사후死後를 부탁하면서 가천마을에 기증했다.

그리하여 가천동민은 변邊씨 노인을 위하여 대가천 마을 앞 옥답4-5두락을 장만하여 위토답位土畓으로 마을에 기부하였다. 속칭 동답洞畓이라 한다.

이 논을 경작해 오다가 누군가가 동수洞首(현 이장)를 할 때 삼남면 교동리 1472 번지에 위치한 700여 평을 환매換買하여 가천동답으로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조곡으로 세를 받아 매년 음력 10월 30일 변노인의 묘소에 가천동민이 추향제秋享祭를 올린다.

최초의 묘소는 지대마을 옆 가천리690-4번지에 안장安葬하였으나 1989년에 와서 산업화 물결에 밀려 공장터가 되어 솔밭산공원묘지로 이장되었다. 그 재우답인 현 가천마을 동답은 당시 행정절차상 가천동답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당시 삼남면장이던 신동주辛東柱 명의로 신탁信託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신불산神佛山 단조성丹鳥城

해발 1,200미터인 신불산神佛山 정상에는 단조성이 있다. 신불산은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서 올라도 되고,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홍류폭포로 해서 올라도 된다. 산세가 험악하고 기암절벽으로 치솟아 마치 허공중에 뜬 성이라고 하였다.

단조丹鳥란 붉을 단丹자와 새 조鳥자로 학鶴을 말한다. 학의 머리 위에는 붉은 점이 있다. 이 단조성丹鳥城은 학이 길게 뽑아 새운 목줄기 위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 위에 한 점의 붉은 점처럼 솟아있는 성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중국 장수도 이 성을 쳐다보고 마치 하늘에 붙은 성 같다면서 난공불락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이 성 안에는 일 년 내내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다. 그런데 이 성이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하여 몰살을 당하였다.

이유인 즉 한 노파가 있었는데 노파의 아들이 왜병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때 왜병들이 노파에게 단조성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주면 아들을 살려 주겠다 하자 노파는 단조성으로 가는 비밀통로를 알려주고 말았다. 왜병들은 단조성 서쪽 산성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후문을 기습하여 불의의 공격을 가하니 우리 쪽 병사들은 난공불락으로 날으는 새도 범접하지 못한다고 믿고 태연자약하게 동쪽 낭떠러지 아래로만 지켜 내려다보고 있다가 불시에 당하고 말았으니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이곳에는 지금도 성지가 남아 있으며 등산객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있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상북면지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신불산神佛山의 애환

신불산이라고 산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문헌상으로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리라 짐작이 갈 뿐이다.

남으로는 통도사 뒷산인 영축봉으로 부터 동남으로 내리뻗는 ‘무늬등’을 경계로 하고, 북으로는 간월산을 경계로 한 ‘쇠관골’ 능선을 가장자리로 하여 병풍처럼 가천마을을 감싸고 있다.

영축봉 바로 밑은 영묘한‘금강골폭포’가 우수기에는 장관을 이룬다. 언양현지 산천조에 보면 금강골 폭포를 옛 어느 시인이 금강산 폭포를 비유하여 노래한 ‘비류직하 삼천척飛流直下 三千尺’이란 시영詩詠을 보게 되며,

봄이면 산나물을 뜯으러 원근 사람들이 산정에 위치한 ‘가천재(주개텃)’일대에는 ‘반달비’, ‘곤달비’를 뜯고, 산안 ‘큰골’ ‘작은골’에는 ‘참나물’, ‘호망추’, ‘배뻘추’, ‘더덕’ 등 각종 산나물을 뜯고, ‘고사리밭’ 등에는 ‘고사리’, ‘꼬치미’를 채취하기도 하였다.

여름이면 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가운데 우거진 녹음 속에 마을 소를 방목하여 목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큰골’ ‘작은골’ 비탈은 녹비綠肥 예초刈草장이 되기도 하였다.

가을에는 ‘무늬등’ 금강골 ‘큰가거내’ ‘작은가거’, ‘큰골’ ‘작은골’ 쏘다니며 머루 다래 ‘사리버섯’ ‘송이버섯’ 따다 언양장, 신평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겨울이면 땔감柴木의 채취, 나무함지函, 남바가지, 각종 농기구 자재資材의 원산지이기도 하였다. 우리들 삶에 큰 도움을 주는 보고寶庫이자. 젃줄이기도 한 신불산이다.

이름만 전하는 옛 절터에서는 기와장이 조각이 발견되고, ‘쇠관골’에는 야철장이 있었다는 곳으로 시우쇠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으며, ‘점터골’에서는 엽전을 주조한 곳이라고 전해오는 등 전설이 곳곳에 흩어진 채로 전해오는 신불산천이다.

그러나 워낙 험한 신불이기에 임란 때는 왜적놈의 간장을 서늘하게 한 적이 있는 단조성지丹鳥城址가 산정에 있고 1950년대 공비共匪들의 준동蠢動이 극심하였다. 특히 682고지에는 그들의 철옹성 같은 근거지가 있었다.

지금은 '둘산등' 바로 밑 산중턱까지 배밭이 되고, 중턱에는 뛰엄 뛰엄 농장이 들어서고, 밤이면 전기불이 산 중턱까지 밝게 비춘다. 밤이면 싸늘한 산바람이 산 정상頂上에서 내려오는 고요한 산정山情 야경夜景을 맛味보는 신불산이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신불산 바람이야기

신불산은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상북면 이천리, 등억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209m. 6·25동란 시에는 공비들이 신불산을 거점으로 양산시 일부지역과 울주군 일부지방 및 서부 6개 면을 활동지구로 하여 준동한 근거지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과 열사들이 구국결사대會盟를 조직하여 홀연히 떨쳐 일어나 단조성丹鳥城에 진을 치고 왜적과 싸워 선혈을 뿌린 고혼이 잠들고 있는 성스러운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유일한 신불산 '단조늪'이 있다.

근래에 와서 취서산, 신불산, 간월산, 능동산, 가지산, 천왕산, 제약산, 이 일곱 괴산塊山을 언제부터인가 많은 산행 인구가 일어남에 따라 국적불명의 '영남알프스라'고 이름 지어 회자되고 있다.

산은 인간의 영혼이 시작했던 출발점이자 회귀점이다. 자기 고장의 산을 살핀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산에서 터득한다는 말과도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신불산 산록에 생을 걸고 사는 우리들에게 '신불산 바람'은 신화 같은 존재다.

엄동설한에 시베리아 삭풍이 '우우우' 소리 내며 신바람 나게 달려오다가 신불산 산마

루에 다달아 앞이 확 트인 벌판을 내려다보며

“여기가 어디고”라고 한 바람이 물으면 또 한 바람이

“들내·방터加川·芳基다”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두 바람이 어울려 '한바탕 놀고 가자'며, 우당탕 돌개바람 덜컹덜컹 들었다 놓았다, 밀었다 당겼다, 한바탕 회오리바람으로 놀고 간다. 우당탕거리며 도깨비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 수만 마리의 기마가 내달리듯, 하늘이 찢어지는 비명과 더불어 펄럭거린다.

'들내·방터가 넓다 해도 소깍(소나무가지)한 단 둘 데 없다.'는 말이 생겨났고, 지방 사람들은 '큰 머슴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큰 머슴 온다.'고 말한다.

시끄럽고 분탕스러워 의지할 곳 없다는 '들내·방터바람'과 가지산 능선을 지나 석남사 계곡에서 물보라 뒤집어쓰고 궁근정·길천·만댕이깽빈·부리소봇덤·화장산모통이 돌아오는 차고 맵고 시린 '남천내 강바람'이 사돈하자고 혼담이 오고 갔는데, 차고 맵고 시린 '남천내 강바람'이 들었다 놓았다 우당탕 시끄러운 '들내·방터바람'을 '깡아리' 없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때로는 이 바람이 일찍 한가을에 불어와 논에 벼를 베어 깔아놓은 것을 회오리(호더락)바람이 돌돌 말아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섞어 놓아도 제 논바닥에 깔린 만큼, 색깔로 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허욕 없이, 다툼 없이 걷어 가는 미덕을 알게 모르게 지녀 왔다.

그래서 들내·방터 삼남 사람들은 신불산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들은 이불 밑으로 파고 들고, 아낙들은 장독대 뚜껑 걱정이고, 남정네들은 지붕 홀랑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 잠기곤 한다. 때문에 삼남읍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고 단속하고 부지런하여 믿을 수 있고 치산治産을 잘한다고 전해 온다.

우리 고장은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태풍을 면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 배농사가 두드러지게 농가소득증대 종목으로 되었다.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 재배 방법의 하나로 콘크리트 기둥과 철사로 실끈을 만들어 배나무를 붙들려 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 역시 바람을 단속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의 소산 아닌가.

신불산 산록에는 ‘메추리 두 마리가 와서 한 마리는 울고 간다’는 말과 같이 넓게 펼쳐진 황무지가 많았다. 이를 개간하여 과수, 축산, 벼농사 등 복합영농을 하고 있다.

개척정신이 강하여 흡사 제주도의 감귤농장 돌담처럼 담을 쳤는데 마치 성곽 같기도 하다. 별보고 나가고 별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2·7 언양 오일 시장 날 쌀(싸전)을 비롯하여 우시장·채소전·배, 감, 밤 등의 과일류 등 농축산물을 장에 내다 팔았다.

삼남사람 빼면 2·7 언양 오일 시장이 안 열린다는 말도 전해왔으나 지금은 유통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두 개의 축산계와 배 작목반, 시설채소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공장 삼성SDI, 오투기식품을 비롯하여 1998년에는 51개, 기업체에서 2001년에는 61개 기업체가 들어서 있어 농공병진의 모범면으로 변모하였다. 농외 소득 등으로 부유한 면으로 활기찬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서생면편

꿀다리

서생면 화정리西生面 禾亭里 앞을 흐르는 회야강回夜江의 하류를 일승강一勝江이라 부른다. 임진왜란 때 이 강의 싸움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크게 무찔러 이겼다 한다.

제1차 도산성島山城 싸움 때의 일이다. 조명의 연합군이 죽을힘을 다하여 성을 공격하였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이 워낙 험난한데다가 적들은 조총과 화살을 비 오듯 퍼부어대며, 날은 얼어붙어 동상자가 속출하여 군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적군의 응원병은 수륙양면으로 밀어 닥쳐오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에

게 도로 포위되는 결과를 빚어낼지도 모를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조명연합군은 천추의 한을 품고 그만 경주慶州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주慶州로 물러선 조명연합군은 분을 참지 못하여 적을 칠 계책을 세워 보았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서생포西生浦의 왜성은 거의 빈 성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울산의 도산성島山城으로 쓸만한 군사들은 다 구원병으로 출동하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야말로 허를 찔러 서생포왜성西生浦倭城을 쳐서 적의 간담을 서늘케하여 줄 때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명나라의 장수 오유충吳惟忠과 조승훈祖承訓은 결사대 20인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물론 이때는 지리에 밝은 우리 울산의 군사 몇 사람도 앞장을 서서 길을 인도하였을 것이다.

이들 결사대들은 야밤에 서생포西生浦로 잠입하여 회야강回夜江에 있는 조교吊橋에서 적을 만났다. 이때 명장 이춘방李春芳이 급히 다리를 끊어 왜병을 수장하는 동시 건너온 자 백여 급을 베는 전과를 올리고 경주慶州 본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승전이 있는 뒤로부터 화정리禾亭里 일대의 회야강回夜江을 일승강一勝江이라 불렀다.

또 여기에 놓여 있었던 다리를 통시다리라 하여 돌을 둥글게 무더기로 쌓아올리고 그 위로 나무를 놓아 사람들이 건넜다고 하는데 전해오기를 이 다리에만 손을 대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에는 이기며 뒤에 평화가 찾아온다고도 한다.

지금도 남아있는 돌에 굴石花이 많이 붙어 자라기 때문에 어느새 다리이름도 ‘꿀다리’로 변하고 말았다. 꿀이라 함은 굴의 방언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앙금할망구 반지터

서생면西生面의 서생포왜성西生浦倭城이 자리 잡은 산을 실성산甌城山이라 불러온다. 이 산의 산신을 ‘앙금할망구老姑’라 한다.

아득한 옛날 원시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산에서 살아왔다. 산에서 채집하고 산에서 수렵하여 먹고 살아야 했으므로 산에서 살게 되고 산에서 살다보니 산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또 하늘과 땅 사이의 가장 가까운 곳은 산정이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곳도 산정이며, 그 첫발을 내리는 곳이 곧 산정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의 신령을 믿어 그 신령의 가호를 받으며 식량 등 생활의 풍요를 빌어왔다. 실성산甌城山の 앙금할망구도 이러한 류의 산신인데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여신女神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리산地理山¹⁷⁹의 천왕봉성모天王峰聖母를 비롯하여 선도산仙桃山の 서술성모西述聖母, 영일迎日의 운제산성모雲梯山聖母가 있는가 하면 울산지방에도 치술령鷄述嶺의 치술신모鷄述神母, 두서면斗西面 아미산峨眉山의 할망구老姑 등이 그것이다.

실성산甌城山の 앙금할망구도 이 산에 진좌鎮坐하여 아침에는 승강어적勝江漁笛을 들으며 선도귀범仙島歸帆, 폭포비설瀑布飛雪을 바라보다가 대암초가臺巖樵歌에 낚을 잃게 된다.

해질 무렵이면 붉게 물든 증성낙조甌城落照를 바라보며 성암모종聖庵暮鍾에 하루가 감을 아쉬워한다.

또 밤이 되면 층대명월層臺明月 아래 도독숙로都督宿露를 밝아본다.

때로는 신암新岩의 신선바위神仙巖에 몸을 날려 갈매기떼와 벗하고 서호西湖(온산면 강

179. 지리산智異山の 오기이다.

양溫山面江陽)의 임금산御迎峰에 놀다 찌게바위彈琴巖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런데 양금할망구에게는 소중한 간직해온 반지半指가 하나 있었다. 이 반지는 고래떼들이 남극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선물로 드린 산호반지였다.

하루는 양금할망구가 서생성西生城의 대장단大將壇에 올라가서 동해의 파도와 어울려 지나가는 뱃길을 보살피다가 옆에 빼두었던 반지가 그만 없어졌다. 쥐 한마리가 오래간만에 돌 틈에서 나타났다가 이상한 것을 보고 물고 가버린 것이다.

정신을 차려 반지를 찾던 할망구는 크게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누구의 장날일까 하며 법석을 떨어냈으나 반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만 화가 치밀어 오른 할망구는 두 손으로 땅바닥을 파헤치며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장단大將壇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손으로 땅을 파헤친 다섯 손가락 자욱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 온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군수대좌형국軍帥大坐形局

지리풍수설에서 서생면을 군수대좌軍帥大坐의 형국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신라 때는 화정리禾亭里의 술마述麻 마을에 숙마진熟麻鎭을 두어 나라를 지켜왔다 하여 그곳에 거대한 산성지를 지금도 남겨놓고 있다.

고려 때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알 길이 없으나 이조에 와서는 태종太宗 7년(1407) 7월의 왕조실록에 화정리禾亭里에 서생포수군만호영西生浦水軍萬戶營을 이미 두고 있었다.

그 뒤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宣祖 25년에 실성산甌城山에 왜성을 쌓기 시작하여 익년에 이를 완성하여 지금도 그 성지는 대부분 남아있다.]

왜군이 물러나자 수군의 진鎭을 왜성 안으로 옮기면서 수군의 동지첨절제사同知僉節制使가 이를 지키도록 승전시켜 한말까지 그 진영鎭營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서생西生은 줄곧 방위기지의 역할을 맡아온 셈이 된다.

이조초의 일이었다 한다. 어떤 도참가圖讖家가 하루는 지팡이를 짚으며 서생에 이르렀다. 며칠을 두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살피더니 시루성山甌城山에 올라섰다. 이윽고 사방의 형국을 두루 살피더니 이곳이야말로 ‘군수대좌형국軍帥大坐形局’이로구나 하고 산을 내려 어디론지 가버렸다.

서생西生이 도참가圖讖家의 예언처럼 큰 장수가 앉을 자리였으므로 주위에는 이 형국과 대응되는 지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신암리新岩里의 군경포軍警浦를 비롯하여 나졸羅卒을 뜻하는 나사羅土, 용리龍里의 홍문가紅門街, 명산리明山里 용연龍淵, 뒷산의 기암旗巖, 장안면 호암長安面 孝岩의 낙음樂音, 서생리西生里 뒷산에 우뚝 선 탄금암彈琴巖, 서생리西生里 인성암引聖庵, 앞산의 장군암將軍巖 등이 그것이었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장사백

조선시대 장사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임금이 전국의 유망한 사람들을 모아 중국에 사신으로 보내려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장사백이 뽑혀서 가게 됐다.

일행이 배를 타고 부산의 태종대 앞바다까지 갔으나 장사백이 오지 않아 임금이 어명을 어겼다 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하였다. 바로 그때 배에서 '짹'소리가 나 둘러보니 장사백이 날아와서 돛대 위에 앉아 있었다.

장사백은 현재의 장생포에서 늦잠을 자게 되어 시간을 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 마지막으로 피리를 불어 보겠다.”며 말하고 피리를 부는데 배는 중국 땅에 거의 도달했다.

이때 장사백은 불던 피리를 떨어뜨리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곳의 산이 갈라지더니 용마가 나타나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때야 사람들은 장사백이 장수인 줄 알았으나 이미 죽어버려 안타깝게 여겼다. 장사백이 죽자 지금의 영농조합퇴비사 일원을 당집이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도독동굴

임진왜란 때 피난처로 인근 주민 약 150명이 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같이 숨어있던 어린 아이가 계속 울어대어 왜적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었다. 이에 함께 숨어있던 사람들이 불안하여 아이와 어미를 굴 바깥으로 쫓아내 버렸다.

어미와 아이는 오갈 곳이 없어 굴 입구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왜병이 이를 발견하게 되어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굴 입구에 나무 장작불을 지펴 연기로 굴 안에 있던 피난민들을 질식시켜 모두 몰살되었고 그 불로 인한 연기가 서생성 뒷산에까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도독동굴都督洞은 서생 도독동굴(도독구미)에서 불을 피우면 솔개 도독동굴까지 연기가 나 굴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독은 장군의 진지 또는 벼슬을 칭하는 관 명칭을 뜻하는 말이며, 동굴 이름은 도독동이라는 마을 명칭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효열리孝烈里

동해남부선의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면 조그만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 이를 서생역이라 한다. 이 서생역西生驛의 남쪽을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작은 강을 효암강孝岩江이라 부른다.

효암강孝岩江 어귀에 남북으로 자리 잡은 마을을 19세기말에는 효열리孝烈里라 부른다

가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난 뒤부터는 북쪽은 신암리新岩里로 들어가고 남쪽은 그 이름을 효암孝岩이라 하였다.

서생면사무소가 있는 신암新岩의 남쪽에 있는 이 아담한 마을을 효렬孝烈이라 부르게 된 데에는 사무치는 사연이 있었다. 마을이 바닷가이기에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고기잡이에 종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마을에 한 가정이 있어 남편은 날이 좋을 때 바람에 배를 맡겨 동해멀리 나가서는 낚시질을 하다가 석양이 될 무렵이면 돛대에 바람을 싣고 돌아오며 부인은 이 바위 저 바위를 돌아다니면서 해초를 뜯으며 그래도 밝은 나날을 보내왔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였던 가정에도 하늘이 무너질 듯 하는 큰불행이 닥쳐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배를 띄워 고기잡이를 나갔던 남편이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질 않았다. 아내는 하루, 이틀, 바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던 마음은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남편은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그만 배는 뒤집히고 물에 빠지는 몸이 되어 동해의 수중 고혼이 되고 만 것이었다. 그래서 깨어진 뱃조각이 하루는 물으로 밀려온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알리자 부인도 달려가서 그 뱃조각을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다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남편을 사모하는 사무치는 마음이 간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나날이 계속되어갔다.

그 부인은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 내 남편의 몸은 필경 고기의 밥이 되었으리라. 내 남편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었던 생선을 내 어찌 입엔들 댈 수 있으랴. 그 후로 부터 그 집 자식들과 온 식구들은 생선은 물론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고는 먹지 않았다.

이 가정의 꿈은 마음은 마을이 알게 되고 뒤에는 고을이 알게 되어 그 절개를 다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마을 이름도 어느새 효렬孝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곧고 매운 마음씨들이 읍지邑誌에 기록되어 전해오나 아깝게도 그 이름은 전하지 않음이 한이 된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신선암바위

신선암은 바위의 무리로 이루어진 명승지답게 얽힌 전설도 바위마다 각각이다. 동해왕자가 거북을 타고 선녀가 놀고 있던 이곳까지 오게 돼 선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선녀는 아이를 임신하여 왕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열 달이 되어 선녀는 신선암 마루에서 옥동자를 낳았다. 그 후 왕자는 용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 되어 선녀와 다투는 도중 금거북이 나타나 왕자를 등에 업고 물속으로 데려가 버렸다.

혼자가 된 선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으나 선녀의 행동을 부정하게 여긴 옥황상제가 허락지 않아 선녀는 갈 곳이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부인당을 마련해 선녀가 살도록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녀가 늙어 할머니가 다 되었을 즈음 옥황상제의 용서를 얻었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부인당 할머니를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이 곳을 '대비단'이라 부른다.

또 선녀가 옥동자를 분만할 때 사용한 가위를 놓은 자국이 남아있는 바위인 '가위터'와 그곳에 태를 낳은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리고 분만 장소는 지하동굴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분만한 옥동자와 태를 수중에 당을 쌓고 묻었다는 '당물'이라는 곳도 전하고 있다.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이덕도二德島

서생면 진하리西生面 鎭下里의 해중에 이덕도二德島라 하는 해중암이 있다. 일명 덕도德島라고도 하는 것으로 명선도名仙島의 바로 남쪽에 있다.

때는 고려초의 일이었다. 신라 천년의 영광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나라를 들어 고려高麗에 항복하였던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傳가 돌아갔다. 항복이라고 하는 오명 끝에도 고려高麗로부터 두터운 예우를 받아 일신의 불편은 없었지만 어찌 나라의 임금이었던 그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눈을 감았으랴? 경순왕敬順王은 마침내 죽어 여의주如意珠를 얻어 용으로 화하며 몸을 굽이치며 하늘로 올랐다. 인간세상을 크게 저주나 하듯 몸을 틀어 꼬리를 후려쳤다.

이러할 때 동해에 있던 많은 섬들이 무너지고 바위는 깨어져서 그 모습은 깊은 물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이러한 변란은 울산쪽으로도 미쳐 많은 섬들이 침몰하고 서생西生에 있던 명선도名仙島도 반쪽이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또 이덕도二德島도 그 저주하는 용의 힘에 의한 희생물이 되어 섬은 그만 모습이 변하여 작은 바위만 두개 파도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울산지방의 바다에는 용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해온다. 신라의 문무왕비文武王妃가 죽어 용이 되어 해중으로 잠기니 그 바위를 댕바위大王巖라 전해오며 처용處容이 출현하였다는 처용암處容巖을 일명 대룡암大龍巖이라 하며 방어진方魚津의 등대산의 북쪽 벼랑에는 청룡이 장난하였다는 용굴이 있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벼락바위 떠덕바위

옛날 위양리에는 주위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물이 맑고 아름다운 ‘위수渭水못’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못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내내 저수지 주위가 절경이어서 황홀할 지경이었다.

어느 봄날 하늘의 옥황상제를 모시던 역신力神이 죄를 지어 인간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때 마른하늘에 번개와 천둥이 치더니 이곳 위수 근처로 그 역신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린 별은 주위의 산야에 널려 있는 바위를 한 곳에 주워 모으라는 것이었고, 역신은 그 명을 받들기 위해 바위를 모으는데 정신이 없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로 접어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바위 중 제일 큰 바위에 오르니 가히 경치가 황홀하고 놀랄 지경에 그만 역신은 별을 잊어버리고 큰 바위 위에서 주색과 가무를 즐기는데 폭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옥황상제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천둥과 번개를 내려 그 역신을 죽게 했고 바위는 두 조각이 나버렸다.

이때 조각난 바위를 '벼락바위'(위양리 산 128번지)라 하고, 바위를 주워 모은 산은 '떠덕바위'(위양리 산 126번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 역신의 별로 인해 이곳 주변은 바위를 볼 수 없는 돌산이 되었다고 한다.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날지 못한 어린장수

위양리 산 468번지에 해당하는 산에는 애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 산에서 용연 쪽 계곡에 젊은 부부가 조그만 초가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 사이에 옥동자가 탄생했다. 이 아이는 낳자마자 등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고 또 주위를 날아다녀 마을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아이로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 풍수지리에 밝은 왜군의 첩자가 이 산에 올라가 산세를 살펴보다니 아래 마을에 장군이 탄생할 지세라며 산꼭대기에 쇠말뚝을 박아 혈穴을 자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붉은 피가 솟아나 냇물처럼 흘렀다고 한다.

지금도 산정에는 땅을 파헤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이후 날개 달린 이 어린아이는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어치면역

운암산雲岩山 웅熊 고명故名

운암산은 웅촌의 진산이며 그 모양이 곰을 닮아 웅촌이라 하며, 웅촌이란 지명은 예부터, 처음부터 불려왔다.¹⁸⁰ 곰의 형태를 보면 검단 쪽이 머리이고 곡천은 몸통이고 동문장판이 엉덩이 이고 우문정 쪽으로 다리를 펴 누워 있는 형상이다.

간곡역은 고려 때 울산 지방에 두었던 역인데 곰의 간肝이 있는 골짜기라고 간곡肝谷이라 하였으며, 영남읍지(1894년 고종 31)에는 간곡이란 동명洞名이 있었으며, 서중 마을

180. 『울산읍지』 1934년, 운암산 위면 지 진산 이기형류 웅 고명雲岩山 爲面之鎮山而其形類熊故名

의 솔고개는 간에 붙은 쓸개가 있는 자리라고 쓸개고개가 ‘솔고개’가 되었다. 젓乳샘은
검단 골각단 절터 위에 있다.

이와 같이 웅촌면은 지형에 따른 지명이 많으며, 고연리 와지 마을은 소가 누워 있는 형
국이니 와지臥旨라 하며, 마을 앞에 소가 먹는 초산草山이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기러기 물먹는 형

곰내는 후곡 물을 전부 모아 곡천 남산갓 남쪽으로 흘러 회야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다. 곰내 청수에 기러기가 부리로 물을 먹고 있는 새의 형상은 남산갓이 좌측 날개가 되
고 우측 날개는 운암산에서 내려온 동뿔 능선이다. 솔고개 능선이 기러기의 긴 목인데
해방 전 검단으로 가는 군도를 내면서 오른쪽 날개 죽지(솔고개) 째에 길을 내어 날개가
힘을 못쓰게 되어 서중 마을의 정기가 끊겼다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최철규,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곰내 고개와 동네굿

서중 마을은 검단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솔고개가 낮아져 마을이 허虛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솔고개에서 곰내 청수로 넘어가는 고개를 ‘곰내고개’라 하며 이 길은 온복들로 해서 온 양溫陽고개로 가는 길이다. 이 고개가 기러기의 목 혹은 날갯죽지에 해당되니 솔고개와 곰내 고개는 서중마을 발복發福에 지장을 주는 길이다.

1960년도에 소년 죽음이 많아(아무 이유 없이 자살도 하고) 사고사가 몇 년 동안 계속 되니 동 회의를 하여 용하다는 점쟁이를 모셔다가 동네굿을 하고 솔고개 차도는 차가 다니니 막지 못하고 기러기 날갯죽지에 해당되는 곰내 청수로 가는 곰내고개 길을 막아버렸다. 동네굿을 한 후 마을은 편안하여졌다. 4~5일은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곰내 논밭에 가는 사람, 곰내 청수에 목욕하러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 다녔지만 간肝 큰 청년들이 살짝살짝 다니다 보니 한 열흘 후는 막았던 길을 터서 그대로 다니게 되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최철규,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새 모이 먹는 곳

동피를 새의 머리로 보면 좌우의 산, 서중 뒤 비알은 양날개가 되고, 서넉골 도랑과 검단 지방도로가 만나는 곳은 새가 부리로 모이를 먹는 형국을 하고 있다. 이 집터는 아무리 가물거나 가난해도 자기 먹을 것이 있는 집터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정진국,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네모산 절(구舊 불당佛堂터)

운암산 서중에서 서중 장관으로 가면 8부 능선에 네모난 산이 있다. 네모산은 산비탈에 사각 형으로 표시가 나며, 마을에서 보이며, 둘레는 담장이 무너져 있다. 네모산은 2000평이 되는데 절터는 약 1000평 된다.

네모 모양의 산 1/3지점에 높이가 1.5m인 축대가 있다. 주춧돌도 몇 개 있으며 절 아래에는 벼락바위가 있는데 절이 망할 즈음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이 절터에서는 대마도가 보였으며 부산앞바다에서 서생 강동 해안선이 흰히 보이니 왜국의 해적을 감시하는 호국사찰이 아닌가 싶다. 이 절은 빈대가 많아 망하였으며 그 유물은 대북 대양사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절이 번창했을 때는 고목이 울창하게 있었다.

절에 신도도 많고 스님도 많으니 절을 확장하여야 했다. 절을 확장하려니 고목을 몇 주 베어야 했는데 나이 많은 신도들은 나무를 베면 절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고목古木

을 베지 말라고 주지스님에게 간청을 했다. 또 주지스님의 꿈에 수염 허연 노인이 나타나 한 삼일 여유를 주면 내가 이사를 갈 데니 그 후에 나무를 베라고 현몽했는데 주지스님은 현몽한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나무를 베니 나무 동지 속에 큰 구멍이 있었다.

톱날에 큰 지네 한 마리가 잘려 죽었으며 나무가 넘어갈 때 뿌연 연기가 나와 톱질하던 목수는 기절하여 그 자리에서 운명했다. 나무를 베고 난 그 날 저녁 꿈에 늙은 할머니가 나타나 주지스님을 보고 내 영감을 죽였으니 너도 죽으라고 소리치니 주지스님은 악하는 외마디 소리를 치고 그대로 돌아가시니 중도 죽고 절도 망하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강병조,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광철이

내기 청수에서 큰 보 안까지는 물이 수평선으로 닿아 있다. 여름날 밤에 청수에서 습기가 얼마나 증발하였기에 도깨비불이 보였겠는가. 내기 마을 입구가 채봉을 하던 곳이니 인隣이 많아서 인지 날씨가 가물어 논바닥이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 가면 내기 청수의 광철이가 웅상을 용당리 탐자골 못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광철이만 보면 농민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쉰다. 왜냐하면 광철이가 날아가면 가뭄이 계속된다. 여름철 날씨가 갇으면 내기 동네 앞에 토쟁이(도깨비)불이 여름철 밤하늘 별뿔만큼 많이 날아다녔다. 큰 보 안에서 도마산까지 도깨비불이 날아 다녔다. 도깨비불이 주먹만하면 광철이 불이라 했으며 광철이는 용이 못된 구렁이불 광철이라 한다. 1970년 초까지 날아다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현경,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감사남골

곡천리 경계지점에서 새검단 쪽을 감사남골이라 한다.

어느 감사가 우불당에서 하마下馬 하지 않으려고 우불당 뒤쪽으로 돌아서 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한다. 그 자리에 고분이 한 기 있는데 감사가 죽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었다 한다. 일설에는 검단사의 암자 감시암이 있던 골짜기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규식,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양수바닥

양수바닥은 새검단에서 개울을 건너면 섬들이다. 검단 개울과 곰내천이 합쳐지는 곳에 반석이 넓게 깔려있어 양수(양 개울물)를 바위가 깔린 반석 위에서 받으니 양수바닥이 된다. 지금은 은현과 고연 물이 합쳐 곰내천이 되고 검단 골짜기 개울이 합쳐지는 곳, 즉 검단 진입로와 군도가 마주치는 지점에 있는 개울이다. 바닥에 큰 반석이 깔려 있으며 내리 들보가 있다. 촌 노인들은 양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던 집터라고도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위도,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두꺼비 바위

멸암고개 밑에 외말산 능선이 내려와 사두혈의 묘 자리가 있다.

어느 부잣집에 젊은 여자종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밥에 미가 있다고 여자 종을 때려 목숨을 잃었다. 어린 아이는 그 길로 주인집을 나와 문전걸식하다가 산사로 들어가 나무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 절 스님이 풍수에 능통함을 알고 어린 마음이지만 그 스님 밑에서 지관 공부를 하니 스님이 이만하면 하산하여도 되며, 먹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신이 생긴 종의 아들은 주인집을 찾아가 풍수 이야기를 나누니 주인이 탄복하며 그 실력에 놀랐다. 웅촌 검단에 있는 산소를 쓰고부터 집안이 흥興하고 있는데 생각이 미쳐서 젊은 지관을 데리고 검단 산소에 갔다.

이 산소는 멸암고개 밑에 있는데 외말산 능선이 내려와 사두혈 뱀의 어깨에 해당되는 자리에 묘가 있다. 종의 아들은 이 자리에 묘를 쓰고 덕이 있었지만 능선 끝자락이 용의 머리이니 용두혈에 이장을 하면 용을 탄 운세가 올 것이라 설명하였다.

지관의 말대로 부자인 집안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용두혈에 이장하고 그 앞에 있던 두꺼비 바위를 깨어 석물을 하고 묘를 단장하였다.

몇 년이 못 가서 그 집안이 망하였다. 처음 뗏자리는 사두혈이다. 너불대花巴는 머리를 들고 다니는데 너불대의 머리에 묘를 쓰고, 뱀의 밥인 두꺼비 바위를 깨어 석물을 하여 뱀의 머리를 놀리니 뱀이 힘을 쓰지 못하여 집안이 망했다. 원한을 품은 종의 아들 계략에 한 집안이 망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외말산

운암산을 검단 지역에서는 외말산이라 한다. 지구가 물바다가 되었을 때(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솔밭산은 솔 하나 걸칠 만큼, 대운산은 대 지팡이 하나 놓을 만큼, 고장산은 꼬챙이 하나 꽂을 만큼, 운암산은 말 한 마리 누울 만큼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말산이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멸앙사滅殃寺 터

검단리 북에 있는 멸앙사의 터. 이 곳에 태바위胎岩가 있다. 옛날, 이 마을 동쪽 모퉁이(속칭 바위툽)에 사는 어떤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괴이하게 여긴 식구들이 범석을 떨며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대들보 위에 천연스럽게 앉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아이의 양쪽 겨드랑 밑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식구들은 놀랍고 두려워 아이에게는 손을 못 대고, 태를 낳는 산모를 돌보는데 낳은 태가 박처럼 딱딱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겁에 질린 식구들은 그 태를 집 북쪽의 쌍바위 틈에 몰래 묻어 버렸다.

그러나 차차 이 소문이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라에서는 ‘큰 요물妖物이

다, 나라의 재앙이다’ 하고, 끝내 이 아이마저 불길하다 하여 태바위 틈에 넣어 불태워 죽였다.

그런 뒤 그 자리에 나라의 재앙을 없애 버렸다는 뜻으로 ‘멸양사’라는 절을 세워 전화위복轉禍爲福을 비는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오늘날 그 절은 없어지고 새빨간 핏자국만 태바위에 남아있다.

그리하여 이 절터를 멸양고개·멸양들·멸암들·멸양산·멸암산·멸양못·멸암못·멸양골·멸암골 따위로 부르고 있다

[강길부, 『향토郷土와 지명地名』, 정음사, 1985]

사또만디

멸양고개에서 용두말 쪽으로 검단 골각단에서 뒷산 높은 봉을 사또만디라 한다. 봉우리 위에는 편편하게 제를 지낼만한 터가 있으며 이 봉우리를 우두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음력 9월 9일 당제를 모시는데, 어느 장군이 그 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넋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한다. 검단 마을에서는 당제는 정월 보름 동피에 있는 제당에 모시고 술정자에서도 어느 대사의 넋을 길이기 위해 정월 보름 당제를 모신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깨골래 미등

운암곡 저수지 아래에 있는 묘인데 나무하러 가거나 소 먹이러 가면 쉽터가 된다. 묘의 주인이 피골새처럼 노래를 잘 불러서인지 아니면 짝사랑하던 처녀가 상사병에 죽어 한 마리 피골새가 되어 사랑하던 사람의 집 울타리에 있는 감나무에 앉아 사랑을 노래하며 묘등과 울타리를 오고 갔다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행중,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산티고개의 바위들

산티고개에서 서쪽으로 탕건바위, 고깔바위, 가마바위가 있다. 이 고개에는 탕건을 쓴 양반도 있고 고깔(중들이 머리에 쓰는 건巾의 한 가지로 흔히 상좌들이 쓰는데 천 조각으로 접고 맞추어 세모지게 만듦)을 쓴 스님을 닮은 바위, 가마바위도 있다. 처녀 총각 새신랑 새각시도 이 고개를 다니며, 탕건을 쓴 양반, 고깔을 쓴 스님도 넘어 다닌다. 탕건바위, 고깔바위, 가마바위가 나란히 있는 바위를 보면 고개를 넘다가 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탕건바위가 앞에 있으니 양반집 새각시가 시집가는 행렬 같기도 하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검단분지는 큰 호수였다

북녘이 봉해졌을 때 삼재로 물이 넘어가고 은현리 서리마을 담 뒤 못 옆에 큰 돌감나무가 있었는데 이곳에 배 줄을 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설에는 서리마을 제당이 있는 뒷골짜기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 배를 대어 배 줄을 묶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 이야기가 솔밭산이 솔 하나 걸만큼 물이 차 있다가 물이 빠질 때 이야기인지 검단이 호수일 때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다.

옛날 검단 분지가 삼재로 물이 넘는 호수이니 후곡 주민들은 산비탈에 비탈 밭을 일구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다.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에 재갈선생이 산티고개를 넘어 와 바라보니 그 넓은 호수의 물을 빼면 수십만 평의 농토가 있는데 왜 저리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가 한숨을 쉬며 호숫가로 불려 삼재로 넘어가는 물줄기를 보다가 북녘에 와서 바로 여기다 하고 맥을 찔렀다. 그 순간 하늘에 천둥이 일고 벼락이 쳐서(그때만 해도 고야 뒷산과 검단 앞산 고야산 이 능선이 연결되어 검단 호수의 제방 역할을 했는데) 북녘이 무너져서 물이 빠지게 하니 호수이던 검단과 은현들은 바닥이 드러나 넓은 들판이 되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이봉출,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멸암바위

멸암바위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검단에서 산티로 넘어가는 군도로 정확히 말하면 신암 입구 덕현마을 진입로에서 길을 건너면 묘 옆에 바위에 정으로 구멍을 뚫어 깨낸 바위가 하나 있고, 또 한 곳은 암곡마을 안 옛날 못터(멸암재) 제방에서 동쪽 언덕에 있는데, 여기 바위는 두들려 깬 표시가 난다.

일설에 뒷고을 원님이 하도 손님이 많이 찾아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 중인데 마침 용한 지관地官이 있다기에 지관을 청하여 그 비법을 물으니 바위를 깨면 된다고 했다.

또 한 이야기는 마을에 손님이 하도 많이 찾아와, 다음 이야기는 이와 같다.

바위를 깬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원시사회에서 한 부족을 점령하면 그 부족을 상징하는 물체를 멸하였을 것이며 뒤에 나오는 멸암사를 보면 민심수습을 위하여 절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멸암고개, 멸암들도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뒷고을 원터

은현리 657-10, 651-1-2, 658-1-2 주위의 논은 서리 동네 안에 있는 갯산 옆에 있는 논인데 이 터를 뒷고을 원이 있던 터라고 한다.

지금은 덕현 김재두 소유의 1,000여평 되는데 경지정리를 할 때 기와 조각이 나왔다. 은현리 사람은 이곳이 뒷고을 원터라 하며 멸암바위의 설화를 들으면 사실인 것 같다.

웅상읍 연혁에 우시산국의 성읍이 은현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암 신타바위는 고을 원터의 입구 망대에서 바라보이는 곳이니 옷맵시를 다시 손을 보고, 덕산 마을의 망닥골은 망대가 있던 곳을 지나 가안고개에는 성터모양의 돌무더기가 제당 끝에서 산 밑 대밭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의 성터로 볼 수 있다.

말당수에는 말을 매던 마당이 있었을 것이며, 서리마을의 적석총 아래의 지명은 담뒤, 담뒤못 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담뒤를 단壇 제단祭壇이 있던 자리라고 보고, 은하 솔지등 위 산 능선에 굿바위가 있으니 이것을 천제당天祭堂으로 보면 옛날 성읍지城邑地이거나 현청縣廳이 있던 자리일 것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재두,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수빈당 활빈당 이야기

조선 말 화적떼가 전국을 돌아다녔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 수빈당이라는 이름을 빌려 화적떼를 수빈당 활빈당이라고 했다.

화적떼가 뒤 고을을 털러 떼를 지어 오고 있다. 동민들은 겁이 나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동민들에게 일장 연선을 하고 난 문찬씨 조부 꼬감 영감은 탕자나무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

화적떼가 오니

“니겨, 거기 있거라. 무엇을 요청하나.”하고 물으니

“배가 고프니 밥 좀 달라”하였다.

“밥 주면 가나?”하니

“간다” 하여 그때야 동민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장만하여 밥하고 국, 거기다 집집마다 닭을 삶아 가져오니 화적떼들은 좋은 안주에 술과 밥을 배부르게 대접하니 동민에게 큰 절을 하고 산티고개로 넘어갔다. 간 큰 꼬감영감 덕분에 화적떼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운흥사雲興寺 선자암扇子巖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반계마을 원적산 동록 운흥곡蔚州郡 熊村面 古連里 盤溪마을 圓寂山 東麓 雲興谷에는 신라 진덕왕新羅 眞德王 때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대가람大伽藍의 운흥사雲興寺를 창건, 천승千僧을 거느리고 화엄경華嚴經을 설법說法하여 천성千聖으로 출세케 했다는 대명찰지大名刹地가 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반계곡盤溪谷 입구에 반계마을이라는 소박한 농촌이 있고, 여기서부터 웅장한 원적산圓寂山을 유원流源으로 흘러내리는 수정水晶같은 석간수石間水가 순례객巡禮客의 마음을 한층 청결케 해준다.

한편 계곡과 산비탈에 깔리고 자리한, 크고 작은 기암괴석奇巖怪石들은 마치 천상仙境天上仙境을 연상케 해 준다. 그리고 동구洞口의 산모랭이에 우뚝 솟은 바위 일좌一座, 이 바위를 가리켜서 ‘선자扇子바위’라고도 한다.

이 선자바위를 막 돌아 들어가노라면 부사 홍상빈府使 洪尙賓이 대서특필한 ‘운흥동천雲興洞天’이란 사대자四大字가 암면岩面에 각자刻字되어 있다. 여기서 훨씬 더 올라서면 여기저기에 옛 절터가 흩어져서 그 옛날의 운흥사雲興寺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먼저 연화좌대蓮花座臺 위에 안치安置된 많은 부도浮屠들이며, 여기저기 놓여진 대형大型의 석수통石水桶이며, 아래쪽만 남은 큰 맷돌이며, 한 평 가량의 딱바위¹⁸¹며, 대웅전大雄殿을 비롯한 각 불전佛殿과 암자庵子들을 세웠던 자리에 농작같은 자연석自然石들로 쌓아 올린 축대築臺들이며, 일대에 산재散在한 신라시대의 와편 토기瓦片土器들을 두루 살펴 피노라면, 이곳 수 천 평에 달하는 경내에 빈틈없이 세워졌던 그 날의 운흥사가 과연 웅장했음을 직감할 수가 있다.

181. 종이를 만들기 위 해 딱을 두들긴 바위

그런데 환학교喚鶴橋, 세진교洗塵橋, 청하교靑霞橋, 취적대吹笛臺, 유봉대留鳳臺, 와룡교臥龍橋 등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보이나, 지금은 어느 것인지 식별할 수가 어렵다.

이 같은 대가람은 그 후 역사를 따라 전승傳承되다가, 한번은 이 절을 찾는 과객승過客僧과 유람객遊覽客이 줄을 잇고 보니 지각없는 주지主持가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어느 도사道師와 의논을 하니 도사가 대답하기를, 입구에 있는 선자암扇子巖의 돌출부突出部를 잘라내 버리면 절에 손님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주지住持는 그 말을 듣고 손님을 막으려고 석수공石手工을 불러 선자암扇子岩을 잘라버렸는데 그 후로 손님은 끊어지고 찾는 손님이 없어 절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병란兵亂으로 회진灰塵되고 말았다 하는데, 지금도 이곳은 대명승지大名勝地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울산·울주향토사蔚山·蔚州鄉土史』, 울산문화원, 1978]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원적산圓寂山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계곡을 타고 오르면 원적산 북쪽 기슭의 골짜기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운흥사지雲興寺址가 있다. 원효대사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39년(서기 617년)에 출생하여 제31대 신문왕 6년(서기 686년)에 입적入寂 한 신라말기의 고승高僧이다. 그의 속성俗姓은 설씨薛氏요 이름은 서당誓幢이다. 내마奈麻라는 벼슬을 한 설담날薛談捺의 아들이며, 그가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고나서 법명法名이 원효元曉요, 그가 죽은 후에 내려진 시호諡號는 화정和淨이다.

그의 아버지 설담날은 상주湘州(경북 경산군 자인면) 사람으로써 그의 어머니가 꿈에 유성流星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원효를 잉태하였다. 부인이 만삭이 되었을 때 압양주押梁州의 남불지촌南佛地村 율곡栗谷마을을 지나다가 사라수娑羅樹 아래에 이르러 갑자기 배가 틀어 올라 여기서 애기 원효를 낳았다. 이때 오색구름이 일어 그 일대를 덮어 감싸 돌고 서기가 충천하였다. 그 후 그는 자라면서 남달리 총명한데가 있어서 학문에 정진을 하다가 그가 29세 때 중이 되었다.

그는 중이 되어 황룡사黃龍寺로 들어가면서 자기 집을 희사하여 초개사初開寺라는 절을 지었다. 그 후 사라수 옆에도 절을 지었는데 절 이름을 사라사娑羅寺라했다.

울산 영취산靈鷲山の 낭지대사朗智大師, 홍륜사興輪寺의 연기대사緣起大師와 고구려 반룡산盤龍山の 보덕대사普德大師 등을 찾아가서 불도를 닦아 뛰어난 자질과 총명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가 34세 때 함께 불도를 공부하던 의상대사義湘大師와 함께 불도를 보다 더 공부하기 위하여 당나라로 들어가던 도중에 요동遼東 땅에 이르러 무덤이 많은 산기슭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잠결에 목이 말라 캄캄한 어둠 속을 더듬으니 마침 물 한 그릇이 있길래 쪽 들어 마셨다. 그렇게 물맛이 좋고 시원할 수가 없었다. 갈증을 면하고 다시 누어 잠을 잤다.

아침에 잠을 깨어 생각했다. ‘간밤에 내가 마신 물이 이 산길에 어디서 난 물일까?’ 하고 살펴보니 물그릇은 다름 아닌 해골바가지였다. 그는 그것을 보자 더러운 생각이 들었고, 더러운 생각이 들자 메스꺼워짐을 느꼈다. 그는 끝내 토해 버리고 말았다. 토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이 생하면 모든 사물과 법도 생하는 것이오, 마음이 죽으면 모든 사물과 법도 저 해골과 다를 것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한 원효는 또 생각나기를

‘부처님 말씀에 삼계三界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을 뿐이라 한 것을 어찌 잊었느냐.’ 하고 그는 의상대사더러

“나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네” 하니 의상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당나라에 가나마나 일세, 오직 마음뿐인 것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으나 이미 깨달았으니 갈 필요가 없네. 나는 신라로 되돌아가겠네! 부처님도, 불법도, 모든 사물도, 오직 내 마음에 있을진대 가보나 마나가 아니겠는가?”하고 그는 곧 그 길로 되돌아서서 신라로 오고 말았다.

그 뒤 그는 분황사芬皇寺에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통불교通佛敎(원효종元曉宗·분황종芬皇宗·해동종海東宗이라고도 함)를 제창하면서 민중 속에 불교를 보급하기에 노력했다.

하루는 그의 마음이 우연히 들떠서 거리에 나가 노래하기를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내게 주면 내가 그 도끼에다 자루를 박아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 세우리다.”하고 돌아다녔다.

원효가 이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들은 서라벌 장안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줄을 몰랐는데 태종무열왕은 말하기를

“원효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슬기로운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하고 알아 차렸다.

원효대사는 종종 왕실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왕과 자주 앉으면 나라의 정사를 자주 의논했고 또 태종무열왕이 원효대사를 께이나 좋아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석궁에는 홀로된 요석공주瑤石公主가 있었는데 이 요석공주는 분황사 법회가 있을 때마다 왕비를 따라 법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보았다.

요석공주는 법회에 갔을 때마다 원효대사의 걸출한 인품에 매료되어 혼자 짝사랑 하면서 애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요석공주는 생각하기를 ‘원효대사께서는 이미 불가에 귀의한 불제자의 몸으로 속세의 여인과 부부지정을 맺을 수 없는 법신法身이거늘 내 어찌 부질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냐’고 자신을 슬하게도 나무라 봤지만 소용이 없다. 그렇게 자신을 나무라면 나무랄수록 생각은 더욱 간절해지기만 하니 기늘 길이 없었다. 요석공주의 이 같은 생각을 왕이 눈치를 챘다.

태종무열왕과 원효대사가 한번은 함께 나들이를 했는데 마침 요석궁 앞 다리 위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난데없는 회오리바람이 몰아 닥쳐서 원효대사가 쓰고 다니는 방립方笠이 날려서 다리 밑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다.

원효대사는 재빨리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방립을 건지려다가 그만 실족을 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흙탕물에 장삼을 몽땅 버려서 올라온 원효대사는 난처하기만 하였다.

태종무열왕은 때는 바로 오고야 말았구나하고 기회를 만들었다. 원효대사를 요석궁으로 들게 하고 요석공주더러 원효의 장삼을 벗겨서 빨아 정성껏 손질해서 입혀 보내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는 왕은 신하들에게 은밀히 분부해서 요석궁 안의 모든 시녀들을 밖으로 물리치고 말았다. 이 넓은 요석궁 안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석공주는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 기쁨을 참지 못했다. 요석공주는 원효대사의 옷을 벗겨 받아 들고 빨아 널었다.

빨래하는 동안에 원효대사는 이부자리에 모셔 놓았다. 물론 옷이라곤 입지 않은 채였다. 그보다는 입을래야 입을 옷이 없는 요석궁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 빨래를 널어놓고 요석공주는 몸단장 바르게 하고 원효대사의 침상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가 서로 정을 통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요석공주는 잉태가 되어 분만을 하니 옥동자를 얻었다. 이 옥동자가 후일 진정 신라의 하늘을 떠받쳤던 설총薛聰이다. 설총은 후일 대성을 해서 신라의 십현+賢중의 한사람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원효 자신이 스스로 파계破戒를 했다고 뉘우치고 소성거사小性居士라고 자칭하면서 속세의 복장을 하고 마을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광대를 만났다. 그 광대가 괴상한 박을 두들기며 춤을 추고 만담을 벌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원효도 그와 같은 박 하나를 구해들고 다니면서 화엄경華嚴經안에 있는 글귀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 一切 無尋人, 一道 出生死”라는 글속의 ‘무애’라는 두 글자로 박의 이름을 짓고 무애가無尋歌라는 노래를 지어 춤추고 노래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 다녔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보니 원효에게 배워서 염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불교에 정진하고 많은 불교서적을 저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효는 우리나라 대승불교大乘佛教의 종주宗主로서 해동불교海東佛教의 일대 중흥을 이룩해 놓았다.

그가 70세 때 3월 30일에 혈사穴寺라는 절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 혈사가 양산군 웅상

면 주진리에 솟아있는 원적산圓寂山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뒤에 고려 숙종왕은 대성 화정국사大聖 和淨國師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원호의 저서로는 법화경중요法華經宗要, 열반경중요涅槃經宗要, 무량수경중요無量壽經宗要, 미륵상생경중요彌勒上生經宗要, 영락본업경중요瓔珞本業經宗要, 화엄경소華嚴經疏,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대승육정참회법大乘六情懺悔法 등이
고 이밖에도 많은 저서가 있다.

우리나라 불교 사상에 이토록 우뚝 솟아난 원호대사가 한번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별 하나가 빛이 붉고 흐려져 있는 것이다.

원호대사는 점을 쳐 보았다. 그랬더니 방금 당나라에서는 큰 법당에 중 천명이 들어 앉아 법회를 열고 있는데 그 법당 뒷산이 곧 무너져서 법당을 덮쳐 중 천 명이 몽땅 압사할 직전에 있음에 깨달았다.

사태는 절박했다. 당장 뛰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처지였다. 원호대사는 도술을 부렸다. 판자조각에 ‘해동승 원호 천승구제海東僧 元曉 千僧救濟’라고 써서 공중으로 날렸다. 판자 조각은 순식간에 당나라의 법회하는 법당 상공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판자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공중에 놀았다. 당나라 법당 안에서 법문을 듣고 있던 한 스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스님이 밖으로 나와 보았다. 스님이 공중을 쳐다보니 이상한 판자 하나가 소리를 내면서 놀고 있었다. 스님은 법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요들 여기 나와 저걸 좀 보시오. 저기 저 공중에 판자 하나가 떠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놀고 있어요.”하니 법당 안 천 명의 중들이 모두 밖으로 우루루 나왔다.

천명의 중들이 마지막 법당문턱을 막 넘고 나서 “짹”하는 소리와 함께 법당 뒷산이 무너져서 법당을 덮쳐 버리니 법당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말았다.

천 명의 중들은 한사람도 다치지 않을 뻔했다. 이때 공중에 놀던 판자도 땅에 떨어졌다. 중들이 판자를 보니 ‘해동승 원호 천승구제’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천 명의 중들이 감탄을 했다.

신라국 스님 가운데 원호라는 스님이 대체 어떤 중이길래 이렇듯 크나큰 위기를 미리

알고 면하게 해 줬느냐는 것이다. 천 명의 중들이 의논을 했다. 생명의 은인이요, 불법을 대통한 신라의 대승 원효대사를 찾아가서 모두 그의 제자가 되자고 뜻을 모았다.

당나라 중 천 명은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넜다. 하루는 원효대사 앞에 당나라 중 천 명이 나타나서 모두 엎드려 절을 했다.

“대사! 우리들은 대사의 은덕으로 생명을 구했나이다. 대사는 우리들 생명의 은인이옵기에 이렇게 찾아와서 모두 제자가 되기를 결의했나이다.”

원효는 당나라 중 천 명을 제자로 맞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중 천 명을 당장 수용할 만한 곳이 문제가 되었다. 원효대사는 여기저기 중 천 명을 수용할 만한 절을 지으려고 돌아보다가 이곳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원적산 북쪽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대 가람 운흥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여기에 당나라에서 온 중 천 명을 수용시켰다. 이려고 나니 천 명의 중을 먹여 살려야 한다. 천 명의 중들이 바랑을 메고 양산, 웅상, 웅촌 고을에 갈려서 동냥을 한다. 이렇게 되고 보니 고을마다 온통 중들만 외글거리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닌 듯했다. 원효대사는 생각했다. 불도를 닦는 중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 도술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효대사는 중 하나를 불렀다.

“너 오늘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제일 잘사는 부잣집으로 찾아가서 쌀자루에 살이 한 자루 가득 될 때까지 염불을 해라. 만일 자루에 쌀이 가득 차지 않으면 물러 나오지를 말아라.”하고 타일러서 마을로 내려 보냈다.

중은 대사의 분부대로 제일 잘사는 부잣집 대문간에 자루를 들고 서서 묵탁 치며 염불을 했다. 부잣집 주인은 쌀 한 말을 퍼다가 중이 들고 있는 자루에 쏟아 주었다. 그런데 중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묵탁 치며 염불을 하고 있다. 주인은 왜 중이 가지 않을까 하고 돌아서서 보았더니 방금 쏟아 넣어준 쌀은 간 곳이 없고 쌀자루만 바람에 일렁거리고 있을 뿐인가.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또 쌀 한 말을 쏟아 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또 한 말을 쏟아줘 봐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비로소 부잣집 주인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옳지 이것이 바로 저기 저 산 위에 절을 짓고 불도를 수도하고 있는 원효대사의 도술이

로구나. 내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들 우리곡간의 양식 수천석이 하룻밤 사이엔들 원효대사의 도술로서 귀신도 몰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지 못하겠느냐?’하고 깨달음을 받았다. 부잣집 주인이 중더러 타일렀다.

“스님! 이제사 깨달았습니다. 공양미 백 석을 싣고 운흥사로 갖다 바치리다.”

스님은 돌아와서 원효대사에게 부잣집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원효대사는 “암, 그럴 테지. 그 부자가 깨닫지를 못했던들 어려웠을 뻔했는데 이젠 됐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날 운흥사에는 부자가 싣고 온 쌀 백 석이 절 쌀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졌다.

이 같은 소문은 널리 퍼졌다. 다른 고을 부자들이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들이 너도 나도 하고 차례로 공양미를 싣고 운흥사로 올라왔다. 원효대사가 도술을 부려서 자기 집 공간이 귀신도 모르게 비어 버릴지도 모르니 미리 갖다 바치고 복이나 받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천 명을 먹일 양식 걱정이 없어지고 마을에서 탁발하는 중을 볼 수가 없어졌다.

원효대사는 운흥사 남쪽으로 솟은 원적산 꼭대기의 평평한 곳으로 중 천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화엄경華嚴經을 설법하고, 교화를 시켰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하니 곧 우물을 얻어 천 명의 중이 마실 수가 있었다. 또 이 산에는 냉쿨이 깔려서 중들이 다니다가 걸려 넘어지곤 하였다. 원효는 산신령에게 부탁하여 침냉쿨을 없애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그 산의 길에는 침냉쿨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지를 않고 양쪽에서 자라나온 침냉쿨들이 길까지 와서는 멎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터는 중들이 침냉쿨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또 원효는 중 천 명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쪼 한 단씩을 얻어 오게 하니 천 단의 쪼이 모였다. 이것으로 쪼북을 만들어 치니 양산, 웅상의 두 고을에 까지 쪼북소리가 뚝뚝 울려 퍼졌다고 한다.

원적산은 지금 보아도 대법운지大法雲地답다. 그 웅자가 위엄하고 높아서 구름이 산허리를 감돌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천하의 절경이요, 금강산의 일봉인 듯 경건함을 느끼

게 한다.

원효대사가 화엄경을 설법한 별관을 화엄별이라고 하며, 여기서 천명의 중을 모두 성인聖人으로 교화시켰다 하여 천성출세지지千聖出世之地라고 하며, 이 산의 이름을 일명 천성산 이라고도 하고 또 원효산이라고도 한다.

원적산에는 아름다운 경치 십경이 있다.①낙암폭포落岩瀑布 ②고봉창송高峯蒼松 ③층만오중層巒午鍾 ④석굴로불石窟老佛 ⑤장포귀항長浦歸港 ⑥장등석범長燈石帆 ⑦덕계류수德溪流水 ⑧동해홍륜東海紅輪 ⑨서대망화西臺望火 ⑩남산락조南山落照 등이다.

원적산에는 많은 암자가 있다. 미타암彌陀庵, 법수원法修院, 천성암千聖庵, 원효암元曉庵 등 그밖에 신라고찰들이 많다.

운흥사로 올라가는 반계부락에 들어서면 五백년이 넘는 수령의 떡갈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고 그 뒤편 계곡 입구에 선자암扇子岩이 있다. 이 선자암은 지금은 깨트려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고 선자암의 남은 암벽에는 울산부사 홍상빈의 필적으로 운흥동천雲興洞天이라고 큰 대자가 각자되어 있다.

여기서 절터까지 계곡을 타고 오르면 중간 중간에 환학교喚鶴橋, 세진교洗塵橋, 청하교靑霞橋, 취적대吹笛臺, 유봉대留鳳臺, 와룡교臥龍橋 등이 있었다 하고, 절터에 도착하면 기와조각 토기조각들이 널려있고, 건물을 세웠던 축대들이 남아 있고, 부도가 남아 있고, 석조石槽가 있고, 제지를 할 때 쓰던 딱바위가 있을 뿐, 그밖의 것은 역대의 전란으로 모조리 파괴되고 말았다. 더욱이 지금은 일대를 논으로 개답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더욱 옛 모습을 확인하기에 힘이 든다.

또 이 계곡 입구에는 근래에 세운 관음사가 있다. 여기 사적 제21호¹⁸²로 지정된 두 기의 부도가 있다.

원효대사가 이 관음사(옛날에 있었던 절)를 창건 후에 설치한 부도라고 하는데 사리舍利를 봉안한 부도라고 한다. 하나는 높이 2미터에 둘레 1.5미터다.

182. 울산광역시시 유형문화재 제4호다.

운흥사에 천 명의 중이 수용되어 있을 때는 밥쌀을 씻은 물이 아침저녁으로 내려 올 때는 반계 골작의 물이 온통 쌀뜨물로 흘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얼음판같이 보였다고 한다.

그 후 이 절에는 많은 과객들이 드나들었는데 욕심 많은 한 주지는 절에 식객 오는 것이 못마땅하여 짜증을 부렸다. 그랬더니 한 도승이 말하기를 이 절에 손님이 안 오게 하려면 저 아래 계곡 입구에 있는 선자암을 깨트려 버리면 된다고 하였다. 욕심 많은 주지가 이 말을 듣고 석수꾼을 불러서 선자암을 깨트려 버렸더니 그 후부터는 이 절에 사람 하나 얼씬 않으니 그만 절이 차차 망해 버리고 말았다 한다.

여기서 서쪽으로 넘으면 역시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내원사內院寺가 있다. 내원사가 있는 일대의 경치도 우리 고장에서 가까운 명승지 가운데는 이름난 명승 법운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운지 원적산 중허리에는 오늘도 미타암의 범종소리가 새벽의 적막을 깨고 은은히 퍼지며 독경소리와 목탁소리도 들리고 있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원효대사元曉大師와 운흥사지雲興寺址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반계부락 원적산 북쪽 운흥곡에는 신라 진흥왕 때 원효대사元曉院大師가 창건했다는 운흥사雲興寺라는 대가람大伽藍을 세웠던 고적지가 있다. 이곳을 찾으려면 웅촌면 곡천에서 내려서 고연리 반계부락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이곳 반계부락은 소박한 농촌이며 여기서부터 계곡바닥에는 반석들이 깔려있고 계곡 양쪽 산기슭에는 기암괴석으로 수놓아져 있으며 계곡을 흐르는 심산유곡의 석간수는 투명된 청록색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한층 더 마음을 정결케 해준다.

이토록 명승절경에 세워졌던 운흥사의 건립연유와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효대사께서 동래 장안사 척관암東萊長安寺擲板庵에 기거하면서 수도에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원효대사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니 대단히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방금 저 멀리 당나라中國의 오대산 아래에서는 큰 법당에 스님 천 명이 모여 앉아 설법승의 설법을 들으면서 법회를 열고 있는데 그 법당 뒷산이 곧 무너져서 법당을 덮치게 되어있다. 대단히 시급한 사태다. 그러나 너무도 머나먼 당나라 땅이고 보니 어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도술을 부렸다.

부역문 널판자를 떼었다. 여기에는 ‘해동신라국사미원효천승구제海東新羅國沙彌元曉千僧救濟’라고 대서특필로 써서 당나라 오대산 아래의 법당을 향해 던져 날렸다. 판자는 순식간에 날아가서 당나라 오대산 아래의 법당 상공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돌았다.

이때 법당 안에서 설법을 듣고 있던 한 스님이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살며시 밖으로 나와 소리 나는 공중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판자 하나가 공중에서 돌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걸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다. 스님은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스님들 여기 나와 저것 좀 보시오! 판자 하나가 공중에서 돌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하고 소리쳤다.

스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법당 안의 스님들이 놀라 모두 밖으로 우루루 뛰쳐나왔다. 천명의 스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마지막 스님이 막 문턱을 넘어서자 ‘와장창 우루루 팡’하는 소리와 함께 법당 뒷산이 무너져서 법당을 덮쳐 묻어버리고 말았다.

실로 천지가 진동하는 산사태 사건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공중에 돌던 관자가 땅에 떨어졌다. 떨어진 관자에는 ‘해동신라국사미원호천승구제海東新羅國沙彌元曉千僧救濟’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천 명의 스님들은 그제서야 신라국의 원호대사께서 도술을 부려 자신들을 구제했음을 깨달았다.

설법하던 상좌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스님들은 들으시오. 우리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신라국의 원호스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은인 원호스님을 찾아 신라로 건너가서 제자가 됩시다. 여러 스님들의 의향은 어떻소?”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무도 반대하는 스님이 없었다. 천 명의 스님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 해동 신라국으로 원호스님을 찾아왔다. 자그만한 척 판암에서 수도에 정진하고 있던 원호대사는 갑자기 밀어닥친 천 명의 스님들을 맞이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호대사는 천 명의 스님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절을 세우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절 터를 보았다. 그러다가 이곳 반계골짜에 자리를 잡고 가람을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운흥사雲興寺인 것이다. 천 명의 스님이 먹기 위하여 쌀을 씻은 물이 계곡으로 흘러내리니 멀리서 반계곡을 바라보면 여름철이라도 마치 얼음이 얼어붙은 듯하였다고 한다. 절을 세워 천 명의 스님들을 수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게 되었으나, 천 명의 스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천 명 분의 양식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천 명의 스님들은 모두 바랑지고 염주걸고 목탁치고 염불하면서 인근 마을로 내려가서 동냥을 해야 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운흥사가 있는 인근 마을에는 매일같이 한마을에 스님 수 십 명씩이 돌아다니며 동냥을 하니 마을사람들은 중들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 소리가 높았다.

원호대사는 이 같은 백성의 원성을 듣고는 고민하게 되었다. 원호대사는 궁리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다. 원효대사는 스님 하나를 불렀다.

“듣거라! 너는 내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제일 큰 부잣집으로 가서 이 자루에 동냥을 해 오너라! 단 빈 자루면 자루에 쌀이 고일 때까지 돌아 오질 말고 동냥을 해서 와야 하느니라!”

스님은 쌀자루를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제일 큰 부잣집 대문간에 서서 목탁 치며 염불했다. 부잣집 주인이 쌀 한 말을 들고 나와 자루에 부어넣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아서자 쌀자루는 그만 빈자루가 되고 말았다. 스님은 계속 목탁 치고 염불했다. 집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웬일일까? 방금 부어넣은 쌀 한 말이 순식간에 간곳이 없고 빈자루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부잣집 주인은 또 한말을 부어넣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또 한 말을 부었건만 마찬가지였다. 그때서야 부자는 깨달았다.

“스님, 알겠습니다. 이는 운흥사에 계신 원효대사의 도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내일 공양미 백 석 싣고 운흥사로 올라가서 시주 하겠습니다.”

스님은 그냥 그 말을 듣고 운흥사로 돌아왔다. 스님은 원효대사에게 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다음날 부자는 공양미 백 석을 싣고 운흥사로 올라가서 시주했다.

이 같은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다. 소문을 들은 다른 부자들도 앞을 다투어 공양미를 싣고 운흥사로 올라가 시주 하였다. 이는 원효대사의 도술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그냥 있다가는 자기 집 곡간의 곡식이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운흥사 곡간으로 올라가고 말 것으로 깨닫고는 차라리 자진하여 시주하고 공이나 닭의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운흥사의 곡간은 스님들이 탁발하지 않고도 항상 가득 차있어 운흥사의 스님들로 하여금 끼쳐지던 민폐가 일소되고 말았다.

원효대사는 천 명의 스님들을 산꼭대기의 편편한 별관으로 불러 매일같이 화엄경華嚴經을 설파하여 교화시켰다. 그러나 천 명이 마셔야하는 식수가 문제였다. 원효대사는 옥황상제께 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수를 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물줄기가 솟아올라 우물을 파서 천 명의 식수를 해결했다.

그리고 또 천 명의 스님들이 산을 오르내리는데 칙녕쿨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원효대사는 산신령께 칙녕쿨을 없애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스님들이 다니는 소릿길에는 칙녕쿨들이 뺏어오다가는 되돌아가고 길을 가로질러 넘는 일이 없었다.

원효대사는 천 명의 스님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쪼 한 단씩을 얻어오게 하였다. 스님들은 마을로 내려가 얻어온 천 단의 벳짚으로 쪼북을 만들었다. 천 단의 벳짚으로 만들었으니 쪼북은 매우 우람했다. 원효대사가 커다란 북채를 휘둘러 치니 쪼북소리가 우렁차 양 산고을 웅상고을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래서 원효대사는 당나라에서 온 천 명의 스님들을 화엄경으로 설교하고 교화시켰더니 천 명의 스님들은 모두 성인聖人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산을 천성산千聖山 또는 천성출세지지千聖出世之地라고도 한다.

그 후 원효대사도 입적하고 말았으니 둥글게 입적했다는 뜻으로 원적산圓寂山으로 불리워치고 있다. 그 후 운흥사에는 욕심 많은 주지가 있어서 절간으로 찾아드는 식객들을 몹시 못마땅히 여기고 짜증을 부렸다.

이때 한 노승이 말하기를

“주지께서 이 절에 찾아드는 식객들 때문에 몹시 속상해 하는 것 같구요?”

“네! 그렇습니다. 노장스님. 어떻게 하면 이 절에 식객이 오지 않게 될까요?”

“그야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게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아래 계곡 입구에 있는 선자암扇子岩을 석수를 불러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

주지스님은 곧 석수를 불러 선자암을 깨뜨려 버렸다. 이 바위를 깨뜨리자 여기에서 큰 용이 나와 하늘에 승천하려다가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붉은 피를 쏟았다. 이런 일이 있고 부터는 운흥사에 식객은 커녕 불공하러 오는 신도마저 끊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 선자암이 깨뜨려진 자리 옆에는 울산부사 홍상빈蔚山府使 洪尙賓의 친필로 ‘운흥동천雲興洞天’이라는 네 글자가 암면에 크게 새겨져 있다.

그 맞은편에는 근년에 세워진 관음사觀音寺가 있으며 계곡에는 환학교煥鶴橋, 세진교洗

塵橋, 청하교靑霞橋, 취적대吹笛臺, 유봉대留鳳臺, 와룡교臥龍橋 등이 있었던 자리가 있으며, 석조石槽, 부도浮屠, 토기편, 기와조각, 각종 축대, 주초석 등이 산재하고 있어서 그 차지한 면적으로 보아 운흥사가 과연 천 명의 스님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가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운흥사는 그 후 각종의 병란으로 파괴, 방화, 훼손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는데, 운흥사에 있었던 귀중한 유물들은 병란 때 모두 도난당하고 말았다. 그 중 나무구유는 지금 통도사에 운반되어 보존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내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원적산圓寂山

원적산은 양산군 웅상면梁山郡 熊上面에 있는 명산名山으로서, 신라 고승高僧인 원효대사元曉大師가 크게 불사佛事를 일으킨 전설 많은 산이다.

룻밤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니 당나라에서 법승法僧 천 명이 모여서 큰 법회法會를 열고 있는데, 그 법당法堂이 무너져서 천명의 법승法僧이 몰사하겠음을 알고 이 천명의 법승을 구하기 위하여 넓다란 나무관자에 ‘해동승원효海東僧元曉가 천승千僧을 구하노라.’고 크게 글자를 써서 중국의 하늘을 향하여 던져 날렸더니, 그 관자는 순식간에 날아서 천 명의 법승들이 모여 법회法會를 하는 법당法堂위 공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놀고 있었다. 이 때 한 중이 공중에서 관자 하나가 소리를 내면서 놀

고 있음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천 명의 법승法僧들이 모여 있는 법당法堂을 향하여 그 소식을 전했다.

과연 기이한 임이라 천명의 법승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두 밖으로 나왔다. 법승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자 곧 법당法堂이 무너지고, 공중에서 놀던 판자가 땅에 떨어졌다.

법승法僧들은 판자에 쓰인 글을 보고 감탄했으며, 해동海東 조선朝鮮에 해탈한 도승 원효대사가 있음을 알고는 모두가 원효대사를 찾아 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원하였다.

원효대사는 법승法僧 천 명의 청원을 수락하고 원적산圓寂山 북北쪽 반계곡盤溪谷에다 운흥사雲興寺를 창건하고 불사佛事를 열었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다. 천명의 법승을 먹일 양식과 물이 필요하였기에, 원효대사는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빌어서 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을 얻었으며, 천 명의 법승을 양산과 웅상熊上으로 내보내서 양식을 동냥하게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도술道術을 부렸다고 한다.

한 법승이 하루는 큰 부잣집으로 동냥을 가서 문전에 서서 염불하고 목탁을 치니 주인이 쌀 한 되박을 자루에다 부어 주었으나, 그 중은 가지 않고 계속 염불하고 목탁을 치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바랑 안을 보니 방금 준 쌀이 간 곳 없어 이번에는 한 말을 부어 줬으나, 역시 간 곳이 없었다.

기이하게 여긴 주인이 이번에는 한 섬을 부어 줬으나 역시 마찬가지라, 그때서야 주인은 원적산 운흥사의 원효대사의 도술임을 깨닫고, 스님에게 말하기를

“스님 이제야 깨달았으니 그냥 돌아가시오. 내일 당장 공양미를 실어다 드리리다.”하고 그 다음 날 많은 쌀을 실어다가 운흥사에 시주하였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공양미를 실어오는 사람이 줄을 이어, 천 명의 법승이 먹을 양식 걱정을 면하고 오직 수도에 정진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또 천 명의 법승들이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모두가 머리에 난데없는 뿔이 돋아나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원효 대사가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읽고 설파하니 뿔이 삼시간에 없어지고 말았다 한다. 이렇게 하여 천승千僧은 천성千聖이 되어 출세를 하니, 원적산圓寂山을 가리켜서 원효 산元晩山 혹은 천성산千聖山이라고도 한다.

그 후 운흥사雲興寺는 언제 폐찰廢刹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사지寺地만 남았으며, 이 산 중턱의 명승지名勝地가 많으며 미타암彌陀庵에는 천연석굴天然石窟이 있어 여기서 수도修道한 많은 선사禪師가 배출되었다. 또 이 석굴石窟에서 역대歷代의 병난兵難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했다고 전한다.

운흥사지雲興寺址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반계부락에서 천성산千聖山 북쪽 계곡을 따라 올라 갈라치면 광활한 신라 고찰지가 나타난다.

이곳에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께서 승려 천 명을 수용한 큰 절을 지었던 자리다. 원효대사는 당시 기장 장안사 척관암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점을 치니 지금 저 멀리 중국 오대산 밑에 있는 큰 법당 안에는 승려 천 명이 모여앉아 법회를 열고 있는데 그 뒷산이 곧 무너져서 법당을 덮쳐서 승려 천 명이 몰살하게 되어 있었다.

사정은 매우 급하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정지문 판자를 떼다가 ‘해동사미원효척관구중海東沙彌元曉擲板救衆’이라고 써서 당나라 오대산 밑 법당상공을 향해 날렸다.

판자는 순식간에 날아가서 법당상공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놀았다. 이때 한 승려가 밖으로 나와 공중을 쳐다보았더니 판자가 놀고 있기에 모든 승려를 향해서 판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놀고 있다고 외쳤다. 승려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공중의 판자를 쳐다보는 순간 뒷산이 무너져서 법당이 매몰되고 말았다. 동시에 판자도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승려들은 원효대사의 도술에 의하여 천명의 승려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자 모두 신라로 건너와 원효대사의 제자가 되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 큰 가람을 창건하고 천 명의 승려를 수용하고는 화엄경華嚴經으로

교화시키니 천 명의 승려는 모두가 성인聖人으로 출세를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이 산을 천성산千聖山이라고 부른다. 운흥사도 임진왜란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이곳에는 토기편, 기와조각, 주초석, 축대, 딱바위, 석수조, 부도, 호박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입구에는 울산부사 홍상빈洪尙賓이 쓴 ‘운흥동천雲興洞天’이라는 암면각자가 대서특필로 남아있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금비둘기

고연리 반계마을 운흥동천雲興洞天 입구에 부채를 닮은 선자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깬 것은 운흥사 전설에 있는 것과 같고, 선자바위를 깨자 금비둘기 세 마리가 날았는데 한 마리는 용상을 용당의 박씨 대밭으로 갔기 때문에 울산 박씨 문중에서 팔도 병사 및 대대로 벼슬을 했고, 한 마리는 양산의 통도사로 날아가서 통도사가 흥하여 우리나라 3대 사찰이 되었다.

나머지 한 마리는 눈이 어두워 날다가 그 자리 운흥골에 떨어졌다. 그곳에 비둘기를 물어 두었기 때문에 운흥골의 지력이 아직 남아 있어 말 그대로 구름처럼 흥할 날을 기다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구름처럼 몰려온다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할미당

마을에서 운흥사 진입로를 따라가다가 관음사 밑에서 개울을 건너면 무릉도원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옆에 돌무더기가 있다. 서리의 적석총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무너져 내린 돌들을 주변의 계단식 논둑을 쌓는데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 적석총은 양산시 하북면 한들마을을 지나 내원사로 가는 도랑가에도 있다.

또 두서면 은편리 지경고개에서 국수봉 쪽으로 도로에서 30m 산언덕을 오르면 있다.

이렇게 웅촌지방에는 서리, 반계, 한들까지 적석총이 세 곳 있다. 반계 적석총은 할미당이라 부른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불탄바위

지금의 운흥사 주자장 자리에 불탄 바위가 있다. 바위 표면 틈새에 새까만 콜타르 같은 물질이 끼어 있다.

바위에 장작을 때면 석뇌石惱(석유)가 나온다는 최남선 저著『조선상식』에 나온다. 바위가 있는 곳은 와룡교 위이며 수박다리 건너편이며 대웅전과 관전이 갈라지는 곳이다.

이 주위에도 건물이 있었거나 나무를 쌓아 두었는지 운흥사가 불에 탈 때 그을린 것이라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물 갈래 돌

붓도랑은 옛날 물레방아 터 위에 있었는데 도랑은 반계 뻘에서 바로 내려가는 도랑과 들판으로 난 도랑이 갈라진다.

윗들논으로 들어가는 물은 밑도랑을 모두 막아야 물이 들어간다. 날씨가 열흘 넘게 가물면 웃도랑의 작인과 아랫논의 작인 사이에 물싸움이 시작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싸움에 어느 해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다.

마을에서는 아무리 하여도 해결이 나지 않아 고을에 알렸다. 고을 원님이 현장답사를 하여 마지기 수와 논에 물먹는 양까지 계산하여 돌에 흙을 파서 아래 위 작인의 입회하에 물의 양을 합의를 보았다. 보 도랑에 물 갈래 돌을 심고부터 원님이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였는지 물을 분배하는 물 갈래 돌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도 물량에 대한 불평이 없었으며 물싸움도 없어졌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사타골寺畚谷

밭 마당에서 반계로 올라가는 진입로 등을 진등이라 하는데, 진등에서 오리밭들 쪽으로 넓은 굽탱이가 있다.

괴천 저수지를 막기 전에는 바위와 돌이 뒤섞인 불모지 버덩이 있다. 저수지 위에 남은 땅도 바위와 돌이 뒤섞여 있지만 옛날에 이 골짜기는 운흥사의 소유로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어 절寺+논畚=사답골이라 불렀는데, 어느 해에 홍수가 나서 바위와 자갈이 논을 망가뜨리는 산사태가 나서 사태골이 되었다. 사타골, 사태골, 사답골이라 부른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삽제插堤

삽제-꽃을 삽插 제방 제堤이므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삽제로 물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다. 촌로村老의 말에 의하면 홍수 시대(노아의 홍수가 한국에도 있었다.)에 괴천 뒷산과 검단 앞의 고야산이 원래 붙어 있었는데, 검단이 거대한 호수일 때 물이 삽제를 넘었다고 한다. 검단 초등학교 앞들을 ‘북녘들’ 이라고 했는데 홍수시대에는 봉해진 곳이라고 해서 봉녘들’이 ‘북녘들’ 이 되지 않았나 한다. 봉해진 부위가 무너져서 삽제를 꽃고 끼워 넣은 제방이라는 지명만 남아 검단분지가 생기고 북녘들로 거렁이 생겼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목짚래기

연답마을을 감싸고 있는 뒤 능선은 연화봉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용의 형상을 하여 좌 청룡이 되어 앞으로 능선으로 늘어서 내려오는데 유명한 지관이 이곳을 보고 큰 장군이 태어난 지세라고 해서 마을의 북쪽 반계 가는 길목에 있는 용의 목쯤 되는 곳을 잘랐다. 그래서 목짚래기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밭마당(말마당)

밭마당은 고연리 군도와 관동 반계 진입로로 갈라져 사거리가 되며 조금 더 가면 연답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다. 밭마당의 어원은 말마당에서 찾아야 하며 옛 길은 언양에서 삼제로 들어와 밭마당에서 주남 떡고개와 용당으로 가는 갈림길 자리다.

말이 쉬어 가는 말마당이 밭마당으로 변했지만 김단선사유적시대, 이곳이 말 마구가 있었던 말마당인지도 모른다. 거도가 마숙놀이를 하던 마당인지 생각해 본다. 우리 민족은 소보다는 말을 먼저 가축화했으므로 소가 자는 우사牛舍를 마구馬舍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방아다리

진동이 반계에서 내려오다 괴천 저수지 둑 째에서 한 능선이 갈라지니 디딜방아 다리처럼 두 능선이 되어 방아다리처럼 생겼다.

방아다리 한 능선은 진동이고, 한 능선은 고연저수지. 제방 흙으로 없어졌다.

밭마당이 망하면 반계가 흥하고 반계가 망하면 밭마당이 흥한다는 속설이 전해 온다. 반계가 방아괴 자리이고 밭마당이 방아다리 자리가 된다.

방아다리를 눌리면 방아괴가 끄떡 들린다. 지금 밭마당 쪽에 공장을 짓고 집을 지어 방아다리에 짐이 실리는 형상이니 반계는 방아괴로 끄떡 들리니 반계가 좋아진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행지골

연답 마을 큰 미등 아래의 골짜기 논을 행지골 또는 향교골이라 한다. 향교는 현군 府에 있는 교육기관이며 고려 때부터 있었다. 신라시대에 웅촌, 웅상은 우풍현인데, 고려 초기에 울산에 합해졌으니 향교가 있을 리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신라시대 고을 현이 있던 자리이니 무슨 명칭이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서당 비슷한 것이 우풍현 시대에 이곳에 있었다면 향교란 이름이 생기고 난 후 행지골도 현縣에서 교육을 하는 집이 있었으니 행지골이라 부를 수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주개등과 진풀갓

연답 행지골 위의 산은 상부봉에서 내려온 능선, 편편한 등의 중간에 묘가 있고 묘 앞에 진풀이 있다.

이 묘는 솔의 형국이라서 석물을 하지 않았다. 솔전에 돌을 놓으면 돌이 튀고 솔이 갈라진다. 묘 앞에 좌판을 놓으면 솔전에 돌을 놓는 것과 같다. 이 묘는 상두봉에서 내려오는 능선은 주개모양이고, 묘 앞에는 진풀이 있고, 그 앞은 말랑뜰(판랑뜰)은 묘 앞에 판을 놓은 형상이니 이곳을 명당이라 하며, 솔 형이니 주개도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담 안에, 담 밖에

어느 때에 쌓았는지 넓이 2m, 높이 1m의 담장이 고연리 갓골 당메기부터 마을 뒤에 빙 둘러 있었다.

광복 후까지 있었는데 논둑을 쌓는다고 돌을 모두 뽑아가고 없다. 밑자리는 밭으로 개간하여 지금은 흔적도 없다.

고연리 관동마을은 검단리 선사유적지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밀밭재 아래 통두고개 밑에 있다. 자연 마을을 담을 둘러친다는 것은 밖의 적을 막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 마을은 소쿠리 터로써 바닷가에서 양산지방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당고개

옛날 언양, 동래를 오가던 대로大路일 때 발마당에서 당촌 길과 관동에서 와지로 오는 오솔길과 마주쳐서 사거리가 된다. 그 옆에 돌을 모아놓은 당이 있어 오가는 사람은 침을 세 번 뱉고 돌이나 나뭇가지를 당위로 던지고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한다. 하루의 행운을 빌던 당고갯길은 지금은 공장부지로 변하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야당만디

야단만디라고도 하며 불교에서 야단법석野壇法席(야외에서 베푸는 법회를 말한다.) 속 설로 야단법석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중구난방으로 소란스럽게 구는 것을 말한다. 마을 뒤 산만디는 산 능선이 낮고 평평하고 넓어서 넓은 마당, 즉 야野당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공동 산이므로 마을동회 및 놀이도 했었다. 지금은 동민들이 중구난방으로 개간을 하여 밭이 되어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소똥옆

한여름 더위에 집에서도 숨이 막히는 삼복. 안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옷을 입어야 했던 당시 점심을 먹고 나면 남정네들은 마을 앞 나무가 있는 그늘을 찾아 나온다. 그것은 등물이나 하고 휴식하라는 안사람에 대한 무언의 배려이다.

숲이 많은 그늘은 새벽 풀을 뜯고 아침 요기를 끝낸 동네의 소들이 매어져 있는 곳이니 소똥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사람에 버금가는 소를 위했던 농경사회라 더위를 피하는 데는 소똥 옆이라도 개의치 않았다. 쇠파리가 달려들어도 소똥 옆으로 꾸역꾸역 몰려 팔베개하고 솔바람도 불겠다 곤한 낮잠들을 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배읍봉 밭치

회야강이 중대 앵밑으로 흐를 때 배읍봉 아래 큰 마을(일설 고려시대)이 있었다고 한다. 기와 조각과 그릇 조각은 보이지 않는다. 편편한 곳은 밭이 되어 있지만 메밀모 같은 자갈이 흙 보다 많아 밭 경계는 돌무더기가 성처럼 쌓여 있다. 목화재배 때는 목화를 심었으며 겨울에는 대국밀(호맥)을 주로 재배했다. 한 집은 수박을 심어 원두막까지 있었으니 농촌의 아릿한 전경이라 할 수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각점산

물 건너 마을의 주산이 되며 양편에 비자나무골과 소매골이 있다.

구 한말舊 韓末 전 국토 일체 측량 시, 기점으로 삼각점 돌을 심었다.

6.25사변 시 미美 측지부대원이 삼각점을 확인한다고 혼자 물 건너 마을에서 직선으로 올라가 확인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美軍은 군인 정신이 참 투철하다고 했는가 하면 일부는 길로 안 가고 벼랑진 숲속으로 가는 바보 놈이라고 비웃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도장골道藏谷과 영장골靈藏谷

도가 감추어져 있는 곳. 어느 도인이 도를 닦은 곳이라 한다. 원시 촌락 시대에 도道의 길을 걷는 도인이 있었다.

배움봉에 산성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촌락이 있었으니 중요한 병기나 식량을 감추어둔 골짜기로 추정 할 수도 있다.

도장골을 도둑이 많아 도둑골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를 닦던 곳이거나 도가 감추어진 곳인지 모르지만, 소매골 도랑 건너편에 영장골이 있다. 영장골은 영이 감추어진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같은 곳에 도道와 영靈이 감추어진 골짜기가 있으니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도장골에는 폭포가 있는데 삼면이 바위이고 높이가 3m 정도 된다. 삼복더위에 땀띠가 나면 도장골 폭포에 물 맞으러 간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삼학골三鶴谷(삼마골三馬谷)

산의 지세가, 세 마리 학鶴이 곧 날아 갈 듯 한 형상을 하고 있어 삼학골三鶴谷이며, 세 마리의 말이 있어 삼마골三馬谷이다. 옛날부터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골프장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만 해도 울산의 명문가 무덤은 이곳에 다 있었다.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윗대 무덤과 경주 김씨 산소가 있었으며, 천안 이씨 산소는 명당이라고 하여 옮기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솔베지골

솔매(독수리)를 닮은 산이어서 솔매지골, 솔베지골이라 하며 성지가 명당이라고 말목 꽃은 곳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원고개, 대문 밖, 외살피

상대1반과 2반 사이의 고개를 원고개라 한다. 원고개에 대문이 있었고 그 앞이 대문밖 이 고 더 앞은 외살피이다. 중대 마당 물레에서 대문 쪽으로 전달하면 대문을 지키던 군사가 큰 소리로 외친 고개, 즉 원고개이고 그 앞이 대문밖들이다. 지금 국도와 못골짜크 도랑이 만나는 지점이 외살피이다. 군사들이 적이 있나 없나 살피던 곳이니 외살피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송지 말리

대문앞 원 고개→외친 고개. 외살피→살피보는 곳. 파구미→파수를 보던 구미진(후미진)곳.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송지말리 송지말랑도 솔松의 지명이 아닌가 싶다.

송은 솔이라는 솔松→쏘다. 송=솔→쏘다→쏸다→활을 쏘다.

지→땅 지地→손가락 지늄 이니→과녁→활을 쏘는 과녁.

말리=말랑→편편한 만당→만디 즉, 화살을 쏘는 과녁이 있는 만당이다. 고분도 몇 기 있다. 마당물레와 대문밖, 외살피, 파구미 군사들이 활을 쏘던 만디이며 사정射亭이 있던 곳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밀밭재

통두굴 만디, 상대와 관동 경계 지점에 편편한 산 능선을 밀밭재라 한다.

밀은 밀양의 밀처럼 밀어낸다는 뜻을 가졌으며, 밀양密陽을 밀 추推로 추화현推火縣이 되었다. 추령→보문단지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 고개, 신라 경주는 울진과 울산을 울타리로 하고 밀양고개에서 넘어오는 가야 백제의 적을 몰아내고 추령 고개에서 넘어오는 왜적을 밀어내면 된다. 밀은 밀 추이니 추화현 추령도 밀어낸다는 밀밭과 같은 말이다.

밀어낸다는 중심 지역이 검단리 선사 유적지 인지 우시산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대대리 고분군의 밀집 지역인지 알 수 없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파구미

파구미를 한자로 파금미破金未라 쓰지만, 금빛 나는 돌멩이도 하나 없는 곳이니 금을 파던 곳은 아니다.

검단선사 유적지가 그 아래 있으며, 고연리 갯골冠洞마을에 돌로써 담을 쌓아 ‘담안에’ ‘담밖’이란 지명이 있다. 파구미 남쪽에도 마당물레, 대문밖, 외살피, 송지말랑이란 지명이 있으니 파수 보는 곳이 아닌가 싶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부채골

부처봉 정상은 원형 골짜기로 되어 있어 여름에 바람을 일게 하는 부채모양의 동그란 능선이 둘러있으며 그 골짜기 안은 부채의 대로 엮은 살 모양의 작은 능선이 펼쳐 있어 부채를 닮아 부채골이라 한다.

골 안에는 찬물샘과 조그마한 못도 있으며 아래편에 논도 서너 마지기 있다. 식전食前에 중대마을에서 소 먹이러 가는 장소며, 삼월 삼짇날 화전 터이다. 부처님이 읍을 하니 부처봉에 절을 받는 골짜기이며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온다.

부채골에 절이 있었다 하며, 지성스님이 운흥사에 계시는데 운흥사가 망하고 나니 부채골에 와서 부처님 25위를 모시고 기도를 하였다. 지성스님은 원효스님 앞이다. 절이 망하니 부처님은 통도사로 갔다. 지성스님은 미타암에도 계셨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굿바위

검단 고개 동편 산 만등巒燈에 우람한 집재만한 바위군이 있다. 이를 굿바위라 하며 윗면이 토담집 마당만 하여 굿을 하였다고 하며, 우시산국의 도읍지가 대대라고 하면 천제당이 있었을 것인데 연구 과제이다.

옛날 어느 장수가 살구(살구는 공기받기의 울산 지방의 방언)를 받다가 엎어놓은 방구가 바위의 틈 사이를 덮어 굴이 되니 범굴이라 한다.

또 장수가 이(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는데 옷에서 이를 잡아 바위에 놓고 보통 사람들은 손톱으로 누질리면 툭하고 죽는데, 장수는 이를 바위에 놓고 주먹으로 쳐서 이는 죽지 않고 주먹 자국만 남아 있다. 이 자국을 장수 이 잡은 자국이라 한다. 몇 사람이 둘러앉을 넓이이며 소 먹이러 와서 범굴에서 비를 피하기도 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온양고개

온양고개는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에서 온양면 중광 별바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온양면에서는 ‘터쑈고개’라 한다.

대대평야를 지나면 옛날 울산 순라군들이 강줄기를 따라 밤에 순라를 돌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밤에 도는 강 회야강回夜江 징검다리를 건너 고개길 3분지 2쯤 오르면 방보다 큰 넘떡바위가 있으며, 그 산의 봉우리를 ‘봉화다리(봉화산)’라 부른다.

울루루 갔다 울산장 하두 바빠 못 보고
언제 볼까 언양장 어정 어정 못 보고
남실 남실 남창장 물이 깊어서 못 보고
(각설이 장타령 중에서)

남창장은 각설이 타령처럼 울산지방의 3대 시장 중 하나였으며 회야강 유역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의 물물교환 장소였기에 장날이 되면 첫 새벽부터 웅촌면민과 멀리 언양에서부터 이고 지고 소바리에 싣고 온 장꾼들로 한나절까지 온양고개 길은 줄을 이었으며, 평일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누부 밥아 (누나밥아)

지금도 가물면 물싸움을 한다, 양수를 한다 야단인데, 그 옛날 수리시설이 부족하니 3년 내리 한해를 입어 흉년이 든 해였다.

갑오년 가뭄과 계모년 보리 흉년 든 해라고 할까? 온양면 바리¹⁸³ 부락의 한 총각이 하도 배도 고프고 시집 간지 3년 동안 소식이 없는 웅촌 누님 집에 놀러왔다. 시집살이 삼년만에 만난 동생이니 그 누님 얼마나 반가웠겠나.

누님 시가집 또한 인심이 좋아 사돈총각 왔다고 씨암탉 잡아 보신시킨다. 그래도 누님은 충충시하 눈치 보며 3년 만에 만난 동생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여 3일 만에 보낸다.

빈속에 닭 잡아 보신하고 오는 날 아침에는 찰밥에 주개떡까지 먹고 찰떡까지 한 보따리 들고 나서니 배가 자꾸 불러온다.

칠팔월 염천에 산등성이를 넘어 들길을 지나 회야강 징검다리를 건너니 어찌나 배가 불러오는지 허리끈이 떨어진다. 한 손에 떡보자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주우말(한옷 바지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움켜쥐고 고개를 오르니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배는 자꾸만 불러온다.

길옆을 보니 키만큼 자란 닥삼대가 삼대처럼 서 있기에 움지 하고 닥삼대를 꺾어 껍질을 벗겨 새끼처럼 꼬아 허리띠를 하고 떡보자기를 등에 붙쳐 닥삼대 껍질로 동여매니 오르막 고갯길 오르기가 한결 수월하다.

수월한 것도 잠깐 뿐 넘떡바위까지 오르니 배가 자꾸 불러오고 밑에서는 설사까지 나오려고 한다. 얼굴은 죽을 상이 되어 주우말을 묶은 닥삼대 껍질끈을 아무리 풀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않는다. 책칼이나 가졌으면 그 질긴 닥삼대 허리끈을 잘라나 보겠지만 그렇게 넘떡바위 위에서 몸부림치며 노래를 부르니

183. 온양읍 발리鉢里

땀도 대다 온양고개
질고 길다 온양고개
우리 자형 인심 좋아
흔하더라 누부 밥아
질기더라 낙삼대야
아쉽더라 책칼이여
온양 웅촌 살기 좋다
배가 터져 내 죽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현경,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가마바우

온양면 중광 별바우에서 서쪽으로 가면 용당고개를 넘어 양산군 웅상면이고, 북쪽 길을 따라 고개를 오르면 능선 길에 가마바우가 있다.

회야장 유역에서 가장 큰 시장이 남창장이니 옛날 교통편이 부족할 때에는 발로써 걸어야 하니 용당고개를 넘어온 웅상사람과 온양고개를 넘어 온 웅촌사람이 별바우에서 별떼처럼 모여 온양면 사람과 함께 3개면 사람이 장길을 걸으니 사람을 알게 되고, 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니 낯익은 얼굴이 되어 인간대사 혼사문제가 거론 되는 게 세상살이라고 한다.

혼사 철이 되면 온양고개는 가마가 둘 셋 넘나들고 평일에도 혼사집이 줄을 잇는다.

옛날 어느 해 겨울, 노처녀와 그 어머니가 벌바우 주막에서 고갯길을 오르니 가마 한 채가 내려오고 있다. 노처녀 한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 가마 타고 이 고개를 넘을까 생각하며 길옆을 비켜서서 가만히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이팔청춘 십육세도 되지 않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는 가마를 바라보며 저 어린것도 벌써 시집을 가는데 나는 무엇이 병신이라서 가마 타고 이 고개를 넘지 못하나하고 자기도 모르게 독백하며 눈물을 흘리니 그 어미, 자기 딸이 너무나 측은하여

“온양 웅촌 가마는 이 바위에서 다 쉬어 가는데 너는 원이나 없게 이 가마 바위를 한번 타보라” 하니 노처녀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바위에 올라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좋은 낭군님 만나게 하여 주십사’하고 기도 드리니 그대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 돌이 되었다. 그 형상이 꼭 가마를 닮아 가마바위라 불리어지며 오늘도 넘떡바위에서 쉬고 있는 낭군님을 기다리는지 온양고개를 넘어가면 길옆에 쉬고 있는 가마를 닮은 바위가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헌경,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옥수골 玉水谷

중대 마을 앵뎃 온앞만디 밑에 반월성처럼 생긴 곳이 있다. 들판과 회야강 건너편 섭갓 아래에도 여인의 눈썹 같은 초승달이 있다.

앵뎃 반월성에서 원을 그리면 들판을 지나 섭갓아래 초승달과 선이 합해져 보름달이 된다. 이 반월성 자리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곳에는 주춧돌을 닮은 하마석이 지금도

있다.

부잣집 처녀의 이름이 옥수였는데 옥수골에 연못을 파고 별당을 지어 기거하였다. 옥수 처녀가 살던 골짜기라고 하여 옥수골이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옥수골 못이 있었는데 생수가 나오는 곳이 못 안에 있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잠두형

상대 2반 회관이 있는 등이 누에 모양이고, 그 끝이 누에 머리이니, 파구미에서 송지말랑으로 내려온 능선이다.

대대 들판은 잠두형의 누에가 있었기 때문에 넓어졌다고 한다. 들판이 뽕잎이니 누에가 자꾸 갹아먹으면 갹아먹은 자리에 회야강이 흘러가 백일봉 발치에까지 갹아먹으니 국도 변으로 흐르던 회야강이 이제는 앞산 아래로 흐르고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능골陵谷 도랑

솔매지골에서 출원한 물이 외살피에 와서 통도곡골 물과 합쳐 상대골, 새미골, 까치골, 저리 참샘골등 대대리 4개 동의 물이 합쳐 대대의 평야를 거쳐 궁기_{弓基}(또는 궁답)에서 회야강과 합수한다. 능골 도랑의 발원지인 솔매지골 띠밭등의 고분과 중대 동만 고분군 하대부락(지금 동피라 부르는 석실 토광묘) 하대 저리 부락의 고분 등 능 규모의 고분이 즐비하게 있었다. 우시산국의 왕릉 골짜기 물을 전부 모아 흘러가므로 능골 도랑이라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백사선생님과 두산 아재

중대 동네각단 위에 웅달샘이 있는 집터가 두산 아재 집터다. 두산 아재는 지리산에 가서 백사 선생을 만나 주역을 공부하였는데 영남 좌도에서는 도인으로 소문이 났다.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스승이

“눈을 감아라.” 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뜨니 바다 물이 입까지 차올랐다.

백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는 간이 작아 이 이상 공부를 못하니 네가 가진 지식만 해도 영남 제일 갈 것” 이라 하며 하산을 명하고 한 마디 덧붙였다.

“너는 부자로 못 사니 좋은 일이나 하며 살아라” 했다.

그 후에 두산 아재는 불쌍한 사람이 찾아오면 좋은 점괘를 빼어 길하게 하였으며, 놀기는 팔만석꾼八萬石君, 황산 만석, 기장 와예 만석, 언양 만석, 울산 손 만석꾼과 놀았다. 언양에 지붕이란 기생을 첩으로 삼았는데 그 기생이 삼백 석의 부자였다.

기생이 두산 아재한테 반하여 삼동면 하잡 앞들 논 30마지기를 큰 늪은이(두산 아재의 본처)에게 양식하라고 주었다.

두산 아재는 주역에 능했는지 죽는 날과 시간을 알았으며, 오복장 개설 날에 일진이 안 좋다고 출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가자고 해서 장에 갔다 온 후 병을 얻어 돌아갔다. 자식의 앞날에 대해 예언하였는데 예언 그대로 공학박사 두 명과 검사가 나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우불선생

우불당 앞에 오형제 바위가 있다. 임진왜란 때 왜병이 구름처럼 밀려와 우불당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우불선생이 종이에 글을 써서 오형제 바위 앞 강물에 던지니 왜병들이 발이 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우불선생이 호통을 치니 왜병의 장수가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며

“이제부터 당堂하고 절寺하고는 손대지 않겠으며 그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돌아가겠습니다.”고 애걸하기에 나라 운세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게 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호식虎食 안샘

샘가에 개바위가 있어 사람이 호식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마을의 안쪽에 있는 샘이며 샘 옆에 개 모양을 한 바위가 있다. 어느 옛날 호랑이가 시장을 느껴 마을 뒷산에서 내려다보니 샘가에 개가 한 마리 있어 잡아먹으러 가니 개는 보이지 않고 13~14세 되는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이 처녀를 물고 불사금터(은현리 산 236)에서 잡아먹었다. 꿩과리와 징을 치며 마을사람이 올라가니 머리와 뼈는 그대로 있고 살은 한 점도 남은 것이 없었다.

18세기 중엽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탱자나무

중대의 한복판에 삼거리 길이 있고, 그 길목에는 속은 썩고 갈라졌지만 둘레가 한 아름 되는 탱자고목이 1960년도까지 있었다.

그 앞에는 커다란 바위(1m³ 사방이 넘었다)가 두 개 있는데 바위에는 성혈 같은 구멍터가 있었다. 그 곳에 흙과 풀을 섞어 밥을 짓고 하던 어릴 적 각시놀음이 기억난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으로 지금은 모두 없어졌지만 그 바위가 고인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 갈래 길에다 북쪽에 안 골목이 있으니 외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밤이면 무서웠다. 탱자나무 위에서 장닭이 피를 흘리며 운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밤에 심부름하기가 무서웠다. 중대 탱자나무 위에서 피를 흘리는 장닭과 경주 계림 숲의 닭 전설을 연결을 해 본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중대 김씨 산소 이야기

중대 김씨가 중심들에서 여름철 보리를 베고 있는데 온양고개에서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걸어오다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하던 일을 썰매치고 달려가 쓰러진 노인을 업고 와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초배기밥을 노인에게 떠먹이니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노인을 업고 집으로 와 방안에 편히 모시고 죽을 끓여 구완을 했다. 정신을 차린 노인이 “내가 지관인데 좋은 자리를 봐 주겠다.” 하면서 죽하등竹下嶺 봉산뜰로 가자한다.

그 자리에 묘를 쓰려고 천광을 내니 돌이 하나 있어 들어내자 말자하며 형제간에 의견이 달라 한참 토론을 하다 돌을 들자 비둘기가 나왔다. 한 마리는 용당 대밭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눈이 어두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비둘기를 처음 있던 자리에 넣어 묘를 썼다.

중대 김씨 입향조 묘墓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당고개

온양 고갯마루에 돌을 모아 놓은 당이 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돌이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당에 던지고 침을 세 번 뱉어 길을 무사히 다녀오도록 빌던 풍습이 있었다.

고개에서 온양면 쪽으로 10여m 아래에 있었는데 차도를 내면서 없어졌다.

당은 원시 공동사회에서 돌을 쌓아 경계를 표한다거나 마을의 길목에 돌을 쌓아 두어 전투용으로 대비하였을 것이다.

이 돌무더기가 신앙적 존재로 모셔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서낭당은 주로 고개목에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마을의 주신이 마을 복판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개목에 자리 잡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벌^蜂바우 주막

바위가 벌집을 닮아 벌바우라고 한다. 벌바위에서 내광 골짜기를 보면 제법 넓다. 이곳은 웅상에서 용당고개를 넘어오는 장꾼과 웅촌에서 온양고개를 넘어가는 장꾼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장날이 되면 벌떼처럼 모였다 헤어지는 곳이다. 지금은 번잡한 교통 때문에 벌들은 모두 날아가고 빈집만 있는 것 같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애기씨골

장나집골 남쪽 골짜기가 애기씨골이다. 처녀가 목욕을 하다가 죽고 말았다. 처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애기씨골이라고 전해 오지만, 애기는 몽고말로 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주꾸러미 몇 개가 들어간다는 소沼의 이름은 전부 애기소, 아기소이다.

운화리 박치기골 애기소와 바리의 이애소, 이애더미 웅촌 상대 애아듬도 모두 몽고말 애기에서 나온 것이며 애기씨골은 물 맑은 골짜기다. 넓은 디이(등) 바로 밑에 있다. 삼면이 반석이고 폭포 높이는 3m 정도 흐름 걸어 물을 맞았다.

그때만 해도(1960년 이전) 옛날이라 등에 땀띠가 돌아도 젊은 여자들은 산 속이라 가지 못하고, 나이 많은 늙은 할매가 여름 한 철 두서너 번만 간다. 소 먹이러 가면 물을 맞고 놀던 곳이다.

아래에 적은 가사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노랫말이다

도마산에 가서 도마질 하고
장나집 골에 가서 장내 말고
쿵키가니 쿵쿵한 냄새가 난다
물청골에 가서 목욕하고
애기씨골에 처녀 만나러 가자

[『웅촌면지熊村面誌』, 차의수,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대복동뫼

남암산 줄기가 진등을 따라 내려와 울산 박씨 묘의 명당을 이루고, 계속 내려와 동뫼에서 끝이 난다. 이를 진등이라 하며 그 끝이 동뫼이다. 전설이 하나 있다.

오래고 오랜 옛날, 대복천 개울가에서 어떤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으니 진등산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산을 바라보며

“나도 봄나들이를 못하는데 산이 봄나들이를 가나”고 한숨 섞인 말을 하니 산이 멈춰선 곳이 동뫼산이 되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차의수,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차장군

아랑 영감이라는 사람이 통천에 살고 있었다. 신리 통천 경계지점에 큰 서나무가 있어 여름철 일꾼들의 쉼터이며 마을의 정자나무다.

농청 시절에 향수 1명, 숫총각, 갈장보(2명)등 논을 메던 일꾼들이 서어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논에 김을 메러 갈장보가 앞서 나가는데 그 앞을 중이 지나간다.

그 때만 해도 마을 텃세가 있을 때라서 마을의 장인 향수가 “저놈 잡아오너라.” 하니 거기 있던 농꾼들이 중을 잡으러 달려간다.

일꾼들이 달려가도 중은 몇 걸음 정도 앞서 태연히 걸어가고 있었다. 향수(아랑영감) 어른이 중의 태연한 태도가 괄씸하여 서어나무 밑에 있던 큰 방구를 어깨에 얹고 달려갔다.

장재뭇을 지나 고개를 오르니 베리끝에 중이 가고 있었다. 못산 논까지 달려가니 중이 돌아보며

“야야, 발 다칠라 곱게 오너라” 조용히 타이른다.

그제서야 향수 어른은 가슴이 섬뜩하면서 그 중이 ‘도사’라는 것을 알고 논 가운데 돌을 던지고 도사를 향하여 큰절을 하고 돌아왔다. 지금 석천에서 통천다리를 건너 수연어린이집을 지나 오르막 중간 지점 아래 논바닥에 30년 전만 해도 방만한 바위가 있었는데 웅기 흙을 파고 그 구덩이에 바위를 깨서 넣고 묻어 버렸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아랑 영감 물기 돌

아랑 영감이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아랑 영감 물기 돌이 하나 있다.

광터보 밑 산자락에 길다란 논이 몇 마지기 있는데, 맨아래 논이 물기의 물은 회야강으로 떨어진다. 해마다 한 뼘이 아니라 한 팔씩 논바닥이 강으로 떨어져 나가니 아랑 영감이 강 가운데 있던 집채만한 바위를 가져다 물기 돌로 심었다.

망시논 맨 일군이 목욕을 하면서 그 물고 밑에서 물을 맞았다. 하루는 아랑 영감이 등을 긁어달라고 하기에, 한참 힘이 솟는 젖머슴이 아무리 긁어도 자꾸 더 긁어라 하였다. 화가 난 젖머슴은 집게로 아랑 영감의 살을 집어 힘껏 당기니 살점이 떨어 졌다. 그때야 “이놈, 손톱으로 꺾비재” 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장자뭇莊尺堤

웅촌면 통천리熊村面 通川里에 옛날 한 장자가 살고 있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는 일이나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또 이루어 놓은 살림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부자가 욕심이 나서 더 재산을 늘어나게 하려 할,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그런 욕망이 달성되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다.

웅촌熊村의 이 부자도 예외일 수는 없어 살림을 모을 때나 그것을 지킴에 있어 많은 말썽들도 나고 인색한 소문은 고을 안에 퍼져 있었다. 하루를 두고도 많은 과객들이 드나들고 동냥바치들의 치닥거리도 짜증거리의 하나였다. 그래서 때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살아볼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다.

하루는 수도하는 한 중이 요령을 흔들면서 동령動鈴을 구하고자 뜰에 들어서고 있었다. 뜰에서는 이때 몇 사람의 머슴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주인도 마침 머슴들의 일을 시키고 있었다.

조금 전에도 동냥을 하는 사람이 한차례 지나갔는데 또 중이 찾아와서 염불을 하니 그만 짜증이 나서 주인은 본성이 들어나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까짓 중에게 줄 동량洞糧이 어딴노. 소똥이나 한 바랑 여어조라.” 하였다.

머슴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모두 머뭇거리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 주인은 머슴들을 호통하였으나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깰 수 없어 모두 어찌할 줄 모르고 별별 떨고만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은 그만 화가 치밀어 큰 삽을 들고 외양간에 들어가더니 쇠똥을 한 삽 담아 들고 나와 중의 바랑에 부어버렸다. 쇠똥을 받은 중은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남겨놓고 길을 떠나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얼마가지 않아 여름철이 와서 자주 비가 오는 장마가 접어들고 있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일터를 찾아 나가고 없었다. 이때 마을에는 큰 변고

가 일어나 산천이 벽해가 되고 있었다. 갑자기 큰물이 닥쳐 장자집을 쓸어가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들과 산에서 내려와 보니 장자집은 큰 못으로 변해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랄 일이었을 뿐이다.

뒷사람들은 이 못을 장자못(莊尺堤)이라 하였으며 장제못(長堤堤), 장기못이라고도 하였다. 뒤에 이 못가에 있는 마을을 못산(池山)이라 불렀는데 이 장자못은 웅촌면 통천리(熊村面 通川里)에 있다.

장자못(莊尺堤)의 설화와 같이 부자들의 잘못을 경계한 전설은 울산지방에 많이 전해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황어수 보와 황포수

옛날 삼발골(통천 마을 입구)은 물이 없어 밭만 있었는데 황포수가 거기에 살았다.

하루는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데 노루가 앞서 달아난다. 죽어라 하고 따라가는데 밭둑 밑에 가더니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노루가 넘어진 밭둑 밑으로 가니 노루가 새끼를 낳아 앞밭로 새끼를 들어 황포수에게 보인다. 황포수는 새끼 뱀 짐승은 잡지 않는데 새끼 낳은 노루를 잡을 수 있나 하고 노루님 새끼를 잘 키워라 하고 돌아온다.

그 해 겨울눈이 적설로 왔다. 꿈에 노루가(수염이 허이던 노인이라고도 한다) 와서 따라

오라고 한다. 노루를 따라 가면서 행여나 길을 잃을까 하여 삼대를 한 아름 들고 나서며 삼대(재랍)를 쫓으며 노루를 따라 가면서 눈 위 노루의 발자국을 따라 꼬챙이를 꼽아 놓았다.

이듬해 해동을 하고 노루 발자국 따라 붓도랑을 만드니 황어수 붓도랑이며 길이가 3km, 황어수 보는 석천과 통천 경계에 있는 다리 아래에 있으니 삼발굽까지 심리가 넘는 붓도랑이다. 황포수가 막았다 하여 ‘황어수 보’라 하며 그때부터 통천 입구 삼발들에 모를 심어 황포수는 부자가 되었고, 통천 마을도 부촌이 되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돌 들경 낚시루와 병영

통천 마을에서 뒷동네로 해서 야산을 넘으면 노방들이고 들 가운데로 길이 있다.

이 길로 해서 회야강을 건너면 건너밭골이고 절터골로 해서 반정을 넘어간다. 불당골에 1500평되는 돌 들경이 있는데 차기준(70세) 할아버지가 15~16세 일 때 풀 베러 가서 돌 들경에 앉아 쉬면서 돌을 던지니 쇠 소리(징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치우니 들경 밑에 낚시루 불기 그릇이 짝 차 있다. 어린 나이니 다 가져 올 수가 없어 노방들에 김 메고 있는 어른들을 불러 지고왔다.

통천 동리에 와서 어른들은 서로 ‘니 꺼다 내 꺼다’ 싸움을 하다 소문이 울산 병영까지 소식이 전해져 여름날 땀을 흘리며 낚시그릇을 지고 좌병영이 있던 울산 병영에 가서 바쳤다.

건너 밭골 절골에 절이 망할 때 절에 쓰던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며, 절이 언제 망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대창과 돌망태

구한말 어수선한 시절, 마을은 마을 사람이 지켜야 했다. 수상한 무리나 도둑떼가 오면 먼저 본 사람이 징을 쳤다.

이 시절 덕현 마을에, 대창 끝에 양철로 창끝을 만들어 달아 진짜 창 같이 번득거리도록 만들고, 새끼로 자그마한 돌망태를 던지게 좋게 만들어 집에 준비하였다가 징만 치면 들고 나와 던질 수 있도록 했던 임기 어른이 있었다고 전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이봉출,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미타굴 彌陀窟

원적산圓寂山(지금 양산군 웅상면 서창) 미타암彌陀庵에 있으며 석굴石窟 안은 10여 인이 앉을 수 있고, 굴屈 안의 천정天井에서 석간수石澗水가 떨어져서 하루 한 사람이 마시면 알맞은 양이다. 그리고 굴屈 안에는 미타불상彌陀佛像이 안좌安坐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타굴 속에서 쌀이 떨어져 손님이 하나 오면 하나 먹을 만큼, 열이 오면 열 사람이 먹을 만큼 떨어졌다. 하루는 욕심 많은 상좌 중이 구멍을 넓히면 쌀이 많이 흐르겠지 하고 부지깥이로 쭈시니 더 많이 나오라는 쌀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왔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금수金水

원적산圓寂山에 있으며, 일명 불지佛池라고도 하고, 비가 올 때나 가뭄이 되어도 물이 불어나거나 줄지를 아니하며, 금색金色이 물 위에 뜬다고 하는데, 이 물을 오래 마시면 습증濕症을 고친다고 전한다.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천성산 자락에 성불암과 금봉암이 있다. 두 암자의 석굴에서 물이 나서 고이는데 금빛이 나서 금수라 하며 암물, 솟물이라고도 한다. 6월 유두날이나 칠월칠석날 암물 솟물을 한달음에 먹으면 그 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돌무더기 무덤

내기 입구에 돌들경이 명석 서너 잎만큼 깔려 있다. 어느 해 걸인이 내기 동네에서 밥을 얻어 나오다 돌무더기에 앉아 밥을 먹고 따뜻한 햇볕에 그대로 잠든 듯이 저승으로 갔다.

마을 사람이 발견하여 '공동묘지에 묻어 주자, 또 다른 자리에 묻어주자' 하다가 '죽은 자리가 명당이라고 이 자리에 묻자' 해서 그대로 묘를 만들었다.

3,4년 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거지들의 자손인 벵타이 맨 부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시신을 명당에 모신다며 차에 싣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몰죽음을 당했다. 3,4년 만에 자식들이 부자가 되었으니 처음 걸인이 누워 있던 자리가 바로 명당이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석천 제당¹⁸⁴

석천에는 안제당과 바깥제당이 있다. 안제당은 석계제당이고, 바깥제당은 석천제당이다. 이조 고종 말까지 두 마을이 있었으며 지금도 제당이 두 군데 있다.

석계 제당은 밤숲 동쪽 강변(지금 별장 물레방아 터)에 있었는데, 1930년도 태풍 때 제당이 떠내려갔다. 바깥 제당은 할머니 모시는 제당인데 ‘골목할매’가 집이 없으니 안제당에 가서 얻어먹어야 했다.

그런데 안 제당 골목기할매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 마을에 우환이 계속 들었다. 1940년도에 동뢰산 끝자락에 제당을 지어 골목기할매를 모시니 동네가 편안해졌다. 당산나무는 회나무인 데 사라호태풍(1959) 때 넘어져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었다.

그 중 한 아이가 나뭇가지를 갖고 놀다 다리를 다쳤다. 제당을 짓고 성주풀이를 하지 않아 그렇다 해서 해운대 점 할매를 모시고 와서 대를 잡고 동네 곳을 하니 마을이 편안해졌다. 골목기할매의 성씨는 김씨와 신씨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교천,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184. 채집과정에서 혼돈이 있는 것 같다. 안제당이 석계제당이고, 바깥제당이 석천제당이다. 석천제당은 2020년 6월 천도굿을 한 후 제당을 없앴다.

칠성바위

온양면 강양리 회야강 하구에 바위가 있는데 하늘의 북두칠성을 닮은 일곱 개의 바위가 있다. 북두칠성은 움직이는 별인데 초저녁에는 북두칠성바위 위 하늘에 있다가 밤이 깊으면 회야강 강줄기를 따라 움직이니 밤에 도는 북두칠성의 움직임처럼 강줄기가 생겼다고 회야강이라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우불산신사于弗山神祠에 얹힌 설화

우불산 남쪽 기슭에는 회야강回夜江을 굽어볼 수 있는 곳에 우불산신사가 있다. 이 산신사山神祠도 흥람興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꽤 오래 전부터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우불산신사사적于弗山神祠事跡에 의하면 조선 태조太祖가 암회조국지망暗懷肇國之望하고 편력 명산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설단 기도하였다는데 사후事後에 그 터가 있다 하였다.

또 전하기를 임진왜란 때 왜병倭兵이 산山의 남쪽에 포진하고 있을 때 홀연히 바람이 일어 왜진倭陣을 급습하여 왜병 수백數百을 섬멸하니 후인들이 그 바람을 신풍神風이라고 진지를 왜시등倭屍證이라 하였다고 한다.

우불산于弗山 앞길에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한들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야 하거늘

만약 말을 탄 채 간다면 일대 화를 면치 못하였다.

하루는 경상감사慶尙監司 양씨楊氏가 그 말을 듣고도 이를 의심하여 교만하게도 승마한 채 지나는데 홀연히 한 점 홍운紅雲이 산정에 뜨더니 맹호猛虎로 돌연 변해 물어죽이니 그 묘가 아직 웅촌면熊村面 검단檢丹 산록에 있다 한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 조정에서도 이를 듣고 영험靈驗이 크다 하여 인조仁祖 갑신甲申에 신사일칸神祠一間 제사齊舍 삼칸三間을 세우고 좌우의 임야 몇 정町 및 단답壇畓 5두락斗落을 단재壇財로 하여 해마다 2, 8 양월 하정일下丁日에 울산부사蔚山府使로 하여금 치제하였다는 것이다.

일제日帝때는 강제로 역부役夫를 동원 신사神祠를 헐게 되는데 누구도 두려워하여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 윤씨일인尹氏一人이 장담하고 집을 헐더니 불과 수일이 지나자 추구를 만나 피를 토하고 죽었으며, 그 후 왜헌병倭憲兵이 칼을 차고 말을 몰아 왜시등倭屍嶺을 지나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뭄이 심함에 관민이 비를 빌었으나 효험이 없자 웅상 웅촌 양면 사림熊上熊村兩面士林들이 의논하여 1918년에 신사를 중수하고 제사 3칸間을 중건하였던 것이다.

신사에는 ‘우불산신지위于佛山神之位’라는 위패를 봉안하고 지금에는 웅상 웅촌양면熊上熊村兩面유림들이 해마다 음력 8월 하정일下丁日에 제사를 받들어오고 있다. 이 우불산신은 조선조에서 소사小祀로 정하여 유관치제遺官致祭하여 왔음으로 초헌관도 울산에 있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웅상읍지熊上邑誌』, 웅상읍사무소, 1995]

왜시등과 우불신사

임란이 일어나니 울산부 서면장西面將은 우불신사 위 우불산성에 군사를 주둔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병이 지경고개를 넘어 새버든(덕계)에서 화승총을 쏘면서 울산을 향하여 물밀듯이 달려온다.

성을 지키는 서면장은 어떻게 하면 저 왜병을 쳐서 물리치나 하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도인이 터벅터벅 올라온다. 모양은 걸인 같지만 풍채를 보니 위엄이 있고 보통사람이 아닌 것 같다. 서면장(웅촌, 웅상을 임란 때는 서면이라 했다.)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저 많은 왜적을 어떻게 물리치나”고 물으니 도승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였다. 도승은 왜적이 벌써 회야강 건너편 왜시등(웅상을 삼호리 삼니마을 입구의 솔밭)에 구름같이 진을 치는 것을 물끄러미 생각 없이 바라보더니 필묵을 꺼내어 종이에 글을 써서 손에 들었다.

그런데 산들바람에 날려 글 쓴 종이가 대운산 상봉 최고봉에 떨어졌다. 적은 앞에서 화약총을 쏘아대고 이군은 났을 잃고 종이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니 대운산 상봉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낙엽이 하늘을 덮고 왜시등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낙엽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군병이 되었다. 낙엽 하나가 병졸 한 명이 되어 왜병을 순식간에 전멸시켰다.

서면장은 하도 고맙고 적을 물리친 도승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상부에 보고하고 전쟁이 끝나면 상이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하며 도승의 공은 제가 치하하기보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고 말하니

“소승은 아무 것도 한 일도 없고 재간도 없으니 무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게 대운산 산신님과 우불당신于佛堂神님의 덕과 조화이니 우불당사를 개축하시고, 그 앞을 지날 때는 하마령下馬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승은 대운산에 살고 있으니 대운산신大雲山神님께는 제가 축원하겠습니다”고 말하더니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왜시등倭屍嶺은 왜병의 시체가 포개 있어 왜시등이란 지명이 생겼다.

촌로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왜병은 화승총을 쏘는데 아군은 우불산성城을 의지하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대항하는데도 화살 한 개에 왜병 한 명이 죽었다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이씨李氏와 국풍國風 이야기

가근방加近方에서 어느 집안이 한참 흥할 때 재산이 불꽃처럼 일어나 우리도 이쯤 되니 대구에 용한 풍수, 국풍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으니 모셔다가 선대 묘와 산소 자리를 보아 두자고 의논이 되어 국풍을 모셔 온다는 소리가 근방에 퍼졌다.

부지런한 이씨는 나무나 하러 대운산을 오르는데 국풍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다. 용한 풍수, 앓은뱅이 국풍이 왔다고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도 한 마디씩 이 묘 쓰고 부자 되었는데 하고 뿔뿔이 흩어지니 풍수인 국풍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 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

지게 진 이씨와 앓은뱅이 국풍만 남았다. 이씨는 앓은뱅이 풍수를 산에 두고 오자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지게에 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한 삼일 이씨 집에서 쉬고 정신을 차린 국풍은 주인을 보고 생명의 은인이니 좋은 자리를 몇 자리 봐 줄 테니 지게에 나를 지고 회야강을 따라 가자고 하였다. 초천을 지나 석천 벼락더미에 도착하자 지게에서 내려달라 하였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다 동쪽 쪽으로 가자하더니 지금의 이씨 종가집 터에 가서 부엌자리에 말목을 꽂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집을 지으라고 일렀다. 그 집터가 좋아서 이씨 가문이 발복을 하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붕어형의 집터

노방산 능선이 서진하여 석천마을을 소쿠리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데 마을 동산 동쪽에는 소쿠리 안에 든 붕어이며 회야강 쪽으로 헤쳐 나갈 형상을 하고 있다. 붕어는 꼬리 부분에 힘이 모여 있으니 동쪽은 몸통이고 이씨 고가가 있는 발드불은 꼬리이다.

힘이 있는 꼬리 부분에 이씨들이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붕어의 머리 부분 앞에 연못을 파서 붕어가 회야강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연못 주위는 꽃터라 불렀는데 온갖 꽃으로 정원을 꾸며 그 집터의 넓이는 한 500평되었다.

이렇게 붕어형의 지형에 머리 앞에는 연못을 파서 온갖 화초로 정원을 꾸며 붕어를 놀게 하고 꼬리 부분에 집을 지었으니 인물이 나서 벼슬을 하고 재산이 모여 가근방에서 돌래 부잣집이라 불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김씨 솔 이야기

석천에는 김씨가 먼저 입향하고, 그 다음 신씨, 그 다음 이씨가 입향하였다 한다. 이씨 종가 집터는 본래 김씨 집터인데, 이사를 갈 때 솔이 하도 커서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다. 그 솔 때문에 이씨가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통천제당 이야기

통천제당은 지금은 회야댐에 수몰되었다. 자암서원에서 보면 남동쪽으로 삼밭들 한가운데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서기1940년) 제당이 있던 자리가 국유지였으며, 평수가 150평이었다. 당수나무로 포구나마가 어른 네 명이 팔을 벌려 안을 정도로 굵은 나무가 한 주 있고, 신수神樹나무는 회나무로 어른 두 명의 굵기였고, 아릅드리 소나무도 몇 주 있었다. 제당은 없고 논 가운데 신목에 제를 드리는데 그 제당 터가 국유지여서 석천의 개인이 불하를 받았다.

통천 동민들은 하루아침에 제당 터를 잃고 ‘골목기 할매님을 어찌나’ 하고 우왕좌왕했는데 불하받은 땅 주인이 나무는 경주에서 이사와 살고 있는 목수에게 팔고, 땅은 땅대로 팔아버렸다.

나무를 산 목수가 나무를 베려고 하자 동네사람과 마찰이 일어났다. 땅 주인과 동네사람들이 합의보기를, 골목기할매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난 후 나무를 베기로 했다.

골목기굿을 하는데 대잡이가 대를 잡으니 대가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옆에 있는 탱자 나무 숲에 쳐 박혔다. 이러기를 5, 6차례. 골목기님을 달래고 달래 앓을 자리로 가시자 하니 지금 동네 입구 작은 골짜기 참나무에 대가 붙었다. 그 산 임자가 땅을 기증하여 제당을 지어 골목기님을 모셨다.

목수는 제당 터에 있던 아릅드리 신목을 톱으로 잘라(들리는 말에는 식당 도마를 만들어 판다고) 다시 토막토막 내었다. 그 때 동해남부선 철도가 개통된 후라 토막 낸 신목을 지게로 지고 덕하역까지 운반하여 철도로 부산까지 가져갔다.

마을 제당을 지어 골목기님을 모셨으니 마을 편안해야 하는데 자꾸 동네 안이 시끄럽고 불상사가 나고, 아픈 사람도 많고, 애기도 많이 죽어서 동네 회의를 몇 번 연달아 한 결과 골목기님을 원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동네에서 불하받아 판 원 제당 터를 다시 사서 목조 제당을 짓고 골목기님을 다시 모셨

다. 그 후로는 마을 편안하였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차용호,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어사 박문수 이야기

박문수朴文秀(1691 숙종17~1756 영조32)는 조선 영조 때 문신으로 1724년(영조3년) 정미환국으로 소론小論이 기용되자, 영남 암행어사로 나가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다가 웅촌 오복을 지나게 되었다. 오영장 육부사 취문就文의 묘에 참배를 하여야지 하고 산소를 찾아가니 이 묘의 석물이 경주 왕릉보다 더 호화스럽다.

조용히 후손을 불러 아무리 우리 일가이지만 이것은 너무하니 필요 없는 석물을 땅에 묻어라 지시하고 갔다. 이 묘가 대북리 오복마을 골 안 취북형에 있으니 이곳은 오복 5대 명지의 하나로 치며, 영장군 묘라고 영남일대에서는 알고 있는 집안이다.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깊은 다리와 서장군徐將軍

서장군은 달성 서씨로 웅상을 매곡에서 태어났다.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지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출생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때만 해도 웅상읍이 웅촌면으로서 울산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이니 울산 출입을 자주 하였는데, 어느 날 하루 밤티고개를 넘어 날이 어두운데 깊은 다리쯤에 오니 개울가에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인가도 없는 깊은 다리 개울가에 빨래하는 여인이 하도 이상하여 가까이 가서

“이 야밤에 여자가 요망하게 빨래는 뭐어냐” 하며 한 섬만 한 바위를 들어 여인에게 던지니 여인은 여우소리를 내며 즉사하였다.

갑자기 간 큰 서장군이지만 간이 서늘하고 무서움이 닥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축지법으로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아뢰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매구(여우)란다. 하시며 서장군을 큰 독안에 숨겨두고 바깥채에 있던 디딜방아를 방에 들고 와서 죽은 사람같이 옆을 해놓고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나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서장군 있는냐고 물으니 서장군이 어제 저녁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들어오더니 한기를 느끼며 자리에 누웠는데 아무리 간호를 해도 새벽에 죽었다고 했다.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왕 돌아가셨으니 시체라도 한 번 보자고 하기에 방문을 열어주니 옆한 디딜방아를 손으로 쥐니 바싹바싹 부러지고 방아괴(디딜방아 머리, 쇠로 만들었다)를 쥐어 보더니

“서장군이 여기에 힘이 있었구나” 말하며 돌아갔다. 집에 찾아온 사람은 서장군이 죽인 매구(여우)의 남편이었으며 서장군 묘는 웅상읍 매곡리 산 78번지에 있고 가까운 일가가 성묘를 하고 있다.



두 동면편

내물왕奈勿王(나밀왕那密王)과 김(박)제상金(朴)堤上

제17대 나밀왕那密王 즉위 36년인 경인년庚寅年(390년)에 일본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대왕께서 신성神聖하다는 말을 듣고 저희로 하여금 백제百濟가 지은 죄를 대왕에게 아뢰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어 우리 임금께 성의를 표하게 하십시오”라 했다.

이에 왕은 셋째 아들인 미해美海(미토희未吐喜라고도 함)를 일본으로 보냈다. 이 때 미해美海는 열 살이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아직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내신內臣 박사

람朴娑覽을 부사副使로 팔려 보냈다. 일본왕은 이들을 30년 동안이나 억류抑留한 채 돌려 보내지 않았다.

눌지왕訥祗王 즉위 3년인 기미년己未年(419년)에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의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대왕의 아우인 보해寶海가 지혜와 재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위하여 특히 저희들을 보내어 간청하는 바입니다”라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다행으로 여겨 이 일로 해서 화친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우인 보해寶海에게 명령해서 고구려로 가게 했다. 그리고 내신內臣 김무알金武謁을 보좌補佐로 함께 보냈다. 장수왕長壽王도 그들을 억류抑留해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눌지왕 10년인 기축년己丑年(425년)에 왕은 여러 신하들과 나라 안의 호협豪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히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세 순배 돌고 음악이 울려 퍼지자,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우리 아버님께서 성심껏 백성의 일을 생각하신 까닭에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멀리 왜왕倭王에게까지 보내셨다가 마침내 다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또 내가 왕위王位에 오른 뒤에 이웃나라의 군사가 몹시 강성強盛하여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오직고구려만이 화친하자는 말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우를 고구려로 보냈는데, 고구려에서도 또한 억류해 두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 아무리 부귀富貴를 누린다 해도 일찍이 하루라도 이 일을 잊고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만일 이 두 아우를 만나서 함께 아버님 사당에 뵈올 수 있다면 온 나라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누가 능히 이 계교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 했다. 이 말을 듣고 관리들이 입을 모아 아뢰기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혜와 용맹을 겸한 사람이라야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삽라군插羅郡 태수太守인 제상堤上이 옳을까 합니다”라 했다. 이에 제상을 불러 물었다. 제상은 두 번 절하고 대답하기를,

“신臣이 듣자오니 임금께 근심이 있으면 신하가 욕을 당하며, 임금께서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일의 어렵고 쉬운 것을 따져서 행한다면 이는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또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한 뒤에 움직인다면 이는 용맹이 없는 것입니다.”

니다.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하나 임금의 명령을 받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 했다. 왕은 매우 가상히 여겨 술잔을 나누어 마시고 손을 잡아 작별해 보냈다.

제상은 왕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바로 북해北海길로 향하여, 변복變服하고 고구려로 들어갔다. 보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할 날짜를 약속해 놓고는, 제상은 먼저 5월 15일에 고성高城 수구水口에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지자 보해는 병病을 핑계하고 며칠 동안 조회朝會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도망하여 고성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왕은 이를 알고 수십 명 군사를 시켜 쫓게 하니 고성에 이르러 따라 미쳤다. 그러나 보해는 고구려에 있을 때에 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쫓아온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화살의 촉을 뽑고 쏘아서, 보해는 몸을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다.

눌지왕訥祗王은 보해를 만나보자 미해美海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한 몸에 팔뚝이 하나만 있고, 한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잃은 대로이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느냐”라 했다.

이때 제상은 이 말을 듣고 말을 탄 채 두 번 절하여 임금에게 하직하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바로 울포粟浦 갯가에 이르렀다.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울포까지 쫓아갔으나 남편은 이미 배에 오른 뒤였다. 아내는 간곡하게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제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일 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왜국倭國에 도착해서 거짓말하기를,

“계림鷄林의 왕이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버지와 형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해서 여기로 온 것입니다”고 했다.

왜왕은 이 말을 믿고 제상에게 집을 주어 편히 거처하게 했다. 제상은 늘 미해를 모시고 바닷가에 가서 놀았다. 그러면서 물고기와 새를 잡아다 왜왕에게 바치니, 왜왕은 매우 기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제상이 미해에게 말하기를,

“지금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하니, 미해는

“그러면 같이 떠나십시다”라 했다.

그러나 제상이 말하기를,

“제가 만일 같이 떠난다면 왜인(倭人)들이 알고 뒤를 따를 것입니다. 원컨대 저는 여기에 남아 뒤쫓는 것을 막겠습니다.”했다.

미해가 다시 말하기를,

“지금 나는 그대를 아버지나 형뎡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버리고 혼자만 돌아간단 말이오?”라 했다.

제상이 말하기를,

“제가 공公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 드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술을 부어 미해(美海)에게 드렸다.

이때 계림(鷄林)사람인 강구려(康仇麗)가 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팔려 호송하게 했다.

미해를 떠나보내고, 제상(堤上)은 미해의 방에 들어가 이튿날 아침까지 있었다. 미해를 모시는 좌우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보려 하자, 제상이 나와서 말하기를,

“미해공(美海公)은 어제 사냥하는 데 따라다니느라 몹시 피로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 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좌우 사람들은 이상히 여겨 다시 물었다. 이에 제상이 대답해 말하기를,

“미해공은 이미 떠난 지 오래 되었소”라 했다.

좌우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왜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기병(騎兵)을 시켜 뒤를 좇게 했으나 따르지 못했다. 이에 제상을 가두고는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라 왕자(王子)를 몰래 돌려보냈느냐?”라 했다.

제상이 대답해 말하기를,

“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왜국 신하가 아니오. 이제 우리 임금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을 뿐인데, 어찌 이 일을 그대에게 말하겠소?”라 했다.

왜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는데, 계림의 신하라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오형(五刑)

을 갖추어 너에게 쓸 것이다. 만일 왜국 신하라고 말한다면 후한 녹祿을 상賞으로 주리라”라 했다.

제상이 대답해 말하기를,

“차라리 계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 신하가 되지는 않겠소. 차라리 계림의 형벌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작록爵祿은 받지 않겠소.”라 했다.

왜왕은 노하여 제상의 발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벤 위를 걸어가게 했다(지금 갈대 위에 피의 흔적이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제상의 피라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느 나라 신하이냐?”라 했다.

제상은 계림의 신하라고 했다. 또한 뜨겁게 달군 쇠 위에다 세우게 하고는, 어느 나라 신하냐고 물었더니, 계림의 신하라고 대답했다. 왜왕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목도木島라는 섬 속에서 불태워 죽였다.

미해美海는 바다를 건너 돌아왔다. 그는 먼저 강구려康仇麗를 시켜 나라 안에 그 사실을 알렸다. 눌지왕訥祗王은 놀라고 기뻐하면서, 백관百官들에게 명하여 미해를 굴혈역屈歇驛에 나가 맞이하게 했다. 왕은 아우인 보해寶海와 함께 남교南郊에 나가서 친히 미해를 맞아 대궐로 들어갔다. 잔치를 베풀고 국내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려 죄수罪囚들을 풀어 주었다. 제상의 아내를 국대부인國大夫人에 봉하고, 그의 딸은 미해공美海公의 부인夫人을 삼았다.

이때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 한漢나라 신하인 주가周苛가 형양榮陽땅에 있다가 초楚나라 군사에게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다. 그 때 항우項羽가 주가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내 신하가 된다면 만록萬祿의 제후諸侯로 봉해 주겠다”라고 했으나, 주가는 항우를 꾸짖고 굴복하지 않다가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 제상堤上의 죽음이 주가만 못하지 않다”라 했다.

처음에 제상이 신라를 떠날 때 부인이 듣고 남편의 뒤를 쫓아갔으나 따르지 못했었다. 이에 망덕사望德寺 문 남쪽 모래밭 위에 이르러 주저앉아 길게 부르짖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여 그 모래밭을 장사長沙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부인夫人을 부축하여 돌아오려 하자 부인은 다리를 뺀 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벌지지伐知旨라고 이름 지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오랜 뒤에 부인夫人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鷄述嶺에 올라 왜국倭國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그를 치술신모鷄述神母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를 제사 지내는 사당祠堂이 있다.

[『울산광역시사』 『삼국유사』권 1, 기이, 내물왕·김(박)제상]

치술령鷄述嶺 망부석

치술령과 망부석, 그 치술령의 높이가 해발 720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남도하고 경계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모하毛火¹⁸⁵에서 쳐다보이고 또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서 또 동쪽으로 솟아 있고, 그 다음 경주 그 남산하고 쪽 내려와 연결된 봉우리지요.

이 치술령 망부석 얘기는 삼국유사에도 일부 비쳐 있습니다만은, 삼국사기에는 산의 정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바로 제법 가까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분이 전설이라요, 내가 볼 때는. 정사라고 볼 수 없고.

185. 월성군月城郡(현 경주시) 외동읍外東邑 모화리毛火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인자 내물왕奈勿王 당시에 신라 17대가 내물왕인데요. 내물왕 당시에 일본의 그 간계에 속아가지고 왕자를 회담하자고 그래서 일본에 왕자 신분을 보내 달라. 왕자를 보내는데, 큰 아들은 다음에 왕을 해야 되고 다음의 어린 왕자를 여덟 살 짜리를 보냈다고 그래요.

신분을 왕자를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여덟 살 짜리 왕자를 보냈는데, 이 여덟 살 짜리 왕자가 회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회담 능력이 있는 박사람朴娑覽이라 하는 사람을 같이 보냈다고 그러던만요.

그러고는 그 뒤에 또 고구려에 또 그런 간계가, 간계가 있어 또 신라가 속아가지고 왕자를 하나 보냈는데, 일본으로 보낸 왕자는 미해왕자美海王子 혹은 미사흔末斯欣이고,

고구려에 보낸 왕자는 보해왕자寶海王子 혹은 복호卜好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하고 고구려가 모두 약속을 안 지키고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 놓고 신라를 도리어 위협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때 인자 참, 왕대가, 신라 왕대가 바뀌어서 18대 실성왕實聖王 다음에 19대 눌지왕訥祗王 때가 인자 돼가지고 궁실에 한번 잔치를 벌렸는데, 눌지왕이, 모두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을 때 눌지왕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대왕마마 오늘 같이 즐거운 날에 어찌 눈물을 흘리십니까?”이랬더니,

“두 나라에 인질 돼가 있는, 일본과 고구려에 인질 된 두 동생이 오늘 이런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서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참, 우리가 모두 대왕 보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고 사죄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두 왕자를 구해 올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자 얘기를 하고 그날 잔치는 파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인물을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삼량주插梁州, 그러니까 양산梁山이지요. 삼량주태수직插梁州太守職에 있었던 분인데, 파사왕婆娑王의 5대손이라고 그러대요. 박제상朴堤上이라는 분, 박제상 이 분이 자청하고 나와서,

“내가 두 사람의 인질 된 왕자를 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년째 인질 된 고구려에 보해왕자를 구출해 와서 신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선 걸음으로 일본으로 16년 동안 인질 된 미해왕자를 구하러 일본에 들어갔는데, 일본에 들어가서 일부러 인자 잡힌거죠. 잡히가지고 이 양반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대요.

“신라에서 자기 부모를 아주 억울하게 잡아 가두고 형을 극형에 처하고 그래서 내가 신라에 원수가 졌는데, 나 혼자서 신라를 도저히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일본의 힘을 빌어가지고 신라를 무너뜨릴라고 들어왔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이랬더니 일본이 박제상의 그 지략에 속아가지고,

“그러냐고? 너 뭐 하던 사람이냐?”

“삼량주태수였다.”

“그러몬 신라를, 앞으로 우리가 신라를 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인자 인질 된 미해왕자와 같이 생활을 하계끔 한 방에 잠을 잤다고 그러대요. 그러다가 하룻밤에 안개가, 바다에 안개가 낀 날에 그 왕자를 배를 태와서 신라로 돌려 보내고 자기는 남았다고 그래요.

같이 타고 오지 않는 이유는 한꺼번에 두 사람이 없어지면 도망갔다는 걸 알고 일본군대가 추적을 해 오기 때문에 왕자를 무사히 신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왕자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일본 사람의 마음을 눕히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자 나중에 도저히 자기는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 왕자를 신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 폭로가 나가지고서 일본 관원에게 끌려 가 가지고 아주 심한 형,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로 가 전신을 지진다든가, 뭐 예리한 칼로 전신에 껍질을 벗긴다든가, 또 갈대를 베낸 자리에 맨발로 그냥 걷게 해가지고 발바닥에서 전부 발등까지 이렇게 갈대 꼬챙이가 뚫고 올라오는 그런 형을 받는다든가, 그러다가 그래도 끝까지 행복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일본왕은 얘기하기를,

“신라의 왕은 정말 참 행복하다. 너처럼 지독한 충신들이 있으니 행복하지 않느냐? 나에게도 너처럼 그렇게 훌륭한 충신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리 얘기로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나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항복을 하고 신라를 우리가 치는 데 좋은 자료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너는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박제상은 끝내,

“내가 신라에 가서 개가 됐으던 됐지, 일본왕의 신하는 될 수는 없고, 신라에 가서 몽둥이를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일본왕에게서 벼슬이나 상금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해서, 불에 태워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제상은 억울하게 일본에서 순국을 하고 일본에 무덤이 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설인데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박제상의 부인 성씨가 김씨고 박제상 가정에는 그때 딸이, 큰 딸, 둘째 딸, 세째 딸, 세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여섯 살 짜리 아들이 문양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데, 나중에 그 확실하지는 않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문양이가 저 유명한 백결선생百結先生이 그 박제상의 아들 문양이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느 문헌에도 확실히 고증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비정批正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이, 여섯 살 짜리 아들 하나밖에 없고 딸 서 이가 있었는데, 이 부인은 일본에 남편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 하도 남편이 그리고 불안하고 일본 그 적지에서 살아올지 돌아올지 몰라가지고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남편이 그리울 때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남편 떠나간 그 바다, 동해바다라도 보면 좀 안심이 될까 또 올라서서 맨날 하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빌고 그래서 남편이 무사 환국하기를 그냥 일구월심으로 그냥 빌었대요.

빌면서 또 내려 와가지고는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틀을 채려 놓고 배를 짜가지고 배짜는 배를 신라 장안으로 가지고가 팔아가지고 생활필수품하고 바뀌다가 그냥 이래 생활을 연명해 나가면서 기다렸는데,

왕자는 돌아오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애를 태우다가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모진 그냥 고문을 당코 나중에 끝내에는 화형을 당하고 순국을 하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부인이 기절도 하고 이리다가 준비했던 그 독약을 그릇에 타가지고 마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딸들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 있을 수 가 있느냐?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같이 죽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김씨가 딸들을 만류를 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 기어코 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는,

“그렇다면 좋다. 한 가지만 들어다오. 누군가 한 사람이 어린 문양이 여섯살 짜리 이거를 키워가지고 아버지 혈육을 이어 이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살아서 돌바야 된다. 그런데, 공평하게 가운데가 남아라. 그리고 큰 딸하고 막내는 나 어머니 따라서 죽어도 좋다.”

그래서 큰 딸이 이름이 보니까 아경阿慶이라, 경상도라는 아경이라고 돼 있고, 둘째 딸이 아영阿榮이, 영화 영짜榮字 아영이 돼 있고, 세째 딸이 아기阿奇가 돼서 있는데, 아영이가 살아남고, 아경이와 아기는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그립니다.

그래 세 모녀가 숨이 떨어지자 그 세 모녀의 혼이 새로 변해가지고 혼조魂鳥로 변해가지고 그 마을 상공을 빙빙 세 마리의 새가 혼조가 날아서 돌았다 그립니다. 마을의 상공을 빙빙 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새가 날아가 돌았던 마을에 지금도 가면 두동면 만화리 옆에 비조, 날 비짜飛字, 새 조짜鳥字 울주군蔚州郡 두동면斗東面 만화리萬和里에 있는 한 자연부락 이름 비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비조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가 그렇게 되었대요.

마 우연히 갖다 붙인 건가 전설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비조라는 마을이 생겨났고,

망부석望夫石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바라을 망짜望字, 지아비 부짜夫字 그 꼭대기 720고지 바위에 올라서서 동해바다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참, 참 일구월심 학수고대 기다리던 그리고 바라보던 자리다. 그래서 지아비를 바라보면서 서서 있던 바위다, 그래서 망

부석이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세 모녀가 죽어가지고 그 바위 망부석으로 화석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있고 또 베틀, 베 짜던 베틀도 돌이 돼가지고 직기석織機石이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예, 베틀, 직기석이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요즘 사람들이 믿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의 새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다가 국수봉이라 하는 봉우리쪽으로 날아갔다 그래요. 국수봉國守峰은 나라 지키는 봉우리다 이래서…. 혹 어떤 사람은 나라에 원수가 저서 원수 수짜讐字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은 또 혹은 빼어날 수짜秀字 봉우리가 잘 생겼다고 해서 빼어날 수짜 쓰는 수도 있는데, 보니까 나라 지키는 국수봉이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설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그 국수봉을 봉우리로 새가 세 마리가 날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따라서 가보니까 새가 날아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틈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굴이 암혈岩穴이 하나 있는데, 그 아주 잘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은을암隱乙庵이라는 암자 절이 있습니다마는 절이 있는 법당 뒤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로 틈 사이로 세 마리의 새가 들어가고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아니했다, 그레가지고 숨을 은짜隱字, 새 을짜乙字 바위 암짜岩字 ‘은을암’이라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 마리의 혼조가 이 바위에 들어가서 소위 그 일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라를 지키는 하나의 소위 그 수호신, 신라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면 이 봉우리를 이렇게 나라 지키는 국수봉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레 지금 그 자리에 암자를 은을암隱乙岩을 세워가지고 늘 그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은, 소위 동해용왕에게 일본이 못 치고, 치고 들어오지 못 하게끔 비는 원찰願刹 호국사찰로서 늘 참 구실을 해 왔습니다.

호국사찰로서 구실을 해 왔는데, 그러다 그 절이 너무 허물어졌어요. 병란에 또 파괴되고 여러 번 거듭하다가, 중창복원도 늘 해오다가 근래에는 아주 형편없는 조그만 암자가 있다가 요즘 지금 아주 큰 절간을 짓고 있습니다. 아주 뭐 한, 어마어마하게 한 2억 정도

규모 공차 들어가지고 아람들이 기둥을 세우고 대웅전을 짓고 여사¹⁸⁶를 짓고 해서 아주 큰 절로서 변모를 하고, 은을암이 그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절에다 지금 스님이 앞으로 박제상하고, 그 세 모녀하고를 기리는 충정각이라 그래서 사당을 하나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 세 모녀를 그 절에서 빌어 줘야 된다. 세 모녀와 관계있는 절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세운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박제상朴堤上和 망부석望夫石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동쪽에 경남과 경북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을 형성하면서 720고지의 위용을 자랑하는 치술령鷄述嶺이 하늘 높이 솟아있다. 이 치술령 정상에 망부석이 있다. 이 망부석에는 신라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 김씨(치술신모)에 얽힌 충절과 정절의 사화가 역사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때는 신라 제17대 내물왕 36년¹⁸⁷(서기 392년)에 북방의 강대국인 고구려와 화친을 약속하기 위하여 실성實聖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그 후 서기 401년에 내물왕은 재위 46년 만에 승하하고 고구려에 볼모로 잡혀 있던 실성이 풀려나 신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니 이가 신라 제18대 실성왕이다.

186. 요사寮舍,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

187. 내물왕 37년이다.

실성왕은 내물왕이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서 고통당하게 한데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때 일본은 신라와 상호간 우호조약을 맺고 통상할 것을 제의해 왔다. 이때 신라로서는 북으로 고구려 서쪽은 백제, 동쪽은 우산국(울릉도) 남으로 왜구와 대마도 해적들이 쉴새없이 침범해 오므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같이 절박한 시기에 일본이 상호 화평조약을 맺고 일본과 신라가 연합 협동된 힘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신라로 하여금 삼국을 통일하게 해주고 신라와 일본이 서로 상호 선린 관계 속에 문물을 교류하고 우호통상을 하자고 제의했으니 신라로서는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라는 일본의 제의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는 상호화평조약의 회담 장소를 일본으로 정하고 신라 측 회담 대표를 반드시 왕자의 신분이라야 한다고 뜻을 박았다. 실성왕은 자신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내물왕의 아들인 미해(미사흔) 왕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미해 왕자의 이때 나이는 불과 8세 밖에 되지 않았다.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회담대표로 보내지만 너무 어려서 회담능력이 없으므로 조정 신하 중에 한사람을 골라서 동행케 하였다. 일본국으로 들어간 미해 왕자의 일행을 일본 측은 고스란히 볼모로 잡고 말았다. 신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신라 왕자 일행을 인질로 잡아 놓은 일본은 갖은 위협을 자행하면서 더 더욱 괴롭히기만 하였다. 신라로서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대로 세월은 흘렀다. 실성왕은 재위 11년(서기 412년)에 내물왕의 또 한 아들인 보해(복호) 왕자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고 말았다. 그 후 서기 417년에 눌지가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눌지왕이 즉위한지 2년째 되던 해가 고구려에 볼모로 잡힌 보해 왕자는 10년째 되고 일본으로 볼모 잡힌 미해 왕자는 16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신라 조정에 큰 경사가 있어서 잔치가 베풀어졌다. 눌지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산해진미로 음식을 차리고 술잔이 오가는데 악공들이 풍악을 울리고 궁녀들은 떼 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왕과 신하들은 온통 흥겨웁기만 한데 주기가 거나하고 흥이 도도해지자 갑자기 슬픈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눈물을 흘렸다. 신하들은 놀라서 풍악을 멈추고 어전에 부복하고 그 사연을 물었다.

왕이 대답하기를 오늘과 같이 기쁜 날에 고구려와 일본에 볼모로 잡혀 있는 두 아우를

생각하니 슬프기만 하다고 했다. 신하들은 그제서야 왕의 어의를 짐작하고 모두 조아리며 아뢰기를 신하들이 무려 불충하여 어의를 슬프게 한 죄를 사죄하고 국 중에 물색하여 양국에 볼모로 잡혀 고생하시는 두 왕자를 구출해 올 만한 인재를 구해 볼 터이니 어신을 편케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왕은 신하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같은 인재를 물색해 보도록 하라고 분부하였다. 신라 조정에서는 전국에 반포하기를 고구려와 일본에 인질 된 두 왕자를 구출해 올 수 있는 인재를 구하며 이 일을 성취 시키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 같은 반포를 전해들은 삼양주 태수^{插梁州}(지금의 양산군) 太守 박제상이 자원하고 궁 중에 들어갔다. 어전에 부복한 박제상에게 왕은 물었다.

"경이 양국에 볼모로 잡힌 미해와 보해를 구출해 오겠느냐?" 박제상이 대답하기를

"네! 왕명은 곧 천명이거늘 백성이 어찌 천명을 거역하리오! 벼슬과 상금을 탐내서가 아니옵고 군신간의 도리를 지켜서 만분의 일이라도 성은에 보답코저 할 따름입니다."

박제상은 먼저 고구려로 들어갔다. 그의 뛰어난 지략으로 10년 간이나 볼모로 잡혀 있던 보해 왕자를 교묘하게 빼 돌려서 동해안을 따라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국경을 탈출할 때 고구려 군사들의 추격을 받았다. 사정이 절박하게 되었을 때 박제상은 미리 준비된 금은 보화가 든 자루를 고구려 병사들에게 던졌다. 추격하던 고구려 군사들이 던진 자루를 주워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기에 기쁘고 고마워서 그때부터 화살촉을 뽑아 버리고 화살대만 쏘는 척하였고 추격하는 속도를 늦춰 그냥 추격하는 척 하여 박제상과 보해 왕자가 무사히 국경을 넘게 하였다.

10년 만에 볼모를 면하고 신라로 돌아온 보해 왕자! 신라 조정은 온통 축제로 들떴다. 국 중에 대사면령을 내리고 큰 잔치를 벌였다.

박제상은 배풀어진 축제도 축배도 아랑곳없이 또 한 가지 남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처자도 찾아보지 못한 채 선걸음에 말을 타고 채찍을 날리며 일본으로 향하였다. 토함산을 넘고 울주군 강동면 구류리(그 당시 율포) 항구에 다달았다. 범선에 돛을 달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수평선 넘어 왜국 일본으로 떠나갔다.

한편 박제상의 가정에는 이웃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사람마다 박제상이 고구려에 볼모로 된 보해 왕자를 구해 돌아온 공로를 높이 치하했다. 그러나 아무리 왕명이 막중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정에 잠시 들렀다가 갈 일인데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봉정만리를 그대로 떠나간다는 것이 너무도 무심하지 않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때 박제상의 부인 김씨는 막중한 왕명을 받은 몸으로 사사로이 가정에 정을 기울인다는 것은 대사를 그르칠 염려가 있는 법이니 우리 집 낭군께서 그대로 떠나가신 처사가 지당 한 줄로 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가슴은 남몰래 불안하고 초조하였다. 부인은 은밀히 말을 타고 남편이 떠나가신 뒤를 따라 나섰다. 부인이 울포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제상이 저만큼 파도를 헤치며 떠나가고 있었다. 부인은 목이 터지라고 울부짖었다. 여보! 여보! 하고 외쳤다.

바람찬 돛을 잡고 치를 틀며 일본으로 향해 뱃길을 재촉하던 박제상은 어디선가 바람결에 가냘픈 여자의 부르짖음이 들려움을 느꼈다. 박제상은 떠나 온 포변으로 시선을 돌렸다. 포변 백사장에는 한 여인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과 치마폭을 휘날리고 두 손을 휘저으며 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박제상은 그 여인이 아내임을 알았다. 울부짖는 아내를 향하여 잊저고리를 벗어 공중에 원을 그리며 돌려 보이고는 가물가물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부인은 울다가 외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나선 딸 셋이 포변에 당도하니 아버지는 이미 보이질 않고 어머니 홀로 지쳐 쓰러져있음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남편이 떠나가신 울포 항구가 내려다 보일 만한 높은 산을 찾아 나섰다.

부인은 마침내 720고지 치술령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니 울포항이 내려다 보였다. 그날로 치술령 기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모진 목숨 이어가기 위하여 배틀을 차리고 배를 짜서 딸들로 하여금 장안으로 내다 팔아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피풍우 하고 치술령 정상의 바위 위에 올라서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행여나 남편이 탄 돛단배가 돌아오기라도 하는가 싶어 바라보았다.

부인은 기도했다. 정화수 떠다 놓고 동해의 용왕에게 그리고 천우신조에게 빌었다. 부

다 왜국에 들어가신 남편이 소원을 성취하고 무사 환국하시기를 지극 정성으로 빌었다.

한편 일본으로 들어간 박제상은 일본 관현에게 잡히고 말았다. 일본 관현은 박제상에 게 추달을 받았다. 어디서 왔으며 허가 없이 왜 함부로 남의 나라에 밀입국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제상은 거짓말로 일본 관현을 속였다. 나는 신라국 삼양주 태수로 있던 박제상인데 우리 부모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신라 관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나 혼자 힘으로는 그 원수를 갚을 길이 없어 일본의 힘을 빌리려 왔다고 기만했다.

일본 관현은 박제상의 말을 믿어 주었다. 한편 일본 관현은 박제상 같은 신라국의 높은 관리가 일본으로 망명 귀순해 온 것을 기뻐하고 신라를 정략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박제상은 자유를 얻어 일본에 볼모 된 미해 왕자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 박제상과 미해 왕자는 같은 숙소에서 잠자게 되었다.

한번은 일본 왕실의 왕족과 신하들이 멀리 사냥을 갔는데 이때 박제상과 미해 왕자도 동행하였다. 사냥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다. 박제상은 왕자에게 비로소 자신이 일본으로 망명 귀순한 것이 아니라 미해 왕자를 구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박제상은 미해 왕자에게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오늘밤이라고 서둘렀다.

그 이유로서는 그날 밤에 마침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뒤덮인 것이다. 바다에 안개가 짙은 때라야 탈출 중에 일본의 추격을 받더라도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박제상은 미해 왕자를 해안으로 안내하였다. 박제상이 미리 대비 시켰던 신라인 뱃사공 강구려로 하여금 배를 몰게 하고 미해 왕자를 신라로 탈출케 하였다. 왕자가 박제상도 함께 돌아가기를 권했으나 박제상은 사양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일본 관현이 빨리 알아차리고 추격을 당한다는 것이다. 석별의 정을 나누고 박제상과 미해 왕자는 서로 헤어졌다. 박제상은 수단껏 해서 뒤따라 신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제상은 왕자를 보내고 재빨리 숙소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안에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날이 밝았다. 일본 관현들이 방문밖에 와서 동정을 살피고는 왜 이렇게 늦잠을 자느냐고 물었다. 박제상은 어제 사냥한 피로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본 관현은 그런 줄을 알고 돌아갔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다. 그때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왕자와 박제상이 수상하다고 여긴 일본 관헌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방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왕자는 간 곳 없고, 박제상만 홀로 누워 있었다. 일본 관헌들은 비로소 박제상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는 박제상을 결박하여 일본 왕 앞에 대령 시켰다. 일본 왕은 박제상을 향하여 노발대발 호통을 쳤다.

“네이놈 박제상. 당장 죽여 없애 버리려다가 살려뒀거늘 어찌 우리 일본국을 기만하였단 말이나? 꽤심한지고, 여봐라 저놈을 주리를 틀고 반죽음이 될 때까지 갖은 고문을 하려다.”하고 명령하였다.

일본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헌들은 박제상에게 송곳으로 전신을 찌시고 쇠막대기를 불에 별장게 달구어 전신을 지지고 시퍼런 칼로 전신의 껍질을 벗기고 바닷물을 퍼다가 코에다 붓고 형틀에 묶어 놓고 주리를 틀었다. 그리고 갈대를 베낸 위로 맨발로 걷게 하였다. 아무리 심한고문을 해도 박제상의 입은 다물어진 채 말이 없었다. 일본왕은 하는 수 없이 고문을 멈추게 하고 박제상을 타일러 봤다.

“여봐라, 박제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본왕인 짐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내 비록 신라 국에서 개가 될망정 일본왕의 신하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신라국에서 몽둥이로 장살을 당할망정 일왕이 내리는 상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쓸데 없는 수작일랑 아예 말고 나를 어서 죽여다오.”하고 맞섰던 것이다.

일본국왕도 지치고 말았다. 일본국왕은 말했다.

“박제상 너 정말 대단하구나. 신라국의 왕은 행복하도다. 박제상과 같은 지극한 충신이 있으니 말이다. 과인에게도 박제상과 같은 충신이 몇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련만, 실로 신라국왕이 부럽도다. 여봐라. 어차피 행복 받지 못할 박제상인지라 화형에 처해서 없애 버려라”하고 호통을 쳤다.

일본 관헌들은 박제상을 형장으로 끌고 가서 기름을 활활 피워 놓고 그 속으로 밀어 넣어 불태워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신라 충신 박제상은 원수의 나라 일본국의 형장에서 만고에 빛나는 거룩한 순국을 하고 말았다.

한편 미해 왕자는 무사히 조국인 신라로 돌아 왔다. 볼모 된 지 16년 만에 모국에 돌아

온 미해 왕자를 맞은 신라 조정은 눌지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온통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맞이했고 왕자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국에 국경일을 반포하고 모든 죄수들에게 대 사면령을 내리고 산해진미와 술을 차리고 악공들이 연주하는 풍악 속에 궁중 무희들의 무용과 궁중 가희들의 노래 소리로 온통 축제로 들떠 있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고을마다 마을마다 축하 잔치가 벌어졌다.

이 같은 소식은 박제상의 부인에게도 전해졌다. 부인은 기뻐했다. 남편이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서 돌아 왔겠거니 하고 소식을 전해들은 즉시로 지체할 겨를도 없이 딸 아경阿慶 아영阿榮 아기阿奇와 6세짜리 아들 문량文良을 데리고 신라 서울 서라벌로 달려갔다.

서라벌에 당도한 김씨부인은 남편의 소식을 수소문하니 미해 왕자만 돌아오고 남편 박제상은 일본국에 남았는데 뒤따라 올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실의에 빠진 부인은 힘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왔다.

그날부터 부인은 하루도 빠지 않고 치술령 꼭대기에 올라서서 남편의 무사 환국을 빌었다. 박제상의 부인김씨의 지극 정성 빌고 빈 공덕도 아랑곳없이 얼마 후에 전해 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 박제상이 홀로 일본 땅에 남았는데 일본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갇은 혹형을 당하다가 끝내는 일본의 형장에서 화형으로 순국했다는 비보에 접하고 말았다.

부인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딸들의 울부짖음과 주위사람들의 응급가료로 간신히 깨어났으나 부인은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다. 만일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남편의 뒤를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마련해 두었던 독약을 꺼내서 물에 탔다. 이 같은 광경을 본 셋 딸들도 모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이때 부인김씨가 말했다.

“애들아 너희들의 뜻은 거룩하고 장하다 그러나 너희 셋이 모두 세상을 하직하고 나면 6살 밖에 안 되는 어린 우리 문량을 그 누가 돌보아 키워 줄 것이냐? 문량이 만든 훌륭한 하계 자라서 아버지의 핏줄을 잇고 나라를 위해 일꾼이 되게 하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아영이가 살아남아서 문량을 돌보도록 하여라.”하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인김씨와 두 딸은 독약을 마신 뒤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셋 모녀가 숨지고 난 뒤에 그 혼들이 세 마리의 새로 변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국수봉을 돌아서

은을암 틈으로 숨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새가 날았다 하여 비조리飛鳥里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새들이 숨어 버린 바위를 숨을 은隱 자, 새 을乙 자 바위 암岒 이렇게 은을암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부인 김씨가 날마다 올라서서 남편의 무사 환국을 빌던 치술령상의 큰 바위를 가리켜서 망부석望夫石이라고 부르고 있다.

눌지왕은 박제상의 순국과 부인 김씨의 정절사 그리고 두 딸의 효절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탄식하여 분부하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만고충신 박제상의 충절사, 만고열녀 부인 김씨의 정절사, 만고효녀 두 딸의 효절사는 기리 역사에 빛날 일이다. 박제상에게는 대아찬大阿飡으로 추서하고, 부인 김씨를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추봉하고, 일본국에 볼모로 있다가 박제상 덕분에 구출되어 환국한 미해 왕제와 박제상의 두째 딸 아영 낭자와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여 그의 아들 문량을 돌보고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라.”하고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미해 왕자와 아영낭자가 결혼을 하고 나라에서 내려 주는 많은 상금으로 박제상의 아들 문량을 기르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하였다. 그리고 사당을 짓게 하고 박제상과 부인 김씨의 위패를 모셔 놓고 춘추로 제사 지냈다.

지금도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는 박제상의 52세손 박치간朴致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 박제상 부부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고 있다. 일가삼절一家三節의 명문 박제상의 사화는 다른 고장 아닌 우리 고장 치술령에 어려 있고, 망부석에어린 숭고한 정신을 이 고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길이 이어 받아 국가와 민족에게 받쳐야 하리라.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치술신모鷄述神母 설화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에서 동쪽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경남과 경북의 도경이자 울주와 월성의 경계 지점 해발 720m의 치술령에는 기막힌 설화를 지닌 채 만고불변의 말없는 역사의 증인 망부석이 오늘도 한 맺힌 눈으로 멀리 동해의 수평선 넘어 원수의 나라 왜국을 바라보며 용서할 줄 모르는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다.

때는 신라 제17대 내물왕 즉위 후 한번 온 왜국으로 부터 간교한 교섭이 들어왔다.

내용인즉 신라를 괴롭히는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는데 군사적으로 지원할 터이니 일본과 손을 잡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회담이 이뤄져야하니 신라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진 회담대표를 일본으로 파견 해 달라는 것이다.

그 당시 신라로서는 일본이 지적한데로 북쪽의 고구려, 서쪽의 백제가 실재없는 침범을 하므로 조만간 국력을 길러 삼국을 통일해서 평화를 누리고져 간절히 열망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제의를 쾌히 수락하는바가 되었다. 그 당시 내물왕으로서는 큰아들이 있긴 했으나 후일 왕위를 계승해야할 귀중한 신분이기에 보낼 수가 없고 해서 둘째 왕자 미해美海(미사흔末斯欣)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미해가 왕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불과 8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는 회담의 대표가 반드시 그 신분이 왕자여야 한다니 도리가 없다. 그래서 조정의 중신 중에 능력 있는 자를 골라 왕자를 수행케 하고 회담에 차질이 없게 하였다.

그런데 왕자 일행이 일본으로 들어가자 일본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왕자 일행을 인질로 사로잡고는 반대로 신라를 위협했다.

“신라는 일본에게 속았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신라를 도와 고구려 백제를 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할 줄 알았느냐? 실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구나! 이제 신라의 왕자와 충신이 우리 일본 땅에 인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일본의 요구 조건을 들어라. 만일 거역이 있을 시는 인질들이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며 야수적인

만행이라! 그러나 이미 속고 말았으니 어찌라!

세월은 흘렀다. 미해왕자가 일본에 속아 인질된 지 8년 후에 똑같은 방법에 의하여 셋째 왕자 보해寶海(복호卜好)가 고구려로 인질이 되고 말았다.

내물왕은 두 왕자를 일본과 고구려에 속아서 각각 인질로 잡힌 채로 또 악운은 닥쳐, 제18대 실성實聖왕이 내물왕을 죽이고 즉위하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서 또다시 내물왕의 왕자였던 눌지訥祗가 실성을 죽이고 제19대 왕으로 등극하였다.

세월은 흘러 미해왕자가 일본으로 인질 된지 16년, 보해왕자가 고구려로 인질된 지 8년만인 어느 날 신라 궁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 졌다. 악공들의 삼현육각 풍악소리에 장단 맞춰 오색영롱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궁녀들이 줄줄이 떼 지어 궁중무인 화관무를 추고 군신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잔칫상 머리에는 천일주며 연엽주가 몇 순배 돌았는지 주홍이 도도한데 갑자기 대왕마마께 하염없이 눈물을 짓는다.

대왕께서 눈물을 짓자 흥겨운 풍악도 춤도 똑 멎었다. 신하들은 줄줄이 대왕 앞으로 나아가 국궁 부복하고 아뢰었다.

“대왕마마 오늘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어인 옥루이십니까?”

대왕이 대답하기를

“경들은 듣거라. 오늘과 같이 경사스러운 잔치를 베풀고 흥겨운 춤과 노래로 즐기다보니 일본과 고구려에 인질 된 두 아우가 한없이 그립구려! 이 자리에 두 아우가 없어 함께 즐기지 못함이 너무도 마음 아파 눈물이 솟는구려.”

대왕의 이 같은 율음을 들은 신하들은 대왕을 위로하고 양국에 인질 된 두 왕자를 구출할 만한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인재를 백방으로 물색하였다.

이때 삼량주태수桴梁州太守직에 있던 박제상朴提上이 자청하고 나섰다. 대왕은 박제상을 접견하고 부디 두 왕자를 구출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대왕의 간곡한 당부를 받은 박제상은 먼저 8년째 인질 된 보해왕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고구려로 들어갔다. 용맹스럽기도 했지만 지혜 또한 뛰어난 박제상은 기회를 엿보다가 하루는 보해왕자를 동반하고 신라로 향해 탈출의 길에 올랐다.

동해안을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데 고구려 군사가 추격을 한다. 이미 육박해서 잡힐 듯

말 듯 절박하다. 이때 박제상은 한 가지 계락을 썼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간 보물 주머니를 추격하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던졌다. 고구려 군사들이 주머니를 주워보니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보물을 던져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사로잡을 수도 없기에 지휘관은 화살에 촉을 뽑게 하고 추격하는 속도를 늦추게 하여 고구려 백성들이 볼 때 추격하며 활을 쏘는 듯한 시늉만 보여 박제상과 보해왕자가 무사히 국경을 넘게 하였다.

이 같은 박제상의 지략으로 보해왕자를 구출하여 무사히 신라로 환국하니 신라에서는 온통 대축제가 벌어졌다. 소식을 들은 신라 백성들은 박제상과 보해왕자가 돌아오는 연도의 양쪽에는 줄줄이 늘어서서 장사진을 치며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올렸다.

궁중에서는 서둘러 축제를 열고 모든 죄인에게 죄를 감하는 사면령이 내리고, 모든 관리들에게 한 계급 진급의 은전이 내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부역과 세금을 감면해 주고, 도성 내외의 모든 백성들은 술과 계집으로 춤추고 노래하여 왕자의 무사환국을 예찬하라고 분부가 내렸다.

이토록 즐거운 잔칫날에 이토록 훌륭하고 위대한 공을 세운 장본인 박제상은 축배의 술 한 잔도 들지 않고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사가에도 들리지 않은 채 선걸음으로 말을 몰아 타고 대왕께 하직인사 드린 후 곧 미해왕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향해 떠나고 말았다.

대왕과 신하들이 그토록 이나 만류하면서 피로도 풀고 축배도 함께 들고 사랑하는 처자도 만나보고 떠나라 했거니와 기어코 뿌리치는 박제상은

“왕명은 천명이며 천명을 받은 사람이 막중한 의무를 못다 수행한 채 술 마시고 춤출 것이며 사사로운 처자의 정에 마음을 돌리리오. 이만 다녀오겠나이다.”

만고충신 박제상, 전무후무한 충신 박제상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채찍을 날려 궁중에 원을 그리며 토함산을 넘어 일로 울주군 강동면 구유리(당시는 유포)로 가서 뚝단배를 타고 두둥실 동해바다를 가로 질러 왜국 일본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불어오는 바다 바람을 안은 듯은 반달처럼 휘어져서 미끄러지듯 파도를 가른다.

한편 박제상의 처자가 있는 사가에서는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고구려로 보

해왕자를 구하려고 떠나신 남편이 왕자를 구해 무사히 환국했다는 극적인 소식을 듣고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한 채 곧 남편과 상봉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부풀어 있는데 이웃집 아낙네들이 우루루 몰려왔다.

아낙네들의 말인 즉 박제상께서는 축배 한 잔도 들지 않은 채 선걸음으로 일본으로 떠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무정하고 야속할 수가 있느냐고들 하면서 입을 모아 입방아를 짓는다.

이때 부인 김씨가 듣고 있다가 대범스럽게 꾸짖었다.

“여보시오들 남의 일에 왜들 이러십니까? 우리 남편께서 하신일이 잘 하신 것입니다. 대왕마마의 지중하신 어명을 받으신 몸으로 어찌 사사로운 처자의 정에 마음을 기우린단 말이오! 다들 물러가시오.”

입방아 찼던 이웃 아낙네들은 코를 싸고 물러갔다. 부인 김씨는 이웃 아낙네들 앞에서는 태연하고도 대범스럽게 말했지만 한 여인의 마음으로 봉정만리 왜국 땅, 그것도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나라로 떠난 남편임에랴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 김씨는 몰래 말을 몰아타고 토함산을 넘어 남편이 출향한 유포로 달렸다. 그러나 부인 김씨가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 박제상이 탄 돛단배는 저만치 가물가물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일을 어찌랴. 부인 김씨는 소리쳤다.

“여보! 여보!”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수평선을 향해 배질하는 박제상은 어디에선가 가느다란 하고 애절한 여인의 절규가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귓전을 간지럽힌다. 어디서 들려오는 여인의 외침일까하고 고개를 돌렸다.

저만치 방금 떠나온 유포의 포변에 한 여인이 해풍에 치마폭을 날리며 두 손을 높이 저으며 절규하고 있음을 보았다. 박제상은 생각했다.

“옳지! 우리 마누라가 왔구나!” 박제상은 윗저고리를 벗어 공중에 원을 그리며 저었다.

“부인! 나 여기서 보고 있어요! 나 잘 다녀올테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전했다. 배는 점점 멀어져 가서 가물가물 하다가 그만 보이질 않는다.

부인은 주저앉아 기절하고 말았다. 뒤늦게 따라온 딸들이 기절하여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부축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남편이 떠난 포구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정을 찾았는데 바로 치술령에서 내려다보니 울포가 보였다. 부인은 치술령 기슭인 두동면 만화리 비조에 이사를 하고 벼를 차려 길쌈으로 생업을 삼으면서 틈틈이 치술령 정상으로 올라가 산정에 있는 바위 꼭대기에 서서 두 손 합장하고 저 멀리 동해바다 수평선 넘어 왜국을 향해 기도하면서 천지신명께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동해바다 용왕이시여 화에동참 하시어 멀리 왜국 땅으로 왕자님을 구출하기 위하여 떠나가신 우리 낭군님 왕자님 구출하여 무사환국 하옵시도록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빌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편단심 계속하였다.

한편 일본으로 들어간 박제상은 일본 관헌에게 잡히고 말았다.

“너 어디서 왔느냐?”

“나 신라에서 왔다”

“이름이 무엇이냐?”

“박제상이라 한다.”

“왜 남의 나라에 허가도 없이 들어왔느냐?”

“나는 일본에 힘을 빌리려고 왔다.”

“뭐 힘을 빌리려고?”

“그렇다.”

“무슨 힘?”

“나는 신라국에서 삼량주 태수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부모가 신라 조정의 미움을 싸서 역모에 몰리는 몸이 되어 갇혀서 억울하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일본의 힘을 빌어 악질 무도한 신라를 쳐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왕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 보게나”

박제상은 이렇게 거짓말로 미해왕자를 만났으며 한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박제상은 은밀히 미해왕자에게 자신이 일본에 들어온 사명을 말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틈만 있으면 함께 신라로 탈출할 것을 기약하였다.

박제상은 강구려康仇麗라고 하는 능숙한 뱃사공을 물색하여 포구에 대기시키면서 언제

든지 탈출시는 차질 없게 하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 후 한번은 일본 왕을 비롯한 궁중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 사냥을 나갔다. 이때 박제상과 미해왕자도 동행을 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다. 바로 이때다.

바다에 안개가 끼어야 추적하는 일본군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 박제상은 밤중에 몰래 왕자와 함께 사공 강구려가 대기하는 포구로 나왔다. 강구려는 차질없이 배를 대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미해왕자 더러 배에 오르게 하였다. 왕자는 박제상도 함께 오르라고 권했다. 그러나 박제상은 배에 오르지 않았다. 자신마저 함께 없어지면 일본이 빨리 알아차리고 추격할 것ियो, 그렇게 되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런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자신은 갖은 방법을 다해서 뒤따라갈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 왕자만이라도 무사히 신라로 환국시키면 자신의 사명은 다한다는 것이다. 함께 돌아가자는 미해왕자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박제상은 사공 강구려더러 왕자님 부디 잘 모시라는 당부와 함께 왕자가 탄 배를 저만치 밀어놓고 손을 흔들었다. 창자가 끊어질 듯 한 작별을 고하고는 박제상은 재빨리 숙소로 달려와 누웠다. 잠시 후 날이 밝았다.

그전 같으면 일어나 기동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은 우정 늦장을 부렸다. 감시병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문밖에 와보니 신발은 나란히 두 켤레가 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늦잠을 주무십니까?”

“어제 사냥하느라고 너무 피로하여 그러네.” 감시병은 일단 그 말을 믿고 물러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해가 중천에 솟아올랐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군 감시원들은 눈치를 챘다.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니! 미해왕자는 어딜 갔어요?”

“미해왕자께서는 신라로 돌아가셨다!”

“똥이!”

“왜? 신라의 왕자가 신라로 돌아간 것이 잘못되었단 말이나?”

“이 갯심한! 여봐라! 이 자를 묶어라!” 이렇게 해서 미해왕자는 무사히 한국의 길에 올

왔건만 충신 박제상은 일본 관현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박제상은 일본왕 앞에 끌려갔다. 일본왕은 펄펄된다. 온통 분기가 탕천이다.

“요! 악질! 거짓말쟁이 박제상! 네가 감히 일본왕인 과인을 속이다니! 여봐라 이놈을 죽지 않을 만큼 쳐라! 이렇게 해서 곤장형, 압슬형, 갓은 고문을 가한다.

“너 박제상은 듣거라! 어찌하여 너는 과인을 속였느냐?”

“그래 대답하마! 너희 일본은 어찌하여 우리 신라를 속였느냐?”

“무엇이! 여봐라 안되겠다! 심히 쳐라! 그래도 반항하면 그때는 쇠막대기를 빨강게 달구어서 전신을 지지고 예리한 칼날로 전신의 껍질을 벗겨라.”

“좋다! 이놈들아! 어서 죽여다오! 나는 이미 죽음이 각오되어 있다:

“너 박제상 듣거라! 너는 신라에서 삼랑주 태수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으니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는 놈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이 신라를 치고 들어갈 때 박제상 너를 선봉대 길잡이로 삼고자하니 지금이라도 일본왕인 과인에게 충성을 받치겠다고 고백을 하여라. 그렇게만 하면 예쁜 계집에다 좋은 집에다 많은 상금에다 높은 벼슬도 주겠다. 어떠냐?”

“싫다! 어서 죽여다오! 내 비록 신라왕이 내리는 몽둥이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달게 받을 것이며, 일본왕이 주는 벼슬이나 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신라에서 개가 되었으면 되었지 일본왕의 신하는 결코 되지않겠다.”

“야! 이놈 봐라! 정말 지독하구나! 실로 신라왕은 행복하구나! 너같이 지독한 신하가 있으니 말이야/ 일본왕인 과인에게도 너 같은 신하가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실로 신라왕이 부럽기만 하구나! 여봐라! 아무래도 안되겠다! 맨발로 갈대를 베 낸 뿌리 위로 견게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거던 전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여 극악무도한 야만적 만행으로 신라충신 박제상은 원수의 나라 왜국의 형장에서 고귀한 이슬로 사라져 가신 것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만백성과 궁중이 너무도 기뻐서 울며 춤추고 노래하여 온통 거리거리가 축제로 들떠 있었다. 인질된 지 16년만에 충신 박제상의 힘으로 미해왕자가 무사히 꿈에도 그리든 고국 신라의 품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죄인들에게 특사가 내리고 관리들

에게 진급의 은전이 배풀어지는 등 경사 중에도 경사였다.

그러나 박제상의 부인 김씨와 아들딸들은 기쁨도 반가움도 춤도 노래도 아랑곳없다. 왕 자님은 돌아 왔건만 남편 박제상이 돌아오시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곧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것이다. 온 나라 안이 온통 들떠서 들썩거리는 것도 아랑곳없이 김씨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두동면 비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무사 환국을 비는 김씨부인의 기도는 또다시 계속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부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남편 박제상이 일본관헌에게 잡혀서 모질고도 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전신에 기름을 부어 불타 죽게 하는 화형에 처해졌다는 비보를 접한 것이다.

그 순간 부인은 그냥 까무라치고 말았다. 기절한 어머니를 부여안고 세 딸과 아들이 오열을 토한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초목도 운다. 산새 들새도 울고 나라 안 온 백성이 운다. 만고충성 박제상, 전대미문의 박제상, 전무후무할 충신 박제상은 이렇게 가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절한 부인 김씨가 깨어났다. 부인은 미리 준비했던 독약 사발을 찾았다. 마시려는 순간 큰딸 아경이가 잡는다.

“어머니 우리도 따라 가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무얼합니까?”

부인은 잠시 음독을 멈추고

“그렇다면 내 말대로 따라라, 어린 문량을 길러 아버지의 혈육을 잇게 할 한사람은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그 일을 가운데 아영이가 맡도록 하고, 첫째와 막내는 내 뒤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 얼마나 비통한 마지막 유언이랴! 첫째 아경이와 막내 아기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치슬령鷄述嶺에 올라가 왜국倭國을 바라보며 통곡痛哭 하다 죽어 막 피려던 꽃망울들이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채 거룩하고도 위대한 효절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모녀의 영혼이 세 마리의 새가 되어 시신에서 날아올라 마을 상공을 수없이 날아돌았다. 그래서 이 마을을 지금도 비조飛鳥라고 이른다.

다시 말해서 혼조魂鳥가 날아올랐기에 붙여진 지명이다. 마을 상공을 날아 맴돌던 세마리의 혼조는 국수봉을 돌아서 은을암隱乙岩에 가서 숨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숨을 은隱자와 새 을乙자와 바위 암岩자로 은을암이라 이름 한 것은 새들이 숨은바위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오죽이나 사모하고 애절했으면 이 한 가문에 얹힌 사연들을 천추만대에 전하고자 곳곳마다 원통하고도 애절한 사연이 담긴 지명까지 남겨 놓았을까! 망부석! 그 령다! 바라볼 망望자, 지아비 부未자와 돌 석石자, 역시 남편 떠난 곳을 바라보며, 남편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린 바위라 해서 망부석이라고 하지 않았나!

살아남은 아들 문량이와 문량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아영이는 나라에서 보호하고 먹고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임금이 주선하여 일본에서 돌아온 미해왕자와 박제상의 딸 아영낭자가 한 쌍의 배필이 되게 하였고, 박제상에게는 대아찬大阿飡이라는 높은 벼슬로 추서하고, 그 부인 김씨에게는 국대부인國大夫人이라고 추봉했다.

김씨부인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치술신모鷄述神母라고 까지 추앙송칭追仰頌稱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박제상 일가의 충절·정절·효절을 높이 치하하고, 사당을 짓고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이 고장에는 박제상 일가의 충절·정절·효절을 가리켜 일가삼절이라 하면서 사표로 삼았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치술신모 鷄述神母와 망부석 望夫石

신라 눌지왕 訥紙王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두 아우가 다 다른 나라에 볼모로 가 있었다. 눌지왕 9년에 백관百官들의 추천함에 따라 왕명을 받은 박제상朴提上은 고구려로 들어가서 왕제 보해寶海를 데리고 도망쳐 올 수 있었다.

고구려로부터 돌아온 박제상朴提上은 임금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그길로 왜국倭國에 있는 미해왕제美海王第를 구출하려고 바로 울포변栗浦邊에서 배를 타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가 울포栗浦로 달려왔으나 다만 손을 흔들 뿐 배는 떠나버렸다.

왜국에 들어간 박제상朴提上은 나라에서 도망쳐온 것이라 말하여 망명을 요구하며 왕제에게 접근을 하였다. 하루는 왕제를 도망치게 하고 그는 스스로 남아 잡히는 몸이 되었다. 죄를 추궁하는 왜왕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계림鷄林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자臣子가 되고 싶지 않으며 차라리 계림의 형장刑杖을 받을지언정 왜국의 녹작을 받고 싶지 않소”하는 것이었다.

왜국에서 그는 나라에 욕되게 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지아비의 죽은 소식을 들은 후 그의 아내는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하였다. 두 딸을 데리고 치술령鷄述嶺에 올라가 멀리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죽은 몸은 돌로 변해 망부석望夫石이 되고 혼은 수리새가 되어 날아가 산 아래에 앉았다. 새는 다시 날아 남쪽에 있는 한 바위 구멍으로 숨었다. 그래서 마침내 치술신모鷄述神母가 되니 치술령 산신이다.

사람들은 뒷날 새가 날아와서 앉은 자리를 비자현飛自峴이라하다가 비조飛鳥라 부르니 두동면 만화리斗東面 萬和里에 있다. 또 새가 숨은 바위를 은을암隱乙巖이라 하며 절을 지어 그 이름 또한 은을암隱乙庵이라하니 범서면 국수봉凡西面 菊秀峯의 은을암이 그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장녀 아기阿奇 3녀 아경阿慶도 같이 울다가 마침내 죽었다 한다. 이때 2녀 아영阿榮은 따라 죽을 수가 없었다.

“만약 내마저 죽는다면 누가 우리 모자母姊를 묻어주며 어린 동생 문량文良은 누가 거두어 기르리”하였다.

뒤에 신모사神母詞와 치산원鷄山院을 세워 제사를 받들어왔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만화리萬和里에 다만 그 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치술령 위에는 오늘도 망부석이 매서운 눈초리로 멀리 왜국을 바라보고 있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치술령鷄述嶺의 유래와 망부석 전설

■ 치술령

신라 17대 내물왕奈勿王이 늦게야 왕자를 얻어 눌지訥祗라 이름하고 크게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던 차 미추왕味鄒王의 조카 실성實聖을 보니 그 인물됨이 범상치 아니함에 차후此後에 필히 귀히 얻은 자기의 왕자訥祗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러 날 여러 해를 혼자서 속 태우다 심사숙고 끝에 이웃 고구려와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실성을 고구려국 볼모로 보냈다.

이렇게 내물왕이 실성을 고구려국에 보낸 후에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십수 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도 아직은 눌지가 국정을 돌볼 만큼 성숙하지 못한 터에 그만 내물왕은 중병을 얻어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물왕이 서거하자 국민國人은 다함께 의논하여 한 입으로 말하되, 고구려국에 있는 실성이 아니고는 빈약한 계림국을 보존키 어렵다 하여 볼모에서 풀어오기로 했다. 결국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를 불러왔다.

고구려국도 자기 나라에서 머물던 실성이 신라의 왕이 됨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를 풀어 주었다. 고구려국 불모에서 풀려난 실성은 신라로 돌아와 국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결국 18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실성은 평소에 내물왕이 자신을 고구려에 불모로 보낸데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는 그 앙갚음을 하기로 결심했다. 선왕인 내물의 왕자 놀지를 제거하기를 결심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거듭 할수록 놀지가 위협적인 존재로 그를 압박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성은 과거 고구려국에 머무를 때 사귀었던 장수 몇 명을 몰래 불러 ‘놀지를 선봉대장으로 하여 고구려국을 공격할 터이니 그때 처분하도록’ 약속했다. 만약 후퇴해 올 경우를 염려하여 실성이 직접 말을 몰고 후방에서 지키기로 했다. 즉 이쪽으로 쫓겨오면 직접 자신이 그의 목을 벨 결심을 하고 진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가 선봉장 놀지를 보는 순간 너무나 인자하고 단아하므로 도저히 죽여서는 안 될 인물 같아서 그를 사로잡았다가 풀어주면서 실성왕과의 그 음모를 놀지에게 낱낱이 고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들은 놀지는 크게 한 번 호탕하게 웃고는

“이는 우리 부왕(父王, 내물왕)이 뿌린 업인과보業因果報이니 내 선대 실성왕을 결코 탓하지 아니하리라”하고 말하였다.

그 때 고구려 군사가 오히려 실성왕을 에워싸고 그만 그의 목을 베었다. 그는 실성왕을 죽인 고구려 병사를 호되게 꾸짖고 돌아와 국민(國人)들에 의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실성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한편 실성(實聖)의 왕자인 치술(池述)을 극진히 보살폈다.

그러나 실성의 아들 치술은 점차 나이가 들어 부왕(父王)이 행하신 그 사실을 알고는 어느 날 갑자기 궁에서 나가 어디론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왕비는 갑자기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걸고 수소문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 매우 춥던 날, 약초를 캐던 아낙네에 의하여 얼어 죽은 치술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렸다. 놀지왕은 아내와 같이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죽은지가 오래되었는지 전신이 돌처럼

럼 일어 굳어 있었다. 왕은 그 부근에다 어린 치술의 시신을 묻었다. 왕비는 동생의 무덤에서 삼일 간 통곡하다 동생과 같이 죽겠다 하며 쓰러지니 왕은 이를 측은히 여기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강제로 왕비를 가마에 태우고 궁으로 데리고 가도록 했다.

그 후 왕비는 날만 새면 그가 죽은 산을 향해 ‘치술아’ 외쳐 부르며 통곡하고 우니 온 궁안의 신하가 따라 올면서 치술이 죽은 산을 향해 절을 했다. 이로 하여 그 산이 치술령이 되었다.¹⁸⁸

■ 망부석

또한 치술령에는 박제상가의 충효의열(忠孝義烈) 4절(四節)이 져어 있는 전설의 망부석이 있다.

박제상이 왜국에 가서 볼모로 잡혀 있는 미해를 구하여 계림으로 보내고 자신은 그곳 일본 목도(木島(대마도))에서 화형 당하였다.

부인은 이때 남편 박제상이 나라를 배반하고 왜국의 신하가 되었다는 누명을 쓴 채 치술령에 유배되어 살면서 이 바위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렸다. 동해를 바라보며 기다리던 중 남편이 왜국 목도에서 화형당한 것을 알고는 그날 뛰어내려 죽었다. 두 딸도 뛰어내려 죽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망부석’이라 한다.

박제상이 왜국에 볼모로 잡혀있는 미해를 구하기 위하여 떠날 때 왜국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나라에서 거짓으로 박제상을 역적으로 몰아 그 가족을 이 산속으로 유배하여 살게 했던 것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

■ 백결선생¹⁸⁹

문량은 후에 백결선생(百結先生)이 되어 낭산(狼山)으로부터 숨어들어 이곳에 와서 살았다 전한다. 약관의 나이 때 문량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누나의 죽음으로 하여 드디어 입신출세하게 된다. 즉 누이(아영(阿榮))가 미사흔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19대 눌지왕이 죽고 20대 자비가 어린 나이에 새 왕이 되자, 외숙인 문량은 지근거리에

188. 경주시 외동읍 녹동 안용목, 안병옥의 구전을 필자(김대원)가 인용

189. 영해박씨 세보에 박제상의 슬하에 아기, 아영, 아경 등 세 딸과 막내로 어린 아들 문량이 있다.

서 왕을 모셨다. 항상 직언直言으로 충신의 아들답게 자비왕을 보필하는 문량이 간신들에게는 눈에 가시와도 같았다. 기회만 엿보던 간신배들이 모략을 꾸몄다.

국대부인의 예우로 어머니의 시신을 처음 모신 장지葬地는 지금의 망덕사지 부근 어디였다. 이상하게도 그곳에 분묘를 쓴 후부터는 하늘이 구름 속에 숨어서 햇빛을 주지 않았다.

매일 비가 와도 저수지가 말라 있었다. 비가 많이 와도 10mm 미만이었다. 가랑비가 아니면 이슬비만 계속 왔다. 햇빛을 못 본 산천초목은 자연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다. 해마다 흉년이 겹치었다. 이러한 건장마가 수 년간 계속되자 어느 풍수가 입을 열었다.

“이는 죄 없는 국대부인을 산정에 유배하여 그 가족을 죽게 한 원한의 눈물이다.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어 햇빛과 비를 주지 않고, 365일 눈물이 흘러 대지를 적시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혼怨魂을 달래지 않으면 산천초목이 열매를 달지 못하고 심지어는 백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루 속히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원혼을 달래려면 부인의 유해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치술령 정상 그 바위 위에다 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곧 호심이 많은 문량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문량이 차츰 나이가 들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누나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그때 나라님이 우리 가족을 치술령에 유배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문량은 분했다. 아버지를 기다리다 떨어져 죽은 어머니가 한없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통곡하다 망부석에 뛰어내리는 꿈을 꾸고는 소스라치며 놀라 깨기도 했다. 문량은 누나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의논했다. 아영은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나라님에게 간청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망덕사望德寺 부근에 있던 무덤을 망부석 위에 이장移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이장하는 그 날이었다. 아침나절까지 흐리던 하늘이 이장을 하자마자 갑자기 큰비를 쏟아고 다시 개쪼가 개였다. 말랐던 저수지마다 물이 가득 찼고 벼농사도 대풍이 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터는 날이 가물기 시작하였다. 365일 청천 하늘에 햇볕이 내리쬘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내용인즉, 박문량이 치술령 정상에다 그 어머니의 유골을 이장하였는데, 이는 장차 그가 용상龍床에 올라 보겠다는 것을 나타낸 행동으로, 이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라하여 왕으로 하여금 문량을 멀리하게 했다.

자비왕은 간신배의 모함을 사실로 믿고 문량을 추방하니 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는 망부석 위에 안치했던 어머니의 유해를 거두어 진달래꽃이 만화방창萬花方暢했던 만화리 萬花里 동산에 새로 모신 후 벼슬에서 떠나 낭산狼山으로 숨었다가 가족을 데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곳에서 숨어 살았다 한다. 그때가 백결선생이란 칭호를 받은 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치술령은 바로 박제상 가족의 피눈물과 땀과 생사고난生死苦難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은 실성왕의 아들 치술의 전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삼국유사』 왕력편에 실성왕을 치술의 아버지라고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김대원, 『서라벌의 망부석 아직도 울음 운다』, 글밭, 1999]

치술령^{鷄述嶺} 전설

요새 말로 조선서는 마 뭐 두서¹⁹⁰가 없어가 난리로 지기고 할 때, 임금이 쫓기 드가가 쫓기 나오고 할 그 시대에, 참 저게 그 대사¹⁹¹가 여어 몬 견더가 내외를¹⁹² 놔 두고 저 일 본 대마도로 갔다 카데. 대마도가 우리 조선땅 아입니까? 대마도로 건너가면서, 이런 전설이 있대, 대마도로 건너가면서는,

“도저히 나는 여어서 견딜 수가 없으이.” 처를 보고,

“나는 가서 성공을 하며 돌아올 끼고, 성공을 몬 하면 내가 영원히 다시는 올 수가 없으이, 내가 가는 데가 어텐고 하이, 대마도로 건너 가이, 대마도로 가가지고, 구름이 떠가지고 누런 구름이 떠올라 오거 등 날 산 줄 알고, 그라이며 죽은 줄 아라꼬.”

그래 보내 놓고, 하, 이 부인네가 기다리이 뭐 소식도 없지 인자. 매일 저 그 셋째 방구, 방구 만덩이에 올라가가 천날 만날 내리다보고 있다.

넌중에는 마 노란 구름이 동동동동 뒸다. ‘아하, 죽었구나.’ 그래가 마 비조(飛鳥), 새 조鳥짜,

그래 박제상 이야기다. 은을암^{隱乙庵} 카는 그거... 영혼이 되가지고 그기 새가 되가 날라 와가서는 은을암 절 그 방구 틈에 드갔다 카데.¹⁹³

[구술 최해규]

그래 원혼이 되가 마... 인자 기히¹⁹⁴ 남편이 죽었으이 그 인자 말하자며 새가 되가 날라 간 뒤에, 거어 짓기로 이전에 박제상 그 어른 때 지었다 카제? 으어¹⁹⁵, 저 저 전설이

190. 순서

191. 박제상을 잘못 오인하여 하는 말.

192. 부인을

193. 박제상의 부인이 죽은 후 그 영혼은 새가 되어서 은을암 근처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다.

194. 이미

195. 아니

그기 아이고 일본 사신 드갈 때 대마도로 드갔다 카더라.

그 가면, 사신이라 카며 바로 마 참 죽을 사死짜를 이마뺨에 붙이고 가는 긴데, ‘그 내가 죽어가 오나, 다시 고국을 돌아오나?’카는 그거 인자 그 양단, 양단간兩端間이까네, 그 부부가 인자 참 영원히 인자 마 이별이 되나, 다시 만나지나, 그래서 그, 저 갈 때, 그 부인이, 박제상씨가 갈 때,

“내가 누른 구름이 떠가 있거들랑, 동쪽을 향해가지고서는 노련 구름이 떠가 있으면 죽지 안 했고, 검은 구름이 올라오며 내가 죽은 줄 알아라.”

그래가 인자, 부인잘에. 저 치술령 산만당아¹⁹⁶ 가며 망주석¹⁹⁷ 이라꼬 있어요, 바우가 이름이 바렐 망望자, 돌 석石자, 망두석이라 카는 방구가. 그 방구에, 만날 그 방구 우에 가가 딱 기다린다. 참 그 동쪽에 아직 일찍 가가 보이, 하리는 마 검은 구름이 썩 올라 오거 동, 내에 누른 구름이 있다가. ‘아, 인자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인정이¹⁹⁸ 아주 놀랍았던 모양이지. 그 망두석 바우에서 떨어져서 참 사망을 당했다. 죽고, 뒤에 이 양¹⁹⁹ 원혼이 인자 새가 되가지고 날아 나갔다. 이런 전설이 있지요.

그거 인자 새가 어더로 갔노 하며, 인자 옷발 비조飛鳥²⁰⁰라 카는 데가, 이 마실, 동네 이름이 요오 넘어 가며 옷발, 비조 카는 데가 있어요. 인자 비조라꼬, 와 옛날에 그 마실 이름을 비조라꼬 지았노 하며, 그 인자 날 비飛짜에 새 조鳥 그래 비조다. 그래가 비조로 날라 가가지고 그 은을암 절 방우 틈으로 드가 드갔다. 그래 그 그 뒤로 그 인자 은을암이라는 그 절을 지왔는 모양이라. 그런 전설이 있지요. 우리가 듣기로 뭐 그래 들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해규 최돌이, 두동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196. 산정山頂에

197. 망부석望夫石을 이렇게 표현했다. 망두석도 같은 뜻을 가진 방언임.

198. 부부간의 사랑이.

199. 이내

200. 옷발과 비조는 斗東面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은을암 隱乙岩

신라 충신 박제상의 부인에 관한 전설이 깃든 작은 굴이 있는 바위를 말한다.

설화에 따르면 당시 불모로 잡힌 왕제 王弟를 구하기 위해 왜국으로 떠난 남편 박제상을 기다리느라 세 딸과 동해가 훤히 건너보이는 치술령(두동)에 올라, 남편이 순국하였다는 부음을 접하자 이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자, 이어 두 딸도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어 시신은 곧 그 자리에 화석이 되어 망부석 望夫石이라 이름 지어졌고, 이때 부인 김씨의 혼이 혼조 魂鳥가 되어 망부석 남쪽 십여 리 쪽 바위틈에 날아가 숨었는데, 이 바위를 은을암 隱乙岩이라 한다.

은을암 隱乙岩은 박제상 모녀의 혼조 魂鳥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동굴인데, 이곳은 해발 602m의 국수봉 정상 바로 아래인 범서읍 척과리 산152번지에 있다.

동굴 바위 앞엔 은을암 隱乙庵이라는 조그만 신라 고찰이 있다. 이 사찰은 나중에 김씨 부인 모녀의 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고 전하는데, 은을암 隱乙岩 동굴 입구엔 국수봉 은을암용왕각 國守峰隱乙庵龍王閣이라는 현판이 걸린 누각이 있다. 이 굴은 넓이가 1.25m, 높이 1.8m, 깊이 8m로 되어 있다. 이 굴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나 울산 근교에서 불교 행사가 열리면 이곳의 물을 가져다 차를 끓여 손님들 대접한다고 한다.

현재 이 은을암 隱乙庵에는 굴을 불자들의 기도처로 만들어 놓아, 많은 불자들이 촛불을 켜놓고 예불을 드리기 때문에 굴 입구가 지저분한 편이다.

지금은 척과쪽에서 두동면 비조 飛鳥로 넘어가는 임도 林道가 나 있다. 이 임도를 따라가면 박제상의 유적지인 두동면의 치술령 瑤述嶺의 망부석 望夫石, 치산사 瑤山祠, 신모사당 神母祠堂과 이어진다.

특히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1997. 10. 9)로 지정된 치산서원 瑤山書院은 조선 영조 때 지어졌으나 없어졌다가 최근 복원되어 제사 지내며 후세들의 충정교육장 忠貞教育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만고충신 박제상과 부인에 대한 기록은 후세까지 우리 고장 사람

들에게 큰 자부심과 아울러 감동적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망부석望夫石을 찾은 조선시대 점필제 김종직金宗直의 한시漢詩 한 구절을 소개한다.

치술령두망일본 鵝述嶺頭望日本

양인거시단요수 良人去時但搖手

음모단장별이 音耗斷長別離

호천변화무창석 呼天便化武昌石

점천경해무애안 粘天鯨海無涯岸

생여사여음모단 生歟死歟音耗斷

사생영유상견시 死生寧有相見時

열기천재간공벽 烈氣千載千空碧

해설 :

치술령 꼭대기에서 일본 땅 바라보니

하늘 달은 물결이 끝이 없도다

내 님은 떠날 때 손만 흔들어 주시더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끊겼도다

길고 긴 이 이별이여 죽어서나 살아서나

서로 만날 날 어찌 있을 건가

하늘보고 울부짖다 망부석이 되었으니

열녀기상 천년토록 푸른 하늘 찌르리라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은을암 쌀바위

은을암隱乙庵²⁰¹ 절이 있는데 그 절 짓기 전에 사람이 멧이 드가 가지고 수양할 수 있을 만치 방구가²⁰² 이래 돼 있는데, 예전에 어떤 수양하러 간 분이 그 방구에 가가지고 방구 밑에서 주야로 눕어자고 있는데, 쌀이 톱 하나(한사람) 묵을 만치 하루 종일 나와. 그래 쌀로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사람이 묵고 이카며 살았다.

사람이라 카는 기 욱기慾氣가 나기 때문에, 구무가 좀 더 크몬 쌀이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구무로 마 꼬쟁이로 히비뻬는 기라²⁰³. 구무로 꼬쟁이가 히빈 뒤에는 마 물이 쫄쫄 나와. 지금까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그 뒤로 새가 세 바리가 물속으로 드가고 안 나왔다.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절로 지었는데 숨을 은짜隱字, 새 을짜乙字 은을암이라 이래 지었는데, 아주 그 지대가 높으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201. 치술령鷄述嶺 남쪽 울주군 범서면 척과리蔚州郡 凡西面 尺果里에 있는 절

202. 바위가

203. 후벼 파버렸는거야

204. 세 마리가

국수봉國讐峰의 지명 유래

이 산이, 요오 산이 전부 경북을 보고 이래 다 있는데, 향해가 있는데, 국수봉 저것만은 저 울산쪽으로 보고 돌아 앉아 있어요.

그래 놓이 저 나라의 원수의 산이라꼬 신라 때 저거로 국수봉이라꼬 이름을 지았답니다.

예, 신라 때 저어 지았다 카데요. 국수봉이다. 이거 나라의 원수의 산이다. 나라를 마다꼬 저래 돌아 앉아 있으이까 국수봉이다. 그래서 국수봉이라꼬 이름을 지았다 이 카데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이여송이 혈을 끊은 중글방구

그 히안해. 저 기이하게 뻤어. 저어 방구²⁰⁵ 밑에 저어 내리오며요, 산이 맨 우에서 죽 내리오다가 딱 끊어뿌고 없어요. (동쪽의 치술령鷄述嶺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동입니더. 동이지요. 예, 지슬산이라꼬, 지슬산이라 카는 국내에 다 그거 돼 있다 카테.²⁰⁶ 저 저 방구

205. 바위라는 뜻으로 방구 라는 방언과 혼용되어 쓰임.

206. 치술령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말이다.

는 중글방구라 카는데요. 저 방구 밑에 저 옛날에 절이 있었어요. 그 중글 절터라 카는...

중국 사람이 와가 저거로 마 끊어뼉어요, 이여송李如松 군이. 그 나라 그 때 시대 우리 참 요셋말로 한국은 저거들찌리 뭐 참 중구난방으로 난리를 지기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왜놈인데 옛기²⁰⁷ 넘어 갔지요마는도, 그 때 인자 청병請兵을 인자 저 쪽에서 했다 카데.

결국 청병해 놓이, 아, 이여송 장군이 하, 이 한국에 쓱 넘어와 보이, 산 지리地理로 갖다가 이렇게 되이, 까딱하며 자기를 해롭힐 꺼 곁에. 그 때 혈을 딱 질러뼉다 카데. 다 질러뼉다 카데.

이거 뭐 전설을 우리가 마 이전 노인들인데 듣지요 뭐. 지르든동 끊든동 오그리든동 누가 압니까, 어데?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해규, 두동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호랑이로 둔갑하는 왕선달

김가 성을 가진 왕선달은 문국 어른으로 한문은 최고 선배(선비)고 영환이²⁰⁸란 사람의 어른이고 구학舊學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들 영환도 한문을 많이 알고, 둔갑 장신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207. 빼앗겨

208. 마을에 사는 노인

옛날 마차도 없고 교통도 없고 할 때

문국 어른이 캄캄 어둡은 술이²⁰⁹ 우거진 골짜기를 일행과 같이 동행이 되가 오거등. 친구
간이고 다 같은 학자고 하이까네,

“니 진짜 밤으로 호랭이가 되가 울산꺼정(까지) 갔다 오나?” 카이까네,

“니 더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니가 진짜 그러나? 내 보는 데 둔갑 장신해가 호랭이 하문 돼 봐라.”

“니 그래 되며 놀렐라꼬?” 그라이까네,

“언제(아니), 내가 닌 줄 아는데 내가 놀렐 택이 있나? 안 놀랜다. 하문 돼 봐라.”

“참말로?”

“참말로.”

“니 조금 앞에 가거라. 내 조금 있다가 뒤에 따라가께.”

참 쪼끔 있으이 불과 담배 한 대 달 여가도²¹⁰ 안 댔는데, 언제 호랑이가 되가, 자기 앞에
와가 ‘웁’ 카이 캄짝 놀래가지고 뒤로 툽 구불어졌다 이거라요.

그 어른 학자가 ‘내가 절대 닌 줄 알기 때민에 내가 안 안 속는다꼬, 저 범인 줄 생각 안
한다꼬, 범이지마는 범인 줄 생각 안 한다꼬, 닌 줄 내가 생각하면 뭘 놀렐 꺼 없다.’ 이켰
는데, 참말로 범이 되가 앞에 와 버뜩 서이까네 뒤로 툽 자빠져 그 질로 자무썰러²¹¹ 가지
고 잘 떠다 카데요.

치술령 시구디미 방구라꼬, 큰 방구가 있는데, 왕선달이 시구디미 방구 저게서 꺼꾸로
도 기고 옹기도 긴다 이런 전설이 있거등.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돌이, 두동면, 1984]

209. 술이

210. 태울 시간도

211. 까무라쳐

허고개

신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경순왕敬順王은 부처님의 힘을 얻어 나라를 유지해 보려고 임금이 친히 공양하는 제를 올리고 있었다.

이때 차림새가 남루한 한 비구승이 찾아와서 꾸부리고 청하기를

“소승도 같이 제하기를 바라나이다.”하니 임금이 허락하여 말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하였다. 제가 끝날 때 왕이 희롱삼아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중이 답하되

“영축산靈鷲山에 있나이다.” 하였다.

왕이 또 말하기를

“돌아가거든 남에게 국왕이 친공하는 제에 참석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하니 중이 웃으며 “폐하도 진신문수眞身文殊를 친견하였다고 말하지 마소서” 하며 몸을 날려 남쪽으로 향하여 갔다.

왕이 놀라서 어가를 달려 그 뒤를 따랐으나 차차 거리가 멀어지더니 허고개에 이르러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자

“헛일이로구나! 헛일이로구나!” 하며 탄식하다가 지지知止에서 잠시 머물고 다시 뒤를 따라 망성望星에 왔으나 멀리 영축산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멀리 영축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뒤 ‘헛일이로구나’하여 탄식한 곳을 ‘허고개’라 하였으며 왕이 머문 곳을 지지知止라 했고 멀리 바라본 곳을 망성望星이라 하였다고 한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웅치사

신라 제19대 눌지왕은 볼모로 보낸 두 동생 복호卜好와 미사흔을 구출하는데 지혜와 용맹을 떨쳤던 박제상朴堤上생각에 항상 잠겨 있었다.

어느 해 초겨울 나랏일을 마치고 막 잠을 청하려는 순간 갑자기 대왕의 귓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은 가족을 깨우고 문무백관을 불렀다. 밤중에 궁성은 발각 뒤집히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도록 숙의를 거듭했으나 대책은 서질 않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들이 가고 사흘이 가도 그칠 줄 모르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나랏일도, 수라도 들지 못하니 용안은 수척할 대로 수척해지고 온 성안이 들끓고 이름 모를 병고에 대한 추측은 천 갈래 만 갈래로 난무하여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기 울음소리의 정체는 알 길이 없었다. 소문난 점술가도, 영험 있는 의원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왕은 아기 울음소리를 찾아보기로 결심을 굳히고 길을 떠났다.

왕의 거동에 아기 울음소리는 한결 부드럽게 들렸는데 그 방향이 틀리면 이상하게도 곡소리가 들리고 다시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온화한 웃음 섞인 아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찾아 온 곳이 치슬령의 중간쯤이었는데 그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똑 그치고 말았다.

왕은 말에서 내려 주위를 살펴보니 흙을 뒤진 흔적과 금방 만든 것 같은 작은 무덤 하나가 잡혔다. 그 무덤을 보는 순간 그쳤던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애절함을 더하여 흐느끼며 들려왔다. 왕은 신하들과 같이 손수 그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파니 솜으로 된 아기 포대기가 나오고 그 속에는 금으로 된 불상이 나왔다. 불상은 흡사 살아 숨 쉬는 아기와 똑같았다.

왕이 그 불상을 가슴에 안으니 울음을 똑 그치고 서러움에 못 이겨 추수리기 시작했다. 왕은 불상을 어루며

“그래 그래 내가 너의 한을 풀어주마” 했더니 불상의 두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흘러 내

렸다.

일행은 그 포대기와 불상을 안고 마을로 내려와 포대기 임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냈다. 포대기 임자는 금슬 좋기로 소문난 가난한 젊은 부부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부부는 눈이 멀고 귀가 절벽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 웅이가 태어났다.

웅이는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줘 행복하기만 했다. 부부가 일터에 나가면 웅이는 할머니와 놀 함께 지냈다.

그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부부는 틈을 내어 온 산을 뒤희다 시피 하여 송이버섯을 따다. 어머니 겨울 밥반찬을 하기 위해서였다. 평소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들에서 잡으면 어머니 밥반찬을 해 드리는 지극한 효자 부부였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송이버섯 말린 것을 볶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여 어머니 밥상에 올리는데 어머니 당신은 하나도 드시질 않고 손주만 먹으신다. 눈이 어두워 보이지는 못하셔도 이손 저손 더듬어 손주의 입을 찾아 음식을 먹이곤 하시는데 부부는 딱하기만 했다.

하루 밤에는 부부가 의논을 했다.

“우리는 아직 젊지 않느냐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보니... 우리 저 아이를 없애 버리자”하고 잠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칠흙 같이 어두운 밤에 산에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고 했다. 그 가혹하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왕은 이렇게도 착한 백성이 있다는데 한없이 고마움을 느꼈다.

부부는 이야기를 마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귀가 절벽이시고 앞을 분간 못하시는 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전달되었는지 방문을 열으시고

“웅이 깼느냐”하고 소리치신다.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어머님...”하고 불러 놓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

왕께서는 대신

“예”하고 대답해 놓고 금불상이 된 웅이를 어머니 무릎에 안겨 주신다. 웅이를 받아안은 어머니는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어루며 좋아라 어쩔 줄 모르신다.

웅이가 없어지는 날부터 어머니는 밥상을 받아 놓으시고 웅이를 찾으셨다. 그 때마다

아들 내외는 웅이가 아직 잔다고 했고 어머님은 웅이가 깨면 함께 먹으마 라고 하셨다.

그러던 안타까운 세월이 덧새나 지나갔고 어머님은 물 한 모금 드시질 않으셨다. 그러다가 웅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 했겠는가. 어머니는 한참을 놀다가

“자! 우리 밥 먹자.” 하고 밥상을 찾는 순간 웅이를 안고 앞으로 쓰러진다. 어머님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다.

왕은 너무나 순박한 서민들의 애환을 한눈에 보고 이 산을 치술령(산에 嶺자를 쓰는 것은 벼슬을 준다는 뜻임)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어 지고 있다.

그때 왕이 말을 매었던 자리를 ‘말등’이라 전하고 있고 웅이가 묻혔던 자리에 ‘웅치사’란 절을 지어 오랫동안 웅이의 넋을 위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절은 빈대가 너무 많이 생겨 사람이 살지 못하고 허물어졌으며 절터에는 깨어진 기와조각만 말없이 텅굴고 있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왕선달과 축지법

상월평 못 안에는 김성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조부가 한학에 능통하고 축지법을 사용했다는 말이 구전되고 있다. 이 사람은 시우딤 바위에 거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자재로 하면서 바위에 붙은 있는 식물을 따왔다고 한다.

또 경주까지 50리 길을 순식간에 다녀오고, 목침에다 버선을 끼워서 주문을 외우면 비 돌기가 되어 날아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겨울 이 사람이 얼음이 언 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는데, 언제 못에서 나왔는지 사람들이 마을로 왔을 때는 이미 마을 뒤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여나산곡餘那山曲

두동면斗東面에 있는 연화산蓮花山을 옛날에는 여나산餘那山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 어떤 서생書生이 여나산餘那山에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는 알뜰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뽑히는 바가 되었다. 그 서생書生은 과거에 합격한 영광으로 큰 세족世族의 규수를 맞아 혼인을 하였다. 또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누진하여 뒤에는 과거의 장시掌試를 맡아 보게까지 이르렀다.

고려 때 관계의 풍조는 과거의 시험관인 장시掌試가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관계의 이러한 풍조는 과거가 끝난 뒤에 합격자들이 찾아와서 사배謝拜의 예를 행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다.

여나산餘那山の 서생이었던 그에게도 예외는 없이 합격자들이 와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에 그 혼가에서는 영광된 기쁨에 넘쳐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일이 있는 뒤로부터의 일이었다. 장시자掌試者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는 이 노래를 먼저 부르는 관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그 노래의 이름을 여나산곡徐那山曲이라 하였으나 가사와 곡은 전하지 않는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고려사」,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고려사」,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여나산곡(2)

허고개를 넘으면 연화산을 등지고 있는 은편리가 있다. 자연마을로서는 두동면에서 제일 큰 동네다.

옛날 이 동네에 여량餘郎이란 잘생긴 총각이 윗마을에 살고, 나비那飛라는 예쁜 처녀가 아랫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풍습으로는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볼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따뜻한 봄날,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간 여량이 바구니를 들고 나물을 캐러 나온 나비를 만나게 되는데 둘은 첫 눈에 반하고 말았다.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사랑은 깊어만 가고 서로는 만나지 않으면 살지 못할 정도였다. 그 해 봄은 둘만의 봄이었다. 긴긴 봄날도 서로에게는 너무도 짧았다. 그러다가 농사철이 되면서 둘은 만나지 못하게 되어 서로 안타까운 사연만 밤마다 허공에 띄우면서 애를 태우게 되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량은 그 해 여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서라벌로 들어가 화랑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여량은 낮에는 고된 훈련, 밤에는 글공부를 하면서도 하루도 나비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때 화랑들은 전국을 누비면서 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 심신을 단련했다.

어언 3년이 흐른 후 나비는 장성하여 이 곳 저곳에서 혼처가 생겨나는데 철마다 여량을 만나러 뒷산으로 갔으나 한 번도 여량을 만나지 못했다. 도대체 여량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는 처녀인 나비가 여량을 수소문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나비는 날마다 그리운 여량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의 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나비는 사주단자를 보내 놓고 치마끈에 목을 매어 기어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한편 여량은 화랑 교육의 기초를 마치고 심신단련의 수련기에 들어가게 되어 지금의 두동면 천전리에 머물게 되었다. 화랑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암벽에 그림도 그리도 글씨도 썼다. 여량은 3년 동안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나비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림고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동료들이 잠든 사이 나비를 찾아 산을 넘었다.

단련된 몸으로 산을 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비호같이 달려 나비네집 사립문 앞에 당도하니 소나무 장작불이 한마당 가득했다. 사연을 알아보니 나비는 오늘 낮에 한마디 유언없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소리에 여량은 까무러쳤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본가에 누워 있었다. 부모님과 동료 화랑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량은 3일 밤낮을 까무라쳐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여량은 나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실성하여 화랑 생활을 그만두고 나비의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여나산곡餘那山曲이고, 신라 향가의 시초라고도 전해 온다. 그리고 당시 이들이 살았던 산 이름도 여량 여餘자와 나비 나那자를 따서 여나산餘那山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다시 연화산蓮花山이라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이 자리에 연소암蓮沼菴이란 절을 지었는데 지금은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다.

한편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는 「여나산곡」과 관련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 있다.

어떤 서생이 여나산에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 서생은 과거에 합격한 영광으로 큰 세족의 규수를 맞아 혼인을 하였다. 또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뒤에는 과거의 장시掌試를 맡아 보게까지 이르렀다. 고려 때는 과거의 시험관인 장시가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과거가 끝난 뒤에는 합격자들이 장시를 찾아와서 사배謝拜의 예를 행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에 그 혼가에서는 영광된 기쁨에 넘쳐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일이 있을 뒤로부터 장시자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는 이 노래를 먼저 부르는 관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노래의 이름을 여나산곡이라 하였으나 가사와 곡은 전하지 않는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통일 소나무

은편리 하일리와 추자말 중간에는 옛날부터 큰 소나무가 두 그루 있었다. 군도 31호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 소나무는 모양이 서로 비슷했을 뿐 아니라 크기도 거의 비슷해 같은 시대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령 3백여 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소나무는 두 그루 모두가 길 안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붙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서로 붙으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당시 국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염원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소나무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군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베어나가고 없어진 것이다.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들어 남북 경제협력으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아마 그 소나무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서로 붙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장천사障川寺의 폐망廢亡

두동면 천전리斗東面 川前里에는 장천사障川寺라 하는 큰 신라고찰이 있었다. 보안골을 안으로 들어가서 명산등名山燈 끝에 이 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화공 최진사가 백련암白蓮庵터에 백련정白蓮亭을 짓고, 노실奴谷의 정씨가 명산등에 몰래 묘를 드리고 난 뒤에 절의 운기가 그만 쇠하더니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명산등에 묘를 드릴 때의 일이었다. 장천사障川寺의 중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묘를 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상제들이 둘러 모아 이모저모로 궁리하던 끝에 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경주慶州에 있는 광대들을 모아 장천長川에서 며칠 동안 굿놀이판을 벌렸다. 이 소문이 퍼지자 원근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그런데 장천사障川寺 중들도 마을로 내려와서 이 구경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광대들이 한바탕의 아슬아슬한 줄을 타며 많은 박수 갈채를 받는다. 또 노래와 춤이 등장하니 다들 숨을 죽이고 듣고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한 광대가 나와서 사설辭說을 한다.

“옛날 옛적 간날 갓적 호랭이 담배 피울 때, 이띠 띠고 저띠 띠고 범 호虎띠 띠고 앞집쳐 자 혈띠 띠고 뒷집 총각 말띠 띠고 큰골에 짱치고 작은골에 배락 칠 때 백발노인 운기 몇 네. 명산하나 잡을라고 백두산白頭山 쳐다보고 구월산 홀터보고 봉래산 밟아보고 삼각산 지나오고 계룡산 뒤비보고 방장산 파디비보고 한라산 배없어 못가보고 치술령 쫓겨오고 마등산馬登山 뛰어넘어 동도東都 끝봉 올라서니 연꽃이 피었구나.”²¹² 이등저등 쇠다놓고 명산등名山燈에 쇠 놓으니 여기가 유택일세. 평토제는 지냈겠고 산신제도 끝났겠네.” 하고는 한숨을 돌렸다.

이때서야 중들이 눈치를 알아차리고 “와아!”하며 명산등으로 올라갔으나 일은 끝난 뒤였다.

노실奴谷에서 말에 흙과 돌을 싣고 와서는 그 흙으로 봉분을 모았으며 성분한 상제들은

212. 장천사지障川寺地는 연화산蓮花山 기슭에 있다.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이철오, 태화동,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보덕골普德谷 절터

봉계 상월평의 동쪽 치술령 산맥이 뻗은 곳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는 옛부터 절이 많다고 한다.

특히 옛날 이 곳에 보덕사普德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해 보덕골이라 한다. 또 그 안쪽으로는 중골과 토골이 있는데 이곳에도 이름 모를 절터가 많이 있다.

이곳에 있었다는 보덕사는 보덕普德이란 고승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또 신라시대에는 원효元曉대사가 지냈다는 얘기도 전해 오고 있는데, 당시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경주 분황사가 이곳에서 50리 거리밖에 안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효대사가 이곳에 자주 들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이 옛날에는 경주의 문화권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이처럼 큰 사찰이 많았다고 하지만 다만 전설로 내려올 뿐 지금까지 문헌이나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불선바위

하삼정에 있는 큰 바위이다.

옛날 사람들은 큰 바위 앞에서 불을 켜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민속 신앙은 산수가 맑은 계곡에서 이루어졌는데 불선바위가 있는 곳도 이런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다.

하삼정 송충골 상류에 있는 이 바위는 높이가 7m가량 되는데 이 바위에 공을 들이면 생남을 한다는 전설이 있다. 이 때문에 인근 두동면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경주 등지에서도 아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 찾아와 아들 낳기를 간구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병사등

하삼정 송충골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병사등이라는 이름은 병사가 죽은 뒤 능선에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는 임진왜란 당시 병영성 전투에서 패해 왜군에 쫓기던 한 병사가 연화산 중턱 연소암蓮沼菴을 거쳐 북으로 후퇴하던 중, 타고 오던 병마가 죽자 말을 장사 지내 주고 자신도 이곳에서 죽어 묻혔다고 한다. 말무덤이라는 것은 이 때 말이 묻힌 무덤을 말한다.

이후 이 병사의 무덤이 있는 아래에 기계유씨杞溪俞氏의 선영이 생겼는데 유씨 문중에서 가을에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병사 무덤에 술 한잔을 먼저 올리고 난 후 선조의 묘제를 모신다고 한다.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바골못을 막고 망한 박씨네들

중리 마을 앞에 이 산이 이 혈등이 죽 내리왔는데, 박씨네들이 옛날에 박마을 거어 살았는데, 박씨네 말을 거어 놔 먹었다고 박마을이랍니더.

박씨네들이 말을 놔 먹이고 있다가 우에 보淤를 낸다고 그 혈穴을 혈을 끊었는데, 거게 피가 났답니더. 그리고 다 망하고 자손들이 다 없는데, 골짜기에 막았는 그 못을 바골못이라 카는데, 지끔은 확장이 되가 봉계 지구²¹³의 큰 못이 됐읍니더.

그 우에가 천하 명산이라는데, 혈 지른 고 우에, 지끔도 봉분도 크고 좋은 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상석도 있고, 비문도 있었었는데, 그 묘가 삼통(내내) 무허古塚 되가지고 폐개시키뿌고 고후에 그 후손이 하문 왔다는데 몬 찾고 갔답니다.

박씨네 민동(묘인지), 김씨네 민동, 어는 사람 문동(묘인지) 모르는데, 이조 때 장군 묘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전재임, 두동면, 1984]

213. 두서면 봉계리鳳溪里 일대



두서면편

열박산咽薄山과 김유신金庾信

울주군 두서면蔚州郡 斗西面의 내와리內瓦里와 상북면 소호리上北面 蘇湖里의 사이에는 높은 백운산白雲山이 솟아 있다. 이 백운산을 신라 때는 열박산咽薄山이라 하여 무척 신령스러웠던 산이었다. 열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감투봉이라 하며 여기에는 신라 때의 한 설화가 전해온다.

김유신金庾信의 나이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흡연治然히 그에게 복종하였으며 또 낭도들은 용화향도龍華香徒라 불렀다. 신라 진평왕眞平王 28년(611)에 공의 나이 불과 17세였는데, 북으로는 고구려와 말갈靺鞨이 서西로는 백제가 국경을 침범하

여 나라가 불안함을 보자 강개慷慨여 적을 평정할 뜻을 깊이 품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중악中嶽(단석산斷石山 또는 청도오례산淸道烏禮山)의 석굴에 들어가서 제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이리와 범이 되어 우리 강역을 침요하여 거의 평안한 해가 없습니다. 나는 한낱 미약한 신하로써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화禍와 난을 소청하는데 두고 있사오니 하늘은 내려 보시고 나에게 능력을 빌려 주십시오”하였다.

거기에 있는 지 4일 만에 문득 한 노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와서 말하기를 “이곳에는 독충과 맹수가 많아 무서운 곳인데 귀 소년이 여기에 와서 혼자 거처하니 어떤 일인가?”하였다.

이에 유신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존명을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하니 노인이

“나는 일정한 주소가 없이 인연을 따라 행동하는데 이름은 난승難勝이라 한다.”고 하였다.

유신공은 이 말을 듣자 그 노인이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재배하여 나아가

“나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어 여기 와서 만나는 바가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시다. 바라옵건데 어른께서는 저의 정성을 애답히 여기 시어 방술方術을 가르쳐 주시옵소서”하였다.

노인은 다만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여 6,7차까지 거듭하니 그제야 노인은

“그대는 아직 어린데 삼국을 병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장한 일이 아닌가?” 하고 이에 간직 하였던 비법을 전하면서

“조심해서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일 불의한 일에 쓴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말을 마치고 작별을 하며 2리쯤 갔는데 쫓아가 바라보니 보이지 않고 오직 산위에 5색과 같은 찬란한 빛이 나타나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인 진평왕 29년(612)에 이웃 적병이 박도하니 공은 더욱 비장한 마음을 격동하여 혼자서 보검을 들고 열박산咽薄山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며 마치 앞의

중악산中嶽山에서와 같이 기도하며 맹세하니 천관신天官神이 빛을 내리어 보검에 신령스러운 기운을 주었다.²¹⁴

3일되는 밤에 허숙虛宿과 각숙角宿의 두 별이 뻗친 광채가 환하게 내려 닿으니 칼이 동요하는 것 같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삼국사기』,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삼국사기』, 울산문화원, 1996]

활천活川 박효자朴孝子

이조 영조英祖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두서면斗西面의 살그네活川에 박씨朴氏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박씨는 일찍 산으로 나무하러 나갔으며, 그 아내도 보리밭에 김을 매러 나가는 참이었다. 효성이 지극한 부인은 행여나 चु을새라 화로에는 숯불을 이글이글 피어놓고 옷목에는 술상을 차려 두었다. 그에게는 나이 많은 시아비가 홀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씨에게는 근근히 기어다니는 아기가 하나 있었다. 아기를 시아비에게 맡겨두고 부인은 보리밭으로 나갔다.

214. 열박산咽薄山이라 함은 이두吏讀로된 말인데 열咽은 열치다. 박薄은 밝이니 열치고 밝은 광명光明한 산山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천관신天官神은 도가道家의 삼관신三官神으로써 천관天官, 지관地官, 수관水官의 삼신三神이 그것이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심심한 나머지 며느리가 차려놓고 간 술상을 당겨놓고 한 잔 두 잔하는 사이에 술이 취하고 말았다. 술이 취해 잠이 들었던 늙은이가 눈을 뜨고 보니 이상한 냄새가 방안에 풍기고 있질 않은가. 깜짝 놀라 화로를 보니 손자가 그만 불에 얹어진 채 숨져 있었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밭에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노인은 엉겁결에 그만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자는 척 하였다.

방문을 열고 비참한 모양을 본 부인은 금방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달래며 냉철하려고 애를 썼다. 시아버지가 잠을 깨서 이 놀랄 광경을 보신다면? 행여나 자책이라도 하신다면 어찌할까? 그녀는 죽은 아이를 부둥켜안고 뒷산에 가서 고이 묻어 주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인은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잠이 깰 때마다 일어난 노인은 며느리에게 아기는 어딜 갔느냐고 물었다. 며느리의 입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웃아이들이 엮고 놀러 나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구한 일이 있는 뒤에 산에서 남편이 돌아왔다. 부인은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어 일어났던 전말을 다 그대로 말하였다. 그리고 부인은

“우리들은 아직 젊으니 아기야 또 낳으면 될 일이나, 행여나 아버님이 아시고 심상하여 무슨 변고라도 일어나면 어찌하겠느냐”고 시아버시²¹⁵의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정색을 하며 얹드려 큰 절을 아내에게 하였다. 그는 아내의 효심에 감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 박씨는 날마다 출입을 할 때는 아내에게 정중히 절을 하는 것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자 이 일이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아내에게 절을 할까? 모두들 입을 삐죽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영조대왕英祖大王的 명을 받아 영남으로 암행하는 어사御史가 있었으니 그는 유

215. 시아버지

명한 박문수朴文秀 박어사 바로 그 사람이었다. 경주慶州로 내려온 그에게도 박씨의 소문이 들려왔다. ‘필경 무슨 깊은 사연이 있을테지? 그렇잖으면 그럴수가?’ 하였다.

마침내 박어사가 살그내活川로 박씨의 집을 찾게 되었다. 손님이 한양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박씨는 옷깃을 가다듬고 북향재배를 하고난 뒤에 임금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박어사는 속으로 놀랐다. 충성심도 대단한 사람임을 직감하였다.

박어사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끝내는 박씨의 감추어진 사연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서울로 돌아간 박어사는 조정에 이 일을 보고하게 되니 마을에 정려하며 상을 크게 내렸다. 또 충효비도 세워 그 충성되고 효된 정신을 기리도록 하였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알뜰한 비도 없어지고 한갓 이야기만 전해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경남도지慶南道誌」, 정삼덕, 1933,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경남도지慶南道誌」, 정삼덕, 1933,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활천박씨活川朴氏 충효비忠孝碑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박씨부부의 충효비가 있었으나 지금은 도난당하고 사당만이 쓸쓸히 남아 있다가 이것마저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옛날 이 마을에는 단란하고 효성스러운 박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박씨 내외가 산으로 들로 일하러 나갔다. 박씨 부인은 집을 나가면서 늙은 홀시아버님께서 행여 추울 세라 군불을 따뜻하게 지펴놓고 청동화로에 숯불을 담아 방안에 들여놓고 간간이 잡수 시라고 술상도 차려 놓았다.

며느리가 차려놓고 간 술상을 당겨놓고 한잔 두잔 마신 술에 취하여 쓸어져 시아버님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며느리가 나가면서 할아버지 옆에 재워놓고 나간 어린애기가 일어났다. 어린 애기는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기어 다니다가 그만 청동화로를 잡아 당겨 화로에 엮어져 타죽고 말았다.

이 끔찍한 사실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자던 노인은 취기가 가시면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에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떠보니 귀여운 어린 손자가 그만 청동화로에 엮어져서 타죽어 있었다. 이일 감당을 어떻게 하나 싶어 정신이 아찔했으나 아들과 며느리를 대할 면목이 없음을 생각하니 죽고만 싶었다.

그래서 그만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잠자는 듯 코를 골았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다. 며느리는 먼저 사랑방문을 열었다. 그 순간 부인은 까무러치고 말았다. 귀여운 어린 아들이 화로에 엮어져서 타죽고 말았으니 천치가 무너지는 듯하여 기절을 한 것이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부인은 이일을 어찌나 하고 궁리를 했다. ‘만일 이일을 아버님께서 아시면 큰일이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부인은 불탄 애기를 몰래 안고 밖으로 나가 뒷모퉁이로 가서 보자기로 싸 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물을 닦아버렸다. 며느리의 이 같은 동작을 훑쳐본

시아 아버님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일어나 며느리를 불렀다.

“예 애미야?”

“네 아버님”

“애기는 어디갔노?”

“네, 아버님 애기는 이웃집 아이들이 업고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이 같은 대답을 들은 시아버님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성에 감동하고 죽은 손자를 자신이 죽인거나 같다고 생각하니 당장 죽고 싶고 며느리에게 털어놓고 사과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며 참고 견디었다. 잠시 후에 박씨가 들어왔다. 부인은 얼른 남편을 집 모퉁이로 손짓해 불러 들어갔다. 부인의 거동이 수상함을 알고 어리둥절하며 집 모퉁이로 따라 들어간 박씨에게 부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내 애기 들으시고 놀라시지 마세요.”하고 조금 전 있었던 끔찍한 사태에 대해 얘기했다.

남편 박씨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길길이 뛰다가 덩굴기 시작한다.

부인은 남편을 달래며

“여보! 이러시면 안됩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만일 이일을 아버님께서 아시면 큰일입니다.”

부인의 이 같은 말을 들은 남편 박씨는 부인을 얼싸안았다.

“여보! 당신이야말로 효부로구료! 고맙소 여보! 나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당신에게 이렇게 큰절을 하겠오!” 하고는 남편 박씨가 부인에게 넘죽 큰 절을 하였다.

부인이 기겁을 하고 못하게 했지만 남편 박씨는 세상에 부인같이 효성스러운 아내가 없다면서 막부가내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큰절을 했다.

이 같은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바보 병신같은 사내라고 쑥덕거렸다.

한번은 어사 박문수御史 朴文秀가 경주까지 내려왔다가 전해오는 박씨 부부의 얘기를 듣고는 필유곡절이라 생각하고 호기심에 활천마을로 내려와 박씨 내외를 불렀다.

박문수 어사는 행인으로 가장하고 박씨 내외에게 물었다. 박씨 내외는 박문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박문수가 서울서 왔다고 했더니 박씨 부부는 얼른 몸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북향사배 후 임금님의 안부를 묻는다. 박문수는 충성스러운 부부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박문수는 박씨가 날마다 부인에게 큰절을 하는 연유를 물었다.

박씨는 지난날에 있었던 사실과 부인의 효성을 죄다 얘기했다. 박문수 어사는 이 효성이 지극한 박씨 부부를 가상히 여기고 서울로 올라가는 즉시 나라에 알려서 충효비를 세워주었다고 전한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활천活川의 충효비忠孝碑(1)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는 박씨 충효비가 있었으나 언제 누가 어떻게 해 버렸는지 없어져 버리고 사당도 있었는데, 이것도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그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옛날엔 이 마을에 박씨 성을 갖인 단란한 한 가정이 살고 있었다. 박씨는 평소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박씨 부부가 산과 들로 서로 헤어져 집을 나가면서 늙은 아버지가 혹시 추울까봐 화로에다 이글이글 숯불을 피워서 재를 살짝 덮어 다독거리려 놓고 참참이 잡수시라고 술상도 차려 놓았다.

노인은 따뜻한 화롯불을 앞에 놓고 참참히 술 한 잔씩을 마셔 가면서 어린 손주와 놀았다. 노인은 한잔 두잔 마신 술이 너무 과해서 그만 취해 버렸다. 노인이 취해 떨어진 뒤에

할아버지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어린손자는 혼자 이리 저리 방안을 기어 다니면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는 그만 이글거리는 화롯불 위에 엎어져서 그대로 타 죽고 말았다. 이런 끔찍한 변고가 생긴 줄도 모르고 노인은 술에 취한 채 코만 드릉드릉 골며 자고 있었다.

노인은 실낱 한숨을 자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상하게 여긴 노인이 정신을 차려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그렇게도 귀엽게 재롱을 부리던 손자가 화로 위에 엎어진 채 타 죽어 있었다. 이일을 어찌 하랴, 노인은 눈앞이 캄캄했다. 손자를 얼른 안아 내려 봤지만 이미 바짝 타 버리고 말았으니 소용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죽고만 싶었다. 차라리 늙은 자신이 죽더라도 귀여운 손자가 왜 죽었을까보냐 하고 손자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대로 있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대할까 보냐고 생각이 들어 술 몇 잔을 거둬 마시고는 그냥 누워 버렸다. 또 술이 취했다.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있었다.

이때 먼저 며느리가 들어왔다. 집안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방문을 열어 봤다. 이 무슨 끔찍한 변고랴. 부인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후에 정신이 돌아온 부인은 혹시 이 사실을 시아버님이 아실까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참은 뒤에 불에 탄 애기의 시체를 몰래 안아 내어 뒷산으로 올라가서 묻어 버렸다.

며느리의 이 같은 거동을 노인은 자는 척 하면서도 몰래 훑쳐보았다. 노인이 잠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서 시치미를 떼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애야 아가!”

“예, 아버님”

“애기는 어디 있나?”

“예. 애기는 이웃집 아이들이 엮고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아버님”

“음 그래.” 노인은 큰 죄책감을 느꼈다. 이토록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에게 무엇으로 보

답했으면 좋을지를 몰랐다. 당장 허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잠시 후에 남편 박씨가 나무 한 짝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돌아오자 부인은 얼른 남편을 불러 집 모퉁이로 들어갔다. 부인은 남편더러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타일렀다.

“여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두 부부는 속으로 마음 아픔을 눌러 참고 부디 아버님께서 상심치 않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인의 이같이 훌륭한 말에 감복한 남편 박씨는 그만 부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보, 당신이야말로 출천지 효부로군요. 여보, 앞으로는 내 하루 한 번씩 이렇게 큰 절을 하리다.” 하고는 그 후 날마다 박씨는 그의 처에게 큰절 한 번씩을 했다.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가 마누라에게 절을 한다니 못난 사나이라고 비웃었다. 한번은 어사 박문수^{御史 朴文秀}가 경주까지 내려왔다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 왔다.

어사 박문수는 행인으로 가장하고 하룻밤 쉬어 갈 것을 부탁 했다. 박씨 부부는 쾌히 승락하고 처소를 마련한 후 저녁밥상을 정성껏 대접 하고는 어디서 오신 손님이냐고 물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박씨 부부는 서울에서 왔다는 말을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서울이 있는 북쪽을 향해서 절 네 번을 하고 나서 임금님의 안부를 물었다. 어사 박문수는 박씨에게 왜 날마다 부인에게 큰 절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지난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 어사 박문수가 들으니 세상에 이 같은 충성과 효성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다.

서울로 올라가자 박문수는 박씨 부부의 충효 행적을 소상하게 적어서 나라에 올렸다. 나라에서 박씨 부부의 충효심을 높이 치하하여 충효비를 세우고 정여각^{旌閭閣}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소중한 비와 비각이 없어지고 박씨 부부의 가룩한 충효담만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활천活川의 충효비忠孝碑(2)

달천광산하고 이의립씨라 하는 분하고에 얽힌 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의립씨라는 분의 호가 구충당求忠堂이라고 그래요. 구할 구짜求字 충성 충짜忠字 집당짜堂字, 구충당인데, 이 구충당이 라고 호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올주군 그 소호라는 데²¹⁶ 거어서 살았나봐요.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사람이 달랐는가봐요, 좀 머리가.

여섯 살인가 먹었을 때 자기 집 앞에 높다란 나무들이 있었어요.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에 까마귀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또 그 새끼가 커서, 크는 과정에서 어미 까마귀들이, 큰 까마귀들이 인자 별레를 물어다가,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자꾸 주니까 빨간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걸 매일 여섯 살 먹은 이의립이가 관찰을 했지요. 매일 그걸 보는 것도 재미라요.

맨날 쳐다보고 뭐 이웃에 친구도 별로 없고 하니까, 심심하고 하니까, 그걸 물어다 먹이는 재미가 있어가 맨날 보고 있었는데, 자꾸 쳐다보고 자꾸 하루하루 가니까 새끼가 크지요. 나중에 이 새끼가 다 커서 제 날개를 가지고 훨훨 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 때는 어미 까마귀를 얹혀 놓고 새끼 까마귀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용케 포착을 했어요. 어린 이의립이가. 그래 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집으로 쫓아들어와가지고,

“엄마 엄마 참 이상한 일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얼 봤느냐?” 그랬더니, 그래 그 까마귀 관찰한 이야기 쭉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216. 올주군 상북면 소호리 蔚州郡 上北面 蘇湖里

“너 참 좋은 것을 봤구나! 그것을 가리켜서 효조孝鳥의 반포反哺라 그란다. 효조의 반포, 효성스러운 새가 도로 뱉어 주는, 돌려 뱉어 주는 것을 반포라 그란다. 까마귀를 가리켜서 효조라 그러고, 까마귀새끼가 어미들에게 도로 먹여 주는 것을 그 상태를 반포라 그란다.”

그랬더니 어린 이의립이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도 그럼, 까마귀도 그러는데, 나도 커서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얻어먹은 것만큼, 얻어 입은 것만큼 옷 입은 거하고 은혜를 전부 내가 다 갚아야 되겠다. 엄마 내 그거를 꼭 갚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크거든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의립이가 자꾸 크자 일찌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스물 한 살쯤 됐는데, 자, 어릴 때 까마귀 효조반포하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효성 할려고 지극히 마음먹어 왔는데, 약속을 했고, 커도 그것이 늘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는거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니까 효도를 바칠 곳이 없어요. 그래 ‘효도를 바칠 곳이 없어서 어 떠하나?’ 걱정을 하다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 하는 대신에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나라에 충성, 내 혼자 힘으로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나라,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데 국방을 해야 된다. 국방을 할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를 만드는 데는 쇠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사를 짓는 데는 농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농기구를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된다. 백성들이 밥을 먹을려면 술이 있어야 된다. 술을 만들려면 쇠가 있어야 된다. 자! 쇠다! 어쨌든 쇠로 발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쇠가 귀해 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쇠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못 만들어서 진 거 아니겠느냐?’ 쇠를 찾아 나섰다 그래요.

나서가지고 그냥 그 뭐 근 10년간 산천을 뭐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은 다 돌아다녔어요. 개나리봇짐을 지고 고생도 수없이 많이 하고, 말하자면 고산자 김정호古山子 金正浩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나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쇠를 못 찾고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경

주 밑에 울산하고 상관²¹⁷에 입실쫘²¹⁸ 아마 와서 그 어디서 쓰러져서 지쳐가지고 여인
숙 같은 데 잤던가 봐요. 봉래방(봉긔방) 같은 데 누워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지 뭐 반이나 들다가 말았는지 허연 노인이 한 분이 현몽(顯夢)을 했는데,

“의립아, 네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거라. 곧 지금 동녘이 터온다. 까치가 문
밖에 울고 있다. 울고 있으니 일어나서 우는 까치를 따라서 가거라.”

그런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래 깨니까 꿈이에요. 너무나 현몽이 생생
하고 현실과 같고 이래서 정말 문을 여니까 동쪽에 희끗하게 동이 터가 오는데, 까치 한
마리가 문을 드려다보고 깹깹 짓고 있어요.

“꿈이 무심치 않구나!”

이래서 까치를 따라 나섰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까치가 지저귀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
무로, 저 나무에서 다음 나무로, 자꾸 이의립이가 따라가니까 나중에 지금 달천광산 그
쇠가 나는 자리에 거기서는 멀리 날지를 앓고 자꾸 그 자리에서 맴도는 기예요. 뽕뽕 도
는 거예요.

달천, 통달 달짜^{達字} 달천, 울주군 농소면 달천립니다. 그래서 ‘이 이상하다.’ 까치가 가
지 않으니까, ‘여기에 무슨 뭐 이상한 일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날이, 완전히 날이 새
고 이래서 자기가 디디고 있는 땅을 이렇게 내려다 봤다 그래요. 보니까 땅 색깔이 다른
흙하고 색깔이 달라요. 빨갈간 것이.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흙을 한 주먹, 확 끌어서 드니
까 묵직하다 말이에요. 묵직해요. ‘이거 보통 흙하고 굉장히 무겁구나!’ 옆에 돌멩이 하나
를 들어 봤더니 완전히 쇳덩거리고 무겁다 말이야. ‘하하 이제 쇠를 찾았구나!’

그때부터 어떻게나 기뻐든지 거기서 그냥 내리뛰었다 그래요. 하도 기뻐서, 막 뛰고, 꿇
어 앉아서 하늘에다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천신에게 감사하다고 빌었다 그래요.

“참, 나에게 쇠를 찾게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빌었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인자 이 토철^{土鐵}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대구에 있는 영남

217. 월성군月城郡과 울주군蔚州郡과의 경계에

218. 월성군 외동면 입실리月城郡 外東面 入室里

대학 아마 교수가, 권병탁 교수라고 그 분이 아마 저서를 했는 걸 보니까 쇠부리에 대한 저서를 봤습니다. 경제지로서. 그 분이 해 논 저서 안의 모든 쇠부리 야철소冶鐵所가, 모든 관련된 쇠부리가 이 달천광산에서 나온 쇠입니다. 토철입니다.

토철이 전부 그 이쪽 산 너머로 저쪽 산 너머로 한 이백여 군데에 운반이 돼가지고 적고 큰 생쇠부리를 하고 생쇠부리에서 나온 판장쇠를 가지고 다시 막쇠부리로 해가지고 솔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일본 야하다철공소까지 수출이 되고 그렇게 유명한 그 광산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때 이 광산이 폐광이 돼가지고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가지고는 우리나라 해방 후에 대한광업소에서, 대한철광에서 이거를 인자 계속 파내고 있다가, 근래에는 민간업체 삼미크럽으로 이것이 넘어가가지고, 요새 대대적으로 지금 파고 있고 이제는 토철 아니라 뭐 쇠덩어리 강할수록 더 좋으니까, 땅 밑으로 깊이 굴착을 해 가지고 파가지고 포항제철소에서 지금 납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훌륭한 그런 광산입니다. 이 광산을 발견한 전설이 바로 의의립씨하고 관계가 되고 얹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호가 ‘구충당,’ 충을 구한다. 그래서 구충당이라 이렇게 붙여졌다 그래요.²¹⁹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219. 산소는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있다.

천마산天馬山 백병白甁바위

미호리 마을 가메달 우측 천마산 기슭에 있는 병처럼 생긴 흰 바위로 사람의 생사 운명을 미리 알려 준다고 전해 온다.

고려 중엽 한 수도승修道僧이 바위 부근에 절을 지어 기거하면서 시주를 받으려고 마을로 내려왔다. 어느 집에 이르러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권하니 집주인이 엉뚱한 말을 한다.

"스님 한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 대답을 좀 해 주이소."

"허허 무슨 말씀인지요? 소승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지요"

"다름이 아니 오라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소승은 관상가나 점장이가 아니라 불도를 닦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시주를 하겠소! 다른 데나 가보이소!"

"나무관세음보살..."

터무니없는 일을 당한 수도승은 다른 집으로 향한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천마산에서 내려온 소승입니다. 시주하십시오."

한 아낙네가 문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지금 바깥양반이 앓고 계신데 언제 나올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소승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름난 중은 그런 것도 척척 알고 다닌다던데... 틀렸군요. 다른 집에나 가보시오."

아낙네는 찰싹하게 말을 내뱉고 문을 닫아 버린다. 수도승은 어이가 없었다. '허허 난감한 일인지고,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한다.' 수도승은 무거운 발길을 돌려 절로 돌아왔다. 시주는 받아야겠는데 시원시원하게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수도승은 야박한 세상인심을 한탄한다.

'부처님의 영험을 받아 인간의 생사를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골똘히 사색에 잠긴 도승은 '영험을 내리소서! 지혜를 내리소서!'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이튿날부

터 정과 망치로서 절 옆에 있는 큰바위를 다듬기 시작했다. 불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부처님 상을 깎아 그 앞에서 백일기도를 해야지! 영험과 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승은 열심히 바위를 다듬었다.

"스님, 예불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승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는 입 속으로 염불을 외어가며, 손에서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를 다듬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상을 조각하는 수도승의 모습은 흡사 미친 사람과도 같았다.

드디어 불상이 완성되자 도승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돌부처 앞에서 염불을 한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이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찌시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염려 말아라 관세음보살..."

동자승이 걱정스러워하는데도 수도승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거 큰일났구나! 이러다간 스님께서 지쳐 쓰러지시겠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도승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수도승은 목석처럼 꿈쩍도 않는다.

"스님! 스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신 지가 벌써 99일이나 되었습니다. 꼭 염불을 계속하시려면 법당 안에서 하십시오!"

"....."

수도승은 밤새도록 돌부처 앞에서 지혜와 영험을 내려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하루만 지나면 꼭 백일이 된다.

그때 갑자기 돌풍이 몰아쳤다.

"으악!"

수도승은 그만 바람에 휘말려 바위 밑 낭떠러지로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다.

"아니 스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나는 죽는다. 하루를 못 채우고 이렇게 죽는구나! 내 말을 명심해 들어라! 내가 죽으면 이 바위에 하얀 병 모양의 돌이 생길 것이니 너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판단

해 주어라! 만약 그 흰 병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큰 병病을 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얀 병이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으호호…"

한을 풀지 못한 채 수도승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 수도승의 말대로 부처를 새긴 바위 한쪽에 하얀 병 모양의 돌이 나타났다. 구전되는 이야기로는, 그 수도승이 백일을 채웠더라면 인간의 백년운수를 흰히 뚫어 볼 수 있는 비기秘記를 완성하였을 것이나, 끝내 하루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수는 알 수 없게 되었고, 오직 그 사람이 당장 병病을 얻게 되거나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만 백병 바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도승이 살던 절과 부처는 없어지고 백병바위만 남아서 옛 전설을 말해주고 있다.

혹 우리 면민 가운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운동 삼아 천마산 백병 바위로 찾아가서 쳐다보아 하얀 병이 뚜렷이 잘 보이시거든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만약 그 하얀 바위가 노랑거나 빨강게 보이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위가 보이지 않으면 내려오는 대로 곧 유언장遺言狀을 써 두심이 좋을 것 같으니 한 번씩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강길부, 『향토郷土와 지명地名』, 정음사, 1985]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복안 옥로승玉露僧 전설

옛날 신기마을 뒤 북회골에 선불암仙佛庵이란 절이 있었고 거기에 옥로승이라는 힘센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상학곡 깊은 곳에 논을 갖고 있어, 거름으로 절에서 수거되는 인분을 매일 같이 이곳까지 갖다 날라 처리하였는데 논이 이름도 옥로답이라 하였다.(지금 은 수림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형태는 그대로 있다.)

그 시기에 복안사람들이 '새들보'를 개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로가 음지 마을 앞을 지나게 되자 음지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앞으로 수로가 나게 되면 마을 정기가 쪼갬다.'하여 반대투쟁에 나섰다 한다. 이에 몽리 주민들은 힘센 옥로승 스님에게 보·용수로를 내어줄 것을 부탁드리자 옥로승 스님이 야간을 이용하여 단숨에 붓물을 관통시켰다 한다.

그때 도랑을 내려고 땅을 파헤치니 주혈朱血(붉은 피)이 솟아났다 한다. 그리고 난 뒤 한때 마을사람들 가운데 혀가 짧아 발음이 분명치 않고 어눌한 사람들이 유독 많이 태어났는데, 이는 그때 옥로승 스님이 보 수로를 개설할 때 마을의 정기가 쪼여진 탓이라 전해졌다.

그러나 그 후에 수리조합(농업기반공사)에서 각 몽리구역에 걸쳐 거미줄처럼 관계灌溉 수로를 개설하자 2통에 복안 일대의 지기가 도로 왕성해져서 지금은 더없이 풍요롭고 태어나는 아기는 건강하고 또 총명하기만 하다.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동오배(동오벼稻)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우리 고장에서 그런 대로 인기 있던 벼씨 종자가 '동오배'였다. 그런데 이 벼씨가 '동오배'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좀 엉뚱한 연유가 있었으니, 다음은 그에 대한 유래이다.

옛날 우리 면 활천리에 진陳 성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진노인은 원래 산내면 대현리가 고향이었는데, 언젠가 활천리로 옮겨와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예나 지금이나 한해 농사의 풍흉은 그해의 벼씨 선택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쌀농사에서 벼씨 선택은 중요하다. 물론 토질과 기후에 맞는 벼씨라야 하며, 특히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연작을 하면 퇴화되어 소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거의가 해마다 벼 종자를 바꿔가며 농사를 지어왔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진노인은 고향인 '소야동골'로 가 신나락을 구하여 왔는데, 필경 새 종자의 이름을 알고 왔건만, 집 근처에 이르러 도랑을 건너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하여간에 농사를 지은 결과 작황이 의외로 좋아 이웃의 너도나도 그에게 새 종자를 부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듬해부터는 그 종자가 퍼지기 시작하여 이태가 못 가 그 일대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벼씨의 종자 이름은 알 길이 없어, 그냥 '동오배', '동오배'하고 불렀는데, 사실 '동오'는 바로 진노인의 택호宅號였다. 그러니까 평소 이웃에서 진노인에게 정을 가리켜 '동오택', 아니 '동오때기'라 부르던 터라, 누군가 편한대로 이 택호를 따다 그 아리송한 벼씨 이름에 붙인 것이, 나중에는 모두가 그것을 '동오배'라 부르면서 알아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오배'가 어느 기관의 연구소에서 나온 신품종인 줄 알고 농촌지도소에까지 찾아가 '동오벼'의 특성이며 관리방법을 문의하여 전문가들을 어리둥절케 한 일조차 있었다고 한다.

혼귀석魂歸石 홍두깨바위

우리 면 서하리의 봉화산 기슭에 '배고개, 천고개'라 불리는 고갯길이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일대는 언제나 음산한 곳으로, 지나기만 하면 까닭 없이 불안해지고 또 자주 허깨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 명이 모여야만 이 고개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배고개'라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천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편안히 넘을 수 있다 해서 '천고개'라 불려지기도 한단다.

특히 이 고개의 한 길목에는 혼귀석魂歸石이라 불리는 큰 바위가 있어 간혹 혼을 빼 놓는다고 알려져,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바위 옆을 지나기를 꺼려왔다. 게다가 천고개 밑에는 '하이칼라 못'이라 불리는 못이 있는데, 이 곳 또한 귀신이 나타나는 못이라 소문이 나 있어, 으스스한 고갯길을 걷는 사람의 공포심恐怖心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이 고장 사람들이 언양장에 갔다 돌아 올 때, 날이 저문 귀가길에는 이 고개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곤 한다.

다음은 이 고개의 혼귀석에 얹힌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백여 년 전 양산의 하북면 초산리에서 성장한 '봉례'라는 밀양 박씨密陽 朴氏 집안의 규수가 15살 나이로 우리 면 방말 대골 마을에 사는 진주 강씨晉州 姜氏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

강씨 일가는 새로 맞이한 신부를 잘 대해 주었으나,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 신부는 시집 살이가 너무도 고달픈데다 부모의 슬하가 그리워서, 어느 날 밤중에 그만 시집을 뛰쳐나와 친정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어린 신부는 밤새 부지런히 길을 걸었지만, 동이 트도록 끝내 이 바위만 땀똥고 말았던 것이다.

날이 밝자 그 신부는 한동안 지쳐 쓰러졌다가 마침내 시집으로 도로 돌아갔는데,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그 바위를 혼귀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박봉례의 친정으로는, 삼촌이 통도사의 주지스님을 지낼 만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시가孀家인 진주 강씨 집안 또한 불교를 받드는 가문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아마도 부처님이 타이르기 위해 그날 밤새 신부로 하여금 그 바위를 땀똥게 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다시 시집으로 들어간 신부는 그날 밤의 일을 부처님 뜻이라 여기고, 참고 견디면서 끝내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현재 대정 마을 방말에는 박봉례의 증손曾孫인 강대식이 살고 있다.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호식虎食과 명당明堂

우리 면의 내와리 탑곡에는 현재 풍천임씨豐川任氏 집안의 분묘 5기가 한곳에 있다. 원래 이곳은 내와리에 살고 있던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에서 묘를 쓰기 위하여 잡았던 터였으나, 당시 유명한 지관地官이,

"여기에 묘를 쓰면 후일에 반드시 큰 인재人才를 배출하게 되지만, 당장은 하관下棺과 동시에 어느 상주가 호식虎食당함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일러주는 말을 꺼리어 끝내 묘를 쓰지 못하고 포기했던 자리라 한다.

그 후 조선조 숙종 을미(1715) 1월 17일에 경주 남산에 살고 있던 풍천 임씨 가문에서 진사를 지낸 임인중任仁重의 처 월성김씨月城金氏 묘를 다시 그 자리에 쓰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지관이 같은 말을 하자, 임씨 문중에서는 묘를 '쓰네' '못쓰네' 하고 양론으로 갈려 한참이나 왈가왈부할 뿐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자 만상주가 나서서,

"내가 호사虎死하더라도 우리 후손이 잘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니 내 기꺼이 묘를 쓰겠다." 하면서 기어코 묘를 드리도록 주장하였다.

그의 표정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있는 듯 엄숙하고 단호함마저 배어 있었다. 이러한 상주 고집에 따라 결국 그 자리에 관을 묻기로 하였으나, 그래도 지관의 범상치 않은 지론을 의식하여, 모두 긴장 속에서 주의를 다해가며 하관 차비를 했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막 하관을 하자마자 갑자기 주위가 음산해지더니 난데없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저만치 나타나 눈을 부릅뜬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듯 놀라 떨어트렸으나, 겨우 마음을 가라앉혀 상여의 흥출로 주위를 둘러친 다음 중앙에 상주들을 모으고 나서 힘센 상여꾼들로 하여금 방패처럼 그들을 에워싸게 했다. 그러나 천만에! 다음 순간 천지가 진동하듯,

"어 - 흥 -!"

한 소리에 모두가 혼비백산魂飛魄散!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호랑이는 어김없이 망자亡者의 장자인 만상주를 순식간에 채어가고 말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였다.

사람들은 다만 후손의 출세를 위하여 한 몸을 기꺼이 바친 거룩한 뜻을 기리며,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과연 호사한 당사자의 손자 임옥任玉이 과거에 급제하여 호조정랑戶曹正郎을 거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냈다.

또 이 무렵부터 그 가문에서 천석군의 부자가 나와 대를 이어가며 부와 귀를 누렸다 한다. 당초 묘를 들었던 자리 아래에는 나중에 후손들의 묘를 또 들여, 모두 5기의 분묘가 조성되었는데, 현재 9세손 임방우가 정성껏 관리하고 있다.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호랑이를 잡은 설화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못 동물의 왕이요, 신령스런 맹수이다. 예나 지금이나 산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호랑이라는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체격이 크고 힘이 세어, 여타의 동물은 감히 그 위용에 비교도 못할 존재이다.

그리고 웬만한 산 짐승들은 거의가 호랑이의 먹이가 되며, 간혹 어린아이들이 보채고 울 때, "범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딱 그쳤고, 소행이 고약한 사람보고는, "에라이! 범 물어 갈 인간아!", 또는 "호식(虎食)할 팔자" 등의 속언이 전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영험의 존재로 우상화하고 있다. 또한 호랑이는 번식율이 낮아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서식지도 북방의 경우 시베리아나 백두산 등에 한정된 희귀동물이다.

호랑이 한 마리의 활동 영역은 대단히 넓다고 한다. 가령 여기저기서 범이 출현하였다고 할 때, 이는 대개 여러 마리가 아니라 단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끔 이곳저곳 사람들 눈에 목격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설적이고 신비한 호랑이를 두서면 활천리에서 포획한 실화가 있기에, 전해오는 경위와 노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여기에 기술코자 한다.

때는 일제日帝초기 즈음에, 활천의 능주봉 산록과 석문암 계곡·준주봉 등지로 호랑이가 자주 출현하여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던 중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박서원네라고 불렀단다.

그 무렵 그 부근에서 호랑이가 개나 가축 등을 차고 가는 일이 허다하였다는데, 하루는 갑자가 호랑이가 박씨집을 덮쳐 그의 남동생을 물어 차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한 시기에 한 민첩한 포수(신원 미상)가 있었다. 그는 조심해서 범을 찾던 중 어느 날 운수 좋게 산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범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화포의 방아쇠를 당겼다.

범을 사살한 정확한 장소는 지금의 '검둥바위'정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사살된 호랑

이를 마을로 운반한 다음 우물가 큰 대추나무에 메달아 놓고 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그 호랑이의 뱃속에서 '중소'이상의 소다리가 겹쳐서 나왔다고 하니 과연 그 범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가리라.

그 후 호랑이를 잡은 사실이 점점 퍼져나가 인근 도처는 물론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자, 호랑이를 잡은 그 포수는 마침내 관가에 불려가, 위험한 짓을 하였다하여 곤장 3대의 벌을 받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용맹성에 대해서 후한 포상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 호랑이가 잡힌 후부터 활천리에는 밤마다 앞산 뒷산 곳곳에 시퍼런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3~4년 동안이나 공포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촌노들은 전하고 있다.

한편 보다 앞서, 이 호랑이가 사살되기 전에 일화가 또 전해진다.

어느 날 내남면 안심리의 한 서당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글을 배우고 있는 아동을 덮쳐 낚아채는 순간, 마침 훈장이 이를 보고 아동을 살리기 위하여 황급히 호랑이를 잡으려 하자 호랑이는 이제 훈장어른까지 물어 차고 큰 개울을 한 걸음으로 건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맹수가 지방곳곳에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며 인가를 해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상북면편

세이지洗耳池와 시옷골(세이곡洗耳谷)

향산리 능산 뒷산 산정에 못이 있는데 능산마을 사람들은 이를 세이지 또는 천지못이라고 하여 그 골짜기를 ‘시옷골, 세이곡’ 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말기에 왕실이 파행, 부도덕하여 충신이 간하여도 외면하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자 양심 있는 충신들이 그 직을 사임하고 이곳 능산으로 입향하여 나라 일을 근심하며 여생을 보내면서 과거 불길했던 일들을 지우기 위해 이 천지못 물에 귀를 씻고 여생을 보냈다 하여 세이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한편으로 조선후기(18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사는 정윤택이라는 선비가 세이지 아래

계곡에 웅달샘을 파서 그 옥수 같은 웅달샘에 목욕하며 즐겼는데, 어느 날 어릴 적 지면이 있는 규장각 제학 정원용 대감이 그의 집을 내방하였다. 이때 두 분은 산정에 등반하였는데 옥수 같은 못물을 본 대감이 반가워하며 세수를 하였다고 한다.

이때 대감께서는 귀에 염증이 있었으니 이 물로 귀를 씻은 후 귀가 말끔히 나았다고 한다. 그 후 대감이 정운택에게 말하기를 이 사실을 나라에 알리고 이 못이 있는 산정은 세이곡이라 이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상북면지』, 정인태, 상북면,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가슬갑사 嘉瑟岬寺

귀산 貴山은 신라의 사랑부 沙梁部 사람으로 화랑도 출신이었다. 귀산 貴山이 소시에 같은 부의 사람인 추항 簫項과는 친한 친구사이였다.

하루는 두 사람이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이 꼭 사군자 四君子와 더불어 놀아야 하겠으며 먼저 정심수신 正心修身하지 않으면 아마 욕됨을 면치 못할지도 모르겠다. 어진이 곁에 나아가서 도道를 묻지 아니하려는가?”하였다.

때는 마침 수隨나라로 들어가 유학하고 있던 원광법사 圓光法師가 진평왕 眞平王 22년(600)에 조빙사 奈麻 祭文諸文과 대사 大舍 횡천 橫川을 따라 돌아와서 가실사 加悉寺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높은 예우를 받고 있었다.

귀산 貴山등이 그의 문하 門下로 공손히 나아가 말하기를

“저희들 속사俗士가 어리석고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사오니 종신토록 계명誡銘을 삼을 한 말씀을 주시기 바라나이다.”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되

“불계佛戒에는 보살계菩薩戒가 있는데 그 중목이 열 가지이다. 너희들이 남의 신하로서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1은 임금섬기기를 충으로써 하고(사군이충事君以忠), 2는 아버지 섬기기를 효로써 하고(사친이효事親以孝), 3은 친구 사귀기를 신으로써 하고(교우이신交友以信), 4는 전쟁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고(임전무퇴臨戰無退), 5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살생유택殺生有擇)는 것이다. 너희들은 실행에 옮겨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귀산貴山 등이 “다른 것은 말씀대로 하겠는데 다만 살생유택殺生有擇만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법사가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 “6재일六齋日(8, 14, 15, 23, 29, 30의 재계일)과 봄, 여름 철에는 살생치 아니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때를 택하는 것이다. 또 부리는 가축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말, 소, 닭, 개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며, 또 작은 미물 같은 물건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것들은 물건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오직 소용되는 것에 있어 많이 죽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가히 세속의 선계善戒라 할 것이다.”하였다.

귀산貴山 등이 “반드시 행하여 감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진평왕眞平王 24년(602) 8월의 백제와의 아막성阿莫城(남원군 운봉면南原郡 雲峰面) 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귀산貴山은 큰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일찍 스승에게 들으니 선비는 전쟁에 있어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감히 달아날까 보냐”하고 적에게 돌진하여 적군 수십 인을 격살하고 신라군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추항項과 함께 전사하여 세속오계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참고로 귀산貴山 등이 세속오계를 원광법사圓光法師로부터 받았다는 가실사加悉寺가 지금까지 청도淸道땅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근자에 와서 그 절이 상북면上北面에 있었다는 설이 있어 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원광서학圓光西學편을 보면 가실사加悉寺를 가슬갑加瑟岬이라 하였으며 이 절을 설명하여 “혹은 가서加西 또는 가서嘉西라하니 모두 방언이다. 갑岬은 속언 고시古尸(곶)라 하므로 혹은 고시사古尸寺라 하니 마치 갑사岬寺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운문사雲門寺 동쪽 9천보步 가량 되는 곳에 가서현加西峴이 있는데 혹 가슬현嘉瑟峴이라고 한다. 현의 북동北洞 절터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 하였다.

또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운문산雲門山을 일명 가슬현嘉瑟峴이라 하였고 가슬갑사嘉瑟岬寺를 가슬현嘉瑟峴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가슬갑사嘉瑟岬寺는 운문재의 상북上北쪽 땅에 있었음을 말함이니 유서 깊은 절이라 할 것이다.

덕현리德峴里 ‘삽재插峴마을’은 그 훈訓이 ‘곶재’로서 ‘곶-고시古尸’ 바로 그것이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가지산 쌀바위(1)

상북면上面의 가지산加智山정상에는 쌀바위米岩라 하는 큰 바위가 있다. 이 쌀바위로 써 언양현彦陽縣과 청도淸道의 경계를 삼아오기도 하였다.

지나간 어느 옛날의 일이었다.

수도승 한 분이 쌀바위 밑에 조그마한 암자를 엮어매고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러다

가는 며칠마다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가서는 동냥을 하여오는 고행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고행하는 수도승을 가엾게 여긴 것인지 기적이 일어났다.

중이 염불을 외우다 바위틈을 문득 보니 쌀이 소복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날부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매일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흐르듯 톱닥톱닥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중은 마을로 내려가서 사립마다 요령을 흔들고 목탁을 치며 동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중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쌀이 저렇게 답답하게 조금씩 나오다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중은 쌀이 나오는 구멍을 더 크게 내면 많은 쌀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손들이 찾아들어도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동냥은 하지 않아도 될 터이겠지? 하루는 중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쇠꼬챙이를 넣어 구멍을 크게 뚫었다. 이제는 쌀도 많이 나올 테고 여기에 더 큰 암자를 지어 출세할 수 있겠지 하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 후로 쌀은 간곳없고 물만 툭툭 흘렀다 한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 사람들은 그 바위를 쌀바위*砬라 불렀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경계한 이야기이다.

또 옛날 물을 매買라하여 쌀과도 그 음이 같은데서 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땃밥을 짓다. 땃밥을 상위에 올리다 하는 것과 같이 쌀을 매라고도 하였으니 물과 쌀은 다‘매’였던 것이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가지산 쌀바위(2)

옛날에 이 바위아래에서 한 스님이 수도를 하고 있었다. 스님은 먹을 양식을 산 아래 마을에서 탁발하였는데 수도에 정진 하다보니 늘 마을에 내려가는 시간을 아까워 했다. 그런데 어느날 스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갔다가 바위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한 끼니의 하얀 쌀이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기며 그 쌀로 밥을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자신도 먹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날도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 같은 양만큼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스님은 자기의 지극정성을 가상히 여긴 부처님께서 탁발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수도에 정진하였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로 시주를 오지 않는 스님이 이상히 여겨 수도하는 스님을 찾았고 이때 스님께서 바위에서 쌀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사람들은 마침 흉년이 들어 매우 궁핍한지라 쌀을 얻고자 스님과 함께 바위틈을 쭈셨다. 하지만 바위틈에서는 더 이상 쌀은 나오지 않았고 마른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물줄기만 뚝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스님과 사람들은 크게 뉘우치고 부처님께 사죄하였지만 쌀은 온데간데없고 그 이후로는 바위틈에서 물만 흐러 나왔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 바위를 쌀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제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닥치더라도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이다.

[『상북면지(上北面誌)』, 「헌산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가지산 쌀바위(3)

조만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고²⁰⁰ 고, 그 인자 보살, 중은 인자 그 보살이라고도 하고 중은 저 중이라고 안 한다. 스님이라고 대사라고 하고, 대사라고 하모 대단히 좋아라 칸다.

그래 대사님이, 인자 손이²²¹ 하나 오이까네 또옥 하나 무을 만침 나오고, 쌀이 또닥 또닥 나오는데, 다시 그 이상 안 나와²²².

그러이 인자 그 대사가 욕심이 많은 택이지. 그 좀 많이 나오모 좋겠는데, 많이 안 나와. 손님 하나 오모 하나 무을 만치 더 나오고, 일이 그렇더라 카네. 우리가 이야기 들은 바야.

그래가지고 마 꼬쟁이로 가지고 폭 쑤시 뿌이, 좀 많이 나오라고 폭 쑤시 뿌이 마 하나도 안 나와. 그래가 그 절이 망해 뿔단다. 그래가 거기 인자 예전에 쌀바우라 카는데, 그래 인자 쌀이 나왔다. 사람 묵는 기 마 참 쌀이 그래 예전에 그래 뒀던둥 얘기가 그래 뒀어요.

손님 하나 오몬 하나 더 나오고, 둘이 오모 둘이 나오고 고 이상 더 안나와. 안 나와가지고 그래 가 ‘그거 좀 많이 나오모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 그래 많이 나오라고 쿡 쑤시 뿌이까네 마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 거기 쌀바우라고 말이 있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도경,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220. 거기

221. 손님이

222. 바에 의하면

쌀바위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석남사 뒤에 높이 솟은 속칭 쌀바위라고 불리우는 우람한 바위 하나가 있다.

옛날 이곳에는 한 수도승이 이 바위 밑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바위 밑에서 한사람이 먹고 살 만큼의 쌀알이 또닥 또닥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욕심 많은 수도승이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얻고져 쌀알이 떨어지는 바위틈을 꼬챙이로 찌시고 돌로 쳐서 구멍을 넓혔다. 그랬더니 그만 맑은 물이 주루룩 쏟아질 뿐 한사람이 먹고 살만큼 떨어지던 쌀알 마져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서야 욕심 많은 수도승은 회개를 했으나 만사지탄이었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쌀알이 떨어지던 바위라 해서 이 바위를 가리켜서 '쌀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도 쌀 대신 물방울만이 또닥 또닥 흐르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쌀바위와 욕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석남사 뒷산인 가지산 중턱에는 쌀바위라고 불리우는 바위 하나가 있다. 옛날에 이 바위 밑에서 스님 하나가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스님이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가서 탁발을 해 날랐다. 그런데 하루는 스님이 아침기도를 올리고 나서 바위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하얀 백미가 한 뿔박 가량이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스님은 유심히 들여다보니 바위틈에서 쌀알이 하나씩 떨어지길 않겠는가.

스님은 기뻐했다. 그리곤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다. 양식을 구하려고 속가로 내려가서 탁발을 해 나른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는데 바위틈에서 저절로 쌀알이 떨어지니 이는 필시 부처님의 도술인 줄 알았다. 자기의 수도하는 지극한 정성을 가상히 여기고 탁발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알았다.

스님은 끼니때마다 떨어진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다음에 자신이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쌀알 떨어지는 도수가 일정하고 끼니때마다 가서 보면 꼭 한 사람의 양식 밖에는 되질 않았다.

스님은 감질이 났다. 견물생심이라더니 스님은 욕심이 생겼다. 쌀알이 떨어지는 바위 속에는 많은 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쌀알이 떨어지는 구멍이 적어서 한 알씩 밖에 떨어지질 않는 것으로 여겼다. 한꺼번에 많은 쌀을 얻고자 그만 쌀알이 떨어지는 구멍을 쑤서 버렸다.

아뿔사 이 일을 어떡하나 지금까지 떨어지던 쌀알은 간 곳 없고 쌀대신 물줄기가 주루룩 떨어지고 말았다. 부처님의 노여움을 입은 것이다.

명산대천을 찾아 불도를 깊이 깨우치겠노라고 기도하는 불승이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니 어찌 부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수가 있으리오. 스님은 그때 서야 크게 뉘우치고 부처님 앞에 사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있고부터는 영영 쌀알이 떨어지지 않고 하루 한사람이 먹을 만한 물 밖에는 흐르지를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자신이 지각없이 경망했음을 후회했으나 만시지탄으로 소용이 없었다. 스님들의 목에 건 염주가 백여덟 알의 울무로서 인간의 번뇌가 백여 가지이므로 백팔번뇌를 잊고 오직 염불만을 해서 해탈과 달관의 경지에 도달하여 사바세계의 고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불가에 귀의한 불제자로서 홀으로 머리칼이나 먼지만한 사물에도 욕심이 잉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인즉 이 같은 욕심을 부리고 말았으니 이 어찌 부처님으로 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더란 말인가.

고함산

언양쪽에 있는 고현산高巘山을 속칭 고함산이라고 한다. 이는 산의 서쪽에 있는 월성군 산내면月城郡 山內面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즐겨 불러오는 이름이다.

월성군月城郡의 산내면 대현리山內面 大賢里 중마을에는 문복산文福山이라하는 높다란 산이 있다. 그런데 이 산에는 디린바우라는 이름난 큰 바위가 있어 이 바위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높고 큰 층암으로 이룩된 이 바위는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하여 이 바위를 디린 바우라 불러온다. 이 디린바우는 드러지듯 험한 곳이므로 좀처럼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석이石耳라 하는 버섯이 돌틈에 붙어 자라고 있어 이것을 따서 맛있게 먹기도 하여왔다.

그런데 이 디린바우에는 옛부터 지네와 거미들도 살고 있었다. 그 지네는 어찌나 큰지 채이작만 하였고 거미 또한 서말지 소뎡만 하였다.

옛날 어느 때 한 용감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 디린바우의 석이石耳가 몹시 먹고 싶었다. 그는 길고 튼튼한 줄을 나무둥치에 매어놓고 자기의 허리를 줄로 매어 바위의 아래 쪽으로 내려가서 석이石耳를 찾아 따기 시작하였다.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이니 석이石耳가 많아 그저 온 정신이 다 버섯을 따는 데만 팔려 바깥세상의 일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다.

디린바우의 동쪽에는 멀리 고현산高巘山이 자리 잡아 그 위용을 자랑하듯 웅장하다. 어떤 사람이 고현산高巘山에 나가 나무를 한 짐 가득하여 지고 내려오다가 짐이 무거워서 어깨를 파고드는 듯하였다. 조망이 좋은 자리를 골라 짐을 받쳐놓고는 곰방대를 끄집어 내어 담배 한 대를 부벼넣고 불을 당겨 한 모금 빨아 빨으니 금시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하였다.

이때였다. 서쪽을 바라보니 디린바우에서 한 사람이 석이를 따고 있는데 서말지 소뎡만한 큰 거미가 사람이 매어 달려있는 줄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시 소름이 오

씩 끼치었다. 줄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기 때문이었다.

나무꾼은 벌떡 일어서며 “보소 보소 버섯 따는 사람아”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버섯 따는데만 열중하다보니 고함소리가 안 들기는 듯하였다. 다시 목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보소 여보소 버섯따는 사람아! 보소 보소 버섯 따는 사람!”하며 고함을 여러 번 되풀이하니 겨우 사나이는 무슨 말이 들리는 듯 이 곳을 바라보며 손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었다. 나무꾼은 손짓 몸짓을 하며 “거미가 줄을 꺾는다! 거무바라 거무를!”하였다.

이제야 사나이는 말을 알아듣고 위를 보니 디린바우의 지킴(찌굼)인 거미가 나와 줄을 물어 뜯고 있지 않은가? 놀란 사나이는 급히 몸을 피하여 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고현산을 고함산이라 하였다. 나무꾼이 석이石耳 따는 사나이를 위해 고함을 지른 산이라 하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후, 남구, 1984]

[이유후,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언양읍지彦陽邑誌』, 남진석, 상북면,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상북면지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혈을 끊은 말등재

우리가 여 인자 명촌鳴村인데, 올 명짜鳴字, 마을 촌짜村字, 명촌인데, 과거에 예전에는 어느 왕 때 그랬다 카더라.

저 이전에 말무재 말이다. 말무재라고 저 등이 있는데, 그 말무재 그 등이 똑 말등매이로²²³ 쭈욱 내려왔거마는, 산세가 간월산肝月山이 우리 마을 쪽으로, 저 영관 말등매이로 내려 왔는데, 그제 인자 참 쇠 있는 줄, 쇠가 그 말등에 거게 참 쇠가 묻힌 줄 몰랐는데, 그 래 우리 여네 그 면장 덕이라 카는 그 덕이가 우리 종택宗宅입니다. 우리 종갑니다. 여어 우리 내 대 여어 16대, 16대 됐는데.

우리가 인자 얘기 들은 기지. 어른들 얘기하는 거로. 난도 나이 칠십이지마는도 과거에 어른들인데 들을 때는 그래 그 우리 종택이, 그 여게는 촌에는 인자는 지금 다 전기불이 오고 뭐 이렇지마는, 그때는 여어 전기불도 없고 뭐 돈주고 산 제일 불, 밝은 기 초, 초 그거까²²⁴ 쓰고 했는데, 그 때 뭐 초도 잘 안 쓰고, 마 그믐밤이라도 우리 종택 그 정지가²²⁵ 제법 흰했다 캐. 캄캄한 밤이라도. 판 데는 마당이고 판 데는 캄캄했는데, 정지가 이거 제법 흰했다 캐.

흰하고 그래 가 인자 저어 나라에서 와가지고 쇠로 봤는데, 그거는 뭐 우리 마을에서도 누가 말릴 장골이 없고, 그래 우리가 뭐 집단적으로 해 쌓아도 그거로 못 판다고 일개인이 하나 사업을 하는 걸으모 그거는 말릴 수가 있지마는

한 나라에서 정부에서 와가 그 때... 어느 왕 땐고 그건 내가 꼬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래가 거거 그 쇠로 봤어. 말등매이로 이래 쪽 돼 내리갔는데, 말등을 말등을 치모 이 한복판에 이만침 이래가지고 등을 파. 쇠가 많이 나왔다 캐. 뭐 무쇠 온갖 쇠가 그 많이 나왔다 캐.

그 쇠 파고부텀, 쇠로 그거 마 그거로 파 뿌고 나이꺼네, 우리 종가, 그 참 종택에 정지가 마 캄캄해. 캄캄하고 그거 팔 때 기명器皿이라고 그전에 인자 유기그릇, 살간에 딱 뚫

223. 말등처럼

224. 그것 가지고

225. 부엌이

는데 인자 뭐 우리 식사 받아 묵는 그릇을 짹 동개 났는데²²⁶ 그거 팔 때 그렇더라. 그
릇이 소리가 저렁저렁 나더라.

그거 인자 그로 얘기로 들어볼 때, 인자 산 정기가 참 있다는 거 우리 짐작했제. 그래가
지고 그 쇠 파고부터는 마 정지가 캄캄하고 마 그래 가거어 마 파 갔어요. 파가 지금 현재
로 이 말등 곁은 데 보모, 이 구디기가²²⁷ 저어서 지단개 이래 가 많이 파졌어요. 인자 개
인으로서는 그 우리가 말리모 할 수 없이 못 파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도경,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소야풍년所也豊年

상북면 소호리上北面 蘇湖里의 옛 이름을 소야所也라 하였다.

소야所他와 월성군 내남면月城郡 內南面の 동골을 합쳐서 흔히 ‘소야동골’이라 하였으며
이것이 줄어 ‘쇄동골’이라고도 불러왔다.

들마을에 살던 어떤 사람이 소야所他를 찾아 첫길을 나섰다. 가지산加智山 아래에 있는
삽재插峴라는 마을을 지나 북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10리가 넘는 험한 산길이었다. 외롭
고 또한 불안한 산길이었다.

길은 마침내 광바위廣岩에 이르렀으나 근근 바위틈을 넘어 다니는 좁은 길이었다. 길손

226. 포개에 쌓아 놓았는데

227. 구덩이가

이 문득 앞을 보니 지계를 진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엉겁결에 길손의 입에서는

“당신 어딴소?”하는 말이 터져나왔다.

이때 그 사나이는 불쑥 바위 위로 길을 비끼면서

“쇄동굴 사오.”하며 답하였는데 매우 의기양양한 것이었다.

길손은 다시 묻되

“어데를 가는 길이오?” 하며 이제는 매우 정중하게 물었다.

사나이는 답하되

“신나락 구하러 가는 길이오.”하는 것이었다.

길손은 지난해의 농사가 고랭지에서는 풍작을 이루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말을 이어

“신나락은 무슨 신나락이오?”하니 사나이 말이

“나락 등이 터져 못쓰게 되었소.”하며 길을 비켜 가버렸다.

이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나락이 등이 터져 못쓰게 되었다는 말에는 함축성이 있는 하나의 풍자가 섞여있다.

소호蘇湖나 등골처럼 높은 산에 둘러싸여 일조시간이 짧고 찬물이 새어드는 곳에는 가뭄이 와야 풍작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심한 가뭄 때는 벼알의 등숙이 좋아서 벼 껍질이 터지도록 벼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7월 장마가 계속되거나 비가 많은 해는 그만 미발에 그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소호리의 사정인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수, 남구, 1984]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김상근金相根,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김상근金相根,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열녀烈女 정씨鄭氏와 호묘虎墓(1)

이조 태종太宗 때에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지냈던 유혜지柳惠至에게는 정씨鄭氏부인이 있었다. 정씨부인의 나이 스물여섯 살 때에 유혜지柳惠至가 그만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뒤를 따라 같이 죽고 싶었으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어 그리 하지도 못하였다.

그는 같이 죽지는 못할지언정 3년의 시묘侍墓살이는 하리로다. 생각하고 묘소에 움막을 얹어 산으로 들어갔다. 사내의 몸으로도 시묘살이란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진대 더구나 젊은 여성의 나이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깊은 밤이면 무서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마을의 건달배들이 움막을 기웃거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편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위自慰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오로지 그는 남편이 고이 영면하기만을 빌었다.

그런데 하루 밤은 기적이 일어났다. 한 마리의 큰 범이 나타났다. 이를 본 정씨부인은 혼비백산하여 기절할 뻔하였다. 정신을 차려 보니 범의 몸짓이 측은한 감이 있어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다. 어슬렁어슬렁 다가온 범은 옆에 누워 몸을 부비는 것이었다. 아마 정씨부인의 지성이 하늘에 닿아 하늘이 주신 가호였으리라.

이날 뒤로는 밤마다 범이 나타나서 같이 시묘하는 정다운 한 식구가 되었다. 어찌된 일인지 하루 밤은 범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씨부인은 웬일일까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정씨부인의 꿈결에 범이 나타나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질 않는가. 범이 함정에 떨어졌던 것이다. 깜짝 놀라 잠이 깬 정씨부인은 그길로 범을 찾아 나섰다. 꿈결에서 본 그 자리로 달려가 보니 함정에 빠진 범을 둘러싸고 마을의 장정들이 모여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 정씨부인은 애원하였다. 이 범은 나와 같이 시묘하는 착한 범이라며 애원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범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정씨부인의 청하는 대로 놓아 주었다. 함정에서 빠져나온 범은 정씨부인을 등에 업고 묘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정씨부인의 슬펐던 고행도 끝을 맺어 3년 상을 치룬 정씨부인이 다시 묘소를 찾았다. 슬프고도 슬픈 만감이 오가는 것이었다. 부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의 뒤를 따르리라. 그래서 후세에서라도 이별 없이 함께 하리라”하였다.

그런데 웬일일까 갑자기 묘가 갈라졌다. 부인은 말없이 남편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영원한 눈을 감은 것이었다. 묘는 다시 닫아져 부부가 합장되었던 것이었다.

사흘 뒤의 일이다. 부부의 무덤 앞에는 호랑이도 뒤편에 죽어있었다. 이것을 본 가족들이 호랑이도 자리를 골라 묻어주었다 한다.

정씨부부의 묘는 화장산 세이지洗耳池 밑에 있다. 향산리 능산香山里陵山마을의 능구터미에 있는 묘가 바로 그것이다. 범의 무덤도 능산陵山の 도로가에 있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윅수, 남구, 1984]

[이윅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경남도지慶南道誌」,

류덕조柳德祚, 언양면, 1963.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경남도지慶南道誌」, 류덕조柳德祚, 언양면, 1963.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열녀 정씨와 호묘(2)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에는 열녀정씨 부부의 묘소·열녀각·영호지묘靈虎之墓가 있다.

옛날 이곳에는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은 현감으로 본관은 문화 유씨였다. 정씨부인이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묘살이 하는데 미모의 젊은 여인이 산속의 묘소에서 외로히 시묘살이를 하고 있음을 아는 마을의 음흉한 젊은이들이 이곳을 기웃거렸다.

이때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으르릉’ 하는 포효를 하니 젊은 사나이들은 그만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고 말았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마다 나타나 부인을 지켜 주었다. 부인도 처음에는 호랑이고 보니 무서웠으나 차츰 친숙해지기 시작하여 이젠 예사롭게 여겨지고 호랑이도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짐승과도 같이 부인을 따르고 몸을 기대어 비비곤 하였다.

정씨부인은 해가 지고 날이 저물기만 하면 호랑이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오지를 앓는다. 부인은 애타게 기다리다가 살며시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호랑이가 뒷에 걸려서 울고 있었다. 호랑이는 부인을 보더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부인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호랑이를 찾아 헤메었다. 부인이 한마을의 뒷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고 있음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정씨부인이 뛰어가 보았더니 함정 속에서 뒷에 걸린 호랑이가 신음하고 있고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고 하고 야단들이다.

부인이 보니 바로 그 호랑이가 자신을 보호하던 호랑임을 알았다. 부인은 마을사람들에게 애원했다.

“여보세요, 여러분께서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호랑이는 남편무덤에 시묘살이하는 나를 보호하던 착하고 고마운 호랑이입니다. 간밤에도 내 곁에 와서 나를 보호해 줬어요. 호랑이가 오지를 앓아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이 호랑이가 뒷에 걸려 살

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랑이를 찾다가 여기서 이 호랑이를 찾았읍니다. 여러분 부디 이 호랑이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부인의 애원으로 마을사람들은 감동되어 호랑이를 잡지 않겠다고 했다. 부인은 함정으로 뛰어내려서 호랑이의 발목에 묶인 덩을 풀었다.

호랑이는 부인을 등에 업고 부인이 시묘살이 하는 묘소의 움막으로 손살같이 달려왔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는 전날과 같이 밤마다 호랑이는 부인 곁을 찾아와서 부인을 보호해 줬다.

그러다가 부인은 남편의 삼년 간 시묘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다. 시묘살이를 마친 삼일 후에 부인이 남편의 묘소로 갔다. 부인이 남편 묘소 앞에서 큰절을 하자 순식간에 묘가 두 조각으로 썩 갈라지고 말았다. 이때 부인은

“여보~” 하고 갈라진 묘 속으로 뛰어드니 갈라졌던 묘가 다시 닫히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정씨부부는 천생연분으로 땅속까지 함께 나란히 묻히고 말았다.

묘가 갈라져서 부인이 남편과 함께 합장된 지 삼일 만에 호랑이가 나타나 산천이 떠나가라고 울어 대다가 묘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열녀정씨의 열행을 나라에 상소 했더니 나라에서 열녀비를 세우고 열녀각을 지었다.

그리고는 가당한 호랑이에게도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고 ‘영호지묘’라는 비석을 세워줘서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사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열녀 정씨와 호묘(3)

옛날에 이곳에는 열녀 정씨의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 정씨의 나이 스물다섯 살이 되던 해 어린 아들 하나를 남겨 놓은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은 애통 지정 속에 남편을 마을 뒷산에 장사 지냈다.

부인 정씨는 아직 남편의 체취가 남아 있는 듯한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날마다 시묘待墓살이를 했다. 캄캄한 밤중에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이산 저산에서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기슭에 남자라 할지라도 감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곳인데도 부인 정씨는 참고 견디며 남편의 묘 옆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시묘살이를 하였다.

마을 건달들 가운데는 젊은 과부가 산에서 홀로 시묘살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기웃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아랑곳없이 삼년 간이나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 가특한 젊은 청상과부의 지성어린 정성이 하늘에 감동 되었는지 어느 날 밤 부인의 움막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찾아 왔다. 부인은 그만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이 좀 돌아 왔다. 살그머니 눈을 뜨니 호랑이는 다리를 쭉 뻗고 부인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것이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부인은 눈을 뜬 채 꼼짝도 않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으나 호랑이는 태연하게 누워 하품을 하면서 전혀 사람을 해칠 것 같지가 않았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살며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듯 머리를 부인의 가슴에 파묻고 파고드는 것이었다.

부인은 마음을 놓았다. 이렇게 해서 부인과 호랑이는 친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부인과 호랑이가 함께 움막에서 잤다. 부인은 약간 불안하기는 했으나 마음이 든든함도 느껴졌다.

호랑이만 해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

니 호랑이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날이 어둡자 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젠 부인과 호랑이는 마치 한 집에 키우는 개와 주인처럼 다정해져 버렸다. 호랑이는 날이 밝으면 가버리고 날이 저물면 찾아왔다. 이러한 나날이 계속 되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마을 불랑배가 과부를 넘보고 슬금슬금 움막으로 접근을 했다. 호랑이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움막 밖으로 나가서 "으르렁, 으르렁"하고 두어 번 포효를 해 버렸다. 가까이 기어들던 불랑배는 그만 혼비백산이 되어 줄행랑을 놓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 과부가 호랑이를 데리고 시묘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고 부터는 마을 불랑배들이 과부를 넘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꼬박 꼬박 찾아오던 호랑이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부인은 밤이 늦도록 기다리며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부인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호랑이가 뒷에 걸려서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꿈을 깨고 나서 한참 생각해보았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구나. 어디 호랑이를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다가 한곳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뒷에 걸려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죽창과 몽둥이를 들고 둘러서서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있질 않는가?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부인은 호랑이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일들을 죄다 얘기하고 절대로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마을 사람들도 부인의 얘기를 듣더니 착한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잡지 않았다. 부인은 호랑이에게로 가서 뒷에 걸린 것을 풀어 주었다. 그랬더니 풀려 난 호랑이는 부인을 등에 업고 바람처럼 달려서 남편 묘소 앞 움막에 내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부인은 호랑이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편의 시묘살이 삼년을 무사히 끝냈다. 삼년 시묘를 끝낸 사흘째 되던 날 부인은 남편의 묘소로 참배를 갔다. 묘소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묘가 절반으로 짝 갈라졌다. 이 때 부인은 "여보!"하고 갈라진 묘 속으로 뛰어 들어가 남편이 들어있는 곁을 안고 엎어졌는데 그 순간 갈라진 묘는 다시 딱 닫히고 말았다. 부인과 남편은 한 무덤 안에서 영영 잠들고 말았다. 한 쌍의 부부가 이렇게 되어 합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삼일 후에 호랑이가 찾아 왔다. 호랑이는 무덤 앞에 와서 온통 산천이 떠나가라고 울었다. 호랑이는 이렇게 밤낮 사흘을 울고 나서 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씨 부부의 무덤 앞에서 죽은 호랑이를 묘 옆에다 정성껏 장사 지내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일이 있고 부터 그 무덤의 후손들은 정씨 부부의 합장묘와 호랑이 무덤을 해마다 찾아가서 깨끗이 별초를 해 주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더니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니 호랑이가 지켜 주었고 호랑이가 부인을 보호했기에 텃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으리라. 인간과 호랑이의 깊고 깊은 인연이라고나 할까.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열녀烈女 동래정씨東萊鄭氏와 호묘虎墓

우리 지방에 간창澗倉²²⁸이라고 해서 간수 간짜澗字, 곳집 창짜倉字, 창고라는 창짜에, 간창이라는 조그마한 부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문화류씨文化 柳氏가 들와서 사는 재가 오래 되었습니다. 약 한 오백 년 가까이 됩니다.

이 집에 류혜지柳惠至, 버들 류짜柳字, 은혜 혜짜惠字, 이를 지짜至字, 류혜지 쿠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의 부인이 동래東萊 정씨鄭氏였습니다.

228. 울주군 상북면 거리트리에 있는 자연부락.

그런데 그 아주 그 열녀였어요. 그 류혜지 쿠는 분이 돌아가신 후에 삼 년 동안 시묘^侍墓를 살았읍니다. 시묘는 산소에 가서 막을 치고 거계서 기거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때 호랑이가, 그 범이 한 마리 와가지고 그 묘 앞에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웬만한 사람이며는 아주 그거 참 기겁을 해서 뭐 죽든지 혹은 거어 못 있든지 했지마는, 이 동래 정씨 부인은 조금도 무서운 기가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범하고 아주 친하게 되서 ‘마 저 짐승이 나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왔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 범이 안 나타나면 오히려 섭섭하게 이래 됐어. 그래서 그 묘 앞에서 그 범과 같이 3년 동안을 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에는 이 범이 어데 가가 안 와요. ‘그 이상하다. 왜 안 돌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부인이 홀연 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몽사^{夢事}에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내가 여계서 한 팔십 리 밖에 청도군^{淸道郡} 어느 모처에서 틀에 치이 가지고 내가 죽게 됐는데, 속히 구해 달라.”

이러한 몽사가 있었는데, 그래 몽사를 깨 보니까 자기 앞에 오던 그 호랑이가 없어. 그래서 그 아주 사람들을 시켜서 빨리 그 몽사에 나타났던 그 지점을 찾아가니까, 과연 그 함틀에 치여 가지고 범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그 함틀 놓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범을 구제로 해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 이튿날 그 범이 또 그 묘 앞에 와가지고 그 참 정씨부인과 같이 가히 그 기거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럭저럭 세월이 지내가지고 인자 삼 년 시묘를 살고 다 살고 돌아올 무렵에 그래 그 범이 또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범을 매장을 해 줬는데, 지금 그 매장한 장소가 그 동래 정씨 부인의 정려각 뒤편에다가 묻어 뒀어요. 묻어 주고서 그게 보며는 돌 세아 놓는데,²²⁹ ‘영호불망비^{靈虎不忘碑}’라, 영호, 신령스러운 범을 잊지 아니하는 비라고 해서 그 돌을 세아 놓고, 그 영호를 참 영원히 그 자손들은 류씨네 집에서는 잊지 않고 그렇게

229. 비를 세워두었는데

하고 있다는 곧이 있습니다.

바로 언양에서 석남사로 가는 도로변에 그 정려각이 있고 또한 그 영호무덤도 고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나 그 또 특이한 전래가 돼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열녀 광주노씨 光州盧氏

이 지방에 저희 김가가 오래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10대 조비가 또한 그 정렬부인으로서 정렬을 무라가지고 지금 정녀각이 있습니다.

이 어른의 사력은 본래 광주노씨 光州盧氏데, 노한기씨의 따님으로서 저희 10대조에게 시집을 오셔가지고 사시는 동안 저희 10대 조부께서 일찌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삼 년 동안 시묘侍墓를 살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바친 정성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남기신 일로서는 주장이 없는 살림살이를 맡아 사이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유산을 두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가 될런지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의 군수를 입회를 시키고 재산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을 하는데, 아들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에게 한 몫씩 세 몫 지하고 조상의 몫이 조상을 참 받들 그럴 위토位土로 하여금 한 몫 지하고 심지어 시종숙까지도 한 몫을 조가²³⁰ 다섯 몫을 뉘가지고 재산을 참 분배를 시켰습니다.

230. 주어서

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고을에서 참 장한 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나라에 품신을 해가지고 그 정려를 무라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 아들네들 불러 놓고 유언하시기를,

“내가 지금 혼자된 후에 참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었는데, 내 죽은 후에 제사에도 절대로 고기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고기를 쓰는 시기는 그 당시에는 다 그 조주를 해서 신주를 모시게 되니까 영감 신주하고 같이 합동을 할 때는 부득이 영감을 위해서 고기를 안 썰 수가 없으나마 내 앞자리에는 신주 앞자리에는 가급적이면 고기를 놓지 말고 해 달라. 이렇게 그 참 아들네에 부탁을 했어.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대 참 아드님께서 꼭 그 유언을 시켜서는 그런 참 기문이 있고 해서 지금 그 저희들이 미성이지마는 정려각을 수호하고 있고 또 묘소에 묘비도 세워서 건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거리트리로 걸어온 독뢰산

그 우로 올라가며는 거리트리로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거리 부락 앞에 조그마한 야산野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서는 한 일 정보一町步 정도의 임야가 있는데, 이 임야를 여기 전설에 의하면 ‘밀양密陽에서 온 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왔느냐? 그것은 언양彦陽이라는 한 고을인데,²³¹ 그 고을에

성을 쌓는데 돌과 흙이 필요한데, 그 밀양의 어떤 노후가 신도를 이용해가지고²³² 그 산을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에 당도하니까 언양성彦陽城의 사역使役이 마쳐졌다, 완료되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 그만 버리고 간 것이 하나의 산이 되었다 하는데, 옛날 몇 백 년 전에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밀양에서 임야세林野稅를 받으러 다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 또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거리巨里 동뫼洞山

상북면上北面에는 몇 개의 아담한 마을이 있다. 하동下洞이 있는가하면 간창澗倉이 있고 또 대문각단, 지곡芸谷, 밤갯 등의 마을이 있어 다 운택하다.

그런데 하동마을 앞에는 조그만한 들산이 있다. 이 산을 마을 가운데 있다하여 사람들은 ‘동뫼’라고 불러온다.

이상한 일이다. 이 산을 일러 밀양密陽에서 온 산이라고들 하고 있다. 울산은 바다를 앞에 둔 고을이다. 그러니 왜구들의 침범이 잦은 곳이었다. 왜구를 막자면 성이 필요했다. 이 왜구를 막으려고 어느 때 울산에서는 큰 성역城役이 일어났다. 성 쌓는 일에는 울산의

231. 언양과 같은 이웃고을이라는 말이다.

232. 노파가 도술을 부렸다는 말이다.

장정도 물론 동원이 되었지만 원근의 다른 고을 장정들도 징용이 되었다.

이 성역은 거창한 역사役事였으므로 그리 쉽사리 끝나질 않았다. 그러니 향간에서는 농사를 농칠세라 하며 조바심을 떨더니 나중에는 원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세상에 진시황의 만리성도 아닐텐데?’하는 소리가 밀양密陽 고을에서 일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중한 부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밀양의 마고할미가 구원의 손길을 펴기 시작하였다. 두 손에 회초리를 쥐고 휘두르며 밀양 땅의 흙을 휘몰아 쳤다.

흙더미는 밀려 석남재石南嶺를 넘어 거리巨里의 하동下洞 앞에까지 왔다. 마고할미는 여기에서 한숨을 돌리며 땀을 닦고 쉬고 있었다.

이때였다. 성역을 끝내고 장정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헤어진 옷을 걸친 밀양장정들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마고할미는 그만 흙더미를 버리고 밀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흙더미가 작은 산이 되어 그 이름 동뢰라고 불려온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어느 뒷날의 일이었다. 길천리吉川里 이불知火에는 정심鄭謹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이불知火에서 살아왔다.

이 정씨 집안에 상사가 일어나서 동뢰에 묘를 들이고자 하나 마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이 동뢰야 말로 밀양에서 온 것이 분명하질 않는가하며 밀양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산세山稅를 내고 매장허가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밀양부사의 허가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윅수, 남구, 1984]

[이윅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面誌』, 『헌산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동피산은 밀양의 땅

울주군 상북면 거리 하동마을 앞에는 오산오산이라는 산이 있고, 오산의 뒷편을 사람들은 이 산을 밀양산이라고 부른다. 울주군의 땅에 밀양산이 있다니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옛날에 언양고을에 큰 축성築城 공사가 벌어졌다. 이 거대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고을 백성들은 총동원이 되었다. 축성공사는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해를 두고 계속되니 고을 사람들은 지쳐 버리고 백성들의 경제는 고갈이 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이 같은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 마침 밀양고을에 살고 있던 마고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언양고을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하다가 한번은 밀양에 있는 산을 뽑아 메고 고현산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 마고할머니가 산을 메고 오다가 들으니 언양고을의 축성공사가 이미 끝나 버리고 말았다고 하였다.

마고할머니는 뽑아 메고 오던 산을 도로 밀양으로 가져 갈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내려 놓고 가버렸다고 한다. 이 마을에 밀양산이 생겨 난 동기가 이렇게 하여 이루어 졌는데 마을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산을 가리켜서 밀양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밀양산에 묘를 드리기만 하면 마을에 큰 해가 일어났다. 날이 가물어서 흉년이 들거나 돌림병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거나 화재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거나 가축들이 몰사를 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드린 묘를 파내곤 하였다.

그런데 지리풍수설에 능한 사람은 이 산이 대명산이라고 하며 여기에 묘를 드리면 마을에는 피해가 있더라도 묘를 드린 자손들은 크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마을사람이 아닌 다른 마을사람들이 자기 선친의 묘를 파서 몰래 여기에 암장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사람들이 보고 파 낼까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으로 묘를 드리고는 표 없이 위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묘만 드렸다면 반드시 마을에 큰 화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화가 일어났다고만 하면 으레히 밀양

산에 또 누가 묘를 몰래 드린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연장을 들고 총동원이 되어 밀양산으로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 암장한 묘를 찾아내어 멀리 갖다 버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암장한 묘를 파내 버리기만 하면 그 다음 부터는 마을이 편안하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밀양산 만은 금장지禁葬地로 정하고 묘를 드리지도 않고, 또 그 아무도 드리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번은 상북면 지화리에 사는 동래 정씨가 여기에 묘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묘를 못 드리게 막으려 했다. 그랬더니 동래 정씨들은

“이 산이 본래 밀양의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밀양부사에게 세금을 내고 장지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장지 허가서를 보세요.”하고 밀양부사가 발행한 장지 허가서를 내 놓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동래 정씨들은 여기에 묘를 드리고 그 후 재산도 일어나고 인재도 배출되었다. 그런데 그전 같으면 여기에 묘를 드렸으니 마을에 또 큰 화가 미치리라고 염려했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고 보면 그전에 묘를 드린 사람들은 산주에게 산세를 내지 않고 묘를 드렸기 때문에 마고할머니의 노여움을 입어서 그러한 화를 미치게 했으나 이번에는 산주인 밀양부사에게 정당한 산세를 내고 장지 허가까지 받아 묘를 드렸으니 마고할머니가 노여워하지를 았았다고 믿었다.

남의 고을에 있는 산의 세금을 타 고을 부사가 받았으니 불가사의한 일이기는 하나 사실대로라면 받을만한 세금을 받았다고 믿어도 무방하겠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동뢰산(일명 밀양산密陽山)

동뢰산은 울주군 상북면 거리하동_{臣里下洞}앞에 펼쳐진 들판 가운데 솟은 오산_{吾山} 뒤편의 조그마한 야산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가리켜 밀양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울주군에 밀양산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 언양고을에 거대한 읍성_{邑城}을 축성하기 위하여 언양 고을 백성들은 나날이 공사장으로 나가 고된 노동을 하는 한편, 축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받쳐야하는 비용 때문에 노동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 고을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었다.

이때 이 같은 소문은 인근 고을로 퍼져 나갔다. 이 같은 소문이 인근고을로 퍼지자 이 같은 소문을 들은 밀양고을에 좌정했던 마고할머니가 언양고을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언양고을 백성들의 고역을 덜어주기 위하여 밀양 땅에 있던 자그마한 산을 뽑아 짊어지고 이곳 언양으로 옮겨 오는데, 도중에 소문을 들으니 이미 언양읍성의 축성공사가 끝이 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밀양의 마고할머니는 짊어지고 오던 산을 도로 밀양으로 짊어지고 갈수도 없고 해서 그만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 이 마을 사람들은 이산을 가리켜서 밀양에서 옮겨진 산이라 해서 밀양산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은 이 산이 아담하고 따뜻해서 묘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묘를 들었더니 마을에 큰 해가 미치므로 이산을 아예 금장지_{禁葬地}로 선포하고 혹 누구든지 이곳에 몰래 묘를 들이지나 않는가 하고 서로가 감시하였다. 그래도 이곳이 하도 명산이라 묘를 쓰기만 하면 그 마을에는 큰 피해가 있어도 그 자손들만은 크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기에 몰래 밤중에 암장_{暗藏}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을에 피해가 일어나기만 하면 이 산을 뒤져서 기어코 암장한 것을 찾아내어 묘를 파내고 말았다.

그런데 한번은 지화리知火里에 사는 동래정씨東萊鄭氏네가 여기에 묘를 드릴려 하였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몽둥이랑 돌맹이를 들고 일어나서 이를 막으려 하였다. 이때 동래정씨 문중의 문장이 나타나 설명하기를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시오! 이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양의 것이 아니요. 밀양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주인인 밀양부사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 산에 묘를 써도 좋다는 승락서와 세금 받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보시오”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더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동래정씨네들은 아무 일 없이 이산에 묘를 드렸다. 이상하게도 이산에 묘만 드리면 마을에 큰 피해가 일어 나드니, 이번에 동래정씨네가 밀양부사에게 세금을 받치고 허락을 받아 묘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마을에 아무 탈도 없었다. 그 후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전에 묘를 드려서 피해를 입은 것은 산주인 밀양부사에게 세금을 받치치 않았기 때문이요. 이번에는 세금을 받쳤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다고 믿었다.

이 같은 전설을 담은 밀양산은 지금도 이 마을에 가면 들판 가운데 자그만하고도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날의 전설을 말하는 듯 변함이 없다.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여근곡女根谷

산전리 도동道洞마을 송내골松乃谷에 는 여근곡女根谷이 있다. 일명 옥문곡玉門谷이라고도 불리는 이 골짜기는 마을 인가에서 북쪽으로 약 2km쯤 올라가면 막다른 종점에 닿

는데 그곳이 곧 여근곡이다.

고현산의 남쪽 지맥支脈을 따라 동쪽의 언양읍 다개리와 서쪽의 상북면 궁근정리, 산전리의 경계 능선으로 남으로 뻗어 못안池內里 방향으로 내려오다 세칭 ‘내봉지’라 불리는 산봉우리 아래(서쪽)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예로부터 ‘보지골’이라 불러왔다. 이 골짜기와 그 막다른 곳의 형국이 흡사 여자의 국무를 닮았다하여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인데, 이곳에는 음기陰氣가 왕성하다 한다.

마을주민들의 자녀의 성구성비性構成比를 살펴보면 아들보다 딸이 단연斷然 많은 것도 이런 까닭이라고 한다.

이 여근곡 위의 산 정상부근에는 ‘아들바위’와 ‘딸바위’라 불리는 두 바위가 가까이서 마주보고 서 있고, 또 멀리 서남쪽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한 층암절벽으로 서 있는 간월산 천질바우千丈巖를 남근男根으로 비유하여 왔다.

여자의 나신(여근)이 훤히 드러나면 음기가 더욱 왕성해져 마을의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俗說이 있어 그 주위에는 늘 울창한 송림松林으로 가리워져 있다.

이 숲은 여성의 음모陰毛로 유감類感되어 이 부근은 남성 출입금지구역으로 되어 왔다.

그런데 일제시대 어느 해 진달래가 만발하던 화창한 봄날 마을 청년(머슴)들이 이 골짜기에 나무를 하러가서 여근으로 유감 되는 이 바위 구멍에 작대기로 휘젓고 오줌을 누는 등 짓궂은 장난을 하였는데, 얼마 후 마을 처녀들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고 근친近親끼리 상피相避가 벌어지는 등 추문醜聞이 일어나 관련자들을 색출, 국문鞫問하여 동네매洞箐를 맞히는 등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금도 이 골짜기의 한 가운데는 솔숲이 울창하며, 나무꾼들이 이곳에 들어가면 촌로村老들은 마을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 하여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다.

[『상북면지』, 정인태, 상북면,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부자암父子巖(1)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병하였던 김여경金麗慶(본관 김해)이 아버지인 김응량金應亮을 도와 대구 팔공산八公山의 진중으로 가는 도중 서로 헤어져서 어느새 날이 저물어 운문산雲門山에 이르러 한 바위를 의지하여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다.

산 위에서 날이 밝자 앞뒤를 살펴보니 부자가 서로 바위의 좌우에 뚫린 굴에서 자고 일어났던 것이다. 이로부터 이 바위를 사람들은 부자암父子巖이라 불렀다고 한다.

[『상북면지上海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부자암父子岩(2)

신무원종 3등공신宣武原從三等功臣 김응량金應良 김려경金麗慶 공공의 두 부자父子를 온양읍 대안리 김해 김씨金海 金氏 옥려제玉如齋에 위패를 모시고 후손들이 추모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두 부자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선조 30년 9월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대승한 의군義軍이 이동할 때 김응량 김려경 부자父子는 서로 행방을 모르는 채 행군했다. 날이 저물어 청도 운문 산중雲門山中 악암巖 좌우굴에 하루를 머문 후 다음날 아침 바위 앞에서 상봉했다.

부사의 상봉이 천우신조天佑神助요 조상의 음덕蔭德이라 하여 그 바위를 ‘운문산중 부자암’이라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과부성寡婦城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마을 동쪽에 묘하고 아담한 산봉우리 하나가 오뚝 솟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과부성寡婦城이다. 이조 제14대 선조 25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 후 전쟁은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되면서 우리의 삼천리강토를 온통 왜병들이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무술년에 전쟁이 끝이 났다. 왜병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먼저 부산에 그 선봉대가 밀고 들어 왔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명나라와 형제지간의 국교를 맺어놓고 명나라를 마치 하늘처럼 믿고 사는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한창 당과 싸움이 싹트기 시작하여 그 싹이 막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다. 뿐만 아니라 설사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형님의 나라인 명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다는 잠꼬대를 하고 있을 때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기래야 고작 활이 아니면 창과 칼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방에는 추호도 염려하는 자가 없고 다만 정치적 세력만을 노려 당과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서로 물고 뜯고 자작지변이 일어나고 있을 때다.

이 같은 시기에 바깥으로는 가까운 일본이 먼저 서양의 각국과 교역을 통해 문화가 날로 발전하여 개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이미 조총鳥銃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여 무기를 현대화 하고 있었다. 일본이 조총을 만들어서 손에 넣고 사용을 해보니 이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오만해 졌다. 그 당시 일본의 통치자 풍신수길은 속으로

“자, 이제 이 조총만 가지면 활과 창과 칼 따위를 무기라고 믿고 잠꼬대나 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을 집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조선을 향해서

“자! 우리가 명나라를 치고 들어가야 할 텐데 조선 땅을 좀 밟고 지나가야 하겠어. 어때? 조선은 이때 길을 비켜 줄 것이냐 아니냐?”하고 위협을 했다.

이때 조선은 한마디로 안 된다고 거절을 해 버렸다. 그랬더니 일본은

“그렇다면 좋다. 부득이 조선부터 쳐 버리고 명나라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하고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이다.

우리나라는 밤중에 홍두깨라, 그때서야 야단났구나 하고 서둘러 왜병과 맞서 싸웠지만 총과 활의 대결인지라 우리나라 군대는 온통 풍전 파죽지세로 쓰러졌으니 부산, 동래, 김해, 밀양, 양산, 울산 할 것 없이 온통 무적지세로 왜병들이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왜병들은 수삼일 만에 문경세재와 추풍령을 넘어 서울 도성을 위협했고 선조대왕께서 부득이 호종하는 신하들과 함께 임진강을 건너 신의주까지 피난을 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는 왜병의 발자취에 짓밟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당파싸움에 져어 있었고 또 명나라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조정 대신들 뿐만 아니라 그 이하 우리나라의 각 고을의 수령방백이나 군대의 지휘관들도 그 정신이 해이 될 대로 해이 되어 잠꼬대만 하고 있다가 전쟁을 만났으니 아무리 무기의 우열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을 보기도 전에 적이 가까워진다는 소문만 듣고는 한 번 싸워 보지도 않은 채 도망질부터 하는 자들뿐이니 백성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한심스러운 한숨만 내쉬게 되었다.

보다 못해 일어선 군대가 바로 의병義兵이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자청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해 보겠다고 마치 구름떼처럼 일어난 의병들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곳곳서 왜적과 맞싸웠다. 물론 총을 가진 왜병을 당적 할 수는 없었지만 투철하게 결심한 정신적 무기 앞에는 왜병들도 때로는 큰 피해도 입었고 혼도 났다.

이러한 전황 속에 우리 고장에도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고 또 조국과 겨레를 위해 장렬한 순국을 한 수많은 의병이 있었다.

그중에 한 마을이었던 이곳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와 인근 마을 의병들은 이 과부성으로 올라가서 왜적과 대치하고 장렬하게 싸웠다. 총을 든 왜적들이 과부성을 온통 에워쌌다. 성중의 의병들은 포위한 왜병을 향해 활을 쏘고, 화건과 횃불을 던졌고 투석, 투창을 했으나 그 거리가 미치지 못하고 왜병들은 조총으로 쏘아부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성중의 의병들은 하나 둘 차례로 쓰러져 갔다. 이러다가 종말에는 한사

람도 남아 있지 못하고 몰살당하고 말았다. 왜병들은 과부성의 의병들을 몰살한 후 다른 데로 퇴돈하고 말았다. 왜병이 퇴돈한 후에 피신했던 마을사람들이 나타나서 과부성으로 가보니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정경으로 의병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쓰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쟁 중이라 누구누구의 시체라는 것을 가릴 겨를도 없이 한구 한구씩을 운구 해다가 그 넘어 산에 장사지냈다. 이렇게 묻은 묘의 수가 무려 수백 구나 된다. 이와 같이 몰변을 당한 과부성 싸움이 끝나고 나니 이 마을에는 몰과부가 생겨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산을 가리켜 과부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의병들의 무덤은 도굴단에 의하여 파헤쳐 지고 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상북면지上下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홍류폭포紅流瀑布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간월사지澗月寺址 뒷편 신불산神佛山 중턱계곡에 홍류폭포가 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낙차의 높이가 1백6척이나 되는 우리 고장 유수의 폭포다.

이곳을 가려면 언양에서 작천정으로 가서 작천²³³을 따라 골짜기 깊숙이 들어가면 한가

233. 작래천酌掛川

로운 촌락이 나타난다. 이 마을이 등억리다. 등억리를 지나 약 1키로 더 오르다 보면 남쪽에 높이 치솟은 영봉이 있으니 이 봉우리가 해발 1천미터가 넘는 신불산이다.

이 신불산 기슭에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창건 했다는 간월사지가 있다. 그 규모가 매우 웅장했음을 말해주듯이 대웅전을 비롯한 각 건축물들이 세워졌던 자리에는 축대가 지금도 역역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기와조각들과 토기편들이 즐비하게 흩어져 있다. 그리고 대웅전 양쪽에 세워졌던 두 기의 석탑은 기단부분만을 남겨 놓고 그 상부의 탑신석과 옥개석들은 그대로 넘어져 있다. 탑의 규모도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조각한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수려하다. 이 간월사지에는 보물 제370호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이 봉안되고 있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간월사가 폐찰되고 난 후에 노천에 방치된 것을 언양 지방의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법당을 세워 여기에 봉안하게 됨으로써 노천 풍우에 시달리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

간월사는 자장율사가 중국(당나라)의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팔년 간 수도 차 들어가기 이전에 창건을 했다하니 우리 고장의 신라 고찰들 가운데는 비교적 일찍 세워진 사찰이다.

간월사지를 돌아보고 그 서쪽 소계곡을 따라 약 1킬로를 오르다가 보면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물소리 나는 쪽의 계곡을 따라 오르노라면 마치 은하수라도 떨어지는 듯, 높이 1백6척의 절벽 위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폭포 아래에 다가서면 아무리 무더운 날에도 몸에 흐르던 비지땀이 말쑥히 가서 버리고 오싹 해 움을 느낀다. 수박이랑 맥주를 담귀 놓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한참을 쉬면 땀이 가시고 난 다음에 수박과 맥주를 꺼내 수박을 탁 벌치면 수박 속에 서리가 서려있다. 맥주를 따서 한 컵을 마시면 속이 서늘해진다. 수박이랑 맥주를 먹고 나면 개울물에 손발 담그기가 싫어질 정도다.

홍류폭포의 유원流原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신불산 영봉 정상에 쌓였던 산성山城 단조성丹鳥城 안의 정천井泉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부근의 산세가 매우 깊다. 잡목들로 우거져서 신비로움을 풍겨낸다. 한여름 더위를 잊으려면 홍류폭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여기를 떠나기가

싫어진다. 마치 수정 같은 심산석간수를 마시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신선이 놀던 선경이나 다른 아닌 곳이 여기로구나 싶어진다. 홍류폭포에서 가던 길로 다시 내려오면 산기슭에 여인숙 한 집이 있다. 당일에 돌아오지 못해도 잠자리 걱정은 안 해도 좋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천전석불川前石佛(1)

상북면 천전리上北面 川前里에 용화사龍華寺가 있다. 1843년(헌종憲宗14년)에 세웠다는 이 절에는 석불이 있어 그 이름이 높다.

이조 때는 현역군을 말하는 번상군番上軍에 대한 경비 염출책으로 번상番上하지 않는 양인良人은 신역을 지는 대신 보保라는 군포軍布를 바치게 되어있었다. 이 제도의 운영은 뒤에 이르러 국방상의 필요에서 보다도 군포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국가재정에 충당시키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게 하고 있었다.

보는 대역세代役稅로서 포 2필씩을 바치는 양역良役이 뒤에 와서는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軍布를 바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어른과 같이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황구침정黃口簽丁,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白骨徵布까지도 유행하는 사회로 타락하고 있었다. 이 러할 때에 언양 현감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천전川前에서는 장정수가 모자라서 하는 수 없이 마을에 있는 미륵彌勒으로 장정수를

충당하여 주었다.

그 뒤에 관아에서는 장정의 수호대로 사정없이 군포를 수납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마을에서는 원성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원통하여 크게 부르짖으며 ‘석불을 장정으로 충당하더니 해가 우리 영세민에게만 미치는구나?’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사람들의 말이 떨어지자 혼연히 석불의 어깨에 두 필의 면포가 얹혀져 있었다. 이를 본 마을사람들은 그 석불의 영검에 감탄하여 그 자리에 용화사龍華寺를 지어 석불을 덮어 모시게 되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윅수, 남구, 1984]

[이윅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읍지蔚山邑誌』,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읍지蔚山邑誌』,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천전석불川前石佛(2)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용화사龍華寺가 있고 여기에 신라시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석불이 있다.

옛날 국가에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장정들을 뽑아 병졸로 삼았다. 이때 마을에 장정들이 부족하면 장정대신 군포軍布를 받쳐야 했다.

이때 이 마을에서도 장정이 부족하여 군포 수납 필요를 받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은 큰 곤욕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에 흩어져있는 올막줄막한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위들아 너희가 장정들이었다면 군포걱정은 안 해도 좋으련만 이 일을 어찌면 중단말인가.”하고 한탄하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마을 앞에 있는 석불을 찾아가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전 비나이다. 우리 마을에 장정이 모자라서 대신으로 군포 수납 필요를 상납해야 하옵니다. 그러나 군포를 마련할 길이 막연하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부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석불의 어깨에서 소슬바람이 일더니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듣거라 천전리 마을 사람들아! 너희들의 마음씨가 착하고 정성이 지극한지라 여기 군포를 내려 주노니 이것을 나라에 받쳐 곤욕을 면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소리가 공중에서 돌리기에 마을사람들은 공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공중에는 오색찬란한 서기瑞氣가 감돌더니 석불의 어깨위에 난데없는 군포 수납 필요가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고맙다는 뜻으로 수없이 절들을 하고나서 군포를 걷우어서 나라에 상납을 하니 마을의 곤욕을 덜 수가 있었다.

그 후부터 이 천전리 석불은 영험이 대만한 부처님으로 알려져서 각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그 후 이조 현종憲宗때 여기에다 절을 짓고 천전불당川前佛堂이라 불렀는데 해마다 명절이 되면 언양지방의 사람들은 화장굴 부처님, 천전석불, 작천정 석수사 부처님을 두루 순례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절을 중창하여 용화사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천전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가 착하고 소원 성취를 비는 정성이 지극하였기에 그 같은 기적이 일어 났는 듯싶다.

천전석불川前石佛과 군포軍布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는 천전석불이 있다. 지금은 이 석불을 봉안하고 용화사龍華寺라는 절이 세워져 있다. 옛날에는 이 석불이 천전리 냇가에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이 석불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나라에서는 군포정치를 실시한 때가 있었는데, 이 군포라는 것은 장정(병정)이 출정할 수 없을 때 대신 군포를 받쳐야 했다. 이 군포정치는 나중에 아주 악폐로 바뀌어서 열다섯 살 이상의 남녀에게는 모조리 군포를 받치라고 메겼다. 이럴 즈음에 이 마을에도 많은 군포를 받치라는 명령이 나왔다. 그러나 이 마을은 너무도 빈곤하여 군포를 받칠 능력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군포를 어떻게 받치느냐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뽕죽한 방법도 얻지 못한 채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부처님 저기 저 바위들이 모두 장정이었더라면 군포는 안 받쳐도 되련만 이렇게 많은 군포를 어떻게 해서 받칠까 걱정이옵니다. 부처님 좀 도와주소서”하고 사람마다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이 있는 부근에는 큼직큼직한 바위들이 널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바위들이 바위가 아니고 모두 사람이라면 장정으로 출정이나 시킬 것을 하고 애달파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다. 다음날 아침동녘이 뿌옇게 트일 무렵 마을사람 하나가 마침 석불 앞으로 지나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석불의 두 어깨 위에 베필이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은 이게 웬일일까? 하고 가까이 가 보았다. 베 필수가 무려 수십 필이었다. 누가 이 많은 베를 여기다 두었을까 하고 생각 했으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되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석불 앞에 모였다. 여기서 마을 지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여러분. 혹시 이 베를 여기다 둔 사람을 아시요?”하고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

었다.

이때 석불의 머리 위에서 소슬바람이 일더니 오색찬란한 서기가 공중에 가득하였다. 이때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여봐라. 천전리 백성들은 듣거라. 나는 미륵존불이다. 너희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마음들이 정직하여 석불 앞에 기도함이 지극하온 즉 기상히 여겨 이 군포를 내리노니 이것으로 나라에 받치고 곤욕을 면하도록 하여라,” 마을 사람들은 온통 기뻐 날뛰며 모두 공중을 향하여 합장 배례하며

“고맙습니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마치 하해와도 같아온데 어찌 다 갚으오리까? 부처님”하고 감사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은 베를 나눠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나라에 군포로 바쳤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미륵석불 앞에 극진한 정성을 드렸으며, 그 후 천전불당을 짓고 많은 신도들이 소원성취를 빌어 효험을 얻었다고 한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심종태 바위(1)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의 천황산 기슭에는 심종태 바위라고 불리우는 바위 하나가 있다. 이 바위 아래는 수십 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굴이 있다.

옛날에는 효성이 지극한 심종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부모의 제사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길렀다. 그런데 하루는 그 송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효성이 지극한 심종태는 부인과 함께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으려고 산천을 헤메기 시작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송아지를 찾아 나선지 삼일이 지나도 송아지는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물고 말았다. 심종태 부부는 밤을 새울 곳을 찾다가 마침 이 바위굴을 발견하고 굴속에 몸을 은신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도적떼들이 이 바위굴로 와서 심종태를 불러내어 호통을 친다. 심종태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너 왜 놈이냐? 응! 너 어디 사는 뭐하는 놈이냐?”

“예! 배내굴에 사는 심종태라고 합니다요.”

“여기 뭐하러 왔어! 응!”

“예! 송아지를 잃었기에 찾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 이려고 있습니다요.”

“송아지를 잃었어?”

“예! 부모님 제사에 쓰려고 키우던 송아지를 그만 잃었으니 어찌하면 좋을지요! 다만 목숨만이라도 살려 주십시오! 아무 죄도 지은게 없습니다요! 예!”

“잃은 송아지를 너희 부모님의 제사에 쓰려고 키웠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알았어! 그 송아지를 사실은 우리가 잡아먹었다. 우리는 이산을 거점으로 살고 있는 산적들이다. 그런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 효성이 지극하구나. 자 이거 받아라. 이 돈이면 송아지 두 마리는 살 수 있을게다. 한 마리는 부모님 제사에 쓰고 한 마리는 길러라”

“아닙니다요, 다만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받으라면 받아! 우리가 아무리 산적단이지만 너같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심종태는 산적들로부터 송아지 두 마리 값을 얻어서 한 마리는 부모의 제사에 제수로 쓰고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한 마리의 송아지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수십 마리가 되어 소부자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이 같이 사실이 있는 후에 이 바위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심종태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로부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 심종태의 효성에 관한 전설이야 말로 후세의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내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심종태 바위(2)

이천梨川이라는 부락에 가며는 심종태라는 사람의 바위가 있습니다.²³⁴ 어떤 이는 이 바위 이름을 ‘심상태 바위’라고 한다. 그 심종태라는 사람의 바위는 전설이,

심종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신喪身으로 있을 때 일 년이 다 되어 가니까, 아버지

234. ‘심종태 바위’가 있다는 말이다.

소상小喪 지낼 걱정이 돼서 송아지를 한 마리 구해가지고 한참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둑이 와서 그 송아지를 훔쳐 갔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잃어뿌니까 그 참 아버지 소상지낼 일이 막연해서 통곡을 하면서 혹시 도둑놈이 근처에나 없나 하고 찾아다니니까, 마침 그 바위 밑에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이미 벌써 잡아서 먹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깐 그 도둑들이 그 송아지 땃가 이상으로, 참 그 효성에 감복해가지고 변상을 해 주고 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내려오면서도 거기를 심종태 방우라 이렇게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배내 심沈종태 바위

상북면 배내上北面 製川에는 심沈종태바위라 하는 큰 바위가 하나 있다. 천황산 높은 봉우리가 동쪽으로 늘어진 곳에 이 바위가 있다. 바위의 아래에는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굴이 하나 크게 나있어 이 굴에는 예로부터 도적들이 숨는 곳이기도 하였다.

옛날 효성이 지극한 심沈종태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모의 제사 때에 제수로 쓰려고 비리 묵은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길렀다. 부모의 제수로 쓸려는 송아지고 보니 더 알뜰히 길렀다. 이렇게 기르다가 보니 이제는 살도 찌고 토폭토폭하여 어느덧 중송아지로 컸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나니 마당에 있어야 할 송아지가 없어졌다. 놀란 그는 앞이 캄캄하여졌다. 제사날은 다가오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지낼까하니 기가 막혔다.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망극한 은혜를 잊은 탓으로 하늘이 내리신 벌인가 보다 하고 뉘우쳐보기도 하였다. 행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송아지가 이끼리를 풀어 달아났을까? 범이 물어갔을까? 그렇다면 뼈라도 어디 있을 테지? 도둑이 몰고 갔을까?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리에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큰 바위굴 앞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굴에서 일단의 도둑을 만났다.

도둑이 심종태에게 뭇 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허둥지둥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는 겁에 질려 떨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둑들은 심종태의 효성에는 무심할 수가 없었다.

천대 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30량兩을 돌려주며 사라져버렸다. 뒷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심沈종태바위라 불렀다.

지극한 효성에는 밤이슬 맞고 다니는 도둑들도 감복하고만 이야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유헌, 남구, 1984]

[이유헌,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헌산지嶺山誌」,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下北面誌』, 「헌산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심종태 바위와 의적義賊

울주군 상북면 이천 리의 천황산 기슭에는 심종태 바위라고 불리우는 바위 하나가 있다. 이 바위 아래에는 수십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석실이 있다.

옛날에 효성이 지극했던 심종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심종태는 부모의 제사에 쓰려고 송아지 한 마리를 길렀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랐는데 하룻밤에 그만 도적이 들어 송아지를 몰고 가버리지를 앓았겠는가. 심종태는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죽을 끓여 먹일 양으로 외양간에 나가 보았더니 아뿔사! 그만 송아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었던 말인가 하고 사방을 찾아 헤맸으나 허사였다. 심종태는 도적이 몰고 간 줄은 차마 모르고 송아지가 제 밭로 나간 줄로만 알았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헤매다가 이 바위 있는 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바위굴에서 도적들이 썩 나서는 게 아닌가.

“이봐 우리가 누군지 알지?”하고 도적의 두목이 소리를 질렀다.

심종태는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기는커녕 도적 떼를 만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부들부들 떨리기만 한다.

“예! 예! 전 잘 모르겠는답니다”

“임마! 우리는 이 천황산을 거점으로 하여 밀양, 동래, 양산, 언양 할 것 없이 주름잡고 다니는 밤손님들이야. 알겠어?”

심종태의 등골에서 식은땀이 주루룩 흐르고 정신이 아찔해 졌다. ‘아쿠야, 이젠 꿈쩍없이 죽었구나. 천지신명이시여 살려 주소서’하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너 여길 뿔하러 다니느냐? 양?”하고 소리를 딱 질렀다.

“예예 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요 아랫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이옵니다만, 부모님의 제사에 쓰려고 송아지를 한 마리 길렀더니 간밤에 아, 그놈의 송아지가 그만”

“그놈의 송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디론가 나가지를 앓았겠습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송아지를 찾아 해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옵니다요 예. 그밖에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요.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 줍쇼 예! 이렇게 빙니다요. 예!”하고 심종태는 꿇어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애원을 했다.

“헛헛헛!, 그래? 너 그러고 보니 효성이 지극하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송아지를 잡아먹었지 않느냐”

“넷? 송아지를 잡아먹었다고요? 아이구머니나. 이제 우리 부모님 제사엔 뭘 얹어 놓고 지내노. 아이구 망했구나”하고 안절부절 하니

“자자 가만있어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자 옛다 이거 송아지 두 마리는 넉넉히 살게다. 우리가 아무리 밤 손님이기로소니 어찌 너 같은 효자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나. 자. 어서 이걸 받아라.”하고 도적의 두목은 금 삼십량을 심종태에게 주더라는 것이다.

“아니, 정말 주시는 겁니까요? 이 많은 돈을요?”하고 심종태는 도적이 주는 삼십량을 받아 왔다.

송아지 두 마리를 사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부모님의 제사에 쓰고 한 마리는 길렀는데 이 송아지를 길러서 나중에는 수십 마리로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다니 심종태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 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옛날 중국의 출천대효出天大孝는 왕상王祥이요, 조선의 통천지효자通天之孝子는 송도宋滔라 했거니와 심종태의 효성도 이에 못지않으니 도적떼들인들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자고로 효도어인 백행원孝道於人 百行源이라 했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이 인생의 근원이오, 복받는 길이니 우리 모두 조상을 섬기고 효도해야 하리라.

『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신불산의 산신령

신불산에는 산신령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상북면 이천리(배내골)사람들은 신불산 주변의 산을 넘어 언양이나 삼남으로 오곤 했다. 하루는 배내골에 사는 한 촌부가 언양장에서 소를 팔고 밤이 이슬할 무렵 이웃에 사는 친구와 함께 신불산 고개를 넘게 되었다.

촌부가 신불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걸음이 빠른 그 친구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수염이 하얗게 늘어뜨린 늙은이가 나타나

“지금부터 내가 길을 인도 할테니 나를 따라 오시오” 하는 것이었다.

촌부는 영문을 모르고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늙은이를 따라 산중턱쯤에 이르렀다. 늙은이는 다시

“여보 젊은이 길 위로 올라서시오”하기에 촌부는 시키는 대로 길 위로 올라섰다. 그때 갑자기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 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촌부는 식은땀을 닦으며 그제서야 길 위로 올라서게 한 까닭을 늙은이에게 물었다. 이때 늙은이는

“산짐승이 밤중에 산을 내려 갈 때는 항상 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걸으니 사람은 길 위로 올라서야 눈에 띄지 않네.”라고 말하며 계속 걸었다.

촌부도 늙은이를 따라 건다보니 고갯마루에 서게 되었다. 한편 걸음이 빠른 이웃의 친구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올 때가 되었는데’하면서 기다리다 못해 먼저 내려가고 말았다.

촌부가 고개를 내려가려고 할 때 늙은이는 또 다시

“젊은이 길 아래로 내려서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또 곡절을 물으니

“사람이 밤길을 걸을 때는 항상 길 위쪽을 살피며 내려가야 하는 법이오”하는 것이었다.

촌부는 이때도 필시 늙은이가 자기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길을 걸었다.

어느덧 마을이 가까워지는 곳에 이르렀을 때 늙은이 말이

“고개를 오를 때 지나간 그 호랑이가 먼저 내려간 젊은이의 친구를 잡아먹었을 것ियो.”
하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촌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돌아서니 늙은이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촌부는 그때서야 산신령이 자기를 구해준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동네가 발각 뒤집혔다. 어제 저녁 같이 오던 이웃 친구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이였다.

[『상북면지』上北面誌, 『삼남지』三南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길천리吉川里 소목골

1.

길천吉川²³⁵이라는 골이 옛날 거지화촌居知火村의 만호가 살던 곳이라고 해서 거기 아직
동명이 지화라는 동명이 남아 있고, 지금은 공업단지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골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우곡牛谷²³⁶이라는 골이 있어요. 산골이 있어요. 거
기 만당이라는 골에서 불과 한 1킬로 남짓한 골에 우곡이라는 골이 있는데, 소 우짜牛字
골 곡짜谷字가 되겠습니다.

왜 우곡이라고 하는가 하며는 그 당시에 제가諸哥라는 성을 가진 고관 한 분이 살고 있

235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236 우리말 이름으로는 ‘소목골’이라고 한다.

었는데, 그 사람이 불칙한 생각으로서 홀로 사는 며느리에게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할 때,

“저 골짜기에 들어가서 엎드려가 기면서 소 울음을 세 번하고 돌아 오며는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니가 거기에서 개준의²³⁷ 그런 생각은 없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거계 세 번 소 울음을 하고서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아! 그 자결로 하고 죽었더라고 합니다.²³⁸

그런데, 과연 거기에 그러한 고관들이 살았느냐고 하며는 아무런 문헌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논가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전해내려 오는 이름이 제정새미다. 제정우물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2.²⁴⁰

길천 후리吉川後里에 신라 때 제정승諸政承이 살고 있었다. 제정승에게는 혼기를 놓친 과년한 딸이 있었다.

하루는 제정승이 그만 딸에게 뒤흔다. 이때 딸은 소장삼을 덮어쓰고 뒷골에 가서 소울음을 세 번하고 온 뒤에는 뜻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정승이 소 짓을 하고 돌아와 보니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제정승이 살던 집은 못이 되어 파두못波頭堤이 그것이며 바들에는 제정승의 대문이 있었다는 대문달이와 그의 우물이었다는 제정새미가 지금도 있다.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남면, 1998]

[『상북면지上面誌』, 「헌산지」,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237. 개정改正의 뜻인 듯

238. 그래서 그 곳 지명이 ‘소목골(牛谷)’이 되었다는 말을 생략했다.

239. ‘제정새미’이란 제정승의 샘이란 뜻이라고 한다.

240. 이갑중李甲鍾 · 류대선柳大善 담談

소목골

옛날에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후리부락蔚州郡 上北面 吉川里 後里部落에는 마치 꽃송이처럼 아름다운 절세미인이 청상과부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한마을에 사는 음흉한 사나이 하나가 있어 늘 눈독을 드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 미녀는 마을 뒷산 기슭의 텃밭으로 올라가 김을 매고 있었다. 이때 이 음흉한 사나이가 살금살금 뒤를 따라 올라가서 소나무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맹수처럼 뛰쳐나가 과부를 덮쳤다.

느닷없이 당한 과부는 몸부림치며 소리치려 했으나 사나이의 억센 팔에 휘감겨 헤어날 못하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 칠 수도 없었다. 사나이는 여인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 겁탈 하려 하였다.

여인은 이때 한 가지 지략을 생각 해 냈다. 사나이에게 과부는 이렇게 말했다.

“나 순순히 응해 드릴 터이니 내 청 한 가지만 들어 주세요. 이렇게 불문의 정을 통할 때는 한 가지 비방이 있는데 이 비방을 행하고 정을 통하면 뒷탈이 없다고 합니다.”

“그 비방이 뭔데?”

“저 넘어 골짜기에 넘어가서 소울음 세 번만 울고 오면 내 쾌히 몸을 허락하리다.”하였다.

이 어리석은 남자는 그 말을 곧이듣고 산 넘으로 가서 “옴메-옴메-옴메-”하고 소울음 세 번을 울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는 미인 과부는 높은 나무가지에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죽어 있었다.

이 미인 청상과부는 불륜의 사나이들에게 엄중한 살신경계殺身警戒를 남긴 것이다.

이 같은 일이 있는 후로는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교훈삼아 윤리를 엄히 지키는데 힘썼고 비방의 기념으로 남기기 위하여 이 골짜기를 ‘소울골’이라 했는데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금은 ‘소목골’ 이라고 어휘가 변했다.

소목골의 정절貞節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뒷마을에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를 가리켜 소목골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신라때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마치 꽃송이와도 같이 절세미인의 청상과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젊은 과부를 넘보는 음흉한 사나이가 있어서 늘 그 미인의 동정을 살피면서 기회만 있으면 욕망을 채워 보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한번은 마침 그 미인이 뒷산 기슭의 밭으로 혼자 나가서 김을 매고 있었다. 사나이는 속으로 ‘옳지 됐구나. 기회가 오고 말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이 기회만은 놓치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하면서 몰래 숨어 접근을 했다. 밭 가까이에 있는 숲속에 숨어 앉아 한숨을 돌리고 나니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솟구치는 욕망을 가눌 길이 없었다. 이윽고 사나이는 숲속을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마음 놓고 김을 매고 있던 미인을 힘껏 끌어안았다. 사나이의 숨결은 가쁘다. 예기치 않았던 급변에 놀란 미인은 소리치려 하였다.

이때 사나이의 한 손이 미인의 입을 덮치고 틀어막으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을 했다. 미인은 생각했다. 여기서 소리를 친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사나이의 날뛰는 품을 봐서 영락없이 당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나이는 여인을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사나이의 손은 전신을 더듬기 시작한다. 입술도 이미 빼앗겼고 유방에도 손이 들어오고 말았다. 사태는 급했다. 이때 미인은 한 가지 꾀가 생각났다.

“서방님 저 말 좀 들어보소!..”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 봐라”

“옛 말에 들으니 청상과부와 정을 통할 때는 소 울음을 세 번 울어야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서방님은 어찌 그것도 모르셨나요?”하고 말했다.

사나이는 미인의 말을 들으니 이미 미인은 자기의 뜻을 받아주기로 결심이 된 듯하

고 또 이런 일을 세상이 알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래? 그렇다면 그야 어렵지 않지. 그럼 내 소 울음을 세 번 울까?”하고 말했다.

“아니어요 소 울음을 울 때는 서로 보이지 않는 등 너머에서 울어야 한대요. 그러니 소첩이 여기 이대로 기다리고 있겠사오니 서방님께서 저쪽 저 등 너머에 가서 크게 소 울음 세 번만 울고 오세요..”하고 꼬셨다.

사나이는 미인의 말대로 등 너머로 갔다. 사나이가 등 너머로 간 다음에 미인은 생각했다. ‘여기서 도망을 해 버릴까? 도망을 간다 한들 어디로 갈 것이냐? 고작 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 사나이가 이미 저렇게 노리고 있으니 오늘 일시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언제 당해도 당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사나이는 물론 동네 매를 맞아 물고가 날 것이지만 나도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아 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미 입술을 빼앗겼고, 사나이의 손으로 전신을 주물리고 말았으니 이미 몸은 버릴대로 버려진 몸,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랴.’

미인은 입술을 깨물고 치마끈을 풀어 목을 매고 나무 가지에 늘어져 매달리고 말았다. 그것도 모르는 사나이는 간절했던 욕망을 채우게 되었다는 희열을 감추지 못한 채 쾌재를 부르면서 등 너머로 넘어가 두 손을 땅에 집고

“우매. 우매, 우매.”하고 소 울음 세 번을 크게 울고는 미인이 있는 숲속으로 뛰어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미인이 보이질 않는다. 사나이는 이상하게 여기고 두리번 거렸다. 그랬더니 가까운 나무 가지에 목을 메고 늘어져 있질 않는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얼른 뛰어 가서 끈을 놓고 미인을 안아 내렸으나 이미 숨지고 말았다. 사나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다. ‘부질없는 생각 때문에 한 여인의 목숨을 끊고 말았구나.’하고 크게 뉘우치면서 여인의 시신을 묻어 주었다. 그 여인이 사나이에게 소 울음을 우라고 한 것은 너는 소와 같은 인간이라고 증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사나이를 불러 몰매를 쳐서 쫓아 버렸다. 후세들에게 경계하는 뜻으로 이골짜기를 소목골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면

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그 시대의 여인의 정절貞節관념이 어떠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소뭇골 전설(1)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소뭇골이라 커는 산이 있는데, 옛날 신라시대 제정승이라 커는 정승이 살았는데, 제정승의 딸이 인물이 나기로 참 만고절색으로 났는데, 그래 그 집구석이 망할라고 하니 그 애비라 커는 사람이 고약한 맘이(마음이) 들어가 딸로한테 달라 들어노이, 딸이 말하기로,

“그래 말고 아버지 저 소뭇골 저기 올라가, 말무재 칸데 거(거기) 가서 풀로 뜯어 묵고 시 분(세 번)만 소 울음을 울고 오며는 내가 말로 듣겠습니더.”이래.

그 제정승이 인자 소뭇골 말무재라 칸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풀로 뜯어 묵고 시 번 소 울음을 울고 집에 내려오이, 그 딸은 죽어뿌렸어. 그래 그 집구석이 망해뻘어.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강경조, 상북면, 1985]

소뭇골 전설(2)

산 이름이 소뭇골이라는 데가 있어.

그 산에 딸래미(딸)을 뗏고(데리고) 아바씨가 나물을 뜯어로 갔거든. 나물을 뜯어로 갔는데, 딸래미는 앞에 나물을 뜯어 올라가고 아바씨는 뒤에 올라가는데, 다 큰 딸로 보이까네, 마음이 변해봤어. 그래가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딸은 나물을 뜯어로 자꾸 산에 올라가는데, 아바씨는 뒤에 올라가면서 그마. 소행사가 나왔어.

그래 올라가면서 ‘옴메’켰어. ‘옴메’카면서 울었어.

그 너머 가가지고 딸한테 행패를 냈어. 행패를 내니, 그 소 행사한 거거(거기)는 소뭇골이고, 그 행패 낸 거거는 싹싹골이고 이래.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김정숙, 상북면, 1985]

살구정 돛대

살구정은 덕현리에 속한 행정리行政里의 하나로 행정촌亭이라 불리우고 있다.

살구정은 옛날 한량들이 살터(살티)에서 시살등을 향하여 활을 쏘며 훈련을 하고 쉬어 가는 곳에 살구나무가 많아 정자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살구정이라 부른 것이라 한다.

행정마을 사람들은 살구정 마을 앞 동남 쪽 들판 지명을 ‘꼬두박샘’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마을에서는 이 꼬두박샘 위쪽 마을 회관 남쪽 50m지점에 전주와 같은 긴 장대를 세워 두고 ‘돛대’라고 부르며 매년 보름전날 저녁에 당제와 함께 돛대에도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고 있다.

오랜 옛날 이 곳에 꼬두박샘이라는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마을사람들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마을에 화적떼가 침입하여 마을을 불 지르고 재물을 약탈해 가고 심지어 돌림병이 돌아 많은 병자가 발생하는 등의 재난이 계속되던 중 어떤 도인이 마을에 도착하여 지형을 살펴보고 살구정 마을은 큰 배(선박)의 중심부로 소호고개는 배의 선수이고, 배내고개는 배의 후미로 배 중심부에 꼬두박샘을 뚫었기 때문에 재난이 계속되므로 샘을 메우고, 그 자리에 돛대를 세워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고, 이 사실을 후세에 전하면 재난이 없어진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샘을 메우고 돛대를 세운 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 한다.

그때 이후로 살구정 마을은 바가지로 퍼서 먹는 샘으로 식수를 하였으며 70년대 간이 상수도가 개설되기 전에도 집안에 두레박으로 퍼서 먹는 우물이 거의 없었다.

혹 한두 집 우물이 있는 집도 배 밑창을 뚫었기 때문에 재난이 계속되고 집안이 망하여 그 다음 사람은 우물을 메우고 다시 우물을 파는 집이 없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상북면지(上北面誌)』, 임용주, 상북면,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못안못의 잉어

상북면 지내리 남단에는 큰 못이 있다. 이른바 ‘못안못’ 또는 ‘못안큰못’라 불리우는 저수지다. 이 못이 있어 예로부터 그 못안쪽의 마을이름조차 ‘못안’이라 하고 이를 한문으로 지내池內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인 예종 원년(1469)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언양현조에 나오는 초산제 草山堤란 못이 곧 이 못이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못은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논 100마지기의 면적으로 축조한 것인데, 못둑에서 안쪽으로 바라보면 수초가 뒤덮인 못 끝이 아득하다. 이 못의 잉어는 예로부터 유명했다.

사철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십여 년 만에 한번 씩 가뭄이 들면 수굴水窟을 뺨고 주야로 며칠간 고기를 잡는데 특히 밤에 횃불을 들고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며 잡는 <못안 못 잉어잡이>는 유명하며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밤새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다 새벽녘에 물가 개펄을 잠자코 바라보노라면 앙금이 사르르 가라앉은 물가에 쫓겨나와 한가로이 노니는 대어를 발견하게 된다.

어린애 키보다 더 큰 누런 황금빛 잉어다. 채이箕(키)만한 잉어 또는 쫓단 같은 잉어 등으로 표현된다. 이쯤이면 허연 모시적삼 차림으로 못둑에서 유유자적하게 장기 바둑을 두던 부잣집 노인네들이 군침을 흘리며 흥정을 해온다. 또 오래된 궁장어(민물뱀장어)는 등어리가 누르며 아가미에 귀가(뿔이)돋혔다 하여 찌뽕(터줏대감)이라고 잡아먹는 것을 금기시 했다.

바로 앞에는 복사꽃桃花전설이 깃던 화장산花藏山이 있고, 그 정상에는 조그마한 천지 못이 있는데 중국 태고적 은사隱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요임금이 그에게 천하를 맡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귀를 씻었다는 전설과 관련하여 이 못을 세이제洗耳堤라 하며 또한 이 산을 소부당산巢父堂山이라 별칭하기도 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못의 찌뽕 잉어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워낙 큰못이라

수십 년 만에 드물게 마르는 가뭄뿐만 아니라 5리나 떨어진 정상의 천지못과 굴이 뚫려 그곳으로 내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보름은 큰못에, 나머지 보름쯤은 천지못에 가 숨어 산다는 신비로운 설화가 있다.

이 어중왕魚中王인 찌꺼임 잉어를 잡으면 그 해 농사는 대풍을 이루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운수대통의 행운도래幸運到來 속설俗說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위낙 신성시되는 날 개 돛친 이 괴어怪魚를 잡으면 집안에 불의의 액운이 미친다는 액운비래설厄運飛來說에 원인 모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고로古老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

“야들아! 욕심이 많으면 실물을 감한데이, 그냥 보내줘라. 조금만 작았으면……”하며 못내 아쉬움을 남긴 채 아깝지만 그냥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록 어대魚代는 치렀지만 천재일우千載一遇로 간신히 건져낸 젊은이들의 항변 속에 온 못이 떠들썩한 가운데 아쉬움의 곰방대만 연신 빨아대던 그 노인의 세월의 나이테와 여유자적인 살생의 예지叡智는 지금도 이 지방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언양읍지彦陽邑誌』, 최흥락, 상북면,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상북면지上下面誌』, 최흥락, 상북면,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고현산 우레들

상북면 고현산 북쪽 산기슭 중앙에는 ‘우뢰들’이라 불리우는 넓은 돌들궁硿田이 있다. ‘돌등궁’이란 큰 바위덩이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인해 깨어져서 산의 계곡을 덮어 있

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돌밭을 말한다.

덕현리 삼재마을 광바우廣岩를 옆으로 휘돌아 경주 산내山內로 넘어가는 외항재瓦項峴에 오르면 바로 앞 산(고현산)에 정면으로 이 ‘우뢰들’이 눈앞에 다가온다.

학교 운동장만한 큰 돌등궁이 가운데 능선을 두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쪽의 것이 더 넓다. 이 돌들궁 밑으로 사철 물이 흘러 '우르릉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우레소리 같다 하여 예로부터 ‘우뢰들’이라 하였다.

산세가 아주 가파르고 험하며 여느 돌들궁보다는 특이하게 이곳에는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지死地이다.

가파른데다 얼기설기 어지러이 쌓여 있는 이 돌밭石田에는 한 발짝만 내디뎌도 와르르 무너지므로 산짐승마저 피해간다는 곳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라 지금은 주변의 수목이 점차 번성하여 그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우뢰들 가운데는 큰 돌샘石井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산칼치가 살고 있다고 한다.

어른 서너 발쯤 되는 긴 산칼치는 원래 바다에 사는데 가끔 육지에 올라올 때는 시퍼런 빛을 내며 이곳에 들어와 서식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바다로 돌아가는 등 수륙水陸 양서동물兩棲動物이라 한다. 그놈이 지나가면 부근의 초목은 시들고 근동近洞에는 그 피해로 그 해 농사도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하러간 머슴이나, 소 먹이러 간 아이들, 봄철에 나물 캐는 아낙네들이 잘 모르고 이곳에 근접하면 멀리서 마을 노인네들이 못 들어가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러한 ‘우뢰들’의 전설은 반대편인 동남쪽(언양읍 다개리쪽) 정상부근에 있는 ‘용새미’와 함께 고현산의 신비로운 2대 전설로 남아 있다.

[『언양읍지彦陽邑誌』, 김문태, 상북면,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태화사지와 자장율사²⁴¹

울산시 태화동 일대에는 신라시대에 태화사太和寺라는 대 가람이 있었던 자리다.

자장율사는 신라 제38대 진덕여왕 때의 중이다. 귀족인 소관蘇判 김무림金茂林의 아들로 태어난 김선종金善宗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슴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 그러자 마침내 석가모니의 탄신일인 4월 초파일에 그를 낳았다. 일찌기 양친을 여의고 속세가 싫어져서 처자를 버리고 불가에 귀의하여 원녕사元寧寺를 세워 홀로 수도에 정념하였다.

그 당시 나라에서는 대보臺輔라는 높은 벼슬자리가 비어서 임금은 그를 여러 번 불러 벼슬자리에 오르도록 분부했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왕이 크게 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고 수도에만 열중한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慈藏律師였다. 왕은 하는 수없이 자장의 뜻을 굽힐 수 없음을 짐작하고 불가에 귀의함을 허락하고 말았다.

자장은 그때부터 불교 중흥에 힘을 기우려 여기 저기 절간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한 사찰이 울주군 상북면 등덕리의 서쪽에 높이 솟은 신불산 기슭에다 간월사를 세웠다.

대가람으로서 웅장한 대웅전에 모셨던 석조여래좌상은 보물 제370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전한다. 또한 2기의 탑은 비록 도괴가 되었고 파손은 되었으나 기단석 탑신석 옥개석 등의 정교한 조각 수법은 현대 미술 조각도 능가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하다.

사찰은 역대의 병란으로 파괴되고 말았으나 축대며 주초석의 규모로 보아서 대가람이었음을 력력히 증명해 주고 있다.

자장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5년(서기 636년)에 그의 제자 실實 등 10여 명을 거느리고 당나라에 들어가 8년간이나 불경을 연구한 끝에 장경藏經 1부와 불법에 필요한 여러

241. 이 글의 주된 무대는 울산 중구이지만, 자장이 간월사를 지은 인연을 담고 있으므로 수록하였다.

가지를 입수하고 돌아와서 신라 불교 중흥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자장의 일행이 당나라 오대五臺를 떠나 태화지太和池 가에 이르니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백립眞身舍利 百粒과 불아佛牙 및 홍가사를 주면서 해동 신라국으로 돌아가거든 불교를 크게 중흥시키라고 당부하였다. 자장은 이 같은 당부를 듣고 떠나려는데 태화지에 살고 있는 용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해동신라국에는 나의 작은 아들이 살고 있으니 내 아들의 식복食福을 빌어 주는 절간을 세워 달라고 간청하였다.

자장은 문수보살과 태화지 용의 청을 모두 수락하고 신라로 돌아왔다. 자장은 신라로 돌아 온 후에 문수보살과 태화지 용의 간청대로 여기저기에 절간을 세워 신라 불교를 크게 중흥시켰다.

양산 통도사를 지었고, 황룡사 탑을 세웠고 울산 태화사를 지었다. 문수보살이 준 석가모니 진신사리 백알을 3등분해서 황룡사 탑과 울산 태화사 부도와 양산 통도사 계단戒壇에 각각 나누어 봉안하였다.

자장율사가 세운 울산 태화사는 양산 통도사에 못지않은 대가람으로 신라 10대사찰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당나라 태화지의 이름을 따서 태화사라고 명명하고 태화사 앞으로 흐르는 강을 태화강이라 불렀다.

그리고 태화지 용의 작은 아들 용이 편안하게 머물게 한곳이 지금의 대화교 위쪽의 속칭 용궁소를 황룡연黃龍淵이라 명명하였다. 지금도 태화동 일대의 밭이나 집터에서는 신라시대의 토기편과 기와조각들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부도들이 세워졌던 골짜기를 부도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같이 유서 깊고 유명하던 태화사의 대가람은 역대의 병란으로 파괴되고 회진²⁴²되어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그러나 태화사의 건물들이 모두 파괴 회진되고 난 뒤에 지금의 로얄호텔이 세워진 자리에는 태화사의 범종을 달기 위하여 세워졌던 남루 범종각南樓 梵鍾閣만이 강벼랑 위에

242. 재와 먼지灰塵

우뚝 솟아남아 있었다.

고려 제6대 성종대왕은 영남지방을 두루 순행한 후에 이곳 울산에 당도하여 이 누각에 올라가보니 강 벼랑 위에 우뚝 솟은 누각경관이 과연 장관이요, 절경이라고 감탄했다. 벼랑 아래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태화강에는 고기 떼들이 뛰놀고 강 건너 장춘오藏春塢에는 우거진 해죽림海竹林 사이에 산다山茶를 비롯한 오색찬란한 꽃들이 피어있고 동남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들판 너머 울산만이 안중에 들어오는데 동해의 창과가 밀고 온 잔잔한 물결위에는 한가로이 갈매기 떼가 날고 있었으니 천하 제1경이라고 찬사를 남겼다.

저절로 시상이 떠오르고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지라 왕은 산해진미로 차린 술상을 대하여 신하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는데 악공들의 풍악소리에 관기들의 노래와 춤이 더한층 흥을 도도하게하고 말았으니 왕과 선하들은 아름다운 경관에 취하고 산해진미에 취하고 천일주 연엽주에 취하고 흥겨운 풍악에 취하고 선녀 같은 관기들의 노래와 춤에 취하여 한바탕 더덩실 춤을 추며 즐겼다.

이때 마침 성종대왕의 행림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운집해온 향민들은 조심스럽게 누각의 아래쪽에 부복하고 하해 같으신 성은에 감사하고 왕의 만수무강을 축수하였다.

그런데 누각 아래로 흐르는 태화강물에서 큰 해어海魚 한 마리가 난데없이 화닥닥 치솟아 오르더니 물가의 백사장에 툭 떨어져서 굼틀거리지를 앓는가. 이를 본 한 향민은 얼른 뛰어가서 이 고기를 붙들어 부둥켜안았다.

대왕마마가 납시었다고 동해용왕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입을 모아 기뻐하면서 이 고기를 성종대왕에게 진상하였다. 왕도 크게 기뻐하면서 이 고기를 가납하셨다. 즐거운 한때를 이 누각에서 보낸 성종대왕 일행은 곧 고려 서울인 송도(개성)로 환궁하였다.

울산 태화강에서 생포한 고기도 송도로 운반되어 왕과 선하들이 귀한 선물이라면서 나눠 먹은 것이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날로부터 성종대왕은 병석에 눕드니 영영 회복하지 못한 채로 승하하시고 말았다.

성종대왕이 이 같이 하여 승하하자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고기는 선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 동해용왕이 대왕을 환영하는 특사로 보낸 것을 속세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잡아먹었으니 동해용왕의 노여움을 사서 왕이 승하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고기를 도로 강물에 넣어 살려 보냈으면 성종대왕이 승하하지 안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랬으면 그 반대로 나라에 큰 경사가 일어나게 해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성종대왕에 얽힌 이 같은 일화를 지닌 이 누각은 그 후 이 고을을 다스리기 위하여 부임해 온 역대 수령 방백들도 이 누각의 아름다운 경관에 놀라고는 수축하고 단장을 하니 울산고을을 찾아드는 귀빈들의 영빈관으로서 안성 맞고 없어서는 안 될 공청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 후 누각은 태화루太和樓라고 명명되어 전국 경향각지의 시인묵객들이 태화루를 찾아 주옥같은 시영詩詠을 남겼으며, 이조초기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술하는 등 우리나라 근세사 학계의 거성이던 사가 서거정四佳 徐居正은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도 좋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누각은 울산의 태화루며, 태화루는 영남의 제1경이라고 극찬하고 친필로 태화루 기문을 짓고 태화루 현판을 써서 걸었다.

이렇듯 훌륭했던 태화루가 이조 제14대 선조25년 4월 13일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하여금 그만 불타고 파괴되었다. 태화루가 한창 불타고 있을 때 이 고장의 한 향로鄕老가 와 보니 그토록 훌륭했던 태화루가 왜병들의 방화로 불타고 있음을 보고 애석해 통곡하고 왜국의 야수적 만행을 통분하면서 땅에 떨어진 태화루 현판을 건우어 집으로 돌아왔다. 향로는 현판을 곱게 닦아서 정성껏 포장하여 장속에 소중히 간직하고는 자손들에게 현판의 귀중성을 설명했다.

그 후 가문의 후손들은 마치 가보처럼 현판을 소중히 소장하면서 세월은 흘렀다.

그 후 이조 제18대 현종8년(서기1667년) 불타버린 객사客舍 학성관鶴城館을 부사 유지립府使 柳志立이 중건하였고 이조 제21대 영조47년(서기1771)에 다시 불탄 것을 영조51년(서기1775년) 부사 윤득림府使 尹得霖이 중건했는데 이조 제23대 순조31년(서기1831년)에 또 화재가 일어나 소실된 것을 그해 여름에 부사 민치문府使 閔致文이 또 중창을 했다. 정청육간, 동헌 육간, 서헌 육간이었다.

그 위치는 부사청(울주군청, 경찰서 자리)의 동쪽인 지금의 울산국민학교의 자리다. 이 학성관의 남쪽 문루를 웅장하게 세웠는데 이 문루에 누명을 지어 현판을 올리려고 의

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태화루 현판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 문루에 새로운 누명을 지어 현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거두어 둔 태화루 현판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 집에 소장되어 있으니 그 현판을 이 문루에 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으고 그 현판을 가져다가 이 문루에 걸었다.

이때부터 학성관 남문루는 태화루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왜정 36년의 악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일본은 합방 후 우리나라 도처에 학교를 세웠다. 이때 울산보통학교를 학성관으로 정하고 여기서 교육을 실시했다.

그 후 1934년 8월 18일자로 학성관 건물이 헐리고 현대식 학교 건물로 개축되었다. 학교 명칭도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교로 되었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학교 건물이 현대식으로 개축되고 다시 운동장을 확장하게 되었을 때 남문루인 태화루 아닌 태화루가 헐리게 되었다. 이때 헐린 이 문루의 재목은 학성이씨 월진파의 제실 개축용으로 쓰이게 되어 지금 남산 입구에 있는 이휴정二休亭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때 사가 서거정의 친필인 태화루 현판은 이휴정으로 옮겨져서 소중하게 소장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공립보통학교를 다닌 이 고장 사람들은 태화루라고 쓰인 현판 걸린 문루 아래로 책보따리를 메고 다녔으니 태화루는 울산국민학교의 정문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본시의 태화루는 태화사의 남쪽 종루각을 보수 단장하여 태화루로 명명한 것이며 그 위치는 황룡연 북쪽 돌벼랑 위인 지금의 로얄호텔이 서있는 자리에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태화루의 현판은 지금으로부터 약5백 년 전의 것이며, 사가 서거정의 친필로서 울산의 문화재인 것이다.

그리고 부도골에서 1962년에 출토된 석종형의 12지간지상 석조부도는 보물 제441호로 지정되어 학성공원 정상에 보존되어있다. 장방형 하대석에는 안상을 음각하였고, 탑신의 아래 직경은 90센티, 높이110센티인데 동체 주위에는 인신수면人身獸面의 나체12간지가 양각되어 있다. 상부에는 사리를 봉안한 작은 합실이 파여져 있는 것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갈미봉 유래

옛날에 고래 가지고 해일로 하는데, 고게서러(거기에) 사람이 한 분이 피적을 했는 기라. 갈무봉에 고게. 또옥 갈무(갈모). 하나 딱 씩듯이 고래 딱 남았는데. 천지가 개벽이 돼가 강이 마 물이 마 넘어서 고오만(그 곳만) 딱...²⁴³ 그래서 그 사람의 종자가 퍼져가지고 이래 사람이 이 만치 불었답니더. 요요 있심더. 길천²⁴⁴ 여기서 보면 똑 갈무꼭지만 쿠로...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243. 갈모처럼 남았다는 말이다.

244.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삼 동 면 편

축선사 鷲仙寺

축선사는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이 세웠던 절로써 삼남면 하잠리三南面 荷岑里에 있었다.

신라 혜공왕惠恭王 때인 대력大歷 14년(778) 4월에 김유신공金庾信公의 무덤에서 홀연히 선풍이 일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준마를 탔는데 장군의 모습과 같았고, 또한 의갑衣甲과 기장器仗을 차린 40인 가량이 장군의 뒤를 따라 죽현릉竹現陵(미추왕릉)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더니 능속에서 마치 진동하고 우는 소리가 나는 듯하고 혹은 호소하는 듯한 소리도 들리었다. 그 말에

“신이 평생에 나라를 도와 환난을 구하고 국내를 통일하는 공이 있었고, 지금 혼백이 되

어도 나라를 누르고 지켜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변함이 없는데, 지난 경술년(혜공왕 6년)에 신의 자손이 죄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군신이 모두 나의 공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신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는 근로하지 않겠으니 임금께서는 허락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되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수호치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은 다시 종전과 같이 노력하라.” 하고 세 번이나 청해도 다 듣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갔다.

혜공왕惠恭王이 듣고 놀라서 신하인 김경신金敬信을 김공 능에 보내어 사과하고, 공을 위하여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結을 축선사鷲仙寺에 내리어 명복을 빌게 하였으니, 이 절은 공이 평양토정平壤土定 뒤에 식복植福키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86]

[『울산의 전설과 민요』, 「삼국유사」, 울산문화원, 1996]

물막곡과 구늬소九藪淵

물막곡은 일명 물막곡勿幕谷이라 부르기도 하며, 둔기 마을에서 언양읍 장촌 마을로 가는 길목으로 임진란 당시 왜군과 싸우던 우리 장병들이 지금의 웅촌에서 후퇴하여 둔기 마을을 거쳐 언양현으로 가는 도중 물방골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고 장병들이 너무 지쳐 더 걸을 수 없었으므로 이 고개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인솔하는 장군의 귀에 하늘에서 “물막, 물막”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장군은 이상히 여겨 ‘군막軍

幕를 치지 말라'고 풀이하여 지친 장병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약 4km 떨어진 언양현에 가서 여장을 풀었는데, 그날 밤 왜군이 물방굴을 침입하였으나 장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 구늬소에 얹힌 이야기가 있다. 소沼에는 바위굴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굴 안에는 큰 이무기가 있어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을 해침으로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큰물이 질 때마다 길이 유실되어 산모퉁이를 지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람들은 이 이무기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당시 현령縣令인 모일성牟一成(숙종 을미 6월~병신 9월)에게 내었다.

현령은 총을 가진 군사들을 이끌고 이를 사살하러 갔는데 군사들이 감히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현령은 본래 지체肢體의 힘이 강하였으므로 굴 앞에까지 다가가서 총을 쏘아 이무기를 죽이고 드디어 그 폐단을 없게 되었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끌어내어 보니 머리는 구늬숲에서 꼬리는 구늬소까지 닿았다고 하였다. 이 전설은 이무기의 크기에 대해서만은 과장이 있는듯 하나 숙종 을미년(1715년)이란 시대의 명확성과 현감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으니 실화였음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수원 백씨水原白氏 문중

조일 마을은 조일리의 중심된 마을로서 마을의 지형을 살펴보면 정족산鼎足山에서 북편으로 뻗어 내린 조그마한 능선의 마지막 고개인 목제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좌우로 타원형의 하천이 있으며 한쪽은 방기천이고 한쪽은 상금수常錦水라 이 땅의 생김이 배의 모양과 흡사하게 생겼으며, 마을의 형성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불교佛教를 조정이나 사회에서 천대했던 조선시대朝鮮時代に 수원 백씨水原白氏의 집성촌이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 수원 백씨水原白氏는 양반의 집안으로 재력 및 권세가 당당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였으나 세도가 지나쳐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턱에 수염이 돌아나는 우환이 있었으나, 소문이 두려워 극비에 붙이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평소 수원 백씨로부터 설움을 받은 한 도사가 과객으로 가 장하여 마을의 촌장에게

“마을의 풍수지리를 보니 재력과 권세는 부럽지 않으나 우환이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촌장은 귀가 번쩍 띄어 과객에게 방비책을 물었다.

과객은

“우환을 쫓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상금수常錦水로 들어가는 목제(인제咽堤)의 산을 자르고, 마을에 우물이 없으므로 우물을 파서 생활용수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마을촌장은 권세와 부귀를 더욱 누리고 우환을 쫓아낸다고 함에 반가와 마을에 우물을 파고 목제의 산을 헐었으며, 그때 산허리를 자를 때 두 마리의 흰새가 울며 남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수원 백씨水原白氏는 운세가 기울어 망하게 되고 조일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영일 정씨迎日鄭氏와 영산 신씨靈山辛氏가 들어와 거주하게 되어 지금에 이른다는 야화가 있다.

지금의 지형을 살펴보면 땅의 모양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과객의 처방을 풀이하면 목제에 매어 둔 배를 바다로 보내고, 배 바닥에 우물을 파서 구멍이 나게 하여 배가 침몰하게 하도록 한 이야기이다.

조일 마을에 백白씨가 살았다는 근거를 찾아 수원 백씨水原白氏 대동보 서기1776년 병신丙申(조선 21대 영조52년)보를 보니, 그 당시 언양현의 남면南面에 보은동寶恩洞 조일

동早日洞 향림동香林洞 송면동松面洞등이 존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원 백씨水原白氏 현사장과縣師將派의 12세 백학상白鶴祥(묘 울산부 동면 연암동) 통정대부의 후손인 14세에서 19세까지의 묘소가 조일 마을 근교인 구일동 향림동에 있으며, 서기1966년도 수원 백씨水原白氏 현사장과縣師將派보 발행의 서문에 의하면 약200여 년 전에 울산의 조일에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다가 동서남북으로 분산되어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기 1930년경 혈족에 관심이 많은 친족이 가첩을 정리하여 혈족을 찾기 시작하여 서기 1966년에 파보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서기 1870년에서 서기 1894년도 발행한 호적단자에 의하면 19세에서 21세까지는 연양현 중북면 직동리에 기거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약3백 수십 년 전인 서기1630년대부터 조일에 기거하다가 서기 1800년대 초반에 연양 등지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변화하면서 서기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 부산과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암리 마을의 수구지守口地

암리岩里 마을 입구 아래쪽에는 학석바위鶴石岩가 있고, 그 학석바위 위에는 학의 벼슬처럼 생긴 작은 바위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동안 풍우風雨에 없어졌고 그 앞에는 맑은 냇물이 흐른다.

이곳을 이름하여 수구지守口地 또는 수호지守護地라 하며, 수구지는 냇물을 가로질러

큰 보淤를 막았고 붓둑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경관景觀이 수려했을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는 잔뿌리가 많아 토양土壤의 유실流失을 막고 비바람을 막는 방풍림防風林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의 재산과 정기를 보전하는 수호목守護木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거목巨木은 고사故死하고, 이 자리에는 지금 느티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어 구전口傳으로 전해오는 옛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게 한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어사 솔배기

조일 마을과 암리 마을 사이에 있는 산모퉁이로 조선시대 어사가 이곳을 지나 가다가 아래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아 쉬어 갔다고 한다.

어사가 쉬고 가면서 짚고 가던 소나무 지팡이를 꽂아 두었는데 그 소나무가 살아서 자랐다고 전해오며, 소나무가 서 있는 곳을 ‘어사솔배기’라 하고, 어사가 쉬어간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나무 다섯 그루를 그 자리에 더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길가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으니 그 구전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암리 마을의 말 바위馬岩

조상곡 인근에 말 모양의 바위가 있어 말 바위라 하는데, 이 바위에 대해서는 옛날 조일 마을 수원 백씨와 지랑 마을 영산 신씨가 말머리 쪽의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긴다하여 말 바위의 머리를 앞 다투어 자기 마을 쪽으로 보게 하였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으나 지금은 그 바위를 찾아볼 수 없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우렁소와 이심이

향림곡 계곡 내에서 제일 큰 웅덩이로 바위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과 물소리가 항상 우렁창다고 하며, 옛날에는 그 소沼의 깊이가 명주실 한 타래의 깊이였으며 또 한 그 소에 이심이(이무기)가 살고 있다하여 사람들이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그 이심의 크기가 둥근 명석 정도이고 보았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 우렁소도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옛 깊이를 간직하지 못하고 대부분 매워 졌으며 주위의 기암奇岩 절경絶景도 1980년대 중반에 경부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용의 골재로 채취되어 그 흔적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향림사香林寺

90여 년 전 조일 마을에 살고 있던 어느 농부가 농지 개간을 하다가 노란 금부처 한 개를 주위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동네 어귀 당수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부처를 보였다.

때마침 당수나무 그늘에 쉬고 있던 과객이 그 말을 듣고 그 부처는 집에 가져가면 큰 우환憂患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여럿이 앉아 노는 당수나무 밑에 부처를 놓아둔 채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부처 생각이 나서 당수나무 밑을 찾아갔더니 마을 사람들과 과객이 온데 간데 없었다.

그후 그는 금부처를 주위 횡재를 했다가 바보처럼 잃어 버렸다고 마을 사람들로 부터 놀림을 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1973년 새마을 사업 당시 농로 확장 공사 중 향림사香林寺라 새겨진 벼루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족산 아래 향림곡 골짜기 중간의 우막곡 입구에 절터 굴터기라 불리어 오는 넓게 폭파인 골짜기가 향림사의 절터로 추정되며 지금도 주위에 기왓장과 사기그릇 조각 등을 발견할 수 있고, 주위에 널려 있는 돌을 들어보면 그 밑에 흰 빈대가 살고 있는데, 빈대는 피를 먹지 않아도 천년을 산다하는 말로 보아 아마 향림사는 빈대의 서식으로 망하지 않았나 하고 이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말랑 마을 형성의 전설

지랑^{旨朗}마을은 원래 지금 마을이 있는 곳의 서쪽의 골짜기에 웅기종기 모여 살았으며 소년 죽음이 하도 많아 걱정을 하던 중, 어느 날 지나가는 도사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방비책^{防備策}을 물어보니 도사가 말하기를

“담뱃대에 담배 한 대를 넣고 불을 댕겨 담배를 피우며 마을 아래로 내려 가다가 담뱃불이 꺼지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 마을을 옮기면 모든 액운을 피할 수 있다”하여 지금의 마을 위치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처음 마을이 있었다는 골짜기 주위에는 사기그릇 및 웅기조각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어 옛이야기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으며, 앞에는 용마등^{龍馬嶺}이 솟아 있고 그 위에 투구등, 좌측에는 날카로운 칼등^{劍嶺} 등 마을의 형상이 ‘장군^{將軍} 태산혈^{胎産血}’이라 하여 옛부터 무관이 태어나는 곳이라 전해오며, 영산 신씨^{靈山辛氏}선조의 무과급제를 후세에 알림이라고 후손들은 말하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정족산의 붓골재

정족산鼎足山에는 붓골재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울산군이 웅촌면熊村面과 언양현의 삼동면三洞面사이에 물싸움이 잦은 곳이었다고 한다.

웅촌면 사람과 삼동면 사람 사이에 서로 자기면 쪽으로 물을 흐르게 하려는 물싸움이 있다. 웅촌熊村에서는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붓골재는 삼동면의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곳의 지형을 보면 붓골재는 웅촌면 쪽이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웅촌 사람들이 물싸움을 할 때 싸우다 불리하여 달아나면서 흙을 한 삼씩 떠 도망하는데 이쪽 고개가 다를 곳보다 낮아진 이유라고 한다.

언양 현감은 삼동 측은 이 붓골이 아니더라도 물이 많은 곳이니, 삼동 사람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그 물을 웅촌 쪽으로 흐르게 했다고 전하며, 지금도 그 곳에는 옛날 보를 막은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는 새까맣고 부드러운 흙이 많은데 이 흙을 주로 모판에 많이 이용했다고 주변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는 ‘땅불’이 난 곳이라 전해 오기도 하며 이 일대가 정족산의 무제치舞祭峙麓이기도 하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당수나무와 구렁이

음력 정월 보름날이면 금곡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정성껏 제물祭物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오던 세 아름이 넘는 당수나무가 있었는데, 이는 하금곡下金谷 들판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28년 하금곡 마을에서 제법 세도를 올리고 살던 선윤규宣潤奎가 당수나무(느티나무)의 그늘 때문에 논농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그 큰 당수나무를 베어 없애 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모친인 엄씨嚴氏는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을 얻어 눕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세家勢가 기울고 마을의 풍과가 끓이지 않자,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큰 느티나무 두 그루와 서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어 놓고 정성 들여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 후 모친의 병환은 차츰 회복이 되어 갔으나 가정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1942년경에 등이 검은 색과 회색을 띠었고 길이는 2m가 넘는 굉장히 굵은 구렁이가 베었던 당수나무의 뿌리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 구렁이는 수로水路를 따라 선윤규宣潤奎가 사는 마을로 올라와서 특히 그의 집 구석 구석을 맴돌고 심지어 마루와 방에까지 들어가서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나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모친은 다시 병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선윤규는 금곡 남역곡의 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익사하게 되었다.

마을의 우환이 그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정성껏 제를 올리고 난 후부터 구렁이 들은 모두 느티나무 뿌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하금곡에 살고 있는 선종목宣鐘穆(70세)이 그 때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현재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서로 엉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정성 들여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올려 마을의 안녕과 무사함을 기원하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김동지金同之이야기

옛날 하잠 마을에 김동지金同之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혈육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어 딸을 출가出嫁시키고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게 부탁하였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박토薄土 두어 마지기(400평정도)가 전부이니 이것을 동답洞畓으로 하고 사후에 장례葬禮나 치러주고 연연세세年年歲歲 술이나 한잔 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긴 채 운명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솥돌곡 산자락 양지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다. 그 후 동민洞民들은 그의 유언대로 해마다 음력 10월 20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그의 뜻을 영세불 망永世不忘키 위하여 동사洞舍 옆 자연 반석에 김동지에 대한 사연을 새겨 두었는데 아쉽게도 댐공사로 수몰水沒되어 이것마저 볼 수 없고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사등巳磴

하잠 마을 뒤편에 있는 가람등 밑에 100여 년이 지난 봉분封墳도 없는 묘墓 한 기基가 있었다. 하잠 마을을 왔다가던过客過客이 축성천鷺城川 다리목에서 동사冬死하였는데 하잠의 동민들이 시신屍身을 선피쪽으로 싸서 죽었을 때의 엷드린 모습대로 두꺼비등에 매장埋葬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고급 관료官僚 두 사람이 찾아와 그들의 선친이라며 동민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였다.
그리고 앞 등은 사등巳嶝이고 묘는 두꺼비등이라 풍수지리학적風水地理學的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엮드린 자세로 묻었음도 옳은 일이었다.

후손後孫들이 이장移葬을 하려 하였으나 지사地師들이 반드시 시체가 엮드려져 있을 것
이며 앞 등이 사등巳嶝이라 이장을 하게 되면 큰 화禍를 입을 것이라 말하여 그대로 두었
는데 댐공사로 수몰되었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중리 마을의 말바위

중리 차양골 하천과 산현골 하천이 합수合水되는 마을 중앙 하천에 말을 닮은 바위가
동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 말바위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옛날 어느 패전敗戰한 장수가 말을 타고 지친 몸으로
이곳을 지나가다가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말에서 내려 고삐를 풀고 물을 먹이면서 장
수가 하는 말이

“이놈의 말아!”하고 호통을 치면서

“나는 적진敵陣에서 힘과 용맹勇猛, 통솔력統率力이 없어 패배를 당한 줄장부가 되었지
만 힘이 넘치던 네놈은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고 꾸짖으면서

“앞으로는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뒤로 물러나는 비겁한 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라고 이르자 그제서야 말은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將帥는 지친 몸을 흐느적거리며

“싸움에 패배한 내가 네놈을 꾸짖는다는 것이 잘못이다.”하면서 뒷마을 쪽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주인을 기다리던 말은 뒤를 돌아보지도 물러나지도 말라는 주인의 말에 돌아보지도 못한 채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다 바위로 변했다고 전한다.

그래서인지 패배한 장수將帥가 사라졌다는 서쪽마을은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장수를 기다리던 말이 앞을 쳐다보는 동쪽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는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의 생활양식과 정서에 차이점을 잘 알 수 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현재 말바위는 중리中里, 산현山峴간 도로 확포장 당시 교량설치 관계로 마을 회관 앞에 보관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면 옮겨질 계획이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줄 서나무에 얹힌 이야기

중리 마을 북쪽에 줄 서나무가 있다. 줄 서나무는 고려말기에 심어졌다고 전해 오고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길 가던 과객이 말하기를

“북풍이 심하게 불면 마을의 기온이 따뜻하지 못할 것이니 나무를 심으면 과일은 낙과를 예방할 것이고 곡식들은 쓰러짐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 마을 사람들은 답 92번지, 133-1번지와 현 답 93번지와 대지 97번지 사이에 넓은 공유지

가 있어 줄을 지어 서나물을 심었다고 한다.

나무가 성장하여 그들이 좋아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쉬어 가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자 주위에는 주막집이 생겼고 동남쪽으로는 청량면, 웅촌면 등과 북쪽으로는 언양읍, 삼남면, 신평 방면 길목이라 장사는 매우 잘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주막 주인은 박인원이었다고 한다. 1930년대 말 줄 서나물이 있어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사람이 모여 단체가 생기게 되니 일본 정치권에서 독립운동의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줄 서나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며, 그 후 중리 마을에는 농작물은 물론 과일까지도 흉작凶作이 거듭되어 점쟁이에게 점을 쳐보았더니 줄 서나물을 베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했다.

그후 1950년 초에 다시 심은 것이라고 전해오는데 관리 소홀로 고사한 나무도 많았고 최근에는 주위의 농작물 피해로 나무를 일부 제거하기도 하여 지금은 참나무 몇 그루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청룡등의 수리고개

상작上鵲마을의 앞산인 남암산南岩山에서 시작하여 하작下鵲마을 돌림보 위까지 이르는 산등성이를 청룡등靑龍嶺이라 부르며 이 청룡등에 얹힌 애기장수 이야기와 많은 구전口傳들이 전해오고 있다.

중리中里 마을에서 상작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길을 수리고개修理領라 부르는데 이 고

개의 정상에는 서낭당城隍堂이 있었고 옛날 이 고개로 가마乘輻(장가나 시집을 갈 때 신랑 신부가 타고 가는 탈 것)나 상여喪輿가 지나가면 큰 우환憂患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 가마나 상여는 지름길인 이 고개로 가지 못하고 항상 하작下鵲마을로 돌아다니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약 40년 전 중리 마을에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작고하자 상작 마을 위쪽에 있는 남암산 중턱에 장지葬地를 마련하고 장례葬禮를 치르게 되었는데, 큰 우환이 생긴다는 수리고개를 넘기로 작정하여 술을 잔뜩 마신 중리 마을 상도喪徒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술기운으로 상여를 메고 수리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었으나 아무런 탈이 없자 그 후부터는 가마나 상여할 것 없이 수리고개를 통하여 다녔고, 산허리를 깎아내려 길을 낮추었는데 산의 혈血을 끊어 버렸기 때문에 상작과 하작 마을에 인재人材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을이 번성繁盛하지 않는다고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까치와 까치샘

옛날 지금의 상작 마을 상류 골짜기에서 은광을 파던 중 크다란 은銀을 캐었으나 워낙 커다란 은銀덩어리가 나와서 여러 사람이 은을 굴러 구덩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만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가 버렸다고 한다.

인부들은 은덩이를 따라 산 아래로 허겁지겁 내려왔으나 은銀은 산 아래 바윗돌에 부

뒹뒹하면서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 은은 두 마리의 까치로 변하여 산 아래로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부들은 까치를 따라 갔는데 그 중 한 마리는 지금의 큰 까치샘이 있는 곳에 날아와 앉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금의 작은 까치샘에 앉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까치는 간 곳 없고, 그 곳에 맑은 샘이 솟았다고 전하며 이곳을 큰 까치샘, 작은 까치샘으로 지금까지 불리오고 있으며, 이 샘물은 마을의 식수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물맛과 온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은을 캐던 광구는 지금의 은정골銀井로 불리고 있으며, 그 은광銀鑛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옛 어른들의 구전하는 바에 따르면 은구덩이는 그 깊이가 실타래 1개를 풀어 넣을 정도로 깊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어느 대사(흔히 원효대사라 함)가 이곳을 지나면서 말하기를

“이 우물에 까치가 날아와 울면 내가 죽을 줄 알아라,”하였다고 한다.

그 후 얼마가 지나서 과연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서 울고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알아보았더니 그 대사가 입적 하였다고 전해왔다. 그 뒤로 이 우물을 까치샘이라 하였다는 일설이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애기장수와 용마

먼 옛날 작동 마을 청룡등靑龍嶺 기슭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사내아이를 출산했는데 하루는 방아를 찧고 오니 아기가 보이지 않았고 아기를 찾던 부부는 아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살펴보니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옛말에 장수가 태어나면 용마龍馬가 난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시대는 시국이 어수선하여 장수가 태어나 잘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잘못되면 역적으로 몰려 폐가 망신하는 어려운 시국으로 부부는 고민을 거듭하며 의논한 끝에 애기장수를 죽여 없애기로 결정하였는데, 애기를 없애려면 오래된 처마 밑에 그을음이 묻은 재랍(대마의 속대)으로 애기의 겨드랑 밑을 찌르면 죽는다고 하여, 부부는 재랍으로 애기의 겨드랑 밑에 찔러 애기장수는 죽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애기 장수가 죽자 갑자기 청룡등靑龍嶺 위쪽(남암산)에서 용마가 미친듯이 뛰어 내려오면서 울었고, 그 용마는 청룡등이 끝나는 부근에서 하늘로 솟구쳐 떨어져 슬피 울면서 죽었고 죽으면서 우는 울음소리는 흡사 “애미 때문에, 애미 때문에”를 반복하였고, 그 울음소리는 “에밀레, 에밀레”로 들렸다고도 한다.

그 용마가 죽은 자리가 하작 마을 아래에 있는 애밀산이며 산 아래쪽에 있는 들판을 오늘날까지 ‘에밀들’ 이라 부르고 있다. 애기 장수가 태어났던 장소는 상작마을 청룡등靑龍嶺 기슭, 오늘날 수리고개(상작 마을 앞 고개)좌측 밤나무가 많은 산기슭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작동리 애기장수

울주군 삼남면三南面 까치말鵲洞 산기슭에 신라 때 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농부의 아내가 순산을 하니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기의 양 겨드랑 밑에 커다란 날개가 돋혀 있었다.

농부의 내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대로 두었더니 하루는 농부 내외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아기가 간 곳이 없어서 온 집안을 다 찾아봐도 아기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웃사람들까지 합세하여 근처 일대를 샅샅이 찾았으나 아기는 보이지 않고, 해는 저물어 허기진 배를 안고 안방에 들어와 힘없이 드러누웠다.

누워서 쳐다보니 이게 웬일일까? 아기가 천장 들보 위에 앉아서 손발을 흔들면서 재롱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농부 내외는 깜짝 놀라 아기를 안아 내려놓고 종일 수고를 한 이웃사람들에게 아기를 찾았다는 소식부터 전하였다.

이 소문이 삽시에 온 동리에 퍼지게 되었다. 동리 사람들은 의논을 하고 그 아기를 없애 버려야 아기의 부모는 물론 동리 사람들까지도 참화를 모면할 것이라 한다.

그것은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기가 장성하면 반드시 나라에 불측한 사변을 일으킬 터니 이것을 미리 예측하는 나라에서는 기필코 그 아기의 부모는 물론 그 아기와 함께 처형을 당할 것이요, 온 동리가 함께 참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부모 된 사람을 위하여, 또 동리 사람을 위하여 아기를 없애버리란 것이었다.

이 순박하고 정직한 농부는 과연 그렇다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아기 옆에서 두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아기는 이 사연을 미리 알고부모를 도로 위로하면서

“나를 없애버리는 데는 마당 가운데 미리 굵은 돌을 많이 갖다 두고 부엌 문짝을 떼어다 나를 덮고 재빨리 그 위에 굵은 돌을 쌓아 올려주세요.”라고 한다.

동리 사람들은 아기의 유언대로 부엌 문짝 밑에 아기를 놓고 굵은 돌을 쌓아 올리니 아기는 ‘애밀레 애밀레’ 하면서 절명이 되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아기가 '애밀레'하고 소리를 외칠 때 뒷산 산마루에서는 난데없이 말 울음 소리가 애밀레 소리와 함께 화창和唱이라도 하듯 요란스럽게 들려 왔다.

동리 사람들이 그 산마루에 올라가 보니 하얀 애마兒馬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한다. 동리 사람들은 이 말이 장차 나래가 돋힌 아기가 타고 다닐 용마였다고 하며, 이때부터 이 산등을 용마등龍馬嶺이라 하고, 이 아기가 태어난 산기슭과 산등을 애밀레등이라 하여 오늘에까지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윤동명의 민담을 이기, 언양면, 1984]

청룡등靑龍嶺과 용마龍馬

울주군 삼남면 둔기리 작동에는 청룡등과 애밀등이 있고 작천鵲泉이 있다. 둔기라 함은 모일 둔屯 터 기基로 ‘모임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옛부터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에 ‘둔’ 또는 ‘기’자가 붙은 지명이 많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곳 둔기리에도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아닌가 짐작된다.

신라고승 원효대사가 한번은 이곳 둔기리를 지나칠 때 마을앞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에서 까치 떼가 날아와 울거던 내가 죽은 줄 알라’하고 떠나갔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루는 이 우물가에 난데없는 까치 떼들이 날아들어 일시에 울어대며 소란을 피웠다. 이 같은 일이 있고난 뒤 사람들은 수소문을 했더니 까치가 우물가에 날아들어 울어대던 그날 원효대사께서 조용히 입적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이 있고부터 이 우물을 가리켜서 까치 작鵲 샘 천泉자로 작천이라 불렀다. 그

리고 이 작천이 있는 마을을 작동鵲洞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작동에는 또 전설이 담긴 청룡등靑龍嶺과 애밀등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산등성이가 있다.

옛날 이 청룡등 기슭에는 농부 일가족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이 농부집에서 생남을 했다. 그런데 그날 태어난 갓난애기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다. 집안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찾았다. 이때 천정을 쳐다보니 애기가 천정의 대들보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애기를 안아 내렸다. 애기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애기의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아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옛날에는 새로 태어난 애기의 겨드랑에 비늘이 돋아나 있으면 나라에서 그 애기는 물론이요, 그 가족들을 몰살 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 같은 애기는 왕위王位를 노리는 역적이 될 위험한 인물이며 이 같은 애기를 출생한 부모도 심상치 않으니 살려 두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집에서도 질겁을 하고 혹여 누가 알게 될까봐서 쉬쉬 하면서 이웃이나 나라에서 알기 전에 죽여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태어난 이 농부의 애기는 장차 큰 장수가 될 것이 분명하였으나 사회적 국가적 폐습 때문에 부모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비극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애기의 부모들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비정한 부모가 된 것을 비관하면서 애기를 죽일 채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애기가 말하기를

“나를 죽이려거든 그냥은 아무리 해도 죽지를 않을 것이니 나의 겨드랑 밑에다 솔가지 불을 피워서 날개를 태운 다음에 정지문 판자로 나를 눌러 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누르면 됩니다.”하였다.

부모들은 애기의 이 같은 말을 듣고 더더욱 비통에 잠기면서 애기가 시키는 대로 솔가지 불로 애기의 밑에 돋은 날개부터 태우고 나서 정지문 판자로 눌러 덮고 돌맹이를 눌러 쌓아서 죽였다.

이 같이 해서 장수애기를 죽인 다음날 뒷산 등선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일어나 드니 난데없는 용마龍馬 한마리가 땅속에서 뛰어 올랐다. 뛰어 오른 청룡마靑龍는 길길

이 뛰면서 몸부림치며 울어대더니 건너 산으로 뛰어가서 ‘애밀래 애밀래’하는 소리를 내며 울더니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청룡마가 태어난 장수애기의 애마愛馬가 될 말이었는데 주인을 잃었으니 청룡마도 주인을 따라 죽은 것이다. 청룡마가 죽으면서 ‘애밀래 애밀래’하는 울음소리를 낸 산등선을 가리켜서 ‘애밀등’이라고 부르고 청룡마가 땅속에서 뛰쳐나온 산등선을 청룡등靑龍嶺이라고 부르고 있다.

청룡마가 ‘애밀래 애밀래’하고 울어 댄 것은 청룡마의 주인이 될 장수애기를 그 어미가 잘못해서 죽였다고 원망하는 울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상작上鵲, 하작下鵲이라 부르는데 이 전설이 담긴 청룡등과 애밀등은 모두 하작마을에 있으며 애기장수가 태어났던 집도 청룡등 기슭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으며 지리풍수에 능한 사람들은 이곳에 대명지가 있다면서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다만 애닭은 전설만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유사蔚山遺事』 김석보金錫保, 1979]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작동鵲洞의 아기장수와 청룡등靑龍嶺

청룡등과 용마龍馬에 얽힌 전설 한 토막을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울주군 삼남면 상작, 하작 하는 그 마을 있는 부근이라고 그러합니다. 거기에 그 상작, 하작은 뭐냐 하면 까치 작짜鵲字인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가에 한번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지나가더랍니다. 아주머니들이 쭉욱 많이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데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가지고,

“나 물 한 바가지 주시요.”

그래 물을 떠 드리면서,

“대사님 오래 간만입니다.”하고 인사를 했더니

“나 인자 멀지 않아서 세상 떠납니다. 내가, 여계 이 새미(샘)에 까치들이 떼 지어 와서 울어 사커들랑 내가 세상 떠난 줄 아시오.”

그러고 지나가 버렸는데, 아주머니들은 그냥 이상한 소리한다. 그러고 웃었대요. 얼마 후에 아니나 다를까 그 우물가에 까치들이 수없이 날아와 가지고 짹짹하고 울기 때문에, ‘아 그때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제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부터는 원효대사를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고 원효대사가 입적한데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떠나간 돌아가신 입적한 산을 가리켜서, 자우간²⁴⁵ 그 산에서 돌아갔는데, 울산서 부산을 가는 도중에 서창西倉이 있습니다. 서창에서 서쪽으로 솟은 산이 원적산이라 하는데, 고요하게 적멸로 했다, 원효대사가 적멸로 했다, 그래서 원적산이라 그러합니다. 둥글게 둥글 원짜圓字, 고요 적짜寂字, 원적산 혹은 그 원효대사가 불교

245. 좌우지간左右之間.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

영향을 크게 미친 산이라 그래서 원효산元曉山이라고도 하고, 원효대사에게 중국에서 건너온 스님 천명이 거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인이 됐다 해서 천성산千聖山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에서 입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작동鵲洞이라 그러는데, 작동을 아래 위로 나누어서 상작上鵲, 하작下鵲이라 그러는데, 작동마을 앞에 청룡등이라 하는 산능선이 있어요.

이 청룡등이라고 생겨난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냐 하면 이 마을에 한번은 아들을 한 집에서 낳는데, 이 아들이 그냥 나더니 날아가지고 대들보 우에 올라앉았다 하는 얘깁니다. 애기가 나자마자 그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났다. 몸에 비늘이 돋치고 날개가 났다. 그 래 장수라 그러지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미천한 집에서 이런 장수가 나오면은 나라에서 죽여 버린대요.

나라에 역모逆謀를 두고²⁴⁶ 왕을 죽여 버리고 지가 왕 될까 싶어서 나라에서 어릴 때 미리 죽여 버린대요. 만약에 미리 부모가 안 죽이면은 그 부모까지 처형을 당했다.

“부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지 않느냐? 니(네) 자식 키와가지고, 니가 니 아들 왕 시키고 니가 좋은 자리 앉을라고 니가 안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부모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도 예외없이 이 아들 죽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들을 죽이는데, 그 정지(부엌) 문짝을, 돌을 가지고 막 지들카가(눌러서) 죽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나를 꼭 죽일라 그러거든, 그래 죽여서는 안 된다. 정지 문짝을 떼 와 가지고 그 우에다가, 큰, 날로 눌러 놓고 그 위에 큰 바위로 가 누르면 내가 죽는다.”

그래 가지고 죽는 아들이 그렇게, 죽는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니 까 그 아들이 숨이 끊어져가 죽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 아들이 숨이 끊어져 죽자 그 건너 앞산에서 난데없이 용마가 한 마리 튀어 나와가지

246. 역모를 꾸밀 마음을 지니고.

고 마약 그냥 고래고래, 하얀 이 백말이 한 마리 튀어 나와가 뛰면서 울고, 용마가 그냥 날개가 돋친 말이 뛰면서 울더니 그 밑에 가서 쳐 박혀서 용마가 스스로 자살로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임자가 죽었으니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용마다, 그래서 임자가, 자기가 타고 하늘로 날아다닐 장수가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 그래 죽었다 하는 애깁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이 아니고 아마 푸른 말인가봐요. 그래 청용이라고 그러죠. 청용, 청용마 그럽니다. 그래서 청룡이 났다 그래서 이 청룡등이라 그러고, 거기에 용마 청용마가 났기 때문에 등 이름이 청용등이라고 명명이 됐다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석보, 중구, 1984]

문수산 명포수

여어 문수암文殊庵, 저어 보연암, 배이내라 카는 데가 있습니다.

문수산文殊山에서 서쪽으로 나가몬 배이내²⁴⁷라 쿠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박씨 사람들이 살았는데, 삼형제가 다 큰 포수라.

전해 내려오는 말이 범 보몬 우습고, 술 보몬 우습고, 두 가지 백에 우습은 기 없다 쿠는 기라. 판 사람은 범을 겁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범만 보몬 웃음이 나온다 이기라. 그만 큼

247. 울주군 삼남면 둔기리蔚州郡 三南面 屯基里에 있는 지명

범 잡는 거로 숨게 여긴다 이기지요.

예전 엽총은 화약 달아가지고 불로 붙이가지고 밑에 요새 뇌관이지요, 뇌관 거어 불로 붙이몬 총알이 나가지.

하루는 저녁을 묵는데, 총을 방구석에 이리 떡 세와 놓고 저녁을 물라 카이²⁴⁸ 총이 쨍쨍 운다 말이지. 총이 울며는 반다시 그 산에 큰 짐승이 왔다카는 거로 증명을 한단 말이지요.

큰 짐승은 범을 큰 짐승이라 이라는데, 그래 이식해가지고²⁴⁹ 문수산을 혼자 한 바꾸 빙 둘러가 나가이, 문수산 앞에 범굴이라 카는 데도 있는 칭암이 있는데 칭암 밑으로 내려 오이 거어 밑에 ‘으응’ 캐 썩는데 보이 범이 사람을 하나 업어다 놓고 어루는데, 잡을라고 자꾸 곁으로 가차운데로 자꾸 찾아갔다.

찾아가 보이 여잔데, 그런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무울 적에는 뒤통에다 갖다나 놓고 잡아묵는다 쿠는데, 뒤통에서 사람을 갖다가 양발로 가지고 이발로 가지고 이 쪽으로 땡긴 까네 이리 툇 구부리지몬 ‘응’쿠고 일라서니까네 이 쪽 발로 또 이 쪽으로 땡기니까네 이 쪽으로 구부라지고.

그래 가만 잘에 기이 들가가지고, 총을 쏘몬 맞아 죽을 거리로 가가 탁 쏘이 이 범이 소 술디마는 널쩌가²⁵⁰ 죽는데, 범은 잡아 놓고 사람을 구해보이 여잔네, 업고 자기 집으로 갔다 말이요.

집에 오니까 사람은 벌어 실신이 돼가자고 가히 죽으는 거 한 가지고 이렇는데, 그래도 사람을 만지 보이 따따하이 이래 가지고, 물로 끓이가지고 디루고²⁵¹ 이래 썰이(하니) 정신을 채렸는데.

정신을 채리고 며칠 있다가 그 연유를 물으니까네, 목섬²⁵² 카는 데가 있거만. 거기서 여어 거리가 아무래도 한 50리도 넘는데, 처잔데, 시집 갈라고 날 받아 놓고 이 저녁 묵고머리를 감다가 마 범인데 업히가 와가지고 인자 호식할 지경이 됐는데 명포수를 만내

248. 먹으려 하니

249. 밤이 깊어서

250. 솟구치더니 떨어져서

251. 먹이고

252. 목도目島, 현재는 동백섬이라 부른다.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蔚州郡 溫山面 方島里 앞에 있는 섬

가 살았다고. 살아가지고 인자 자기 집에 텔고 가가지고 예를 치르고 이랬다 갑니더. 명포수 박포수 그 집에 자손들이 요새는 덕하²⁵³에 가가지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포수를 하는데, 우리 울산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포수라고 할 수 있지. 짐승을 참 잘 잡거만.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박포수에 관한 설화

옛날 문수산 중턱에는 이름난 박포수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하루는 대운산(현재 남창과 서창사이의 산) 호랑이굴(범굴)에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고 한다.

총알을 장전하여 범굴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뛰어나와 박포수 어깨를 물었다고 한다. 미처 총을 쏘기도 전에 발생한 돌발 사태로 박포수는 호랑이에게 어깨를 물렸고 격투 끝에 범을 잡았고 박포수는 마을에 내려와 살아 있는 수탉(장탉)을 두드려 어깨에 동여맨 후 돌아 왔다고 한다.

이 박포수는 아마 힘이 센 장수에 버금가는 당대의 명포수로 보이며 지금 문수산 아래 보현등에 박포수 묘가 있다.

전해오는 말로는 호랑이에게 물리면 수탉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253.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蔚州郡 靑良面 德下里

호사虎死한 열부

옛날 호랑이가 많았던 시절 문수산 자락에 있는 상작 마을에는 호랑이가 종종 출몰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밤에 상작 마을 외딴 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문 바깥쪽에서 잠을 자고 아내는 방 안에서 잠을 자는데 호랑이가 문 바깥쪽에 자던 남편을 물고 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고함을 질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물려 가는 남편을 따라 고함을 지르며 따라 갔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징을 치며 따라가서 합류하였는데 상작 마을 위 큰 까막소 바위 위에 남편을 물고 앉았는데 아내는 남편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호랑이는 남편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이 횃불을 들이대고 아낙이 기를 써 남편의 시신 屍身을 뺏어 되찾았다고 한다.

상작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호사虎死한 묘가 지금도 있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당고개의 처녀귀신

언양장에 가려면 하작에서 당고개로 해서 둔터로 가는 길과, 애밀들 산기슭을 돌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이 어느 길이던 간에 밤이면 아주 기분 나쁘게 으스스한 길이었다.

그 이유로는 처녀귀신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그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어릴 때 이곳에는 처녀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에게 당한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우리 고장에는 2일, 7일에 서는 언양장을 보러 다녀 장날이면 집에 기르던 소나 개, 닭 등 짐승을 내다 팔기도 했고, 가을이면 곡식과 감을 이고 지고 가서 팔아 생활필수품을 사오기도 하였다.

장날이면 남정네들은 오랜만에 언양에서 약주를 한 잔씩하고 오기가 일쑤였는데 이럴 때면 기다렸다는 듯이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혼자 오는 남정네를 붙잡고 늘어져 애를 먹었다고 한다.

처녀 귀신이 나타나는 장소는 여러 곳인데 주로 둔터 마을 앞에서 장지뻘든을 지나서 돌다리를 건너는 곳에서부터 당고개 사이와 애밀들 사이였고, 남정네들의 두루막 자락이나 바지 자락을 잡고 놓지 않아 애를 먹고 혼비백산(魂飛魄散)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는 파란 색동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둘러 입은 처녀를 보았다는 얘기도 흔하게 전해온다.

술 취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정신을 못차리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곳은 옛 날 가매장을 한 채봉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온다. 한 번은 길 가던 과객이 붙들려 추운 겨울에 처녀 귀신과 싸우다 동사한 적도 있다. 아무튼 여기에는 처녀 귀신이 있다고 하여 밤이 되면 혼자서는 가기가 무서운 길이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하작 마을의 범골虎谷

서남웅덩이 위쪽 남쪽으로 뚫린 골짜기를 ‘범골’ 또는 ‘버무독골’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골짜기에는 옛날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붙인 이름인 것 같다.

이 범골에 대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봄날 아낙네들이 산나물을 캐러 이 골짜기에 올라갔다가 바위 밑에서 고양이 새끼 같은 동물을 발견하고 너무 귀여워서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흥!”하는 호랑이의 큰 고함소리에 살펴보니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있음을 발견하고는 놀라 바구니도 던져버린 채 신발이 벗겨진 줄 모르고 산 아래 마을로 허겁지겁 달려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보니 던져버리고 온 나물바구니와 신발을 모두 그 주인집 마루아래에 고이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그 어미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해치지 않고 귀여워한 아낙네에게 고마운 마음의 표시일지도 모른다. 동물은 이렇게 자기에게 해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덕을 베푼다는 사례이기도 한 것이다.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대소大沼의 길 싸움

왕정지에서 500여 미터쯤 대암 마을 쪽으로 가면 가파른 언덕길이 비좁은 바위틈으로 아슬아슬하게 나있고 오른쪽으로 수십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 밑을 휘감아 돌아가는 물결로 매우 깊은 소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소를 대소라 하고 일명 '벼락소'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소는 매우 깊어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도 닿지 않는다고 하며, 여기에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고 전한다.

아무튼 어렸을 때 몇 번이고 잠수를 해 봤으나 겁도 나고 바위 안쪽 밑으로는 깊이 파여 있어 아무도 무서워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 깎아지른 듯 한 바위틈에 몇 기의 무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애절한 사연들이 전하여 내려온다.

옛날에는 시집갈 때 가마를 타고 갔는데 서로가 길을 비켜주면 해롭다고 하여 길 양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 이곳 대소의 좁은 길에서 가마 두 채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가마를 맨 사람들은 양보는커녕 사력을 다하여 마구잡이로 밀어부쳤고, 그 결과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고 전하며 낭떠러지의 아슬아슬한 바위 위에는 물에 빠져 죽은 새 신부의 무덤이 있었으나 댐에 수몰이 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오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문수산文殊山과 박포수

골둔터에서 동쪽으로 골안골짜기를 지나 관음곡觀音谷 고개를 넘으면 문수산이 있다. 이 문수산은 정상을 경계로 서쪽은 삼동면 둔기리에 속하고 동쪽은 청량면 율리와 북동쪽은 범서면 천상리에 속한다.

이 이야기는 관음골에서 배나무골 오른쪽 등성이를 오르다 문수암 절이 가까워 오는 곳에 지금도 제법 큰 묘가 2~3기가 있는데, 그 옆에는 오래된 백일홍 고목 몇 그루가 묘를 지키듯 서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초막草幕을 짓고 살던 흔적이 남아 있다. 바로 이곳이 박포수가 선조의 묘를 지키기 위해 초막을 짓고 시묘侍墓하던 곳이라 한다.

이때만 하더라도 큰 산에는 맹수들이 많았던 때라 박포수도 엽총(아마 심지에 불을 붙여 쏘는 소총이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짐승이 나타날 때마다 세워둔 총이 찌렁찌렁 울렸다고 한다.

그러던 하루는 밤이 깊었는데 총이 찌렁찌렁 울리는 것이 아마도 큰 짐승이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하여 박포수는 총을 들고 어스름 달빛이 비치는 비탈길을 조심조심 호랑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배나무골 마지막 바위가 지붕처럼 옆으로 누워져 있고 그 위쪽으로 옛날 문수암의 절터였다는 곳에 약간 평평한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고양이와 쥐를 잡아먹기 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황소만한 호랑이를 어렴풋이 보고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사람이 물려왔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박포수는 되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몸을 낮추고 비호같이 달려갔다. 박포수는 사정거리 내로 무사히 접근해서 자세히 보니 잡혀온 것은 아리따운 처녀였다.

박포수는 침착하고 민첩하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퇴로退路를 확보하고 실탄 일발을 장전裝填하였다. 순간 호랑이는 김새를 쫓는지 멈칫 서서 이쪽을 보면서 ‘으흥 ...’하고 큰소리로 포효咆哮하면서 달려들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탕 ...’하며 총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산골짜기를 길게 메아리쳐 되돌아오기도 전에 호

랑이는 쏜살같이 박포수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는 침착하게 몸을 피하면서 다시 한 발을 장전하여 ‘탕 …’ 하고 쏘았다. 호랑이는 바로 앞에까지 와서는 크게 한 번 ‘으흥…’ 하는 마지막 소리를 지르며 집채가 쓰러지듯 ‘팅.’하고 나자빠지는 것이었다.

박포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사람이 있는 데로 달려가 보았다. 아리따운 새색시가 머리를 흐트린 채 바위틈에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도 살아 있었으나 얼마나 놀랐는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혼수상태였다.

박포수는 색시를 들쳐 업고 초막으로 돌아왔다. 우선 아랫목에 눕히고 더운 물을 한 모금 먹인 후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깨어난 새색시는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새색시의 집은 범서면 천상골이고 마침 그날이 결혼하는 앞날이라 장독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흑하고 바람이 일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마치 황소 같은 호랑이의 등이라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의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박포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 감격하여 새색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새색시를 가마로 모시고 가서 혼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준 고마움의 표시로 박포수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산성택의 화적 때 칼자국

구한말 순조純祖조에 가서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 관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때의 일이다. 동학란은 거의 평정되었으나 그 무리들이 산속 깊이 숨어들어 의적義賊으로 변했다. 1900년 전후에 자신들은 활빈당活貧黨이라 하여 관가나 매관매직으로 치부한 탐관오리들의 재산이나 큰절의 곡간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 에게 나눠주고 부정하게 치부를 하였거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힌 무리들을 응징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으나 말년에 가서는 도적 때가 되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낮없이 마을에 내려와서 곡식이나 돈을 털어 가는 화적 때로 변화였다.

특히 언양을 중심으로 양산과 경주에 걸쳐서 심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통도사의 곡간을 털어 언양장날 장터에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등의 활빈 활동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경주 최부잣집(계림에 있는 9대 진사 9대 만석꾼의 집)만은 털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최부잣집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등 많은 인심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한다.

솔밭산鼎足山에도 그 일당 중 한 무리가 있어 둔기 마을을 괴롭혀 왔는데 하루는 뺨덕 둔터의 신씨辛氏 둔기 입향 후 3대째 종손인 산성택(신동련辛東鍊)의 고조부 되는 신진辛盡 어른의 집에 화적 때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칼로 기둥을 내리치면서 위협을 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이 부족했는지 그들은 신진 어른을 데리고 가면서 돈을 가지고 오면 돌려보내 주겠다고 했다.

온 집안은 물론 온 동네가 야단이었으며 누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중간에서 뺏기지 않고 괴수에게 전달하느냐가 큰 문제였다.

이 집에는 건장하고 꽤 많은 하인 한 사람이 있어 그가 가기로 하였다. 그 하인은 지게의 양쪽 목발에다 구멍을 파고 엽전을 넣어 구멍을 막은 다음 지게를 지고 약속한 솔밭산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여러 명에게 수색을 당했으나 다행히도 괴수에

계까지 돈을 전달 할 수 있었고 무사히 신진 어른을 구해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의 칼
자국이 산성택 큰채 뒷마루 기둥에 오랜 훗날까지 남아 있었다.

[『삼동면지三洞面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인용도서

- 『울산·울주향토사蔚山·蔚州郷土史』, 울산문화원, 1978.
- 김석보, 『蔚山遺事』, 소문출판사, 1979.
- 『내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 『내고장의 정기精氣』, 울주군, 1983.
- 『전설의 고향』, 삼성문화사, 1984.
- 강길부, 『향토郷土와 지명地名』, 정음사, 1985.
- 『韓國口碑文學大系』 8-12,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 김승찬, 『慶南地方의 民譚』, 제일문화사, 1986.
- 『울산시사蔚山市史』, 울산시, 1987.
- 서민정, 『삼세인과』, 장안정사, 1988.
- 『웅상읍지熊上邑誌』, 웅상읍사무소, 1995.
- 이유수, 『울산향토사연구논총蔚山郷土史研究論叢』,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6.
-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 『전설의 고향』, 태을출판사, 1997.
- 김대원, 『서라벌의 망부석 아직도 울음 운다』, 글밭, 1999.
- 『울산광역시사蔚山廣域市史』,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 『상북면지北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남면, 1998.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정인섭, 『한국의 설화』, 최인학, 강재철 역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蔚州지명지리지』, 울주군.울주문화원, 2020.



참고자료

조흥제, 『울산방언』, 도사출판 제일, 2000.
 신기상, 『울산방언사전』, 울산광역시, 2013.
 田島泰秀, 『溫突夜話』, 教育普成株式會社, 1923.
 伊泉伍重, 『朝鮮の伝説』, 大東印刷書館, 1944.
 『애향愛郷』(3집), 1 * 2구락부俱樂部, 1972.
 윤기로, 『傳説 찾아 三千里』, 인창서관, 1972.
 민병훈, 『傳説 따라 三千里』9.13.15.18, 동림출판사, 1975.
 김열규, 『神話/說話』, 한국일보사, 1975.
 『蔚山·蔚州郷土史』, 울산문화원, 1978.
 민병훈, 『전설의 내 고향』, 광복사, 1979.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 흥성사, 1986.
 최정희, 『한국 불교전설 99』, 우리출판사, 1986.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임재해, 『韓國口傳說話』, 평민사, 1993.

최인학, 『구전설화의 연구』, 새문사, 1994.

우한용, 박인기, 정병헌, 최병우 『한국 대표 설화』, 상.하, 빛샘, 1994.

박시인, 『알타이 神話』, 청노루, 1994.

서정오,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현암사, 1996.

『이야기 종교설화』, 한실미디어, 1996.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최인학, 『조선조말 구전설화집』, 도서출판 박이정, 1999.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강길부, 『땅이름 울산사랑』, 정도, 2002.

일연, 김부식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리상호 외 옮김, 보리, 2006.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2006.

권순우,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송원, 2006.

이영희, 『한손에 잡히는 우리민담』, 자작, 2006.

이신성, 『千金을 전하기보다 學德을 전하라』, 보고사, 2006.

강길부, 『울산 땅이름 이야기』, 해든디앤피, 2007.

데.체렌소드눔, 『몽골의 설화』, 이안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7.

김종균, 『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2007.

이수봉, 『울산의 옛 이야기』(1,2), 경인문화사, 2008.

박명숙, 『한중 운명설화 연구』, 민속원, 2009.

최태웅, 『풍자와 설화의 한국사』, 새벽이슬, 2009.

노성환, 『한일 신화의 비교 연구』, 민속원, 2010.

이경윤, 『세계의 신화와 전설사전』, 다인북스, 2012.

김선주, 『울주의 옛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울주군, 2014.

다지마 야스히데, 『온돌야화』, 신주혜, 채향숙 공역, 학고재, 2014.

울주연구 제18호

울주설화 ㉔

전설편

발 행 일 2021년 12월 30일

발 행 처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주 소 (44970)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2층(ulju0574@kccf.or.kr)

전 화 (052)204-4033

팩 스 (052)204-4043

홈페이지 www.ulju.or.kr

발 행 인 노명숙

집 필 이상도

공동윤문 이동환

감 수 문쌍영

진 행 최우영

북 디자인/제작 더중북스 052-227-2720

ISBN 979-11-956239-2-1

ISBN 979-11-956239-1-4 (세트)

비매품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전재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고자 하면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구비문학대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의 설화』는 단국대학교출판부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것처럼 원산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울주
설화 전설편

비매품/무료

94900



9 791195 623921

ISBN 979-11-956239-2-1

ISBN 979-11-956239-1-4 (세트)

울주연구 제18호

울주 설화 下

신화·민담 편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울주 설화 下

신화·민담편

蔚州 說話

설화란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이른다.

전승된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된다는 말이다.

현재 학계에서 설화는 구전되던 이야기가 비석에 쓰인 것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구비口碑란 용어를 사용하여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으로 통용되고 있다.



발간사

적층문화의 진수로 설화를 꼽습니다. 우리는 울주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19로 대면조사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연해 줄 사람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어른들은 이제 세상을 뜨셨거나, 아니면 기억의 언저리만 맴돌 뿐이었는데, 그렇다고 뜻밖의 소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책으로 남겨진 많은 자료가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모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 실려 있는 문헌설화는 쉽게 구하지만, 일제강점기 울주 출신 영문학자 정인섭이 언양과 상북 등지에서 채록한 30여 편의 귀중한 자료, 1970년대 울산의 대표 향토사학가 이유수, 김석보 등이 저술한 『내 고장의 정기』, 『울산유사』 등은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책들이 울산의 도서관에서 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울주 채집 270여 편의 설화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현장에서 채록한 내용을 가감 없이 수록하다보니 심한 방언이 많아 현대인에게 가독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창작보다 어려운’ 운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많은 자료 가운데 울주와 관련된 600여 편을 분류하고 다듬어 『울주설화』라는 제호를 달고 상·하 두 권으로 발간하게 되니 뿌듯함이 앞섭니다.

이 자료가 울주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의 도서관과 헌책방을 뒤져 알뜰히 찾아내고, 분류와 편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상도 울주향토사연구소장과 운문 작업에 정성을 기울여주신 이동환 국어선생님, 해제와 감수를 해주신 문쌍영 문학평론가 그리고 응원해 주신 울주군 관계자와 울주문화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교훈이 가득 담긴 울주연구 제18집 『울주설화』가 널리 읽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울주문화원 원장 노명숙

일 러 두 기

1. 지금까지 조사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를 최대한 모았다.
2. 유형이 같은 내용임에도 구술자의 표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것은 묶어 재해석하거나, 그 출전을 모두 밝히되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3.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어휘를 그대로 옮겨 적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사투리는 편자의 기준에 따라 표준말을 ()에 넣거나, 필요에 따라 각주로 설명했다.
4. 글말(문어체)과 입말(구어체)을 같이 쓰고, 높임말을 버리고 예사말을 쓴 것은 옛이야기 특유의 입맛을 살려 읽기 편하도록 다듬었다.
5. 현재 행정구역이 울주군에서 벗어나나, 대부분의 정서가 울주군에 포함되어 있으면 찾아 수록하였다.
6.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울주군일 경우 수록하였다.
7. 행정구역 조정으로 과거 울주군이었지만, 현재의 복구는 제외하였다.
8. [출전, 구술자, 채록지역, 채록연도] 순으로 매 편마다 표시하였다.
9. 원문에 한자로 표기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적었다.
10. 원문의 표기가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집필 무렵의 표현 연구를 위하여 최대한 수용하였다.
11. 전설은 현장이 있으므로 읍·면 별로 분류하였다. 다만, 복수의 읍·면에 걸쳐있을 경우 유사 사례가 많은 쪽에 모아 정리하였다.
12. 전설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그 무렵의 상황을 적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사례가 많다.

책임연구원 Ⅵ 이상도(집필, 윤문 및 편집)

보조연구원 Ⅵ 이동환(공동윤문)

해제·감수 Ⅵ 문쌍영

울주연구 제18호

울주 설화 下

신화·민담 편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목차

신화神話 016

- 해와 달 _18
- 불개 _23
- 사람의 조상인 밤나무 아들 율범이 _24
- 구미호와 여의주 _31
- 파 _34
- 선녀와 나무꾼 _36
- 고양이와 개 _40
- 우렁각시 _44
- 이해심이 깊은 새신랑 _46
- 두꺼비 신랑 _49
- 여동생으로 둔갑한 여우를 잡은 막내아들 _53
- 도리춘풍 이공자와 곡조문전 설낭자 _55
- 연이와 계모 _57
- 계모의 학대 _60
- 가시나가 무슨 염불 _63
- 신선 된 딸을 찾아갔던 아버지 _64

민담民譚 068

- 가화만사성 _70
- 뜻이 맞아야 집안이 흥한다 _71
- 타고난 복을 가진 종의 딸 _75
- 운이 있으면 귀신도 범접하지 못한다 _78
- 자기 복은 못 빼앗아 간다 _80
- 복이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마련이다 _81
- 복타러 가는 석순이 _84
- 어사 박문수와 효자 효부 _87
- 장씨 효자 _89
- 복골 효자 _90
- 유의태 동생의 효심 _93
- 편작도 못 고친 어머니의 병을 고친 효자 _95
- 천하 명의 편작 _96
- 이상한 제사 _98
- 베리데기 _99
- 효성 끝에 복 받은 셋째 딸 _102
- 딸보다 나은 효자 양아들 _103
- 효자와 나무생이(남생이) _107
- 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삼정승 육판서 _109

- ◆ 삼정승 딸과 혼인한 총각 _ 110
- ◆ 백팔십 번 결혼할 운명을 극복한 정승의 딸 _ 116
- ◆ 삼형제 _ 118
- ◆ 신령님의 도움으로
 효녀를 구한 암행어사 박문수 _ 122
- ◆ 어사 박문수와 산신령 _ 125
- ◆ 천 냥의 보은 _ 128
- ◆ 백 냥의 보은 _ 132
- ◆ 독약이 든 곳감 _ 135
- ◆ 천 냥 빛을 탕감시킨 아들의 기지 _ 136
- ◆ 보쌈 바람에 부자집 사위가 된 총각 _ 138
- ◆ 복점을 쳐서 잘살게 된 머슴 _ 141
- ◆ 아들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 _ 144
- ◆ 선행하여 복탄 짚신장수 _ 146
- ◆ 아내의 정성으로 출세한 남편 _ 149
- ◆ 지성스런 염불로 복 받은 사람 _ 151
- ◆ 엉터리 염불을 해도 진심이면 복받는다 _ 154
- ◆ 헤어졌다 다시 만난 삼 남매 _ 155
- ◆ 이상한 이름으로 부자가 된 네 형제 _ 159
- ◆ 절에 시주하여 왕자로 태어난 사람 _ 160
- ◆ 왕세자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 _ 163
- ◆ 두 처녀의 지혜 _ 165
- ◆ 큰 인물이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 _ 166
- ◆ 큰머슴을 장가보낸 피 많은 작은머슴 _ 167
- ◆ 기발한 피로 늦장가 간 노총각 _ 169
- ◆ 외삼촌의 간계를 물리치고
 장가가게 된 김용덕 _ 172
- ◆ 고생하여 급제한 사람 _ 174
- ◆ 세종대왕의 암행 _ 179
- ◆ 앞 일을 잘 아는 아들 _ 182
- ◆ 전처 자식의 효도 _ 187
- ◆ 산삼이 도와준 효자 _ 189
- ◆ 베 짜는 학 _ 192
- ◆ 선녀가 도와 준 효자 _ 193
- ◆ 수도승의 부모 천도 _ 196
- ◆ 난리 중에 남편을 구한 열녀 _ 197
- ◆ 두 남편을 섬긴 열녀 _ 200
- ◆ 경주 효현동의 열녀 _ 201
- ◆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_ 203
- ◆ 현풍 곽씨의 열녀 _ 205
- ◆ 효부가 버릇 고쳐 준 불효한 시어머니 _ 207
- ◆ 남편 버릇 고친 효부 _ 208
- ◆ 불효녀 _ 209
- ◆ 불효부 길들이기 _ 210
- ◆ 훌륭한 자식을 낳은 죽대 선 며느리 _ 212
- ◆ 꺼지는 불씨 때문에 동삼 얻은 며느리 _ 214

- 지네를 죽인 며느리 _217
- 참효자 _217
- 욕심 많은 큰아버지를 길들인 며느리 _219
-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_225
- 버릇없는 아들 길들이기 _226
- 버릇없이 기른 아들 길들이기 _228
- 방탕한 아들 길들이기 _229
- 암행어사 박문수 (1) _230
- 암행어사 박문수 (2) _233
- 원수를 갚아 준 과거꾼 _235
- 누명을 벗겨 준 암행어사 _237
- 원혼이 된 아내를 살린 남편 _239
- 곡소리 듣지 않은 상복으로
여인의 원혼을 풀어 준 지혜로운 원님 _242
- 원혼과 사천泗川 원님 _244
- 비단을 찾아 준 현명한 사또 _245
- 고창령 일화 _248
- 웅기 값을 물어 준 낙동강 뱃사공 _249
- 동삼과 이시미 _250
- 욕심이 많으면 재앙을 받는다 _252
- 과객 싫어 하다가 망한 부잣집 _254
- 욕심 부리다 죽은 만동서 _255
- 마음씨 좋은 노파와 욕심 많은 노파 _256
- 황성은 배상이라 _259
- 양반과 사돈 맺은 상놈 _263
- 양반 살기 _267
- 욕심이 많은 며느리의 최후 _268
-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와 미련한 며느리 _269
- 짐승의 말을 알아 듣는 신부 _271
- 이야기 정령 _273
- 두 형제와 원님 _277
- 영리한 아이 덕에 죽음을 면한 중 _280
- 어린 고을 원의 아전 길들이기 _281
- 도사의 저주와 보은 _282
- 늙은 아버지 _284
- 손자 덕에 고려장 면한 사람 _285
-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_286
- 죽은 아들에게서 얻은 손자 _287
- 사자생손 _288
- 남편 묘에다 오줌 누고 얻은 아들 _290
-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 _291
- 아들을 찾은 박문수 _294
- 현몽으로 찾은 혈손 _296
- 저승에서 먹는 제사 음식 _298
-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 _300
- 과거꾼을 도운 미륵 _302

- ◆ 아기 장수 _305
- ◆ 아기장수와 용마 _306
- ◆ 남양 홍씨 백일홍 자손 _308
- ◆ 후손을 잇게 한 손부 _310
- ◆ 저승에서 명을 받고 나온 윤 진사 _311
- ◆ 간부를 죽이고 신랑을 구한 마을 머슴 _316
- ◆ 소경과 악령들 _319
- ◆ 중이 된 과부의 염불 _322
- ◆ 바보 아들 _323
- ◆ 바보 사위 _324
- ◆ 바보 신랑과 영리한 신부 _326
- ◆ 꿀뚝, 떡나무와 생명의 나팔 _328
- ◆ 시누이 덕으로 사이가 좋아진 부부 _330
- ◆ 재치 있는 나이 많은 신부 _332
- ◆ 정도령과 봉덕이의 사랑 _333
- ◆ 이정승 아들의 재치 _335
- ◆ 시아버지 귀를 잡고 혼든 며느리 _338
- ◆ 말 안하려 했던 새며느리 _339
- ◆ 천석꾼 이야기 _340
- ◆ 신부의 한 _341
- ◆ 함안 조씨 사돈을 골탕먹인 울산 박씨 _342
- ◆ 홀아비끼리 장가 가기 _343
- ◆ 해장술 석 잔은 어쩔 수 없는 것 _345
- ◆ 방귀 잘 쀈는 며느리(1) _346
- ◆ 방귀 잘 쀈는 며느리(2) _347
- ◆ 사돈간의 상사풀이 _348
-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_349
- ◆ 지관의 세 아들 _350
- ◆ 어린 이완의 꾀 _353
- ◆ 성지가 지리를 통달한 연유 _355
- ◆ 명풍수 성거사 _357
- ◆ 성지가 잡아 준 명당터 _359
- ◆ 당장에 부자가 된 명당자리 _362
- ◆ 동래 정씨 시조 묘터 _364
- ◆ 담대한 아들에게 명당 운이 있다 _367
- ◆ 명당이 따로 없다 _369
- ◆ 삼두이십팔각산의 명당 _372
- ◆ 도깨비와 묘터 _374
- ◆ 정승 어머니의 묘를 옮기게 한 어린 아들의 기지 _376
- ◆ 한국 명지의 혈을 끊은 이여송 _378
- ◆ 추성못이 생긴 사연 _383
- ◆ 피난할 곳 _384
- ◆ 고시례의 유래 _385
- ◆ 웅천 주천자 _386
- ◆ 중국 황제가 된 수달피 손자 _394

- 이태조가 조선 왕이 된 사연 _395
- 조선 궁궐이 오좌로 앉게 된 내력 _397
- 성삼문 일화 _398
- 순임금이 용상을 떠난 사연 _400
- 진시황과 만리장성 _404
- 벼슬할 때를 예언한 점장이 _404
- 뒤바뀐 신랑 _407
- 신통한 점쟁이 최명가 _409
- 5대손의 생명을 구한 소강절 _411
- 앞일을 잘 맞히는 점장이 _413
- 여자 오줌을 맞고 득천을 못한 구령이 _414
- 큰 뱀은 사람 말을 알아 듣는다 (1) _416
- 큰 뱀은 사람 말을 알아 듣는다 (2) _417
- 뱀신랑 _418
- 구령 선비 _421
- 구령덩당 신선비 _423
- 초립동이를 살린 도사 _428
- 거짓말 이야기 내기로
예쁜 아내를 얻은 건달 _430
- 지붕의 이야기 _432
- 꾀쟁이 하인 지붕이 _435
- 재치있는 거짓말 잘 하는 지붕이 (1) _438
- 재치있는 거짓말 잘 하는 지붕이 (2) _440
- 두 사람의 게으름뱅이 _441
- 게으름뱅이 두 사람 _442
- 복만 있다고 잘사는 것은 아니다 _443
-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_444
- 최고운 선생의 신선주 _445
- 삼천갑자 동방삭의 죽음 _447
- 어리석은 인간들 _449
- 호랑 감투 _452
- 과부와 도깨비 _455
- 도깨비 다리 _456
- 도깨비 방망이 _459
- 지킴을 이용해 부자가 된 총각 _462
- 몽침이 귀신 물리치고 동료 살린 머슴 _464
- 사이좋은 형제가 얻은 금덩이 _467
- 운문사 오백 아홉 나한의 유래 _468
- 충청도 송림 부락이 양반촌이 된 내력 _470
- 보리밥 팔진미 _476
- 죽은 제자를 살린 황방촌 선생 _479
- 힘센 권장군 _482
- 축지법을 쓰는 왕선달 _485
- 죽은 나무를 싸움 붙인 왕선달 _486
- 가물치가 화해서 된 아이 _486
- 구령이가 화해서 된 아들 _488

◆ 우렁이 각시 _ 489

◆ 두꺼비의 보은 _ 490

◆ 두꺼비와 처녀 _ 492

◆ 소가 된 상좌 _ 494

◆ 소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총각의 복수 _ 495

◆ 돼지와 이가 환생하여 부부가 된 인연 _ 496

◆ 뽕뿌리에 쫓겨 간 호랑이 _ 499

◆ 통도사의 구룡 _ 500

◆ 모기와 두꺼비의 시험 _ 500

◆ 의붓어미 제비의 횡포 _ 501

◆ 뱀의 양갈음과 까치의 보은 _ 502

◆ 개와 고양이의 도움으로

다시 부자가 된 사람 _ 504

◆ 화엄경 덕분에 승천한 이무기 _ 509

◆ 용은 물이 있어야 힘을 쓴다 _ 510

◆ 이무기 이야기 _ 512

◆ 잉어의 보복으로 만들어진 못 _ 514

◆ 경기도 포천의 빈터 _ 515

◆ 황지의 장자뭇 _ 516

◆ 독자의 고통 _ 517

◆ 해인사의 창건 유래 _ 520

◆ 호랑이와 난쟁이 _ 521

◆ 호식으로 죽을 운명 _ 528

◆ 호식 당할 사람은 독에 들어가도 못 면한다 _ 529

◆ 수살로 죽을 운명은 벗어 날 수 없다 _ 531

◆ 맞아죽을 팔자 _ 533

◆ 범을 솔하게 잡은 이야기 _ 534

◆ 풍수의 범퇴치 처방 _ 535

◆ 노총각을 도운 호랑이 _ 536

◆ 호랑이 아가씨 _ 539

◆ 호원사의 창건 유래 _ 541

◆ 호랑이 스님 _ 544

◆ 늙은 호랑이와 토끼 _ 546

◆ 호식 당한 시체를 찾아 준 소금장수 _ 550

◆ 천년 묵은 여우를 잡은 정판수 _ 552

◆ 도사의 백여우 퇴치 _ 554

◆ 매구와 서당꾼 _ 557

◆ 여우 누이와 오빠 _ 559

◆ 여우로 태어난 딸 _ 562

◆ 불가사리 _ 564

◆ 서울나그네 _ 566

신화 神話



해와 달

The Sun and the Moon

옛날 옛날에 아들과 딸, 두 자식을 둔 나이든 여인이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품을 팔러 이웃 마을 부잣집에 갔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메밀범벅이 담긴 함지박을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서둘러 돌아왔다. 그런데 도중에 언덕을 지날 때 큰 호랑이를 만났다.

그 호랑이는 그녀의 길을 막고 커다란 빨간 입을 드러내며 말했다.

“할멈, 할멈!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무엇이나?” 늙은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다.

“이것 말인가요, 호랑이님? 이것은 오늘 부잣집에서 품삯으로 받은 메밀범벅이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말했다.

“할멈, 나에게 그것 하나를 주면 너를 안 잡아먹지.” 그래서 그녀는 호랑이에게 메밀범벅 하나를 주고 그 언덕을 통과 할 수 있었다.

그녀가 다음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 같은 질문을 했다.

“할멈, 할멈!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무엇이나?” 아까와는 다른 호랑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같은 대답을 했다.

“이것은 오늘 일한 부잣집에서 받은 메밀범벅이어요.” 그 호랑이는 같은 방법으로 메밀범벅을 요구했다. 그녀는 함지박에서 범벅 한 덩이를 꺼내어 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숲 속으로 사라졌다.

여러 번 같은 요구를 하며 호랑이가 나타났기에 그 여인은 함지박에 범벅이 없어질 때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어버렸다. 결국, 그녀는 빈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옆구리에 팔을 흔들며 걸어갔다. 그 후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서 범벅을 요구하자, 그녀는 말하기를

“당신 친구들이 모든 메밀범벅을 먹었기 때문에 내 함지박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함지박을 내다버렸다. 호랑이는

“네 옆에 흔들리는 것들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녀는

“이것은 내 왼팔과 오른팔이에요.”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만일 네가 팔 중에 하나를 내게 주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팔 하나를 주었지만 오래지 않아 호랑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서 위협을 반복하여 그녀는 다른 한쪽 팔을 주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범벅과 합지박과 양쪽 팔조차도 잃었지만 아직도 두 다리로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 탐욕스런 호랑이는 다시 그녀의 길을 막고 물었다.

“네 몸 아래 움직이는 그것은 무엇이나?”

“물론 제 다리지요.”라고 여인이 대답했다. 호랑이는 다소 야릇한 어조로 말했다. “오! 그러면 네 다리 하나를 내게 줘, 그렇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그 여인은 매우 화가 나서 불평하며 말했다.

“탐욕스런 짐승아! 네 친구들이 내 모든 범벅과 내 양 팔 또한 먹었어. 이제 네가 내 다리들을 원한다면 어떻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호랑이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요구만 고집했다.

“만일 내게 네 왼다리를 준다면, 너는 아직 네 오른다리로 쟁충 뿔 수 있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녀는 한쪽 다리를 잘라서 호랑이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향하여 한쪽 다리로 뛰면서갔다.

호랑이는 그녀에게 쫓아와서 다시 길을 막고 물었다.

“할멈, 할멈! 왜 그렇게 뽀박질하는가?” 그녀는 화나서 소리쳤다.

“이 악마야! 너는 내 모든 범벅과 양쪽 팔과 내 한쪽 다리를 먹었어. 그런데 만일 내 오른쪽 다리마저 잃어버린다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겠나?” 호랑이는

“너는 굴러갈 수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오른쪽 다리마저 잘라서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 호랑이는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와서 한 입에 그녀를 꿀떡 삼켜 버렸다.

그녀의 집에서는 두 자식이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밤이 새기까지 기다렸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들은 방바닥에 굶주린 채로 누웠지만 호랑이가 그들의 어머니를 돌아오는 길에 먹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교활한 호랑이는 그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는 하얀 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호랑이는 숨겨진 다리로 곧게 서서 여인의 집으로 걸어와서 문을 두드렸다.

“사랑스런 아이들아, 너희들이 매우 배가 고프겠구나. 문을 열어다오. 너희에게 줄 메밀 범벅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침에 나갈 때

“여기에는 호랑이들이 있으니 매우 조심하여라.”라고 한 말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자 호랑이는 목소리를 변조하여 대답했다.

“놀라지 마라. 엄마가 왔단다. 난 온종일 멍석 위에 말릴 보리를 펼쳐놓고, 그걸 먹기 위해 달려드는 참새들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크게 소리치느라 시간을 보냈단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약간 쉰 거란다.”

아이들은 미심쩍어서 다시 물었다.

“어머니, 그렇다면 팔을 문구멍으로 밀어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문구멍으로 앞발 하나를 넣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만져보고 말했다.

“어머니, 왜 팔이 그렇게 거칠고 털이 많나요?” 호랑이가 설명했다.

“나는 옷을 빨래하고 밥풀을 먹여서 뻣뻣하게 했단다. 그 일을 하느라 내 팔이 거칠게 되었단다.” 그때, 아이들은 문구멍을 통해 몰래 내다보고는 어둠 속에 호랑이가 있음을 알고 놀랐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들 사이로 숨었다.

호랑이는 잠시 동안 기다렸지만 안에서 더 이상 대답이 없어서 집으로 침입하여 아이들이 없음을 알았다. 호랑이는 분노하여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무섭게 으르렁거리다가 나무 밑의 오래된 우물까지 왔다. 그가 우물을 내려다보고 우물에 비친 두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호랑이는 일부러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반사된 모습을 건지려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불쌍한 아이들아. 우물에 빠졌구나. 나는 대나무 바구니나 풀 바구니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너희를 구하지?” 아이들은 나무 위에서 호랑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올라다보고 그들이 나무 높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들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그곳은 매우 위험하단다. 우물 속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꼭 너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지를 말해줘.” 아이들이 대답했다.

“이웃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서 나무 몸통에 바르고 올라오세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이웃집에 가서 참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두껍게 바르고 오르려 시도했다. 물론 기름 때문에 나무는 매우 미끄러웠다. 호랑이는 다시 물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매우 영리하구나, 그렇지? 너희는 정말 쉽게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갔구나. 진실을 말해주렴” 이때 아이들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웃에게 가서 도끼를 빌려 나무기둥의 허리를 찍어서 찍은 자리를 발로 딛고 올라오면 돼요.” 호랑이는 가서 이웃집에서 도끼를 빌려 나무를 찍어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아이들은 그들이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며 하느님께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간청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썩은 짚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고 빌었다.

동시에 튼튼한 쇠 동아줄이 천천히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없었다. 호랑이는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여 반대의 내용으로 기도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행에 대해 하느님이 처벌 내리실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만일 하느님이 나를 죽이기 원하신다면 제발 하늘로부터 쇠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며 호랑이는 썩은 짚 동아줄이 아닌 튼튼한 쇠 동아줄이 내려오길 원했다. 호랑이는 처벌로서, 그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똑바로, 그리고 기도에 직접 대답하여 살려주기를 기꺼이 응하면서 결국 썩은 쥘 동아줄을 내려 보냈다. 호랑이는 그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했으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이 쇠 동아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호랑이가 밧줄을 타고 약간 올랐을 때 줄은 끊어져서 수수밭으로 내동댕이쳐졌고 호랑이는 수수의 날카로운 줄기에 몸이 찢려서 죽었다. 그날 이후로 수수밭의 수숫대가 피로 물들어 빨간색으로 덮여졌다고 전해진다.

두 아이는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며 어느 날 천국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든 여기 앉아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무를 주기로 결정했다. 소년은 태양이 되어 인간세계에 빛을 보내고, 소녀는 달이 되어 밤을 빛나게 하라.” 소녀는 대답하되,

“왕이시여, 저는 밤과 친숙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 그녀를 태양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오빠는 달이 되게 하였다.

그녀가 태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늘의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한 소녀였기에, 크게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그녀는 더더욱 밝게 빛나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 해졌다. 이것이 태양이 그렇게 밝은 이유이며 그녀의 여성스러운 겸손함은 영원히 칭송받았다.

[『한국의 설화』, 오화수吳和壽, 언양彦陽, 1911, 단국대학교출판부]

불개

The Fire Dogs

하늘 아래 세상에 나라가 많은 것처럼 하늘에도 나라가 많이 있다. 그 중에 암흑의 나라 즉, 가막나라(까망나라)라 불리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백성들은 사나운 개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다. 그 개들은 불개로 알려져 있었다. 그 나라의 임금도 무엇보다도 나라가 너무 어두운 것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그의 개들을 인간세상의 해와 달을 훔쳐오라고 보냈다.

아주 옛날에 임금은 그의 개들 중에서 가장 사나운 불개를 불러 해를 훔쳐 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불개는 떠나서 해를 입으로 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뜨거웠다. 계속해서 달려들어 해를 물고 또 물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고,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임금은 실패한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내고 개를 마구 꾸짖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나운 개에게 시켜 달을 훔쳐 오라고 했다. 임금은 달이 해만큼 뜨겁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달은 해만큼 많이 빛나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개가 달을 물려고 할 때, 그것은 너무 차가워서 입이 얼어버렸다. 개는 반복해서 이빨로 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개도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암흑나라의 왕은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종종 그의 불개들을 보내지만, 결국은 항상 실패 했다.

일식과 월식은 암흑나라에서 온 불개들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불개들이 해와 달을 무는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 우리는 일식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눈부시게 밝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야의 물에 해가 반사되어 검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월식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물의 검은 표면에서 불개가 해를 물고 또다시 그것을 내뱉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의 설화', 정택하鄭宅夏, 언양彦陽, 1912, 단국대학교출판부]

사람의 조상인 밤나무 아들 울범이

호랭이가 담배 쫓는다는 그 시절에 이야긴데.

처녀가 저 밭에 오줌을 이고 밭에 가이까네¹ 소변이 보고 쫓거등. 그래 밤나무 밑에 가가지고 오줌을 뛴어. 오줌을 누이까네(누니까) 이기 잉태가 났는 기라.

그래 배가 불러가지고 아아로 열 달로 배슬러가² 낳았는데, 부모한테 서림 받는 것은 물론 자식도 저거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서림을 받는 기라.

아아로 낳아 났으이까네 부모한테도 몬 살고, 따로 오두막집으로 방을 하나 얻엇던동 오두막집을 하나 지앗던동 이래가지고 따로 사는데,

인자 아아가 커 가면서 서당아 가이까네 서당 친구들이 ‘이거 애비도 없는 기 이거 뭐...’ 군지렁거리고 구박을 주고 서림을 주는 기라.

그것도 하 문 듣고 두 번 듣고 그래 썩이까네, 암만 선인善人이라도 여러 번 들으면 골도 나고 썩기도 하고 하지. 나이 여남 살이나 묵엇는데, ‘내가 오늘은 엄매한테 가가지고 함 물어 보고 갈리야 되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저검매³인테 와가 물엇어.

물으니까네 마 없다 캐. 그래 그저 물어가지고는 마 안 갈(가르쳐) 줘.

‘에 이놈우 거, 은 지녀어는⁴ 내가 내일은 담판을 해야 되겠다.’고 정지에 가 칼로 새파랑이 갈아가지고 딱 안에다 품고 그래 와가지고,

“엄마,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이까네, 아버지가 어디 가가 있노? 갈 도고⁵. 오늘 만약에 안 갈 줘다 카며 나는 이 칼에 죽는다.” 이래 대기 달드이까네 저검마도 겁이 나거등.

1. 거름할 오줌통을 이고 밭에 가니

2. 배어서

3. 자기 어머니

4. 저녁에는

5. 가르쳐 다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다. 아버지가 저 밭에 서가 있는 밤나무가 너저 아버지다. 내가 시집을 안 가고, 오줌을 이고 채소밭에 가가 주고 소변이 보고 싶어서르 밤나무 밑에 가여 오줌을 누나이까네, 그래가지고 니가 생겼는데, 아매 거어 밤이 너저 아버지잡다.” 그래 툇 이야기하거등.

“그래, 그러머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 물어 봐야지.”

그래서 밤나무한테 가가지고 왼발로 탁 굴리민설랑,

“아버지요!” 카이까네 암말도 안 하거등. 또 탁 굴리고 ‘아버지요’꼬 부르이까네 또 암말도 안 하거등. 세 번을 굴리고설랑 세 번을 부르이까네 그제야 밤이 떨떨 떨미, 울땀이, 밤나무 밑에 났다고 아아 이름을 울땀이라고 지었거등.

“울땀이가?”고 이래 밤나무가 말로 허거등.

‘하, 그래 아버지가 확실히 맞구나.’ 그래 마음에 들었거등.

“아버지, 그러머 내가 집에 가겠습니더.”카고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 맞더라.” 저저 엄마한테 이야기로 떡 하고 이튿날 서당아 가서

“야, 이니리 아아들아, 나도 아버지 있다.”

“니가 아버지 어딴노?” 아이들이 이카이⁶,

“그래 가자. 우리 아버지 가 보자.”

“그래 어딴노?”

밤나무를 가리키미,

“이기 우리 아버지다.” 카거등.

“이저 미친 녀 아이가? 우애 그 너저 아버지고?” 이래 썩거등. 그카기나 말기나 아버지라고 믿고 서당아 가며,

“아버지, 서당아 갑니더.” 갔다오며 또,

“아버지, 서당아 갔다 왔습니더.” 이래 인사를 떡 하는데, 하리는 서당아 갔다 와가지고,

6. 이렇게 말하니

“서당에 갔다 왔습니더.”

“그래, 잘 갔다 왔다. 그런데, 니가 내일이는 서당아 가지 말고 내인테 와가지고 하리 놀아야 되겠다. 내인테 오나라.”

“그라지요.”

그래 그 이튿날 책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밤에 가이까네 올라오라 컨다, 높우게 자꾸 만댕이⁷ 올라라 카는 기라. 만댕이 떡 올라 앉으니,

“가만이 있거래이.”

“알겠습니더.”

그래가 마 개복開闢이 돼가, 천지가 해일로 해가지고 물이 마 짹 채있다. 해일로 해가 천지에 다 덮어뿌고, 마 바다가 덮어 저 육지가 마 바다가 돼뿌거등.

그러이까 밤나무가 바다에 동 떠는 기라. 동 떠가지고 살살 떠내리 가는데, 천지가 다 물바다가 돼뽐으이까네 짐승이고 사람이고 마 다 죽거등. 다 죽어뿌고 없는데, 돼지 하나가 떠내리 오면설랑,

“아이구, 올범아, 날 좀 살리 줄 곁으며 니 은혜로 내 하꺼마.”

“아버지, 이거 건지 주까요?” 이카이,

“좋지.” 그래 건져 줬다.

또 좀 떠내리가다 나이까네 개미가 다리가 짤룩짤룩 절민서 가다가,

“아이구, 올범아, 날 좀 건지 주며 니 은혜로 내 하꺼마.”

“아버지, 건지 주까요?”

그래 또 건져 줬다. 저쪽에 보이까 개미 뭉티기가 봉태기띠기만땅⁸ 뭉치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떠내리 오거등.

또 좀 내리가다가 나이까네 또 학이 말이지, 황새가 말이지 날라 와가지고, 대로 찌와가⁹ 늪히갓고 이래가 떠니러 오디마는, 한 바리 날라 와가지고,

7. 꼭대기

8. 소쿠리만큼

9. 대나무를 찌 와서

“하이고, 올범아, 올범아, 날 좀 살리 줄 겐으마 니 은혜를 꼭 하꺼마,”

“아버지, 구해 주까요?”

“구해 주라.” 카저등. 그래 구해 줬다.

그라이까 밤에다가 인자 개미 뭉티기하고, 황새하고, 돼지하고 이래 인자 건지냈다. 또 좀 더 내리가이까네 머구가 귀에 대 놓고,

“아이구, 올범아, 올범아, 날 좀 살리 주머 니 은혜를 하꺼마.” 카저등.

그래 가디마는 머구떼가 말이지 뭉티기 마 봉태기떠기 만땅 뭉치가 찾아와서 그래 또 건지 주고. 그러구려 내리가이까네 똑 지 만한 소년 아아가,

“하이구, 올범아, 올범아, 날 좀 구해 주머 니 은혜를 내 하꺼마.”

“아버지, 저 좀 구해 주까요?” 암 말도 안 하거등.

“아버지, 저 아무 아아가 하나 떠내리 가갖고 죽는다고 그래 구해 돌라 카는데 구해 주까요?” 카이까 또 아무 말도 안 하거등.

지 맘에는 사람이 통 없으이 동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저 건지 주입시더.”

“몰라, 니 맘대로 해라.”

그래 하도 인생이 불쌍하고, 그 동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건지 줬다. 살살 떠내리갔는데 어느 언덕에다가 앉으이까네 물이 마 살 빠지뿌거등. 그래 앉으니 올범이 저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천지가 개복이 돼가지고 인간이라고는 없는데, 너거가 요오서 요오 등 너머 넘어 가면 거어 사람이 한 가구 살고 있다. 거게 너거 가가지고 몸으로 의탁을 하고 살아라.”

그래가 거어 가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주인 계시는교?” 카이까네 주인이 나왔거등.

“아이구, 우리가 여어 와가지고 불 심부름이라도 하고 여계 좀 살도록 하머 시키는 대로 하겠읍니다.” 그래가 그 집에 들어가 보이까네 처녀가 두 날이 딱 있는데, 하나는 처녀 몸종이고, 하나는 그 집 딸이거등.

그 집에서도 천지가 개복이 되가 인간이 다 전멸되고 없으니 이거로 사우로 보고, 저거

중으 딸이라도 저것도 하나 성립시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총각이 두 날 생겼으니까네 저 거로 씨로 퍼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는 거로 사우로 봐야 될둥, 인물으는 건지 준 가아가 낫고, 마음으는 올범이가 낫거등. 그래 주인이 어는 거로 사우로 봐야 되겠다는 결정을 몬 하는 기라.

딸내미도 커가지고 인자 과년하고 인자 출가도 해야 되겠고 우애 생각하이까네 잘난 거 저거로 보며 싶우고, 우애 보이까네 착한 아아 야아로 사우로 하며 싶우고 이래가 생각하고 있는 판에, 하루는,

“내가 너거 둘이로 사우로 택해야 되겠는데, 누가 내 사우로 할 둥 내가 아직까지 판단을 몬 했으니까 오늘 내가 너거 시험을 함 보겠다. 어떻게 하는고 아이라, 저쪽에 가며 큰 묵쟁이 말이지 너리편편한¹⁰ 데가 있는데, 저어 가가지고 반半을 딱 대 놓고 너거가 팔발으로 누가 머이 띠지 놓고¹¹ 오며 내가 사우로 보꾸마.” 이래 되이까네,

그래 둘이 켁이로(깡이를) 가져 가가지고 띠지는데, 연들아, 암만 캐도 힘이 당적當敵을 몬 해가지고 머이 몬 띠지고 저기 마 머이 띠지거등. 이기 마 할 수 없어 기가 차가 마 앓아가 운다. 우이까네 어데서 난데없는 돼지가 한 마리 뛰오디마는,

“올범아, 니 와 우노?”

“하이구 저, 이 팔발으로 머이 띠지 놓고 오며 사우로 본다 카는데, 그래 나는 암만 띠지도 안 되고 마 답답아 앓아가 운다.” 이카이까네,

“그까짓 거 뭐.”

가디마는 돼지가 마 팔발을 마 머이 띠지뻘어.

“발을 우애 했노?” 카이까네 그래,

“내가 머이 띠졌습니다.”

“그래, 잘 했다.”

그래도 자꾸 마음에는 참하게 생긴 고거로 사우로 보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등. 그렇건데

10. 넓은 묵발이 있는

11. 먼저 파놓고

자꾸 시험을 보지. 그래가,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말이지 좁쌀로 한 말을 줄 모양이니까네, 너거가 가져가가지고 머이 흘쳐 놓고 오며 내 사우로 본다.”

그래가 좁쌀로 떡 한 말로 주는데 그놈 가져 가가지고, 이거 올범이는 한 오큼(옴큼) 흘치는데 저거 두 오큼씩 흘는 기라. 암만 흘치도 안 되거등. 그래 마 또 앉아 우이까네 황새가 한 마리 횡 날라 오디마는,

“니 와 우노?” 이카거등.

“이거로 다 머이 흘쳐 놓고 오며 사우로 본다 카는데, 내가 흘쳐 보이 나는 마 옹기 몬 흘고 안 돼가지고 그래 내가 앉아 운다.” 카이까네,

“아, 조금 기다리라.”

어데 가디 황새가 마 한 빠까리¹² 떡 날라 오디마는 거어 부우 뵈거등. 날감지¹³에 부우가지고 마 혹 엎어가지고 땡기미 날라가 펄럭거리거등. 그래가 퍼뜩 다 흘치뵈거등.

집에 떡 가이까네,

“우애 뵈노?” 하이까네,

“내가 머이 흘쳤습니더.”

“그래, 오늘으는 너거가 좁쌀로 한 말로 머이 흘쳐 놓고 했으이까네, 내일은 내가 가마이로 하나 줄 모양이니까네, 그거 조아 담아 와야 되겠다. 누가 머이 조아 담아 가지고 짹어지고 오며 내 참말로 사우 본다.”

“그래요?”

그래 올범이가 떡 쫘는데, 하나 조아가지고 두 나 조아가지고 하는데, 저 념은 하나 하나 자꾸 조아가지고 아이구 마, 또 안 되겠거등.

또 앞아가 우이까네 개미가 다리가 뿔라져가 달래달래 오디마는,

“올범아, 니 와 우노?” 카거등.

12. 무더기

13. 날개

“아이구, 이거로 갖다가 머이 조아다가 오면 사우로 본다 캐가지고, 그래 나는 암만 조아도 하나 조아 두 개 조알라 캐도 그래 몬 조아가 그래 내가 운다.” 카이까네, 어데 가디마는 개미 뭉티기가 봉태기띠기만땅한 기 구불어 오디마는,

“담아 열어라.” 카저등.

이기 마 밭에 까망이 퍼지가지고 또 물고 들오는기라. 물고 떡 들와가 다 담았다 카저등. 그래가 마 집에 떡 가 머이 조아 왔다 카이까네,

“함 시알라(세어) 보자.” 카저등.

그 주인이 시알라이까 하나가 없다 카는 기라. 하나가 없다 캐가지고 한 알 마저 가지러 간다고 다마라(달려) 내려가이까 조거는 다 조아가 올라오거등. 조금 가이까 개미가 다리가 빨라지가 달래달래 절미,

“아이구, 올범아, 나는 다리가 아파 새기 몬 오고 인자 온다.” 캄시르 하나 티아가지고 오거등. 그래 또 받아가지고 가이까네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마 해가지고, 그 이튿날 말이지 처녀로 두 날으로 화장을 똑 같이 하고, 의복을 똑 같이 입히고 딱 시아 놓고설랑,

“누라도 내 딸 알아내며 내 사우 한다.” 이라저등.

그래 어는 기 주인 딸인동 어는 기 중으 딸인등 도저히 몰라. 그래서 낸중에¹⁴ 있으이까네 머구가 한 마리 횡 날라 오디마는 귀에 딱 대고서는,

“올범아, 올범아, 위로 위로.” 카저등. 머구가 날가미 터는 소리가 그래,

위로 딱 가리키니 그기 마 그 집 딸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 사우가 됐는데, 짐승으는 구제를 하이까네 다 은혜를 하는데, 그래 인간으는 양물¹⁵을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 그 올범이 저거 아버지가 ‘아아는 이거 건지 주까요?’ 카이까네 대답을 안 하고 ‘니 맘대로 하라며. 내가 아나?’ 카더라 카는 기라. 그래 거어서 씨가 퍼지가지고 사람이 이마 이 퍼졌다 까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원관, 언양면, 1984]

14. 나중에

15. 양값음

구미호와 여의주

The Jewel of the Fox's Tongue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커다란 서당이 있었다. 이 서당에는 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녔는데, 이들은 주로 밤에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였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다함께 모여 큰 방에서 잠을 자곤 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아이들은 가장 나이 어린 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7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다. 친구들의 우렁차게 코고는 소리 가운데에서 희미하지만 똑똑히 들려오는 아이들의 신발을 세는 여자목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백까지.

그러자 한 아름다운 소녀가 창문을 열고 들어와 방을 기어 다니는 것이었다. 아이는 굉장히 놀라서 방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소리 없이 기어갔다. 그곳에서 문간에서부터 학생들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입을 맞추었다. 기이하게도 소녀가 입을 맞추자, 아이들은 숨을 멈추며 죽었다.

소녀가 아이가 숨어있는 곳 가까이로 오자, 아이는 맞은편으로 기어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이 딱딱하게 굳어 차갑게 식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죽은 아이들 틈에 끼어 두려움과 공포로 오들오들 떨면서 누워 있었다.

소녀는 마지막 아이까지 세고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흔 아홉 명이야! 한 명이 없잖아. 이상해.” 소녀는 밖으로 나가 다시 신발 수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백” 소녀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꿔가며 맞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다시 수를 세었다. “정확하게 백인데. 아이들의 수를 다시 세어봐야겠어!” 그러나 다시 세어보아도 아이가 소녀를 피해 도망 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아흔 아홉 명이었다. 결국 소녀는 포기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명만 더 찾으면 백 명인데, 그러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한 명이 모자라. 어떻게 하지?” 갑자기 어디선가 수탉이 울어댔다.

“아, 이제 가야만 해.” 소녀가 울부짖으며 들판으로 뛰어나갔다.

아이는 어린 나이인데도 매우 용감했다. 소녀가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 뒤를 쫓았던 것이다. 소녀는 마을 주변의 산에 있는 무덤 쪽으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리고 큰 바위 뒤로 사라졌다.

아이가 마을을 향해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소녀가 아이의 앞에 나타나 그를 바위 뒤로 끌고 갔다. 아이를 잡은 소녀는 매우 기뻐 보였다. 소녀는 아이를 무릎 쪽으로 당기며, 친절하게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이는 앉아서 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며 바라보았다. 소녀의 옷은 단정하거나 깨끗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빼어난 용모였다.

“넌 누구냐?” 아이가 물었으나, 소녀는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녀는 아이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자 아이는 소녀가 진짜 여자가 아니고, 아마 도깨비나 여우일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소녀의 입맞춤으로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며, 입맞춤을 피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소녀는 구슬을 자신의 입에서 아이의 입으로 굴려 보내고 다시 빨아들이며,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 질 때까지 이를 반복했다. 소녀는 아이의 기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아이는 오래된 속신 하나를 생각해냈다.

“사람이 여우의 구슬을 삼키게 되었을 때, 구슬이 녹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될 것이요, 땅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를 생각하고는, 구슬이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삼키고 땅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아이는 처음에는 하늘을 본 뒤 땅을 보려 했지만, 깜짝 놀란 소녀가 아이의 턱을 눌러 구슬을 다시 꺼내려 했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아이는 누구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소녀는 재빠르게 사라졌다. 새벽이 가까워졌으나 날은 아직도 어두웠다. 아무도 지나는 이가 없었다. 아이는 정신을 잃고 기절하여 바닥에 누웠다.

아침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모는 매우 놀랐다. 다른 아흔 아홉 명의 아이들이 죽었으나,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산의 무덤가에 있는 여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아이는 땅의 모든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창과 화살을 들고 아이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무덤가를 둘러싸고 여우를 찾아 헤맸다. 아이는 전날 밤, 자신이 밤에 왔었던 바위를 확인해 보라고 마을사람들에게 말했다. 갑자기 바위 뒤에 있는 동굴에서 여자 옷을 입은 구미호가 뛰어 나왔다. 마을사람들은 즉시 구미호를 죽였다. 그리고 동굴에서 여자 옷한 무더기를 찾아냈다. 동굴에는 무덤가의 지하로 통하는 땅굴이 있어서 구미호는 무덤속의 시체들을 파먹을 수 있었으며, 여자들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는 어여쁜 소녀로 변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얻게 되었으나, 하늘의 지혜는 얻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의 설화』, 정영하鄭英夏, 언양彦陽, 1913, 단국대학교출판부]

파

Onions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에 사람이 사람을 먹곤 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인간이 종종 소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잡아먹기 위해 죽였던 것이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가 떠돌다가 만난 문둥병자가 그에게 방랑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 끔찍한 곳이 싫소. 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가는 길ियो.” 문둥병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찾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나 똑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충고하오.” 그때 나그네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돌아 갈 수 없소. 만약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문둥병자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은 당신은 파를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파를 먹는다면 이전에 황소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집에 다다르자마자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명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들 하시오, 참으로 오랜만ियो.” 그때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이 황소의 울음소리는 매우 희한한데.” 그리고 바로 그를 붙들었다. 그는 매우 놀라서 말했다.

“안돼! 난 황소가 아니야. 난 당신들의 친구고 내 이름은...” 하지만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에게 말했다.

“이 황소는 너무 운단말야. 시끄럽지 않아? 당장 죽이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그를 말뚝에 댔다.

마침 그때 머리위에 광주리 가득 과를 인 어린 여자아이가 지나갔다. 그는 애써 용케 과 하나를 가로채어 삼켰다. 그는 과를 먹는 즉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당신이로군. 우리의 친구 참으로 미안하구려. 우리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소.”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과의 힘에 대해 말했고 그것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날로부터 사람들은 과를 먹기 시작했고 그 후로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잡아먹지 않도록 과재배가 장려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설화』, 정영하鄭英夏, 언양彦陽, 1915, 단국대학교출판부]

선녀와 나무꾼

The Heavenly Maiden and the Woodcutter

옛날 옛적에 금강산 기슭 가까이 강원도 북쪽에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너무 가난해 생계를 위해 매일 산에서 땔나무를 하여 그것을 이웃에 팔았다. 그와 같은 또래의 다른 총각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그는 너무 가난해 색시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불평으로 투덜대거나 하지 않고 매우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지 않을 날은 있어도 산에서 그의 도끼소리를 듣지 못할 날은 절대로 없을 거야.”라고 늘 말하곤 했다.

어느 날 그가 어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낙엽위로 그를 향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일을 멈추었다.

그는 겁에 질린 어린사슴이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사슴이 그에게 다다르자 위험에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다.

그는 측은해서 즉시 사슴을 나무더미 속으로 숨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사냥꾼이 험뎡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쫓고 있던 사슴이 이쪽으로 달아났는데 못 보았소?” 건장한 사냥꾼이 나무꾼 앞에 서서 손에 화살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산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무사이와 가파른 경사에 추적 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무꾼은 그를 보며

“네, 보았지요. 사슴이 빠르게 달려와서 저쪽 골짜기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냥꾼은 지체 없이 산골짜기로 서둘러갔다.

그러자 어린사슴이 숨어있던 나무더미 속에서 나와 숨을 죽인 채 나무꾼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당신은 죽음의 위협에서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당신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

시 전에 금강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 있는 연못에 가서 물가의 덩불 사이로 숨으세요. 그러면 8명의 선녀가 목욕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선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물가 소나무에 그들의 속옷을 걸쳐둘 거예요. 그러면 들키지 않도록 몰래 속옷 하나를 숨기세요. 그리하면 목욕을 다한 선녀들 중 한 명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에게 가서 그녀를 맞이하면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당신은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고, 아이들도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선녀 속옷을 돌려주면 안돼요.” 이렇게 말한 사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총각은 그 말에 너무 기뻐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금강산 정상에 올랐다. 그곳에는 여덟 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금강산은 너무 아름다웠다. 일상의 번잡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일찍부터 신성시하여 큰 사찰이 지어져 있었다. 가파른 정상이 파란 하늘로 솟구쳐 있고,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자란 나무들이 일광이 거의 비추지 않는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골짜기 바위 사이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흘렀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연못과 폭포가 있었고 동물 울음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의 아름다운 선율이 있었다.

총각은 덩불 사이로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갑자기 하늘 모퉁이에서 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여덟 선녀가 무지개가 끝나는 곳인 호수로 내려왔다. 그들은 즐겁게 재잘거리며 모두 같이 옷을 벗어 소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는 여덟 개의 호수 중 하나의 맑은 물에 각자 뛰어들었다. 선녀들은 물에서 별거벗은 채 흥겹게 놀고 있었으므로 나무꾼은 그 아름다움에 홀려 유심히 보고 있었다. 얼마 있어 그는 제정신이 돌아와 사슴이 해준 충고를 떠올렸다. 그는 살금살금 기어가 몰래 선녀의 옷이 걸린 소나무에서 막내 선녀의 속옷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훔쳤다.

해질녘 선녀들은 하늘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지만 깜짝 놀란 막내 선녀는 속옷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선녀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막내 선녀만 남았다. 이상히 여기며 옷을 찾고 있던 선녀가 앞에서 있는 젊은 나무꾼을 보았을 때 그녀는 무척 당황했다.

어두워지자 총각은 그렇게 된 데에 대해 선녀에게 한없이 사죄하고 용서해 줄 것을 빌었

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처음에는 선녀는 세상의 관습에 매우 혼란스러워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살림살이를 잘 하게 되었다. 행복한 세월이 지나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젊은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한 기뻐했다. 선녀부인은 매우 만족해 보였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았다. 그들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느 날 아내가 선녀옷을 돌려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했다.

“나는 두 아이를 낳아 주었어요. 지금도 나를 믿을 수 없나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각각 한 팔씩 아이들을 껴안고 떠날까봐 두려워 거절했다.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다시 선녀 옷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술로 그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에게는 지금 세 아이가 있어요. 제발 나의 선녀옷을 보여주세요. 나는 도저히 당신을 배반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동정심이 생겨 오랫동안 숨겨왔던 선녀옷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아, 불쌍한지고! 그녀가 옷들을 입자 다시 신비한 힘을 얻어 각각의 두 팔과 다리 사이에 하나씩 아이들을 끼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나무꾼은 사슴의 충고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는 전에 보았던 사슴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며 같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운 좋게 사슴이 그 길을 지나가자 그는 사슴에게 자기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슴이 그에게 말했다.

“나무꾼님이 선녀들의 옷을 감춘 후로는 아무도 목욕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나무꾼님이 선녀님과 아이들을 찾기 바란다면 당신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다행히도 그 길이 있어요. 내일 그때 그 연못으로 가서 하늘에서 두레박이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이 내려와 호수에 닿게 될 거예요. 나무꾼님은 그것을 꼭 붙잡고 빨리 물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곳에 타세요. 그들은 당신이 탄줄 모르고 그것이 다 차면 즉시 올릴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하늘에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슴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나무꾼은 그 충고에 따라 하늘로 갈 수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선녀들이 말했다.

“이 냄새는 사람 냄새 같아.” 그리고 두레박에서 그를 발견하고 왜왔는지 물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옥황상제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옥황상제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왕은 그에게 머무르도록 하였고 그는 천국에서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매일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고,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그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남아있는 어머니가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한 번만 다시 어머니에게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만약 어머니에게 간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완강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그의 간청에 못 이겨 말했다.

“용마를 드릴게요. 용마를 타면 용마가 눈 깜짝 할 사이에 땅으로 태워다 줄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리면 안돼요. 만약 당신의 발이 한 발자국이라도 땅에 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요.”

나무꾼은 용마에 올라탔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안 없었던 아들을 다시 보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다. 그는 용마에 올라탄 채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올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호박죽을 만들었다. 부디 한 그릇만 먹으렴.”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그릇을 받았다. 하지만 그릇이 너무 뜨거워서 말의 등에 떨어뜨렸다. 말은 깜짝 놀라 난폭하게 뒷발로 일어서 그를 땅으로 내팽개쳤다. 용마는 큰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나무꾼은 다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고 매일 하늘을 향해 서서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는 큰 슬픔으로 죽었고, 죽어서 그는 수탉이 되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수탉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목을 쭉 뻗고 우는 것은 나무꾼의 혼이 수탉에게 들어가서이고 수탉이 가장 높은 곳을 쳐다 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라고 한다.

고양이와 개

The Cat and the Dog

옛날 옛적, 바닷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았다.

어느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힘없이 낚싯줄을 봤을 때였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물고기가 걸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끌어 올려보니, 그 물고기는 잉어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잉어는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놓아 달라고 부탁 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신령스런 잉어라 생각하고는 풀어 주었다. 잉어는 수차례 감사하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보고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같은 장소에 낚시를 하러 갔다. 잠시 후, 밀짚모자를 쓴 아이가 나타났다.

“저는 바다 속의 용왕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아이는 양손을 들어 올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가 어제 왕자님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 할아버지를 용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아이는 바다를 향해서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파도가 갈라지면서 넓다란 길이 나타났다. 아이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도 뒤따라 걸었다. 둘은 바다 속 깊은 곳까지 걸어가, 마침내 거대한 용궁에 다다랐다. 문 앞에는 훌륭한 옷을 입은 하인들이 있었다. 문을 지나 길을 따라 가면서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건물들이 옆으로 즐비했다. 이윽고 그들은 가장 호화로운 건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빛이 나는 옷을 입고 황금 왕관을 쓴 매우 위엄 있는 노인이 할아버지에게 인

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분이 용왕님일 거라고 생각했다. 용왕님은 서둘러 할아버지 앞으로 와서 인사하며

“용궁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기다리고 있었소.”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용궁에서 귀한 손님으로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맛있는 음식들로 꾸며진 풍성한 진수성찬을 대접받았다. 용궁에서는 언제나 온갖 보석으로 감싼 악기로 연주되는 훌륭한 음악 선율이 흘렀고, 선녀 같은 소녀들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그간의 인간세상에서의 피로를 잊은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마침내 오두막집에 홀로 남아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용왕님에게 가서 집으로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용왕님은 할아버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청을 들어주었다.

떠나는 날 아침, 왕자님은 할아버지에게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선물을 드릴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시면, 옥좌 옆 보석함 속에 있는 쇠뿔박을 갖고 싶다고 말하세요. 쇠뿔박은 용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쇠뿔박에게 말하면 바로 갖다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용왕님이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왕자님이 일러준 대로 쇠뿔박을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용왕님은 매우 당황했다.

“그것은 줄 수 없는 것이요. 다른 것이라면 무엇이든 드리리다.” 그러자 옥좌 옆에 있던 왕자님이

“아버님, 할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쇠뿔박 중 무엇이 더 소중한신가요? 할아버지에게 쇠뿔박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쇠뿔박을 선물하며

“잘 가시오, 운명의 여신이 언제나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쇠뿔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쇠뿔박의 비밀을 알려 주었고, 둘은 곧 쇠뿔박에게 초가집 대신 더 좋은 집을 달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초가집은 기와지붕이 덮인 으리으리한 집이 되었다.

다음에는 쇠뿔박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쇠뿔박에는 언제나 쌀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홀로 집에 있을 때였다. 마을에 사는 마음씨 고약한 가게 주인인 노파가 강을 건너와서 할머니에게 보석을 사라고 했다. 노파는 “돈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 “쌀로 내구려. 할멈이 항상 쌀이 가득 차게 하는 쇠뿔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할멈도 알겠지만 이 세상에 비밀은 없지. 당신도 알거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 말이요. 그런 놀라운 쇠뿔박이 있다니, 할멈은 정말 운이 좋구려.”

순진한 할머니는 보석 하나를 고른 뒤, 할아버지와 정했던 비밀 장소에 숨겨 둔 쇠뿔박을 꺼내 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노파에게 줄 만큼의 쌀을 꺼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도둑이 들어 쇠뿔박을 훔쳐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게 주인인 노파를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매우 슬퍼하며 할머니의 어리석음을 나무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운이 점차 다해서 결국 그들은 매우 가난해졌다. 너무 가난하여 급기야는 사랑하는 고양이와 개에게 먹이를 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양이와 개는 매우 가난해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 쇠뿔박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개와 고양이는 심술궂은 노파가 강을 가로질러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둘은 그 뒤를 따라가서, 노파가 매일 산 속에 있는 큰 집을 들락날락하며 쌀을 훔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집은 심술궂은 노파의 친척인 이름난 도둑의 집이었다.

어느 날 저녁 고양이와 개는 대문을 지나 조심스럽게 걸어가 마당 뒤에 있는 커다란 돌 창고를 찾아냈다. 둘은 도둑이 쌀자루를 가지고 나온 뒤,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는 쇠뿔박이 틀림없이 창고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개는 마당을 감시하고 고양이는 창고에 사는 쥐에게 임금 쥐가 있는 곳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임금 쥐가 오자, 고양이는

“쇠뿔박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임금 쥐는

“네, 창고 안, 단단한 돌 상자에 들어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임금 쥐에게 쇠뿔박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내게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릴 테다.”

임금 쥐는 수많은 부하 쥐들을 불러 모아 일을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무리는 송곳니 장군의 지휘 하에 다른 무리는 톱니 장군의 지휘 하에 놓아, 두 부대로 나누었다. 쥐들은 평소에 사용하던 구멍을 통해 어려움 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잠겨있는 돌 상자를 부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군대 전체가 밤새 전력을 다해 이빨로 갈아서 조각내고 톱질을 했다. 몇몇은 고된 일 때문에 힘을 못 썼고, 입에서 피를 뱉으며 죽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상자를 부수는데 성공하여, 새벽이 오기 전에 고양이에게 쇠뿔박을 바쳤다. 고양이는 쇠뿔박을 고맙게 받고나서 개와 함께 집으로 갈 채비를 했다.

강에 다다라 고양이는 입에 쇠뿔박을 물고 개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개는 고양이를 태우고 강을 가로질러 헤엄쳤다. 하지만 개는 쇠뿔박이 안전한지 걱정되어 고양이에게 물었다.

“쇠뿔박은 잘 가지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대답하지 않자 개는 다시 물었으나, 서너 번을 물어도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는 움직임을 멈추고,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야?” 이때 고양이가 대답했다.

“가지고 있다 고!” 그러나 고양이가 입을 열면서 그만 쇠뿔박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강기슭에 도착하자 개는 자신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 부끄러워 꼬리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집으로 갔다. 그러나 고양이는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어부가 그물에서 죽은 물고기를 찾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고양이는 죽은 물고기를 입에 물고 집에 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주었다.

할머니는 물고기의 배를 가르다가, 그 속에 있는 쇠뿔박을 찾아냈다. 물고기는 쇠뿔박을 삼켜서 죽은 것이었다. 쇠뿔박을 찾아온 덕분에, 그 후로 고양이는 주인의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어리석은 개는 밖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로 인해 둘은 지금까지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노려보고 으르렁거린다.

우렁각시

The Mud-Snail Fairy

옛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초가집에 가난한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로서 매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때와 같이 메마른 땅을 파면서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서른 살이 넘었고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 슬프게 한탄했다.

“내가 밭을 갈고는 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살아줄까?” 그러자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함께 살지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시 말하자 여자는 또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 번째 말하자 여자의 같은 대답이 또 들려왔다. 목소리는 땅의 특정한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곳을 파보았다. 땅에 묻혀있는 것을 찾고 보니 큰 우렁이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부엌 구석에 그것을 놓아두었다.

그가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작은 상에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어서 무척 놀랐다. 그는 감사히 먹고는 도대체 세상에 누가 와서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준 것일까 하고 의아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루 종일 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다. 해가 저물어 그가 집에 돌아오자 또 다시 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맛있는 놀라운 것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친절에 기뻐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은인이 과연 누구인지 찾아내길 원했다.

밤이 되자 그는 몸을 숨기고 부엌을 지켜보았다. 이른 아침 그는 우렁이가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침상을 차리고 다시 우렁이 껍질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셋째 날 아침, 그는 그녀가 다시 우렁이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손을 붙들었다.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아요.”라고 그는 우렁각시에게 애원했다. 그러자

“저는 하늘에서 온 선녀입니다.”라고 말하고는

“그러나 하늘에서 누명을 써 옥황상제께서 저를 인간세상으로 내 쫓으셨습니다. 운명이 저를 당신의 밭과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참을 수가 없는 총각은 단 하루의 연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초가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앓아누워 밭에 일하러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렁각시가 대신 밭일을 나갔다.

사또가 지나가자 우렁각시는 놀라 숲 속으로 숨었다. 하지만 사또는 숲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하인을 보내 알아보도록 했다.

그들은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하고 사또에게 고했다. 그래서 사또는 하인들에게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고 그들은 우렁각시에게 함께 갈 것을 청했다.

그녀는 사정을 좀 봐달라고 빌며 사또에게 금비녀를 바치도록 전했다. 하인들이 사또에게 돌아갔으나 사또는 그것을 받지 않고 다시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다.

또 다시 그녀는 사정을 하고 애원하며 금반지를 보냈다. 사또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한 번 그녀를 불러오도록 했다.

그때 그녀는 자기의 저고리를 보냈고 그 다음 자기의 정조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치마까지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사또는 그녀가 오기를 강요했고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다. 그리고 우렁각시는 속곳 하나만 입은 수치심에 울면서 사또 앞으로 끌려갔다.

앓아누웠던 그녀의 남편은 서둘러 사또에게 가서 아내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분노에 견디지 못한 남편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육신이 마룻바닥에 맥없이 떨어질 때 그의 죽은 영혼은 날아올라 파랑새가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과 밤에 파랑새가 사또의 집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애처롭게 울었다. 우렁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굶다가 곧 죽었다. 그녀의 영혼은 참빛이 되어 부인들이 머리를 빗을 때마다 정조를 상기시키게 되었다 한다.

【『한국의 설화』, 정덕조鄭德祚, 언양彦陽, 1912, 단국대학교출판부】

이해심이 깊은 새신랑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열 다섯에 장개를 가이까네, 첫날밤에 상방을 채웠는데 마 신부가 애기를 놓는 기라. 그래 저 양반이 소개로 애기로 뛰아가 요 속에다 넣어 놓고, 별당 안에서 문을 열고 종을 부르미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여봐라.” 카거등. 그래 종이 나오이까네,

“나는 언제나 밤참을 달(닭) 한 마리하고 밥 한 그릇하고 미역국을 달이 끓이가 묵어야 잠이 오지 그라이머¹⁷ 안 온다.” 카는 기라.

그래 이 양반이 자기 허리띠를 딱 조라미, 마느래 젖을 탁 배이 주는 기라¹⁸. 그래 하인들이 달로 잡아가 미역국을 한 그릇, 한 단지, 한 차례 끓이고, 밥을 한 그릇 해가 주이, 이 양반이 별당 문 앞에서 받아 들라가 마느래한테 떡 갖다 놓으미,

“이 밥을 암말도 안 하고 오늘 저녁에 다 묵어야 된다.” 카는 기라.

내가 죄인이까네 누 영수이라 거어노(거역하노)? 그 밥을 묵으이까네, 비개(베개)속에 따개가, 요에 소개에 딱 사가알라로 안고 어데인지 놓아 두고 오는 기라. 이튿날 새벽에¹⁹ 또 자기가 묵을라 칸다 카고 달 마리 잡고 미역국 끓이가지고 밥 해가 오라 카고는 마느래 묵어라 카는 기라.

“나는 새벽 참을 묵어야 되고, 저녁 참을 그래 묵어야 잠이 오지, 그라이머 잠이 안 오는 따문에 꼭 해 들라라.” 카는 기라.

참 뭐 이런 정승으 집에 뭐가 없노? 해다 주이 마느래로 남구지 말고 묵어라 카이 참 죽도 사도 몬 해가 다 묵는 기라.

날이 새이까네

“오늘 신행을 해가 가이까네 전부 신행 대비 채리라.” 카는 기라.

그래 아바씨도 가고, 아들도 가고, 마느래도 가매로 타고 가는데 저 아아로 어데 늪숲창

16. 숨으로

17. 그렇지 않으면

18. 자기 허리띠로 마누라 젖을 받치고 아기에게 젖을 물려 준다

19. 새벽에

가에다 영어 놓고 가다가서는, 하인들로 보고,

“어데서 깐알라²⁰ 우는 소리가 이마이 나노? 너거 여게 하문 들어 봐라.” 이카저등. 하인들이 암만 귀를 잡을기도 소리도 안 들기고,

“누가 참 덜된 사람이 이 깐알라로 여어다 놓아다 내비렸는고? 내가 하문 내리가 찾아 보지.” 자기가 영어 났는데 누가 몬 찾노?

그라고 그 아를 찾아가 마느래 가매문을 들시고 영어가 안고 가자 카는 기라. 지금 곁으며 별 말이라도 하지 마는 안고 가자 카이 안고 가지 우야는교?

그래 말로 타고 머이 가디마는, 자기 사는 짚에 앞 집에 몬 사는 이모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모요, 내가 오늘 신행을 하고 오다가 나이까네, 별 다른 사람이 애기로 하나 놓아다가 거어다 갖다 영어 났는데, 내가 목을 거는 당해 줄 모양이까네 이모가, 이거로 키야 주쇼.”

그 아아로 내다가 저거 이모로 쥐뿌고 가릴거 없이 드가가 살림을 사는 기라.

남편이 ‘니가 우애서러 그래 댜노?’꼬도 하문 묻는 법이 없고, ‘우째가 그렇노?’ 카는 법도 없으이 이 여자 살기는 사는데 억수로 괴롭은 기라.

그래 자기가 아들로 서이(셋)로 놓아가지고 그래 해도 절대로 이 부인도 표로 하문 안 내고, 저 양반도 표로 하문 안 내는 기라.

그러구러 고 주아다 키운 머스마가 열 다얏 살로 묶어. 하리 저녁에는 가만히 정각에 올라가 가지고 생각하이까네, 참 달은 좋은데 한심하저등. 옛날에 생각이 나는 기라.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참 십 오 세 첫날밤에 남자로²¹ 얻어가지고 십 오 세로 묵도록 키었다.’ 자기 혼자서 러 했는데, 고릴 때 어사가 거어 수문搜聞을 했어. 그래 저 어사가 듣고,

“아이고 우야꼬, 선부님, 뭐라 켜는교?” 이카저등.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금세 했던 말 그 뭐라 켜는교?” 이래 다부 묻거등.

“그런 기 아이라, 내가 참 열 다얏 살로 묶어 장개로 가이까네, 첫날밤에 우리 마느래 그 기 찾아들로 낳았길래, 내가 그거로 드부다 유모로 시키가 키아가 공부로 시키는 기 열 다

20. 갓난아기

21. 남자 아기를

앗 살로 묶는다.” 이카저등.

“그렇나?” 그감서 청에 가 딱 내리 서미 하는 말이,

“선부님²², 내일 서울에 별과를 비입니데이.” 이카저등.

“별과 비이는데 과게하로 오세이.” 그카미 마 가빠.

옛날에는 별과 비인다 카며 팔도 선배로 각중에²³ 비이던갑데, 참과게는 공문을 놓아가 팔도 선배가 다 모이가 인자 벼슬할라고 와가 있는데, 잊지너어²⁴ 지 했던 말 고거로 내가 걸어 놓으이 이상한 말이라서 아무 선배도 다 몬 깨닫고, 이 선비만 지 했는 말이거등.

별과라 카는 거는 하나밖에 안 비이 준다 카데. 자기가 써가지고 임금님 앞에다가 띠지이 까네, 임금이 받아 보디이 ‘일필휘지라.’ 커저등. 그래가 과게해기지고 오이까네 저거 아들이,

“아부지요, 엄마하고 여어 와 앉으라.” 카저등, 주아다 키왔는 기 아이라 낳아다 키왔는 저거 아들이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아부지한테 우리 엄마 허물로 벗기 주고 가야 된다.” 이카는 기라.

“내가 천상²⁵아서 내려와 가지고, 암만암만 생각해도 이 엄마한테 안 태이머²⁵ 이 아베로 몬 만낸다.” 카는 기라.

“울 엄마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환성²⁶하기 위해서러 이 엄마한테 태이가지고 내가 첫날밤에 나왔다.” 이기라.

“이 엄마가 그 은혜로써²⁶ 허물을 덮어 쓰고 아부지한테 절대로 고개로 몬 들고 사이까네, 내가 언제라도 열 다앗 살 묶고 아부지가 과게로 하며 이 허물로 벗기 줄라고 이 때까지 있었다.” 카는 기라.

고 날 지너어²⁷ 고 허물 딱 벗기 주고 마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천상아로 갔단다. 고런 부모로 몬 만나며 사람이 몬 살고 직이뿌는 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박정상, 언양면, 1984]

22. 선비님

23. 갑자기

24. 어제 저녁

25. 태어나면

26. 그 원인으로써

27. 저녁에

두꺼비 신랑

The Toad-Bridegroom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마을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때처럼 연못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기밖에 잡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는 점점 적은 수의 고기밖에는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미끼와 낚시 도구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시도해 봤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심지어는 못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에는 결국 낚시를 할 수 없을 만큼 못이 얕아져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늦은 여름의 어느 오후, 바닥이 들어난 그 못에서 꽤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왔다. 어부는 그 순간, 보통 두꺼비는 개구리의 친척쯤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두꺼비가 물고기를 모두 먹어 치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두꺼비의 씨가 마르도록 삼족三族에 저주가 내리도록 빌었다.

그러나 그 두꺼비는 어부에게 두 눈을 말뚝말뚝 굴리며 정중하게 말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머지않아 당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주겠어요. 난 당신의 집에서 살길 원하니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지만 어부는 그런 부탁을 하는 두꺼비에게 화가 날 뿐이어서 두꺼비를 남겨둔 채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날 저녁 두꺼비는 어부의 집으로 왔다. 어부로부터 이미 두꺼비와 관련된 얘기를 모두 들은 어부의 부인은 두꺼비를 친절히 맞아 주었다. 그 두꺼비가 먹을 곤충과 이런저런 찌꺼기들을 가져다주고 부엌 모퉁이에 두꺼비를 위한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 어부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던 탓에 그 두꺼비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두꺼비는 마치 소년이 자라듯이 크게 자랐고 어부와 부인은 두꺼비를 그들의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어부의 집 근처에 세 명의 딸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두꺼비는 그 세 명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고 어부와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어부 부부는 두꺼비의 어처구니없는 부탁에 깜짝 놀라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빨리 잊어버리라고 진정으로 충고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야.”라고 말하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그런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넌 인간도 아니잖니!”라고 충고했다. 그들의 충고에 두꺼비는

“난 인간의 계층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부모는 분명 결혼을 반대하겠지만 세 딸 중의 한 명은 분명히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누가 알겠어요? 부디 그 집에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어부의 부인은 그 부잣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두꺼비 아들이 했던 말을 여주인에게 전했다. 그 여주인은 매우 불쾌해하며 남편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말했다. 남편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에 매우 노하여 펄펄 뛰었고, 하인에게 그 두꺼비를 기르고 있는 여자를 매우 치라고 명령했다. 그 가난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두꺼비에게 그 고통스런 경험을 들려줬다.

두꺼비는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라고 어부의 부인에게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가 그리 많이 걱정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라고 얘기했다.

그 후 두꺼비는 매를 잡으러 나가 잡은 매를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늦은 저녁, 두꺼비는 밝은 등을 갖고 그 부잣집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다. 그가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아까 잡은 매의 발에 긴 실을 묶고 집과 닿은 큰 감나무에 올라갔다. 두꺼비는 실의 끝을 손으로 꼭 잡고는 매를 풀어 주었고 매는 그 집으로 날아 들어갔다. 매가 허공을 날기 시작했을 때 두꺼비는 큰 목소리로 장엄하게 외쳤다.

“내가 하늘의 왕을 특별히 급파했으니 이 집의 주인은 내 말을 들어라! 오늘 너희들은 청혼을 거절했으니 지금 당장 너희들의 불손함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특별히 너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은 그 두꺼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들의 친척들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야밤의 선포에 매우 놀라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머리 위 허공을 떠도는 옅은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집주인은 마당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두꺼비는 손에 쥐고 있던 실을 풀었으며 그 때는 여전히 발에 등을 매단 채로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때 부잣집 주인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신으로부터 좀 전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딸 중에 한 명과 두꺼비의 결혼을 허락했다.

다음날 아침, 그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의 수양부모를 찾아와 이전의 무례한 거절에 대해서 공손하게 사과했다. 그는 두꺼비를 자신의 사위로서 기꺼이 맞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큰딸에게 두꺼비와 결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딸은 모욕감과 분노로 가득 차 방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그는 둘째 딸을 불러 두꺼비의 아내가 되라고 말했지만 그녀 역시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뛰쳐나갔다.

결국 그는 막내딸을 불렀고 만약 그녀마저 결혼을 거절한다면 집안 전체를 매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늘로부터 받은 매우 단호한 경고와 함께 설명했다. 그러자 그 막내딸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두꺼비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바로 다음날 열렸다. 매우 많은 하객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신기한 일에 다들 놀라워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갔을 때 두꺼비는 신부에게 가위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두꺼비는 등껍질을 잘라내라고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가 몹시 당황하자, 두꺼비는 빨리 그렇게 하라고 신부를 재촉했고 신부는 하는 수 없이 두꺼비의 등껍질을 길게 잘라냈다. 그때다! 자 보시라! 그 등껍질로부터 나온 한 멋진 젊은이를!

다음날 아침 신랑은 아무도 어떤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등껍질을 다시 입었다. 그녀의 두 언니는 동생의 불쾌감을 주는 남편과 함께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오에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화살을 갖고 말 등에 올라탔다. 두꺼비

는 무기를 챙기지 않고 걸어서 갔다. 그 사냥이 성공적이지 못한 탓에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들이 모두 떠났을 때, 신랑은 두꺼비의 껍질을 모두 버리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공중에 손을 흔들었더니 한 백발의 노인이 곧 나타났고 그는 백 마리의 사슴을 그에게 가져오도록 명했다. 사슴들이 오자 그는 다시 두꺼비 껍질을 입고 사슴들을 집으로 몰고 갔다. 그 사슴들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두꺼비는 껍질을 벗었다. 갑자기 두꺼비 껍질을 벗어버리고 잘생긴 젊은이로 변한 모습에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 그때 모든 사슴들을 풀어 준 후 그는 아내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부모님을 팔로 안은 채 하늘로 올라갔다.

[『한국의 설화』, 정복순鄭福順, 언양彦陽, 1925, 단국대학교출판부]

여동생으로 둔갑한 여우를 잡은 막내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여덟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딸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딸을 하나 낳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다. 효험이 있었던지 얼마 후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다.

부자는 기뻐하면서 그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다.

몇 년이 지나고 나자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자고 일어나 보면 마구간에 있던 말이 한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이었다. 이유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부자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큰아들을 시켜 밤에 몰래 마구간을 지키게 했다. 밤중이 되자 귀여운 여동생이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참기름 통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 미끄럽게 한 후에 그 손을 말의 항문에다 쑥 집어넣더니 간장을 빼어 먹고는 살며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말은 죽어버렸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말았다.

부자는 다음날 밤에는 둘째 아들에게 마구간을 지켜보게 했다. 결과는 같았다.

일곱 번째 아들까지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자, 부자는 마지막으로 여덟째 아들로 하여금 마구간을 지켜보게 했다.

놀라운 광경을 본 여덟째 아들은 본대로 아버지에게 알렸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동생을 죽이려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여덟째 아들을 죽일 듯이 했다. 놀란 여덟째 아들은 황급히 도망쳐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늘나라에서 여덟째 아들은 옥황상제의 셋째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몇 년을 살았다. 그러나 고향에 가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여덟째 아들이 고향에 한 번 가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펄쩍 뛰었다. 그러나 자꾸 졸라대자 아내는 남편에게 병瓶 세 개와 비루먹은 말 한 필을 주면서, 병은 몹시 위급할 때에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여덟째 아들이 집에 가보았더니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여동생 혼자만 남아 있었다. 여동생은 반가워했지만 여덟째 아들은 위험을 직감했다. 그래서 동생에게 배가 몹시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다. 여동생은 부엌으로 가면서 오빠가 있는 방문을 밖에서 잠가 버렸다. 여덟째 아들은 간신히 방문을 열고 나와, 비루먹은 말에 채찍질을 해서 급히 도망쳤다.

말은 화살처럼 빨리 달렸다. 뒤돌아보니 여동생이 나는 듯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여동생이 말 꼬무니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여덟째 아들은 아내가 준 병 하나를 동생을 향해 던졌다.

병에서는 무수히 많은 바늘들이 튀어나와 동생을 찔렀으므로 동생은 그것을 빼느라고 말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졌다.

그러나 동생은 이내 뒤쫓아 왔고 위험해진 여덟째 아들은 다시 병 하나를 던졌다. 이번에는 병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생을 가로막았다.

여덟째 아들은 앞에 무지개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무지개를 타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직감한 여덟째 아들은 무지개를 향해 달렸다.

강물을 건너 동생이 다시 뒤쫓아 왔다. 여덟째 아들은 마지막 남은 병을 동생을 향해 던졌다. 이번에는 불길에 솟아 나와서 동생을 덮쳤다. 불길에 휩싸인 동생은 마침내 불에 타서 죽고 말았는데, 죽은 것을 보니 흰 여우였다.

무지개를 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 여덟째 아들은 아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김숙이, 언양면, 1987]

도리춘풍桃李春風 이공자李公子와 곡조문전曲棗門前 설낭자薛娘子

옛날에 어떤 총각이 열 다섯 살에 죽어 저승 문 앞에 갔더니,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있고 그 앞에서 어떤 처녀가 슬피 울고 앉아 있었다.

총각이 염라대왕閻羅大王 앞에 나갔더니, 염라대왕이 총각을 보고는, 정명定命이 팔십八 + 살인데 왜 벌써 왔느냐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였다.

총각은 문득 조금 전에 저승문 앞에서 울고 있던 처녀가 생각나서 그 처녀는 정명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 염라대왕은 그 처녀는 정명이 열 다섯 살이라 제대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총각은 처녀가 너무 일찍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염라대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그 처녀와 자신이 다 같이 사십 년씩 살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총각의 말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후생後生에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살다가 같이 저승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처녀를 불러 성씨를 물었더니 설씨薛氏라고 했다. 어디 살았느냐고 물었더니 대문 앞에 굽은 대추나무가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염라대왕은 굽을 곡曲자와 대추 조棗자를 써서 ‘곡조문전 설낭자曲棗門前薛娘子’라는 도장을 새겨 총각의 팔뚝에다 찍어주었다.

총각에게도 성씨와 살았던 곳을 물었는데, 총각은 성이 이씨李氏이고 집 앞에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있었다고 하자, 염라대왕은 복숭아 도桃자와 오얏리李자를 써서 ‘도리춘풍 이공자桃李春風李公子’라는 도장을 새겨 처녀의 팔뚝에다 찍어 주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이승으로 되돌려 보냈다.

되살아난 총각은 팔에 새겨진 ‘곡조문전 설낭자曲棗門前薛娘子’를 찾아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녔지만, 도무지 그 처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지친 몸을 이끌고 해질 무렵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큰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동네가 요란했다.

저녁이나 얻어먹을 작정으로 총각이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서는 마침 딸의 혼례를 치르려는 중이었다. 신랑은 이미 도착했고, 색씨도 몸단장을 마친 후였다.

총각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나와 주인에게 말하기를, 누이가 방금 들어온 총각의 팔에 흑시 도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주인이 총각을 불러 팔을 확인해 보았더니, 팔에 ‘곡조문전 설낭자曲調門前薛娘子’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 바로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 사십四十이 되자 한 날 한 시에 같이 죽어 저승세계로 갔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김원연, 온양면, 1985]

연이와 계모

Yoni and Her Stepmother

옛날 옛날에, 연이連伊라고 불리는 달같이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했다.

계모는 그녀를 지독하게 대해 항상 불쌍한 소녀를 괴롭힐 계책을 궁리하곤 했다. 계모는 연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집안의 험한 일을 모두 시키고, 길고 곧았던 그녀의 머리를 꼬고 형클어뜨려 까치집처럼 만들기가 일쑤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계모는 연이에게 산에 가서 나물을 뜯어오라고 하였다. 물론 한겨울에 산나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계모는 단지 얇은 여름옷만 입힌 채 소쿠리를 들려 무조건 내쫓았다.

그리하여 내쫓긴 그녀는 눈이 깊숙이 쌓인 산을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다. 오래지 않아 짧은 겨울 해는 저물어가고 잔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동굴 같은 곳을 찾아 다녔다.

멀리 가지 않아 큰 대문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문을 밀쳐 열고 들어갔다. 그 안에서 넓은 들판과 들판 중앙에 있는 아름다운 초가집을 발견하였다. 문을 두드리니 소년이 나와 공손하게 대했다.

“왜 여기에 왔지요? 제가 뭐 도와드릴게 있나요?” 하고 물었다.

연이는 소년에게 그녀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소년은 매우 가엾이 여겨 들판에 나가 신선한 유채를 가득 가져다주었다. 연이는 그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소년은 그녀를 다시 잡아당기며

“저는 버들도령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곳에 다시 와 주세요. 이곳에 오게 되면 대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세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들잎이여! 연이가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와 맞이할게요.” 그러

고 나서 소년은 흰색, 붉은색, 푸른색의 세 병을 주었다.

“이 세 병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는 말했다. “흰 병의 액체는 죽은 자의 뼈에 새로운 살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병을 뿌리면 혈색이 돌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푸른 병의 것을 뿌리면 그 몸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것을 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침에 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계모는 신선한 유채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계모는 연이에게 유채를 다시 뜯어오라고 하며 내쫓았다. 세 번째로 보낼 때에는 계모가 연이의 뒤를 밟았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기 때문에 연이는 눈치 채지 못했다. 계모는 연이가 대문 앞에 멈춰 외치는 것을 보았다.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들잎이여! 연이가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그때 한 소년이 나와 연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잠시 후에 신선한 유채 바구니를 들고 다시 나왔다. 계모는 그 즉시 지름길로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연이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연이가 도착했을 때, 계모는 그녀에게 심술궂게 말했다.

“너 몰래 정을 통하는 사람이 있더구나. 난 다 알고 있어.” 연이는 계모가 하는 말을 부인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계모의 학대에 대해 불평하려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산속으로 가 대문 앞에 서서 불렀다.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들잎이여! 연이가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소년은 바로 나와 문을 열었다. 그는 계모를 보고 말했다.

“누구시죠?” 계모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소년에게 달려들어 소년을 단번에 죽였다.

그리고 나서 계모는 초가집에 불을 지르고 들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다음 날 계모는 연이에게 신선한 유채를 가져오라고 내보냈다.

연이는 문에 가서 언제나처럼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밀쳐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파괴된 폐허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다. 초가집은 까맣게 타 잔해만이 남아 있었으며, 들판은 새까맣게 탔다. 그녀 앞에는 흩어진 소년의 뼈들이 놓여 있었다.

연이는 비탄과 슬픔에 빠졌다. 그때 소년이 주었던 병이 기억났다. 그녀는 뼈를 모으고 나서 완전한 골격을 갖추도록 맞췄다. 그리고 나서 병을 꺼내 뼈 위에 흰 병의 액체를 뿌렸다. 단번에 새살이 돋아났다. 다음에 붉은 병의 물을 몸에 뿌리니 혈관에 더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푸른 병의 것을 뿌리니 그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저는 옥황상제의 사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한겨울에 유채를 심고, 제 명령으로 그것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모두 끝나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제 신부가 되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갑시다.”

이 말과 함께 손을 잡고 연이와 소년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국의 설화』, 정덕조鄭德祚, 언양彦陽, 1914, 단국대학교출판부]

계모의 학대

옛날에 에미 죽고 대로²⁸ 들어온 다신에미²⁹가 그래 자식들인데 못 씹기 해.³⁰

다신에미가 어찌 송악한지 세사 딸 아아로 키아가 조거로 우예 죽일고 싶어가, 동지선달에

“참나물 캐 오라.” 카드란다. 동지선달에 참나물이 어딴노?

“참나물로 무야 내가 산다.” 쿠머 열라 선다고³¹ 참나물을 캐 오라 카드란다. 보로 시북보로 하나 주민서리.³²

“어데 가 캐도 나물로 한 보따리 캐가 와야 나기 집에 들오지, 그라이모 집에 못 들온다.” 카면서로.

그래 처자가 시북보랑 손에다 달아매고 거치 없이 이래 가이까네 지 마음은 어데 ‘산골짜가모 범이 날로 자무도³³ 자물끼고, 내가 인자 집에 못 되갈끼고 이 동지선달에 얼음이 쟁 쟁 얼어가 있는데, 어데 가모 참나물이 있겠노? 나는 인자 죽는 질이니 산골짜에 드갈 밖에 없다.’고 하며 침침 산골짜를 드간다. 드가자³⁴ 날이 저물어 어둡어지뿌이 골짜에 자그마한 집에다가 불이 뵈하거든. 그래 뉘 범은 안 잡아 묵고 불 있는 데로 드갈 밖에 없어가지고 처자가 집에 가여,

“주인 있소?” 쿠이까네 총각이 하나 나오며,

“이곳에는 새짐승도 못 나듬는 곳인데 웬 사람이냐, 짐승이냐, 우째 여어 오는냐?”

무선 예순가 이기³⁵ 막 진언眞言을 때리치더란다.³⁶

28. 대신으로

29. 계모

30. 못살게 군다

31. 아기 들어선다고, 임신 했다고

32. 보자기 세 폭 보를 주면서

33. 잡아 먹어도

34. 들어가자

35. 여우인가 여겨

36. 주문呪文을 읽다

그 총각이 방아다 앉하 놓고 진언을 때리치이 사람이니까네 진언이 뭐 아냐³⁷? 구신鬼神
이모 나갈진데, 구신도 아이고 그래 가 진언을 때리치고 묻거든.

“당신네가 우에 왔노?”고 물어 쌓이까네 이바구를 하거든.

“그래 어릴 적에 암마 죽고 올 아버지가 재추장개³⁸로 가가 다신엄마가 있는데, 얼라 선
다고 참나물로 캐 오라고 날로 시북보로 주옵서 참나물 안 캐오모 집에 못 들어온다 쿠는
데, 이 산중을 들오면 범이 자무도 날로 자물끼고, 내가 마 죽을 밖에 없다 싶어가 이 산중
에 들어왔다.” 이래 쿠거든. 글 쿠이까네,

“그랬냐.”고 글 쿠딩이 줄대³⁹ 끝에다가 봉다리로 싸가 줄줄이 걸어 났는데, 봉다리로 하
나 가지고 이튿날 아적에 나가디이마는 따아다⁴⁰ 살살살살 헐디마는⁴¹ 물로 살살살살 헐쳐
놓이 참나물이마 이래 좋거든. 데사레⁴² 이래 좋은까네 한 보따리 지 주거든.

“이거로 갖고 집에 가라.”고. 그래 참나물을 한 보따리 해가 왔다.

다신에미가 그 이상할 께 아이가? ‘이 동지선달에 어데 가여 참나물로 이래 가아 왔는고
싫어’. 그래 참나물로 데아가지고 이 사람 주고 저 서람 주고 다 쥐 뿌리고, 이튿날 또 캐 오
라 카네. 다 처 묵고 또 사흘 만에 또 캐오라 안 카나? 또 캐 오라 쿠이 그 총각 찾아 그 또 그
곳으로 들어갔다. 그래 총객이,

“인자는 다시 오지 마라. 다시 안 와야 되지, 오모 안 된다.” 쿠거든.

“그래도 한번 캐다 쥐 놓이 또 가아 오라고 자꾸 쫓는데, 참나물 안 가아 가모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 어데 죽는 기 옳다.” 카이까네,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는데, 그래 죽어가는 못 쫓다고. 내가 다시 한 보따리 더 줄 테
이까네 이거는 가져가모 다시는 오지 마라.” 카거든. 그 총각이 또 주는데, 봉다리가 쭈욱
달리가 있는거 보고,

37. 주문呪文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38 재취再娶

39 옷을 거는 헛대

40. 나가더니 땅에다

41. 뿌리더니

42. 대번에

“이거는 무신 씨앗이며, 이것은 무신 씨앗고?” 처자가 물었어. 그 카이,
 “요 봉다리는 죽은 사람인데 허쳐 노모⁴³ 숨 터지는 봉다리고, 요고는 피 생기는 기고, 요
 거는 살 생기는 기고…” 요래 다 갈쳐 주거든.
 “이거는 동지선달에도 혈치모 나물도 되고 꽃도 피고 그래 하는 기고…”
 봉다리 봉다리 고래 다 가리키 주거든. 고걸 딱 들고, 보고 갔다. 가지고 가이 그 놈우 나
 물로 또 다 쳐묵고 또 가라 쿠거든. 그 처자가 마 어딜 탄 데로 가 뵈이모⁴⁴ 뵈킨데, 총각 찾
 아 또 갔다.
 오지 마라 쿠는데 또 가이 요 안들이 뒤로 따랐어.⁴⁵ 뒤로 따리가지고 처자는 총각이 해주
 는 나물로 이고 와 뿌고, 그 안들이 그 방으로 마 들어가 총각을 마 짝이 뵈다.
 그래 짝이 뿌리고 와가지고 또 처자로 나물 뜯어러 가라 쿠는 기라. 그래 총각 찾으러 또
 가이 안만 문 열어 줄라 캐도 사람이 인적끼가 없어가지고, 문을 우째 우째 뜯어가 드가이
 까네 마 총각이 딱 죽어가 있거든.
 그래 지가 들은 땀 있는⁴⁶ 봉다리로 가지고 사람 죽은 데다 살살 혈이이 그래 숨이 터지더
 란다. 숨이 터지고 그 봉다리 마중⁴⁷ 고래 혈이이 그 총각이 사더란다. 총각이 살아가 처자
 를 가지 말고 내 따라 가자 쿠더란다. 그래 총각이 그기 천상사람이라, 내 따라 가자 쿠이,
 “내가 우예 따라 가노?” 쿠이,
 “내 따라 가모 아무래도 이 세상 베리지 않을끼이, 머리끝이 허영이 희두룩 우리가 살 모
 양이까네 마 내 따라 가자.”
 그래 마 멀건 날이, 하늘이 울릉울릉 하더이 무지개가 서디이마는 무지개 타고 천상으로
 올라갔다 아이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43. 흠어 놓으면

44. 버렸으면

45. 여자가 뒤따라갔어.

46. 들은 적이 있는

47. 끝까지 모두

가시나가 무슨 염불

옛날에 처녀가예, 어떤 도사가 떡 한 톨(사람) 왔거든요. 오이꺼네 그 처녀가 도사잖에(에게),

“하이, 도사님예, 저 염불 좀 갈차 주소.⁴⁸ 염불 좀 갈차 주소.” 커이까네,

“가시나가 무슨 염불?” 커거든요.

그라이꺼네 그 기 염불이라고 ‘가시나가 무슨 염불, 가시나가 무슨 염불?’ 만날 물 이러
댕기미도(다니면서도) 그카고 만날 그카고 댕기. 그래 저저 오라바씨⁴⁹가 떡 타작을 하다
가 들을라 커이 그 뭐 같잖거든요. 그래 ‘저기 뭐 저렇노?’ 커고 마 타작 마당아 쫄단을 들고
물 이고 들오는 거로 들고 썰리 주이까 물동오가 턱 깨지더란다.

썰리 주이까 마 거어 무지개가 탁 백이가지고 마 그 처자가 천상天上으로 올라가더란다.
그거는 한 가지 성심誠心이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분이, 언양면, 1984]

48. 가르쳐 주세요

49. 오빠가

신선 된 딸을 찾아갔던 아버지

딸로 서이를 키웠는데,⁵⁰ 그래 저게 둘키는(둘이는) 시집을 가고, 둘이는 인자 저거 아배
가 인자 시집을 보냈는 기라.

어데 인자, 그래 가라 카이 좋은 데 인자 이래가 시집을 가고 하나는 시집을 안 갈라 캐.
막냉이 딸인데 인자 시집을 안 갈라 캐.

“하마 올 때 됐는데, 올 때 됐는데.”이라고 시집을 안 갈라 캐. 살림은 부자라, 그 집에. 그
래 가 안 가고, 그래 이바구가 그렇더라. 그래 인자 한 번 있으йка네,

“하마 올 때 됐는데, 올 때 됐는데.” 카는데,

큰 꺼재비로(거적을) 지고 아재비맨치로(아저씨처럼) 마마 모양없는 총객이 하나 오는
거라. 이래가 고개도 빠주고 다리도 절고 마 형편없이 이래 오йка네, 마 처자가 쫓아 나가
가 마 반갑게 맞이를 하거든.

그래가 아바시는 보이 마 십빠⁵¹ 죽겠고 살림은 있지르, 어땡기 마 더럽운지,

그래 즈그꺼정(자기네끼리) 마 뒷방에 드가가지고 참 마마 그래 연분을 인자 맺었는거라.
처자랑 연분을 맺었는데. 아바시가 밍어 못 전디가지고시러(견디어서) 앞에 저거다가 큰
딸 둘이는 좋거로 집을 지아가 다 보내 놓고 살림을 다 시는데, 이 딸은 어찌나 밍운지,

“그런 살림 있지르 와 좋은 데 시집 안 가고 세상에 저런 병신이 저런 거 알긔인 거 만나
가 가노?”

이래 가 인자 담집(흙담집)으로 마 저 알긔거로 지아 주었거든. 아무따나 이래지아 죠(쥐)
놓이, 그래 갈 적에, 살림 내 놓을 적에 장 한 되하고 쌀 한 되하고 고것만 줬는 기라.

이거사 마 너거 가가 묵던가 말던가... 그래도 인자 어마시가, 아바시는 안 가고, 한 번씩

50. 딸 셋을 키웠는데

51. 마음에 차지 않아.

가 보몬 항상 갖다 놓은 거 그냥 있어. 저거는 뭐로 묵고 사는지. 항상 돌담 지아가 알궂거
로 수숫때기 옥막집을 지아 났는데.

“이상하다. 그냥 있다.”

그래 한 번은 인자 가거든.⁵² 떠 인자,

“아버지요, 우리는 인자 갑니더.” 이카거든.

“너저가 어디로 가노?”

병신이 그거 쪼다걸은 그거하고.

“그래 아버지요, 해나(행여) 낸중에 날로 찾아오거들랑, 날 찾아올 때는 현산을 찾아오
라.”카는 거라.

현산으로. 이놈우, 현산이 어데 있노? ‘어이, 거거든 가고 말거든 말아라.’ 놔 두었다. 그
러구로 그 집이 망해 뿔어. 친정이 영(아주) 인자 망해 뿌고, 그 병신이 사오(사위)하고 처자
는 가뿌고, 영 망해 뿌고 마누래도 죽어 뿌고, 딸 그 좋거로 집 지아가 살림 내 놓은 것도 다
망해 뿌고 마 형편없어 놓은까네, ‘아이고, 현산이라 카던가 새산이라 카던가 카던데, 내가
그기나, 딸로 한 번 만내 보겠다.’ 이래 가 인자 알아야 가제.

저에게 어데 인자 간다. 자꾸 이래 가이 그래 아아들이(아이들이) 공치기를 하는 거기라.
공치기. 장치기를 하는데, 거어 그 인자 한대 푸고(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마이 이래 보이
참 쪼고만한 아아가 하나 똑 마 참 모양 가산없이(형편없이) 이래 수건 하나 떡 땡이고(동
여매고) 쪼매난 아아가 하나 그거캉 그래 치거든. 치디이만 그 공을 그거 맞았다. 그거 장
그거로 병신이 걸은 아아 그거한테 맞았거든. 마 뚫어졌다. 피가 찢 나거든. 딸 찾아가는 영
감씨는 거어 앉아가 보는데,

“저거는 뭐뭐 현산도 모리는 기 대가리 뚫고.” 감시로 빼이 올거든. 인자 고오 가가 붙었다.

“그 현산으로 갈라몬 어데로 가노? 날로 가리쳐 도가(달러). 내가 거 가는데 날로 가리쳐
도가.”

52. 난다는 말이다.

“그러모 할배 내 따라 오소.” 카거든.

그래 따라간다. 저 간월산澗月山. 곁은 꼭두만댕이로(산정을) 자꾸 올로 가거든. 올라가 암서 이 영감쟁이는 딸 찾아간다고 따라간다. 자꾸 따라간께 그래 한군데 거어 떡 가디만 은 엄두리총각이(터벅머리 총각이). 하나 나오거든. 엄두리 총각이 하나 나오니까네,

“저 사람한테 물어 보소.” 카고 마 지는 가 뿌고 없는 기라.

마 어디로 가 뻘는지 없어. 그래 또 그 사람한테 또 묻는다.

“그래 현산을 가몬 어디로 가는교? 좀 날 좀 가리쳐 주소.”

“하이구, 그 영감쟁이 고약네. 현산을 가몬 저 고개 저거만 넘으면 현산인데, 현산을 와 문노?”

이 카암시로 마 그것도 가 뿌고 없데이. 그것도 마 흔적이 없는 기라. 흔적이 없어, 그래 가 인자 넘어간다. 그래 가 인자 넘어가이 참 고개를 넘어가이 간월산 곁은 재던갑더라. 그런 데에 그 너메 넘어가이 편편한 데 참 좋은 개와집이 하나 있어. 개와집이 하나 있는데, 가이,

“아이고, 아버지 올 줄 알았심더. 이리 오시이소.” 쿠움서 딸이 나오거든.

“그래 사우는 어디 갔노?” 카이까네

그래 즈그 양반으는 저게 밤으로는 천상에 가서 일보고 낮으로 땅에 내리온다. 카더란다. 그래가 있는데, 그래 가이 마마 참 영망진창을(아주) 대접을 잘해. 딸이 인자 참 잘 하고, 그 래 인자 저녁에 오더란다.

저녁에 오는데, 병신은 오데 병신, 참 좋은 귀남자가 천상에 인자 갔다가 내리와가 장인 왔다가 막 대접을, 그때 사⁵³ 마마 그까짓 사우고 뵈이고 개똥만큼도 안 여겼지. 그 딸도 위 인偉人이라. 그래가 인자 거어 대접을 실컨 받고,

“아이고 아버지요, 가지 마소. 가 봐야 별 수 없입니더.” 마 그래 가 세월이 얼마나 흘러졌 는지,

“아버지요, 가 봐야 별 수 없입니더. 가지 마소.”

53. 과거에 처음 사위를 볼 때를 가리킨다.

“으응, 그래 내가 그래 놓고 왔는데, 내가 한번 가 봐야 된다. 내 고향 사던 데 내가 가 봐야 된다.”

“아버지요, 인자 가면 날도 못 봄니더. 인자 여어도 못 옵니더. 그러면 요거로 타고 가소.” 카거든.

요거로 타고 가서 캄시러 뭐 알긋인 요런 바가치 곁은 거로 쪼매난 거 뭐 하나를 주더란다. 그거를 타고 있으이 마 대난수(대변에) 눈 하나 깜짝하는 사이에 저거 고향에 왔는 기라.

고향에 오이 아무 것도 없고 쑥대밭이 됐더란다. 됐는데 그래 물었단다. 그러이,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됐노? 뭐 우예 됐노? 어떻게?”카이,

“아이고 할배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고 인자 새로 사람들 낳아가 있고 인자 없임터.” 카더란다.

이년의(이놈의) 영감쟁이는 아 그 질로…. 그 딸네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래 가 마 거어 가도 못하고 마 그래 마 죽어 뻘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민담 民譚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

옛날 옛적 산마을 어느 집에 노인 내외, 젊은 내외 네 식구眷口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각각 산으로, 들로, 마을로 볼일 보러 나갔다네.

며늘아기 어찌다 실수하여 빨랫감을 태웠단다. 그 중의 한 벌 옷은 부자父子가 같이 입는 나들이의 큰 옷이라, 큰일났네 큰일났네 죄책감에 사로잡혀 한나절을 근심으로 보냈단다.

어느 듯 때가되어 나간 식구眷食들 돌아 왔다네.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

“아가아가 며늘아가 너의 안색 보아하니 수심이 짙었구나.” 하니 며늘아기

“나들이옷을 태웠다.”고 고백하니 시아버지 이 말을 듣고

“걱정 말라 걱정 말라 너의 과실 아니로다. 그 술은 내가 샀고, 그 술을 사올 적에 땀나 무를 아끼려고 밭 엮은 것을 골랐기에 이런 변고 생겼구나. 밭 두꺼운 술 샀더라면 이런 탈은 없었겠지 내 잘못이 아닌가.”

아들서방, 이 말씀 듣고 나서며 하는 말이

“아버지도 저 아낙도 잘못된 일 전혀 없소. 며칠 전에 장작 팥 때 잘 타라고 잘게 팬게 불길기 거세어져 빨랫감을 태웠구먼요. 오로지 이번 일은 내 소치로 소이다.”

끝으로 시어머니, 다 듣고 하는 말씀,

“망영이지 망영이지 이놈의 할망구가 마실은 무슨 마실. 잠자코 집에 있어 술 가나 돌 보고 빨래나 도왔더라면 이런 일 있었으랴.”

한결같이 권속谷屬이 아래를 사랑하여 제 각각 그 자성自省하니 한집안이 화목하여 모든 일이 절로 되니 가화만사성 아닌가.

이 고담은 요순堯舜의 화和의 본本이요, 제가齊家의 원리임을 설하고 있다. 한 가정뿐 아니라 모든 직소職所에서 화목하는 길을 깨우치고 있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신금조, 삼남면,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뜻이 맞아야 집안이 흥한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한 집은 하도 돈 살아가지고 아직밥⁵⁴ 죽도 돈
끓이 묵고 이래 사는데.

그러구려 살다가 근근이 우애가 며느로 한 키 봤는데,⁵⁵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르 가
마 보이 형편이 아주 딱하고 난처하거등. 그래가 시집을 와가지고 사흘만에 시어른들을
다 모시 놓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형편이 이렇금 딱하고 곤란하이까네 어른을 한 키 내야 되겠습니더.

그래 시아버지로 갖다가,

“어른을 하겠는교?”카이,

“아이고, 나는 어른 할 자격이 없다.”카거등.

“그러며 시어마씨로 그럼 마 어른을…”

“아이고, 나도 마 몬 하겠다.” 이랬거등.

그래 인자 남편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르 어른 일로 함 해 보라.” 카이까네,

“아이고, 나도 어른 일로 할 자신이 없다.” 카거등.

그래 식구들이,

“아이 마, 그러며 니 함 해 보라.” 카이까네,

“그러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이까 내가 하지요.” 카거등.

“내가 어른이라고 뭐 탄 기 어른이 아이고 뭐든지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기라.

“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하소.”

54. 아침밥

55. 어떻게 해서 며느리를 한 명 봤는데,

“하지.”

“시아바씨는 나이도 많고 하이까네, 시아버님은 오늘부터 하리(하루) 돌 석 짐씩만 조아다 날으라.” 카저등.

시아바씨는 얼라(아기)나 보고 집에서 하는거 거들고, 남편으는 하루 식전 아지에 거름 두 소구리씩만 모으고, 나무 하루 석 짐씩 하라 카는 기라.

자기는 그 두랑 해가지고⁵⁶ 사는데,

“그 계획이 뭇 해 계획고?” 이래 물으이꺼네,

“삼 년 계획, 아, 십 년 계획, 아, 삼 년 함 해보자.” 카저등.

“그래 함 해 보자.” 카고 의논이 맞았는데,

그 날부터 시아바씨는 돌로 하루 석 짐씩 조아다 나르고, 남편으는 하루 거름 두 소구리 하고 나무 석 짐하고, 비가 오기나 눈이 오기나 고정적으로 떡 이래 하는 기라. 자기는 안에서 살림을 하고 시어마씨는 알라나 보고 식사일 하는 거 거들고 이래 하는 기라.

한 이 연々쯤 해서 거름을 많이 모아 놓으이까네 넘우 논도 부치라 카고, 밭도 부치라 캐가 곡식으로 가이까네 곡식도 거름을 많이 해가 잘 되고, 나무도 마 혼년만년⁵⁷ 때고 남는 거 팔아가지고 양석도 팔아 묵고 그래.

한 이 년 지내이까네 농사도 생기고 생활수준이 좀 나아지저등.

삼 년이 떡 다 돼 가는데, 영감씨는 맨날 돌만 주워다가 모두이까네 돌빼까리(무더기)가 집채 모딩이만땅(덩치만큼) 커졌는데,

“야야, 우리가 이즉지 돌 이거 조아다 모다 뉘야 아직꺼정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거 인자 갖다 놓을 데도 없고 하이까네 어야노?” 하이까네,

“자꾸 만댕이 가야가서 우에 동개라.” 카저등.

“삼 년꺼정 함 해 보자.” 커저등.

그래가 삼 년째 그 근방에 있는 돌로 다 조아다 뉘다 말이여. 다 조아다 날라뿌고 돌이

56. 어떤 일을 주선하고 계획해서

57. 흥청망청

없는데, 저 건너 높은 산만댕이山頂에 들어가 슬슬 해매이까네 돌이 넘덕한 기 좋은 기 하나 있거등. 그 놈을 떡 저다가 인자 옷꿍디기로 할 끼라고 마자 가는 날⁵⁸ 제일 우에다 떡 갖다 얹어 놓고 삼 년째 다 치았는데.⁵⁹ 뭐 별시리 아무 표 나는 것도 없고 생활은 조금 나아져도, 우뚝하게 이거 마 삼 년을 적당하고⁶⁰ 산 기 표가 안 나거등. 그러가,

“야야, 삼 년이 지내가도 아무 빛도 없노?” 카이까네,

“설마다라(설마) 뭐 복 없으며 뭐 우야겠는교? 우리 복이 없어서 안 그렇겠는교?”

그 이튿날 저녁에 그 건너 김 동지라 카는 영감씨가 한 삼백 석 하는데, 그 영감씨가 떡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이 사람아, 내가 밤에 너저 집에 서기瑞氣가 환히 비치고 아주 집이 좋아 비이는데, 너저 집에 무신 보물이 있긴데 그리 서기가 비치노?”

“몰라, 우리는 그것도 모른다.” 카이까네,

“너저 집에 저 돌 모데기 저거로 마 우리 줄 곁으며 우리가 곡식으로 한 접⁶¹을 줄 모양 이니까네 그래 바꾸며 어떻겠노?” 카이까네,

어른인 며느리잘에 물으이까네,

“그저 뭐 그래 하지요.” 카거등.

그러가 떡 바까가지고 곡식도 말끔 다 왼쪽으로 옮기 놓고 돌 모데기 언자 가져갈 참인데, 저 집서 인자 나락으로 한 백 석쯤 다 돌려 하는데, 기중其中 우에 거로 한 섬 떡 내려 가지고,

“이거는 우리 저 종자한다.” 캄서 떡 내려 놓고,

“다 가가라(가져가라).” 카거등.

‘그 우리도 제일만댕이 있는 돌 한 덩이 그거는 우리도 저 쌀 데가 해나⁶² 있을란가’ 싶어가지고 내려 내뽐고,

58. 마지막 가는 날

59. 채웠는데

60. 목표하고

61. 100섬

62. 행여나

“돌을 다 가가라.” 카거등.

돌 모데기 있는 거 다 갖다가 거어 놓고 이쪽에 곡석을 다 가왔는데, 뭐 저거 집에 갖다
놔야 아무 표도 없고 뭐 아무치도 안 하거등.

그래 가지고 ‘이기 우애된 택고?’ 가와가(가져와서) 생각해 보이...그래 제일 만텅이 없
어놓은 그거 늦가 조오 온 그기 금덩거리랴요, 금덩거리.

그런데, 그걸 내라 놓으이 그쪽에 마 서기도 안 비치고 아무치도 안한데. 이 집에서는
그 돌을 가지고 또 놔 두이까네, 내중에 어느 도사가 와가지고,

“금덩거리 이 집에 있다고. 팔아라.” 캐 쌓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금덩거리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카이까네 그래,

“찾아 보라.” 카이까네 그래 그 돌 그 딱 하나 있는 거,

“이거를 파소.” 카이까네,

“뭐 그 파지르(팔지).”

“얼마나 줄라(달라) 카느냐?”

“뭐 금지금대로⁶³ 주소. 내가 우애 그 값을 아는교?” 이카거등.

“그래 마 천 냥 주까?”

“몰시더.⁶⁴ 뭐 금대로만 주소.”

그래가지고 한 이천 냥을 받고 팔았던가 그랬거등. 그래가 삼 년으로 고생을 하고 이래
살았는데, 그래 뭐든지 삼 년을 해도 이근意見이 맞고, 주장자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
람들으는 나가 많건 적건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삼 년만 심부를 해도⁶⁵ 그래 잘사는
운명이 오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이까네 가정에도 의논이 맞고 대개 뜻이 맞는 사람 집으는 가정이 되고, 암만 돈이
많이 있어도 뜻이 안 맞는 가정으는 결국은 폐가가 된다 이 말이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원관, 언양면, 1984]

63 적당한 값으로

64. 모르겠습니다

65. 꾸준히 해도

타고난 복을 가진 종의 딸

옛날에 한 마을에 백정강 김정승강 한 마을에 살았는데.

김정승이 어데 볼 일 보러 갔다오는 걸음으로, 겨울이던 갑터라, 따뜻한 양달에 미뽕이 (모가) 하나 있는데, 거어 좀 쉰다 카는 기 잠이 살 들었거등. 그래 자이까네 영감 할마시 허연 노인 둘이 와가지고 그래,

“아이고, 영감은 그래 김정승의 집에 며느리가 순산을 했는데 거어 가이까네 그래 대접 이 어떻더노?”

카이까네 그래,

“나는 어찌 대접이 허술은지 똑 사흘에 찻죽⁶⁶ 한 그릇씩 점지로 해주고 왔다.”⁶⁶ 그 래 가이까네 그래 인자 할마이,

“나는 그 너머 거어 아랫것들 종놈의 집에 가이 딸로 낳았는데 어떻기 대접을 잘하는지 삼천 석을 점지로 해 주고 왔다.” 이래 카거등.

김정승이 깨가지고 보이 꿈이라. ‘옳다, 우리 며느리가 순산 달이 이 달이디마는 순산을 했는데.’ 그래 고만에 꿈 이바구를 들으이 참 섭섭거등. 그래 저거 집에 싸게 오이까네 저거 며느리도 순산을 했고, 그 참 백정 집에도 딸로 낳았다 카고 이렇거등.

그래 이래 맘을 묵고 있어. 저거로 저 돈을 그만치 점지로 해 봤다 카이 탐이 나나마,⁶⁷ 그래 우리강 그래 혼사를 하며 녀이 알아도 수치고 되겠나 싶어. 옛날에사 뭐 열 몇 살씩 무우며 장개를 안 가나? 그래마 ‘에라이 이념, 장개를 보낼 밖에 없다고. 그래 인자 장개를 보낼다.’

그래 백정을, 백정이 아이라 종놈이다. 불러다가 그래 이바구를 하이,

66. 꿈에 본 영감 할멈은 삼신三神인 것 같다. 삼신이 김정승의 며느리가 순산한 데 갔더니 삼신상三神床에 차린 제물이 소홀해서 아기의 재운財運을 사흘에 피죽 한 그릇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점지했다는 뜻이다.

67. 나지만

“아이고, 샌님, 나으리, 직이거들랑⁶⁸ 곱기 직이 주소.” 그래 듣지도 안 하고 자꾸 빌거 등. 그래,

“그런 기 아이라, 내 말 안 들으며 안 된다. 사돈하자꼬.”

그래 사돈을 떡 했다. 해 놓이, 그래 인자 날 받고부터는 그 옛날에 신랑이라고 관례冠禮하고 요만한 상투를 쫓고는…。 저거 동무들이 짱치(작대기)로 놀린다.

“야, 이니리 아아야, 니 거어 장개 가는 거, 이니리 아아 니 바보다.”

모두가 시달아⁶⁹ 쌓아 놓이, 그래 저거 할배잡에 가가⁷⁰ 아아들이 시달아서 장개를 몬 가겠다 카이, 그래 저거 할배가 머러쨌거등.⁷¹

장개로 갔다. 가 놓이까네, 참 그 정승이라도 살림이 장(꽤나) 기찮던갑더라.⁷² 그래 이 며느리가 오자 마 몇 천 석이 올라가거등. 그래가 아들 둘이 딸 하나 낳아가 잘 사는데, 어찌 저거 친구들이가 들쭈시 쌓아 놓이, 그러구러 인자 나가 들고 염치가 들어 놓이,

“나 인자 이래가 몬 살쨌다고.”

하도 그래 쌓아 놓이 그래 저거 할배가 그래,

“우리가 살림도 인자 요만하이까네 그래 마 내외간에 갈리자.”⁷³ 이래 뒤거등.

그래 인자 여자를 보내뒤다.⁷⁴ 그래 갈라 칼 적에 여자가 어데 가 점을 하이까네,

“당신은 길 나서가지고 제일 처음 만내는 사람, 꺾기나 희기나 그 사람캥 그래 마 배필을 삼고 그래 따라가 살아라.” 카거등.

그래 우째 쪼맨은 보파리로 하나 들고 나가이까네 새카만 알곶은 사람이 그래 하나 오 더란다. 그래 그 사람캥 인사를 하이까네,

“나는 저 산중에 솟이나 꿈고 그런 데 산다.” 이카고 하이까네 그래,

68 죽이려거든

69. 시달리게 해

70. 할아버지에게 가서

71. ‘머러카다’란 꾸지람하다는 뜻이다.

72. 기찮던가 보더라. ‘기찮다’는 ‘가난하다’란 뜻이다.

73. 부부간에 헤어지자

74. 내보내버렸다

“나는 당신 따라 갈라.” 카이끼네. 몬 따라오라 카거등.

“나는 살림도 없고 그렇다.” 그래도 따라갈라 칸다.

카이 그래 참 솟구덩이로 이래 났는데 가 보이, 그 솟구덩이 짚에(곁에) 돌이라고 있는
기 마 전신에 마 금이고 그렇더란다.

그래 그 집에 사이(사니) 쯤매 있으이 마 또 몇천석이 되거등. 그래 김정승 집은 참 사흘
에 찢죽 한 그룩 물(먹을) 형편이 안 되거등. 그래 이 집에는 가난해도 그 솟 굽는 사람강
배필이 되가 잘 살고, 이 김정승의 집에서는 그래 마 망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억천, 언양면, 1984]

운이 있으면 귀신도 범접하지 못한다

등금장사가⁷⁵ 소금짐을 짊어지고 소금 팔러 어느 동네에 찾아가다가 그만 날은 저물고 해가지고, 그 마실 앞에 등금나무⁷⁶가 큰 기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르 눕어서 잤 거등. 자이까네 꿈에 허연 노인이 서너 분이 와가지고 그래,

“가 보이 어떻더노 자네?”

“그대로 괜찮더라.” 이래 카는데,

그래 가마 보이까네 모두 저 지리산 큰 산에 산신령들이 와가지고 그래 하거등. 그런데, 노인 한 분은 기분이 억시기(매우) 안 좋기 와가지고 입도 안 떠고 앉았으이,

“니는 와 그리 가마이 앉았노?” 카이까네,

“아이구, 내사 요새 마 고단해서 딱 죽겠다.”

“와 그렁노?” 카이까네,

“아, 이놈들이 마 날로 마 고롭거로⁷⁷ 하고, 자꾸 발로 쫓고 이래 애를 먹이 쌓아가지고 마 내가 고단타.”

“그놈들 야단도 치고 억시기 얼리지?” 하이까네,

“언제⁷⁸ 저 녀미 운이 하도 좋아 아직까지 내 실력가지는 안 된다. 근데, 십 년만 지내간 뒤에는, 지가 운이 있어도 매양 있는 기 아니니, 한 십 년만 지내며 내가 거어 가서 보깁 음을 하겠는데, 우선은 내가 뭐 내 실력가지고는 당적을 몬 하겠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우선은 고생해라.” 이라거등.

자고 나이 꿈이거등. 그래가 그 이상스럽다 싶어가지고, 그 소금짐을 짊어지고 아침도

75 등짐장수

76. 마을 앞에 있는 큰 고목

77. 괴롭게

78. 아니

언어 묶을 겹 마실을⁷⁹ 들어가 그 중 좋은 집이라고 찾아가йка네 큰 부잣집인데, 장골이
 머슴을 딱 데리 놓고 잘 사는데, 사랑에 가가지고,
 “요구를 좀 시키 주이소.”카고 앉아 있으йка네,
 일꾼들이 산에 가가 낭글⁸⁰ 해 와가지고 그 모통오 큰 느티나무 밑에 갖다가 툇 부어가
 지고 놓고 설랑 도끼를 가지고 장작개비를 깨고 해 쌓는데.
 ‘아하, 밤에 꿈에 나온 저 노인이 이 느티나무의 신령이구나.’ 그래 그 등금쟁이가 그 주
 인을 불러서, 자기 밤에 꿈꾼 그 이야기로 했는 기라.
 “내가 밤에 꿈을 꾸йка네 그래가지고 그렇더라.”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며 화가 닥칠 모양이니까네 그래 내 말로 듣겠나?”이라이까네,
 “그렇거들랑 그 나무에다가 흘로 많이 도와가지고 그 나무밑에다가 절대로 둥구리(장
 작) 짐을 갖다가 부루지(쌓지) 말고, 장작도 거어 패지 말고 그래 하라고.”
 그래 하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한 십 년쯤 지나서도 그 집에 피해 없이 잘살더라 카데. 운이 있을 직에는 구신이 범
 접을 몬 한답니더. 운이 좋을 직에는 구신도 운이 쇠운되도록 기다린다 카는 기라. 보깁
 음을 한다는 말이 있다 캐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원관, 언양면, 1984]

79. 마을에

80. 땔 나무를

자기 복은 못 빼앗아 간다

예전에 한 집에 며느리로 봐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사랑에 손님이 한 사람이 와가 있었거든.

아무리 봐도 이 집이 못 살긴데, 저 복이 어데 들은고 아이라, 크나큰 개로 먹이는데 개한테 복이 다 들었어. 개한테 복이 들었는데, 그 녀의 개를 지가 자아무몬⁸¹ 싶어요. 손님이 왔는데 자아무몬 싶어,

“친구야, 저 개를 나 삶아 무몬 어떠 겠노? 삶아 무몬 좋겠다.”

“그 그라지.” 개를 잡아 떡 삶았어. 지는 익으몬 복덩거리 묵을라고 딱 베루고 있는 데, 큰 며느리가 복덩거리 폭 떠가 마 무 뵈다.⁸² 그래 익었다고 떠 무로 가이까네 마 며느리가 떠 무 뵈어. 그래,

“지 복은 할 수 없네.” 쿠더란다.

백쥬⁸³ 심통이 나쁘게 녀우 복 빼앗아 갈라 쿠다가 만며느리가 떠 무 뵈으이, 복은 그 집에 다 갔단 말이지. 그래 난중에 개 무라 캐도 안 묵을라 캐.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81. 잡아 먹으면

82. 먹어 버렸다

83. 괜히

복이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마련이다

옛날에요 대기 몬 살아가 총각이 한 사십 되도록 장개로 몬 갔다 아이가.

몬 가 놓이 그 동네서러 어불라 가지고⁸⁴ 그 총각을 장개를 시켰는데, 저 엉뚱 밑에 곁빙이 처자⁸⁵인테 장개를 시켰다 아이가.

그래 메늘로 떡 떼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시어마씨가 양식이 없어 놓이 메늘 보기 미안해가 술에 물로 부 넣고는 불로 때이까네 메느리가 다홍치맬랑 입고 문을 열고 나와가,

“어무이요, 내가 밥 하끼요.” 커이,

“아이구, 언제, 니는 몬 한다. 내 하꾸마. 그래 니는 오늘은 절대로 쉬야 된다. 어제 시집와가 오늘 쉬는 날인데 절대로 쉬야 되지 밥은 몬 한다. 내 하꾸마.” 이커미 나무로 똑똑뿌아 영거등.

그래 하도 방에 드가라 캐 놓이 메늘이 드갔다 아이가. 메느리 이것도 곁빙이 딸이라 놓이 이 집이 양식이 없다 커는 그거는 알거등. 그래가 인자 다부 나와가 소쿠리 하나 들고 바가치 하나 들고 야불따아 찌고 패내키⁸⁶ 밥 얻으러 나가뿌이 와이구 시어마씨가 다마라 가가지고 메늘로 불러가지고,

“니 저게 커다는 기와집에는 밥 얻으러 가지 마래이.” 이카거등.

“와 몬 가는교?” 커이까네,

“그 집에는 밥 얻으러 가며 노인이 은찬동고리 대로가 짱배기로⁸⁷ 탁 때리가 역수로 아폰데, 함부래 가지 마래이.” 카거등.

84. 도와서

85. 언덕아래 거지처녀

86. 엽구에 끼고 재빨리

87. 백통 담뱃대로 이마를

그래도 가이까네 대문을 확 열어 놔거등. 그래 드가이까네 종들이 떡 밥을 한다 아이가.
 정지에 드가이까네 그 집에 대감 마누라가 방아서러,
 “그 다홍치마 입고 부엌에 드가는 거 누고?” 커거등.
 “아이고, 어지 시집 온 저 우에 꺄빙이 머시기 잔치하는 데 그 집입니다.” 커거등.
 “그래 니 방아 들오너라.” 이카이까네 겁이 나가 절대로 방아 안 드가거등.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와 방아 날로 들오라 키는공, 내 밥 한 숟가락 얻어가 가며 그뿐
 인데 와 날로 자꾸 들오라 키는교?” 커미 그래 겁을 나가 안 드가이까네 자꾸 들오라 칸
 다 아이가.

그래 종들도 드가자 커이까네, 큰 구들목에 요로 탁 피아 놓고 고오 딱 앉아라 키는 기라.
 딱 앉았으이 큰 상을 억수로 잘 끼미가 오는 기라요.
 “사람이 한 평생에 응이 큰 상을 받아 봐야 되는데 큰 상을 몬 받았다 캐야...” 커미 그
 대감 마누라가 큰 상을 잘 끼미가 들오더란다.

그래 그 큰 상을 보이 억수로 잘해가 오는데, 그 여자가 큰 상에 그거로 갖다가 다 답는 거라.
 대감 마누라가 답지 말고 얼매든지 묵고 남는 거는 가져가고 얼매든지 묵어라 키는 기라.
 “큰 상인데, 사람 한 평생에 이거로 하문씩⁸⁸ 받는데 와 그래... 묵어라꼬.” 그래 인자
 묵었다. 낸중에는 신랑 줄라고 답을라 카이,

“신랑 거는 이 뒤에 있으이까네 얼매든지 묵어라.” 커는 기라.
 그래 그 대감 마누라가 얼매든지 묵어라 캐 쌓아 놓이 새각씨가 묵었다.
 저저 집에는 신랑이 배가 고파 뱃대지(배) 깔고 이래 눕었다가 배가 고파가,
 “와이구, 와 안 오는공? 아이구, 배고파라. 아이구, 배고파라.”
 그래 열 한 시나 가까이 뻘지러 이러이,
 “아이구, 배고파라.” 커저,
 시어마씨는 안 와 놓으이까네,
 “와이구, 달나갔는갑다. 아이구, 도망쳤는갑다.” 이래 쌓거등.

88. 한번씩

을걸음 줄걸음 내도록 배고파라 커제, 한 머리는 달나갔는갑다 싶어가 도망쳤으며 우야노 싶어가 대격정을 하제.

그 큰 상을 두 낱을 끼미며⁸⁹ 안 늦겠나? 지 큰 상 받은 거 다 묵고, 신랑 큰 상을 반탕이다⁹⁰ 담아가 한 소쿠리 안에 잘 끼미가 갖다 주라고 주저등요. 시어마씨가 골목에 나가 보이까네, 다홍치마를 입고 한 보탕이 이고 들고, 이고 오거등요.

“아이고, 인자 온다.” 카미 참 좋다 아이가. ‘아이고, 인자 온다.’ 카고 이래 놓이, 들와가 그래, “아무 집에 가이까네 그래 큰 상을 날로 이래 끼미가 주더라고, 그거 때문에 늦었다.” 커민서러 신랑도 배 부르게 묵고, 시어마씨도 배 부르게 묵고 그래.

그 날 저녁에 대감이 서울 가가 과게 해가 오는데, 소나기가 막 악수곶이 오거등. 걸물⁹¹을 건네야 저거 집으로 가는 기라요. 대감이 말로 타고 걸로 건너지까네, 황토물이 수해가 저가 쪽 내려오거등. 말이 마 가븐데 가다가 떡 서서 가도 오도 몬하는 기라. 물이 어찌 내려오는지 대감 마음에 ‘이거 아무래도 꿈쩍없이 내가 이 거랑에 죽겠다.’ 싶어가 말로 타고 붙잡고 있으이 물이 콕콕 내려오거등.

그때 이 대감 귀에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커미 그 말로 땡기 주는 기라. 그래 건너가서 저거 집에 가가 마누라인테 그래,

“니가 오늘 집에서 무신 좋은 일로 했노?” 커이까네,

“하이구, 내사 집에서 아무것도 좋은 일 한 기 없고, 저 건네 나 많은 총각이 꺾빙이한테 장개갔는데 내가 큰 상 끼미 준 그거 있지 아무 좋은 일 한 거 없다.” 이카이 물팍을 탁 치미,

“와이구, 니가 그런 좋은 일로 해 놓이까네 내가 살았다.” 그카더랍니더.

그래가 그 대감이 그 꺾빙이 집으로 논으로 좀 티아⁹² 주고, 집도 하나 사 주고, 그래 꺾빙이 그기 잘 사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장덕선, 언양면, 1984]

89. 꾸미면

90. 함지에다

91. 냇물

92. 나눠

복타러 가는 석순이⁹³

옛날에 석순이라는 사람이 어무이하고 산골 큰 절에 가서 어무이는 밥을 해 주고 저는 심부름하고 이래가 살았거든.

중들인데 물으니까네,

“서천서역으로 가몬 복을 탈 수 있다.”

이래 옛날애기를 하던 기라. 한 이십 살 되는 총각이 돼가 서천서역 간다고 떠난기라.

“가 복을 타라.”고.

그래 하루 종일 가니까 어디 누각이 하나 있더라. ‘백루百樓’⁹⁴라고 써 붙있더라네. ‘이기 뭔데 이런 기 있나?’ 누각을 올라가니 처녀가 하나 있는 기라. 그 밑에 노인이 있으면서,

“뭘 우짤 사람이 왔느냐?”

“백루라고 써 붙이갓고 내가 이상해가 올라왔는데, 나는 서천서역으로 복을 타러 갑니다.”

“오, 그라몬 거어 가거든 내가 사우를 대인으로 고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우해 봐야 좋겠는가? 물어 보라.”는 기라.

“응, 그라제.”

또 하루 종일 가다йка네, 노인이 복숭아 두 개가 있는 복숭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 니가 석순이구나! 너 목 마른데, 복숭아 이거 목우라.”고 주더라 이기라. 그래 목은 댔에,

“내가 황금 사만 냥이 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황금 사만 냥을 어떻게 해야 올라가겠나? 거어 가거든 좀 물어 봐다우.” 그래 주문을 자꾸 받는 기라.

또 하루 종일 가는데 질을 잘못 들어가 산골로 들어간 기라. 가다이 큰 편편한 집이 있

93.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서진시대의 석송石崇(249~300)을 우리나라 민담에서 변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94. 석송은 녹주綠珠라는 애첩愛妾에게 백장百丈 높이의 누각을 지었다.

는데, 빈 집 걸더라네. 그래,

“자고 갑시다.” 자꾸 소리지른까네, 처녀가 하나 나오딩이,

“우리 집에 못 잡니다.” 그러거든.

“집은 큰데, 왜 못 잡니까?” 이라이께나,

“우리가 부자고 식구가 많았는데, 종이고 주인이고 간에 하룻밤에 하나씩 없어진다. 그
래가지고 내가 온 저녁에 죽을 날입니다. 그러니까네 당신 괜히 여어 있다가 험한 꼴 보
고 되겠입니까? 딴 데 가 자이소.”

“아이 뭐, 그거 상관 없지. 죽어도 그만이지. 자고 간다.”고 하고 처녀캉 잔 기라. 자다가
이숙한데 뭐가 오딩이마는,

“애기야!” 소리지르더란 기라. 집이 울컥거리고 뭐 장사가 온 기지. 그런께나,

“오늘 저녁에 이집 처녀 못 데려갑니다.”

“우째 못 데리가노?”

“삼국 부자 석순이가 왔습니다.”

“아, 그래.” 그라민 가드라는 기라.

그래 디비(뒤져) 보니까네 장사 화상이 있고 현판이 있는데 그기 전부 사가 돼가지고 식
구를 잡아간 기라.⁹⁵

“내 서천서역에 복 따러 가니까네 갔다 올 동안에까지, 있으라.”하고 가는데, 만석꾼집
이라 땅은 다 있겠지만 사람은 다 죽고 처녀 하나만 남은 기라.

거반 다 가는 판에 큰 강이 있는데, 허연 노인이 뱃사공이라.

“니가 석순인데 어딜 가나?”

“서천서역에 복 타러 갑니다.”

“음,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 다오. 내가 우째 하늘 등천을 못 하였나 좀 물어 봐 다오. 그
럼 배를 건너 줄테이까네.”

95. 장수 초상화가 사기邪氣가 되어서 가족을 잡아 갔다

“예.”

그래 건네 조가 얼마 안 돼가 서천서역에 간 기라.

“석순이가 왔나? 복을 타러 왔나? 나는 복을 많이 타났으니까네, 복 줄 거도 없다. 너 만 석꾼 발써 했지. 황금 사만 냥을 보오(벌써) 지가 타났지. 또 처녀도 좋은 데 장가가게 됐지. 그러니까네 나는 복을 탔다.” 카는데, 앞에서 물어달라고 부탁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첫 번에 처녀를 놓고 대인을 사오로 귀할라는 거어 가서는 처음으로 올라온 사람을 사 오 보면 좋다 하더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그 다음에 황금 사만 냥을 놓은 사람은 그 얘기하면 석순이 줄 기라. 니가 그 황금 사만 냥을 가지면 복을 타서 부자가 되고, 그 댐에 처녀가 혼자 사는 집에는 그 사가 돼가 전부 그라니까네 그거 전부 싹 없애 뿌리면 되니까네 처녀, 처녀 두 군데 장개간 기라. 그러니까네 너는 복을 다 타났은께 가라.”

그래 오다가 가차운께 그 처녀 집에 들어가서 복을 탄 얘기하고,

“내가 가서 어무이를 모셔 올테이니께 있으라.”고 그라고 간 기라. 복숭나무 밑에 노인이 연해 거어 앉아 있는 기라.

“그래 뭐라고 하더나?”

“예, 그 황금 사만 냥은 석순이로 주면 등천해 올라간다.” 카이,

“아이, 그러면 석순이, 니가 가지거라.” 쿠움서 홉팍 금뭉치로 쪼 뿌렸는 기라.

첫번 처녀 누각에 올라간 데 가서,

“제일 먼저 누각에 올라온 사람을 사오로 삼으랍디다.”

아, 그러니까네 뭐 석순이가 제일 먼저 올라온 기라. 그러니까 사오 삼을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네 처녀 두 군데 됐지. 이 처녀도 부자집에 데려가고 자기 어무이도 데려가가 그 만석꾼집에 가가 모두 들았으니까네 뭐 만석꾼의 땅이 있으니까네 부자 아이요?

‘석순의 복은 복방석에 점지하고, 강태공이 날 업어 전팔십 후팔십을 못살아도 전팔십은 살게 해달라.’고 점쟁이가 축원하는 데 그러거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어사 박문수와 효자 효부

박문수 박어사가 한 곳을 지내가이, 뻔뻔한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하고 둘이가 서로 절로 하는 기라. 남자 한 번 하이 여자 한 번 하고, 남자 한 번 하이 여자 한 번 하고 이리 절로 하고 있거든.

“허허 참, 보소, 와 절로 저래 하고 있는교?”

“길로 가거든 곱게 가세요.”

“우리사(우리야) 절로 하거나 말기나?” 이라거든.

“여보시오, 그래도 내가 알고 싶네요. 한 번 들어 봅시다.”

“기어이 듣고 접습니까?”

“예.” 하이, 남자하는 말이,

“기어이 얘기가 듣고 접으론 내 얘기를 하겠읍니다. 여 있는 부인이 내 아넨데 우리 집에 구십 백발노모가 계시는데 ….”

마 노망老妄을 했던 모양이지.

“우리가 팔발을 쫓아가⁹⁶ 먹고 사는데, 팔발을 쫓다가 떡 점심밥을 가질러 가디마는 저녁 참때까지 점심을 안가 오는 기라. 그래 이 양반아, 와 이리 점심을 이적치(이처럼) 늦가 가 오노?” 카이

“아이고 여보소, 집에 가이까네, 시 살 묵는 알라로⁹⁷ 좀 보라캐 뵈디마는, 어무이가 얼마나 닭이 잡숫고 접어 뵈는지, 정지에다 닭이라고 물로 부아가 소두땡이로 덮아 아아로 삶아 뵈는데, ‘아이고 야야, 닭로 묵고 접어가 한 마리 삶아 뵈다.’ 이러 쿠시는데, 세상에 어무이가 얼마나 닭이 잡숫고 접어(삶어) 저런고 싶어서, 그래 아아는 우리 놓으론 자식

96. 일귀서

97. 아기를

아닌교? 그런데, 마 잡숫고 비위가 상하몬 우야꼬 접어가 난장에(밖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 삶아 들고 온다고. 닭을 잡을라 쿠이 조매(좀처럼) 안 잡히더라고. 간지갱이로(장대를) 가아 후디티리고(쫓고) 근근히 물이로 해가 잡아서 삶아가 어머니를 드리고 오이 이리 늦었심더.” 이러 쿠이까네, 그 밖양반, 참 가장家長되는 사람이,

“세상에 나는 내 부몬데, 참 당신은 참 우리 어무이자태 그마이 효부로 하이, 참 감사합니더.” 쿠머서로 절로 하는 기라. 남자가 각시인데 절로 하이까네,

“하늘이고 땅인데, 우찌 신랑한테 절로 받아 먹고 있겠노?” 쿠미, 각시 한 번 하이 신랑 한 번 하고, 각시 한 번 하이 신랑 한 번 하고,

“이래 합니더.” 쿠더란다.

그 사람이 현풍 곱썬데, 그래서 그 박문수 박어사가 효자각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내 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장씨 효자

이 마을에 효자각이 있는데, 이를 세운 것은 꽤 오래 되었다.

저 사람들이 원래가 다기⁹⁸ 사람인데, 여계(여기에) 인자(이제) 터를 잡아가지고 효자각을 지었는데, 그 어른이 병환으로써 오래 신고⁹⁹를 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약이 안 들어. 백약이 무효라. 그래서 그 어른이 있다가,

동지 섣달인데, 설날 뒤인데,

“내가... 콩알로(콩알을) 무머(먹으면) 낫겠다.”

그래(그렇게) 유언을 하고, 유언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효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여어 공현산¹⁰⁰이라고 뒷산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드릴 헌짜獻字. 그래서 거어 가지고 참 하여간에 눈이 적설돼가 있는데, 동지섣달에 눈이 적설돼가 있는데, 그 두덕(언덕) 밑에 콩이(콩이) 한 마리 날라와 풀 나는 기라.

가 보йка 눈이 녹았어. 거어 명지名地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알을 조아(주워) 와가지고, 그래 참 뒤에 마 완쾌한 기라(것이라). 그래서 효자 발천이 됐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성출, 언양면, 1984]

98. 언양읍 다개리

99. 신고辛苦 : 곤란한 일을 겪어 몹시 애를 씀. 여기서는 깊은 병이 들었다는 말이다.

100. 고현산高嶺山을 말한다

북골 효자

북골이라 카는 마을이 있는데, 그 때는 마을이 안 생기고 아주 산골짜기던 모양이라. 파전¹⁰¹을 해 묵고, 모퉁도 없이 부자父子가 살림을 살았는데, 하나 뿐인 그 아들이 별어서 인자 부모로 봉양을 하고 있는, 말하자며 효자라.

청상 뭐 할 기 없으니까¹⁰² 가히 식량이 되지는 못하지만 봉양하기 위해서 팔발 뒤져가지고 메물이나 감자나 강냉이나 숨아가지고 끼를 해 먹고 살았는데, 나이 많애 놓이 어른이 고기를 좋아한다.

숯경 한 포 굽어가 가가 팔아가 고기를 사가지고, 다음 장날에 고기를 사 올 동안에 어른 반찬할라고 근근이 해 놓고, 내외는 간추리가¹⁰³ 사는데,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엽으니까, 할아버지 판상 앞에 앉아서 고기를 먹어.

자기 좀 묵고 손자 좀 주고 하이까네 그 한 장 판에 모지랜다 이기라.

자기도 힘껏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 반찬을 떨어가¹⁰⁴ 안 되겠는데,

내외간에 아주 인정이 아주 참 좋았던 모양이지요. 남자가 이렇기 하자 하며 이렇기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며 저렇기 하자, 뜻대로 해 주는 사람인데, 하루 저녁에는 내외간에 의논을 하는 기라.

“이 사람아, 다른 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반찬을 저 놈우 새끼가 자꾸 먹으니까네, 우리가, 반찬 당할 힘이 안 되이까, 마 아아 저 녀를 없애빠리는 기 안 좋겠느냐?”

“아, 자기가 그렇다면 마 없애지. 없애도록 합시더.”

“그래, 그렇거등 내일쯤은 자네캉 나캉 마 없애도록 하자.”

“그랍시더.” 이래 약속이 딱 됐다.

101. 화전火田, 산 자락을 일군 밭

102. ‘재산이 없으니까’로 해야 줄거리가 맞다.

103. 절약해서

104.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하루 저녁에 저녁을 묵고 어린애를 딱 눕히 놓으니까네 이 높은 꼴꼴 눕어 자거
등. 자기 아버지는 탄 방 거처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 애를 부인을 안으라 카고, 자기는
괘이를 하나 둘러미고,

“자, 오늘 저녁에 아무 골짜기에 가가 이념우 아아로 마 없애뿌자.”

“그렇게 합시더.”

그래 부인은 어린애를 안고 남편은 괘이를 하나 둘러미고 가는데, 산만당¹⁰⁵아 어둡은
데 가 때리 문을라고 괘이로 구디기로 판다고 파이까네, 해필이사 판다고 보이, 어디 석
벽石壁이 아다리뒀던 모양이라.

신라 시대 모양이겠지. 큰 북을 이래 달아 뒀는데, 무슨 큰 비상이 걸리든동 큰 사고가
나면 큰 북을 치기 되가 있는 기라, 적이 들온다, 난리가 들온다, 이럴 때 큰 북을 쳤어.

남편이 석벽에 괘이를 둘러미고 하문 딱 찍으니까네, 공중에서 ‘획’ 그러미 마 북소리가
‘궁’ 난다 말이다.

아무도 올라가 북치는 사람은 없는데 자연적 북소리가 ‘궁’ 나이까네, ‘야, 이거 비상한
일이다.’ 그 고을 원이 사고 없이 이런 자연 북소리가 나이까 아주 날랜 병력을 갖다가 출
동을 시키는 기라. 대마를 집어 타고 출동을 해가,

“찾아 봐라. 이 북소리가 웬 일이냐? 비상하다.”

또 괘이로 하문 딱 찍으니까네, 무슨 포탄 날라오는 거매로 공중에 ‘획’ 것디마는 큰 북
을 갖다 때리는데, ‘궁’ 그러미 큰 소리가 나이까네, 날라오는 방향을 향해가지고 날랜 병
력을 갖다다가 보내 봤다 이기라. 보내 보니까,

야근 밤에 두 젊은 부부가 거어 구디기를 파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잡혔다.

“이념, 니 어떤 녀이고? 어떤 이유로 여어 구디기를 파며, 뭐할라꼬 이래 북소리가 나
노? 이념, 가자.”

그래 두 내외를 고을 원님 앞에 좌정시키니까, 원이,

105. 산꼭대기에

“그래, 너 무슨 이유로 그렇게 구디기로 파고 그랬느냐?”

“사실 이 백성이 산촌에 팔발 뒤져 묵고 처지 모양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반찬도 없고, 감자밥이란동, 옥수수란동 밖에 드리질 못하고 있는데, 반찬이라도 좀 좋아야만 밥 한 술이라도 더 잡숫지 싶어가지고, 일을 아무 거도 할 거 없고 근근이 나무짐이나 해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고기반찬이라고 사오면, 아, 내 자식이라고 한 녀 낳아 놓으이, 이 녀이 저거 할배 짝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날람날람 다 받아 묵고, 장 하지 못하이¹⁰⁶ 이거는 놔 뒤서는 도저히 내가 힘이 부족해서, 이녀를 없애가 때리 문을라고 구디기를 파는 질입니다. 우리 내외가 의논을 했읍니다. 자식은 놓으면 자식이고, 부모는 하문 가면 다시 오지 아니하이까, 부모 공양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직 일라꼬, 내가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이까 그 고을 원이 상부^{上部}로 ‘이런 백성이 있다’는 연락을 했어요.

‘아, 그런 구차하기 지내는 그 내우간에 부모에 그렇기 효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국가서 묵고 살 만침 그 보조를 받았대네요.

그 때는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 뒤로 거게 북을 쳤기 때문에 북골이라 카는 마을이 생겼다는 이런 전설이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돌이, 두동면, 1984]

—

106. 고기 반찬을 항상 준비하지 못하니

유의태 동생의 효심

경상남도 창녕군에 예전에 유의태柳義泰라고 커는 사람이 조선 명의名醫 거등. 많이 알았거등.

많이 알았는데 의원 모친이 병이 났는데 약은 그 약을 써면 낫키는 낫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가 어무이(어머니)가 죽기가 났다 말이지.

죽기가 돼노이 작은 아들이 우리 어무이가 아무래도 살지는 못하고 죽기가 났으니 내가 넘우(남의) 자식이 났다가 어무이가 이래 세상을 버리면 원통하다 싶어서 어마시를 업고서 팔도 행각으로 업고 기경(구경)을 시길라고 나쥬거등.

다 죽어가는 어마시를 기경을 시길라고 모친을 업고 객지에 나가 돌아 땡기미 말이지 밥을 얻어 먹어가미 한 군데 가이 모친이 뭐라 카는고 하이,

“야야, 내가 이렇기 기진하고 이력쿠마는(이렇지마는) 목이 말라 몬전디쥬다(견디쥬다).” 이런 소리를 하이,

“아이고 어무이요, 그래요. 여어(여기) 산중 골짜기 물 좀 구해기 어렵쥬는데, 어무이 여기 조금 내리쥬능고? 니가 물을 한 분 찾아 볼 모양이니.”

그래 산골로 물 내려오는 데로 찾아 드가이, 산골에서 물이 쭈쭈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데, 고 올라가이 말이지 방구(바위) 깨진 틈새서 물이 나는데 굵은 엄지 손가락만하나 꺼시(지렁이)가 시(세) 바리(마리) 죽어가 허실허실 하이 해가 있어. 그물로 갖다가 어무이를 업고 가가주고 시 분(세 번)을 손으로 먹이가 업고 한 시간쥬 내려오이,

“아이고 야야, 내가 금방 그 물을 먹고 나이 석이(속이) 시원한 기 정시이(정신이) 깨반 하다(깨운하다).”하거등.

“아이고 어무이요, 그래요 아이구 듣기 좋심더.”

그 소리를 하고시러 한 마실(동네) 있는 데로 떡 내려가이 말이지 웬 사람이 뽕구리(좁모자라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 닭로 들고 나오더이마는 도랑에 갖다 흘쩍 던져버리네. 그래 인자 유의태 동생이 말이지 저그 엄매를 업고 가다가 닭 던지는 것을 보고시러 쫓

아가가지고,

“여보, 닭도 터득터득득 하는 닭로 용(아직) 안 죽은 닭로 와(왜) 도랑에 던지요?” 이러
쿠이(이렇게 말하니)

“이 닭이 말이지 금방 우리 마판에 노새 뒷다리에 채여 죽은 닭인데 이거 마 내빼린다.”
카고 도랑에 던져뿌리이,

“그라든 그거 마 내가 주워 갔교(갈까요)?” 그러이,

“주와 가라.” 카거등.

그래 그 닭로 주워가 그 솔을 하나 빌려가 말이지 냇가 앉아가 남글(나무를) 주와가 닭
을 삶아가 어마씨를 먹있다 말이지. 먹이 가주고 그 한참 쉬기 업고 가이 말이지 날은 저
물고, 또 마실에 들어가가 어느 집에 빈 집이 있나? 구구한 말로 넘우 집에 드가가 방을
하나 얻아가 잤다 말이지.

자고 나이 그 이튿날 어무이가 병이 나아. 그래 저 그 어무이를 업고 가가주고 저그 형
이가 조선 명인데(명의인데),

“형님 보소. 어무이 이번에 병이 용(영) 완체(완쾌) 됐심더. 형님이 가 말이지 조선 명의
라 해도 어무이 병을 못 고치고 내가 고쳤심더.”

“아, 니가 참 효자다. 니 정시이(정신이)고쳤다. 니는 우애가(어떻게 해서) 병이 나아지고 그
랬노? 니가 필유(필시) 곡절이 아이(아니) 있나? 업고 땡기며 어무이를 뒤편로 먹있노?” 하이,

“한 군데 오이 말이지 산골에 내려오는 물 속에 끼시가 굶은 엄지 손가락 같은 기 시(세)
마리가 죽어 있는 그 물 먹이고(먹이고) 한 군데 오이 닭로 던져뿌리는데 그 닭로 삶아 먹
이이(먹이니) 나왔심더.”

그래 저그 행이(형)가 무르팍을 탁 쳐. 그래 저그 행이가 말로 하기로 말이지,

“어무이 병이 말이지 천 년 석간石間 지렁이 수수를 먹어야 낫고, 닭 천 마리 중에 봉이
라는 닭이 있는데 닭 봉을 묵어야 사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거로 어애(어찌) 구하
노? 니가 천심으로 효자라노이 말이지 그기 자연 생기가 그래가 묵어가 어무이가 나왔
다. 그래 니가 효자다.”카더란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김수석,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편작¹⁰⁷도 못 고친 어머니의 병을 고친 효자

옛날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앓은뱅이가 되었는데, 아무리 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편작¹⁰⁷이라는 명의名醫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효자는 어머니를 업고 그를 찾아갔다. 어머니를 살펴본 편작은 자신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실망한 효자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느 산등성이에 앉아 쉬게 되었다. 그 때 매 한 마리가 무언가를 채어 가다가 떨어뜨렸다. 충각이 얼른 달려가서 보니 병아리 같이 생긴 이상한 새였다.

마침 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으므로 효자는 얼른 그것을 구어 어머니께 드렸다.

고기를 맛있게 먹은 어머니는 이번에는 목이 몹시 마르다고 했다. 효자는 물을 구하러 산골짜기 쪽으로 내려갔지만 골짜기가 말라 물을 구할 수 없었다. 이리저리 물을 찾아 헤매던 효자는 가까스로 물이 고여 있는 조그만 웅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물에는 지렁이 세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다. 효자는 차마 그 물을 어머니께 잡숫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물을 구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그 물을 떠다가 어머니께 드렸다. 지렁이가 빠져죽은 물인 줄 모르는 어머니는 매우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시었다.

효자가 어머니를 다시 업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펴고 싶다고 하면서 다리를 쭉 뻗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것이었다.

효자는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고칠 수도 있는데 고칠 수 없다고 했던 편작이 꽤 씁쓸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 어머니와 함께 다시 편작을 찾아갔다.

107. 편작¹⁰⁷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명의名醫. 장상군長桑君에게 의학을 배워 명의가 되었고, 곡號나라 태자의 급환急患을 고쳤다고 전한다. 동양東洋 제일의 명의로 알려지면서 흔히 명의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된 것이다.

효자의 항의를 받은 편작은 무엇을 어머니께 잡숫게 했느냐고 물었다. 효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편작이 무릎을 치면서 때가 맞아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봉凰의 새끼와 세 마리의 용龍이 빠져 죽은 못의 물인데, 자신은 그 약은 알고 있었지만 구할 방법이 없어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효자가 어머니께 구워 드렸던 새는 바로 봉凰의 새끼였고, 지렁이 세 마리가 빠져 죽은 웅덩이의 물은 삼용수三龍水였던 것이다.

[『울산광역시사』 오윤근, 윤양면, 1985]

천하 명의 편작

천하 명의 편작이 서모庶母가 있었는데, 서모가 병이 들었는데 편작이 못 고치 주는 기라. 서모에 난 동생이 생각하기로 이 형님이야 ‘천하 명의 편작이의 재주로 징기고, 서모라고 우리 어무이로 안 구해 주는고?’ 요래 양심悤心이 들었어. 참, 꽤 씹커든.

서모가 병이 우에 들었는데 하이까네, 온 몸이 툅 나무 뚜껍지매이로 온 천지가 들었는데, 서모 몸에서 난 아들이 형이인데 빠끼갖고¹⁰⁸ 어무이 업고서러 우리 어무이 내가 한번 고쳐 보겠다고 팔도강산 약 구하러 간다고 한 곳을 지내가이까네, 구시월쫘 댔는데, 가을 역중이로¹⁰⁹ 키와갖고 우물우물 하거든. 그런거로 돌 하나 검어쥐고 툅 던지 뿌이 한 마리가 죽는데, 텍¹¹⁰이 이만하기 났는 기 한 마리 툅 군데지는 기라¹¹¹.

108. 마음이 상하여

109. 봉凰 새끼를

110. 툅

111. 나자빠지는 기라

그 놈을 가아 와가지고 뱃기가지고서러 소금을 혈어가지고 곱어가 어무이로 주이까네,
 “아이고 야야, 이게 우예 이래 맛이 있노?” 이러 콤시러 한 마리 다 자시거든.
 먹고 나이꺼네 소금을 너무 많이 혈었는지 짹아가지고 용당재 곁은 재를 업고 넘어가
 는데, 목이 말라,
 “야야, 내가 목이 말라, 그 닭새끼를 니가 얼마나 짹게 해가 꾸워 줬는지, 목이 말라 죽
 겠다. 물 좀 두가.”
 “아이고, 어머이요, 이 첩첩산중에 물이 어딴겠는교?” 쿠며,
 “어무이요, 그럼 가만 있으이소. 내 물 한 번 구해 보지요.” 쿠미 내라 눕히 놓고, 골짜기 가 물
 구한다고 덤푼에 들바다 봐도 천지에 물이 있나? 한 쪽 덤푼에 들바다 보이까네, 바가지
 깨진 기 자빠져 있는데, 거어 물이 개파가¹¹² 있고 꺼꾸리¹¹³ 두 마리가 떡 죽어가 있거든.
 꺼꾸리 두 마리 던져내 뿌고 그거로 갖다 어무이로 마시 주이, 펄떡 펄떡 몇 모금 마셨는기라.
 “와이고 야야 세상에, 이 물이 어디 물이고? 이치도(이렇게도) 속이 시원하노?” 이러 쿠
 당이마는 집에서 몇 십리 업고시러 걸어 올 동안에 어무이가 허물로 훌쩍 뚜껍지를 다
 벗어 뿌고 본백 사척 곁은 본 몸이¹¹⁴ 봉두각시매이로 나오는 기라.¹¹⁵
 그래 곤치가 집에 던고 오이까네, 편작이가 보고,
 “아이고 야야, 세상에 어무이 병을 니가 우찌 곤쳤노? 내가 편작이지마는 어무이 병이
 약이 과연 어렵다. 어디서 어무이 약으로 구해가, 이 참 불사약을 먹었노? 어머이는 봉鳳
 새끼로 곱어가 목고 만년두결에 개핀¹¹⁶ 물에 솟용 암용 빠져 죽은 그 물이라사 목우야
 어무이가 낫는데, 내가 그 약을 구할 수 없었다.” 쿠더란다.
 그러이까 그 꺼꾸리 두 마리가 솟용 암용이었어,
 편작이가 처방을 하고 동생이 약을 구한거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112. 고여서

113. 지령이

114. 희고 아름다운 본래 몸이

115. 못난 여자가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었다

116. 오래된 해골에 고인

이상한 제사祭祀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 둘이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어떤 효성스러운 총각이 있었다.
어머니는 늘 아들을 장가보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 후 총각은 우연히 결혼을 하여 아내와 함께 산 속에서 살게 되었다. 어머니의 제삿날
이 다가오자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가 늘 한탄하던 이야기를 하고 죽어서나마 마음 편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제삿날에 보여드리자고 했다.
남편의 효성에 감동한 아내도 그러자고 했다. 부부는 장에 가서 깨끗한 요 이부자리 한
벌을 준비해 놓고 어머니의 제삿날을 기다렸다.
제삿날 저녁이 되었다. 마침 과객過客 한 사람이 찾아 들어 재워 줄 것을 요청했다. 주
인 내외는 오늘은 재워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과객은 깊은 산 속에 다른 집도 없으니 재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했다. 난
처해하던 주인 내외도 과객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어쩔 수 없이 재워주기로 했다.
한밤중이 되어 과객이 보니 주인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마친
주인 내외가 제사상을 치우지도 않은 채, 요와 이불을 펴더니 나란히 누워 부부 관계를
하는 시늉을 했다. 과객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후에 주인 내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요와 이불을 정돈하고 제사상을 치운 후 음식
을 한 상 차려 과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져왔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과객이 왜 그런 이상한 제사를 지내느냐고 묻자, 주인은 부끄러
워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과객은 과연 이것이 효자孝子の 제사법이라고 감탄
했다.

[『울산광역시사』 오윤근, 온양면, 1985]

베리데기

저거 아바이가 딸로 아홉이로 낳아가지고 이 늙우 아홉채를¹¹⁷ 마 베비랑발에 갖다 네 베리 뿌고,¹¹⁸ 다른 딸 다 키아가주고 시집을 보내 뿌고 병이 들어가 죽기가 딱 됐어. 딸 여덟이는 부모 살릴 그기¹¹⁹ 없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래 베비랑발에 베리데기를 안 부리나,

“베비랑발에 베리가 날 좀 살리 두가. 내가 아무래도 죽겠네, 날 살리 두가.” 하도 늙어가 날 살리라 캐 쑤아 놓이까네 참 베비랑발에 갖다 내베리 뻔 베리데기 그기 우째 살았는지 살아가지고 왔어.

베리데기 와가지고서 아바이 살릴라고 시천 시역골^{西天 西域谷} 약물 귀하로 안 가나.

“시천 시역골 약물 귀해야 우리 아버지를 살릴 긴데, 아버지 시천 시역골 약물 구해와야 아니까네 내 오두룩 사세이.”¹²⁰ 쿠고 간다.

가이까네 저 도랑가에 여자들이 앉아가 빨래로 짜드라 해 쑤거든. 그래서,

“아침마들요, 저 시천 시역골로 가몬 어디고 가는교?” 그리 하거든.

“에이쿠 알긋이라. 시천 시역골 찾아가 뭐 할라고?”

“그러쿠지 말고, 시천 시역골로 좀 가리키 주소. 가리키 주몬 내가 갈랍니다.”

“참말로 그랄라 쿠거들랑¹²¹ 이 검동옷 이거로 흰빛 나두룩 씻거 두가.”

검동옷으로 흰빛 나두룩 씻글라 쿠몬 얼마나 씻거야 되겠노? 그거로 참 흰빛 나두룩 씻거가 주이까네,

“니가 참말로 시천 시역골 갈라 하나?”

“갈랍니다.

117. 아홉째 딸을

118. 내다 버려버리고

119. 부모를 살릴 방도가

120. 올 때까지 살아계십시오

121. 그렇게 하려면

그래 빨래 씻는 물방맹이¹²² 그거로 물에다 탁 띄우며,
 “요거를 타고 가거라.” 쿠거든.

그래 방맹이 그거로 물로 떠 내려가다가 나이까네, 조만한 집이 있는데 찾아가йка네
 총각이 하나 있는데,
 “그래 여계가 어데라고 처녀가 여를 찾아 왔노?”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 시천 시역골 약물을 귀해야 우리 아버지로 살릴건데, 시천 시
 역골 약물을 귀하러 왔다.” 쿠йка네,
 “그래 약물로 귀할라 카몬 내 말로 들어야 약물로 귀한다.” 쿠거든.

그래 지 말로 듣고 아들로 하나 낳아가지고 키운다. 시 살 무어 또 하나 놓거든. 또 낳아
 가지고 가르쳐 주라 쿠이,
 “안주 멀었다.”

인자 아들로 서이로 낳았다. 서이로 놓고, ‘시천 시역골 약물로 귀하가 우리 아버지 살
 릴라 캬터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이몬 우똥기 할고?’ 노탄¹²³을하고 아들로 서이로 놓고
 나이까네 그래 시천 시역골 약물로 한 병이 옹고 죽은 사람 살리는 약으로 네가 줘야 한
 다. 카йка 약봉지로 세나로 주면서,
 “요거는 혈이몬¹²⁴ 숨 터지는 거고, 요거는 혈이몬 살 생기는 기고, 요거는 혈이몬 빼 생
 기는 기고, 죽은 사람이라도 요거를 혈이몬 살아난다고. 요거로 가져가라.”한다. 친정을
 가라 쿠는데,
 “아이들로 자기를 주고 갈까? 데리고 갈까?” 묻거든. 물으니까네,
 “자기 놓은 자석을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내가 그거 필요 없다고 데리고 가라.” 쿠는데,
 머슴아 서날으로¹²⁵ 데리고 오йка네 저거 아배가 죽어가지고 행상行喪이 나오거든. 행
 상꾼들이 어에 소리로,

122. 빨래 방망이

123. 근심을

124. 뿌리면

125. 셋을

“어화 넘자.”해 놓고, 또,

“배비랑발에 베리데기 저거 아배 살릴라고 시천 시역골 약물 귀하로 간년이 어데로 갔
는공?”

행상꾼들이 이래 소리를 하거든. 그래 보이 저거 아배거든. 이름을 지 부르니까네 안단
말이다. 그래 행상꾼들로 붙잡고,

“여어 좀 부라 주라¹²⁶.” 쿠이까네, 조카들이 상주질로 하며 상주 짝대기 그거로 가지고
들고 팰라 쿠거든¹²⁷.

“웬 년이 아아로 시 날이나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릴라 쿠는 년이 어딴
노?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우에 사노?” 쿠고 들고 팰라 쿠거든. 그러이까네 뚜디리 맞고
도 사정넘고 빈다¹²⁸.

“우짚동 우리 아버지 좀 부라 줄라.”고.

“한 번 보기나 보자.”고 자꾸 부라 주라 쿠이, 행상꾼들이 못 이기가지고 행상을 부라가
널로¹²⁹ 띄가지고 그 약으로 마 뿌리 놓으이까네 마 사더란다.

그래 사촌 안 딸기고 그 아들 서이로 저거 아배씨 뒤 잇우고¹³⁰ 살림 징기고 그래가 살
더란다. 배비랑발에 갖다 내비리도 성심이 놀랍우이까네 신령이 도와 줘가 저거 아배 살
리고 그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126. 내려 달라

127. 때리려 하거든

128. 사정을 하면서 빈다

129. 관을

130. 후손이 되고

효성 끝에 복 받은 셋째 딸

옛날에 부자인 정승 집에 아들이 풍자¹³¹라. 그래 ‘우리 집에 딸로 줄 거 곁으며 우리 살림이 천석인데 반을 가른다.’고 이래 씨 붙이 났어요.

처자가 셋인 저거 아버지가 나라에 상급돈을 바치러 가이까네 이래 씨 붙이 났어.

그래 집에 아버지가 딸네들 듣는 데 할마이¹³²한테 이바구를 하이까네, 딸이 서인데 아무도 갈라고 안 해요. 그런데 막내이 딸이 듣디마는,

“아버지요, 마 날로 거게 치아 주소.” 카더랍니다.

“치아 줄 거 곁으며 날로 거게 치아 주소....” 그라이까네,

“내가 니로 치울 수가 있나?” 카이까네,

“아무 일 없읍니더. 내가 갈라 카는 이상에는 가도 괜찮다고. 그래 날로 치아 줄라.” 이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마이한테 하이까네¹³³ 할마이도,

“안 된다. 거게 몬 치운다. 아매 고롭으며 고롭지¹³⁴ 딸로 그런 데다 치울 수가 있나?” 이께가 안 치울라 켜는데, 지가 하도 갈라 캐 쌓아가 날로 받아 치았어요.

‘내가 시집가서 우리 친정이나 딱 사도록 하고는 결단코 내가 죽어뿔라.’고 작정하고 시집을 갔는데, 예로¹³⁵ 하러 나가이까네, 바람에 풀 날리는데 수건이 들시는데 보이, 신랑이 형편이 없었어.

하도 그거해가지고, ‘아이구, 내가 저런 사람캥 살머 뭐 하겠노? 내가 죽지르.’ 싶어가지고 첫날 저녁에 약을 탁 타 죽을라고 하이까네, 신랑이 자꾸 와가지고 ‘물 두가, 물 두가.’ 이께 쌓아가지고 죽지 몬했어.

131. 문둥이

132. 아내

133. 이야기하니까

134. 아무리 괴로웠으면 괴로웠지

135. 대례大禮를

약을 부어뿌고 그 이튿날 저녁에 또 약을 타 놓았는데, 신랑이 요래 자더란다. 차마 묵지도 못하고 있으이, 신랑이 일어나디마는 그 약을 덜렁 묵어뿌렸어. 그리고 한 이레나 자디마는 허물을 흘랑 벗고 히안하기 되더란다.

그래가 아들 셈 형제 놓고, 참 잘되고, 아들이 그래 굶기 되가 잘 사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황복임, 두동면, 1984]

딸보다 나은 효자 양아들

옛날에 딸은 여덟인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오촌 조카를 양¹³⁶을 했는데, 살림은 유복한데, 이놈우 딸 여덟이가 들어가지고 그 오촌 조카를 양을 해 났다고 못살구로 해.

그래 마 후차내고 이래가지고 후디끼나갔다.¹³⁷ 신랑 각시가 후디끼나가고 논 걸은 거 말키 딸 여덟이 다 갈라 주 뿌리고, 할마이는 죽어 뿌고 영감만 살았거든. 그 영감쟁이는 과객길이다.¹³⁸

과객길로 땡기다가 나이 옷이 추물어가지고¹³⁹ 옷 씻거 줄라고 큰 딸네 집에 가이 큰 딸 바쁘다고 못 씻거 준다 캐. 또 저저 동생을 보고,

“아무거시인데 가소. 아무거시인데 가모 아마 좀 안 지언캔는교¹⁴⁰ 그 가서 씻거 줄라

136. 양아들로

137. 쫓겨났다

138. 과객처럼 집을 떠나 유랑하게 되었다

139. 되니 옷이 더러워져서

140.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카소.”

그래 마 작은 딸네 집에 가이 또 바쁘다고 안 씻거 줘. 딸이 여덟이 있는 데로 다 가도 아무 년도 빨래를 안 씻어 줘가지고 또 과객길을 나오다가 한 골짜기에 드가이까네, 목은 빠작 마리고 배도 고프고, 그래가 샘에 물이러 왔는 젊은 사람인데,¹⁴¹

“아이고, 여보, 저 새택이요! 물 좀 날 좀 주소.”

옛날에는 박바가지 가지고 물동우로 가 물로 안 여다 문나.¹⁴²

“아이고 바가지가 누추한데 우야꼬?” 그래,

“아무데라도 물 좀 떠 주라고.”

그래 물로 떠가지고 갖다 되리고 보이까네, 옛날 양 갔던 그 시아바시라.¹⁴³ 가마이 보 이. 삼베 두루매길랑 똑 걸레 겹은 거로 입고 모양 없이 그렇거든. 그래 그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이가 어데 계셨다가 이래 오느냐?”고 그래. 영감쟁이가 껌쩍 놀램서,

“누고?” 쿠더란다. 그래,

“내가 아무거심더.” 그래 그 시아바이를 데리고 갔어.

“아부이 이네 댕기지 말고 집으로 가입시더.” 그래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이께, 참 후디끼 나와가 조그만한 저거 손을 가지고 오두막살이 조런 집으로 방 하나 정지 하나 요래가 딱 있는데, 남자도 넘우¹⁴⁴ 품팔이하고 여자도 넘우 방아나 짚 어 주고 싸래기라도 얻어다 묵고 이래 살아나는 기라.

방은 하나뿐인데 시아바시로 기어이 못 가구로 하거든. 저거 양반¹⁴⁵ 옷 씻거 논 것 입 히고 그 옷은 말키 뱃기가 씻기 입히고,

“함부래 아부이 가지 말고, 우리 죽 묵으모 죽 묵고, 우리 굶으모 굶고 그래 우리 묵는 대로 해가 주겠입니더.” 쿠며 도저히 어데 못 가구로 하거든.

기어이 못 가구로 하는데, 영감쟁이 단방에 아들강 며느리강 할 수 없이 단방 그래 있

141. 사람한테

142. 먹었다.

143. 전에 자기네들이 양자로 들어갔던 시아버지라

144. 남의

145. 남편

지. 가마이 생각하이 그 늬우, 딸네들이 꽤심커든. 어찌 꽤심은지,
 ‘조 년들을 내가 논을 다 우예 뺏을꼬.’ 이래 연구를 하고, 하리는¹⁴⁶ 며느리인데,
 “야야, 내가 어데 조금 볼 일이 있는데, 내 볼 일 보고 오꾸마. 그래 내 퍼뜩 오꾸마.” 그래,
 “아부이, 함부리 어데 가지 말고, 우리 묵는 데 같이 삼시더. 우리가 젊으나 젊은 기 별
 모 설마더라 집도 지을 기고 할끼께네, 우리 버는 대로 우리하고 우짚던동 여 누추해도
 여기 사자.”고 못 가구로 하거든.

그래 영감쟁이가 생각하이, ‘오촌 조카라도 양을 해 놓이까네, 이래 며느리가 효부질을
 하는데, 조 년 딸년들은 내 재물 줘여¹⁴⁷ 이래도 이 과객매이로 땡기는 이 애비로 안 생각
 코 이 모양이다.’ 싶거든. 조 늬우 딸아들이 어찌 꽤심한지 이 늬우 영감쟁이가 연구를 해
 가지고 ‘고 늬우 논을 내가 빼앗아야따¹⁴⁸ 싶었어.

그래 큰 딸네 집부터 갔다. 가가지고,
 “야야, 느그 논이 저 아무 데 논 그거카마 조금 나쁘다. 니 동승¹⁴⁹ 논을 내가 바까다 주
 꾸마. 그 논 문서를 날로 두라.” 좋은 거 바까 줄라 카이 논 문서를 내 주거든. 그래 문서
 를 받았다. 작은 딸네 집에 또 가가 그라거든.

“야, 느그 논 준 기 아마 너거 생이¹⁵⁰ 논카마 못 한데, 지금 바까다 주꾸마. 논 문서를 하
 나 두가.”

딸 여덟이 있는데, 다 그래 가 거짓말로 하고 논 문서를 다 받아가 아들 집에 가가 논 문
 서를 내 놓고, 아무데 논하고 그래 받아와가,

“그래 우리도 이래 있지 말고, 이거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그래 하자.”

하네이¹⁵¹ 옛 마지기씩 닷 마지기씩 여덟이로 죠시이 논이 약간참다 말이다.¹⁵²

저 늬우 딸네들은 아바이 그 옷 안 씻거 주고 그라다가 논 다 뺏기 뿐거지.

146. 하루는

147. 줘도

148. 빼앗아야하겠다

149. 동생

150. 형님

151. 한 사람에게

152. 논이 많다

그래가 사는데, 그 영감쟁이가 마 오래 사다가 냉중에는 노망老妄을 해가지고 영감쟁이 하고 아아하고 집에 놔 두고 농살 지으러 갔는데 일하고 오이까네 세상에 열라로 갖다가 솔에다 갖다 삶더란다.

짐이 나 썰아서,¹⁵³

“아부이, 솔에 뭐 합니꺼?”

“야야, 내가 닭을 한 마리 잡아가 지금 삶는다.”

솔뚜껑을 열어 보이 아아로 갖다가 솔에다 썰어 놓고 삶더란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소잔지,¹⁵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건지가지고 푹푹 말아가 놔 뒀 놓고, 이웃집에 가서 닭로 한 마리 사가 와가 푹 고와가,

“아부이, 닭 삶은 거 여 있임더.”

쿠며 그래 되리더란다.

그래 소자질로 하고 글터란다. 참 오촌 조카라도 부모인데 소성孝性있는 거는 그래 잘 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153. 김이 나서

154. 효자孝子인지

효자와 나무생이(남생이)

어떤 소자孝子가 산에서 풀나무를 하얌서,

“명일¹⁵⁵은 닥치오고 부모 봉양 뭐로 하꼬?” 하이꺼네, 저 우에서 똑 지캉¹⁵⁶ 같이,

“명일은 닥치오고 부모 공양 뭐로 하꼬?” 이렇기 소리가 나거든.

“우얏고? 희한하네. 이기 뭇이고?” 쿠이 또 그리 소리나는 기라.

그래 낫을 놔 놓고서로 가 보이까네, 나무생이¹⁵⁷가 강생이맨치¹⁵⁸로 붙어가 고오서 소리가 나는 기라. ‘이이고, 희한하제.’ 푸나무 다 내빼리고 지게만 쭈어지고 낫을 탁 쳐가지고 나무생이를 들고,

“명일은 닥치오고 부모 공양 뭐로 하꼬?” 내¹⁵⁹ 글 쿠고 내리온다.

팔월 대목장이 한 두어 날 남았던긴데 장에 안 들고 갔나?

“야, 보소. 말하는 나무생이다. 나무생이 귀경하소. 나무생이 말하는 거 귀경하소.” 쿠이, 하나 오고 둘이 오고, 전부 오거든.

“명일은 닥치오고 부모 봉양 뭐로 하꼬?” 쿤께나 나무생이 그리 쿠지러.¹⁶⁰

불쌍타고도 돈 주제, 희한하다고도 돈 주제. 니도 주고 나도 주고, 팔월 대목에 벌어논 게 쌀로 한 가마이 팔고¹⁶¹ 어무이 봉양하기가 흔껏¹⁶² 됐어. 장날마중 땡기며 하이까네 부자가 됐는데,

형이 소문을 듣고 놀부매이로 ‘이놈의 자식이 뭐로 가 돈을 버는고?’ 와가지고 나무생이 그 놈을 빼앗는 기라. 인부족세부족人不足勢不足 뺏겼다. 뺏기고는, 형이 장에 가가 돈

155. 명절

156. 자기와

157. 남생이

158. 강아지처럼

159. 계속해서

160. 그렇게 말하지요

161. 사고

162. 흠족하게

버는데 따라 가가 뒤편에 서가 있으니까네,

“자아, 오늘 장에 나무생이 왔습니더.” 형이 이약을 한꺼나 모두 오거든.

“그 때 왔던 기 또 왔네.” 쿠미 전부 와가,

“자아, 전부 이박 들으세이. 명일은 닥치오고 부모 봉양 뭐로 하꼬?” 쿠는데 묵묵 부답이라.

“네 이 놈 네 와 안 하노? 명일은 닥치오고 부모공양 뭐로 하꼬?” 그래도 안 하는 기라.

“에레기 니기미¹⁶³ 미친 놈 아이가? 말도 할 줄 모르는 나무생이 텔고 와가, 텍, 이 놈우 손!” 카고 욕하고 때리 주고 가는기라. 우사만¹⁶⁴ 당하고 안왔나?

지성이 감천이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163. 너의 어머니

164. 창피만

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삼정승 육관서

저 옛날에 손자를 장개를 보내려고 그 할배하고 손자하고 이래 가는데, 지금 걸으며 차로 타고 가지마는 옛날에는 걸어 가자 카이 멀머 가다가 중간에 자요.

할배는 대에¹⁶⁵ 놓으이까네 식식 자는데, 장개 가는 사람이 하문 나가 보이까네 달이 환한데 버들나무가 철철 흔들리거등. 똥공 싶어 쳐다보이까네 처자가 목을 매가 디리졌다 아이가. 그래가 와 이렇노 커미 살리 줄 밖에 있는교? 그래 살리 주이까네 그래,

“날로, 친정어 참 몬사이까네, 날로 디기 나 많은 영감잘에, 자식 불라고 치올라 카이 내가 거어 시집 안 갈라고 그란다. 죽는다.” 이라거등.

그래 그 장개 가는 신랭이 머리 없어 줬다 아이가. 머리 없어 주고 자고 혼문¹⁶⁶ 장개로 갔다. 장개로 가가지고, 인자 언제라도 집에 서러 처가집 하문 가며 그 머리 없어 준 거어드갔다가 하룻밤 자고 또 처가집에 가고, 그래가 신행을 해가 오는데 저 이래 가다가 그 머리 없어 줬는 데 거어 또 한 날로 신행을 받고, 그런데, 어른들은 모르지.

그런데, 신행을 둘이 한참에 이래 들온다 아이가.

들오이까네, 아바씨가 지금 이런 일은 없다 커미 아들을 쫓아 내뿌거등. 아들로 쫓아 내뿌 놓이까네 강가새¹⁶⁷ 가 앞아가 있으이까네, 좋은 꽃가매에다가 처자로 티아가지고 오다가,

“인자 니 임자가 여겼다. 여어 니라라.” 이라거등.

“그 각씨 하나 더 데리고 온 것도 저거 아배한테, 지금 쫓기 나와가 내가 물에 죽으까 살까 커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맡으며 우야노? 나는 안 맡을란다.” 이라이까네,

“그라머 물에 Ying뿌라. 인자 이 처자는 임재가 아이머 임재가 없는데 물에 Ying뿌라.”

165. 고되어

166. 진짜

167. 강가에

커저등.

그래 물에 영어뽀라 카이까네 그 사람을 우애 또 안 살리 줄 수가 있는교? 그래 그 사람 살렀다 아이가.

그 사람 살리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부친한테 여하하고 그래 이바구를 그래 했다 아 인교. 이바구를 하이꺼네 뭐 부친도 그 안 듣겠는교?

그래가 인자 마느래가 서이다. 서이 한 집안에 이래 사는데, 그래 마 의논 좋기 잘 사는데, 거게서러 삼 정승 육 판사가 났답니더. 육 판사가 나가지고 난중에 크기 잘 되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경출, 언양면, 1984]

삼 정승 딸과 혼인한 총각

옛날 옛날 갓날 갓 적에, 정승 판사가 사십 평생에 아들로 못 뒤가지고 첩첩산중 명산대 천 들어가서 불공으로 갓다가 석 달 열흘, 백일기도를 해 원을 해도 잉태가 안된다. 백일기도를 시 번(세번)이나 해 근근히 만득晩得으로 아들 하나 낳았어.

낳아가 금인가 옥인가, 불몬 날까 쥐몬 꺼질까, 관옥冠玉같이 키우는데, 삼쭈거리에 도사 중이 하나 떡 오디,

“저 아아는 열 아홉 살을 우애 넘굴꼬?” 이러 쿠저든.

“와이고 이 중아, 세상에 그러몬 우짜몬 되노? 저 아아로 갓다가 쥐몬 날까 불몬 꺼질까 키운 자석으로 와 열 아홉 살로 못 넘기노?”

“열 아홉 살에 호석虎食합니다.” 이라거든.

“와아, 그럼 안할 도리는 없나?” 쿠이까네,

“인지라도 그냥 돈도 한 푼 주지 말고, 옷은 근근이 한 벌 입히 가지고서러 부지깸이¹⁶⁸

쫓아빠라.” 쿠거든.

세상에, 그거로 우예 그냥 보내노? 골개똥이라 쿠는 노비종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내가 텨고 가겠썅더.”

아주 애릴 때 소아마비로 근근히 걸어댕기는 질뚝질뚝 하는 골개똥이가,

“내가, 소생이 텨고 가겠썅더.”

“그냥 우예 보내겠는교?”

“그냥 우예 보내겠는교?” 쿠머 가는데, 그 어마씨가 돈 백 냥으로,

“어느 틈에 씌도 니가 썰 데가 안 있겠나?” 콤시로 백 냥 수표로 하나 좇어.

그래 그 골개똥이가 여덟 살 묵는 이 아아로 텨고 팔도강산을 떠나는데, 이 아아는 글만 빼이 봐도 다 아는 천재라. 서당 근방에 가가 훈장 글 가르쳐 쌓는데 들봐다 보고 다 알아 뿌이 훈장이 아아 줄라고 난리거든.

“안됩니다.”

골개똥이 아아로 텨고 댕기매 또 한 고을에 가가지고 전전걸식轉轉乞食 얻어 묵고 또 훈장 글 가르치는데 들봐다 보고 또 알았다. 그러그러 몇 고을로 지내 댕기매 그러그러 알아가지고 십 년 세월이 흘러갔다.

서울 장안 안에 과거科擧 본다 쿠는데, 가이까네, 사람이 줄로 백장울로 처가 저마다 난리거든.¹⁶⁹

“저어는 와 저리 하는교?”쿠이,

“저 모두 다 장원급제할 낀가 싶어가 사주四柱 안 보는교.” 이라거든. 그래 그 골개똥이가,

“쌤님 우리도 한 번 봅시다. 주인님, 장원급제 될란가 한 번 봅시더.” 쿠잉까네, 복채 백 냥을 주고, 주인 도련님 생일생시로 열어가 사주로 보이까네,

168. 정처없이

169. 흰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사람들이 열을 서고 소란스럽다

“화이고, 이 양반은, 내일 저녁 호식한다.”이라거든.

“아이고, 그라모 호식을 면할 수는 없습니꺼?” 쿠이,

“몰래,¹⁷⁰ 에렵다. 저 삼정승 딸 연애 걸고, 입에 춤물만 내 무야¹⁷¹ 호식虎食을 면하겠다.”

이러 쿠거든.

“와이고, 그러믄, 그거로 대代身 면하겠는교?” 쿠이,

“몰라. 그거 면해도 또 있다.” 쿠거든,

“또 뭐고?” 쿠이까네,

“몰라.” 글로 떡 써가 주민서로,¹⁷²

“황백죽이라.” 글로 써가 주네.

“이거로 가지고 면할란가 몰래.” 모른다 쿠거든. 돈 백냥 받아 뿌고 모른다 쿠는 기라.
그래 골개똥이가 도련님을 안고 운다.

“세상에 십 년 공부 아미타불 쿤다고, 도련님요, 이 일 감당을 우에 할교? 삼정승 딸로
어데가 만나노? 삼정승 딸 연애 우에 걸고 입에 춤물 우에 내노. 어려운 거로, 도련님, 죽
고 안 마겠는교?” 쿠머 대성통곡을 울고 울고,

“도련님요, 도련님요, 십 년 공부 아미타불....” 쿠머 우이까네,

그 장안 안에 아주 늙어가지고 뻘뻘한 백발노인이 내뵈다보이, 뻘뻘한 관옥 걸은 청년
하나하고, 불구자가 돼가 뭐 걸은 골개똥이 그기 붙잡고 우는데, 저래 붙잡고 올 때는 무
슨 여한이 있노고 그래가 물었다.

“보소 보소, 와 이래 우는교?”

골개똥이가 여차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하이까네, 그 노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딸이 저 삼정승 몸종이 돼가 있는데, 김정승, 이정승, 박정승 딸이 열 두
대문을 넘어가지고 별당 안에 있는데, 온 저녁에 제사라 우리 딸이 나을김더. 나오거들
랑 의논 한 번 해 보입시더.” 쿠는데,

170. 모르겠는데

171. 침만 내어 먹어야

172. 주면서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골개똥이는 집에 놔 두고 도련님만 댕고 갔다. 그 날 저녁에 몸종 하나가 나왔는데, 그 노종 딸인데 이약을 하이까네,

“그래 내 몸 하나 희생하고, 저 양반 한 번 살리 보자.” 쿠웁시러 마 들어 주는 기라.

제사를 지내고 염복¹⁷³을 하고시러 즈그매 아홉 폭 치매로 하나 입고 그 총각을 이래 영어가¹⁷³ 댕고 삼정승 집을 넘어갔다. 박정승 집 내당을 넘어가이, 즈그 아배 제사지내 러 갔다고 잊어뿌고¹⁷⁴ 모두 자는 기라.

“니 오나?” 쿠고 가 뿌고 별당 안에 드갔거든. 그 도련님을 거어 갖다 떡 내라 놓은께네, 삼정승, 김정승, 이정승, 박정승 딸이 연당 안에 눈썹물리¹⁷⁵에서 사서삼경 사서백과 무 불통신^{無不通達}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정승 딸이 하는 말이,

“아이구, 일마들아¹⁷⁶ 내 꿈이 희한하데이.”

“꿈이 어떻더노?” 쿤까네,

“이박을 우에 할꼬?”

“해봐라. 와 꿈 이박을 안 하노?”

“아이구, 내 꿈이 참 이상하네. 와 우리 자는 방 연당 안에 별당 안에 황룡이 한 마리 들 와가지고 우리 서이를 댕고 품자리¹⁷⁷로 하노?” 이러 쿠는 기라. 이러 쿠자 이 놈우 총각 이 문을 펄렁 열고 드가이까네 천둥비호가 배곶에서,¹⁷⁸

“응응” 지 밥이 거어 드가 놓이 고래고함을 치이까네 고만 총각이 죽어 뻗는 기라. 죽어 뿌인까네, 엉겁질에 그 처자 서이가,

“음어음어” 물 뜨러 갈 여게 어뎛노?

“침을 받아라(뺏어라). 받아라.”

“퇴퇴퇴퇴.”

173. 아홉 폭 치마를 입고 그 속에 총각을 넣어서

174. 의심하거나 근심을 하지 않고

175. 문밀의 마루

176. 이 놈의 아이들아

177. 동침을

178. 밖에서

쿠미 서이가 춤을 받아가 그래 살리더란다. 그 처자들이 범대갈백이 깨지는 사서삼경, 시서백과, 무불초지 읽어 제치이께네 호랭이가 희딱 자빠져 죽어 뵈는 기라.¹⁷⁹

그래 가 그 처자들이,

“서이가 우짜노? 우리 전부 당신 사람이라.” 쿠는 기라.

꿈도 그마이(그만큼) 좋지를, 그래 거어서 서이가 신포信標로 하고 나오이 몸종 노종 딸은 배곶에 있는 기라.

인자 즈금매 즈그 아배¹⁸⁰ 알몬 목 날아가는 기라. 그래 영어가지고 텨고 나와 뵈다.¹⁸¹

그 이튿날 과거를 보고 그 총각이 일등 담박급제,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을 했는데, 박정승, 이정승, 김정승 서이가 상시관이라. 박정승이 임금강 아주 친한 사람이라 그 청년을 사오 불라고 딱 했어. 김정승, 이정승도 그 청년을 사오를 불라캐도 뻘이 약해.¹⁸²

사오로 봐가 첫날 저녁에 예로¹⁸³ 하고 드가가 앉아 있으이까네, 뽕가오 같은 놈이¹⁸⁴ 하나 와 가지고, 칼로 박정승 딸 목을 툇렁 비가 가뵈는 기라.

그러이까네 마 그 신랑이 죽었다고 신깃대¹⁸⁵에 목을 걸어가 있는데 가만 생각하이 ‘황백죽이 가지고 또 한 번 죽음을 면해라.’는 말이 생각키는 기라. 그래 중지하라 쿠고서러, “황백죽 이거로 해석을 해가 오라고 그래야 내가 죽지 이거 해석 안 되면 못 죽겠다.”

그래 왕이 시관들로 전부 불러가

“이거로 해석을 해라.” 쿠이

김정승, 이정승이 집에 가가 이약을 하는 기라.

“약시若是하고 우리 장안 안에는 희한한 일이 있다. 박정승이 사오로 봐 놓으이 여차하고 그리 뵈는데, 그래 황백죽이로 해석해가 오라.” 쿠더라

179. 호랑이 머리가 깨어지도록 하는 주문呪文을 자꾸 읽으니까 호랑이가 넘어져 죽어 버렸다

180. 자기 어머니 아버지

181. 노비의 딸이 큰 치마 속에 총각을 숨겨서 나왔다

182. 배경이 약해

183. 혼례를

184. 건장한 놈이

185. 죄인 목에 거는 형구刑具인 ‘칼’, 장대 끝에 밥주걱처럼 생긴 쇠가 붙은 도구, 싯갯대

김정승 딸이 뭐라 쿠는고 하이까네,
 “아부지, 그거로 모르겠는교? 그거로 우에 모르는교?”
 “야야, 니 우에 아노? 니 해석해 줘라.”
 “아이고, 그거 해석 아주 쉽습니더.” 그래 나와가,
 “그 여차하고 우리 딸이 그런 말로 하더라.” 쿤께네,
 “당장 불러 오라.”고 임금이 죽이고 살리고 판단은 황백죽을 판단해야 죽이는데, 임금
 이 오라 쿠인께나 나와가,
 “황백죽은요 다른 기 아입니다. 성은 황이고 이름은 백죽인데, 황백죽이가 박정승 집 종
 아인교?”
 그래 추임을¹⁸⁶ 해 보인까네 박정승 종이 죽었어. 그래 화를 면면했는데, 그 처자가 그
 날 나가 보아까네 세상에 그날 저녁에 즈그 방에 들은 사람 아이가? 그래서 이정승, 김정
 승이 딸 둘이로 이처二妻 삼처三妻 장개를 들어가 각기 쌍가매를 탔단다.
 신랑 어사 출또 해가,
 “여봐라.” 쿠고 집에 내려가이까네 즈그 엄매 즈그 아배가 안주꺼정¹⁸⁷ 엮어져가 공을
 들이고 있고, 골개똥이가 울고 서가 있고, 그래 잘 사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186. 심문을

187. 아직까지

백팔십 번 결혼할 운명을 극복한 정승의 딸

옛날에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정승이 살고 있었다. 막내딸을 낳았는데 관상을 보니 남편을 백팔십 명이나 보아야 할 운명이었다.

딸이 점점 자라 결혼시킬 나이가 가까워지자 정승은 걱정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백팔십 명이나 사위를 보게 되어 집안 망신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딸을 죽여 없애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딸을 궤櫃에다 넣어 가두어 두고, 밤중이 되면 종들을 시켜 그 궤를 한강漢江물에 던져 버리게 할 계획을 세웠다.

딸이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정승의 부인이 딸을 찾다가 딸이 궤에 갇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어 정승의 부인은 딸에게 옷과 금덩이 등을 보따리에 싸주면서 기회를 보아 종들에게 금덩이를 조금씩 나누어주고 살려달라고 해서 멀리 가서 잘 살라고 했다.

밤중이 되자 정승은 종들을 불러 그 궤를 가져다 한강물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종들은 그것을 메고 한강변으로 나갔다. 궤를 강변에 내려놓자 궤 속에 있던 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금덩이 가운데 몇 개를 종들에게 주었다. 금덩이를 받은 종들은 정승의 딸을 꺼내고 대신 돌맹이를 궤에다 넣어 강물에 던져버리고는 사라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정승의 딸은 남복男服 한 벌을 구해 입고는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정승의 딸은 여기저기로 떠돌다가 매우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녀는 자신의 운명이 아버지의 말대로 과연 그런가 궁금해서 그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점괘를 뽑아보더니 남복을 했지만 사실은 여자이고, 백팔십 번 상부喪夫를 해야 할 운명이라고 했다. 처녀는 돈 백 냥을 더 내놓고 그 운명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점쟁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백팔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 결혼하면 그 사람의 이름 덕분에 그 운명을 면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날부터 처녀는 남복차림으로 전국을 떠돌면서 백팔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삼사년三四年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처녀는 전라도全羅道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처녀가 백팔십이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어느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아래위를 훑어보고는, 백팔십이의 친척이냐고 물었다.

처녀가 백팔십이 사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여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찾아갔다. 백팔십은 물레방아간 옆 움막에 살고 있는 거지 총각이었다.

처녀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자 총각은 다른 잠자리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그래도 처녀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 움막에서 하룻밤을 잤다. 총각은 처녀가 남복차림이었기 때문에 여자인 줄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에 처녀는 금덩이 하나를 꺼내어 총각에게 주면서 장場에 가서 이것을 팔아 살림도구와 양식을 사오라고 했다.

총각은 그것이 금덩이인 줄도 모르고 장바닥에 펼쳐놓고 있었다. 과연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팔아 살림도구와 양식을 사왔다. 덕분에 백팔십은 밥을 얻으러 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처녀는 다시 금덩이 하나를 주면서, 장에 가서 이것을 팔아 옷감을 사오라고 했다. 총각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처녀는 그 옷감으로 총각의 옷을 만들었다. 깨끗이 목욕시켜 그 옷을 입히자 거지 총각은 잘생긴 대장부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또 총각에게 근처에 집과 전답田畠을 팔고 이사 가려는 부자富者が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마침 서울로 이사 가려는 부자가 있어 총각이 돌아와 그런 데가 있더라고 했다. 처녀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집과 전답을 사서 총각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했다.

며칠 후에 처녀는 이사 온 인사를 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청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서울에 사는 어느 정승의 딸임을 밝히고 백팔십 총각과 결혼식을 올렸다.

백팔십과 결혼한 처녀는 아들 셋을 낳아 자신이 직접 글을 가르쳤다. 세 아들이 장성하자 그 간의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세 아들을 친정으로 보냈다.

정승과 정승의 부인은 이미 죽고, 세 오빠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편지를 받은 오빠들은 기뻐하면서 조카들의 과거科擧를 주선하여 급제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 후 처녀와 백팔십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서영기, 온산면, 1986]

삼형제

The Three Sons

옛날 옛날에 산꼭대기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삼형제가 있었다. 전에는 잘 살던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었다. 결국은 집안이 몹시 가난해져 삼형제는 아버지께 약조차 사드리지 못했다.

드디어 나이가 든 아버지가 임종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머리맡에 세 아들을 불러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했다.

“오랫동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부유하고 재산도 많았단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남기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너희에게 나를 기억할 만한 물건을 줄 것이다.

첫째에게는 맷돌을, 둘째에게는 대나무 지팡이와 표주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셋째에게는 장구를 주겠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죽거든 더 이상 이 외로운 산에 머물지 말거라. 너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리기를!”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치른 후, 삼형제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집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주신 물건을 들고 출발했다. 얼마가지 않아 삼형제는 세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10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첫째 아들은 오른쪽 길로, 둘째 아들은 가운데 길로, 셋째 아들은 왼쪽 길로 각자 길을 떠났다.

첫째 아들은 무거운 멧돌을 등에 지고 해가 질 때까지 걸었다.

그는 아직도 산 속에 있었으며 매우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길가의 큰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칠혹같이 어두운 밤이 되자 그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 어떤 짐승이나 강도가 나타나 자신을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에 여전히 멧돌을 등에 맨 채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한밤중에 그가 자고 있는 나무 밑에서 두 남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졸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첫째는 두 강도가 훔친 물건을 서로 더 많이 갖겠다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도들이 동전 세는 소리를 들었다. 첫째는 강도들의 머리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고 동시에 멧돌을 돌려 천둥 같은 소리를 냈다. 천둥과 비에 깜짝 놀란 강도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큰소리를 치며 도망쳤다.

“너 같은 불한당에게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첫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금은보화가 가득한 큰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그 상자를 짊어지고 출발했다. 얼마 후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큰 집을 짓고, 마을의 한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둘째 아들은 가운데 길로 똑바로 나아갔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에 슬퍼졌다. 오래된 무덤에 이르렀을 때 밤이 깊어 그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한밤중 그는 누군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너무 어두워 그것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다. 그는 등 뒤에 있는 무덤이 두렵고 무서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해골아 이리오렴 새벽이 오기 전에 어서 가자. 어서 일어나. 잠꾸러기야.” 그것은 분명히 도깨비였다.

그래서 둘째는 대답했다.

“너는 오늘 밤에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 가니 기쁘다.” 인간의 목소리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 소리쳤다.

“너는 죽지 않았구나. 그렇지?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이지? 너의 두개골을 만지게 해 줘.” 그래서 둘째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표주박을 내밀었다. 그는 쉼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 만져 봐. 내가 해골인 걸 알게 될 테니.”

도깨비는 그의 손으로 표주박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래 이거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군. 오래 전에 죽은 게 분명해 이제 너의 팔을 보자.” 그래서 둘째는 대나무 지팡이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있어. 넌 성미가 까다롭구나. 그렇지?” 도깨비는 그 지팡이를 만져보더니 말했다.

“오, 매우 가늘군. 너는 굵어 죽은 것이 분명해 잘됐군. 우리 함께 가자. 오늘 밤 우리는 부잣집 외동딸의 혼을 훔치러 가는 거야. 아하!”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큰 집의 문밖에 섰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해골, 너는 여기 밖에서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그녀가 잠든 동안 그녀의 혼을 가지고 올게.” 그리고서 도깨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둘째는 그 집 밖에서 기다렸다. 몇 분 후, 도깨비가 돌아왔는데 그는 손에 무언가 쥐고 있었다. 도깨비가 말했다. “이것이 그녀의 영혼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걸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너 주머니 같은 거 갖고 있지?” 둘째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여기 안에 그 혼을 넣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 그는 딸의 영혼을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 들고는 그것을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 그것을 끈으로 단단히 묶고 도깨비와 함께 무덤으로 향했다. 얼마 후, 수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도깨비는 말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됐군.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너는 그때까지 그 혼을 잘 지키고 있어.” 도깨비는 사라지고 둘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아 오자 그는 그의 주머니가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해가 뜨자 그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간밤에 부잣집 외동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부모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녀의 부모는 모든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죽음의 원인조차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둘째는 그의 가슴속에 주머니를 숨긴 채 죽은 딸의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그의 비밀을 숨기고 말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해봐도 되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딸을 되돌려준다면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소.” 하고 딸을 잃은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러면 나에게 당신의 딸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주시오. 당신이 이 조건을 받아들여 준다면 나는 즉시 착수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그를 데려갔다. 둘째는 안에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의 틈을 종이로 발라서 봉하였다. 그는 그녀의 잠자리 주위에 병풍을 치고, 그 뒤로 가 죽은 소녀의 코 바로 밑에 그의 주머니를 놓았다. 그리고 그 끈을 풀자 주머니에서 그녀의 혼이 빠져나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바로 눈을 떴고, 완전히 되살아났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의 부모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들은 딸을 껴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은혜에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고, 그는 부잣집 사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막내아들은 왼쪽 길을 따라 떠났다. 그는 그의 목에 장구를 매달고 그것을 손으로 쳐가며 즐겁게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 장구의 가락과 노래하는 목소리의 곡조가 산에 울려 퍼졌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숲에서 나오는 크고 누런 호랑이를 보았다. 그는 호랑이의 출현에 매우 놀랐지만 연주를 멈추면 분명히 호랑이가 자신을 덮쳐 잡아먹어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신나는 음악을 계속 연주하면서 호랑이를 지켜보기 위해 뒤로 걸었다.

얼마 후, 그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막내 앞에서 춤추고 있는 호랑이를 보고 매우 즐거워했다. 호랑이는 완전히 길들여진 것처럼 보였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셋째에게 돈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좋은 결과에 놀랍고도 기뻐했다. 그래서 그는 장구를 두드려 호랑이를 춤추게 하면서 한양까지 데리고 갔다.

이 희한한 소식을 들은 왕은 매우 흥미로워하더니 막내아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공연하게 했다. 왕의 딸 중 하나가 그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왕은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막내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었고 호랑이는 왕의 애완동물이 되었다.

십 년이 지나 삼형제는 그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던 아버지의 선물을 가지고, 그들이 헤어졌던 곳으로 돌아갔다. 삼형제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담奇談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모두 함께 부모님의 무덤으로 향했다.

[『한국의 설화』, 정인목鄭寅穆, 언양彦陽, 1915, 단국대학교출판부]

신령님의 도움으로 효녀를 구한 암행어사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가 거지차림으로 민정民政을 살피러 다니다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앞서가는 노인老人 한 사람을 발견했다.

길벗이나 할까 해서 그 노인을 따라잡으려고 아무리 빨리 걸어도 노인과 자신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한참을 쫓아가는데, 마침 노인이 길가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어 마침내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쉬다가 두 사람은 동행同行이 되어 함께 길을 가게 되었다.

산길을 한참 가고 있을 때였다. 노인이 박문수에게 시장하고 목도 마르니 밥이나 좀 얻어먹고 술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가자고 했다. 그러나 박문수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산중이라 밥이나 술을 얻을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이 말하기를, 이 산을 넘어가면 큰 부잣집에서 묘墓를 쓰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요기나 하고 가자고 했다.

반신반의하면서 노인을 따라 고개 하나를 넘자 과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관下棺을 하려는 참이었다. 노인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자리였다 묘墓를 쓰느냐고 하자, 상주喪主와 지관地官들이 모두들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느냐고 화를 내었다.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물이 그득한데 그곳이 무슨 좋은 자리냐고 노인이 말하자, 상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일꾼들에게 광甕을 조금만 더 파보라고 했다. 일꾼들이 팽이로 한 번 짝자 광甕中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다.

이 모양을 본 지관地官은 놀라 도망치고 상주는 노인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 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노인이 근처에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주자 상주는 무척 고마워하면서 노인과 박문수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보답으로 천량千兩 짜리 녹지 한 장을 끊어주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박문수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했으므로 박문수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어 두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서 한나절을 가서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노인이 박문수를 이끌고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는데, 딸의 혼례婚禮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노인이 다짜고짜 신랑에게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신랑의 어깨를 힘껏 내려치자, 신랑이 나뒹굴어지는데 보니 커다란 여우였다. 이렇게 되자 신랑과 신부의 가족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해서 노인에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매달렸다.

노인은 가족들에게 빨리 상여집으로 달려가서 죽어 가는 진짜 신랑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를 살려내어 무사히 혼례를 치르게 했다.

노인 덕분에 무사히 혼례를 치르게 된 신랑과 신부의 집안에서는 백배사례百拜謝禮하면서 노인과 박문수를 융숭히 대접하고, 감사의 표시로 천량千兩 짜리 녹지 한 장을 끊어 주었다. 노인은 이번에도 그것을 받아 박문수에게 지니고 있으라고 했으므로 박문수는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어 두었다.

한밤중이 되자 노인은 박문수에게 떠나자고 했다. 신부집의 가족들이 극력 만류했으나

노인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박문수에게 어서 떠나자고 재촉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밤 길을 나섰다.

산골짜기 길을 얼마를 가다가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자, 노인은 박문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박문수는 무서움에 떨면서 노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산 아래에서 불빛 하나가 나타나더니 박문수가 있는 바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문수는 노인이 돌아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노인이 아니라 함지박을 머리에 인 처녀였다.

박문수는 겁도 나고 당황해서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바위 앞으로 다가온 처녀는 박문수가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함지박을 내려서 가지고 온 몇 가지 제물을 바위 앞에 차려 놓았다.

그러더니 오늘이 백일기도百日祈禱의 마지막 날이니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줄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 달라고 신령님께 정성껏 빌기 시작했다.

박문수는 처녀의 정성에 감동해서 자신도 모르게 살려주겠다고 바위 뒤에서 말하고 말았다. 박문수의 말을 신령님의 응답으로 알아들은 처녀는 백배사례百拜謝禮하고는 산을 내려갔다.

박문수도 가만히 처녀를 뒤쫓아 마을로 내려와 주막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박문수는 동헌東軒으로 가보았다. 동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누군가에 대한 사형死刑을 집행하려는 참이었다.

어떤 처녀가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어젯밤에 정성을 드리던 그 처녀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病을 고치느라고 나라에 바칠 돈 이천량二千兩을 써버린 죄로 사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박문수는 노인이 이천량을 자신에게 맡긴 것이 처녀의 아버지를 살리라는 신령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그 돈을 처녀에게 주어 아버지를 구하게 했다.

[『울산광역시사』 차극출, 청량면, 1986]

어사 박문수와 산신령

박문수가 한 번은 가다가 주점에 들러 잘라고 하니깐 어떤 늙직한 노인네가 같이 들었는데, 그 노인네가 열 냥짜리 밥을 시키더랍니다. 자기는 석 냥짜리 밥을 시켰는데 열 냥짜리 밥을 시키니까네, 깜짝 놀래가, ‘이기 뭐 도둑놈인가?’ 생각한 기라. 저녁을 묵고 있다가, 윗 마실에서 북도 소리가 나고, 징치는 소리 나고 한꺼나 주인한테,

“뭐 일이고?” 하이꺼네,

“여게 부자집이, 만석꾼 집인데, 외동아들이 죽었는데 누구든 살려 주는 사람 있으면, 살림 반을 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이,

“그럼 갑시다.”하더라, 그 노인네가. 그래 이 사람도 간 기라. 가이까네 뭐 정문經文 읽는 사람도 있고, 굿하는 무당도 있고 천지라,

“아이, 되지도 안 하이꺼네 그거 다 치우라고. 내가 살릴 도리가 있으이까네, 정화수 한 그릇 떠 오라.”고 주인 보고 떠 오라고 한 기라.

그래 뭐 수군거리더라. 그런께 아아가 피어나는기라.¹⁸⁸ 그래 미음을 꿇이 와가지고 믹여 살렸다. 그래 딴 사람은 살리지 못하이까네 다 쫓겨갔지. 그래 주인이,

“살림을 반을 줄라고,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살림은 필요 없고 일신이 천금인데, 천 냥만 주세요. 그래 천 냥 돈을 어음을 해 준기라. 그 사람이 집에 와 자고 박문수로 다정하게도 안 굴고, 이튿날 가이까네 의심해 가지고 그 사람 똥구영을 판다고.¹⁸⁹ 박문수가 쫓아가는데, 하루 종일 가이까네 어디 부자집에 장사를 지내는데 휘로 밟더라는 기라.¹⁹⁰ 뭐 팔도 명산을 전부 추어가지고 휘로 밟는데,

“내가 오늘 휘로 한번 밟는데, 선소리로 믹이겠다.” 일하는 사람 여덟이가 믹이는데 휘로 밟습니다. 팔도강산을 금강산 백두산부터 추어가지고 금강산, 지리산 전부 쳐내려 오

188. 생기生氣가 돈다

189. 박문수朴文秀가 그 사람의 뒤를 조사했다

190. 무덤에 달구노래를 부르면서 달구질을 한다

도록 하더랍니다. 그래 하디마는,

“아이 쉬어서 하자.”고 이라디이 그래,

“송장 없는 신체는 없습니다.”¹⁹¹ 이라는 기라.

그래 풍수, 지관도 거어 있었는데 주인 깜짝 놀래,

“금방 입관해가지고 하관했는데 무슨 일이고?” 그라는 기라.

“그러몬 목을 내기로 합시다.” 이라는 기라.

“신체가”¹⁹² 만약 있으몬 날 목을 비고, 없으몬 천 냥 돈을 물기로 합시다.” 이카는 기라.

주인이 부자인데 그래 파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래 주인이 깜짝 놀래가,

“어서 신체를 찾아 주십시오.” 하이니까, 좀 나가디이만,

“여게 파몬 신체가 있다.”고. 그래 파가지고 어데 묻을 자리로 좋은 자리로 골라 달라
카이,

“여게다 신체를 모시몬 자리가 좋다.”고 그래. 풍수 지관은 자리 잘 못 잡아 났은께 뭐
헛방이지. 거기다가 물어 주고,

“요구를 얼마나 드려야 되겠느냐고?”

“천 냥은 죠오야지요.”

이천 냥 어음을 받았는 기라. 죽은 사람 살려 주고 천 냥, 여어서도 천 냥, 그러이까네 이
천 냥 쥐가지고 떠난 기라.

박문수가 그 사람 똥구영을 쫓아가다가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그만 어둡고 그 사람은
간 곳이 없이 박문수만 혼차 남았는데 가래 덩불하고 머루 덩불이 꼭 찼습니다.

그 건네에 불이 뻥해 ‘여기 사람이 사는가?’ 하고 덩불을 막 헤치고 가이까네 처녀 하나
밥을 해다 놓고 정화수 떠다 놓고 이라는데, 그 뒤에 같이 있던 그 사람이 천 냥 두 녹지
를¹⁹³ 앞에 놓고 앉았더라는 기라. 그래 박문수가 가이까네 그만 그 사람이 간 곳 없더라
는 기라.

191. 송장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192. 시체가

193. 어음을

“우째 이러느냐? 귀신이나? 사람이냐?” 하이까네,

“사람입니다.”

“우째 이 야밤에 산골에 와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느냐?” 하이까네,

“우리 아버지가 고을에 이방인데, 절봉¹⁹⁴ 받아가지고 받은 돈을 썼습니다, 이천 냥을
빚을 졌는데요, 내일 안 내몬 목을 찢라 죽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살리 달라고 정
성을 빕니다.”

그리이까네 산신이 이천 냥을 벌여가지고 거어 갔다 준 기라. 처녀는 녹지를 못 봐요.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녹지를 가지고,

“가자.” 이튿날 관가에 가가지고, 고을에 원인데,

“아무개가 얼마나 졌느냐?” 하이께나,

“이천 냥.” 이천 냥 녹지를 주이까네 그 사람이 살아나지요. 정성이 지극하몬 하늘이 안
다고, 정성이 지극하이까네 산신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194. 세금

천 냥의 보은

옛날에, 어느 시에 사람 하나가 만석꾼으로 사다가 살림이 다 파헤져 뿌고,¹⁹⁵ 노비중도 다 달아나고 굶아 죽게 됐어. 얼마나 가정이 빈한해 났는지, 노상전老上典이 계시고, 양친이 계시고 한데,

노비중이 달아나가 종문서 다 살아가¹⁹⁶ 부귀공명 공히하고 버젓이 부자로 산다 쿠는 기라. 젊은 상전이 하는 말이,

“내가 종을 한 번 찾아가 보몬 싶습니더.” 쿠йка네 그래 그 아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종을 찾아가몬 큰일난다.”

“아머지요, 마 지가 요랑하면¹⁹⁷ 안 되겠는교?”

“그래 잘 다녀오너라.” 쿠고 보냈는데,

종 집에 가йка네, 접시관을 씌고 이래 앉아가 제 줌 방에¹⁹⁸ 사돈찌리 모두 앉아가 장기를 두거든.

옛날에는 상전 종이 천지차 아닌가? 면에서 감사 내려온 거 한 가진데, 상전을 보고 눈이 둥그름 해.¹⁹⁹

“아이고, 형님요. 형님 편튼교?²⁰⁰ 내가 육촌 동생인데, 내가 찾아 왔다.” 이러 쿠고 드가이께네,

집에 가는 사람 노다가 가는 사람 가고, 허스프레하이²⁰¹ 저녁에 떡 대접을 하는데, 그래 사랑방 와가 노비하고 상전이 잘라고 늙을라고 쿠이, 이 사람들이 여자 종 할마이로 꾸미가 상전 보고 큰절하러 오거든.

195. 거덜나 버리고

196. 불태워 버리고

197. 요령껏 잘 하면

198. 제 각기의 방에

199. 종이 상전을 갑자기 만나 놀라서 눈이 둥그렇게 되어 있어

200. 편안하신가요

201. 우물쭈물하게

거어서 여봐라 쿠모 마 날아가는데,²⁰² 다말아(달려) 나와가,
 “중수씨(從嫂氏요, 세상에 와 이라는교? 이리 들오시라고.” 그래 절로 하고 들와가지고
 한 달쯤 소를 잡고 개도 잡고 잘 해가 묵고 진선진미로 갖춰 묵고 노다가,
 “집에는 우에 됐는고 가 봐아겠습니다.” 쿠이까네,
 돈 천 냥을 맡겨지다 실어가지고 그래,
 “가아 가라.”고 주는데, 그래 그 사람이 하직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백발노인 할배
 는 물에 빠져 죽을라 쿠고 백발노인 할배는 붙잡고, 막 이래 뉘빈장단하거든.²⁰³
 “보소 보소, 와 저래 죽을라 쿠고 저런교?” 쿠이까네,
 “아이고, 여보소. 절로 가거든 곱게 감세. 우리 일을 알아간 안 됩니더.”
 “허허 참, 알고 쫌다고.” 쿠이까네,
 “기어이 알고 쫌는교? 우리 아들이요, 돈 천 냥을 포가져어가지고²⁰⁴ 내일이 신깃대²⁰⁵
 목걸어 죽는데, 이 영감이 아들 죽기 전에 죽을라고 이래 물에 빠져 죽을라고 이래 합니
 다. 나는 그래도 못 죽으라 쿠고.” 이라거든.
 “아, 그럼 이제라도 돈 천 냥만 있으몬 그래 살겠는교?” 쿠이,
 “천 냥만 있으몬 사지요.”
 세상에 그 사람으로 이름도 성도 안 적어 주고 돈 천 냥을 붙아주고 마 와 뺏는 기라.
 “어데 사는교?” 카이,
 “내 사는 데는 어텐동 모릅니다.” 쿠머 마부하고 다부 돌리 보내 뿌고 돈 천 냥 죠 뿌고
 빈털털이로 와서 저 집에 오이까네, 부모 처자는 못 묵어가지고 부식이 나가 이래가 있
 거든. 그래 아바씨인데,
 “잘 땡겨왔심더.” 쿠이,
 “아야, 종이 것처럼 잘 산다 쿠던데, 거저 보내더나?”

202. 옛 종이 인사드리러 왔을 때에 옛날 상전 노릇을 하고 큰 소리를 쳤다 가는 노비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
 여 죽여 버린다

203. 서로 실랑이를 하고 야단이라

204. 관가에 빚을 저서

205. 실깃대, 죄인의 목을 거는 ‘칼’

“아부지요, 여차여차하고 그래 이만저만하고 오다가 그리 됐입니다.” 쿠이,
 “야야, 잘 했다. 우리는 안 죽고, 살기는 안 살겠나? 죽을 사람 살리 줬으이 잘 했다.”
 이러 쿠고 세월이 흘러가 참 당개미 죽을 묵고라도²⁰⁶ 근근히 생명을 보전해가, 아바님
 이 세상을 떴어. 그 거사집도²⁰⁷ 다 팔아묵고 기날고 기이드는 방 하나, 정지 하나, 초동
 을 해 놓고 여자는 방애포름 들고 이래가 산다.

여름쯤 됐는데, 근근히 방애포름 들어가 피죽 한 그릇 가 와가 끓인다고 이래 있으니까
 네, 속나구(소나기)가 짹짹 오는데, 누가 예전에 선비들이 입고 다니는 섬씨를 입고,
 “헉.” 쿠민시로 집에 쑥 들오거든. 비로 피해 갈라고 들왔는데 속나구가 늪어가지고²⁰⁸
 저녁때 시작아 오는 기 밤새두룩 오는 바람에 못 갔는 기라. 방에서 주인캉 자고 피죽 끓
 인 거 한 그릇씩 근근히 물로 더 부아가 갈라 묵고, 아내는 정지에 늪어 자고, 사흘로 비
 가 천지에 논물 곁이 퍼 붓는 기라.²⁰⁹ 방애포름 들어 근근히 피죽으로 그래 갈라 묵고 사흘
 만에 비가 거들막하이 개가

“아이고 내가 은혜가 백골난망이올시다. 무엇을 은혜로 하까요?”
 옛날에 토통해가²¹⁰ 상주가 되어 있으몬 두건을 쓰고 있거든.
 “상주네요. 그래 장사를 했는교?”
 “그래 장사를 마 못했심더.” 쿠이,
 “그러몬 내가 지리로(풍수지리를) 좀 아니 은혜한다고 아바님 늪을 터를 잡아 줄 끼이
 까네 내 따라 갑시다.”

그래 터 잡으러 간다고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어데로 거친 거친 가는데, 주름을
 잡아 가는지²¹¹ 저어 대부산²¹² 꼭대기 곁은 데 올라가 앞디마는 자아 밑에 동네를
 내봐다보고,

206. 전복껍질에 붙은 죽이니까, 연명할 정도로 적은 양의 죽을 먹고

207. 큰 집도

208. 소나기가 그치지 않고 심하게 비가 많이 와서

209. 눈에 물처럼 많은 비가 왔다

210. 초분草墳을 해 두고

211. 축지법縮地法을 쓰는지

212. 땔나무를 하는 마을 공동소유의 산

“저 밑에 저 기와집 저거를 뜯고 아무 날 장사날하고, 하관식 언제고...” 쿠음서 퇴역기를²¹³ 해 주 놓고,

“내 소변 좀 하고 오께.” 콤서 의관갓만 벗어 놓고 넘어가디 천지에 오나? 인목불견이라.²¹⁴

“내 형편에 집 저거로 뜯고 우에 아버지 장사로 하노?”

사람은 일거뽀고 그 퇴역기를 거머쥐고 그 동네 내려오이 대청 앞에 커다란 사당매이 집을 짓고 사는데,²¹⁵ 그 집을 찾아드가가 인사를 하고,

“그래 하릿밤 자고 갑시더.” 쿠이,

“예.”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 그래 드가이까네, 아이고 세상에는, 저녁을 차려가 묵고 허연 노인이 이래 앉았는데,

“보소보소, 혹 적선 적선한 일 없는교?” 쿠거든.

“이래 천지 누각을 땡기는 사람이 무신 적선할 일이 있겠는교?”

“단디이 한 번 생각해 보소.” 이라거든.

이석하이까네,²¹⁶ 안에서 뭐가 통 통 통 통 해 썩디마는 딸아아 하나가 오디마는,

“할배요. 가자 콤니더.” 이라거든.

“잠시 있어라. 잠시 갔다 올깁까네.” 그래 보이까네 밤에 모두 따라가는데 그래 이 사람이 뒤따라가 봤어. 고루거각高樓巨閣으로 칠성당을 모시 놓고 촛불 쓰고 향불 쓰고, 진선진미 과일로 채리 놓고,

“북두대성, 칠원성님네요, 우리 돈 천 냥 주고 살려주던 사람 만내도록 해 주소.” 쿠머 제사를 지내 썩거든. 그래 생각하이 지가 돈 천 냥을 준 기 안 생각키나?

‘옳다 돈 천 냥 준 기 이 집이구나!’ 싶아가 들오이까네 노인이 철상하고 안으로 오는 기라.

“참 말썽하이 글치, 내가 어느 때에 허연 노인 두 분이 죽을라고 약시한데, 돈 천냥 주고

213. 묘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쓴 ‘토역기土役記’

214. 인목불견人目不見,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215. 아주 부자로 사는데, 큰 집 앞에 또 고루거각高樓巨閣이 한 채 있다

216. 밤이 이슬해지니까

간 일이 있다.” 쿠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은인이 왔다.” 카이 버선발로 여자가 뛰나와.

“예!” 쿠미 뛰나오는데, 은인을 만났어. 그 사람이 그 죽을 사람이 살았는 사람인가라.

원강 빌어 놓으니까네 칠성신이 그 은인을 거어 떴고 온 기지. 인자 은인 만냈으이 빌
택도 없고, 칠성각을 뜯어 장사지내고, 그 할배가. 이만 땅은 은인 만내모 줄라고 집 지
와서,

“우리 집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콤서로 그래. 그 날 그 시에 장사하고, 거어 그 집에
살고 그래 가 잘 살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백 냥의 보은

옛날에 한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잘 사는 고모집에 가서,

“우리 처자권속妻子眷屬이 못 살고 우리가 자식들하고 못 묵고 살고, 고모가 좀 살리
주이소.”

쿠이까네 돈 백 냥을 주는 기라. 그 백 냥을 가지고 중간에 오이까네, 뽕가오 곁은
놈이²¹⁷ 각시로 하나 물에 잡아 Ying는데, 각시는 안 들어 갈라고 울고, 그 놈은 잡아 Ying

217. 체격이 건장한 놈이

이라거든.

“여보 여보, 와 그래 사람을 물에 잡아 영는교?” 쿠이,

“아, 길로 가거든 곱게 가지. 뭐 잔소리 하노?”

“여보소, 단디이 한 번 알아 봅시다.” 쿠이까네,

“당신이 정 알고 접으몬 이 년이요, 돈을 백 냥 주고시러 사다 놓은까네. 천지에 소리를 하나 할 줄 아는교? 알랑 소리로 하나? 아무것도 몰라 놓으이 이거 죄이 빠지. 돈 백 냥 해딱 날아가고 이 년 죄이야 된다. 잡아 영을라고 있다.” 쿠거든. 그기 광대패라.

“돈 백 냥만 주문 안 죽는교?” 쿠이,

“돈 백 냥만 주문 마마 살리 주고 가지.”

사람 살리 주라고 돈 백 냥을 쥐 뺐다. 그러이,

“나는 죽어도 당신 사람이고 살아도 당신사람인데...” 따라온다. 물²¹⁸ 것도 없는데 따라온다.

“여보소, 우리 집에 가몬 아무 묵을 것도 없고 우리 집 공기도 부석이 나가 있는데,²¹⁹ 우째 당신이 따라오노?”

“나는 마 부석이 나도 좋고 죽어도 좋고 당신 사람이요.” 마 따라오거든. 기가 차고 참 매가 찰 일이라.

집에 공기도 뗏이 되고 이런데, 그 돈 얻으러 간 기 혹을 하나 붙이가 들어오네.²²⁰ 이런 놈의 일이 있나? 그래 그 여자가 본처인데 상세한 이야기를 했어. 이차하고 그래그래 사람을 살리 줬더이 따라왔다고. 그 여자가 집에 오디마는, 그날부터 소쿠리 하나 들고 밥 얻으러 가는 기라.

밥을 얻어다가 먹이 살리인까네 돈 백냥카마 더 안 났나? 밥 남는 거는 말류고²²¹ 비와 서 못 갈만 하몬 그거로 말라가 밥국도 끼리 묵고 마.

옛날에는 선생도 옳기 없고 훈장도 없어가 글로 몰라가 난리고 뚜디리 맞고 이래 쌓는

218. 먹을

219. 우리 집 가족도 굶어서 부어 있는데

220. 있는 가족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돈 빌려 가가지고 사람만 하나 데리고 오게 되었다

221. 말리고

데, 공기를 믹이 살리느라 상하촌을²²² 얻으로 땡길 때 부잣집에 밥 얻으러 가이꺼네 처
자들로 글로 짝 가르쳐 썩는 기라.

“처자야, 여차하고 그 글은 그 글이고 안 글나(그렇냐)?”

밥 얻으러 가 보미 이래 쿠이까네 그 부모네가,

“아이고, 여보소, 당신이 글 아는교?”

“야 글을 좀 내 부모인테 배웠다.” 쿠이,

“아이고, 당신이 글 알거들랑 우리 집에 와가 마 야들 글 좀 가르쳐 주소.” 이라거든.

“그래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교?” 카이,

“몇이나 된다고.”

“아이고, 나는 여 갈쳐 주고 있을라 쿠몬 우리 공기 다 끓어죽심더. 내가 밥을 얻어가 우
리 공기를 믹이 살린다.” 쿠이,

“이 양반아, 우리 쌀 주몬 안 되나? 우리 여러 집 학생들 어불러가 주몬 안 되나? 쿠거든.

“아 그래 줄라 쿠몬 모르지요.”

그래 집에 와가 의논해가 훈장질로 하는데, 그 부자집 논이 방틀에 들어찼어.²²³ 그래
그 집에 쌀도 주고 한 농장을 주어서 부자 돼가지고, 아들로 큰 어마이 작은 어마이가 한
해 낳았다. 아들로 둘이 낳아가지고 서러 열여덟 살 썩 묵어서 담방급제 도장원하로 서
울 과거보러 올라가는데, 편지로 한 장 딱 써가지고 아들을 조가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세
상에 정승판사 딸이라.

신랑이 죽고 청춘에 혼자 된 과부를 사춘 오래비가 데려다 광대패에 백 냥 받고 팔아 묵었어.

그 집에선 부지겅이²²⁴ 딸 잃거뿌고 몰랐는 기 근 20년 돼가지고서러, 세상에 딸이 보낸
편지에 내가 뵈입니다 쿠미 외손자 둘이가 과거 보러 왔단다. 즈그 아배가 상시관, 정승
판사인테 손자 둘이가 담방급제 도장원 해가지고, 부자질하고 잘 살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222. 상하촌上下村, 아래 윗동네로

223. 논이 똑 안에 많다

224. 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독약이 든 귤

Poisonous Persimmons

스님 한 분이 한번은 벽장에 귤감을 잔뜩 넣어두었다. 그는 귤감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어린 제자들에게 말했다.

“귤감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다. 만약 너희들이 귤감을 조금이라도 먹는 다면 한 시간 안에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제자가 스님의 방에 가서 벽장 속에 있는 귤감들을 모두 먹어버렸다. 그때 스승의 벼루를 깨뜨렸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방에 가서 누워 이불을 뒤집어썼다.

잠시 후 스님이 돌아왔다. 그는 울고 있는 제자를 보고 고함쳤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하찮은 서투름 때문에 제가 스승님의 벼루를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깬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어서 스승님의 벽장에 가서 그곳에 두신 모든 독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영리함에 너무 기뻐서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고 제자의 행동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한국의 설화』, 오진영吳珍泳, 언양彦陽, 1917, 단국대학교출판부]

천 냥 빚을 탕감시킨 아들의 기지

옛날에 나라에 거역²²⁵으로 하고 있었던 호장戶長이 나라 빚을 갚다가 돈 천 냥을 내다 썼어.

옛날에는 제 기한 내에 못 갚으모 목을 갚다가 대에야 된다.²²⁶ 목을 대야 된다 쿠이가네, 지도 빚을 갚을라 쿠이, 아무래도 갚을 길이 안 돌아간다.

‘빚을 기한 내에 못 갚아 놓은까네 내가 목을 갚다가 대에야 되는데...’ 그래 기가 없어 지거든.²²⁷

여덟 살 묵은 아들이 가만히 보이까네 아버씨가 암만 캐도 기가 하나도 없어. ‘이상하다.’ 싶어가,

“아부지요, 저한테 이박(이야기를)을 하시이소.”

“야야, 뭐 알 거 없다.”

“아부지가 소자한테 이악을 못 하몬 어떻게 하는기요? 그라모, 소자는 죽어야 되겠입니다.” 이라거든.

‘저기 뭐로 알라고 저라는가?’ 그래,

“그런 기 아이라, 내가 돈을 천 냥을 내다 썼디이마는, 모레가 기한인데, 이 돈을 우째도 내가 못 갚겠다. 그러이 내가 목을 갚다가 대야 된다.”

여덟 살 묵은 아들이,

“그래요, 그거는 아부지 걱정하지 마이소.” 그래 마 우짤러노²²⁸ 싶어가 있으이, 며칠 날

225. 근무를

226. 사형死刑을 당한다.

227. 말을 하지는 않지만 기가 죽어서 근심하는 마음이 표정이라

228. 어떻게 하려느냐

되인까네 여덟 살묵는 기 책을 끌그적 끌그적 하고서 나라에²²⁹ 목을 찢찢 흔들고 드가는 기라.

“네 이 놈, 네 와 왔노?”

“예, 아버지 대신으로 돈 천 냥에 목 베이로 왔입니다.”

“네 이 놈, 니 빨난 망아지 한 마리 구해 올래?”

“예, 구해 오지요.”

“그러모 한 마리 구해가 오이라.” 그래 나왔다. 그리곤 아아들 보고 끄덕끄덕 땡김서 놀아. 그래 그 날 무사히 넘어가는 기라.

‘저 녀석 저 놈이 우짜고 와가 저라는고?’ 아무 날 되인까네 또 끄덕끄덕 가는 기라.

“네 이 놈, 빨난 망아지 한 마리 구해 왔나?”

“예, 빨난 강아지로 한 마리 구해 오이소.” 켜거든.

“네 이 놈, 빨난 강아지가 어딴노?”

“빨난 망아지가 어딴는교?”

그러이, 나라가(원님이) 물박을 탁 치거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못 이겼다. 마 나가거라.”

천 냥 빛을 물세하고,²³⁰ 그랬어. 그 천 냥 돈으로 아들이 대신 가가지고 갚았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임말숙, 온양면, 1984]

229. 책장을 넘기며 책을 읽다가 관가(官家)에

230. 씻어 없애듯이 빛을 탕감하고,

보쌈 바람에 부자집 사위가 된 총각

옛날에 혼차 사는 여자가 있는데, 정승이 혼차 돼가지고 할마이로²³¹ 잃어 뿌가 통테²³²를 때가 갈라는 긴피로²³³ 알고 있는데,

에릴 적에 양친 부모 다 기린²³⁴ 총각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조개는 아아 때에 만날 그 아아로 갖다가 밥을 먹이가 이래 키우고 둘이가 편히 자고, 모양 없이 이래 됐는기라.²³⁵ 고개 쪼맨 크이까네 객지로 나가 뵈는데, 과부가 걱정이다. 우야둥둥²³⁶ 통테로 면해야 되는데, 하리 저녁에는 그기이²³⁷ 떡 들왔어. 그래 가,

“아이구, 네 잘 왔다. 네 어데서 왔노?” 그래 과부인테 이바구로 하거든.

장개도 못 가고 어디라고 가이, 허연 노인이 눈을 갈터란다. 인자 장골이²³⁸ 壯丁 났는데, 하도 보이까네, 안타까워서 그 어른이 쉬는 여개 눈을 좀 갈아 뵈어. 그래 자기 집에 댜고 가 자고,

“이 사람아, 우리 집에 내 일이나 해 주고 있자고. 그래 사우 하자고.”

이래 가 딱 그 집에 장개들라고, 술도 한 동우 해 Ying어 놓고 며칠날 잔치 할라고 날로 받아 뵈는데, 잔치날이 다 돼 가이까네 한 날 꿈에 선몽²³⁹을 대거든. 허연 노인이 와가,

“니는 거게 장개들지 마라. 거어 장개로 들몬 니 목숨이 위태롭다. 니 걸음대로 가몬 니 배필은 따로 있다.”

그래 마 달아나 뵈다. 하지만 그런 데가 없는 기라.²⁴⁰ 나이는 많제, 어드메 질로 오다 판 사람이,

231. 아내를

232. 과부에게 자루를 씌우고 통테를 몸에 끼우고 업고 가서 아내로 삼는 풍습, 보쌈

233. 기미를

234. 여원

235. 아주 친하게 지냈다

236. 어떻게 하든지

237. 그 총각이

“저 건네 참 용한 사주쟁이가 있다.”고 이래 쌓거든. 그 소리 들은 집에 ‘에레이 이 높우 거, 내 사주팔자가 이쁜가?’ 사주 보러 갔는 기라.

“당신은 하룻 저녁에 천석千石 하라 겠다.” 카거든.

“하룻 저녁에 천석을 하는데, 그 때가 평생에 세 번인데 두 번은 넘어 갔고, 한 번이 있는데, 그 한 번이 올(오늘) 저녁이다.” 카거든.

해는 보이 쪼매(조금) 남아 있고. 그래,

“어디로 가몬 내 때로 만나겠노?”고 이라이,

“어디기나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모 때로 만난다.” 이카거든.

그래 인자 나오이까네, 삼갈래질이 있는데 요리 가몬 전에 지 애릴 때 크던 고향으로 가는 질이고, 이리는 탄 데 가는 질이고 이런데, 가만 망설이고 보이 마 고리 가고 짚거든. 지 크던 데로 구제해 주던 사람, 그 집에 떡 갔다 아이가? 가이까네 그래 반갑아라 쿠거든.

“하, 니가 어딴다가 왔노?”

“그래 내가 아무 데 아무 데 그래 땡기다가 하도 이 고향에 오고 짚어 왔다.”고 이라이,

“니 온 저녁에 잘 왔다. 내 말만 들으몬 니는 팔자 피인다 아이가?”

“어째서요?”

“일단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우리 방에 훌이불 조거로 몸에다 휘휘 감아가 포옥 덮어 썩고 자몬 누가 올끼라고. 와가지고 마 어디 좌영기나 어떻기나 못 이긴듯이 마 가몬 니는 팔자 핀다.” 이카거든.

“다 시킨 대로 하겠다.”

그 여자가 남자 신을 치와 뿌고 지 신을 고 문 아께 딱 놔 두고 여자는 탄 데 가 자 뻘거든. 자고 있어이,

“있다. 있다. 있다. 뒹다. 뒹다. 뒹다.”

가만 들으이 이래 쌓거든. 마 오디마는 뭉치가 뜯어 뺏기 보도 안하고 그냥 가매라 쿠던

238. 장가들말한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 주와 영어가 가 뻘다. 죽은 듯이 들앉아 있으이 어데라고 가딩이,
 “여봐라, 문 열어라.”고 야단이 나거든.
 “어디로 모셨지요?” 이라이, 그 대감이 그래,
 “온 밤에는 그래 큰방을 모시라.”고,
 큰방을 모시모 과년묵은²³⁹ 딸강 하룻 저녁 자라고. 그래 큰 방에 덩비기채로²⁴⁰ 썩 영
 어뻘다. 자고 해가 닷발이 되도²⁴¹ 안 나와. 꿈적 안 해,
 종이 세숫물을 그래가지고,
 “색시님, 나와 세수하라.”고 이래도 마 기척 없어. ‘이상하다’ 싶어 문을 때 열어 보이 영
 두리 걸은 기 하나 떡 들앉아 있거든. 기겁을 해가,
 “와이구야!”고, 마 영감씨가,
 “와이구, 여봐라. 저 놈 잡아 내라.” 그케 놓고 가만히 생각하이, 양반의 집에서 그 딸로
 못 치와 묵겠거든.²⁴²
 “그럴 게 아이라, 저게 가매솔에 물을 한 솔 땀히가 씻기라.” 카거든.
 인물은 참 잘 났는데, 그래 씻기가 노인 옷을 한 벌 입히 놓으이 세계가 마 환하거든.²⁴³
 어떠끔 잘났는지, 그래 사우로 정해가 그 사람이 하룻 저녁에 마 천석해 뻘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239. 과년한

240. 뭉친 것 그대로

241. 해가 중천中天에 떠도

242. 시집을 보내지 못하겠거든

243 세상이 환할 정도로 인물이 잘 생겼다

복점福點을 쳐서 잘살게 된 머슴

지검매 지가배²⁴⁴도 없이 총각이 일곱 살 묵어가 넘우 집을 나가 시무 살 묵도록 살아도 지
꺼라꼬 하나 없고 한 폰도 여유 되는 기 없고, 하문 잘사는 모텡이가 한 모텡이도 없어요.

이래서, 어드메 참 용타고 소문 난 봉사가 있는데, ‘에라, 이년들 꺼, 내 일 년 머슴 살았
는 거 암만 해도 없는 거, 단수나 하문 쳐 봐야 할다. 내 평생에 고상을 이래 하라 커는가
안 하라 커는가.’ 싫어가지고 거어 가 단수로 치이까네, 단수에 하는 말이,

“당신이 잘 될라 커저등 톱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커저등. 그래서,

“우야기나 잘 살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끼라.”고 이카이,

“어엿기나 당신이 내일버텡 새북 밥을 해 묵고, 초배기로 하나 싸가 배가 고프저등 조
매꿈 밥을 묵고, 점도록²⁴⁵ 걷고, 이튿날꺼정 밤새도록 가도록 가라.” 커저등.

“점도록 가고 새도록 가가 첫 집에 드가서 그 집에 살며 형편이 펴 끼라.” 커저등. 그래
가 점도록 가고 밤이 새도록 가이, 이튿날 새북에 희분하이 어드메 한 골짜에 가이 개와
집이 자부락하더란다. 그래 첫집에 드가이 여자가 혼차 사는 여잔데, 그 집 머슴을 살았
다는 기라. 그래,

“여하하고 배가 고파가 밥 좀 주소.” 커고, 그래,

“내가 올 엄매 올 아버지 없고, 톱 내 걸음대로 가가 사라 커는 집에 내가 살 끼라.”꼬 그
카이까네,

“아이고, 우리 집에 큰머슴을 하나 더부야 되는데, 총각 마 우리 집에 머슴을 사라.”컨
다. 총각이 머리²⁴⁶가 채색 바디걸이 도끼 머리 해가 갔어.

살림은 요부한데 밭 주인네도 없고, 여자가 한 사십대 돼 비이더란다.

244. 자기엄마 자기아버지

245. 저물도록

246. 긴 머리카락

“그래 마 사지요.”

그래, 한 보름을 소로 몰고 가가지고, 나무로 해가 오이까네 하리 저녁에는,

“아이고, 머슴아, 저게, 온 저녁에는 내 방아 좀 자구로 해래이.” 커저등.

‘하이구, 이상하다.’ 이래 싶어.

“머슴, 온 저녁에 머리 안 빗을라나? 소물(소 여물) 솔에 물 부어 난데 뜨떠한데 머리 빗어라.” 이카저등. 그래 머리로 철럭철럭 감고, 불삼등을 자꾸 불끈불끈 짜고 하이까네,

“머슴아, 내 방아 여어 오너라.” 이카저등.

“내 빗기 주꾸마.” 그래 그 방아 가이, 좋은 민경面鏡에, 좋은 땡기에, 좋은 비네에, 비네로 이상키 쫓기 주저등. 총각으로 머리로 안 땡아 주고 요이부 자리로 탁 해놓고,

“머슴, 온 저녁에 여게 요이부자리 해가 자거래이. 나는 저게 우리 친정에 제사가 드는데 간다. 그래, 집 단디 보고 야.” 커저등. 가마 생각하이 초당방아, 사자리방아 자다가, 요이부자리 해 주는데, 좋거등. 이전에서 부잣집이 요이부자리, 각기장판, 능화대복 아이가? 그래,

“예.” 커고 마 있는다. 어덜라? 한밤중 되이까네 번지섬이 한 개 들오는 기라.

홍태, 이전은 과부가 보삼당할까봐 혼차 몬 살았단다. 그래, 요강 우다가²⁴⁷ 그냥 섬에 영어뿌고는 거처 없이 가저등. 가마 있으이 누 집 큰방아다 딱 들라 주고는 남자들은 가고 머릿방아 호불애비가 있었던 모양이제. 머릿방아 가디,

“야야, 너검매캉 새 정 들구로 아랫방아 가 자거라. 나는 이 방아 내 혼차 자끼. 니일이 저녁에는 큰방아 내 자끼. 아무끼야, 니 큰방아 너검매캉 하리 저녁 자거라.” 커저등.

그래 가마 죽은 듯이 눕었으이 휘청네 곁은 인물덩이 처자가 하나 떡 들오거등.

“엄매, 내강 하리 저녁 자자. 아버지가 저래 혼차 언제버텨 사는데, 나도 인자 시집갈 때가 됐으이 엄매잘에 내가 이야기할 거밖에 없다. 나는 인자 시집갈 때가 되이 시집을 가야 되고, 올 엄마가 이 살림을 감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엄마요, 인자 엄마가 이왕

247. 움켜서

이래 됐으이 올 아버지강 있는 살림에 얼마든지 사소.” 이거 가마이 생각하이 기가 찬다.

지척지척 저검매 짚에 자꾸 끌어안아 들오는데, 속으로는 마 참 좋거등. 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은 안 띠고 잔주꾸(잠자코) 보이 처자도 아주 좋고 맘에 썩 드터란네.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늦도록 있으이 저거 아배가 축담에 얼릉얼릉거리미,

“야 아가 저검매 보이 언가이 좋으나? 아직(아침)을 어떡 해야제.” 못 나가구로 총각이
꼭 붙들고 있으이 인들꺼 암만 기다리도 안 나와.

“아무끼야, 너검마강 늦잠 들었나? 마 나와가 아직을 해라. 너검마 안직 정지도 쓸고 몬
하는데 니가 나와가 어떡 아직을 해라.” 이쿠거등.

‘너검맨동 똘동 내가 나가구로 해야 뭐, 내가 평생 배필로 삼았는데...’ 총각은 그래 싶
우다 말이다. 암만 영감쟁이 나갔다가 드갔다가 바래도 안 하려 나와 할 수 없이,

“야아가 와 일노?” 쿠미 문을 여이까네, 와이구, 총각이 지 손으로 머리를 톱 땅코 있는
데, 총각이 마 커다이 참 좋거등. 그래 그 처자를 줬다 말이야. 그러이 장인 되거등. 장인
이 하는 말이,

“야야, 내가 할마이로 연잖애 니가 배필로 잘 삼았다. 평생에 너거 연분인갑다. 나는 할
마이 복이 없는 기다. 마 너거 연분 맞췄으이 한 가지 걱정 덜었다. 너거가 이 살림을 감
동해가 사도록 해라.” 쿠네.

그 살림을 감동해가 저거 아배 모시고 잘 시는데 형편이 마 확 풀리뿌랬어.
그러이까네 그 형편이 피이는 거 보며 그 사주四柱 내는 네(이)도 거짓말로 안하고 영판
맞히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아들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

옛날에 저 단노인이(홀아비가) 혼자 살았어예.

옛날에 노인이 이래 상처로 하고 늦게 자식을, 일찍 자식을 못 두고 늦게 자식을 하나도 놓고, 마 할마이도 죽어 뿌고 고(그) 머시마(사내애) 조깨는(조그마한) 고거로 텨고 만날 지계를 지고 뭐로 별어가 묵고 사는데, 이놈의 머시마가 만날 즈그 아버지 일하러 땡기는 데 따라땡니머 무조건 돌을, 모개木瓜 꺾애도 지 눈에 차는(드는) 거는,

“아버지, 이거 지고 갑시더.”

똑 그거 시키는 대로 한다. 귀해가지고 노죽빠까리만치²⁴⁸ 가리 났는 기라, 그 돌로. 주아 모아가. 아들 지고 가자 쿠는 거는 다 주아다 모아가. 노죽빠까리 떠억 가리 놓고, 하로는 똑다리로 이래 건네는데, 똑다리 돌로 커다란 돌 이거로 지고 갑시더 카거든.

노인 보는데는 돌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모개 꺾은 돌인데, 떡 지고 갔다. 지고 가이,

“그거로 자 제일 우에 거어 얹이라.” 쿠거든.

우에 떡 얹어 놓으이... 그래 인자 뒷집에는 부자집이고 대감집인데, 앞집에 고리(그렇게) 얹이까네 종 비식하이(비슷하게) 이래 있었어. 그런데 인자 대감의 할배가 저녁만 되몬 보몬 마 문이 환하이 그 앞집에 돌 빼가리 그기 만날 서기瑞氣가 비치. 밤만 되몬 서기가 비치.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 가 하로는 종을 시키가지고,

“아무 여어 영감쟁이 우리 집에 오라 해라.”

그래 텨고 왔다.

“여어 들오라고.”

주지주지(머뭇머뭇) 하이껴네, ‘무슨 죄 지어가 날 잡아 왔는가?’ 싶어가 주지주지 하이

248. 노적露積처럼

겁내지 말고 들오라고. 사랑방에 들오라고. 아이구, 날것은 인간을 대감방에 들오라 카
 이 얼마나 어리이노(어리둥절하냐)? 참 죄 지은 것매이로 어리어리 하이,
 “아이, 겁내지 말고 요리 들오라고.”
 그래 떡 들와 앉으이,
 “다른 기 아이고 그래 저 우리 고방庫房하고 돌빠가리하고 바꾸자.” 이라거든.
 “난도 그거로 내 맘대로 못 하고 아무것이한테 물어 보아야 한다.”고.
 그래 아아잘에 와가 물어 보이까네 첫 말에,
 “아이구, 아버지요, 그거 바꾸소.” 카거든.
 그래 인자 바꿨다.
 “바꾸는데, 다 가(가져) 가는데, 제일 우에 그 돌만 빼고 가가라.” 카거든.
 제일 우에 돌, 큰 돌 그거 마지막에 갖다 얹은 돌, 그것만 빼고 다 가 가라고 이래 의논
 해가 바꿨다. 그래 다 바꿨는데, 그래 마 그 집 노죽은 이 집에 다 가 오고 이 돌 빼가리는
 이 집에서 다 가 가고 이래 딱 바까 놓이, 다 바까 났는데,
 또 이 노인이 보이 또 그 놈의 집에 불이 환하이 밤만 되몬 서기가 비치, 비치. 그렇고 언
 자 그 고방에 그 부자 지끼미가²⁴⁹ 따라 와 뺏는 기라. 그래 인자,
 “느그도 우에 돌로 하나 놔 두고 주니 우리도 고방에 하나 놔 두고 가라.”
 이리 뺏는 기라.
 “그래 그리 하겠다.”고.
 그 아아가 뭐로 알아. 그래 아무것 고거로 놔 두고 오라고. 마 그 지끼미가 따라 와 뺏다.
 마 그 집에는 쫓딱 망해 뿌고 여기는 대 부자가 되어가 그만치 잘 사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249. 지킴이. 재물신財神.

선행하여 복탄 짚신장수

그 전에 한 사람이, 산골에 짚신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노인네가, 아들은 뭐로 했는지 몰라. 아들도 며느리도 있는데, 짚신을 삼아가 팔아가지고 연명을 해 가는데, 조당숙을(좁쌀죽을), 서숙을 사가 죽을 끓이가 미음을 끓이가 묵고 사는 판이라. 그런데 그 날 저녁에야말로 밤참을 묵을라고 짚신을 삼으니까 네 밤에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저녁을 가져 온 거로,

“며늘아, 갖다 뵈다 이따(조금 뒤에) 밤참에 달와(달라).”

이렇게 하고 신을 삼는 판인데, 이때쯤 났던기여. 어떤 대사가 마 중이 말이어 와가,

“자고 가자.” 그러거든.

“아이구, 우리는 신 삼으니까네, 짚신 삼으니까네, 짚이 너절하고, 방이, 방도 조그만데, 아이구, 못 자고 갑니다.” 카이,

“아이구, 잘 데가 없으이 어떻게 하루 밤만 어떻게, 누추하기는 걱정 없습니다.”하고 인자 그래 들어와. 그래 인자,

“며늘아, 저어게 저녁 좀 채리 오나라.” 하니까네,

물 두 그릇에다 숟가락 두 개 놓고서 조당숙 한 그릇이라. 가만 중 대사가 보니까네, 주인 묵을 걸 가지고 가져 온 기라. 생각이 난기라. 그래 주인더러,

“같이 먹자.” 카이,

“아이유, 난 배가 불러가 저녁도 안 묵었는데, 배가 불러서 못 묵는다.”

자꾸 묵어라 그 칸 기라. 그래 대사가 다 먹은 기라. 먹고 인자 자면서 얘기해,

“우째 이렇게 어렵기 삽니까?” 카이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도, 뭐 농사도 없고 그래 인자 짚신을 삼아 팔고, 이래 연명해 간다.” 이러이까네,

“그러몬 오장치는(오쟁이는) 하나 있습니까?”

오장치, 시오장치, 짚을 가지고 매가지고 오장치가 있거든. 섬도 있고. 크면 섬이고, 쪼

끄만 하몬 오장치거든. 요렇게 아, 그런 거 있다 하니까네,

“좀 큰 거 있느냐?”고 카더라는 기여, 중이.

“큰 거는 없고 요거백에…”

“그러모 아무끼나 가져 가지. 질뽕하고 가져 가자.” 생비령(절벽) 있는 데 가져 갔는 기라.

“꼭 내 발자국만 디디세요.” 카거든.

그 열매 안 가는 기라. 그 중 가는 대로 쫓아가 가디만은 이런 바우 밑으로 드간 기라. 굴 속으로 굴 속으로, 바우로. 그 안에 무수가(무우가) 곱 팔뚝 같은 기 짝 들어서가 있더라는 기라.

“아이구, 이거 배 허기 나는데, 이거 잡수세요. 뽕아 잡수세요.”

한 개 묵으이까네 배가 부르고 글탄 말이여. 그리고,

“오당치에 열매든지 심대로 뽕아 가라.”고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참 무수로 한 오장치 담아가 짹어지고 돌아오이까네 하루종일 와야 오겠단 말이여. 집으로 오는 데. 그래 가 며느리가 보더이,

“아이고, 아버님.”

“이거, 너저 배 고포데 얼른 묵어라. 이거 무수다. 내가 묵으이까네 한개 묵었디만 배가 부르고 배도 안 고포고 참 좋다. 그 대사가 가져 왔는데²⁵⁰ 무수다. 한 오장치 얻어가 왔다. 그 느그도 한 개씩 묵어라.”

“와이고, 아버님. 이거 삼입니다.”이래.

산삼. 그래가지고 뭐 산삼이 돈이 많거든. 그래 부자집에 가 팔았단 말이야. 돈이 많단 말이야. 그래 가 좋은 개와집하고 논하고 열매 샀단 말이야 사가지고 마 짚신 내비리고²⁵¹ 이사를 내리갔다.

그런데 고 부자집에 사는 기, 김썩네 장자란 말이여. 살만해. 그 집이 제산데, 대사가 와가 암만 자자 캐도 안 자있는(재웠는) 기라. 그래 가 부자가 되이까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

250. 주어서 가져 왔다는 말이다.

251. 짚신을 삼아 연명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아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우리가 재울 거로 제사 때문에 안 재웠지만 집에는(당신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언제 오거던 꼭 우리 집에 자도록 해 달라.”
이라는 기라.

그래 얼마 있다 몇 달 후에 왔던 기라. 그래 그 집이 찾으니까네, 잘 사는 집에 갔겠지.
가이까네,

“아무개가, 우리 살던 밑에 집에서 오거던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라모 그라지, 뭐.”

저녁에 가가,

“그러면 내가 살 방침을 해 줄 테이까네…”

그래 갔단 말이야. 자다이(자다가) 어데 중이 가자는 데 갔단 말이야. 꿈에.

가딩이만 갠딩이만 돌벼랑으로 올라가는 기라. 물이 밑에 청수가 흘러가는 돌벼랑으로 올라가는 기라. 마 대사가 그러더이 대사는 없어져버리고 돌벼랑인데, 마 칠기가(침이) 이래 줄이 하나 있더라 기라. 그놈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이까네, 쥐가 나오지만 칠기를 자르는 기라. 칠기 자르이 떨어지몬 그 물에 빠져 죽는 판이라. 그래가지고 발버둥치고 안 떨어질라고 애를 쓰다가 보이까네, 저거 집에 옛날에 산골에는 칠기로 가지고 줄을 매었거든. 그 줄에다 다리를 얹고 그라더라는 기라, 지가. 대사가 조화를 피웠는 기라.

그래 그 선을 행했이몬, 그 사람을 재웠이몬 자기가 복을 탈킨데, 그 사람이 못 자게 했기 때문에 그 우에집에 신 삼는 영감에게 복이 타진기라. 없어도, 내가 묵지 못해도 대사를 대접했다. 그래가 대사가 그만한 은공을 갚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아내의 정성으로 출세한 남편

예전예요 처자도 그렇고 총각도 그렇고 부모도 없고 다 하도 외롭기 커가지고 장가로
가가지고 맥내로²⁵² 데리 오이까네,

“당신은 일가가 더러 있는교?” 카더란다. 그래 이 총각도 참 아무 것도 놓이까네,

“아, 일가가 있지리. 서울에 정길룡이가 우리 삼촌인데…” 성은 정가딘갑더라. 이 맥내
가 얼마나 외롭은지 참 포부가 졌거등. 그날 저녁버텅 나가가지고 ‘우리 시삼촌 정길룡
이 잘 되라.’고 내에 정화수로 떠 놓고 절로 해.

그러구리 참 서울에 정길룡이가 급제했다고 소문이 나거등. 소문이 나이까네 이 맥내가,

“아이구, 삼촌이 급제했다 커는데 하문 가 봐야 한 되는교?”

그래 맥내는 그 참 삼촌인 줄 안다.

“아무래도 가 봐야 안 되는교?”

“아이구, 내가 의복이 있나 노자가 있나, 어애 가노?”

“아이, 의복도 내 해 드리고, 노자도 내가 구해가 줄 터이까네, 삼촌이 세상에 급제했다
커는데 안 가 봐가 되나? 가 보라꼬.”

이거 참 당चे 말마 그캐 놓고 어중쫓하거등. 가 보라고 자꾸 자죽자죽 보챈다. 노자 장
만해가, 옷 다 해 입히가지고 가 보라 캐. 그래 할 수 없어가 서울로 올라가가 정길룡이
집을 찾아간 기라. 급제했다 캐 놓이 손님이 밀고 차고 들오네. 삼작꺀에 문지기가 있는
데, 들올라 커이까네 아무 뭇이도 없는 사람이라 몬 들오구로 해. 하인들이 몬 들오구로
자꾸 밀어 내고, 밀어 내고, 인자해.

정길룡이 우리 삼촌이라 커고 드갈 세근^{識見} 머리도 대에(매우) 없이 그래 몬 드가.

정길룡이가 사랑아앉아가 보이까네, 웬 도복사매이가²⁵³가 삼작꺀에 들올라 커다가 밀

252. 아내를

253. 도복 입은 이

려 나가고, 들올라 커다가 다부 나가고 그렇거등.

정길룡이가 하인을 불러가,

“그 웬 사람이 그래 들올라 커머 몬 들오구로 하고 자꾸 그라느냐?”

“저게 영남 어디 있다 커는 손님이, 생후에 처음 봤는데, 자꾸 들오실라 캐서 하도 손님도 많고 복잡해가 못 들오구로 했습니더.” 커이,

“그렇잖다고. 그 사람 들오라 캐라.”

정길룡이가 돌오라 캐. 그래 드가이까네, 그래 어디서 왔으며, 무신 소원이 있어 왔으며, 그래 마 자세히 묻거등. 그래 이편(자기) 맥네가 온캉 외롭기 커가지고, 그래 묻는 거로 내가 말이 나온다 커는 기 그리 켜는데, 그래 내에 참 정화수로 떠 놓고 하느님한테 빌고, 요번에 급제했다 커이 날로 가 보라 캐 쏘아 그래 왔다고 마 전부 참 내력을 이약을 하이까네,

“참 장하고 착하다꼬. 그래 내가 인지 아무데 고을 살러 가는데, 너저 집에 가 숙소를 정하고 갈 끼이까네, 내려 가가지고 준비해 놓으라꼬.”

그래 내려 와가 인자 저저 삼촌 고을 살러 가며 온다고 온갖 준비로 다 해 놓이, 마실 사람이 참말로 저저 삼촌인 줄 알고 그래 사람이 떡 벌어지더란다.

냉중에 참말로 삼촌이 돼요. 여자로 잘 만내 출세로 시키. 정길룡이가 저저 삼촌이라 캐 놓으이까네 얼마나 돈기(높게) 비이노? 그래가 마 떡 벌어지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지성스런 염불로 복 받은 사람

며느리로 봐 놓이 시어마씨가 자꾸 며느리로 쫓아뿔라²⁵⁴ 카거등.

“아야, 가거라 가거라.” 카는데, 며느리는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 가라 캐도 알라가 하나 아들로 하나 낳아 뵈는데 이기 우째 가겠노 싶어가, 암만 가라 캐도, 안 간다 아이가. 그래 놓이 아들인데 그래,

“아야, 마 저 보내뿌리라. 보내뿌리라.” 카내.

어마씨는 죽고 나며 참 부모가 없는데, 여자는 보내뿌고 나며 안들로²⁵⁵ 얻으며 안들 아이가? 그래 놓이까네,

“마 니는 가거라.” 켜거등.

신랑도 가라 카제, 시어마씨도 가라 카제, 각씨도 참 할 수 없이 가뿌렀다. 인자 간다고 가이까네 갈 데가 올 데가 있나? 이래 놓이 만첩 산에 절로 갔다. 절에 심부름해 주고 일 해 주고 밥을 얻어 묵고 있는데, 하리 저녁에 중이 염불로 데기 하거등. 앉아가 염불을 듣고 앉았은까네 중이 염불로 다 한 뒤에요,

“당신도 염불로 좀 하시오.” 이카거등. 그래,

“나는 염불 배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 염불을 할 줄을 모른다.” 카는 기라. 그래,

“이 만첩 산중에 무신 소망이 있겄래 절에 온 거 아이가? 저 맘대로 생각대로 그래 염불을 하라.” 카는 기라.

그래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고 심중^{心中}대로 안자 염불로 하거등요.

“자진 심중 자석으로 낳아 놓고, 자진 심중 짚은 꼴짝 씨앗이로 뿌리 놓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254. 쫓아버리려

255. 아내를

“자진 심중 짚은 골짜 씨앗이로 뿌리 놓고, 수명장수 관심보살, 안가태평 관심보살, 부귀영화 관심보살, 소원성취 관심보살.” 카미 심중대로 주야로 그 염불했거등.

내 그 절에 있다가 주야장천 밥을 묵어도 염불하고, 샘에 가가 뭐로 씻거도 염불하고, 변소로 가도 염불하고 해 놓이, 자기 낳아 놓고 간 아아 거기 성공이 아주 출세를 했어. 출세로 해가 잘 사는데,

인자 고깔로 해가 덮어 씨고, 염불로 해가, 시주로 해가 절에 절에 들받는데,²⁵⁶ 동네방네마중 염불로 시주로 하러 간다. 해필 우째 갔는지 자기 집이라요. 자기 집인데, 옛날 있던 집보다 판데,²⁵⁷ 아주 참 청기와 집을 지어가 잘 해 놓고 살아요. 그 옛날 신랑이 인자 영감이 돼가 커다는 널번지 겹은 손지로²⁵⁸ 안고 마당에 땡기는데, 그 중이 꼬깔로 해가 딱 덮어 씨고 그 염불로 했어.

“자진 심중 짚은 골짜 씨앗이로 뿌리 놓고, 수명장수 관심보, 안가태평 관심보살, 부귀영화 관심보살, 소원성취 관심보살.”

염불로 자꾸 그거만 해요. 자기 영감이 손지 알라로 안고 마당에 이래 돌다가 ‘염불로 하는 거 보이 이상하다. 중들이 와가 염불로, 시주로 줄라 캐도, 염불을 해도 저래는 안 하던데, 우째 염불로 저마쿰 저래 하는고?’ 싶어. 그래 생각을 하고 보이까네 옛날 옆 모습이 자기 마누라라요.

그러이 뵈기 싫어 놓이까네 알라로 안고 마 들와버렸어요. 사랑방아 들와가 알라로 안고 있으이 내거리(내내) 대문 밖에서 그 염불로 하는 기라. 며느리가 연해 시주로 안 주이까네 며느리로 불러가 그래,

“저 염불하는 중을 어떡 갖다 시주로 줌 주라.”고 이카이,

“아이구, 아범요, 마당아 와가 해도 시원찮을 꺼로 밖에서 하는 거로 어째 시주로 주는 교?” 카는 기라.

그래가 시아바씨가 암말도 안 하고 가마 있었다. 며느리가 시주로 안 주는 기라. 안 주

256. 바치는데

257. 다른데

258. 널판자 같은 손자를

이 자꾸 또 염불로 하거등. 영감이 하도 듣고 또 며느리한테,

“아이구, 어떡 시주 줘라, 그 중 가거로.” 이카이까네,

“아이구, 아범요, 아범요, 들와가 해도 시주로 줄똥 말똥한데 밖에서 하는데 우째 시주로 주는교?” 카이까네,

“아이구, 그렇잖다. 마 시주로 좀 줘라.” 카이 그래 인자 그 며느리가 쫓아나가디마는,

“아이구, 중아, 중아, 염불로 하거들랑 우리 마당아 와가 염불로 하지 밖에서러 저 염불로 하이까네 우애 시주로 주겠노? 시주 받을라 카거등 우리 집에 와가 하라.” 카거등.

그래 인자 마당아서 염불로 하는데요 연해 그 염불이라. 그 염불을 하이 해가 버러 서쪽에 걸렸어. 아들이, 그래 자기 놓은 아들이, 쪼맨은 걸 낳아 놓고 갔는데, 그래 관장官長 걸이 돼가 그래 왔더랍니더. 그래 저거 어매 찾았는데, 요새 걸으마 취직해가 있다가 들오며 각씨인테 안 가고 부모잘에 머이 드가거등. 사랑방아 드가여 저거 아버지캉 이박(이야기) 실컨 하고 마누라인테 간단다. 저거 아버지캉 이박할 적에 그래 인자,

“아야,”

“그 저 이, 밖에 있는 사람 저이가 너거 엄마다.”고 이래.

“울 엄마가 어딴는교?” 카미 그래 붙잡아가 참 저거 엄마로 인자 찾더란다. 그래 찾아가 부귀영화로 잘살았어. 그래도 그 중이 거게 안 있고 연해 절에 있더라 카테. 워낙 그 염불로 해 놓이 자석은 성공을 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장덕선, 언양면, 1984]

엉터리 염불을 해도 진심이면 복받는다

옛날에 그 ‘김침지, 와, 불알’ 욕하는 거 말이다.

며느리가 시어머이한테 불효하는 거 그거 연해 옛날에 불효거등. 옛날에 참 이 어른이
만날 봉사가 되가 눈을 감고 앉았으니까네 어떤 스님이 오시가 저승 가실 때 그 질을 티
아(열어) 줄라고 만날 그래,

“할매는 딴 거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만 날 천 날 ‘지장보살’로 찾으라.”꼬 이래.

그래 참 그 할매가 만날 ‘지장보살 지장보살’ 염불로 하이 그거로 딱 시어마씨가 마 하
리만에 마 잊어뻘다. 잊어뻘 놓으이,

“아이구, 야야, 어제 와가 하던 스님 염불 소리가 뭐꼬?” 커이까네,

“저 건네 김침지 좇천불알 좇천불알.’ 캐라.” 커거등.

며느리가 들을라 커이까네, 그 며느리가 아매 생각을 잘문했겠지. 그래 안 했으며 그 그
렇게사 되겠나?

그래 이 할매가 만날 ‘김침지 저 건네 좇천불알 좇천불알’ 커고 앉았은꺼에, 마 며느리
가 마 김침지 좇천불알 좋아한다고 쫓아낼라고 인자, 저 건네 김침지가 혼차 호불애비가
있으니까 마 업어다 쥐뻘데이.

그기 인자 시오마이 영성시럽아가²⁵⁹ 쫓아가뻘라고 그랜 기지.

업어다 쥐뻘 놔 놓으이까네, 그 노인, 그 할매는 참 충신²⁶⁰이 돼가지고 잘 풀리가지고
잘 살았고, 그 며느리는 뭐 지옥을, 그 살림도 다 망해뻘고, 부모에 그 불효가 되가지고
지 신세는 참 평생에 인생을 망치뻘(망쳐버린) 택이지. 그래 그래 불효라. 요새도 그렇지
마는 옛날에도 그런 불효가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박말순, 언양면, 1984]

259. 지긋지긋해서

260.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

헤어졌다 다시 만난 삼 남매

옛날에 영감 할마이(할머니) 사다가 아이로(아이를) 삼 남매로 낳아 놓고 그래 어마씨
(어머니)가 죽어뿌고, 그래 호불아바씨(호아버)가 삼 남매로 댜고 사다가 그 아바씨도 병
이 들어가 인자 죽을 임시가 댜는데,

그 삼 남매 한 열 댓 살, 마 여남우 살 이런 거로 놔 두고 죽을라 카이 아바씨가 참 저 우
야노 싶어 생각하다, 하루는 가마 생각디마는 맏아들로 불리가지고,

“야야, 저 이리 오너라 보자.” 다 죽어 가는 아바씨가 부르이까네,

“예.” 카고 가가지고 그래,

“이리 오너라.” 카거등. 그래,

“여어 가슴을 벌리고 앉가라(앉아라).” 카더마는 아바씨가 마 바늘로 가지고 가슴백이
를 찌찌찌찌 찌러 주거등.

“아이고, 아야, 아야.”

맏아들이 열 댓 살 묵으며 안 그렇겠나?

“아이고, 아야요, 아야요.” 캐 놓으이까네,

“가마 있거라. 아퍼도 참아라.” 카거등.

“나가거라. 다 댜다, 나가거라.” 이카거등. 그래 나가 쪼매 있디(있더니),

“니 동생도 들랴라(들여보내라).” 이카거등. 그래,

“니 아부지 오라 칸다(오라고 하신다). 가 봐라.”

두째 머스마도 들어오이 또 옷을 벗어라 카고 앞가슴에다가 바늘로가 콕콕콕콕 찌러
주거등. 그래,

“아이고, 아야.” 캐도 또 요것도 마 그래,

“다 댜다. 참아라.” 카거등.

“다 댜다고. 나가라고.”

그래 막내딸 아아로 인자 딜이 보내라 카거등. 막내딸아아도 들어오이까네 그래 역시
또 바늘로가 꼭꼭꼭꼭 찌르거등. 그래 인자 찢러 놓고,

“이놈아아들아, 여어(여기) 다 오너라.” 불리 들놓고, 앉차놓고,

“나는 이미 죽는데, 너거가 내 죽으면 초상을 쳐 놓고 어디론강 너거 발길대로 가가 사
다가,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으면은 이거 포시다(표식이다).” 이카거등.

“바늘 찢러 난 포시다.” 이카거등.

그래 숨을 걷아뿔다(거두어버렸다). 저거 아버지가. 걷아뿌이 초상 쳐 놓고 삼 남매가
이리저리 마 흘쳐가 저거 마음대로다가 살았다고. 그래 살았는데, 몇 십 년이 됐는가, 말
오빠 아들이 과연過年하고 다 컸겠지. 커 놓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머슴살이로 하고 있었
어요.

머슴살이로 하고 있는데, 가만이 보이 참 한 삼십 되가 아매 장개로 몬 가고 그래 념우
집 살이를 하고 있으이 마 장개도 가고 쫓고 그런데, 마침 거어 주인집에 딸이 또 몸종이
그런 기 하나 있어요.

그래가 ‘아이고, 인물도 참하고 조걸 내가 장개를 가야 될다’ 싶으고 마음을 묵고 있는
데,²⁶¹ 그 정지아(부엌)에서 일하는 몸종 딸아도 그 일꾼으로 상대를 잘해 줘요.

잘해 주고, 밥도 잘 주고, 빨래 걸은 기라도 몰래 멀래 참 씻겨 주고 참 잘해. 이래가 ‘아
이고, 저거를 우애가 낚아야 내가 저거로...’ 처자도 맘에 있어가지고 있고,

충각도 보이까 나가 땀애도 맘에 장개는 가야 되겠고, 처자가 맘에 있구마는 도저히 참
결혼할 그기 없어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저 건너 부자집에도 또 초동 목군 일군이 있거등. ‘아이고, 아무 집에 가어 정지 땀살이
하는 처자가 그래 과연하고 참하단 기 있다 카는데.’ 싶어서 그 사람도 이 처자를 보고 장
개 하문 가 봤으며 싶은데. 저념으 처자를 언제 하문 보꼬 싶어가 물 이러 오도록만 기다
리고 있고, 물 맥지 안 지로 올 것도 마,

261. 짝사랑하고 있는데

“물 저다 주지요.” 카고 물양철로 지고 ….

마 우애 아다리가 됐다. 그래 놓이 마 이 처자가 그거로 맘에 있어가지고 물 이러 가 하 문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이까 마 저쪽 건네집 부자집 총각 그거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 마 결혼을 할라고, 마 이쪽에는 짝사랑이나 저쪽에는 마음이 맞아 결혼해야 되겠다고 이래 맘을 묵고 있거등. 그래 몸중 이것도,

주인잘에(주인에게),

“내가 우야던동 저 건네 부자집 일군잘에 내가 시집을 갈란다.”고 이카이까네,

“그래 니가 과연하고 하이까 그래 시집을 가야 안 되겠나? 그러이까 니 맘에 있거등 니 맘대로 하라.” 이카거등.

그래 잔채날로 떡 받아 놓고 가만히 생각하이까 ‘잔채는 해야 되겠는데 집에 있는 저 총각 나 많은 저저를 우야노?’ 싶으거등. ‘이게 알면 아매 가만 안 있겠나?’ 싶어, 처자가 가만히 생각하이. 그렇기나 말기나 지 좋은 거 뭐 해야 된다고 마, 그래 인자 잔채날로 떡 받아 놓고 잔채로 인자 할라고 딱 맘 묵고 있는데.

이 나 많은 총각이 가만이 집에서 보이 마 분하기가 짝이 없거등. 지는 지대로 한집에 있고, 사랑하고, 지잘에도 그래 몬 하지도 안 하고 했는데, ‘에이 저 년들끼 날로 요만땅 팔세로 하이까이 내가 잔채날 저거 머슴아로 죽일 수 백이 없다.’ 요래 맘을 딱 묵고, 그래 마 잔채날이 딱 닥쳤다.

그래 예청²⁶²에 인자 신랑 각시 예 할라고 들어서는 놈으로, 그 참 본집에 머슴 살던 나 많은 본집 총각이 들어가서 딱 서가 있다가, 예전에 뭐 비수도匕首刀라 켜나? 칼이 있다 커데. 그거로 마 신랑을 직일라꼬 콕 던지이까, 마 가슴에 가가 확 꼽히가지고 이 옷이 추루루 내리 찢지거등.

그래 사람들이 왁 달라들어 이거 신랑이 와 이렇노꼬 막 그래 달려들어가 보이까 신랑이 나구불어졌는데 보이까 가슴에 빠꿈 빠름 빠꿈 빠꿈 바늘 자죽 찍은 기 요기 하늘 천

262. 대례大禮를 치르는 예식장

자天字 딱 쓰저가 있거등. 그 이상하다 싶어가, 각시할라고 예할라고 보던 처자가 신랑 구불어져 있는데 보니 하늘 천자가 딱 쓰저가 있거등.

‘나도 목욕할 때 그 전에 보이까 나도 가슴에 이런 기 있던데, 아이고 저기 저기 참 와 저 령노?’ 싶어 가지고 그래 지도 마 이래 가슴을 헤쳐보이까 지캉(자기와) 똑 같거등.

‘저 집 신랑 각시는 마 히안하더라고. 가슴에 하늘 천자가 쓰저가 천상배필이다’고 마 사람들이 왁짜하이 그라이까, 그러이 이 직일라 커던 본 집에 녀므 집 살던 이 사람도 ‘난 도 그 전에 가슴에 보이까 그런 기 있던데, 난도 하문 봐야 될다.’ 커고, 지도 이래 헤시 보 이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도 하늘 천자가 막 쓰저 가 꼭꼭 찌히가 그래가 ‘아이고, 이거 우리 헤어질 때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 삼 남매가 만날 날이 있다 커디마는 이기 무신 그기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 마 이 말형이 다마러 가가 신랑 각시 그거로 가슴을 보이까 지캉 똑같거등. 그래 놓 이 마 끌어안고,

“내가, 우리가 저게 이기 참 천상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참 부모님이 낳아 주신 참 우리가 한 피로 참 받아 내린 우리 한 형제라.”고 그래 마 참 거어서 붙들고 울고,

“우리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이래 했는데, 바늘로 뽑았는 이기 포시라고. 그래 하늘 천자로 이래 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우리 포시해 주고 그래 돌아가신 기라.”고 그래

그기 다 저거 삼 남매라. 처녀까지 고기 삼 남매라요. 그래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래 표가 나가지고 거어서 형제가 만나가지고 딴 데 장개가고 아들 딸 놓고 잘 살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금미, 언양면, 1984]

이상한 이름으로 부자가된 네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네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자신이 죽을 때 지어줄 것이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 아버지는 비로소 네 아들을 불러서 각자 이름을 지어주었다.

첫째 아들에게는 ‘쭈시면 열리는 놈’,

둘째 아들에게는 ‘뜨거우면 차가워지는 놈’,

셋째 아들에게는 ‘무거우면 가벼워지는 놈’,

넷째 아들에게는 ‘깊으면 얕아지는 놈’으로 하라고 했다.

아들들이 정말 이름대로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네 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생하다가 과연 아버지의 말대로 되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네 아들은 어느 큰 부잣집 창고로 갔다.

먼저 ‘쭈시면 열리는 놈’이 창고문에다 손가락을 끼우고 돌리자 창고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무거우면 가벼워지는 놈’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등에 지자 지면 질수록 등에 진 쌀가마가 점점 가벼워졌으므로 쌀을 잔뜩 짊어지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가난하던 네 형제가 갑자기 많은 쌀을 가지게 된 것을 안 부잣집에서 네 형제가 자신의 창고에서 쌀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네 형제를 붙들어 죽이려고 했다.

부잣집에서는 기름가마에 기름을 펄펄 끓여놓고는 네 형제를 삶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뜨거우면 차가워지는 놈’이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가자 기름가마에 열음이 뽕뽕 열 정도가 되었으므로 도저히 삶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네 형제를 깊은 강물에 던져 죽이기로 했다.

그러나 ‘깊으면 얕아지는 놈’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자 강물이 발목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얕아졌으므로 강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자 부잣집에서는 네 형제를 죽이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형제들은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우식이, 온산면, 1985]

절에 시주하여 왕자로 태어난 사람

옛날에 참 옛날 옛날에 하도 날매이로 불출不出이 곁에 놓이 넘우 집을²⁶³ 30년을 살았는 기라,

넘우 집으로 혼자서러 30년을 살아 놓이 인자 안 늙었겠나? 노총각 열 뗏 살 묵어가 드가가 30년을 살았는데, 그래 인지 세궁을(세경을) 받았는기라. 새궁을 받아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집에 맏기 놓고, 그래,

“나는 인자 간다. 그마이 살았으이 나는 간다.”

이래 가가이²⁶⁴ 저기 저 폭포 곁은 데로 갔던 거라. 폭포 곁은 데로 가이 중이 하나 바랑을 지고 내려오거든. 바랑을 하나 지고 내려오는데 그래,

263. 머슴살이를

264. 가니

“어데 가노?”카이께네,

“우리 절이 파괴가 돼가 구걸하러 간다.” 카저든. 그래,

“얼매나 하몬 절로 완성하겠노?” 카이, 그래,

“설명을 들어야 된다.” 카저든.

“응, 그렇시몬 아무데 그곳에 거어 가몬 30년을 넘우 집 살아가 놔 둔기 있는데, 그거로 가져가가 절로 완성시켜라.” 켄는거라.

완공시켜라 카이, 그러면 중이 그래도 참 이름 성명은 안 적었겠나? 적어가 그래 인자 그래 그 집에 가이 참 있어. 30년 넘우 집 살은기 그냥 있어.

가져 가가 절로 전부 수리해가지고 인자 했다. 해 놓이 뭐 그 사람 이름 성명 얹어 놓고 축원이사 얼마나 잘 하겠노?

자아 아적 저녁으로 축원해 준다. 축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하도 그 사람이 그런 시절로 시작해가 안 나타나. 없어. 없어가 인자 중이 한 번 찾아가 봤는 거라. 찾아가 보이꺼 네 어느 골짜기에 떡 들았아가 앓은뱅이가 돼 들았아가 있는 기라. 앓은뱅이가 돼가 들었아 있어. 30년 넘우 집에 살아가 절에 시주한 사람이.

그래 가 인자 또 왔다. 와가지고 인자 밤낮으로 또 축원 한다. 만날 축원을 해 주지. 그래 또 안 나타나고, 우에 됐는고 싶어 또 한번 가 봤는 거라. 가 보니꺼네, 문딩이가 돼가 들었아가 있더라. 문딩이가 돼가.

하이고, 그래 마 세상에 마 참 약도 귀해 주고 마 중이 얼매나 그래했겠노? 즈그 절로 그 마이 성공을 했는데, 축원을 만날 해 주고 그랬는데,

그래 몇 년 지내고 또 안 나타나. 그래 안 나타나, 가이 봉사가 돼가 떡 들었아가 있는 거라. 봉사가 돼가 봉사가. 문딩이병은 낫았는가 우엿는고 그래 가 문딩이가 봉사가 돼가 떡 들었아 있는 기라.

“에라이 빌어 물, 이놈우 부체(부처)때려 죽이 썬다.”

부체로 쪼막 도끼로 가지고, 그마이²⁶⁵ 파괴된 절 성공했지러 그마이 축원 해 주도 부처

265. 그만큼

님 무슨 소용 있노? 에레이 빌어물, 쪼막 도끼로 마 이막살이로(이마를)딱 쫓아(쫓아)비
렀다. 부체로 그래. 그마이 빌어도 소용없고 이놈우 앓은뱅이 됐제. 문딩이 됐제. 봉사 됐
제. 에라 빌어물, 이놈우 직이 뿐다.

그래 뿌고 중도 그 질로 달아나 뿔는 기라. 달아나 뿌고 그래 그 절이 그래 됐다 캐 놓이
참 뭐 상복, 울주군²⁶⁶에서 이렇다 칼 사람이 다 빼도 도끼가 안 빠져. 대관절 안 빠져.
비구적(비유로) 그랬는 기라. 암만 빼도 안 빠져. 그 질로 봉사가 죽었는데이, 죽어가 왕
자에 가 태있다.²⁶⁷

지는 시 평생 가질 죄²⁶⁸로 일 평생 그마이 많이 했기 때문에 사해 뿔는 기라.

그래가 아무데 그 절에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중도 도망가 뿌고 절이 비어가 있다. 이래
소문이 갔는 기라. 갔는데, 그래 인자 요새 걸으론 대통령썸 뿔는가 대통령 아들 썸 뿔는
가 그래 왔는 기라.

와가지고서러 참 부처님 이마에 쪼막 도끼가 배겨가(박혀가) 있으이 그게 안 빠져, 세
상 사람이 다 빼도 안 빠져. 쪼막 도끼가 여어 떡 백히가 안 빠지는 기라.

“이게 그래 안 빠져?”

그래 가 쑥 빼이 빠지는 기라. 빠지는데, 거게 옛날에, 요새는 편지지, 옛날에 도레마리
(두루마리)라고 있었다. 편지지 줄줄줄 두루마리, 그기 마 쪽 나오는데, 거어(거기) 글이
다 써 있더라.

“니는 시 평생을 한 평생으로 다 조지뿔다.”이거라.

앓은뱅이 한 평생 고생하다 죽을 거 그것도 제해 뿔고, 문딩이 돼가 한 평생 고것도 제해
뿔고, 봉사 돼가 한 평생, 시 평생으로 한 평생에 다 조지뿌고 그래 인자 왕의 아들 돼
가… 그래 그 질로 그래 돼가 요새도 그 절이 지금도 성하게 잘 된단다. 어느 절인고, 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266. 제보자가 사는 곳을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267. 환생하였다

268. 자기는 세 평생 지은 죄를

왕세자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

옛날 한 임금이 말이여, 며느리로 좋은 거 불라고 쌀을 서 말 줄테이까네, 그 처녀하고 자기 아들하고 또 종 하나하고 세 식구가 일 년을 사는 사람을 취했거든.

그러이까 한 사람의 여자가, 임금의 며느리가 될라이까네 자청하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다 하내이(하나가) 왔는데, 한 달 사이 그만이라.²⁶⁹ 시집와가 서 말 가아 일 년 살라몬 죽을 판 살 판 살아야지 그래 떨어져 뿌렸단 말이다.

그 답에 또 하나 오이까네 한 석달 살터라는 기여. 한 여자가 마 처녀가 자청했단 말이여. 쌀 서 말 주가지고 아 떡을 하라는 기여, 종 보고, 여자 중, 몸종을 데리고 갔거든. 떡을 하라이,

“아이구, 서 말 가지고도 한 달 못 사는데, 떡을 해 묵고 우째 살겠노?” 이카네.

“아, 잔소리 말고 하라고. 한 말 하라고.”

그래가지고 영대로(명령대로) 해야지 우떻게 해. 그 한 말로 떡을 잔뜩 묵으라. 실컨 묵으라고 먹고, 그 날 한 말 내가아 갈퀴하고 말이야, 깔구리하고 지게하고 사오라고. 깔구리 시 개하고 지게 하나하고 사오라고. 어, 사왔단 말이야.

“나무하러 가자고.”

어, 서이로²⁷⁰ 데리고 가는기야. 서이 가가 가악중예(갑자기) 디리 끈다(굶는다). 끄어다 해다 놓고 장날에 마 짊어지고 가자는 기여. 신량을 지고 가자는 기여.

임금의 아들이래도 저야지 어떻게 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고 가가 파이까네 돈이 나오고. 또 자꾸 온다. 하루에 해가 몇 짐 해다 놓고, 또 한 짐씩 팔고 팔고 하이 돈이 모인다. 아이고, 한 달 된 답에(다음에) 나졸로 보내가 어떻게 사느냐 물어 보이까네 아이 까

269. 한 달만에 쌀 서 말을 다 먹었다는 말이다.

270. 세 명을

딱없이 살고 있더라고.

“남글 잔뜩 쌓아 놓고 살더라고.”

“아, 그래.”

일 년 사이깐 기 한 수무 남우 집 있고, 마 양석이, 쌀이 몇 가마 있더라 이기여.

그래가지고 과연 이기 며느리 되겠다. 음, 이 늘굴(느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전 사람은 주는 거 가지고 서 말 가지고 일 년 살라이 암만 안 묵어도 되나? 그런데 그 여자는 의견이 넓어가지고 마 벌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도 글치. 벌이지 않고 뭐가 안 되이까네 벌이야 된다는 걸 그걸 벌일 줄 몰랐거든. 딴 여자들은 그런데 이 여자는 벌일 줄 알기 때문에 떡을 실컨 묵고 배부르게 묵고 기운을 돌아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임금의 며느리가 되더라. 그 여자, 그 처녀가 잘 해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두 처녀處女의 지혜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를 만났다. 처녀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 총각은 냇을 놓고 그 자리에 서서 처녀가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보고 싶었지만 너무도 순박한 총각이라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마간을 그러고 있노라니까 처녀도 어떤 총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녀가 빨래를 하면서 얼른 총각을 훑쳐보고는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다.

무슨 이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총각은 그럴 기미도 없었다. 그렇다고 처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처녀는 하고 있던 빨래를 멈추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거울을 가지고 와서 총각을 향해 거울면 쪽을 한 번 보여주고 반대쪽을 한 번 보여주었다. 총각은 처녀가 자신을 향해 거울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총각이 고심하고 있는 사이에 처녀는 빨래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고심하다 못해 누이동생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처녀가 거울을 앞뒤로 보인 이유가 무엇이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누이동생이 거울을 앞으로 보인 것은 밝은 날, 곧 보름을 말한 것이고, 뒤를 보인 것은 어두운 날, 곧 그믐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보름과 그믐날에 만나자는 뜻이라고 말해주었다. 총각은 처녀와 누이동생의 지혜에 탄복했다.

[『울산광역시사』 임흥렬, 청량면, 1986]

큰 인물이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르다

예전에 한 과객이 어데 볼 일이 있어서 어느 육로로 가는데, 가다가 나이 각중에²⁷¹ 마
소내기가 왈각 왔는데.

어떤 마실에 조마이 두 칸 외판 집이 한 집 있어서 그 집에 가 축담에 이래 서가지고 비
를 피하고 있으이, 예전에는 발로 디디가지고 방아 찢는 디딜방아가 있거등. 고기²⁷² 뭇
집도 아주 오두막집에 모양없이 살아 놓이, 집 안에 있는 기 아이고 한데²⁷³ 있었던 모양
이지. 그래 그 안주인이 있다가 딱 아아를 불러가,

“아무거이야, 빗자루 가아 오너라.” 카거등.

“비 오는데 우째 가아 가노?” 이카디마는,

“비가 와도 가아 와야지 우야노?”²⁷⁴

그때 강아지가 ‘오요, 오요’ 캐 쌓아(하고 있어). 요새 강아지는 잘 안 오지만 그 때는 배
가 고과가 뭇 줄라나 싫어가 부르니까 마 쫓아오거등. 그래 노나꾼²⁷⁵을 하나 조아가지
고 빗자루로 강아지 등더리에다가 감아가 딱 매 놓고,

“엄마, 강아지 불러라.” 카거등.

방앗간에서 부르니까 그 강아지가 지 뭇 줄란가 꽤내끼²⁷⁶ 가거등. 그래 지 비 안 맞고
빗자루 잘 갖다 주고. 어른이라도 그 그런 연구 좀해(좀처럼) 안 날 낀데 쪼맨은 기. 그래
가아가 내중 대인이 되더란다. 그래가 예릴 때부텅 대인 될 사람은 따더라²⁷⁷ 카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271. 가는 중에 갑자기

272. 그것이

273. 집안에 있어야 할 것이 바깥에

274. 어떻게 해?

275. 노꾼

276. 주려는가 싶어 재빨리

277. 다르더라.

큰머슴을 장가보낸 피 많은 작은머슴

옛날 어느 집에 머슴살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작은머슴은 아직 아이였지만 피가 많았고, 큰머슴은 장가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머슴은 큰머슴에게 자기가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늘 장난삼아 말하곤 했다. 이웃에 부자로 살고 있는 젊은 과부寡婦가 있었다.

어느 날 작은머슴이 큰머슴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웃집 과부에게 장가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다. 큰머슴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작은머슴은 어두워지자 과부집으로 가서, 우리 큰머슴이 여기 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과부는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겠느냐고 했다. 작은머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며칠 후에 날이 어두워지자 작은머슴은 다시 과부집으로 가서 우리 큰머슴이 여기와 있지 않느냐고 또 물었다. 과부는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화가 나 막대기를 들고 작은머슴을 때리려고 했다. 작은머슴은 과부의 약을 바짝 올려놓고는 얼른 도망쳤다.

며칠 후 작은머슴은 큰머슴에게 오늘은 장가를 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부를 유인해서 집밖으로 나오게 하면 얼른 과부집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흘랑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큰머슴을 데리고 과부집으로 가서 큰머슴을 대문 뒤에 숨어 있게 하고는, 과부를 불러 우리 큰머슴이 여기 와 있지 않느냐고 또 물었다. 화가 날대로 난 과부는 큰 막대기를 들고는 쫓아 나와 작은머슴을 향해 휘둘렀다. 작은머슴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과부의 약을 바짝 올린 후 대문 밖으로 도망치자 과부는 작은머슴을 쫓아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 틈에 큰머슴은 얼른 과부집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머슴이 시킨 대로 발가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작은머슴을 뒤쫓다가 놓쳐버린 과부는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머슴이 이내 뒤쫓아 와서는, 혼자 새끼를 꼬려니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제발 큰머슴을 보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과부는 어이가 없어, 정 그러면 직접 찾아보라고 했다. 작은머슴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자 그 속에는 발가벗은 큰머슴이 누워 있었다. 작은머슴이 과부를 향해, 이래도 거짓말이냐고 따지자 과부는 뜻밖의 사태에 어찌 할 바를 몰라 했다. 나쁜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과부는 큰그릇에다 떡을 가득 담아 작은머슴에게 주면서 소문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작은머슴은 그릇에 담긴 떡을 가지고 동네 우물가로 가서는, 어젯밤 큰머슴이 근처 과부집에 장가든 잔치떡이라고 하면서 여인네들에게 그 떡을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삼시간에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되자 과부는 하는 수 없이 큰머슴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두 사람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이선영, 상북면, 1984]

기발한 꾀로 늦장가 간 노총각

진동이라 커는 총각이 부모도 없고 혼자 돌아댕기미 남으 집을 살았는데, 총각이 좀 시금버금하던갑더라요. 남으 집에 살며 지 맘에 드는 집에는 공도²⁷⁸ 살아 주고, 지 맘에 맞지 않으며 한 해에 뗏 뗏 집도 가고 이래 살다가, 나가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돈은 벌어놓은 기 없고 장가는 가고 쪼고 그래. 이웃 선비가 하나 놀러 왔거등.

“그 건너 마을에 처자가 좋은 기 하나 있는데, 치올라 컨다꼬, 어야든지 거어 가가 중매를 해 주소”꼬 자꾸 달아 붙거등.

“그렇지마는, 니 집 한 칸도 없는데 그 집에서 처자를 치우겠나?”

“아, 그래도 말해 보소. ‘진동이 그 아아가 착실고 참 요새 사람이 아이라.’꼬 우야든지 함(한번) 말해 보소.”

“하도 그거 원願이라 커이까 내 함 말은 해 보지.”

그래 그 선비가 그 집에 가가 이약을 했어.

“진동이라 커는 총각이 참 요새 사람이 아이고 가히 좋다꼬. 딸로 채우라꼬.”

이 사람들도 참 밝은 기라.

“그래 그 사람이 어떤고 하문 찾아가 보까?”꼬 이래.

저거 집안 사람을 하나 청해가지고 술 대접을 푸짐이 하고,

“아제 우야든지 가가지고 ‘그 진동이라 커는 사람이 고자라꼬. 딸 치우지 마라.’꼬 이런 말 하라.”꼬 이래 시켜가 보냈거등요.

“아이구, 요새 여게 말 들으이께네 혼인 말이 있는갑더라꼬. 그래 있는가?”

“아, 일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그래 딸로 진동이한테 치올라 커는데, 진동이라 커는 사

278. 공짜로도

람이 어떠노?”

“진동이라 커는 사람이 병신이라고. 함부래 딸 치우지 마라.”

“아, 큰일날 뻔했네. 나는 말로 듣고 단디 알아 몰라 켜디마는, 아이구, 잘 들었다.”

그래 내뻘다. 그래 말이 마 파상²⁷⁹이 댜지 뉘. ‘그 아아 병신이란다. 그 총각이 병신 이란다. 고자란다.’ 그래 하리 저녁에는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드가가 자는 사람을 깨 까가지고,

“그 여보, 와 말 같잖은 병신 맨드노? 병신 맨들어 났으이 자기 딸이라도 내 놓으라고. 자기 딸 안 내 놓으며 내가 죽인다고. 자기 딸 내 뉘라. 말간 사람 와 병신 맨들어 장가도 몬 가구로 하노?”꼬 어찌 올러미이 났는지,²⁸⁰ 이 노인이 참 어리석은갑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딸로 주꾸마.” 켜다. 주꾸마 캐 놓고,

시집갈라 캐도 이놈우 집이 한 칸 있나? 결혼만 해 놓고 그 처녀한테 총각이 댜있다. 댜 기다가 하리 저녁에는 신랑이 와가지고 처자를 가자 켜다.

“이 밤에 못 간다.”

“내 딸 안 들으며 안 된다고. 이약은 낸중에 할 께고, 오늘 저녁에 급한 일이 있으이 가 야 된다.”

마 그래 처자로 델고 밤에 도주를 해가 저 먼 데 저저 일가네 집에 갖다 놓고 온다. 자고 나이까네 암만 찾아도 딸이 없어다. 갈 만한 데는 다 찾아도 딸이 없다. 찾다가 찾다가 안 되가 진동이한테 갔다.

“아이구, 이 사람아, 자고 나이까네 우리 아무끼가 마 없다.”

“없을 택이 있느냐? 찾아내라고. 찾아내라.”꼬 뉘아 세운다.

“암만 찾아도 없으이까 마 몬 찾는다고. 다시(도무지) 내가 찾을 수가 없어.” 마 문전에 눕어가 톨톨 구불고,

279. 흐지부지되었다.

280. 으름장을 놓았는지

“당장 찾아내라꼬. 날 없다꼬²⁸¹ 어디 빼돌려가지고 딴 데 시집 보냈제? 안 찾아내며 안 된다.”꼬 뚫뚫 구불고 작단을 지이거등.²⁸² 그래,

“아이, 이 사람아, 그래 다른 데 장가가며 안 되나. 똑 내 딸만 어디 사람가?”

“그러며 돈을 내 놓으소. 장가 갈라며 일비²⁸³를 내 봐야 장가가지 내가 뭐로 가 장가가 노?” 그래 할 수 없어가,

“아이구, 이 사람아, 그라며 내 살림 반만 주꾸마. 딴 데 장개가거라.”

그래 마 죽자 사자 벌어가 집을 하나 사놓고, 난중에 결혼한다고 장인 장모 오라 커거 등. 아, 그래가 가 보이까네 알짱겘은 저저 딸로 꾸미가 나와. 그래 놓이까네 그래 장인이 라 커는 사람도 돈 준 거는 아깝고, 딸로 일거뵈다가 딸로 보이 반갑거등.

“허허, 그 참, 내 사우가 보통 넘는다.”

그래 지도 여물게 벌어가 난중에 처가집 살림도 그래 받아가지고 잘 사더랍니더. 청송 심씨^{靑松 沈氏}데.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281. 가난하다고

282. 행패를 부린다

283. 비용費用을

외삼촌의 간계를 물리치고 장가가게 된 김용덕

김용덕이라고 있었는데, 저 부친 나무하러 가는데 따라갔는데 강도가 저거 아부지로 마 때리죽이뿌렸어. 그래 집에 가이 저거 아부지는 강도가 죽이뿌고 모자뿐이라. 열 한 살 묵는데, 하리는 강도로 찾아러 간다고 쫓신을 삼아가 달고 나서가지고 가다가 하도 고립어가지고,²⁸⁴ 지넉 연기는 짜드라 나 쌓고 어디 가가 자꼬 싶으가 걱정이 되가 있다가, 큰 질, 치도 가에 가다 눕었으이까네 순경이 한 사람 오디마는,

“어떤 아이가 저문데 어디로 안 가고 여어 자는냐?”고 묻가등요. 그래,

“나는 강도 찾으러 나왔다고. 올 아부지 원수 갚을라고 찾아러 나왔다고.”

“그렇거등 니 날 따라가자꼬.” 그래 그 순경이 그 아아를 데리고 주막에 가가 데리고 잔다고 주막에 들어 있으이까네, 낯선 사람이 들왔는데, 그 아아가 열 한 살 묵는 기 눈살미가 있었제,

“저 사람이 강도라고.” 그래 마 순경이 그 사람을 잡아가 징역을 보내뿌고 집으로 돌아 오이까네,

그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그 강도가 죽였어요. 그 집이는 아들도 없고 딸은 하난데, 그래 그 집이서 여자가 교군을 타고 와가지고 인사로 얼마나 하고,

“어아든동 그래 마 사돈하자.”꼬 이래 쌓는다. 김용덕이 어마씨가,

“나가 안주 에리이까네 인연을 정해가 나 묵거들랑 결혼을 하자꼬.” 그래 딱 뺏이로 했다.

인자 나가 차가지고 치울 때가 돼 놓으이까네 김용덕이 집에 퇴혼편지²⁸⁵가 와요.

‘야가 죽기로써 그 곤을 시집을 안 갈라 켜다꼬. 밤이 나도록 생각해도 청춘이 죽으며 불상하이까네 쇠가죽²⁸⁶을 무릅쓰고 퇴혼편지로 한다.’꼬 이런 편지가 왔다 말이다.

284. 피곤해서

285. 정한 혼인을 어느 한쪽에서 물리는 편지

286. 체면이 없다

용덕이 집에는 가난코, 처녀 있는 집이는 살림도 부자인데, 편지가 와 놓으니까네 용덕이 저거 어매는 인자 장개 몬 보낸다꼬 야단이거등. 용덕이는,

“내가 병신이요? 와 내가 장가로 몬 가. 거어 장가 안 가며 내가 장가 갈 데 없겠느냐?”
꼬,

그 날 밤에 용덕이가 그 편지로 가지고 처녀 있는 집으로 가이까네 한쪽 방아 불이 있거등. 그 방아 드가이 처이가 혼자 있는데, 그래 이 편지를 내 놓으니까네 처녀가 그 편지로 보디마는,

“이 편지는 중간에 변괴 있는 편지니더. 뭐할라꼬 조마는²⁸⁷ 여자가 무신 일로 왈지부지할 택이 있느냐꼬. 거짓말이라꼬. 그라며 인자 대례로 지내로 오실 적에 이거로 달아가 오라.”꼬. 가락지로 한 불(별) 주더랍니더.

그래 김용덕이가 가락지로 받아가지고 밤에 또 가다가 하이까네 주막에서 저거 외삼촌이 나와가지고,

“마 술 한 잔 묵고 가라.” 그래 그 편지한 사람이 김용덕이 외삼촌이라요.

저거 아들 장개 보낼라꼬. 그래 안 묵을라 커이 자꼬 묵으라 캐 쌓이가, 묵다가 쏘어뿌다가마, 그 술이 약술이던갑더라. 취해가 사람이 인사불성이라. 저거 외삼촌이 쪼동애다 묶아가지고 뒤편애다 갖다 시아 놓고, 지 아들로 장개로 채리가지고 갔다요.

장개로 채리가 가이까네 신부가 배 아퍼 죽는다고 구불고 예로 해야제? 죽는다고 꿇배로 앓아가 구불고, 할 수 없이 성례成禮로 몬 하고, 그러구러 밤이 되가 어둡우이까네 이 처녀가 남복을 채리 나가이 주막이 고오 머잖이 있거등.

그래 그 주막에 가가지고, 쪼매꿈한²⁸⁸ 아이들인테 자꼬 질문해가 물어가,

“그래 엇저녁에 여게 청년이 하나 안 왔더나? 내가 돈을 주끼까네 좀 갈치 두가.”

“그래 청년이 하나 왔는데, 사람이 죽었는 것던동 우리 뒤편애 묶아가 시아 났다고.”

그래가 풀어 보이까네 용 죽지는 안 했어요. 그 약을 다 묵었으며 죽었을 킨데 반도 묵

287. 조그만

288. 조그마한

다가 쏘다가 그래 싸우다가 다 문뭍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살리가지고 기어이 배필이 되가지고 그래 잘 살더랍니다.

저거 외삼촌이 재물에 탐을 내가 생질로 장개 몬 가도록, 그래 퇴혼편지로 중간에다 하는 그런 사람이 다 있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고생하여 급제한 사람

예전에 언자 저거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하고 사촌이 하나 있는데 잘 살고, 사촌 저거 아버지는 잘 사는데,

저거는 마 부모가 다 죽어 뿌리. 다 죽어 뿌고 아들 하나만 놔 도(놓아 두어) 놓고 그래 언자 저거 살림을 작은집에 다 쥔 놓고 그 집에서 크기로 했거든.

크기로 했는데 저거 아들은 공부로 시키고 이 큰집 아들은 공부는 안 시키고 만날 선머슴을 맨들어 천 날 만 날 소죽 꿰이고 소 먹이고 나무하는 기 일인데, 그래 하는데 삼촌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거 사촌은 만날 공부한다고 놀리우고 선비를 맨들고, 이거는 어찌 천대를 하고 마 일을 되기(고단하게) 시키는지.

이 자식이 부석(아궁이) 앞 소죽솔에 불로 영으몬 부주깁이로(부지깁이를)가 글을 씀다. 사촌 글 읽는데 뒷글만 자꾸 외오고, 글로 자꾸 씌고, 변소에 가도 글을 씌고, 부석 앞에 가도 글로 씌고, 나무하러 간다고 가도 짹대기로 글을 씌고, 자꾸 글로 썼거든. 글을 씌고 저거는 못 배우는 줄 알고, 못 배우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아들이 커가(자라서) 과계

하러 갈라 칸다. 과거하러 갈라 카이 지도 갈라 칸다.

“정신이 있나? 없나? 공부도 않은 녀이 무신 과거로 한단 말고, 나무 하러 가라.”고 야단이 나거든.

나무하러 간다고 가다가 마 집어던지뿌고, 저 사촌 가는 데 어불러 가지고 과거하로 가는데 마 뒤따라, 따라가뵈어. 따라가이 꺼네, 가다가 비문(보이면) 돌질로 하고 돌질로 하고, 숨었다가 또 가고 숨었다가 또 가고 매일 이랬다.

매일 이래 따라가는데, 가이까네 인자 여자가 참, 앉아가지고 바느질로 이래 하는데, 바느질로 하는데,

“니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래 농담하고 그래 저지를(수작을) 하고 오면 텨고 가지. 그란하몬(그렇지 아니하면) 텨고 안 간다.” 카거든.

“그래 가지.”

그래 언자 저거는 언자 가는가 안 가는가 딱 보고 있지. 그래 척 갔어. 방에 가 척 인사로 하고, 그래 가래²⁸⁹가 떡 짚에 있거든. 이거로 만친다.

“이거는 여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래 물으이께,

“예, 가래올시더. 씹시게 올시더.” 아렇게 하거든.

가래로 갖다가 씹시게올시더 이러 캐.

“아, 그래.”

그러 쿠고 나중에 방석을 떡 깔고 앉았거든. 그래,

“이거는 이름이 무엇인교?” 이래 물으이,

“예, 이거는 이름이 하던중방석이라 캡니더.”

하던중방석이라 이러 캐요. 참 들어 보이 신기하거든요. 신기해가지고 그 속에 떡 갔다.

“그랬나?”쿤께나,

“그래.”

289. 삽,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

“그 어떻게더노?”

“못했을까봐. 하던중방석에도 있고, 씹시게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했을까봐.”

그래 떡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는데, 그래 언자 떼붙이뻘다.²⁹⁰ 떼붙이 놓으니까네 그
래 언자 지가 그랬지. 그래 언자 여자가 무시로(무우를) 뽑아가지고 이래 쪼옥쪼옥 뽑아
쌓거든. 그래 언자,

“니 가가지고 젓 만치고 입 맞추고 무시 얻어가 오몬 텨고 가지 그란하몬 안 텨고 간다.”
이러 쿠거든.

자꾸 상그라운(상스러운) 일만 시킨다. 친구들과 어불라가 그래.

“안 떼리 주고 놔 두꺼마” 이라거든. 그래 가지고 마,

“그라지.”

마 갔다. 가서,

“무시 뽑는데, 수고합니더.”쿠고,

“무시 뽑아 주끼요.”

쿠고 무시로 퍼드득 퍼드득 뽑다가 마 눈에 흠이 드가 뻘다. 아이구, 마 눈에 흠이 드갔
다 쿠웁시러 아, 짤에 가가지고 눈 붙어 준다고 후후 이라고, 먼 데서 보이 입 맞추는 거
같거든. 그래 마 이놈이 마,

“우야는교?” 카암서 이래 따악 주고 마 눈에, 눈 붙어 준다고 붙어 흠 날라가도록 붙어
입을 가 후 붙어 주고 이래 가,

“무시로 가져 가소.” 쿠웁서 무시로 주거든. 얻어다 탁 쏘다.

“앗따, 니 언간하다.”

그래 할 수 없이 텨고 가거든. 그라고 저 서울에 가이 큰 정승의 집에 큰 사당도 좋고 다
좋은데, 마 큰 배나무가, 연당 안에 별당 안에 큰 배나무가 배가 있는데, 배가 주렁주렁
열었거든. 가만 데(먼 곳에) 그래 주렁주렁 열어가 있는 거로 그래 학생들이 보고 지는 한

290. 적당히 말을 꾸며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번 오도 못하구로 하고 그래 즈그꺼정 모이가 또 하는 말이,

“니로 저 에 올리 줄끼이 저 배로 많이 따가 와야 니로 텨고 가지 그란하몬안 텨고 간다.”이라거든.

“올리만 주문 따지.” 그래 마 바로 던지가,

“타고 올라가라.”쿠거든.

그래 마 올라가자 밧줄로 마 싹 내라뻘다. 용심지긴다고. 못 내리오라고.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널지몬(떨어지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이고. 이런데 심청이 꺾어가(마음이 약해서) 마 올라간 줄로 싹 내라 뻘다.

마 그래 가 더듬어가 배로 따가, 달밤인데 마 훌훌 마당에 던졌다. 마당을 보고 던지니까네 그래 정승이 가만, 무선 소리가 자꾸 나거든. 투다닥 투다닥 소리가 나, 이상시럽아가 나가 달밤에 이래 살피니깐 뵈이 게 가물가물하고²⁹¹ 배가 짹 흘러가 있거든. 그래 정승이 하는 말이,

“짐승이냐? 구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거든 가고, 짐승이거든 내리오고, 사람이거든 내리오라.”이러 카거든.

“예, 사람이 맞습니더. 학생들이 날로 배 안 따가 오몬 안 데리고 간다 쿠고 내 줄로 걸어 죠 가지고 올리 보내 놓고 줄로 걷어 뿌니 배는 땃건마는 못 내리가가 이리 있습니더.” 그래,

“여봐라.”쿤께, 종들이 줄로 걸어 주거든. 그래 타고 내리갔어. 그래 줄을 타고 내리와가 종을 시키가.

“배로 전부 주워라.”쿠거든.

주아가지고 땡아라 쿠고, 그래 언자 총각을 언자 종을 시키가 목욕물 땡히라(덥히라) 쿠거든. 그래 보이 총각이 그리 좋거든.

그래 가 마 물로 땡히가 목욕을 시키가지고 마 영감시 옷으로 마, 어떻게 잘나가 잘 해

291. 희미하게 얼른거린다는 말이다.

가지고 마 명지(명주) 휘두루맥이다가 잘 입이가, 통양갓을 떡 씹아가 그래 가 마 배로 깎아가 한상 차리 가지고 종이 들고 가고 저거는 따라갔데이.

따라갔더이 저거 사촌이 눈을 크기 뜨고 놀래가지고 ‘웬 사람이 이리 오는고?’ 겁이 나가 가지고 벌벌 떨거든. 사촌이. 또 저거 친구가 많거든. 예전에 과게하로 많이 안 갔나? 여게서 서울 시험치로 가듯이. 그래 가 벌벌 떨고 그래 가 언자 배를 묶어라 이라니깐 통영갓을 쓰고 명주 휘두루맥이를 입고 그래 가 놓이 놀랬겠지, 뭐. 인물도 모리지, 뭐. 그래, “내다, 내다.”

그래 마 놀래가 마 배 맛도 정 맛도 없더란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 떡 해가지고 그래 과게 가는 데 따라 보냈어. 따라 떡 보냈는데, 틀림없이 걸렸겠지. 그 집 사우라 카이 뭐. 그 집 사우라고 떡 명함을 붙이고 가 놓이 마 이는 틀림없이 걸리고 사촌은 안 걸리더란다.

그래 용심이 굶으몬 그렇더란다.

공부 안 해도 지는 딱 결심을 했거든. 살림 지 살림 맷기 놓고 옳기 못 얻어 묵고 돈은 지 사촌 공부만 시키고 지 돈 가지고 지 공부로 안 시키 주고 부석강생이로(부억강아지를) 맨드이 얼마나 남애가(사내가) 뼈골에 새겼겠노? 그래 가 포원을 갠터랍니더. 과게 잘 해서 잘 살터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세종대왕의 암행

세종대왕이 임금질을 할 때에 힘도 장사고 순행을 어행(御行)을 많이 했는데, 서울 경기도 어데 근방에 사는 사람이지. 성도 모르고 우리는 이야기만 그리 듣고 이렇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삼십이 넘어 돼가 장개를 가가지고 재행(再行)을 가저만. 장개를 갔다 오몬, 재행을 제 달에도 가고 달 너머도 가고 했는데, 재행 가가지고 처가집에 있어 보니까 네 저거 집에 가기 싫다 말이지요.

그래도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몬 미안해서 갈라 카고 장인 장모인데 인사를 하고 자기 집을 가다가 얼마쯤 가니까 가기가 싫고 또 처가집을 다부²⁹² 갈라고 발길을 돌리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기 날이 저물었다 말이라.

그 때 마침 날이 저문데, 세종대왕이 어행을 나왔어, 어행을 나와 보이 무슨 사람이 한 길로 갔다가 다부 돌아오고, 세종대왕이 보이 뭇강 이상시럽거든. 그래 인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이 당신이 가다가 오고 가다가 다부 오고 가다가 다부 돌아오고 하는데 무슨 일로 그러노?” 이런께,

“질 가는 사람 질로 가지 남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거나 묻기는 와 묻노?”

“그게 아이라, 연유로 한 번 물어 보몬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아매 무슨 필히 곡절이 안 있겠나?” 그래,

“내가 나이가 얼마 돼가지고 장개를 와가 재행을 왔는데, 처가집에서 집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마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기 요밖에 못 왔다.” 이기라.

세종대왕인지 모르지. 세종대왕이 하는 말이,

“그라모 형은 글 좀 읽었나?” 카이꺼네,

292. 다시

“부모 덕택으로 글짜 좀 읽었다.”

“응구척담²⁹³이나 하겠느냐?”이래.

“아, 글자 한번 불러 보라고.”

그래 세종대왕이 글을 어찌 불렀는고 하이 쉴 휴짜休字를 불렀는데, 그 양반이 응구척담을 하는데, 포아사창 농미휴抱兒沙窓 弄未休. 사창에 계집 아이를 안고 있으이 희롱이 쉬지 않애. 포아사창 농미휴.

그래 인자 쉴 휴짜를 다이²⁹⁴ 부끄러울 수羞 카는데, 반함교태 반함수半含嬌態 半含羞라. 반튼 아름다운 태도를 머금고 반튼 부끄러운 태도를 뵈더라.

그래 척대로 하이 그 밑에 절귀로 마지막 글자는 머리 두頭, 저성암문 상사부低聲暗聞 相思否아. 소리를 나작히 해서 서로 생각하거나 말거나.

수정금차 소점두手整金鏹笑點頭²⁹⁵라. 손으로 금비녀를 만지며 고개를 끄떡이더라. 이래. 세종대왕이 가만이 보이 그 참 선비거든. 그래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서울 장안을 돌아 나오니까네 방이 붙었는데, 별과를 본다 카는데 선비 그 들었나?”

“못 들었다이.”

“선비 그 별과 한번 보고 가라. 집에 갈라 카몬 멀고 마 별과 한번 보고 가라.” 그래.

그 이야기 들었다고 처가 집으로 가니까네 장인어른이 아침에 간 사람이 저녁 어둡어가 들어오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우애 돼가 이리 밤에 오노?”

“그런 기 아이라 아무날 별과를 뵈다 카는데, 내 별과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 별과 한번 보고 가아라.”

세종대왕이 그 날 저녁에 암행을 하고 돌아 와가지고 별과를 뵈다고 어명을 내리니, 별과는 갑자기 뵈는 기 별과거든. 예전에 과거科擧도 삼년마콤 한 번씩 뵈는 거로 갑자기

293. 응구척대應口輒對, 묻는 대로 지체遲滯 없이 대답對答함을 이르는 말.

294. 운韻을 맞추기 위하여 휴짜休字를 마지막에 붙여 시구詩句를 지었다는 말이다.

295. ‘手正金? 小點頭’라고 출전에는 적혀 있으나, ‘手整金鏹笑點頭’다. 김삿갓이 함흥 기녀 소연을 두고 지었다고 한다.

어명을 해가지고 아무날 별과를 뵈다고. 요새 곁으론 통신망이 이리 좋지만 그거는 먼 데 사람은 가도 못하고마 서울 직근에 뿐이라.

그 글제試題가 뵈고 하몬,

「수정금차 소점두 手正金鎚 小點頭」라.”

이리 글제가 나왔는데, 선비들이 가만 보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글이거든. ‘수정금차 소점두라’ 쿠는 거 당채 뜻을 알 수 있나? 이 선비는 가만 보니까네 그날 저녁에 자기가 한번 불렀던 시라.

고래 마 그 글 니 귀²⁹⁶로 쪽 내리 써가지고 올랐다. 세종대왕이 보이 그 글이 왔거든. 그 래 그 사람이 장원급제했는데, 그 글 한 수로 잘 해 가가지고 그 양반이 잘됐다 쿠는 애기 도 더러 있지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296. 네 구句

앞 일을 잘 아는 아들

옛날에는 구선생舊先生이 가르치는 구학舊學, 서당이 있었습니다.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 그래 인자 자기 아들로써 그 한문 장소에 글을 가르치러 보내고 이래 있는데. 그래 마침 그 어른이 그 뭐 많이 알았긴데 그렇제, 그래 인자 그 시대는 요새 말로 하자며 국회의원이고, 그 시대에는 뭐 뭐라 했노? 정승이 이래 되가 있는데. 그래 저 아아가 서당에 댕기다가 하이까네²⁹⁷ 저거 아배가 마 어디 간다 하디마는, 문으로 마 딱 책관하고 서,²⁹⁸

“나는 방안에 앉아서 죽지 배곶에 나가가는 안 죽을란다.”

이러이 온 공구²⁹⁹가 나가서 사정을 한다. 며느리도 사정을 하제, 할마이도 사정을 하제, 사정해 봐야 안 된다 이카거등. 그래 서당에 댕기는 아아가,

“아버지, 문 좀 열어 주소. 아부지캉 나캉 타합妥協을 해야 됩니더.”

그러이 저거 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거등.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 문을 책건하고 방안에 들앉아가지고 온 공기로 상대로 안 할라 카는 이유가 뭘교?” 이래 떡 물으니,

“야야, 그런 기 아이다. 내가 요분에 서울 올라 가가지고 대국사신을 한 사람을 갖다가 뽑아 돌려라고 하는데, 투포 선거를 하이까네 투포 선거 딱 걸렀다 말이다. 그래가 그렇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소. 거 말라고 걱정하는교?”

그 시절에는 대국 천자에 들어가면, 저거 시키는 대로 몬 뱉히면 죽어가 나오지, 신체³⁰⁰가 나오지 살아는 못 나오거등요. 저거 아버지가 인자 가면 죽고요.

297. 다니던 중에

298. 착관着關하고서, ‘자물쇠를 잠그고,’란 뜻인 듯하다.

299. 권구眷口, 식구

300. 시체屍體

“그래 아버지 걱정하지 마소.”

저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이 ‘저기 아직 서당아 댕기는 저기 뭘 아노?’ 이런 생각을
떡 했다 말이요.

그래 서당아 댕기는 기 선생한테다가 시키기를 뭐라꼬 시켰느냐 하며,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손가락이 모색³⁰¹이 어째 생기고, 제가³⁰² 모색이 어째 생겼는
데, 그걸 갖다가 갈리이소.³⁰³ 이카거등.

가마 선생이 생각하고,

“내가 숨쿨 끼 아이라, 너저 아버지 수저를 갖다가 니가 아이까네 니가 갖다 숨카라. 숨
카 놓은 장소를 갖다가 나를 갖다 가르쳐 주며 안 되겠나?”

인자 아동캉 선생캉 약속이 떡 났다. 아들이 저거 아버지 손가락캉 저거 아버지 제까지
캉 꿀떡에다 갖다 쫓아 냈다 말이다. 하루 아침에 수저가 없으이 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나이 절마가³⁰⁴ 하는 말이,

“아버지, 수저는 언님이³⁰⁵ 도둑해다가 갖다 숨카 났습니더.” 그카거등.

“우리 선생이 참 그런 거로 과연 잘 압니더.” 이카거등.

그래 인자 저거 선생한테 와가,

“사실 이래 이래 하이까네 선생이 이래 함 해 보소.”

이래가 선생이 들와가, 영감쟁이 보는데 손가락을 꾸뻑꾸뻑 이래 가지고,

“아이구 마, 내가 찾아 주지요, 까짓거.”

마 꿀떡에 더듬어가 꿀떡에 수저가 나온다 말입니더.

야, 그 참 과연 용하다고 이래 봤는데 절마가 저거를 갖다 책임을 쫓아라고 작정 채리고
말한 기라. 그래가 그 뒤에는 절마가,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떻든³⁰⁶ 선생님, 저 말만 듣고 저

301. 모양

302. 젓가락이

303. 가리십시오, 숨겨 버리십시오

304. 저놈이

305. 어느 놈이

306. 어떻게 하든지

강 같이 돌이 갑시더.”

대국 천자로 간다 말입니더. 갈 차례가 딱 돼가 있거등. 그래 저거 아버지는 가먼 죽어 온다고 집에서 숨을라고 이래 나부대 쌓는데. 그래 같이망에 딱 돼가지고 요새매³⁰⁷ 차가 없어 육로로 걸어 가거등요. 내 걸로 걸어가 이래 떡 올라가는데, 가기 전에 저거 아버지한테 절마가 이약을 했다 말이야.

“우리가 아무 메칫날 대국 들어 가가지고 있을 모양이니까네, 아무 메칫날 아버지 지는 방에다가 불을 질러 뽕소.”

딱 약속이 딱 돼가 딱 올라갔는데. 선생을 모시고 갈 때에 그 참 안경을 하나 사가지고 딱 개아춤치에³⁰⁸ 흠쳐 영어가지고 이래가 인자 대국에 갔다. 아무데도 내띠도 안 하고 가만 있어 보니,

“내가 옥새를 일거뵈었는데, 너거가 옥새를 얼마 지나며 찾아 들라췌노?” 이래 질문을 한 다 말이다.

이 아아가 선생에게 전부다 시켰지. 그래 선생이 말하기를,

“석 달 보름만에 옥새를 찾아 들를 모양이니까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소.

이 말로 턱 한다 말이다. 그런데, 한국서러 그 옥새를 일겼는지 뭐로 일겼는지 내용을 모른다 말이다. 그 시대는 이 한국민이 머리 있는 사람은³⁰⁹ 났다 커먼 전부 끝어가 잡아다가 대국서 전부 없애뿌렸거등.

그래 저녁마중 입초^{立哨}로 서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선생님, 다리곁에 나가서 대성통곡으로 우소. 올먼 선생님한테 물을 사람이 있을 깁니더.” 이카거등.

그래 다리곁에 나가가 멋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대성통곡으로 울었다 말이다. 우이까 네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야밤중이 다 났는데 어째 나와가 이래 읍니꺼?” 카이,

307. 갈 임시가 되어서 요즘처럼

308. 호주머니에

309. 똑똑한 사람은

“내가 몇 천 리 길로, 한 이천 리 길로 와가지고, 여어 와 가만 광명천지를 전부 살펴보니, 내 자는 사랑에 시방 불이 나가지고 사랑채가 내려 앉습니더.” 카거등.

저 연들아가³¹⁰ 가만히 들으이 벌써로 온 지가 벌써 제법 많이 걸리가 있는데 이기 우애 아노 싶어가 왕으로 상소를 표현했다. 하이까네,

“그러며 대원들로 시키가 빨리 그 장소에 함 내려가 보라.” 이리 댔던 모양이랴요.

그래가 그 대원들로 시키가지고 빨리 내려보내 보이, 아, 그 날 저녁에 사랑채가 타가지고 전부 솔뽕³¹¹ 내려앉아뵈다. 그래가 대번 저 사람들이 올라 와가지고,

“사실이 그렇습니더. 이쪽에 말하는 거강 하낫도 틀림이 없이 그냥 그대로 돼가 있습니더.” 이래 떡 하고 있는데,

시간이 석 달 보름 시간이 다 돼 가지. 그런데 골마가³¹² 밤으로 순행^{巡行}을 하이까네, 중국 왕 집 앞에 못이 하나 있는데, 거게 순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인자 날이 딱 돼가지고 그래,

“옥새를 찾아 들랏나?”

“아매 옥새를 찾을라 카며 앞에 못으로 전부 줄아야 됩니더.”

못에 물로 말라라 이 말이다.

못으로 내리 디리 푸고 나비(뒤져) 쌓이, 아 이념 못 속에 그기 옥새가 들앉아가 있다 말이다.

그 영감의 아들이 옥새 떼지는 거로 내용을 알았던 모양이지. 이만땅³¹³ 아는 녀이 ‘만약에 내가 옥새를 내가 징기고 있다가는 내 목숨꺼정 없어지리라.’ 카는 이것 까정도 생각을 하기에 옥새를 떡 찾아 줬다.

며칠간 있다가 한국을 나오는 동안에 수레꾼이 막 따라나오이 임마가 뒤에 따라나오며 저거 선생한테다가 그 안경을 주거등.

310. 놀이

311. 몽땅

312. 이만큼

313. 빠뜨려 버리십시오

“이거 끼고서러 의주 압록강을 건너다가 압록강 북판에다가 안경을 물에다 빠자뿌소.³¹⁴ 빠자뿌 그 때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거들랑 이 안경만 끼며 하늘도 환하고 땅 밑에도 환하고 천지가 다 환한데, 안경을 빠지뵈으니 이거 내 일이 낭패라고 통곡만 하소.”

그래 의주 압록강 건너오다가 안경을 물에다 널짜뵈다.³¹⁵ 널짜뿌고 나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이까네, 수레꾼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어쨌 일로 당신이 저 건너다가 이래 우느냐?”

“내 이 안경이 끼면 하늘도 환하고 땅도 환하고 땅 밑도 환하다고. 이런 안경을 내가 가져오다가, 여어 건너오다가 마 물에 안경을 떨어뵈으니 이 일이 낭패라고. 이래 내가 슬퍼서 운다.”고 그런 이약을 했다.

그래 카이까네 저 사람들이 마 그런강 믿고서 의주 압록강 건너가지고 저 사람들은 들어 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리 나와 가지고 그래 인자 평화가 흘러가지고 지내.

집에 오이까네 이 녀 뭐 사랑채는 타뵈지러, 영감쟁이는 아들 보내고 나이 아들 죽어 온다고 뵈는 아들이 눈을 끄쩍끔쩍하이 해가 살아와가지고,

“아버지, 일 잘 났지요?”카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달선, 언양면, 1984]

314. 빠뜨려 버리십시오

315. 떨어뜨려 버렸다

전처 자식의 효도

함안 산청 조래 장사가 마실에 조래 팔러 오이, 할마이가 혼자 있거등. 하룻밤 같이 잤
거등. 자이 떡뚜께비 곁은 아들로 낳았거등. 나아놓고 보이 혼자 보기 아깝거등.
그래 전처에 자식이 머릿방에 있다 보이 자꾸 저그 기모(계모)가

함안산청 조래장사
삼년만되면 올라카디
삼년이 되어도 아니오네
아깝도다 아깝도다
혼자보기 아깝도다

노래하거등. 그래 인자 전처에 자식이
“엄마요 엄마요, 그래 그기(그것이) 무신 노랜교? 무신 이야긴교?”카거등.
“야야 그기 아이다. 옛날에 참 삼년 전에 함안 산청 조래 장사가 자고 가이까네 그래 아
를 낳았다. 이래 노이까네 혼자 보기 아깝아가 그렇다.” 카이까네
전처에 자식이 그래 참 함안 산청 조래 장사를 찾으로 가겠다 카거등. 그래 누른밥을 굶
어가 보내놓고 나이 얼마나 기분이 좋노? 그래 인자 물래를 잣으며

함안 산청 조래장사
아깝도다 아깝도다
혼자보기 아깝도다
오늘 올랑가 내일 올랑가
언제나 오실랑가.

아들은 가기는 뭐 가? 뒀안깁(변소) 쥐똥구영에서 듣는데 뭐. 흥건(한껏)듣고 있다가
 “엄마요, 가다가 누른밥이 떨어져가 왔심더.” 카거등.
 그래 할마이가 또 누른밥을 굶어가 주거등. 그래 주소를 적어가 찾아가는기라. 찾아가
 이 오막살이 집에 조래 장사가 지(자기) 잡아로 온 줄 알고 앉아서 덜덜 떨거등. 그래 전
 처에 자식이
 “옛날에 어데 가가 잔 데 있나?”
 “잔 데 있다.” 그래 카거등. 그래 조래 장사가 맘(마음)놓고
 “총각은 우애(어찌) 찾아 왔노?”카거등. 그래 야차하고 야차하고
 “우리 엄매까네(어머니니까) 그래 내가 찾아 왔다.”카거등. 전처에 아들이 의붓애
 비한테
 “우리 엄마가 아들을 하나 놓이(놓으니) 혼자 보기 아깝다 캐싸이 갑시더.”카이께네,
 “니를 따라 마누래 보러 가겠다.”카거등.
 그래 함안 산청 조래 장사를 데불고 집에 돌아왔거등. 돌아와서 영감 할마이 짝을 지아
 주이 그 뒤에 참 아들, 딸 여럿이 놓고 참 잘 살기 되더랍니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이기분,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산삼이 도와준 효자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뽑으면 물레 대가 울렁울렁 하거든.

늙은이가 미영을 잤으며여 저녁마중³¹⁶

“진부청산 짐영감아 칠석되면 올라더니 팔석이 되도 아니 오노.”³¹⁷ 고 그래 노래를 부리더란다.

그거는 와 그런고 하이,

청춘에 혼자 돼가 며느리 봐가 이래가 사는데, 그래 웬 조래쟁이가³¹⁸ 조래를 한 짐 쉼어지고 자고 가자 쿠거든.

“잘 데가 없는 데 우야끼요?”쿠이,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어무이 자는 데 마 저어 주무시고 갈랑교?”

그래 시어마이 자는 데다 잤다. 초저녁은 옷목에 눕어 자디마는 할마이 짚에 살살 내려와가 그날 밤에 잤다.³¹⁹

자고 나이 마 아아가 생겼거든. 아아가 생기 놓이 이놈우, 배는 또닥 또닥 부리제, 며느리 보기 뭐라 쿠며 자석 보기 뭐라 쿠겼노? 이기 마 노탤이³²⁰ 돼가 밤새도록 미영을 잤으며 밤새도록 잠을 안자고, 그래 노래를 하거든.

“진부청산 짐영감아 칠석되면 올라더니 팔석이되도 아니오노”

하도 노래를 그래 해 쌓이 며느리가 인자 양반을 깨뻐다.³²¹

“보소, 보소, 일어나소. 어무이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 보소.”

그래 아들이 일나가 들으이까네 잠을 안자고 내에 노래를 그래 하거든. 참, 희한하다 싶

316. 목화를 잤으면서 저녁마다

317. 칠삭七朔이 되면 온다더니 팔삭八朔이 되어도 아니 온다

318. 조리장수가

319. 정을 통했다

320. 마음에 깊이 박힌 걱정이

321. 남편을 깨웠다

어가지고 어마시인데,

“엄매, 엄매, 무신 노래로 그래 하노?”

“아이고, 야야, 너저 아무 때 연분에 저어 조랭쟁이 영감이 하나 왔제. 왔는 거로 너거가와 내 방에 자고 가라고 안했나?”

그래 자고 가라 켜다 쿠이께네,

“아아고, 그 영감이 마 초저녁에는 저 옷목에 자디마는 차츰차츰 내인데 와가 누우자고… 아이고, 야야 내가 마 몸이 다리다.³²² 이 일 감당을 우야꼬?” 마 아들인데 이러 쿠거든.

“영감쟁이가 한 칠석 되거들랑 올라 글 쿠고 갔다.³²³ 이놈우 안온다. 인자 자꾸 배는 또닥 또닥 부리제. 뭐 자식 뵈기 이거를 내가 우야꼬 싶어가지고 그래가 내가 노래를 한다.” 글 캐 놓이, 자식이 가마 들으이까네 기가 차거든.

“진부청산이 어디 있는고? 어무이요, 내가 찾아 오께요.”

“그래, 니가 우예 찾을라노?” 쿠이,

“설마더라 내가 그 어디 가서 그거 못 찾아요? 진부청산만 찾아 가몬 내가 안 찾겠능교? 내가 찾아 오끼, 어머이 그래 수심하지 마라.”고 일쿠고 갔다.

마누라인데 누룽밥을 한 뭉텅이 끊어 줄라고 몇 뭉텅이 끊어가 짹어지고 진부청산을 찾아갔다. 그래 진부청산을 찾아가이 뭐 암만 물어도 조리쟁이 그 영감이 없다 칸다. 그래 저 문수산^{文殊山} 만댕이^{山頂} 곁은 이런 만댕이로 질이 있으이 올라가이 마 날이 저물어 뵈다 말이다. 날이 저물으이 이 산에 우째 하겠노 싶어. 자꾸 올라가이까네 쯔만한 지에집이³²⁴ 있고 거어 불이 뻥해가 그래.

“주인 있소?” 쿠이까네 참 자³²⁵ 자고 가리켰는 영감쟁이가 거어 있더라. 그래 가 인사를 하고 이라이까네,

322. 몸이 다르다. 임신하였다

323. 그렇게 말하고 갔다

324. 기와집이

325. 자기가

“아이고, 찾아올 줄 알았다.” 일 쿠더란다. 영감쟁이가,
 “그래 찾아올 줄 알았다. 그래 너거 엄마가 몸이 다리제?” 일 쿠거든.
 “다리다.”고 하이,
 “그래 내가 갈라 쿠는 기 마 안가가지고 그렇다.”고 일 쿠며 그 영감쟁이가 시장은데 밥
 무라꼬, 밥을 채리 주는 거로 묵고,
 “시장은데 밥 묵고 자고 내일은 내 칸 가자.” 일 쿠더란다.
 그래 밥을 묵고 잤다 말이다. 자고 나이 영감쟁이가 마 간 곳이 없고 집도 없고 방구에
 딱 그 사람이 눕었거든. 그래 가만히 정신을 채리가 방구 우에 올라가 보이 마 방구 밑에
 동삼^{童蓼}이 짝 담 쌓듯이 서가 있거든. 그 영감쟁이가 없어도 동삼 그거로 한 보따리 캐
 영고 한 질빵 짹어졌다.
 영감쟁이 잃어버린 거 우애 하노? 동삼만 캐가 짹어지고 내려오니 돌팍에³²⁶ 책이 한 권
 딱 있는 기라. 책 고거만 한 권 딱 나도 놓고³²⁷ 영감쟁이는 없어. 영감쟁이가 동삼이라.
 그래 동삼만 한 보따리 싸가실랑 와 그거로 파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됐거든. 저거 엄마가
 열 달을 배술러가³²⁸ 아들로 떡 낳는데, 고 책에다가 글로 써 낳는데, 장차지거들랑³²⁹ 이
 책을 쥐라 이래 써 낳어.
 엄마가 아들 고거 하나 놓고 혼자가 돼가 아들칸 살았는데, 고 아들은 이제 부자로 살게
 되고 새 아들은 공부 잘하고 천재라. 아아가 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크게 되더
 란다. 아가 크기 되고 제 형이도 부자되고 그래 저거 엄마도 마 편하기 그래 살고….
 너거 곁에도³³⁰ 어마이가 아바이 없는 기 배가 불러 봐라. 너거 엄마 가만 놔 두겠나? 그
 부모에 성심이 있으니까네 동삼이 도와 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326. 바위에

327. 놓아 두어 놓고

328. 애를 배 속에서 길러가지고

329. 성인으로 자라거든

330. 너희 곁에도

베 짜는 학鶴

옛날 어느 산골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효자가 있었다.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늦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매일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場에 가서 팔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총각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다가 보니까,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학鶴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 학은 모두 세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어미이고 두 마리는 이제 겨우 날갯짓을 할까 말까 한 새끼들이었다. 새끼들이 위험에 처해서 어미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구렁이를 쫓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총각은 한 목숨 때문에 세 목숨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게작대기로 구렁이를 때려죽이고 학들을 구해 주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난데없이 예쁜 처녀 하나가 총각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을 장가보내지 못해 매일 근심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쁜 처녀가 제 발로 찾아들어 왔으니 그저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로 처녀는 총각의 색시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베를 짜 줄 테니 그것을 팔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는 며느리는 베를 짜러 들어가면서 누구라도 자신이 베를 짜는 모습을 절대로 훔쳐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다음날부터 며느리는 베 한 필씩을 짜서 시어머니에게 주었다.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베였다. 시어머니가 장에 가서 그것을 팔았더니, 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그들은 이내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

남편은 매일 베 한 필씩을 짜내는 아내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베를 짜는 모양을 엿볼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남편은 마침내 밤에 아내가 베를 짜고 있는 방문에 구멍을 뚫고 몰래 베를 짜는 아내를 훔쳐보았다. 방안에는 커다란 학鶴 한 마리가 베

뜰에 앉아 자신의 털을 뽑아 베를 짜고 있었는데, 이제 막 마지막 하나 남은 털을 뽑으려는 참이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털을 마저 뽑아 베를 짜고 나면 그 학은 사람이 되어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엿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많던 살림살이도 모두 없어져 버렸으므로, 총각은 다시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아갔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김정득, 온양면, 1985]

선녀가 도와 준 효자

한 산골에 성은 동이고 이름은 용, 동용이란 사람이 살었는데, 총각이 나이 많아서 장개도 못 가고 자기 어무이하고 살다가 즈그 어무이가 사망이 됐어.

그런데 산골에 어떻게 없어 났든지, 팔발을 일가 묵고 산계 장사지낼 베 한 자치 살심이³³¹ 없었어.

그래 하룻길 되는 데 가서, 부자집 머슴살이로 갔는데 그 때는 품값이 있나? 밥이나 얻어먹고 일한 기거든. 일 년을 고공雇工살아 준다고 돈을 얻어가지고 와서 베 사고 장사를

331. 살 힘이, 재력이

치렀다.

삼일만에 뭐 옷이라고 누덕옷이겠지만 보따리 싸 짊어지고 그 집에 일꾼 살아 주로 가는 기라.

가는 도중에 젊은 각시가 하나 나타나 뒤로 자꾸 돌아보더니 동용이 가는 뒤에 자꾸 쫓아오더라 이기라.

“어디로 가십니까?” 묻더래.

“예, 내가 외롭게 살아가지고 우리 모친의 상사났는데, 장례지낼 베 한 자치도 없고, 저 먼 데 부자집에 가서 돈 얻어다가 장사 치루고 오늘 삼일만에 머슴살로 간다.” 이라더래.

“아, 그런교? 난도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인데, 같이 가면 좀 괜찮겠나?”

“아, 같이 가자. 나 일꾼 살로 가는데, 같이 가겠십니까?” 이란께,

“아, 같이 갑시다.”

그래 해질 때 그 부자집에 가가지고 삼작거리에 가서 이 여자가,

“가서 식모로 살리 주겠나? 당신은 이 집에 바깥일을 해 주고, 나는 안 일을 해 줄 터이까네, 한번 물어 보라고.” 그라더란 기라. 그래 총각이 들어가 그라이까네,

“아 그러면 좋지 뭐.” 뭐 부자집인까네,

“아 그러거든 들어오라.”고.

방이 많으이까네 거어 거처로 해라고 방을 한 칸 차아 준다 말이지. 중간에 만네가지고 내오간³³²이 된 거지.

아, 이 여자가 사흘이 되도 식모 산다는 사람이 밥을 하러 안 나오는 기라, 그라더이 주인 보고 그라라 하는 기라.

“나는 밥도 할 줄 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쌘 말이야, 비단 짜는 베를 일절하고 비단실하고만 주문 내가 수를 짜가지고 그만한 공을 갚을 수 있을 기라.”캐. 주인도,

“아, 그거 좋다.”고. 목수인데 베틀로 맞차가 해 주니, 이전에는 명주가 뻐는데³³³ 세상

332. 내외간이, 부부간이

333. 많았는데

없는 고급천을 맨들었다. 그래 삼 년을 살았던 기라.

삼 년을 살고 아이를 낳아가 시 살 묵었는데, 돈도 안 주고 인자 채왔은까네 가라고 하거든.³³⁴

“아무데 가몬 자기 집이 있고 하니께네 가몬 다 살 기 만들어 났으이 가라.”고 하는 기라.

여자는 얼나를 업고 자기는 옷보따리 짊어지고 오는데, 삼 년 전에 처음 만났던 데 가디 마는 여자가,

“쉬이서 가자.”고 하더라. 기라.

“우리가 삼 년 전에 여서 만나가지고 배필을 정했는데, 좀 쉬서 갑시다.”

한참 쉬디이마는,

“내가 천상 선년데, 당신이 효심이 있는데 하도 딱해서 당신 도와 주러 왔지, 영원 배필 이 아인까네 당신은 이 얼나로 가져가서 참 잘 키워가지고 잊어뿌리고 사지,³³⁵ 당신이 가몬 거기 농막이 큰 기 있는까네 먹고 살 걱정 없고, 이 아아 키아 가지고 장가 보내가 사라.”고 카니까네, 막 붙잡고 울고 못 가게 해도 되나? 공중에 마 올라 가 뻘다.

그래 울다 울다 안 된께 아아로 업고, 보따리 곁은 거 짊어지고 주인 가라는 데 갔는데 아, 세상에 중도 보낸 기라. 그 주인이 삼 년 비단 짜가지고 한 돈을 가지고 반카리한 기라.³³⁶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땅 많이 사가지고 아주 부자로 맨들어 놓은 기라. 그래 장개도 가고, 동중서라고, 그 아아가 커가지고 벼슬도 망이 하고 큰 사람이 된 기라. 워낙 참 효심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알아. 복많은 사람도 하늘이 알아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334. 선금을 받은 것만큼 기간을 채워서 일을 했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다

335.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 기르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살라

336. 아내가 삼 년 동안 비단을 짜서 판 돈을 주인과 반씩 나누었다

수도승의 부모 천도

조선조 제25대 철종 7년 경상남도 양산군 통도사에 있던 한 젊은 수도승의 이야기이다.
그는 어렸을 때에 양친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하다가 어느 해 설에 통도사에 와서 선달
그믐날을 맞게 되었다.

그가 신방(머슴이 있는 방 이름)에 있을 때였다. 밥상을 들고 헛간으로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 오늘이 일년 중 대명일로 해가 바뀌는 날이온데, 불효한 이 자식은 가
난하여 아직 걸식생활을 못 면하고 있어 선영에 제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얻은 밥이
나마 응감하소서.” 하며 절을 올렸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성철 스님이 목격하고는,
“아! 참 기특한 놈이다. 사람이 되겠다.” 하였다.
성철 스님은 감동을 받아 나중에 이 걸인 아이를 데려다 상좌로 삼고 글도 가르쳤으니
그가 후에 남봉 화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

남봉 스님은 항상 양친부모를 모셔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돌아가신 영혼이라도 편안하
시기를 기원하여 통도사 상노전에서 일심전력으로 축원을 올리고 부모 천도를 서원하
여 ‘법화경’을 성심껏 쓰기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마치고 회향불공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그날 밤 남봉 스님의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혼연히 치하하는 말이,
“네가 법화경을 서사한 공덕으로 우리가 모두 극락으로 왕생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자
취를 알려거든 언양군 삼동골 너의 외가에 가보면 자세히 알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남봉 스님은 꿈을 깨고 나서 그 이튿날 언양군 외가에 가보니 과연 외가에서 먹이던 농
우가 어제 죽었고 그 이웃집에서도 농우가 죽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소들이 분명히 자기 부모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소무덤에 제사를 지
냈다고 한다.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많다고 한다.

[서민정, 『삼세인과』, 장안정사, 1988]

난리 중에 남편을 구한 열녀

예전에는 정승들이 되기 잘 사는데, 혼인을 하는 데 그리 신랑이 나가 에리고³³⁷ 처자가 나가 많고 그렇던데요. 부자집인데,

그래 치우는데 신랑은 열두 살 묵고, 각시는 열 다아살 묵고 이랬는데, 이래 가지고 혼인을 처가지고 첫날밤에 난리가 나 뵘어.

첫날밤에 난리가 나 말키. 아마 상床 보낼라고 물건 많이 해가 도장이(고방이) 차두룩 해 뵘는데, 부잣집이라 놓이 짜드리 해 뵘는데, 난리가 나니까 신랑 각시 상방新房 채리 놓고 다 달아나 버리고 없데이.

이놈우 각시가 수단이 어떻게 있어 뵘는지 지(제) 이불로 마 우르르 뜯어가지고 소캐마 쑥 빼 뿌고³³⁸ 그래 마 도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주아 샀어. 주아가 마 천대매이로(전대처럼) Ying어가지고 이불 동정짓을 확 따가지고 띠로 맨들어 가 신랑을 웅쳐업었어. 신랑을 웅쳐업고, 피난을 없는데, 웅쳐업고 마 띠로 매로 어떻게 산을 거푸적거리고 올라가 뵘는지 얼마나 되겠노(고단하겠나)?

넘우 외동아들로 죽인다고, 죽으몬 안 된다고 살릴라고 딱 덮쳐 업고 가다가 배 고프몬 요구할라고(요기하려고) 신랑 먹일라고 건시乾柿 곁은 거 그런 거로 마구 주아 Ying어가지고 띠로 두디기매이로³³⁹ 탁 매고 죽기 살기로 마 올라갔다. 한참 가이까네 밤새도록 간다고 가이 해가 부무리하이(부영게) 돛았거든. 돛았는데 보이까네 만궁장관 곁은 넓은 반석이 있거든. 높은 데 이래 있고, 밑에는 요새 요랑하몬³⁴⁰ 빨갱이 그 전장치는 놈들이 그 밑에 들어가 있었던 기라. 있었는데, 가이 마루장곁이 걸치 앓기 좋겠더란다. 턱 이리 있는데 어떻게 된지 거어 꺾버터가³⁴¹ 올라가 그 반석에가 턱 걸치가 앓으며,

337. 나이가 어리고

338. 솜만 다 뽑아버리고

339. 포대기처럼

340. 요사이를 치면

341. 헐레벌떡거리고

“휴유이, 되라.”이러 켜거든.

아이구 마, 밑에는 꼭지빨가옷 겹은³⁴² 놈들이 막 칼로 들고 썩 달라들거든. 달라드는 데, 이 각시 하는 말이,

“쉬이가암서 물리 오소. 사람 정신이나 차리자고. 좀 물러 서시요.”쿠이까네,

그냥 눈치만 본다. 막 꼬나보고 구징거리고³⁴³ 막 이라거든. 저 신랑 저것 족일까봐 겁이 나가, 부잣집 외동아들인데, 그래가 신랑 다칠까봐 겁이 나가,

“손 대몬 안 된다고. 숨 좀 수아서 말하꾸마.”카거든.

그래 마 우침우침³⁴⁴하고 서가 있는데 그래 하는 말이, 신랑 족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가만 있으소.”

저기 보니까네 솔밭이 이리 있는데,

“저 등으로 질이 뻥히 있는데, 저 질로 가몬 자기 집에 갈끼이, 우야든지 저 질로 잊지 말고 찾아가라.”각시가 그러 쿠거든.

내려놓고 어린 신랑 족일까봐 그렇게 고생을 했는거로 저 놈들이 족일까봐 우야노 싶어가 그래 가지고 신랑 그거 보내 놓고 말 들어 주꾸마고 그러 켜거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끼이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없거든 말을 듣고 합류를 할 모양이니,³⁴⁵ 이 사람 가도록 좀 있어 도라.”이러 쿠이까네 그래 주침주침해가 있거든.

이 사람 가는 것만 내(마냥) 본다, 지도. 각시도 신랑은 고부로 틀어 가는데 가다가 해딱 해딱 신랑이 돌아본다고, 각시 저것 돌아본다고.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고, 요 리 자꾸 산몬댕이로 저리 고부로 틀어³⁴⁶가라고 시키 놓이 저 몬댕이 가다가 해떡이 돌아보고 이라거든.

“저 사람 꼭지가 안 비이야(보여야) 말 듣지 저 사람 있는 데는 말 안 듣는다고. 마 흔적 없거들랑 말 들어 주꾸마.”

342. 아주 키가 크다는 말이다.

343. 구시렁거리고

344. 머뭇머뭇하고

345. 요구를 들어 준다는 말이다.

346. 모통이를 돌아

이리 사정을 해 놓이 산문맹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거든. 그런데다가 마 모가지(목을) 카로 콕,
산 너머 소울 내리가거든. 넘어가 뵈다. 지 모가지 칼로 콕 찔러 반석에 휘떡 넘어지거든.
“에익, 그년의, 모진 년.”

궁딩이로 이놈 저놈 다 때리 놓고 달아나거든. 달아난 뒤에 저 건너편에서 유지자有志
者가 전부 지키고 뵈거든. 숲속에 숨어가 가마이 이리 보이까네 그라는 기라.

그년 모진년이라 쿠웁서 다 달라나뿌거든. 그 뒤에 그 남자가 터억 내리가지고 새로 비
이가³⁴⁷ 새로 좀 비가지고 돌로 각시 질이대로³⁴⁸ 담을 쌓았어. 질이대로 돌담을 쪽 쌓아
가지고 소복단장한 고냥 탁 구부러져 있는데 돌담을 쭈욱 탁 쌓아 놓고 그 사람이 앉아서
몸뚱이 요껴정 안 받치도록 딱 요리 다 쌓아가지고 새로 비가지고 집을 딱 이아(이어)뵈어.
집을 맨드러가지고 딱 덮어 놓고 얘기 잔치 나오도록 바랜다. 평화 되도록 바랜다.

그래 다 해 놓고 인자 때만 지다리고 인자 난리 피란이 끝나고 인자 얘기한다 싶어가지
고, 바래고 있으니까네, 그래 참 끝이 나서 아무데다 참 석 달 열흘 동안 얘기 잔치가 있
었는갑데.

그래 그 이 얘기 잔치한다 캐. 그래 거어 들어갔어. 내글내글(내내) 벼루다가 벼루다가
마지막 날에 들어 가가지고 처억 얘기로 하는데 그래 저어 영감씨가 늙어가지고 늙어가
머리가 하끗할라 쿠더란다. 그래 가 참,

“어데고?”

“내가 가면 질로 갈쳐 주겠다.”쿠고 이래 그 사람이 나왔어.

나와 가지고 그래 모시고 가니까네 그래 새 집을 지이 뵈는데 화복단장한 고냥 하나도
씩도 안 하고 가만 고냥 있더란다. 가만 고냥 있어 놓은께나 마 그래 좋다고 막 열녀비로
세우고 모시다가 그래 장사로 잘 하고³⁴⁹ 열녀비 세웠다고. 그래 그 신랑집에서. 그래 아
들 참 장개 새로 보내고, 옛날에 그 사람도 앞산밭에 집지와 살림 내어 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347. 억새풀을 베어

348. 길이대로

349. 장례를 잘 치르고

두 남편을 섬긴 열녀

이부불열열녀二夫不烈烈女라, 두 남자로 거느려가지고 열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살림이 요부하고 이랬는데, 외동 자식 남편과 가정을 지켜 나가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있던 살림을 전판 다 약초에 다 쓰고 병원에 다 갖다 뒀어도 병이 안 낫아요.

병이 안 낫아가 살림을 탕산가산蕩產家産을 하고 보따리로 싸가지고 아주 멀리 떠나가 지골랑 한 고을에 가이까네, 거가산데巨家畝, 살림도 부자 곁에 보이고 그 집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지골랑, 요새 말할 것 같으며 식모고 그 전에는 정지강구인데, 식모로 살게 되는데, 참 여자가 별어가지고 묵는 택이지요.

약도 써지 못하고 참 불쌍한 처지라, 여자가 이래가지골랑 밥을 해가지고 밥을 남편을 갖다 때때로 먹이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자식을 몬 봐요. 자식을 몬 보는데, 소개를 하기로,

“마 하이튼 그 집에서러 자석마 하나 낳아 주면은 내가 마 남편 언제라도 세상 베릴 때 꺼정도 형제 다름 없이 사랑에 요이부자리 잘 모시고, 약은 언제라도 내가 하늘에 해 백 인날은³⁵⁰ 끊지는 안 하겠다 말이지. 그래 내 자석마 하나 낳아 두가.” 그래.

남편이 그 소릴 듣골랑 생각하다가 마느래로 그라라 했어요. 그라라 쿠이 마느래가, 대성통곡을 하고 도저히 그래 몬 하겠다 거역을 하는 기라.

“이 사람아, 나를 위해가 하는 기지, 니를 위해 하는 것이 아이라고. 그래 하지 않을 걸 으며, 내가 인지 생명이 곧 없어지는데 그래 하는 기 좋다 말이다. 그라라꼬.”

그 참 안양반한테 여러 가지 이약을 다 해가지골랑 그렇게 하기로 됐는데, 참 열 달 배

350. 박힌 날은.

설리 놓으니까 아들이거등. 아들로 하나 떡 낳아 가지고 이래 줬는데, 아들로 하나 놓이 그 이후에사 굉장하기 잘 하고, 약을 되기 한참에 많이 씨이 그런동 병이 낳았어요. 병이 낮고 이래가지골랑 앞산 밭에다가 집을 거창하게 지아 가지고 살림을 내가지골랑, 똑 형 제간같이 사는데. 그기 이부불열열녀라 쿠요. 죽을 남편을 살렸고, 얻었는 남편도 자식 낳아 주가 열녀질 했고, 남편 두 날에 다 열녀 짓을 했거등. 그러이까 이부불열열녀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경주 효현동의 열녀

외외 동네라 카는 우리 고향에 우리 에릴 적에 열녀각이 하나 있었어. 열녀각 앞에 가 놓고 요래 했는데, 환칠해가 집을 아주 멋지게 지아 났는데, 정자도 좋고, 고오 묘도 서저가 있었어.

동네 마을 앞에 산 촉다리 비슷한 데 그 밑에는 양 거랑이 양 골로 빠지고, 나부 불알때로³⁵¹ 고런데, 거어다 우에는 전지田地로 해 묵고, 고게다 묘로 씨 놓고 고게다 열녀각을 지아 났어.

351. 나비의 불알(배)처럼

시집 와가지고 딱 어린애 첫 아들 하나 딱 놓고 그 남편이 죽어뿌렸어. 시모嫗母 밑에 시집을 살고 있는데, 그래 천 날 만 날 아직 저녁으로 상석上食을 디리며 하도 애통하기 울고불고 장시간을 이래 쌓이, 시모가 가서,

“야야, 그만해라. 나오너라. 인지 니 남편이 죽은 거로 갖다가 그렇기 애통해 봤든 필요 없고, 그만해라. 근치라고.” 울음을 근치도록 어른이 달랬어.

그러구려 유복자나 마찬가지로 아들을 젖을 먹이 키우면서도 시모잘에,

“어머니요, 인자 밥을 조금씩 받아 묵으니까 젖 안 묵어도 안 크겠는교?”

“야야, 그기 뭐 그 젖 안 묵고 크노? 안주(아직) 그 젖도 묵고 밥뜨끄리³⁵²라도 쪼매씩 묵어야 그기 안 크나?”

그래가 또 얼마간 있다가 그럭저럭 한 서너 살 묵어서 제법 밥숟갈이나 받아 묵었던 모양이지. 또 그런 애길 하거등. 서너 살 묵었는데 하도 며느리가 물어 쌓이, 호불시모가,

“야, 인자 서너 살 묵었으니까 네 젖 안 묵고 밥 묵어도 크기사 안 키우겠나.” 이런 말로 했거등.

남편을 잃고 삼년상, 소, 대상 그 마지막 날 상석 디리러 가가지고 아적 상 상석을 갖다가 올려놓고 고 자리에 제상 앞에 엎드려져가 죽어뻘다 이기라.

그러이까네 아들을 키울 정도로 내가 키아주고 나는 죽는다, 젖을 뗄 때까지는 키아주고 죽는다는 마음이었던거지.

글로 하여금 열녀각을 세웠다.

그 집들이 나캉 한 일간데, 최영조라고 영자 항렬인데, 마을 이름이 외외고, 요새는 경주시가 되가 있어. 경주시 효현동이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돌이, 두동면, 1984]

352. 밥알

어사 박문수와 만든 열녀

예전에 박어사朴御史가 방방곡곡시 순탐巡探하로 이리 땡겼는데, 한 분은 어느 산중에 드가가 집이 똑 한 집 있는 데 하룻밤 자려고 집에 드러가이께 엄두리총각이 한 끼³⁵³ 나옴서로, 그래 인사로 하고,

“주인이 계시냐고?”

“지가 주인이라.” 이 카문서 사랑에 떡 얹하 놓고, 그래 앉아가 무른 기라.

“이 집에는 식구가 몇이 되는가?”

“눈 어둡은 어마씨하고 혼자된 형수하고 지하고 세 식구라.” 카고, 그래,

“그리 형님이 언제 죽었느냐?” 쿠이,

“한 달쯤 전에 죽었다.” 쿠고, 그래 가 인자,

“요구療飢로 좀 시킬 수 없나?”

참 팔발 뒤지가 한 피밥을 쥌서³⁵⁴ 묵고 잔다고 있으니께, 소복을 입은 이상한 각시가 물그력을 이래 들랴 주옵서 그 사람을 보고 방긋 웃고 나가거든요. 그래 참 어사가 가만 생각하니까이 ‘이상하다. 이 소복 입은 여자가 왜 나를 보고 웃겠노?’ 그래 생각하고 가만 눕어가 있으니까이, 그 총각이 와 하는 말이,

“손님, 미안커마는 이 등너메 우리 큰집이 있는데 우리 백모伯母 제사가 드는데 내 큰집이 제사를 지내고 올 모양이니, 올 밤에 우리 집을 좀 지켜 달라.”고, 그래.

그래 달이 환한데 집 본다고 있으며 변소칸에 가만 앉아 생각하기를, ‘주인이 이 집에는 세 식구가 산다 쿠는데, 그 소복 입은 그 사람 형수는 형순데, 그 사람이 이상하다. 나를 보고 와 그래 물로 떠 주고 웃고 나가겠노?’

달이 몹시 밝았는데, 아주 큰 장정이 저 담을 휘딱 넘어 드러오디이, 그 못방에³⁵⁵ 그 각

353. 더벅머리총각이 한 사람

354. 산전山田에서 경작한 피로 지은 밥을 주어서

355. 모퉁이에 있는 작은 방에

시한테 드가는 기라.

그래 다급하니까이 어사가 칼을 내어 쥐고, ‘이 집 아들이 달 전에 죽었다 카디이 어떤 간부姦夫가 죽이고 저 여자를 덴고 살라고 그런가부다.’ 생각하고 들바다 볼 백이³⁵⁶ 없다고. 그래 칼로 내에가 가만 들바다 보이 참, 즈그꺼정³⁵⁷ 참 좋아. 그런 짝에 막 드가가 그 사람 칼로 찔러가 안사람하고 남애하고 다 죽이 뿌고, 그래 아랫방에 와가 자는 체로 있으이까네 그래 그 총각이 오거든.

오디이마는 냄새가 났겠지. 그래 형수 방에 문을 한 번 열어 보디이 문을 그대로 닫고 아무 기척없이 ‘이상하다.’고 해. 새벽날 된까네 그 총각이 곡을 해. 그래 그 손님이 총각을 찾었어.

“그래 우째서 이리 곡소리가 나노?”

“한 달 전에 우리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형수님이 같이 갈라 캐 쌓는 거로³⁵⁸ 기어이 말기고 이래 살리 났더마는, 기어이 참 죽었다.”고 그래.

“장사로 잘 치라.” 이라고 돈을 부의로 하고 돌아갔거든.

몇 해 지내고, ‘에라이, 이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됐는고 가 볼 백이 없다.’고 돌아 산중을 들어갔다.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서이 열녀비가 있어. 그 집에 찾아 드가 주인을 찾어가,

“하룻밤 유해 가자.”고 그래 그 총각이,

“몇 해 전에 보던 손님 아니냐?”고 하이,

“지내치다 왔다.”고 그래. 총각을 보고 묻기로,

“이 입구에 열녀비를 세와 났는데, 누구 집 비고?”고 이래 물었다.

“우리 형수님 비라고. 그때 같이 따러 갈라 카는 형수로 기어이 말려가지고 살렸다가 죽은 형수비라.”³⁵⁹고 그래.

“삼 년 전에 과거일은 어이 하고 그 비를 세왔느냐?”고.

356. 들어다 볼 밖에

357. 자기네끼리

358. 형님이 죽고 형수가 따라 죽으려 했다

359. 형님이 죽고 따라 죽으려 했던 형수의 열녀비라

충각이 나가가지고 낮으로 가지고 들오더니 손님 보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말로 입 밖에 내몬 내가 이 낮을 가지고 당장 당신을
 죽이 뵈다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형수는 어떻기나, 우리 가문을 위해서러 했는 일인
 데…”한다.

“손님 한 분만 입을 안 떠몬 다른 사람은 모른다 아이요? 산중에 혼차 사이. 그러이 당
 신이 왜 그래 쓸 데 없는 말을 합니까? 지발 안 죽을라 쿠거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카
 더란다.

그 착실한 시동생을 놔아 두 놓이까네, 나쁜 짓을 해도 열녀가 되더란다. 그래 그 사람
 이 이 산중에 있기 아깝다고. 과연 장래는 참, 좋은 사람이 되겠다 쿠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임순, 상북면, 1984]

현풍 곽씨의 열녀

현풍 곽씨玄風 郭氏가 있는데, 그 집에 청춘과부가 하나 있거든.
 초록딩草笠童이 시숙이媿叔 가만 보이까네 제수弟嫂가 수절을 못하고 그 절단 지랄로 하
 는기라.³⁶⁰ 아주 간부姦夫가 내왕을 하는데 희한하거든.

과객이 하나 그 집에 가갓고 수문을 했는갑더라. 그 초록딩이 시숙이 그 집안 위세

360. 바람이 나서 외간남자와 정을 통한다

할까³⁶¹ 싶어가, 그날 저녁에

“나는 우째가 죽습니더.³⁶² 열녀중신이 죽습니더.” 쿠머 유서를 써 놓고, 제수로, 놀로 시키가지고 목을 딱 달아매가 찍이뻘는 기라.

제수로 찍이 놓고, 아침에 모른 척하고 있는데, 소문이 오거든.

“아이고, 제수가 목을 매가 죽었습니더.”

“어, 목 졸라 죽어.” 지가 죽이 놓고야.

“허허, 어떤 일이고 유서 없더냐?”쿠이, 유서 있다고. 가 보이,

“아이고, 나는 죽은 가장家長을 위해가지고 목을 매가 자살해 죽습니더.” 그래 유서를 써 놓고 죽었는 기라.

결판시석을 채리가³⁶³ 장사를 하는데, 초록당이가 안案을 내는데,

“걸뱅이로, 술도 하나 주지 마라.” 쿠거든.

“밥도 하나 주지 말고...”

그 날 저녁사 그 과객이 보이까네 수절과부가 가장을 위해 죽었다고 열녀각을 짓는 기라.

그래 지아 놓고 제수를 갖다 묻어 초상 칠 때 걸뱅이로 절대로 밥도 못 주라, 술도 한 반 못 주라 캐 놓고 그 날 저녁에 초록당이가 가가지고 불로 질러 뿌고 소문은 우에 났는고 하이,

“걸뱅이가 아무것도 안 줘 놓은까네 그 기 질렀다.” 쿠는 기라.

아무 소문없이 호냥년을 열녀로 만들었는 기라. 그래 현풍 곽씨가 양반짓을 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361. 창피당할까

362. 열녀烈女로 죽는다는 말

363. 많은 제물을 차렸다

효부가 버릇 고쳐 준 불효한 시어머니

저 손지 며느리가 시집을 가йка네, 시어마씨가, 시조모강 있는데, 반찬을 찌지가지고 시어마씨는 대가리하고 콩대기하고 주고, 시아바씨는 바라 대가리짬에 디리고 이라거등.

손지 며느리가 봤다. ‘우리 어머이로 질로 디리야 될다.’³⁶⁴

이전에 방간에 꿇으며 무거리(겨) 있고 또 가리 뿌앙는 기 있거등. 그래 인자 시어마씨로(에게) 무거리 쪼매하고 무거리떡 쪼매하고 찰떡 쪼매하고 그래 좇거등. 그래 한 날은 며느리가 무거리떡하고 찰떡 줌하고 그래 좇다. 주이,

“그래 와 날로 이래 주노?”

“저 어머이, 어머이가 할매 그래 디리대요. 할매 그래 디리이까네 어머이도 그래 잡사야지요.”

그 괴기 사가 대가리하고 콩대기하고 또 어머이 좇시다.

“와 날로 이래 주노?”

“할매(어머님의 잘못) 그래 안 갈차 났는교? 지도 그래 갈차 놔서 그래 디렀다고.”

시조부로 또 대가리짬에 고게 밑에 괴기를 디리거등. 시아바씨 또 그래가 디렀다이,

“와 날로 이래가 주노?”

“아, 어머이가 그래 할배잘에 그래 안 했던교? 고대로 착 채렀읍니다.”

고래 딱 갈치 놔가지고 참 고래 할 밖에 더 있나? 며느리잘에 갈치 났은까네 그래 대접 고래밖에 못받지. 그래가지고 그 참 며느리가 효자질로³⁶⁵ 했지. 며느리로 보йка 잘한 다 말이다, 인자 인자 곤쳐 놓으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정분기, 언양면, 1984]

364. 어머니 길을 들어야겠다.

365. 효부孝婦 짓을

남편 버릇 고친 효부

홀로 된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친구집의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 차마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아들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

이 모양을 본 며느리가 남편을 불러 미장원에 가야겠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다. 돈을 받은 며느리는 그 돈을 시아버지께 드리면서 친구분의 잔치에 다녀오시라고 했다.

시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본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장농을 열고는 자신의 옷가지들을 꺼내 짐을 쌌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며느리는 당신 같은 불효자不孝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를 닮으면 마찬가지로이니,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아내의 말에 크게 깨달은 아들은 그 후로는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잘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서영기, 온산면, 1986]

불효녀

옛날에 그래 인자 할마이가 딸이 다섯인데 남편이 하도 딸네 집에 갔다 와서 자랑을 해
쌌아. 그래 인자 큰 딸네 집에 가이까네 빨래 할라고 나오거등.

“아부지, 거어 계시이소. 내 빨래해가 오껴이(올께).”

아직도³⁶⁶ 안 묵웠는데 이놈우 집에 있어가는 또 아직도 몬 묵겠거등. 또 둘째 딸네 집
에 또 간다. 가이 베로 매거등.

“아부지요, 저 저 아직 잡쌌는교?”³⁶⁷

그래 베 언다고 안 주거등. 한 집에는 가이 방아를 찧는데, 방아를 찧으미(찧으며),

“아부지요 아직 잡쌌는교?” 커거등.

영감쟁이 축기 아이가?³⁶⁸ 밥 안 무웠다고 줄라 커지 뭐할라고 밥을 안 무웠노? 또 가
이까네 빨래하로 간다고 가디 눕어 있는 기라.

또 니째딸네 집에 가이 빨래 삶아 났다고 낀지가(건져) 이고 가거등. ‘아이고, 이년들 집
에도 또 밥 안 준다.’ 막내이 딸한테 간다. 가이 막내이딸으는 방아로 찧으미,

“방아 찧어가지고 밥 하께요. 저 눕어 있으이소.”

술도 아무 것도 안 받아 준다. 그래 인자 양養 며늘 집에 갔다. 양 며느리 집에 떡 인자
갔다. 가이까 양 며느리가 인자 술 받고, 달(닭) 잡아 앓히고, 서답 버지기³⁶⁹ 내려 놓고
밥을 해가지고 디리고, 달 잡아 앓히 놓고 빨래해가 오이, 얼라가 기 나가가지고 마 부석
에 드가가 디이가 죽어뻘다. 죽어뻘는데, 술이 갑신(듬뿍) 취해가 인자 깨가지고,

“야들아, 얼라 와 젓 안 먹이노?”

“이웃이 얼라로 업고 갔습니더.”

366. 아침식사도

367. 아버지 아침식사 하셨습니까?

368. 바보 아닌가

369. 빨래통

저녁에 얼마 되이까,
 “와 아야, 참 얼라로 그래 와 젓을 안 먹이노? 안 데리고 오노?”
 “마 없어졌읍니더. 없어졌읍니더.”
 “우애가(어째서) 그랬노?”
 “국솥에 드가 디이가지고…, 자식은 놓으며 안 되는교?” 그카거등.
 “아이구, 내가 마 자고 얼라가 없는 줄을 몰랐다.”
 그래 마 며느리가 제일 소중하더란다. 딸 다섯 년이 다 몬 씨고. 한날 떡 인자 부러 죽었
 다고 저거 아배 죽었다고 가만히 있으이까네,
 “아이구, 저 저 적두팔 삶아가지고 달 잡아가지고 밥해 드리이 맛있게도 잡숫디마는…”
 그래 거짓말로 말키 하네, 딸 다섯이 다.
 “예끼, 이년들 곁애가지고!”
 “허허이 참, 우리 아버지 죽음이 정 죽음가? 내 울음이 정 울음가?”커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정분기, 언양면, 1984]

불효부 길들이기

옛날에 누가 상처喪妻로 하고 며느리로 봤는데. 그 며느리 어찌 별난지 옷도 잘 안 해 주고
 시아바이 대접을 영 험하기 해. 그래 집이 인정은 없지.
 하문은 저 길 건너, 친구가 하나,
 “환갑을 하는데 놀러 오라.” 이카거등.

“오냐, 놀러 가지.”

갈라 캐 놓고 옷을 갈아 입을라 카이 옷이 험한 것만 있지 입을만한 좋은 거는 없어.

사는 것도 그대로 개안케 사는데, 아들 옷은 좋은 기 있고, 자기 옷은 입을 끼 없어. 이 넘우 거, 며느리 빨래하러 간 역에³⁷⁰ 살짜기 아들 옷을 내가 명지 바지저고리하고 두루 매기하고 깨끗한 옷 새거로 갈아 입골랑 나갔어. 갈려면 며느리가 빨래하는 그 길로 건너가야 되는데, 며느리가 시아바시로 보이 자기 남편 옷을 입고 오거등.

“아이고, 아버님, 그거는 안 되니더.” 들은 치 만 치하고 간다.

“아이고, 안 되니더.”

방땡이를 딱 거머쥐고 인자 따라온다. 그래도 잔치하는 그 집에 드갔다. 드가이, 그 전에 겹장기 옷도 곱기 입고 아주 신사 옷을 입고 왔거등.

“아이, 이 사람, 그 며느리 참 고맙구나. 옷을 그래…”

“그래, 며느리 고맙다.”고. 그런데, 살짝 밖에 보이까네, 어떤 여자가 방땡이를 하나 들고 뺨뚨 넘바다 보고 이래 쌓거등.

“그거 내 며느리라꼬.”

“그러머 우애 저어 따라왔노?”

“내가 요새는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 걸음을 옮기 못 걸어 놓이, 며느리가 내가 나갈라 카면 날 업어다 남 집 앞 짚에꺼정 갖다 준다고. 그래 내리가 인자 들와가 안 있나.”

그래 가마 들어보이 참 고맙은 사람이거등. 그래 잔치 집에서 오라고 청하이까네 며느리가 드가 놓이, 그 많은 사람이 보골랑,

“그 어떤 사람이 효부가 되며³⁷¹ 저렇기 고맙으노?”

모두 보고 들와가 대접도 하는데 탄 사람보다 특별상을 한 상 대접을 한다.

한 상 잘 묵고 올 때 인자 할 수 없이 시아바이 업히가 오네.

370. 간 사이에

371. 어떤 사람이길래 효부가 됐으며

그라고부터 며느리가 반성을 했어. 사는 정도도 개았고 해 놓이 시아바시인테 어떠 고
맙기 해.

그라고는 손자도 귀고, 며느리도 귀고 그러이, 일 안 할 것도 자꾸 하고 고맙기 하이 하
는데, 손자들이 와도 똑 할배부터 들바다 보고, 뭐든지 며느리캥 아들캥 손자캥 다 의논
이 맞아가 어른 대접을 잘 해 놓이, 동네 사람이 보고 효부라 소문이 나가지고, 효부 발천
發闡 세아가지고³⁷² 국가서 효부 상타고 그런 말이 듣기대요. 고맙기 하이 마 절로 고맙
아가 그 뒤에는 감당을 몬 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한명하, 두동면, 1984]

훌륭한 자식을 낳은 쫓대 센 며느리

옛날에 순이라 커는 사람이요 시어마씨는 없고 시아버씨 있고 신랑만 있는 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이까네 (죽은)시어마씨가 점을 보고 뭐로 위해 났는데, 며느리가 거그
로 마키 불에다 사라뿌렸어요.³⁷³ 그래 놓이까네 새가 한 마리 풀 날라 가더랍니다. 그래
시아바씨가,

“우리 집은 다 망했다. 며느리가 저처로 어구가 시가³⁷⁴ 인자 망한다.”꼬 이랬어.

372. 효부로 발전發闡(쌓이거나 가려져 있던 것이 열리어 드러남.)해서

373. 불태워버렸어요

374. 저렇게 고집이 세어

그라이까네 며느리가,

“망할 것 없읍니더.” 이라이꺼네 인자 그래뿌리. 매혼埋魂 다 시키뿌고, 아들로 하나 낳으이 딱 그 죽어뿌리. 죽어뿌리가 초상을 쳐 갖다 묻어뿌리고, 또 아들 하나 낳아가고 정도 되이까네 그래 없어져뿌리요.

서이채³⁷⁵ 또 낳아 가지고 하이까네 꿈에 어슴추리하이³⁷⁶ 그라더랍니더.

“니가 날로 위해 안 줄 꺼 같으면³⁷⁷ 니 자식을 놓은 족족 다 잡아간다.” 이라더랍니더. 그래,

“그러며, 마 다 잡아 가라. 다 잡아 가도 좋다.” 커고, 꿈에 훌쩍 던져 내빼리고 퍼뜩 깨보이 꿈인데, 아아가 땅에 떨어져가 있는데 아아가 마 죽었더란다. 그 이튿날 저녁에 또 꿈을 꾸이,

“니가 참 어구가 시고 크기 될 참 며느리다. 상에다 밥을 해가 날 잘 갖다 빌어 줄 꺼 곁으며, 참 크기 되겠다.”꼬 이쿠더란다.

“억수로 크기 되이까네, 날로 밥을 해가 삼그람질³⁷⁸에 잘 갖다 빌어 줄 꺼 곁으며 다시 너저 집에 일체 안 댄다꼬.”

며느리가 그만땅 시더랍니더.

“날로 위해 쥐도 죽을 끼고 안 위해 쥐도 죽을 끼이까네, 아아 서이는 절명이고, 이 뒤에 서이 놓을 꺼 곁으며 정승 서이가 난다.” 이라더랍니더.

그 뒤에 아들로 서이 낳아가지고 크기 되더랍니더. 정승 서이 나가 그래 잘사더랍니더. 정승 서이가 나고, 그 뒤에는,

“니가 큰 자식 놓을 사람이 따다.”³⁷⁹꼬 이라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황복임, 두동면, 1984]

375. 세 사람째

376. 어슴프레하게

377. 너가 나를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378. 저세 갈래 길

379. 다르다

꺼지는 불씨 때문에 동삼 얻은 며느리

예전에 삼정승 육판서가 직職이 높으이 서로 사돈을 하는데, 육판서 막내아들로 갖다가 삼정승 맏딸잡에 장개로 가는데, 그 전에는 전기불도 없고 육판서네 정지에 오대째 내려가는 불도장³⁸⁰이 있었는데, 장개로 갔다가 오이까네 불이 꺼져요. 며늘로 보고 버텨³⁸¹ 오대째 내려가는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이, 님 모르기 ‘참 이 집이 망하나? 우리 살림이 망하나 되나?’³⁸² 기가 차는 기라.

신랑은 인자 이전에 한문 책 배우러 땡기고 이라는데. 이념우 참 몸종 더부고 시집간 며느리가 불로 꺼주이³⁸³ 사람이 할 짓이 아이고, 참 시집을 살기는 살아도 가히 몬 살 정도라요. 어른들 칭칭이, 시조부, 시조모, 시어마씨, 시아바씨 다 있는 시집을 가가 불이 꺼지이 할 짓이 아이라.

한 두어 달 그럭저럭 살았는데, 하리 저녁에 정지에 갔어요. 나무썩이를 안고 나무썩이 너메 가마 있으이까네, 그 꺼꺼럽은데,³⁸⁴ 한밤중 되이까네 싱글받느³⁸⁵ 사람이 쇠 작대기로 쪼고 정지문을 실 열고, 작대기를 쪼어가 불도장을 실 흘쳐 놓고 휘휘 젖어뿌고 하이까네 불이 꺼져요.

‘에레이, 이녀린데, 이래도 죽고 저래로 죽고, 내가 이래 복 없는 며느리가 들와가 불꺼 진다 이런 소리 듣니’, 마 떡 틀어 안았단다.

틀어 안으이까네, 마 달아가 어데라고 빛살겉이 가는데, 계명(鷄鳴) 소리가, 마실에 온 달

380. 불씨를 말한다.

381. 며느리를 보고부터

382.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다

383. 꺼지게 하니

384. 티끌 따위가 살갓에 달라서 가려운데

385. 싱거운

(닭)이 진동을 하고 울고 이러이까네, 산비알에 꼴찌기로 가디마는 마 펍 주저앉고 쇠 작대기 그거로 펍 쪼터란다. 쪼건데 거어 가만 앉았으이 날이 희뽀한테 보이 아무 것도 없는데, 손에 풀이파리 겹은 기 떡 짚이 있더란다.

그런데 집을 찾아 갈 가팡이 안 생기가, 살펴 보이 이 밑에 내려가며 마실이 있는 걸이 그런 그렇기 산중도 아인데, 사람도 옹기 몬 갈 정도 되는 방구 칭뎀³⁸⁶ 거어 갖다 쪼아 났는 기라.

‘내가 집을 찾아 가야 되는데, 시집 온 제가 얼마째 안 나는데 우리 집을 알겠나?’ 싶어도 거어 내 있을 수가 없어가 내려왔단다.

그 손에 짚인 그거로 쥐고 슬렁슬렁 실실 내려오는데,

육판서 집에는, 밤에 사람이 없어져 종들이 아무 색시가 없다 이카이까네 ‘며느리가 도주로 했는데, 우리 집이 인자 살림이 다 됐구나.’ 이래 맘을 묵고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두서 없는 집이라요. 종들이 있으이까네 말 나간다 싶어가 시조부랑 모두 말은 안 하고 맘 속으로 애로 묵고, 아직³⁸⁷을 가아가도 시아바씨가 묵나, 시어마씨가 묵나, 시조부가 묵나, 아무도 안 묵고, 전 공기(식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노인이 관을 씌고, 지다이 화죽설대 대꼬바리 그거로 물고 청동화리 앞에 놔 두고 대문을 떡 보이 손부며느리가 늦은 아직 때나 되이까네 들오거등.

들와가, 시아바씨 방에는 안 가고 시조부 방아 슬무시 들오거등. 저기 눈고 싶어가, 자세히, 안경을 찌고 자세히 보이 손부 며느리가 들오는데, 산삼을 한 피기 쥐고 들오는 기라. 그래 시조부가 청동화리에 화죽설대로 톱 치며,

“으흠, 글케 우리 가정이 그럴 리가 만무한 일이다.” 그 시조부님이 종들로 안 시키고 큰며늘로 불러가,

“야, 깨끗은 광주리로 하나 가아와 여 이 삼 받아라.” 카터란다.

그래 며느리가 옷을 딱 갈아입고, 새 광주리로 하나, 백지 종오로 톱 폐가 와가 그래 삼

386. 큰 바위

387. 아침상을

을 받아가 놓고, 그래 인자 안청에 드가라 카더란다.

구부간舅婦間에 의논을 하고,

“니가 오늘버텨 목욕을 하고, 장에 가가 줄라 카는 대로 깍지 말고 일절 과일로 장만해 가지고, 그럭도 일절 장만하고 해가지고 손부 며늘 더부고 가가 제만을 해라.”³⁸⁸ 시조부가 명령을 내루거등.

그 호강시럽은 사람들이 종을 안 시키고, 고부姑婦가 가가 장을 봐가 와가 며늘을 더부다가 제만을 했단다. 산삼山蔘이 모뭇가 부어져 찌듯이 찢단다.³⁸⁹ 그리고 뗏 관서가 났는지 육관서도 더 하더란다.

그 사람이 굵은(큰) 사람이 들 와도 받을 복이 있어야 된다고, 산삼이 그 집 통지로動靜을 봤는 기라.

‘이 집구적이 살림이 다 되가 심회³⁹⁰가 있나 없나.’꼬.

‘불도장에 불로 꺼주며 손부 며느리 못된 기 들와가 불 꺼졌다고 난리를 지기나.’ 그렇지마는, 마음속으로 심회가 짚어서,

‘옳지, 그래 이 살림 징기고도 몇 배 이상을 이 사람이 징길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그 살림이 그렇기 되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388. 고사告祀를 지내라

389. 산삼을 마치 버를 찢 내듯이 뽑아 내었다

390. 심회心懷,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지네를 죽인 며느리

옛날은 성냥이 없고 그래 놓이까네, 불씨를 소깨비로 톨톨 뭉치가 부석에 묻어 놓고 밥을 해 묵고 이랬는데. 하리는, 살림이 안 될라고 그렇던동 그 불을 뭐가 만날 와가 꺼뿌고 꺼뿌고 이래.

어른들이 별나 놓이까네 와 이런공 싶어가 겁이 나가 처매로(치마를) 딱 덮어 쓰고 숨어가 지키고 있으이, 굶다는 지네가 와가 불로 후지지가³⁹¹ 꺼뿌고 꺼뿌고 그래 가져등.

그래 하리 밤에는 따라가이까네 굶다는 청靑 지네가 애찬 기 있는 거로 직이뿌고 어른한테, 참 불로 얻어가 살리가 가던 살림이 다부 개않더랍니다.³⁹²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차생, 두동면, 1984]

참효자

그 고을 원이 처음 인자왔는데, 밑에 사람들에게,

“그 지방 실정으로³⁹³ 좀 조사를 해 올리라.”

그래 온 군내郡內에 어느 면面에 어떤 사람이 참 효도에 정신이 지극하다 그래 놓으니까 지방에 알아가지고 차차 말이 그 인자 원한테 올라가자, 하루는 그 사람을 불렀다 말입니다.

391. 휘저어서

392. 도로 관찮더랍니다

393. 실정實情을

이 사람은 언제나 아직 묵고³⁹⁴ 불일 보러 나갈 때는 어른한테 꼭 그 인자 이약하고,
 “아버님, 오늘 저가 불일을 아무 데 무슨 불일을 가는데 뗏 시 되며 오겠습니더.” 그래서
 딱 고 시간에 언제나 시간을 안 어기고 갔다오며, 언제라로 불 일에 갔다 온 경과를 전부
 어른한테 이약을 하는기라. 하루는,
 “고을 원님이 저로 오라 커는데 갔다 와야 되겠습니더.”
 “그래 갔다 오너라.”
 옛날은 문무文武로 겸해가 있기 때문에, 요새 경찰이 오라 커머 무슨 일이고 싶어 알기
 건에는 겁이 나듯이, 옛날에는 그 죄로 지이며 직이뿐다 커데. 그 저 겁이 나가지고 무슨
 일로 오라 커는고 싶어가 그래 걱정을 하고 그 날은 뗏 시에 갈 낀지 시간은 몬 정하지. 가
 봐야 알지.
 그래 사또인테 갔다왔는데.
 “아이, 야야, 가아까네 우슨 일로 오라 커더노?”
 “그거 뭐 처음에는 저로 효도한다고, 아버님인테 효도한다고 그래 오라췌던 모양인테,
 그러 선사한다고 오라 췌는데, 그 양친이 그래 다 계시나고 이래 묻더이더.”
 “그래 뭐라 커더노?”
 “그래 양친이 다 계시나?”
 “그 모친은 세상 베렸습니더.”
 “그래 세상 베린 지 뗏 해나 뻤노?”
 “올해 십 오 년째 납니더.”
 “그래 아버님이 흥거래(혼자) 계시췌네?”
 “흥거래 계십니더.”
 “그러머 효, 효도한다고 오라 췌는데 뭐 자네 불효라고 마 가라.”³⁹⁵ 컵디더.
 “그래, 하 그 요번에 참 그 명 원이³⁹⁶ 왔구나.” 커더란다. 영관 마음을 안다 싶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394. 아침 먹고

395. 그만 가거라.

396. 유명有名な 원이

욕심 많은 큰아버지를 길들인 며느리

옛날에 형제간에 사는데, 형은 굉장히 부자고, 동성으는 딱 논 서 마지기뿐이라. 큰 들 전판 형 논이고, 동성 논이 형 논 복판에 서 마지기가 딱 쟁기가 있어요.

형이 사람이 욕심이 많고 조금 털 돼가지고 저 님우 동성 논 저거를 내가 어애 사도 사야 되는데, 저 님이 걸거쳐³⁹⁷ 죽겠거등.

‘팔기만 판다쿠면 내가 중한 금이라도 몇 배라도 쥐도 되는데.’ 만날 이래 걱정을 하고 있거등.

그렇자 작은집에 외동 며늘로 하나 봐 놓고 한 일 년 지내골랑 시어른들이 며늘로 불러 놓고, “아야, 며늘아, 우리 집에 아무 것도 없고 논 서 마지기뿐인데, 오늘은 살림으로 전판 니한테 이전을 시킨다. 열쇠를 인자 니가 맡아라.” 그래 열쇠를 주거등. 며느리가 받아 놓고, “아범, 저가 살림을 맡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 조건고? 이약만 해라, 뭐라도.”

“아버지, 들어 줄라 쿠면 이약하고, 안 들어 줄라 쿠머 이약을 몬 하겠습니까.” 쿠거등.

“아, 뭐라도 들어 준다. 들어 주니 말로 해라.” 그래 딱 말로 하거등.

“저가 무신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간섭을랑 마소. 인자 살림을 내한테 이전했으이 간섭을랑 마소.”

“그러머 그라겠다.”

그래 놓고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자기 시어른 환갑인데, 갑일^{甲日}인데, 큰집이 들력 가가지골랑,

“큰아버임요.”

“와?”

397. 거추장스러워

“우리 논 저거 마 사소.”

“응? 너거 논 파나?” 쿠거등.

“팔아야지요. 아범 갑일도 해묵고 이래가 아매도 팔아야 될시더.”

“그 참말로 팔라나?” 쿠거등.

“파지러요.”

“질부야, 팔걸랑 내가 이 돈 적당한 금에 더 주꾸마.”

“언지예, 큰아버임, 그거는 싫습니더. 똑 정당한 금만 주소. 주는데, 돈을 주지 말고 곡
석을 받아야 됩니데이.” 쿠거등.

“아, 곡석 주고 말고. 우리 고방에 나락이 몇 천 석은 들앓아 있는데 곡석 주지.”

그래 해 놓골랑, 그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골랑 마 아파 죽는다고 내리 구분다. 신
랭이 가마 보이, 각중에 큰집에 갔다오디마는도 죽는다고 구불고 야단이거등.

“이 사람아, 각중에 와 이러노?” 쿠이까네.

“아이고, 말 마소. 나는 죽는다.”

“아 사람아, 와 그리 죽노? 약이 안 있겠나 말이다.” 이라이까네,

“내 병에 묵을 약이 한 가지뿐인데, 당신이 그 약을 구할라 쿠먼은 말하고 몬 구한다 쿠
며 내 죽는다.” 쿠는 기라.

참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산중 보배동아’ 쿠고 마느래를 봐 났는데, 죽으며 큰일이거등.

“에라 마, 어야든지 내 자네 말 들을 모양이까네 약藥마 가르쳐 두가.”

“딱 한 가지뿐이라.” 쿠거등.

“뭇 약이고?” 쿠이까네,

“이거는 비밀이 새면은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비밀을 지키면 이약하고 비밀을 안 지
키면 이약 몬 한다.” 쿠는 기라.

“뭇, 비밀 지키지려. 당신강 나강 똑 둘이마 알고 비밀 지킨다 말이다.”

“명세하나?” 쿠거등.

“명세한다.” 쿠거등.

“그럼 내 이약하지요. 어디 가가지골랑 누런 진대³⁹⁸ 한 바리만 무우면 내 빙이 낫는데,

그거를 고아가 무야 사는데, 그거로 내가 몬 구해가지고 내가 죽는다.” 쿠거등.

“이 사람아, 그기사 뭐 예렵잖다 말이다.”

“그렇지마는 당신이 동지 쉼달에 어데 가가 진대를 구하노 말이다.”

“아, 내 구하지리.”

예전에사 진대가 천지거등. 그 이튿날버텨 남 모리게 자리 하나 앞구리 차고 팽이 하나 돌라미고 돌담무래기마다 파 디비이 참 한 마리 있어요. 굶고 누런 진대 한 마리 붙잡아 자리에 잡아 Ying가지고 남 모리게 밤에 와가지골랑,

“이 사람아, 이거 한 마리 구했다.” 쿠거등.

“하 그런교?” 고마 아프다고 구부다가도 마,

“하, 인자 내가 살았읍니더. 댜습니더.”

이념으로 고와 묵는다 하고 남편도 모리게 살찌기 도장에 갖다가 큰 다부래기 안에 집어 Ying 놓고 뭐 먹이 좀 주고 키우거등. 그럭저럭 시어른 환갑이 닥쳐오는데, 내일 모레 시어른 환갑인데, 큰집에 쫓아 가서,

“큰아범요.”

“와?”

“우리는 그럭이 좀 모지래는데, 그럭 좀 채(꾸어) 줄랑교?”

“아이구, 채 주고 말고.”

“그러머 주소. 저가 이고 가구로.”

“뭐 이고 가다께? 뭐 그런 소리 하노? 우리 종년들 여어 천지빠까린데(아주 많다), 전부 다 지캐가(지워) 보내고 이캐가(이워) 보내이까 니는 마 가라.”

쿠거등.

“아, 예.”

그래 논값으로 나락을 섬띠기로 몇 섬 받아다가 고방에 갖다 채 놓골랑, 환갑해 묵는다 고 큰집 종년들캉 짝 와가지고 음식 한다꼬 날락들락하고 이라거등.

그런데, 그 집 며느리는 내도록 고방에 드가가지골랑 좀 있다가 나오고, 드가가지골랑 좀 있다가 나오고, 고방에 자꾸 날락들락하거등. 종년들이 보이까 이상시럽거등. 그래 며느리가 나가뿐 뒤에 가 커다는 다부래기 들시이까네 누런 기 말이다 따뱅이를 이래 실 실 틀고 떡 앓아가 있거등.

종년이 보이 아뻘사 싶우거등. 큰집 저그 엽이가³⁹⁹ 적은집에 가뻘다 말이다. 종년이 헐 레벌떡 상전한테 갔다.

“아이, 서방님, 큰일났습니더.”

“뭐가 큰일났노?”

“우리 엽이가 적은집에 가가 있는데, 다부래기 안에 들시 보이 진대가 따뱅이를 틀고 앓았는데, 참 엽입디더.”

“아이구, 이년들아, 내가 인자 망했다. 내가 인자 망했다.”

그래 질부를 불러가지고,

“질부야, 그거 두가.”

“큰아범, 뭐요? 백지 그런 말씀 마소.”

환갑을 거관지기 하고 전부 갈라 믹이고 일로 다 치골랑 한 삼일쯤 돼가지고 영감이 또 질부를 부르거등.

“질부야, 그거 두가.” 쿠거등.

“뭐 말인교? 백지 이 어른이 와 그런 소리 자꾸 해 쌓는교?”

“와 그거 있잖아. 다부래기 안에 그거 있잖아.”

“예, 그거요? 그러 안 됩니더. 그거 우리 복인테 안 됩니더.”

픽 가뿌고 종놈들로 부르거등.

“야 이놈들, 당장 오라 말이다.” 떡 불러가,

“이념들, 너저 저 나락을 적은집에 줄 직이 되가 쫘나, 섬띠기로 그냥 쫘나?” 이라거등.

“섬띠기로 그냥 띠가 전부 쫘니더.”

399. 엽이, 집 안에 사는 큰 진대를 흔히 엽이라 생각함

“에이, 이념들, 하며 그렇지. 그 섬에 따라갔구나. 섬에 따라갔구나.” 업이 따라가는 거
우야노 말이다. 그래 질부로 떡 불러가지고,

“논 열 마지기 주끼⁴⁰⁰ 바꾸자.”

“에이구, 안 됩니더. 우리 복을 그래 그러며 되는교? 안 됩니더.”

“오십 마지기, 오십 마지기.”

“에이구, 오십 마지기도 안 됩니더.”

“백 마지기 주꾸마, 백 마지기.”

“어데, 안 됩니더.”

바짝 다네.

“질부야, 내 살람 딱 반 갈라 주끼.”

“안 됩니더.” 안 된다 쿠거등.

“그럼 마 내 살림 열 마지기마 놔두고 니 다 가야 가라. 내 논문서 다 주꾸마. 줄래?” 쿠거등.

“그라께요. 이것마 하며 우리 묵고 살 끼고, 마 그랍시더. 그러며 열 마지기 놔 두고 전
판 논문서 주소.” 딱 받아가지고 계약 아무게 해가 와가지고,

“인자 가져 가소.”

중념들 와가지고 미고 갔다.

갖다 놓고, ‘인자 찾았으이 내 논 열 마지기 이것마 하며 우선은 묵고 살 끼고, 자꾸 살림
이 느이까네 뭐 문제 있나. 이거 뭐 저저 줘도 개않다.’ 떡 이래 있다.

한 열흘 지내고 어애 뒀는고 싶어가 떡 열어 보이까네, 푸욱 씹어가 냄이(냄새)가 폭 올
라오거등.

“아이고, 나는 망했다.” 쿠고 이념우 영감쟁이가 푹푹푹 구불고 내리 땅을 치거등. 그
래 적은 집에는 그거 가야 가가지고 자꾸 논을 사 대는 기라. 천석꾼 살림을 논 열 마지기
놔 두고 다 가야 왔으이까네 자꾸 논을 사는 기라. 십 년을 샀대요. 십 년을 지내고 며느
리가 남편한테,

400. 줄 것이니

“여보소, 오늘 떡쌀 도오 섬 담구소.”

“이 양반아, 떡을 두 섬이나 해가지고 뭐하노?” 쿠거등.

“마 뭘 하거나 마나 떡살 한 도오 섬 담구소.”

그래 떡쌀로 한 도오 섬 담구고, 달(닭) 몇 마리 잡고, 술 몇 되 사고, 이래가지고 거창이
해가지골랑 이튿날 종님들 짚어지키가지골랑,⁴⁰¹

“큰집에 갑시더.”

논문서는 전판 모르고 자기마 알고 있는데, 좋은 술로 해가지고, 논문서는 가지고 큰집
사랑에 가가,

“큰아버임, 계시는교?” 쿠이까네,

“누고?” 쿠거등.

“저시더(접니다). 저시더.” 쿠는데, 질부 꼬라지도 보기 싫거등. 그래 떡 드가가,

“술이나 한 잔 잡수라.”꼬 이래 하고, 논 문셀 떡 내가지고 인자,

“큰아버임 논문서 큰아버임 하소.”

“질부, 참말로 날 주나?” 쿠거등.

“아, 참말로 드리지 거짓말로 드릴 택이 있는교? 큰아버임 논문서 큰아버임 하소. 큰아
버임 논 전부 큰아버임 징기소.⁴⁰² 나는 큰아범 논 아이라고 인자 묵고 살 만하이까 큰아
범 하소. 그 와 백지 그래 흑탐⁴⁰³을 뭐할라꼬 내는교? 이래 하며 형제간에도 다 잘사는
데 뭐할라고 저 동성으는 몬살고 그래 큰아버임마 잘살라꼬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논 서마지기꺼정 뭐할라고 모루는교? 이래 하면은 큰아범도 잘살고 우리도 잘사는데,
양편이 잘사는데, 와 그리 욕심을 내는교?” 쿠더란다.

그래가 그 뒤에는 시아바씨고 남편이고 큰집 백부고, 마 질부 말이라 쿠며 콩을 쥐고 팔
입니더 캐도 다 들어 주더란다. 그래가지고 양위 형제간에 부귀영화하고 잘 살았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401. 짚어지워서

402. 가지십시오

403. 탐욕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영감 할마씨 사는데, 며느리로 봐 놓으론 시어마시가 한 달도 못 돼 쫓아 보내고, 쫓아 보내고 해.

이웃에 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며느리로 불러 카는데, 부모들이 흉악타고 딸로 안 치울라 쿠는데, 처자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치우라.”고.

그래 치아 놓이, 시집갈 때 다듬이방망이를 두 나로 다듬어가 조맹이를 끝이 안 버어지도록⁴⁰⁴ 두나씩 싸 담아 치매끈에 차도록 매 주라 쿠거든.

그래 시어마시칸 사는데, 시어마시가 밥 풀 때 되몬 똑 들와가 며느리로 밀어내뿌고 밥을 푸고 이룬데, 며느리가 인자 질들일라고 치매 밑에 방마치로 떡 차고 시어마시가 솥에 얹드리가 밥을 푸몬,

“어무이요, 가시이소.” 쿠미 자꾸 방맹이로, 쿡 지이박고 하이,

“아이구, 이 년이 날 때린대이.” 이리이께나,

“나가시이소, 나가시이소.” 카미 그마 옆구리로 지이박으이,

아랫방 사랑에 영감은 처억 지키고 있는데,

“아이구, 영감…”

“아이구, 이년이 날 친대이.” 이리 쿤까이,

“또 할매가 며느리 쫓겠다.” 쿠음서 마 내다보도 안 해.

자꾸 이리 지이백이⁴⁰⁵ 놓이 할 수 없어 포장을 치고⁴⁰⁶ 방에 가 이불로 탁 덮어 쓰고 죽는다 쿤서 꿈꿨 앓고 누웠다.

404. 주머니를 끝이 안 벗어지도록

405. 쥐어박혀

406. 악을 쓰고 고향을 치고

며느리가 아직 묵고 설거지로 하고 아직 잡수라 캐도 안 잡숫고 막 죽는다고 있는데, 시아버시는 모린 채 가만 사랑에 앉아가 누웠는 데다가 아직 묵고 어무이 편찮다고 닭로 한 마리 잡아가 들랴 줄란다. 쿠음서 닭로 한 마리 잡아가 푸욱 삶아가 그릇에다가 다뽕 퍼가지고 시어마시 눅눅는 짬에 가가지고 떠 주거든. 아적은 안 묵었제, 배가 고프제, 묵고 쫘은 냄이가 코에 스미고, 싱긔 싱긔 윗거든.

“이거 뭐꼬?”

“예, 닭입니다.”

“그거 맛이 있는 내(냄새) 나네.” 이러 카거든.

“잡술랑기교?”

“한번 묵으 보몬 좋겠다.”

“예, 잡수소.” 그냥 드렸다.

흔컨 잡숫고 나이, 땀을 주을 흘리고 맛도 좋거든. 그래 놓으인까네, 마 툃툃 털고 일어나고 며느리한테 생전에 마 잔소리도 안 하고 그래 잘 살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버릇없는 아들 길들이기

옛날에 참 몬 살아가지고 외파로 저 산골짜에 솟을 꼽어가 생활하고 참 모양 없이 사는 데, 아아도 많이도 못 놓고 이래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처음 하나 낳아 놓이

얼때나 귀한지, 그 놈우 골짜에서 요새맨치⁴⁰⁷로 테레비로 보나, 망구 뭐 심심커등. 인자 일할 때는 해도 쉬는 시간에는 그 놈을 저 귀하다꼬,

“저 너거매⁴⁰⁸ 한 차리 때리라.”

“너저 아배 저거 때리라.”

그기 질이 돼가지고(길들여져) 자꾸 그 짓을 하는 기라. 그래 나가 한 열 칠 팔 살 이래 무우서 장골 장사감인데, 아파서 몬 전딜 판인데 자구 때리이 말이지.

그레가 ‘이거 큰일았다. 저 녀한테 인자 맞아 죽었다’ 싶어가, 하루는 노자를 좀 채리가 지고,

“니 저 여러 키(여러 사람) 사는 그 녀른 데 가가지고 자고 한 이틀 쉬가 놀다 오너라.”

이러고 보내 났는데, 참 골짜기 있다가 여어 언양쫘만 나와도 골짜에 혼자 있다가 나와 보이 마 희한하다 싶우거등. 그저 인자 열 칠 팔 살 무우이 시근識見이 좀 들 때가 됐고, 또 원채 몬 가르쳐 그렇지 그 머리가 그렇지 둔하지는 안 하던 모양이라,

남 하는 거 보고 퍼뜩 깨달은 거 보이. 그래 딴 사람들 가마(가만히) 하는 거 보이까, 아주 참 부모들한테 이거 뭐 참 어찌 공손키 하는지

‘나는 이거 집에 있으면 아부지 한 차리 때리고, 어머이 한 차리 때리고 늘 그래 했는데, 저 와 저라는고?’ 싶어가 같이 놀면서 얘기도 하고, 얘기를 해 보이까네 가아들이

“그 부모가 그 예릴 때부터 키운 공을 다 갚지는 몬해도 마음적으라도 고맙게 해야 된다.”고.

아이, 그런가 싶어가 이틀을 쉬어가 집에 와가지고, 갔다 오디 인사를 전에 할 줄을 몰랐는데 인사도 하고, 갔다온 뒤에는 때리는 거 본 일 없고 어찌 잘 하는지, ‘아, 자식은 참 사람 많이 사는 예 가가 키아야 되지.’ 카더라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407. 요즘처럼

408. 네 엄마

버릇없이 기른 아들 길들이기

예전에 현풍 곽씨가 아들로 단 하나 두고 저 산중에다가 내외간에 팔발을 뛰지가 묵고 사는데, 팔발 뛰지다가 오몬 한 서너 살 묵은 기이,

“아무것이야, 아빠 가 때리 줘라.” 그래 부울 가가 아빠로 때리고, 또 아빠는,

“아무것이야, 엄마 가 때리라.” 또 엄마로 때리고, 그러구로 한 이십 살 먹두룩 키았는데, 나무를 한 짐 해가 와도 짝대기로 가지고 즈그 아빠 때리고, 또 즈그 엄마 때리고, 그러이 인자 마 감당을 못 해요.

장개로 보내몬 게 안 글런가?⁴⁰⁹ 그래 가 장개로 보내 놓이 장개를 보내 놔도 또 그래요. 며느리 친정에 처남이 있는데, 불러다가 부모한테 불효를 못 하도록 할 밖에 없다고. 그 래 처남이 제매를 텔고 가가 부모님 식사하는 밥상에다 앉아가 고기를 빼⁴¹⁰는 추리고 살 코기는 엄마 아빠를 드리고, 식사 끝에는 거어 앉았다가,

“편안히 주무시라.” 쿠고 나가고, 아침에 자고 나몬 인자,

“편안히 주무신는교?” 쿠고 그 처남이 제매 텔고 한 달반 간⁴¹¹ 아직 저녁으로 그래 놓고 집으로 보냄서,

“꼭 내 하듯이 이래 해야 된다.” 켜다. 참 나가 한 사십 되도록 불효를 했는데, 그래 집에 보내 놓인까지 참 아침으로 아버지 자고 나몬 똑 가가지고,

“아부지 잘 주무셨는교?”

저녁에는,

“잘 주무시라.” 쿠고 이부자리 다 폐 주고 아직에는 가가지고 이부자리 걷고, 밥상 받아 가 참 빼는 추리 내고 인자 속살만 그리고 사십에 효자가 나더라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임순, 상북면, 1984]

409. 그것이 안 그러려는가

410. 생선가시

411. 한 달 반 동안

방탕한 아들 길들이기

어떤 선비님이 계시는데, 아들을 하나 뒀는데 밤낮을 주색방탕을 해요. 맨날 기생의 집에 가고, 술집에 가고 마상馬上을 해가 말로 타고, 항상 살림을 다 놓치는 기라요.⁴¹²

그래 그 선비님이 암만 그 아들한테 알아듣기 해도 안되요. 그 선비님이 하로는 ‘에라, 내가 자식이라도 소위 애비가 저만치 시키도 내 말을 안 들으이 내가 자식한테 손님처럼 대접을 할 백에 없다.’ 아들이 기생집에 갔다 말을 타고 오는데, 대문간에 떡 나서가 의관 관망을 해가지고 서가 인사하고,

“손님 다녀 오시는교? 욕봤습니다.” 인사로 하이 아들이 마 놀랄 일이라.

지가 살림을 다 버릴 정도가 됐는데. 그래 말고게⁴¹³ 내리가 아바씨로 붙잡고 방에 모시 들야 놓고 엎어져 통곡을 한다.

“아버님, 어째서 이러신교?”

“내가 너한테 아무리 타일러도 니가 애비 말로 안 들으이 내가 너로 손님처럼 대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 가 참 효도를 하는데, 하로는 말로 타고 어데 볼 일 보고 술이 갑신 췌가⁴¹⁴ 말 타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이 술로 췌가 타 놓이 어데 가는지 몰랐더이 이 말이 장 땡기던 기생의 집으로 가 비렸어. 말고게 오는 사람이 정신없이 술을 묵고 타고 들어 오이께, 그래 기생이 즈그 집에 만날 오는 양반이라. 그래 안에 들랴 방에서 잤다. 자다가 나니 즈그 집이 아니그든.

“이게 어데고?” 이라이께이 기생이 그전에 지 장 텨고 노던⁴¹⁵ 기생의 집이라. 그래,

“아무저습니다.”

“우째서 내가 여기 왔노?” 그래,

412. 살림을 망하게 한다

413. 안장에서

414. 많이 취해서

415. 자기가 항상 데리고 놀던

“말이 무고이⁴¹⁶ 선비님을 태와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끔 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 그 선비가 정신이 이제 돌아왔거든. ‘부모가 그만치 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날로 손님처럼 대접을 할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이, 에라 내가 저 말로 짝이 뿌우야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그래 그 말로 참 칼로가 찢러 짝이 뿌렸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임순, 상북면, 1984]

암행어사 박문수 (1)

옛날에 박문수가 때오장치⁴¹⁷ 째어지고 수문하러⁴¹⁸ 한 곳을 지나가이까네 흰등 가마가⁴¹⁹ 하나 오는데, 가마도 서문 문수도 서고, 가마가 가문 문수도 가고 그래. 박문수가 살펴보이까네, 요놈의, 흰등 타고 오는 부인 각시가 부모상이 아니몬 신랑상일끼고 친정상이나 요래 상준데, 지집년이 요래 들어 앉아가 분을 바르고 머리를 싹다듬고 요라거든.

박문수가 ‘조 년 조계 수상한 년일기다.’고 그 가매 따라 가이, 큰 대상가집 앞에 대문에 썩 드가디만 가매를 내려 놓으이 각시 고계 빈소에 드가가,

“에에에.” 울어 쌓는데, 문수가 들어 보이까네 우는 기 아이고 윗어(웃어). ‘저 년 조 년이 수상한 년이구나!’

그래 문수가 그날 저녁을 먹고 변소 가가 가만있으며 수문을 해 보이, 뽕가오 곁은 한

416. 무단히

417. 띠풀로 엮은 오쟁이, 작은 섬

418. 수소문하러

419. 상주喪主가 타는 가마

놈이⁴²⁰ 퍼떡퍼떡 담을 뛰어 넘어오거든. 그 사람 따라 문수가 따라 드가이, 연당 안에 별당 안에 딱줄로 배로 타고 그 놈이 쑥 드라뻘거든. 눈섭물리⁴²¹에 가가 가만 숨어 있으이까네 고 놈이 고 별당 안에 드가디마는 그 여자강 희룡을 하는데, 마 유명하거든.⁴²²

별풍이 좀 뚫어진 기 하나 있는데 배곶에 문에 추물로⁴²³ 묻히가 들어다보이 아주 젊은 놈인데 서당물 묵는 놈이라.⁴²⁴

눈여기 봐 놓고 ‘조 놈이 아매 서당물 먹는 놈이네.’ 쿠옵서 밖사랑에 돌아와 잤어.

박문수가 장원급제해서 벼슬 할라고 서울로 올라가이까네 중간에 빼빼한 초록딩이^{草笠童}가 하나 말로 타고 초롱초롱 내려오거든.

“아이고, 선비, 어디 갔다 오시는교?” 쿠이까네,

“아, 나는 서울에 과거보고 온다.” 쿠거든.

“아 나는 인자 보러 가는데, 당신은 벌어(벌써) 보고 오는교?” 쿠거든.

“아이구, 과거 벌어 끝났심더.”

“끝나요? 그래 글귀가 뭐던교?”

“아, 글귀가 무슨 글귀, 무슨 글귀, 무슨 글귀.” 그래 외거든. 외디마는, 끝에 두 글귀를

“아이고, 고거는 뭐더라.” 이 놈우, 안 갈차⁴²⁵ 주거든. 박어사가 딱 외가 가,

“그래, 당신 어디 사는교?” 쿠이까네,

“예. 나는요, 수영동 삽니다.” 이리 쿠메 그 초록딩이는 내리갔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기라. 그래 문수는 서울 올라가서 과거볼라고 시작는데, 고 초록딩이 외는 글귀로 딱 기억해가 있다가 끝딩이에 ‘아이고 내 모르겠네요.’ 쿠는 거는 문수가 지아 고래 글귀로 적어 영고 내려오는데, 그 상시관^{上試官}들이 글귀로 펴보디마는,

“이 글귀가 이거, 사람 지은 글귀가? 이 구신^{鬼神}지은 글귀거마는야.” 사람들이 이라거든. 이라이까네, 한 사람이 앉았다가,

420. 체구가 큰 놈

421. 창밀 마루 가

422. 굉장하다

423. 병풍이 좀 뚫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깥문에 침을

424. 서당의 훈장이거나 서당 교육을 받은 유식자라

425. 가르쳐

“아이고, 그 끝탕이 사람 지은 글귀, 그 몇 귀 있네.” 이라거든.

그래서 담방 급제 도장원을 해가 내리올 적에 그 올라가는 그 집을 내려왔어. 그 집을 떠오장치 쉼어지고 걸뱅이때로 해가 내리오이까네 그 집이 그 날 제사가 드는기라. 그 눈고 쿠이까네 흰등 타고 오던 그 집 며느리라. 무녀독자 아들 하나 며느린데, 호석虎食을 했는지 아들을 산 양으로 잃어뵈는데, 그 며느리 그기 신랑 나가 없어진 날로 제사지내는 기라. 친정에서도 제로⁴²⁷ 해가 오고 제사지낸다고 날리거든.

어사또가 제사지내는 데 보고서로,

“동네 서당이 있느냐?” 물은께네, 서당이 있다 쿠거든. 서당에 가만히 가 보이 전에 밤에 보던 고 놈이 있는 기라. 고놈 딱 결박해가, 잡아와가,

“하늘 알고 니 알고, 내 알고 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이 알았는데, 이 무슨 일고?” 발명을 하는데 이 놈이 지랄 안 하겠나.⁴²⁸

“내가 무슨 죄 있어 잡아가느냐?”고.

결박해 와가지고 제사지내는 데, 흰등 타고 온 그 안들⁴²⁹ 끄잡아내가지고 둘이 추일을⁴³⁰ 받으이까네, 고기 간부라. 친정서 따라와가지고, 무녀독자 그 신랑 본서방으로 칼로가 목을 찢러가 죽이 가지고 연당에 엮어 뵈어. 그 놈을 추일을 받으이까네,

“거어 엮어 뵈다.” 쿠거든. 그 년 놈 둘이 시키가 연당 치라고 하이께네 일년만에 세상에, 하나도 안 썩고, 칼도 목에 꼽았는데,

그 년놈을 보고서로,

“으흐흐흐.” 이래가 있더라.

그래 그 집에서는 호석했다고 제사지냈는 기라.

그 놈을 사형하고 그 년도 사형했겠지. 그래가 박문수 박어사가 그 원썩을 그 하소를 그분을 풀어 줬다 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426. 과거보러 가다가 만난 집을

427. 제물로

428 부인하고 야단을 칠 것이다.

429. 여자

430. 심문을

암행어사 박문수 (2)

윤진사집에 아주 꽃 같은 며느리로 하나 데려다 났는데, 큰집에 제사가 드는데, 저 방에 커다란 독물리⁴³¹를 놔놓고, 새 며느리 텨고 온거로,

“미영木花 갈리레이.”

쿠고시리 큰집에 제사 지내러 전부 다 갔어. 새로 온 각시가 갈리는데, 시아바씨가 잠시 점심 자시러 갔는데, 삼지걸에⁴³² 중이 하나 동냥하러 왔어.

“동냥 왔심더. 미영 동냥하러 왔심더.”

쿠이까네, 각시가 광주리에다 미영을 딱 담아가 허남에⁴³³ 딱 내놔거든. 이 놈우 중놈이 기들어 와가지고, 음탕한 마음을 묵고 광주리고 뵈이고 각시로 강탈 할라고 달라 들었는 데 발광을 해가 안 들어주니까네, 칼로 폭 찢러 각시를 죽이 뿌고 달아나 뵈거든. 고때에 시아바씨가 큰집에 갔다가 며느리 줄 거 싸갖고, ‘이 놈 아아들이 우에 뵈는고?’ 점심 자시러 와 방에 드가가,

“야야(이 아이야) 있나?”

“아이고, 오시는교? 다녀오시는교?” 뭐 나올 긴데, 기척이 없는 기라. 그래 시아바씨가,

“야야, 자나?” 쿠머 살짱에 가서 들봐다보이, 유혈이 낭자하이 칼로 찌어가 죽어가 있거든. 그러이까네, 시아버지,

“아이고.” 그러면서 며느리의 몸에 박혀 있는 칼을 빼어내지 않겠느냐?

고때 마침 주막쟁이 안들이 하나 쌀 팔러 왔어. 고래 고 형상을 보고,

“시아바씨가 들어가지고 서러 겁탈할라 쿠다가 저 며느리 말을 안들어가 죽있다.” 요래 마 말로 뵈거든.

431. 하나 별도로 놓아 둔 큰 물레

432. 사립문에

433. 바깥에

고래 놓이까네 꼽다시⁴³⁴ 시아바씨가 누명을 덮어 씌고 잡히 갔어. 친정서 달라 들어가 살인자사殺人者死라고 죽인다고 절단나고 시아바씨 몫쌀 누명을 덮어 씌고 옥중에 갇혀 있단 말이지.

이런 적에 박문수 박어사가 어데 땡기면서로 수문하는데, 중을 하나 만냈는데 이놈이 보이 수상하거든. 이놈을 텨고 주야장천 근 일년 동안으로 땡기며 동거동식을 하는 기라.

중놈이 늙어자몬 어사도 늙어자고, 중놈 가몬 가고, 친구매이로 옥친구⁴³⁵가 돼가지고 아주 만만쿠로⁴³⁶ 못하는 말이 없어. 둘이 걸뱅이맨치 해가 땡기는데, 밤에 비가 축축하 이 오는데 어느 주점에 드가가,

“이 놈우 자석아, 천날 만날 중질 하모 니 오입 한번 해 봤나?” 이래 씨다루인까네,

“아이구 치, 내가 중질하몬 오입 한 번 안 했을까봐.”

“어디 했노?”

“아이구 치.” 인자 만만은께⁴³⁷ 바른 말 하는기라.

“저 윤진사집에 아무데 거어 가가지고 하, 고 년 약간 했으몬 오입할 낀데, 그 년 발악...” 이라거든. 그래 가,

“어데 사노? 어느 절에 사노? 어데 있노?”

소소히(소상히) 알았지, 뭐. 똥구멍 밑살꺼지 다 알아가⁴³⁸ 중 내비러뿌고 윤진사집에 가이꺼네 그 모양이 돼가 있는 기라. 아바씨가 형제간이라 동생이 엉캉 옥중에 오래 있어 죽기 돼가 그날은 백씨伯氏가 대로代身 살고, 조금 환患을 쪼매 풀고 할라고 약을 지아가 신랑인 초록당이草笠童가 방에 드가는데, 시아버지가 몫쌀 누명입었제, 구래拘留살았제, 근심을 하고 옥중에 있다가 나온 형편 없는 꼴을 해가 있는데, 그래 박어사가 드갔다.

“나는 아무데 아무데 땡기는 천지무과거로 땡깁니다.⁴³⁹ 우째서 이렇습니까?”

쿠이,

434. 고스란히

435. 서로 욕설을 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벗이 되었다

436. 격의없이

437. 스스럼없이

438. 중의 신상에 대하여 몽땅 다 알았다는 말

439. 정처없이 과객으로 떠돌아 다닌다

“약시 약시하고,⁴⁴⁰ 세상천지에, 내가 몸썰 누명을 입고, 죽어도 내가 한이 없는데, 누명을 벗고 죽으면 좋겠다.” 이라거든. 그래 보이, 그 집이라.⁴⁴¹

“참, 이런 일이 있느냐?”

당장에 살인자 진사 죽인다고, 온 동네가 온 면민面民이 난리 났는데, 어사또가 들어서 합천 해인사 가가지고 중 딱 잡아다가 결박 시키가지고 술술 바른 말해가, 누명을 벗기고 해결을 했는데, 윤진사집은 누명을 벗고 그 집 초록당이는 장개가가 잘 살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은양면, 1984]

원수를 갚아 준 과거꾼

옛날에 서울 과거科擧하러 갈 때 육로로 산길로 산길로 이래 걸어가이, 이 앞에 가매가 한 채 가는 기라. 따라가다가 쉬는데, 가매 안에 각시가 앉아 자꾸 요리 뺄뺄 내다보는데, 하야이 소복을 해가지고 인물이 그래 잘 났더란다.

옛날에 양반집에 어데 창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보나? 참 이상시럽어. 그래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뒤에 따라가는데 정승의 집에 드가는 기라. 정승의 며느리가 친정갔다가 쉬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 집에 아들 하나 키아가지고 사다가 아들로 잃어뿌고 며느리랑 둘이 사는데, 그 집에 떡 찾아 들어가이 정승이 계시거든. 그래 인사를 하고 사랑방에 들어가이 있으이 정승이

440. 이러 이러 하고 이렇게 되었다

441. 중이 말하던 그 집이다.

아들 잃어뿌고 마 지망가망해가 있는 기라.⁴⁴²

통시간⁴⁴³에 가는데, 축담에서 보이 무엇이 담장을 넘어 넘어 오디마는 별당이 있는 그 쪽으로 살살기어서 가. 간을 보고,⁴⁴⁴ 밤에 잠을 자이 꿈에 선몽顯夢을 대는 기라.

“내가 이집 아들인데, 우에튼⁴⁴⁵ 과계로 해서 내 원수로 갚아 달라. 내 육체는 연당에 들어있는데 나는 육체가 하나 상처도 안 하고 석달치나 나는데 고대로 있다. 내 원수로 갚아 주라. 저 서당에 가든 공부하는 서당꾼이 많이 있는데, 과계로 해가 올 때 그 서당꾼을 불러다가 우리 마당에다 쪽 갖다 앉하 놓몬 그 머리에 흰 나오가⁴⁴⁶ 하나 앉을끼라고, 그 사람을 잡아 엮치든 바른 말을 할끼라. 너 날 원수로 갚아 도라.”

그리고 글로 몇 자로 뵈이 주옵서,

“과거 시험 치거든 그 글자만 쫓으든 합격이 될끼라.”

꿈이 이상하거든.

하여튼 일어나서 정승한테 인사로 하고 참 뚝 그대로 과거로 하이까네 합격이 됐어.

그래 오다가 거어 들어가 어사출또를 했는기라.

거어 서당꾼을 불러다가 마당에다가 뽕 둘러 앉하 놓고 또 그 집 며느리도 거어 불러다 앉하 놓고 추달로 받으이⁴⁴⁷ 처음에는 전부가 다 잡아띠거든.⁴⁴⁸ 그래 보이 흰 나오가 하나 딱 앉는 기라.

“그래 그 사람 불러내라. 그 놈을 거어 엮치라.”

그 사람을 거어 엮치이 제가 그랬다 쿠거든. 연당에서 신체로 내이 하나 상토 안하고 자는듯이 고대로 있더라. 그래 그 참 과계꾼이 원수로 갚아 줬다 칸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442.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443. 번소

444. 어떻게 하는가 동정을 보고

445. 어떻게 하든지

446. 나비가

447. 심문을 하니까

448. 부인하거든

누명을 벗겨 준 암행어사

옛날에 산골 중놈이 음송하이⁴⁴⁹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라.

며느로 갓 봐가지고 혼재 놔 두고 시아바시 어른들은 어데 볼 일 보러 가고, 아들은 인자 밖에 조금 할 일이 있어 나가고, 며느 혼재 목화로 갈리고 앉았은께 중이 대문 밖에서 들어와가 동냥 주라 카거든.

옛날에는 누가 와도 새댁들은 말도 안 하고 이런데, 인기척이 없으이 중이 차차차차 마당에 들어오이 신이 한 커리 딱 있거든. 마 문을 퍼뜩 열고 보이 새댁이 있은께 강탈할라고 쫓아 들어갔는데 지 맘대로 안 되이까네 마 칼로 폭 찢러 뿌고 그 집 매느리가 죽어 뵈다.

중은 나가고 시어른이 문을 여이까네 선혈이 낭자하고 매느리가 죽어 있거든. 그러차 이봇 사람이 또 와가 보이까네 매느리 방에서 나오는데 피 칠로 해가 나오거든. 마 이봇 사람이 말로 내 뵈다.

“아이고, 저 집에는 시아바이가 매느리로 죽었다.” 이리 뵈는 기라. 증거도 하나 없제 그래 면할 수가 없는 기라.

어사가 고을마중 땡기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로 염탐을 하는데, 암행어사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누명을 쓴 것 같아서 진범을 찾아서 나섰다는 말이다.

그래 어사가 그 어데라고 가다가 보이 중이 하나 앞서거든. 그러구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노 싶어서 이바구로 받고 이래 오는데, 일무日暮가 다 돼가 하리 저녁을 같이 자게 돼. 친구 삼아 우수기도⁴⁵⁰ 하고 이 모양이 뵈는 기라.

“우리 이바구하자.”

449. 음흉하게

450. 우스개도

“그래 무슨 이바구 하꼬?”

그래 서로가 인자,

“아이, 니부터 이바구해 보라.”

처음에 어사가 일부러 그 이바구 나오도록 한다고 고약한 이바구로 하나 지아가,

“내가 옛날에 어테라고 가 그 사람을 하나 죽었다.”

“아이구. 그것 참…” 중이 하는 말이,

“그것 참 난도 그런 이야기 있다.”

“이바구해 보라.”

“하이고, 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무데 거 와서 어제 아레 시집온 새댁이 내 말로 안 들어가 이 놈우 칼로 찔러 죽이 뻘었다.”

“그래 자거라.”

그 어른을 저 감옥에다 가다 났는 기라.

“이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며느리자식을 그래 죽었인까네 니도 죽어야 된다.” 이리 뻘었는데,

그래 그 어사또 중놈을 잡아가지고 그거 밝히서 그 시아바시가 그래 면하고, 그 원수로 갚아 주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원혼이 된 아내를 살린 남편

아바씨가 참 좀 우둔한 사람인데, 딸을 하나로 키웠는거라. 딸로 하나 키웠는데, 마 상 처喪妻로 해 뺐어. 할마이는 죽어 뿌고 할 수 없이 할마이로 얻어야 안 되겠나? 상처로 했 으이.

그래 인자 저것도(전처도) 와가 딸로 하나 낳는 기라. 또 저것도 와가 딸로 하나 낳는데, 천상 큰 딸부터 치와야⁴⁵¹ 안 되겠나? 치올라 카이 심술로 노는 기라. 그래 인자 심술로 부리가 그래 첫날밤에 그 어테 근처든 갑더라. 제법 쪼매 멀었는가 우였는가 몰라도 상 방新房을 떡 채리 놓이, 돈을 죠가지고(주어서),

“칼로 휘두리고, 그 문 앞에 가가, 상방 채리 논 문 앞에 가가 칼로 휘두리고 ‘네이놈, 그 내 계집인데 손대지 마라’고 칼만 휘두리고 오너라. 그러몬 니로 돈을 얼마로 줄거마.” 이랬는 기라.

얼마를 줄거마 해 놓이, 그전에 아전들도 있고 종들도 안있나? 그래 그 놈이 가가 그래 놓이 신랑이 거어 손덜까봐? 덧정 없지. 큰 머리단장하고 화복단장한 고냥 뇌놓고 신랑 이 달아나 뺐다. 그만 달아나 뺐어.

각시가 원혼이 저가지고 고 질⁴⁵² 신랑 나가 뿌고 문을 딱 채 걸어가 잠가 뿌고 고 질로 말라 죽었는 거라, 인자. 그 질로 방안에 고냥 죽었는 거라.

죽었는데 그 인자 상처할 썸에 유모로 하나 정했는 거라, 유모로. 즈그매는 죽어 뿌리고 유모로 정해가지고 젖을 먹이가 키웠는 기라. 인자 구신이(귀신이) 돼가,

“딴 사람은 다 가나따나 유모는 가지 마라.”이거라. 마,

유모는 가지 말고, 밤낮으로 운데이, 이기. 혼이. 이 문으로는 세상 사람이 와도 안 끼라

451. 혼인婚姻 시켜야

452. 그 질로

(열어) 주고. 안 끼라 주는 기라. 안 끼라 주고 유모를 가지 마라고 울고 굶을 지기고 밤낮으로 울고, 피해가산 댔지, 뭐.

다 가 뵈는 기라. 다 가 뿌고 지(자기) 집 고거는, 지 앓았는 고거는 안 찌거러지고 고냥 있고 유모집은 인자 요짜(요쪽)에 있는데, 유모집도 고냥 있는데, 그래 몇 년이나 흘러서 그 동네는 마 구신 때문에 무섭어서 아무도 안 살고 인자 다 가 뵈다.

동네가 다 비 뿌고, 비 뿌고 인자 고래 가 있는데, 그래 이 남애가(남자가) 그 질로 가가지고 인자 지도 어데 가 벼슬하고 우예 났는지, 마마 인자 수 년 만에 찾아왔는 기라, 거게. ‘내가 그라고 왔디마는 우예 났는고’ 싶어서 한 번 와 뵈는 기라. 내가 그라고 왔는데 우예 났는고? 그래 거어 와가 묻는 기라. 그래 인자,

“여차여차 하고 그랬는데....”그래 유모가 어떻다고. 그래 유모도 인자 백발늬은이가 났지, 뭐.

“그래 여차여차 하고 그래 이 동네가 우예 이래 났노?”이래 물으이까네,

“여차여차 하고 옛날에 어떠 어떠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 다 가고 없는데, 다 가고 떠나 뿌고 없는데, 하도 날로(나를) 가지 마라 캐서 나는 요게 산다.”이리 났는 거라.

유모는 가지 마라 카는 거라, 마. 무조건 가지 마라 카는 거라. 그래 가 있으이까네, 아 울음소리로 내고 오거든. 청성을 뜯는 곁이 울음소리로 내고 인자 오는데, 그래 가,

“아이고, 온 저녁에는 누가 왔노? 손이 카는가베?”카고 밖에서 울고 가거든.

울고 가이,

“그래 우째 났노?” 카고 참 선배가 묻는 거라. 그래 물으이,

“그래 여게 옛날에 여차여차 하고 그래 서모가 여차 했는데 그래 가 그 구신이 아적꺼 정(아직까지) 붙어가 문도 한 번 못 열어 본다. 문도 못 열어 보고 있는데, 그래 날로 못 가구로 해서 우리 집에 영감 할마이가 여어 있다.”

그래 영감 할마씨가 그리 사더란다. 그래 마침 신랑이 와서 문 열어 주거로. 그날 저녁에 거어서(거기서) 작 그 이튿날 날로 새고,

“가자.” 이랬는 기라. 남자가 가가 문을 열어 보이 그래 참 문이 열리더란다.

문 열라 카이 문이 열리는데, 그 참 화복단장하고 쪽도리 쓴 고냥 딱 앉아 있더란다. 고

냥 원한이 저 앉아 있는 거라. 그래 인자 보고는 떠나라 쿠는 거라. 그래 인자 유모집에 갔다. 유모집에 가니까네, 밤에 인자 이튿날 아침에 또 왔거든. 와가,

“당신이 날로 만날라 카거들랑 날로 살라 주고 가라.”

“그래 우째서 살류겠노? 우에서 살류겠노?”

그래 저 뒷동산 저 우에 가몬 천질방우 곁은 방우가 있더라.

“그 방우 밑에 가가 석달 열흘 동안을 백일 불공을 해라. 백일 불공을 하몬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라는 거라. 구신이, 구신이 그라는 거라.

그래 가 인자 그래 마 톱 다 벗어 재치고 석 달 열흘 동안 불공을 한다, 인자. 백일 불공을 하는데, 석 달 열흘만에 인자 마자 가는 날 저녁에 방우 너메서러 도사가 허연 도사가 넘가다본는 거라. 도사가 넘가다보옵서 하는 말이, 인자,

“첨먼저는(처음에는) 니가 남자가 아니지마는 요번에 와서 하는 일로 보이까네 하도 참 기특하다. 그러이까네 그래 네가 날이 새거들랑 방우 너메 여게 가몬 구실이 시 날이 있다. 있는데, 그래 빨간 구실은 입에 다 칠하고 하얀 구실은 어데 하고 무슨 구실은 어데 해라. 하몬 살아 날거다.”카고,

그래 어떻게 꿈이라. ‘그래 참 이상하다.’ 이래 가 그래 잠을 깨고 인자 이튿날 방우 너메 넘어갔다. 넘어가이 참 구실이 시 날이 있는 거라. 있는 거로 가지고 와가 빨간 구실은 입에 칠하고, 하얀 구실은 배 요게 하고, 새파란 구실은 다리를 요리 하이, 이제 혈맥이 다 살아나는 거라, 인자.

그 참 거짓말이제. 순 거짓말이제. 그래 가 살아나가 그래 영혼이 살아나더라. 그래 살아 나가 그래 그 유모하고 다 텨고 그래 가갖고 살았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곡소리 듣지 않은 상복으로 여인의 원혼을 풀어준 지혜로운 원님

옛날 어떤 사람이 친상親喪을 당해서 삼년三年 시묘侍墓살이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무척 예뻐는데, 남편이 시묘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혼자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잠결에 보니까 남자가 상복차림을 하고 있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남자가 옆에 누워 자신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아내는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함께 하고 말았다. 그 달부터 태기가 있자 아내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시묘살이를 끝내고 돌아온 남편은 그 사이에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웬 아이냐고 물었다. 아내는 당신이 와서 동침하고 간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지만 남편은 펄쩍뛰었다.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자결하고 말았다.

그 후로 그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은 하나같이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고, 그 소문이 점점 퍼지자 부임해 오려는 원님도 없어졌다. 그래서 고을은 그만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때 어떤 대담한 사람이 자원해서 이 고을에 부임해 왔다. 부임 첫날밤 밤중이 되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면서 한 여자의 원귀冤鬼가 나타났다. 원님은 당당하게 찾아온 내력을 말해보라고 했다. 여자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흰 깃발을 꺼내어 세 번 흔들고는 사라졌다.

여인의 행동을 곰곰 생각하던 원님은 다음날 아침에 아전들을 불러, 자신이 동문수학同門修學했던 ‘백기삼白旗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아전들이 알아보고는 그런 사람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님은 그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방법이 막연했다. 고심하던 원님은 어느 날 백기삼을 찾아가 절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둘러대었다. 백기삼은 원님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원님이 자청해서 찾아와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로울 것은 없을 듯해서 마침내 원님의 진짜 친구인 양 행세했다. 원님은 틈만 나면 백기삼을 찾아가 함께 놀고 그를 극진히 대우했다. 그러자 백기삼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어느 날 원님은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백기삼을 찾아갔다. 백기삼이 무슨 일인가고 거듭 묻자 원님은 지금 당장 상복喪服이 한 벌 필요한데, 그 상복은 곡뿔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새로 지으면 되겠으나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럴 수가 없으니 난처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백기삼은 자신에게 마침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상복 한 벌을 내 주었다.

원님은 당장 백기삼을 붙잡아다 그 상복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추달했다. 그러자 백기삼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원님이 백기삼의 목을 쳐서 그 여인의 원혼을 위로했고, 그 후 그 고을에는 그 여자의 원혼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박시록, 삼남면, 1986]

원혼과 사천泗川 원님

사천⁴⁵³ 고을이 뷔이서 원이 하나 부임해 내려오는 판인데, 강물이 있어 원이 배를 타고 배사공이 건네가는데, 그 강 중간에 갔는데 여자가 하나 쫓아 오면서 손짓하며,
“날 좀 태워 가자.”고 자꾸 바쁘다고 야단 한께네, 원이 참,
“도루 건네가자.”고 배사공인데 도루 여자 싣고 가자고 그래. 싣고 오며,
“너 서방이 성이 뭐고?” 이러이까,
“예, 천갑니다.”
“천가, 천서방 모시몬 영감(남편) 천 명 거든다고 고생하죜네.”
“예, 냉중에 참 선비님도 나인데 빌 때가 있을 깁니다.” 이라드래.
그래 배를 타고 고을에 갔다이 그날 밤에 머리 산발한, 피를 흘리는 여자가 말이야,
“원수를 갚아 달라.” 하거든.
원기 당추⁴⁵⁴ 켈 수가 있어야지. 그래 잠을 못 자고 원이 사령들 보고 말이야,
“여어 천가 안사람(아내)을 데려 오라.” 그래 가서 데려 온 기라.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라거든.
“이 우에 올라가든 절이 있고 중이 많은데, 장도칼을 전부 모아 오라.”하고 하더이만,
“그래 오면 찾아 가라 하든 그때는 알 징조가 있을 낀께, 그래 하라.”하고 가는 기라.
“그 칼을 전부 모아 오너라.”
그래 일절 모았다간 또 가주 가라 하거든. 가주 가는데, 칼이 하나 남아가 있단 말이라.
그래,
“이기 누 칼이냐?” 한까네,
“주지 스님의 칼이라.” 한다. 그래 호출로(나졸을) 보내가 주지를 붙잡아다 들고 때리고

453. 경남 사천군 사천읍慶南 泗川郡 泗川邑

454. 당채

한꺼네,

“저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간 길 주지가 장도로가 찢려 죽었는데, 집에서 여자가 산에 가 며칠 동안 안 와가 찾아 가이까네 칼에 찢리가 죽은 기라.

그래 원이 그 중을 붙잡아다 죽이고 그 원수를 갚은 기라. 그 뒤에 원수를 갚으이 그 귀신이 고맙다고 하고 그 고을이 아무 일 없이 잘 되드래.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비단을 찾아 준 현명한 사또

옛날에요 추석이 가까오는데 강원도 천불동에 어떤 청년이 하나 비단을 한 짐 잔뜩 지고 내려왔어요.

메칠로 걸어 내려오이 하도 고롭어가지고⁴⁵⁵ 어디 산지경 밑에 오다 하이 망두석이 하나 있거등요. 거어 와가지고 비단 짐을 벗어 놓고 잠시 쉬가 간다꼬 눕었다가 마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가 사뿐 자고 일어나 보이 마 비단 짐이 온 데도 간 데도 없더라꼬. 그러가 마실에 내려와가 만내는 사람마중,

“아이구, 누가 여어 비단 보따리 지고 가는 거 몬 봤는교? 몬 봤는교?” 커이 다 몬 봤다 캐요.

455. 피곤하여

“아이구, 인자 마 쫄딱 망했다고. 이념 비단 한 짐 지고 와가 다 잊어뿌고 쫄딱 망했구나.” 커미 온 데 땡기미 물으이 아무도 몬 봤다 커제, 답답어 몬 전디가 온 데 물으이, 어는 사람이 하나 와가,

“그래 말고, 고을 원이 무신 일이라도 해결로 잘 하는데, 거어 가 말로 해 보라꼬.”

그래 원님인테 가가지고 그 사실로 아뢰이까네,

“히, 잘 직에 그 근방아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더냐?” 그래,

“아무 사람도 없고 망두석 하나뿐이더라꼬. 그래 자고 일어나이 없다꼬.”

그라이 원이 꼬치(고추) 묵은 소리로 하디마는,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고 망두석 하나밖에 없다 커는데,

“그래 니 거짓말 아이냐?”꼬 추달로 받으이까네,

“아이구, 거짓말 이입니더. 어느 앞이라꼬 제가 거짓말로 할 택이 있읍니꺼?”

“그러머, 저, 망두석을 잡아 오너라.” 그래

하리는 부하들로 시키가지고 망두석을 신고 오이까네 마실사람들 모도,

“아이구, 저, 망두석 재판한단다. 우리 구경 가자.”꼬 앞뒷 동네사람이 많이 갔어요. 가이 그래,

“망두석을 패라.” 켜다.

“어념 바른 말 하도록 패라.” 패이, 그 망두석이 말로 하나 말이다.

“아이, 이념이, 니 밖에 본 사람이 없다 커는데 아매 니가 흠친 기 아이냐꼬. 당장 말하라.”꼬 자꾸 호령을 하제, 뭇 망두석이 말로 하나?

“뭇, 더 때리라꼬. 저 녀이 안 아퍼 그렇다.”고. 원은 호령을 하이까네, 자꾸 망두석을 패고, 그마 구경 간 사람이 모도 우습어. 말로 몬 하는데 자꾸 그거로 패고, 암만 해도 말은 안 하제, 거어 있는 사람들이 짜드라 윗어 놓이 원이,

“이 무신 사람들이 왔노? 저 사람들 잡아 가두라.”꼬 윗는 사람들 만관⁴⁵⁶ 잡아 가뒀다 요. 가다 놓고 그래,

456. 모두

“너저 비단을 한 필씩 받아 딜이라. 받아 딜이며 내 준다.⁴⁵⁷ 아무날 내 주꾸마.”

그래 사람들이 비단 받으러 양 사방 히저가⁴⁵⁸ 찾아 댕기네. 그래 이념우 비단 흠체가 간 사람이 멀리 앤 가고 어데 등 너머 주막에 있었어. 그래 거어 가가 비단을 한 필씩 받아가 다 원한테 바치이까 그 사람들 모도 나오라꼬 내 놓고는, 비단 임재로 불렀어.

“이기 니 비단 아이냐?” 커이까네,

“지 비단이 맞습니더.”

“이 뗏 필인데 이기 다가?” 커이까네,

“니 필이 없습니더. 니 필이 없아도 이만하며 충분합니더. 다 일거뵈던 거 요만침만 찾아도 감사합니더.”

“그렇잖다고. 다 찾으야지.”

그래 내 놓은 사람들로 불라다가 또 추달로 하이,

“너저 이 비단을 어데 가 받았노?”꼬 추달로 받으니까네 그래 아무데 고개 너메 주막에 가가 받았다꼬 그래.

“거어 그 비단쟁이 잡아 오너라꼬.”

그래 비단쟁이로 잡아다가 또 추달로 받으이까네, 그 사람이 비단을 흠쳐갔다 커더랍니더.

“니 비단 니 필로 여어 내 뇌라.”

그래 비단 니 필 마자 찾어가지고 그 사람 주골랑, 그 도둑놈으로,

“다시 이런 짓 마라.”꼬 되기 추달로 받아가 쫓아뿌고, 마실 사람을 인사로 그래 하더랍니더.

“그 동안에 참 수고 많았다고.” 그래가 비단을 찾아 주더랍니더. 원이 말하기를.

“그래 이 망두석을 갖다가 위하라꼬.”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457. 풀어준다

458. 흠어져

고창녕 일화

어떤 사람이 소를 샀는데, 소를 매 났는데 소가 쏜지가 빠져똥다 쿠던가? 소를 잃어똥는 기라.

그래가 소 임재가 고창녕이 관장官長으로 아주 명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심판하러 이리 똥 갔는데 쏜지가 빠졌다고 이리 하이 똥를 잡고 심판할 쁄데기가 없는데, 그래 똥 고창녕이 하는 말이,

“그날 거어 있었딘 동네 사람을 사람을 전부 소집을 시키가지고, 그 소를 갖다 내 놓고, 풀로 갖다가 한 호큼씩 쥐고 그 소 앞에 갖다 놓으라.” 쿠거든,

그래 여러 수백 명이 풀로 갖다가 저 소 앞에 갖다 내 놓는데, 소가 사람이 지내가도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 앞에 풀로 가지고 간쁄네, 이 소가 마 쁄쩍 똥거든. 고창녕이 가만 앓아 있다가 그 놈을 갖다가,

“저 놈 잡아 치라.”고 말이지.

그 놈이 그 소를 갖다가 몰고 갈라고 뚜디리가지고 똥 우썰 하다가 쏜지를 인자 똥는데, 미물 짐승이라도 지가 아과 욱을 봐 놓으니까네, 그 사람이 오이까네 겁을 똥다 이 말이라. 그래 고창녕이 소도독을 붙잡았다.

과시 귀신이 탄복할 만한 그런 심판인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옹기 값을 물어준 낙동강 뱃사공

옛날 고창령이라는 명관名官이 있었다. 어진 정치를 베풀고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기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해서 다른 고을 백성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 해결을 부탁할 정도였다.

어떤 가난한 옹기장사가 독을 지고 가다가 지게를 받쳐놓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지게가 쓰러지면서 독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다. 유일한 밑천인 독을 바람 때문에 모두 깨뜨리게 된 옹기장사는 절망하다가, 고창령을 찾아가 사정을 하소연했다.

옹기장사의 답답한 사정을 다 들은 고창령은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옹기장사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는 나졸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어서 낙동강으로 가서 강을 내려가는 뱃사공 한 사람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뱃사공 한 사람을 붙들어 오라고 했다. 나졸들이 강가로 가서 내려가는 배의 뱃사공 한 사람과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뱃사공 한 사람씩을 붙들어 관아官衙로 가져고 했다. 두 사람의 뱃사공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붙들려 온 두 사람의 뱃사공 가운데 한 사람에게 고창령은 너는 무슨 바람이 불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셋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 사람에게 똑같이 묻자 그는 강을 내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창령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사람은 셋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맞바람이 불기를 바라니 두 바람이 서로 부딪쳐 회오리바람이 되어 옹기장사의 옹기를 깨뜨린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옹기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풀어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뱃사공은 억울했지만, 옹기 값을 물어주고 얼른 풀려나는 것이 낫겠다고 생

각해서 그 값을 내놓았다. 고창령은 옹기장사에게 그 돈을 주었고, 옹기장사는 다시 장사를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사』 이달근, 삼동면, 1986]

동삼童蔘과 이시미⁴⁵⁹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있었다.

어느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절벽 아래의 널따란 분지盆地에 동삼童蔘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혼자서는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 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두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세 사람은 동삼을 캐어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산으로 가서 칠평굴로 밧줄을 길게 꼬고, 망태를 하나 만들었다.

총각이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친구 두 사람은 절벽 위에서 나중에 밧줄을 당겨 총각을 끌어올리기로 약속했다. 총각이 동삼을 캐어 망태에 담아 세 번을 올려 보내고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라고 밧줄을 흔들었다. 그러나 욕심이 난 두 친구는 자신들끼리만 동삼을 나누어 가지기로 의논하고, 그 밧줄을 잘라버리고는 동삼을 가지고 도망쳤다.

올라갈 방법이 없어진 총각은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 해서 분지 속을 헤매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올라갈 다른 길은 없었다.

459. 아직 용(龍)이 되지 못한 큰 뱀. 흔히 '강철이'라고도 한다.

한참 길을 찾고 있는데, 난데없는 이시미가 한 마리 나타났다. 총각은 이시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총각의 말을 들은 이시미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살려주겠다고 했다. 총각이 그러겠다고 하자, 이시미는 총각을 등에다 태우고는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가 총각을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돈을 주면서 어느 장場的 어느 골목에 가면 구슬을 파는 할머니가 있을 테니 그 할머니가 파는 구슬 하나를 사다 달라고 했다.

총각이 이시미가 말한 대로 장場に 갔더니 과연 구슬을 파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 총각은 구슬 하나를 사다가 이시미에게 주었다. 이시미는 많은 돈을 총각에게 주면서, 이 산을 내려가면 어떤 부자가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넓은 땅을 팔려고 할 테니 그것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물은 자신이 얼마든지 대어 주겠다고 했다.

총각이 산을 내려와 보니 과연 그런 땅이 있어서 이시미가 준 돈으로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더니, 난데없이 물이 솟아나 농사가 잘 되었다. 총각은 금방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장가도 들어 잘살게 되었다.

집이 부유하고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 그 집에는 과객過客들이 끊임 없이 끊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거지나 다름없는 두 사람의 과객이 찾아들었는데,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니, 고생을 해서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자신을 쫓아내고 도망쳤던 친구들이었다.

주인은 모르는 척하고 두 과객에게 살아온 이야기나 한 번 해보라고 했다.

두 친구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친구를 죽게 하고 도망친 이야기와, 그 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뉘우치는 빛이 역력했다.

주인은 그제야 자신이 바로 그 친구라고 밝혔다. 두 과객은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림을 나누어 두 친구와 함께 잘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김숙이, 언양면, 1987]

욕심이 많으면 재앙을 받는다

옛날에 소금쟁이를 하이 하도 잘 팔리. 그래 하나⁴⁶⁰ 소금재이에게,

“난도 데리고 가자, 저 돈 내가 할란다고.”⁴⁶¹

“그러며 가자.” 카더란다. 그래 동무로 해가 가는데, 이놈우 소금쟁이가 복쟁이가 나빠
가지고 장 지는 잘 팔리는 데로 가뿌고, 이 사람은 할 줄 모른다고 엉뚱 질로 갈 쫓네.

이 사람이 암만 가도 마실이 있나. 그러구리 가다가 만첩산중을 드갔는데 해가 빠지가
어둡어가 다시⁴⁶² 잘 데가 없어서 넙덕한 방구가 있어 거어 놓어 잤어.

꿈에 허연 노인이 서이가 앉아가 장구를 짜다라⁴⁶³ 두는데,

“아이구, 이 청년아, 이래 자지 말고 저어 가며 동샘童蓐이 있는데, 장수 동삼은 캐지 말
고, 그 찌꺼리기만 캐가 한 짐 지고 가며 니가 살 끼라.”⁴⁶⁴ 카더란다.

그래 날이 희뵘하이 새가 암만 살피도 그 노인 서이 흔적이 없어. 하도 배가 고파가 물
무우로 간다고 방구 틈 질편편한 데 가이까네 아주 굶은 장수 샘이 있더란다. 그거는 놔
두고 잔 새끼마 캐가지고, 소금은 거어 내비리고 한 짐 짊어지고 내려왔더란다.

그נם을 가지와가 팔아가지고 논을 사고 소금 팔아 보지도 몬하고 부자가 됐다.

소금쟁이 그 녀미, 소금 몬 팔구로 쩡짜로⁴⁶⁵ 영어가 탄 데 보냈는데, 부자가 됐다하니,

“니는 어데 가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논을 사고 부자가 됐노?” 그래 그 사람이 바른 말로
한다.

“니가 갈(가르쳐) 주건데 마실로 가이, 내가 상구(계속) 암만 가도 점두룩 가도, 배는 고

460. 한 사람이

461. 나도 돈을 벌겠다

462. 도무지

463. 꽤나 많이

464. 너가 잘 살게 될 것이다

465 못 팔게 공연히 엉뚱한 곳으로

푸고 잘 데가 없어가 방구 우에 자이까네, 허연 노인이 장구를 두미 내 꿈에 그렇더라고.
'니가 장수 삼은 놈 두고 찌꺼리기 캐가 가라.' 카더라. 그래가 캐가 와가 팔아가 작은 눈
도가리로 샀다고."

"하이구이, 그러나?"

그래 소금쟁이 지도 등금짐을 짊어지고 그 골짜기로 찾아 가이 방구가 하나 있더라.
그래가 밥 다 묵고 자이까네 참 허연 노인이 꿈에 그래 왔더라. 와가지고,

"네 이념, 니는 심사가 나빠가지고 천없어도⁴⁶⁶ 잘 안 된다." 카더라.

그래가 삼을 캐라 말도 안 하는데, 방구 틈에 가이까네 굶다는 샘이 하나 있어서 땡기니
꺼꾸이⁴⁶⁷ 라. 그래 그 밑에 내리와가 물로 묵는데 아주 굶은 꺼꾸이가 그 물에 들어가 독
을 피아가 마 죽어뿌더라.

복쟁이가 나쁘이까네, 심사가 나쁘이까네 지는 마 몬 났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차생, 두동면, 1984]

466. 어떤 일이 있어도

467. 지렁이

과객 싫어하다가 망한 부잣집

옛날에 부잣집에 과객이 많이 와 쌓고, 하도 밥 지어 줄라 쿠이까네 영결증이 나가지고 서러⁴⁶⁸ 과객 중이 동냥하로 왔는데 안주인이,

“아이구 우야몬(어떻게 하면) 과객이 우리집에 안 오겠는교?” 이러 쿠이까네,

“저저 과객이 안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야몬 안 오도록 하겠능교?” 쿠이까네로,

“정지 문 앞에 구덩이(구덩이)로 파 놓으몬 과객이 안 올김니더.”

그래 정지 문 앞에 구덩이로 딱 파 놓으이까네, 살림이 자꾸 빠져.⁴⁶⁹ 과객이고 손님이 고 그 집에 와가지고 한 때 밥이라도 얻어 묵고 가겠다 싫어야 오지 아무것도 못 얻어묵 겠다 싫을 정도 되몬 절대 아무도 안 오거든. 그래 과객도 안오고, 그 살림이 쫄딱 다 망 해 뿌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인조, 윤양면, 1984]

468. 몹씨 귀찮아서

469. 재산이 줄어든다

욕심 부리다 죽은 만동서

옛날에 만동서는 잘살고 지차동서⁴⁷⁰는 하도 몬살아 가지고 만날 밤으로는 명 찾고 낮으로는 방아품을 들어 묵고 사는데, 하리 저녁에는, 명을 찾으니까네 어떤 중이 하나 와 가지고 잘라(자려) 쿠더란다.

“아이구, 여어 내 호무차(혼자) 자는데 몬 자니더.” 카이,

“그래도 하리 밤 자고 가입시더.” 자꾸 자고 가자 캐.

안 된다 캐도 자꾸 자자 캐 쌓이 우얍(어쩔) 수가 있나? 방아 한 구석에 자라 쿠고, 명을 찾아 쌓이까네, 중이 다리로 자꾸 자기한테 툅 없더란다. 일하다가 내려 놓고 명을 찾으며 자꾸 다리로 들어 얹고 쌓아.

이튿날 아침에 날이 새가 싸래기로 밥을 해가지고 중을 주이까네,

“와 싸락밥을⁴⁷¹ 주는교?” 카더란다.

“내가 마 없으이 녀우 품을 들고 땡기이까네 싸래를 주기 때문에 싸락밥을 해 왔습니더. 나는 죽을 쑤어가 묵는데 도사가 왔으이까네 우얍 수가 없어가 밥을 했습니더.”

그래 글을 살살살살 써가 주더란다.

“어데든지 그럭 있는 데로 갖다 영어 뇌라.” 카더란다.

그래 갖다 영어 놓이까네, 마 들씨 보이 썰이고, 들씨보이 나락이고, 써 주는 그거로 농에 영어 놓이 돈이 한 농이고 그렇더란다.

그거 많이 있는데 방아 찧으러 갈 택이 있나? 방아 찧으러 가라 캐도 안가.

그기 말이 났다.⁴⁷² 그래 동서가,

“아이구, 우애가 이래 동서는 집이 부자가 됐노?” 그래,

“사실로 여하하고 그래 됐다.” 하니,

470. 둘째동서

471. 싸래기로 지은 밥을

472. 소문이 났다

이념우 동서가 지는 백췌 부르는 기⁴⁷³ 공연히 명을 찾고, 념우 방아 찼어 주고하니 참
도사가 왔더란다.

도사가 와가지고 명을 찾으니까네 다리로 들어 었고 처음에는 내라 놓으이 또 다부 었
고해서 마 자뻘다.⁴⁷⁴ 이튿날 아직에 싸래기밥을 해가 줘 놓이까네,

“밥을 와 이래 주노?”

“그래 뭐 양식이 없어 그렇다.” 이래 카저등.

그래가 글로 써가 줘 놓이, 술에도 갖다 영으이 전신만신에⁴⁷⁵ 좇이고, 도장에 갖다 영
어도 전신만신 좇이고, 마 좇을 감당을 몬 하겠더란다. 그래가 퍼다 내비리다가 퍼다 내
비리다가 마 말라가⁴⁷⁶ 죽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차생, 두동면, 1984]

마음씨 좋은 노파와 욕심 많은 노파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가난하게) 혼자 호불할마시가 사는데, 묵을 기 없어 만날 념우 미
영이나⁴⁷⁷ 잣아 주고 근근이 싸래기로 받아가 이래 사는데,⁴⁷⁸ 하로는 저물어가 도사중

473. 자기는 배가 부른 게

474. 동침했다

475. 온통

476. 말라서

477. 무명이나

478. 물레질을 하고 그 샅으로 싸라기를 받아서 끓여 먹고 살았다

이 동남하로 떡 왔는 기라.

“아이고, 저물고 내가 올 데 갈 데 없으이 날로 좀 재아 주소.” 이카거든.

“우리 집에는 방이 단칸이라 잘 데가 없다.”고 이라이,

“마 정지에라도 좀 자고 가겠다.”고 이라거든. 그래 글 쿠는 거⁴⁷⁹ 우야노?

“정 그렇거든. 정지에라도 자고 가라.”고.

손은 소인데,⁴⁸⁰ 처음에는 글 캐도 못 그래 가지고 난중에는 ‘아이고, 내가 죄 많거로 손님을 저래 가 어짜겠노?’ 그래 가 마,

“방에 들어오라고. 다 같이 늙어 가는데, 괜찮다.”고, 자기는 밤새도록 안 눕고 미영을 찾는 기라.

도사 중 이거는 구들막에⁴⁸¹ 자다가 몸부림치는 거매이로 다리로 이 물팍에 쉬익 주아 었거든. 살찌기 들어 내라 놓고 미영을 찾고 또,

“으응.” 쿠몬 또 이리 쉬익 다리로 또 살찌기 내라 놓고 미영을 찾고 그러구로⁴⁸² 인자 날이 췌는 기라.

“아이고, 잘 자고 갑니다. 그래 내 간 뒤에 단지마장(마다) 다 들시고 술에도 다 들시 보라.”고 그 카고 가거든.

그래 보이까네, 마 술에도 소복소복 단지에도 소복소복 쌀이 들어가 있어. 그래 그 늙은이가 가악중에⁴⁸³ 편키 돼가 잘 사는데, 이봇 친구가,

“아이고, 너는 우째가 가악중에 이리 살 기가 뻤노?”

그래 사실적으로 심통적⁴⁸⁴ 이바구로 했다.

“그래 한 날 그래 여차如此 저물어가 도사중이 와가 좀 자고가자 캐서 잘 데 없다 캐 쌓이 정지에 자자 캐 쌓아. 그래 그 날 저녁에 그래 자고 가디마는, ‘내 간 뒤에 그래 그릇을

479. 그렇게 말하는 것

480. 손님은 손님인데

481. 아랫목에

482. 그럭저럭

483. 갑자기

484. 있는 대로

들시 보라.’ 캐. 그래 하이까네 그렇더라. 퍼 무도 퍼 내도 또 생기고, 자꾸 생기 자꾸 불
어 올라. 그렇더라.” 이카이, 친구가 가만 들으이,

‘아이고, 중놈강 붙어가⁴⁸⁵ 그래 친해가 저리 댘다. 에레이 빌어 물 거, 그라몬 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암만 지는⁴⁸⁶ 기다리니 중이 안 오거든. 저 큰 질에 나서가 나날이 어데
중 뵈는가 싶어가 내 보고 있으이, 하로는 저게 오거든.

“하이고 도사중요, 우리 집에 오소. 우리 집에 오소.” 자청해 떠억 오라 켜다.

“아이고 올 저녁 저문데, 우리 집에 자고 가소.”

“자지.” 잔다. 자고 마 그래 마,

“아이고, 잘 자심데이. 그래 내 간 뒤에 그릇마장 들시 보라.”고.

간 뒤에 ‘참 좋다. 인자 난도 살게 댘다’ 싶어가 솔도 들시고, 단지도 들시고, 그릇마다
다 들시이, 꼬치⁴⁸⁷가 소복소복, 그래가 그 놈을 몸서리로 나가 퍼 내비리도 마 율타리도
디리디리 불었고, 암만 퍼내도 자꾸 생기고 대원수로 만내가, 그래 념을 그래 무시하기
무조건 애맨 소리 듣고….⁴⁸⁸

그래 그 사람은 직심으로⁴⁸⁹ 해 놓이 그만치 도와 주었고. 옛날 도사는 그만치 아는 기
 많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자출, 상북면, 1984]

485 통정 해서

486. 아무리 자기는

487. 남자 성기

488. 남에게 애매한 누명을 씌우는 말을 했다

489. 진심으로

황성黃姓은 배상背上이라

옛날에 살림이 다 유복한 김씨金氏하고 이씨李氏하고 두키서⁴⁹⁰ ‘니가 잘되며 날로 도와 주고, 내가 잘되며 니로 도와 주꺼마.’ 이런 결의 형제를 맺었어.

커가지고 둘 키 다 진사가 됐는데, 그 뒤로서 이진사가 자꾸 살림이 쇠해져가 그 너르던 논을 다 팔아 흘치뿌고 다시 올 데도 갈 데도 없기 되가 있거등. 그래 김진사쥬애 가서 인자 의탁을 하고 있는데.

김진사는 자꾸 살림이 늘어지고 아들로 키아가지고 큰아들로 평양감사로 보냈다. 평양감사로 떡 보내 놓이까네, 그 감사가 어째 ‘달밤에 보한 거(하얀) 뭐 이로 직인다.’⁴⁹¹ 카디, 하나 끼적꺼리⁴⁹² 놓은 기 아주 못난 박색인데, 이거로 그래 놓으니, 이기 꿈쩍거리지도 안 하고 딱 붙어가 있어 어알 수가 없다. 그래 평양감사를 사다가 파직을 하고 집으로 오기 되는데, 몰리(몰래) 온다고 오는데 저기 언제 따라 나섰는지 딱 붙어가,

“여보, 그래 바늘 가는 데 실이 안 따라갈 수 있소? 나도 가야 된다.”

가마 생각하이 큰일이거등. 그 때는 양반은 집에 범방하며 사당에 문을 문 연다 켜는데. 그래 암만 문 따라오라 켜는데,

“어, 그렇잖다.”고 아주 지가 가마 떡 챙기고, 어림없다. 이거 안 데리고 갈 수 없고 우알 수 없어서 집에 데리고 갔다. 이거 데리고 가이까 어른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 사실 이애기를 했어요.

“사실 이래 됐습니더.” 해도, 하도 못나 놓이 며느리 되까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들어내도 몬하고 할 수 없이 마 중 한 가지로 놔 둔다.

이거 밥 한 숟가락 묵으며 잠자는데 자고, 남편도 돌보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행실이

490. 두 사람이

491. 달밤에 흰 것을 만졌더니 하필 이를 잡게 되었다. 즉, 우연한 결과라는 뜻이다.

492. 집적꺼리

또 아주 몬됐는 기, 사랑에 손님이 와도 턱을 괴고 바라고 있고, 어느 청년이 와도 턱을 괴며 들바다보고, 몬됐어 눈에 불로 더 때는 기라.⁴⁹³

그러구려 하루씩 이틀씩 보내는데, 이진사가 하도 오래 그래 있으니까네, 미안시럽어 도저히 몬 있겠거등.

“야, 이 사람아 내 이레가 안 될다.”

“어쨌라 카노?”

“우리 집에 종으로 있던 아무꺼시가 아무데 가가지고 없는 거 없이 잘산단다. 그러니까 네 내가 거어 하문 찾아가 보며 싶으다.” 그래,

김진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옛날버텨 종 찾아가가지고 살아 왔다 카는 사람이 없는데, 당췌다.⁴⁹⁴ 가지 마라.”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있나? 내 한테는 참 잘했는데.”

“오냐, 그러며 뭐 가거라. 그래 니 가거들랑 편지로 하나 해라. 잘 있으며 잘 있다 카고, 몬 있으며 몬 있다 카고 그 편지로 한 장 해라.”

“아, 그기야 그라지.”

그래 턱 찾아가이,

“아무꺼시 집에 있느냐?”

인자 종이 아이니 ‘이념 아나!’ 칼 수도 없고, 그래 부르니 지한테 종질하던 종년들이 나오는데, 관을 떡 덮어 씨고 가죽신을 뿔뿔떨 끌고 꼴썩이 자부룩해 자꾸 벌어져가지고 나오는데, 완전히 양반 행세라. 그래 턱 나오디,

“아, 이 사람아, 오랜만이다.”

“그래, 이 사람아, 자네소식도 모르고 내 자네 함 찾아로 왔다.”

“아 이 사람, 잘 왔다. 드가자.”

493. 보기에 실증이 더 난다

494. 마땅치 않다

그래 떡 방에 드가가지고 내한테 종질했다 카는 이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서로 ‘니, 내’ 하며 앉아 노는데, 이스막하이까네,⁴⁹⁵

“주인 어른, 계시이소.” 이래 썻거등.

“무슨 말고, 이 사람아?”

“어허, 그럴 수가 있는교? 낮에는 아아들 보고 있는데 어알 수가 없고 내가 그랬지마는, 우리 두 치서는 어데 그칼 수가 있는교? 말이 되는교?”

그래 나가디마는 술상을 하나 잘 채리 와가지고, 문을 열어 놓고 두 내외간에 절로 하는 기라. 그래 방에 들오디마는,

“아까 내가 이 사람 칸 거 용서해 주소. 잘못됐습니더. 부자간에 말로 하머 천륜 뺏길 짓을 내가 했다.”고 그 자꾸 그래 썻는데, 지 땀에는 인자 마 저거 아아들 다 자는 줄 알았지. 어잘 수 없이 그래 받고 있으이까네, 종의 자식들이 봤어.

공부도 한 종의 자식들이 이튿날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아부지, 저 사람 웬 사람인교?”

“아, 그 우리 친구다.”

“거짓 말씀 하지 마소. 엇지너 다 봤습니더.”

빨럭빨럭하는⁴⁹⁶ 이념들이 몇 녀 나가디마는 들름 잡아가지고 창고 안에 가다뿌고 묻는다.

“니가 여어 뭐하로 찾아왔노? 오늘 당장 죽인다.”

그래 이진사가,

“이 사람, 그라머 너거 집 망한대이. 김진사잘에 내가 잘 있다는 편지로 한 장 할라 켜는데, 그 편지 회답이 오거들랑 너거가 날 죽이며 아무 관계가 없지마는, 이거로 모르고 죽이며 너거는 곧 곧 망한다.”

그래 편지 씨라 카거등. 그래 ‘김진사, 내 아무꺼시 찾아오이까네 내한테 극진히 잘 하

495. 이숙하니까

496. 우락부락한

고, 내 몸을 평생 여게 의탁되구로 해가 있으йка네, 부디 자네는 잘 있거라.’

이거 글을 씨미 아주 속은 멍커리하지.⁴⁹⁷

그래 다 써 놓고 끝에 두 자를 딱 씨는 기라. ‘황상黃姓은 배생背上이라.’

저 녀들이 다 봐야 편지 다 씌고는 거어서 씨는 줄마 알았지 그기 뭔지는 몰랐다 이기거등.

그래가 종을 불러가 편지를 보냈다.

김진사가 편지를 들고 있으йка네, 이념우 딸아아가 문 앞에 와가 딱 서가 있네. 심부름 온 종을 불러가,

“아, 이 사람(이진사), 잘 됐다. 그래 가라.”

그 집에서 잘 있다 카이 반갑다고 ‘부디 잘 있거라.’ 카고 하인을 보냈다.

딸아아가 딱 서가 뻘히 보디마는,

“아부지, 그 사람 불드소.” 이카거등.

“와 그 사람 불드노?”

“허, 이진사 그 어른 시방 목에 비수로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 딸아아가 평양에서 데리 온 여자라.

“목에 비수로 걸어 놓고 있는데, 그 사람 드가며 이내 죽습니더.”

“니가 우째 아노?”

“끝에 편지에 ‘황상은 배생’이라고 썼을 택이 있는교? 옛날에 황씨黃氏가 종 이름이 배생이라고 있었는데, 황씨가 배상 종 찾아가 죽었다키는 이런 잡니더(字입니다).⁴⁹⁸ 그 집에 가며 죽습니더.”

참, 그거 그럴 상하거등. 그 때야 진사쫌 하고 평양감사 했다 카며 종은 안 췌는교? 그 래가 종을 당장 불러가지고, 그 녀 집구석을 종種을 없애뿌고 다 때리 막아뿌렸다.

그래 노인을 데리고 오йка네, 반갑아가지고,

“이 친구야, 니가 끝에 글 두 자 어애 알았노?”

497. 쓰리지

498. 제보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黃姓은 背上이라’로 해석해서, ‘황씨 성을 가진 종이 상전을 배신하다’로 봄이 옳을 것 같다.

그래 김진사가 이야기를 쭉 하거등.

“자네도 아다시피 우리 집 머스마가 그래가지고 하도 올라 캐가지고 왔는데, 쫓을라 카
이까 안 가고 있던 저 딸아아가 그 편지 볼 때 들바다보고 그런 이야기로 한 때문에 내가
알았지 내가 어애 알았겠노?”

“아이구, 이 사람아, 그 대인大人이다. 아무 말도 말고 마 결혼해라.”꼬, 그래 결혼시켰
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만봉, 두동면, 1984]

양반과 사돈 맺은 상놈

그 전에 양반 상놈이 청탁淸濁이 매우 심하게 갈렸는데, 저 기장 해편에 상놈이 아주 여
물게 해가 돈을 마장잡이(마당만큼)나 모아 놓고 나인께네, 양반의 집 딸로 며느닐 하나
보기가 원이라.

그래 인자 과객을 친다. 과객을 잘 대접을 해가 어찌든지 양반의 집 딸에 우리아들 장개
로 중신을 줌 해 줄라고 부탁을 내(계속) 한다. 하도 칙사 대접을 하고 극진히 해싸이, 이
과객이라 커는 건 사방 팔로행진을 땡기는데, 안동安東 아주 못사는 양반 집에 딸이 하나
그저 괜찮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 과객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

“양반의 집 며느리를 보든 자기 재산을 반턴(반은) 준다 카이, 만날 배 끓고 침은(추운)
바아(방에) 요래 고생하지 말고, 딸만 그 집에 시집보내 주든 한 오십 석 꺼리 재산을 들
나 준다 카이 거 치아라.”

“아이구 그 뭐 돈 필요 있나? 딸로 상놈한테 줄 수 있나?” 이래 했다 말이다. 하니, 하도

과객이 권해.

그래 그 딸이 정지에 가 무신 애길 저리 하느고 가마이 들으이까네 그런 이야길 해싸. 하도 배도 마이 끓고 옷도 없고 침은데 있다 보인까네 ‘그래 내만 하나 희생하마’하고 거(거기) 시집가고 우리 친정 아바씨 동생들이나 잘 멕일 밖에 없다고, 그래 인자 저가배를 (자기 아버지를)큰 방으로다 불러가,

“아부지요, 아까 그 과객과 무신 이야기를 했는지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상놈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부지요, 마 내 하나 안 논(농은) 요랑하고 거 시집을 보내 주소. 보내 주믄 친정 동생들랑 만날 배 골르고 이 침은데 옷 잘해 입고 안좋은교?”이래 했다.

그래 딸이 그래 다잡으이 부모도 할 수 있나? 그래,

“나 생객이 정 그러믄 마 그렇게 하자.”

그래 인제 승락을 해놓이, 과객이 내리가 중신을 했다. 그래 며느릴 봤다. 양반 며느릴 하나 보고나이가 참 마음에 좋아. 평소에 포부가 양반에 며느릴 보는 긴데 보이 참 좋아.

그란데 양반 집에서는 상놈의 집에 딸 쫓다고 딸네 집에 오지도 안하고 걸음을 딱 끊어 뿌렸는데, 근 십년을 지내다가 이기 시집을 우예(어찌)사는고 가볼 밖이 없다고.

그래 인제 양반이 옷을 한 볼 근근이 갈아입고서는 안동서 기장 꺼정 걸어 내려오네. 근 사오 일 걸어노이 발도 불키고(부풀고) 고단키도 해서 사돈집을 한 십 리 놔 놓고 늣어 잘라 카이 자는 데가 없거든.

그 전에 봉래 방이라고 소금재이 등금재이 자는 방이 있어. 그 드가서 인자 그 날 밤을 좀 자고 가자 카인까네

“아이고 두루맥이 입은 사람들이 자는 방이 아인데, 우야겠노?”

“어둡기는 어둡고 질로(길을) 당체 (도무지) 못 가이까네 여 좀 자고 갑시다.”카고 사정을 했어. 사정을 하이

“그러믄 구들막에 거 자라.”쿠거든.

그래 이 사램이 옷을 벗고 자고나이, 등금재이 그 옷 갈아입고 마 가(가지고) 가뻬다. 중우가 있어야 사돈집에 갈 거 아이가? 중우를 어느 늣이 가 가뻬다. 그래 인자 두루마기를

오들치고(오무리어 입고)앉아가지고 주인한테,

“아이 내가 이래가 나가도 드가도 못하니 옷을 한 가지 주라.”겠거든.

그래 주인도 옷이 없으이 까네

“아이 내가 단 별로 해 입고 옷이 없다.”

“옷이 없이든 빨가벗고(발가벗고) 나가도 못하고, 당신 집에 와 옷을 잃었으이 옷을 내 노라.” 자꾸 쪼른다.

주막재이가 기가 안 차나? 할 수 없어가

“내 입던 꼬장중우⁴⁹⁹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밖구는(밖에는) 옷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거 우예야(어찌해야)되겠입니까?”

가마이 보이, 꼬장중우 그거 갖고는 우야노 말이다. 그놈 입고 인제두루마기를 입어 노이께네 밑에 옷이라 인제 가라저가(가려져서) 꽤얌애. 그걸 입고 인제 할 수 없이 딸네 집에 갔다. 가가 딱 꿰어 앉아가 말이야 그 인자 별씨고 앉아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말이지.

딱 꿰어 앉아가 있으인까네, 그래 인자 그짜서(그쪽에서) 아이구 양반들 꿰어 앉았는 거 보이 시푸증(그러한가 하는 궁금증)이 나거든. 아이 양반은 저리 꿰어 있는가 싶어가 별 별 떨고 그 집이 절단이다.

그래 저녁을 가와도 딱 꿰어 앉아가 있지, 양반이라 카이 가당참이 겁이 나거든, 그래가 저녁을 먹고 자게 됐는데 양반이

“사돈! 나는 평소에 옷을 입고는 잠이 안와 벗고 잔다.”그런게

“아이 그러믄 벗고 자이쇼.” 그런게 다 벗고 잔다 말이지. 잔다고 카지만 뭐를 우예 할까 생각이 안나.

그래 가마이 보이 사돈이 옷을 벗거든. 중우 벗는 거 그거로 딱 봐났다가 새벽에(새벽에) 살찌기 사돈 중우를 좌(주어) 입었다. 좌 입고 꼬장중우로 놔뒀다.

날이 새가 사돈이 일어나 가마이 보인까네, 꼬장 중우가 딱 하나 있거든. 이 우예 된는고

499. 고쟁이. 안쪽에 입는 속바지로 가랑이 밑이 트여 있다. 예문) 꼬장주를 열두 불(벌) 입어도 보지는 삼통(온통) 빈다(보이-).

싫어가, 그러이 사돈이 꼬장 중우 입고 오기는 만무하고, 저 지(자기) 중우 지 입었을끼고, 뭐 이런 기 있노? 아이 할마이가 언(어제) 저녁에 내려왔다가 고약한 짓을 했나 싫어가 큰방에 갔다. 큰 방에 올라 가,

“이 늙우 할마이 사돈도 유만부동이지, 양반이 온데(왔는데) 어데 이런 행사를 했노?”

눈에 불을 켜고 꾸짖으이, 그래 이 할마이는 멋도 모르고 인제 기가 찰 일이다. 마 이래가 불끈거리고 해썩는데 양반사돈은 너무 조급해 가 오랫동안 못 쉬고 하루만 쉬가 올라 갈라 칸께 노자를 푸짐이 조가(주어서) 올리 보내놓고, 저그 시어른하고 할마이하고 밤낮으로 꿇고 씹(싸움)을 해싸.

딸이 보이 전에는 집안이 안락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리와서 무슨 말을 했건대 덩기간 후로 집안이 이렇기 싸우는데 싫어가 딸이 저가바이한테 편지를 했어.

“아버지가 내리와서 무슨 말을 했건데, 우리 집안에 그 전에 편했는데, 밥만 무든(먹으면) 눈에 불 키고 만날 싸움을 하고 이라니 집안이 큰 일이라고, 무신 말을 했는기요? 편지를 했다. 저가바이가 가마이 생각한께 이기 꼬장중우 탈이라. 그 때문에 탈이 났어. 그 래 딸의 형편이 그런 걸 우알(어찌할) 수 없어가 그래 인자 편지 답을 했어.

“그런기 아이라. 야야, 내가 내리 갈 때 여차여차해 주막에 자다 그런 일이 있어가 내가 그래했는데, 탈은 그 탈이다. 그 탈인데, 내가 거서 말로 할라 캐도 차마 그 말로 못 하고 올라 왔디이, 내가 그랬다고 말로 해라.”

그래 인제 그 딸이 시어매 시아버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이

“아이고 참 사돈도, 그거로 내한테 말로 했이든 좋은 웃을 한 벌 해 입힐 거 갖다가 와 그래 올라갔느냐?”카고 집안이 안락하게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장태환,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양반 삶기

옛날에 만날 양반을 찾아가,⁵⁰⁰ 암만 부잣집에도 안 가고, 인자 양반으 집으로 떡 딸로 치았네.⁵⁰¹ 인자 딸네 집에 아버씨가 떡 가이까네, 장작이로 한 발띠기(아름)안고 정지에 드가거등. 그래가,

“야야, 니가 뭐하노?” 커이까네, 가마에 물을 한겨(가득) 담으미,

“아부지, 양반 삶습니더.” 커더란다.

부잣집은 놔두고, 상놈이라고 안 치우고, 양반집이라고 그래 놓으이, 양반으 집이라고 떡 아무 것도 없는 데 치었다 말이다.

치아 놓으이 배가 고파 죽을 판이거등. 아버씨가 딸네 집에 떡 땡기러 가이까네 뭐 먹일 기 있나?

아버씨 대접을 할라 커이, 아무 것도 줄 기 없거등. 그래 찬물로 한 단지 부어 놓고 마 장작이로 한 발띠기 안고 가서,

“아부지요, 양반 삶습니더.” 커더란다.

그래 양반으 집이라고 없는 데 치아가지고 고상한다⁵⁰² 이거라. 그래 옛날에 양반을 너 무 찾다가 그래 망했다 커데.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분이, 언양면, 1984]

500. 양반만 찾아서

501. 시집보냈네.

502. 고생한다.

욕심이 많은 며느리의 최후

고부찌레⁵⁰³ 살림을 사는데, 이기⁵⁰⁴ 시어마시로 만날 허내로 해.⁵⁰⁵ 그래 어데 점을 하
이까네,

“그처럼 시어마시가 밍거들랑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많이 구해가 달집 짓듯이 집을
지아 놓고 쉼이나 좀 깔아가 그 시어마시로 업어다가 그 우에 엮어 놓고 하면 극락에 가
뿐다.”고 이 카거든. 그래 그 소릴 듣고 집에 가가지고 신랑각시 의논해가,

“어무이로 모시고 그리하몬, 극락에 가신다.” 이렇게 했더이 신랑이 나무를 해다가 달
집을 지아 놓고 거어다가 쉼을 좀 깔아 놓고 할마시로 엮어 놓고는 즈그는 집에 가 뿔다.

불로 질러 놓으이 비가 부슬부슬 온다 말이야. 마 불이 안 붙고 꺼져 뿌렸다. 꺼져 뿌리
놓이 늙은이가 내리와가 죽음 피했다.

할마시가 혼차 산에 있으이 무섭기도 무섭고, 달집이 동네 근처에 가접었는갑더마는
⁵⁰⁶ 살살 내리와가 죽은 고목나무가 한 개 있는데, 구무가 요래 돌버져가 있는데,⁵⁰⁷ 고목
나무 거어 들어 앉아가 밤 새울라고 잘라고 들어 앉아가 있으이, 가만 들은께 고목나무
속에서 두렁두렁 소리가 나 썩디이마는 도둑놈들이 금 그런 패물로 많이 도둑질해 와가
지고 거기서 가린다고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이래 썩는데, 마 늙은이가 마 기침을, “깡.” 해
놓이 놀래가 마 그거로 내빼고 달아나 뿌거든.

도둑놈들이 달아나고 늙은이가 시일 나와가지고 치매에다가 싸가지고 며느리한테 가
이까네,

“아이구, 어무이 오셨는교? 어이 왔셨는교?”

“아 극락을 떠 가이까네, 사돈이 만나지는 기라. 사돈이 만나져가지고 거게서 내 딸 주

503. 시어미니와 며느리끼리

504. 며느리가

505. 허물로 보아

506. 가까왔던가봐

507. 고목이 썩어 속이 비어 있었다

라 쿠웁서 패물로 이마이 주더라.”

“아이, 어무이 그라던교?” 영 반갑기 이라거든.

“잘 사라고 이거 주더라.” 쿤께, 그래 마 욕심이 나가,

“내일 즈그도 그래 갈랍니더. 우리 엄마도 보고 나는 갈랍니다.”

시어마시 하듯이 신랑 각시 가가지고 또 달집을 지아 놓고 거계다 쪼을 딱 놓고 마누래로 얹혀 놓고 밑에다 불로 질렀다 말이다.

그래 가 마 불이 붙어가 그 여자는 타져 죽어 뻘거든. 불이 안 꺼지이까네.

늙은이는 비가 와가 피해가 내려왔는데, 며느리는 죄가 많아 놓이 바싹 타져가 죽어 뻘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와 미련한 며느리

시어매가 쌀단지로 안 맏기고 만날 쌀로 내주고 생전에 귀경도 안 땡기고 그 살림을 못 잇어 살짝(사립문) 밖을 안 나가고 그래 하다가 죽었다.

죽고 난 뒤에 그 쌀단지 짚에 가니까네 구렁이가 딱 한 마리가 있거든. 마 며느리가 떠 둥구치가 던지 뻘다.⁵⁰⁸ 그런데 이튿날 또 들어왔거든. 또 밍어가, 에레이 빌어무울 거,

508. 막대기 같은 것으로 뱀을 들어서 던져 버렸다

저여너러거⁵⁰⁹ 물로 살살 꿰이 퍼부어 뜨겁어 배추밭으로 시일 지내가.⁵¹⁰ 씨익 땀아 뿌리이 낫는 기라. 배추가 그 약이란다.

그래 그러구로 신랑이 온 거로 이바구로 했다.

“아무리하고 여차여차하고 그랬는데, 또 들어왔거든. 그렇다고. 그기 사흘째 들어왔다.”고 이바구로 하이까네,

“그래?”

아들이 참 수뇌가 깊은⁵¹¹ 사람이라. 그래 둥글방구미로⁵¹² 하나로 크단케 맨들어가지고 구렁이 짚에 떡 가가지고 놔 놓고,

“우리 어무이 혼이거들랑 이 둥글바구미 여게 드가고, 우리 어무이 혼이 아니거들랑 떼로 가라.”고 이라거든.

그러이 둥글바구미 거어 씨익 드가. 만날 집에만 붙어 있고 생전에 귀경이라고 안 땡기는 그 놈을 저거 어매로 짚어지고 그래 팔도 구경을 시킨다. 짚어지고 절로 땡기고 오만 데 어데 하튼간에 귀경을 다 시키가지고 쉬익 오다가 보이까네, 마 휘떡하거든. 보이 언제 어디로 가 비렀는지 하늘 득천을 했어. 하늘이 우리거러 우리거러 하딩이만 하늘에 득천을 해가 올라가 뿌렸다.

오다가 하룻밤 여관에 자니까이 꿈에 선몽을 대더란다.

“나는 귀경을 못 하고 만날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그래 겪게 됐는데, 인지는 내가 좋은 곳으로 가 득천을 해가 올라갔어이 날 걱정하지 말고 니는 가다가 나면 니 배필이 있을기다. 그 사람강 살아라이.”

그래가 오다가 보이 술집이 있어. 요구하로⁵¹³ 떡 드가이꺼네 거이 여자가 혼자 있는데. 그 여자강 배필이 돼가 잘 사는데 제 사던데 어이 돼가 있는고 가 보이까네 쑥대밭이 돼가 있더란다. 자석은 넘우 집에 이래 돌아땡기고.

509. 저놈의 것

510. 씨익 지나가

511. 생각이 깊은

512. 둥근 바구니를

513. 요구하러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어디 갔는가?” 물으니까네,
 “아이구, 하로는 벼락을 때리가지고 마 불이 나가 집을 바싹 태아 뿌고 사람도 죽이 뿌고 그래 아아는 끄떡 들어가 저어 갔다 주아내가⁵¹⁴ 그 아아는 어디로 가고 없다.” 이라더란다.
 그래 시어마시한테 너무하이 죄로 받고, 시어마시도 며느리한테 너무 그라먼 좋은 기 없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짐승의 말을 알아 듣는 신부

이전에 처자를 치아는데,⁵¹⁵ 신랑이 첫날밤에 옷을 벗고, 각시 쪽두리를 뺏기고 있는데, 각시가 씩 윗었거든.⁵¹⁶ 신랑이 지 못났다고 웃는가 알고 즈그 집에 해내키 가 뺏거든. 각시는 ‘고약하다’ 싶으고, 신랑이 가 버려 놓으이 즈그 집에는 야단났다.

“니가 우예 놓으이⁵¹⁷ 신랑이 갔노?” 쿠고 야단이 났거든. 그래 이튿날 신랑자테 처가집에서 쫓아 가이까네,

“우에서 날로 보고 그래 윗었노고. 내가 못났다고 윗는 게 아이가? 윗길래 내가 그래왔다.” 쿠이,

514. 들어 주워내어

515. 시집보내는데

516. 윗었거든

517. 어떻게 하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짐승의 말로 잘 듣는 때문에 그래 윗었다.”고 이 카거든.⁵¹⁸

“그래 짐승의 말을 우예가 잘 들었노?” 쿠이,

“이튿날 널 아적에 옷손⁵¹⁹ 반찬 할라고 소괴기 볶고 술 안에 영어 놓은까네, 쥐가 ‘니는 들시라. 나는 소부뱅이⁵²⁰ 열어라. 나는 내꺼마.’ 캐 쌓아가 하도 윗업어가 윗었다.” 이 카거든.

“니가 짐승의 말을 잘 들으몬, 그라몬 가라.” 쿠거든.

신랑이 제비 새끼로 시 발이로⁵²¹ 내라가 갈무리해 뵈거든.⁵²² 제비가 마 켜켜켜켜 캐 쌓으며 야단나거든. 각시가 왔다. 그래,

“저 제비가 뭐라 쿠노? 짐승의 말을 니가 잘 들으이까네 저 제비가 뭐라 카노?” 하이까네,

“뭐라 캐. 남산 밑에 중의 자석아 내 새끼 시 발이 내 뇌라 쿠네.” 이 카거든.

그래 신랑이, 아들이 어마씨로 마 칼로 들고,

“아부지 찾아 내라.” 쿤데이.

“야야 그런 기 아이라, 내가 아무데 절에 가가지고 그래 공을 들였더니만, 중이 날로 덩치가 그래 니가 생겼다.” 이카거든,

“자석을 못 뇌가 공들이러 가가 그래가지고 니가 생겼다.” 이카거든.

“해면 그렇지.”⁵²³ 콤시러 그래 참 면하더라.

신부가 짐승의 말로 잘 들어 놓은까네, 아바씨가 중놈인줄 안거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용선, 상북면, 1984]

518. 이렇게 말하거든

519. 귀한 손님

520. 술두껍

521. 세 마리를

522. 숨겨 버렸거든

523. 그러면 그렇지

이야기 정령

The Story-Spirits

아주 오랜 옛날에 이야기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밥 먹기보다 훨씬 더 즐겨했던 도령이 살았다. 하지만 그 도령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일체 이야기를 해 주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의 기억 속에 들은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그 많은 이야기를 한 마디도 들려주지 않았다.

도령은 부잣집 외아들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를 즐겁게 해 주려고 누군가가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게 했다. 부모가 죽은 후에도 도령을 시종들던 믿음직스런 종복이 계속해서 매일 밤 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도령의 방 한 구석에는 끈으로 주둥이를 단단히 묶어둔 낡은 자루가 걸려 있었다. 그 자루는 수년 동안 잊혀진 채 못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 줄 때마다 이야기 정령은 그 자루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야기 정령들은 도령이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루 속에 틀어박힌 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도령은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일 하나의 이야기 정령이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 자루는 숨이 막히도록 꽉 차 있어서 이야기 정령들은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도령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숙부가 그를 어느 부잣집 딸과 혼례를 정해 주었다. 혼례식 전날 저녁에 도령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있었고 그의 믿음직스런 종복은 도령의 방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종복은 깜짝 놀랐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종복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

“그가 내일 혼인을 한다며?” 하나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 거의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지.”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정말 그래. 이때야말로 그에게 보복할 때가 아니냐?”

“암, 그래야 하구 말구.”

종복은 문창호지의 작은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았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단지 벽에 걸린 낡은 자루로부터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 자루는 마치 그 속에 무언가 살아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신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 말을 탈 것이다. 꽤 먼 길을 가야하겠지? 먼 길을 가노라면 목이 마르게 될 거야. 나는 길가에 있는 새암이 되어 맑은 물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조롱박도 띄워 놓을 거야. 그가 물을 떠 마시면 죽게 되겠지.”

“거 참 좋은 계획이로군. 그가 샘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엔 말이야. 나는 조금 더 가서 맛있는 딸기가 나는 들판이 될 거야. 그가 딸기를 먹으면 죽게 되겠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그때 세 번째가 말했다.

“만일 너희 둘이 다 실패하면 난 별장계 단 부젓가락이 되어 그가 신부 집에 가서 말에서 내릴 때 던고 내릴 왕겨 가마니 속에 숨어 있을 거야.”

넷째가 말했다.

“만약 너희들이 다 실패하면, 난 각시방 요 밑에 작은 독사가 될 거야. 그가 잠자는 사이에 물어버릴 데야.”

그때 다시 한 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늙은 종복은 소름이 끼쳤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정령들이 잠금되어 있었으니 이제 그의 주인을 해치려 하는 것도 어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복은 혼례식을 마치고 전에 그 자루에 손을 대는 것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가 엿들은 것을 주인이 돌아올 때 그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혼례식을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는 신행길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두 필의 말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는 신랑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객으로 가는 그의 숙부를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말을 끌고 갈 말구종이 딸렸다. 그때 그 믿음직스런 종복은 앞으로 나와서 신랑의 말구종으로 따라가게 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종복은 그의 주인을 따라다니는 위험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를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숙부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집에 남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하도 그가 강력하게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 따라 가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당시 풍속대로 신행길 앞에는 신랑이 말을 타고, 뒤에는 그의 숙부가 말을 타고

출발했다. 그 믿음직스런 종복은 그의 주인의 말을 너무도 빨리 끝었기 때문에 숙부는 심하게 서두르는 것을 나무랐으나, 종복은 늦추지를 않았다.

1리쯤 갔을 때 신랑은 목이 마르다며 종복에게 길가에 있는 샘물가에 잠시 머물 것을 청했다. 신랑이 말했다.

“샘물이 참 맑구나. 그 위에 조롱박도 떠 있고, 가서 물 좀 떠오너라.”

그러나 그의 종복은 그저 말을 몰아대며 말했다.

“아니 됩니다요, 도련님 여기서 멈추면 늦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의 주인이 첫 위험을 무사히 넘기게 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랑이 익은 딸기를 보게 되었다. 신랑이 외쳤다.

“들판에 딸기가 좀 열려 있구나. 참 맛있게 보인다. 목이 마르니 어서 가서 좀 따오너라.”

또다시 그의 종복은 거절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요, 도련님. 그것들은 도련님께 좋지 않습니다. 신부댁에 가시면 더 좋은 것을 드실 겁니다. 요컨대, 도련님은 독자이십니다. 길에서 아무것이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요.”

이쯤 되니 이미 신랑의 숙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종복을 꾸짖었다.

“네놈은 물을 떠다 주지도 않았고, 이제는 딸기를 따오라는 것도 마다했다. 혼례식 후에 네놈을 단단히 벌을 주겠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복이 서지를 앓아 주인은 두 번째 위험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정오쯤 되어 그들은 신부의 집에 도착했다. 온 마당에 굉장히 큰 차일을 쳐 놓아서 혹시나 흉조凶鳥가 어둠 위로 날다가 혼례식에 떨어져 신랑 신부가 불행을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문 앞에는 신랑이 말에서 편히 내리게 하기 위해 왕겨 가마니들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그 왕겨 가마니에 발을 내 던자마자 종복이 그의 발을 걷어차서 신랑은 땅바닥에 심하게 넘어졌다. 신랑의 숙부는 앞서 오는 도중에 말을 듣지 않은데다가 이 결정적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격노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차일 안으로 들어갔다.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상[大禮床]이 있었

고 그 위에는 수놓은 천으로 반쯤 감싸여 진 수탉과 암탉이 있었는데 수탉의 다리는 청색 실로, 그리고 암탉의 다리는 홍색 실로 술잔에 묶여 있었다. 신랑은 병풍을 친 앞의 동쪽 편에서 있었다. 옆에 놓인 상 위에는 중매인을 상징하는 나무로 된 오리⁵²⁴가 있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가 서쪽 편으로 두 명의 들러리 처녀와 함께 입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맞절을 하고 술잔을 주고받은 뒤 완전히 식이 끝났다.

그 후 신랑은 안방으로 안내되고 신부는 그녀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온 친척들은 각 방으로 구경하러 들어갔고 방마다 큰 상에 푸짐한 음식과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혼례를 축하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모두가 즐기는 가운데 다만 믿음직한 종복만이 그의 주인의 안전만을 걱정하면서 밤새도록 주인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어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그의 종복이 가서 문을 두드렸다. 신랑 신부가 놀랍게도 종복은 검을 들고 들어왔다. 종복이 요를 찢고서 뱀 한 마리를 찾아내어 단숨에 죽이고는 그것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이 소동으로 집안의 모든 이들이 잠이 깨어 무슨 일이 났는지를 보러왔다. 그들은 상객방에 잠들어 있는 신랑의 숙부를 불러 왔다. 그때 그 늙은 종복은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다.

종복은 숙부에게 벽에 걸려 있는 낡은 자루, 이야기 정령들과 그들의 사악한 속삭임, 독이 들어 있는 샘물과 딸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왕겨 가마니를 가져다가 터뜨려 보았다. 그 안에서 그는 이미 대부분의 왕겨를 태워버린 벌짚게 단 부젓가락을 찾아내었다.

신랑의 숙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늙은 종복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그의 충성심에 대해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다.

비로소 그 도령은 교훈을 얻게 되어 그날로부터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벽에 걸려 있는 자루를 풀어 불에 태웠다.

[『한국의 설화』, 문창준文昌俊, 언양彦陽, 1920, 단국대학교출판부]

524. 기러기[木雅(목안)]

두 형제와 원님

The Two Brothers and the Magistrate

옛날에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두 형제가 살았다. 그들은 아주 작은 징후를 보고 추측하는데 매우 영특했다.

어느 날 그들이 좁은 논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무성하게 자란 풀밭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갑자기 아우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형님, 저것 좀 보세요. 길 왼편의 풀은 뜯어먹고 오른편의 것은 뜯어먹지 않았어요. 오른쪽 눈이 먼 소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형님이 대꾸했다.

“그래, 그 소는 왼쪽 눈으로 길 왼편에 난 풀만을 보았음이 분명해.”

형제는 계속 걸었다. 그때 어떤 남정네가 그들에게 달려와서 홀로 방황하고 있는 소를 보았냐고 물었다.

“그 소는 쉽게 알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눈이 멀었거든요.” 그들은 소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추측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그날 늦게 형제는 산속으로 갔다.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저 먼 곳에 있는 큰 소나무에서 까치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까치는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리 오세요, 젊은 양반들. 이리 오세요. 당신네들이 오실 때까지 나는 떠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까치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가까이 가자, 소나무 아래에 한 남자가 살해되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생전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무서움에 떨었다. 형제는 돌아서서 그 자리로부터 도망쳤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그들을 붙잡고 협박했다.

“네놈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함께 음모하여 그를 죽인 게 아니더냐! 네놈들을 관청으로 끌고 가 살인을 고해야겠다.”

그래서 두 형제는 원님 앞에 끌려가서 옥에 갇혔다. 그들은 결백을 주장했고, 그것을 증

명하기 위해 까치에 대해 원님에게 이야기했고, 자신들은 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원님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형제는 원님 앞에 다시 출두했다. 그는 키가 큰 은행나무 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저 나무 위에서 학이 울고 있는 소리를 알아듣느냐? 어디 한번 저 학이 뭐라고 하는지를 내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형제는 학이 말하고 있는 소리의 뜻을 풀었다. “원님이시여 내 알들을 돌려주세요. 제가 없는 동안 당신이 둥지에서 알들을 훔쳐간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알을 비단으로 싸가지고 소매 속에 감추고 계시지요.”

원님은 형제들의 예사롭지 않은 능력에 크게 감탄하였다. 원님은 소매 속에서 알들을 꺼내어 학에게 돌려주라고 부하들에게 명할 뿐 아니라 두 형제를 옥에서 풀어주었다. 게다가 그들을 원님의 집으로 저녁초대까지 했다.

원님은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쇠고기 요리와 술을 맛보고는 먹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후한 대접에 대해 원님에게 감사하고 그 집을 떠났다.

원님은 왜 그들이 쇠고기와 술을 거절했는지 매우 궁금해서 그의 하인에게 그들을 따라가게 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엿듣게 하였다.

그들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어 그 하인은 두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동생이 말했다.

“형님, 형님은 내가 그 쇠고기를 먹기를 바랐어요? 그것은 인육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술은 사람의 피 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형이 대답했다.

“난 처음에는 몰랐는데 곧 알게 되었지. 그것은 물론 진수성찬이었어. 쇠고기 요리와 술을 제외하면 말이야. 그리고 원님은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의 아들인데도 참 현명한 사람이지?”

이것을 듣고 종은 원님에게 달려가서 쇠고기와 술에 대한 것과 원님이 시주를 구하러 다니는 중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들은 대로 전했다.

원님은 노발대발했고 그 형제를 다시 잡아오게 했다. 원님이 잡혀온 형제에게 물었다.

“쇠고기가 사람의 고기였으며 술은 사람의 피 냄새가 난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하여라.” 동생이 대답하였다.

“원님이시여, 쇠고기를 가져온 푸줏간 백정과 술집 주인에게 가서 각각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원님은 그들을 불러오게 했다.

푸줏간 백정은 소가 새끼를 낳은 후 즉시 죽었기 때문에 그 송아지에게 며칠 동안 그의 아내의 젖을 먹었다고 고백했다.

술집 주인은 누룩을 만들 밀을 갖다 준 농부를 불러올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불러왔고, 그는 특별한 밀을 무덤 옆에 있는 밭에서 재배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밝혀낸 사실이 원님을 만족시켰고, 그는 형제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풀어주었다.

그는 시주를 구하러 다니던 중의 아들이라는 형제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그 말도 진실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과부가 된 늙은 어머니께 그의 출생 배경에 대해 물으러 갔다.

“어머니, 제 진짜 성은 무엇입니까? 제 출생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 방에 들어앉아서 굶어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상한 것을 다 묻는구나. 너는 네 아버지와 당연히 같은 성을 가졌지.” 그러나 원님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어머니가 진실을 말해 줄 때까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단식을 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얘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진실을 말해 줄 테니.”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와서 머뭇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과거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서 꼬박 일 년을 머물렀단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나는 시주를 구하러 문전에 온 어느 스님과 그만 연을 맺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원님은 속세를 떠났고, 산속에 있는 어느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되어 남은 생애를 염불과 참선에 열중하였다.

[『한국의 설화』, 정인목鄭寅穆, 언양彦陽, 1915, 단국대학교출판부]

영리한 아이 덕에 죽음을 면한 중

이전에 도사가 마실에 동녕을 하러 오이 집에 조맨한 아가 하나 있어.

“너저 때 너저 아배⁵²⁵는 어데 갔노?” 쿠이,

“우리 어매는 민 사로 가고 우리 아부지는 민 사로 가고…” 그래, 그 카더랍니다.⁵²⁶

도사가 암만 생각캐도 민 사로 가고 ‘민 사’로 가고 그걸 못 깨치이,

“그래 뭐로 민 사고 뭐로 그래 민 사노?” 쿠이,

“민 사는 거는 지름 사로 가고, 민 사로 가는 거는 미영베⁵²⁷ 사로 가고 그렇다고.”

그 도사가 그 아아 낸주 크게 된다고⁵²⁸ 그 아아로 기어이 절에 더부갈라 캐요.⁵²⁹ 상재로(상좌로) 들라라 캐.

그래 상재로 가는데, 하리 덩기다가 저물어가 한 군데 골짜에 잘라고 드가이까네, 안에 서는(여자는) 있으면서러,

“밖에서(남편이) 어데 가고 없다.” 쿠면서,

“자기는 자지마는 방도 비잡고(비좁고) 그렇다고.”

그래 영감은(남편은) 안 오고 멀죽을⁵³⁰ 한 그릇씩 꿍이가 주더랍니다. 묵고 있으이, 미영을(목화를) 앓아 잣아 쌓더랍니다. 아아는 따라덩기다가 꼬꾸라져가 죽을 판 살 판 자고⁵³¹ 도사는 잠은 안 오고 앓아 있으니 심심해서 한단 말이,

“미영은 잉가이(어지간히) 잣고 씹이나 좀 주라.” 이 카저든.⁵³²

525.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526. 그렇게 하더랍니다

527. 무명베

528. 나중에 큰 인물이 될거라고

529. 데려가려해요

530. 멀건 죽을

531. 따라 다닌다고 고단해서 자고

532. 이렇게 말하거든

아아가 잠이 깨가 두디기로(이불을) 덮어 주고 이라이, 그러구로 남자가 온다. 남자가
오이 여자가 안 글 카는교.⁵³³

글 카이⁵³⁴ 이 남자가 배꼐에 나와가 칼로 시부적 시부적 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아
아가 일어나이,

“나 죽는다.” 도사가 그 카거든.

“그것도 하나 못할 거로 와 자꾸 그 카는교?”⁵³⁵

“내 이름이 시비시비라쿠라.” 쿠거든.

아아가 이견이⁵³⁶ 있어가 그래 안 죽더랍니더. 그날 밤에 안 죽고 살아가 나왔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자출, 상북면, 1984]

어린 고을 원의 아전 길들이기

고을 원이 처음 부임했는데, 그 밑에 요새 곁으며 직원이라 켄까, 아전 이런 사람들하고
술잔이나 묵고 노는데, 나가 열 다얏 살 되이 너무 애리고 이래 놓으이 만만하거든.

만만하이 톱 알라들 그 하듯이 이라거든. 고을 원이 놀아 보이 앞으로 이라다가는 일 처
리하기 곤란하겠다 싶어. 이래서, 저 관원들한테,

“수싯대로 뿌우지(분지르지) 말고 너저 하나씩 해 오너라.”

533. 남편이 오니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동침을 요구하더라고 일러 주었다

534. 그렇게 말하니까

535. 감당하지 못할 일을 왜 저질렀느냐

536. 식견識見, '아는 것이 많다. '식견이 넓다'는 뜻의 경상도사투리

그래 해다 놓고,
 “무쇠로 가지고 모자를 맨들어라.”
 저 술 저 쇠로 가지고 모자를 썰 만치 맨들었지. 고개 몬 드도록 너무 무겁도록은 안 했
 겠지. 모자를 떡 맨들어 놓고 관헌을 쪽 불러가,
 “저 수싯대 저거 뿌우지 말고 소매 안에 Ying어 봐라.”
 암만 나이 적더라도 명령할 때는 그 뭐 명령대로 안 할 수는 없는 기거등. 안 뿌우고 소
 매 안에 다 드갈 수 있나 말이다. 쪼매밖에 안 드가거등.
 “그래 일 년 큰 수싯대가 너저 소매 안에 안 드가는데, 내가 적어도 십 오 년 컸는데, 날
 로 너저 소매 안에 Ying을라고? 될 수가 있느냐? 저거 모자 저거 너저 하나씩 써라. 모자 하
 나씩 써라.”
 모자를 씨이까 마 고개가 자꾸 꾸부리져가 고개로 들 수가 있어야제? 그래 인자 복종한
 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도사의 저주와 보은

옛날에 장자집인데 아주 부자가 천지(전혀) 동녕을 안주는 기라. 중이 가도, 도사가 가
 도 안 주고, 아주 소문이 났다.

그래 도인道人이 상재로 덜고 가가 밑 없는 자리로 가져가,
 “동녕 왔읍니더.” 쿤이까네, 주인이라 쿤는 기 머슴들로 시키가 소치는 소똥찌끄리이로,

“조라” 쿠이, 그래 거어 갖다 한 가래 떠 부아 주이까네, 동녕 안 줄 줄 알고 밑 없는 자리에 부아 놓은께 밑에 탁 흘러 빠네.

“예, 천년만년 사세이.” 이러 쿠고 나오거든.

이 쪽에 걸이⁵³⁷ 크다난 기 있는데, 물을 건넌 수가 없어. 직로로⁵³⁸ 모리고는 못 건네는 기라. 거어 열 대엿 살이나 묵는 머슴아아가 하나 풀로 비고 있거든.

“야야, 이 도랑 조매 갈쳐 도가. 어디로 가모 건네 가겠노?”

“예.” 달말아오디이,⁵³⁹ 도인 도사와 상재를 업어 건네 주거든. 열매나 고맙노, 그 총각을 보고 도인 할배가 뭐라 쿠노 하이,

“내일 사시에 열반하세이.” 그라거든.

상재는 이상해가 떠억 물었다.

“선생님요, 와 소똥 주는 그 사람을 보고 ‘천년만년 사라.’쿠고 우리 업어 건네주는 사람 보고 와 ‘내일 사시 열반하라.’쿠는 기요?”

“그거는 니가 지만⁵⁴⁰이 어둡어가 모린다. 있어 봐라.” 이러 쿠거든.

세월이 열매나 갔는지 한 곤데 지내가이꺼네, 군졸로 거느리고 암행어사 출또로 해가지고,

“여봐라.” 쿠고 나오는데, 그 앞에는 눈도 어둡고, 소똥도 주아 묵고 돌로 주아 묵고 불 불 불 기이맹기거든. 지내가는데, 그 도인 도사가,

“그거 모리겠지? 상재야?”

“모릅니더.”

“우리 업어 건네 준 그 사람이 죽어가 암행어사 출또 해가 나가고, 그 앞 돌도 주아 묵고, 소똥도 주아 묵고 기이맹기제. 그거는 우리 소똥 준 사람이다. 그 안중⁵⁴¹ 갈 날이 멀었다.” 쿠더란다. 아주 살 날이 멀었다 쿠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537. 시내가

538. 가는 길을

539. 달려오더니

540. 소견所見

541. 아직

늙은 아버지

The Aged Father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이 일흔 살을 넘겼을 때, 그를 산에 갔다 버린 후 죽을 때까지 버려두는 풍습이 있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아버지가 일흔 살이 넘어 지계에 매고 산으로 모셔갔다. 아주 멀리까지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늙은 아버지를 내려놓고 약간의 음식과 지계를 그와 함께 버렸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섰을 때 그를 따라갔던 그의 아들이 지계를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집어 올렸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나무라며 말했다.

“너는 그 지계를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돼! 멀리 던져 버려라!”

그러나 그의 아들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늙게 되면 저도 아버지를 버릴 때 이 지계를 쓸걸요. 그래서 전 이 지계를 지금 멀리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말에 깊이 감동받아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그의 등에 메고 집으로 모셔왔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그 악습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한국의 설화』, 서주식徐周植, 언양彦陽, 1916, 단국대학교출판부]

손자 덕에 고려장 면한 사람

옛날에는 칠십아 고래로 하고,⁵⁴² 고 내비는⁵⁴³ 기 발인갑더라.⁵⁴⁴

그래 옛날에 참 고래로 하는데, 그래 언제 저다가 그거로 하노? 내 배라고 하 문 두 분⁵⁴⁵ 배라가 안 되거등. 그래 인자 한 날은 팽이깡 가지고,

“아부지요, 저 여게 지게에 얹히쇼.”

“뭘 하로 가노?”

“갑시더, 그래. 지고 갑시더.”

그래 쯔맨(조그만)은 아아가 거 있다가,

“팽이 그 말라꼬 가지고 가는교?”

“음, 팽이 가져 가야 파고 묻지.” 아이도 따라간다. 그래 인자 아아 때문에 묻지는 묻하 고 지게는 내 버리고(내다 버리고) 산에 놔 두고 온다.

“지게 가져 가입시더.”

“말라꼬(뭘하려고)?”

“아부지도 그래 나가(나이가) 많으며 그래 저다 내비야지.”

그래 해 놓이까네 가만히 생각하이까네 인자 지도 그래 가기 싫은 기라.⁵⁴⁶ 그래 할 수 없이 아부지를 다부(도로) 지고 온다. 그래 인자 아아 때문에 몬 갔다 내비리고 그래 오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정분기, 언양면, 1984]

542. 칠십 살에 고려장을 한다는 뜻이다.

543. 내버리는

544. 바깥 어른인가 보더라

545. 내 버르면서 한 번 두 번

546. 자기도 지게에 얹혀 가기 싫은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옛날 국법이 고래희⁵⁴⁷古來稀에...,

어는 자식이, 모친 나이가 칠십이 되이까네 밤에 그 모친을 업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이래가지고, 골골이 그 곳으로 갔는데, 그 모친이 하는 말씀이,

“야야, 인자 나는 개않다. 니 다부⁵⁴⁸ 집에 갈 적에 어애가지고 갈라노? 내가 니인테 업
히가 오며 갈 곳을 다 준비를 해 났다. 그 길에 내가 올 때마다 그 풀개비로⁵⁴⁹ 전부 골골
이 다 끌어 놓은 그기 있으이, 그 풀개비 끌어 놓은 그 골만 따라가며 니가 집에 갈 끼라.”

국법이 그래서 고려장에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

“내가 인자 칠십이 됐는데, 니가 어두운 밤에 니가 나를 업고 골골이 여러 골로 이래 왔
으이까, 니가 찾아갈 적에는 아매 내 시키는 대로 해야 집을 찾아갈 끼다.”

“법이 그러이 나는 후세를 그거하더라도⁵⁵⁰ 니가 갈 때는 내 하는 대로 해야 집을 찾아갈
끼다.”

범이 암마(아무리) 무섭어도 지 새끼 안 자아 묵는다 카는 겁니더. 죽으머도⁵⁵¹ 자식을 생
각는 부모의 사랑이라 카는 것은 참 말할 수 없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전재임, 두동면, 1984]

547. 70세가 되면 고려장하는 국법이 있었다는 말을 줄인 것이다.

548. 도로

549. 검불을

550. 후세에 가더라도, 즉, ‘죽더라도’란 뜻이다.

551. 죽으면서도

죽은 아들에게서 얻은 손자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칠대독자七代獨子 외아들을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죽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너무도 야속해서 아들의 시체屍體를 마구 두드려 뒀다. 이때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대대를 끊게 하고 먼저 죽은 아들이 하도 야속해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묘자리 하나를 잡아주었다. 가서 보니 상당히 떨어진 낫선 고을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는 널따란 공터였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기대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묘를 쓰고, 평소에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은銀으로 만든 칼 한 자루를 관棺 속에 함께 묻어두었다.

몇 년이 지나 마을의 처녀들이 그 무덤 옆 공터에서 놀았다. 그 가운데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배가 점점 불러지자 처녀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고, 집안에는 온통난리가 났다.

아버지가 딸을 불러 캐묻자 딸이 대답하기를, 무덤 옆의 공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꿈결같이 한 총각이 나타나 잠시 희롱하고는 다급한 일이 있으면 쓸 데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은銀으로 만든 칼 한 자루를 주고 간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딸은 은으로 만든 칼 한 자루를 가져다 아버지에게 주었다.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오라고 이웃 고을에까지 방榜을 붙였다.

잔칫날이 되자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고, 처녀의 아버지는 외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은銀으로 만든 칼을 할아버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칼을 이상하게 생각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처녀의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였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뒤늦게 잔치에 왔다. 그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던 손자 아이가 쭉쭉 달려가 그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기 시작했다.

주인 할아버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칼을 할아버지에게 보였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이 칼은 자신의 아들 무덤에 함께 파묻었던 것이라고 했다. 아들의 무덤이 어디냐고 물어 확인해 보았더니, 바로 딸이 가서 놀았다던 그 공터의 무덤이었다.

[『울산광역시사』 엄기출, 온양면, 1985]

사자생손 死者生孫

옛날에 정승이 아들로 하나 낳아가지고 키아가키워서 장개장가도 몬 보내고 마 죽었거 등. 그래 죽고서러 하도 기가 차가 몬갓다 묻고 집에다가 토롱⁵⁵²을 해 놓고 만날 몬 갓다 내비리고 내놔 두고 있으이까네, 하리는 과객이 한 치⁵⁵³와가 하도 수심을 하고 그래 있으이까네,

“그래 우째서 이러노꼬, 대감이?” 그래 물었다. 그래,

552. 초분草墳

553. 한 명

“다름이 아이라, 내가 여차여차 하고 그러이까네 내가 이렇다고.”

“그래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라꼬, 내가 아무데 터로 하나 잡아 줄 모양이니 거어 갖다가 묻으면 좋은 일이 생길 끼라꼬, 죽은 아들에 산 손자가 생길 끼고, 그래 좋다.” 이카거등.

그래 어데 길거린갑더라, 갖다 묻어 놓고 미똥⁵⁵⁴에다가 집을 하나 지아 났던갑데.

하리(하루)는 서울에 고을 원이 고을살로 내려가미 과연過年한 딸로 하나 쌍가매로 티아 가지고 댜고⁵⁵⁵ 내려오는데 거어 오이까네 땀장던 날이 소내기가 억수로 오거등. 그래 할 수 없어 거어서 내라 비로 피했다.

의지依支라고 비로 피했는데, 오줌소피로 하고 접어가⁵⁵⁶ 다른 데 갈 데 있나? 미로 갖다가 의지로 하고 여불땅아(옆에) 가가 오줌소피로 하이까네 칼이 한 자리 있더라.

칼을 조아가 암말도 안 하고 품에 품고 왔거등. 그래 오고 한 땀 달 되이 마 몸이 엄치⁵⁵⁷ 굶다. 그래 기가 차거등. 이 일로 인자 어떻게 하노 싶고 기가 차가, ‘그 산소가 누고?’꼬 그 염탐을 안 했겠는교?

그래 아바씨가 그 칼로 가지고 정승으 집에 찾아가가 그 칼로 이래 내 놓으이, 저 영감씨가 보이까네, 자기 아들 그 할 직에⁵⁵⁸ 영겹질에 옷에 칼도 우애가 딸리 드가 가지고 묻었거등. 그래가 칼로 보고 수심을 하고 자꾸 보고 이렇거등.

그래 인자 정승이,

“저 칼이 어데 있더냐?”

“그 칼은 내가 내 딸로 데리고 고을살이로 내리 올 때 아무 날에 아무데 오이까네 소나기가 와가 무덤 곁에서 오줌을 누고 그 때부터 태기가 있었다, 와가(와서), 아무데도 지청한⁵⁵⁹ 일이 없는데, 몸이 달라서 여식에게 묻고 닥자를 받으이 비로 피해가 와가 미똥 의지로 하고 오줌소피로 하고 이 칼이 비이 지가 조아 왔다고. 그래가 찾아왔다고.”

554. 묘

555. 태워 가지고 데려

556. 오줌이 마려워서

557. 엄청나게

558. 문을 적에

559. 지체한

그래 마 영감씨가 어찌 좋은지 무릎팍을 탁 치미,

“응, 그렇지.”카고 막 이렇거등.

영감이 산 손자 본다 카이 얼마나 좋으노? 그래 쌍가매로 모시고 데부다 놓이까네, 그
러구러 달이 차가지고 머스마로 삼태로⁵⁶⁰ 낳아. 그기 말따나 삼 정승 이 정승 벼실하고
하고, 좋은 거 다 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송기영, 언양면, 1984]

남편 묘墓에다 오줌 누고 얻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다.

자식도 하나 얻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어 집 근처 자기 밭에다 묘를 썼다. 과부는 항상 밭에 가서 남편의 무덤가에서 오줌을 누었다. 그러면서 자식도 없이 죽은 남편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하소연했다.

어느 날 남편의 무덤가에서 평소처럼 오줌을 누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있더니, 그 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지만, 과부는 아들을 얻은 기쁨에 그런 소문에는 개의치 않고 아들을 정성껏 길렀다.

560. 세 쌍둥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죽은 남편을 닮아갔고, 재주도 비상했다.

어느 날 과부는 온 마을 사람들을 청해다가 아이를 보여주고는, 자신이 아이를 배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는 죽은 남편의 아이가 틀림없다고 했다.

그 후 그 아이는 잘 자라 큰 벼슬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박정자, 언양면, 1987]

아버지를 찾아간 아들

옛날에 참 부자집이 있었거든요. 부자집에 과년한 처자가 있는데, 종을 데리고 목화가 많이 나, 목화밭에 좋은 목화따러 가는데 처자가 따라 갔거든요.

목화밭에 목화 따러 따라가다 그 처자가 참 좋은 목화를 따는데, 막 과악중에(갑자기) 비가 막 내려붓거든. 그래 가 종을,

“우산 가져 오너라. 우비 가 오라.”했거든.

그래 인자 우비 가지러 몸종은 간 뒤에 어떻게 비가 되기 와 났는지 거랑이(시내가) 마마 토수^{土水}가 내리가 거랑이 막히자 몸종은 못 건너온다. 못 건너오는데, 그래 인자 우비를 던지가지고 받아가지고 들고 떠억 비 근치도록 섰다.

비 근치도록 이 건네 서가 있으니까네, 그래 마우산 들고 서 있으니까네 뭇이 엄두리총각이⁵⁶¹ 낫을 거머지고 비를 창대같이 맞고 우두둑둑 우산 밑을 싹 들오거든. 우산 밑을 싹

561. 터벅머리총각이

들옵서,

“비 좀 피합시다.”쿠옵서.

그래 마 비로 피하고 나니까네 벌이 딱끔 나거든. 벌이 딱끔 나니까네 총각은 가 뿌리고 그냥 지 혼차 있었다. 그래 우예 됐는지 마 집에 건니가니까네 배가 또닥또닥 부른다, 처자가.

청중 밑에 쏙 들왔는데 무슨 배가? 재주가 있지. 그전에 붕에 그것도 쏘지 물 쏘아도 아아 뻘다 안 쿠더나.

배가 또닥또닥 부르이 이 집에서는, 부자집에서는 남세시럽어(창피해서) 감당을 못 한다이. 그래가지고 구덩이로 파갖고 구덩이를 파가 그 처자로 Yinger 놓고 쌀로 쵸가 밥을 해가 묵고, 알라 낱아가 미역 Yinger 쵸가지고 국 끓이고 묵고, 굴 안에서 아아로 낱아가 굴 안에서 키웠어. 아들로 낱아가 키왔는데, 녀 몰리 숨키가 키왔는데, 아홉 살쯤 되니까네 서제에 예전에 서제라 카는 데 가가 공부로 하는데, 공부를 하니까네 자꾸,

“저거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애비 없는 아아다.”그리 카거든.

애비 없는 아아다 그리이 차츰차츰 나가(나이가) 든께 분해가지고 즈그 엄매한테 와가지고,

“즈그 애비 안 갈쳐 주몬 칼 가 목 찢러 죽을라.”고 어찌 달라 드는지 여차여차 하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렇다.”이러 카이까네 즈그 애비 찾아갈라고,

“돈 줄라.”쿠거든. 돈을 석 냥을 주거든. 석 냥을 주는데, 그래,

“니 아배 못 찾으몬 안 된다. 니라도 애비 찾거들랑 온나.”

캐서 이리 저리 땡기다가 어디 도사가 점을 잘 한다 카거든. 그래 참,

“어디 가몬 즈그 아배로 찾겠는가?”물어 보이,

“흥, 이 총각은 돼지를 따라야 아비로 찾겠네.”막 이리 때리 붙이거든.

그 말도 안 하고 점을 하는데⁵⁶² 돼지 가는 데만 따라가몬 아바이로 찾겠네, 요 말 한 마

562. 자기의 과거를 알려 주지도 않고 점을 쳤다는 말이다.

디뿐이라.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이상스럽다.”

그래 노자 없이 석 냥 다 죠 뵈데이(주어 버렸다). 복채가 석 냥이다. 석 냥 딱 죠 뿌고 그 래가 큰 동네만 찾아간다. 부자집 골목이 이리 있는데, 고불(모퉁이) 돌아가니까네 참 부 자집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막 집이 좋고 이래 담장 밑이고 이러는데,

담장 밑을 실실 마음이 가고 집어서 가니까네, 막 쪽나구가(소나기가) 막 부아 놓이까 네 돼지새끼가 그 골목에 줄줄 그 부자집에 그리로 마 드가 빠린다.

떡 따라 드갔다. 떡 따라 드가 가지고, 사랑이 큰 채로 뵈히 보고 저쪽으로 앞을 보고 있 으이 큰 채 보는 쪽으로는 앞 사랑 막아가 있는데, 들어가 사랑채 여 뒷담에 서가 보이 큰 방 마리가 다 보이.

그러이 돼지새끼는 즈그 막으로 드가빠리고, 사랑채 뒷담에 딱 사랑채로 들바다 보이 허연 노인이, 쪽나구가 내리붓디만 별이 딱끔하이 나거든.

“허허야, 똑 오늘 날씨가 어느 때 어느 날씨 겠데이.”이렇게 하거든

옛날 처자한테 갔던 그기 생각키가 옛날 어느 날 겠데이 카거든. 즈그 엄매가 말하던 그 날씨거든. 그래 마리에 노인한테 가가, 절로 너붓이 떡 하거든. 노인이 놀래가지고,

“어째 이 이 낫선 도령이?”

그래 참 이바구로 하이 그래 막 반갑다 쿠더란다. 그래 지 아빌 찾더란다. 찾아 그래 잘 사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아들을 찾은 박문수

자리 들어갔습니다, 저물어가. 들어가가 주인집 여자가 참 이쁘더랍니다. 이쁘서 하룻밤 데리고 잤으면 좋겠더랍니다, 안 됐지만. 그래 저 외처(외판 곳) 사람도 없는 데 가가아, “우리 하룻밤 잘 수 있냐?”한께,

“예, 그러쥬.”

“방이 어디냐?”하이까,

“이쪽 방입니다. 방인데, 으스스하거든 말이야, 저녁을 해 드릴끼니 잡숫고, 저녁 이숙하거든 들오몬 이불 덮고 내가 잘 테니까, 들어와 깔에 거어 자도 됩니다.” 이라더래.

그래 인자 어딴기를 바래가, 기다려가 들어간 기라. 들어갔디이만,⁵⁶³ 사람이, 여자가 참 있든 기라.

여잔지 남잔지 모르지만 만쳐 보이까. 그래가 참 동품 한기라. 하고 나올라이 도저히 이 여자가 딱 옷을 쥐고서 안 놓는 기라, 그런데, 날이 새 가는 기라. 큰일 났지. 남의 여자를 강간을 했으면 주인인데(한테) 맞아 죽겠는데, 나올라고 애 쓰면, 어떤 사람이 이불을 한 자리 짹 덮어 썩고 말이야 곰뱅이로(고의를) 짹 쥐고 명주바지인데 이리 짹 쥐고 안 놓는 기라.

그래 이불을 확 덮치 보이까네, 내가 그런 여자로 보았는데,⁵⁶⁴ 눈이 곁에 이런 기 두 개가 붙어가 있고 얹고 말이야, 무섭더래. 동품할 때는 몰랐지마는. 참 기가 막히지.

그래 장도칼로, 옛날에 차고 땡겼거든요. 그 장도칼로 내 가지고 이리 찔라 뺏지. 이렇게 찔라 뿌고 뛰나와가 뭐 다짜고짜 뭐 주인 밥값이고 뵈이고, 뭐 가지고 내(내달아) 삼십육계 출행량을 해서 온 기라.

왔는데, 그라고 몰랐는데, 그 여자가 시집 못가가 그러니까네, 월경이 있는데, 막 시집

563. 들어갔더니

564. 낮에는 예쁜 여자로 보았는데.

보내달라고 자꾸 때를 대는⁵⁶⁵ 사람이라. 그래 주인이, 그 월개가⁵⁶⁶ 신랑 맞이나 한 번 보라고 그래 청해 준기라.

그랬는데 아아가 첫날밤에 잤는데, 머시매가 생기가 낡으니까 아들이라. 그래 그 아아가 학교, 한 일곱 살 묵으이 참 한문 서당 땡기지. 땡기다 보이까네, 아아들이 놀리는 기즈그 어무이는 못 생겼지만 아아는 잘 생긴 기라. 그런데,

“너는 애비도 없는 놈이…”

이라며 자꾸 면박을 주는 기라. 그러이까 한 열 서너 살 됐겠지. 그러이까네 한문도 어시간이 배웠는데, 그러이까네 어무이를 다가친 기라.

“나는 우째 우리 아버지 어무이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났는데, 아버지가 없느냐?”고 이리이까네, 그거로 명주바지 찢런 걸 준비해 뒀어요. 그걸 내 주며,

“이기 너거 아버지 옷이까네, 니 수단대로 가가 이걸 찾아라.”

이 놈이 보따리 싸 짊어지고 땡기며 도저히 찾을 수가 있나? 물을 수가 있나? 뭐 어디 회포할 수가 있나?⁵⁶⁷ 땡기다, 한 일 년 땡기다 한군데 가이까네, 비가 오는데, 떡 큰 집이 있더라.

비가 와가 피해 드가이까네 떡 노인네가, 마루가 큰데, 참 신사 노인네, 지금은 신사지만 옛날에는 참 뭐 벼슬한 사람들이지. 죽 앓아가 술을 묵고 놀더라는 기라. 그래 처마 밑에 떡 한데(밖에) 있으이까네, 좌석에야 못들어가서 한데 있으이까네, 애기로 한 자리씩 돌림자리로 하는 기라.⁵⁶⁸ 그래 애기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주인 박문수가, 주인 박문수 생일이라. 생일잔치를 하는 기라. 박문수가 있는데, 차례가 돌아왔는데,

“아, 난 내가 당한 얘기를 한다.”

소대기가 와가 물이 막 떨어지니까네, 방우에(바위에) 물거품이 막 이렇게 내려 안 갑니까? 이렇게 둥그렇기 이런 기 자꾸 떠내려가거든요. 그래 웃디이마는,

“내가 당한 얘기를 하겠다. 내가 사실은 참 한 주점에 들어갔디이마는 주인 마누라가 하

565. 양달을 하는

566. 월개가

567. 널리 알릴 수가 있나

568. 돌려 가면서 이야기를 한 편씩 했다는 말이다.

도 이빠가지고 좀 자게 해 달라고. 자라고. 아, 그래 아무 방에 옆방에 거어 자라고 해서 들어가니까네, 참 사람이 있어가 잤는데, 아 못 가게 해가지고 꼭 붙잡아가지고 가게 해야지. 나중에 이불을 빼꼈디이만 얹고 무섭고 눈이 저 물방울같이 이렇게 들났더라. 이렇게 둥그렇기 들났더라. 곁에. 그래 귀구영이(기가) 맥혀 가지고 장도칼로 명주로 똑 잘라가 바지를 똑 잘라 내뿌렸다. 그래 가 내빼(도망쳐) 왔다.”

이눔 아아가 들었던 말야. 그러니까 보따리에 명주바지, 명주쫓가리를 내가지고,
“아이,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아이 그러니까 꿈결 같지 뭐. 뭐뭐 옛날에 젊어가지고 한 일을 아나?

그래 가 아들이, 박문수가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 가 아들 하나 찾고, 그 아아는 아버지를 찾고 했는데, 아들이 재주가 있고 하인께 그렇게 됐지, 그러 안 하몬 되겠나? 그래 가 박문수가 아들을 찾았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현몽으로 찾은 혈손

예전에 한 집에 살림은 부잔데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해가지고 사는데, 노인이 저 고개 너메 괴기(고기)로 낚으러 갔는데, 그 날 오후에 참때버텠⁵⁶⁹ 시작해 오후에 참 때 되가 어둡도록 소나구가 어찌기 따루는지, 고 오두막집에 머루치 장사가 한 집 있는데, 거어

569. 중참 때부터

드가가 왔는데, 어애어애하다가⁵⁷⁰ 마 자석이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저렇하다가 고 이듬해 마 죽었어요.

노인이 죽고 날도⁵⁷¹ 잘 지내고, 오만 거 잘 했는데, 씨⁵⁷² 떨어진 줄을 몰랐어요. 그래 할마이잘에는⁵⁷³ 이 얘기로 했던 모양인데, 그 노인 첫 제사가 드는데 큰 채에는 제사 지내고 늙은이가 아랫 채에 자йка네, 그래 꿈에 현몽을 대는데,

“내가 메⁵⁷⁴ 지앗는 밥을 묵을라 카йка네, 생가 부모⁵⁷⁵가 들오지 마라 캐 쌓아여...” 그 래가 제사에 몬 드갔답니더. 밥을 몬 얻어 묵고 쫓기 나와가지고 어털 갔나 쿠며, 괴기 닐 던 그 집에 가йка네, 함판 알곳은 데 꺼먼 삼배 밥부지(보자기)로 하나 덮어가 씨락밥(씨래기)을 해 묵다가 쪼매 붙이 났더랍니더. 그래 그거로 접구接口로 하고 그 귀신이 간 다고 큰 어마이잘에⁵⁷⁶ 현몽을 대요.

“내가 몬 얻어 묵고 내 혈맥 하나 떨어져가 있는데, 거어 가가 판 들시고 함판에 문지가 질처럼 해가 앉았는데 씨락밥 쪼매 붙이 놓은 고거로 내가 묵고 왔는데, 그래 할마이가 그 집으로 사도록 해 줘라.” 이래 꿈에 현몽을 대더랍니더.

큰할마이는 살아가 양자 아들강 사는데, ‘아, 이기 아이구나. 명년 제사 때는 내가 무슨 기회를 찾아가 저거로 찾아야 될다.’ 싶었어. 아아가 그럭저럭 너덧 살 묵었을 때, 두 번째 제사가 드는 날,

“전부 오너라꼬,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으йка네 내 말로 좀 들어라.”

집안이 전부 왔는데 회의로 했답니더. 나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도 다 오라고 전부 모아 놓고, 그래 늙은이가 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아무 데 머루치 장사하는 집에 머스마가 우리 머스만데, 저래 놔 둘 기 아 이라 논을 몇 마지기 주고 앞에 기와집을 좋구로 지아가 살림을 내야 되겠다. 저기 우리

570. 어찌어찌하다가

571.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572. 자식

573. 자기 아내한테는

574. 제삿밥

575. 양자의 실제 부모, 생부生父

576. 본처에게

영감쟁이 혈맥인데, 저걸 놔 뉘가 안 되겠다.”

전부 찬성을 하더랍니다. ‘그래야 된다.’ 카더랍니다.

그래 그 날버텨 불러가 앞산 밭에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머슴을 더불고 한 농장 주고, 양자 아들과 갈라 줘가지고 그래가 더불고 잘 사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저승에서 먹는 제사 음식

옛날에 늙은이가 하나 소귀기가 어찌이 묵고 접은지,⁵⁷⁷

“아이구이, 내 죽거랑 소 잡고 하지 말고, 내 산 직에 소귀기 혼건⁵⁷⁸ 두가.” 만날 그래 쌓 거든.

아들이 듣고 가만 생각한께, ‘저렇기 원을 하는데, 죽고 제사 지내모 뭐 하겠노? 살아 생 전이 제일이지.’ 카며 저실에⁵⁷⁹ 소를 한 마리 잡아 놓고 저실 내도록 만보심을 줬어. 그 래 늙은이가 그러구로 죽었다.

저승을 가가 한쪽 구석에 딱 앉아가 제사를 지내모 그 임석 말키 구신鬼神들이 가아 가⁵⁸⁰ 구신도 친구가 있으이 친구네들 다 갈라 묵거든. 가 오이 암만 무라캐도⁵⁸¹ 안 묵어.

577. 삶은지

578. 살아있을 때 소고기 흡족하게

579. 겨울에

580. 음식은 모두 귀신들이 가져가서

581.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그래,

“당신은 자석이 없나?” 쿠이까네,

“자석 삼형제라.” 쿠거든.

“그래 왜 안 묵노?” 카이,

“내 살아 생전에 유언을 하고 온 때문에 나는 품 값을 기 없어 몬 묵는다.” 쿠거든. 못 묵는다 쿠이, 대장 구신 늑은이가,

“내가 마 품 값두룩 할 터인까네 마 묵우라.”고. 그래가 할 수 없이 어찌 묵고 쪽지로 하나 딱 적어 주며,

“큰 아들 이망박에다⁵⁸² 딱 붙이 놓고 오라.” 쿠거든.

이 늑우, 이망박에다 딱 붙이 놓이 아들이 마 내 죽는다고 야단이거든. 그래 어데가 물어까네,⁵⁸³

“어마시 제사로 와 안 지네노?” 쿠더란다.

“어마시 제사를 안 지내 놓이 그렇다고 인지라도⁵⁸⁴ 제사를 착실히 잘 지내 주모 데사레⁵⁸⁵ 낫는다.”고.

그래가 급해가지고 날도 아인테도 즈거메 그거로 붙이고⁵⁸⁶ 제사를 지내이까네 마 썰친듯이⁵⁸⁷ 낫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582. 이마에다가

583. 점장이에게 가서 점을 쳤다

584. 지금이라도

585. 대번에

586. 어머니의 신위神位를 써 붙이고

587. 스친 듯이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

예전에 설악산 절에 중이 하나 삼십 년이나 혼자 내에 있었는데, 하리 밤에는 부처님이 고향을 가 보라 커더랍니다.

“내일이네 고향에 가봐라.” 커는 기라.

“아이구, 버러⁵⁸⁸ 햇수가 삼십 년이 넘도록 있어가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났을 끼고, 고향을 가며 뭘 하는교?” 안 갈라 커이까네,

“그러나파나 고향을 하문(한번) 가 봐라.” 커더란다.

그래 꼬빠 옛새로 걸어가지고 고향을 갔답니다. 해는 다 돼 가는데, 고향 어른들 사는 곶에 가니, 이 집에 가 봐도 연기도 안 나고 저녁도 안 하고, 저 집에 가 봐도 저녁도 안 하고, 큰 집에 가 봐도 연기도 안 나고, 적은 집에 가 봐도 그렇고, 뭐 이상하거등. 그래 염불로 하며 소리로 했다.

“알긔어라, 어른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도 형도 있고 동성도 있을 낀데, 와 이래 사람이 전부 없는고? 해는 다 됐는데 저녁하는 이도 없고 와 일는고?” 그래 주끼이까네⁵⁸⁹ 뒤에 노인이 하나 와가,

“저 스님, 시주 떠로 왔어요? 시주하라고 왔으면 이 동네 잘몬 들왔습니더.”

“왜요?” 커이,

“요전에 무슨 독한 병이 들와가 이 동네 사람을 멸시^{沒死}했습니더. 그래 우째 땃 집 남은 거는 다 탄 데로 가뿌고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더.”

“그래, 노인은 어땃는교?”

“나는 저 밑에 동네 있는데, 똑 한 사람이 살았습니더.” 커더란다.

“한 사람이 살았으며 우애 했걸래?”

588. 벌써

589. 지껄이니까

“얼라⁵⁹⁰가 하나 살아 있는데.” 그래 그 노인한테 단디 물어가 그 아릿 동네 가가 알아 보이까네, 시 살 무운 얼라가 참 중 조카랴요. 조카 고 하나이 살아. 그래 부처님이 그거 보라고 그랬던 모양이라. 그래 자고 그 아이로 데리고 절에 갔는데, 시 살 묶는 기 염불도 하이 같이 하고, 경도 이르고, 그 산중에 갖다 놔도 무서라고도 안 하고, 아아가 참 이상 하더랍니다.⁵⁹¹

그래 고거를 데리고 중질로 하고 사이까네, 인자 한 댓 살 묶어요. 가을이 닥쳤는데, 설 약산이 칩어 놓으니까네 산에 나무로 해가 다 준비로 해 놓고, 김장도 다 해 놓고, 양식마 준비로 하며 겨울 살 준비가 다 됐는데, 어는 동네 가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얼아로 데리고 가며 양식지고 오는데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나? 세상에 다앗 살 묶은 거로 고거로 절에 혼자 놔두고 양식 구하러 갔단다.

양식 구하러 가가 지 날 올라 커이까네 다 저물어가 마실 사람이 붙들어서 몬 간다, 자고 가라고 캐 쌓아가 그 날 밤에 거게서 잤다. 새벽녘에 문을 열어 보이 마 눈이 이래 와가지고 ‘아이구, 저거 혼자 놔 두고 죽는다.’고 실심한탄을 하고 병이 다 나가 ‘아이구, 이래가 우야꼬?’ 꼬 그래도 눈이 그래 와 놓이 갈 수가 있나?

눈이 와가 암만 걱정을 하이 갈 수가 있나? 마실 사람도 몬 간다고, 이런 데는 가며 죽는다고 몬 간다 캐서, 할 수 없이 그래 붙들 리가 근 보름을 눈 녹도록 거게 있었답니다. 다앗 살 묶는 그거로 세상에 절에 혼자 놔 두고 근 보름을 있으이 그 얼마나 애로 푸우노.⁵⁹²

눈이 쪼매 녹아가지고, 갈라 커이까네, 장골이가 서이 따라 나서가 앞에서 질로 밟아 주더랍니다. 근 보름 넘도록 눈에 갇혔다가 돌아가이까네 그 다앗 살 묶는 거로 죽었지 안 싶우겠는교? 절 앞에 가이까네 목탁 두디리는 소리가 푹푹푹 나더랍니다.

“아이구, 이것아, 니 혼자 그래 어애 살았노?” 커이까네, 큰아버지 앞에 와가 탁 앉으며, “큰아버지요, 누가 와가 밥해 주고 ‘오늘 너저 큰아버지가 오실 끼다.’ 커머 오늘 갔니더.” 커더란다.

590. 아기

591. 착하더랍니다

592. 애를 쓰나

참 뭐가 와가 그랬는지, 절이라 놓이 영기靈氣가 있어 그런가, 밥을 해 주더라 커머 그
기 그래 살아가지고 있더랍니다. 후에 그 중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더랍니다. 하늘이
알건데 그렇지, 다앗 살 묶는 기 근 보름을 혼자 있으니 부처님 도술로 참 여자가 와여 밥
을 해 주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과거꾼을 도운 미륵

서울이 의정부가 오십 리 되이까네 포천서 멀지 않은데, 포천 사람 강씨가 과거를 하러
개나리 봇따리에 신 한 커리 달고 올라 온 기라. 그 사람이 의정부하고 그 사이 재를 올라
오이까, 우편 아주 키가 큰 한 늙이 말로 갖다 놓고 서가 있어요.

“아이구, 센님 인자 오십니까?” 해. 자기는 하인도 없는데,

“말을 타십시오.”

이 사람이 말로 안 탈라이, 자꾸 타라 하는 기라. 그래 말을 탔다. 자꾸 끌고 가디이마는
어둡은 때 되이 아람들이 소나무 많이 있는 어떤 솔밭에 가서 말을 매더랍니다.

“센님, 여어 내리세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나? 죽었다 싶으거든. 도깨비
에 홀린지 우짤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내리까네,

“조금 계십시오. 내가 어디 갔다 올 겁니다.” 갔다가 한참 있으이까 왔다.

“센님, 가십시오.” 큰 작대기 뭉치로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 가디이마는, 아주 큰 담이 있는 대가집 가디이마는,

“센님,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게 대감택인데 오늘 딸을 치왔는데, 여 새치방에

사오가 자는데,⁵⁹³ 겨어 가가 두 내외가 새치방에 자는 데 가서 다짜고짜 없이 이 몽둥이로 가지고 신랑 대가리 때리 꺾어야 됩니다. 안 꺾이몬 내 손에 죽습니다.”

아, 큰일 난 기라. 그래 가니 마부가 담을 넘겨주어 넘어가가지고 사알사알 가 보이까네, 시키는 대로 불이 켜 있는데, 문을 살짝 열어 보이까네 신랑 각시 자던 기라.

그 참 사람을 때려 죽이겠는교? 그런데 만약에 그거로 안 때려 꺾이몬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만 신랑 대가리로 들고 때린기라. 시게 잡아 때린게 자는 놈이 쟁충 뛰는데 자꾸 두들겨 뺐다. 그러니까 구미호九尾狐라.

구미호가 자빠져 있은까네, 마부가 대문깁에 마 화닥닥거리더마는,

“대가집이라는 기, 야아, 구미호로 사우로 봤느냐?” 막 야단을 치는 기라.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 대감도 나오고 가족이 나온 기라. 나와가 사오인데 와 보이까네 구미호가 자빠져가 있단 말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강씨를 들오라고 한 기라.

“우떻게 되었느냐?”

“아이, 구미호를 사오를 봐가지고 되겠느냐?”고. 이렇게 한 기라.

“인제 구미호를 잡아 났으니까네 당신이 우리 딸을 베린 사람인데, 당신이 천상 내 사오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기라.

“아, 그럼 그렇게 하지요.”

안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주인이 저거로 주는⁵⁹⁴ 대가大家 정승이라. 그래 하루를 묵디 이만 그 사람이 또 가자 하는 기라.

서울에 잣골에 큰 대가집이 하나 있는데, 빈 집이에 가디이마는 말을 세워 내리라고 해. 빈 집에 대문은 열리가 있는데 드가디이마는,

“집이 이런데 방을 좀 소지(청소)로 하라.”고 방을 썰 빗자루로 하나 갖다 주는 기라.

“불을 좀 때십시오.”

그래 불을 때디이마는 쌀을 좀 갖다 주며 미음을 끓이 놓으라고. 그래 미음을 끓이 났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보이 우짤⁵⁹⁵ 처녀 송장을 하나 가져 온 기라. 그래 깜짝 놀래가 그

593. 여기 작은방에 사위가 자는데

594. 벼슬을 주는

595. 어떤

라이까네,

“아, 매듭 좀 풀고 얹한 거 전부 풀고 해가 조금 있으라고, 보라고.” 그래 숨이 터진 기
라. 그러더이 미음을 드렸디이마는 눈을 뜨고,

“여어가 어딘가? 아무테가 우리 집인데…” 이렇게 한 기라. 그래 가지고,

“가자고. 집에 가자고.”

말에 처녀와 둘이 태워가 그 집에 간 기라. 처녀가 죽어 묻은 지가 사흘 된 기라. 처녀가
먼저 드가가지고,

“어무이.” 하고 들어가이까네,

“아이구, 니가 귀신이 왔느냐? 사람이 왔느냐?” 이렇게 한 기야. 그런까네,

“아이구, 내가 육신이 왔읍니다.” 이라고 들어간 기라. 들어가 손을 만치 본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들어가서 하이까네,

“저어 온 사람들이 둘 다 은인인데, 들오라 하라고.”

그래 마부는 사랑에 들고, 강씨는 천상 안방에 들어가이까네,

“나를 살렸이이까네 남편으로 삼으몬 어떻겠읍니까?” 부모인데 그러이까네,

“그래야지. 죽은 사람 살렸으이까네 너가 일생을 맺겨야지.” 이렇게 한 기라. 그래 그 집
도 과거, 참 베풀주는 사람이라. 그래 하리 묵디이만, 마부가,

“내가 판기 아이고 미륵인데, 베풀하러 오는 당신 살리 줄라고 한 겁니다. 인자는 두 집
다 베풀 주는 사람이까네, 당신 베풀 많이 할끼고 잘 살 겁니다.”

강씨가 두 대가집에 장개를 가 잘 살고 베풀도 하고 했는데, 그래 그 은공을 갚을라고
찾아갔답니다.

거계로 찾아가이까네 미륵이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정성을 잘 드렸습니다.

“나를 잘 보호 해 줘서 감사합니다.”고. 그 자손꺼정 몇 대로 내려가면서 거계다 음식 해
다 놓고서 잘 빌었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아기 장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아로⁵⁹⁶ 그늘 나무 밑에 눕히 놓고 점도록 모로⁵⁹⁷ 심으니까네, 저녁 나절 되이꺼네 어떤 양반이 말로 우레주레 타고 오디마는,

“그래 당신 오늘 점도록 모 숨군 모 피기가 땃 피기요?”⁵⁹⁸ 커더란다.

그라이까네 어른이 참 대답할 목적(근거)이 있나? 점도록 모 숨간 모피기로 우째 아노? 그래 있으니까네, 그늘 나무 밑에 눕었던 알라가⁵⁹⁹ 참 그거로 하더라 커데.

“당신은 오늘 점도록 걸어온 말 자죽(자국)이 땃 자죽이요?” 커더란다.

그래가 그 사람이 마 말로 몬 하고 돌아서가 가뿌더란다. 그래가 돌아서가 가는 사람이 그 애로 죽일라고 작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참 알라가 그래,

“엄마, 콩 한 되 팔 한 되 팔아가지고 이거로 맛도 보지 말고 요거로 뿔아가 날로 줄라 (달라).” 이카거등.

그래가 아아는 마 뒷동산 방우(바위)밑에 가 숨었거등. 숨었는데,

“그래 엄마,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날로 직이로 올 모양이니까, 함부래(아예) 내 있는 곳을 갈쳐 주지 마라.”고 이라거등.

그래 콩 한 되 팔 한 되로 팔아가 뿔아가지고, 저거 엄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싫어서 한 개 맛을 봐버렸어요. 그래 한날은 말로 우레주레타고 와가지고 마 그래,

“당신 아아로 우였노꼬? 어데 갔노꼬?”

“모린다꼬.” 그런까네 마 죽일라고 작정을 하거등. 저거 엄마한테,

“죽이도, 엄마, 할 그가 있으니까네⁶⁰⁰ 절대 갈쳐 주지 마라.” 했는데,

죽일라고 달드이까 마 저 거 엄마가 갈쳐 조 빼렸어. 그래 갈쳐 조놓이까네, 방우 밑에

596. 아이를

597. 저물도록 모를

598. 심은 모 포기가 몇 포기인가요?

599. 어린애가

600. 피할 방법이 있으니까

있는 아아로 마 활로, 자꾸 쏘거등 고 활로 쏘오이 까네 그 애가 그 콩을 가지고 그 화살로 다 받아 냈어요. 화살로 그래 다 받아 냈는데 마지막에 고 한 개 저거 엄매 하나 묵어 뿌놓으이 하나가 모지래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어 뿌더란다.

저거 엄매가 맛 안 봤으며 다 받아가 살았을끼네. 그러이 참 옛날부터 큰 자식을 놓을라 커머 부모한테 불효하기 된다 커는 말이 있거등.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분이, 언양면, 1984]

아기장수와 용마

경주 읍내 배반에 있는 그 집이 다 들난⁶⁰¹ 집이거든. 이전에 그 최진사 경주 최부자 그 집 일간데, 일간에 여기 심곡⁶⁰² 이라는 데 와가지고 살았다. 입암서 여어 살았는데, 이전에 피로 잘 씌몬, 사람이 그래 난다 이래 쌓았거든.

장군대장혈에 피로 썼는데, 그래 참 장군이 났어. 장군이 나도 장군이 났는동 몰랐는데, 저거 어마님도 아아만 낳았는데 이리 여겼는데, 삼칠일三七日 지내고 서답씻글 옷을 모다⁶⁰³ 가지고 서답을 씻그로 갔는데, 한 시간 넘기 아아로 방에다 눕히 놓고 우이 됐는고 싶어가 문을 열어 보니, 마 아아가 없어. 어이 되었는데 살펴보이 아아가 저 천장에 가가 떡 붙었어. 그래 아아로 붙들어 놓고, 낮이 된까네 그 가장家長 되는 이가 산에 가서 일로

601. 유명한

602.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蔚州郡 凡西面 立岩里와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603. 빨래할 옷을 모아

해가지고 집에 오거든.

그래 가장한테 이약을 했던 말이다. 이전에는 사람이 잘나가 그라몬 역적이 된다 그래. 사람이 잘나몬 나라를 치고 내가 임금질을 할라고 그래 나라에서는 어데동동⁶⁰⁴ 사람났다 카몬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성을 해가지고 나라를 도우라고 훈계를 안하고, 그 사람이 나라를 치고 그란다고 겁을 내가지고, 처가, 외가, 본가, 3족을 망우거든. 멸손을 시킨다.

그래 장군에 났다 카이 겁을 내고 나라에서도 알고 어찌될 동 몰라. 그래 그 아아로 꺾었다 말이다. 그 아아로 옷에 싸가지고 제복 묵직한 서답돌로 갖다가 우에다 얹어가 마아아가 죽었다.

그리 죽이 뿌리고 난까네, 그 집으로 말이 울고 나갔단다. 심곡하고 입암하고 거리가 그리 안 먼데 큰 결江이 있고 거랑江북판에 입암⁶⁰⁵ 카는 돌이 있는데, 그 용마가 입암 선바우 밑에서 나왔다 말다. 그 선바우 밑에는 수심이 깊으지. 그기 역수로 깊고 크거마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천석, 청량면, 1984]

604. 어디든지

605. 선바위

남양 홍씨 백일홍 자손

옛날에 정승이나 판서가 되는 집인 남양 홍씨南陽 洪氏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도 결 혼해가 죽고, 며늘도 죽고, 손지도 죽고, 다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십살 묵은 중 내우 간內外間밖에 없었는데 남자 종이 말어요,

“우리 상전이 남양 홍씨데 문을 닫았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장개를 보내야 안 되겠느냐?” 하이까네, 동네 아는 사람이,

“아이구, 백 살 묵은 노인네로 우찌 장개로 보내겠나? 자네가 오늘 저녁에 백 살 묵은 노인네 상전님 짚에 가서 자고 몸도 만치보고, 이래 해 보면 분명히 알기라고. 장개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알기라고.”

그래 자고 난 다음 아침에 남자가 물으니까,

“아직 혈기가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마실 건네, 외판 데, 술도 해 팔고 이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딸이 한 열 여덟 살 묵은 딸이 있었어요. 그래 이 얘기로 한 기라.⁶⁰⁶ 그래 가 쌀 한 가마니로 저다 줬다.

“아이구, 어딴 쌀로 이리 가지고 오시는교?”

“우리 센님이 갖다 주라 캐서 가져 왔습니다.”

없는 형편에, 술 팔아 묵고 사니까 얼마 곤란한교? 그러이까 반가이 묵을 거 아니요? 한 달 뒤에 또 한 가마 갖다 줬다 말이라.

“아, 어째 이래 가져 오요?”

“우리 센님이 자주 갖다 주라 캐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 석 달로 갖다 줬다 말이라.

“내가 좀 요구할 기 있어 왔습니다.”

606. 중매를 하자고 의논을 했다

“아, 뭔데? 요구하는 대로 들어 줄게 아니냐?”고 그래,
 “우리 섯님이 백 살인데, 혈육이 없고, 다 죽고 없는데, 문을 닫습니다.”⁶⁰⁷ 그리이까네
 집에 딸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구, 요구는 내가 얼마든지 들어 줘야 되겠는데, 이진 요구가 안되겠습니다.” 이렇
 게 하더라. 그러니까,
 “야 그 뭐 의논을 해 보라고.” 그래 딸하고 어무이 하고 얘기한 기라.
 “니가 그런 백 살 묵는 늙은이한테 데 시집을 가겠냐?” 하니까,
 “아이구, 어머님 시집보내 주세요, 거게 내가 갑니다. 내가 죽은 쪽으로,⁶⁰⁸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어무이도 늙어 죽을 동안은 괜찮고 나는 그 자손만 물려 나오면 양반이
 됩니다.”
 그렇기 한 기라. 그래가지고 잔치로 한 기라.⁶⁰⁹
 이 여자 와가지고 참 백 살 묵은 영감을 보고 그 얼마나 잘했는지, 백 한 살 묵어 아들 낳
 았습니다. 백 살에 흥가가 꽃이 피었인까네 그래 백일홍이 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꾸려 갔는데, 백서너 살 묵어 아들 둘 낳고 돌아갔습니다.
 남양 흥씨데, 자손이 없었는데, 그 종이 참 착하게 잘 해가지고 그래 자손이 많이 퍼져
 가 충청도에 백일홍 자손이라고 그 손을 잇아가지고 참 잘 됐입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607. 후손後孫이 끊인다

608. 죽은 섯 치고

609. 혼례婚禮를 치렀다

후손을 잇게 한 손부孫婦

판서를 지낸 현풍 곽씨 노인네가 아들, 손자가 다 죽어 비뿔어요. 그래 상노인네⁶¹⁰는 할마이도 없이 며느리 자부가 있고 손지며느리가 있었어요.

손지며느리가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가 현풍 곽씨 집에 시집을 왔다가 어머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문을 닫아⁶¹¹ 돼졌 입니까?” 이래이까네,

“아 그렇다고 조금 있어몬 백 살인데 팔십 열메되는 노인네를 우똥기 장개를 보내 자식을 보겠나?” 하이니까,

“아이구, 될 수 있는 대로 해 보몬 될 거 아입니까? 그래 어머님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한 기라.

종을 많이 데리고 있다가 살림을 나가 살게 했는데, 한 사십 몇 살 된 종이 놀러 가이까네,

“우째 왔느냐?”

“놀러 왔지. 심심해 놀러 왔지.”

“내가 어려운 말을 한 번 할라고 왔는데...”

“뭘 말어요? 말만 하몬 우리가 들어 줄 깁니다.” 이랬는데, 아 그 집 딸이 한 열 여섯 목는데,

“우리 상할아버지가 혼자 됐는데, 곽씨가 문을 닫는데, 집에 딸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주면 어땠겠느냐?”

“아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기라.

그래 의논을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딸이 뭐냐몬,

“우째 그분네가 왔느냐?” 하이까네,

610. 시아버지

611. 후손後孫이 끊겨서

“그래 너를 달라고 왔는데, 너가 팔십 몇 살 묵은 노인네한테 가겠나?” 이렇게 한 기라.
 “아이, 아버지 거어다 날 주세요. 나 없는 폭 치고 호랭이 물어 간 폭 치고 주세요. 그라
 모 아버지는, 집이 잘 됩니다. 내가 가서 손만 잇아 주문 아버지는 양반이 됩니다.”
 그레 참 마음을 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준다고 승낙한 기라.
 그레가지고 잔치고 해 놓이, 이 여자가 참 의견이 있는 여자라. 몸은 안 늙었어요.⁶¹² 그
 래가지고 닭을 자꾸 잡아다가 노인을 보신을 시키고 좀 건강해가 양기가 좀 돈까네, 노
 인네 있는 방에 거처를 하면서 빨래를 두드리면서 젊은 여자가 옷통을 벗어제치고 젖통
 이 훌훌하이까 노인네가 좀 양기가 돌 꺼 아입니까? 그레 가 이내 몸을 섞어가지고 아들
 을 낳았어요. 그레가지고 곱씨네 시조를 잇았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저승에서 명을 받고 나온 윤 진사

예전에 윤 진사라고 해평海平에 한 분이 있었는데, 나가 서른 살만 되믄 아 하나 놓고 죽
 고 죽고, 삼대를 죽었어. 그레 인자 삼대만에 손자 하나 있는 사람이 벼슬을 진사로 하네.
 그레 삼대를 죽고 나이 저그 징조할매가 혼자 돼가 있고, 서이가 인자 늙은기 떡 과부가
 됐네. 그레 서이가 또 인자 장개로 가라 칼꺼 아이가?

“난 장개 안 갈랍니다.”

612. 아직 양기陽氣가 있다

“와 안 갈라 카노?”

“지금 징조할미꺼지 서이인데, 내가 가 서른에 죽고 나쁜 여자가 너이 되이 내 장개 안 갈랍니다.”

이래 장가를 안 갈라 컨대이, 뭐 죽어도 뒤가 있어야 되지, 장가 안가가 되나? 장가를 가라고 자꾸 권고를 한다. 기어이 장가를 안갈라 캐. 그래 인제 그 총객이 장개를 안 가고 서른 살꺼지 있다 안 죽었나.

떡 죽고나이, 저승을 떡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뭐라 했는고 하이,

“염라대왕은 우리캥 무슨 원수가 저 가지고 삼대로 서른 살 무가(먹어) 잡아가고, 우리 징조할매가 혼자 있고, 우리 할매가 혼자 있고, 우리 엄매 혼자 있는데, 내 하나 있는 거 이꺼정(이것까지) 잡아 같으이, 우리 가정에 무슨 원수가 저가 염라대왕이 이렇게 악하게 하느냐?”

“아, 그래 됐나? 책 가져온나(오너라) 보자.”

그래 참 장부를 보더니,

“아, 그 참혹하게 됐다.”

“참혹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장개를 안 가고 왔는데, 우리 뒤는 인자 끊어졌입니더.”

“아 그래 이기 잘못 돼서 이런데, 닌(너는) 다부(다시) 나가라.” 이란다 말이지.

“그래 다부 나가든 날로 명을 얼마나 줄란교?”

“니가 다부 나가든 아매(아마) 칠십은 살끼다.”

“기양(기왕) 나가거들랑 우리 징조 할배부터 잡아 갔으인까 날 백 살로 살도록 해주소.”

“그러든 정 원이거든 백 살로 점지해 주꾸마.” 이래.

돌아서가 나오다가 보이까네, 아주 좋은 처자가, 참 잘난 처자가 죽어가 글로(그 곳으로) 드간다 말이다. 딸로 저마이(저만큰) 키아가 죽으든 참 얼마나 원통컨노(원통하겠느냐) 싶어가 처자 뒤에 다부 따라 드가서

“염라대왕, 이런 처자를 키운 부모 가심이 얼마나 아푸겠소? 세사아(세상에) 났다가 결 혼도 함은(한번) 못 해보고, 이 처자를 다부 살리 좀 보내 주소. 내 나로(나이를) 좀 띠가(떼어서) 보태가 이 처자 빨리 살리 주소.” 이래 했다 말이지.

“그거 분수가 있는 걸 그래가 되나?”

“미안합니다. 이 딸을 이만탕(이만큼) 키아가주고 함은(한번) 결혼도 못 시기고서(시키
고) 부모로서 얼마나 가심 아푸겠소. 그러니까 살리주소.”

“그럼 니 나로(나이를) 얼마나 줄라노?”

“이 처자가 스물 두 살 묵었는데, 지(저의) 나 백 살 탔으니까네 한 육십 살아도 되이 한
사십을 감해가 이 처자를 주소.” 그래 사정하이

“정 니 나를(나이를) 감해가 줄라 카든 주지. 탄(다른) 나는(나이는) 보텔 끼 없다.”

그래 지(자기) 나를(나이를) 백 살로 탄 거로 사십을 그 처자한테 주고 같이 인자 나오기
가 됐는데, 무남독녀인 처녀가 가마이 보이 하도 고맙애가(고마와서) 고맙다고 인사할라
카이 이 총각이

“낭자는 어딴냐?” 고 물어. 그래 처자가

“곡조문전曲栗門前에 설 낭자라.”⁶¹³ 삼작걸에 굽은 대추나무 있는 집에 설가의 딸이라.”
그카고(그렇게 말하고) 처자가 총각한테 주소를 물으니까.

“나는 저 해평에 윤 진사라 카는 분에 아들인데 윤 진사다.”이랬다 말이다.

그래 깨가(죽음에서 깨어) 서로 지지금(각각) 집에 가 살아뵈대이.

처자가 가마이 생각하이 그 분 아이랐이믄(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사십을 날로 조가(주
어) 살아나왔인께, 내 그 분을 찾아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객이 들어가 있는데, 해평 윤
진사라고 아무리 어데 수소문해야 몬(못) 찾아. 사람을 몬 찾고.

또 이 윤 진사도 다부 살아나가 장개로 갈라 켜께, 아무래도 그 처자를 함은(한번) 만나
보고 장개를 가든(갔으면) 싶은 생객이 있어. 저그 할매가 빨리 장개가라 캐도 안 가고 인
제 보따리 들고 사방팔방을 돌아댁기는데 처자를 도저히 몬 찾겠어. 삼 년을 돌아댁기다
가 하루는 마실에 가인께네 좋은 경사에 뭐 붉은 옷 푸른 옷을 입고 사람이 오고 가고 해
쌍거든. 그래 누구한테 물으이께네,

613. 곡조문전曲栗門前에 설 낭자薛娘子라

“오늘 저 집 잔채 (잔치)라.” 낀다 말이다. 그래

“잔채하는 집 성이 뭐꼬?”쿠이

그 집 성이 설가라 카거든. 여거 어디 그런 분이 참 있는가 싶어가 인자 잔채 집으로 갔다. 가이, 삿잡걸에 보인까네 굽은 대추나무가 있어. 이상타 싶어 가서 그래 인자 옆방에 그 옆에 덕석을 하나 펴고

“언칸(어지간히) 땡졌더니 시장허인께, 나도 좀 요구(요기)를 시키 주이소.” 커니께네, 그래 상을 한 상 채리 주거든. 그래 묵었다. 묵으민서 생각하이 문전에 대추나무 있고 설가네 집인 까네 그럴싸하기는 하지마는 이미 결혼 약속이 돼가 오늘 장개 오는 사램이 있는데, 뭐라 물을 수도 없고, 거 앓아 술로 한 잔 묵는다.

쳐너도 내(계속해) 생깁이 저승에서 만낸 그것만 켜해이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가가 삼년이 가도 소식이 없이니 천상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건너방에서 넘어다 보인까네 저승에서 만낸 사램이 덕석에 앉았는 사램이 그 사램이라. 그(그걸) 보이 기가 찰 일이라 말이다.

그래서 처자가 암말도(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가서러 운 진사한테 이야길 하이께네

“아 그렇냐?”카고, 그래 서로 인자 만나게 됐다 말이다.

그러나 운 진사가

“나는 오늘날까정 결혼 안 하고 처자 찾으라고 조선 팔도를 땡기도 몬 찾었는데 오늘 매침 이렇게 만났이나 서로 인연이 아인께네 일이 이리 됐다. 우리가 인연 있어든 내가 처자를 진작 찾았을끼네, 버러(벌써) 약속이 돼가 오늘 버러 예禮 디리는 날에 이래 만나가도리 없이니 암말도 하지 말고 그리 시집을 가라.”이랬다.

처자가

“안 된다.”카네.

그래 인제 처자가 방에 드가민서러

“내 말하기 전에 여(여기) 나가지 말고 있으라.”카고

저그 부모들 불러 놓고 사실대로 이야길 했다. 그란께네,

“그렇지만 인제 버러 뭐 한쪽에는 장개 잔치를 채리가 오는데 말이 되나? 함부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함부래 그런 말 하지 말아라.”카거든.

그래도 처자가

“그건 절대 안 된다.”카는기라.

“날로 기어이 결혼하랴든 자살로 했으든 했지 안 되께네 저분 땀에 내가 살아 있는데 기어이 퇴혼을 하라.” 카는기라.

그러나 부모는 명목상 퇴혼할 도리가 없는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저그 부모들캥 와삭와삭 싱강이(승강이) 해싸인까네, 집안에서도,

“뭇 따문에 걸노? (그러느냐?)” 이래됐다 말이다.

“그거 들을 이야기 아이라.” 카는데,

뭐 보이 주인 돌키가 그래싸이 잔채가 뒤세(두서)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사람들이 물코(묻고) 달코 하니까네 사실대로 이야길 텃다.(털어놓았다.)

“그러든 안 된다. 지가 버러(벌써) 죽기 살기로 그카는데 될 수 없다. 장개 오는 사람한테 막 타지(털어놓지).”

그래썻는데, 장개 채리고 온 사램이 잔채집에 들어왔다. 들온께네 처자가

“그래도 기어이 안 된다.” 카는기라.

그래 상각하고(상객과) 온 사람한테 제(모두) 내력을 이야글 안 했나.

“아이, 그러든 우리가 물러 가겠다.”

그래가 인자 장개 채려온 사램이 물러가고, 이 사램캥 그날에 마 옷해 논 거 갈아 입히기 기양 결혼식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돌키가 결혼을 해가서 자숙을 삼형제 낳고, 다 오래 살고 잘 지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간부를 죽이고 신랑을 구한 마을 머슴

옛날에 참 총각이 엄두리 총각이⁶¹⁴ 부모도 없고 되기 못 살아가지고 내에 넘우 집을 살았거든.⁶¹⁵ 사는데 그 동네 부잣집에 대밭이 많이 있어. 대밭 짚에다가 처자 방을, 연당을 별당매리(처럼) 방이 있던갑데. 처자 자는 방인데, 그래 동네 청년들이, 머슴들이 말 키 모디가지고⁶¹⁶ 그 집에 그날 딸로 치운다 쿠거든. 그 집 부잣집에 딸로 치운다고 담장을 짝 이래 쭈욱 쳐 놓았는데, 그 대밭에는 아무도 못 가가 대로 못 찌(베어) 나오거든. 그래 가지고,

“그 대밭에 가 대만 니가 한 개 찌가 나오몬 참 되기 대접을 잘 하고, 탁주 한 말 내가지고 잘 놓고 상금 준다.”고 이랬거든.

이래 놓이 갔어. 가이까네 대밭 밑에 담장 밑에 뱅뱅 이래 도이까네 담장에 질이 딱 나가 있어. 살찌기 올라가가지고 가이 대밭 속으로 질에 딱 드가는데, 대밭 속에 요리 드가이까네, 불이 뻥한데, 처자방이라요.

중놈이 따로 처자방에 땡기던 모양이라. 옛날부터 고런 기 있던갑네. 땡기던 곳에 질이 딱 나가 있거든.

그래 가가 대로 못 찌가 왔다. 대는 안 찌고 그래 가지가 표로 봐 났거든. 언제라도 딱 봐 놓고….

처자 치었다고⁶¹⁷ 상방新房 채린다는 고 시간에 간다, 총각이. 지가 마 고래 알고는 마. 그 뒤에 인자 대로 찌가 나오몬 거어(거기에) 갔던 표가 나고…. 그래,

“거게 드갈 자리가 없어 못 찼다.”고 내밀었거든, 못 찼다고. 안 찌가 오고. 지가 별

614. 터벅머리 총각이

615. 내내 남의 집을 살았거든. 머슴살이를 했다는 말이다.

616. 모두 모여서

617. 결혼 시켰다고

주로 내고,

그래 가 칼로 쳐가지고(만들어서) 돌로 때리몬 싹 나가고, 어떻게 갈아 났는지, 돌이라도 때리면 싹 나가고, 나무를 치몬 싹 나가고, 탁 베라⁶¹⁸ 났거든. 베라 놓고 고 칼을 딱 징기고 그날 저녁 탁 갔다.

싹 넘어가지고 대밭 속에 살 앓아 있으니까네 상방 채리가 신랑, 각시 예상 받아 놓고 있는데, 가만 있으니까네 그 담장에 중놈이 넘어오거든.

중놈이 고오 딱 넘어 와가지고 방에 싹 드가거든. 방에 싹 드가 가지고, 인제 신랑, 각시 예상 받아 놓은 그거로 그래 간다. 이 여자가 일어나서엄서,

“오라버니 오는교?”이러 쿠거든.

오라베라 해야, 신랑 속으라고 이라거든.

“응.”쿤서로 같이 앉아서 신랑이 그 사람에게 술로 부아 준다.

술로 부아 주고 노나(나누어) 묵고 노나 묵고,

중놈이 또옥 칼로 가지 와가지고 신랑한테 안주 준다 쿠는 기 칼로 가 콕 찍어서 신랑 입에다 넣어 주고 이러거든요. 이라는데, 사지가 벌벌 떨리지, 뭐 분해가. ‘찢러 뽀몬 우야꼬?’ 싶어가 있는데, 그래 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네,

“그래 인자 고만 묵을란다.”이라이까네,

“한 잔만 더 잡수소.”

신랑에게 권하니까네, 한 잔만 더 잡수소. 자꾸 권하이까네, 한 잔을 마시고 이래.

안주 찍는다고 요래가 싹 찍는 바람에 마, 싹 드가가 목을 탁 쳐 뽀거든. 중놈 목을 탁 쳐 뽀이까네, 탁 치이까네, 그래 신랑이 하는 말이 탁 붙들고,

“아이고, 아버지요, 날 살리 주소.”쿠거든.

“나는 느그 아버지 아이다.”

획 돌아서는데 칼에 도복 자리가⁶¹⁹ 싹 나가 비렸어. 나는 느그 아버지 아이다. 쿠움서

618. 버려. 날카롭게 만들다

619. 자락이

획 돌면서 싹 나오는데, 칼에 탁 붙어 있더라. 찢러 놓이 피가 묻었지. 도복 자리가 꿰어져도 이게 붙어가 안 떨어지더라.

고거로 인자 징기고 때만 바랜다. 고거로 탁 징기고 있는데다가 그래 처자는, 마 신랑이 도망을 쳤지. 도복을 입고 마,

“아부지 갑시더.”카고 아부지 모시고 가 뵈다.

그래 인자 이 총각이 인자 앉아가 발표 나도록, 소문나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네, 그래 인자 말이 나기로,

“석 달 열흘 얘기잔치⁶²⁰로 한다.”카는 기라요.

얘기 잔치로 한다 쿠는데 마지막 날 이 총각이 들어갔어. 들어 가가지고 신랑이, 어느 놈이 죽인 고지로⁶²¹ 모르이, 원이⁶²² 그 사람을 알고 싶어가지고, 살리 준 사람을 알고 싶어가 그래 인자 아바씨가 큰 잔치를 하는기라. 신랑집에서 잔치했네.

석 달 열흘로 한다 쿠거든. 이 총각이 도복 자락을 탁 겹어지고 갔어. 가이까네 그래 가 마지막 날.... 얘기를 석 달 열흘 동안 하는데 조선팔도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안 나오거든. 마지막 날에 그래 이 사람이 탁 가가 얘기를 척 했거든.

“도복자락이 여기 있다.”고 하이,

“얘들아 내 도복 가아 오너라.” 늙었어, 신랑이.

그래 인자 도복을 가져와 쪼가리를 맞추이 탁 맞더라. 딱 맞아 놓으니까네,

“이럴 수가 어디 있노?”

탄복을 하고 앞산 밭에 집을 지어 살림을 내 주더라. 장개보네 살림 내 주더랍니다. 그래 그 총각이 그래 잘 살았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묘남, 상북면, 1984]

620. 이야기 잔치

621 연유를

622. 고을 원님이

소경과 악령들

The Blind Man and the Devils

한국에서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눈먼 사람들은 점쟁이가 된다.

그들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상한 목소리로 외치곤 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장래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혼식 또는 장례식을 치를 시기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할 시기 등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한다.

아주 옛날에, 한양漢陽에 유명한 점쟁이가 살았다. 그는 소경이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잔치 또는 장례식에서 쓸 것 같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상자를 나르고 있는 어린 시종을 만났다. 동시에 그는 많은 귀신들이 음식물 주위를 맴돌며 각양각색의 옷을 -빨강, 초록, 보라- 물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음식 먹을 집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조금 뒤에 떨어져서 어린 시종을 따라갔다. 왜냐하면 소경이 뒤에서 따라가는 걸 안다면 시종이 의심스러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어린 시종이 화려한 저택 앞에 다다랐다. 시종이 안으로 들어가고, 소경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곧 그는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란한 이유는 그 집의 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즉시 그는 처녀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악한 귀신들이 그녀에게 붙은 게 틀림없었다. 소경은 저택의 주인에게 가서 말했다.

“저는 눈먼 점쟁이입니다. 당신의 따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집으로 오는 도중에 보았던 것을 말했다.

주인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즉시 소경이 주술을 부릴 수 있게 준비하였다.

맨 처음, 그는 작은 방으로 처녀의 몸을 옮겼다. 그리고 모든 창과 문을 빈틈없이 닫았다. 그리고 방의 바늘구멍 같은 틈과 갈라진 틈을 종이로 붙였다. 그 후에 그는 처녀의 옆에 앉아서 신비한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슬슬 꿈꿈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좀 더 경을 외우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온 방안이 꿈꿈거리는 신음소리로 가득 찼으나 소경은 조용하게 경을 계속 읊조렸다.

처녀의 몸에 붙었던 귀신들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다. 안에서의 소동에 깜짝 놀란 하녀는 창문에 가까이 가서 살며시 새끼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어 그 광경을 훑쳐보았다. 하녀가 만든 구멍으로 모든 귀신들은 순식간에 도망쳤다. 소경은 그들을 생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다행히도, 죽었던 처녀는 눈을 뜨고 일어나 부모님을 보았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소경은 말했다.

“지는 앞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도망친 귀신들이 분명히 복수를 해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처녀의 아버지가 보답으로 준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는 그 집을 떠났다.

눈먼 점쟁이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서 결국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았다. 임금님은 신비한 이야기들을 잘 믿지 않는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님은 소경이 무지한 백성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불러들여 처벌하기로 뜻을 굳혔다. 그래서 임금님은 소경을 심판하고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궁으로 불러 들였다.

임금님은 죽이기 전에 소경의 앞에 쥐를 놓아두고는 물었다.

“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소경이 지체 없이 대답했다.

“쥐입니다. 전하.” 흠칫 놀란 임금님은 다시 물었다.

“몇 마리의 쥐가 네 앞에 있느냐? 그것 또한 말할 수 있는가?”

“세 마리의 쥐가 있습니다. 전하.” 소경이 대답했다.

그 즉시 임금님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소경에게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거짓을 말하는 사기꾼이구나. 네 앞에는 오직 한 마리의 쥐가 있을 뿐인데 너는 세 마리라고 대답하였지. 이로써 우리는 눈먼 점쟁이가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구나. 너는 단지 사기꾼일 뿐이다. 나는 너를 백성을 속인 죄로 즉시 교수형에 처하겠다.”

소경은 심한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하, 저는 쥐 세 마리의 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동쪽 문의 바깥 사형터로 끌려 나가게 되었다.

몇몇의 대신들은 호기심에 그 쥐의 배를 갈라 보았고, 그 안에 두 마리의 새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소경의 신비한 능력에 매우 감명 받은 임금님은 소경을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 당시에는 사형터에 보내는 긴급한 명령이 있을 때 병사를 궁전의 동쪽 끝 망루에 보내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다. 만일 깃발이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그것은 죄수를 살려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깃발이 왼쪽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사형시키라는 뜻이었다.

그런 풍습에 따라서 소경의 목숨을 살려두라는 통보를 알리려고 사람을 망루로 보냈다. 그러나 그가 막 오른쪽으로 깃발을 흔들려고 할 때 바람이 홀연히 인어나 깃발을 왼쪽으로 밀었다. 온 힘을 다하여 다시 오른쪽으로 흔들려고 했지만 곧 왼쪽으로 흔들렸다.

그래서 소경은 결국 처형되었다. 그 후에 바람은 즉시 사라졌다. 그 자리에 귀신의 비웃음 소리가 울렸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복수를 마쳤다! 이제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국의 설화』, 정택하鄭宅夏, 언양彦陽, 1936, 단국대학교출판부]

중이 된 과부의 염불

옛날에 아들 둘로 낳아 놓고 혼차 돼가 사는데, 하도하도 신랑 정을 못 띠가지고, 허새 비매이⁶²³로 맨들어가지고 갓을 씌우고 신랑 옷을 입히기 만날 구석에다 세아 놓고 일로 하다가 잘 때,

“아이고이, 누부소⁶²⁴ 잡시다.” 쿠고 만날 이리 한다.

시숙이 손을 씻이러 나온 것 매이로 순행을 만날 도는데, 가마이 들으이,

“아이고, 누부소. 잡시다. 잡시다.” 이 카거든. 그래 이튿날 무조건 가라 쿠거든.

“가라고, 일 없다.” 고.

“그래 가겠다.”고.

그래 여덟 폭 치매로 한 폭 따가 고깔 집고(깍고), 한 폭 따가 바랑 집고, 한 폭 따가 행전 집고, 말키 그래 가 인자 중질로 나간다.

머리 깎고 중이 옳은 중가(중인가)? 절로 가나? 뭐 염불로 배았나? 내 나오는 대로, 심 중에 맺히는 그대로,

“동냥 좀 주이소.”

“하이고, 염불하이소. 동냥 디리께.” 염불이 있어야제? 그러이까네,

“우리 순봉 크거들랑 전라감사 마련하고, 우리 차봉 크거들랑 궤양감사 마련하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이라 캐야 그거거든. 삼짝 삼쩍이⁶²⁵ 땡기며 그래 동냥을 해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 팔도강산을 도다가 도다가 다시 인자 그곳을 돌아와졌는지 그곳도 인자 잊아뻘는 기라. 그래 한 집에 와가 보이 젊은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 할무이요, 그 염불 한 번 더 하이소.” 이라거든.

623. 허수아비처럼

624. 누우십시오

625. 사립마다

그거로 한 번 더 했다. 그기 인자 이핀⁶²⁶ 며느리라. 그래 떡 잡아가, 찹 꼭 이 맘대로 움
 팍움팍⁶²⁷ 팔도로 댕기미 염불로 지극정성으로 해 놓이 찹, 전라감사 마련하고, 궤양감
 사 마련하고 아들 두 나치 그만치 잘 돼가 그래 그 며느리로 받아가, 그 어른을 그만치 잘
 모시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바보 아들

옛날에 호불애비⁶²⁸가 아들로 하나 낳아가 참 귀하게 키었는데,
 아들을 장개 보내 며느로 봤거든요. 봐 놓이 손지(손자)를 하나 낳았다. 손지로 낳아 놓
 이 이참 얼음마 걸음마 애지중지. 시아바씨가 키울 참이라.
 얼음마 걸음마 키우고 한 너댓 살 무우 놓이, 인자 아들도 부모도 소중하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 옛날에 똥물로 안쳤는교?⁶²⁹ 장구이를 짙어지고 식전 아지에 촉
 은데 보리밭에 가가 똥물로 치고 오이까, 마 이놈우 저저 아버지가 이핀(자기) 아들로 문
 을 열어 문밖에 내 놓고 마 벌벌벌벌 떨루고 있거등.
 아들이 똥장구이를 지고 오미 생각하이까 ‘저니러⁶³⁰ 아버지가 와 녀우 아들, 귀한 아들
 로 와 저래 떨루노?’⁶³¹ 싶어가,
 ‘나도 한번 떨어 봐야 될다. 아버지 마음은 어쩜고.’ 싶어가 똥장구이 갖다 훌럭 벗어 놓

626. 이 사람

627. 마음 내키는 대로 구석구석마다

628. 흠아비

629. 똥물을 안 쳤습니까

630. 저의 비하卑下

631. 떨게하는가

고, 지도 옷 훌락훌락 벗어 놓고 지 아들캉 둘이 저거 아버지 문 앞에 가가 문 열어 놓고,
“아버지, 함 보소.” 카고 둘이 부자간에 마 얼라 덴고 벌벌벌 떨고 서가 있더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금미, 언양면, 1984]

바보 사위

어떤 옛날에 어떤 바보가 장개를 떡 가이 처갓집을 몬 찾아가가지고 처갓집에 가다가
하이까,⁶³² 누가 거랑에(도랑에) 앉아 빨래를 씻거 쌓는 기라. 그래,
“여보소, 여보소, 아래 여어 밥수건 덮어 놓고 잔치하는 집이 어던(어느) 집 인교?” 커이까네,
개로 한 바리 툇 때리민서러,
“이 개 따라 가라.” 커더라 커데.
그래 개 따라 자꾸 가이까 개가 마 수채 구무로(구멍으로) 쑥 드가뿌거등. 그래 수채 구
무로 떡 드가이까네...
그래 집에서 처갓집에 보낼 때,
“처가아 가가지고 우애끼나 처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 행세로 하라.” 켜거등.
그라이까 울타리 굽에 또 쑥 드가뿌렸어. 가다가 보이, 천장에 저어 마 갓이 저어 떡 받
치거등. 근데 지는 안 받치거등. 일부러 풀쩍 뛰가지고 지도 갓을 받칠라고. 그래
“처갓집에 가거들랑 문이 많이 떨어졌거들랑 뭐 ‘백호천천百戶穿穿 이로구나’ 커라.” 커
던가? 그러 커라 커이까네,

632. 보니까

“배꾸무(배꼽) 땡땡이로구나.” 커고,
 그래 처남으 댕이 베로 짜이까네 저
 “꼴에 베 찐다고야.” 커고,
 저저 각시 밥하는 데 가가지고는,
 “처남으 댕 밥하는교?” 커고
 인자 참 나박김치로 담아 주이 그기 맛이 있었거등. 그재 인자 지너어(저녁에) 자다가
 각시한테 그래,
 “낮에 묵던 김치 그 참 맛있더라고. 좀 줄라(달라).” 커이까네 그래,
 “가 찾아 묵어라.” 커거등. 그래,
 “어딴노?” 물으이까네,
 “아무 데 가머 있다고.”
 이눔을 가와가⁶³³ 나박김치를 한쪽 손으로 거머 무우이까 안 되거등. 그래 마 나뿌거등
 요.⁶³⁴ 그래 마 두 손을 집어 쥘어가지고 들고 나오이 마 단지 아구빠리가 솔아가⁶³⁵ 손이
 안 나오거등. 그래도 결국 거머쥐고 나올라고 작정을 하고 이라는데, 각시 마느래 자는
 데 가가지고,
 “이저 이저 이저 이저 안 나온다.” 커이까네 각시가 기도 안 차 가지고,
 “그러머 마 저 보칫돌(주춧돌)에 가가지고 깨뿌라.” 커거등.
 그래 마 변소로 가이까네 뼈떡뼈떡하이 있거등. 있으치 보칫돌인가 싶어가 들고 썰리
 쪼디마는 마 장인 이망빠기를 들고 썰리 주 놓이,
 그래 인자 깨뿌고 떡 오이까네, 마 밀개자리⁶³⁶를 디디뿌 놓으이까네 마 밀개자리가 끄
 떡 서가 마 지 이망빠기를 들고 썰리 주거등 그래,
 “아이구, 하느님요, 그만 일에 배락 때리는교?” 커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분이, 언양면, 1984]

633. 이눔을 가져와서

634. 양에 차지 않거든요

635. 아가리가 좁아서

636. 고무래

바보 신랑과 영리한 신부

옛날 바보가 있는데, 그 장개로 가 놓이 오감사가⁶³⁷ 참 좋은 기라. 참 좋아 놓이까네 사람들이 오감사로 빼앗을라고 주막에 가가 술로 뺨 돌려 앉아서 무웁서러, 거짓말로 얘기 하자고,

“산에 가 샷갓만한 따버섯을 따가실랑⁶³⁸ 열 둘이 반찬을 하고 하네⁶³⁹ 물 기 남았다.” 일쿠거든.

또 한 놈은 있다가서로,

“낫자리 떨어진 것 그거를 거머쥐고 가가 올라가미 섭득, 내려가미 섭득 그래 한 짐 해가 툭 부덜키 났다.” 쿠거든.

그래 바보 해나 두고 그거를 암만 얘기를 하라 캐도 얘기를 안 하거든. 안 하이까네 그 래 저,

“그라며 이야기 몬하몬 너저 오감사 빼앗는데이.” 일쿠거든.

아무날꺼정 안하몬 오감사 빼앗는다 이캐 노이까네, 이기 즈그 집에 가서 암만 생각해 도 얘기는 없고 고민이 돼가 방구석에 떡 들어 눕어가 아무 것도 안하고 죽기 돼가 있 거든. 그래 한날 아직에는 즈그 오감사가 자꾸 물으이까네 그래 그 말로 하거든.

“그래 이 얘기를 딴 사람이 그래 했는데, 나는 이 얘기할 기 없어가지고 온 아침에 니 빼 앗으로 온다.” 이라거든.

“그래 바보야, 너는 그라몬 저 별통 안에 가마 숨어 있어라.” 일쿠거든.

옛날에는 별통이 통으로 둘병하이⁶⁴⁰ 파가 토종별로 앓아가지고 구멍⁶⁴¹을 파가주고 둘

637. 아내가

638. 따가지고서는

639. 한 사람

640. 둥글게

641. 구멍

병하이 그렇거든. 그 속에다 떡 주아엿어⁶⁴² 우에다가 벌을 앓훈 돌박을 떡 덮어 씌아 놓
고서는,

정지에 밥을 하이까네, 삼작 밖에서 인자 저거 친구가 아무것이 아무것이 하거든.⁶⁴³

“없임더.” 이라거든. 그래,

“어디 갔노?” 이래,

“어제 낮에 놓은 강아지 데리고, 온 아침에 깐 매새끼 데리고 사냥하러 갔다.” 이래 쿠거
든. 그라이 거짓말한다 쿠거든.

“그래 어제 낳은 강아지 데리고 온 아침에 깐 매새끼 데리고 우예 저 사냥을 하노?”

“데이 여보소. 당신네들은 저 샷갓만한 까버섯 따가지고 서로 저 열 둘이 반찬하고 하
내 물 기 남가 놓고, 자리 없는 낫을 거머쥐고 올라가며 섭뜩 내려가며 섭뜩 을 한 짐 해
가 우예 오노?”

그래 야단을 치거든. 그라이까네 이 사람들이 마 할 말이 없어 멀춤하이 서가 있으이까
네 이거는 마 좋아가 ‘허허허’야고 윗으니까네⁶⁴⁴ 마 별통 그 기 끈들 끈들 끈들 하거든.

“말 잘하는 집에는 별통도 춤추네.” 쿠움서로⁶⁴⁵ 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못 빼앗아 가뿌
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필정, 청량면, 1984]

642. 집어 넣어서

643. 바보 신랑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다

644. 웃으니까

645. 말하면서

꿀뚱, 떡나무와 생명의 나팔

Sweet Dung, the Cake-Tree, and the Bugle of Life

옛날에 강아지와 감나무, 나팔을 가진 한 가난한 사나이가 살았다. 어느 날 사나이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꿀이 가득 찬 벌집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꿀을 따 가지고 집으로 와 찬장 속에 넣어 두었다.

밤이 되어 사나이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강아지가 꿀을 찾아 다 훑다먹어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사나이는 노발대발하며 강아지를 두드려 뺐다. 그러자 그만 강아지가 놀라서 똥을 짊끔 쏘다. 똥에서는 꿀 냄새가 진동하였고, 그래서 사나이가 손가락으로 똥을 찍어 맛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똥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그래서 사나이는 강아지를 길가로 데리고 나가 외쳤다. “말뚱이요, 꿀뚱 사세요. 이 강아지가 꿀뚱을 싣답니다. 어서 와 꿀뚱 사세요. 아주 쌉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 와 맛을 보고는 꿀뚱을 사갔다. 그때 한 양반이 다가와서 그 강아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다. 그래서 사나이는 강아지를 천 냥에 팔았다.

다음날 그 양반은 손님을 많이 초대하여 특별한 꿀뚱 잔치를 열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양반은 자신의 도포자락에서 강아지를 꺼내어 손가락으로 배를 쥐어짖다. 그러자 강아지는 각 그릇에 똥을 쏘다. 그런데 손님들이 그 똥을 먹더니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화가 나 소리쳤다. 그 강아지는 밥을 먹었고 똥은 늘 그러던 것처럼 구린내를 풍겼던 것이다. 양반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강아지를 판 사나이를 찾으러 뛰쳐나갔다.

사나이는 양반이 곧 따지러 올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떡을 많이 만들어서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다 높이 매달아 놓으라고 했다.

이윽고 양반이 돈을 모두 되돌려 받기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사나이의 집으로 달려 들어왔다. 사나이는 양반을 공손히 맞으며 아내에게

“선비님이 오셨는데 변변히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나무에 떡을 좀 따 가지고 와야겠소. 올해 수확은 별로 좋지 않지만 아래쪽 가지에 좀 달려 있을 거요.”하고 말했다.

양반은 떡나무 이야기를 듣자 호기심이 가득 차 그만 자신이 화가 났던 것을 잊어버렸다. 호기심에 양반은 마당에 나가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에는 떡이 꽤 많이 열려 있었고, 사나이의 아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떡을 따고 있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양반은 강아지에 대해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맛있는 떡을 먹어 본 후 자신이 떡나무를 사겠다고 말했다.

사나이는 흔쾌히 응했고 떡나무를 천 냥에 팔았다. 더불어 그 집도 함께 팔아버렸다. 양반은 자신이 산 신기한 나무에 뿌듯해 하며 기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사나리와 아내는 다른 마을로 떠났다.

양반은 아내에게 떡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주 헐값에 샀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매우 의아해하며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날 양반은 그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나무는 그저 떡이 매달린 평범한 나무였을 뿐이었다. 양반은 두 번 속은 것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그 부부가 떠났다는 마을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부부는 양반을 속이기 위한 다른 꾀를 생각하고 있었다. 사나이는 개를 죽여서 아내의 가슴속에 개 내장을 감추어 놓았다. 그때 양반이 찾아와 대문에서 사나이를 부르자 아내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양반이 찾아 온 것이 아주 귀찮다고 투덜대는 체했다. 그러자 사나이는 아내에게 사정없이 독설을 퍼부으며

“어디 남자들 일에 아녀자가 나선단 말이오. 손님에게 이런 결례를 범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소.”하고 말하며,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척했다. 곧바로 아내는 개창자를 땅 위에 내던지고 쓰러져 죽은 체 하였다.

양반은 사나이의 무자비한 행동과 아내의 죽음에 놀랐으나 사나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가며 낡은 나팔 하나를 가져왔다. 그는 나팔을 아내의 똥구멍에 대고 힘껏 불었다. 그러자 아내가 바로 살아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앉았다.

양반은 이 난처한 상황이 그리 쉽게 풀린 것에 안심되었다.

그 나팔이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양반은 그 나팔을 사겠다고 말했고 사나이는 흔쾌히 또 천 냥을 받고 팔았다. 그리하여 사나이는 모두 삼천 냥을 벌었다. 뿐만

아니라 사나이는 양반에게 자신이 산 것에 대해 더 이상 불평하러 오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양반은 나팔을 가진 것이 너무나 뿌듯했다. 그러나 양반이 나팔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또 그의 어리석은 흥정에 전에 없이 마구 화를 내며 나무랐다. 이에 양반은 몹시 화가 나서 아내를 때려죽였다.

식구들은 양반의 급작스런 난폭함에 매우 놀랐다. 그러나 양반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 나팔을 아내의 치마 밑에 넣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 틀림없이 아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양반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아내는 살아나지 않았고 결국에 양반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었다.

[『한국의 설화』, 최서방崔書房, 언양彦陽, 1914, 단국대학교출판부]

시누이 덕으로 사이가 좋아진 부부

옛날에 그 저 시집살 적에 하도하도 시집살기가 참 댔는데(고되었는데), 신랑이 저게(자기) 각시로 싫어 해가지고서르 하문은(한번은) 노래로 했다 커데. 옛날에 베로 짜민서르 노래로 했는데, 그래,

“풍이 풍이 봄풍이는 봄풍인들 매양있나. 얼음인들 매양있나. 이슬 맞은 깔잎사구(갈잎) 저홀로 홀로지고.” 캄시르(라면서) 그래 노래로 해 놔 놓이까네, 시누부가 가만히 들으이까네 이상스럽은 노래거등.

“요내 나도 죽거들랑 강남땅 제비돼가 처마끝에 집을 지아가 날른 보고 들른 볼래.”꼬

노래로 딱 하이,

이 시누부가 가만히 들어 보이 참 이상시럽거등. 그 말캉(전부) 하는 노래가 저거 오빠 노래거등.

“그래 언니야, 그래 그기 머슨 노래냐?”꼬 물으이까네,

“그래 너거 하는 노래는 아이다. 이거는 시집살이 노래다.” 그래 시누부로 머라켰어(꾸짖었어). 머라커이까네 시누부가,

“그래도 나는 오라비 오시면 내가 일러 줄 끼다. 서울 가신 오빠 오시면 내가 일러 줄 끼다.”고 이래 말을 하이까, 그래,

“함부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꼬. 그런 거는 너거 아아들 듣는 노래가 아이고 우리 시집살이 노래라꼬.”

인자 저거 오라비가 딱 이래 서울서르 인자 딱 내려 오이까네,

“그래 오빠는 그래 내 노래로 하문 들어 보라.”꼬 이라거등. 그래,

“머슨 노래고? 하문 해 보라.” 커이까네, 그래 하이까네, 저거 올키 하는 대로,

“풍이 풍이 봄풍이는 봄풍인들 매양있나. 얼음인들 매양있나. 이실 맞은 깔잇사구 저홀로 홀로지고 요내 나도 죽으며 강남땅 제비되어 처마끝에 집을 지어 날든 보고 들든볼래.” 이래 노래로 딱 하이까네,

“그래 누가 그라더노?” 커이까네,

“그래 아랫방에 올케 싱이가 그래 베로 짜미 그래 노래로 하더라꼬.” 그래 저거 올키로 들꼬(데리고) 오라고 이라이까네, 텔꼬 와가 딱 앉으이까네,

“앉으라.” 커이까네,

‘이 사람이 생전 평소 때 내한테 이래 안하는데 이거 왜 이러노?’ 싫어가지고 겁을 내가지고서는 그래가 딱 앉으이까네, 그래 손을 이래 딱 만치이까네, 그래,

“손 놓으라꼬. 그래 손을 잡으며 안 된다꼬. 손 놓으라.” 그래 커민서 나갔거등. 나가이까네 또 치마로 딱 잡으멍기이까네, 그래,

“치마도, 치마 저게 꼬리에 때 묻으며 그래 안 된다.” 이커이까네,

“치마꼬리 때 묻으며 저 서울이라 장완長安 안에 양젯물을 사다가 본살같이(원래대로)

식거 입지.” 커저등. 또 저고리로 땡기이까네,

“저고리도 땡기지 마라꼬. 땡기며 짜진다.” 커이까네, 그래,

“짜지머 또 서울 장완 안에 당사실로 사다가 본살같이 깎어 입지.” 커저등.

그래가지고 마 백년 인연이 맺어져 빠렸어 마. 그마이 바람을 피우고 싫은 사람이 백년 인연이 맺어 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그 시누부 때문에.

“나는 이거 백년을 맺어주이까네, 그래 시집갈 적에는 내가 오만 거로 다 해가지고 말 고개로 소고개로 억만으로 해가지고 시집 보내 주꾸마. 시누부 니 때문에 내가 백년 인연을 맺어 줬다.” 그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권예영, 언양면, 1984]

재치 있는 나이 많은 신부

A Clever Old Bride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예사였고,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한번은 나이가 꽤 많은 신부가 꼬마신랑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는 그를 남편으로서 대접해주려 했지만, 꼬마신랑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 그녀를 끊임없이 골탕을 먹였다.

하루는 신부가 솥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꼬마신랑이 오더니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졸랐다.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스러워, 호되게 쏘아 붙였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와서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꼬마신랑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평평 울어댔다. 너무도 당황한 그녀는 남편을 들쳐 업고 아기처럼 달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는 곧 울음을 그쳤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왔다. 놀란 그녀는 대문 쪽으로 가서 꼬마신랑에게 박이자라고 있는 초가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외쳤다.

“잘 익은 걸로 하나 따 주세요!” 만일 그녀가 남편을 어린아이처럼 업어준 것이 알려지면 그녀는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을 어린 아이처럼 업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아버지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한국의 설화』, 정덕조鄭德祚, 언양彦陽. 1913, 단국대학교출판부]

정도령과 봉덕이의 사랑

정도령 총각이 이부제 어마시가⁶⁴⁶ 없고 다신에미인테⁶⁴⁷ 자란 처자 봉덕이가 하도 좋아가 탐이 나.

처자도 그 총각이 마음에 있었고. 총각이 방에 앉아 글 공부로 하고 처자는 문리⁶⁴⁸ 밑에 숨어가지고 글공부하는 거 듣고 있었거든. 총각이 공부로 하다가 문리 끝으로 나오몬 달이 화랑창겉이 밝아,

“달도 밝고 달도 밝다. 저 달 속에 가시며 우리 봉에 봉덕이 보련마는.” 이리 하거든.

646. 아버지 어머니가

647. 계모한테

648. 문지방

그래 여러 번 그 소리를 듣다가 하룻 저녁에는 처자가 지도 나옴서나,⁶⁴⁹
 “달도 좋다. 달도 좋다. 저 달 속에 가시몬 정에 정도령을 보련마는.” 이러 쿠이까네, 총
 각이 마 다말아 내려오디마⁶⁵⁰는 그냥 처자를 덥씩 안고는 저거 방에 드가거든.
 처자로 거어다 놔 줄 수가 없고 만날 낮으로는 벽장 안에다 주아 영어 놓는다.
 노비종들이 밥을 가지고 오몬 그 밥을 가 장 돌이 낀가 묵고⁶⁵¹ 그래. 종들이 ‘밥을 반도
 다 안 자시는데, 밥을 우에 만날 저래 나쁘게 그러는고?’⁶⁵²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
 이다.
 그래 요년들이 밥을 쥐 놓고 문귀영을 살 들어다 봐왔어. 노비종들이 보이까네 웬 회청
 매灰青梅⁶⁵³ 같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밥을 갈라 묵거든.
 이거 즈그 부모님네들인데 딱 그러 캬다. 그러 카이까네, 이 부모네들이,
 “아이구, 아무도, 새집승도 못 나드는 데 어는 기 가가 있노?”고 하미 즈그 아버지는 자
 꾸 조사를 하고 뭐 직일라고 딱 시작거든. 공부나 하지, 그런 짓 한다고.
 그래 처자가 무슨 요술을 가지고 끼미⁶⁵⁴ 그 총각으로 살리가지고 즈그대로 가가 부부
 가 되어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사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649. 자기도 나오면서

650. 달려 내려오더니

651. 가지고 늘 돌이 나누어 먹고

652. 평소에는 정도령이 밥을 반밖에 먹지 않는데, 이즈음은 저렇게 모자라는 듯이 다 먹어 치우는가?

653. 아름다운 처녀

654. 꾸미가지고

이정승 아들의 재치

김정승은 잘 살고 이정승은 못 살았거등.⁶⁵⁵ 못 살아가지고 만날⁶⁵⁶ 김정승이 시키는 대로 했거등. 시키는 대로 해 놓이까네, 그 집에 얼라가,⁶⁵⁷ 이정승집에 얼라가 그래 장(늘) 놀러 댕기는데, 얼라가 한 여남 살⁶⁵⁸ 무웠던 기라. 그래 인자 서당아 글 배우러 댕기는데, 하루는 저기 아버지⁶⁵⁹가 놀러 가디마는 걱정을 태산같이 허거등. 김정승이 이정승을 시켰다 말이다.

“내 요거 해가 오라 카머⁶⁶⁰ 니 해가 오겠나?” 이라이까네(이렇게 말하니),

“해 오지르(오지)” 꼬(라고) 해 놓고 집에 와여 생각하이께네 할 가망이 없다 말이다.

동지 설달인데, 그래 하루는 언자 아이가 책을 책대로 쏘아가지고 서당아 갈라고 딱 있으이 저저 아버지가 밥을 안 묵고 눅었거등.

“와예? 아버지, 그래 밥을 안 묵고 눅었는교?”

“김정승이 뭘 시키는데 내가 할 가망이 없다.”

“뭘 시키던교?” 이라거등.

“야야, 산에 가가지고 멀구를 따가 오라 키는데,⁶⁶¹ 이 동지 설달에 내가 멀구를 어디 가여 따가 오노? 멀구를 못 따겠다.”

“그래, 가마 아버지,⁶⁶² 그거 걱정 없심더. 내가 아버지 대로 가겠심더. 아버지, 마 밥 잡소.⁶⁶³”이라거등.

655. 못 살았거던

656. 매일

657. 어린 아이가

658. 열 살 정도

659. 아버지

660. 이것 해서 오라고하면

661. 산에 가서 머루를 따오라는데

662. 가만히 계십시오 아버지

663. 그만 진지 드십시오.

“에이, 이놈의 손, 니가 어디 대로 가가⁶⁶⁴ 우얏 끼라고(어떻게 할 거라고). 니가 볼테기 나 맞고 온나.” 이라거등.

“아, 마 아버지, 밥 잡소.”

그래가 서당에 갔다와도 또 안 가. 그래 또 밥을 안 묵고 있거등. 그 이튿날 또,

“아버지, 와 밥 안 잡숴는교(드십니까)?”

“에이, 이놈아야, 니 거어 가지 마라. 너 거어 가며 볼테기(뽀) 맞는다. 가지 마라.”카고 있으이,

“그래 오늘은 내가 아버지 대로 내가 가가지고 김정승한테 내가 말로 여쭙고 오겠심더. 아버지, 밥 잡소.”이카거등(이렇게 말하거등).

그래 글캐도 뭐 저 머스마 갔다올 땐에(동안에) 마 저거 아버지가 있거등. 그래 갔다. 김정승 집에 갔다. 이정승 아들이 쪼맨은 기(작은 게) 가이끼네, 그래 딱 가가지고 정승 있는 데 차마 문을 몬 열고 딱 나락섬 짚에 붙어 있으이끼네, 그래 문을 탁 여이 아아가 받히고

“에이이, 이놈아, 니 와 왔노?”카이,

“아버지가요 병이 나가 가마 눅았심더.”

“와 그렁노?”카이,

“그래 아버지가 멀구 따러 가가지고 마 독새 아래 물리가지고⁶⁶⁵ 마 그래 안동지동 부어가지고 마 가마 눅었심더.”이래 카거등.

“에이, 이놈우 손(이 녀석) 예라, 동지 선달에 무신 독사가 있노?”카이,

“대감님은 그라며 동지 선달에 ‘멀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 저거 아배(아버지) 민해 주더란다. 그래 민해 주민서러 그래 언자,

“오늘 고마 가소. 언자 정승집에 놀러 가소. 내가 가 다 이바구해 뵈심더.⁶⁶⁶ 가소.”

그래 놀러 갔다. 가이(가니),

664.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대신 가서

665. 독사에 물려서

666. 이야기해놓았습니다.

“야, 너거 머스마 그기 와여거짓말을 하더라. 니 독새 아래 물리가지고 통통 부았다 카 디마는 우예 왔노?” 이카거등. 그래,

“독사 아래 물리가지고 낫았다.” 이카미 오거등(이리며 오거든).

그래 가만 그 김정승이 생각하이끼네 ‘아, 그 녀이 크기 될다.’ 싶우거등. ‘머슴아가 저 녀이 인지 크며 내한테 이기겠다.’ 이래 싶우거등. 그래 ‘에라, 이놈우, 저래가 그거 할 밖 에 없다.’

그래 저거 집에 언자(이젠) 제북(제법) 처자가⁶⁶⁷ 제북 저 머스마카마⁶⁶⁸ 컸는 기라. 컸 는 기 있는데, ‘에라, 저 녀을 사우(사위)로 볼 밖에 없다.’ 그래 김정승이 그 이정승 아 들 로 사우로 삼을라고 중신애비를 열어 가지고 약혼을 하는데. 저거 사우로 보고 이라는 데.

아, 이념이 마 차츰차츰 커가 어떻게 뭐로 아는지 마 말도 몬 해. 그래가 김정승 그것도 잘 되고, 이정승도 사우로 봐 놓이까이, 이념이 마 어떻게 마 온갖 세계 일로 다 아는지 마 감당을 몬 해. 그래 그래 잘 살더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맹희, 언양면, 1984]

667. 여자아이가

668. 남자아이보다

시아버지 귀를 잡고 흔든 며느리

시아마이하고 시아바이 하고 신랑하고 각시하고 단칸방 한테(한 곳에) 자고 살았는데,
그래도 각시라고 와가 손도 만치고 뽀짝거리⁶⁶⁹ 쌓거든.

하루 아적에⁶⁷⁰ 영겁질에 시아바이가 신랑 신을 신고 갔는데, 각시가 가만 보이 신랑 신
이 없더라. 보이껴네 어둡부리한 변소에 신랑이 앉았다고 뒤에서 귀로 검어쥐고,
“아이구, 어지강히 깔닥거린다. 깔닥, 깔딱…” 카면서 흔들어 뿌렸거든.

그래 신랑이 아이라 시아바이라.

시아바이가 똥 눈다고 변소에 돌아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요놈의 깔딱아 깔
딱 깔딱 카면서로 귀로 검어쥐고 흔드니 분하거든. 시아바이가 동회로 했던동 사람이 많
이 모친데서,⁶⁷¹

“우리 며느리가 내가 변소 가가 앉았은게나 날로 귀로 검어쥐고, ‘아이고 요놈의 깔딱
아, 깔딱 깔딱’ 카면 서로 귀로 검어쥐고 흔든다.” 이라거든.

이래 놓으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구, 단칸방에서로 그 참 각시로 얼마나 우째 건디리 볼라고 깔딱거렸는가?” 싶어
가지고, 동네 사람이 어불러가야⁶⁷² 방을 두 날을 맨들어가 집을 하나 지아 줬더라. 그
래 깔딱거리지도 안 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669. 치근거리

670. 아침에

671. 모인데서

672. 합심해서

말 안하려 했던 새며느리

The Bride Who Would Not Speak

옛날 옛날에 한 사람이 시집갈 준비를 하는 딸에게 말했다.

“시집살이는 참으로 고되단다. 여자란 보아도 보지 못한 척, 들어도 듣지 못한 척, 되도록 말을 삼가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딸은 시집간 지 삼 년 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병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친절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돌아올 때 그녀는 우연히 산꿩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꿩아! 나는 시집살이를 오래 할 동안 네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가마 옆에 걸어가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는 하인들에게 꿩을 잡아서 보내도록 했다.

여자가 꿩 요리할 때 며느리는 노래했다.

“감싸 주는 날개는 시아버님 드리자. 잔소리하는 주둥이는 시어머님 드리자. 데굴데굴 굴리는 눈알은 시누이 주자.”

[『한국의 설화』, 오화수吳和壽, 언양彦陽, 1920, 단국대학교출판부]

천석꾼 이야기

할머니가 시집 올 때 함을 여니 다른 물건은 없고 바가지 일곱 개만 있었다.
억척스레 일을 하여 천석을 모을 때쯤 하루는 걸인 같은 도인이 와서
“이 터는 천석군 터인데 천석을 하고나면 질병이 나서 집안이 망하는데 왜 그리 부지런
히 일만 하노”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도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집이 망하고 질병 후에는 판서가 날 운이구나.” 하며 바람처럼 없어졌다.
그래도 부지런히 일을 하여 천석이 되니 집이 망하고 돌림병이 와서 집안사람들이 사
방으로 흩어졌다.

[『웅촌면지熊村面誌』, 김정록, 웅촌면,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신부의 한

옛날에 내오간^{內外間}에 둘이 신혼 생활같이 시집에서 살았는데, 달이 환한 어느 날, 신랑이 자다가 어디 나가 버리. 각시가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데, 신랑이 그질로 어데 가 교편을 잡았던 기라.

선생질로 하는데, 똑 천 질 방우 만탱이겘이 거계⁶⁷³ 지와집이 하나 있는데, 밤으로는 불이 뵈하고, 낮으로는 보몬 기와집이 끝팅이 마 해끗하이 쪼매 비이. 그래 밑에 학생들로, “느그 저 가 보고 오너라.” 가가지고 반쯤 올라가다가 마 널썌⁶⁷⁴ 죽어 뿌고 널썌 죽어 뿌는 기라. 학생들이 자꾸 죽어. 그래 이 사람이,

“에라, 그러모 내가 한 번 가 보겠다.” 그래 가니까네 사다리맨치로 이래 돼 있는데, 하얀 각시가 앉아서 묻는 기라,

“그래 저기 성은 무엇이고, 나는 몇 살이고 그런 사람을 봤나?”

“아이구, 나는 그런 사람 모르겠다.” 카이,

“니 아이가?” 카고는, 마 남자 짝이 뿌고 지도 팍 사그라지더란다.

즈그 각시가 신랑이 자다가 나가 생전에 기다리니 안와가 그래 복수를 한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673. 천 길이나 되는 바위 꼭대기 같이 거기에

674. 떨어져

함안 조씨 사돈을 골탕먹인 울산 박씨

예전에, 하늘에는 불개고, 땅에는 조개데, 함안咸安 조씨는 말띠기(말뚝) 밭에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함안 조씨랑 영천永川 이씨랑 사돈을 하고, 울산蔚山 박개강(朴哥와) 또 사돈을 했어요. 세 사돈을 해가지골랑, 함안 조씨가 뭐라 쿠노,

“앗따, 울산 박가 사돈 집에 가가지고 망발주나 한 잔 묵고 오자.” 망발로 하며 내려왔다. 영천 사돈 집에서 한 잔 묵고 울산을 가가지골랑 술로 걸러 내가, 한 잔 묵는데, 함안 조씨가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사돈, 보소.”

“예, 말씀하이소.”

“저, 사돈 요새 올타리 밑에 개 더러 달아 매는교?” 쿠이까네,

“예, 달아 매지요. 우리 선고先考 때는 달아맸는데, 요새 우리는 조개마 똑 자아 묵고 사 니더.”

조개마 자아 묵고 산다고 하이 조개가 마 말이 없데요. 조개가 마 낮이 별개가 뒤로 실 실 물러가지고 도망해 뿌더랍니더. 언어에 버러(벌써) 뺏기면 안 된다 이거라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홀아비끼리 장가 가기

이쪽(이쪽) 등(산등성이) 너머 하나 살고, 저쪽 등 너머 하나 살고 그런데, 껌보 두 낱이다.⁶⁷⁵ 저 호부래비⁶⁷⁶가 살았거등. 둘이가 다 호부래비거등. 두 낱이 다 남잔데, 친구들이,

“아이구, 니 만날 이래 혼차 살아가 되나? 내 할마이⁶⁷⁷ 하나 얻어다 주꺼마.”

“하나 얻어다 도(다오).” 그래,

“어느 날 저녁에 내가 하나 땡고 오께⁶⁷⁸ 그래 절대 말로 하지 마래이.”⁶⁷⁹ 카거등(하거든).

“그래 말로 안 하꾸마.”

그래 그 날 저녁에 있으이까네 인자,

“불도 써지(켜지) 말고 말도 하지 마래이(말아라).” 이카거등(이러거든).

어덯은데(어두운데) 인자 참 할마이라고 하나 데부다(데려다) 주거등.

데부다 주이, 남애男子 두 나를⁶⁸⁰ 붙여 놓으이 밤새도록 안고 씨름을 하거등.⁶⁸¹ 옛날 샷자리⁶⁸² 방에 호부래비가 사는데 뭐 잘해가 살았겠나?

인자 하나 데부다 조 놓이까네⁶⁸³ 두 낱이 밤새도록 안고 구부이, 서리 말하지 마라 캐(해) 놓이까네 그 홀치(껌보, 언청이)인 줄 모르거등. 그거는 데부다 줬거등⁶⁸⁴

호부래비 호부래비 사이까네 저 중신해 준다꼬 친구가 저 어리석한 사람이 데부다 주

675. 언청이가 둘이다.

676. 홀아비

677. ‘할마이’란 ‘할머니’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마누라’란 뜻으로 쓴 말이다.

678. 데리고 올게

679. 소문내지 마라

680. 둘을

681.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홀아비를 데려다 준 것이다.

682. 갈대를 여러 가닥으로 줄지어 매거나 묶어서 만든 자리. 샷자리

683. 데려다 줘 놓으니까

684. 데려다줬거든

농이, 말하지 마라 캐 농이까네, 밤새도록 말로 안 하고 해 났으이, 서리 서리 안고 도이
 까네, 이 뭐 어느 기 안들인동 남앤동⁶⁸⁵ 그거로 몰라. 모리고 이래 사이까네, 그래 구불
 다 나이 날이 희뽀하이 새에 보이,⁶⁸⁶ 등 너머 친구 이것도 흘치, 저것도 흘치, 두 날이 문
 지가(먼지가) 보하이(보양게) 덮어썩고,
 “하이코!” 커민서(하면서) 자빠지더란다.
 그래가(그렇게 해서) 날이 새이까네(새니까), 이놈 도둑놈이라고 그카더란다. 저거 친
 구가 그 돈 얻어 묵고 데부다 주 농이(쥐농으니). 그래 마치더라 커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권우주, 언양면, 1984]

685. 여자인지 남자인지

686. 희부열게 밝아 오니

해장술 석 잔은 어쩔 수 없는 것

술을 좋아하는 어느 할아버지가 장場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는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술이 너무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해서 아들 내외의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밖에 나갔던 아들 내외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술이 취해 쓰러져 주무시고 계셨다. 아들내외는 얼른 요를 펴고 이불을 덮어서 아버지를 편히 주무시게 했다.

다음날 아침잠이 깨어 자신의 실수를 안 아버지는 자식들 보기에 하도 민망해서 반드시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지필묵紙筆墨을 가져오게 해서 ‘차후此後 음주자飲酒者는 구자狗者라’라고 크게 써서 벽에 붙이라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命을 거역할 수 없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받아썼다.

아들이 그 종이를 벽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향기 나는 동동주와 김이 무력무력 나는 콩나물국을 상에다 차려서 가져왔다.

그것을 보자 할아버지는 군침이 동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부르는 대로 아까 쓴 아래에 조그맣게 이어서 쓰라고 하고는, ‘조주삼배朝酒三盞는 불가피不可避라’라고 불렀다. 아들이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이어서 쓰자 아버지는 기분 좋게 그 술을 마셨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우식이, 온산면, 1986]

방귀 잘 끼는 며느리(1)

옛날 밤粟농사를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장가보냈다.

그런데 시집을 온 며느리는 며칠이 지나자 얼굴이 누렇게 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더 누래지자 걱정이 된 시아버지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며느리는 수줍어하면서 아무 병도 아니라고 했다. 시아버지가 자꾸만 캐묻자 마침내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이 방귀를 많이 끼는데 시집와서는 조심스러워서 방귀를 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크게 웃고는, 방귀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걱정 말고 끼라고 하자,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다. 남편까지 나서서 괜찮다고 그냥 끼라고 거들었다. 며느리는 정 그러면 방귀를 쫄 테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각각 기둥을 꼭 붙들고 있으라고 했다. 며느리가 방귀를 끼는데 과연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둥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놀란 시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며느리를 내쫓을 수밖에는 없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내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꾀를 내어 우리가 주로 밤粟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다른 일보다 밤을 따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내의 방귀로 그 밤을 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버지도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서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생각을 바꾸었다.

가을이 되어 밤을 딸 때가 되자 며느리는 밤밭으로 가서 마음껏 방귀를 한 번 끼었다. 그러자 온 밤밭의 밤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후 마음껏 방귀를 끼어가면서 시집살이를 잘 했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이창현, 언양면, 1987]

방귀 잘 끼는 며느리(2)

며늘을(며느리를) 하나 봐 놓이 하도 하도 방구를 잘 끼. 그래가 이쪽에 서서 끼며 마 저 쪽에 집이 마 넘어 가거등.

시아바시(시아버지)가,

“야, 며늘아, 이쪽에 오너라.”카며(하면), 또 탕 끼 놓으며 집이 딱 발라지거등.⁶⁸⁷

그래 인자 하다 하다 그래 시고모가 한문(한번) 오디마는,

“야아, 질부야, 이래가 안 된다. 점을 해가 그래 손을 비비라.” 카거등.

그래 인자 점을 하러 가이까네. 그래 점을 해가 가가 조왕⁶⁸⁸에 가가 참신參神 해 놓고,

“조왕님요, 조왕님요, 똥방울일랑 거다(거두어) 주고 시르르기를 내 주소.”시르르기가 뭐 꼬? 시르르방구다. 앉으며 시르르, 서며 시르르 그래 잘 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억천, 언양면, 1984]

687. 바로세워지거등

688. 부엌

사돈간의 상사풀이

지그(자기) 아배가 아파가 죽는다고 딸을 오라 카저등. 그래 딸이 가이까네, 아바이가 아파가 다 죽아가더란다. 그래가 딸이 하는 말이

“아부지요, 그래 딸자태(딸에게) 자숙자태 와(왜) 할 말을 못 하능교? 아부지요, 와 이래 아픈교?” 카이, 그래 저그 아배가

“야야 그라이라(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그 시모를 보고 상사병이 낫다” 카저등.

그래가

“그래 아부지요, 그라몬 에렵지(어렵지) 안심더(아니합니다). 며칠 지내고 우리 집에 오 이소.”

그래 예복을 끼미가(꾸며서) 오라 카더란다. 그래가 인자 떡 아무날 저녁에 상투를 내라가 비네를 쫓고 갔단다.

그래 가이까네, 딸이 인자 정체서(정지에서) 밥을 하다가 나오면서

“아이고 고모 오나?” 카저등.

“고모가 어이(어찌) 이래 오노?” 그케노이

“그래 어데 갔다가 온다.”

그래 참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그카더란다(그렇게 말하더란다).

“아이고 고모야! 마 먼 데 오는 데 되데(피곤한데) 자가라. 우리 어무이캥 자가라.” 카저등.

그래 마 안사돈방에 잔다고 누워 있이까네 그 놈의 안 사돈이 그럭(그렇게) 카더란다.

“아이고 사돈아! 옛날에 우리 x알 치기 함(한번) 해보자.” 카저등.

그래노이, 밖 사돈캥 안 사돈캥 x알 치기를 했거등. 하이까네 그 안 사돈이 카더란다.

“아이고 사돈아! 옛날에 우리 영감 x치기보다 온(오늘) 저녁 사돈캥 한 x알 치기가 더 재미가 있다.” 카더란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이월출,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옛날에 인자 부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안 있는교?
가난한 사람이 부자 영감한테 눈 얻으러 갔거등예. 눈 얻으러 가 놔 놓이까네,
“아이구, 이 사람아, 내가 이처로⁶⁸⁹ 오래 살아가 우짜노?” 그래 하는 말이,
“아무 어른, 칠십만, 팔십만 채우며 안 되겠는교?” 이랬거등.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이
까네 명년이 마 팔십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뭐라 켜노?” 카이,
“아이구, 아무 어른, 또 팔십 살며 어떤교?”
이 ‘또’ 자 하나 붙었다 아이가. ‘또’자 하나 붙이까네,
“아이구, 그래, 저게 내 눈 열 마지기 더 부치라.” 이라거등.
그러이까네 오늘 술 한 잔 내야 안 되나, 젊다 켜으이까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경출, 언양면, 1984]

689. 이처럼

지관의 세 아들

The Geomancer's Three Sons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유명한 지관이 살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뿔자리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 달라고 왔다. 만일 뿔자리를 정하는데 실수가 있다면 죽은 이의 가문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70세가 넘었음에도 그 자신의 뿔자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법을 아들들에게 전수하지도 않았다. 그의 아들들은 여러 번 그에게 사후에 어디에 장사 지내야 할지 물었지만, 그는 항상 변명하며 말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마음에 정한 바가 있으나, 그것을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구나.”하며 피했다.

몇 년이 지나 아버지가 매우 쇠약해졌기에 아들들은 매우 걱정스러워 예전에 자기들에게 말한 의미가 뭐냐고 재차 물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비밀을 유지한 채,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입으로 는 내 뿔자리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구나. 내가 죽고 나서 이씨를 찾아가 물어라. 그가 모든 것을 알려줄 게다.”

얼마 후 그 노인은 죽었다. 세 아들들은 이씨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서 의견을 물으라 하셨소. 괜찮으시다면 어디에 묘를 써야 할지 알려주시겠소?”

“예, 그럼시다.” 이씨는 대답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그에 관해 말했소. 그러나 내 생각엔 그것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구려.” 세 아들은 매우 놀라 말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어떤 모험이라도 할 것이며, 그것이 호랑이굴 이거나 사악한 용이 숨어있는 깊은 연못속이라도 갈 것이요.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이씨는 매우 완곡하게 대답했다.

“내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오. 만약 당신 아버지의 말대로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면, 바로 그 다음날 맏아들이 죽을 것이오. 백 일 후에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일 년 후에는 막내아들마저 죽을 것이오. 그렇게 당신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기 망설이는 이유요.”

이 말은 삼형제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겼다.

“당신 말대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오?” 맏아들이 물었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당신에게 말할 수는 없었소. 아직 비밀이 더 있소. 당신 형제들은 일찍 죽지만, 훗날 당신 가문에서 세 정승이 나올 것이오.”

세 아들은 이씨가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정승이 태어나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오.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대로 따르겠소.”

그리하여 장례를 치르고, 예언한 자리에 묘를 쓰고 아버지를 모셨다. 바로 다음날 맏아들이 아무 병도 없이 아내와 아들 하나를 남긴 채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매우 슬퍼하였으나, 다른 아들들은 매우 놀랐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죽음 역시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차 없는 운명이 그들에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맏형이 죽은 지 백 일째 되는 날 가족들은 백일재百日齋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갑자기 둘째아들이 졸도로 쓰러져 죽었다. 그 역시 미망인과 아들 하나를 남겼을 뿐이었다.

아들들이 아버지 묘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큰 슬픔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두 형들이 예언대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슬퍼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을 털어놓았다.

둘째 아들의 장례식이 끝났을 때 세 과부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막내아들이 불과 아홉 달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에 매우 놀랐다.

어느 날 막내아들이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소자의 죽음은 정해졌기에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까지 돌아오겠으나, 소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날 저 역시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십시오.”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매우 슬펐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막내아들은 십중팔구 죽을 것이기에, 집을 떠나면서 가는 길을 멈추고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하루는 해질녘에 산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밤을 지낼 곳이 있나 둘러보았지만, 어떤 민가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피곤과 배고픔을 참으며 걷다가 결국 민가의 불빛을 발견하였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고, 오십 세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그를 친절하게 맞아 들였다. 그녀는 매우 마음씨 곱고 친절하며, 항상 마을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곤 하였다. 그녀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머무르면서 쉬라고 했다.

잠시 후에 노파는 일어나 나갔다. 그녀는 내일 혼인하기로 되어있는 소녀를 부르러 옆 마을에 가려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막내아들에게 말했다.

“잠시 옆 마을에 다녀올 것이요. 이불과 베개는 저기 있소.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요. 편히 쉬시오.”

옆 마을에 사는 소녀는 노파가 매우 귀여워하는 소녀인지라 그녀가 혼인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혼인 준비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해질녘까지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결국 어두워지고 나서야 노파를 보러 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길이 엇갈리고 말았다.

소녀가 노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집에 없었으나 소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젊은 여행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 그는 일어나 불을 켜고, 결국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곧 친구가 되었다. 소녀는 젊은이의 사연에 매우 감동받아 그에게 측은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진정한 연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혼인에 대해 말하며,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이라 하였고, 그 역시 그녀를 측은하게 여겼다. 결국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아침에 젊은이는 죽었다. 이는 예정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매우 슬펐기에 자기 아버지의 노여움도 묵살하고, 죽은 연인을 위해 수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시신과 함께 젊은이의 어머니께로 돌아왔다. 그녀의 사연을 듣고 젊은이의 어머니와 형수들은 그녀의 숭고한 신실함에 대해 탄복하여, 그녀를 막내아들의 부인으로 인정하였다. 달이 차서 그녀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제 죽은 삼형제에게는 각각 한 아들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마을의 소년 가운데 걸출했고, 자라서는 예언대로 셋 모두 조정의 정승이 되었다.

『한국의 설화』, 정택하鄭宅夏, 언양彦陽, 1936, 단국대학교출판부

어린 이완의 꾀

오성 한음 그 때 시절, 선조대왕 그 시절일거저만.

이완, 이정승이라고, 이완이 어릴 때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완이 일찌기 아바씨가 죽고 묘를 써 났는데,

그 집안에 자식 없는 아주 부자집이고 정승집에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문중門中을 그거 해 놓고⁶⁹⁰ 양자할 원만한 사람을 빼는 집의 어떤 대감이 자기 아바씨 冢 위예다가 엮 작으로⁶⁹¹ 억지로 썼다 아이가?

그래 어마씨는 자기 남편 冢 위예다 冢를 썼으니까네 주소로⁶⁹²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690. 모아 놓고

691. 역장逆葬으로

692. 주아로

인부족 세부족人不足勢不足이니까네 파넬 도리도 없고, 이완이 눈치를 알았단 말이지요.

그 어마씨인데 그 연유를 물어, 어마씨가 하는 말이,

“니가 알 자격은 안 되니까네 아죽 몰라도 되어. 듣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알아야 된다.”

나이가 여남우 살 묵는데 그래 이야기를 쭉 하니까네,

“어무이 걱정 말고 내 쪼매는 소청두루매기 하나 해 주이소. 거꺼정 갈라 쿠몬 신이나 한 두어 켄레 돼야 되이 쫘신 한 두어 켄레하고 해 주소.” 그리 하는데,

자기는 한 설대가 한 두어 발이나 되도록 왕대 굵은 거로 곰방쪼대로⁶⁹³ 질기 맨들어가 지고 그 집에 찾아갔다 말이지. 정승의 집에 다짜고짜 드가 가지고 사랑에 정승하고 같이 떠억 앉아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정승의 담배서랍에서 진 쪼대를 썩 꺼내가지고 그 쪼대에다가 항거⁶⁹⁴ 집어 쫘어가지고 불로 땡기가 정승 앞에서 빼금빼금 쫘는다.

그래 방에 연기가 한 방이 된다 말이지요. 정승이 가만 보이 사람이 희한해. 의엿한 애 거든. 그래 마 얘기도 아무 얘기도 없이 있다가,

“정승, 대감 저어 아무데 거게 묘를 썼쬬.” 이기라.

“그래 묘를 썼지.”

“밑에 우리 아버지 되는 정승 날 자리고, 우에 대감 썬 자리는 임금 날 자리요. 대감 나는 가요.”

정승이 가만 생각하니까네 임금 날 자리 묘를 썼으니까네 인자 역적이라. 그래 가지고 마 그 동자童子를 붙잡아가 말이지,

“내 당장 뵈 파지.”이랬다.

그래 가지고 뵈 쫘다 쿠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몬 아만⁶⁹⁵ 어리도 의견 자체는 어른 이상의 의견이거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693. 담뱃대를

694. 가득

695. 아무리

성지가 지리를 통달한 연유

옛날에 통도사通度寺에 중이 여러 수백 명이 이리 되는데, 성지가 그 중에서 제일 하빠리下級가는 중이라. 천한 일은 혼자 다 맡아 하고, 심부름만 하고 넘 묻하는거, 안하는거, 더럽고 안하는 그런 일만 내에 하는 기라.

성지가 가만 생각하이, ‘다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래 앉아가지고 남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넘 심부름만 하다가 마치겠노?’ 이런 뜻이 백일만한⁶⁹⁶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⁶⁹⁷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어이 나도 사람이 한번 돼 봐야겠다.’ 그래 통도사에 성지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성지가 도통道通하고 나오니까네 그 골짜기를 성지골짜기이라 지금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 골짜기에 큰 사람이 거처할 방구 밑에 가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 태어 나가지고 남과 같은 그런 자격이 한번 돼 보자’고 이런 마음에서 백일기도로 했는 기라.

예전에 지리술⁶⁹⁸ 이라고 잘 못하몬 솔밀구멍이 빠지고 이래 쌓는다 쿠는데 거기다가 밥을 해가지고 공양을 하고 자기가 묵고 이리 하는데, 99일 날 저녁에, 마자하는 날⁶⁹⁹ 새벽에 지리술에다가 공양을 지으니까네, 노인 한 분하고 포수 한 분 둘이서 난데없이 기도하는 데 거어 와가지고 떡 앗음시로,

“야, 성지야.”

“예.”

“우리가 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 오이 배가 고파가 지금 기갈이 작심하다.⁷⁰⁰ 너 밥 짓는 거 좀 내놔라.”

그래서 성지가 하는 말이,

696. 박힐만한

697.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698. 질그릇술

699. 미치는 날

700. 자심하다, 아주 배가 고프다

“이거는 내가 기도하는 밥인데, 기도를 한 뒤에 내가 드릴 모양이니까네 좀 앉아 계시
이소.” 그라니께 그 노인, 포수가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못 기다린다. 지금 배가 고파가 못 기다리니까네 기도는 뉘중에
하고 밥부터 내놔라.”

그래 인자 노인하고 성지하고 신갱이가 붙었는데, 노인이 하는 말이,

“네가 죽어도 못 주겠느냐?” 이기라.

“네, 죽어도 못 줍니다. 나는 기도를 안 마치고는 밥을 못 줍니다.” 이기라.

“그래 니 한 번 죽어 봐라.” 그래 가지고 포수를 보고,

“저 놈 총 겨놔라.”

포수가 마 총을 띄겨누고 방아쇠를 땡길라고 황 커는데, 성지가 앞으로 엎어졌는데 성
지가 황 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앞으로 엎어져 기절해가 죽었다 말이지. 좀 오래 있다가
깨어 보니까네, 포수도 없고 노인도 없고 밥하는 술에 밥만 가만 고냥 있어. 산천을 치바
다보이 마 환하다 말이지.

그래서 성지가 엎어졌기 때문에 지리地理를 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엎어지지 않고
하늘을 보고 꾸부라졌으면 천문天文을 통했을 깐데 엎어졌기 때문에 지리를 통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명풍수 성거사

성지, 남사구, 성거사, 반월령, 이런 양반들은 다 국산데.⁷⁰¹ 성거사도 성지맨쿠로 그릇과 끼는 자리도 가지고 산에가 산신기도, 백일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산신기도를 다 마치니까네 땅이 환해가지고,⁷⁰² 성지맨쿠로 통해가지고 내려오니 내려오는데, 산천을 보이 전 명당이라.

자기가 올라갈 때 자기 아버씨가⁷⁰³ 죽었는데, 자기 그 조부도 봉토封土를 못 하고 이리 있었는데, 그래 기빠가지고 내려오면서도 자기 아버씨 갈 자리를 하나 맞차 뵈는 기라.⁷⁰⁴ 그리고 자기 형인테 말이지,

“내가 내려오니 아무데 거게가 참 명당인데, 아버지 안장安葬을 거게 합시다.”

그래 형제간에 약속이 딱 돼가 아무날 아무시에 하자고 딱 약속이 됐는데,

성거사가 며칠로 산에 나와 보이 전 명당이거든. 지가 내려올 때 봐 놓은 그 산보다 가당시리⁷⁰⁵ 더 낮은 기 있고, 이렇거든. 그래 형인테,

“아무데 가이 더 좋은 데가 있고 아무데 가이 더 좋은 데가 있고…”

이래 하이 형이 자기 동생을 불신을 하고 가만히 보이 사람이 살쥔했는 거 겠거든.⁷⁰⁶ 고래가 자기 아버씨를 절대 거어는 안장을 못 한다고 거절로 하이 성거사가 핫김에 마음이 숭상해가지고⁷⁰⁷ 객지로 나가뿌렸어요.

성거사가 객지에 나갔을 때, 광산김씨 삼대 과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시어른이 죽고, 조부가 돌아가시가 음토로 못 하고, 시아버씨가 돌아가시가 음토로 못 하고, 또 며느리

701. 국사國師인데. 이름난 명풍수인데

702.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달통해서

703. 아버지가

704. 아버지의 무덤 자리를 정했다

705. 훨씬

706. 사람이 약간 돈 것 같다는 말

707. 흥흥해서

되는 이도 역시 가장家長이 죽었는데, 조모가 그때 살아 있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음토로 못 했다.

고부찌래⁷⁰⁸ 어찌 힘을 좀 내 가지고 등 너머로 넘어 가몬 아는 지사地師가 있는데, 그 지사에게 닭도 한 마리 잡고, 뭐 음식도 쟈매 맨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고 산을 구할라고 고개를 넘어가이까네, 성거사가 키가 육척이라 카던가 팔척이라 카더만. 산에 미쳐가 땡기다가 보이 배는 고프고 신도 다 떨어지고 옷은 걸레 걸고, 보니까 부인네들이 묵을 거로 이고 간다 말이지.

그래 인자

“그 이고 가는 기 뭐냐?”고 이리 물으이,

“요 너메 등 너메 넘어 가몬 많이 아는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인테 음식을 장만해 간다.”

“그래 음식 장만해 가는 의도는 뭐꼬?” 이리 물으이,

“시부모들 다 음토를 못 해가지고 그렇다.” 이러이,

“그 음식은 내가 묵고 내가 터 잡아 줄 모양이니까네 이래 내라라.”

키가 팔 척이나 되고 또 줄라 카이, 안 주지도 못하고, 인부족세부족으로 마 뺏겼데이. 닭 한 마리하고 술 좀 가 가는 거하고 음식 맨든 거하고 잘 무췌다. 묵고 인자,

“내 따라가자.”

그래 산에 올라 가가지고 그 참 명당을 하나 쫓어 쫓는데,⁷⁰⁹ 가만 생각하이 마 자기가 어른 음토로 못 하고 남의 일만 해 주고, 부에 곁해 화가 났는데, 하나 잡아 주고 갈라 쿠이까네 시어마씨 되는 이가 짹 붙잡거든.

“되 한 상구만 더 봐 주고 가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부딪기가지고⁷¹⁰ 되 한 상구 더 봐 주고, 내뺄이 떠느리 되는 이는 자기 가장을 못했다⁷¹¹ 이거라.

708. 고부끼리

709. 명당名堂 자리를 잡아 주었는데

710. 붙잡혀서

711. 남편의 묘자리를 잡지 못했다

며느리 되는 이가 죽을 판 살 판 그 성거사를 따라가이, 그 여자가 남자를 따라갈 수가
있나. 어테라도 디리 따라가이까네 성거사가 가다가 칠기덤불에 걸렸데이. 걸리가 헛떡
꾸부러졌다. 고때 가 딱 붙잡고

“한 상구만 더 봐주소.” 고래가 할 수 없이 붙잡히니까네 안 봐 줄 수도 없고, 얹어진 거게
둘레둘레 살펴보이 거어가 명당이라. 그래 한 집에 미 시상구墓三基로 모시도록 했어요.

거기 그 사람들 미 시 상구에 금관자金貫子 한 말씩 서 말 났다 카는 기라.⁷¹²

선생도 나고 그 광산김씨네 집이 아직까지 국내에 고관들도 천거 많이 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성지가 잡아 준 명당터

아들 삼 형제가 살림을 냈는데, 제일 맏 백씨는 사람이 점잖하고, 둘째 집은 사람이 넘
잘에(남에게) 인사 받고 묵고 사는 것도 편코 그런데, 끝에 막내가 이거는 성질이 불량하
고, 노름쟁이나 하고, 온 천지로 돌아댁기고, 집구적에 별로 붙어 있지도 안 하고 이라는
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며 풍수로 위치를 정해 조야만 묘로 들이는데, 부모 묘를 터를
몬 구하고 토롱⁷¹³을 해 놓고 있는 기라.

성지라 카는 거는 중인 모양이라.

712. 후손으로 금관자金貫子를 달 고관대작이 많이 났다는 말이다

713. 초분草墳

성지란 녀이 지내간다 싶우이 부랑한 끝에 녀이 생각해 보고 형제간에 의논을 딱 했어.
성지가 올라가는 소잡은(비좁은) 질 머리에 뒷머리를 넘덕하이 땅아가지골랑 가가지고
질 바닥에 술로 한 잔 바짝 묵고 가로질러 눕어가 자는 체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성지가
덜렁덜렁 오다가 보이 질바닥에 사람이 눕어가 있으이까네, 가다가 아랫종아리를 시르
르 타 넘어 가이, 이념우 자석, 퍼뜩 일어나가 중의 장삼을 막 쥐뜯고 막 직인다고 날뻔
다.

이거 뭐 산골에서 사람이 있나 꼽다시(반드시) 죽을, 죽을 상이라.

그때 건네서 저거 형들이 오는데, 중은 형인지 모르지. 형들이,

“저 어떤 녀이 사람을 그래 치는 법이 있나꼬. 고안 녀 이념, 당장 죽인다.”꼬 고함을 내
리 지르이, 이념이 후지끼(쫓겨) 달나간다.

달나가이 그 대사를 일받아가(일으켜서),

“아이구, 이거 아주 부랑한 녀을 만내가 오늘 우리 아이랐으면⁷¹⁴...”

“아이구, 여보게, 참 자기네들이 아이랐으면 내가 참 꼽다시 이 산골에서 구신도 모르
게 죽게 됐는데, 날 구해 주니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다고, 이거 참 착하다고.”

“아이구, 이래가 집까지 가겠느냐? 우리 집에 가가지고 좀 하룻밤 유해가(쉬어서) 가시
라꼬.”

아주 가끄이(정중히) 이래요.

상주될 사람은 표시가 있는 모양이라,

“아, 이 보이까 상주님이네요.”

“그래 그렇다.” 이라이, 그래 그 부모님 자리를 잡았나 이 말씀이거등.

“원장을 했느냐?”

“못 했읍니더.”

“그래?” 자기는 지리는 환하이 아이까네,

714. 아니었으면

“그러면, 내가 얼마 아는 거는 없지마는 자리를 하나 구해 줄 터이까네 그레 하도록 하자꼬.”

“하이구, 감사하다꼬.”

그레 참 자리를 잡았는데,

“여게는 자리가 괜찮은데, 여게는 묘를 씨면 부자 날 자리고, 여게는 묘를 씨면 벼슬날 자리라. 벼슬 날 자리에 쓸라나, 부자 될 자리에 쓸라나?”

가마 생각해 보이, 벼슬을 가지며 권력을 쓰이까네 돈도 있고 궁하잖다 싶어가,

“마 권리 썰 자리에 해 돌려꼬.”

이 상주들 상을 딱 보디마는,

“관상을 보니 삼 형제가 있을 관상인데, 그 상주가 둘 뿐이나? 어애 두 형제밖에 없노?”

“한 녀은 내 끝에 동생이 있는데, 이녀은 술이나 묵고 노름이나 하고 돌아댁기는 녀인데, 하마 집에 나간 지가 수 년 되고 오래 되이까네 집구석에 부모가 죽었는동 어애 됐는 지 모르는 녀이라꼬. 천상 뒤 우리 두 형제가 산소를 들이야 되겄다고.”

그레 성지가 가마이 보이, 아무리 봐야 상주 둘이는 벼슬할 기품을 안 뵈는데, 그러나 끝에 상주가 있다 카이, 어떤지 모르이까, 그레 벼슬 날 자리에 씨 줄라 카이,

“벼슬 날 자리에 쓰라.”

그레 내중에 하관을 다 끝내고 보이, 엄두리 총각 한 녀이 머릴랑 똑 무신 바디집겔이 땅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아이고, 아이고’ 카미 올라오는데, 보이, 지 뚜드리팬 그 녀이라. 아, 이녀이 보이까네 그만한 기품을 뵈다 이기라.

“야 이녀들아, 내가 맞았지마는 니 자격을 보이까네 그만하면 무반 자격이 분명하이까네 마 됐다. 마 거어 쓰라.”

그레 씨 주더라꼬.

당장에 부자가 된 명당자리

옛날에 한 삼십이나 돼도 장개로 못 간 아들강, 되기 나가 많은 어마씨강 사는데, 과객이 서울로 간다고 하루 점도록 걸어가 저녁에 고마딱 오이 저물어 이 집에 불이 뵈하건데 그래,

“이 집에 좀 자고 가자.” 이카니까네,⁷¹⁵

“그래 자고 가라. 자고는 가는데, 저녁 요구는 못 시킨다.”고 이라는데, 단칸방이라.

“그래 굶어도 우리 자고 가이 좋다.”

마 굶고 자이 배가 얼마나 고프교? 그래 과객이 누우자이께나, 또 한 과객이 고껴정 오이 날이 저물어. 또 자자 카거든요.

“그래 주인 있는교? 그래 여 좀 자고 가자고.” 이러 카이,

“자고 가기는 자고 가는데, 저녁 요구를 못 시킨다.”고 이라이,

“그래도 마 좋다고. 잠이나 좀 자고 가자.”고 그래 또 재아 주는데 또 과객이 오면서,

“주인 있는교? 좀 자고 가자.” 그래 자고 가라 카이 그래,

“저녁 요구는 못 시킨다.”

그래 서이가 굶고 자다가 그 집 할매가 자다가 마 세상을 베리 뵈다.⁷¹⁶ 과객이 서이가 한방에 자다가 할매가 세상을 베리고 나이 아들은 아무것도 목을 짓도 없고 나무 한 짐 싹 해다가 묵고 산중에서 이래 사는데, 마 기가 차거든. 과객 서이가 가만 생각카이, 그래 한 과객이 나가가지고 뒤테로 하나 잡아 놓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오디마는,

“아이고, 뒤테로 하나 잡아 뵈는데, 한 삼 년 지나몬 어떨랑고 몰라.” 이카민서 고개가 지부똥하고 이래 들오딩이, 또 한 사람이 나가딩이,

“그래 어디 잡아 뵈나?” 카이,

“한 석 달 지내모 몰라 밥이나 묵고 살랑가?”

715. 이렇게 말하니까

716. 죽어 버렸다

한 사람이 누웠다가,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당장에 부자 될 꺼로 잡지, 석 달 일 년 그래 가얏고 안 된다. 오늘 당장에 부자 될 터에 잡는다.”고 마 쫓아 나가가지고 잡아 놓고 고개를 지부똥 지부똥 하암서 들오당이,

“그래 잡아 뵈냐?” 카이,

“그래 잡아 뵈지, 당장에, 잡아야지.”⁷¹⁷

그래 그 할머니로 아들이 젊어지고 가가지고 산소에 들이놓고 날이 희비하이 새는데, 과객이 서이가 풍수가 되어 놓은까네, 자리를 잡아가 뵈로 들이 뵈는데, 아척⁷¹⁸을 해 드려야 안되능교? 나가 삼십이나 되도록 아척거리도 없이 이래 앉아서 생각하다가 그 밑에 청춘에 홀로 된 부잣집에 가,

“아무 댁 있능교? 그래 자능교?”

“예.” 카거든.

마 이 사람이 청춘에 홀로 되어 놓으이 그 삼십 된 엄들이 총각을⁷¹⁹ 보이 마 마음이 이 상하게 달라졌어.

“들어오라.” 이라암서 마 버선발로 자다가 나와가지고 그래 들오시라 카이, 그래 드가 니께 마 옷을 싹 갈아 입히고,

“자자.” 이라이,

“아유, 우야꼬?”⁷²⁰ 내가 집에 손님이 있어 이래 안되는데, 여 자고 있으몬 안 되는데, 가야 된다.”고 이래,

“아유, 내가 다 시키가 보내이끼껴네...”

그래 종들로 거어다가 쌀로 실어 올리가지고, 밥하는 종을 또 보내가 밥을 해가지고 이래. 과객이 밥을 묵고 물팍⁷²¹을 툇 치임서,

717. 당장에 발복할 명당을 잡아야 한다

718. 아침밥을

719. 더벅머리 총각을

720. 아이고 어찌할까

721. 무릎팍

“당장에 배가 고프데 이런 데로 잡아야 되지. 어디 석 달만에, 삼 년만에, 일 년만에 그
래 잡노?”

그래 총각이 부자가 돼가 그래 잘 사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필녀, 상북면, 1984]

동래 정씨 시조 묘터⁷²²

동래 정씨 시조되는 사렘이 동래 부사의 몸종으로 있었어.

몸종으로 있임서 가마이 보이 영감씨(부사)가 밤중 돼가지고 장(늘) 야행을 나가쌍거
든. 하룻밤 보고 이틀밤 보고 그래쌍다가 저 영감씨가 밤에 어데 나가는고 싶어서 몰래
따라 안 나갔디나.

나가보이 현재 동래 정씨 시조산에 떡 앉아 보고시러

“참 자리는 명당이구마는 역적 방구(바위)가 저 비치가 있어서러...” 이런 말로 혼차 노
탄老嘆을 하고 들오고 들오고. 그런 노탄하는 걸 딱 숨어가 듣고 몰래 들와 자고 이뤘는
데, 그래 하루는 있으이까네,

“계랴(계란)로 시(세)개 어데 구해 오라.” 이라거든. 그래 계랴 시 개로 구해 왔다. 딱 구
해 와가 비상하다 싶어서러 쇠죽 끓는데 약간 당갔다가(담궜다가) 쥔 사이에 끼어 주인

722.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산(142.4m)에 있는 동래정씨 시조 정문도의 묘에 얹힌 전설

까네, 딱 받아 뒀다가 그날 밤에 밤중 되니까네 영감씨가 계탈로 가주(가지고) 가거든,
어디 가려고 싶어가 또 살살 따라가 봤다.

가보니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계탈로 물어. 그 자리에 계탈로 딱 묻어놓고 그 익일 밤에
그 시時 돼가지고 그 영감씨가 또 거(거기) 가.

그 안에(동안에) 계탈이 익어가지고(부화해서) 닭이 돼가 홰를 툭툭 치는데 꺽꺽 소리
를 못해.

“아이, 보는 카만(것만) 틀렸구나. 저 닭이 꼬꼬 울긴데, 와 홰만 치노?”

쇠죽물에 약간 당근 기 탈이라.

“아이, 그 자리가 보는 카만 좀 따구나(다르구나). 역적 방구 때민에 그 자리는 파이다.”
이러카고 돌아서 나오건든.

그래 이제 그 몸종이 있다가 그 이야길 듣고 지가(자기가) 동래 부사한테 이야길 했다.

“지(제가) 따라가 보이 글태요(그러하데요).”

“그래 니가 와(왜) 그래 왔디노?”

“대감님 비상해가 지가 따라 가봤읍니다. 그러믄 대감님 그 뭐 못썰(못쓸) 거 절로(저에
게) 주이소.”

그래 인자

“정 그렇거든, 그래 해라.”

그래 인자 저가배(자기 아버지) 미로 파가 거 와 씨놓이 마 파뿌리. 그래 또 오바놓고(싸
아놓고) 가이, 또 그 이튿날 파뿌리고, 시(세) 분(번)을 해도 파뿌리고 해쌓아가지고, 뭐
가 와 파는고 싶어가 하룻밤은 가서 지켰다. 가마이 앉아서 지키이 토채비들이 밤에 우
우 내리오디마는

“눈데(누군데) 여(여기) 누가 미로 이리 씨놔노? 이거는 금박을 해가 썰 자린데, 꺾적때
기로 해가 여 미로 쪼으이 이놈 고안 놔일야.” 카고 토채비가 우우 달라들어 마 파부꼬 우
우 가빠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램이 대감한테 이야길 했다.

“미로 시 분 파길래 내가 지킨까네 밤중쯤 토채비들이 우우 와가지고 금박을 해가 썰 자
리다 꺾적때기로 어디 여저다가 미로 쪼노 카고 파뿌고 가뿌는데 우예야(어찌해야) 되는

겁니꺼?”

“그래, 거게다 꺼적때기를 하지 말고, 보리 쪼을 딱 추리가 뻗뻗뻗 한 거로 실로가 곱게 엮어가 그 딱 싸가 영어라. 그아문 그거 괜않을끼다”

그래가 보리 쪼을 곱게 엮어가 싸가 다부(다시) 미로 췌다.

그래가 그 이튼날 떡 지키이 토채비가 또 우우 오거든. 와가 또 파가드가 보디마는

“아, 이거 금괵이 들었다. 이 사람은 그래가 안 된다.”

토채비 대장이 그래가 안 된다 카인께네 그만 오바놓고(다듬어 놓고) 우우 가뿌거든. 그래 인자 그 미로 기양 안 징긴나(지냈나). 그래 징기가 명당이 됐는데, 그래가 인제 몸종이가 만날 대감 발로 씻고 이라는데, 대감 발바닥을 보йка 사마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 인자 땡가리가(당겨서) 까래빈까네(굵어니까)

“그라지 마라.”

“이기 뵈입니꺼?”카인까네

“그기 아주 직분이 높우다. 까래비가 안 된다.”

“대감 그러믄요 지 발바닥에는 시 날이 있습니다.”

그래 발바닥을 뒤집어 보이 참말로 사마구가 시 날이 있어. 대감이 가마이 생각하이 버리(벌써) 사람이(위인이) 났다(탄생했다).

그래 인자 그 미로 씨놓고나이 한 사날 지내고나이 벼락이 내리와가 역적 방구로 두더리 뿌아뻤다. 그래 영감씨가 카는 말이

“천상 미 자런 니 자리다. 그라믄 니는 뻤나.” 카고, 그래 지 몸종으로 있는 이 사램한테 참말로 사마구가 시 날이 있인께, 또 사람은 났고(뛰어나고) 이래가지고 땃고(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사위로 안 삼았나.

그래가 동래 시조산이 그래가지고 뒤가 참 잘 뻤다 그래.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장태환,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담대한 아들에게 명당 운이 있다

예전에 용한 풍수가 있는데. 어떤 집에 저거 어른이 세상을 떠나가지골랑 토룽草墳을 해 놓골랑 묘터를 잡을라 쿠이까네 만만한 데가 없어가지골랑, 그래 풍수를 데려다 놓골랑, 풍수가 가마 보이까네, 삼 형젠데 만상주를 봐도 그 자리를 몬 쓰겠고, 둘째상주를 봐도 그 자리는 미로(묘를) 몬 쓰겠거등.

막내상주가 하나 있는데, 이념이 노름쟁이나 하고 술이나 묵고 칠락팔락하고 돌아댕기는 고약한 녀이 한 녀 있는데, 그 녀를 가마 보이 거어 미 써도 될다 싶어서 그 미터를 떡 잡아 줬다. 장례를 치르라 쿠골랑 어애 하느고 볼 밖에 없다고.

예전에는 보통 인자 미로 써 놓고 미 앞에 그 인자 수끼때비 움막을 인자 쳐 놓골랑 인자 시모를 살거등요.

장례를 하고는, 만상주가 삼 년으로 이도 안 잡고 머리도 안 깎고 마느래라 쿠는 거는 빗갈도 몬 보고 이래 시모를 사는데, 한밤중 되이까네 저거 아버지가 시모 사는 문을 떡 열고,

“야야, 자나?” 터벅터벅 오거등.

“야야, 내가 도저히 몬 전덜다.⁷²³ 나를 좀 어디 딴 데 뵙기 두가.”

하, 말은,

“예, 아버님, 뵙기 드리지요.” 보이까네 흔적 없거등. 그래 내려 와가 둘째 동성한테 바로 이약을 했어.

“야야,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노?”

“형님, 그럴 필요없습니더. 형님 오늘일랑 집에 계시소. 내가 하문 가가 있어 봅시더.”

그래 둘째상주가 올라갔지. 올라가 시모를 사는데, 한밤중 되이 여상如常시리 참 형님

723. 못견디겠다.

말하는 거와 같이 왔어요. 틀림없이 저저 아버지라. 저저 아버지가 와서,

“아이구, 야야 내 도저히 여계 몬 산다, 날로 뽕기 두가.”

“예 뽕기 드리지요.” 쿠골랑 이튿날 아직에 떡 내려왔는데,

“동성, 어똥도?”

“하이구, 형님 말씀이 맞디더.”

“이거를 끝에 동성 저 념을 알콰야 되나, 그만 도야 되냐? 저 념이 또 안 알쿠고 말이다
판 데를 이장移葬을 해 놓으면 ‘나는 자식 이 아이가, 뭐가?’ 쿠머 저 념이 떡발 놓으며⁷²⁴
이기 또 입쟁이 곤란하고 이러이까네 저저 어야노?”

쿠골랑 둘이 인자 의논을 하고 있다가,

“그 마 알콰야 안 되겠는교?”

“그러머 알쿠자.”

그래 알키이까네 끝에 동성이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에이구, 형님들, 별 소리 다 한다. 죽은 올 아버지가 뭐 할라고 살아오까 봐. 죽어가 묻
어 났는데 뭐할라고 살아 오까 봐. 무슨 귀신 걸은 그런 소리 하는교? 그러머 오늘 저녀
어 내 하문 지키지요. 내 지키지요.”

마 막내 상주가 떡 가가지고 인자 시모를 이래 산다. 사이 한밤중 되이 저저 아버지가
턱 오거등.

“아이구, 야야, 내 도저히 이래가 몬 살다. 판 데 뽕기 두가.”

“보자, 우리 아버진가 우리 아버지 아인가 내가 팔 쥐 보며 안다.” 쿠거등.

“팔 여어 하문 내 보라.” 쿠거등. 사람으는 팔을 쥐가 맥을 짚으며 맥이 뛰고, 짐승으는
맥이 없답니더.

“우리 아버진가 우리 아버지 아인가 보며 안다. 팔 하문 쥐 보며 안다. 팔 내 보라.”

쑥 내이까네 맥을 짚어 보이까네 맥이 안 뛰거등. 딱 거머쥐고 때기발을 치이까네⁷²⁵ 허
연 백 여수(여우)가 탁 자빠지거등.

724. 소란을 피우면

725. 메어 치니까

형 둘이는 보내 났는데 어애 되려고 싶어가 걱정이 되는데, 이튿날 일찍이 여수 그 녀를
떡 둘러미고 집에 철덕철덕 내려와 마당에 툇 들어서가지골랑 툇 때리미,
“이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 생겼나?”
형 둘이 마 할 말이 없거등. 그래가지고 그 자리로 유지해 나가고 지키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명당이 따로 없다

아바씨(아버지)가 병이 들고, 조카가⁷²⁶ 병을 간호한다고 병구완을 하니까네 삼촌이 와
가지고,
“야야, 너거 아버지가 그래 많이 편찮다고 하는데,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약을 좀 써
봐야 안 되겠나?” 이카이까네,
“약을 어데 가 씌는교?” 카거등.
“아무 데 거어(거기) 가면 좋은 의원이 있단다. 그래 거어 함가 봐라.” 카이까네,
“함 가 보지요.”
그래 의원절에(의원에게) 가이까네 두건을 쓰고 떡 앉았거등. 마(그만) 약도 안 짓고 마
(그냥) 오는 기라.

726. ‘아들이’를 에둘러 말했다.

“야야, 약 좀 지어 가지고 왔나?”

“약 안 지어가 왔습니더.”

“와 약을 안 지어가 오노?”

“거어 가이까네(가니까) 두건을 쓰고 앉았는데 물으이까네 상주라 카테요. 지가 약을 잘 지을 거 같으면 저거 아버지도 안 죽일킨데 저거 아버지 직이는(죽이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교? 안 지어가 왔습니더.” 이래 카거등.

“그래.”

그러구러 하다가 아버지가 마 세상을 떠 베렀다 말이다.⁷²⁷ 그래가 초상을 치려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 형편이 없어가지고 초상을 안 치고 마 놔 두거등.

“야야, 와 초상을 안 치고 우야노?”

“형편이 안 됩니더.”

“거어 아무데 뒷편에 가며 오두막집에 택일도 잘 하고, 묘 터도 잘 본단다. 거어 함 가 봐라.”

“가 보지요.”

거어 가 보이까네 오두막집에 앉아 짚신을 떠 삼고 앉았는 기라. 마 묻도(묻지도) 안 하고 또 왔거등.

“야야, 거어 가가 물어 봤나?”

“아이, 거어 가 보이까 뭐 쪼맨은 집 하나 있는데 짚신 삼고 앉아 있데요”

“그 짚신 삼지르(삼지).”

“거어 가가 뭐 물어 볼 기 있는교? 저거가 그렇기 잘 알 거 겠으며 저거 아버지 묘 좋은 데 써가지고 저거가 잘 살 킨데, 거어 뭐할라꼬 묻는교?” 그래 가 마 안 물었다 카거등.

“그럼 우야노?” 카이까네,

“뭐 설마 내중에 썰(쓸) 데 있으며 써지요.”

727. 돌아가셨단 말이다.

그렇게 하는 짓이, 저거 삼촌 말 잘 안 듣고 마 내 비리(버려) 놔뒀다 말이지. 내비 놔두고 근 한 일 년쯤 지내디마는(지내더니만) 삼촌한테 와가지고,

“삼촌, 오늘 마 아버지 장사를 할랍니더.”

“장사를 할라 카며 뭐 무신 준비가 됐나?”

“준비가 있는교?”

“그럼 우야노?”

“그 뭐 내 째어지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묻으며 안 되겠는교?”

그래 저 녀이 우야는고 가만이 본다. 그 날 아침에 가이까네 거적에다가 푹푹 말아 싸가지고 묶아 가지고 지게에다 딱 징구고, 그 우에다가 삼 한 가락 엮고, 팽이 한 가락 엮고, 지 밥 싸가지고 지게에 밥 엮고 산으로 살쭉살쭉 혼자서 째어지고 올라가 제일로 높은 상상봉에 떡 가는 기라. 가디마는

“아버지, 뭐 여어 아무데나 좋은 자리 잡으소.” 카고 구불리뿌는 기라.⁷²⁸ 그래가지고 굴러가다가 걸리가 있으니까,

“아버지, 여어 자리가 좋은교?”

마 물어놓이까네 그기 참 명산이라서 잘살더라고. 그 뭐 풍수가 무슨 명산을 아는교? 옛날부터 지 복은 철철이 안다 카는데 다 그런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마이 하지 배짱 없으며 그래 몬 하거등요. 사람이 다 잘사는 것도 지 배짱에 있고, 못사는 것도 지 마음에 달렸고.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따라 하기 에렵다 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원관, 언양면, 1984]

728. 굴러버리는 거야.

삼두이십팔각산의 명당

예전에 아들이 외동인데, 저거 어른이 풍수질을 하는데, 연세가 많아도 자기 갈 자리는 안 잡골랑. 만날 남우 미터만 잡아 주지. 그러다가 참 새경계死境에 들 적에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아들이 물었지.

“아버지, 아버지 갈 터가 오딘교?” 쿠이까네,

“내 터는 삼두이십팔각산이라.” 쿠거등.

“내 터는 삼두이십팔각산인데, 삼두이십팔각산에가 묻으며 된다.”

그라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메 있는고 도저히 모르겠거등. 이래가 안 되겠다고 자기 어른 두頭만 딱 끊어가지골랑, 쪼매는 궤를 하나 맞차가 영어가 짙어지고 조선 팔도를 땡기는 기라. 땡기며 묻기를요,

“삼두이십팔각산이 어디땡니꺼?” 이래 쿠거등.

삼두이십팔각산이 나타날 택이 있어야지요? 없어요. 참 몇 해로 이래 땡기다가 한 군데 갔는데, 사경死境이 됐는데, 사월 달 쯤 됐던 모양이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허기가 나가지골랑 눕어가 있는데, 어째 보이 저 밑에 치결에 누가 풀로 뜯고 있거등.

‘옳지, 저게 풀로 뜯으면은 틀림없이 밥을 싸가 왔을 낀까네, 저어 가가지고 한 술 얻어 묵고 허기를 좀 면해야 되겠다.’ 일어나가 슬슬 내려갔어. 내려가이까네 풀 뜯는 사람이 여자라. 그래 잘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나는 질 가는 행인인데 허기로 만내 이라이까네 밥 남았는 거 있걸랑 한 술만 주소.”

“아이구, 이거 참, 밥이 남았으면 좋은데, 금상 마 밥을 다 묵어뵈는데 어떡하지요?”

그리고 밥 얻어 묵으로 간 사람한테 짐 실어 줄라 쿤다는 말처럼,

“내가 여자가 되고 풀 바리로 몬 실으이까네 이거 좀 실어 주소. 미안하지마는 어야는 교?”

생각하이 안 실어 줄 도리가 없어서, 풀 바리로 전판 실어가지골랑 몰고 가도록 맨들어

농골랑,

“여보소, 말 한 마디 물읍시더.” 이라이까네,

“무슨 말씀인교?”

“삼두이십팔각산이 어디쯤 됩니까?” 이라이,

“아이고, 그 양반 참 내, 대에도⁷²⁹ 모른다. 삼두이십팔각산이 요게 아인교?”

그카고 보이 소도 없고 사람도 뭐 없어요.

‘삼두이십팔각산이 요기라?’

만날 호미하고 그거는 가아 땡기거등. 고오 짐 실었던 데 뗏잔디로⁷³⁰ 오리고 파 내이까 네 석함이 있더란다. 딱 띠가 묘를 써고 집에 와가지골랑 가마이 생각하는데, 여게 삼두이십팔각산이 될 리 만무하다 싶어.

그런데 가마이 가 쳐 보이까 삼두이십팔각산이 맞아요.

사람 머리하고 소 머리 하고이까네 삼 두三頭, 암소고 여자이까네. 이 십,⁷³¹ 사람 다리 니 나, 소 다리 니 나 팔각, 삼두이십팔각산이 딱 맞거등. 그래 거어로 미로 쓰니 그렇금 자석이 잘 되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729. 매우

730. 잔디를

731. 여성의 성기

도깨비와 묘터

어떤 사램이 하나 부모가 죽고서러 상주가 됐는데, 그 삼촌이 중이 돼가 있다가 속환이 (환속해) 나왔거든. 나왔는데, 풍수는 일자풍수라. 그래 풍순데, 삼촌이 하마 어디 부모 미터 하나 잡아 주까니 이래 기다리고 있으йка네 생전 안 잡아 주거든.

그래 날이 다 지내가도 안 잡아 조. 그래 상주가 ‘아이구 저 삼촌이 다른 사람 미는 다 잡아 주고 와 우리는 미는 안 잡아주나.’고 속에 꽤썸한 맘이 들었다.

그래 부인이서

“잘 되든 우리 잘 되지, 삼촌 잘 되나? 우리가 천상 빌고 말로 해야 되지리. 그란하고는 안 해줄 모양이니 그 안 될끼라.”고 그라거든.

그래가지고 서러 술로 잘 해영어가지고 서러 달로 한 바리 잡아가지고서러 그래가 그 안 부인이 속환이 중 삼촌을 하룻저녁에는 오라고 해가 술로 먹이고서러 그래 미터 말로 했다. 하인까네

“야, 니 어데 갔더나?” 이카거든.

안 그러 카겠나? 말 안 했다 이 말이다. ‘미터 잡아 줄라.’ 말 안하는데 우예 잡아 주노? 이 말이다. 그래 또 꽤썸한 맘이 든다. 말 한다고서러 ‘내한테 돈 받아 묵을란가?’ 그라이 라도⁷³² 어떤고 하인까네

“그래 너그 돈 있나?” 이카거든.

돈이 만게(만고에) 뭐 있나? 돈 아무것도 없다 말이다. 그래 종우로 가지고서러 내놓고 가정 철물(집기)을 다해 보인께 돈 오백냥 백에 안 돼. 천 냥을 장만해야 되는데, 천 냥 돈 이 있나? 가정 철물 다 해봐야 오백 냥 백에 안 돼. 그래 그 남자 백 냥하고 그 아내로 사 백냥을 정했어. 그래가 가정 철물 떡 하고서러, 계약서 떡 써놓고시러 그래가 그 이틀날 당장 그 삼촌이

732. 그렇지 않아도

“인자 너그가 집 팔았으니, 집 비끼라” 그래.

그래 저그 작은 아들로 그 집에다가 살림을 내놓거든. 그라고 인자 조카하고 며느리하고는 옆집에 데부다서러(데려다가)인자 안에는 등짐장사를 시키고, 밖에는 농사짓고 거름 심바람하게 하고. 그래가 농사로 인자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 미터도 그리 머잖애(멀지 않아). 머잖은 데 미를 썼다. 미를 썼는데, 삼촌이

“너그오늘 밤에 미터 짚에 가가주고자거라. 자른 밤중 좀 지거들랑(넘거들랑)오라.”카거든.

그래 한 굵턱에 그렁진 데 돌키⁷³³ 이불로 덮어 씨고 가마이 들놓어가 있다. 있으니까네, 토채비가 디리(많이)오더이

“아이, 우리 노는 자리, 여기다시러 미 썼다야.”

“아 미터(피터) 파라.”

마 토채비들이 파라꼬 야단이거든. 토채비 하내이 있다가시러

“이 사람들아. 그럴기 아니다. 미에 한 분(번) 올라가 보자. 웅당 여 썰 때는 무신 이유가 있으이 썰을 거니 한 분 가보자.”

그래 토채비가 떡 미 꼭다기에 떡 올라 앉아가서러 보더이마는

“야, 여게 미 썰라꼬가정 철물꺼정 방매해가가정 재산 전부 다 팔았으니 천상우리가 비끼자.”

그래 돌키가 그 소릴 듣고도 또 무신 말을 할란간 여기(하려나싶어) 날이 거이 다 새도록 거 있었어. 그래가서러 날이 다 썰 역에(넉에) 집에 오인까네

“와 야들아! 이때까지 있었노?” 그카인까네

“그래 그 있인까네 뭐라 카더노?”

“여차한 말 하더라.”

“내가 그 소리 들어라꼬 있어라 췌다.”

그라이만,⁷³⁴ 미썰 때 그래 안 하믄 어떤고 하이까네 그 미 씨가 꽤해여. 그런 때미네(때문에) 그 미로 잘 씨고 자손이 잘 되더란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정두만,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733. 그늘진 구덩이에 돌이

734.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승 어머니의 묘를 옮기게 한 어린 아들의 기지

옛날 어느 동네 한 집에 저거 아버씨가 일찍이 죽고 모자간에 단 둘이가 살았는데, 그래 그 묘터는 좋은 자리 잡아가 참 좋은 데 썼던 모양인데, 요새도 묘를 함부래 문 써거등⁷³⁵

아주 세력 많이 있는 어떤 정승이 세력을 가 늘리고, 저거 아버지 영묘靈廟 우에다가 ‘아무 날 저거 묘로 썬다.’ 이캐 놓이까네 그 안에서⁷³⁶ 이거 마 인부족세부족人不足勢不足이라, 다시 뭐 말도 않고, 밥을 안 묵고, 바로 그 죽을라고 문을 책관⁷³⁷을 해 놓고 그래 있으이 인자 열 다얏 살을 묵은 저거 아들이 자꾸 ‘와 그렁노?’ 물어 쌓아도 대답도 안 하고. 기어이 문 안 열어 주며 죽을라고 이래 나부대 놓이까네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줬다. 그래 인자 이유를 자꾸 물으이까네,

“그래 니는 알 것 없다.” 그래도 저 녀미 나기는 났어.

“그러나, 몰라가 안 됩니더. 지도 알아야 됩니더.” 기어이 갈 줄라 캐 쌓아서 그래,

“뭐 탄 일이 아니고, 너거 아버지 자 산소 영묘 우에다가 아무 대신 그 집에서 아무 날 저따 묘로 썬단다. 그 인부족세부족이라 말로 해가 될 꺼가? 힘을 가 될 꺼가? 도저히 우 알 수 없고 이러이, 내가 살 수도 없고 마 죽으며 싶우다.”

“아이구, 어머니, 밥 잡수소. 그까짓 거 문제 없습니더.”

“그래 우짤라노?”

“아, 우야기나 마⁷³⁸ 지가 요랑하겠습니더. 걱정하지 마소.”

“그라며 장사하는 날 니가 가 볼라나?”

“아, 가 보지요.”

735. 함부로 못쓴다.

736. 부인이, 아이의 어머니가

737. 책관着關, 자물쇠를 잠근다

738. 어쩌거나

“가 봐야 니 곁은 거 머 별거지 한 마리 온 떡도 안 칠 낀데?”

“그렇거나 말거나 지도 요랑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소.”

그래 그 날 가가 떡 갔다. ,

“여어 영묘에다 묘로 씨가 되겠습니꺼?”

“이 얼라 곁은 기 와가지고 뭐…” 이래 머라 카거등.⁷³⁹

“일꾼들 시키가 저거 집에 보내뿌라. 떡이나 많이 조라.”

분이 짝 채이가 있는데 떡 묵을 생각이 있나? 이거 조도 떡은 묵도 안 하고, 그래 마 묘로 썼다.

그 산 영묘 우에 집 곁으면 울다리 곁은 경계가 있어야 되는 도래솔로 쫓매 놔 뒀어.

그래 마 야는⁷⁴⁰ 집에 오고, 고 이튿날 저거매⁷⁴¹ 오라고 안 하고 지 혼차 톱캉 낫캉 가지고 간다. 가가지고 도래솔 작은 거는 톱으로 쳐뿌고, 수굼푸로 질로⁷⁴² 반들반들하이 뚫아가지고 맨들어 났거등. 밑에 묘는 저거 어른 몬데, 우에 묘가 여자 몬 모양이라.

그날은 아무도 안 오거등, 삼오날 오지. 그날 오며 보라꼬 지 힘대로 풀꺼정 다 잡아 매고 질로 반들반들하이 요래 뚫아 놓고 집에 왔어.

“니 산에 가 우였노?”

“산에 가 잘해 났습니더. 걱정하지 마소. 저 미 곧 파낼 깎니더.”

이튿날, 삼오날 저 사람들이 와 보이까네 나무로 쳐뿌고 거어다 질로 히얀하이 뚫아 났고 고약한 짓을 해 났거등.

“야, 이거 이상하게 났다. 아래 온 조 놈 아아 고기 그랬다. 조 놈 잡아 오너라.”

그 참 바로 잡아 오는 기라.

“네 이념, 니가 여게 혼잡했제?”⁷⁴³

“지가 그랬습니더.”

739. 꾸지람하거등

740. 이 애는

741. 자기 엄마

742. 삽으로 길을

743. 어지럽혔지?

“와 이래 혼잡을 해 났노?”

“그기 혼잡이 아입니다.”

“이념 혼잡이 아이고 이 뭐고?”

“참 올 아버지 인자 대 호강 댔습니더. 저 정승 모친 몬데, 올 아버지가 할마이⁷⁴⁴ 하나 생겼습니더.”

하, 그 소리 듣고 나이 마 기가 찰 일이거등.

“참 올 아버지는 대 영광 댔습니더.”

그래 할 수 없어서 그 묘 파냈다 카더라. 가아가 낸중우 참 크기 되더라 카데. 대인 댔단 다. 그 대인 될 사람은 예릴 때부터 따다 캐.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한국 명지의 혈을 끊은 이여송

이태왕 때 해가 임진년이라. 그 해 왜병이 나와가 난리를 치고 나라도 뺏끼이간에 정승 이 서이고 판서가 여섯이고, 그 아홉이가 통천하⁷⁴⁵ 일로 처리로 하고 이러는데 안 뺏길 라고 하지만 왜병이 들어와 나라를 쳐드는데, 아주 당할 수가 있나?

그때 대국강 조선강 택이⁷⁴⁶ 형제국인 때라. 대국은 큰 집이고 조선은 적은 집이고. 조

744. 늙은 아내

745. 전국의

746. 말하자면

선에서는 큰 장수도 없고 막을 지식⁷⁴⁷이 없고 할 수 없어가지고 오성대감이라고 정승 판서를 지낸 대감이 김성일이라고 그 어른하고 대국에 청병해서 이여송이라 쿠는 장수로 모셔가 왔단 말이다.

이여송 카는 이가 대국서도 참 유명한데, 저어 북한⁷⁴⁷에 난리를 치러 갔는데, 몇 달 안 치몬 다 치는데, 여어서 청병을 데불로 갔다 말이지.

대국 천자가 이장수李將帥로 이여송이라는 장군이 저기 갔으이 못 내주고 어팔 수 없어서 딴 사람을 데리고 가라 카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성공을 못 하겠다.

오성이 카는 정승네가 대국에 처음으로 들어갔제. 중로中路에 가다가 가악중에⁷⁴⁸ 소낙 비가 덮이 오는데, 몸을 피할 데가 없어. 그 때는 사람이 그리 많이 안 살고 중로에 무인 지경이 많이 있었어. 그래 어째 보니까네 그 한 가운데 조만한 집이 요래 뵈. 그래 그 집 에 비 피할라고 들어가이 안노인老婆이, 안늬은이가 있어.

“비 좀 피해 갑시더.” 이러 쿠이,

“비 피해 가소.”

방에 드갈 데도 없고 문에 앉아갓고 비를 피하니 어째 바람이 부니까네 문이 헐렁 열리 거든. 저 뒤에 사람이 앉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참 흥축한지 다시 두 번 치아다볼 그런 마 음이 없어. 그래 안늬은이 보고 그러 켜어.

“이 분명한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앉하 놓고…”

그래 그 늬은이가,

“대감덕에 자식을 못 봐서 그렇제. 다름이 아니고 자식이라.”고 그 저테에⁷⁴⁹ 안늬은이 가 먼저 말을 한단 말이라.

“대감이 이분에 대국을 청병하러 가이 청병을 가도 이장수를 데려가야 돼지.”

그기 화상畵像이거든.

“이장수를 데리고 가야 조선을 구하지 이장수 안 데리고 가면 못 구한다. 그런데 지금

747. 북쪽 변방

748. 갑자기

749. 그 옆에

가모 천자가 이장수를 안 준다. 이 화상을 가져가야 준다.” 그리 쿠거든. 그래,

“아이구, 그렇느냐?”

고 화상을 받아가 대국 천자한테 가가지고,

“청병하로 왔다고.”

천자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기라.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 화상을 내 놓으이 천자가 참 놀랬단 말이야.

이여송이 어째 가지고 화상을 가아 왔는가 싶어서 물었거든.

“중도에서 그래 가 화상을 얻었다고.”

이여송이 대국에서 북한을 난리로 치로 갔는데, 그래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불렀어. 이여송이 천자가 부르니 어쩔 수가 있는가, 천자의 명령인데. 그래 왔다. 석 달만 더 있으면 평난平亂을 시키고 상을 주겠다고 이여송 조카를 불러 싸움에 대신 보내고 이여송이 청병왔지.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난리를 푸는데, 이여송이 참 알기를 가당찮이⁷⁵⁰ 아는 위인이라. 여기 조선에 와가 난리 칠 적에 이여송이 어데 전장에 나가 난리를 친 적이 없거든. 앓아가 시키거든.

여어 참 본향 사람 김비장 김덕령이라야 육전陸戰을 한다고 김덕령을 데려다가 시켰어. 난중에 일본놈이 수전을 하는데 수전水戰을 조선사람이 누가 할 줄 아나? 그런까네 이순신 장군이 하나 있었어. 그 이순신 장군이라야 수전을 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데려다가 수전을 시켰어. 지금이라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안 캐 쌓나? 그래 수전은 이순신 장군 맡기고 육전은 김덕령이라는 그 장군 맡겼어.

난리를 다 치고 평난하고 고국을 드갈 모양인데, 서로 많이 의지해가지고 한 잔 묵는 잔치를 벌었는데, 이여송이가 가만 보이 ‘조선은 내보다 나은 사람은 없고, 조선이 참 명지

750. 아주 많이

名地고, 내가 조선을 차지하면 하겠다.’ 이리 싶었다 말이지.

그래 깊은 마음이 있는 차제에 그래도 간다고 이순신도 저기 있고 참 장수들하고 정승 판서 모두 앉아가 술로 권하고 이래 난리잔치로 하는데, 어떤 소년이 말로 타고 간다.

이전에는 높은 사람의 좋은 잔치 앞에 범인凡人이 말로 타고 못 갔거든. 가몬 사람이 경솔하다고 못 가구로 하는데,

그래 이여송이 마리(마루)에 앉아서 보이 아주 안됐단 말이다.⁷⁵¹ 그래 그 밑에 아장亞將을 불러가지고,

“말 타고 가는 저 사람 잡아 오라.”

저 사람도 아니지. 저 놈 잡아라지. 그 잡으러 가는 사람도 장수라 아주 날랜 사람이거든.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안 붙잡히. 붙잡을 동 붙잡을 동 해도 안 붙잡히. 그래 가는 기 제불 제법 몇 십리 갔단 말이다. 아무래도 안 붙잡히. 그래 할 수 없이 다부⁷⁵² 돌아왔다. 그래 대장한테,

“지는 암만 따라가도 붙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

이여송이 골이 버쩍 나가 자기가 다말아갔다.⁷⁵³ 다말아가는데 또 뒤에 따라가 확 붙잡았는데 고만 안 붙잡히. 말 우에 앉아가 말채라고 꼬장가리로⁷⁵⁴ 말을 한번 때려 보이, 아무리 해도 안 잡히. 그러구로 좀더 따라갔다. 어디까지 가는지 가덩이만, 그 산이 첩첩산중이라. 바우청덤이⁷⁵⁵ 걸은 데 썩 드가는 기라.

“이여송이 잡아 왔음더.” 이래.

그러니까네 말강 충암절벽 산에 바우 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가당찮는 기라. 위대가 어떻게 크는지.⁷⁵⁶ 겁이 나가 고개로 들고 말로 못하것테. 그래 그 사람이,

751. 기분이 언짢았다는 말이다

752. 도로

753. 달려갔다

754. 꼬챙이로

755. 큰 바위 틈

756. 풍채가 크고 위엄이 있는지

“이여송이, 니가 말이지 조선 나와가 욕을 봤고, 성공을 했으몬 니 나라로 가지, 니가 어째서 조선에 남았느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묵었지만 녀한테 배포를 안 했는데, 보로⁷⁵⁷ 먼저 알고 그래. 그래서 마아 말귀를 아아,⁷⁵⁸

“잘못했습니다.”라고 백백사죄하고 그래,

“너저 나라 가라.” 그래 마,

“가겠습니더.”

그래 다부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산이고 바위 틈인데, 산이 있었는 동 평지가 있었는 동지애地境로 모르겠어. 그 기 산신령의 택이 도술이라.

그래 다부 돌아 와가지고 갈 때는 우물우물 해가 간다 쿠고 천자영天子命도 못 받고….
조선 명지가 있어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고 이여송이 지도를 내어가아 붓을 가지고 기리 뻘어. 지도를 끊어 뻘어. 그래 조선 명지가 끊기 가지고 큰 사람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제.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천석, 청량면, 1984]

757. 벌써

758. 이여송이가 말귀를 알아 들었다

추성뭇이 생긴 사연

추성지에는 본래 그 인자 추씨秋氏가 거어 살았답니더. 추씨가 거게 살았는데, 에 추씨가 어떻게 그 무신 벼실도⁷⁵⁹ 많이 나고, 쉽게 말하자면 에 좀 득시기⁷⁶⁰ 살았어요. 이래 가지고 그 어째서 이게 됐느냐고 나라에서 즉 말하자면 그 인자 지질학자라 커까, 요새 말하자면, 내라 보내 봤어요. 보내 본 결과에, 그 지금 추성秋姓 그 추씨 추씨가 살기 때 민에 추성 추성지가 됐지요. 추성뭇이 됐지요. 됐지마는 그래 인자 거게가 본, 지형을 보 니까네 지형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정에서 다 보고 지형이 뭐하다 싶은 데는 다 나라에서 접수시키고, 쫓아 내뿌리기도 하고 나라에서 다 그랬거든요.

연에 그 추성뭇도 말하자면은 거게다가 추성 추씨가 사는데, 그 땡이 지형이 좋아가지고 까딱하며 잘몬하다가 역적이 나까 뭐가 나까 그런 기거등요. 그런 뭐가 있기 때민에 ‘그 터를 비아라.’ 비우고 그 뭇을 파가 막았다 카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택은 말하자면 한 마을을 없애뵈다 그렇지. ‘터를 비아라.’ 그 여어 저 우리 서가徐哥도 말하자면은, 내 성이 서갑니더, 서가도 그 달성공원 그 나라에서 다 그거 안 했습니까? 그와 다 만찬가집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서판출, 언양면, 1984]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759. 벼슬도

760. 득세得勢하여

피난할 곳

임진왜란 때 나 많은 사람들 예전 비결 문법을 얘기하는 거로 보몬, ‘천부지天不知라.’ 첫 난리 날 때는 하늘이 재앙을 내라가, 인종이 멸종이 됐다 카는 말이 있는데, ‘청석靑席이라.’ 청석이란 글자로 파자破字로 푸른 청자는 십이월달十二月, 자리 석 자는 이십 일일二十一日이라고. 그러니까네 십이월 이십 일일날에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는데, ‘우와횡산雨臥橫山이라.’ 비 우짜雨字에다가, 뫼 산짜山字가 놓여 있으니까네 비와 눈이 와가지고는 천지가 난리가 난다고, 이래 쑤으이 인심이 동요가 돼가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은 다 죽었는기라.

다 산에 도망을 가고 어떤 지각 있는 노인이 식구가 다 피난 간다고 이리 가도, 산에 안 가고 있는데 난리가 날 시기가 돼 놓으이 사람들이 전부 그 천성이 배끼고⁷⁶¹ 그래가, 자기 아들도 와가지고,

“아버지 와 안 가는교?” 이 말도 안하고 그래.

그때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배 피난갑시다.”

“오냐. 가자. 니가 가겠나? 내 등더리에 업히라.”

그래 조부가 어린 손자를 업히라 쿠이까네 손자가 조부인데 내 업히가 켜고 이래놓으니 밤은 됐지, 조부 등어리에 업혔다. 노인은 손자 마음 안정시킨다고 밤새도록 처마 끝에 돌아댕긴다. 캄캄 어두운데 도인까네 어린 아아는 피난 간 줄 알꺼 아인가봐.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이까네 눈이 천지를 그냥 덮어 뿌고 나간 사람은 다 죽어 뵈어. 그래 그 조상이 피난을 했다.

다음에, ‘이재송송利在松松 인부지人不知라.’ 이리한 것이 솔 송짜松字에 있는데 사람인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놈들도 그걸 알고 솔 송짜 들은 데는⁷⁶² 안 갔는데, 울

761. 바뀌고

762. 지명地名에 송자松字가 든 곳은

산의 청송靑松도 경북 청송도 피난을 했다⁷⁶³ 쿠는데, 나중에 알고 보йка네, 이여송李如松이 나와 가지고 평정시킬 줄은 세상이 몰랐다 이기라.

이여송을 보고 그 표현한 기라.

그래가 우리 청송 요오도 손가孫哥들 몇 집하고 청안이씨네들이 피난한다고 들와가 이리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산중 사람이 돼가야 이리 고생을 한다고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고시레의 유래

성지가 뭐 남우 미터는 잘 잡아 주고 자기 모친 미는 아무리 땡기미 써놓고 보이 또 아이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 하문은,

인자 제일 좋은 데라꼬, 용이 화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형국이라.

이래가 모친 묘로 써 놓고 나니까, 장 이장移葬을 여러 번 했다 카더마는. 해 놓고 나니까네, 그래 뱀이 잡아가 낭계(나무에) 걸치 놓은 그 설(혈穴)이더라.

그래 할 수 없이 거어 또 못 놔 두고 전라도 뭐 징개명개들이라 카던가? 저 어데 들복판에 다시 갖다 뒀었는데, 그래 저 성이 고썸(고씨高氏인) 모양이지. 그래 우리 ‘고시레’ 커미 뭐 밥 무을 때 한 숟가락 떠 내빼리는 거.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763. 울산 청송靑松도 피난지였고 경북 청송慶北 靑松도 피난지였다

웅천 주천자

속설로 특출한 사람을 보고,

“웅천 나도 지난 탓이라.”⁷⁶⁴

웅천고을⁷⁶⁵이 있는데, 대명천자大明天子가 웅천에서 낳는데, 큰 구렁이를 대명이라 이리 하는데, 큰 구렁이가 죽은 뉘이 걸인이패에⁷⁶⁶ 주천자로 태어났다고.⁷⁶⁷ 아바시도 걸인이고 어마시도 걸인인데, 부모가 걸인이니까네 자식도 나도 이내⁷⁶⁸ 걸인인 기라.

난⁷⁶⁹ 사람은 열 살만 묵어도 도량度量이 나이 많은 사람 이상의 도량이 다 돼 있어. 나이가 한 여나문 살 정도 묵우가지고 걸인의 고수高手가 되고 만날 이 동네 저 동네 땡기면서 얻어 묵고 이리 사다가 그 인자 포부가 있는 기라.

그래 ‘내가 부하들을 여러 수십 명 땡고 의주義州 압록강을 건너 대국大國 드가 가지고⁷⁷⁰ 천자질로 한다.’ 쿠는 포부를 가지고 강원도 어데 절에 갔는 기라.

민가에도 걸인이 오면 밥 한 덩어리 줄똥 말똥 하는데, 걸뱅이패가 한 수십 명이 한참에 절에 가가 들이미이, 중들이 걸뱅이들을 갖다가 저녁에 밥도 안 주었는 모양이라.

굶고 가만 생각하이까네, ‘이 절에서 우리 걸뱅이라고 대접을 이리 안하는 모양이다. 이 놈우 부처를 갖다가 귀양을 보낼 밖에 없다고.’ 중들 다 잔 뒤에 부처 등더리에다가⁷⁷¹ 글로 여덟 자를 쓴 기라.

「불위불불佛爲不佛하니, 부처가 부처질을 못 하이.

764. 웅천熊川에서 태어나도 다 중국천자中國天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됨에 따라 생애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765. 경남 창원군慶南 昌原郡에 있던 웅천熊川인데, 지금은 진해시鎭海市에 편입되었다.

766. 거지패에

767. 제보자의 부친인 손천석孫千石씨는 주천자의 어머니는 무당인데, 못의 구렁이가 총각으로 변신하여 무녀에게 잉태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굿하는데 데리고 다니기 귀찮다고 아들을 거지한테 주어 버렸다고 했다.

768. 역시

769. 뛰어난

770. 들어가서

771. 등에다

「적우장사謫于長沙하라」. 장사에 귀양가라. 여덟 자를 부처 등터리에다 딱 써 놓고 저녁에 자는데, 그 날 저녁에 중놈들 꿈에 귀양 간다고 보파리를 싸가지고

“귀양이 언제 풀리겠노?” 쿠며 중마다 꿈에 나타난다.

중이 밤새도록 부처가 귀양간다고 하는 꿈을 꾸고 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중이 한심을 하고 이래 쌓는데, 하나이 나오고 둘이가 나오이,

“엇저녁 꿈에 말이지, 부처가 귀양간다 카는데.” 이리 하인께나,

“나도 그런 꿈이 꾸이더라.”

“니도 꿈 꾸이더나?”

전부 중마저 다아 부처가 귀양간다고 야단이라.

“이거 우째 이리 댜 동토고? 우리가 엇저녁에 걸인이 오는 걸 대접을 안 해 놓으이 그렇나? 온 아침부터 걸인을 대접을 한 번 해 보자.”

이래 공론이 나가지고 그 날 아침에 걸인으로 밥을 많이 해가지고 배부르도록 한 그릇씩 주고 이랬는데, 그날 아침을 잘 얻어먹고 점심 잘 주고 저녁도 잘 주거든. 그래 인자 그 주대명朱大明⁷⁷²이,

“우리 걸뱅이로 대접을 잘 하이까네, 부처를 귀양에서 풀어 줘야 되겠다.”

불짜不字 한 자씩 더 끼아주자, 우째 되느고 하이,

「불위불불佛爲不不佛하니」, 부처가 부처질로 아니치 아니 하이, 잘 하니 이 말이라.

「부적우장사不謫于長沙하라」. 장사에 귀양가지 마라.

중들이 자이 부처가 중 꿈에 귀양 풀렸다고 좋다고 생야단이거든. 그래도 그 중하고 걸인하고는 언변 통화하는 안 돼는 모양 겠은데,⁷⁷³

그래가 거어서 한 사날 잘 쉬어가지고, 의주 압록강을 건널라 카는데, 여름철인데, 당산 나무 밑에 마을 사람들 많이 나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앉아 쉬고 있는데, 한 군데는 파자破字⁷⁷⁴ 점을 치는데, 노인이 파자를 잘 한다 쿠거든.

772. 대명국大明國의 주천자朱天子를 아예 구령이의 화신이라고. 구령이의 경상도 방언인 대명이를 이름으로 붙여 주대명이라고 하였다..

773. 거지땀과 중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는 말이다.

774. 글자를 짚어 그 글자로 점을 치는

주대명이 걸인이해도 당산나무 밑에 가 쉬는데, 주대명이가 부하를 시키가지고,
 “니 저어 가가지고 파자 한 자를 해 보라.”
 고수가 그러니까네 파자를 하는데, 무신 자로 짚었노 하몬, 물을 문짜問字로 짚었다 말
 이라. 그 파자 하는 사람이,
 “괘구출문掛口出門하니, 걸인지상乞人之相이라.” 입을 나가는 문에 걸어 놔왔이이, 걸인
 형상이라. 걸뱅이다 이 말이라.
 그래 파자를 해가지고 주대명이인데 떡 가가지고,
 “파자 해 봤습니다.” 하이,
 “뭐라 카더노? 무신 자 짚었는데, 뭐라 카더노?”
 “물을 문짜로 짚었는데, 괘구출문하니 걸인지상이라 캡디더.”
 “니는 그래 평상 걸뱅이 짓밖에 못 하겠다. 내가 한번 해 보지.”
 주대명이가 눈을 뜨고 물을 문짜로 또 짚었다. 또 짚으이 파자하는 사람이,
 “좌군우군左君右君하니, 인군지상人君之相)이다.”
 문 문짜를 입 구짜를 요쪽에 붙이몬 임금 군짜君字가 되 뿌고, 또 요쪽으로 붙이몬 임금
 군짜가 돼 뿐다고,
 “좌군우군하니, 임금의 형상이라.” 그래 파자하는 사람이,
 “당신은 천자질 하로 가라.” 그러 쿠거든.
 그래 자기는 언캥 포부가 있어가 대국 드간다고 가는데, 당산나무 밑에서 부하는 거어
 서 다 처자 뿌고⁷⁷⁵ 자기 혼자 압록강을 건너가 만주로 건너가이리 갔는데, 사람이 수백
 명이라. 그 연고로 물었다.
 “와 여어 이래 사람이 내왕을 많이 하는고?” 물으이까네,
 “저 비이는⁷⁷⁶ 높은 산에 집채 같은 돌이 구불어 내려왔다가 구불어 올라갔다가 이리 하
 는데, 내리 올 때에도 빨리도 안 내리가고 뚜굴 뚜굴 굴러 내려 와가지고 산 치허리에 내

775. 처지게 해 버리고

776. 보이는

려왔다가 다부 되올라 간다고 그 구경하러 간다고 사람이 저리 많다.” 이기라.

그래 주대명도 그 얘길 듣고, ‘에레이, 나도 그 구경이나 한 번 해 보러 가야겠다.’고 그 산을 향해 가니 그 산 밑에 사람이 구경한다고 여러 수백명이라. 탄 사람은 저 밑에서 돌 굴러 내려오는 거,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거 구경하는데, 주대명이는 ‘저기 저기 만댕이 頂上 뭐가 있는고? 나는 우에 올라 가야 구경할 거 밖에 없다.’고 혼자 산만댕이에 올라갔 거든.

올라가이까네, 돌이 구불어 내려 와가지고 딱 앉는 자리 밑에 또 돌이 돼어 있는데, 그 글 네 귀가 딱 백히가 있어.

「인호부지정중귀人虎不知井中鬼라」. 사람과 범이 새미 가운데 귀신 될 줄 알지 못 하고.

「막하幕下에 초봉마자제初逢馬子弟라」. 막 아래 처음으로 마자제를 만나라.

「유주읍중涪州邑中에 동신발桐神發하니」. 유주 고을 가운데 오동나무 귀신이 발했으니,

「만인사중萬人死中에 일인생一人生이라」. 만 사람이 죽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았다.

글 네 귀가 딱 백이 있는데, 주대명이가 잡책에 딱 써가지고, 마자⁷⁷⁷ 글자를 딱 쓰인까 네 돌이 딱 붙어 뿌리고 꿈쩍거리지도 않는다.

천자질 할 기상이 있으이 힘도 장력壯力이라고. 내려와가 어데라고 갔는데, 만주 걸은 그런 널은 별판이 하루 종일 가도 참 무산천리無山千里로 산도 없고 천리로 가는 그런 길 인데, 하루에 수백 리를 걸어가도 이리 가는데, 하리 점도록 가다다 날도 저문데, 어둡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요구療飢나 좀 하고 이래 자야 되는데, 집이 없거든. 어데로 가다가 보이까네 산 밑인데, 불이 뻥하거든. 떠억 보이까네 아주 정결키 지났는 절이 한 칸 있는데, 그래 대문에 가가지고 아나고⁷⁷⁸ 문을 두더리도 인적이 없다. 그래 그 장역 소리에 고함에다가 이래 하인까네, 모구만한 소리가 나는데 하얀 늙은 노싱老僧이 나와가 지고,

777. 마지막

778. 사람을 부르는 소리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라.” 쿠고 손짓을 하는데, 그대 대문을 빼 헤치고⁷⁷⁹ 드갔다.

“시장하니까네 저녁을 좀 해 줄라고.” 노sing이 하는 말이,

“내가 늙어가지고 기골이⁷⁸⁰ 없어 이리이 여게는 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이, 곡간에 가가지고 쌀 내고, 물 떠다가 밥을 해 무라.” 이러 하거든.

그래 쌀 내다 놓고, 절 뒤에 우물이 있는데 아주 깊어. 두루박을 가지고 물 뜰라 쿠몬 층계를 내려 가가지고 떠 올라오는데, 밤이라 캄캄 어둡은데 낮신 우물에다 내리갈 수도 없고, ‘아무래도 여 있는 사람은 소롭을⁷⁸¹ 안 알겠나?’ 싶어가 그 노sing을 보고,

“이 물 떠로 내려가는 층계돌 좀 갈차 줄라.” 고.

“넌들 어떻게 가겠노?” 그러 쿠이딩이,

“내 출입을 못 한다.” 이라거든.

“출입을 못 하모 내한테 업히가 짚에 가가지고 갈차 주몬 물로 떠 와가지고 밥을 해 먹겠다.” 이러 하인까네, 노sing이 그 말이 가사하거든.⁷⁸² 그래가 업히가지고 우물에 가는데 뒷짐질로 지고 궁딩이로 만지 보이 인골人骨이 아이라, 호골虎骨이라. 그래 새미 가에 노sing을 앉차 놓고 주대명이는 돌 디디고 내려가가 물 뜬다고 헛검을 이리 쪼으이, 그 옆에 서가 헛검 쪼는다고⁷⁸³ 가리친다고 엮디리가 이 돌 디디고 저 돌 디디고 이래 쑥거든. 이래 쑥는 중에 장년이 발질로 노sing을 새미에 들고차 영어 뻘다.

차 영어 뿌고 보이, 노sing이 아니라 여산대호如山大虎가 돼가 마 솟일라⁷⁸⁴ 쿠거든. 그래 새미가에 있는 돌로 빼가지고 우에서 막 쥐박으이, 지가 암만 여산대호라 해도 새미에 다말아 올라오도⁷⁸⁵ 못하고 그래 잡았다.

그래 거어 물로 다부⁷⁸⁶ 떠 올라 와가지고 밥을 해 묵고, 저녁에 자고, 이튿날 아침 해 묵고 또 그 날 어데라고 무산천리로 몇 백 리로 이리 갔는데,

779. 걸어 놓은 대문의 빗장을 열었다는 말

780. 기운이

781. 하는 일 혹은 일의 원리. 해결할 방도.

782. 그럴 듯 하거든

783. 헛 짐으면서

784. 솟구치려고

785. 뛰어오르지도

786. 다시

그 날 저녁도 역시 안날 저녁과 같이 집도 없고 이런데, 밤에 어디에 불이 뵈 하거든. 그 래 불 따라 갔는데, 어떤 양반이 천제⁷⁸⁷로 지내는데, 제사 음식을 제복⁷⁸⁷ 그거로 해 놓고, 기도를 하는 말이,

“빨리 주대명, 주천자가 와가지고 우리 유주 고을 백성을 좀 살리 주소.”고 이리 기도를 하는 기라. 제사를 다 지내도록 평풍 너메 숨어 앉아 있다가 철상⁷⁸⁸할라 쿨 무렵에 평 풍 너머로 내려다 보옵시로,

“마자제⁷⁸⁹馬子弟 아이냐?”

‘막하⁷⁸⁹幕下에 초봉마자제⁷⁸⁹初逢馬子弟라’ 켜거든. 처음으로 마자제를 만네가지고 이래 씩있 으이 마자제는 보더니만,

“아이구, 주천자님 오셨는교?” 이라거든.

마자제는 주천자 오도록 기도했고, 주천자는 그 돌에 새겨 있는 그거로 보고 마자제인 줄 아지. 그래 그 제사 지낸 음복을 들이 들어 한 그릇씩 하고,

“천자님, 빨리 유주 고을로 가가지고 유주 고을 백성을 살리야 됩니다. 다 죽었입니다.” 이기라.

“지금 한 사람 살았는데, 속히 쟁기고 가야 살립니다.”

그래 마자제하고 하루 종일 유주 고을로 가는데, 그 이튿날 유주 고을로 드가 가지고 보 이 날이 일모⁷⁸⁹日暮가 됐는데, 연기 나는 집이라고는 한 집도 없고 귀중 높은 집에 그저 불 이 뵈 해. 그래 그 집을 찾아 드가가지고,

“아나!” 쿠인까네, 아주 과년한 처자가 하나 나와 영접을 하는데, 보이 버러 사람이 빼 텐 제가 오래고⁷⁸⁸ 문지가 뵈오얀 정도고 이런데, 방을 청소로 하고 저녁을 속히 해 주민 서로 뵈라 주는데, 남녀 유별인데 자기 혼자뿐이고 하이 청상에⁷⁸⁹ 저녁상을 처자가 들 라 놓고 하는 말이,

“손님, 속히 나가소.” 이래 하이, 주인을 불러가지고,

“땀 걱정을 말고, 오늘 저녁에는 내가 여어서 자고 갈 모양이니까네, 쌍촉⁷⁸⁹雙燭을 켜 달

787. 제법

788. 벌써 사람 흔적이 오래됐고

789. 하는 수 없이

라.”고 촛불을 두나씩 아주 밝히 밝혀 줄라고 해.

초를 켜 놓고 축담 우에 혼자 앉아 있으이, 밤중이나 되어, 천병만마千兵萬馬가 들이닥치는 소리가 절단이거든.⁷⁹⁰

그 집이 예전에 원님이 사던 동헌東軒집인데, 그 고을 사람이 다 죽어 뿌고, 그 원의 딸 하나 남아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원의 딸이 마자 죽을 날이라. 그래 그 천병만마가 동헌에 군사장비를 갖다 놓는데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이래 쌓는데, 그 괴수가,

“니 저어 가가지고 온 저녁에 탄 인적기가 있는데, 저 놈 빨리 잡아라.”고 그래.

그거는 뭐고 하몬 오동나무 귀신인데, 쌍축을 켜 놓고 주대명이 앉아 있으이 문을 열고 들와 보더니,

“주천자가 와 안 있나?”

귀신은 천자질할 사람이다 알아보기 때문에,

“주천자가 와 있다.”

그 문 밖에서,

“아이구, 천자님 오십니까?”하고 재배再拜, 삼배三拜, 곱배로 드리고,⁷⁹¹

“아이구, 주천자 와 계십니다.” 이기라. 괴수가

“이 놈이, 안죽 주천자 올라면 멀었는데, 주천자가 오다이.”

인자 아장亞將을 보내가지고 잡아내라고, 아장이 또 와 보이까네, 참말로 주천자가 앉아 있거든. 곱배로 드리고,

“천자님, 괜찮심더.”

그래 괴수인데 가서 그러인께나,

“아이, 내가 한 번 가 보지.”

그래 괴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이, 참 주천자님 와 계시거든. 워낙 곱배로 드리고 이라이, 주천자가 요곳을 인자 두라고.⁷⁹²

790. 절단 나가든

791. 곱으로 절을 한다

792. 이 곳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니가 와 이래 이 유주 고을 백성을 다 죽이 놓고 이랬노?”고.

“일부러 죽인 기 아이고, 그 죽인 연유가, 동기가 있음더. 우리가 오동나무 귀신인데 그 유주 고을 원이 이 고을에서 여러 수천 년 된 오동나무를 갖다가 비어가지고⁷⁹³ 전부 장 농을 맨들었는데, 우리는 집이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을 원인데 집 하나 맨들어 줄 라고 청을 하이 죽어 뿌고 죽어 뿌고 그런 기 백성을 다 죽였십니더.”⁷⁹⁴

주천자 하는 말이,

“너거 처소를 하나 정해 주면 이 고을 백성을 다 살리겠느냐?”

“아이구, 처소만 정해 주면 널 아침에 살립니다.”

그래 귀신하고 주대명하고 약속이 됐는 기라.

이튿날 아침에 귀신들이 주대명인데 문안을 하고 살리는 방법을 갖다가 부符를 몇 장 써 주거든.

“방안에 전부 죽어 있으니까네 문만 열고 이 부만 딜봐드몬⁷⁹⁵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 더.”

“그래.”

주천자가 자기 손수로 사람이 죽은 집에 드가 가지고 방문을 열고 딜봐다보이,

“아이구, 내가 너무 잤다.”쿠며 그만 툭툭툭 털고 나오이, 사람 시키가 그 고을 전체로 돌리니 고을 백성이 다 살았다. 그래 가,

“이 어른을 갖다가 천자로 모시자.”이리 됐어.

그래 가 주천자가 조선사람으로서 대국땅에 가 천자질로 했다 이리 하지요. 조선사람 으로서 천자질 한 사람은 대명천자 뿐 인기라. 와 대명이라 쿠는고 하몬, 큰 구렁이가 죽 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대명이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793. 베어서

794. 청을 하러 가면 사람이 놀라서 계속 죽었다

795. 들여다 놓으면

중국 황제가 된 수달피 손자

두만강 가에 온성이라고 있는데, 온성이 강가에 붙었거든요. 온성 우에 좀 올라가몬 김 씨가 한 둘이 살았입니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양이 있고 온성이 있고 어간입니다.(접경입니다). 어간에 거어 살았는데, 두만강가입니다. 살았는데,

딸이 한 열 여덟 살 묵었는데, 그 딸이 참 혼자 방거처房居處를 했는데, 자몬 꿈에 동자 아아가 와가지고 자꾸 동품을(동침을) 하게 됐네요. 동품을 하몬 땀이 주울 나몬 새벽에 가 버려요. 그래가 귀신인지 뭐 그기 뭐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꿈결 곁해. 꿈결 곁은데 그러거든요.

그래 가 여러 날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알아보겠다.’고 명주 꾸리로 하나 가져 왔어요. 바늘 싹 매가지고 바늘로 가지고 그래 뒷동덩이다 마 한 새벽에는 갈라는데, 꽃은 기라.

그래 실이 명주가 엄청나기 풀린 기라. 식전에 명주 꾸리를 자꾸 찾아간 기라. 가이까네 이 돌구영에(바위 구멍에) 드가드랍니다.

가덩이마는, 가만 덜다보이까네 수달피가, 저어 강원도 절로(저리로) 가몬 물에 사는 겁니다. 수달피라 있어요. 고양이⁷⁹⁶ 곁은 기, 그기 있어요. 그기 등대기에 바늘이 꽃혀가 죽어가 있더랍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 왔는데, 모태가(잉태가) 된거라. 아, 배가 불러진기라.

그러이꺼네 자기네 집안이, 양반의 집에 이런 일이 났으이까네, 어데 총각을 붙어가 이랬은까네 짝이야 된다. 그러이 어머니는 못 죽이게 한 기라. 그러이까네, 두만강 건너 가몬 건너 우에 조금 올라가몬, 동단리가 있는데, 동단리하고 이 밑에 하고 어간에 벼랑 밑에, 이런 반석 밑에 이런 데가 있어요. 거어다 갖다 막을 치고 살리게 양식을 갖다 주고 살린 기지.

그런데 아아를 낳으니까 머슴애라. 그러나 이름은 뭐냐? 메르치라고 지있어요. 성도 모

796. 고양이

르고 수달피 아들이니까네 메르치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그 사람이 커가지고 그래 이름을 별시리(별스럽게) 지었지.

그래가지고 인제 그 사람이 커가지고 장개를 샀어요. 가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황이를 낳았어요. 중국 천자를 낳은 겁니다.

황이라. 황이라고 낳았는데, 그 조그만 때는 황인지 뭐 압니까? 그 재주가 있고 해가지고, 거게 가몬 한성대라고 있고 수법을 배우고 이렇게 한 기 있습니다.

그래 동도랑이라고 서도랑이 있고 그럴 때거든. 그런께 인자 자기가 기술 배우고 선생을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배웠어요. 그래 천자가 되었습니다. 그 메르치 아들이. 그래 김씨의 외손이지만, 그 수달피의 손지가 중국의 황이 천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이태조가 조선 왕이 된 사연

전조前朝에는 왕건 태조王建太祖가 전조고, 아조我朝⁷⁹⁷에는 태조대왕이거등요. 태조가 우리 조선 왕질로(왕 노릇을) 할라고 하이,

“에이, 그니러 거, 내가 대국 천자질하러 갈란다.”

그래 태조가 천자질하러 갈라고 대국大國을 드갈 참인데, 그 중간에 가다가 하이 할마 이 집이 하나 있는데, 거게 앉았다.

“서방님, 어디 가시는교?”

797. ‘우리 왕조’란 말인데, 흔히 고려조에 대하여 조선조를 이렇게 말한다.

“아, 나는 대국 천자질하러 간다.”

“가지 마소. 버러 다리 이가⁷⁹⁸ 갔니더.” 카거등.

“다리 이가 가다니? 가도 나는 가겠다. 그러면, 드갔으면 어째야 뫼이 되졌노?”

그 노구 할마이가 뭐라꼬 하논고 하이,

“천자질하러 갈라 카며, 가다가 거어 뫼이 하나 있는데, 뫼에 드가가지고 모욕을 하라
꼬. 모욕을 하고 드가야 천자질하지 그래 아이며 몬 한다.” 그래. 그기 사람이 아이라 천
태산 마구선녀麻姑仙女라. 천태산 마구선녀가 그래 말카 말해 주는 기라.

그래 가이까네 뫼이 하나 있어. 덤운데, 옷을 벗어 놓고 모욕을 할라고 물에 들어가 보
이, 마 청룡 황룡이 구부로 치고⁷⁹⁹ 놀거등. 들바다 보고 껍이 나가지고 마 쫓아나와가 산
비얄에 아무도 모르기 은신을 해가 았았다.

주천자⁸⁰⁰가 결빙이때로 당파로 모아가지고 천자질하러 드갔거등.

이태조가 숨어있는데, 주 결빙이 여기와,

“아이구, 장히 덤구나. 뫼에 모욕을 하고 갈 뻘이 없다.”

그래가, 옷을 훌렁훌렁 벗고 청룡 황룡이 구부로 치고 노는데 마 쫓아 드가거등. 드가가
모욕을 하는데, 이 청룡 황룡이 사람 째에서 해작거리하고, 청룡 황룡은 종단 듯이 자꾸
서고 여상如常 스럽거등.

이태조가 탄식하며,

“아이고!” 이래 하거등.

그래 주천자는 그 뫼에 모욕을 하고 대국 드가가지고 천자질로 했는데, 그 노구 할마이
가 태조 있는데,

“아이구 마, 조선 나가가지고 조선 왕질이나 하라고.” 그래 알키 쥐가 조선 나와가 왕질
안 했나.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상갑, 두동면, 1984]

798. 벌써 다른 사람이

799. 말이나 용 따위가 웅숭웅치며 꿈틀거리는 것을 ‘구부 친다’ 혹은 ‘구부 튼다’ 라고 한다.

800. 주천자朱天子, 주결빙이[거지], 주천자朱天子는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을 말하는데, 주원장은 일찍
이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거지와 다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朱거지’란 별명이 붙었다.

조선 궁궐이 오좌^{午坐}로 앉게 된 내력

우리나라 대궐 지을 적에 중 정무학이⁸⁰¹강, 우씨에 선조 종님 정삼봉⁸⁰²이 있었는데, 대궐 지을 적에 좌향을 놓는데, 무학이는 ‘해좌^{亥座}로 놓자’, 정삼봉은 ‘오좌^{午座}로 놓자’겠는데, 정삼봉이인테 무학이가 몬 당했는갑데.

“아이구, 서방님아, 너무 이는 체로 그러지 마라. ‘오좌^{午座}’로 놓으면 인지 난리가 열 두 번 날 챔이다.” 그래 정삼봉이 있다가,

“이 요망한 것아, 나도 그거 안다. 저쪽에 진방^{辰方}이 허^虛해 놔가지고 진방에 3간방^{艮方}을 지킬라며 날 출^出자마 더 붙이며 그거 똑 제좌^座 한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래가 대궐 지어 놓을 적에 무학이가 몬 당하고 정삼봉이가 이기. 그래 우리나라 궁궐이 오좌^{午坐}로 나가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상갑, 두동면, 1984]

801. 정무학이와, 無學大師를 ‘정무학’으로 잘못 구술한 것이다.

802. 정삼봉鄭三峰, 즉, 정도전鄭道傳을 말한다.

성삼문 일화

열 두 신하에 생육신生六臣은 저저 살라고 다 가뿌고, 성삼문成三問이 성공 문 했제?
태조 때, 그 해 북해도 지방에 송년이 저가지고, ‘백성이 사지 문해가지고 죽는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래 성삼문으로 어사로 내가, 승어사⁸⁰³로 북해도 드갔다. 그래 북해
도로 드가가 거어 백성을 구제로 해 주라꼬 곡식 없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다 구해 줌는
갑더구마는. 그래 놓고, 한 군데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 말로 몰고 다짜고짜,

“선생님요, 말로 타소.”

이거 웬 일이고 이기 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성삼문이 올라 타고, 수식편을⁸⁰⁴ 가디, 조
선팡도 아이고 대국땅도 아이고 귀주 쿠는 데가 있는데, 거어 가가 내루거등. 가만히 보
이 그 꼴쪽에 호수가 한 사백 호 사는데, 대청 문 앞에 거어 와가,

“내리소.” 내리가 있으이 주인이 나와서,

“나는 유생원이다.” 칸다.

“선생님, 이 꼴쪽에 한 사백 호 사는데, 없는 사람 농사 지기고,⁸⁰⁵ 장사 시기고, 말카 내
가 사도록 해 주는데,... “

성삼문 있는데,

“선생임, 내 고厓 구경을 하러 갑시더.”

고로 갔다. 한 고에 가이까네 묵을 식량으로 한 곳간 들라 뵈거등, 한 군데 가이까네 포
백으로, 의복해 입는 거 한 곳간 영어 뵈거등. 한 군데는 전장아 쓸 무기로 짝 쳐재 뵈다.
그 유생원이라 카는 이가, 성삼문인데,

“날로 가위 뽕포이라고 한다고.”

유생원이 성삼문인데 그래가 왕질로 한다고 그카거등.

803. 순문사巡問使.

804. 한참 동안을

805.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농사를 짓게 하고

“선생임, 내가 올개(올해) 단명이라, 다시 이거로 갖다 땔길 사람이 없다고. 선생임, 말아가 가소. 다 말아가 가며 썰 테가 있다.”

가마 보이 ‘이거 우리나라가 안주 태평세월인데 전쟁이 뭐고?’ 싶어서,

“나는 그걸 맡을라 캐도 자격이 없고, 아무 것도 아이다고.”

“신하가 열 두 신하나 되이까네 선생이 다 의논을 해가지고 다 말아가 가라고.”

“우리나라가 태평세월인데 전쟁이 뭇이 아무 것도 안 일어나이, 나는 아무 것도 안 말는다고. 몬 한다고.”

“혼차서 감당을 몬 하거등 그 열 두 신하나 되이 모아가 의논을 해가 말아가 가며 썰 테가 있다.”

“우리 나라가 태평세월이요, 아무 뭇이도 없는데, 내가 그 말아가 갈 택이 있나? 나는 못 맡겠다고.”

사정 사정을 해도 안 맡아. 그래 기어이 배척을 하거등.

그거로 안 맡아 가고 기어코 배척을 해 놓이까네, 마부로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라고.”⁸⁰⁶

보내 놓고 유생원이, ‘성삼문이 성공을 몬 해.’⁸⁰⁷라고 했다.

성삼문이 날 적에 건궁(공중)에서 ‘났나?’, ‘났나?’, ‘났나?’ 시 분(세번) 부른 후에 났단 말이다. 그래가 성공을 몬 했대.⁸⁰⁸

성삼문이 유생원 그거마 말아가 왔으며 세조인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 사육신은 죽으려 갔고, 생육신은 저저 살라고 말카 다른 데로 땡겼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상갑, 두동면, 1984]

806. 맨 처음 말에 태워 온 자리로 보내라는 뜻이다.

807. 성삼문이 성공을 못 하리라

808. 공중에서 세 번 부르는 소리가 나기 전에 태어났으면 성공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순임금이 용상을 떠난 사연

옛날에 저 순임금이라 카는 임금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때는 요새때로 차가 있으며 하지마는 차도 없고 육로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땡기고 이래 났는데. 하루 지녁에는 지녁을 묵고 해가 다 지고 어덯은데, ‘온 지녁에 한 천 리 길로 갔다가 와야 될다(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묵고 그 인자 탐지⁸⁰⁹하러 나간 택이지.

그래 인자 천 리 길로 떡 가가 보니 눈이 내리 막 드리 붓는다 말이다. 눈이 드리 부우니 질을 갖다가 주령을 잡을⁸¹⁰ 수 없다 말이다. 그래 가만히 서가 산세를 살펴보니 한 군데 어데 불이 뵈해. 그래가 그 불을 찾아 가이까네 영감 할마이가 앉아가지고 신을 삼고 앉았어요. 그래,

“주인 있는교?”

“아이, 들오시오.”

그래 들오라 카는데 보이, 신을 삼고 방아(방에) 뵈디기가 이래 짝 있는데, 그거로 빗자리가 이리저러 썰어 불이뿌리고 그래 할마이한테다 말로 뭐라 카느냐 하며,

“그거 내 묵던 좁쌀 술 있는강 함 가 봐라.” 이카거등.

“가 보지요.”

할마이가 가 좁쌀 술로 걸러 와가지고 술을 갖다 놓고 부어 묵는데, 순임금이 가마 앉아 생각하이, 자기는 손이고 인자 그 주인인데, 그래 앉아가 이래 보이, 술로 떡 붓디마는 아 주인부터 머이(먼저) 한 잔 떡 묵어. 주인 묵은 뒤에 술을 한 잔 부아가지고 순임금한테 주거등.

그래 그기 주주객반이라 말이다. 그래가 술로 묵으면서도 생각을 해 보이 ‘이 무슨 일이 이런 기 있노?’ 순임금이 인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 술로 다 묵고 난 뒤에 뭐라 커는고

809. 순행巡行. 감독하거나 단속하기 위해 돌아다님.

810. 산능선을 타고 축지법을 써서 간다

하이,

“그, 손님 되고 좀 미안합니다. 술을, 우리집에서 가져온 술을 내가 주인부터 머이 묵고 손님을 대접하는 기 좀 미안하기는 미안하지마는 옛말 속담으로 ‘주주객반’이라이 술에는 별술이 있으니 주인부터 맛을 보고 손을 대접을 해야 된다.” 이카저등.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이 자기는 임금질로⁸¹¹ 해도 그껴지는 몰랐다 말이다. 그래가 이튿날 아침에 자고나니 마 눈이 적설이 되가 있는데, 아침을 가져 왔는데, 아, 인자 밥상이 머이 들오날 밥상으로 손님을 주고 뒤에 들오는 밥상을 주인이 땡기가 묵는다 말이다. 그래 떡 밥을 묵고 난 뒤에 인자 손이 물었다.

“그, 온 아침에는 밥상이 들오는데, 먼저 들오는 밥상을 날로 주고 뒤에 들오는 밥상을 주인이 땡기 가는 이유,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 보이 고약한 생각입니다.” 이래 카이,

“밥으는 손 앞에 이밥이라.” 이카저등.

그래가 가만히 생각하이 ‘그 놈 참 이상하다.’ 그래가 눈이 채이가 있으이까 주렁도 몬 잡고 육로로 걸어오는데, 걸어오다가 하이 배는 고푸제, 한 군데 오이 눈이 녹아가 물이 내리가고 이래 쌓는데 보이 주점酒店이던 모양이라. 그래가 배는 고푸제 그래 거어(거기) 드가가 요기 좀 할라고 떡 들어갔다 말이다. 들어가이 주인이 말로 뭐라 카는고 하이,

“참쌀 합주⁸¹²를 주끼요, 맵 쌀 술을 주끼요?” 이카저등.

“그 뭐든지 묵을 만한 거 달라.”고 이켰다 말이다. 하니, 주부인이⁸¹² 참쌀 합주로 떡 걸러 와가지고 주저등. 주는데,

“그래 방아 좀 들오시오.”

그래 안주인이 방아 드가가지고 안주인을 암만 술로 권해도 안주인이 술로 안 받는 다 말이다.

“나는 술로 집배⁸¹²도 몬 하이까네 손님부터 잡수시오.” 그 요전에 비안(배운) 기 있거등, 주주객반이라 카는 거.

811. 임금 노릇을

812. 주모酒母가

그래가 기어이 주이까네 기어이 안 받거등. 그래 문을 탁 열고 서러 술 그릇을 문 앞에다가 부아뵈다 말이다. 부우이까네 저 념 개가 눈이 있으이까네 못 나오고 축담 끝에 있다가 마 훑아 묵디만는, 개가 마 마당아 가가 그냥 마 직살로 하거등.

‘야, 이거 무슨 일고?’

그래 마 거어서 술도 묵도 안 하고, 배는 고파 집으로 오지. 집에 턱 와가지고 자기 안양 반한테다가 말로 뭐라 켜는고 하며,

“내가 엇지너어 몬 오고 온밤(오늘밤)에 자고 왔는데, 그 내 묵던 술이 있으이 그 술로 한 잔 가져 오너라.”

그래 그 술로 떡 가져 왔다 말이다. 술로 떡 잘에 갖다 놓고 부인을 불러 니랴다. 불러 니라가 그래,

“나는 하룻밤을 나가가 자고, 당신은 여케 집에 있으이까네 주인 한가지고, 나는 손 한 가지인까네, 주주객반인까네 술 한 잔 머이 맛을 보고 날로 두가.”

자기가 거어서 함(한번) 본 일이 있거등. 여자가 술로 한 잔 씹 하는데, 기어이 안 묵는다 말이다. 그래가 ‘안 묵으며 뭐 부아 뿌지.’ 카민서 마당아다 부아뿌이까네(부어 버리니까), 저 념 닭이 마당아 있다가 쫓아 와가지고 그거 찍어 묵디만는 마 고냥 톱 자빠지거등.

그래가 가만히 생각을 하이…. 저 여자가, 어더로 출타로 했으이, 온밤에는 눈이 오이까네, 어는 주점에다가 연락을 통해가지고 전부 그거로 하라 켜고, 자기 집에 행여 오면 또 우째 된다 이거꺼정 추측했던 모양이라. 그래,

“아, 니는 니대로 가 살고, 나는 내대로 가 사자.”

그래가 각립各立이 뵈거등, 각립이 되가 순임금이 보따리로 싸가 짊어지고 팔방 천지로 돌아댁기미 한 군데 가이 큰 와가瓦家로 짓는데, 보니 그 대들보에 혼주가 맞아죽을 터라, 저녁답 꺼정⁸¹³ 거어 앞아가 보이까 저 념 대들보가 올라가는데 보이까 꿈쩍 없이 그

813. 저녁 무렵까지

냥 올라가거등.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이래 보고 뭐 전부 끼 맞차 났는데.

그래가 그 집을 찾아가니 주인이 있어. 방에 들어가서 앉아가, 저녁을 묵고서 이약을 한다 말이다.

“이 터를 누가 봤느냐?”

“내가 오늘 오다가 저 건네 와가사⁸¹⁴를 하나 짓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터가 어북(제법) 안 좋고, 그 터에 대들보가 올라 가며 혼주가 맞아죽을 터라고 이래 봤는데, 그래 대들보가 꿈쩍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보이 그 내 이상하다고 봤다.”꼬 이런 말로 턱 하이까내, 그래 인자 그 주인이 말로 뭐라 카는고 하이,

“그 대들보 올라갈 때에 우리나라 임금이 와가지고 입회로 해야 대들보에 혼주가 안 맞아 죽지, 입회 안하며 혼주가 맞아죽는다.” 카거등. 그래서,

“그러면은 어른신이 그만땅 알면서 어째 이 걸 복판에 이래 살고 있는교?” 이카이까네,

“아이고, 그런 기 아이라, 이 터가 삼정승 육판서 날 턴데, 내가 이 터를 갖다가 버릴 수가 있느냐?”

‘이기 참 어애 되는고?’ 싶어가 이튿날 아침에 아첩을 묵고서 뒷동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 중판에 떡 올라가 광명천지를 살펴보니 그 터가 삼정승 육판서 날 터라요.

삼정승 육판서 날 턴데, 그래가 전부 허둘러가⁸¹⁵ 궁궐에 갔다 말이다.

가가, 보니 ‘이 세상에 내카마(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꼭 찼는데, 내 겉은 축기⁸¹⁶가 임금질한다고 이래 나부대 쌓이 이거 뭐 하노?’꼬 이래 카믄서 사표를 놓고서 그양 나 앓 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달선, 언양면, 1984]

814. 와가사瓦家舍, 기와집

815. 쪽 둘러 보고

816. 바보

진시황과 만리장성

진시황이 득세에 육국六國 통합을 했는데, 동요에,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 이런 말이 있거든.

진나라 망할 사람은 호라, 이러거든. 호가 뗏놈이거든. 뗏놈이 진나라를 망한다 이래가 성을 쌓아 뗏놈을 못 넘어오구로 한다고 그레가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했는데. 진시황 아들이 이름이 호인데, 결국은 진시황 아들에 내려 와가지고 진나라가 망했다 말이지.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백성을 전부 증용徵用했다. 예전에는 수자리꾼이지.

어느 양반이 징병 통보장이 왔는데, 부부간에 살림을 사다가 내일이면 가는데, 밥을 하나 다 매어 놓고 가야 될 그런 처지라. 그레 내외간에 밥을 싸다 놓고 밥을 매이까네, 낮이나 이리 되어 쪼맨한 노란 그런 사람이,

“배가 고프다.” 이래갖고 그레,

“요기로 좀 시키 줄라.”고 이러 카거든.

그레 요기시켜 줄 수도 없고, 둘이 밥을 싸다 놓았는데 점심밥 싸다 놓은 그거로 갖다가 무우라 쿠이 조맨한 사람이 둘이 밥을 말캉 다 무우빼고 가면서는,

“아이구, 고맙다.”쿠고,

“은혜를 우에 해야 되겠노?” 이러 쿠면서로 하는 말이 죄맨한⁸¹⁷ 말채를 하나 주면서,

“그 보이까네, 여어 주인이 내일이면 수자리를 갈 모양 같은데, 가가지고 돼기⁸¹⁸ 급한 일이 있거던 이 채를 한 번 사용하라.”이기라.

이상시럽다 싶어가지고 그 채를 받고 돌아보이까네 사람은 뭐 인물불견人沒不見이라. 간 데 온 데 없고 이상시럽다고 싶은데, 내외간에 그 밥을 다 매 놓고 집에 가 그 그날 저녁을 자고 그 이튿날 갔는데.

817. 작은

818. 아주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산당이 곁은 돌도 구부르다가 전부 쌓아 났다 카더라는. 사람이 인조⁸¹⁹로 돌로 편마⁸¹⁹라 쿠는 말로 맨들어 가지고, 두 마리 자오⁸¹⁹로 맨들어 놓고, 여러 수천 군사를 열로 세아 놓고 드가 가지고 그 편마를 몰리라 이기라. 못 몰리몬 전부 그냥 목을 찢라 죽이는 기라.

이 사람도 어느 열에 서가 있으이까네 차례가 딱 되었다. 말로 못 몰리몬 죽는다 생각키는데, 그 말채를 어데 뭐 간직해가 있었던 모양이지, 이거 돼기 급하거던 씨 무라 켜으이, 고래 그 말채를 내어가지고 그 편마 궁덩이를 때리치이 말이 마 가거든.

그래 가지고 그 말채를 가지고 아무리 굶은 돌이고, 어떤 돌이고, 밑에 있거나 우에 있거나, 편마를 쳐가지고 굴리는 대로 가서 만리장성이 쌓아졌다.

그 돌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운반 안 될 그런 돌인데 그런 영웅도 있을 끼라고 짐작을 해가 진시황이 편마를 맨들고 만리장성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거던요. 편마를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쿠거든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벼슬할 때를 예언한 점장이

옛날에 살림은 없고, 글을 배와 가지고, 무슨 벼슬 할라고 이리 마음을 묵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결혼을 해서 부부간 신흠 부부간에 사는데, 공부를 해가 벼슬을 할라고 과거를 보니 시험에 안 걸리고 떨어지고, 몇 번 해도 떨어졌어요.

819. 자웅⁸¹⁹雌雄, 암컷과 수컷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선 묵고 사는 거도 곤란하고, 벼실은 안 걸리제, 그러이 형편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 점치는 사람이 이래 왔는데, 점을 했어요.

“내가 언제 과거에 하면 걸리겠느냐?”

그래, 점을 이래 빼 보디,

“요 집 앞 산밭山田에 감나무가 하나 이래 있는데, 저 감나무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지으면 과거 보면 걸릴 끼라고.”

그래가지고 점한 뒤로 공부는 매일 장 이래 하는데, 묵고 사는 것도 곤란하고, 하루 바빠 과거를 해야 되겠는데, 까치 집 짓기를 장 고대하고 있지.

‘금년에는 까치가 저 감에 집을 지을랑가?’ 보이 또 집을 안 짓고, 그 내년에 보이 또 안 짓고, 몇 해가 되도 감에 까치가 집을 안 짓거든요.

형편을 봐서 시급한데, 이래가 부부간에 의논을 했어.

“이래 말고, 우리가 저 나무에 까치 집을 짓자.”

그래 하루는 낮에 보면 녀이 옷을 끼고, 밤에,

“짓자.” 부부간에 그 둘이 의논이 되가지고, 남편은 감나무에 올라가고, 아내는 꼬쟁이로 까치매로⁸²⁰ 한쪽에 물고 각각각 쿠며 오거등. 남편은 각각각 쿠며 받아 입에 물고 올라가서 감에 집을 짓지. 자꾸 한 개 또 물고 와가지고 각각각 쿠며 주이, 또 각각각 쿠며 받아가 감에 집을 까치집을 짓는데 밤이라 아무도 안 보지.

숙종대왕이 지방 지방에 돌아다니며 민심도 수집하고, 밤에 야경을 잘 돌았다대요.

마침 그리 지내치다가 보니 참 이상하다 말이야. 사람이 까치집을 짓는데 밑에서러 물고 각각각 쿠며 주이 우에서는 각각각 쿠며 가아 가 짓는다 말이지. 그래서 거어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그 왜 그랍니까?” 그래 물으니,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공부를 해가지고 수차 과거 보러 갔는데, 가야 마 떨어지고 이래서 점치는 사람이 왔는데 점치는 사람이 점괘에 ‘저 집 앞에 감나무에 까치 집을 지으면,

820. 까치처럼

그 때 과거를 보러 가며 니 된다. 까치집을 짓거등 과거 보러 가라.’꼬 그래서 암만 까치가 집 짓기를 고대하고 있어도, 한 해 가도 안 짓고, 두 해 가도 안 짓고, 까치집을 안 지어요. 그래 우리 부부간에 의논을 해서 ‘우리가 이 까치집을 짓자.’꼬 그래서 이래 하는 짓이라.”꼬 이라거등.

“하, 그렇냐꼬.”

숙종대왕이 들어 보이까네 성심이 놀랍은데, 과거는 해야 될 사람인데 여겨서,

“아, 그러면 아무 때 연분^{年分}에 과거가 있을 모양이니까네 그 때 하문 오라.”꼬 이라거등.

“그라고, 당시 성명이 누구냐?” 그래,

“내 성명은 누구라.”꼬 가르쳐 줬는데.

그라고 그 아무 때 과거 비인다고 할 때, 과거 보러 가서 글을 지어 올렸다 말이지.

숙종대왕이 버리⁸²¹ 명령을 내라 놔 놓이, 과거 시험 봐가 딱 걸렸다 말이지. 그래서 벼슬을 하고, 녹을 타 묵고, 살기가 참 유족하이 잘 살았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뒤바뀐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아들이 자라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장가를 보낼 수 없었다. 부부는

821. 벌써

어떻게든 돈을 모아 아들을 장가보낼 작정을 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간의 돈을 모았다.

어느 날 마을에 매우 용한 점쟁이가 왔다. 부부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장가를 보낼 수 있겠는지 점을 쳐보기로 했다. 그러나 모아놓은 돈은 점쟁이가 요구하는 복채卜價에 턱 없이 모자랐다. 부부는 모아놓은 돈을 모두 내놓고 점을 한 번 쳐달라고 애원했다.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점쟁이가 점괘를 뽑아보더니, 내일 아들을 장가보내지 못하면 평생 장가갈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해놓은 혼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일 장가를 보내야 한다니 너무도 황당했다. 부부는 일단 점괘를 믿어보기로 하고 급히 이웃에서 말 한 마리와 마부 한 사람을 주선하고 혼례복을 빌려 아들을 장가보낼 준비를 했다.

다음날 아침 신랑을 말에 태우고 아버지는 상객上客으로 꾸며 무작정 길을 떠났다.

하루를 걸어 날이 어두워진 후에 어느 마을의 큰 기와집 근처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오더니, 이제야 신랑이 온다고 외치면서 일행을 집안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신랑이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던 그 집 사람들은 서둘러 혼례를 치르고는 신부와 신랑을 신방新房으로 들게 했다.

한밤중이 되자 대문 밖에서 급히 주인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주인이 종을 시켜 나가보게 했더니, 오늘 장가들러 오던 진짜 신랑이 길에서 죽고 말았다는 전갈이었다.

주인은 깜짝 놀랐고, 비로소 신랑이 뒤바뀌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어쨌든 딸의 혼례는 무사히 치렀고, 죽은 사위보다야 산 사위가 나을 테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

그 후 노인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잘 살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박문진, 언양면, 1987]

신통한 점쟁이 최명가

여기서 한 이십 리 밖에 가며는 한 육칠십 년 전 복술자 소위 주역 역학을 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성이 최씨데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공불 해가지고 아주 이름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인물이요 아주 용한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명가’라고 하는데 ‘최명가’, 최명가 하며는 그 당시엔 아주 모르는 분이 없었습니다.

한 면내(面內)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밤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최명가씨를 찾아가니까, 어데 나가고 없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왔는데, 그 소 잃어버린 사람이 답답해서,

“어쨌든지 한번 알아 봐 달라. 어떻게 하면 소를 찾겠는가? 소 행방이 어떤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명가씨 하는 말이,

“그 우쨌 찾겠느냐? 몰고 간 놈 소를 찾으면, 자네는 좋지마는 몰고 간 놈 섭섭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라고 거절로 해요.

구구이 사정을 해도 끝내 거절로 하기 때문에 모리는 처지도 아이고 아는 처진데 하도 껄뽀해서, ‘내가 소 한 마리 잃어버리몬 그만이었지마는 이 노무 영감, 언젠가 한 번보자’ 이런 앙심을 품고 그 집 문전을 나올 때 그 명가씨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잔소리 말고 바쁘거든 가서 똥이나 누라.” 이러쿠 해.

껄뽀한 생각에 그기 무슨 말인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와 가지고는 하루 점도록 소 찾으러 다녔다 말이죠. 종일 소를 찾아 다니다가 허행(虛行)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미 밤이 됐어. 오다가 하िका 참 뒤가 매렵어. 그래서 어느 풀 속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밑에 어느 길거리에 두 사람이 지내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참 우스운 꼴 두 가지 봤다.”

이런 이애길 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볼 일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붙잡고서,

“그 무슨 우서운 꼴 두 분 봤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거 우리가 한 애긴데, 당신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 이 사람이 아주 다

그쳐서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저 어느 산골에 오니 어떤 놈이 소를 그 방에 몰아영는 첫 번째 우서운 꼴로 봤고, 또 여게 오다가 당신이 뒤를 보고 있는데, 급한 것 같아서 보니까, 그게 두 번째 우서운 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사람이 소 방에 몰아영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다맡아 자기 동네 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서 그 이악하는 지점을 가이까, 아주 그 산골인데, 옛날 투전꾼들이 모여서 아랫방에서는 노름을 하고 있는데, 주인놈은 그 투전바라지 한다고 있어.

그래서 그 집을 뚫쳐가지고 찾으니까, 과연 자기 소를 방안에 끄집어 넣어 놓고, 이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돈을 잃어버리고, 노름은 하고 싶어서 녀우 소를 훔쳐 간기라.

최명가씨가 바쁘거든 볼 일 보라고 한 것이⁸²² 그 시가 되면 자연이 찾아질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누가 소를 잃었다든지 하며는 우스개 말로, 아이고, 최명가씨나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822. 소를 빨리 찾으려고 하거든 길 가에서 똥을 누라고 한 것

5대손의 생명을 구한 소강절⁸²³

옛날에 소강절이라는 점쟁이가 살았다. 단수 육효六爻 치는 것이 전문인데, 참 아는 것이 많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목이 컸던 모양이다.

소강절이 하루는 저 산으로 등산을 하며 산길을 걷는데 손가락만한 솔뿌디기⁸²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겠다. 넘어지면서 ‘이런 기 날로 구불차?’⁸²⁵하고는 일어나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보니 이상하거든.

그래서 산가지를 내어 딸랑딸랑 흔들어 육효를 빼보니 이게 커가지고 장차 궁실 대들보가 될 나무야. 이것 참 이상하다 싶어 또 한번 살랑살랑 더 빼 보니까네 궁실 대들보가 되기는 되는데 자신의 오대손五代孫에 가면 뿌어질 나무라는 괘가 나왔다 말이지.

나무가 잘 자라 훌륭한 재목감이 되지만 자기의 오대손 대에 부러질 것을 예견했으니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아하 이래 놓으니 날로 구불찮구나.’ 하면서 괘 요놈을 책에 적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겠다.

집에 돌아온 소강절은 합지合紙에 글을 쓰고 들기름을 먹인 다음 피봉에 넣고 또 기름을 먹여서 맘머느리에게 전하는 거야.

“니가 이거로 내 오대손까지 전달을 해라. 그라고 목숨이 우중하면⁸²⁶ 열어봐라” 이카 거등(이러하거든)

이 봉투는 종부宗婦에서 종부로 전달되면서 딱 오대손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날 독자인 오대손이 모함에 걸려 요지부동 죽게 되었다 이거야.

하여튼 내일이면 신깃대⁸²⁷에 목이 걸릴 판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두 정신을

823. 소강절邵康節(1011~1077)은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이자 시인

824. 어린소나무

825. 이런 것이 나를 넘어뜨려

826. 위태로우면

827. 중죄인을 효수하여 목을 걸어두는 기둥

놓고 있는데 중부가 가만히 생각하니 오대 할배가 적어서 내려오는 봉투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 날이 밝자마자 이 봉투를 가지고 관가에 급히 달려갔어.

가서 올렸는데, 소강절 선생이라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지. 글씨를 보니 소강절 글씨야.

그래 이것을 임금님에게 올렸지. 임금이 받아 열어보니 마지막 글귀에 ‘마당에 내려가서 봐라’하는 글밖에 없어.

임금도 명색이 소강절 선생인데 하며 궁궐 마당에 나서 서는데 궁궐 대들보가 착 내려앉더라.

그래 임금도 무슨 연고가 있지 하며 신깃대에 목을 매달려는 사람을 조사해보니 무죄더라.

오대손은 무죄로 석방되어 나왔고, 임금도 죽음을 면했으니 참 대단한 선생이지. 소강절이.

[『한국구비문학대계』, 박만석, 두동면, 1984]

앞일을 잘 맞히는 점장이

옛날에 며늘을 하나 봤거든요. 며늘을 하나 봤는데,

옛날에 베를 많이 짠다 아인교? 베로 짜라 카이 이거 뭐 어찌 어찌 지엌은지,⁸²⁸ 마 요
니러⁸²⁹ 이 베로 짜다가, 도투마리⁸³⁰ 마자 뒤뷔(뒤집어) 놓고, 마자 짜는데도 어찌 지엌
은지, 다 짜 가다가 ‘이 마자 뒤뷔 놓고 내가 점을 하러 가야 될다’ 싶어서 마자 뒤뷔 놓고,
언제나 요거(베짜기) 마 다 마칠란가 싶어가 요니러⁸³¹ 며느리가 어디 마 시어마씨 몰래
어른들 몰래 점을 하러 갔거든요. 점하러 가가지고 점을 하니까 그 점바치가 하는 말이,
“당신 암만 그래 썰아도 선달 열흘이 넘어야 마친다.” 이카거등.

‘이상하다. 뭐 점바치 니 아무 것도 모른다. 내가 마자 뒤뷔 놓고 왔는데 니가 뭐 그치나
(그렇게나) 아노?’ 싶어. 지 속으로 그래가 마 와뻘다(와버렸다). 오다가 중간에 오줌이
매렵거등. 가마 생각하이 오줌을 마 엉뚱(언덕) 밑에 딱 앉아 누이까네, 다 누고 인자 일
날라 카는데 마 독새(독사)가 마 보지를 탁 물어뜯는 기라예. 아이고, 마 마 죽겠거등. 살
살살 긴다. 마 집에 와가

“니 어디 갔다 왔노?” 캐도 어른들잘에 말 할 수가 있나? 안동잔동(알처럼) 부아가 가마
보이 그 모양이거등. 아이고 그래가 선달 열흘이 되가 그래 참 맞더란다. 그래 지 속으로
‘아이고, 고 참 용하다. 점바치가 참 그 용하다.’ 싶으다고 그래 생각하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금미, 언양면, 1984]

828. 지루한지

829. ‘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인데 약간 비하卑下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830. 베매기에 의해 날실을 감는 H자형의 널빤지로, 베를 앞다리 앞쪽의 누운다리 위에 얹어둔다.

831. 이년의

여자 오줌을 맞고 득천을 못한 구렁이

옛날에 참 옛날 옛적에 그 인자 참 젊은 새댁이가 나물캐러 갔거든.

나물캐러 떠억 가가 천질바우⁸³² 곁은 바우 우에서 나물을 태다가 오줌이 누렵아가(마
렵어) 방구(바위) 우에서 마 오줌을 놓오 뵈는 거라.⁸³³

그래 그 밑에 구리가 있었는 기라. 구리가, 큰 구리가 지는(제는) 하늘에 득천할라고 하
늘만 쳐다보고 바람에 여자 오줌이 쪼올 내려오니 마 받아 묵어 뵈다. 받아 묵고 마 하늘
에 득천을 못 했는 기라.

못하고 그래 지도(제도) 오줌을 받아 묵다가 보이 미쳐 못 뵈지. 못 뵈는데, 그래 마 쪼
올 내려오니까네 받아 묵고 마 득천도 못하고 그래 있는데.

그런데, 이념우 해필 칼로 거어 마 잊어뿌고 왔는 기라, 칼로 잊어뿌고 와가 칼 찾으러
갔다, 여자가. 칼 찾으러 가 놓이 구리가 빠이 쳐다뵈는 기라. 보이 여자거든.

마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즈그 신랑 각시 그래 마 저지를 했던갑더라.⁸³⁴ 저지러가 딱
태있다, 고개 딱 태이가 원수 갚는다고 딱 태이가 있다.

고래 놓이 마 아들이라. 남자라. 아들을 낳았는데, 6, 7 살까지 그래 착하더란다.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 하고 착한데, 그러구로 남자는 죽어 뿌리고 여자 혼자 그래 있는데, 그래
인자 아주 살림은 부자 좀 꽤았던갑더라(꽤았던가봐). 꽤았는데 과객이 하나 오거든, 과
객이. 옛날에 과객이 안 땡겼나? 과객이 와 가지고서러 자자 켜는 기라.

“하리 저녁 유하고 가자.” 카이 그래 총각이 나오더마는 고개를 지불땅 지불땅 하디이,

“그래 마 주무시라.”카더란다, 사랑에.

“주무시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소리가 나도 내다는 보지 마라.” 이거라.

832. 천 길이나 되는 낭떨어지.

833. 누어 버렸는 거야.

834.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말을 이렇게 적당히 표현한다.

어떤 소리가 나도 내다는 보지 마라 이거라. 총각이 내다는 보지 마라.

과객이 옛날에 과객이 다녔거든. 저녁을 잘 해가 주더란다. 그래 저녁을 잘 묵고 오늘 저녁 무슨 소리가 나도 내다 보지 마라 이거라.

그래 가 밤중 되이까네 여자가 방에 서러,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놈이 와 이라노? 와 이라노?”카거든.

“놔라, 놔라.” 카거든. 하도 수다하게….

무슨 소리가 나도 내다보지 마라 켜는데, 하도 수다하게 소리가 나이 문틈으로 쌀 내다 봤는 기라. 문틈으로 사알 보이 이것만한 구리가 인자 밑에 발에서 시작아 녹하 묵어 드 가는 기라, 그 여자로. 아이구 그래 인자,

“내일 아적에 날만 새거들랑 말로(말뚝을) 갖다가 우야든지 당신 마음대로 쳐라. 이 골에 여게 마음대로 여게 내 땅이라고 말만 치몬 된다. 무신 소리가 나도 방에는 내다보지 마래이.”

그래 가 보이 이놈우 구리가 번쩍번쩍한 기 마 여자 발에 시작아 녹아 올라가거든. 첨먼 제(처음) 발에 그라이까네 지 눈에 사람 곁이 보있다….

“아이구야, 이놈이 와 이라노? 와이라노? 이놈아 놔라. 놔라.”

캐 쌓다가 뉘중에 허리까지 올라오이까네 여자는 죽어 뿌고…. 그러차 밤에 소나구가(소나기가) 내려오는데, 그 구리는 사람 하나 잡아 묵고 천상을 해 뵈는가, 우옛는가(어쨌는가) 마 그래….

물이 덮히가 동네로 싹 썰어 뵈는 기라. 썰어 뿌도 그 사람 하나는 살아. 고개는(거기는) 꽤얹애. 고 사랑에는 꽤얹애. 그래 가 ‘아이구, 그라라 카던데, 싹어가 아적에 뺨 둘러 말로 쳤는 거라. 이건 내 땅이라고 그래 그 사람 그래 가 부자가 뵈더란다.

여자들이 아무데나 가가 소변을 볼 기 아니라.

큰 뱀은 사람 말을 알아 듣는다 (1)

지붕을 이르러 돌이 새 비러⁸³⁵ 갔는데, 하나는 우에서 비고, 한 사람은 밑에서 비고,
점심때가 됐는데 우에 있는 사람이 부르이 대답을 안해. 상거相距가 그렇기 머지 안했
는데, 그래가 올라가가 보이까네, 사람이 폭 씨러져가 있는데 통통 부어가 있어. 옛날에
는 미신⁸³⁶을 신었는데, 엄지 발가락을 보이까네 뱀이가 문 이터(이빨자국)가 있어.
그래가 그 짚에 살펴보니 땃방식이매로 이래 커다란 색구리⁸³⁷가 뚫뚫 감아있는데, ‘정
녕 이넘이 물었구나.’ 그래,
“이 짐승아, 우리가 니 해꾸지할라 칸 기 아이라 새 비러 왔는데, 여게 있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사람을 이래가 되나? 이거로 곤쳐 내라.”
곤쳐 달라꼬 카이 가마이 있어. 그래 자꾸 그칸다.
“사람이 이래가 안 되이 어떡 살리 조야 된다.” 자꾸 이라이 저 넘이 머리로 실실실실 들
고 실실 풀거등요. 일어서이까네 겁이 나가 뒤로 실실 물러서면서,
“우야든지 이 사람을 살리야 되지 죽어가 안 된다.”
그러이 끄떡 서디 췌엑 카민서 산을 우로 보고 가더랴요. 올라 가디 뉘중에도 췌엑 카미
오거등. 오는데 보이 무신 풀잎을 하나 입에 물었는데, 저 방구 우에 가서 딱 놔 두고 가.
‘옳지, 이기 약이구나.’ 그래 그 사람이 그걸 조아가지고, 손에 삭삭 비벼가지고, 쑥을 비
벼가 문 자리에 갖다 딱 쳐맏어. 쳐매 주고 있으이까네 부기가 쓱쓱 자꾸 빠져 내려가고
뉘중에 사람이 말로 하고 이래가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내려왔더랍니다. 그래 뱀이도
큰 넘은 사람 말로 알아 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835. 억새 베러

836. 짐신

837. 능구렁이

큰 뱀은 사람 말을 알아 듣는다 (2)

무관武官이 활 쏘는 공부를 하고 무관 시험 과거를 볼라고 활로 미고(메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거렁에 보이까네 큰 구리(구렁이)가 쪼매는(조그만) 독사하고 교배를 해요. 그 래 가만 보니 ‘야, 그 녀م 아주 추접다. 점잖지 몬하다. 에레이, 이념’ 하고 활로가 쏘이까네 큰 놈 한쪽 눈에 화살이 꼽혔어.

그래가 몇 발 가다가 ‘내가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이 좋지 몬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야 재미 없다. 집으로 도로 갈 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며칠을 지내고 하루는 달이 환한 데, 내외간에 자다가 보이까네, 달밤에 문에 뭐가 넙떡한 기 일렁일렁하미 들었거등요. 소리가 나건데 보이, 구리 머리라. ‘아차, 이거 큰일났구나. 내가 활로 가지고 구리로 쫓디마는 분명히 이념이 복수하러 온 모양이다.’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자는데.

“일나거라, 일나거라. 내 이약하께 들어 봐라.” 이라이 부인이 일어났어요.

“와 잠 안 자고 자다가 무슨 얘기가 있나꼬? 이약은 무슨 이야기?”

“그래 다름이 아이고, 내가 먼저 과거 보러 간다꼬가다가 하이까네, 큰 구리가 쪼매는 독새하고 교배를 하는데, 아무리 짐승이지마는 그래가지고 점잖지 몬하고 추접더라. 그 래 활로 가지고 활로 쏘니 화살이 눈에 가 박혔다.”

그카이 이약하는 도중에 구리가 가마이 듣디마는 스프르 내려가거등. 그래 겁이 나서 문도 몬 여는데 마당아서 투닥닥 투닥닥 카미 소리가 나는데, 이튿날 아침에 떡 나가 보 이까네 화살 꼽힌 구리가 죽어가 있어요.

구리 그 녀이 안념인데, 그기 자기 숫놈인데 가서 그런 이약을 했어.

“이념이 활로 쏘가지고 내 눈을 베렸으니 복수하러 가자.”꼬

그래 둘이 어불러 복수할라꼬 왔는데, 수놈이 문에 와가 들으니 그기 행실이 나뻐다 이

기라. 그래서 가서 그 암념을 죽었다고. 독새강⁸³⁸ 바람을 피았으니까네, 행실이 나쁘니
그 큰 구리 솥념이 화살 쏜 암념을 죽여 놓고 갔답니더.

구리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들어 보니 그 암념이 바람을 피우고 나쁜짓을 했으니까네
싸와가 죽었다 카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뱀신랑

옛날 어느 부부가 늦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성씨가 정씨였다.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시주를 청하길래 시주를 주고 자식을 얻게 빌어달라고 했다. 스님
은 담 뒤에 구렁이의 뼈가 있는데, 그것을 삶아 먹으면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는 사
라졌다.

할머니가 스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었는데, 달이차서 낳
고 보니 커다란 구렁이였다.

앞집에 어느 정승이 세 딸을 두고 살고 있었다. 뒷집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
고는 큰딸이 문안을 왔다.

방문을 열고 보니 큰 구렁이가 있었으므로 큰딸은 ‘구렁이네’하고 소리치고는 놀라 도
망쳤다.

838. 독사와

둘째 딸이 와보고 똑같이 도망쳤다.

셋째 딸이 와서 보고는 ‘터덕터덕 신선비를 낳았네요’하고 말하자, 구렁이는 기뻐하며 꿈무늬를 흔드는 것이었다.

구렁이 아들은 정승집 셋째 딸에게 장가가고 싶다고 어머니를 졸랐다. 어머니는 어렵 없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지만, 아들이 자꾸만 졸라대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정승집의 셋째 딸을 불러 아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시집오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이 그러겠다고 했다.

첫날밤에 구렁이 신랑은 신부에게 친정에 가서 삼 년三年 묵은 간장 한 사발과 밀가루 한 술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신부가 시키는 대로 가져다주었더니 신랑은 그것을 먹고는 허물을 벗고 잘생긴 장부로 변했다.

얼마 후에 남편은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남편은 자신이 벗은 뱀허물을 아내에게 주면서, 저고리 속에 감추어 두고 절대로 그 옷을 벗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만약 친정집의 배나무가 쓰러지면 자신이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배나무가 그냥 있으면 자신이 잘 있는 줄 알라고 했다. 아내는 남편이 당부 한대로 언제나 저고리를 입고 지냈다.

동생이 잘생긴 남편을 얻은 것에 샘이 난 두 언니는 동생을 채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머리 감을 때에는 저고리를 벗으라고 동생을 꼬인 두 언니는 동생이 마지못해 저고리를 벗자 그것을 얼른 불붙는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다. 그러자 친정집에 있는 배나무가 갑자기 쓰러졌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는 머리를 깎고 중의 차림을 하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

고생고생하면서 남편을 찾아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아내는 어느 날 논에서 새를 쫓는 할아버지가 새들을 향해, ‘오늘은 까먹고 내일은 휘영휘청 정도령 장가가는 데에 술이나 얻어먹으러 가자’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할아버지에게 그 정도령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방망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 방망이를 냇물에 던져 방망이가 걸리는 집으로 가보라고

했다.

아내는 할아버지가 주는 방망이를 냇물에 던지고는 그것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뒤쫓았다. 그랬더니 방망이는 어느 큰 기와집 앞에 가서 멈추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시주를 청했다. 주인이 나오자 아내는 우리 절의 부처님은 좁쌀 밥만 잡수니 좁쌀을 시주로 달라고 했다. 주인이 좁쌀을 퍼다 주자 아내는 일부러 바랑 밑을 타서 그 좁쌀을 모두 대문간에 흘려버렸다.

주인이 빗자루와 키를 가져다주자, 아내는 우리 절에 부처님은 키질을 하면 냄새가 나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 한 그릇과 젓가락을 달라고 했다. 주인이 가져다주자 아내는 그 좁쌀들을 일일이 젓가락으로 주워 물그릇에 담았다.

그러자 날이 어두워졌다. 아내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방이 없다고 하자 마구간이라도 괜찮다고 했다. 주인은 정 그러면 마구간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밤중이 되자 아랫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한참 나더니, ‘달도 달도 좋다 저 달 밑에 따라가면 우리 아내 보련마는’하는 남자의 한숨 섞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달도 달도 좋다 저 달 밑에 따라가면 휘영휘청 정도령 만나 보련마는’하고 노래를 불렀다.

난데없는 여인의 노랫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소리 나던 곳을 찾아 마구간으로 나왔다. 웬 여승女僧이 마구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 남자는 여승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여승은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 그래서 부부는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살았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김숙이, 언양면, 1987]

구렁 선비

옛날에 부자 딸인데, 떡 치아가 시집을 가가 사는데. 친정에 떡 와가 알라 임신이 되가,
아홉 달 반이나 되가 하도 대에 비이가⁸³⁹ 어마씨가 그래,

“미리 미리 와서 낳지.” 인자 이 호강시리 되이까네 떡 마당아 깔고 있으이,

어디에서 큰 구리가⁸⁴⁰ 한 마리 턱 나오더란다. 떡살로가 탁 치이까네 마 마당아 히떡
자빠지거등. 죽어뿌 나이까네, 친정에서 히얀한기라. 구리로 땅에 묻어 준 기라. 안심하
라고 그랬겠지.

그 딸이 아아로 낳았는데 순 구리로 낳았는데 기라. 구리가 마 번들번들번들번들하이(번
쩍번쩍하게) 그래 좋은 거로 낳았는데 기라.

그래 돼서 인자 그 구리가 참 ‘있는 집에(부잣집에) 날 장개 보내 두가.’이래 됐는 기라.

“나는 인자 돈이 소원이다.”

그래가 정승의 딸 집에 장개로 갈라 하이, 그 정승이 딸을 치알라고⁸⁴¹ 시째 딸을 불러
가 문답을 하는 기라. 그 시째 딸이 갈라 켜거등. 갈라 캐 놔 놓으이까네, 떡 가가 그거 동
정을 따서 허물을 벗어나서 절대로 넘을 비 주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그 저 옷을 간수로 잘 몬 해 그런 기라. 간수만 잘했으면 과거로 봐서 자기가
정승이 되가 아주 멋진 사람이 됐을 낀데, 그 과거 가뿌고 없으이 또 언니 둘이가 세로(질
투) 봐서 티아뿌는 기라.⁸⁴²

그 정승이 과거를 다 몬 보고 왔잖아요? 다 몬 보고 노랑 내가 풍기 쌓아서 말을 타고 다
부 돌이켰거등. 돌이키가 이 동네 들어서이 이 말이 그 노랑 내를 맡고 마 구부로(구비를)
치는 기라.

839. 힘들어 보여서

840. 어디서 큰 구렁이(뱀)가

841. 시집보내려고

842. 태워 버리는 거라

그래 그 이 와람이 가만히 말을 고삐를 잡고 가만히 생각하이 ‘옳다, 이기 무슨 탈이구나.’ 싶어가, 자기는 허물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잠깐 나오면서 시간을 몬 맞추지.

그래 그 인자 말이 꼬리를 치이까네, 그 자기가 말을 탁 치면서 이거 와 이라는고 싶어가 가만히 생각하이 마 노랑내가 품어서, 도저히 그러며 그 곳에 드가며 지가 죽거등.

그래 그 안 죽기 위해서 어떤 세 채 마을⁸⁴³에 드가 가지고 자기가 피란을 하고 그래, 정승이 됐잖아요?

그래가 그 딸, 인자 그 없는 집 딸이 인자 그...그 구리가 인자 그 우짖지 그래. 구리가 임신이 처음에 되지는 안 했는데, 사람하고 사는데 구리가 될 택이 있습니까? 그래 힌자 큰 자석이 될라 하니까 그 구리가 마당아 나타났는 기라. 땀간 마당에 물 꾸정물 붓는데 와 구리가 나오겠는교? 그래서 인자 그 구리가 탄생을 해가지고 처녀 저 임신된 찻애기를 구리로 낳았는 기라. 그렇지, 그래 거어서 환생을 해뵈은 기라. 처음에 생길 때, 그 부모가 구리로 놓을 때 그래가 낳았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박말순, 언양면, 1984]

843. 세 번째 마을

구렁덩덩 신선비⁸⁴⁴

인자 그 집 저 저게 종 할머니라. 부자집 종 할머니데, 그래 참 자식이 없던갑더라.

부자집 그 집에는 인제 딸이 또 서이라.⁸⁴⁵ 인자 일도 해 주고 이렇는데, 그래 참 임신이 돼가지고 알라를 하나 낳았다.

아아로 하나 낳았는데, 그 집에 처자가 서이라 놓으이 큰 딸이 와 보덩이만은,

“와이고, 구리로(구렁이를) 낳아가지고 시러 이불 밑에 묻어 났더라.”카거든.

그 카고, 둘째도 즈그 집에 마 일도 해 주고 했으이 종매이로 해 놓이 가보고

“와이, 가 보이 참 구리를 낳아가지고 뒀더라.” 이카거든.

그래 놓으이 인자 막내딸이 또 한번 와 봤는기라. 막내딸이 와 보이,

“구리는 무슨 구리, 옥단 시선배로 낳아 놓았다.”카거든.

그래 뱀이도 좋다고 썰로(혀를) 내불내불 하더라. 그래 인자 그러고로 인자 세월이 제 법 갔는데, 자꾸,

“그 처자한테 장개 보내 줄라.” 칸데이.

뱀이 즈그 엄매는 말로 알아 듣던 갑더라. 자꾸 장개 보내 주라 쿠고.

“와이고, 야야, 우리가 천한 사람인데, 그래서 참 안 된다. 그래는 못 한다.”

못 한다. 캐도 기어사(기어이) 보내 줄라 카거든. 가가 그칸다. 인자 죽을 요랑하고, 늑은이 죽을 요랑하고 가지 우야노? 거게.

그래 가지고서러 여차여차하고,

“우리 집 아아가 그래 여기 장개보내 줄라 카는데, 참 이 일로 우야꼬?” 이래 죽을 요랑하고 이바구를 했는 기라. 하이까네 큰 딸 두 나치는(둘이는),

“이년의 할마이 미쳤는갑다.”카며 야단이 나거든.

844. 한국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뱀 신랑 설화의 주인공이다.

845. 셋이라

야단이 나고 마, 아버지도⁸⁴⁶ 마 야단이 나고 이러는데, 그래 막내딸이 옥단 신선배라
카던 그 막내가 딸이,

“아버지요, 날 보내주소. 내가 시집갈랍니다.”카거든.

그래 가 인자 참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아가 와가,

“야야, 그래 인자 장개로 오라 카는데, 우리는 우예가 하꼬? 우야꼬?”카이 그러이 마 우
리 집 걸고 이 집 걸은갑더라.

긴 간짓댕이로 가와 걸치라는 기라. 간짓쟁이, 대나무로 걸치라는 기라. 장개 간다고 대
나무로 걸치라 쿠는 기라. 그래가 대나무로 걸쳤다. 대나무로 걸치 놓으이 그 날 아적에
는(아침에는) 뱀이가 참 마 참 나와 가지고서로 그놈 간짓쟁이 쭈욱 타고 갔거든,

그 집에. 그 집에 가가 그래 뱀이가 그런께나 행례(行禮)로 하더란다.

행례를 하는데, 대가리만 끄떡했는가 몸딩이만 끄떡했는가 행례로 하고 그래 인자 뭘
상방 안 들랴겠나? 천상 우야노? 그래 마 아버시캉 어마시 뭘 뭘 행이들은(형들은) 비시
도(비치지도) 안 보지 뭘.

그래 마 안 보고 놔 뒀는데, 그래 저녁에 인자 주무상⁸⁴⁷ 안 들놓나? 주무상 들놓고 이
래 놔 놓으이 그래 인자 뱀이는 인자 따배기맨치로(또아리처럼) 들어가 있고 각시는 인
자 드갔는데, 그래 지 눈에는 뭘 옥단 신선본데, 우야노? 처자 눈에는,

그래 앞아가 그래 있는데, 그래 밤중되니까 나가더란다. 뱀이가 시일(슬그머니) 나가디
만 지 허물로 벗어가 요래 사삼사삼 해가지고 요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마 참 신선보라.
참 미남이라. 그러처럼(그처럼) 좋은 신랑이 와가 즈그꺼정(자기네끼리) 이바구로 해 쌓
은끼네 행이들이 돌키(돌이) 보이 심술이 나가 죽겼거든.

그런데, 즈그꺼정 마 알고 마 구렁이 허물 고걸 갖다시러 저고리 동전을 따고 동전예다
딱 떨어가 시쳐(쨍매어) 주는 기라, 신랭이.

“이거는 함부로 벗지 마라. 이거는 벗지 말고, 그래 이거로 안 벗어야 된다고. 녀 비지

846. 아버지도

847. 첫날밤에 신방에 들여놓는 주안상

(보이지) 말고 벗지 말고.”

인자 머리로 감아도 저고리를 입고, 만날 입고 있으이 수상바리거든. 그래 인자 신랑은
마 과게하러 갔는가 마 어데 가 뿔터란다. 그래 가 뿌고 없고 그래 있는데,

“그래 저기 암만 수상하다. 저기 뿔이 들었다. 저고리 거어 뿔이 들었다.”

행이들이 지뜯었는 기라. 뿔어가지고 뿔기가 뿔어가 지이 뜯으이 고오참 허물이 고오
동전에 들어가 있거든.

“아이고, 이걸 영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카문서, 불에 가지고 살아 뿔다. 살아 뿔어 놓으이 참 서울 장안 안에 꺼정 그 내미가, 노
랑내가 가 뿔는 기라. 그래 인자 갈 짝에 그래 그라터란다. 낭글 하나 숨가 주면시러,

“이 나무가 안으로 들어 오든 날로 만날 끼고, 밖을 나가몬 날 못 만난다. 평생 못 만난
다.”카고 가 뿔는 기라. 신랑이 가 뿔는 기라.

아이고, 그래 구리 허물 그놈을 살아 뿌고 나이, 마 나무가 자꾸 밖을 나간다. 암만 끄어
들라가 물어도 밖을 나가고, 밖을 나가고, 그 이바구가 그렇다.

그래 그래 그 질로 인자 안 되겠는 거라. 안 돼가 인자 한 폭 따고 꼬잘 짓고, 바랑 짓고
해 가지고 신랑 찾아가는 기라.

가는데, 저기 여내 정의 정도령 이바구라. 정의 정도령 그래. 간다.

신랑 찾아 팔방 세계로 가이, 그래 한군데 가이까네 돌문이 있터란다. 돌문이. 돌로 짚
는 문이 있는데, 그래 처자가 인자 그거로 인자 참 뚜드리다가 열어가 그리 들어 가가 어
느 곳에 또 가이 돌문을 여이, 땅굴 밑이지. 이 세상일까 봐 그 뭐 어데로 드갔는지 가이,
그래 가이까네,

“여어 정의 정도령.” 이름을 가르쳐 줬던 갑더라. 그래,

“정의 정도령 집이 어딴노? 거어 찾아간다.”카이,

“아이유, 거어 못 간다.” 카거든.

못 간다. 감시러 껌은 빨래로 놔 놓고 희기 씻겨 주문 가르쳐 준다 카는 거라. 그래 그 빨
래로 그 참 씻끄이 희이지터란다. 그래 씻겨 주고, 그래. 또,

“저어게 가가 물어 보라.”카는 기라.

가 물어 보라 캐. 거어 가이 새로 훗더란다(쫓더란다). 새, 새로 훗는데,
 “아이, 이놈의 새야, 오늘은 까묵고 내일은 까묵지 마라. 내일은 정의 정도령 장가가는
 데, 거어 술 얻어 묵으러 간다.” 이라거든.
 그래 거어 가 또 물었다.
 “정의 정도령 집으로 가몬 어디로 가노?”
 방망이로 훌쩍 던짐시러,
 “이거 따라 가라.” 카거든.
 따라 가라 캐가 그거 따라 인자 가이, 그 물 밑으로 갔던 동. 어데로 갔던 동 몰라. 마 가
 이 인자 마 오래 돼 가야 기억도 안 난다. 그래 가이까네 그 참 집이 있더랍니다. 있어가,
 “그래 여기 좀 하루 밤 자고 가자.” 카이,
 “못 잔다.” 카는 기라.
 늙은이가, 즈그 엄매가 있던 갑더라. 즈그 엄매도 같은 고계 있는데, 그래 못 잔다 카이,
 “아유, 하루 밤만 자고 갑시더.”
 “중이 어데 요게 와 잘라고. 마 못 잔다고.” 그래,
 “동냥 줄라 카이 뭐로 하노?” 카거든.
 “우리 절 부처님은, 쌀은 쌀 내⁸⁴⁸ 나고, 보리쌀은 보리내 나고, 조비쌀로(좁쌀을) 줄라.”
 카는 기라.
 조비쌀, 조비쌀로 줄라 카이 그래 조비쌀로 마 쪼매 떠다 주는 거로 마 밑구멍 없는 바
 랑에다 부이 마 마당에 두 흘러 뿔다. 흘러 뿌 놓이 지는 인자 잘라고 그랬는 기라. 그래,
 “아이구, 빗자루하고 챙이하고(키하고) 주까?” 카이,
 “아유, 안 된다.”고 켓가치(젓가락) 주라는 기라.
 켓가치, 그 놈을 가아 주 영으이 그래 그거 뭐 뭐 열 날이라도 다 주어 영어지나? 그러
 구로 마 날이 저물어가, 그래,

848. 냄새

“아유, 그년의 중 그거 우야노?”

저쪽에 문지(먼지) 서 치 앉은 방을 주더란다. 앉아가 거어 있으까네, 밥은 묵었던 동 굶
었던 동 우예던 동 그래 저게 있으이 그래 저게 달이 환하이 좋은데,

“아이유, 달도 밝다. 달도 밝다. 저 달 따라 갔이몬 정의 정도령 보련 마는”카이,

신랭이 가마이 듣더만은 지도 또,

“달도 밝다. 저 달 따라 갔이몬 임우 각시 보련마는.”

그즈 각시로 보련마는 카거든. 이상하다 싶어 또 한 번 켜다. 시 번 만에 총객이 오더란
다, 거게. 거어 와가지고 마 만냈는 거라.

그래 있는데, 그래 참 장개도 또 장개로 갔어. 즈그는 장개를 간다 켜으이 장개로 안 갔
겠나? 갔는데, 그래 그거는 인자 이거는 큰 마누래⁸⁴⁹ 아이가? 저그는….

그래 놓으이 즈그껴정 시험을 하더란다.

저게 내가 물로 한 동우로 이고, 뭐 어데 도는 데가 있었던갑더라. 그래 거게 안 빠지고
돌몬 지 마누라라고 지강 산다고 이래 댘었던갑더라. 나막신 신고 우예 도노?

아무리 생각해도 못 돌겠는 거라. 조거⁸⁵⁰는 마 잘 도더란다. 잘 돌고 마. 뒤에 그 각시
사람으로서는 나막신 신고 물 한 동우이고 우예 도노? 몬 돌거든. 그거는 잘 돌더란다.

그래 인자 간지깁이로 쌓아 놓고 저게 올라갔다가, 우에다 북을 하나 달아 놓고,

“저게 올라가가 뚜드리는 사람은 내강 살지 그람(그렇게 못하면) 못 산다. 안 산다.” 이
래 댘는 기라.

못 살았으몬 못 살지 이거 참 도저히 할 생각 없어. 못 살아 안 돼. 그래 가 고거는 뿌르
르 올라가더란다. 올라가 북을 두 찰로(차례를) 때리더란다. 때리고 내려오는데, 총을 놔
뿌이 예수더란다(여우더란다). 예수고, 그래 이 사람하고 잘 살더라 캡디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849. 본마누라

850. 새 장가간 마누라

초립둥이를 살린 도사

옛날에 쪼매는 초립둥이가 산중을 올라가다가 목(먹)을 감고 가얏다 싶어가 거랑에 드가이까네, 굶다는 구리가 있으이, 지 목 감을라 카는 데있다고, ‘에레이, 이념우 구리.’하고 돌방구가 굶다는 거로 뿔뿔 구불어다가 구리로 칭가 직이뻗는데 영 죽지는 안 하고 돌방구 안에 찡기⁸⁵¹가 몬 땡기더란다.

그 산만당아山頂 길이 있는데 그래 놓고 쫓아 올라가가 남기그늘이⁸⁵² 있어 거어 앉아 쉬더란다.

옛날 과객일치로 땡기는데 행인이 올라가미 가마이 들으이까네,

“니가 와 어째서 어째서 이래 됐노?”카이,

“초립둥이가 하나 올라가다가 날로 돌방구에다 찡가가 그렇다고.”

“에라이, 이념, 어딴는공, 오늘 밤에 내가 가얏다. 가가지고…”

초립둥이가 죽이려고 했던 뱀이 아주 죽지는 않고 살아가서 다른 뱀(숫놈)으로부터 상처가 난 이유를 질문 받고 있는거라.

쪼매는 초립둥이는 처갓집에 간다고 가는데,

“요놈우 자식, 오늘 밤에 내가 직인다고. 내외간에 다 직인다.”고, 행인이 고 소리를 들었거등.

그 예사 사람이 아이라 도사라. 도사가 길에 올라가다가 하이 초립둥이가 앉았더란다. 그래,

“어데 가는 청년인데 이래 앉았노?” 카이,

“내가 여어 처갓집에 갑니더.” 카더란다.

“그래, 처갓집에 가? 이 밑에 무슨 저지리 해 놓은 일이⁸⁵³ 있제?” 카더란다.

851. 끼워져서

852. 나무그늘이

853. 저질러 놓은 일이

“그래, 있다.”고 이카이,
 “그래, 처갓집에 가면 오늘 밤에 까딱하면⁸⁵⁴ 죽을 끼라꼬.”
 “와 그렇는교?” 카더란다.
 “그래, 짐승이 그런 짐승이 그래 이박을 하더라꼬.”
 “그래, 어야면 좋겠는교, 어른신네요?” 이라이,
 “그래,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꼬.”
 “그래, 어야면 좋겠는교?” 카이, 그래 하는 말이,
 “저 밤중이 되거들랑, 각시에게 이야기하라고. ‘아이구, 오늘 오다가 알궂은 일이 있었
 는데 참 히안해요’, 그러면 각시가 ‘어째서 히안하던교?’꼬 쿨(할) 끼라꼬. 그러면 ‘굶다는
 구리가 쪼매는 뱀이를 붙을라고 와가지고, 그래가 내가 돌로 던져뿔다꼬.’ 이런 말로 하
 며 그 구리가 다부 돌아갈 끼인까네 그래만 하라.” 쿠더란다.
 그래 참 밤중이 되가 그래 이바구를 하니까, 구리가 방문 앞에 와가 들으이 ‘에라이, 이
 년, 직이야 된다꼬.’ 군서방⁸⁵⁵이라꼬, 짐승도 새를(질투를) 보더란다.
 군서방이라꼬 다부 돌아가가 그래가 면했단다.
 행인이란 사람도 그기 사람이 아이라. 외동아들인 때민에 산신령이 그 사람 살릴라꼬
 그래가 면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차생, 두동면, 1984]

854. 잘못하면

거짓말 이야기 내기로 예쁜 아내를 얻은 건달

옛날 어떤 사람이 집안이 망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예쁘고 재주가 있어 많은 남자들이 탐을 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딸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돈 백 냥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위를 삼겠다는 소문을 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총각들이 돈 백 냥씩을 지고 와서 거짓말 이야기 내기에 응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 가지 거짓말을 승인 받지 못해서 돈만 뺏기고는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잘하는 어떤 건달 한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돈을 꾸어 백 냥을 마련하여 부잣집으로 갔다. 돈 백 냥을 바치고 주인과 마주앉은 건달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돈 백 냥을 잃어지고 한강漢江 다리를 건너오는데, 다리 양쪽에서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그 다리 중간에서 불에 타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죽은 놈이 어찌 여기 왔느냐고 묻고 말았다. 그러자 그 건달은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고 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여기 오다가 보니까 돌미륵의 머리에 큰 배나무가 있는데, 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돌미륵의 머리에 배나무가 있겠느냐고 하자, 그 사람이,

“새가 배를 쪼아 먹고 돌미륵 머리에 앉아 똥을 누어 배씨가 떨어졌는데, 바람에 불려 온 먼지가 그 위에 쌓여 싹이 트고 자라서 배가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그 배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제가 오다가 몇 개 따먹고 어르신 대접하려고 한 개 따 넣어 왔습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그러면 그것을 보자고 했다. 그 사람이 주머니를 뒤져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주인이 배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그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해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주인은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 절대로 속지 않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가을에 세경을 받을 때에는 다른 것은 받지 않고 좋은 짚을 석 짐씩 받습니다.”

주인은 그까짓 짚 석 짐을 받아서 무엇 하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해,

“겨울에 할 일이 없을 때에 그 짚으로 망태를 짚니다. 그리고는 한겨울이 되어 찬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바람을 짚망태에 담아 두었다가 한여름이 되면 주인에게 며칠 휴가를 얻어 서울로 와서 그 짚망태 속에 가둔 바람을 대가大家에다 팝니다. 바람이 워낙 시원하기로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비싼 값으로 사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니다. 이러기를 이십 년을 해서 저는 삼천 냥이나 되는 큰돈을 모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바람을 팔고 돌아갈 때에 그 삼천 냥을 주인께 맡겨두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지요? 그 돈 삼천 냥을 오늘 받아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돈 삼천 냥을 그대로 물어주어야 할 판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기에서 지게 되어 사위로 삼아야 할 판이었다. 한참을 끙끙대던 주인은 마침내

“그건 거짓말이다”하고 말했다.

건달은 내기에 이겨서 부잣집의 사위가 되어 예쁜 아내를 얻고 행복하게 잘살았다.

[『울산광역시사』 서영기, 온산면, 1986]

지봉의 이야기

The Story of Zibong

옛날에 지봉이라는 하인을 둔 양반이 살았다. 지봉은 그의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다. 하루는 주인이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갔다.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지봉이 이끄는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났다. 그의 두 딸은 결혼을 했고 지봉은 주인의 제일 어리고 제일 아름다운 셋째 딸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는 도중 그의 주인은 지봉을 주막에 보내어 술 한 사발을 사오게 했다. 지봉은 술을 사가지고 주인에게로 들고 갔다. 그러나 도중에 멈춰 서서 손가락으로 사발에서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주인은 소리쳤다.

“지봉아!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빨리 가져오너라. 목이 마르다.” 지봉은 거짓말로 대답했다.

“제가 실수로 술에 침이 튀어서 그걸 손가락으로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술 마시기를 포기하고 지봉에게 술을 줬다.

지봉은 한양까지 가는 도중 이런저런 일로 주인을 골탕 먹였다. 그들은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여 과거시험 날까지 작은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다. 운이 없게도 양반은 과거시험에서 낙방을 하였다. 게다가 지봉은 주인에게 끊임없이 못되게 굴어 망신시키고 한양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하였다.

결국 주인은 돈도 다 떨어져서 지봉을 먹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지봉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 길로 즉시 서울을 떠나 집으로 가거라. 나는 후에 가겠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지봉이 모든 불운의 동기가 되었다며 그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지봉은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향해 떠났다. 지봉은 편지의 내용이 그에게 이로운 것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고 그가 직접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어느 노인에게 읽어 달라고 했다. 노인은 편지를 읽고 안주인에게 그를 죽이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도움 없이는 주인이 과거시험에 합격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보상으로 그가 도착하면 주인의 셋째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의 편지를 노인에게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새 편지를 먼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안주인에게 전해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즉시 그녀의 셋째 딸과 지봉을 결혼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옆집으로 이사를 갔다.

몇 주 후에 양반이 집에 돌아와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소리치며

“내 지시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 며 노발대발했다. 그리고는 다른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내 그놈을 그냥 둘 수 없다. 지봉을 자루에 넣어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려라”

하인들은 지봉을 잡아 주인이 지시한 대로 자루에 넣어 묶었다. 그리고 자루를 짊어지고 바다를 향해 떠났다. 길을 가던 도중에 목이 마른 하인들은 목을 축이려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자루를 길가에 놓아두었다. 지봉은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지팡이로 길을 두드리며 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장님을 불렀다.

“이리 좀 오시오. 눈먼 양반, 나도 이 마술 자루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장님이었지요. 훌륭한 명의가 이렇게 해보라고 내게 일러주었지요. 그래 그대로 했더니 내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자루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소. 와서 어서 나를 좀 풀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마술자루를 빌려드릴 테니”

장님은 이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재빨리 그 자루를 풀어 주었다. 그리고 지봉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장님을 밀어 넣고서 자루를 무사히 묶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는 장님의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걸어갔다.

하인들이 주막집에서 나온 후 그 자루를 짊어 메고 바다로 갔다. 그때 장님은 소리쳤다.

“멈추시오, 멈춰요, 나는 장님인데 내 시력을 다시 찾으려 하고 있소.” 그러나 하인들은 대답했다.

“네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지봉아, 입 닥치고 조용히 해!”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들은 그 자루를 바다에 던졌고 그 운 나쁜 장님은 물에 빠져 죽었다.

놀랍게도 한 달쯤 후에 지붕이 양반의 옛집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양손에 부채를 들고 말하였다.

“모두들 안녕하시오? 나는 바다 밑 용궁에 다녀왔소. 나는 바다 밑 끝까지 잠수하여 가장 아름다운 용궁을 발견했소. 나는 환대를 받으며 용왕을 만났소. 왕은 나를 귀빈처럼 대접했고 가장 호화로운 음식들을 주었소. 그 맛있는 음식과 술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 마셨소. 그곳이야말로 내가 살 가장 행복한 곳일 거라 믿고 있소. 자 모두들 그곳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시다. 모두 바다에 들어갈 때 양손에 들 부채가 필요합니다.”

모두는 지붕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양손에 부채를 들고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지붕은 말하였다.

“주인님이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곧 숨이 차 죽을 것만 같았다. 양반은 자신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알자 또 다시 사기 당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게 알리려고 양손에 든 부채를 열심히 흔들었다. 그러나 지붕은 남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서두르며 말하였다.

“주인님을 보세요,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따라오라고 부채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는 한 명씩 차례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셋째 딸이 뛰어들려고 할 때 지붕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뛰어들지 마시오. 저것 보시오.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계락을 썼지만, 사악한 지붕은 행복하지 못했다. 그는 셋째 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셋째 딸은 남편인 지붕에게 수치스러운 사기를 당하고 죽기까지 한 그녀의 부모의 뒤를 따라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설화』, 오진영吳珍泳, 언양彦陽, 1916, 단국대학교출판부]

피쟁이 하인 지붕이

옛날 언양彦陽의 어느 양반 집에 지붕이라는 피 많은 하인이 살고 있었다.

주인집 아들이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붕이가 짐을 지고 따라가게 되었다.

주인집 아들은 마음씨가 고약해서 주막酒幕을 만나도 지붕이에게는 먹을 것조차 제대로 사주지 않았다. 그러자 지붕이는 주인집 아들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주막거리에 이르러 주인집 아들은 길가 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지붕이에게 주막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만 사오라고 시켰다. 점심을 또 굶게 생겼다고 생각한 지붕이는 피를 내어, 국밥을 사오면서 손가락으로 국밥을 휘휘 저었다.

이 모양을 본 주인집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지붕이는 조금 전에 머리에서 이虱가 한 마리 떨어져 국밥 그릇에 빠졌기 때문에 그 놈을 찾느라고 그런다고 대답했다. 주인집 아들은 이가 빠진 국밥은 더러워서 먹을 수 없으니 지붕이에게 대신 먹으라고 했다. 지붕이는 맛있게 잘 먹었다.

다시 몇 십리를 갔다. 주인집 아들은 점심을 굶은 탓에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막거리에 이르자 길가의 바위에 걸터앉으면서 지붕이에게 주막에 가서 술을 한 대접만 사오라고 시켰다.

지붕이는 이번에도 피를 내어 술대접을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왔다. 주인집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지붕이는 조금 전에 술을 들고 오다가 잘못해서 코딱지를 술대접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인집 아들은 이번에도 그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지붕이에게 주고 말았다.

며칠이 더 걸려서 주인집 아들과 지붕이는 서울에 도착했다. 주인집 아들은 지붕이에게 고삿을 단단히 잡고 말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는 혼자서 숙소宿所를 정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갔다.

지붕이는 얼른 말을 끌고 가 팔아버리고 되돌아와서는 말고삐만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은 채 주인집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집 아들이 돌아와서는 지붕이에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지붕이는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서울은 사람 눈 빼먹는 곳이라고 하기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놈이 와서 고삐를 싹둑 자르고 말을 끌고 간 모양이라고 대답했다.

몹시 화가 난 주인집 아들은 지붕이의 등에다 ‘지붕이가 집에 가거든 닭 기르는 통에다 넣어 강물에 빠뜨려버리라’라고 쓴 뒤 즉시 집으로 돌아가 주인에게 보이라고 했다.

지붕이는 터덜터덜 걸어서 내려오자니까 배가 몹시 고팠다. 어느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디딜방아로 떡을 찧고 있었다.

지붕이는 찧를 내어 그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가서는 방아 찧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업고 있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주머니가 떡방아를 다 찧어가자 지붕이는 재빨리 아이를 방아확에다 집어넣었다. 아주머니는 방아공이를 놓으면 아이가 다칠 판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지붕이는 방아확 속에 든 떡을 꺼내어 뭉쳐 들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머리에 동이를 이고 오고 있었다.

지붕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꿀을 팔러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지붕이는 자신이 꿀장수인데 서울로 꿀을 팔러 갔더니 품질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덜컥 걱정이 되어 꿀둥이를 내려놓고는 지붕이에게 꿀의 품질을 한 번 검사해 달라고 했다. 지붕이는 꿀을 찍어서 검사를 하는 척하다가 가지고 있던 떡덩이를 꿀통에 담가 휘휘 두르고는 꺼내어 들고 얼른 도망쳤다.

꿀을 묻힌 떡덩이를 뜯어먹으면서 내려오던 지붕이는 길가에서 쉬고 있는 어느 선비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는 떡덩이를 선비에게 권했다. 선비가 떡을 맛있게 먹고 나자 지붕이는 자신의 등을 내보이면서 등에 써진 글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선비는 ‘지붕이가 집에 가거든 닭 기르는 통에다 넣어 강물에 빠뜨려버리라’라고 써있다고 했다.

지붕이는 선비에게 떡 한 덩이를 더 권하면서 그 글 대신에 ‘지붕이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지붕이가 가거든 앞산 밭에다 큰집을 짓고, 여동생과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해주

라'고 고쳐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맛있는 떡을 얻어먹은 선비는 지봉이가 원하는 대로 등의 글을 고쳐 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등에 쓴 글을 보이자 주인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이 기뻐서 글에 써어있는 대로 큰집을 짓고 딸을 지봉이에게 시집보내어 살게 했다.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 낙방하고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지봉이가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다.

분통이 터진 주인집 아들은 지봉이를 붙들어 닭 기르는 통에다 넣고는 하인 두 사람을 시켜 강물에 던져버리게 했다.

두 하인이 그 통을 지고 가다가, 목이 켄켄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 참에 마침 주막집이 나타나자, 주막집 앞에다 그 통을 내려놓고는 막걸리 한 사발을 먹으러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멸치장수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병이 생겨 눈곱이 끼고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지봉이는 할머니를 불러 통을 열게 해서 얼른 빠져나왔다.

할머니가 왜 그 통 속에 들어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지봉이 말하기를, 눈병이 심해서 이 통 속에 들어가 잠깐 있었더니 눈이 씻은 듯이 나아서 이제 막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오신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자신도 눈병을 고쳐보고 싶은 욕심에 통 속에 한 번 들어가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 지봉이가 그러라고 하고는 할머니를 통 속에 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멸치짐을 챙겨 얼른 도망쳤다.

이런 줄을 모르는 두 하인은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는 나와서 할머니가 든 통을 강물에 가져다 던져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지봉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주인집 아들에게 보고했다.

도망친 지봉이는 할머니의 멸치짐을 밑천삼아 멀리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얼마간의 돈을 벌었다.

삼 년三年이 지나자 지봉이는 비단옷에 화려하게 차려 입고는 처가妻家로 찾아갔다.

지봉이의 차림새를 보고 놀란 주인집 아들이 어떻게 된 일이나고 묻자 지봉이는 처남에게 고맙다고 백배사례百拜謝禮하면서, 강물에 빠져 용왕국龍王國에 갔더니 살기가 좋

은데다 대접도 융숭하게 하더라고 둘러대었다.

지봉이의 말에 혹한 주인집에서는 자신들도 모두 용왕국에 가고 싶다고 지봉이를 졸랐다.

지봉이는 못이기는 척하며 용왕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다른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고, 빗자루와 키 하나씩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고는 처가집 가족들을 모두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가에 이르자 지봉이는 처갓집 가족들을 차례대로 키를 뒤집어쓰고 강물로 뛰어들게 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차례가 되자, 아내의 손을 잡고는 처가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므로 그 복수를 한 것뿐이라고 했다.

지봉이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처가의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울산광역시사』 서영기, 온산면, 1986]

재치있는 거짓말 잘 하는 지본이 (1)

지본이가 천하에 거짓말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이라, 거짓말 하몬,

“지본이 겹이 잘 한다.” 하거든.

그 지본이가 상북上北面에서 났다 카는 기라. 거짓말을 얼마나 잘 하는냐 하모 도저히 그 거짓말은 안넘어 갈 수가 없어. 버이 알고도 넘어 가는 기라.

한번은 식전에 그 동네 사람이 들에 나가이까 지본이가 오좁을⁸⁵⁵ 한 장군이 질머지고 가는 기라. 오좁 지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거짓말 한 번 해라.” 카거든. 그래 지본이가 성을 탁 내문서,
 “바쁜 사람 보고서 거짓말 하라 카노?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 줄 아요?”
 “아이, 마 거짓말 한 번 해라.”
 “바쁘다.” 쿠거든. 마 나중에는 내색을 해가지고 거절로 한느 기라. 그래,
 “니 뭐 그치로 바쁘냐?”고 하이까,
 “이거 갖다 오좁 쳐 놓고 집에 갔다가 당장 그 언양 동헌彦陽 東軒을 가야 된다.” 카거든.
 “동헌을 뭐 하로 가느냐?”고 묻는데, 속언俗言으로서는 ‘귀미 먹인다’, 구미救米라 카는 긴데, 어려운 백성들인데 나라 창고에서 양식을 그 주는 기라.
 “그거로 오늘 주는데, 그걸 타러 가야 된다.” 카거든.
 그래 그 사렘이 가만 생각캐 보이, ‘저 놈도 타 묵으로 나도 타 무야 되겠다.’ 싶으거든. 그래 ‘에라이 이놈 자식, 내가 먼저 가야겠다.’ 카고 전대로 하나 가지고 동헌을 먼저 달려갔는 기라. 동헌에 드갈라 쿠이까네 드가구로 해야지. 요새 말로 수위가 못 들어가라 하제.
 “오늘 그 구미 준다고, 기미 먹힌다 쿠는데, 와 못 드가노.”
 “미천 놈가? 누가 구미 준다 카더노?”
 앓따 이 놈우 자식, 그래 마 달려 올라와 저거로 붙잡았는 기라.
 “이노무 자식, 와 거짓말 하노?” 커이,
 “와 거짓말 하라 캬노?” 쿠더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855. 똥오좁 거름을

재치있는 거짓말 잘 하는 지본이 (2)

상전이 마상馬上을 해가 서울로 데리고 올라갔는데, 말을 내리가지고 어디다 말로 얹매
놓고⁸⁵⁶ 볼 일을 보러 가면서,

“야 임마, 서울은 사람 눈 빼 묶는 데다. 말 단딩이 지키라.” 쿠고 갔다.

볼 일 보고 오이, 저 늙이 눈을 콕 감고 말고뻘 끄내끼(줄) 그 늙만 떠억 쥐고 이래 있고
말은 없는 기라. 볼기로 한 대 때려가,

“이늙, 말 우였노?” 카이,

“아이쿠, 말 없어졌습니까?”

“이 늙아, 와 그랬노?” 쿠이,

“아이고, 서방님, 눈 빼 묶는 세상이라 캐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끄내끼만 쥐고 이래 서
있었습니다.”

말은 지 팔아 묶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지환, 상북면, 1984]

856. 은 지 팔아 묶고.

두 사람의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아내가 남편을 친절으로 보낼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 너무 게을러서 가다가 밥을 사먹는 것도 귀찮게 여길 테니, 우선 굶지 않고 가게 할 것도 걱정이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한 아내는 찰떡을 해서 남편에게 지워주고는 가다가 배가 고프면 꺼내 먹으라고 신신당부했다.

한나절을 가자 게으름뱅이는 배가 몹시 고했다. 그러나 귀찮아서 지고 있는 찰떡을 내려 먹을 생각은 없었다.

길가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게으름뱅이는 그 사람이 오면 찰떡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나누어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다.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있었다. 게으름뱅이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고 있는 떡을 내려주면 그것을 나누어주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어림없는 소리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바람에 갇힌이 풀어져 이렇게 불편해도 그것을 고쳐 매기가 귀찮아 입을 벌리고 고개를 비스듬히 한 채로 겨우겨우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게으름뱅이는 크게 웃고는 가던 길을 그냥 갔다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이창현, 언양면, 1987]

게으름뱅이 두 사람

옛날에 어떤 농부가 처음에는 산에 풀 뜯어러 간다고 갔겠지. 토바야⁸⁵⁷ 밥을 한 토배기 싸가지고 딱 쭉어지고 산꼴짜기를 올라가이끼네, 우에서 또 갓을 씌고 한 남자가 입을 딱 벌리가지고 내려오거등. 그래 밥 지고 가는 이 남자가

“당신은 어테꺼지 가면, 그래 와 그래 입을 벌리고 가느냐?” 카이까네,

“나는 갓끈이 늦어가지고⁸⁵⁸ 이 손을 대가 줄아머(조이면) 될 낀데 손대기 실버가지고⁸⁵⁹ 내가 이 입을 벌리고 내려간다.” 이카더란다.

그래 인자,

“당신은 지고 가는 기 그 뭐냐?” 카이까네,

“나는 이 점심을 싸가지고 이래 가는데, 이거 벗어(벗어) 내라가지고(내려서) 손 대가지고 무른(먹으면).... 배는 고프데 벗어 내라가 꿈적거리기(움직이기) 실버가지고(싫어서) 이래 지고(이렇게 쭉어지고) 다부(도로) 올라간다.” 카이끼네,

“아이고, 니나 내나 똑 같다.” 카미 그래 서리 무릎을 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억천, 언양면, 1984]

857. 초배기. ‘점심點心’의 경상도 사투리지만, 여기서는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만든 도시락을 말한다.

858. 늘어져서

859. 싫어서

복만 있다고 잘사는 것은 아니다

복이 있어야 안 사나?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복만 기다리고 암만 있어도 죽도 제대로 돈 짚이(꺠여) 묵고,
이래가 한 팔월 달 쯤 홍시가 짜다라⁸⁶⁰ 흘러 쌓는데, 하루는 감나무 밑에 가 시험을 봤어.
감나무 밑에 가가 나무 밑에 덕시기를 하나 펴고 반듯이 눕어가 있으며 저 넘우 홍시가
내 입에 들오는강 안 들오는강 눕어 있었거등.

눕어 있은까네 근방에 오디마는 입에 안 들오고, 그래도 복 시험 본다고 손으로 안 췌어
주고 가만 있거등. 그런데 홍시가 엉뚱한데로 달아나는 기라.

‘아, 이거 복만 믿어가 안 되는구나. 노력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복강(복이
랑) 모든 기 삼면이 맞아져야 잘 살수 있구나.’ 카는 걸 연구를 했어.

그래가 그 전에 농립農笠,⁸⁶¹ 그걸 이래 디비시가지고 꼭대기 딱 뚫버뿌고⁸⁶² 하며 이 주
등이가 입 요랑하며 그 뭐 몇십 배 되거등. 그 넘을 인자 입에다 붙이가지고 두 손을 우바
가⁸⁶³ 딱 눕어가 있거등.

눕어가 있으이 홍시가 삿갓 가새(가에) 툅 흐르디마는 오목하이까네 겹으로 안 널찌고
안으로 널찌가 또굴또굴또굴 구불어가 마 입에 들어오거등.

‘웁다, 인자 알았다.’ 그래가 그 뒤에는 마 이 사람 가당썰이 부지런히 하거등. 그 전에는
복만 믿고 일 통 안 하고, 죽도 돈 짚이 묵었는데, 그래 부지런히 해가지고 뉘중에는 운캉⁸⁶⁴
모두 합쳐서 잘 살더라 카는 이야기지. 그러이 복만 믿지 말고 노력도 해야 된다 카는
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두화, 언양면, 1984]

860. 많이

861. 삿갓

862. 뚫어버리고

863. 움켜서

864. 운運과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강원도 금강산에 올라가몬 술처럼 이리 생긴 돌이 백 개가 있는 백등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전에 금강산 밑에 살던 한 사람이 소구시로⁸⁶⁵ 파로 가니까 거어서 쿵절절거리고 뭐 음악소리가 들리고 하거든. 소구시로 파다가 도끼로 썰어 놓고는 서얼설 기이 올라가 보이까네 신선하고 선녀들하고 노는데, 잘 놀드래.

그래 가 번듯이 가지는 못하고 바우 밑에 가만 은신해가 있었다는 기야. 그러이까네, “한 잔 먹고 놀자.” 이렇게 하더라는 기라. 그러이까네, 주옥 앓아가 술을 묵다가 한 사람이(신선이),

“아, 어데 비린 내가⁸⁶⁶ 난다.” 이러드란 기야, 그리고 한 신선이 쫓아 오더라는 기라. 그래,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술 한 잔 묵으라.”고, 그래 오라고 하드래.

그래 가이까네, 신선주 한 꼬뿌 주는 기라. 그래 그거로 묵고 나니,⁸⁶⁷ 안주는 똑 뻘디기처럼 이렇게 생긴 거로 주더라는 기라. 그래 묵고 오이까네 그만 구시가 다 썩어져 빠고, 도끼자리도 다 썩어 빠고, ‘신선놀음에 도끼자리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온 기라. 집을 찾아 오이까네, 쑥대밭이 되고 집이 아무것도 없다 말이라. 그래 허연 노인이 밭을 매더라는 기야. 그래서,

“그 아무개란 사람이 있었는데, 금강산에 소구시 파로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은 다 어데 갔느냐?”고 이카이까네,

“아이고,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 때 일로 전해 오는데, 금강산 소구시파로 갔다가 호식虎食했는지 소식이 없어서… 그 자손들이 판테로, 몇 대 손지孫子가 저게 가 있다.”고 그라더라. 그래가지고 거어 찾아 간다.

865. 소구유를

866. 냄새가

867. 먹고 나니

찾아가이 몇 대째 할아부진데, 대번에 알 수 있나? 그래 신선주만 묵어 놓으몬 그 장생
불사하는 기라.

옛날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리 썩는 줄 모린다.’는 기, 신선주 한 잔만 묵어 놓으몬 늙지
안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최고운⁸⁶⁸ 선생의 신선주

최고운 선생이 신선이 돼 갔는데,

동승은 강능 살고, 형은 서울 사는 이가李哥 형제가 있는데, 강능 사는 동승네집에 한 두
어 달만에 한번씩 너줄한 사람이 의관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여어 오늘 자고 가자.” 해가지고 며칠로 묵고 가는 기라. 그러는 도중인데, 서울 장안
자기 형네가 호랭이한테 딸을 잃어뿌가지고 찾지도 못해. 동승한테 기별로 한 기라. 그
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왔는데,

“오늘은 잔치로 묵으로 가야지.” 하고 갔다 오더라는 기라. 그런데 물으니까네,

“어떤 잔치에 갔더냐?”

“어, 최고운 선생님 아들 장개보내는 데 갔다.” 이카거든.

868.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다.

“그래 규수는 어디 사람이요?”

“서울 사는데,…” 아무개, 자기 형 이름을 댈다. 아무개 딸…아,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인데 물은 기라.

“우떻게 해야 우리 조카딸로 만나 볼 수 있느냐? 형집에 딸아로 잃어 뿌가지고 찾을라고 앤데…” 그렇게 하이까네,

“그러몬 형을 오라고 해가 아무 골, 어딘 방향으로 가몬 그 강가에 껌정소가 하나 있으 낀까네, 둘이는 못 타인까네, 하나는 타고 건네가고 그 소로 이리 건네 보내몬 또 타고 그 리 건네가몬 얼마 안 올라가몬 그 만낼끼라.”고 이렇게 해.

거어 간께 참 소가 있더라는 기야. 그래 형을 만저 타고 보내고, 동생은 냉중에 타고 갈라고 이래 있은께, 소가 암만 쫓아도 안 건네간다 말이어. 이리 건네와야 동승이 갈 낀데 저 건네 있지, 할 수 없이 이 사람 혼차 올라간 기라. 얼마 올라간께 자기 딸이 참 있는 기라. 그래 참 반갑아 하인까네, 반가이 하드래.

“그래 우리 시부⁸⁶⁹는 방에 있은까네, 인사로 하시이소.”

며느리가 안내로 방에 들어가이까네 일어나가지고 인사로 했는데, 벽장을 열디마는 술을 끄으내가 자기도 한 꼬뿌 묵고 이 사람 보고 주는데 고마 목구영에 넘어가지도 않고 묵을 도리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 어영 가더마는⁸⁶⁹ 집이 없어지더라는 기라.

그래 내려와 소를 타고 건네오이꺼네, 동생이 거어 기다리고 있다 말이라.

그 술만 한 잔 먹었이몬 같이 신선이 될 낀데, 술을 못 묵으이꺼네 최고운 선생이 고마 같은 친구가 안 되겠다고 가버린거지. 신선주만 묵으몬 장생불사로 하는데, 먹지로 못한 거지.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869. 최고운 선생이 사라졌다

삼천갑자 동방삭의 죽음

동방삭이는 삼천갑자三千甲子로 살았는데, 마상각에⁸⁷⁰ 말을 타고 왔다가 갔다가 땡기
이까네, 새파란⁸⁷¹ 여자가 하나 검정 솥을 산 냇물에 씻고 있거든.

와도 씻고 가도 씻고, 몇 년을 땡기며 봐도 그래 씻고 있는기라. 그 동방삭이가 그 날은
말을 하고 접은 기라.

“아이고, 참 내, 삼천갑자 동방삭을 살아도 내 검정 솥을 희두룩 씻는 거 내 처음 봤네.”
이러 겠거든. 요 년이, ‘웁다. 요기 동방삭이다.’

“니가 동방삭이냐?”고 이라거든. 고기 천년 만년 묵은 여수⁸⁷²라. 동방삭이 잡아먹을라
고 베투고 솥을 씻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 알았다.”쿠머 마 따라 붙이는데, 동방삭이가 참 그래 영웅이지. 마상에 말
을 타고 집에 다말아 와가지고 오감사인데,⁸⁷³

“와이고, 내 뒤에 뭐이 날 때리쥬이로 온데이. 우야꼬? 나 좀 승키 도가.”⁸⁷⁴ 쿡시로 뒤
에 독 안에 드가 가지고 소두뱅이로⁸⁷⁵ 딱 덮어 뵈거든. 쪼매 있으이까네, 새파란 여자가
하나,

“이 집이 동방삭이 집이요?” 쿠고 왔거든.

“예” 쿠이까네,

“동방삭이 어디로 갔소?”

“없심더. 와 찾는교?” 쿠이까네, 요 년이,

“동방삭이가 내강 동품을 하고 자고시러 날로 돈을 한 푼도 안 쥐가시러 내가 돈 받으

870. 마상馬上에

871. 새파랗게 젊은

872. 여우

873. 아내한테

874. 숨겨 달라

875. 술두껍으로

러 안 왔나?” 이라거든.

이런께 큰 어마이 이기 보골나⁸⁷⁶ 죽어. 요 놈의 영감쟁이가 밍거든.

“아 동방삭이 저 뒤에 있심더. 저 놈우 침지 꺾이 빠라, 마.” 고래가지고 보골나가 소두
뱅이로 딱 들비시 주인까네, 땃살에⁸⁷⁷ 동방삭이 도술로 그 천년만년 묵은 예수가 벌이
가 땀어요. 벌이가 되인까네 동방삭이가 들시 놓은 독 거어다가 거무줄로 쳐뵈단 말이
다. 거무줄로 쳐 뿌인까네, 벌이가 그 거무줄에 걸 리가 죽을킨데,

이 안들이 밍어가지고서러 벌이 잡는다고 비짜리로 가지고 막 이라는 바람에 거무줄을
다 쳐 뿌고, 예수가 동방삭이를 잡아묵어 뵈단다.

동방삭이가 몇 만 년을 살킨데, 그래 죽었다 쿠데.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876. 본처가 화가 나서

877. 대번에

어리석은 인간들

How Foolish Men Are!

옛날 옛날에, 고아가 된 불쌍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느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매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하루는 그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는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어 어느 동굴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한밤중이 되자 그는 이상한 말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은 무슨 소식 이 있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 저 아랫마을 너도 알지? 그들은 저 버드나무 바로 옆에 좋은 우물이 있는데 저렇게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느라 갖은 고생을 다 한단 말이야”

“네 말이 맞아. 인간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어. 너 저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늙은 할아버지 알지? 그는 그의 부엌 솔 바로 옆의 항아리에 가득 돈이 묻혀 있는 것도 모르지.”

“거 정말 그렇군. 그런데 내가 방금 부잣집을 지나왔는데 그 집 딸이 중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었어. 그 부자는 약을 사는데 거금을 쓰고 있지만 헛수고뿐일 걸 그 집 마당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 밑에 큰 지네 한 마리가 숨어 있는데 그 딸은 지네가 내뿜고 있는 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잖아. 인간들은 정말 어리석어!”

소년은 그가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 두 도깨비 간의 대화라고 짐작했다. 아침이 되어 소년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의 아낙네들이 여느 때와 같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먼 곳에 있는 우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버드나무 옆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그는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때 동네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를 도와 우물을 파, 그 마을 바로 중심에 훌륭한 우물이 생겼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소년에게 고마워했다.

다음 그는 가난하고 늙은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다. 그 할아버지는 짚신을 만들어 팔아 겨우 입에 풀질을 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 소년은 당신을 도와줄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 늙은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부엌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너무도 기뻐했고 그 돈을 소년과 나누어 갖자고 했으나 소년은 거절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딸이 중병에 걸려 앓아누워 있는 부잣집으로 갔다. 소년은 그녀의 병을 낫게 해 보겠다고 제안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소년은 큰 솥에 기름을 채워 끓이고 긴 쇠 젓가락 한 벌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장작을 한쪽으로 옮겼는데 그 속에서 크고 검은 지네를 발견했다. 소년은 그 지네를 쇠 젓가락으로 집어 끓는 기름 속에 넣었다. 지네가 죽는 동안 부자의 딸도 신음소리를 내더니 지네가 죽자마자 병이 완쾌되었다.

보답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그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고 소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소년은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다.

당시에 소년에게는 정말 잘 속이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소년의 행운에 대해 듣고 그것에 대해 물으러 소년을 찾아왔다. 그는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소년은 그가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우연히 도깨비들의 대화를 들게 된 것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하여 그 잘 속이는 소년은 자기도 도깨비들에게 그 행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산으로 갔다. 그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그는 정말 도깨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가난한 소년이 행운을 얻은 사실 알지? 그는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분명해. 그러나 착한 소년인데 잘됐지 뭐.”

“그렇고말고, 그는 참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소년이구말구. 그런데 그 욕심 많고 사악한 그의 친구 녀석 알지? 그는 지금 질투하느라 자기 행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구먼. 그 친구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지!”

“그 집 동남쪽 기둥의 주춧돌 아래 있는 그 보석들 말이지?”

“그래, 바로 그거 말이야. 그 바보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깨비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 욕심 많은 소년은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분했으며 그들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였다.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주춧돌 밑을 파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땅을 파는 소리를 듣고 놀라 그의 부모들은 잠이 깨었다. 그의 아버지는 도둑이 든 줄 알고 일어나서 도둑을 잡으려고 나가 보니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었다. 그 소년은 땅을 파는 데 너무도 열중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큰 행운을 찾아낼 거예요. 제발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하고 소년은 말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말리다가 포기하고 소년은 계속해서 파내려 갔다. 소년은 생애 처음으로 땀을 흘렸다. 마침내 삽에 단단한 것이 걸렸다. 소년은 그것이 바로 도깨비들이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힘껏 끌어당겼다. 그것을 들어 올리자 기둥이 폭삭 내려앉아 집 전체가 허물어져 버렸다. 벽돌들이 소년에게 떨어져 그는 벽돌에 깔려 죽었다.

그가 찾은 것은 단지 그 집의 주춧돌일 뿐이었다.

[『한국의 설화』, 오석근吳碩根, 언양彦陽, 1915, 단국대학교출판부]

호랑 감투

The Magic Cap

한국의 도깨비들은 ‘호랑 감투’라고 불리는 요술 감투를 쓰곤 했는데, 그 감투는 자신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이었다.

그때에 조상의 제사를 철저히 지내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사치스러울 만큼 맛있는 음식과 술 등으로 조상들의 제삿날을 챙기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제사를 치르던 날이었다. 한 무리의 도깨비가 그의 집으로 찾아와, 제사상 위에 있던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치웠고, 그러한 행동은 제사 때마다 매번 반복되었다. 물론 도깨비들은 그 신비한 감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그렇기에 모든 음식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 남자는 처음엔 그가 준비한 음식들을 조상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매우 기뻐했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호화스런 제사를 지내는데 많은 재물을 쏟아 부었다.

마침내 부인은 남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우리 조상님들의 영혼은 우리가 파산지경에 이를 만큼 많이 드실 분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제사에 전념하는 동안 도둑놈들이 안으로 들어와 그 음식들을 훔쳐가는 것이 분명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 남편은 손에 견고한 몽둥이를 들고 제사상 병풍 뒤에 숨어 있었다. 밤이 깊었을 무렵, 그는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음식 먹는 소리를 들었다. 병풍 너머를 살짝 엿보는 순간 놀랍게도 음식이 접시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제사상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는 몽둥이를 들고 돌진했다. 그리고 제사상 둘레를 덮치고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갑작스럽고 격렬한 공격에 놀란 도깨비들은 달아났다. 그러나 그는 몽둥이로 도깨비들

중의 한 놈을 내리칠 수 있었고, 한 놈의 감투가 떨어졌다. 도깨비들이 도망쳤을 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빨간 감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기이하게 여긴 그는 감투를 집어 써보고는 갑자기 ‘도둑이야! 도둑!’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외침을 듣고는 집안으로 뛰어들어 왔지만, 단지 그녀 주변에서 헐떡거리는 남편의 숨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 남편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남편은 말했다.

“도둑은 도망갔지만 매우 요상한 감투를 남겼어요. 당신은 봤나요?” 남편의 목소리만 들릴 뿐 여전히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다.

“나는 여기 있소. 왜 그러는 거요?” 아내는 그녀의 손을 잡은 남편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머리 위에 있던 감투를 떨어뜨렸다.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자기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볼 수 있었다.

아내는 감투를 집어 들고는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감투인가요? 이 감투가 당신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보니 이 감투가 바로 도둑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이었군요. 제가 이걸 써볼게요.” 아내가 그 감투를 머리 위에 눌러 쓰는 순간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외쳤다.

“이건 분명 호랑 감투라고 하는 그 요술 감투가 틀림없어요. 분명해요! 그 도둑은 사람이 아닌 도깨비구요.”

그들은 이제부터 이 요술 감투를 이용해서 득을 보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날로부터 이 부부는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훔치며 마을 안의 수많은 집을 돌아다녔다. 많은 불평이 관가에 접수되어 엄격한 감시가 계속되었으나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러한 도둑질은 몰래 계속되었다.

남편과 아내의 도둑질은 1년이 넘게 지속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보석 가게에 갔는데,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 문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 가게의 주인이 곧 도착하여 문을 열었고 남편은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

갔다. 주인이 금고에서 돈을 가져와 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 주인은 동전들이 하나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어디에서도 동전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때 그는 실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주인이 손가락으로 그 실을 움켜쥐었더니 바닥에 무언가 떨어졌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요술 감투가 낄기 시작하자 술기에서 실 한 가닥이 풀려 있었다.

주인은 양손으로 그를 움켜잡았지만, 그가 훔쳤던 모든 돈을 돌려주고 요술 감투를 자신에게 넘겨주자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요술 감투를 갖게 된 주인은 일을 등한시하며 그 남자가 했던 것처럼 그 감투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추수철 어느 날 그는 요술 감투를 쓰고 한 부농의 집으로 갔다. 그 농부의 마당은 도리깨를 들고 벼를 타작하는 일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그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갈 때 도리깨들 가운데 하나가 그의 머리에 씌어져 있던 감투를 건드렸다. 그 감투는 너털너털하게 낚아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체가 탄로 나게 되었고 즉시 붙잡혔다.

그는 그 후에 재판을 받고, 처음에 요술 감투를 가졌던 그 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세 명 모두 옥에 갇혔다. 그들은 그곳 감옥에서 오래지 않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설화』, 조성갑趙誠甲, 언양彦陽, 1913, 단국대학교출판부]

과부와 도깨비

그래 인자 호부늬은이가 살거든. 과부가, 젊은 과부던갑다. 사이까네, 하릿저녁에 참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도깨빈가 뿔인가, 도깨비가 오거든. 그래 와가 그래 마 즈그꺼정 우엿던갑더라. 그래 우엿는데,

“뭇가 제일로 소원이고?”카이꺼네,

“돈이 소원이다.” 캐 놓이 돈을 자꾸 갖다 죠(주어).

돈도 갖다 주고 또 없이몬 비단도 갖다 주제. 이거 마마 없는 기 없이 자꾸 갖다 죠. 인자 과부가 싫증이 나는 기라. 인자 그 도깨비하고 이바구를 하는 기라. 저녁에 자면서 즈그꺼정,

“그래 당신은 뿔을 제일로 싫어하노? 무섭노?” 카이 도깨비는,

“내가 뭇 무섭은 기 있나?” 이라거든.

“뭇 아무래도 있겠나?”카이,

“나는 백말피하고 골매이 당산님한테 줄치는 거⁸⁷⁸ 그거 제일로 싫지 뭇 댜 거는(다른 것은)싫은 기 없다.”이 카거든.

그래 인자 또 남자는 또 여자한테 그 카는 기라.

“당신은 뿔이 제일로 싫노?”카이,

“나는 마 돈만 마 짹 갖다 놓으몬 마 무섭어 아이고 나 질색이다.”이라는 기라.

그래 가마 인자 백말로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로 마 사방에 헐고 금구로禁繩 쳤다. 인자 금구로 짹 쳐 놓고 있으이 도깨비가 와 보이 그래 놓고 있거든.

마 뭇 도깨비가 와가 돈으로 마 그런 엽전으로 마 짹 온 집안에 이만차(이만큼) 갖다 자꾸 마 던지가아 던지 놓고 새벽녁에 되이 인자 뿔동산에 올라가며,

878. 금줄禁繩

“아이고, 기집이라고 심중의 말 마래이(말아라). 기집이라고 심중의 말 하몬 낭패다.”카
더란다. 그래 마 올라가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도깨비 다리

The Goblin Bridge

옛날에 신라新羅 25번째 임금 진지왕眞智王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라 안
에 빼어난 미모를 가진 도화桃花라는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진지왕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지 않았고 대신 임금에게

“이 몸은 결혼을 이미 했고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의 부르심에 응할 수
가 없습니다.”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임금은 또 다른 서신을 보냈다. 만약 그녀에게 남편이 없다면 그의 부름을 받아들일 것
느냐는 것이었다. 도화는 임금이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여기고

“틀림없이 그럴 경우라면 이 몸은 궁으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시간이 흘러 임금은 붕崩하였고 이년 후에 그 여인의 남편 역시 죽었다. 홀로 남은 그녀
는 삶이 매우 무기력하고 따분했고 종종 임금의 우스갯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금이 그녀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너는 예전에 만약 남편이 없다면 과인에게 올 것을 약속했다. 지금 남편이 너를 두고

떠났으니 네가 나를 반기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임금은 그녀와 함께 며칠을 머물다가 떠났다.

도화는 잠에서 깨어나 단지 꿈을 꾸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곧 아기를 가졌고 달이 차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도화는 비형(鼻荊)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낌없는 애정으로 보살폈다.

선왕의 계승자였던 진평왕(眞平王)은 그 소년의 기이한 탄생 이야기를 듣고 궁으로 그를 데려왔다. 임금은 그를 자기 보호 아래 두고 최대한 잘 가르쳤다.

소년은 자라면서 신통력을 갖게 되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궁을 떠나서 월성(月城)을 오른쪽으로 날아 넘어서 문천(紋川) 기슭에 내려앉기도 했다. 또 도깨비 무리와 어울려 놀기도 했지만 항상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돌아왔다.

임금은 소년의 이상한 행동에 다소 놀라워했다. 어느 날 임금은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을 엿보기 위해 그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소년을 앞에 불러

“과인은 신원사(神元寺)의 북쪽에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 귀신들과 함께 다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하고 말했다.

비형은 임금의 칙명에 기꺼이 따르고 매일 밤 그의 귀신 친구들을 불렀다. 그들은 일을 나누어 매우 짧은 시간에 거대한 돌다리를 지을 수 있었다. 임금은 매우 기뻐했고 ‘귀신 다리’라고 이름을 지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잘 되어갔지만 귀신 무리가 밤에 다리에 나타나서 지나가는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밤에 감히 다리를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임금은 다리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큰 의식을 치를 것을 명했다. 후에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낮과 밤에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최근까지 젊은 남자들이 다리에 모여 귀신 가면을 쓰고 음악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고 다리에서 경주읍까지 달려가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어느 날 임금은 비형에게 그의 귀신들 사이에 나라의 관리들을 관장할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다.

“뎡이 있습니다. 가령, ‘길달(吉達)’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소인은 그 자가 전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즉시 비형은 길달을 임금의 앞으로 데리고 왔다.

임금은 길달을 보고 그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다. 귀신 길달은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분투노력하였다. 임종(林宗)이라는 귀족[각간(角干)]은 임금에게 가서 길달을 그의 양자로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이 청을 받아들였다.

임종은 길달에게 흥륜사(興輪寺)의 문루(門樓)를 세우도록 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서 길달문으로 알려져 있다.

수년 동안 충성을 다해 일하면서 길달은 그의 직무에 지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여우로 변신하여 도망갔다. 비형은 길달이 행방불명된 것을 알고 찾기 시작했다. 비형은 다른 귀신들에게 길달을 찾게 되면 신임을 저버리고 비겁하게 배신한 그를 죽이라고 했다.

비형은 그의 이름의 언급만으로도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점점 세력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그 지방 주민들은 집의 문기둥에 귀신들과 귀신 자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비형의 공로를 기리는 부적들을 풀로 붙인다.

[『한국의 설화』, 송석하(宋錫夏), 언양(彦陽), 1930, 단국대학교출판부]

도깨비 방망이

The Mallet of Wealth

옛날 옛적에 매우 가난한 소년이 살았다. 그는 매일 나무하러 산으로 갔다. 그의 부모님은 소년이 해온 나무를 팔아서 먹을거리를 사곤 했다.

어느 날 소년은 평상시처럼 산에 갔다. 오후가 되자 배가 매우 고팠다. 그는 주위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운 좋게 그는 숲속에서 자라는 개암나무를 발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개암을 따기 시작했다.

하나를 따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건 아버지 드려야지.”라고 말했다.

또 하나를 따면서는

“이건 어머니 몫이고…….”

세 번째 개암은

“이건 형 줘야지.” 하면서 떴다. 네 번째는 “여동생 줘야지.”하면서 떴다.

“그리고 이걸, 나의 몫.”하며 입에 넣어 먹으면서 다섯 번째 개암을 떴다. 그리고 나서 공복을 채울 때까지 계속 떴다.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해 길가의 성황당에서 묵었다. 그는 홀로 마루에 앉자 섬뜩하고 매우 무서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서까래 위로 올라가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밤중에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소년은 깜짝 놀라면서 살펴보았다. 이내 도깨비 무리가 중앙에 모여더니 누군가가 활기차게 말했다.

“너는 오늘 어디에 있었니?”

“나는 황소의 꼬리를 단단히 붙들었어.”

“나는 효성스런 아들을 찾고 있었어. 그러나 요즘 효자 발견하는 것이 참 힘들어. 그렇지 않니?”

“나는 나쁜 소년을 괴롭히느라 오늘 하루를 다 보냈어.”

“나는 도랑에서 뛰고 진흙에서 거품을 불었어.”

“나는 돌담 틈에서 잤어.”

“나는 마루바닥 밑에서 춤췄어.”

모든 도깨비들이 하루 동안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도깨비가 외쳤다.

“충분해! 모두 마시자. 나는 우리 모두 배고플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한 도깨비가 허리춤에서 방망이를 꺼내 외치면서 마루를 쳤다

“뚝 나와라 투두락 탁-탁!” 즉시 어디선가 뚝 한 시루가 나왔다.

“투두락 탁-탁 술 나와라.” 즉시 마루 가운데 술 한 통이 나왔다. 그들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하자 생선, 고기, 달걀, 빵, 과일, 그 밖에 그들이 원하는 많은 맛있는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도깨비들은 모두 잔치를 즐겼다.

대들보에 숨은 소년은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어두운 빛에 의해 흥청망청 마시며 떠드는 모습을 보고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의 개암을 꺼내 깨물자 ‘딱!’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소리쳤다.

“도와줘! 도와줘! 지붕이 무너지고 있어. 우리 모두 즉시 나가야만 해” 그들은 모든 음식과 방망이를 버려둔 채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 나갔다.

소년은 대들보에서 내려와 배를 채웠다. 그리고 나서 요술방망이를 집어서 시험해보았다. 마루를 치면서 말했다.

“옷 나와라 투두락 탁-탁!” 즉시 옷 한 벌이 나왔다. 그는 다시 방망이를 치면서 신발을 원했다. 이번 역시 나왔다. 소년은 이전까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요술방망이’를 예기치 않게 얻자 흥분하였다.

다음날 날이 밝자 그는 방망이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지난밤에 그가 돌아오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였는데, 개암, 성황당, 도깨비, 방망이 등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였다. 부모님은 방망이를 얻어 이제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기뻐하였고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때 같은 마을에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소년이 살았다. 그의 친구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큰 행운의 비밀을 물었다. 효성스런 소년은 그에게 그가 겪은 일을 모두 말 해주었다.

그래서 부자로 살던 욕심 많은 소년은 개암나무를 찾으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으로 갔다. 오랜 시간 찾다가 지쳤을 때, 마침내 그는 개암나무를 발견했고 배고픔에 개암을 따서 먹었다. 나중에 그의 부모님을 위한 몇 개의 개암을 따서 넣고 참을성 없는 소년은 아직 날이 밝은데도 성황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성황당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대들보로 올라가서 숨었다.

밤중에 도깨비들이 들어와서 방망이로 마루를 치고 잔치를 시작했다. 욕심 많은 소년은 너무 성급해서 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개암을 꺼내 ‘딱!’ 깨물었다.

이번에는 도깨비들이 이 소리에 전혀 놀라지 않고 단지 위를 쳐다 보고 말했다.

“그 놈이 위에 있어. 우리는 두 번 속지 않아. 전에 우리의 잔치를 망친 놈을 끌어내리자.”

욕심 많은 소년은 대들보 아래로 끌려 내려왔다. 도깨비들은 그를 바닥에 앉히고 재판했다.

“이 나태하고 욕심 많은 인간을 어떻게 할까?” 도깨비 두목이 물었다.

“처형해! 처형해!” 다른 도깨비들이 외쳤다.

“너무 가혹해 아직 그는 소년이야. 나는 그의 혀를 잡아 늘였으면 해”

이 제안에 모두 동의했고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그의 혀를 가볍게 두드리며 읊조렸다.

“백 자만큼 길게 혀가 나와라. 투두락 탁_탁!” 즉시 소년의 혀는 백 자가 될 때까지 길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도깨비들은 그를 성황당 밖으로 견어쳤다.

소년은 그의 혀를 등에 메고 다니느라 고통스럽고 피로해서 비틀거리며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은 강에 다다라서 다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혀를 강 건너로 쪽 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야만 했다.

소년은 그의 욕심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인들은 그가 만들어준 다리를 감사하면서 건넜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의 혀 위에 타고 있는 담배를 떨어뜨렸다. 그는 뜨거운 고통으로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효성스런 소년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왔다. 크나 큰 곤경에 빠진 그를 구하기 위해 소년은 방망이를 엄청난 혀에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끌어 당겨라 투두락 탁-탁!” 즉시 혀는 전의 크기대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그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그가 했던 욕심 많은 행동들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한국의 설화』, 정복술鄭福述 언양彦陽 1913, 단국대학교출판부]

지킴을 이용해 부자가 된 총각

모자가 살았는데, 참 살림이 가난하고 그래가 한 번은 총각이 어마씨한테,
“내가 어디 가 돈을 벌어가 오지요. 고상을 하더라도 엄마 혼자 사소.”꼬 이라거등.
어마씨가 암만 몬 가구로 해도,
“내가 돈을 벌어 온다.”꼬 그래.

어디 가가 참, 뗏 해로 뗏 해로 돈을 벌고 사이 그러구려 저검매(자기 엄마) 환갑이 닥쳐. 가마 생각해 보이 ‘아이고, 올 엄매 환갑이 돼 오는구나. 내가 아매 집에 가 봐야 될다. 돈은 얼마 몬 벌었지마는 가야 될다.’

그래 그 날은 좋은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저검매 환갑이라고 왔다. 오다가 저물어가 막

천둥을 하고 비가 짜다리 오고 캄캄 어둡어가 어디로 갈동 뗏이로 모른다.

‘내일 아직(아침)이 올 엄매 환갑인데, 오늘 저녁에는 아무래도 집으로 가야겠는데, 가야되는데...’마 온 산에 비는 짜다리 오고 하는데, 어디서 무슨 희미한 불이 하나 비이거 등. 그래 그리 드가이 허연 노인이 하나 있어.

“주인 있는교?” 커이까네,

“니가 누고?”

“지가요, 너구릅니더.”

“그러머 여어 들오너라. 보자.”

그래 드가이까네 노인이 앉았는데 밑에 꿩뎡이가⁸⁷⁹ 하나 디리졌더란다. 그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라 캐 쌓는데,

“니가 도술로 할 줄 아나?”

“예, 하지요.” 그래 나가가지고 저검매 옷 사 온 걸 입고 도술로 하문 하이,

“너구리치고는 제법 잘 한다.”

“그, 저, 어르신네는 뭐가 제일 무섭은교?”

“나는 담바(담배)가 제일 무섭지. 담바 연기가 제일 무섭지.”

“니는 뭐가 무섭노?”

“지는요, 돈이 제일 무섭습니더.”

“아, 그래.”

그래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인자 날도 다 새어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더.”

“응, 그러머 가거라.” 그래 인자 집으로 왔다.

그 동네에 무슨 지킴(지킴)이 있어가 마실에 니러와가 장 사람을 해롭기해. 뭐 우는 소리가 희한하이 우는 소리도 나고, 우는 소리 들으며 사람이 죽고 이래. 그래 날이 새가 저검매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마실 사람 다 불렀다. 불러가 그래,

879. 꼬리가

“엇저녁에 야 밑에 오이까네 그런 거를 봤다고. 봤는데, 그 아매 뒷산 지껌일레라꼬. 담바를 구해가 가자꼬.”

그래가 마실에 담바를 전부 거다 가지고 밤을 때 가 보이 집은 없고, 밤에 보이 집이디 마는 굴이 하나 커단터란다. 동네 사람들 모다가 거어 가가 담바 불을 붙여가 때이까네 마 배락치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래 마 거어 자빠졌어. 그기 그 산 지껌이라.

그 날 저녁에 집에 와 자이까네 이념 혼이 막 천둥을 하고 소내기가 짜다리 오더니마는 돈을 갖다가 그 념 총각 있는 집 담 말랑아다가⁸⁸⁰ 실어내빠리.

“야 이념아, 니 돈 받아라. 돈 받아라. 야 이념, 돈 받아라. 이념, 니 돈 받아라.”꼬 돈 던지는 소리가 마 좌르르….

그래 이튿날 아직에 나가 보이까네 돈을 얼마나 갖다 주 던져 났던지. 그 총각 모자가 사다가 뉘중에는 그 없는 살림에 부자가 되가 그래 평생을 잘 사더란다. 저검매 잘 모시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몽침이 귀신 물리치고 동료 살린 머슴

넘우 집을 여러 해로 사는 큰 머슴과 절 머슴⁸⁸¹이 사는데, 큰 머슴을 주인네가 내일 모레 장개로 보내는데 이 절 머슴아가 초당방에서 몽침이가⁸⁸² 뭐라 쿠는 소리를 들었어.

880. 꼭대기에다가

881. 작은 머슴

882. 나무베개가

“아무것이야, 나는 아무것이 내일 장개가는데, 저어 아무 고개 가다가 천두복싱이⁸⁸³ 되
어가 가지에 많이 처억 열리가 있거라.” 이리 쿠거든.

“오, 나는 그랄끼이⁸⁸⁴...”

“이눔우 자석, 이거 한 개만 따 묵었이몬 툇 짜바라질⁸⁸⁵ 거 아이가?” 그리 쿠거든.

절 머슴이 들으이 그라더란다. 또 한 놈은 있다가,

“아무 고개 가거덜랑 천두밤⁸⁸⁶이 돼가지고 벌거이 해가지고 아가리를 떡 벌리고 있으
몬 저 놈우 손이 알이 탐이 나이 하나 따 줄라 쿨끼라. 마부인테 하나 따다 줄라 카몬, 그
눔우 한 개 처묵었으몬 마 죽을 끼다.” 이리 쿠거든. 또 한 놈은,

“야! 나는 비게⁸⁸⁷ 거어 터억 들어가 있다가 첫 날 밤에 즈그 비게 비몬 내가 불송곳이
되어가지고 그 놈우 대갈박을⁸⁸⁸ 딱 찢러 주몬 안 죽겠나?” 그러쿠거든.

절 머슴이 가만 생각커이, ‘큰 머슴 저거 아매 죽이겠네.’ 싫어가지고, 신랑 타는 말로 내
가 몰아야 저거로 살릴킨데. 마부에게 몰게하고 날로 못 몰구로 하몬 우야꼬? 하고 수심
을 하고, 장개가는 날 아적에 말 죽을 쫓이가지고⁸⁸⁹ 먹이가 그 마부인테 사정을 하거든.

“여 우리 집에 있어몬, 내가 이 말로 몰고 갔다가 곱기 와가지고 품은 내가 상당하게 줄
테인까네 지발 내 말만 듣고 좀 쉬고 있시오.”

저 놈이 기어이 안텐다 쿠고 가몬서 주인도 호령을,

“니가 와 갈라고?”하고 뭐라쿠지로.

절 머슴 저 놈이 목숨을 떠 받치고 지가 갈라 쿠니 할 수 없이 저 못 이기가지고 저 사람
을 몰리고 간다.⁸⁹⁰

그래 몰고 인자 신랑 고거로 태우고 마부로 해가 가이까네, 참 고개 만딩이에 거게 천도

883. 천도天桃복숭아

884. 그렇게 할 것이니

885. 죽어서 넘어질

886. 천도복숭아 같은 좋은 밤

887. 베개

888. 머리를

889. 꿰여가지고

890. 꼬마 머슴에게 말을 몰게 하여 간다

복성이 주지가 휘청하기 열리가 있으이,

“아! 저거 좋으네. 야 저거 하나 따 오너라.” 마 말로 더 채질로 하고 들은 체 만 체하고
가 뵈었다. 또 한 고개 넘어가이 밤이 있거든.

“밤 저거로 딱 하나 따 무우몬 첫 아들 놓고 참 좋다고. 마 하나 따오라.” 쿠거든.

“안 된다.”

고마 가뵈었다. 화는 두 번은 면했는데, 첫 날 밤에 비게만 빼지몬 조거로 살릴 낀데, ‘야,
이 놈우 우야노? 내가 우에….’

인자 다 자고 상각은 이리 자는데,⁸⁹¹ 문리가⁸⁹² 있는데, 절 머슴이 상방만 채리가지고
비게 빈다 싶으몬 싹 빼가 내빼리 뿔라고 제비문에 요 갖다가 딱 엮디리갖고 있다.

상방 채린다고 주무상⁸⁹³ 뿔 놓고 술 부아 묵고 평풍치고 이래 쌓거든. 명치고⁸⁹⁴ 있으
니까네, 각시 옷 벗기고, 머리 끼루고⁸⁹⁵ 비게를 베고 딱 눕는 기라. 이거로 비게를 싹 빼
가 마당 던지 뿌린까네, 마 벌건 불송곳이 마 나자빠지더란다.

그 큰 머슴이 이 놈우 불송곳이 나뒤편지는거 그거로 보인까네, ‘아, 저 놈이 날로 살릴
라고 저래 따라 왔구나!’ 고래 생각키거든. 그래 날 살렸다고 그 절 머슴으로 지 번 거로⁸⁹⁶
말키 다 주더란다.

“마 내 동생하고 형뎡이하고 고래가 우리가 의논 좋게 사자.” 쿠고, 그래가 잘 사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891. 따라간 종은 종대로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따로 자는데

892. 문지방이

893. 첫 날 밤에 신랑신부에게 차려 주는 주안상

894. 잠자코

895. 비녀를 뽑고

896. 자기가 번 돈을

사이좋은 형제가 얻은 금덩이

옛날 어떤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께 길을 가다가 커다란 금덩이 하나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다.

동생에게 그것을 훔쳐지고 앞서게 하고 형이 뒤를 따랐다. 금덩이를 지고 가는 동생을 뒤에서 보자, 형은 문득 동생을 죽이고 금덩이를 혼자 차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은 깜짝 놀라 저 금덩이 때문에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뒤따라왔다.

동생이 무거워 길가에서 쉬자 이번에는 형이 그 금덩이를 훔쳐지고 동생을 뒤따라오게 했다. 한참을 가다가 금덩이를 내려놓고 함께 쉬면서, 형이 동생에게 금덩이를 지고 가는 것을 뒤따라오면서 보니 무슨 생각이 나더냐고 물었다.

동생은 형을 죽이고 저 금덩이를 혼자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대답했다.

형이 이 금덩이 때문에 우리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죽고 말겠으니 금덩이를 버리자고 하자, 동생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형제는 인연이 있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거니 하면서 그 금덩이를 길 가운데에다 버리고는 길을 갔다.

얼마를 가다가 보니 뒤쫓아 오는 사람이 있었다. 형제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자신들이 버린 금덩이를 주웠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무 것도 지고 오는 것이 없었다. 형제가 그 사람에게 길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이 없더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소똥이 한 무더기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제는 되돌아서 자신들이 금덩이를 버렸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자신들이 버린 금덩이가 길 가운데에 있었는데, 금덩이는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형제는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한다.

운문사 오백 아홉 나한의 유래

예전에 어느 절에 스님이 절도 가난하이 상좌로 동냥하러 보냈는데, 그 상좌가 동냥하러 마을에 내려가이끼네, 누가 조비로 가까 났는데⁸⁹⁷ 아주 잘 가깼더란다.

그래서 그 중이 좋은 조이삭을 끊어가 바람에 영어가지고 그 날 점두룩 땡기다가 동냥을 얻어가 저녁에 절에 와서 바람을 열어 조이삭을 하나 스님한테 올렸는데,

“내가 오늘 아무 동네 동냥하러 가이끼이 조이삭이 하도 좋아가 스님한테 뵈일라고 한 이삭 끊어 왔심다.”

스님이,

“백성들이 그 조비로 가꾼다고 얼마나 욕을 봤다고⁸⁹⁸ 니가 그 조비로 먼지 끊어 왔노? 애라, 이 늙우 니가 그 사람 욕 봤는 값을 할라 카든 니가 소가 돼가 그 집에 가가 삼 년 동안 그 집에 일로 해 주고 오이라.”

그래 그 스님이 소를 만들어가지고 조이삭 끊은 그 집 주인한테로 보내 뿌렸다.

그 집 주인이 성은 황간데, 하로는 일하러 가는데 어떤 큰 소가 한 마리 막 뛰가 집으로 막 들어오는 기라. ‘코끈딩이도⁸⁹⁹ 끼도 앓아고 이런 웬 소가 들어오는 고?’ 그래 그 집에서 그 소를 붙잡아다가 마당에 매 놓고 주인이 찾아올랑가 암만 지달려도 안 찾아와요. 그러구루 삼 년이 됐네. 삼 년만에 오는 그 날 아적에 주인이 방에 앉아 있으인께 대문간에 서 누가,

“황서방, 황서방.” 이래 부르거든. 그래서 문을 탁 여니 아무도 없고 소만 마당에서 있어. 세 번을 그래 부르는데,

“누고? 누가 부리노? 부리는데 왜 나오이 사람이 없노?”

그래 소가 말로 하기를,

897. 조를 가꾸어 두었는데

898.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899. 코뚜레도

“그래, 지가 불렀습니다.”

“니가 손데 우에 말로 하고 날 부리노?”

“예, 본래는 내가 소가 아이고 어느 절에 스님 밑에 내가 상좌로 있었는데, 동냥하러 오다가 내가 이집 조비로 한 이삭 끊어다가 우리 스님한테 바쳤습니다. 스님이 그 조비 끊은 죄로 이 덕에 와가지고 은혜로 갚고 오라고 해 그래 가 왔습니다. 죄 면할라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주인, 내가 한 가지 시킬 테이까네 내 말대로 할란교? 아른 날 아무 시에 이 집에 아주 점잖은 손님이 많이 올터이, 큰 소로 한 마리 잡고, 술로 큰 독에 몇 독을 담고, 음식을 많이 장만 해가 마당에다 덕석을 내 펴고, 명석자리를 둘러 펴고 병풍을 치고, 이래 하믄 좋을 끼라.”고.

그래 참 소가 말로 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고, 그래 참 술로 질 곁은 독에다⁹⁰⁰ 해 열고 큰 소를 한 마리 잡고, 음식을 많이 장만해가 덕석으로 펴고, 명석자리로 펴고, 병풍을 얻어다 막 둘러치고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는 있는 집에는⁹⁰¹ 화적떼가 많이 오더랍니다. 그래 그 화적떼가 그날 그 집에 털로 올라고 배랐어. 그래 그 소가 머이 알고 그걸 면해 줄라고, 그래 화적떼가 내리 닥치는데, 소 한 마리 잡았는 거, 음식 장만 했는 거 아주 가기 전에 대접을 잘해. 다 해 논 뒤에 소가 허물로 흘렁 벗고 사람이 딱 났거든.

“황서방, 황서방, 내가 오늘이라사 조이삭 끊은 죄로 면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이 집 살림을 털로 온 손님인데 내가 다 댔고 우리 절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소가 사람이 돼가 다 가자 쿠이까네 그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 없어 그 절로 따라갔어. 그래 스님인데,

“손님을 댔고 왔다.”고. 그래 스님이,

900. 사람 키만큼 큰 독에다

901. 부자집에는

“우리 상좌는 조이삭으로 한 이삭 끊어도 죄가 많아가 소를 만들어가, 삼 년으로 그 집에 가가지고 일도 해 주고 오라고 보냈는데, 느그는 맨날 놀면서로 넘우 재물만 털어다 묵고 공 묵고 사이, 느그는 마 별일 없이 마 부처가 되그레이. 부처로 내가 맨들어 주꾸마.” 해놓이 저 운문사 오백아흔 나한 부체가 유래가 그랬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임순, 상북면, 1984]

충청도 송립 부락이 양반촌이 된 내력

아주 옛날에 임금이 아래 있는 궁성에는 보통민은 아무도 드갈 수 없거등요. 그럴 직에 오문연 도대장이라 쿠는 사람이 궁성을 지키다 보니까 나라가 평화시럽은데, 임금이 가마이 생각하이까네 아무 할 일이 없다 말이야.

예전에 삼천 궁녀라고, 임금이 자기 맘에 있을 걸으머는 가정 부인이나 아무 부인이나 어떤 부인이라도 마느래 삼아알다 커면은 그침 없는 기거등.

그래 하루는 임금이 가마이 있으йка네, 아주 만구 절색 미인이 하나 그 궁성 앞을 시르르 지내가거등요. ‘야, 그것 참 잘났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골랑,

“야들아, 아주 미인이 하나 지내가는데, 어디 사람인고 하문 알아들라라.” 카йка네, 신하들이 모르는데 어떤 신하가 하나 뭐라 쿠는 기 아이라,

“전하께서 그렇기 알고 싶은교?”

“알고 싶으지르.”

“그 오문연 도대장 마느래 걸습니더.” 이라거등요.

“아, 그래? 오문연 도대장 마느래면 불러 오너라.”

예전에는 임금의 어명이면 뭐 죽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어느 명령인교? 그래 도대장 마느래를 불러 왔는데, 참 과시 잘났는기라. 그래가지고 오문연 도대장 떡 불러 놓고,

“너저 마느래가 그렇금 만구일색이고 잘났으니 천상 나를 줘야 된다 말이다.”

그 뭐 어는 앞이라고, 뭐 막을 도리 없지요.

“예.” 쿠고 집에 가가지골랑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하고 있으이 마느래가 묻는 거라요.

“그와 그래 무슨 걱정이 있길래 식음을 전폐하고 만날 걱정이 그래 많습니까?” 이래 물으이까네,

“야, 이 사람아, 큰일났다. 나라(임금)께서 자네를 줄라쿠는데 어찌 해야 되노?” 이라이까네 여자가 가마이 생각하디,

“아이구, 그 뭐 마땅히 가야지요. 나라의 명령을 어애 거역하는교?”

그래 갈 직에 오문연 도대장이 부탁을 했어요.

“당신을 보내 놓고 내가 보고 싶어 몬 사는데, 한 달에 함문씩⁹⁰² 당신 얼굴을 함 비 두가.”

아, 그기야 어렵지 않다 말이다.

“비 주지요.”

그래 보내 놓고 보름쯤 됐어요. 달은 환하고 이라는데 하도 보고 싶어서 몬 전디가지골랑, 저실⁹⁰³이 됐던 모양이지요. 새벽날에 마느래가 궁녀로 데리고 아람드리 수영버들나무 있는데 우물 거어 세수하러 나올 직에 그 오문연 도대장이,

“하문 보자.” 이라이까네 그 여자가 거절을 하더래요.

“내가 국몬데, 니가 어디서러 감히 내한테 보자 마자 그런 소리가 어딴노?”

말이야 이래 박대한 택이지. 그러니 오문연 도대장이 어찌기 분하던지 거 어서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뿌고 그대로 나가뻘거등.

씨락눈이 살살 와가 있는데 나가니 어떤 노파가 깔때기 짐을 짊어지고 궁성 앞을 시르르 지내가며,

902. 한 번씩

903. 겨울

“온 아침에는 바뻐군. 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쿠거등요.

예전에 전부 짚시기인데 ‘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이라이까네 ‘아뿔사’ 싶으거등.

그래 신을 거꾸로 신고 가이까네, 조사를 하니 요놈우 신이 안으로 들오는 신마 있지 나가는 자죽은 없거등. 자죽 보이까네 여어 궁성 안에 들앓아 있는데, 찾아야된다 말이지. 암만 찾으이 있나 쿠는 기라,

오문연 도대장은 신을 거꾸로 신고 버러 어디라고 갔는데.

어데라고 뗏 날 메칠로 자꾸 가다가 새벽날이 됐는데, 한군데 가이까네 큰 수영버들나 무가 한 나무 있는데, 거기 어떤 처녀가 머리가 초석바디⁹⁰⁴ 곁인데, 땅아 능청능청한 쪽 박쌈에 물로 퍼고 있거등. 그 녀우 쫓겨 가는 녀이 여자보고 또 탐이 났다.

오문연 도대장이 쫓기 땡기는 녀이 목도 마르기사 마르지, 떡 멈춰가지골랑,

“여보시오, 그 남녀 유별하지마는도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얻어 물 수 없습니까?”

이라이까네, 암말도 안 하고 바가지에다 물로 한 바가지 떠가지골랑, 수영나무 이파리로 한 오름 떨어가지고 바가지에 탁 털어 쑥고 뒤로 이래 넘겨 주거등. 이상하다 싶어가 받기는 받아가 인자 묵골랑,

“잘 묵었습니더.” 쿠고 버어뿌골랑,

“여보시오, 그 한 그릇 더 얻어 물 수 없소?”

이라이까네, 그제사 바가지로 깨끗하이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물로 한 바가지 떠가 뒤로 넘겨 주거등. 묵는 체하고 마 버어뿌고,

“잘 무웠습니더.” 쿠고 버어뿌고,

이녀우 처자가 이 물을 이고 어디로 가노 뒤에 가마이 엿보고 가는데 따라가이 산 첫머리 쪼마는 오두막 집을 딱 드가거등.

따라 드가이까네 처자 애비가 큰방에서 채이(키)를 재리고(엮고) 있다가, 뻔히 보디마는도 마 내비리고 쫓아 나와가지고 축담 밑에 가가 국궁(鞠躬)을 하고 딱 앞드리가 있는데,

904. 초석을 짜는 바디

“아, 그럴 거 없다. 일어나. 내가 지내다가 노독이 나가 너저 집에 좀 쉬가 갈라고 들었는데 그랄 필요가 있나? 일어나.”

그래 턱 일나가 방에 들었다. 예전에 백정촌에는 세금도 없고 문서도 없었는데, 피해가 땡기는 작자가 백정촌이 좋거등. 그래 큰방에 와 있는데, 하루 가도 안 가고, 이틀 가도 안 가고, 사흘 가도 안 가는 기라. 채이를 재리야 묵고 살 낀데 채이도 못 재리지러 큰 낭 패났거등. 뒤에 꼴뽕이 한 개 있는데, 죽을 힘을 내가 인자 말을 하거등.

“저, 뒤에 뽕이 하나 있는데, 길로 가시머 어떻는교?” 이래서,

“응, 그 좋지. 거어 가지.”

턱 가가 들았아 한 달 가도 이양 있고, 두 달 가도 안 가는 기라. 가마이 생각해 보이 큰 일났는데, 하릿날은 백정을 불러가지골랑 앓하 놓골랑,

“이 사람아, 너저 딸로 날로 주야 되겠다. 내가 너저 딸한테 장가로 들어야 되겠다.”

백정이,

“죽이머 곱게 죽여 주소.”쿠고 마 국궁 사죄하고 비거등.

“아아, 내 직실(진실)이라고. 내가 공연한 거짓말할 태도 없고, 내가 진실인데, 너저 딸로 날로 줘야 된다.” 이라거등. 그래가 장가로 들었어요.

장개로 들어가 있는데, 참 과시 잘났어. 저저 마느래보다 오히려 더 인물이 만구 절색이라, 잘났어.

하릿날은 저 마느래가 아침(아침)을 묵고 설것이를 해 놓고 생글생글 이래 윗으면 여어 처매다(치마에다) 손을 물로 싹싹 땀머는(땀으면서),

“서방님, 아버지 혼차 별어가는 돈 묵고 사는데, 서방님도 오늘 천상 일로 좀 해야 되겠습니더.” 버들 찌는 낫 길다는 거 한 개 주며),

“이것 가 버들로 좀 찌가 오소.”

평상아 그런 거 해 봤나, 굵은 거 찌야 되는동 잔거 찌야 되는동 뭐 모르거등. 이념우 거 눈이 캄캄하거등.

“이 개울로 쪽 따라 올라가면은 버들을 찌는 텨니더.” 이래 쿠거등.

“아, 그래?”

이거 참 마느래 명령에 못 이겨서 낫을 거머쥐골랑, 굶은 것도 찌고 잔 것도 찌고 이래
떡 찌가 한참 올라가이 서당이 나오거등. 학졸⁹⁰⁵들이 많이 서당아 글로 배우는데, 선생
이 가만 널바다보디마는도,

“저 버들 찌는 백정도 여어 와가지골랑 술 한 잔 하지.” 쿠거등.

아이고, 이념우 소리로 들으이 이거 참 기가 맥히거등.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올라가가
지고 술을, 말 술로 묵는데, 커다는 그룩에 한 그룩 비어 주는거 쪽 마시고, 또 한 그룩 버어
주는 거 쪽 마시고, 시 그룩째 받아 놓고 있으이까 학졸이 하나 헐레헐레 그러미 오디마는,
“야 일마, 야 일마, 좋은 수가 있다.” 이래 쿠거등.

“뭐고?”

“야 일마들아, 저 오다가 하이까네 벽보가 붙었는데, 오문연 도대장만 잡으며 큰 중상
을 주고 벼슬 준단다.”

그 연해 지 소리거등⁹⁰⁵ 절단났다 싶어 술맛도 없어 버들도 찌다 말아 썩어가지고 짙어
지고 집에다 놔 놓골랑 저녁을 묵고 있으이 마느래가 생글생글 윗으미 들와 앞에 딱 앉
디마는,

“오늘 저 우에 그 서당아 가가지고 좋은 소식 들었지요?” 쿠거등.

“그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노? 그 당췌은 말 그만 해라.”

“아이구 마 좋은 소식 들었을 깎니거.”

인들꺼. 이거 뭐 따라와 봤나, 귀신이가 쏘우거등.

그 전에는 백정촌에 세금이 없었는데, 고을 사또가 새로 부임 돼 오고는 백정촌에 세금
을 받아 들로는데, 백정이 가아 가면은 이념우 거 잘 해도 매로 맞고 몬 해도 매로 맞고
오거등. 자꾸 맞고 오이까네 아무도 안갈라캐. ‘이기 큰일났는데 이거로 어떻게 하노?’
쿠다가, ‘그랄 거 없이 세금 가아 가는 사람으로 심지빠기⁹⁰⁶ 하자.’

심지빠기를 하이까네 오문연 도대장 장인이 터꺼덕 걸렸어. 그래 마느래가 저녁을 떡
묵골랑,

905. 그제 자기 이야기거등

906. 제비뽑기

“내일이 관가에 세금을 가야 가야 되는데, 요번에 심지 빼기를 하니까네 올 아버지가 걸렸는데 올 아버지가 갈 수가 있는교? 자기가, 당신이 가야 되시더.”

평소에 걸으며, 지가 죄마 안 지았을 걸으며 그까짓 고을 원 겹은 기야 오문연 도대장한테 대 놓으며 아무 것도 아이지. 그렇지만은 죄인이 되니까네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념우 화약火藥을 짚어지고 불을 드가는데, 할 수 없는 기저등. 잼히거등. ‘하, 짚어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것 참 큰일이거등. 그래 자골랑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묵고, 세금을 쪽 모다 놓은 거 짚어지고 우쭐거리미 관가로 드가이까네, 사령들이 마 야단이거등.

“저거 어떤 녀우 백정이 거만하게 저 따위 짓 하노?”꼬 오라 쿠고,

저 안에서 그 원이 들으이까네 마 야단이거등.

“그 뭐로 그러노?” 쿠이까네,

“예, 이거 어떤 백정인공 아주 너무 거만해서 그렇습니더.”

“그라지 말고 여어 들랴 보내 봐라.” 쿠거등. 그래 떡 들오는데 보이까 오문연 도대장이 거등. 자기 친구라. 맨버선발로 쫓아 내려가가지골랑,

“아이고, 이래 오시는교?” 쿠머 영접을 해가 들오는데, 밑에 사령들이 보이 이상시럽거등.

주찬을 내 놓고 한 잔 잘 주면서 오문연 도대장한테,

“오문연 도대장 그래 가신 후에는 나라가 이거...”

도대장을 탄 사람을 시켜 놓으이 아무리 해도 궁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분란이 나고 이래가지골랑, 오문연 도대장을 찾아가지골랑 그 도대장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머시기가 서가지골랑 찾는 중이라고 말이다. 아, 잘 됐다.”

가마이 생각하이 이념 참말인지 나를 갖다 죽이는지 이거를 모른다 말이야. 예라 마 술 맛도 없고 노다가 집에 떡 돌아가가 저녁을 암마 묵을라고 해도 저녁 맛도 없고 고약커등.

마느래가 저녁을 묵고 또 생글생글생글 윗으미 들오디마는도,

“서방님, 오늘 관가에 가가 좋은 이약 들었지요?”

“좋은 이약은 무슨 좋은 이약?”

“아니더. 좋은 이약 들었지 싶습니더.” 이거 귀신겉이 알거등.

그래 어느 날, 관가서 올라가야 된다 쿠는 명령을 탁 내루고 날은 떡 받아 났는데, 백정

들이 하리 저녁에 전부 회의를 해 모다 농골랑 오문연 도대장한테 톱 끊어 얹아 굴복을 하는 기라.

“그저 올라가시걸랑 우리 송립 부락에 쑥밭마 맨들지 말고, 우아든지 잘 요랑해 주소.” 빌지.

그래 마느래 놔 두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골랑 오문연 도대장을 했지요. 하이까네, 마 나 라가 편코 참 부귀 영화하고 잘 이래 사는데, 처가 곳을 가마 생각거등. ‘그 내 올 직에 그 만땅 그 쑥밭 맨들지 마라꼬 내가 부탁을 받았는데, 에이, 하문 내리가 봐야 되겠다.’ 그 래 거어 떡 내려갔답니더. 내려가가지골랑.

“너저 그 족보책 다 가아 오너라. 보자.”

족보로 전부 가아 와가지고 불에 전부 다 사질러뿌고, 아주 알양반⁹⁰⁷ 족보로 해가지고 쥘 농골랑 저거 마느래를 데리고 가거등. 저거 마느래 데리고 가가지고 부귀영화 잘 사 는데, 그기 어딘고 쿠머 충청도라.

요새는 충청도 양반이 짜진 양반이라 하는데, 옛날 아주 옛날에는 백정이랍니더. 요새 도 충청도 송립 부락이 있는데 예전에는 백정촌이랍니더. 그런데, 요새는 알양반이라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만석, 두동면, 1984]

보리밥 팔진미

옛날에 두 형제간에 이래 살았는데, 형은 아주 살림이 요부하고 잘 묵고 잘 살고, 동생 은 죽도 잘 몬 묵는 이런 처진데, 형이 동생을 좀 살도록 해 주는 그것도 모르고, 몬 사는

907. 참양반

시정(실정)을 전혀히 몰라요.

동생이 형보고 달라 쿨 수도 없고, 자기는 죽만 묵고 이래 사는데, 형 집에 하문씩(한번씩) 이래 가며 동생보고 형이,

“팔진미가 그렇게 맛이 좋다는데, 팔진미 그거로 하문 구해 묵을 수 없나?”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며, 팔진미 있는 텔 아나?”

“알지요.”

“다음에 그러며 나캉 같이 하문 가자. 거어 가서 팔진미로 하문 구해 맛을 보자.”

“그렇게 합시더.”

그래 여름철 아주 날씨가 덥고 이런데,

“그 팔진미 구하러, 맛 보러 갑시더.”

그래 형제간에 나섰는데. 형은 잘사는데 밥도 반찬 없으며 맛 없고, 동생은 죽도 마 꿀맛이라. 둘이서 저 높은 산으로 가.

“산에 가며 구할 수 있다.”

형은 아침에 밥마 좀 묵골랑 그냥 나섰고, 동생은 보리밥을 톱 주먹만침 삼베 수건에 싸가지고 꿈무늬에 미리 이래 찻거등.

동생은 몬사자 카이⁹⁰⁸ 죽을 묵어도 노동도 하고 운동도 하이 산에 갈 힘도 있고 이런데, 형은 그저 여름에 덥으며 그늘 나무 밑에 앉았고, 방에 앉았고 이러이 몸을 안 쓰이까네 산에 올라가기 되거등요. 둘이 올라가는데, 좀 올라가이 덥지러, 날은 덥고 하이 동생보고,

“아이, 동생, 여어 좀 쉬가 가자. 쉬가 가자.”

“쉬가 갑시더.” 그래 인자 씨기(많이) 쉬가지고 올라가거등.

“팔진미 있는 데가 다 돼 가나?”

“아직 좀 멀었습니더. 아직 좀 멀었습니더.”

그래 또 올라간다. 올라가이 동생은 올라가는데 형은 못 견디.

908. 참못살다 보니

“하이고, 이 사람아, 팔진미가 아직 멀었나?”

“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매나 더 가며 되노?”

“아, 조금마 더 가며 됩니다.”

그래 또 둘이 올라가는데, 형이 몬 견딘다 말이지. 날은 덥지러, 산에 올라가이 되지, 배는 고파서 못 견딘다 말이지.

“아이고, 동생, 나는 안 되겠다. 배가 고파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이 동생이,

“그래요?” 자기 꿈무니에 찬, 삼베 수건에 싼 보리밥 주먹 만한 거로,

“그러며 이기라도 잡수소.”

그래 형이 배가 고프이 ‘동생 이거 좀 묵자’ 말도 없이, 그거로 묵는다 말이지. 평소에 곁으면 입에도 안 대는데, 묵으이 이념이 맛이 그래 있어요. 그 형이 혼자서 보리밥 한 덩어리 다 묵고,

“아, 동생, 이기 맛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요? 그기 팔진밍니다. 팔진미라고 판 기 없습니다. 맛 있기 묵으면 그기 팔진밍니다.” 그러니 그 형이 깨달았어요.

‘옳지, 나는 너무 호사시럽어서 쌀밥도 맛이 없다꼬 이래 했는데, 오늘 묵어 보니까 이 보리밥이 이렇기 맛이 있으이, 참 맛이 좋아 묵는 기 팔진미구나. 동생 처지가 아주 살기가 곤란한데, 나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으니 앞으로 인자...’ 집에 내려왔다.

내려와가지고는 형이 깨닫고 그 동생 몬 사는 시정도 알고, 살림을 살도록 노냐 주고, 묵고 살도록 저 그 재산도 좀 노냐 주고, 그 뒤에는 형제간에 돌이가 다 잘살았답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죽은 제자를 살린 황방촌 선생

예전에 황방촌 선생이라고 있었는데요. 방촌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문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충청도 사람인데, 경상도 경상북도, 충청도하고 경상북도 지경인데 경상북도에 장개를 갔습니다.

이제 삼일 재향^{再行}을 갔는데, 가야 인제 말을 타고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마부가 끌고 갔는데, 중간 도중에 가다йка네 우짖 키가 큼직한 늑이 말을 끌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 셴님댁에서 이 하인을 되돌려 보내고, 신랑만 모시고 오랍디다.” 하면서 오르라 하는 기라.

그리йка네 이 신랑이 타고 간 말하고 하인하고 보내고, 그으(거기에) 탄깁니다.

가디이 이 늑이 바아로(밧줄을) 갖고 쫑쫑 동이는(동여매는) 기라, 마부가. 그런께 말 질 매에다 동이더만, 마 질로⁹⁰⁹ 안 가고 산골로 들어가는 기라. 산골로 들어가디이마는 열 매로 들어가디이마는 이 바우 병창(낭떨어지예) 기이 올라깁니다. 올라가디이마는 떡 서 가 그만 발로 말하고 사람을 내리 찼습니다. 꺼꾸로 나동글어 뭐 죽었지 별 수 있나? 말하고 그 사람하고 죽었겠지요.

죽었는 이 사람이 죽은 줄 모르고,⁹¹⁰ 그래 처가집도 못 가고 집에 되돌아 온 겁니다.

되돌가 오йка네 여자가 바느질 하더랍니다. 즈그(자기) 각시가 바느질 하고 있고 즈그 어무이도 뭘 일하고 있더라고. 즈그 어무이인데 가서 말해 봐야 듣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기라. 그런데 각시인데 가йка네 바느질하고 내가 왔다고 해도 본체도 않고 있어. 꽤심하거든.

909. 길로

910.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이거 뭐 와서 어디 갔다 왔으몬, 아, 인사를 하든지 뭐 왔느냐 해야 될 거 아니요?” 귀 때기로 시 차리(세 번) 때렸다. 때리카네 죽는다고 뭐뭐 죽는 소리로 하는 기라. 그라고 뭐 저거 시어머이, 즈그 모친인데 알카가지고(알려서) 마 점쟁이 데리고 온다고 하디이 팔죽을 써가지고 마 끓이고 칼로가 물리는 기라⁹¹¹ 객기라고. 마 그런데 칼로 가지고 막 찌리고 내던지고 하리카네 자기가 찢리 죽겠는 기라.

그래 가 쫓기가 뭐 갈 데가 있나? 집이라 찾아가이 그런 형편이라. 그리까네, 마 아 쫓기가 갈 데가 있나? 선상先生 집에 간 기라. 가이까네, 선상이 떡 누워가 목침을 비고(베고) 떡 누워가 자더라는 기라. 그래 문을 자기는 열고 살 들어가니까네, 앞에 가이 눈을 번쩍 뜨디이마는,

“오, 니 아무개냐?” 이름을 부르고 그라디이,

“너가 죽었구나!” 하더라는 기라.

“아, 우째 그랍니까?” 그러이까,

“너가 죽었구나!” 카암서,

“너 신체로(시체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가자.”

그래 일어나디이마는 옷을 찾아 입고 가자고 하디이마는 장문城門 안인까네, 물론 성문을 닫았는 기라. 저녁에 닫았는데, 그래 가자고 나오이까네, 그 귀신이까네 그 신랑은 뭐 성문의 빈틈도 뚫었다 말이야. 그런데 글로(그리로) 나가고 방촌 선생은 문지기인데 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나가고, 그러이까네, 가 기달려 가지고 같이 간 기라.

“너 있던 데는 알겠지? 너가 사고 난 데를 알고 있겠지?” 하리카네,

“안다.”고 가르쳐 주었어.

자꾸 가디이마는 산골로 들어간 기라. 산골로 들어가이까네, 병창 옆에 가이까네 신체가 넘어져 죽어져 있어요. 아유, 참 사람이 하나 넘어져 죽어져 있어요.

“이거 니 신체다.” 이렇게 한 기라.

911. 객귀客鬼를 물리치는 치방을 한다는 말이다.

“니가 꼭 내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나지 그래 못 하몬 못 살아난다.”

“예, 하지요.”

“신체로 모로 딱 앉히 놓고 말이야, 그 앞에 딱 꿇앉하 놓고, 내가 얼마 되면 니가 혼이 들어가 가지고 보인다.”이거야.

그래 코구영이 요만한 데 들어갈라 하йка네, 들어가겠는교? 이 차차차차 크딩이 코구영이 엄청 커진 기라. 봉창만치 커진 기라. 그래 선생이 궁덩이로 발지로 차 주는 기라. 화닥닥 뛰 들어 간 기라.

그래 깨어난 기라. 깨어나 보йка네 아퍼가 죽겠지요. 온 전신이 피가 흐르고, 전부 병창에 구불어 났으이께, 죽겠지. 누가 물을 떠다 말ियो 어떻게 하든 물을, 신에 떠다가 어떻게 떠다가 물을 먹이고 말이야,

“니가 좀 있어라. 마실에 가서 종군을(가마꾼을) 데려 와야 되겠다.”

그래 마실이 멀지 않아 내려 가가지고 종군을 데려 온 기라. 가매 종군을 둘 데려 와가지고 가매 싣고 집으로 온 기라. 집에 오йка네 집에 다와 가지고 선상은 말이야,

“나는 내 갈 데 가йка네 너는 집에 드가라.”

집에 가йка네,

“아이구, 답답해라. 이기 니가 죽어가 왔느냐?”고.

그 때는 말이야, 혼이 갔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디이마는 막 죽는다고 각시도 울고 나오고 어무이도 울고 나오고 이라는 기야. 그래가지고 인제 집에 왔으йка네 나왔겠지.

그 선상은, 황방촌 선상이라는 분은 귀신 보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난 기라. 선상을 잘 만나 살아난 겁니다. 죽을 사람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힘센 권장군

강릉에 권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을 넘어가몬 월중 오대산이 있습니다. 진부서 들어가면 월중 오대산이 있지요.

거게 도둑놈이 하도 많애가, 장사이까네, 거게 도둑놈 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올리가다이까네 초립딩草笠童이가, 조그만 신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권장군이 왔느냐?” 그러더라는 기야.

“그러몬 우리가, 권장군 여게 도둑 잡으러 왔는데, 여게 기운이 약해가 못 잡으이까네, 어디 시험을 해 본다.”하고 시험을 해 보더랍니다.

갈쥔은 조그만한 초립딩이가 이렇기 하이까네, 갈쥔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물 건네, 물이 많지 않지, 월중 오대산에 내려오는 물이. 그기 한강 상류니다. 그런데 그기 이쪽에 충주로 해가 여주로 해가 내려오는 강인데, 그래 가 훌쩍 건너뛰거든, 꼬마딩이 신랑이. 그래가 권장군이 건너 떨어니까네 마 중간에 가 떨어지는 기라. 여어가 가이몬, 이만치 가 떨어지는 기라.

“아이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못 잡는다. 장사들, 도둑놈이 장사라, 전부 안 된다.”

“그러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모 이 곱배로 하나 해 줄 테이까네...”

손을 가아 한 번 이렇기 나무토막 큰 거를, 작은 구멍을 송곳을 뚫어가 구멍을 뚫고 자리(자루)를 해가,

“이거 가 한 번 땅을 쳐 보라.”고.

쳐 보이 간신히 한 번 때리겠더라.

“간신히 들어도 될 기라. 그럼 가가지고 도둑놈 꼭 자고 있을 테이까네, 손을 막 묶어 놓고 잔단 말이야.⁹¹² 자이까네, 그 떡메로 가지고 한번 가서, 방에 가서 힘대로 한 번 쳐 보

912. 산사山寺의 스님들의 손을 묶어 놓고, 도둑놈들이 자고 있다는 말이다.

라고. 치몬 저 놈들이 줄리가지고(기가 죽어서) 말이야, 할 기라.”고.

그래 가 권장군이 그 떡메로 가져 간 기라. 떡메거든, 그제. 만들어도 봤고, 뭐 강원도에 가몬, 떡메가 굵은 구멍을 뚫어서… 떡메는 크지, 뭐. 그래 가가지고, 이놈들이 자고 있다,

도둑놈들이. 중을 막 묶어 놓고. 그래 떡메로 한 번 힘대로 한 번 쳤다 말이야. 치이 이 놈들이 참 장사가 왔다고 놀래가지고 서둘거든.

“이 놈들 막 묶으라.”고.

마 줄로 묶어뒀단 말이라. 그래 뭐 전부 시키놓고 강릉에다가 기별 한 기라(통지한 기라). 옛날에 강릉에 속한 기라. 거어가, 전부가. 강릉 영서지.

영동은 강릉 본군이고, 영서는 평창꺼정 전부 강릉에 속한 기라. 그래 신평창이지. 영월 하고 평창을 갈라가지고

평창을 해 놓으이. 그래가지고 인제 강릉에 나줄로 보내가지고 포졸이 오이까네, 막 묶어가지고 전부 갔지, 도둑놈들을. 그놈의 새끼들이, 도둑놈이 기운신(기운이 센) 장사만 모아가지고…. 그래 기운이 싹는데,

그래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이 인제 자다이꺼네 꿈결 같은데, 염라대왕에서 온기라.

“너가, 아무데 아무개가, 당시 잡으로 가서, 태시들이 가서 잡으로 갈 수 없으니까, 너가 가서 좀 잡아 와 다와.” 이렇게 하는 기라.

아마 안동에 뭐 그 이름은 뭐 들어도 잊어뒀다. 그래 이제 그랬디마는, 그날이 되어 가이까네, 그만 그 아들네들인데(한테),

“내가 방 거처하는 데.”

딱 옷갓을 하고⁹¹³ 마 두루매기 입고 갓을 씌고 목침 베고 앉아가,

“사흘꺼정 요 내 방을 열지 말라.”한기거든.

권장군이,

“그래 내가 죽은 듯이 있을 기까네 떠들지 말고 내가 굶든지 말든지 문 열어 보지 말고 있으라.”

913. 갓과 옷으로 정장正裝을 했다는 말이다.

그래 인자 꿈에 간 기지. 혼이 간 기지. 그래 그 집에 가이까네, 뽕 돌리(돌리) 아주 탕자 나무를 심어 놓고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한군데 가이 여자가 하나 있어,

“들어오라.” 카던 기라.

그래 복숭나무라. 복숭나무가 세간에(장독간 가예) 하나 숨가져 있는 기라. 그래 들어가 보이까네, 그래 들어간 기라. 들어가서 참나무 몽당으로 대가리로 내리 때린기라. 때리 이까네 그 기운이 싹거든. 그래가 때리가지고 뒷짐 결박시키가지고 잡아댕긴까네, 끌리 나오다가 지둥을(기둥을) 그만 퇴지둥을 거머쥔 기라. 잡아댕긴게 퇴지둥이 빠지더래. 빠져가지고 마 지가 끌고 간 기라. 보내 갖다 주이까네, 참 염라대왕이 고맙다 했겠지.

“그래 네는 가라.” 카더래.

그래 가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내가 꿈인데...’ 참말로 그래 가 사흘만에 깨어났거든. 참말로 거어 찾아간 기라. 찾아가이까네, 뭐 그 집에 장사를 지내느라고 아이고 애고 야 단이더래.

“그런데 이 주인하고 다정한 친군데, 참 사망이 났다 해서 보러 왔다.”고.

가 보이까네 지둥이 자빠졌더라는(넘어졌더라는) 기야, 지둥이 뭐 넘어져 자빠졌더라는 기라. ‘아, 자기 과연 기운 시구나! 내가 참말로 혼이 가가지고도 이렇게 했구나!’ 그래 했더랍니다. 염라대왕이 대신 시킨 기라, 권장군을.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축지법을 쓰는 왕선달

왕선달이 둔갑술로 하더랍니다. 범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런데, 축지로 한다 이런 말이 들리데요.

옛날에 대구大邱 가서 이 한 마실 사람인데 왕선달을 만나 가지고,

“집에 가자. 집에 안 가나?” 이카йка네,

“먼저 가자. 나는 불일이 좀 있어가지고 불일 좀 보고 간다.” 이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 저물게 되자 그냥 집에 들었는데, 이튿날 조기 두동, 연해 두동면 칠조⁹¹⁴ 카는 데, 옷발에 거기 상문을 샀어요. 상문을 가가지고 보이, 왕선달이 거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어 사람인데 물었다.

“왕선달이 언제 왔더노?” 카이,

“어제 저녁답에⁹¹⁵ 해도 안 저서 여게 왔데.” 먼저 와가 떡 있어. 그러이 축지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는 몬해도 범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다 카데요. 그래 그 부인이, 범이 되가 오йка네 몸서리가 나가지고, 그 책이 있더라 캐요. 그거로 사라뿌йка 그마 몬하더랍니다.⁹¹⁶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914. 두동면 비조리斗東面 飛鳥里. 비조리를 칠조라고도 한다

915. 저녁 무렵에

916. 왕선달에 대한 전설에 그 후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죽은 나무를 싸움 붙인 왕선달

점쟁이 소소한 요술 이런 기술은 배아서 목침이 두 날을 신을 붙이가 싸움을 부쳐는데,
지가 슬쩍슬쩍 뭐 주끼며,⁹¹⁷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죽은 나무 두 녀미 마 박치기를 하
고 니 죽니 내 죽니 싸운다. 사술, 사사시런⁹¹⁸ 그런 거를 안거라.

사술이, 술術하는 법이라. 여게 앓아가 뭐라 주께 싸면 뭐를 이루지요. 옛날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요사시럽기나 무슨, 아따, 참 용하다.’꼬 했지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해규, 두동면, 1984]

가물치가 화해서 된 아이

옛날 큰물이 많이 내렸다. 그때 며느리가 불을 때기 위해 소깍빠가리⁹¹⁹를 빼고 있는데
큰물이 지나간 자리에 팔보다 큰 가물치 한 마리가 터득터득⁹²⁰ 뛰거든.

며느리는 이놈을 잡아다 보신하려고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 먹었어. 그 며느리가 이 가
물치를 고아먹은 후에 배가 또닥또닥⁹²¹ 불리. 배가 부르고 열 달을 채워 놓으니 아들이라.

917. 지껄이면

918. 요사스런

919. 소나무가지를 모아놓은 무더기

920. 퍼드득퍼드득

921. 차츰차츰

이 아들은 포동포동하니 머스마가 아주 좋아 그래 잘 키우는데, 그런데 아이 얼굴이 노란거야.

하루는 방갓쟁이⁹²² 손님이 왔는데, 아이 할배하고 아이하고 같이 사랑에서 잠을 잤어, 자미 보니 밤중에 그 얼라가⁹²³ 가물치가 돼가지고 저그 할배 목을 타고 시르르 올라가 거든. 그래 이 방갓쟁이가 채⁹²⁴칼을 꺼내 ‘딱깅’ 소리를 내니 다시 아기가 되어 자리에 눕는 것이 아닌가. 다시 아무 소리가 없으니 또 가물치가 되어 저그 할배 목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튿날 아침에 주인을 만나

“집에 얼라가 얼굴이 노란기..., 그래 아 설 직에⁹²⁵ 어떻게 했나? 사실대로 이약을 하라” 하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아 서를 적에⁹²⁶ 소깍빼까리에서, 소깍을 빼러 가이까네 가물치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왔다. 그거로 한 술 고아 갖고 가족들이 다 묵었는데, 며느리가 하내이 많이 묵고, 그런 뒤로 얼굴이 노랑디이 저 자식 배설렀다.”⁹²⁷ 이라거든

그는 손뼉을 탁 치며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 내가 곤치 주꾸마.⁹²⁸ 빨리 등거리불⁹²⁹을 놓아라. 그리고 자석 하나 없는 요랑하고 그라라고”

그래 주인은 마당 복판에⁹³⁰ 등거리불을 놔 놓으니 아아(아기)를 안고 살폰 갖다 었엇겠다.

그러자 아기는 간 곳 없고 가물치가 불에서 튕겨 나오더란다. 그때야 그 집 공구(권구眷口)들도 탄복을 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종필, 언양면, 1984]

922. 방갓을 쓴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923. 자면서 보니 밤중에 어린아기가

924. 책나이프처럼 접을 수 있는 칼

925. 아기가 들어설 때

926. 설적에

927. 배었다

928. 고쳐주마

929. 장작불

930. 가운데에

구렁이가 화해서 된 아들

옛날에 며느리가 살림을 몬살아 참 가난해가 산에 나물 뜯으로 가йка네 꿩이 꿩꿩 울
어 췌거등. 보이 구리(구렁이)가 꿩을 물고 있어, 참 시어머니에게 괴기도 몬 사다 그래
놓이까네,

“이 짐승아, 울 어머니가 저래 들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떻든지 저 꿩 한 마리 날로 주며
울 어머니로 갖다 디리며 세상에 좋겠구마는. 니 목지 말고 날로 도.” 카이 구리가야 칭
칭 감고 물고 있다가 뉘뽀터란다.

그래 그거 주아 와가지고 장만해가 하문 집어 묵고 눈 어덱은 늙은이로 쥐 놓으이 맛있
다고,

“야야, 이기 뭐고, 뭐고?” 카미 묵더란다.

그런데 하문 묵고 그기 마 아아가 되요, 구리가 양물한다고⁹³¹ 아아가 됐어.

양반(남편)도 없이 머스마를 낳아 놓이 군서방질해가 아아 낳았다고 탄 이가 송(흥)을
해 췌거등.

아가 커가지고 글로 배우러 서당에 가йка네,

“아이고, 저 녀우 자식은 저저 아배도 없는 상념우 자식이다.”고 저거 친구네가 자꾸 이
래 하거등.

“어메, 와 나는 아버지가 없노? 아버지 찾아내라.”고 해.

중이 하나 와가지고 상相을 보고,

“저 자식은 자식이 아이라꼬. 물로 살살 끼리(끓여) 가지고 담가빠라.” 카거등. 그래가
그래 하이 그만 아무 것도 없고 빠가지(빠)만 남더란다. 그래가 살았다 카테.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차생, 두동면, 1984]

931. 양값음한다고

우렁이 각시

옛날에 한 노총각이 아무 할 짓이 없어, 산에 혼차 가가 나무를 해가 팔고 팔밭을 뛰지는데,⁹³² 낮으로 뛰지고 저녁에는 막을 지아 놓고 때때로 집에 와가 밥을 한 손가락씩 꿇이 묵고 이리 하는데,

하로는 집에 오이까이, 오이 반찬강 밥을 이상키 해가 한 상을 딱 채려가 덮어 놔거든, ‘희한하다.’ 좀 묵었다. 저녁에 내려오이 또 고래 놔. 며칠로 그렇게 했다. 그래 가 인자 만 날 팔밭을 뛰지몬 노래를 부린다, 서글퍼가,

“이 팔밭 뛰지 갖고 나는 누캉 묵고 살꼬?” 쿠몬 어데서,

“내캉 묵고 살지.” 이래 자꾸 하거든. ‘이상하다.’

하로는 휘잡을라고 일하러 간다고 가다가 딱 숨어가 있으니까네, 고 시때가 다 되어간 다싶으이⁹³³ 어떤 처이가 살 정지 드가가지고⁹³⁴ 밥을 지아 놓고 상을 딱 채리 놓고 갈라고 삭 나오는데, 마 딱 끌어 안아 뻘다.

“아, 시간이 멀었는데, 사흘만 멀미로 쫓이몬⁹³⁵ 내가 당신캉 배필이 돼가지고 참 평상을 살끼데, 시간이 멀었다.” 쿤다.

그래도 인자 사는 기라. 처녀는 밥을 내 꿇이고, 총각은 밭에 가 뛰지고 이래 사다가 하로는 마 하늘로 득천을 해가지고, 띠고딩이로(우렁이로) 화해가지고,

“이 팔밭 뛰지가 나는 누캉 묵고 살꼬?” 하몬 어데서,

“내캉 묵고 살지.” 띠고딩이가 화해가지고 그랬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금순, 상북면, 1984]

932. 잡곡이나 심는 산전山田을 경작하는데

933. 밥을 지을 때가 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시간이 되었다

934. 처녀가 살며시 부엌에 들어가서

935. 말미를 주면

두꺼비의 보은

일년에 한 분씩 당사⁹³⁶ 제만⁹³⁶을 지내는데, 제만을 지내모 하여⁹³⁶ 사람이 하나씩 죽어. 그래 어데가 점장이한테 물어서 점을 치니,

“처자만 하나 사가지고 그 제만 지내는 밤에, 그 집에다 Ying⁹³⁶어 놓고 그 처자만 하나 주모 해마다 사람이 안 상코 마 쾌안을 기라고.”⁹³⁷ 이러 쿠거든.

그래 다신애미인데 컷는⁹³⁸ 처자로 돈 많이 주고 사가 제만 지내는 그날 밤에 거어다가 Ying⁹³⁶어 놓는데, 이 처자가 클 적에 어떻게 고상을 하고 커 났는지, 나와가 밥 해 놓으모 처자 어마이가 보고 그릇에다 주개로 끓어가 밥 싹 퍼가 가고 싹 붙이가 한 손갈씩 주는 거를 부뚜막에서 묵거든. 묵으모 때때로 저 두꺼비가 잉금잉금 나와 철바다⁹³⁹ 보고 앓았다 말다,

“두껍아 두껍아, 내 묵기도 작는데, 나는 때때로 내 밥 얻어 묵을라고 오고.” 그리 커며 두꺼비하고 만날 갈라 묵고 했는데,

처자가 마 팔 리가⁹⁴⁰ 간다. 두꺼비가 또 왔거든. 팔리 가모 죽을킨데 그거 뭐 밥 물 정이 있나 먹을 생각이? 그래 밥을 안 묵고 두꺼비를 다 쫓다. 그래,

“두껍아 두껍아, 나는 내일 저녁에는 죽는데, 그래 내일 저녁부터는 여어 오지 마래이. 와야 니 밥 못 얻어 묵는다.” 쿠이까⁹⁴¹ 두꺼비가 눈물로 뚜덕뚜덕 흘리고 처자 지가 밥을 안 묵으이까네 두꺼비 지도 밥을 안 묵고 처자가 밥을 묵으이 두꺼비 지도 밥을 묵고 그래.

팔리가 제만을 지내고 동네 사람이 와가 그 집에다 처자를 Ying⁹³⁶어 놓고서는 곁에 문을 탁

936. 해마다

937. 안상하고 쾌안을 거라고

938. 계모에게서 자란

939. 처다

940. 팔려서

941. 말하니까

쟁가 놓고 고마 가뿌거든. 인자 죽기는 죽는데 방에 처자가 토글시가⁹⁴² 앉아가 있으이
까네, 이 늙우 두끼비가 어디로 들왔는지 둘이 조을⁹⁴³ 앉았다. 두끼비를 보고 인자 운다.

“두껍아 두껍아, 니가 마알라고 날 찾아 왔노? 마 집에 있지 마아로⁹⁴⁴ 왔노?” 쿠고, 두
끼비도 울고, 지도 울고, 이래 울고 앉았다. 한 제밤이나⁹⁴⁵ 되이까네, 두끼비가 천장을
쳐바다보고, 눈말기미를⁹⁴⁶ 하고 있거든.

‘두끼비가 이상하다. 두끼비가 와 저렇노?’ 싶어가 이래 천장을 쳐바다 보이까네, 쟁이
장 겘은⁹⁴⁷ 지네가 나와가 천장에 나붙어가 있거든. 두끼비캥 사람캥 쳐바다 보고 눈말
기미를 해가 밤새도록 그래가 있어 썰 날이 되이까네 쟁이장 겘은 지네가 마 땅에 툅 떨
어지더란다. 그 어째.⁹⁴⁸ 두끼비도 안개로 피우고, 사람 안개도 무섭다 쿠데. 사람캥 둘이
들어 안개를 푸아 놓이까네, 연년年年 묵은 이 늙우 지네 그기 사람 녹하⁹⁴⁹ 죽일라고 와
가지고 지가 녹아 죽더란다.

그래 죽이 뿌고 두끼비는 날이 새이 나가고 혼자 앉아가 있었다. 이튿날 아적에 마슬 사
람이 영장⁹⁵⁰ 치짚다고 꺼지기캥⁹⁵¹ 뭉캥 짜더라 가 오이까네 사람이 살아 있고, 쟁이장
겘은 지네가 그래 죽어가 있더란다. 그라고는 그 마실이 편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942. 쪼그리고

943. 나란히

944. 뭐 하러

945. 밤중이나

946. 눈을 부릅뜨고 노려 보기를

947. 키(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같은

948. 그것이 어찌 되었는고 하니

949. 녹혀

950. 시체

951. 가마니쪽이랑

두꺼비와 처녀

옛날에 호불 아바씨⁹⁵²하고 아들하고 부자 간에 사는데, 장개를 보내가지고 며느로 봤어.

그 처자가 클 직에 만날 두꺼비로 한 마리 바라보고 있었는데 처자가 시집을 올라 카이까네 두꺼비가 가매 위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왔는데, 시집에 다 오이까 두꺼비가 살 내리뿌더란다.

그런데, 그 녀우 동네는 정월 보름날 우애끼나⁹⁵³ 일 년에 사람을 하나씩 당수나무 당제堂祭 지내는 데 영어서 직이버리야 그 동네가 편해.

동네 사람들이 죽을 사람 심지를 뽑는데⁹⁵⁴ 거어 걸렸어. 걸리며 안 죽고는 안 됐어. 그래 부자간에 서리,

“니는 죽으며 안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아버지가 그래가 안 되니더. 내가 가야 되니더.” 카고 싸움을 해가 영 절단이거등.

며느리가 가만 보이 기가 차서,

“무슨 이야기고?” 카이까네,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 준다.

그래 며느리가,

“한 공구(권구)에게 왜 안 가르쳐 주는교? 이래가 안 된다고.” 기어이 가르쳐 줄라 카이 가르쳐 주더란다.

그래 며느리가,

“이 집에는 이바씨가 안 계시도 안 되고, 아들이 없어도 안 되고, 여자 내 하나 없는 거는 개얏겠다.”고 이라거등.

“그라이까네, 여자 내 하나 없는 거는 개얏으이까네 내가 대로 가꺼마.”꼬 며느리가 대

952. 홀로된 아버지

953. 어쨌든지

954. 재비 뽑는데

로 갈라 카이 기가 찰 일이 아이가?

기어이 며느리가 가이까네, 기와집을 지아 났는데, 열 나흘날 저녁에 집 속에다가 사람을 딱 Ying가지고 딱 닫아 뿌더란다.

며느리가 그래 있으니 처자 때 밥을 장 주미 키았던 뚜끼비가 살름 들오디마는 각시 앞에 와가 딱 앉거등.

각시는 하마나 죽을란가, 하마나 죽을란가, 암만 있어도 안 죽고, 뚜끼비가 앞에 딱 앉디마는 마 안개를 푸거등.⁹⁵⁵

안개를 푸우가지고 한 삼십 리 밖에꺼정 안개가 나갔어.

사실 삼십 리 밖에 천 년 묵은 구리가 한 마리 천 날 만 날 동네 사람을 일 년에 하나씩 해줬는데. 뚜끼비 안개가 어찌기 심해 놓이까네 못 이기가지고 지절로 없어지고 뚜끼비도 죽었어.

새벽날 되이까네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와가지고 문을 열어 보이꺼네, 사람이 죽기는 뭐 죽어? 눈을 끄쩍 끄쩍 카미 들았았거등. 그래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인자 이 동네 동제에 사람을 제로 안 바쳐도 될 끼이고, 삼 십리 밖에 거게 가면은 무슨 표식이 있을 끼라꼬. 가 보라.”

그래 동네 사람이 가이끼네 짚동 만한 천 년 묵은 구리가 한 마리 나자빠져 죽어 있더란다.

구리 그거로 뚜끼비가 직이뿌리가⁹⁵⁶ 그 동네는 그 해부텅 사람을 제로 안 바치고 그 동네가 잘 되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길순, 두동면, 1984]

955. 독을 피우거등

956. 죽여 버려서

소가 된 상좌

옛날에 어는 중이 상제로⁹⁵⁷ 시주로 하러 보냈거등.

상제가 하리는 시주로 하고 오다가, 어는 제발⁹⁵⁸에 가가지고 뒤로 보다가⁹⁵⁹ 마 제 한 이색이로⁹⁶⁰ 서슴없이 마 뿌아뵈거등.⁹⁶¹ 시주로 해가 오는데 스님이 가만이 보이까네, 상제가 나가가 죄로 짓고 왔거등, 그래가지고 스님이 카기로,

“상제아, 니 오늘 나가가지고 죄로 저질렀네.”

“예, 스님, 죄로 저질렀습니더.”

“니가 왜 그래 녀우 곡식 밭에 드갔노?”

“마 오다가 나이까네 뒤가 마려워 그래 곡식이 그래 돼가 그렸습니더.”

“니가 그 집에 소가 돼가 가가 삼 년을 니가 공을 갚아 주고 오너라.” 이카거등.

마 소가 떡 돼가 갔다. 소가 돼가 삼 년을 농사로 내도록 짓고 그 집 일로 하는 기라. 삼 년 가는 날에 중이 나와가 하는 사람을 맨들어 주거등.

그래 나와가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상제가 돼가지고 시주하로 나왔다가 밭에 드가가 곡식 이색이로 하나 터자뿌가지고, 내가 그 은혜로써 삼 년을 소가 돼가지고 은혜로 내가 갚고 간다고. 오늘 내가 이 집 은혜로 다 갚았으이 소승은 절로 간다.” 카미 그래 가거등. 가이(가니까) 스님이,

“인자 니가 다 갚았나?”

“다 갚았지 싶습니더.”

“다 갚았거등 니가 인자 상제로 들오너라.” 그래.

『한국구비문학대계8-12』 박정상, 언양면, 1984]

957. 상좌를

958. 조발

959. 똥을 누다가

960. 이삭으로

961. 분질러 버렸거등

소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총각의 복수復讐

옛날 어떤 총각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 예쁜 젊은 여자가 밥상을 먹음직스럽게 차려놓고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시장했던 참이라 총각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가 다가와 빨간 젓가락으로 총각의 볼을 찔러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총각은 그만 소로 변하고 말았다.

여자는 소로 변한 총각을 끌고 장場으로 가서 팔려고 했다.

마침 어떤 부잣집에서 아버지 제사에 쓸 소를 사러 와서 여자로부터 그 소를 비싼 값에 샀다.

소를 판 여자는 소를 산 사람에게 이 소는 상추밭 근처에는 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는 가버렸다.

소를 산 사람이 소를 끌고 가다가, 여자의 당부를 잊고 상추밭 근처에 소를 묶어 놓고는 막걸리나 한 잔 마실 생각으로 주막으로 들어갔다. 소로 변한 총각은 여자가 당부하던 말이 생각나서 옆에 있던 상추밭으로 가 상추를 조금 뜯어먹었더니 다시 사람이 되었다.

총각은 그 여자를 찾아 복수를 할 작정을 하고 다음날 다시 산에 나무하러 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먹고 가라고 했다. 총각은 밥을 먹는 척하고 있다가 여자가 다가와 빨간 젓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찌르려는 찰나에 그 젓가락을 빼앗아 재빨리 여자의 볼을 찔러버렸다. 그러자 여자는 금세 지렁이로 변했다.

총각이 찾아보니 여자가 숨겨둔 께쩍이 있었다. 그 속에 많은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와 총각은 부자로 잘 살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사』 엄기출, 온양면, 1985]

돼지와 이가 환생하여 부부가 된 인연

옛날에 저어게 참 남자가 마 거리지매치로(거지처럼) 이리 땡기는갑더라.

이가 많이 있어, 이가. 옛날에 이가 원강 많이 있어, 이가 몸에 많이 꿰거가 저어 반석 옥에(위에), 반석 옥에 거어서 이로 잡았는 기라. 이로 잡아가 마 꺾일 수도 다 없고, 마 이가 많아 내뻘렀어. 자꾸 떠다(떼어) 내뻘렀는데, 그 남잔데, 그래 내뻘렀는데, 그 밑에 그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

돼지가 그 돌 밑에 하나 있었는데, 산돼지가 있었는데, 그래 이로 뭐 원강 많이 떼뻘러 놔 놓이 인자 마 이가 이 잡아묵고, 이가 이 잡아묵고 마, 그 산돼지한테 거어 붙었다.

붙어 마 실텐⁹⁶² 산돼지 그거로 파묵었는 기라. 그래 가 파묵고 마 그래 마 돼지가 죽으이, 천상 이 그것도 죽어야 될 거 아이가? 암만 파묵어도 그래 마 죽어 뻘었는데.

그래 인자 어떤 집에 그기 가가⁹⁶³ 어떤 집에 태있어.⁹⁶⁴

어떤 집에 이하고 돼지하고 사람한테 태있어. 태있는데, 이는 여자가 되고, 산돼지 그거는 남자가 됐는 거라. 남자로 태이가. 그래 마 인자 이거는 여자는 아주 마 요새 걸으모 참 마마 제불 면장집 곁은 이런 집에가 태있고, 좀 꽤얌은(꽤얌은) 집에가 태있고,

그래 인자 저 돼지 저거는 돼지 그거는 마 아주 가난한 우리 곁은 집에 태있는 기라.

저거는 인자 참 무주구천동 곁은 데 가가 솟 굽는 거라, 남자는. 돼지는 가가 솟 굽고, 인자 여자는 인자 그 참 사람을 태이서 면장집 곁은 데, 그런 데 태이 놓이 참 좋아. 암만 시집을 가래도 시집을 안 가는 거라. 만날,

“아이구, 니는...”

그 집에도 외동딸이던 갑더라. 귀엽어 쌓아서러,

962. 실한, 살이 찐

963. 그곳에 가서

964. 환생하였다는 말이다.

“아이구, 나는 바보 온달이나 주꼬? 누로 주꼬? 누로 주꼬?”

“아버지는 평생에 만날 원을 하는 바보 온달이 줄라 캐 놓고 온달이 찾아 내 가야 안 되겠는교? 온달이 찾아가야 안 되겠는교?”

마 하리저녁엔 보따리 싸가 마 가 뿌렸다. 그런 집에, 뭐 그래 조금 이런 데 처자가 갔다 카몬 큰일이거든.

돼지 찾아갔다. 돼지 찾아. 그래 인자 고개 너머 어데로 어데로 마 가니까, 마 자꾸 가이 무주구천동 걸은 데 갔다. 자꾸 이래 가이, 그래 어데 한군데 하얀 할마이가 하나 있거든, 산중에. 산중에 마 막을 메 놓고 있는 거라. 그 바보 온달이 집인 동 누 집인 동 모르지.

“아이구, 좀 자고 갑시더.” 카이까네,

“아이구, 우야꼬? 저런 마...”

그래 놓이 버선 신였는가 마 발도 부르키고 형편 없지, 뭐.

“아이구, 저런 사람이 우에 자는고? 여 우에 자겠는교?”

“어언지요(그렇잖아요). 여 자고가야 되겠다.” 카이까네,

그래 마 그래 인자 서숙을(줍쌀을) 가지고 흰 죽을 한 그릇 꿇이 주더란다. 그래 얻어 묵었단다. 얻어 묵고 그래 있이까네 저녁에 마 시켜면 신랑이 총각이 하나 오는데, 엄두리(터벅머리) 총각이 하나 오는데, 머리캉 새미는(수염은) 이만큼 길었고 마, 범 걸은 사람이 하나 오거든. 거기 온달이라, 마. 거기 온달이라. 그래도 마 지(제) 눈에는 꽤않게(괜찮게) 보이는 거라. 그래 그래 가 인자,

“아이구, 손님이 왔는데, 저 엄마하고 방에 자고, 나는 정지에, 정지 구석에 정지에 잘랍니더.” 카이,

처자가 거어 따라 갔는 거라. 처자가 정지에 남자한테 갔는기라. 그래 가가 그래 마 인연이 뻘뻘갑더라.

그래 마 늙은이 좋아 죽겠거든. 하얀 할마이가 마 기뜰아서(기특해서) 죽겠거든. 그래 마 그래 가 있다. 그래 있는데, 그래 이튿날은 마 숲 굽는다 카이꺼네, 숲 구덕에 갈라 카는 거라.

“나도 한번 가보겠심더.”

갈란다 카는 거라. 그레 마 서죽 죽을, 흰 죽을 꿇이 묵을망정 그레 가보이, 지가 가가 떠
억 보이, 숯 구덕에 앞에 와 이망돌 안 걸어 났나? 돌 안 걸어 났나?

그 처자 눈에 금이라. 즈그는 모리지. 즈그 복에 없으이 모리지. 그레 인자 숯나무, 할마
이가 앓아(날라) 준다고 마 숯구덕에 불 떠 영는 거 앓아 주고 지도 인자 좀 끄질러다(끌
고 가서) 주고 마 그레 어제 아레 그마이(그렇게) 갔는 기 발도 부르키가 마, 그레도 재미
라. 마. 소괴기 육선포에 잘 묵우가 좋은 기 아니라. 그 조비(좁쌀) 흰 죽을 묵어도 그레
마 마 재미라. 그레 인자 숯 한 구덕이 꼽어 내 놓고,

“그레 인자는 하지 말고 이거도 띄가(떼어서) 가자.” 카는 기라.

“이거 이망돌 띄가 가자.”

“이거로 띄가 가몬 그러몬 인자 숯도 못 꼽으몬 우예 살라꼬? 숯도 못 꼽으몬 우예 살라
꼬? 이거로 띄가 가자 쿠노?”

“그런 기 아이라 마 띄가 갑시더.”

띄가 가가, 지고 가가, 딱 가가 요거만치 비가(베어서) 요거만 딱 비이가 그레,

“요 부자가 어데 많이 사노?” 카이,

“저 어데 내려가몬 그레 부자가 많이 산다.” 카터란다.

그레 저게 인자 가져 갔다. 가져 가가,

“그레 당신은 금을 모르이, 이거 나는 모르이까네, 가치대로만 주라.” 췌는 거라.

돈 마이 금액이 얼마 되거나 마 가치대로만 줄라 캐 놓이, 와이고 마 쌀로 몇 가마이나
실리 보내거든. 때복 만났다,⁹⁶⁵

인자. 조비 죽도 안 묵우끼거든. 그레 인자 그레 마 마 산에 나물 췌거든. 나물강 그레 가
마 잘 묵고 이랬는데, 그레 인자,

“또 좀 띄가 가가지고 좀 팔아라.” 이랬는 거라.

팔아라. 그레 가 그 밑에 뭐 뭐 어드메 집하고 논하고 내 났는 기 있는데, 그거로 인자,

965. 횡재를 만났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자.”

이래 가 사가지고 그래 가 머래랑 다래랑 묵고 청산에 살으리라 살으리라.

바보 온달이하고 그 처녀하고 거어 살았는데, 그기 그래 댘터란다. 그래 댘는데, 그기 인연이 이가 많이 있어가 띄가(떼어서) 내비리가 그 돼지하고 이하고 그래 가 사람돼가 그랬단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빵뽀리에 쫓겨 간 호랑이

방아(방에) 이래 안 놔 놓나? 구석에 눕히 났는데, 하도 아아가 울어가 온갖 것 다 준다 캐도 안 근치 가지고,

그래 콩지름 동오(콩나물 동이에) 물로 다 무머⁹⁶⁶ 인자 널찌머(떨어지면) 빵 빵 빵 카미 안 떨어지나? 그래 하도 그래가 인자 할 말이 없어가,

“아이구, 이념우 아아야, 저어 빵뽀리 온다.”

카이(하니) 마 아아 근치거등.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아이구 우야꼬 참, 빵뽀리가 어똥건데⁹⁶⁷ 저기 저러이 아아가 근치노(그치나)?’ 그래 그라고 마 호랑이가 달아나고 그래 마 끝장, 아아는 근치터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억천, 언양면, 1984]

966. 머금으면

967. 어떤 놈이길래

통도사의 구룡

물이 내려가다가 웅덩이가 못 맨치로 돼 가 있는데, 거제 구룡九龍 용 아홉 마리가 들어 있는데, 자장법사慈藏法師가 부符를 써가지고 그 못에 넣어 용 아홉 마리를 몰아냈는데, 용이 여덟 마리는 순조롭게 날라갔는데, 한 마리는 날라가다가 절 입구 방구에 마 받아 가지고 피를 흘리고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그 소에 다부⁹⁶⁸ 드갔다. 저 방구가 보몬 노르 무리하이 돼 있어요. 통도사 지을 적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영수, 청량면, 1984]

모기와 두꺼비의 시합

머구⁹⁶⁹하고 두꺼비하고 그래 인자 내기를 땃거등(땃었거든).

“그래 우리 서울 남대문 앞에⁹⁷⁰ 니캉 나캉 머이 갈 내기를 하자.” 이래 카거등.

머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아이구, 내가 뭐 날라 가도 되고, 두꺼비 저거 기가 내 따라 오도 못한다.’⁹⁷¹ 이래 싹우거등.

그래 인자 이 두꺼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엉금엉금 가고, 머구는 뭐 바람이 함(한번) 불어도 몬 가제, 비가 와도 몬 가제. 그래 인자 두꺼비가 머이 가가지고 옛적에 짚신 떨어진

968. 다시

969. 모기

970. 남대문 가까이에

971. 오지도 못한다

거 하나 떡 깔고 앉았으니까네, 한 그래 있으니까네 머구가 오거등. 웡- 카미 오다이마는,
“아이고, 뚜꺼비 버러⁹⁷² 왔나?” 이카거등.
“나는 버러 어는 때 와가지고 새 신 이거 깔고 앉았는데 신이 썩었다. 나는 인지꺼지 뭐
하고 인자 오노?”
그래 마 뚜꺼비가 이기더란다. 두꺼비가 이겼지. 머이 갔으이 안 이겼나?

[『한국구비문학대계8-12』 이억천, 언양면, 1984]

의붓어미 제비의 횡포

옛날 어느 집 처마에 제비 한 쌍이 새끼 여섯 마리를 쳐서 잘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암컷 제비가 죽었다. 수컷 제비는 혼자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여섯 새
끼를 기르더니, 어느 날 어디서 또 다른 암컷 제비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다.
두 마리의 제비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새끼들을 먹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흘째
되는 날부터 새끼 제비들이 한 마리씩 죽어서 마루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집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죽은 새끼 제비의 목을 따 보았더니 그 속에는 염나무가시가
잔뜩 들어 있었다.
여섯 마리의 새끼들이 다 죽자 어미 제비 두 마리는 다시 새끼를 쳤다. 집주인은 이번에는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새로 친 새끼들은 한 마리도 죽는 법이 없이 잘 자라더라고 한다.

[『울산광역시사』 엄기출, 언양면, 1985]

972. 벌써

뱀의 양갓음과 까치의 보은

옛날에 일꾼들이 나무하러 간다고 지게 목발을 뿌디리고 지게를 지고 떡 지내가이까네, 사람 밖 어덕 밑에 바람낭기⁹⁷³ 하나 섰는데, 이래 치바다보이까네 그 바람낭게 구리가 한 마리 알 내려 물라고 실실 타고 올라 가여 까치 집 안에 드가이까네,

그 까마구가 지 알 물고 간다고 여러 바리가 덮어 써. 그래가지고 짹대기가 끄어 내라가지고 때기장쳐가⁹⁷⁴ 마 직이 뽀거등. 직이뿌리 놓이 인자 까마구 깐치 지사 좋지. 그래가 저저가⁹⁷⁵ 어불러가 갔다.

그러구러 하다가 봄이 가고 여름이 떡 되이까네, 다른 사람 눈에는 봐도 안 비이는데 그 사람 가는 길에는 이런 딸이, 딸싱이가⁹⁷⁶ 이런 기 그 나무 밑에 천지로 열었거등. 아주 좋구로 열어 놓으이 이 아이들이 지내가다가 그 딸로 실컷 따 무우뻘다.

그래가 그 사람은 목고, 그라고부터 노랑이 피부가 통통 부어가 속이 답답어. 일 년을 신고해도 천 없는 약이라도 불사약도 소용이 없어. 그래가 내그리 구불고⁹⁷⁷ 이래 몬 살기가 돼가, 의원도 없고 곤칠 수가 없어.

옛날에 과객쟁이들⁹⁷⁸이 참 영검靈驗이 있었던갑데. 과객쟁이가 가마 보디마는 그래 저게 어떻다고 처방 이박을 하거등. 속에 묵은 일이 없는데 노랑이 통통 안동지동 부어가, 마 천없는 약도 안 듣고 이래 놓으이까네 그래 그거로 하거등.

과객쟁이가 오디마는,

“어떻게 저래 됐노?” 카이 그렇다고 이박을 하이까네,

“그래 그거 그런 후로부터는 일신이 통통 붓고, 누렁 황송이⁹⁷⁹ 붓고, 묵지도 몬하고 마

973. 버드나무가

974. 패대기쳐서

975. 저희들끼리

976. 딸기가, 딸기송이가

977. 내내 구르고

978. 과객들

979. 황도복숭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부어오른 배를 가리킨다.

속병이 돼가 답답아서 가마 저래 앉았다.”고 이라이,

“그럴 기 아이라, 마당아 덕시기⁹⁸⁰ 한 잎 피고, 요띠기(요떼기) 피고 마당아 내다 놓히
라.” 이래 카거등.

저 짝대기가 구리 때리 직있는 그 사람이 그 밑에 딸로 따 묵고 병이 들어가. 그래 인자
구리는 양물을 한 택이라.

그래 인자 마당아다 덕시기로 피고 요떼기로 피고 가마 놓히 놓으니까 온갖 까마구가
다 날라와. 깐채이가 다 나와가 떡 물고 펼쩍 뛰고, 또 한 바리 꺾 찍고 발 뺨디디고 가이
누런 물이 툭 터지고 툭 터지고 사방 그라거등. 그래 한 뒤에는,

“들라라.”⁹⁸¹ 이래 카거등. 들라 놓으이 마 허물 훌쩍 벗어뿌고 마 본데 사람이 싹 돼뿌
더란다. 구리 이거는 양물을 했고, 깐채이 이거는 은혜로 하고 살리 주고. 이 짐승도 구제
해 놔도 괜찮고. 구리는 ‘내 밥으로 와 몬 묵구로 날로 저 저 직있노? 나도 니 양물할란
다.’ 그래 그 자리에 딸이 그래 이만치 됐어. 딸 지망지망이⁹⁸² 몬 따 묵는다 카이.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김종필, 언양면, 1984]

980. 멍석

981. 방안에 들어라

982. 무턱대고

개와 고양이의 도움으로 다시 부자가 된 사람

형제가 있는데, 큰집에는 잘살고 작은집에는 하도나 문살아가, 큰집에는 일 년 일차 마
쌀 댕 가마이 쥐도 까짓거 뿔(볼)에 붙은 밥이고,

늪은이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하도 애로 묵어. 그것도 장개로 보낼 때가 돼 장개로
보낼라 커이 방도가 없어.

결혼하며 보내는 봉채(봉치) 베 보낼라꼬 베 한 도 필 있는 거 그거로 삶아 씹었단다. 거
랑아 방천독에 가가 앉아가 축축 삶아가 씹으니까네, 구리가 굶다는 기 한 바리 나오디
마는 자꾸 늪은이잘에 오거등. 껌이 나가⁹⁸³ 제물 버지기 뜨끈뜨끈한 거로 마 구리에 들
이부어뻘단다. 구리가 등더리가 희끔희끔한 기 익는 거매로 그래가 물에 화닥닥 화닥닥
견디마는 방축 구녕으 드가뿌리이 베로 씹어가 낀지가 집에 와가 널어가 바랜다고 널어
놓았다.

구리 그기 용이라. 봉채 날 받아 장개 보낼라 커는걸 히안하게 알았어.

그 늪은이 이름이 명치인데, 밤에 자이까네 늪은이 이름을 부르더란다.

“명치이 어른 계시는교? 명치이 어른 계시는교?” 커더란다. 그래,

“눈교?” 커며, 호불늪은이(과부)가 막살이 곁은 집 문을 열고 나가이,

“내가 용이다. 용님이다.” 커거등. 아이고, 절단났다(큰일났다).

“용님인데, 너거 아들 장개 보낼라꼬 봉채 베로 씹는데 제물로 내 등더리에 부어가 이
마이 디이 빠져 죽기가 되이, 너거 아들로 온 저녁에 보내며 내가 자아 묵을 끼라꼬. 장개
로 몬 보내도 내가 자아 묵는다.” 이카거등.

와이고, 늪은이가 가마이 생각하이 마 꽃감이 씹을(쓸) 일이라. 늪은이가 봉채 베 씹으
며 제물로 부어 놓이, 장개 갈라 커는 아들로 자아 묵을다 커는데 참 이거 큰일이거등.

983. 겁이 나서

‘내가 죽지 아들로 우애 죽이겠노?’ 싶우거등. 그래서 저녁에 식음을 전폐하고, 일도 손에 안 들리고 그래가 그래 있는데, 아들이 저녁 무우로 왔는데,

“야야, 내가 봉채 보낼라고 베로 씌으며 그래했디마는 용님이라 커머 와가 찾는데 니로 보내라 커더라. 니는 살고, 늙은 기 죽어야 안 되나. 내가 잘못 해가 저질어가 니로 죽일 수 있나. 온 저녁에 내가 간다. 보내라 커기는 니로 보내라 권더라.” 이카йка네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요, 너무 걱정하지 마소. 지 죽일라 켄 직에는 지가 죽어야 안 되는교? 엄매 앞에 지가 살며 뭐하는교? 지 때문에 엄매가 그랬는 거 아인교? 어디 오라 커던교?”

“아무 방천에 저게 오라 커더라.” 어마씨 갈라 커이 몬 가구로 하고, 아들이 가더란다. 효자지. 그래가 방천독에 가йка네,

“니 왔나?” 커머 형체는 안 비이는데 말 소리마 나거등.

“예, 용님요, 왔습니더.” 커이,

“너저 엄매 소위所爲로 보며 내가 니로 꼭 온 저녁에 자아 묵어야 되는데, 니가 왔는 거 마꿈은⁹⁸⁴ 놀랍다. 니 장개 갔다가 첫날 저녁에 각시잘에 머리로 부루지 말고,⁹⁸⁵ 손 대지 말고 내잘에 오나래이. 그 때는 내가 참말로 자아 묵는다.” 이래 커거등. 그래서,

“아이고, 장개나 가야 안 되나.” 이래 커거등. 그래,

“가거라.” 이래 커거등.

“예.”

와가 저녁을 먹는데도, 연해 걱정이다.

장개로 간다. 첫날 저녁에 각시가 들오는데, 실심을 하고 장 수심을 하고 있으이 신부가 머이 말로 하더란다.

“여보, 어째 그래 수심이 많으냐꼬. 오늘 저녁이 어떤 날 저녁이라꼬 수심이 이렇기 많으며 어애 되는냐?”꼬 이래 물으이,

“여차여차하고 그래 뒀는데, 날로 온 저녁에 당신잘에 손대지 말고 오라 커는데, 여기

984. 것만큼은

985. 머리를 내리지 말고

있어도 내가 죽을 판이고, 손대지 말고 오라는 명령대로 가야 내 가정이 안 편겠나. 내가 안 갈 거 겹으며 우리 가정이 또 절단을 낼 낀데, 아무래도 사지도 못할 거, 내가 가야 일이 안 옳은교?” 이카이 그래 신부가 하는 말이,

“나는 남형제가 삼 형제요, 여형제 사 형젠데, 내 하나 희생하며 됩니다. 당신은 하나 자식 외동 아인교? 내가 가겠습니다.” 마 이래 커거등.

신부가 극구 간다고 나서고 남편이 애가 씨이가 아무도 모르기 뒤편 갔거등.

“용님, 계시는교?” 커이,

“누고? 너저 남편이 오지 니가 와 오노?” 이키는 기라. 그 말 끝에,

“예, 남편은 안어른이 청춘에 홀로 돼서 자식 하나로 봐가지고 저래 시는데 어애 용님께 희생을 하겠는교? 지는 여형제가 사 형제시더. 지 하나 희생하는 거는 개앓을 깎니다. 그래가 지가 대로 왔습니더.” 이라이끼네,

“허허이!” 커머 혀로 끌글 차거등. 방천 돌이 납작한 돌 구실로⁹⁸⁶ 내 놓으며서,

“이거 니가 가져 가거라.” 이카거등. 빨간 색 노란 색 색이 두 가진데, 그래,

“그래, 이기 뭇교?” 이카이,

“이기 구실이다.” 커거등.

“이기 무슨 구실인교? 가아 가도 용님께 알 대로 알아가 가아 가야 안 되겠습니꺼?” 커이까네, 그래,

“노란 쪽으는 살림 ‘있어라’ 커머 있는 기고,” 빨간 쪽에는 안 갈차 주거등. 그래,

“이것도 마자 갈차 주이소.” 그래 그카이,

“그거는 ‘용님 없어져라’ 커머 없어지는 기다. 그렇지나 알고 쫓나?” 이래 커거등.

그라이 이 용님을 놔 두고 어떨동 싶어가 빨간 쪽에 마 ‘없이라’ 쫓단다. ‘없이라’ 커이까네 하나도 안 비이디마는 지동까리만한⁹⁸⁷ 구리가 방천독에 와가 마 구불어지거등. 그래 그 구실을 가아 왔단다.

집에 가아 와가지고 저녁에 시택에 바리 갔어.

986. 구슬을

987. 기둥만한

첫날 저녁에 자 본 예도 없고 초저녁에 막바리 와가 친정으 보태는 이기 없어. 이렇기도 없는 오두막살이 움막살이 드가가,

“아이구, 우리 이렇기 없는데 하문 있어 봄시더. 있으이소.” 말로 했거등.

이튿날 전신에 새 각시 왔다고 쌀로 닷 말 가아 오는 거는 닷 말 가아 오고, 두 말 가아 오는 거는 두 말 가아 오고, 서 말가아 오는 거는 가아 오고, 마 쌀이 얼마나 들오는지, 노 적을 하나 가져. 그래 육호 짝 기와집을 짓고 이래가 살았다.

“저 집이 어애 저래 며늘, 장개 가고 저렇기나 되노?”

“그 집에는 어디 가 구실로 하나 주아가 왔는데, 그 구실로 놔 두이까네 살림이 저렇기 부하단다.” 이카이 큰집에서는 마음이 이상하기 든다.

인자 살림이 있으이 괴내기⁹⁸⁸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전신에 잘 묵어.

세상에 우였거나 하리 저녁에 큰집에서러 구실 궤로 도둑해 가아 가뿌리. 도둑해 가뿌이 개 죽 썬어 줄 것도 없는 기라. 큰집에는 구실로 도둑해 가아 연해 부자가 더 되.

강이 어간에 하나 걸렸는데, 그 강 너메 큰집은 살고, 이 강 안에 작은집은 사는 모양이제. 잘 묵던 괴내기고 개고, 마 고기도 잘 묵었거등. 개도 배 고프고 괴내기도 배 고프다 말 이야.

저녁에 호불 나 많은 이는 자는데 내우간에,

“우리가 이렇기 있던 살림이 일시에 없으니 우리가 어애 사노?”

“우리가 우리 집에 구실로 일거뿌고…”

개강 괴내기강 저 동무가 되가 있는데, 주인이 구실 일거뿌었다고 그래 쌓거등. 그래 개강 괴내기강,

“우리 집에 구실로 일거뿌리이 우리가 이렇기 배가 고파 이래가 몬 살겠다. 우리 구실 도둑해 간 데 도둑해러 가자. 우리 구실 찾으러 가자.” 커는 기라.

“우리가 마 어였기나 가자.”

괴내기는 물로 보며 겁을 내고 강 따문에 몬 간다 커이

988. 고양이

“강으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로 잘 히이.”

“우리가 가질 복이 있어가 내내 잘 묵을라 커머 도둑해 오고, 그레이며 우리 복 없으며 우리 몬 도둑한다.” 이카이,

“응당 우리 집에매로 도장방에 Ying 났을 낀데, 밤으로는 내가 뜯으끼 낮으로는 니가 어디 가 도둑해다 날로 먹이라.”⁹⁸⁹ 이커거등. 그라고버텅 이튿날 개강 괴내기강 없더란다.

사흘만에 오는데, 괴내기는 밤으로 그 뚜껍은 문썰기로 내에 쥐이 뜯어 꺾썰기를 뜯어가 구실로 물고 나왔는데 입서버리가 다 불키고,⁹⁹⁰ 괴내기가 구실을 물고 나와가 강따물(강물)에 와가는 개 지가 물고 올라 커제, 괴내기가,

“내 가지꾸마.” 커제, 서리 인자 싸암을 하는데, 개가,

“나는 강으로 니 업고 건너는데 구실로 내가 가져야 일이 옳다 아이가?”

“니 강물 히이가 가며 숨질 가빠서 구실로 일거뿐다.” 괴내기가 하는 말이 이라이카네,

“그러며, 그러며, 니가 물어라.”

괴내기로 물리가 다 나오다가 끝에 나와가 우애 ‘꽤’ 그렸디마는 마 실심록失心을 한다. 괴내기강 개강 그 옥 보고 가아 와가 구실로 일거뿌리가 세상에 수심을 하고 강따물에 있으йка네, 물나부리 치는데 봉에가 굶다는 기 한 바리 튀 나오는거로 퍼뜩 괴내기가 물고 나오더란다. 물고 나와가,

“이기라도 우리 집에 가가 뜯어 묵든둥, 주인네가 해 묵으며 머리나 쫘지강 안 주겠나? 가져 가자.” 구실로 몬 도둑하되 그거로 물고 인자 집에 갔거등.

오이, 주인네가 굶다는 봉으로 이래 배로 따는데 배 안에 거어 그 집 구실이 나오더란다. 천우신조天佑神助라.

그래가 일시에 또 부자가 된다. 그래가 괴내기는 죽으йка네 금강산 꼴썩에 갖다 물어 주고, 개는 죽으йка네 금강산 산 만당아 터로 잡아가 미로 잘 써 주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989. 밤에는 구슬을 담은 꺾썰을 입으로 물어 뜯을 테니까, 낮에는 너가 어디 가서 음식을 도둑해다 나를 먹여 살려라

990. 입술이 다 부르토고

화엄경 덕분으로 승천한 이무기

옛날 어디에 팔십 노모老母가 계시고, 안해로 댜고 살림을 살라 쿠이, 천성시리 못 살아.⁹⁹¹

“이웃 사람은 장사로 해가 잘 사더구마는, 우리는 장사도 안 하고 우에 살고?”

어무이 뭐라 쿠제, 오감사도 짜제,⁹⁹² 살 수가 없어. 지도 장사 한 번 해 볼라고 피눈⁹⁹³ 그거로 가가 돈 열 냇을 받고 팔아가지고 시장에 가이까네,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고는 없고, 파장에 헌 고리썩으로 하나 덮어가 짚어지고 팔로 오는데 그거밖에 살 기 없어. 물으 이까네 돈이 열 냇이라 쿠네. 그거로 열 냇을 주고 사가 짚어지고 집에 오이까네,

“저거로 누가 돈 붙이 주고 살까? 우리 권구 인자 다 골아 죽는다.”고, 어무이 뭐라 쿠제, 오감사도 짜제,

보골(화)이 나가 제 산 고리썩이 짚어지고, 만첩산중 원효대사 도통한 그 골썩이로 올라갔는 모양이라. 올라가가지고 만학천봉 방우(바위) 밑에 고리로 내려 놓고 고리에 뭐 들었는고 싶어가 한 번 헉시⁹⁹⁴ 보이까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래 일곱 자로 써 났는데, 이 글자가 날 찍일 글잔가 살릴 글잔가 쿠며 방우 밑에 앉아가 올매 불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거로 여덟시나 이리 시작해가지고 마 새로 한 시쯤꺼정 몇 시간을 이식토록⁹⁹⁵ 불렀어. 슬프기도 하고, 땀땀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권구들 다 골아 찍이고 나도 골아 죽고 죽겠다.’고 그리 읽으니, 뒤쪽에서 뿔이 철석 하거든. 깜작 놀래가 나가 보이까네, 집동만한 구리(구렁이)가 하나 나자빠져 있는데 그 사

991. 아주 가난했다

992. 어머니는 야단치지, 아내는 짜증내지

993. 뱃과에 속한 한해살이풀 씨, 피

994. 헉쳐

995. 날이 으스스해 지도록

람을 보디마는 구리가 입을 딱 벌리가,

“감사합니다. 내가 용 될라고 천 년을 천상득전을 못하고 이무기로 있었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소리에 온 지녀게⁹⁹⁶ 당신 덕택으로 천상 용이 돼가 득전을 해가 갑니다. 내가 천 년을 물어다가 천왕구바닥을⁹⁹⁷ 땃방석을 Ying어 가지고 내가 깔고 있었는데, 내가 천상득 천 용이 돼가 올라가거들랑 널 아침에 이 방구 밑에 들쳐가 천왕구바닥을 쫓어지고 내려가가 부귀공명하고 잘 사시오.” 쿠미 날개로 벌리고 화광이 등천하고 광명태가 나디이 천상으로 올라갔어.

아침에 떠억 새가 방구로 들바사보이 요새 걸으몬 산호진주라, 천왕구바닥에 들었는 거로, 그 고리 안에 쫓어지고 집에 딱 내리와가, 논을 만마지기 사가 부귀공명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사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용은 물이 있어야 힘을 쓴다

밀양 사람 인관이라고 박인관이 두동 와서 좀 있었는데, 그 분이 이약을 하는데,
밀양 낙동강변에, 주막이 있는 어느 마실에, 장(늘) 보면은 어떤 사람이 관망冠網을 하고, 웃은 도복을 입고 잘 채리가 오는데, 주인이 볼 때 ‘보통 사람강 틀린다’카는 생각을

996. 오늘 저녁에

997. 천상天上의 왕포이 앉는 용상龍床

했는데, 연년이 한 문씩 와.⁹⁹⁸

한 사람이,

“그 틀림없이 용이 분명하이까네 그 용을 날로 만내도록, 그 사람을 좀 만내도록 해 두가.”

그래 하문 한번 와가지고 연락이 됐어.

그래 이 사람이 밖에 와가지고, 자기 뜻을 말하는데,

“내가 아무 데 하천 부지가 있는데, 거어 논을 칠 연구를 하는데, 거어 물도량을 내기 힘이 들어가지고 못 하고 있으이까네, 그 수로를 하나 땡글어 주면 좋겠다꼬 말이지. 그래 부탁을 한다.”꼬 이라이까네 아무 말이 없어.

“물은 없지러(없지)?” 주인절에(주인에게).

“물은 없다.”

또 그래 또 원願을 한다.

“어야든지 좀 그 수로를 좀 내 주소.”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어. 없으이까네, 또 주인절에,

“물을 없지러?” 이카거등. 주모酒母보고 물으이까네,

“아, 거어 참 접시에 쪼매 담긴 물이 있다.”

그카자 막 콧 컷디⁹⁹⁹ 마 거어가 큰 청소淸沼로 변해뿌리. 사람 다 죽어뿌고, 주인도 죽고 다 죽었다. 용은 득천을 하고 그 집테(터)가 청소가 돼뿌고, 그 사람은 간 곳도 모르고, 용은 기뻐지요.

용은 물이 있어야 힘을 쓴다고, 접시물이 있다 카는 소리 나자 마 콧 터지더랍니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안판주, 두동면, 1984]

998. 해마다 한번씩 와

999. 하더니

이무기 이야기

이미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성은 이가고 이름은 미진데, 서당에 글로 배웠다.

아들¹⁰⁰⁰ 한 육 칠명 글로 갈추이 (가르치니) 말이지 그 아가(아이가) 한날(하루) 저녁은 와가, 선생 짚에(곁에) 자는데, 몸이 서늘해. 아이구 야가(이 아이가) 와(왜) 몸이 서늘은 고 여겼다 말이지.

그래가 한날 저녁에는 그 아(아이가) 놀로 가는데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가이, 마실 뒤에 가이 못이 하나 있어. 이 늪에(늪의) 아(아이)가 못 속에 드가디마는 물재주를 하고 덕사 질 (변신하기 위해 몸을 뒤집는 것)을 하는데, 보이까 용이라. 와탕탕기리며 용이 돼.

하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집에 내려와 가 본래 모양 자는 체로 하고 눕아(누워) 있으이, 서당 아(아이)가 짚에 와가 눕는데, 또 찬바람이 쌀쌀 나. 그래 마 잔죽고(잠자코) 짐작만 하고 있었다.

차차 한 해씩 지내고 나이, 어느 해 날이 비가 안 오고 가물아가(가물어서) 대한이¹⁰⁰¹ 돼가 큰일이라, 백성이 대한에 죽기가 났다 말이지. 그래서 이미기라 하는 아로 불렀다. 선생이 개적으로 살짝 불러가

“야야, 만백성이 대한에 물이 없어 죽을 모양인데, 니 물 좀 줘라.”

“아이, 선생님 무슨 말인교? 나한테 와(왜) 그런 말을 하능교?”

“야야, 니 알고 내 알고 니가 내 밑에 글을 배웠기 때문에 이야글 하는데, 사람을 함(한 번) 살림이 안 좋으냐?” 이러쿠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이 내가 거절을 못 하겠심더. 그러나 내가 비를 주기는 주겠는데, 주고 나면은 나는 죽심더.” 이러쿠거등.

“야, 그래 돼가는(되어서는) 안 될 거로.”

1000. 아이들

1001. 크게 일어난 가뭄大旱

“그러나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습더.”

선생님 영수 거역을 안 하고 비는 쥐. 비를 만족하게 쥐. 비를 흡족하게 쥐놓고는 선생
한테 와가 뭐라 커노 하믄

“선생님, 인자 조금 있으믄 중이 하나 바랑갓을 쓰로 나를 찾아 올 모양이니 저 뒷방구
(바위) 밑으로 갔다 카이소.”

그 말만 하나 전해 줄라 켜거등. 그래 그 시간이 되어 바랑 갓을 쓴 중이 하나 찾아와. 그
래 이미지를 찾는다 말이지. 이미지를 찾으이 선생이 뭐라 켜노 하이

“저 방구 밑에.”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

“저 갔다. 공부하로 갔다.”

당장 벼락이 때려가 바아구 다 때려 뿌았거등(부수었거등).

그 아가 어디로 갔나 하이, 저 운문산 장재에 갔어. 그래 그 장재를 이미지 장재이라 카
는데, 이미지가 그리 갔거등. 그리 가가 밀양 산내면 시례 호박소에 들어갔거등. 들어가
가 피했다 말이지. 지는 마 등천을 못 해가, 용이 못 돼가, 깡철이 돼가 심사 굿으면 흥년
을 짓거등.

그래 이미지 잡을라고 힘이 열사라. 힘이 열사인 장군이 철공소 가가주고 쇠파시로 비
늘인을 찌거(끼워) 하나 맹글어가(만들어) 찌고 호박소 들어갔다 말이지. 이미지를 잡아
빨라고 드가이, 한쪽 눈이 징쩍이(굉과리)만큼 한 기 벌시고(벌리고) 앉았으이 겁이나 못
잡고 그냥 티(티어) 나왔다 카거등.

그래 지금도 대한大루이 되면 산내면 사람이 호박소에서 무제(기우제)를 지내거등.

아무것도 모르는 무작한 사람이 호박소에 돌로 던지고 방구덩이를 던져 넣으면, 그 사
람이 내려오다가 피를 토하고 죽거등. 그런 이미지 전설이 있어.

잉어의 보복으로 만들어진 못

한 사람이 저 강에 가가지고 잉어로 한 마리 잡아왔는데, 잉어가 어찌 커 났는지, 한 동
뱅이(토막) 두 동뱅이 쭈욱 거름지게에 얹어서 나눠쫘는데, 한 노인이 그 잉어 가아 온 거
로,

“어디서 잡았노?” 쿠웁서로 잡은 자리로 가서 잉어 뿌렸어. 쪼맨 있으까네 초록동
자가¹⁰⁰² 아아가 하나 따라 오디이마는,

“아이고 어르신요, 이쪽으로 좀 비끼 주소. 이쪽으로 좀 비끼 주소.”

“와?” 쿠이꺼네,

“시간이 바뵈니다.”

“그래 니가 누고?” 쿤께네,

“내가요, 용왕국에서 왔는데, 우째 노다가 몹쓸 거로 물어서요, 내 몸이 희생됐는데, 어
르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날로 환생을 시켰어요. 그래 이 동네로 마 절단을 널라고 어
서 비끼 줄라 줍니다.”

그래 그 노인이 대강 돈 좀 하고 아아로 챙기고 소 몰고 용곡산¹⁰⁰³ 곁은 산중에 가가아
있으이까네,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오는데, 마 몇 시간을 뚜더리더만,¹⁰⁰⁴ 아무것도 없고 못이 천지못
이 됐어. 지금 저어 우에 천지못이 있다 쿠데.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원연, 온양면, 1984]

1002. 초립동이

1003.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산

1004. 비가 많이 왔다

경기도 포천의 빈터

경기도 포천에 빈터라고 있었는데, 군대가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거기 빈터라고 있었는데, 한 집에 그 마을에 집이 아마 열 집이나 열 몇 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집에 노인네가 현몽을 대기를, 허연 노인네가,

“내가 이 아무 요 뒤에 바우 밑에 내가 있는데 문이 없어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네, 나를 문 좀 열게 맨들어 다와.”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꿈에 그래가지고는 참 못정¹⁰⁰⁵을 구해 가이까네 구영이(구멍이) 요만치 뚫어져 있는 기라. 그래 못정을 가지고 디리 뚫은 기라. 그래 이만치 넓게 뚫었던 말이라. 그러이 빠죽이 머리를 낸 기라, 그 구렁이가.

내미를 거를 저기 군대도 장관도(장교도) 아이고 줄병이지, 줄병이 에이 잡는다고 총을 디리 쏘았습니다. 그래 쏘았다고. 몇 발 쏘이까네 오연발 몇 번 쏘이까네 죽었을 거 아니요?

그랬는데 돼기(아주) 크지 않은 모양이야. 바께스 시 바께스라는 기야. 그래 그 부락 사람이 약 묵는다고, 보신한다고 말이야. 그 시 바께스를 짚라가지고 장만했단 말이라. 장만하는 도중에, 맵다 뭐 소내기가 내리 딸고 하는 기라.¹⁰⁰⁶ 아, 그러이 사태가 나고 천둥을 하고 해가지고 그 굴 뚫어 준 사람도 죽고, 그런데, 군대는 안 죽었어. 군인은, 쏜 사람 안 죽고 전부 바께스 담은 사람 다 죽고, 터를 마 다 밀어 가뿌리고 평지가 돼 비웠어. 옛날에 빈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 죽어 빠렸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1005. 끝이 날카로운 정.

1006. 소내기가 퍼부었다는 말이다.

황지潢池의 장자못

황지에 김동지라고 살았습니다. 삼척 황지라고 있어요. 지금 탄광입니다.

거어 물이 어떠한 하몬 이리 낙동강에 내려옵니다, 상류가. 그런데 거게 살았는데, 김동지가 살았는데 하도 구두쇠라. 중이 동냥을 왔으니까, 마구로 치고 있었어요, 주인 영감이 마구를 치다가 중이 동냥을 달라니까,

“거름이나 한 거릿대(쇠시랑) 주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거릿대라고 하는 것은 소 거름 치는 겁니다. 다섯 갈래, 네 갈래, 세 갈래짜리가 있는데, 중이 바랑을 벌렸입니다. 그러이까네, 며느리가 보이까네 참 안 됐거든. 그래 동냥쌀을 좀 퍼가지고 와가지고는 중 줄라이까네,

“얼른 가자고. 큰일 난다고 가자고.”이란 기라.

그래 강아지가 한 마리 쫓아온 기라. 그래가지고 고 재에 올라니까네 그만 거어 물바다가 돼 버렸어요. 집이 없어지고, 그래 가 그 여자가 미륵이 되고, 강아지도 미륵이 되고 이래. 중은 간 곳 없고, 그리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예도 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독자獨子의 고통

The Curse on the Only Son

옛날 옛적에 9대 독자인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윗대 조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9대 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호식虎食의 운명을 타고났다.

호식은 모두가 12살이 되던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래서 어느 날 소년은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그에게 12살에 호식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12살에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12살이 되어 어머니가 흐느껴 울며 슬퍼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 방랑을 시작했다. 이곳저곳 목적 없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울에 당도했다.

그는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보기로 했다. 호주머니에는 백 냥의 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점쟁이에게 가서, 자신의 숙명을 말해줄 수 있다면 가진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점쟁이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점쟁이는 소년의 악운을 점치고 나서 몹시 놀랐다.

그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다.

“호식의 악운이 끼어있는 날, 서울에 있는 김 정승의 집 딸 방에 숨어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길로 소년은 김 정승의 집 문 앞에서 서성대었다. 그렇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다행이도 정승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조금을 드리고 잠시 머물기를 부탁했다. 할머니는 기꺼이 소년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곧 호식으로 죽게 될 운명임을 이야기하고, 9대 조상 때부터 똑같은 운명을 겪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의 슬픈 이야기에 몹시 감동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승의 딸은 할머니 조카였다.

호식의 악운이 낀 날 저녁에, 할머니는 술과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정승의 12대문의 문지기들에게 대접했다. 잠시 후, 문지기들 이 술기운으로 즐기 시작할 때 할머니는 정승의 딸 방에 소년을 들어가게 했다.

마침 딸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방에 없었다. 할머니는 병풍 뒤에 소년을 숨겼다.

이윽고 딸이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일부러 준비해온 먹을거리를 꺼내면서 말했다.

“사랑하는 조카야, 이 할머니가 너에게 주려고 맛있는 것을 가져왔단다. 하지만 방금 저녁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겠구나. 병풍 뒤에 놓아 둘 테니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꺼내 먹도록 하여라.” 할머니는 먹을거리를 병풍 뒤에 두고 집으로 갔다.

딸의 방은 정승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후에 딸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두고 간 먹을거리를 가지러 병풍 뒤로 갔다. 그녀가 병풍을 젖히자 병풍 뒤에 한 소년이 숨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귀신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역(周易)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은 없어지지 않았고, 근심스런 얼굴빛을 하고 앉아있었다. 딸은 놀라면서 조심스레 소년에게 물었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김 정승의 딸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딸은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겨주었고 딸의 은덕으로 소년은 호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 한 명이 놀러왔다. 그는 이 정승의 딸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김 정승의 딸은 친구에게 물었다.

“만일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

자 친구는,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딸은 친구에게 병풍 뒤에 있는 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이 소년은 호식의 운명으로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소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겼다. 두 소녀는 앉아서 호랑이가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 죽게 되어 있는 날 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정승의 집에 와서는 딸의 방 앞에 었드렸다. 그리고는 굵실거리며 빌었다.

“제발 저에게 당신이 숨겨둔 소년을 보내 주세요.” 두 소녀는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잔인한 동물 같으니!” 라고 말했다.

“허락없이 정승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것이다.” 그러자 호랑이는 대답했다.

“저는 이미 사람만 99명을 잡아먹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저 소년만 먹는다면 저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그 소년을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러나 소녀들은 호랑이의 간청에 동요하지 않았고 주역을 외우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정승의 집 주위를 맴돌았다.

이윽고, 첫 닭이 울고 새벽이 되자 호랑이는 사라졌다. 소녀들은 병풍 뒤에서 소년을 끌어냈다. 그들은 심한 두려움에 떨며 기절해 있는 소년을 보고 그에게 미음을 먹였다. 소년은 곧 기운을 회복했다. 그는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소녀들의 은덕에 매우 감사했다.

소녀들은 소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이 시를 짓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소년에게 다음날 치러지는 과거시험을 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출제된 문제와 답을 찾아내, 함께 시를 지었고 소년은 열심히 익혔다.

시험관은 김 정승과 이 정승이었다. 시험관들은 소년의 시를 읽고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다.

결국 소년은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고, 두 정승들이 모두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

을 바랐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었다. 모두 거절했다. 왜냐하면 두 소녀 모두에게 똑같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소녀 모두와 결혼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화목하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을 낳았다.

[『한국의 설화』, 정복술鄭福述, 언양彦陽, 1915, 단국대학교출판부]

해인사의 창건 유래

그 옛날에는 석굴암에도 쌀이 또닥또닥, 그것도 연해 손님이 많이 오며 많이 나오고, 적기 오며 적기 나오고, 요령기 손님대로 나오이까네, 어떤 여자가 쌀 많이 나오라고 부지깽이가 쭈시뿌이까네 낸장 낸중에 쌀은 안나오고 물 나오더란다. 요새 현재 물이 나오고 있다 이기라.

영감 할마이가 팔발을 쪼으며 오막살이에 둘이가 그저 자기 노력대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누런 개가 한 마리 썩 들오디마는 아무데도 가지도 안하고 마 떡 버티고 있다.

이 산골에 자석도 없고 두 영감 할마이 부부가 사다가 개가 들오이 사랑스러워 그 녀를 씨담고 자석같이 사랑해 저 녀를 먹이니, 저 녀 개도 정이 붙고, 영감 할때도 그 개잘에 자정慈情이 굉장히 드갔는데, 한 삼 년을 먹었는데 이 녀우 개가 마 간 곳 없다. 영감 할마이가 어찌 섭섭한지 실심失心을 하고, 마, 어찌 섭섭한지,

한 일 년 지냈는데,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찾아와가 그 영감 할때잘에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거등.

“아이, 아버지, 어머니, 그 동안 참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로 떡 하거등. 그라이까네

영감 할매가 기가 맥히가,

“아, 이 사람아, 자네 곁은 자석이 있더라면 내가 이런 산골에 이래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떤 분인지 젊은 침지가 나를 찾아와가 아버지라 카이,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밑에 삼 년 동안을 묵고 커 나온 그 개입니다.”

청년이 바로 그 개란 말이다.

“그래” 그러이 기억이 난다.

“참 히안하구나. 내가 삼 년 동안을 내 자석과 같이 사랑하기 너를, 내가며 먹이 키웠는데, 인자 완전 사람이 되가지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로 하이까네 기억이 난다.” 이기라.

“내가 용왕국에 용왕국님 아들인데, 허물을 덮어 써가지고 개가 되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이랐으면 내가 생명을 보존을 몬 했을 긴데, 비식을 잘 해가 나를 잘 머석 해 줬으니까 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이 은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껴?”

“아버지 어머니, 내 따라갑시더. 우리 아버지잘에 가면 인사를 많이 받을 겁니더. 그 가면 용왕 아버지가 ‘그래 니가 뭘 요구를 하노꼬, 뭐든지 소원대로 말하라.’ 이런 말을 할 긴데, ‘해인’이라 카는 기 보배가 있는데, 해인을 달라하십시오.” 이래 말을 해.

그래 하이까네, 마 물살이 딱 갈라지는 기라. 그래 드가이까네 용왕국이고 왕인지 앉아 있어. 알래(안내)를 하는데 인사를 하이까,

“그래, 자네가 내 소생 허물을 벗겨 주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지금 자네 소원대로 해 줄 모양이까네, 지금 뭐가 제일 소원이냐? 뭐기나 자네 소원대로 말하라.”

그러이 해인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 아들이 하는 말대로,

“예, 저 소원은 해인을 저로 주시오.”

그러이 용왕이 꼬치 묵은 소리로 한다.¹⁰⁰⁷

“그래, 참 해인을 주는 기 아인데 내가 ‘소원대로’개 났으이까네 준다. 그래 해인을 가져

1007. 아주 난처하다는 말을 한다

가라.” 이기라.

받아 보이까네 뭐 깽개미때로 올방한기¹⁰⁰⁸ 도릇한 거로 종이에 싸가지고 딱 주저둥. 그 래 이 녀를 떡 받아 왔는데, 그 수끼때비 움막에서 팔발 뒤져 묵고 사는 영감이 아무 필요 도 없는 기라. 그래 중요한 거다 싫어가지고 실근¹⁰⁰⁹ 우에 위상을 해 무조건 없어났다.

팔발만 일구고 일로 떡 하고 있는데, 어떤 도술가가 하나 그 노인 집에 찾아 왔다. 그 중 녀미 와가지고 그 수끼때비 움막 밑에 고패를 떡 디리고¹⁰¹⁰ 옆드려가지고,

“어르신네께 큰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소승을 주시오.” 카는 기라.

그래 저 녀를 떡 줄라카이까네, 그 영감은 사용법을 모르이까네 필요 없는 물건이라. 뭐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은이 나오나, 아무 것도 안 나온다 이기라.

“아이구, 저에게는 아무 보배도 없다.”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보배를 저를 주시오.” 자꾸 고패를 디리고 사정을 하는 기라.

“팔발 뒤져 묵고 뭐 수끼때비 움막 밑에 이래가 사는 사람이 무슨 보배가 있노?”

“아, 그러지 말고 보배를 얻어 온 기 있으이 주시오.”

“보배라 캐 봐 몰라 내 여어 깽개미 걸은 거 하나 이것밖에 없다.” 카저둥.

“예, 그거, 바로 그겁니더.”

“그거 내인테는 필요 없으이 자네 가가라.”

그래 중을 주이까네 떡 받아가마 절로 골백 번 하고,

“고맙습니더. 인자 어르신네는 사후死後에고 마 사전死前이고 평생은 저거가 책임지고 위해 드리겠습니더.”

아, 저 중이 가져가디마는 그 해인이라 카는 사용법을 알았네.

영감이 보이까네, 그 해인을 가져가디 하룻밤 새에 절이 탁 세아져뿌리는 기라.

‘협천 해인사라 카는 데는 그 절이 유명하기 지아졌더라.’ 그런 전설이 있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최돌이, 두동면, 1984]

1008. 팽과리처럼 약간 욱으면서 둥그스런 모양을 말한다.

1009. 시렁

1010. ‘고패를 드리다’는 ‘큰 절을 올리다’는 뜻이다.

호랑이와 난쟁이

The Tiger and the Dwarf

옛날 옛적에, 하늘을 나는 새도 잡아 떨어뜨릴 수 있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사냥꾼은 강원도의 금강산으로 사냥을 하러 떠났다. 그는 금강산의 기슭에 있는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사냥꾼이 떠날 채 비를 할 때 할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그에게 일주일의 버틸 만한 식량을 주었다.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내가 그동안 이 산으로 사냥을 하러 떠나는 많은 사냥꾼들을 보아왔지만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우.”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했지만 사냥꾼은 할머니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후 그 사냥꾼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사냥꾼이 사냥을 떠난 이후로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공교롭게도 사내아이는 난쟁이로 자라났다. 다른 어린아이들은 그 사내아이를 아버지가 없다고 하여 자주 놀려대곤 하였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에게 총을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총을 건네주었고 아들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총을 가지고 연습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십 리 밖에서도 내가 지고 있는 물 항아리의 옆에 달린 왼쪽 손잡이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너는 아직 떠나기에 이르단다.”

그래서 난쟁이는 십 리 밖에서 물 항아리의 옆에 달린 왼쪽 손잡이를 쏘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3년을 더 끊임없이 연습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또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바늘을 들고 있을 때 십 리 밖에서도 바늘구멍을 쏘아 맞출 수 있었다. 너는 아직 떠나기에 이르구나.” 그래서 난쟁이는 삼년을 넘게 또 연습을 하였다. 이윽고 그는 십 리 밖에서도 바늘구멍을 맞출 수 있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

는 몇 달을 더 연습하였다.

그래서야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총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다. 그는 어느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바로 금강산의 기슭에 살던 할머니의 집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포수였단다.” 하고 할머니는 말했다.” 그 양반은 십 리 밖에서도 바위에 상처하나 없이 바위에 있는 개미를 쏘아 맞출 수 있었는데, 너도 할 수 있겠느냐?”

난쟁이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과 자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다. 그리고 나자 할머니는 난쟁이에게 몇 달을 충분히 버틸 만한 식량을 주었고 난쟁이는 호랑이를 찾기 위해 금강산으로 떠났다.

그렇게 떠난 후, 어느 날 난쟁이는 바위에 올라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다가와 그에게 불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는 즉시 불을 빌려주었는데, 스님이 곰방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 스님의 입에서 호랑이의 엄니(사나운 짐승의 송곳니)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스님의 가슴을 향해 총을 쏘았다. 스님은 땅에 쓰러졌고,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난쟁이는 계속 길을 가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고구마를 좀 얻어 볼까 하였다.

“매우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고구마 좀 나눠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돌아보지도 않고 할머니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매우 바쁘오. 남편이 조금 전에 총에 맞아 그의 혼령이 나에게 나타났소. 나는 남편에게 이 고구마를 가져가 그의 생명을 살려야 하오.” 그때 난쟁이는 할머니의 손에서 호랑이의 발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는 할머니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할머니는 땅에 쓰러져 죽었고 암컷호랑이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는 샘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서 한 소녀가 물을 걷고 있었다.

“너무나 목이 타는군요.” 그가 말하였다.

“물 한 사발만 줄 수 있겠소?” 그러자 소녀가 대답하였다.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시부모님의 혼령이 나타났거든요. 누군가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나는 이 물을 떠다가 시부모님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그 소녀의 앞모습은 매우 아리따웠지만, 그녀가 뒤돌아섰을 때 호랑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난쟁이는 총을 쏘았다.

얼마 후, 난쟁이가 이번엔 한 젊은 사내를 만나게 되었다. 난쟁이는 사내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내는 그의 부모님과 자신의 아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혼령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위령제를 지내 부모님과 부인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난쟁이는 사내의 다리 사이에서 호랑이의 꼬리를 발견하였고 즉시 사내에게 총을 쏘았다. 사내는 쓰러져 죽었고 젊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로써 난쟁이는 호랑이 식구를 전부 죽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떤 호랑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지 알 수 없었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난쟁이는 계속해서 산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호랑이가 모여 사는 커다란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언덕 위로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들이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수많은 호랑이들이 흥청망청 떠들고, 먹고, 춤추고 있었다.

난쟁이는 유리한 위치에서 총으로 호랑이들을 겨냥해 쏘기 시작하였다. 난쟁이는 많은 호랑이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탄환이 다 떨어져서 모든 호랑이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호랑이들은 난쟁이를 잡았고 난쟁이는 포로가 되고 말았다. 호랑이들은 난쟁이의 식량이 든 보따리를 취하고 난쟁이를 호랑이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거대한 호랑이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호랑이는 난쟁이를 쏘아 보더니 이야기했다.

“이 난쟁이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죽이고 나의 생일을 망쳐놓았다. 나의 친척일가가 모두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놈이 그 범인인 것 같다. 20년 전에 우리가 잡았던 녀석처럼 이놈과 이 총은 큰 위협이 된다.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난쟁이는 이 호랑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분노가 끓어올

랐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호랑이가 이야기하였다.

“이놈은 대장님의 생일 요리로 맛이 좋을 것 같은데, 한 입에 잡아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모든 호랑이들이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

그러자 대장 호랑이는 난쟁이를 들어 한 입에 삼켜버리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총과 모든 것들을 이어서 꿀꺽꿀꺽 삼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가 말하였다.

“이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간에 기별도 안가는 걸.”

난쟁이는 호랑이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촌락처럼 커다란 장소였다. 그곳엔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한 구석에서 난쟁이는 총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총이었다. 총 옆에는 유골이 흩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의 유골인 듯했다. 그래서 난쟁이는 그 유골들을 모아 자신의 보따리에 담았다.

다른 구석에서 난쟁이는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였다. 난쟁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돌봐주었고 결국 그녀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호랑이의 몸에 구멍을 내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날카로운 것들이 있나 찾아보았다.

운 좋게도 난쟁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칼을 찾아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호랑이의 안쪽 뱃가죽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을 볼 수가 있었다. 소녀는 바깥을 통해 호랑이가 들판과 바위, 해변, 그리고 산의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다. 그러는 동안 난쟁이는 다시 재빨리 호랑이의 옆구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난쟁이와 소녀는 매우 배가 고팠기에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난쟁이는 자신의 머리 위에 호랑이의 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잘라냈지만 먹기에 적당치가 않았다.

그 순간 대장 호랑이는 큰 고통에 시달렸고 그 고통에 큰 소리로 신음하였다. 다른 호랑이들은 대장 호랑이가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대장 호랑이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호랑이 무리 중의 하나가 사과와 배를 먹으면 고통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대장 호랑이는 모든 과일들을 낚아채어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난

쟁이와 소녀는 호랑이의 뱃속에서 그가 삼킨 과일들을 먹고, 호랑이가 샘에서 물을 마셨을 때 자신들 역시도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호랑이의 고통은 끊임없이 악화되었고 호랑이는 더 이상 서 있을 만한 힘도 없었다. 호랑이는 고통에 미쳐버렸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울부짖고 허공을 향해 할퀴고 심지어는 다른 호랑이들까지 공격하였다.

마침내 호랑이는 맥이 빠져 잠잠해졌다. 난쟁이는 아직 호랑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칼을 가지고서 호랑이 뱃속의 여러 장기들을 잘라내었다.

호랑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자 난쟁이는 호랑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녀와 함께 호랑이의 배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킨 대장 호랑이 옆에 모든 다른 호랑이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난쟁이와 소녀는 그 커다란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난쟁이는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머물렀던 집의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의 머리는 난쟁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완전히 백발이 되어있었다.

할머니는 난쟁이와 소녀와 함께 난쟁이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난쟁이의 집에 도착하였고, 난쟁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며 매우 기뻐하였다.

난쟁이는 호랑이 무리가 죽어서 금강산에 널려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곳으로 다시 가서 호랑이 가죽을 모두 벗겨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난쟁이는 아버지의 유골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소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소녀의 부모님을 만나 뵈었다.

소녀의 부모님은 어느 날 호랑이에게 잡혀간 소녀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소녀의 아버지는 정승이었는데, 그는 난쟁이를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난쟁이와 정승의 딸은 혼인을 하였다.

호식으로 죽을 운명

한 사십대 된 사람이 산중에 집안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라. 차로 타고 산중에 가는데, 호식할 팔자는 지절로 씨인다고,¹⁰¹¹ 저녁에 막차쫓 댔지, 차가 산중 질로 간께나, 자꾸 산신령이 나와가 질로 가로막아 쫓아 다시(도무지) 차가 몬 가. 그 짐승을 쫓구고 확 들 이밀고 갈라 커이 이념우 운전수가 ‘저 짐승을 쫓구며 안 될다.’ 싶어가 자꾸 머무이까,
“우리가 다 내리 봅시더.”꼬 내릴라 커이 밤 열 시쫓 댔는데, 사람이 무섭어서 모두 안 내릴라 캐. 운전수는 알고,¹⁰¹² 차에 앉은 사람도 환한 질게 짐승 불이 새과라이 커디는 기 마 자꾸 질로 가로막아. 그래,

“정 안 내릴라 커거등 우리가 옷을 한 가지 벗어가 다 던져 봅시더.”

운전수가 이카이까네, 차례차례대로 옷을 벗어 던졌거등. 호식이 아인 사람은 옷을 벗 어가 던지이 고개를 외면하고, 사십대 될 딱 한 사람이 우와기¹⁰¹³를 벗어가 하이까네 딱 우와기로 입에 물더란다. 그기 호식할 사람이라.

“이 사람 부로(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시간을 어리출(늦출) 수 없고, 이 질로 몬 가고 이 야밤에 차가 여어 있기 되이까네 내리소꼬. 하문 내리 보이소.”

그 이가 내리가지고 머뭇머뭇 가이까네 그 산신령님이 이래 영접을 해가 엿보고 있더라. 사람이 어느 새에 내리가마 참 지 죽을 때가 되이 그래 날째게 올라가더라 카네. 끝대 로 올라가가 떡 나무를 안고 앉더라. 그 사람도 언간하제?

그래, 올라가가 있으이 여산대호가 뻥히 치바다보고, 나무를 세아 놓고, 빙빙 도더라. 차가 올라가미 보이 자꾸 사람을 우에 올려 놓고 빙빙 자꾸 도더라. 빙빙 도이 그 사람이, 에더러 고시라지더라¹⁰¹⁴ 커는 기라. 에더러 죽더라 커는 기라. 호식할 팔자는 그 사람을 물어가 안 죽이도 혼을 빼가 죽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1011. 흘렸다고

1012. 호랑이인 줄을 안다

1013. 저고리

1014. 꼬꾸라지더라

호식 당할 사람은 독에 들어가도 못 면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점을 하니까네요, 아무 날 아무 시에는 발 주인을 호식할다¹⁰¹⁵ 커 더랍니더. 그래가,

“어야면 그거 면하겠노?”꼬 물으니까네 점받치가 그래,

“그 날 당하거들랑 새복에 사랍(사립)을 띠 내고, 삼작 구틀로 파 내고, 거게 단지로 하나 묻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 놓고 소두뱅이로 두부(도로) 덮어가, 표 없이 사랴를 달아 놓고, 그 날은 아무가 오더라도 ‘나간 지가 버러 오래고 없다.’ 꼬 자꾸 잡아 떼며 그 시時 마 넘기며 어짜며 살란강도(살런지도)…”이라더란다.

그래 그 점바치 말대로 그 날 새복에 삼작 구틀로 띠 내고, 거게다 단지를 하나 묻고, 호식할다 커는 사람을 거어다 묻어 놓고, 소두뱅이 두부 덮어가지고 말키 표 없이 묻어 놓고 삼작을 달아놔란다. 달아 놓으니까네 처음에는 여사 사람이 하나 오더란다. 찾는 거로 그래,

“없다.” 커이카네,

“오늘 만넬라꼬 똑 응구應口를 해 났는데, 꼭 있을라 켜는데.” 쿠머 그래 돌아가더란다. 좀 있으이 중이 하나 오더란다. 중이 또 와가지고 찾는 기라.

“없다꼬. 나간 지가 버러 뭐 뗏 달이 났는데 소식을 모른다.”

“오늘 꼭 만넬라꼬 응구를 했는데, 절에 올라 커던데 그 양반이 와 그런공?” 꼬치 무운 소리로 하고¹⁰¹⁶ 들오다가 돌아가디마는, 또 한 시간쯤 있으이까네 여자가 하나 얼라를 없고 와가 또 찾거등. 찾는 거로.

“없다꼬. 모른다꼬. 마 어테로 간동 모른다꼬. 버러 나간 지가 오래 되가 소식이, 소식이 없다. 없다.” 커이까네,

1015. 바깥주인을 호식虎食하겠다

1016. 이상하고 미답지 않다

“없을 택이 없는데, 어딜 가고 와 모르노꼬? 그 녀우 사람이 세상에 자석을 낳아가지고 이만침 키우도록 하문 오지도 안 하고, 당장 찾아내라.”꼬 마 처매를 쥐뜯고 달라드이까네, 그 여자라 커는 기 마음이 야살프지. 그렇거나 말거나 없다 캐야 될 낀데, 이거 마 도 분이 났다.¹⁰¹⁷ ‘어디 가 날 모르기 여자를 정해가지고 자석을 낳아가 저마이 키우도록 날로 식이던가베. 그래가 마 이 여자가

“오냐, 이년아, 니 사나 저 삿짝 구틀 밑에 들었다.” 그러이까네 마 어느 여게 아아도 어데 가뿐동 없고, 여산대호가 되가 뗏 발 안 끄리비디마는¹⁰¹⁸ 소두뱅이가 드르륵 걷디마 내려가가 물고 가뿌더란다.

시간이 돼 놓으이까네 뗏 번을 둔갑을 해가 참 물고 가뿌리.

독 안에 들어가도 그 호석할 팔자를 참 못 면했어. 그래 ‘호석할 사람은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1017. 화가 났다

1018. 굼더니만

수살로 죽을 운명은 벗어 날 수 없다

이전에 한 사람이 들에 가 논을 매놓고, 덩벙이 근가작게¹⁰¹⁹ 담배를 딱 한 대 물고 있으니까네, 껍쾌한 소년이 모시 한삼 모시 두루막을 입고 혈레혈레 대기 바쁘기 오거등.

그래 ‘의복을 저래 참 잘 입고 처리 날개같이¹⁰²⁰ 입고 어애 저래 오느냐?’ 싶어가 거퍼 담배로 푸머 보이까네,

마 살대같이 오디마는, 덩벙 따물에 방천 뚝이 하나 있는데, 한삼 모시 중우 적삼이요, 두루매기요, 재끼(조끼)요, 일십을 딱딱 벗어가 방천 뚝에다 얹어 놓고 언제 가 붙잡을 여개도 없이 발로 우로¹⁰²¹ 올리고 덩벙에 거꾸로 쳐박기는데 마 감당이 불감당이라.

담배를 쫓다가마 기가 딱 차가 덩벙에 갈 정이 안 나. ‘발이 우로 올라 왔는데, 사람이 저래 되며 죽었는데.’ 그거로 보고 덩벙 따물에 갈 정이 없어.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사람이 마 죽었더란다.

사람을 보고 놔 둘 수는 없고, 가가지고 수검포자리로¹⁰²² 가야 실 앞을 밀우이까네 끄 지끼(끌려) 오는데, 꺾지가지고 방천 뚝 그 옷 짚에 놓고 집에 갔는 기라.

그 대소가가 어복 다 시는데, 원절로 나 많은 노할배가 있는데 책을 이마이 동개(썰아) 놓고 참 유식잔데, 집에 가이, 영겁절에 우알 수가 없어가 ‘나 많은 우리 할배가 모르는 일은 없는데.’ ‘우리 할배짚에 가 이약을 할 껴밖에 없다.’ 그래서 선걸음에 할배짚에 이약을 하러 갔거등.

“할배요, 아무 논에 논을 매다가 지가 나와가 앉았으이까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낫은 두름에 꺾지 내 놓고 왔는데, 우애야 되겠는교?” 이카이,

1019. 웅덩이에 가깝게

1020. 잠자리 날개같이

1021. 위로

1022. 삽자루를

“그 야, 그런 수가 있다.” 이쿠저등.

“할배요, 우째요?” 커이까네,

“너거는 몰라 그렇지, 그 덩병아¹⁰²³ 사람이 삼 년 두루(마다) 하나씩 실패를 당는다. 니가 객지에서 여어 와가 우리 농사를 짓는 거를 좀 부치고 있제. 내가 수십 년 이 골짜에 늙어서 이래 있는데, 혹은 그런 일이 있다.” 이쿠저등.

“그러며 죽은 사람이 눈동(누군지), 할배요?” 이칸다.

“그거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이 책에 볼 때는 물에 빠지는 사람이 줄로써 빠져 죽는다.”

“할배요, 무슨 줄입니까?”

“한 대代에 내 자석이 장차가(다 커서) 물에 빠져 죽으며, 그 몇 대 내려가 그 후손에 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

“할배요, 그럼 후손이 빠져 죽으면 내력이 있는교?” 커이,

“내력 있지.”

“그러며 우째서 내력 있는교?”

“왜냐 커며, 언제기나 수살水煞이 물에 있기 때문에, 그 대代에 잡아 가는 기 아이라, 그 자석 대대로 그런 일이 하문씩(한 번씩) 혹은 있는데, 죽는 사람이 물로 볼 때는 시청 걸은 물¹⁰²⁴이 아이고, 안에 육구장 기와집이 꼭 있는데, 내 죽을 줄 알면 신을 안 벗고 옷을 안 벗는데, 옷 벗는 거는 죽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물인강 이래 엉겁결에 벗는데, 죽는 사람이 겁 없이 집에 간다꼬 보고 방에 드간다꼬 와가 신을 벗어 놓고 물에 빠져 죽는다.” 이쿠더랍니더.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감출, 두동면, 1984]

1023. 웅덩이에

1024. 아주 맑은 물

맞아죽을 팔자

그전에 밝노인인데¹⁰²⁵ 하도하도 오래 살았어. 친구가 집에 큰 아래윗채 사랑채 잘 지아가 이래 사는데,

“친구야, 내 큰집에 제사가 드니까네 제사지내고 오껴마 여 눕어 자거라.” 이카거든.¹⁰²⁶

“그러모 나는 여 혼자 자껴마 갔다 오너라.” 쿠고 가만 누워 있으니까네 무엇이 장방¹⁰²⁷ 안에서 바시락 바시락 해 쌓거든. 그래 무엇이 이래 쌓는고 싶어 장방 안에 들다보이 새앙쥐라. 그래 대쪽댕이로가 딱 때려 주이까네 토루루 구불드져 죽어 뻗대이. 제사지내고 친구가 오더란다.

“아이구, 친구 안죽 안 자나?” 쿠이,

“안 잔다.” 쿠이,

“아유, 이 사람아, 난 큰일났다.”

“뭇이 큰일났노?”

“내 여 누워있으니까네 뽀질락거리 쌓아서 벽장문을 열어 보니까네 내 눈에는 똑 새앙쥐 걸는데 때리 놓고 보이까네, 자네 부친인가봐.” 이카거든.

그 노인이 내¹⁰²⁸ 살다가 맞아죽으라는 사주팔자라.

“아이구 마, 친구야, 미안할 거 없다.”

그래 이튿날 거궁케¹⁰²⁹ 장사로 잘 하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용선, 상북면, 1984]

1025. 남자 노인인데

1026. 이렇게 말하거든

1027. 장고방

1028. 오래오래

1029. 거창하게

범을 술하게 잡은 이야기

어떤 사람이 넘우(남의)집에 살아가 돈을 벌라 생각해봐도 안 돼.

에이 이리 살아봐야 말년(만년) 살아봐도 필요가 없고, 강안도(강원도) 범이 많다 카이
까네 범 잡으러 갈 뻘에 없다. 이래 했다 말이다. 그래가 인자 범 잡을 뭘 총도 없고, 도리
깨를 하나 매가주고 때리 방굴라고 (부수려고) 범을 잡으러 갔다.

그래 인자 강안도 주막에 드가이, 주막재이가

“당신 거 드가몬 죽소. 가지 마소, 총을 가주(가지고) 가도 안 되는데 도리깨 가지고 무
신 범을 잡소.”카이,

“나는 범 잡으러 가는 걸음인께 가야 된다.”카고, 하룻밤 자고 인자 강안도 드갔다.

드가이 커다란 방구만한 범이 하나 나와. 그래 인자 도리깨 가지고 끄떡끄떡하이 범이
홀떡 들어마시. 마 범 안에 드갔대이.

드가 가지고 떡 쳐다보이 우에 덜렁덜렁하는 기 뭘 따뜻한 기 있어. 칼로가(칼로) 그걸
하나 떡 빳어(베었어). 비이보이 간이라 그기. 배 고푸인께 묵었대이. 묵으이, 이 넘우 범
이 간을 비이가이고(베어서) 쇠(속)이 답답해가 강안도 금강산을 내리 돌아댕기는데, 구
명으로 가죽을 뚫고 넘어다 보이, 금강산 일만 이천 봉 온데(모든 곳) 다 돌아대이미(돌
아다니면서)귀경 다했어.

이 사람이 돌아대이다 배가 시장하이 또 한 더배이(땡어리) 더 비이 무뻘다(먹어버렸
다). 비이 무뻘노이 또 속이 답답해가 인자 본 자리로 왔대이.

저그 할배가 인자 배 아프다고 내리 구부이 줄개 범이 와야 내리왔다. 그래 이 범이 누
구라도 약 지(지어)오라 캐도 약도 안 지아 오고. 그래 마 할배가 줄개 범을 다 깨물어 자
빨치가지고, 범이 한 골짜기 죽었어.

죽어가지고 꺾디기로 베끼가 인자 한 짐 짊어지고 나오이까네, 주막재이 집에 떡 오이,
주막재이가

“당신, 드기는 포수는 보아도, 나가는 포수는 못 보는데 이 범 꺾디기는 와 이래 많이 가

오노?”이러카이

“까지껏 범 저 잡아논 기 아직 만판 남았다.”고.

그래가 참 그 사람이 거 가 성공을 해가 부자가 됐다 카는 말이 있어.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장태환, 상북면, 1985, 제일문화사]

풍수의 범퇴치 처방

어데 있었는고 그건 모르고 타지에서 왔는지 백풍수라 카는 사람이, 풍수지리를 잘 했어.
누가 뵈로 이래 써 났는데, 그 풍수가 용하다고 뵈를 파가 좋은 자리로 뽕기는데 범이
여게 와가 밤 곁은 때에 침노侵擄를 많이 했어. 사람을 해꾸지할 능력이 못 되고 개로 쳐
잡아 가고 이러더란다.

이전에는 여게 마당에 저녁으로 쏘가지불로¹⁰³⁰ 놓고, 삼이라고 여름에 입는 옷으로 삼
베옷 있거든. 안에서고 하고, 밖에서도 하고 삼을 해가지고, 새끼고 꼬고 털미기도¹⁰³¹ 삼
고 이러는데, 그 범이 어째 왔는지 개로 자꾸 물고가 싸이 개로 정지¹⁰³²에다 뽕고 가다
가 나았거든. 그래도 어데로 어떻게 정지에 드가가지고 개로 물고, 개로 물몬 개가 아파
서 죽는 소리로 하고 꺾을(고함울) 지르고 그래.

이때 백풍수가 범 없어지는 방식을¹⁰³⁴ 했어.

1030. 관솔불로

1031. 짚신도

1032. 부엌

1033. 가두어 두었거든

1034. 방도를

이전이나 지금이나 뽕로 씌몬 산신제로 지내야 되는데, 질이 이리 가고 이리 오고 열 십
짜 질이 있거든. 닭도 잡아가 삶아가지고 울대 목을 비가¹⁰³⁵ 고계다가 갖다가 묻더란다.
그라고는 범이 안 와. 그 뒤에라도 닭이라도 잡아가 제로 지냈어. 그 뒤에는 차차 괜찮아
졌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손천석, 청량면, 1984]

노총각을 도운 호랑이

오소구리라는 늙은 총각이 어무이하고 아주 가난하게 산골에 살았는데, 어무이가 돌아
시고 혼자서 울고 있으니 큰 호랭이가 와가지고 정지 있는 데 누워 밤을 등거를¹⁰³⁶ 같이
했습니다. 그 호랭이가 오소구리 보고 형님이라 하는 기야,

“어머님 상사가 났는데,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나?”

“없으이 우떡하나?” 하이까네,

“아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걱정마시고 계세요.” 가디이마는 음식하라고 벼를 비다주고,

“그럼 내가 또 가서 장례지낼 술쌀을랑 가져 올 겁니다.” 가서 쌀을 몇 가마 가져 온 기라.

아래 마실이 큰데, 산골에 저 우에 올라가 외딴 집이라,

“큰 마실에 가가지고 술을 좀 해 달라 카몬 해 줄 겁니다.”

그래 가 쌀을 갖다 주고 해 달라 하이까네 없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했으йка네 동네 사

1035. 베어가지고

1036. 밤샘을

람이 술을 해 주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호랭이가 연방(곤) 가지도 않고 묵을 것을 챙겨주고 그래 참 친했어.

“형님, 장개를 가야 되잖겠습니까?”

“아이구, 내 곁은 사람에게 누가 딸 주고 장개를 가겠나?”

“내가 처녀를 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있으세요. 그래 온 저녁에 미음이라도 써 놓으세요.” 이라는 기라.

호랭이 말 듣고 미음을 써 놓고 있으이 밤이 이숙한 다음에야 처녀를 하나 업어 왔단 말이야. 호랭이한테 처녀가 까불썸¹⁰³⁷ 뒀. 그래 와가 방에 갖다 눕히 놓고 미음을 덜어¹⁰³⁸ 한참 있으이 깨어나는 기라. 천장을 보디이마는,

“우리 집이 아니고 우편 조환고?” 이라더래.

“우리 집이 서울인데, 우짤 일로 이리 왔느냐?” 이라는 기라.

촌이라 처녀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나, 갈 데가 있나, 그래가지고 거어서 밥을 해 묵고 사는 기라.

“호랭이가 겁이 난다고 동생은 좀 저쯤 피해가 있으라.”

그래 여자가 밥을 해 묵고 오소구리하고 내오간^{內外間}이 된기지. 호랭이하고도 차차 개처럼 사났는 기라. 그래 일 년을 지내디만,

“형님 처가로 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도 친정에 가 봐야 될 겹니다.”

“가야 되는데, 갈 도리가 있나? 길수가¹⁰³⁹ 먼데, 어떻게 가겠나?”

“걱정마소. 내가 말을 한 마리 가져 올 테이까네 껍대기 뺏기가지고 내가 들어가고 타 몬 됩니다.”

호랭이가 말을 한 마리 물어 와가 껍대기를 싹 뺏기가 말라가지고,

“내 등더리에 실으세요.” 이리 실어가 배를 궤메몬 말이 아닙니까?

“둘이 날 타라고.” 하는 기야. 호랭이를 타이 곧 서울 그 집에 댔다 준 기라. 처녀의 집을 가가지고,

1037. 까물아졌지

1038. 입에 떠 넣어

1039. 거리가

“아이구, 어무이, 내가 왔입니다.”

“아이구, 네가 일 년이 지냈는데, 호식¹⁰⁴⁰을 한 줄 알았는데, 네가 우째 살아 왔겠나?
귀신이 왔나? 뭐가 왔나?”

“참말로 등신이¹⁰⁴⁰ 왔입니다.” 그래 손을 사알 붙잡아 보이 사람이고 이렇다 말이라.

“저게 온 사람이 하나는 우리 남편이 되고…” 이래 남편을 인사시켰는데,

호랭이가 뭐로 말했느냐 하몬,

“나는 따로 외판 데, 원치¹⁰⁴¹ 마판에 매 달고, 개로 잡아 달라고.”고. 그래 가,

“이 말은 아무데나 매지말고 외파리 갖다 매 주고, 개를 잡아가 줘야 되는 말입니다.” 이
래 갖다 매 놓았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묵다니까네,

“이웃에 아무 집 대가집이 딸이 없어졌는데, 호식한 줄 알았는데 살아 왔는데, 사우가
하나 왔는데 그 늑이 쓸 만한지 좀 달아 보겠다.”고 젊은 아아들이 온 기라.

“그러몬 우리가 내기를 좀 해 볼까요?” 이란다, 그 사람이.

“뭘 내기요”

“난도 말이 좋은 기 있습니다. 집이¹⁰⁴² 말 좋은 거 가져 왔다니까 우리 말 내기를 합시다.”

거기가 서울인께 한강이겠지. 그래,

“한강을 건너 뛰지 못하몬 돈 천 냥을 줄 기고, 당신 말이 못 건너 뛰몬 당신 마누리를
날 조야 됩니다.” 그래 말인데, 아니 호랭이인데 가 물은 기라.

“아, 그렇게 하라.” 호랭이가 시킨다.

“그리 하라.”고. 그까짓거 호랭이가 건너 뛰는데 문제가 있나? ‘쿵’ 하딩이 건너 뛴다가
또 건너 오니까 호랭이가 있으이 이 늑의 말이 건너 가느냐 말이야. 마 줄리가¹⁰⁴³ 못 가
거든요. 그러이까,

“돈을 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천 냥을 벌었다 말이라. 호랭이가,

“인자는 형님이 장개도 잘 갓고, 돈 천 냥도 가졌고, 처가집도 대가집을 잘 만냈고 하이

1040. 육신이

1041. 동떨어진 곳

1042. 당신이

1043. 기가 질려서

까네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내 갈 대로 가니 개나 한 마리 주세요.”

그래 개로 한 마리 잡아 주니까 묵고 그만 가더라는 기라.

[『한국구비문학대계8-13』 김삼남, 상북면, 1984]

호랑이 아가씨

The Tiger-Girl

한국의 고대 왕국 중의 하나인 신라新羅의 수도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매 해 남녀노소가 흥륜사興輪寺에 함께 모여 복을 빌었다. 흥륜사에 가서 행복과 삶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에게 관례적인 일이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2월 12일 경이나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집회를 연다고 한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달빛이 환히 비치는 사찰 경내에서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어느 해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절로 와 매일 밤 탑 앞에서 염불을 외면서 신도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김현金珉이라는 한 총각을 만나 친해져 매일 밤 집회를 함께 했다.

집회가 끝나고 그는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고 사정을 얘기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도망쳤고 결국 산기슭 경사진 곳에 있는 초라한 움막집까지 왔다. 김현은 그녀를 따라 쫓아왔고 그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보자, 방구석에 있는 병풍 뒤편으로 숨으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지체 없이 숨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외쳤다.

“동생아, 우리는 사람 냄새를 맡았다. 아주 배가 고파데 어서 그를 우리에게 다오.” 김현은 병풍 뒤에 숨어 너무 무서워 몸을 떨었다. 그러자 처녀가 대답했다.

“오빠들, 오빠들은 지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례하군요. 그는 나의 손님이에요. 지금 얼른 멀리가세요.”

두 호랑이 오빠들은 멀리 갔다. 처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현에게 말했다.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호랑이예요.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깊이 사모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예요.”

김현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앞에 여느 여인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 당신을 지켜주겠어요.”

그러자 곧 처녀는 스스로 호랑이로 변했다가 다시 처녀로 변하였다. 그녀가 말하였다.

“자,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어요? 저는 당신의 손에 죽고 싶어요. 내일 아침 저는 장터에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큰 소동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주를 물어 갈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아, 당신의 칼로 나를 죽이고 공주를 구하세요. 당신은 영원히 행운을 얻게 될 거예요.”

다음 날이 되자 처녀가 말한 대로 일들이 일어났다. 호랑이가 장터거리에 나타나 공주를 물어갔던 것이다.

김현은 왕에게 갔다. 왕은 호랑이를 가서 잡도록 허락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호랑이를 죽이고 공주를 구해냈다. 왕은 매우 감사하며 그를 공주와 결혼하도록 하였다. 김현은 호랑이를 기리기 위해 서천西川가에 ‘호랑이의 소원’이라는 뜻의 ‘호원사虎願寺’라는 절을 지었다.

『한국의 설화』, 송석하宋錫夏, 언양彦陽, 1926, 단국대학교출판부

호원사虎願寺의 창건 유래

경주에 호원사虎願寺라는 절이 있어요.

옛날에, 경주 보문 출신인데, 이 사람이 하도 군속하고¹⁰⁴⁴ 상속이 없어 장개도 문 가고 살았는데, 그 근처서 하는 말이,

“경주에 미륵이 하나 큰 기 있는데, 거어 가 석 달 열흘로 공을 딜이면 니가 배필도 만날 끼고 잘 살기 된다.”

그래 미륵이잘에 두루 가가지고,

“장개도 가도록 해 주고 잘사도록 해 주십사.”고 이래 석 달 열흘로 빈다.

석 달 열흘 마지막 비던 날 저녁에 미륵이가 말을 해요.

“니가 내한테 이만침 공을 딜이까네, 오늘 저녁에 여게 오백 바쿠만 돌아라.”

오백 바쿠를 돌아야 성취한다고, 밤에 캄캄 어둡는데 그래 오백 바쿠 날 땀에¹⁰⁴⁵ 안 잇 아뿌도록 시알라 가미 디리따¹⁰⁴⁶ 한참 돌아나가다 하이 어디 뭐가 걸거치는 기 있어요. 지는 이리 도는데 하나는 반대로 돌아 나와 마주 떡 받치가지고 턱 구불어지는데,¹⁰⁴⁷ 여자라.

“내가 말이지 석 달 열흘로 공을 딜이가지고 이래 내가 도는데, 당신이 와 이래 날로 실패로 시키느냐?”

“여보, 당신만 그런 기 아이라나도 그래야 그 좋은 배필로 만낸다고 해서 나도 이래 자꾸 돈다.”

“야, 그러며 우리 됐다 마. 우리 부부로 하자.” 그러이까네 처자가 영 슬픈 기가 있어.

“내가 부부 할 끼 안 된다.”

“그러면 우애 그래 돌아가지고 내 실패를 시키느냐?” 이 처녀가 마 침 구덩에 가거등.

“내 니 가는 데 따라간다. 어디 어디로 가느냐?”

“저 선두산 만맹이” 경주 선두산이라 카는 기 있는데,

1044. 군색하고

1045. 동안에

1046. 안잇어 버리도록 헤아려 가면서 마구

1047. 넘어지는데

“선두산 만댕이 간다.” 이라거등.

“그래 나도 간다.”

“따라오지 마라.” 카거등. 그래 산중허리 턱 가가

“당신이 이래 따라오며 안 되요. 내가 범이라.” 이라거등.

“내가 범인데, 따라오며 내가 당신을 자아 묶어뵈다.” 이라거등.

“에이, 씨바, 뭐 자아 묶어도 좋다. 그래도 우리 서로 부부로 약속이 됐는데 뭐.” 따라간다. 그래 가다가 보이까네 처녀가 안 비. 산에 올라가는 질도 없는데 어데 까랍때기¹⁰⁴⁸ 소리가 빠삭빠삭 빠삭빠삭 나거등. 범으로 화해가지고 산을 타고 만댕이 턱 올라서 또 사람이 되는데, 그 까랍때기 소리 듣고 만댕이까지 따라 올라가.

“내 뒤를 따라오이까네 당신 대단한데, 우리 집에 드가며 당신 죽소. 우리 할배도 범이고, 우리 아버지도 범이고, 내까지 전관 삼대째가 여기 있는데, 드가며 자아 묶어뵈며 당신 우짚끼요?”

“이 사람아 범으 밥이 돼도 좋다.”

그래 자기 집에 턱 드가이까네 이 처녀가,

“그러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퍼뜩 방을 하나 치우고 거어 떠밀어 쫓아뵈고 문을 잠가뵈거등. 그래 들앓아 있다 가마 들어 보이 참 전신만신 범이라.

“뭐 밥 좀 구해 왔나?” 이래 쏘거등.

“아무 것도 몬 구해 왔다.”

조금 있으이,

“아이구, 인내야.”¹⁰⁴⁹ 캐 쑥디마는 범들이 와서 문을 깔찌 뜯는다. 이 처녀가 말리.

“이 사람은 나랑 부부로 맺어 뵈었는데, 이 사람은 자아 묶어서는 안 된다.” 기어이 말리거등. 그래 탄 것도 말카 숙지막해지고.¹⁰⁵⁰ 그래 밤중이 돼 처자가 사람이 돼서 들어와가 거어서 자고 며칠 쉬고, 하리는 나오디마는,

1048. 가랑잎

1049. 사람 냄새야

1050. 수그러지고

“가자.” 카거등.

“가며 어디로 가노?”

“가자”

오던 길로 다부 돌아가면서 ‘당신이 날로 잡아야 된다’ 카는기라. 아무리 범이라도 며칠 살았는데 잡을라 카이 애inker등.¹⁰⁵¹

“내 어째 당신을 잡을 수가 있나?”

총을 한 자루 주면서,

“이것도 한 인연인데, 내가 이 장안 안에 드가가지고 큰 분탕을 일받을¹⁰⁵² 모양이까네, 그 때는 어애끼나 당신이 선발대로 와가지고 날 잡아 달라.” 이카고 휘딱 카미 가뻘었는데, 서울 장안이 들썩거리거등. 범이 이념 물어 땡구고 저 념 물고, 사람을 마 디리 물어 땡구는데 감당이 불감당이라. 큰일났다고 원이 나와가지고,

“저 범 잡으며 큰 후상을 준다.”고 이라거등.

용두산, 요새는 거어 황성공원이라 카지마는 그 때는 고성숲이라. 경주 고성숲이 환하이 있거등.

사방 포수들 다 몰렸는데 지도 쫓아나가이까네, 그 이념이 사람 물어 땡구고, 그래 나가 디 마는 이쪽으로 엉뚱에¹⁰⁵³ 저 념이 마 사람을 몇이 자아 묵고 배가 불러가 턱 눕었거등. 그래 놓이까네 마 쏘아가 잡아뿌렸다.

그래 잡아 놓이 총질 잘한다고도 이름이 났을 뿐 아니라, 범 잡아 놓고 나이 그 날 저녁에 선몽現夢을 대.

그 날 밤 꿈속에서 만나고, 자고 일어나이까네 호랭이가 눕은 자리에 절이 아주 멋진 기이래 하나 있었어요, 그 절 이름이 범이 엉뚱에 눕었으니까 범 호虎짜, 두덕 언堰짜, 호언사虎堰寺라요.¹⁰⁵⁴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이만봉, 두동면, 1984]

1051. 가련하거등

1052. 소동을 일으킬

1053. 이쪽으로 언덕에

1054. 삼국유사 권5 김현감호金現感虎조에서는 ‘호원사虎願寺’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보자는 이것을 ‘호언사虎堰寺’로 이해하고 있었다.

호랑이 스님

The Tiger Priest

옛날 한 나그네가 고갯길에서 길을 잃었다. 땅거미가 지자 그는 계속 앞으로 걸을 수도,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 길을 따라 한참 동안 걸어가자 큰 집이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다.

그 큰 집에다가 가서 바깥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안에서 아무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대문에서 주인을 불렀다. 하지만 또다시 답이 없었다. 열한 번째 문 안에 들어가서 주인을 불렀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그네는 열두 번째 대문까지 열고 들어가서 울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만했다.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용서해 주시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고 계시오?”

처녀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손님,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곳에서 달아나세요. 여기에 머무른다면 틀림없이 살해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려 하지 않았다. 나그네는 처녀에게 무엇이 그렇게도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통곡하며 집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분이셨고 저 이외에도 몇 명의 아들들을 두셨지요. 어느 날 산속에 사는 스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저를 아내로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스님은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고 나만 여기 홀로 남겨졌답니다. 스님이 오늘 밤 이리로 올 텐데 당신을 보면 죽이고 말거예요.” 처녀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 나그네는 돕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칼을 뽑아 들고 벽장 안에 숨었다. 그리고 흉악한 스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자정쯤 되자 스님이 방으로 들어왔다. 처녀는 스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독주를 한 잔 따라 주었다. 스님은 금세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 누워 잠에 빠져들었다.

나그네는 벽장에서 나와 중의 눈을 찌르고 그의 목을 배려하였다. 갑작스런 공격에 깨어난 사악한 스님은 고통으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격렬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미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잡을 수 없었다. 나그네는 일격을 가했고 마침내 스님은 살해되었다.

그들은 시체를 집 뒤뜰에 매장할 때에야 스님이 아닌 검은 반점이 있는 누런 호랑이인 것을 알았다.

처녀는 나그네가 베푼 은혜에 깊이 감사하였다. 그는 매우 시장기를 느꼈고 처녀는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떠날 채비를 하였다. 처녀는 자신을 홀로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처녀가 말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와 함께 이 집에 머물러 주세요. 아버지의 삼년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거절했다. 직접 겪은 일로 인해 겁에 질려 있어서 저주받은 그 집에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열두 문을 지나 떠났다. 처녀는 바깥 대문까지 나와 그를 배웅하고 나서 대들보에 목을 매고 말았다. 도저히 아픈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에 나그네는 오성부원군驚城府院君이란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큰 난리가 일어났고 그는 군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이십만 명의 적군과 겨루었다. 그런데 난리 중에 그는 노란 명주 손수건이 그의 칼에 매달려 있어 휘두를 때마다 방해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난리에서 패하였고 들에서 기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눈앞에서 손수건이 사라지고 대신 열두 문을 지나 만났던 그 처녀가 나타났다. 처녀는 그를 원망하며 손수건으로 다시 변해 공중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크게 소리쳤다.

“사랑스런 낭자여, 내가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하였군요. 너무 무정하게 굴었소. 나를 제

발 용서해 주시오.”

그리하여 그는 서둘러 산속에 있는 그 집으로 가 여전히 눈을 뜨고 썩지 않은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호랑이 중은 이미 썩어 없어진지 오래였다. 그는 처녀를 그의 무릎에 눕히고 부드럽게 눈을 쓸어 내렸다. 그러자 처녀는 눈을 감았다. 그는 처녀를 그녀의 아버지 무덤 옆에 묻고 다시 그 집을 떠났다.

그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난리에 출전하였다. 난리는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를 압박해 왔다. 마지막 공격에 적장이 그를 엄습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노란 명주 수건이 다시 나타나 적장의 검에 나부꼈다. 수건이 검을 감싸 적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성부원군은 적군의 머리를 쉽게 벨 수 있었다.

수건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성부원군은 처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매해 무덤에 찾아가서 추모를 하였다.

[『한국의 설화』, 송석하宋錫夏, 언양彦陽, 1926, 단국대학교출판부]

늙은 호랑이와 토끼

The Old Tiger and the Hare

옛날에 강원도 비탈에 늙은 호랑이가 살았다. 어느 날 우연히 토끼를 만나 말했다.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교활한 토끼가 대답했다.

“내 소중한 친구야! 너는 어디에 가는 중이니?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 함께

가지 않을래?”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를 따라 계곡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토끼는 열한 개의 둥근 조약돌을 집어 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것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

호랑이는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걸 어떻게 먹는데?”

토끼는 대답했다.

“응, 그건 아주 간단해. 그 조약돌이 별장게 될 때까지 모닥불에 구우면 돼. 그때가 제일 맛있어.” 그는 모닥불에 불을 붙이고는 그 안에 조약돌을 넣었다. 잠시 후, 토끼는 배고픔에 불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호랑이에게 말했다.

“소중한 친구야, 내가 가서 양념을 가지고 올게. 양념을 묻혀 먹으면 훨씬 더 맛있거든 나 금방 다녀올게. 내가 올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려. 우리 둘 것 딱 열 개다. 알았지?”

그러고는 토끼는 호랑이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다.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호랑이는 이미 아주 별장게 된 조약돌의 개수를 세어나갔다. 호랑이는 토끼가 말했던 것처럼 열 개가 아니라 열 한 개가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뒤통보다 더 갖기 위해 욕심을 부려 조약돌 한 개를 통째로 꿀떡 삼켜버렸다. 조약돌은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호랑이는 헛바닥, 목구멍 그리고 위까지 데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호랑이는 언덕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호랑이가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딱 한 달이 걸렸다.

언젠가, 호랑이는 들판 한 가운데 있는 수풀가에서 있는 산토끼를 만났다. 호랑이는 화가나 으르렁거렸다.

“저번에 나를 속였잖다. 너는 나를 몹시 괴롭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몇 주일 동안 굶주렸지. 이번엔 기필코 널 잡아먹겠다.”

산토끼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다.

“여기를 봐, 친구. 너는 지금 내가 이 주변에서 참새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참새들을 네 입으로 몰거야. 너는 수천 마리의 참새를 먹을 수 있어. 나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을걸?”

호랑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많은 참새들이 숲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호랑이는 약간 누그러져 말했다.

“네가 나를 다시 속이려 하진 않겠지? 네가 약속을 지킨다면, 네가 말한 대로 해볼게.”

토끼는 대답했다.

“그래, 모두 지킬꺼야. 수풀의 한가운데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친구야.”

그래서 호랑이는 수풀의 한 가운데로 갔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렸다. 그러자 토끼는 수풀에 불을 질렀다. 그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는 수천 마리의 참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들렸다. 토끼는 소리쳤다.

“수백 마리가 오고 있어, 친구야. 참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니?” 그런 뒤, 토끼는 불타는 수풀 속에 호랑이를 남겨두고 도망쳤다. 호랑이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불에 둘러싸여 있었다. 호랑이는 매우 어렵게 겨우 도망쳐 나왔으나 그의 모든 털이 불타버렸다. 호랑이는 추운 날씨에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서 동굴에 수주일 동안 머물었고, 토끼에게 두 번이나 속은 것에 화가 치밀었다.

어느 겨울날, 털이 모두 자란 호랑이는 소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호랑이가 강으로 가 강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토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호랑이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나를 두 번이나 속이고도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할 말이 있느냐?”

토끼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나의 친구여, 너는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단지 너를 도우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내 충고를 잘 따르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번엔 네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 강에는 물고기들이 가득해. 겨울엔 나도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지. 친구야, 너 물고기 먹어본 적 있지? 그건 네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 중에서 가장 환상적일 거야.”

호랑이는 물고기가 먹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토끼에게 물었다.

“너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니? 또다시 나를 속이려 하진 않겠지? 이번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토끼는 말했다.

“나를 믿어, 친구야. 너 ‘삼 세 번만의 행운’이란 속담 알지? 저 밑에 물고기 다니는 거 보이지? 너는 꼬리를 물에 담그고 눈을 감고 있으면 돼. 만약에 네가 눈을 뜨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달아날 거야. 그냥 기다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 까지 꼬리를 움직이면 안 돼. 그것이 물고기를 낚는 방법이야.”

호랑이는 진짜로 강에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호랑이는 자신의 꼬리를 차가운 물속에 집어넣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참을성 있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산토끼는 요리조리 강을 건너서 호랑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네 꼬리 쪽으로 물고기를 몰아줄게. 물이 정말 차갑지, 그래도 참아야 해. 곧 너의 꼬리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질 거야.”

어느덧 밤이 되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 강물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꼬리도 빠르게 일었다. 산토끼는 소리쳤다.

“친구야! 내 생각에 지금쯤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것 같아. 꼬리를 들어서 봐봐.” 호랑이는 산토끼가 말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꼬리가 너무 무거웠다. 그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말했다.

“물고기가 한 떼 잡힌 것이 분명해 꼬리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때 산토끼는 도망치며 소리쳤다.

“친구여! 너는 나를 죽이려 하겠지. 하지만 너는 지금 붙잡혀 있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제야 호랑이는 자신의 꼬리가 얼음 속에 단단히 얼어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마을사람들은 얼음 위에 쭈그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다. 사냥꾼은 손쉽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의 설화』, 박말봉朴末逢, 언양彦陽, 1925, 단국대학교출판부]

호식 당한 시체를 찾아 준 소금장수

이전에 최씨라 커는 젊은 총객이 참 부지런했어요. 살림은 가난하고 그래가 남우 집에 살아가지고, 고공雇工을 사다가 끝나며 또 장사로 하고 하는데, 소금을 사가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다가 마 저물었답니더.

저물어가 질로 찾는데, 산중 질에 들어가지고 이리 저리 캄캄 어둡기는 어둡고 천방지방 댕기며 쫓아 내려오다가 하이까네 보재기하고 자리 하나가 흘러 있더랍니다. 그래 그거로 조아가지고 소금 집에 었고, 한참 죽을판 살판 쫓아 내려오이까네 산지경¹⁰⁵⁵ 밑에 불이 뵈하더랍니다. 그래 ‘아이, 인자 살았다. 저 집에 드가가 자고 가얏다.’ 싶어가 쫓아 드가 주인을 찾이까네 여자가 혼자 나오더랍니다.

“질로 가는 나그네가 저물어가 하릿밤 자고 감시더.” 카이까네 그래,

“들오소.” 문을 열어 보고 닫디마는 다부 열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자고 가소.” 커더란다.

그래 드가 보이까네, 혼자 사는 집 길지는 않은데 남편도 없고 혼자라. 그래 저녁을 채리다 주더란다. 그래 저녁을 먹고 물었거등.

“당신은 혼자 사는가요? 주인, 밭(바깥) 주인 없는가요?” 커이까네,

“밭 주인 내에 있었는데, 오늘 양식 팔러 간다 커머 재 너머 갔는데, 인지까지 안 오네요.” 커머 그래 나갔다 드갔다가 그래 쌓거등.

그러다 그 소금 집에 었어 놓은 자리하고 보하고 보고, 불러내더란다.

“아이구, 손님, 여어 좀 나오소. 그래 이 보재기하고 자리하고 손님 낀교?” 커거등. 처음에는,

1055. 산자락

“예.” 커다가,

“아이구, 그 손님 께 겹잖은데요?” 커고 꼬치(고추) 묵은 소리로 하거등. 그래,

“그렇잖습니더. 그래 내가 조아가 왔습니더.” 커이까네,

“조아가 와요? 우리 밭 주인이 온 아직에 양식 팔러 갈 때 이 자리하고 보재기하고 내가
쫓는데, 아이고, 아매도 무슨 짐승이 물고 갓는강?”

“그래 여게 짐승이 많이 있는가요?” 커이, 그래,

“무슨 골짜에 그래 범이 있다.” 커더란다. 그런데,

“아이구, 손님, 미안쿠마는 나캉 좀 갑시더. 찾아가 봅시더. 그 보재기 조았는 데 함(한
번) 가 봅시더.” 커더란다.

할 수 없이 그 여자는 햇불로 들고, 소금장사는 뒤따리고 그래 갔단다. 그래 가가 찾으
이까네 아무도 없는데, 어느 골짜에 범굴이 있다고 그 여자가 알거등. 그래,

“아무데 거어 있는데 그리 가 보자.” 커이 그래 가다 하이까네 피가 뚝뚝 흘렀고. 그래
범으 굴꺼지가 보자 커더란다. 그래 거어 가이까네 이넘 범이 참 그 남자로 물어다가 낮
이고 전신에 피 칠로 해가 범으 굴에 있고, 범은 뒷담에 그래가 있는데, 자꾸 햇불로 쭉쭉
들받으이까 나았고, 햇불을 저 쪽으로 가이까 또 따라오고 그렇거등.

그 여자가 그 신체로(시체를) 보고는 소금장사로 지라 켜다,

“아이구, 손님, 미안치마는 이 신체로 지고 갑시더. 할 수 없다고. 햇불은 내가 들고.”

그래 그 신체로 지고 천방지방 내려오이 그 여자는 내에 햇불로 들고, 범이 달려드이
까네 햇불로 혹 들받으이까네 범이 물러왔고 물러왔고.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물로 덤
하¹⁰⁵⁶가 신체로 마키 썩거 놔 두고 대성통곡을 하더란다. 옷을 입히 놓고 그래 하디마는,

“손님 미안치마는 이 방에 들와가 신체 좀 지켜 주소꼬. 아매 저 짐승이 따라온다꼬.”

그래가 지는 어데 드가디마는 도끼로 시퍼러이 날 선 거로 하나 가지고 무슨 꺼지기로
가아 와가 덮어 씨고 방문 앞에 인자 대기로 하고 있고 소금쟁이 그거는 방에서 신체로
지키고 있다. 한참 있으이까네 마 범이 닥치가 문을 왈각 잡아 땡기더란다. 그 여자도 간

1056. 덤혀서

도 언간하제? 그 도끼로 가지고 범으 대가리로 마 퍽 찍어가지고 잡더란다.

그래 범을 잡아 농골랑 그러구러 날이 새고, 신체는 그 소금쟁이가 따뜻한 양달에 갖다 묻어 놓고 쳐 췌단다. 이전에는 삼蓼이 산중이 있었는데, 삼 뗏 뿔거지(뿌리) 하고 그래 공¹⁰⁵⁷을 하더란다.

“손님, 지난 밤 참 많이 수고했으이까네 잘 가이소꼬.”

그래 삼하고 돈하고 받아가 가이까네, 저 어는 고개에 올라가 보이까네 그 집에 마 연기가 등천을 하더란다. ‘이거 아매 이상하다.’고 소금 짐을 받치 놓고 쫓아가이까네, 마 집에다 불로 뽕둘러 가미 질러 놓고, 그 여자가 같이 타 죽을라꼬 용바람(용마루) 밑에 드가더란다. 드가는 거로 붙들어 내가지고,

“날 따라가자꼬. 기어이 가자꼬.” 한참 따라오디마는 마 흔적도 없더란다.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윤성오, 두동면, 1984]

천년 묵은 여우를 잡은 정관수

옛날 정관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담한 사람이었지만 술 마시고 놀기를 좋아해서 살림은 이내 거들이 나고 과객^{過客}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선달그름이 가까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니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생각도 없었다.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선달 그름날만 되면 사람이 하나씩 죽는 절이었다. 매년 선

1057. 보은

달그믐만 되면 스님들이 하나씩 죽자, 절에 사는 스님들도 선달그믐이 되면 모두 마을로 피신을 나왔다가 정초가 되면 다시 절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관수는 먼목없이 집으로 돌아가느니보다는 차라리 그 절에 가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선달 그믐날 독한 술 몇 병을 손에 들고 그 절로 올라갔다.

마을로 내려오던 스님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정관수는 절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절로 올라갔다.

한밤중이 되자 예쁜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정관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자와 마주앉았다. 술을 꺼내어 자신이 한 잔 마시고, 여자에게 한 잔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듭했다. 얼마간을 그렇게 하자 여자는 술에 취해 꿈아떨어지고 말았다.

정관수는 여자가 분명히 사람은 아니라고 짐작하고는 커다란 가죽부대에 넣어서 대들보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다. 술이 깬 여자는 자신이 가죽부대 속에 갇혔음을 알고는 정관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관수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여자는 어디에 가면 무슨 보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보물이 있는데, 살려만 주면 그것을 다 주겠다고 했다. 정관수는 여자가 자루 속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도 여자를 풀어주지 않았다.

정관수가 틀림없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절로 달려온 스님들은 깜짝 놀랐다.

정관수는 멀쩡하게 살아 있고, 대들보에는 커다란 자루가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관수는 스님들에게 커다란 가마솥에 기름을 펴 펴 끓이게 해서 그 자루를 기름 가마에 넣고 삶아버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 자루를 꺼내어 열어 보았더니 그 속에는 천년千年 묵은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절을 내려온 정관수는 여자가 말했던 보물들을 찾아 잘 살게 되었다. 그 절에는 그 후 선달 그믐날 사람이 죽는 일도 없어졌다.

도사의 백여우 퇴치

옛날 어느 산 아래 동리에 노부부가 자식 없어 산 속에 칠성당을 모시고 오래도록 치성을 올린 끝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벌써 성년이 가까웠다.

가정이 부유하여 독선생을 앉히고 면학에 열중하여 미구에 과거에 나갈 양으로 더욱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러자 그 해도 해가 다 가고 선달 그믐날이 되었다. 선생도 하루 전에 자기 댁으로 설을 쇠러 가고 집안에 노인 내외와 아들과 하녀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석양 무렵에 어떤 노인이, 흰 수염은 가슴에 드리워졌고, 머리는 백발로서 꾸불꾸불한 때 묻은 나무 지팡이를 잡고, 도포도 남루하며, 괴나리봇짐도 때가 묻은 무의무탁한 과객이 문전에서 주인을 찾지 않고 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동자가 나가서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니 노인은 이윽고 동자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과연 그렇구나’하면서 사랑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동자는 과객을 사랑으로 안내를 하고 아버지께 고하여 주인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과객의 형색은 심히 초라하였으나 풍채는 도골道骨이었다. 주인이 보기에 과객의 인상과 풍채가 사람의 심정을 끌어당기는 것 같고, 위엄과 인자함이 선인仙人을 대하는 것 같았다. 과객이 하는 말이

“귀댁에 내일 아침 미명에 가정에 변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지켜보고자 하니 오늘 밤은 주인과 함께 이 방에서 동숙을 허락해 주십시오.”고 한다.

주인도 쾌이 승낙을 하고, 그믐날은 잠을 자지 않는다 하여 바둑을 두면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자정이 넘어서 대문 바깥에 사람들의 소리가 요란하더니 어떤 묘령의 절세미녀가 머리카락은 발끝까지 내려왔고, 입성은 철기(잡자리) 속날개 같은 능라금수로써 감았으며, 몸에는 향내를 풍기는, 누구나 한 눈에 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남자였다.

이 남자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마님에게 큰 절을 하고는 하는 말이

“소저는 하늘나라에 있사온데 나이 과년하도록 배필을 고르지 못하고, 옥황상제께서 항상 근심하던 중에 마침 이 댁 도련님을 간택하시어 지상에 내려가서 살게 하라는 분부를 받아오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도련님을 만나 그의 인품과 마음씨를 살펴 보고 내일 아침 미명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상제님께 고한 후에 다시 택일을 하여 평생 먹을 충분한 복록을 얻어 가지고 돌아올 작정입니다. 소저는 아직 하늘 사람이기에 마님 이외의 누구의 눈에도 들키게 되면 들키는 순간 하늘에 날라 가야 하며, 대신 이 댁에는 크나큰 재앙이 일어나 패가멸문하실 터니 소저의 내방을 입 밖에 내지 마시옵소서”고 한다. 그리고는 동자의 방으로 안내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마님은 남자의 미모와 옷차림에 황홀하여 이 남자를 아들의 침실로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남자의 내력을 설명하고 옥황상제까지 네를 사위로 간택한 것이니, 오늘밤은 니들의 첫날밤이니 함께 동침을 하라고 타이르고는 물러나갔다.

남자는 다시 일어나 마꾸리에 걸려 있는 동자의 두루마기를 입히고 아랫목에 앉힌 후 남자는 정중한 큰 절을 두 번 하였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의 이야기와 장차 장원급제하여 천하에 으뜸가는 대인이 될 것이며, 소녀는 남군이 그렇게 되게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할 것을 맹세한다고 동자에게 고하는 것이었다.

동자도 내심으로 이같이 고귀한 남자가 자신의 처가 되는 것인가 하고 흡족하고 행복하여 벌써 황홀한 경지에 빠져들고 있었다. 남자가 무릎 위에 앉아서 교태를 부릴 때는 동자는 제 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 요염한 여인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이러하기를 몇 경甦을 지나 밤은 새벽이 되었다. 남녀 한 쌍이 벌써 지칠 대로 지쳐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남자를 자기 배위에 얹어 두고 극도로 흥분을 시킨다. 그러면서 여인은 남자의 목을 껴안고 서로 뺨을 비비면서 남자의 입과 코를 순간순간 힘차게 빠는 것이었다. 남자는 지치고 혼이 빠졌다. 남자는 제 몸도 가눌 수 없는 탈기奪氣상태가 되어버렸다.

여인은 남자를 자기 배 위에서 고이 내려 바로 눕히고 배꼽을 힘껏 빨다가 중단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 웃음은 천신만고 끝에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만족을 느끼는 그런 웃음이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남자가 동자의 하의를 벗기고 동자의 넓적다리를 걸터타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정신없이 만족해하는 웃음을 짓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미닫이 창문에 문종이가 확 찢어지면서 이 젊은 남녀가 있는 신방에 강아지 새끼가 한 마리 날라 들어온 것이었다.

이 강아지 새끼는 사랑에서 밤을 새우며 바둑을 두던 과객이 바로 이때 개나리붓짐을 풀더니 그 속에서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집어내더니 안마당을 향하여 훌쩍 던져버렸던 강아지 새끼였다.

강아지는 나는 듯이 남자에게 덤벼들었다. 남자는 팔도 물리고, 다리도 물리고, 더구나 목덜미는 물린 자리를 여러 번 물려 상처가 아주 깊었다.

아무리 강아지를 잡으려 해도 워낙 날랜 강아지라 남자로서는 잡아 질 도리가 없었다. 방안에는 강아지를 때려잡을 도구조차 없었다. 촛대를 거꾸로 잡고 후리치다가 도리어 제 다리를 후려갈기기도 하였다.

이러기를 경각이 넘도록 싸웠으니, 남자는 극도로 지쳤다. 그러나 강아지는 지칠 줄을 몰랐다. 시각은 벌써 동녘이 흰하게 밝아왔다.

동자는 남자에게 혼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누운 채 멀그머니 싸움을 쳐다만 보고, 바보가 되어 누워 있었다. 남자는 죽기가 되어도 사람 살려 달라 하고 외치지도 못하였다.

이때 외인이 오면 남자의 참모습이 드러날 터이니 외치지도 못할 형편이며, 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 해도 문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강아지가 목덜미에 올라붙어 목뼈를 물리게 되면 생명이 바로 가는 길이니 도망도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도망밖에 없었다. 미닫이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었다. 그러나 강아지는 재빨리 남자의 목뼈를 물었다.

다음 순간 마당 가운데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꼬리가 석 자나 되는 하얀 여우가 한 마리가 목덜미를 강아지가 물고 있는 채 마당 가운데 떨어졌다.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모였는데, 그 속에는 개나리붓짐을 가진 과객도 나와 섰다. 과객은 주인과 함께 숨이 떨어져가는 백여우를 끌고 동자 방으로 들어갔다. 혼을 여우에게 빼앗기고 실신을 한 동자더러 억지로 여우의 입과 코를 빨게 하였다. 그러면서 과객

주머니에 곱게 부빈 쑥을 내더니 동자의 머리에 땀을 한방 뜨고는 과객은 말했다.

“간밤에 낭자는 보시다시피 이 백여우며, 이 여우는 천년 묵은 요물로서 둔갑하는 술법을 가졌으며, 벌써 산사람의 피를 구십구 명 짜 먹었고, 이 댁 동자의 피를 먹었다면 백명을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여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여우이므로 사람으로 완전 환생이 되더라도 세상 남자들을 부지기수로 타락을 시킬 것이요, 패가망신을 시켜 이 세상에 해독이 클 것이므로 내 장손을 강아지로 둔갑시켜 이 여우를 간밤에 퇴치를 시켰습니다. 이 여우는 동정인 동자를 유혹하여 코와 입을 빨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코와 입을 힘껏 빨아 동자의 혼을 빼고, 다음에는 동자의 옷을 벗기고 배위에 얹드려 배꼽으로 피를 빨아 포식을 하고는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산신령님도 이 여우를 불러 수차 준엄하나 훈계를 하였으나 그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산중에 여러 신령들이 모여 의논을 한 바, 이 여우를 퇴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귀댁 동자는 본시 신령님이 점지한 동자이므로 앞으로 액도 없고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말을 마치고는 괴나리봇짐과 강아지를 품에 안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그 뒤 동자는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급제하고 대감집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경남지방의 민담慶南地方의 民譚』 윤동명의 민담을 이기, 언양면, 1984, 제일문화사]

매구와 서당꾼

예전에는 서당길을 댕기는데, 머리를 쭈쭈쭈 땡코 뒷머리를 궁덩이 밑에꺼정 딜롱딜롱 하이 내리오게 땡커든.

총각이 머리를 땅아가 재 만댕이¹⁰⁵⁸ 오몬, 요 늑우 회청매^{회靑梅} 곁은 처자가 나와 가지고 구실로 주면서¹⁰⁵⁹ 고거로 가지고 총각 입에 한 번 영었다가 또 내놓으모 또 지 입에 한 번 영었다가 마 자꾸 그라거든. 고래 받아가 또 영고 받아가 또 영고 며칠로 그러이 아아가 마 노란 기라. 노래 놓이 선생이 안 묻나?

“야야, 니가 와 그렇노? 니가 어테가 아프나? 와 그래 철색이 찌고¹⁰⁶⁰ 그렇노?”

그래 선생인데 이바구를 하거든.

“아이고 선생님요, 아무데 고오 고개 만댕이 오이까네 회청매 곁은 처자가 나와가 구실로 가지고 지 입에 영었던 거 꺼내가 내 입에 영어 주고, 또 지 입에 들었던 거 내 입에 영어 주고 자꾸 고래 합니더. 고래 하고 구실을 받아가 지가 가져가고 그랬임더.” 쿠거든.

고거 혼 빼는 기라, 선생이 가마이 연구를 해.

“야야, 글켜들랑.¹⁰⁶¹ 니가 내일에는 오거들랑 고 구실을 입에 영어 주거들랑 골딱 생키 뿌라”¹⁰⁶² 쿠거든.

“골딱 생키 뿌야 되지 니가 안 생키 뿌몬 니가 죽는다.” 일 쿠거든.

그래, 이튿날 아즉에 오이칸 또 처자가 나와가 구실로 그라거든. 이 늑우 몇 번 줬다가 받았다가 이라다가 낸중에는 골딱 생키 뵈다. 생키 뿌니까네, 처자가 마 손뼉을 치며 억울없이 울디이마는 여수¹⁰⁶³가 돼가 마 올라가더란다. 그 총각의 혼을 빼에 가지고 지 사람 될라고 그랬어. 여수 둔갑한다 쿠는 기 고래가지고 인자 사람이 되거든.

[『한국구비문학대계8-13』 박봉하, 청량면, 1984]

1058. 고개 정상에

1059. 구슬을 주면서

1060. 철색鐵色이 끼이고, 얼굴이 검어지고 안색이 나쁘다는 뜻

1061. 그렇게 하거든

1062. 삼켜 버려라

1063. 여우

여우 누이와 오빠

The Fox-Girl and Her Brother

옛날에 딸이 없이 아들 하나만 둔 부자가 살았다. 그는 딸을 원하여서 많은 재물을 들여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절을 찾아가 빌었다. 몇 년 후 그의 치성이 이루어져 딸이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귀중한 보석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그녀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딸이 다섯 살 쯤 되던 해 집안에 이상한 재앙이 닥쳐왔다. 이 부잣집은 수백 마리의 가축이 있었는데, 매일 밤, 암소가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다. 암소의 몸에서는 병이나 상처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목동이 이 원인불명의 죽음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주인은 밤에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명했다.

그날 밤, 목동 한 명이 외양간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자, 주인의 딸이 남의 눈을 피해 외양간으로 들어가 암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소의 뺨속으로 손을 쑥 밀어 넣었다. 그 다음 그녀는 손을 뒤로 뺀고 지켜보던 목동은 그녀의 손에 암소의 간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맛있게 먹었고, 암소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목동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다음날 아침, 목동은 주인에게 가서 그가 본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허튼소리 하지마라! 그 무슨 남부끄러운 생각이냐! 내 딸이 그랬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이러한 거짓말의 값을 비싸게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대로 부자는 그 목동을 죽인 뒤, 다른 목동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하고 소들의 불가사의한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목동도 그 집 딸이 소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목동은 주인에게 자신이 본 것 그대로 말했다가 역시 그의 믿음을 사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세 번째 목

동도 전에 죽은 목동들과 똑같이 보고했고, 주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일이 지속되어 매일 밤, 소뿐만이 아니라 말, 돼지가 한 마리씩 죽어나갔다. 목동은 그들이 본 것을 주인에게 보고했고 한 명씩 차례로 죽게 되었다. 결국, 목동이 모두 죽었고, 마을에는 부자의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자는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외양간을 지키게 했다.

부자의 아들은 밤에 외양간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누이동생이 들어와 암소의 간을 꺼내어 먹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는 네 동생을 그렇게 나쁘게 말해야겠니? 모두 그 애를 질투하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고, 딸에게 그의 모든 애정을 여전히 아낌없이 쏟았다.

가축이 모두 죽자, 사악한 소녀는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겁이 나서 결국 모두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 결국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역시 죽은 채 발견되었고, 그 마을은 완전히 방치되어 죽은 혼령만이 출몰하게 되었다.

집에서 쫓겨난 아들은, 산 속을 떠돌아 다녔다. 그는 노승을 만나 혼령의 세계를 관장하는 도술을 배웠다.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는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보기를 열망했다.

그래서 스님을 떠나 집으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에 노승은 그에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의 세 개의 병을 주었다. 스님이 말했다.

“네가 위험에 처하거든 이걸 사용하여라.” 소년은 그것을 가슴 속에 숨겼다. 그리고 말을 타고 그의 고향마을로 갔다. 소년은 마을이 황폐화되고, 자기 집도 황량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소년이 그의 옛집으로 가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이끼로 덮여있었다. 그의 누이동생은 햇볕 아래 앉아 이를 잡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맞이했다. 그녀는 몹시 배고파 보였고 자신의 손아귀에 붙잡힐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빠를 야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오빠는 누이동생의 물음에 대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니?”

“무덤 속예요.”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누이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자기도 죽이기 전에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누이동생에게 말했다. “누이야, 나는 배가 몹시 고프단다. 앞마당에 있는 부추로 먹을 것 좀 만들어 주겠니? 부추가 꼭 먹고 싶어”

그러자 누이동생은 주머니에서 실패를 꺼내며 말했다.

“오빠는 다시는 멀리 가지 말아야 돼. 내가 가서 부추를 가져 오는 동안 이 실을 오빠의 허리에 둘러 묶고 다른 쪽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야.” 그렇게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가 요구한 대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곧 실을 기둥에 묶고 살금살금 걸어 도망쳤다. 그리고 그는 말을 타고 전속력을 다해 달렸다.

누이동생은 그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전속력을 다해 쫓아갔다.

“오빠! 멈춰! 멈춰!”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녀는 말을 거의 뒤 쫓아 와 손으로 말의 꼬리를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오빠는 가슴 속에서 빨간 병을 꺼내 그녀에게 뱉어 던졌다. 그것은 터지면서 큰 불길을 일으켰고, 그녀는 심하게 그슬렸다.

그러나 그녀는 불길을 뚫고 나와 다시 그를 잡으려 하였다. 이번에 그는 하얀 병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바늘이 무수히 꽂혀 있는 빗장을 지른 길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 장애물도 쉽게 통과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파란 병을 그녀에게 집어 던졌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고, 그녀는 물에 빠졌다. 그녀의 몸이 물 위에 떠오르자, 그는 누이동생의 형상을 하고 있던 것이 여우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국의 설화』, 조경규趙璟奎, 언양彦陽, 1925, 단국대학교출판부]

여우로 태어난 딸

하도 옛날에 아아로 못 낳아가지고서러 저게 원願이 참 아아로 하나, 딸 하나로 낳아야 될다 싶어가지고, 애로 놓을라고 공을 디리가 아아로 떡 서라 뇌놓으이까네¹⁰⁶⁴ 이기 마 쫘지가 있었어. 쫘지가 있어가지고 여수(여우)라. 저 백여수라.

그래가지고 쫘지가 딱 있는데, 요기 차츰 차츰 커가지고시는 가만 보이까네 한밤중 되이까네 나가가지고 마 미로(묘를) 파가지고 오고 미로파가 오는 기라. 이가 마 이래 허여이 이래나고 이렇더라 커메.

그래가 하도 지녔에 그래 나가 썰아가지고 저저 오빠강 저저 엄마가 따라 나가 보이까네, 밤중 된까네, 가디마는 마 미로 파가지고시는, 옷을 얼롱덜롱한 거로 마 가져 와 가지고시는 집에 용바람(용마루) 밑에 갖다다가 마 쑥 집어 Ying어뿌고, 녕큼시리(영큼스럽게) 마 이래 자고시는 이튿날 아직에¹⁰⁶⁵ 또 이래….

그래가 뉘중에 저저 엄마가 요래가 마 땡기다가 발견이 났거등.

발견이 나니까 마 저저 엄마로 싹 자아 무우 뿌거등.¹⁰⁶⁶ 저저 엄마 싹 자아 무우뿌고, 그래 또 인자 저저 아부지도 또 싹 자아 무우뿌고, 마 저저 동생들도 다 자아 무우뿌리고 인자 저저 오빠 딱 잡아 무을 판이라.

그래가 인자 저저 오빠는 벼슬해가 올라키는데, 누가 빙이로(병을) 시 날을 딱 요래 주민서,

“요거로 대기(매우) 급할 직에 씨라.” 쫘거등. 빙이로 시 날을 딱 주민서 그래.

그래 파란 빙이 하나하고 새파란빙이 하나하고 붉은 빙이 하나하고 그래 딱 시 날을 주 거등. 그래가지고 인자 다말아(달려) 인자 집에 오이까네 그렇기 반갑기 가깝기 했다캐.

“하이구, 하, 울 오라배, 하, 울 오라배, 어데 갔다오십니꺼? 하이구, 하, 울 오라배, 어데

1064. 서게 해 놓으니까. 잉태시켰더니

1065. 아침에, 저녁에라고 하여야 하는데 잘못 구연한 것 같다.

1066. 잡아먹어 버리거등.

갔다오십니까?”

그래 마 온갖 임석으로(음식을) 마 딱 마 오만 거로 다 해 놓고 마,

“오빠, 이거 묵어라.” 커고 마 마,

“이거 잡수소.” 이래 딱 내 놓고 이래가 인자,

“하, 오라배, 하, 오라배.” 커고 마….

그래가지고 가마 보이 참 인자 이거 기도 안 차거등.

“오빠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커고,

“하이,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오라배.” 커고 마 이래가 달라들거등.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어디라고, 요거로 눈치로 보이 안 되겠더라 커는 기라.

그래 마 이기 마 요 말 꼬랑대기 요기 마 낭창낭창하도록¹⁰⁶⁷ 자꾸 따라온다. 자꾸 따라 오이까네, 그래가 마 어찌 급한지 요 말 꼬랑대기 요거로 물고 때 딱 요래 되이까네, 그래 마 붉은 빙이로 확 던지뿌이까네 마 불이 마 마 마 확 나가지고 마, 따라올라고 낭창낭창 하디마는 마 불이 붙으이까 몬 와가지고,

“하이구 오라비 한 때 말 한 땀데 인자…, 하이구 오라배요, 같이 갑시더 같이 갑시더.” 고 막 이래가 우애 우애 해가지고 그래 볼로 건니가 왔더라 커데.

건니가 와 가지고시는 또 인자 우애 우애 마 돌아 보이까네, 마 또 인자 말 꼬랑대기 요래 낭창낭창하거등. 요거로 인자 우야꼬 싶어가지고 또 인자 디기 급할 직에 또 인자 푸른 빙이로 마 확 던지뿌이까네, 마 시푸른 바다가 돼가지고 마 인자 이래 몬 오기가 됐는데, 또 우째 우째 해가지고시는 마 뽕 돌아가 마 왔더라 커데.

와가지고 또 말 꼬랑대기 낭창낭창하이 해가지고,

“오라배 한 때 말 한 때, 오라배 한 때 말 한 때.” 커미 또 따라오거등. 이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인자 던지이까네 마 마 아주 아주 마 까시방 밭이 마, 몬 올 정도로 마 까시방 밭이 또 꼭 생기가지고, 그래가지고시는 가가 살았다 커데요.

『한국구비문학대계8-12』 권예영, 언양면, 1984]

1067. 거의 달을 듯 말 듯하다는 뜻이다.

불가사리

불가사리라 카는 거는 옛날에 중을 잡았는기라. 중을 잡으몬 상금을 많이 쫘는 기라.

중을 잡아 오몬 상금을 주는데 인자 즈그 신랑은 돈 많이 벌고 접어서(싫어서) 즈그 신랑은 중 잡으려 보냈는기라. 중 잡으려 인자 보냈는데 즈그 신랑은 가서 중을 못 잡아 오는기라. 중을 잡아 오몬 상금을 열매로 주는 기라. 중을 못 잡아 왔어. 못 잡아 왔는데, 그래 인자 늦으매이 저녁때 다 돼 가이까네 즈그 오래비가 오는 기라.

오래비가 중이든 갑더라.

그래 오는데, 그래 동생들 집이라고 뭐 그 중 잡는데 후두끼(쫘겨) 땡기자 카며 배도 고프고 뭐 목도 마르지. 그래서 밥이사 해 쫘는가 우옛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래 인자 저녁에 어두부리(어둡침침) 할라 칸께 요거 안들이(여자가) 쫘아나가디이마는,

“아이구, 아직 당신은 아직 중 한 마리 못 잡았나?”이라거든. 중을 못 잡았나 이란께,

“아이구, 업더라 못 잡았다.”

“나는 한 마리 잡아 났다.”이라거든.

오래비가 가마이 들으이까, 그래 인자 뭐, 밥이나 한 숟가락 쫘는가(주었는가), 우옛는가, 그래 인자 신고하자 카는 거는 요새 간첩신고하듯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라.

“신고를 하자.”카이 그래 신고하자 카이까네, 그래도 인자 재매(재매)가 좀 낫던갑더라.

“하지 마라. 안중(아직) 못 한다. 하지 마라.”

이거는 뭐 중 잡았다고 상금 탈라고 막 신고하라 캐 썩는데, 그래 안하거든. 인자 그래 신랭이 못 하구로 했거든.

“하지 마라이.”

이래 가 못 했는데, 이튿날 아적에(아침에) 자고 나이까네 기어사(기어이) 신고하라 칸다, 인자.

“신고하자. 신고하몬 뭐 상금은 얼마 안 타졌나? 신고해라.”

그래 지는(자기는) 인자 오래비 듣는 데서 그리 하졌나? 바느질 할라고 요리 이리 썩는

데, 그래 인자 뭐뭐, 남애가(남편이) 못 이기가지고 신고하러 갔는지 몰라.

바느질로 요리 하는데 마 골미로 가아 사부작 사부작 요리 뭐 우예 우예 쌓더마는 새앙
주기 쪼맨한 기 요만한 기 하나 나오거든. 새앙쥐가 쪼맨한 기 요런 기 하나 나와가 인자
바느질하는 데 바늘도 똑 따묵고 뭐도 따묵고 씹는(쇠붙이는) 자꾸 씹는 뭐 씹는 다 따묵
어 빠리.

다 따묵고 그러구로 인자 쪼맨씩 커가아 새앙쥐가 인자 큰 쥐 돼가, 이만한 쥐 돼가 인
자 동네 땡기면서 솔도 다 묵어 뿌고 씨라 카는 거는 다 묵어 뿌리. 온 동네 땡기면서 인
자 마 뛰댕기면서 온 동네 마 전패로 내거든,¹⁰⁶⁸ 마. 씨라 카는 거는 다 주아 묵고 마, 씨
라 카는 거는 다 주아 묵고 전패를 내는데. 그래 인자,

“거어(거기) 가서 불가사리로 잡아라.”

불가사리가 됐는 기라. 그거 잡아라, 이 이래 가 막 불로 나아가(놓아서) 동네다 불로 뽕
둘러 놔 놓고, 씨라 카는 거는 다 주 묵어 봐라. 뭐 나라가 마 전패가 나는 거라. 불로 놔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더라 카는 기라, 그기. 안 죽고 마 이리 뛰댕기고 저리 뛰
댕기고 뛰댕기면서 마 주 묵고¹⁰⁶⁹ 씨라 카는 거는 다 주 묵고 마, 쇠라 카는 거는 다 주
묵어 봐라. 밥술이 어데 있노? 아무것도 없이, 씨라 카는 건는 다 주 묵는데,

그래 인자 하는 말이, 그 뭐로 가리키 쫓는갑더라. 뭐로 우뚱기 하몬 그기 없어진다 카
는 거로 가리키 쫓는 모양인데, 그래서 재매가 가르켜 쫓는 기라.

“여자 하고 이거로 잡을라 카모 낸중예(뒤예) 여차여차 하고 이렇거들랑 소금을 뿌리라.”

그래 가 인자 소금을 뿌리니까네 그기 고마 맥을 못 추더란다. 그래 가 인자 잡았어. 그
라고 끝우게가¹⁰⁷⁰ 쪼매 있는데, 중으로 잡아가 안된다. 이래.

[『한국구비문학대계8-13』 우두남, 상북면, 1984]

1068. 모두 황폐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1069. 주워 먹고

1070. 나머지가

서울나그네¹⁰⁷¹

서울上都에서부터 온 영嶺 밖의 대소읍을 두루 돌아다니는 ‘서울 나그네’가 있었다. 길에서 우연히 걸인을 만나 서로 마중하여 동숙하게 되었는데...

서울나그네가 말하기를

“그대는 친척 중에 그대의 입에 풀칠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설사 있어도 남과 같은가”

걸인이 말하기를

“나의 형, 재물은 도주공陶朱公¹⁰⁷²보다 큰 부자이다. 나의 집은 송곳을 꽃을만한 밭도 없으며, 부역賦役에 시달려 빈곤하여 거지가 되었지요.”

서울나그네가 말하기를

“그대 형은 그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모양이지.”

걸인이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쓸모없는 돌로 가득 찬 몇 뼤의 밭이 내 재산인데 방치해 두고 있었지요. 형의 집에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간직한 채 감추어 두고, 잊어버리고 찾지 않았는데 형은 여기에다 더해 많은 토지를 경작하였고, 아우인 나는 궁색하기가 장님이 지팡이를 잃은 것과 같았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는 것이지요. 부모는 지극히 자애로운 정으로 우리들의 궁핍함을 근심하여, 형이 그 밭을 나누어 진흙해 줄 것을 바랬지만, 형은 따르지 않고, 내가 잃은 것을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부모는 형이 큰아들인고로 그 허물을 덮고 그 말을 숨겨 결국 나를 부자집 근처로 분산시키고 형집으로 발걸음을 못하도록 하였지요. 지금에 와서 유량하는 거지

1071.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현산지嶺山誌(1786)에 진사進士 서석린徐錫隣이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1700년 대의 중반 언양고을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획 개편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각종 부역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어루만지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250년 전의 향토역사소설이다.

시조시인 신동익이 국역하였다.

1072.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신하로 축재의 재주가 있는 범려范蠡의 별칭

무리에 섞이게 되었지요.”

서울나그네가 말하기를

“그대가 부형(父兄)을 위하는 일에는 조금은 잘못이 있다. 그대도 효제(孝弟)가 아니다. 그대가 만약 지성으로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었다면, 어떻게 하여 그대를 이 지경에 까지 이르도록 하였겠는가.”

결인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인의 죄입니다. 설사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운명에 의한 것이지, 부모를 어떻게 원망하고, 형에게 한탄이나 하겠습니까.”

서울나그네는 그 뜻을 가련하게 여기며 망설이다가, 이해가 간다는 듯이 말하기를

“만물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돌고 도는 이치가 있나니, 부형에게서도 그대를 불쌍히 여겨 반드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밤이 되어 온갖 소리 휘둥그레한데 달빛이 대낮과도 같았다. 서울나그네는 잠을 청하는데 홀런 소장삼속에서 노래소리 들려, 놀라 일어나 사방으로 돌아보며 노래가 들려오는 곳을 살피니, 그 사람 결인이 아닌가. 그 노래에 이르기를...

“들녘에 가죽나무가 있어, 그 잎이 무성하나니, 그 해歲가 다가도록 그대를 머물라하네. 산에 복숭아가 있어 그 열매 익어 떨어지나니, 그대 가히 요기를 달랠 수 있을거라네.”

서울나그네는 점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옛 사람은 노래했다네. ‘찌꼬리는 자기를 돌아보며 임종을 노래하나니,’ 제형들은 노래했다네. ‘들녘의 가죽나무 돌아온다 하고 임종을 노래하나니’. 그대가 혼자 일 때는 옛날에 슬펐던 일이 없었는지, 결행을 할 때는 옛날의 잘못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가?.”

결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인정은 대수롭지 않으나 서로 멀리 떨어져 타향을 무리지어 유랑하며 손은 모우고 등은 구부리고 옷은 갖추지 못하여 제멋대로 입고 봉사처럼 하여 구걸하였지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거지를 발로 차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동족(邦族)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집에 있어도 항상 즐거운 날이

없고, 괴로운 부역은 응당 먼 곳까지 가서 역사賦役를 하여야 하고, 부역의 고통은 고행의 고통보다 심한 것이다. 거지의 고통은 몸의 괴로움은 그치나 마음까지 그렇지 않았다. 나 스스로 고행을 한 이후 몸은 피곤하나 마음은 편안하였다. 그럼으로 이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그네는 길게 후유게를 내 뿔으며 말했다.

“몸으로 부역을 치르는 고통은 이보다 더욱 심하지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대저 과객들은 거지의 말투로 말하는 언양사람과 더불어 언양을 이야기하면서 언양을 지나간다.

언양 사람이 크게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말하였다.

“이것 무슨 꼴인가. 거지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언양사람이 겪는 고통이 서로 꼭 흡사하다.”

서울나그네가 말하였다.

“내 서울로부터 관서, 관북을 지나 호남, 호서를 거쳐 영남에 이르도록 고을州·縣을 빠짐없이 다녀 보았지만, 아닌게 아니라 언양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고을郡을 목격하지 못했소. 그리고 또 온 고을 안이 장차 모두 거지가 될 거라는 소문을 듣지 못했소. 언양의 피폐가 더 커지게 된 연유와 이지경이 되도록 한 이가 누구 때문인지 듣고 싶소.”

언양사람이 잠시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응답하기를

“어찌하여 언양이 잘 되지 않는지를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지요. 언양은 준령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돌이 많고 메마른 분지로, 다섯 가지 곡물이 경작 되지 않는 곳이고, 무명(포목)이 생산되지 않고, 또 네 개의 산이 웅장하게 깎아올려 있고, 한 내川가 무너져 벗겨 흐르고, 바람과 서리, 한발과 폭우의 우환과, 누리새끼蝗蟲 독충 등사蠃蛇 등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지요. 그 때는 연혁이 양산에 속해 있었지요. 울산으로 복설된 초기에는 그 살 곳을 정하기에는 아직 읍의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지요.”

백성은 오히려 자연山澤의 혜택을 입어 다행히 구리·쇠·자수정 등이 나고, 인삼·백출·전죽箭竹·버섯 등이 났다. 못과(정제鄭堤) 맑은 거랑(백거白渠)에는 황어·은어·붕어

가 한가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고, 못은 말라 백해百害가 어울려 모이고 삼재三災가 거듭 연달아 옴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산이 연이어 있고, 고을에 산물이 없음이 오히려 백성들의 궁핍 함을 재촉하였다.

예를 들면 쇠화로에 버드나무 문양이 없는 격이요, 산이 이어져 있어 우환이 되는 것은 중국의 석종산과 같았다.

대저 언양의 경계는 서쪽은 청도·밀양이고, 겨우 10리 남짓한 북쪽에 경주, 남쪽으로는 양산, 동쪽으로는 울산과 경계하고 모두 서쪽 거리와 같이 4방의 경계 거리가 20~30리에 불과하였다.

그 방곡坊谷은 곧 내川를 중심으로 불과 남·북 2면뿐이고, 호수戶數 곧 이름은 1,220여 호였다.

장적(호적대장)의 소재는 단지 조정의 영에 의거하여 이미 황급히 구비하였고, 홀아비·과부·고아·홀노인·악종 질병의 환자도 호구를 만드는데 그 수를 채웠다.

만약에 거짓으로 마룻대(도리)에 점검표시를 한 허호虛戶를 조사하여, 역호驛戶와 교·원校·院의 비복, 관노비가 되게 하였고, 각종 항목各項에 탈이 난 자를 제외하고 부역에 응한 민호가 650여 호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 가지 군(총군總軍)의 간책소刊冊所에 속한 호가 1,780여 호에 이르고 그 외 선무·별무 각 군영소속 및 교원생관·군관 등 수없이 많아 그 수가 1,780명이고, 군액(군의 정원)을 650~660호는 이미 호수가 적고 인구가 부족한 고로 따라서 수군·육군은 수육군 겸 속오군을 대동하여 충당하였고, 경군(중앙군)은 경군 겸 이미 군오의 대열을 수행하고 있는 분방 1인을 대동하여 충당하였다.

또한 개간한 2~3년 된 새밭을 상납하여야 했고, 부역은 2중, 3중 겹치고, 아비는 장정 네 사람 몫을 부담하여야 했고, 형은 다섯 몫을 부담을 해야 했다. 그래서 분동分棟할 방법도 없었다.

1년 내에 도망쳐 죽은 자 50~60명 넘었고, 제반 사고를 당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각 마을 모두는 매회 부역과 세포稅布가 해당될 때마다 번번이 두 세 살, 댓 여섯 살

난 이이들까지 세를 받치기 바랬음으로 눈앞이 캄캄하여 일손을 놓았다. 그 중에 소위 장정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여 찾아내자마자 부역을 시켰다.

사람들은 뿌리 내리지 못한 풀과 같았고, 고용의 충원이 마감하자마자, 보고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도망쳐 버렸다.

하물며, 균역均役 이후에는 양군良軍으로써 수군·육군을 세우고, 경향京鄕은 부득하게 검역을 하였는데 이름을 헤아려 가지각색으로 그 수를 정하였으며, 또 그 머리수를 채우는 호역戶役은 백 겹으로 보태어 더욱 심하였다.

부역이 극도에 달해 자주 이사를 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까지 면제하지 않고 머리수를 채우고, 백골에도 면제하지 않고 군포를 징수하였다. 공명空名에도 군포를 징수하고, 즉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 그 동洞에 징수하였다.

언양의 군적 명부軍案에 예로부터 미륵彌勒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즉 천전리(상북면)의 한정閑丁의 이름인 것이다. 균역포를 징수하는 날에 천전리 사람들은 원통함을 길가에 있는 석불에게 호소하였다.

즉 ‘석불 너의 미륵彌勒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의 부역이 우리들의 부역으로 속했으니 너가 부역함이 옳다’고 외쳤다.

이튿날 보니 미륵彌勒의 어깨에 무명 수 필이 걸려 있었다.

얼씨구 좋다. 이는 석불이 영험이 있어 도운 것이다. 지금 미륵彌勒이라는 이름이 군적에 올라 있는 수가 수 백 명이나 되었다. 옛날에는 영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영험이 없는가?

백성이 궁핍하면 부처 또한 궁핍하다.

아! 그렇구나.

하늘이 높아 열게 할 수 없고, 겨울을 꿰메어도 구슬이 될 수 없고, 조가(대궐)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궁한 백성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역役을 맑게 하여도 박토를 맑게 할 수 없고, 세금을 없애도 신역身役을 대신 할 수 없도다.

이 모두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대책이 없음이다. 그럼으로 인족隣族·전역田役·호역戶役을 종용하고, 또 한편으로 찌르고 다른 한편으로 감독하여 명령을 따르게 하였다.

잡다한 우환이 연이어 따르고, 골수를 치고 껍질을 벗기니 부득이 신역 · 횡정을 인즉
이 달갑잖게 대신해 주었다.

본현의 사정은 지난해부터 심하게 되어 예년 같지 않고, 내일이 어제 같았다. 소나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 꼴이니 앞으로 가는 곳마다 사지死地였다.

눈앞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고식적인 계책이지만 ‘달아날 주走’가 최상책이다.

본 현의 사람 역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거둬 옮겨야함을 근심해야하고, 친
척과 선영을 돌보고자 하여도 친척과 이별하고, 고향 언덕에 있는 선영先塋에서 있었던
즐거움들을 버리고, 객지에서 찬밥을 빌어야 하는가.

그 세력 고루하여, 읍이 읍답지 못하게 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하나니 슬프다.
대저 언양사람 역시 왕의 백성이다.

어찌하여 한 나라 안에 고락苦樂이 불균일하며, 한 나라 국민의 고역과 편합이 현격하
게 다른가.

봄 햇살의 은혜가 궁핍한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의 빛이 다시
는 이롭게 비추지 않음과 같다.

민심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임으로 마땅히 국가적 대책으로 환난이 없을 때에
는 노인과 어린이로 정원을 충분히 양성하여 대신하고, 군포軍布 징수와 부역 독려는 가
족 및 이웃으로 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완급한 환난에서 벗어 날 때도 의외로 전학지혼
墳壑之鬼(죽은 사람), 와화지아臥禍之兒(부모가 도망하여 아이에게 생기는 화)가 생기는
데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지팡이를 잡고 장사를 치르고, 이웃이 도망하였을 때 그 가족
을 대신하여 보살펴야 한다.

말과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실로 한심스럽다.

본 현의 정세는 태평한 세상 이후로 이미 자립하기는 어려웠다. 또 완만한 응급에 대비
한 준비를 갖추는데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또 읍명邑名을 무익읍無益邑으로 헛되이 취
급하였고, 읍민과 읍 둘 다 버릴 수 없거늘 둘 다 방치하였다.

낙토樂郊가 어디에 있는가, 저 이웃 마을에 있다네. 진실로 조금씩 굴러 온다면, 나 또
한 낙토에 사는 사람일세. 균역의 변화에 흠뻑 젖고 싶다네.

홀아비 · 과부 · 고아 · 홀노인이 호역戶役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 잔여분은 이웃사람에게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유호幼戶를 겁주어 과징함으로 월경을 하고 발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마치 한 개의 이가 빠지면 차례로 다른 이가 매질하듯 움직여 조만간 무너져 흩어짐과 같다.

환란의 위태로움은 일전의 ‘단양丹陽 · 회인懷仁 이후’와 같아 이미 뿔뿔이 흩어진 후에 다시 백성을 모으는 영수가 있음이니,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미 너무 늦어 아무 것도 없음이다. 사사로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

만약 읍의 연혁을 개혁함이 지난날에 양산에 속하고, 울산에 속하고, 경주에 분속된 것과 같지 않다면 특히 권세로부터 벗어나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올바른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보호하기 어려웠던 양산에 속한 읍남邑南을, 울산에 속한 읍동邑東을, 경주에 속한 읍북쪽을 구법전舊法典인 연혁沿革의 규정에 따라 개혁한다면 백성은 살 곳과 집을 잃지 아니하고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군역청을 시설한 초기에 주·현을 합병合併하는 것도 병폐를 개혁하는 구체적인 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연혁으로 어렵다면 안전한 방책으로 구역화하여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심고 복돋워 주어야 한다. 또 전에는 언양의 북쪽 경계였는데 경주의 남쪽 경계가 된 호암虎岩이라는 곳이 있다. 중간 연혁 때 경주로부터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이는 언양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 경주사람 역시 이 호암을 양 읍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라고 운운하고 있으나, 여지輿誌 외편에 공정하고 명백한 초고原稿문자가 보이고 있다.

옛날 병자년에 순절사 정공貞公 최진립崔震立의 행장 중에 언급되어 있다. 만력 임진(1592 선조 25년) 4월 일 공은 무인武人 김호金虎와 함께 수천 병사를 모병하여 잠복시킨 바 있다.

언양의 경계인 인박재咽薄(지금의 열박)에서 많은 적을 목 베었다고 한다. 인박咽薄 곧

호암虎岩 근처이다. 호암은 구 언양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양읍은 당연히 북구해야 할 미수복지이다. 경주 사람이 당연히 반환해야 할 미반환 지구다.

대저 크게 분할하여 작은 부분을 주고, 많이 나누어 적게 주는 것이 바로 왕정王政의 방식인데, 먼저 연혁을 함으로써 친소의 차별 없이 널리 평등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공심의 바탕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혁이 사사로우면 일이 중대重大해지고, 너무 쉬우면 얻지 못한다. 그 구획區劃이 임기응변으로 처리된 즉 언양의 앞 본보기가 있지 않은가.

‘자인慈仁’은 경주로부터 인지仁之를 돌려받아 다시 현縣이 되었다. 그 옛날의 경계를 돌려주고 받는 일이 그쳐서는 안 된다.

조가朝家:朝政는 또 경주에서 구사를 한 개의 현縣 즉 광자현廣慈縣을 분할했다. 언양 사람들은 자인慈仁이 그 땅을 돌려받은 것처럼 호암虎岩을 돌려 받고자한다.

구사仇史외에 또 구사仇史(행정 개편 때 구사에 편입 된 땅)가 있는데, 당연히 한 개의 구사仇史를 분할하여, 언양읍의 부족한 곳(행정 개편 때 구사에 편입된 언양땅을 보충시켜야 한다. 이것이 언양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어찌 감히 바라기만 한다고 구사仇史를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아! 이 어찌랴!

조정朝家은 자인慈仁에게는 두터우면서厚 언양에는 이토록 야박薄하단 밀인가. 어찌 자인慈仁의 지성은 하늘에 닿아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언양사람은 그러지 않아서일까.

연혁의 분할 법규에 따라 가까이 있는 것을 골라 끌어 붙이게 되었다. 역시 옛날에도 그렇게 한 예는 많이 있다. 성주星州·화원花院·밀양密陽의 풍각豐角을 분할하여 대구大邱에 편입시키고, 영천의 옛 현縣인 미촌尾村을 분할하여 신영新寧·하양河陽에 편입시키고, 하동河東의 악양岳陽은 곧 진주晉州땅에 편입시켰다. 옛날에 기장機張이 얻은 하미下尾는 울산蔚山の 남쪽 경계였다.

최근에 음죽陰竹이 고곡古谷을 얻은 곳은 즉 충주忠州의 서쪽 경계면西面이다. 본 현은 자인慈仁·하동河東·기장機張·음죽陰竹 등 타읍에 비해 유달리 박薄하였다. 타읍이 능히 하고자 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항심恒心이 없기 때문이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음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세거하는 사람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자리만 지키고 피폐함을 염려만 했다.

사사로이 하늘의 신령을 청하여 기장機張이 얻은 하미下尾와 같은 옛 땅들이 돌아오기를 빈다고, 이 바램들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겠는가. 생각은 때 따라 구구하나, 울산 본 10면을 분할하여 1면을 기장機張에 주면, 울산이 비록 잃었다라고 어찌 아니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장이 얻지 않았다면 대읍이 되었을까? 옛날에는 읍 모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하물며 경주 땅은 40여 면이다. 경주의 1면은 비록 산·곡山·谷간의 사이가 없고 토양이 검은 중읍보다 대배大倍나 된다. 어찌하여 웅장한 중부中府의 길에 있으면서 그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조사해 보면 기장과 울산이 경계다툼을 할 때 증명할 만한 문서가 있다. 즉 그때에 도계道啓(도의 공문)에 이르기를 ‘울산이 잃었다고 하는 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다. 기장이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인이 천금을 얻은 것과 같다. 그 득실의 경중은 서로 거리가 심히 멀다’고 하였다.

비변사備邊司(備局)의 계시에도 말하고 있듯이 물론 피차 왕토(국토)를 함께 하고 있다. 울산 사람과 기장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사로운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있는 자체를 일삼고 단절하는 것은 지나치게 분수에 넘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본 현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장機張이 이미 그러했다는 흔적을 사실대로 남겨 영문 營門에 알리고, 비변사備邊司(備局)에 반드시 이러했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함이다.

하물며 본 현의 피폐함은 기장 보다 심하였다. 경주는 울산보다 대배大倍의 울타리(땅)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정축丁丑(1757년) 연두에 한 읍 모예旆倪에 모여 폐단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공론 끝머리에 호암虎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론 도중 빈틈을 타 경주인은 본래 ‘도독놈인가’라는 의문스러운 말이 새어 나왔다. 그 논쟁은 뽕나무 새움 다투듯 왕성하였다.

슬픈 일로 이를 갈며 울분을 토하였는데, 소속관은 점경지대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함

정에 빠뜨리고 자유를 구속하고, 문지기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수사하고 잡아들였다.

고백해 말하기를 산사람은 뽕뽕이 흩어지고, 집이 열 채 가량 있는 적은고을十室之邑, 언양사람의 짐(부담)이라고 불평불만이 물 끓듯 끓어올랐다.

그래서 무리지어 모여서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말하기를

“우리가 속한 땅(언양)이 동도(경주)를 어찌 꺼리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서울나그네가 거지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는 바로는 고통의 참혹함이 확실히 언양사람과 매우 흡사하다.

경주와 언양은 비록 배꼽과 무릎,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역시 노나라魯와 위衛 나라 사이에 형제의 의義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주는 곧 언양의 부자형이다.

형에게 크게 보충하여 주고, 아우에게 유달리 적게 나누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주에 속한 호암 이남은 형에게 속한 부담스런 돌(짐)에 지나지 않는다. 대의에 따라 그 당연히 돌려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 그 할 수 없는 궁핍에서 하는 도둑질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무릇 안으로 찬양하고 밖으로 선화하는 대군자 모두 백성들의 부모인 것이다.

진실한 부모의 마음으로 언양사람의 정세를 살펴 그 구휼을 처리함은 언양사람들의 사사로운 바람에 부응하는 것인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언양사람을 거지赤子 취급 하였고, 돌려 달라고 넣었던 청請은 죽어서 시체가 도랑이나 골짜기에 버림溝壑받은 것처럼 버렸다.

그러함으로써 경주사람은 예전의 장자莊子가 되었기 때문에 거지의 부모처럼 잘못을 숨기고 말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더욱이 다른 고을縣을 약자가 되게 하였고, 장차 모두 부잣집 이웃의 비린뱅이가 되게 하였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라.

서울나그네는 일어나면서 손뼉을 치고 하늘을 보며 크게 웃으며 하는 말이

“옛날에 광천국狂泉國이라는 나라에 ‘광천狂泉’이 있었는데 광천국 사람이 광천의 물을 마시고 모두 미쳤다 한다. 언양에도 역시 광천이 있었다면 언양사람 모두 미치광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너의 무리들이 모두 미쳐서 세상 돌아가는 법도를 알 수 없고, 역시 스스

로 국량局量 할 수도 없다.

대저 친형제이고 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역시 금재鎡財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 이는 거지에게는 쓸모없는 돌로 보이지만 형에게는 집을 운탁하게 하는 것으로 모은다.

노魯나라와 위衛나라 사이에 형제의 의義로 잃은 땅을 돌려주고 돌려받은 일이 있다. 이것은 망망대해에 배舟 띄워 놓고 갈 찾지요, 당사唐肆에서 말馬찾기이다.

그런 일¹⁰⁷³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또 경주는 큰 나라이다. 경주 윤尹은 제후의 큰 봉토인 것이다. 문벌과 세계世系는 주周나라가 그토록 돌려받고 싶어 하던, 진贅나라 왕이 하사한 땅이다. 주나라 소량묘召廊廟가 도백道伯에게 공경과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바친 땅이다.

그것을 본받은 언양현감은 아이가 한눈 판 사이에 소아의 떡을 훔쳤을 뿐 아니라, 언양사람이 논의한 것을 주장하는 창구인 편지를 막음으로써 만족하였고, 언양사람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길을 막음으로써 만족하였다.

이를 갈며,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머리를 때리고, 눈을 찌푸리며 위협하였다. 이에 감히 대항하여 굴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함은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들려고 하는 것’과 ‘사마귀가 큰 바퀴자국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기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고기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앙災殃은 없는 것이다. 만약 구하려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고자 하다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을 것이나 뒤에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또 자사子思(춘추시대 노나라의 유가. 공자의 손자로 증용을 지었다)라도 말 못할 것이다.

‘심植은 자가 북돋우는 것’, ‘기울면 넘어 지는 것’ 이것은 항상 하는 것으로 영구불변하는 천리인 것이다.

1073. 땅을 돌려주고 받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고, 위아래로 찬양선화 해야 함인데 어찌하여 한 번 어루만
져 주지 못하는가.

천리는 상식이다. 따라서 이미 심어진 것을 복돋우는 것은 큰 고을大府이 할 일이요, 오
히려 이미 기울어 넘어진 것은 소읍이 아닌가.

언양사람이 꺾히는 길은 먼 길이다.

언양사람의 말은 미친 말이다.

나는 앞으로 너희 읍이 광천狂泉이 되는 것을 막아, 너의 무리가 다시 마시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언양사람이 이 광경을 자세히 듣고서 할 말을 잊고 길 가에서 오래 통곡하며 말하기를
“전날에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유랑생활을 할 적에 나는
이미 미치광이가 되었다.

영객(서울나그네)께서는 이미 미친 나를 대저 떠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미
쳤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미칠 노릇이다.”

서울나그네

“다만 떠나갈 뿐이다. 아니 그런가.

왕토(국토)가 아닌 곳이 없는데, 어느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아 청도淸道가 아니면 밀양密
陽으로, 울산蔚山이 아니면 곧 양산梁山으로 한 번 이별로 거처를 빙빙 고리물고 돌았다.
번거롭고 심한 부역을 피하였다.

가이 인족隣族(가까운 혈족)에게 부과되는 횡징橫徵¹⁰⁷⁴을 면하였다.

내 몸은 비록 고달프나 내 마음이 편안하면, 비록 타향의 도랑에 뺨을 버리고 이역에서
우화등선羽化登仙¹⁰⁷⁵함과 무엇이 다르리. 서로 이끌며 치하하였다.

천전 돌부처가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이후로는 너희들은 책임을 벗어나 공명세空名稅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

1074. 조세를 제멋대로 거두어들임

1075. 사람의 몸에 날개가 생기어 하늘로 올라가서 신선이 됨

느니라.”고 말하였다.

서울나그네 물음에 되돌아가 말하기를

“도망 다니는 나그네 걸아인 내가 선걸자先乞者로써 어느 곳에서 장차 전도를 하겠는가.”

나그네가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한참 지나서 망설이다, 걸인이라는 뜻이 이해가 간다는 듯이 비유해 말하기를

“너희 읍을 잠깐 기다려라 하는 것은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큰 별大易을 돌려받은 바와 같다. 직함과 성함은 항상 있는 이치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인慈仁’과 ‘기장機張’은 다시 구 경계를 돌려받았다. ‘하동河東과 음죽陰竹’은 구걸하듯 하여 다른 경계의 땅을 얻었다. 이 모든 현縣들은 양기를 타고 회복할 운이다.

대인이나 군자는 행정구획을 처리하여 편하고 올바른 대책을 얻고자 함이다.

지금도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고, 하늘에는 기룡夔龍이 있고, 조정에는 순백鄒伯이 있는가? 어찌하여 서로 짝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게 큰 것과 작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또 부양했다 억압하고, 주었다 빼앗는 법이 공법公典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양이 구 경계를 다시 돌려받는 날이 가깝고, 언양 유민들이 다시 돌아와 모이는 길이다.

너희 무리가 꺾이는 것은 잠깐의 길운으로 안락한 땅을 얻을 수도, 즐거움을 크게 할 수 없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호암을 두고 이야기함은 아무런 이익이 없고, 반드시 후환이 있을 뿐이다.

한사람이 곁에서 자세히 듣고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들었다.

동산銅山이 서쪽으로 기울고, 낙종洛鍾은 동쪽으로 응하도다.

임은 언양읍을 기울어지지 않는 동산銅山으로 만들려 한다. 대인군지에게 스스로 올리는 낙종洛鍾을 만들라고 한다.”

나그네 역시 물정에 어두운 미치광이인 것이다.

일세의 웃음꺼리를 낳아 이바지한다고 운운...

그 문답을 기술함으로써 끝마친다.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헌산지」 서석린,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인용도서

- 『울산·울주향토사蔚山·蔚州郷土史』, 울산문화원, 1978.
- 김석보, 『蔚山遺事』, 소문출판사, 1979.
- 『내 고장의 전통傳統』, 울산시, 1982.
- 『내 고장의 정기精氣』, 울주군, 1983.
- 『전설의 고향』, 삼성문화사, 1984.
- 강길부, 『향토郷土와 지명地名』, 정음사, 1985.
- 『韓國口碑文學大系』 8-12,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이유수, 『울산지명사蔚山地名史』, 울산문화원, 1986.
- 김승찬, 『慶南地方의 民譚』, 제일문화사, 1986.
- 『울산시사蔚山市史』, 울산시, 1987.
- 서민정, 『삼세인과』, 장안정사, 1988.
- 『웅상읍지熊上邑誌』, 웅상읍사무소, 1995.
- 이유수, 『울산향토사연구논총蔚山郷土史研究論叢』,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6.
-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 『전설의 고향』, 태을출판사, 1997.
- 김대원, 『서라벌의 망부석 아직도 울음 운다』, 글밭, 1999.
- 『울산광역시사蔚山廣域市史』,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울주군지蔚州郡誌』,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 『언양읍지彦陽邑誌』,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 2001.
- 『상북면지北上面誌』, 상북면지편찬위원회, 2002.
- 『삼남면지三南面誌』(증보판),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2002.
- 『울주삼남지蔚州三南誌』, 삼동면지발간추진위원회, 2002.
- 『삼동면지三同面誌』, 삼남면, 1998.

『웅촌면지熊村面誌』, 웅촌면지편찬위원회, 2002.
 『청량면지靑良面誌』, 청량면지편찬위원회, 2002.
 『온양읍지溫陽邑誌』, 온양읍지편찬위원회, 2002.
 『온산읍지溫山邑誌』, 온산읍지간행위원회, 2002.
 『서생면지西生面誌』,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범서읍지凡西邑誌』, 범서읍지편찬위원회, 2002.
 『두동면지斗東面誌』, 두동면지편찬위원회, 2001.
 『두서면지斗西面誌』, 두서면지편찬위원회, 2001.
 정인섭. 『한국의 설화』, 최인학, 강재철 역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蔚州지명지리지』, 울주군.울주문화원, 2020.



참고자료

조흥제, 『울산방언』, 도서출판 제일, 2000.
 신기상, 『울산방언사전』, 울산광역시, 2013.
 田島泰秀. 『溫突夜話』, 教育普成株式會社, 1923.
 伊泉伍重, 『朝鮮の伝説』, 大東印刷書館, 1944.
 『애향愛鄉』(3집), 1·2구락부俱樂部, 1972.
 윤기로, 『傳說 찾아 三千里』, 인창서관, 1972.
 민병훈, 『傳說 따라 三千里』9.13.15.18, 동림출판사, 1975.
 김열규, 『神話/說話』, 한국일보사, 1975.
 『蔚山·蔚州郷土史』, 울산문화원, 1978.
 민병훈, 『전설의 내 고향』, 광복사, 1979.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 홍성사, 1986.
 최정희, 『한국 불교전설 99』, 우리출판사, 1986.

최운식, 『한국의 민담』, 시인사, 1987.

임재해, 『韓國口傳說話』, 평민사, 1993.

최인학, 『구전설화의 연구』, 새문사, 1994.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한국 대표 설화, 상·하』 빛샘, 1994.

박시인, 『알타이 神話』, 청노루, 1994.

서정오,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현암사, 1996.

『이야기 종교설화』, 한실미디어, 1996.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9.

최인학, 『조선조말 구전설화집』, 도서출판 박이정, 1999.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강길부, 『땅이름 울산사랑』, 정도, 2002.

일연, 김부식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리상호 외 옮김, 보리, 2006.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구비문학 개설』, 일조각, 2006.

권순우, 『한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송원, 2006.

이영희, 『한손에 잡히는 우리민담』, 자작, 2006.

이신성, 『千金을 전하기보다 學德을 전하라』, 보고사, 2006.

강길부, 『울산 땅이름 이야기』, 해든디앤피, 2007.

데.체렌소드눔, 『몽골의 설화』, 이안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7.

김종균, 『조선후기 대도설화 연구』, 2007.

이수봉, 『울산의 옛 이야기』(1,2), 경인문화사, 2008.

박명숙, 『한중 운명설화 연구』, 민속원, 2009.

최태웅, 『풍자와 설화의 한국사』, 새벽이슬, 2009.

노성환, 『한일 신화의 비교 연구』, 민속원, 2010.

이경윤, 『세계의 신화와 전설사전』, 다인북스, 2012.

김선주, 『울주의 옛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울주군, 2014.

다지마 야스히데, 『온돌야화』, 신주혜. 채향숙 공역, 학고재, 2014.

《후기》

할때 무릎아래서 ‘옛날이바구’해 달라고 졸라대던 때가 있었다. 꺾어보니 한 갑甲이 훌쩍 넘었다. 책조차 흔치않았던 시절이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옛날이야기야 말로 심성心性을 기르는 자양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바라는 아이가 적으니 자연스레 구비전승은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려고 한창 움직일 때 갑자기 나에게 임명이 떨어졌다.

“이 이사,¹⁰⁷⁶ 울산의 민요를 한자리에 모아 달라. 그리고 갖은 책에 흠어져 있는 울산의 설화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울산문화원의 주문이었다.

소리는 돌아다니면서 채록 중이었는데,¹⁰⁷⁷ 보태어 모아보니 한권의 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책이 『울산의 전설과 민요』다.

그로부터 불과 4반세기. 그때 구연하시던 어른들은 이제 기억의 끈을 놓았거나, 작고하였다. 그리고 전승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올해 봄 현장에서 느꼈다.

새삼 거창하게 인류학까지는 들먹이지 않더라도 구비전승, 설화야말로 민족의 혼이 녹아있는 유전인자라는 생각에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좌절이었다.

방향을 바꾸기로 하였다. 이미 조사되어 활자화된 것만 모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자료를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또 벽이 가로막았다.

언양에서 전설을 ‘기가 막히게’ 구연해주시는 분께 여쭙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구께, 이전에 나지오¹⁰⁷⁸에서 ‘전설따라 삼천리’를 안했나. 그게 울산이바구는 새기 들었다”

문화방송은 1965년 5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방송을 하였으니 무척 방대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MBC’에 알아보니 ‘없다’는 답변이었다. 또 다른 방법, 이 자료를 책으

1076. 그 무렵 나는 울산문화원 이사에 선임되어 있었다.

1077. 평범한 직장인으로 틈틈이 녹음기를 들고 돌아다녔다.

1078. 라디오

로 엮었다는 정보에 따라 동림출판사의 『전설따라 삼천리』 20권 전질을 찾으니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검색하니 10, 12, 13, 17권을 제외한 16권이 있는데, ‘책바다’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니 ‘모두 분실’이다. 또 다른 도서관에서 검색하면 ‘소장가치가 없어 파기’다. 인터넷을 뒤지고, 부산시 보수동 헌책방골목과 서울 청계천 헌책방거리를 뒤져 겨우 네 권을 찾아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50여 권의 구비문화관련 도서를 확보하고, 울산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통해 여기서 ‘울주의 설화’만 800여 편을 모았다. 이 속에는 여러 책에서 겹친 사례가 많았기에 다시 간추리고, 내용이 흡사하면 통폐합하고, 다시 정리하니 신화 16편, 전설 342편, 민담 239편 등 모두 597편이다. 이 가운데 같은 내용이 여러 편이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다르고, 전개 방향이 다르면 간추려 수록하였다.

1960년대 깨알만큼 작은 세로쓰기 글, 더구나 인쇄가 희미해 보기 어려운 글도 모두 텍스트파일로 입력하기 몇 달. 이 가운데 『한국구비문화대계』는 1970년대 향리의 어른들이 구연한 발음 그대로 적어 두다보니 ‘울산토박이’인 나도 모르는 사투리가 부지기수다. 더구나 문맥이 각각이라 반드시 글을 윤색할 필요가 있었다. 윤문 작업에 국어 교사 출신인 이동환 선생께서 같이 몇 달을 수고해 주었다.

분류작업을 하면서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었지만, 각각은 그 영역을 넘나드는 데, 「우렁각시」의 경우 최인학, 강재철은 우렁각시와 그의 신랑이 죽어 영혼이 파랑새가 되므로 신화의 범주에 넣었지만, 상북면에서 채록된 내용은 우렁이가 화해 둘이 살므로 민담이 되었다. 이런 사례는 「여동생으로 둔갑한 여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막내아들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므로 신화가 되지만, 여우를 물리치고 이승에 머물면 민담이 된다.

울산사투리를 모은 방대한 『울산방언사전』 등이 있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낱말을 찾아 현장의 노인을 찾기도 했다. 무식한 사람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울주설화』 상·하 두 권을 상재上梓하니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자료를 꺾어 목걸이¹⁰⁷⁹⁾’를 만들었으니, 연구자들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선조들의 지혜와 교훈을 찾고, 나아가 같은 설화라도 등장인물 또는 전개, 배경, 분석을 통해 학문의 열매를 만들어 책꽂이에 올려 주기 바란다.

덧붙임 : 저작권을 흔쾌히 허락해준 한국학중앙연구원『구비문학대계』와 단국대 출판팀『한국의 설화』
등과 아무리해도 연고자를 찾지 못한 제일문화사『경남지방의 민담』 등이 있었음을 밝힌다.

신축년의 저무는 날
울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이상도

1079. 구술. 내가 지은 글이 아닌 선인들의 이야기이기에 이렇게 표현한다.

울주연구 제18호

울주설화 ㉓

신화·민담편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울주문화원 부설 울주향토사연구소

주 소 (44970)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
울주민속박물관 2층(ulju0574@kccf.or.kr)

전화 (052)204-4033

팩스 (052)204-4043

홈페이지 www.ulju.or.kr

발행인 노명숙

집필 이상도

공동윤문 이동환

감수 문쌍영

진행 최우영

북 디자인/제작 더종북스 052-227-2720

ISBN 979-11-956239-3-8

ISBN 979-11-956239-1-4 (세트)

비매품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전재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고자 하면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구비문학대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의 설화』는 단국대학교출판부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것처럼 원산지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울주
설화 下 신화.민담편

비매품/무료

94900



9 791195 623938

ISBN 979-11-956239-3-8

ISBN 979-11-956239-1-4 (세트)